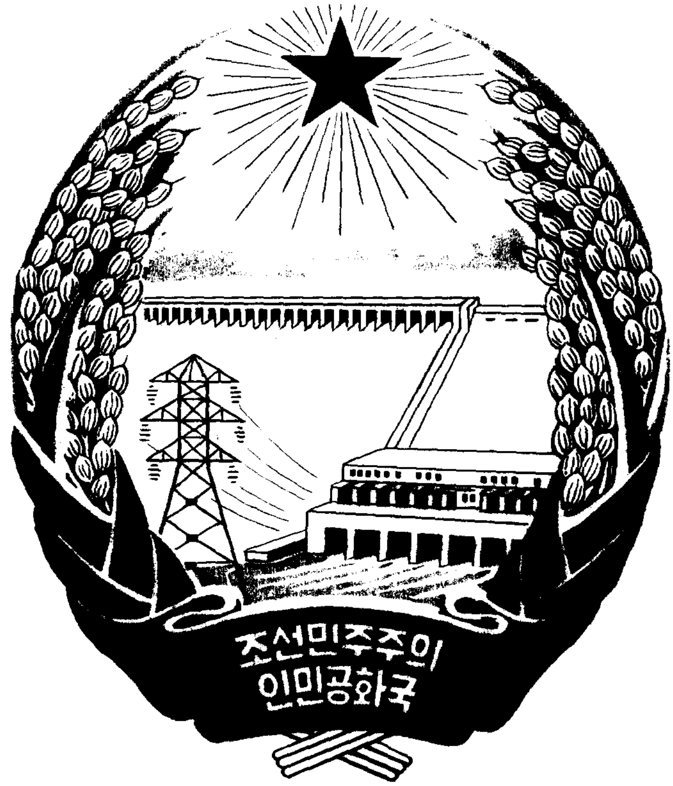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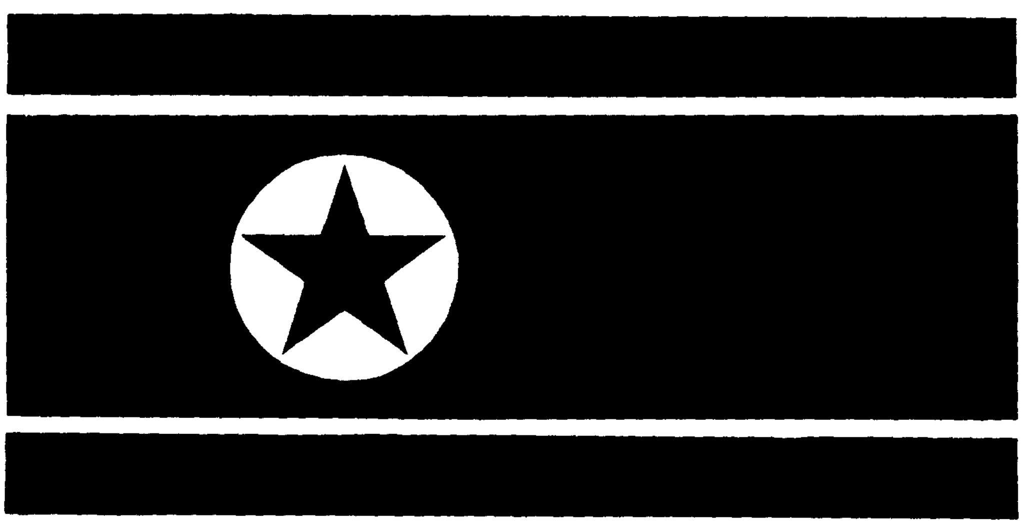
# 조선중앙년감

## 1971

조선중앙통신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 차 례

## 김일성동지의 보고, 로작, 연설

## 혁명력사자료

# 서 술

## 국 내



###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

# 정 치



# 국 방



# 사회주의경제건설

## 사회주의문화건설



## 인민생활 향상



##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 미제강점하의 남조선 형편



## 재일조선공민



## 국　　제

김일성동지는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반제반미투쟁의 위대한 전략가이시다

## 아세아주



## 구라파주

## 아프리카주

## 미 주



## 대양주 및 량극

# 문건 및 자료



## 공화국 정부 및 외무성 성명, 비망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 비망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성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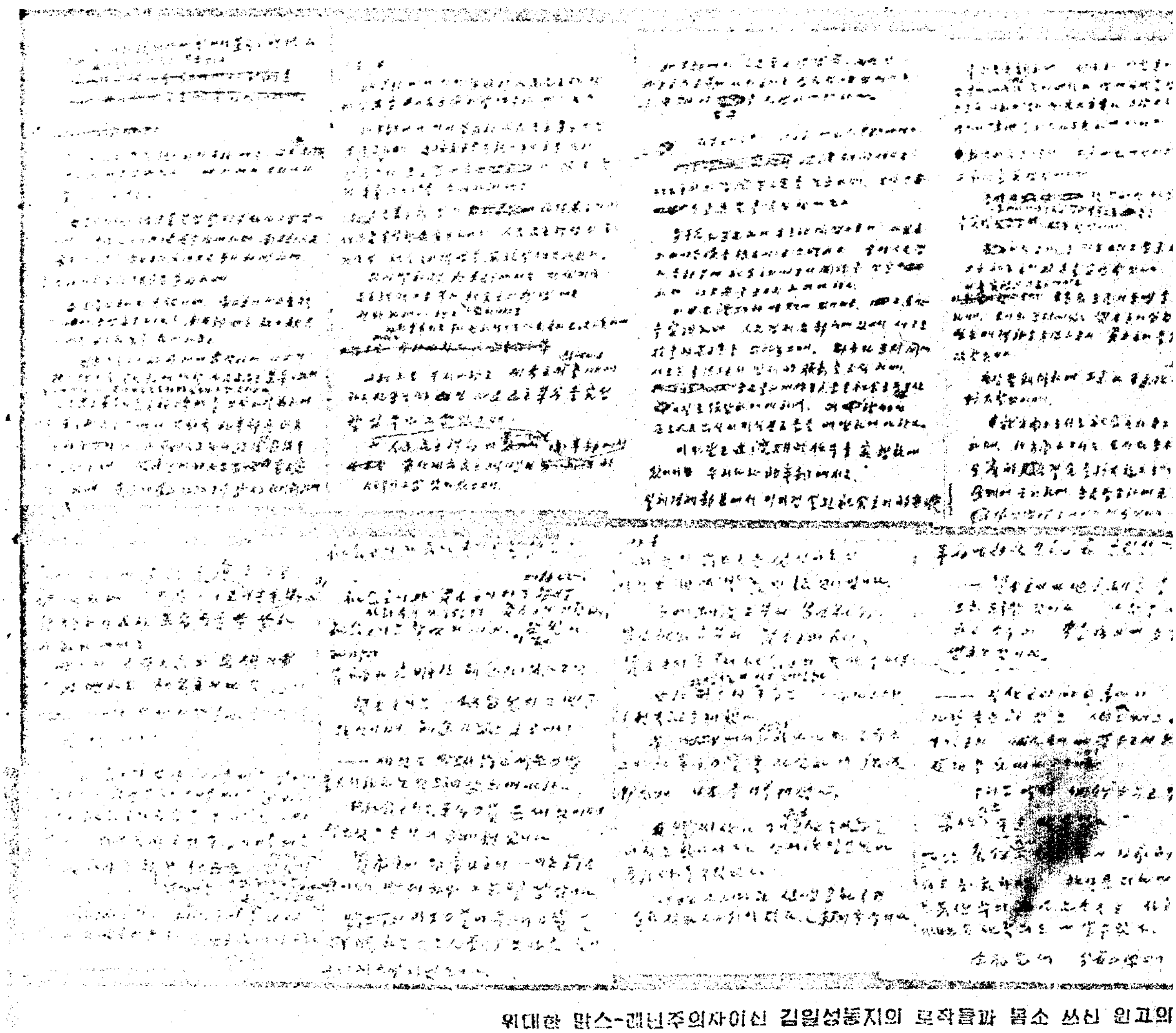
## 공동성명, 공동콤뮤니케, 공동보도



## 사회단체 편지, 성명



# 김일성동지의 보고 로작 및 연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의 로작들과 몸소 쓰신 원고의

#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김일성

동지들!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펼쳐준 우리 당 제4차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9년이 지나갔습니다. 이 기간은 우리의 혁명과 건설에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 준엄한 시련의 시기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에서 위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혁명적사변들이 일어난 보람있는 시기였습니다.

총결기간 우리 당은 중첩되는 난관과 애로를 용감하게 뚫고나가면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제때에 대표자회와 전원회의들을 열고 전반적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기 위한 독창적인 전략전술적방침들을 내놓았으며 인민대중을 그 관철에로 능숙하게 조직동원하였습니다.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커다란 승리와 성과가 이룩되였으며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는 반석같이 다져졌습니다.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빛나는 성과에 고무되여 남조선에서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들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혁명적진출이 강화되였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는 밑뿌리채 뒤흔들리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총결기간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기치,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를 더욱 높였으며 국제혁명운동의 전반적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위한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어떠한 모진 풍파라도 뚫고 나갈수 있는 전투적인 당으로, 전당이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되고 인민대중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있는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장성강화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깊은 확신과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이루어놓은 위대한 업적에 대한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그리고 해외에 있는 동포들과 다른 나라의 친근한 벗들이 이 대회를 열렬히 축하하고있으며 대회사업의 성과를 축원하고있습니다.

이 대회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지원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에서 새로운 리정표로 될것이며 우리 당원들과 전체 조선인민을 새로운 더 큰 승리에로 힘차게 고무추동할것입니다.

# I. 위대한 총화

동지들!

우리 당 제4차대회는 사회주의기초건설의 력사적승리를 총화하고 확립된 사회주의제도에 의거하여 전면적기술개건과 문화혁명을 수행하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을 기본과업으로 하는 7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채택하였으며 전체 인민을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휘황한 앞날에 대한 희망과 신심을 가지고 당대회가 내놓은 새로운 전투적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일떠섰으며 날에날마다 새로운 혁신과 기적을 창조하면서 웅대한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해동안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로골화되고 국제공산주의운동에 복잡한 정세가 조성됨으로써 우리의 혁명과 건설에는 커다란 난관과 애로가 가로놓이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으로 하여금 전체 인민을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특히 전쟁에 대처할수 있는 정치사상적준비를 튼튼히 하게 하는 한편 인민경제의 발전속도를 일부 조절하면서라도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추가적인 큰 힘을 돌려 나라와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는 튼튼한 국방력을 가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당은 1966년 10월에 력사적인 대표자회를 열고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사업을 개편하며 원쑤들의 격화되는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혁명로선을 내놓았으며 이에 따라 7개년계획수행을 3년동안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후의 사태발전은 당이 취한 이 조치가 우리 혁명의 근본리익에 전적으로 맞으며 정세의 변화에 따르는 대담하고 능동적이며 매우 현명한 조치였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이 내놓은 새로운 혁명로선을 받들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두 전선에서 영웅적인 투쟁을 벌려 7개년계획을 빛나게 실현하였으며 온 사회의 반석같은 정치사상적통일을 이룩하고 원쑤들의 어떠한 불의의 침공에도 대처할수 있도록 온 나라를 튼튼한 보루로 다져놓았습니다.

## 1. 사회주의공업국가에로의 전변

동지들!

총결기간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된 가장 위대한 성과는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여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된것입니다.

사회주의공업화는 공화국북반부에서 확립된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하며 사회주의건설을 전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절박한 문제였으며 7개년계획의 가장 중심적인 과업이였습니다.

우리 당은 이미 5개년계획기간에 자립적민족공업의 토대가 닦아지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할수 있는 물질적토대가 마련된데 기초하여 7개년계획기간에 다방면적

으로 발전되고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가진 그리고 새 기술로 장비된 자립적인 현대적 공업을 창설하며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당의 옳바른 방침에 따라 7개년계획기간에 공업은 매우 빨리 발전하여 그 면모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공업부문에서 7개년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여 올해에 공업총생산액은 1956년에 비하여 11.6배로 높아지게 되며 그가운데서 생산수단생산은 13.3배, 소비재생산은 9.3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1957~1970년에 이르는 공업화의 전기간에 걸쳐 공업생산이 해마다 평균 19.1%의 높은 속도로 장성하였다는것을 말하여줍니다. 오늘 우리 공업은 해방전 1944년 한해동안에 생산하던 공업생산물을 단 12일동안에 생산하고있습니다.

전반적공업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였지마는 그가운데서도 중공업이 매우 빨리 발전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7개년계획기간에 먼저 기간적중공업부문들을 정비보강하는 사업에 힘을 넣도록 하였으며 이와 함께 중공업기지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의 방침이 관철된 결과 총결기간에 우리의 중공업은 자체의 강력한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완비된 중공업으로 발전되였으며 그 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였습니다.

중공업건설에서 이룩된 가장 큰 성과는 인민경제의 발전과 기술적진보의 기초인 자체의 기계제작공업이 창설된것입니다.

당이 7개년계획기간에 기계제작공업의 발전에 큰 힘을 넣은 결과 해방전에는 간단한 농기구 하나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던 우리 나라에서 오늘은 6,000톤프레스와 중량자동차, 대형뜨락또르, 대형굴착기, 대형불도젤, 전기기관차와 디젤기관차, 5,000톤급대형선박을 비롯한 대형기계들과 정밀기계들을 만들수 있게 되였으며 개별적기계설비들뿐아니라 현대적공장들의 설비를 종합적으로 생산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7개년계획기간에만 하여도 우리의 기계공업은 발전소설비, 야금공장설비, 화학공장설비와 같은 100여개의 현대적공장설비들을 종합적으로 생산보장하였습니다.

공업의 빠른 발전과 전면적기술혁명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동력기지도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7개년계획기간에 큰 수력발전소들과 화력발전소들이 건설되여 우리 나라 총발전능력은 훨씬 늘어났으며 수력에만 치우쳐있던 전력공업의 일면성은 없어지고 나라의 동력기지는 질적으로 강화되였습니다.

흑색야금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공업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였습니다. 7개년계획기간에 이미 있던 철생산기지들이 확장되고 서부지구에 새로운 제철소가 건설되여 선철과 립철 생산능력이 [illegible] 자립성이 강화되였으며 강철생산과 [illegible] 압연강재생산이 빨리 발전하고 일련의 2차금속가공제품 생산부문들이 새로 창설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흑색금속공업은 선철생산으로부터 강철, 압연강재, 2차금속가공제품생산에 이르기까지 생산공정이 완비된 강력한 공업부문으로 발전되였으며 인민경제발전에 요구되는 여러가지 금속자재에 대한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키고있습니다.

화학공업의 면모도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공업화기간에 화학비료생산기지가 강화되고 새로운 농약생산부문과 비날론을 비롯한 합성섬유와 합성수지 생산부문들이 창설되여 우리 나라에는 무기화학공업과 함께 강력한 유기화학공업기지들이 마련됨으로써 인민경제의 화학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되였습니다.

석탄공업과 광업, 건재공업을 비롯한 다른 중공업부문들도 빨리 발전하였습니다. 올해에 우리의 중공업은 165억키로와트시의 전력, 2,750만톤의 석탄, 220만톤의 강철, 150만톤

의 화학비료, 400만톤의 세멘트를 생산하게 됩니다.

강력한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우리의 중공업은 나라의 정치경제적자립성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고있으며 인민경제를 더욱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튼튼한 물질적토대로서 경공업과 농촌경리의 발전 그리고 국방력강화에서 큰 힘을 나타내고있습니다.

경공업발전에서도 획기적인 전진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은 인민소비품생산에서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 7개년계획기간에 새로운 현대적중앙경공업공장들을 건설하는것과 함께 지방의 예비를 동원하여 수많은 지방산업공장들을 건설하도록 하였으며 중공업이 발전하는데 따라 지방공업의 기술개건사업을 적극 밀고나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는 한해동안에 4억메터이상의 질좋은 천을 생산할수 있는 방직공업과 식료가공공업, 일용품공업을 비롯하여 모든 경공업생산부문들이 다 갖추어졌으며 옷감으로부터 문화용품에 이르기까지 소비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를 자체의 생산으로 보장할수 있는 현대적경공업기지가 창설되게 되였습니다.

공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그 규모가 커지는데 따라 사회총생산물과 국민소득 생산에서 공업은 더욱더 결정적역할을 놀게 되였습니다. 공업과 농업 총생산액에서 공업의 몫은 1956년에 34%이던것이 1969년에는 74%로 높아졌으며 같은 기간에 공업과 농업 부문에서 창조된 국민소득에서 공업의 몫은 25%로부터 65%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나라의 경제적위력과 공업발전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징표인 인구 한사람당 중요공업제품생산량이 훨씬 늘어났습니다. 올해에 우리 나라에서 인구 한사람당 전력은 1,184키로와트시, 석탄은 1,975키로그람, 강철은 158키로그람, 화학비료는 108키로그람, 세멘트는 287키로그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중요공업제품 인구 한사람당 생산량에서 우리 나라가 발전된 공업국가들의 수준에 이르렀으며 부분적으로는 따라 앞서게 되였다는것을 보여줍니다.

위력한 자체의 중공업기지에 의거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전면적기술혁명의 과업도 성과적으로 실현되였습니다. 기계제작공업을 비롯한 중공업이 발전되는데 따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장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였으며 인민경제의 전기화와 자동화가 널리 실현되였습니다.

중공업의 강력한 지원밑에 농촌경리의 기술개건이 성과적으로 실현되였습니다.

당은 제4차대회가 내놓은 방침과 특히 1964년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채택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밝혀놓은 길을 따라 농촌경리의 기술적개조에 커다란 힘을 돌렸으며 이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총결기간 농촌기술혁명에서 이룩한 가장 큰 성과는 수리화를 완성한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마련한 관개시설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한편 관개공사를 계속 널리 진행하여 논관개를 완전히 끝냈으며 밭관개까지 적지 않게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몇해동안에 고이는물빼기공사에 커다란 국가적힘이 돌려져 우리 나라의 중요 벼생산지대들에서 고인물피해를 완전히 없앨수 있게 되였으며 나라의 전반적지역에서 강하천정리사업과 해안방조제공사, 식수조림사업이 널리 진행되여 논밭과 농작물들을 자연재해로부터 더 잘 보호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이리하여 총결기간에 우리 나라에는 어떤 가물이 드나 장마가 져도 언제나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는 완성된 수리화체계가 마련되게 되였습니다.

당은 7개년계획기간에 기계화를 농촌기술혁명에서 가장 중심적인 과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총결기간에 농촌기계화의 거점인 농기계작업소들이 많이 늘어나 우리 나라의 모든 시, 군에 농기계작업소가 다 설치되였으며 농촌에 현대적농기계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1961～1969년사이에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뜨락또르대수는 3.3배, 화물자동차대수는 6.4배로 늘어났으며 여러가지 새로운 농기계들이 창안제작되여

더 많은 농사일을 기계로 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7개년계획기간에 농촌전기화의 과업도 빛나게 실현되였습니다. 전기가 들어가지 않은 리와 농가를 없애기 위한 투쟁이 널리 벌어진 결과 오늘에 와서는 우리 나라의 모든 리에 전기가 들어갔으며 모든 농가에서 다 전기불을 보게 되였습니다. 농촌에서 전기는 농민들의 가정생활에서뿐아니라 농업생산에서 기계동력과 열원으로 널리 쓰이고있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한해동안에 쓰는 전력은 10억키로와트시에 이르고있으며 그 대부분이 생산용으로 쓰이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전력생산량에 비추어볼 때 농촌에서 소비하는 전력의 비중은 매우 높으며 농촌전기화분야에서 우리 나라는 이미 세계선진국가들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농촌경리의 화학화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루어졌습니다. 1960년에 비하여 지난해에 논밭 정보당 화학비료시비량은 3.2배로 늘어났으며 그 질적구성도 훨씬 개선되였습니다. 또한 농약살포량이 늘어나 농작물을 병충해로부터 더 잘 보호할수 있게 되였으며 효능이 높은 살초제들이 농촌에 적지 않게 공급되였습니다.

농촌기술혁명이 성과적으로 진척됨에 따라 농업생산의 모든 부문이 빨리 발전하였습니다.

지난 몇해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례년에 보기 드문 심한 자연재해가 계속되여 농업생산에서 일정한 굴곡은 있었으나 우리는 해마다 높은 수확을 거두었으며 올해에도 대풍작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이제는 식량문제가 완전히 풀렸으며 농촌경리의 다른 모든 부문들을 더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알곡생산토대가 닦아졌습니다. 축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닦아져 우리 나라의 축산업은 현대적기술에 토대하여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특히 지난 몇해동안 가금업발전에서 커다란 전변이 일어나 해마다 7억개이상의 닭알과 많은 닭고기를 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철도전기화의 실현은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사업에서 이룩된 중요한 성과의 하나입니다. 7개년계획기간에 850키로메터 구간의 철도가 새로 전기화되여 중요간선들에서의 철도전기화가 기본적으로 끝났습니다.

이 모든것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지난날 현대기술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진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가 현대적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였다는것을 보여줍니다.

동지들!

당의 공업화로선을 관철하는 로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으며 현대적공업을 창설하며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을 실현하기 위하여 떨쳐나선 우리 인민앞에는 뚫고나가야 할 애로와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였습니다.

우리가 낡은 사회로부터 넘겨받은것은 보잘것없는 식민지공업이였으며 그것마저 미제침략자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말미암아 혹심하게 파괴되였습니다. 전후 3개년계획기간에 전쟁에서 파괴된 인민경제의 복구건설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였으나 공업의 식민지적편파성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고 중공업의 토대는 매우 약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금도 적었고 원료와 자재도 모자랐으며 기술력량도 적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혁명의 대내외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특히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전쟁도발책동이 끊임없이 강화되는 긴장한 정세에서 공업화와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그러나 당은 추호의 동요도 없이 사회주의공업화로선을 관철하여나아갔으며 현대적공업을 건설하며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모든 문제들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우리 인민을 옳게 령도하였

습니다.

우리 나라의 모든 근로자들은 당의 로선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사회주의적공업화와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섰습니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모든 근로자들은 《천리마의 속도로 달리자!》라는 당의 호소를 받들고 전진운동을 가로막는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짓부시며 모든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면서 당의 공업화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불요불굴의 투쟁을 벌렸습니다.

당의 정확한 공업화로선과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당의 현명한 령도 그리고 우리 인민의 영웅적이며 헌신적인 로력투쟁에 의하여 자본주의나라들이 옹근 한세기 지어는 몇세기에 걸쳐서 한 공업화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 우리 나라에서는 14년밖에 안되는 매우 짧은 기간에 빛나게 실현되였습니다.

사회주의공업국가에로의 전변,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사변입니다.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된 결과 우리 나라에는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였으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그리고 인민생활에 필요한 공업제품과 농업생산물의 수요를 자체로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되였습니다. 공업화가 실현되여 우리 나라가 공업국가로 전변됨으로써 우리의 혁명기지는 더욱 불패의것으로 다져졌으며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지원하며 조국의 통일과 장래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 마련되게 되였습니다.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이 창설되고 농촌경리를 포함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결과 우리 나라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경제와 기술의 락후성을 종국적으로 없애고 세계선진국가대렬의 당당한 성원으로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지난날 뒤떨어진 경제를 가지고있었던 탓으로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아오던 처지에서 영원히 벗어나 힘있고 발전된 민족으로서 세계의 모든 대소민족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떳떳하게 국제무대에 나설수 있게 되였습니다.

## 2. 문화혁명에서 이룩한 성과

동지들!

문화혁명은 지난날 뒤떨어진 식민지반봉건국가였던 우리 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섰습니다. 당은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문화적락후성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빨리 발전시키는데 시종일관 깊은 관심을 돌렸으며 특히 7개년계획기간에 이 분야에서 많은 일을 하여놓았습니다.

문화혁명을 수행하는데서 당은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그것을 다른 사업에 앞세웠으며 젊은 세대들을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며 기술혁명의 빠른 속도에 맞게 기술자, 전문가들을 많이 길러내기 위한 일련의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총결기간 인민교육사업에서 이룩한 가장 큰 성과는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한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이미 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고 그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한데 기초하여 1967년부터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리하여 8살

부터 17살에 이르는 우리 나라의 모든 청소년들이 정규학교에서 무료로 기술의무교육을 받을수 있게 되였습니다. 9년제기술의무교육은 맑스-레닌주의교육리론을 철저히 구현한것으로서 일반교육과 기초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가장 선진적인 교육제도입니다.

우리는 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렸습니다. 당의 옳바른 교육방침에 의하여 우리의 사회주의적교육학이 더욱 완성되였으며 학교교육사업에서 주체와 로동계급적선이 똑바로 서고 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이 더욱 높아지게 되였습니다.

9년제기술의무교육의 혜택으로 오늘 우리 나라의 새세대들은 모두가 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풍부한 일반지식과 현대적과학기술의 기초지식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능력있는 새 사회의 건설자로 믿음직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9년제기술의무교육을 받은 새세대들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 많이 나감으로써 지식있는 로력자들의 대렬은 끊임없이 늘어나고있으며 우리 사회의 전반적기술문화수준이 더욱 높아가고있습니다.

9년제기술의무교육의 실시, 이것은 우리 당 교육정책의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나라 문화혁명수행에서 획기적전진으로 됩니다.

사회주의건설이 빨리 진척되는 현실은 더 많은 기술자, 전문가들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적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기술자, 전문가들을 길러내는데 계속 커다란 힘을 돌렸으며 이 사업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총결기간 대학은 78개로부터 129개로 늘어나고 고등기술학교는 376개나 새로 나왔으며 여기에서 수많은 기술자, 전문가들을 길러내고있습니다.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와 함께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고등교육체계가 더욱 발전하였습니다.

오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1960년에 비하여 4.3배나 더 많은 49만 7,000여명의 기사, 기수 및 전문가들이 일하고있으며 그들의 지혜와 힘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국가경제기관들과 과학문화기관들,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이 훌륭히 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의 옳바른 교육정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모든 지방에 종합적인 간부양성기지가 튼튼히 꾸려졌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매 군에 한개이상의 고등기술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요한 공업지구들에는 공장고등기술학교와 공장대학이 있으며 도마다 농업대학, 의학대학, 사범대학, 교원대학, 교양원대학, 공산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지방들에서 자기 실정에 맞게 필요한 기술인재들과 당 및 국가행정 일군들을 훌륭히 길러내고있습니다.

지방에서 간부에 대한 수요를 기본적으로 자체로 충족시키게 됨으로써 지난날 간부원천을 중앙에만 의존하던 제약성이 없어지게 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자기 지방에 맡겨진 과업을 자체의 힘으로 보다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게 되였습니다. 지방에 종합적인 간부양성기지가 꾸려진것은 또한 나라의 전반적지역의 문화수준을 고르롭게 높이는데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집니다. 도와 군 소재지를 비롯하여 모든 지방에 널리 분포되여있는 대학과 고등기술학교들은 문화혁명의 거점으로서 지방들에 현대적기술문명을 보급하며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이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앞으로 기술인재들과 전문가들을 더 많이 길러낼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다는것을 말하여줍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몇몇 사람들만이 지식을 가지고서는 건설할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광범한 근로대중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으로 무장시켜야만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기술인재양성사업과 함께 근로자들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데 깊은 관심을 돌렸습니다. 성인교육사업이 강화되고 방송선전사업과 출판물보급사업이 개선됨으로써 근로자들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은 훨씬 높아졌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가지도록 할데 대한 당의 방침은 빛나게 실현되여가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근로자들은 누구나 다 일정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목적의식적으로 참가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총결기간 과학의 발전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우리의 과학자들은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힘을 넣어 여러가지 절박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였으며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적 문학과 예술은 찬란히 꽃피고있습니다. 당의 문예정책이 훌륭히 관철됨으로써 문학예술분야에서 나타났던 수정주의적요소와 복고주의적경향이 없어지고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로동계급적선이 뚜뚜히 선 혁명적문학예술작품들을 창작하기 위한 투쟁이 강화되였으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자들이 문학예술활동에 적극 참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참말로 당적이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로 되였으며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되고있습니다.

문화혁명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된 결과 오늘 우리 나라는 어린이로부터 늙은이들에 이르기까지 전체 인민이 다 공부하는 교육의 나라로, 과학과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이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는 나라로 되였습니다.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문화적락후성은 극복되고 문화적으로 행복하게 살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망은 로동당시대에 와서 빛나게 실현되고있습니다.

## 3.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의 공고화

동지들!

우리 당은 총결기간 인민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며 우리의 혁명대오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였습니다.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며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하는데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한 방침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켜 적대분자들에 대한 독재를 강화하면서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는것이였습니다. 독재와 민주주의, 계급투쟁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옳게 결합시키고 극소수의 적대분자들을 고립시키면서 광범한 대중을 전취하는것은 혁명의 근본요구이며 공산주의자들의 기본사업방법입니다. 당은 우리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는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의 통일과 단결을 무시하고 계급투쟁만 일면적으로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믿지 않고 함부로 배척하려는 좌경적편향과 적대적요소와 낡은사상잔재를 반대하는 계급투쟁을 소홀히 하고 인민대중의 통일단결만을 절대화하려는 우경적편향을 다같이 경계하면서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는데 깊은 주의를 돌렸습니다.

적대분자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진압하는것은 혁명대오를 강화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성과를 보장하는 필수적조건입니다. 우리 당은 계급투쟁을 약화시키려는 온갖 시도들을 제때에 짓부시고 계급투쟁의 무기로서의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날을 날카롭게 세웠습니

다.

지난 기간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나타난 우경투항주의사상조류에 발맞추어 우리의 일부 사람들은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면 마치도 계급투쟁이 없어지며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에 대한 독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듯이 주장하여 나섰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수정주의적사상독소들에 대하여 제때에 강한 타격을 주었으며 그것을 사상적으로 완전히 극복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광범한 대중을 교양하여 반혁명과의 투쟁에 적극 인입하며 적들을 반대하는 투쟁속에서 대중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였습니다. 당의 옳바른 지도밑에 반혁명분자들과의 투쟁을 전당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림으로써 우리는 계급적원쑤들의 음모책동을 제때에 짓부시고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켰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극소수의 적대분자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우리 혁명의 계급적진지를 더욱 굳건히 다지였습니다.

총결기간 우리 당은 적대분자들에 대한 독재를 강화하는 한편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습니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며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프로레타리아독재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시기에는 착취계급을 완전히 없애며 모든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적근로자로 만들어야 할 과업이 전면에 나선다면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는 모든 근로자들을 사회경제적처지와 사상정신적풍모에서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계급적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며 그들을 참다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어야 할 과업이 전면에 나서게 되는것입니다.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우리 당은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며 로동계급을 본보기로 하여 농민과 인테리를 교양개조하는 원칙을 튼튼히 견지하였습니다.

로동계급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령도적역할을 강화하며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다하려면 사상성과 문화성, 조직성을 높여야 하며 모든 면에서 더욱더 혁명적으로 단련되여야 합니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청소한 로동계급이며 그 발전에서 일련의 특성을 가지고있습니다. 지난날 수적으로 그리 많지 못하였던 우리 나라 로동계급의 대렬은 해방후 공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따라 짧은 기간에 갑자기 많이 늘어났으며 여기에는 혁명적으로 단련되지 못한 어제날의 농민, 소상인, 수공업자들과 새세대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로동계급속에서 혁명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당은 로동계급속에서 정치사상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의 계급적각성을 더욱 높이고 생산투쟁속에서 그들을 꾸준히 단련하도록 하였으며 로동계급의 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로동계급의 선봉적역할과 근로자들속에서 그들의 혁명적작용이 강화되였으며 오늘 우리의 로동계급은 조선혁명의 령도계급으로서의 자기의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있습니다.

우리 혁명의 기본부대의 하나인 농민을 로동계급화, 혁명화하는것은 계급없는 사회를 만들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입니다.

우리 나라 농촌에 본래의 고농은 적고 우리 농민은 주로 지난날의 빈농과 중농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따라서 그들속에는 소소유자적근성과 리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이 뿌리깊이 박혀있습니다. 농민들은 로동계급보다 기술, 문화적으로 뒤떨어져있을뿐아니라 사상적으로도 많이 뒤떨어져있습니다. 사회주의혁명을 통하여 농민들의 사회경제적처지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그들의 사상의식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으나 선진적인 로동계급에 비한 농민의 사상적락후성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의연히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낳게하는 주되는 조건의 하나로 되고있습니다.

총결기간 우리 당은 농촌에서 기술혁명, 문화혁명과 함께 사상혁명을 강화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돌렸습니다. 농민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과 조직생활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적공동로동을 통하여 그들을 단련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그들속에서 집단주의정신과 조직성이 더욱 배양되였습니다. 농촌에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이 성과적으로 진척됨에 따라 농민들의 기술문화수준이 더욱 높아지고 그들의 사회경제적처지도 로동계급에 많이 접근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농민들은 로동계급의 믿음직한 동맹자로서, 사회주의건설의 참된 주인으로서 우리의 사회주의농촌진지를 굳건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당은 로동자, 농민과 함께 인테리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시종일관 깊은 관심을 돌려왔습니다.

정권을 잡은 맑스—레닌주의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새로운 인테리들을 키워내는것과 함께 낡은 사회에 복무한 오랜 인테리들의 문제를 옳게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원래 인테리는 하나의 사회계층으로서 착취계급에게 복무할수 있을뿐아니라 로동계급에게도 복무할수 있는 이중성을 가지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오랜 인테리들은 거의다 부유한 가정의 출신으로서 지난날 착취사회에 복무하기는 하였으나 식민지반봉건사회의 인테리로서 일제의 민족적 억압과 차별대우를 받아왔기때문에 대부분 반제사상과 민주주의적 혁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당은 근로인민출신의 새 인테리들을 대대적으로 길러내는 한편 오랜 인테리들의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을 적극 개조하는 방침을 내세우고 꾸준히 교양하여왔습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건설단계에 와서 오랜 인테리들이 누구에게 복무할것인가 하는 이중성문제는 해결되였으며 그들앞에는 오직 어떻게 하면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할것인가 하는 문제만이 남아있게 되였습니다.

우리 당은 부르죠아적, 소부르죠아적 사상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투쟁이 일정에 오른 사회주의건설시기에 와서 누구보다도 낡은 사상잔재를 많이 가지고있고 단련될 기회가 적은 인테리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돌리고 그들을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더 충실히 복무하는 참다운 로동계급의 인테리로 만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왔습니다. 당의 꾸준한 사상교양과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하여 인테리들속에서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이 강화되고 그들속에 남아있던 사대주의, 교조주의적 경향도 성과적으로 극복되였으며 모든 인테리들이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단련되였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오랜 인테리들을 리용할뿐아니라 교양개조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테리들은 사회주의적근로인테리로서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나아가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 인테리정책의 빛나는 승리이며 온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는데서 우리가 이룩한 가장 큰 성과의 하나입니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온갖 낡은 사상, 비로동계급적인 요소들을 없애버리기 위한 계급투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더 빨리 더 잘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근로자들자신을 개조하는 문제로서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사회에까지 이끌고나가기 위하여 나서는 과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사상교양을 위주로 하여 해설과 설복의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성분이나 환경,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사람이라 하여도 우리 당을 따라오려는 사람은 누구나 다 대담하게 믿고 혁명의 편에 전취하

는 원칙에서 각계각층의 군중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대중의 자각적인 투쟁에 의하여서만 훌륭히 수행될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기본고리를 대중의 자각적인 발동에서 찾고 모든 근로자들이 자신을 혁명적으로 단련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우리는 일반교양과 개별교양을 옳게 결합시키고 긍정적모범으로 부정을 극복하는 방법을 기본으로 하여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써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되게 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확대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천리마작업반운동입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생산에서의 집단적혁신운동일뿐아니라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훌륭한 방법이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는 대중적운동입니다. 우리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심화발전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과 밀접히 결부시켜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7개년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과 함께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이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차게 벌어지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온갖 기회주의와 사대주의, 교조주의, 종파주의를 극복하고 모든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켰으며 또한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당의 방침이 성과적으로 관철된 결과 오늘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우리 사회의 내부가 그 어느때보다도 튼튼히 꾸려졌습니다.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미풍이 꽃피게 되였으며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는 기풍이 온 사회를 확고히 지배하게 되였습니다. 우리의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의 단결이 더욱 공고화되고 온 사회가 정치사상적으로 굳게 단합되여 서로 돕고 이끌며 나가는 붉은 대가정으로 전변되였으며 우리의 혁명대오는 불패의것으로 강화되였습니다.

## 4.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의 수립

동지들!

국방력을 강화하는것은 주권을 잡은 맑스—레닌주의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며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나라가 갈라진 조건에서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침략자들과 직접 맞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지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섰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은 언제나 국방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왔으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옳게 배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총결기간 미제의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이 격화되고 정세가 더욱 긴장되는데 따라 우리는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획기적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우리는 당의 방침에 따라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전체 인민을 무장

시키며 온 나라를 요새화하기 위한 방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는 튼튼한 자위력을 가질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먼저 혁명적무장력으로서의 인민군대의 정치도덕적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기 위하여 인민군장병들속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왔습니다. 우리는 군대안에서 정치사업을 소홀히 하고 군사기술적사업에만 매여달리려는 경향을 철저히 경계하고 군인들의 정치적각성과 사상의식수준을 높이면서 여기에 군사기술사업을 옳게 배합하는 원칙을 견지하였습니다. 지금 인민군장병들의 사기는 높으며 그들의 사상상태는 매우 좋습니다. 당과 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의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려는 높은 정치적열의와 견결한 혁명정신, 장병들사이의 형제적단결과 인민들과의 혈연적련계와 같은 전통적미풍이 인민군대의 온 대오를 지배하고있습니다. 당의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방침이 훌륭히 관철된 결과 우리의 인민군대는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단련된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되였습니다.

총결기간 국방력을 강화하는데서 거둔 가장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온 나라를 요새화한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다 총을 쏠줄 알며 총을 메고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온 나라의 모든 지역에 철옹성같은 방위시설들을 쌓아놓았으며 중요한 생산시설들까지도 다 요새화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체 인민의 반석같은 정치사상적통일과 튼튼한 자립적경제체계가 이루어진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실현할수 있는 가장 위력한 방위체계입니다.

국방공업의 발전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날 우리 나라에는 보총이나 몇자루 생산하는 보잘것없는 군수공업이 있었을뿐입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튼튼한 자립적인 국방공업기지가 창설되여 자체로 조국보위에 필요한 여러가지 현대적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을 만들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의 국방력은 매우 크고 비싼 대가로 이루어졌습니다. 털어놓고 말하여 우리의 국방비지출은 나라와 인구가 적은데 비해서는 너무나 큰 부담으로 되였습니다. 만약 국방에 돌려진 부담의 한부분이라도 덜어 그것을 경제건설에 돌렸더라면 우리의 인민경제는 보다 빨리 발전하였을것이며 우리 인민들의 생활은 훨씬 더 높아졌을것입니다. 그러나 정세는 이렇게 하는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안락을 위하여 혁명의 근본리익을 저버릴수 없었으며 다시는 망국노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생활향상에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도 조국보위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돌리도록 하였습니다.

바로 그랬기때문에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이 그처럼 미쳐날뛰는 조건에서도 우리 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게 되였으며 적들로 하여금 감히 우리를 건드릴수 없게 하였습니다. 1968년에 있은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지난해에 있은 대형간첩비행기 《이씨—121》사건때 우리 나라의 정세는 매우 긴장하였습니다. 미제날강도들은 우리 나라의 문턱까지 숱한 무력을 끌어다놓고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무력침공을 공공연히 시도하고있었습니다. 사태는 참말로 엄중하였으며 온 세계가 정세발전을 주시하면서 깊은 우려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위력한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가 있음으로 하여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적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라는 단호한 립장을 취할수 있었으며 결국 침략자들로 하여금 우리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수 없게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적들은 우리 나라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키려고 매일과 같이 미쳐날뛰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맑스—레닌주의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강

력한 자립경제가 있고 불패의 혁명군대와 전인민적무장이 있고 요새화된 강토가 있는 이상 우리는 어떠한 침략자라도 능히 때려눕힐수 있다는것을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습니다.

## 5. 사회주의적경제관리체계의 전면적확립

동지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난 다음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여나가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고 나라의 전면적기술개건사업이 촉진된 새 환경은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문제를 새롭게 해결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사회주의기초축성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됨에 따라 선진적인 대규모사회주의적경리형태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되였으나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체계와 지도방법은 이에 맞게 미처 개편되지 못하였으며 일군들의 능력과 수준도 이에 따라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력사적환경이 제기하는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는 빨리 밀고나갈수 없었습니다.

새 환경이 제기하는 이러한 요구들은 오직 공업,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사회주의적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확립하여야만 해결될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회주의적경제관리체계를 세우고 완성하는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혁명과업입니다. 그것은 오랜 력사적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낡은 전통과 질서에 깊은 뿌리를 박고있는 낡은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사업이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경험을 일반화하고 맑스-레닌주의원리를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실천이 해결을 기다리는 절박한 문제인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창적인 방향과 구체적인 방도를 과학적으로 천명하였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맞게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개선하며 사회주의적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하는데서 1960년 2월에 있은 청산리지도는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습니다. 우리 당의 전통적이며 혁명적인 군중로선을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에 구현한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을 일반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당은 청산리지도가 있는 다음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사업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더 잘 관철할수 있도록 공업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세우는 획기적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공장, 기업소들이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모든 경영활동을 진행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생산자대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경제과업을 수행하며 우가 아래를 책임적으로 도와주며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훌륭한 경제관리체계입니다.

우리 당은 낡은 기업관리방법인 지배인유일관리제를 없애고 당위원회를 매개 경제단위의 최고지도기관으로 규정하였으며 기업관리에서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체계를 내왔습니다. 그리하여 당위원회가 매 시기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며 그것이 잘 집행되도록 지도하고 통제하는것과 같은 경제사업에 대한 키잡이를 하면서 당조직사업과 사상교양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어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적극 조직동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업관리에서

개인의 주관과 독단을 없애고 집체적지혜를 동원하여 규모가 큰 현대적인 사회주의경리를 훌륭히 관리운영할수 있게 하였으며 광범한 대중이 생산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창발성과 적극성을 낼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성, 국들을 비롯한 웃기관일군들과 기업소관리일군들이 생산현장에 내려가 결린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며 설비, 자재를 비롯하여 생산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우가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주는 정연한 체계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리하여 경제지도에서 명령과 호령의 방법, 관료주의적방법은 점차 밀려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은 또한 경제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생산지도체계를 내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종전에 계획화사업과 기술지도와 생산지도가 분리된데로부터 생산에 대한 지도를 효과적으로 할수 없었던 불합리성은 없어지고 생산지도와 기술지도가 밀접히 결부되여 실속있게 진행되게 되였으며 특히 생산에 대한 기술지도를 더욱 강화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참말로 대안의 사업체계는 기업관리에서 군중로선과 과학성의 원칙을 옳게 구현하며 낡은 자본주의적 경제관리방법의 잔재를 종국적으로 청산한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입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기업관리에서 웃사람과 아래사람, 생산자들사이에 서로 배우고 가르쳐주며 동지적으로 도와주고 단결하며 생산자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에 의거하여 경제를 관리운영하는 공산주의적원칙을 많이 체현한 기업관리형태입니다.

우리 당은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서도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당은 군인민위원회로부터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기능을 분리하여 새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내왔으며 거기에 농업기술자들과 농촌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국가기업소들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리하여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로 하여금 협동농장들을 직접 지도하는 기능과 농촌경리에 대한 국가의 물질기술적방조를 실현하는 기능을 맡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조직하는것과 함께 농촌경리에 대한 과학기술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농촌경리위원회를 새로 내오고 농업성을 농업위원회로 개편하였습니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내옴으로써 우리는 지난날과 같이 행정적방법으로가 아니라 기업적방법으로 농촌경리를 지도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그 결과 농촌경리의 관리운영방법을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방법에 끊임없이 접근시키고 모든 경영활동을 더욱 계획화하고 조직화하며 농업생산에 대한 기술지도를 강화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새로운 농업지도체계가 창설됨으로써 또한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공업과 농업의 생산적련계를 더 강화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농업생산발전에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로 접근시키는 과정을 힘있게 촉진시키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공업과 농업 관리체계를 개편한 다음 전반적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더욱 강화하며 우리 경제를 보다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계획화사업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당은 국가계획위원회에 직속하는 지구계획위원회들과 시(구역), 군 국가계획부와 공장, 기업소 국가계획부를 내왔으며 성, 중앙급 기관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 계획부서들로 하여금 계획화사업에서 해당기관에 복종하는것과 함께 국가계획위원회에도 복종하게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중앙으로부터 지방과 공장,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인민경제계획화사업을 통일적으로 하는 계획의 일원화체계가 서게 되였습니다.

새로운 계획의 일원화체계는 당의 의도와 국가의 요구를 잘 아는 계획기관 일군들이 지방과 기업소에서 직접 계획화사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당정책과 국가의 방침이 계획화의 모든 단위들에 제때에 들어가 똑바로 관철될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본위주의와

기관본위주의를 없애고 성, 관리국, 도급 기관들의 계획과 공장, 기업소들의 계획을 모두 전국적인 전략계획에 철저히 복종시킬수 있게 하였으며 동원적이며 적극적인 계획을 세울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계획의 일원화체계는 계획일군들이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창의창발성을 널리 불러일으키고 생산현장의 구체적현실을 똑똑히 료해하면서 계획화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가계획기관들의 주관주의와 관료주의를 없애고 계획의 객관성과 현실성을 원만히 보장하게 하였습니다.

계획의 일원화와 함께 새로 실시된 계획의 세부화는 인민경제계획화사업을 가장 과학적으로 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입니다.

계획의 세부화는 국가계획기관들이 직접 전반적경제발전과 매개 공장,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을 밀접히 련결시키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지방 및 기업소들의 실정에 맞게 계획을 구체화하여 모든 지표들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똑바로 맞물릴수 있게 합니다. 계획의 세부화를 실시함으로써 경제발전에서 불균형성과 자연생장성의 요소를 완전히 없애고 계획적, 균형적 발전법칙의 요구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여 나라의 경제를 아무런 혼란도 없이 높은 속도로 빨리 발전시킬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실천적경험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 전면적으로 확립된 사회주의적경제관리체계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완전히 맞으며 사회주의경제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나라의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체계라는것을 높은 긍지를 가지고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확립함으로써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경제법칙들의 요구를 가장 정확하게 구현하고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 중앙집권화와 민주주의를 옳게 배합하여 나갈수 있게 되였습니다. 특히 우리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을 무시하는 좌경적인 편향과 정치도덕적자극을 홀시하고 물질적관심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경제지도에서 지방분권화와 기업의 자유화 방향으로 나가려는 우경적견해를 완전히 극복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동지들! 우리는 당 제4차대회와 당대표자회가 내놓은 로선을 훌륭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승리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킬데 대한 력사적과업은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우리 인민이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간고분투하여 건설하여놓은 자립적민족경제는 더욱 위력한것으로 되였습니다.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가 확립되여 나라의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고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찬란히 꽃피고있으며 우리의 도시와 농촌은 날로 더욱 아름답게 건설되여가고있습니다. 우리의 혁명력량은 불패의것으로 되였으며 우리는 더욱 공고한 국방력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멀리 달려나아갔으며 륭성발전하는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누리고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커다란 힘을 마련하여 놓았다는것을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습니다.

나는 당대회의 이름으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 Ⅱ.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동지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혁명과 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겨야 할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두 요새인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우리는 기술혁명을 더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켜 생산력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며 문화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더욱 개화발전시키며 사상혁명을 앞세워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 1.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심과업

동지들!

우리는 7개년계획기간에 나라의 사회주의공업화와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자립적체계가 선 현대적인 공업을 창설하여놓았으며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기본적으로 현대적기술의 토대우에 올려세워놓았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으려면 아직도 경제건설분야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공업을 더 잘 정비하고 그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나라에 마련된 현대적공업의 위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는 기술적진보를 이룩하여 나라의 생산력을 더욱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 6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입니다.

새로운 전망계획기간에 무엇보다먼저 공업부문들에서 부문내부구조를 완비하며 우리 공업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공업화가 실시되여 우리의 공업은 부문구조가 잘 조화되고 새 기술로 장비되였을뿐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체의 원료자원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공업으로 되였으며 그 잠재력은 매우 큽니다. 그러나 우리 공업은 아직 부분적으로 완비되지 못하고 작고 부차적인 부문들과 생산공정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여 자기 위력을 다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몇가지 원료를 아직도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있으며 이것은 우리 공업의 안전하고 정상적인 발전에 일정한 영향을 주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공업부문들에서 살을 붙이는 일을 계속하여 약한 부문들은 보강하고 없는 부문들은 갖추어 공업을 빨리 완비하는 한편 우리 나라 원료에 철저히 의거하여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공업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며 모든 공업부문들을 적어도 원료의 60~70%이상을 자체 원료에 의거하는 주체가 철저히 선 공업부문들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흑색야금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철광석자원이 풍부한 우리 나라에서 흑색야금공업의 발전전망은 매우 큽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아직 콕스탄을 찾아내지 못하여 우리는 지금 형제나라들과의 경제적교류에 의하여 제철공업의 콕스탄수요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협조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귀중한것이며 우리는 앞으로도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적협조관계를 계속 발전시켜나갈것입니다. 그러나 인민경제발전의 요구에 따라 빨리 늘어나는 철생산에 필요한 방대한 량의 콕스탄을 다른 나라에서 다 사들여올수는 없습니다.

제철공업에서 될수록 콕스를 적게 쓰면서 더 많은 선철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나라 연료에 기초한 제철공업을 적극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전망계획기간에 립철과 조강 생산을 늘이고 해면철과 환원구단광 생산을 빨리 공업화하도록 하며 전기제철에 대한 연구사업도 계속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강종을 늘이고 강질을 높이며 압연강재의 품종과 규격을 훨씬 늘이고 2차금속가공제품 생산을 빨리 발전시켜 인민경제발전과 기술혁명이 요구하는 여러가지 흑색금속자재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 많이 파묻혀있는 유색금속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할수 있도록 유색야금공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하며 특히 기술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절실히 필요한 알루미니움을 비롯한 경금속을 자체로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화학공업의 발전은 공업의 원료기지를 확대하며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강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이미 마련된 화학공업의 토대에 기초하여 무기화학공업과 유기화학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며 새로운 화학공업부문들을 창설하여 우리 나라의 화학공업을 더욱 다방면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화학비료생산을 더욱 높이며 여러가지 살초제와 살충제들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경공업의 원료기지를 확대강화하는것은 화학공업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입니다. 지금 있는 화학섬유생산기지와 합성수지생산기지를 확대하는 한편 6개년계획기간에 새로운 대규모의 석유화학공업기지를 창설하는데 큰 힘을 넣어 경공업에 요구되는 섬유의 70%이상을 국내에서 해결하도록 하며 합성수지생산도 빨리 늘이도록 할것입니다.

이와 함께 합성고무생산기지를 빨리 꾸려 고무에 대한 수요를 국내에서 해결하도록 하며 경공업에 요구되는 여러가지 화학자재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기술혁명을 새로운 단계에로 전진시키며 나라의 전반적생산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문제가 중요하게는 기계공업의 발전에 달려있습니다. 6개년계획기간에 기계공업의 발전에 계속 큰 힘을 넣어 대자연개조사업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요구되는 보다 능률적이며 경제적인 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대형기계생산기지들을 확대강화하여 야금공업과 세멘트공업, 화학공업에 요구되는 대형 설비들, 대형 타빈과 발전기, 대형보이라를 비롯한 대용량동력설비들, 채취공업과 대자연개조사업에 필요한 25톤중량자동차, 300마력불도젤, 대형굴착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대형설비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수산업과 수상운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선박공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6개년계획기간에 5,000톤짜리 랭장운반선과 화물선을 비롯한 대형선박들을 더 많이 생산하며 만톤급이상의 가공모선과 화물선까지 자체로 생산하도록 할것입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반자동화, 자동화가 널리 실시되는데 따라 기계공업부문앞에는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을 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 기지를 더욱 강화하여 여러가지 자동화요소와 기구, 계기들을 많이 생산하도록

으며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에 요구되는 여러가지 희유금속과 순금속 소재를 원만히 생산 보장하도록 할것입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인민소비품생산에 필요한 여러가지 단능설비들을 많이 생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전망계획기간에 단능설비공장들을 많이 꾸려 식료가공공업과 일용품공업에 요구되는 여러가지 단능기계들의 생산을 빨리 늘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계공업부문앞에 나서는 방대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공작기계생산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공작기계생산량을 빨리 늘이며 특히 특수공작기계들과 자동 및 반자동 공작기계, 대형공작기계, 능률적인 단능공작기계들을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 많이 매장되여있는 자연부원을 적극 개발하는것은 나라의 경제건설을 더욱 다그치기 위하여서뿐아니라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교류를 발전시키는데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는 마그네샤크링카생산기지들을 확대하며 세멘트공장들의 생산능력을 더욱 높이면서 그와 병행하여 중소규모의 지방세멘트공장들을 새로 많이 꾸려 마그네샤크링카와 세멘트 생산량을 훨씬 늘여야 하겠습니다.

경공업부문에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은 일용품공업을 빨리 추켜세우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일용품은 가지수가 많지 못하며 그 질도 높지 못합니다. 우리는 일용품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으며 특히 지방의 예비를 적극 동원하여 가까운 시일안에 일용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경리부문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은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는것입니다.

무엇보다먼저 발관개를 널리하여 2모작면적을 늘여야 하겠습니다. 발관개를 하면 논농사뿐아니라 발농사에서까지 영원히 흉년을 모르게 될것이며 발곡식의 정당수확을 훨씬 높일수 있을것입니다. 이미 마련하여놓은 관개시설들을 잘 정비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새로운 전망계획기간에 2모작을 할수 있는곳을 위주로 하여 30만정보의 발에 분수식관수를 비롯한 관개체계를 실시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더욱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6개년계획기간에 경지면적 1정보당 화학비료시비량을 1톤이상에 이르게 하고 화학비료의 질적구성을 더욱 개선하며 우리 나라 토양과 작물의 특성에 맞는 미량원소비료도 더 많이 생산공급하도록 할것입니다. 화학비료시비량을 늘이는것과 함께 과학적인 시비체계를 세워 화학비료의 효능을 최대한으로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충제를 비롯한 농약들을 널리 리용하여 농작물을 온갖 병충해로부터 철저히 보호하도록 할것입니다.

농작물의 정당수확고를 높이는 커다란 예비는 생물학적연구사업을 강화하며 그 성과를 농업생산에 널리 적용하는데 있습니다. 육종사업과 채종사업을 강화하여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맞고 수확이 높은 우량종자들을 빨리 길러내여 모든 작물들의 품종들을 새로운 우량품종들로 갱신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새 땅을 얻기 위한 간석지개간사업도 널리 하여야 하겠습니다. 6개년계획기간에 자연지리적조건이 좋으며 비교적 빨리 개간할수 있는 지대부터 먼저 집중적으로 개간하여 좋은 농경지를 새로 많이 얻어내도록 할것입니다.

공업과 농업 생산을 빨리 늘이는것과 함께 생산된 농산물과 공업제품이 랑비되고 손실되는 현상을 없애는것은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매우 절박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과일과 남새는 매우 많으며 물고기도 해마다 몇십만톤씩 잡고있으나 저장대책을 따라세우지 못하고 가공사업을 공업화, 현대화하지 못하여 많은 과일과 남새, 물고기를 썩여버리고있습니다. 또한 제품포장을 되는대로 하여 귀중한 농산물과 공업제품을 못쓰게 만드는 현상도 적지 않습니다.

농산물과 공업제품들의 저장과 가공 그리고 상품포장을 개선하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 이러한 랑비현상을 철저히 없애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생산지와 소비지들에 전군중적운동으로 과일창고들을 지어 과일을 더 많이 저장하도록 하며 이르는곳마다에 과일과 남새, 물고기 가공공장들을 많이 꾸려 과일과 남새, 물고기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공업적방법으로 제때에 가공하도록 할것입니다. 크라프트지, 판지를 비롯한 여러가지 질좋은 포장재를 많이 생산하여 공업제품과 농산물들의 포장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수송의 긴장성을 푸는것은 현시기 나라의 전반적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나서는 매우 절실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빨리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교통운수발전에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동서부를 련결하는 철도가 하나밖에 없으며 이것이 철도의 긴장성을 가져오게 하는 주되는 원인으로 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한 이천—세포사이의 철도건설을 다그쳐 동서해안을 련결하는 새로운 철도를 빨리 개통하도록 하는 한편 북부내륙지대의 동서부를 련결하는 강계—혜산—무산사이의 새 철도 건설을 적극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구배가 심하고 물동량이 많은 동부와 내륙 지대의 일부 긴장한 철도지선들을 계속 전기화하고 전기화하지 않은 구간들을 내연화하며 렬차의 견인중량과 운행속도를 높여 철도의 수송능력을 더욱 늘이도록 할것입니다.

빨리 늘어나는 무역화물수송을 원만히 보장하며 철도의 긴장성을 덜어주기 위하여 수상운수를 더욱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배길을 적극 개척하여 연해 및 강하천 운수망을 더 늘이고 철도와 수상 운수의 련대수송을 발전시키며 우리 나라 배에 의한 대외무역수송을 늘이도록 할것입니다. 자동차공업이 발전하는데 따라 자동차수송도 더욱 발전시킬것입니다.

동지들!

기술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 나가는것은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입니다. 또한 기술혁명은 당면한 로력의 긴장성을 풀기 위하여서도 매우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

우리는 7개년계획기간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개건사업을 전면적으로 밀고나감으로써 근로자들의 어렵고 힘든 로동을 많이 덜어주었으나 우리 나라에서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가 남아있고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이 아직 없어지지 않고있으며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사이에도 차이가 많으며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이 아직 가정적부담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고있습니다.

우리는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앞으로 가까운 몇해동안에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3대기술혁명과업입니다.

무엇보다먼저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줄이고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을 없애며 전반적인민경제부문들에서 반자동화, 자동화를 널리 실시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과업은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이 그 어느 부문보다도 많은 채취공업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 이 부문의 로동을 헐하고 생산성이 높으며 보다 안전한 로동으로 만드는것입니다.

광산과 유연탄광들에서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고 점차 반자동화, 자동화에로 넘어가도록 하며 우리 나라 석탄생산에서 압도적비중을 차지하며 작업의 기계화수준이 낮은 무연탄

광들의 기계화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림업부문에서 작업의 기계화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며 수산부문에서 선박들을 대형화, 현대화, 만능화하여 물고기잡이에서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채취공업과 함께 아직도 중로동이 많이 남아있는 부문의 하나는 기본건설부문입니다. 능률적인 건설기계들을 더 많이 공급하고 조립식건설의 비중을 더욱 높여 건설부문에서 기계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겠습니다.

중로동을 없애는데서 우리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짐을 실고부리는 작업을 기계화하는것입니다. 역, 부두, 건설장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짐을 실[redacted]리는 작업은 아직도 다 기계화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든 로동을[redacted] 있을뿐아니라 작업의 신속성을 보장하지 못하고있으며 이것은 수송수단들의 리용[redacted] 높이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되고있습니다. 새 전망계획 기간에 우리는 여러가지 [redacted] 적인 상하차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여 짐을 실고부리는 일의 기계화를 빨리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공업부문에서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을 없애기 위한 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벌려야 하겠습니다.

흑색야금공업, 화학공업, 세멘트공업을 비롯하여 고열작업이 진행되는 부문들에서 고열로동을 완전히 없애기 위하여서는 생산공정전반을 자동화하여야 합니다. 고열이 특별히 심한 부문부터 먼저 시작하여 고열작업이 진행되는 모든 생산공정들을 자동화하며 점차 원격조종에로 넘어가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화학공업, 유색야금공업, 채굴공업, 건재공업을 비롯한 일련의 부문들에서는 아직도 생산과정에 나오는 가스와 먼지 그밖의 유독성물질로 말미암아 로동자들의 건강과 생산에 일정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산부문들에서의 기술적개조를 다그쳐 하루빨리 유해로동을 없애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공업부문들과 작업장들에서 유해로동을 무해로동으로 만들며 고열, 가스, 먼지, 습기로 말미암아 로동자들의 건강과 생산에 지장을 주는 현상을 철저히 없애야 할것입니다.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치는것은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매우 절박한 과업입니다. 우리는 6개년계획기간에 농촌경리의 기계화와 화학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농촌로력을 많이 절약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농기계들을 보다 효과있게 리용하며 여러가지 현대적농기계들 특히 우리 나라 지형조건에 맞는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더 많이 창안제작하여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널리 실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전망계획기간에 먼저 관수체계가 실시되는 2모작밭들과 벼직파를 하는 논들에서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며 점차 그 성과를 확대하여 가까운 앞날에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전인민적운동을 벌려야 하겠습니다.

현시기 농촌경리의 전면적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절박한 과업은 토지정리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는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뜨락또르와 자동차 그리고 여러가지 현대적농기계들을 적지 않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빨리 전진시키지 못하는 주되는 원인은 토지정리가 잘되여있지 않는데 있습니다. 토지정리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려 포전들을 크고 규모있게 만들며 비탈진 밭들을 다락밭으로 만들어 논밭에 기계가 들어가서 능률적으로 일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경리에서 기계의 힘만으로는 사람의 로동을 다 대신할수 없으며 따라서 기계로 할

수 없는 농사일은 화학의 힘으로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효능이 높은 여러가지 살초제를 널리 리용하여 농촌에서 가장 어렵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의 하나인 김매는 일을 화학적방법으로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농촌기술혁명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가까운 앞날에 정보마다 투하되는 로력을 평균 논에서는 60~80공수, 밭에서는 20~30공수로 낮추어 한사람이 논은 5~6정보, 밭은 8~10정보이상 다루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협동농장들에서도 공장, 기업소들에서와 같이 점차 8시간로동제를 실시하며 로동조건에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훨씬 줄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녀성들을 부엌과 가정 일의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을 수행하는것입니다.

우리 당은 녀성들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해방하였을뿐아니라 그들이 사회에 널리 진출할수 있는 조건을 더 잘 마련하여주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왔습니다. 당의 커다란 배려속에서 오늘 우리 녀성들은 나라의 떳떳한 주인으로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적극 이바지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녀성들은 남자들과 같이 사회에 나가서 일하고도 많은 시간을 가정일에 바치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그들은 사회와 가정에서의 이중적인 로력적부담을 걸머지고있습니다. 우리는 녀성들을 가정일에서 해방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그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한 기술혁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녀성들의 부엌일을 덜어주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식료가공공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는것입니다. 여러가지 부식물가공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주식물가공도 널리 조직하여 모든 식료품들을 공업적방법으로 가공하여 공급함으로써 녀성들이 가정에서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음식을 만들수 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식료품가공공업을 발전시키는것과 함께 가정용 랭동고와 세탁기, 전기가마를 비롯한 여러가지 부엌세간들을 많이 생산공급하여 녀성들이 시간을 얼마 들이지 않고 부엌일과 가정일을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기술혁명과업들이 성과적으로 실현되면 우리 나라의 모든 근로자들은 힘들고 품이 많이 들며 비능률적인 로동에서 해방되고 모두가 일을 안전하고 헐하게 하면서도 높은 로동생산능률을 낼수 있게 될것이며 그들의 생활은 더욱 넉넉하여질것입니다.

## 2. 사회주의문화건설

동지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요구할뿐아니라 근로자들의 높은 문화수준을 요구합니다. 기술혁명과 함께 문화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만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길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질적요구를 충족시킬수 있습니다.

현시기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입니다.

착취사회의 낡은 문화와 자본주의적반동문화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의 합법칙적요구입니다. 더우기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내부에 부르죠아반동문화를 퍼뜨리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온갖 반동적문화조류를 반대하여 투쟁하

는것은 매우 절박한 과업으로 나서고있습니다.

문화적침투는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정책의 주되는 수법의 하나로서 해외침략의 길잡이로 되고있습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문화적침투를 통하여 다른 나라의 민족문화를 말살하며 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혁명정신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부화타락하게 만들려고 교활하게 날뛰고있습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는 그 뚜렷한 실례의 하나로 됩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미일반동들과 그 앞잡이들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민족문화가 여지없이 짓밟히고 썩어빠진 《양키문화》와 왜색, 왜풍이 판을 치고있으며 인민들의 정신세계를 좀먹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뿐아니라 공화국북반부에까지 저들의 반동문화를 침투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으며 방송, 출판물, 문학예술작품을 비롯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문화적침투를 철저히 막아내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건전하게 발전시킬수 없으며 사회주의전취물을 튼튼히 지켜낼수 없습니다. 력사적경험은 제국주의자들의 문화적침투를 철저히 막지 않으며 문화건설분야에서 반동적부르죠아요소를 조금이라도 허용하면 민족문화는 점차 말살되며 사람들은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되고 사상적으로 병들게 되며 나아가서는 혁명과 건설사업이 엄중한 난관과 위기에 부닥치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화혁명의 기본화살을 무엇보다먼저 제국주의자들의 문화적침투를 반대하는데 돌려야 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온갖 썩어빠진 부르죠아 문화와 생활양식이 우리 내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하며 문화건설분야에서 조그마한 부르죠아적요소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또한 복고주의적경향을 철저히 반대하여야 합니다.

복고주의는 시대의 요구와 계급적원칙을 떠나서 지난날의것을 덮어놓고 되살리며 찬미하는 반맑스주의적사상조류입니다. 문화건설분야에서 복고주의가 허용되면 지난날의 온갖 불건전한 문화가 머리를 쳐들게 되며 인민들의 의식속에는 반동적인 부르죠아사상, 봉건유교사상을 비롯한 낡은 사상이 자라나게 됩니다.

민족문화유산을 계승한다고 하면서 지난날의 낡고 반동적인것을 덮어놓고 그대로 옮겨놓으며 미화분식하는 경향과 강하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민족문화유산가운데서 뒤떨어지고 반동적인것은 버리고 진보적이며 인민적인것은 오늘의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문화건설분야에서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철저히 막아내고 복고주의적경향을 극복함으로써 교육, 과학, 문학예술을 비롯한 사회주의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을 건전한 토대우에서 더욱 빨리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교육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기술자, 전문가의 대부대, 나라의 인테리대군을 마련하는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생산력은 매우 높은 발전단계에 올라섰으며 경제의 규모도 비할바없이 커졌습니다. 기술자, 전문가들을 더 많이 길러내지 않고서는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인민경제를 제대로 움직일수 없으며 우리앞에 나선 기술혁명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기술자, 전문가들을 대대적으로 길러냄으로써 새 전망계획기간에 모든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의 로력구성에서 대학과 고등기술학교를 나온 기사, 기수 및 전문가들이 10%이상에 이르도록 하며 가까운 앞날에 기술자,

전문가의 대오를 100만명이상으로 늘여야 하겠습니다.

기술자, 전문가들을 많이 길러내기 위하여 이미 있는 대학들과 고등기술학교들의 사업을 개선강화하고 그 양성규모를 늘이며 기술인재에 대한 인민경제부문별 수요를 옳게 타산하여 중앙과 도들에 대학들을 새로 더 내와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장대학과 공장고등기술학교들을 대대적으로 늘이며 야간 및 통신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인테리대군을 길러내는것과 함께 근로자들의 일반지식과 기술지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이 실시되여 새세대들이 모두다 기술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가게 되는 조건에서 기술의무교육의 질을 높이는것은 근로자들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방도로 됩니다. 학교들의 물질적토대를 더 튼튼히 닦고 교원대렬을 잘 꾸리며 교육 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배움의 길을 잃었던 성인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는 사업을 계속 밀고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모든 근로자들이 일정한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늘 공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출판물보급사업과 방송선전사업을 개선강화하며 특히 텔레비죤방송망을 더욱 늘여 가까운 년간에 온 나라의 텔레비죤화를 실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기르는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혁명과 사회주의사회건설의 중요한 과업입니다.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것은 중요한 공산주의적시책의 하나이며 공산주의적교육방법입니다. 사람들의 품격과 사상은 어려서부터 형성되며 따라서 어린시절에 옳바른 교양을 주고 좋은 버릇을 길러주는것은 그들의 장래발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면 어려서부터 조직생활과 규률생활에 버릇되고 집단주의정신과 공산주의적품성이 싹트게 되며 조직적인 생활기풍에 몸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들이 자라난 다음 학교교육과 사회교육도 더 잘될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있는 탁아소, 유치원들의 수용능력을 더 늘이며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탁아소, 유치원들을 더 많이 건설하여 어린이들이 있는 모든곳에 그들을 위한 훌륭한 교육시설을 갖추어놓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모든 학령전어린이들을 다 탁아소,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적 부담에 의하여 기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앞에 나선 사회주의건설의 방대한 과업 특히 새로운 기술혁명의 과업은 과학연구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자연과학부문에서는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우리 공업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며 기술혁명을 더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들도 적극 개척하여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과학부문에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성과와 풍부한 경험들을 리론적으로 일반화하며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더 깊이있게 론증하여야 할것입니다.

문학예술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큰 역할을 맡고있습니다.

문학예술부문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세계관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혁명적인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는데 있습니다. 작가, 예술인들은 우리 당과 혁명의 깊은 뿌리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작품과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아 조국해방전쟁시기 용감하게 싸운 인민군용사들과 인민들의 영웅적투쟁업적을 형상한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천리마의 기세로 질풍같이 내달리며 혁명적

정열로 들끓는 오늘의 위대한 현실과 우리 인민의 보람찬 생활을 생동하게 그리며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영웅하게 싸우고있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잘 형상하여야 할것입니다. 작가, 예술인들은 인민들의 심금을 울리며 그들의 전진운동을 고무추동하는 혁명적인 작품을 많이 창작하기 위하여 현실속에 더 깊이 들어가 생활을 진지하게 탐구하여야 하며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을 훌륭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인민대중은 사회주의문화의 창조자이며 우리 사회에서 문학예술은 근로대중이 널리 참가하여야만 빨리 발전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예활동에서 전문일군본위로 나가려는 경향을 철저히 경계하여야 하며 창작사업에서 신비주의를 마스고 문학예술을 군중적으로 널리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언어는 민족을 이루는 공통성의 하나이며 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힘있는 무기이며 문화의 민족적형식을 특징짓는 중요한 표징입니다. 그러므로 민족어를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습니다.

우리 인민의 귀중한 민족적재부이며 민족의 자랑이 깃들어있는 우리 말은 오늘 남조선에서 엄중한 위기를 겪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에서 우리 말은 그 순수성이 점차 사라지고 잡탕말로 변하여가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민족문화의 찬란한 개화발전을 위하여, 우리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우리 말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전민족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유한 우리 말을 살려쓰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의 건장한 체력은 혁명투쟁과 부강한 사회 건설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체육을 대중화하고 국방체육을 널리 발전시켜 모든 근로자들의 체력을 더욱 증진시키며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켜야 하겠습니다. 체육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체육과학과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문화혁명에서 나서는 이 모든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의 문화를 사회주의적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답은 인민적인 문화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는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문화로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 3. 사상혁명,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동지들!

사상혁명은 사람들의 의식령역에서까지 자본주의를 종국적으로 없애기 위한 심각한 계급투쟁이며 모든 근로자들을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선진적인 로동계급의 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사상혁명을 철저히 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은 혁명을 끝까지 계속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문제이며 따라서 그것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입니다. 주권을 잡은 맑스-레닌주의당은 여기에서 나타날수 있는 온갖 편향을 반대하고 이 문제를 옳게 풀어나가야만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실현하여 나갈수 있습니다. 력사적경험은 맑스-레닌주의당이 인민대중의 계급적각성을 끊임없이 높이지 않고 그들속에서 사상혁명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부르조아사상의 영향이 증대되고 근로자들의 혁명의식이 마비되여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없을뿐아니라 이미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마저 위험에 빠뜨릴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는 당의 일관된 방침에 따라 사상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며 그것은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야 하겠습니다.

사상혁명을 앞세워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온 사회의 로동계급화를 실현하는것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입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화하여야만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계급없는 사회를 만들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 사회가 로동계급화되고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과업이 성과적으로 완수된 다음에도 사람들의 머리속에서는 낡은 사상 잔재가 완전히 없어질수 없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다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한 다음에도 맑스-레닌주의당은 로동계급화의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여야 할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야만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완전히 점령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총결기간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힘차게 벌려왔으며 이 분야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보적인것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는 이 사업을 이제 시작하였을따름입니다. 우리는 지난 기간 얻은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온 사회를 로동계급화, 혁명화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공산주의교양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공산주의교양에서 기본은 계급교양입니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떠난 공산주의사상이란 있을수 없으며 계급교양을 떠난 공산주의교양이란 있을수 없습니다.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은 공산주의사상에서 핵을 이루며 따라서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만 그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만들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적관점으로 무장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계급적원쑤들을 미워하며 제국주의와 착취제도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근로자들속에서 우리의 주되는 투쟁대상인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에 대한 증오심을 더욱 높이며 전체 인민이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언제나 억세게 싸울수 있도록 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하겠습니다.

집단주의는 로동계급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의 하나이며 그것은 근로자들이 굳게 뭉쳐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를 이루고있습니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하는데 계속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할것입니다. 사람들을 집단주의로 무장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그들속에서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들속에서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며 언제 어디서나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사회와 인민의 리익,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혁명정신을 키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기풍으로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우는것은 공산주의교양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근로자들을 로동을 즐기고 로동을 가장 영예로운것으로 여기며 로동에서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며 집단과 사회를 위한 공동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우리 혁명의 전취물인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과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가 있는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는 사상입니다.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만 그들이 조국의 륭성발전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싸울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이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의 혁명적본질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과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똑똑히 알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조국에서 사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하며 우리 인민이 피땀으로 쟁취하고 이루어놓은 사회주의의 전취물을 끝없이 사랑하고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나라의 살림살이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부강한 사회주의조국 건설에 더 많이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지혜와 재능과 정력을 다 바쳐 투쟁하도록 꾸준히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은 반드시 혁명전통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혁명전통은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조선혁명의 구체적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고 혁명리론과 혁명실천을 철저히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이룩된것이며 류례없이 간고하고 괴어린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귀중한 혁명적재부입니다. 경험은 공산주의교양이 혁명전통교양과 결부될 때 그것은 생동한 감화력을 가지며 사람들을 끝없이 감동시킨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혁명전통교양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지만 특히 혁명투쟁의 시련을 겪지 못한 젊은 세대들을 위하여 더욱 절실합니다. 혁명은 계속되며 세대는 끊임없이 바뀌여집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을 혁명전통으로 교양하여야만 그들을 우리 혁명의 참된 계승자로 키울수 있으며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깊이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력사적뿌리를 똑똑히 알게 하며 그들을 혁명선렬들의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백절불굴의 투지와 혁명적락관주의로 철저히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투쟁경험과 공산주의적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으로 근로자들을 무장시켜야 합니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맑스-레닌주의일반적원리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발전시킨것입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우리 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가장 올바른 전략과 전술이며 우리의 모든 활동의 지침입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당과 혁명에 충실한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있으며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옳게 수행하여나갈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당정책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당정책의 본질과 그 정당성을 똑똑히 알게 하며 당정책을 자기의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 언제 어디서나 당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 일하며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당정책을 끝까지 옹호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혁명적실천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입니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실천투쟁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단련되며 혁명가로 자라납니다. 우리는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기 위한 사상사업을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사업의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맡겨진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사상적으로 단련하며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키워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생산실천과 떨어져있는 인테리들은 늘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책에서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찾아낼뿐아니라 로동계급의 조직성과 전투성,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을 배우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그들속에서 혁명적조직

생활을 강화하는것입니다.

공산주의자의 중요한 표징의 하나는 강한 혁명적조직성에 있습니다. 공산주의적혁명정신으로 일관된 높은 사상성과 함께 강한 혁명적조직성을 가져야만 참다운 공산주의자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자의 혁명적조직성은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강화됩니다.

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교양의 학교입니다. 누구나 강한 조직생활을 통해서만 혁명적으로 단련될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충실한 참된 혁명가로 자라날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조직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며 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조직에서 주는 위임분공을 성실히 실행하며 조직의 지도와 통제 밑에서 생활하며 끊임없이 혁명적교양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비판사업을 강화하는것입니다. 비판의 방법으로 사상투쟁을 벌리며 사상투쟁을 통하여 교양개조하는것, 이것은 사람들을 혁명화하는데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입니다. 모든 조직들에서 비판사업을 강화하여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들과 강한 사상투쟁을 벌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비판에 대한 그릇된 태도들과 강하게 투쟁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비판에 대한 원칙적태도를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비판은 어디까지나 동지를 전져주고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하며 결코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되여서는 안됩니다. 비판에서 결함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넘겨씌우려 하여서는 안되며 비판에 대하여 복수하려 하여서도 안되며 사람들에게 함부로 정치적감투를 씌우거나 비판받은 사람들을 덮어놓고 처벌하려 해서도 안됩니다. 또한 비판사업을 깜빠니야적으로 할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꾸준히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이러한 원칙적비판의 정신으로 교양함으로써 혁명적비판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모두가 다 비판속에서 단련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릇된 현상들과 제때에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그들이 끊임없이 교양개조되고 혁명화되여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철저히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는것입니다.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이란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의 활동방식이며 따라서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한다는것은 정치, 경제, 문화,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생활규범, 사회주의적행동준칙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활동하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지난날 우리는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국가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개인생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분야에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이 적지 않게 남아있으며 그것은 사회주의건설과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에서 장애로 되고있습니다.

우리는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모든 사람들이 집단주의에 기초한 우리 사회의 본성에 맞게 살며 행동하도록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국가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자본주의적 관리법과 규정들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관리법과 규정들을 완성하며 특히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적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등록실사하고 보관관리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공동재산을 리용처리하는데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경제관리운영에서 낡은 사상이 발붙일 조그마한 틈도 없도록 정연한 사회주의적경제관리운영질서를 세워야 할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사회주의적공동생활질서를 정연하게 세우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맞는

문화도덕생활의 규범들을 끊임없이 창조하여나가야 하겠습니다. 근로자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도덕규범들을 없애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운동으로 새로운 도덕생활의 본보기를 하나하나 만들어 일반화하며 점차 공산주의적도덕규범들을 완성하여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들은 당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방침을 받들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계속 힘차게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신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고 가정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특히 지도일군들이 자신과 가정을 혁명화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을 혁명화하는데로부터 시작하여 분조와 작업반, 인민반을 혁명화하고 나아가서 직장과 리를 혁명화하여야 하며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점차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을 열렬한 혁명가, 참다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가 하나의 사상,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굳게 단합되고 혁명적기백과 창조적정열로 들끓도록 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야 할것입니다.

## 4. 국 방 력 강 화

동지들!

우리 나라의 정세는 의연히 첨예하고 긴장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은 계속 강화되고있으며 그들의 새 전쟁 도발음모는 더욱더 로골화되고있습니다. 미제의 비호밑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또한 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을 강화하고있습니다. 남조선의 괴뢰도당은 미일반동들의 이중의 앞잡이로서 자기 상전들의 전쟁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분별없이 날뛰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전쟁의 위험은 날을 따라 더욱더 커가고있습니다.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면서 이와 병행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이 이미 내놓은 전체 인민의 무장화와 전국의 요새화,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 방침을 계속 견지하며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국방력을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전민무장화를 더욱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전체 인민이 군사를 성실히 배우고 군사훈련에 더욱 열성적으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들이 한손에 마치와 낫을 들고 다른 손에 총을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면서 적들이 일단 덤벼들 때에는 이르는곳마다에서 침략자들을 소멸할수 있도록 언제나 튼튼히 준비되여있어야 할것입니다. 전체 인민이 다 무장하고 전체 인민이 다 적을 미워하며 전체 인민이 다 달라붙어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울 때에는 어떠한 원쑤라도 능히 타승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민군대는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우리의 위대한 사회주의전취물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보위하여야 할 영예로운 임무를 지니고있습니다. 인민군대는 적들의 어떠한 불의의 침공에 직면하더라도 제때에 섬멸적인 타격을 가하며 침략자들을 철저히 격멸할수 있도록 언제나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요하게 나서는 과업은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전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완

성하며 그에 따라 군대의 현대화를 실현하는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산과 강하천이 많고 해안선이 긴 나라입니다. 우리 나라의 이와 같은 지형조건을 잘 리용하여 산악전과 야간전투를 잘하고 대부대작전과 소부대작전, 정규전과 유격전을 옳게 배합하면 비록 최신군사기술로 발톱까지 무장한 적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격멸할수 있는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의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경험이 이것을 증명하여주며 오늘 웰남전쟁의 경험이 또한 이것을 증명하여주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민군대를 현대화하며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인민군대를 현대화한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의 전법과 다른 나라의 무기와 군사기술기재들을 기계적으로 본따려 하거나 교조주의적으로 받아들이려 한다면 국방건설에 엄중한 손실을 끼칠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경험을 충분히 참작한 당의 군사전략사상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의 부족점들을 보충하고 약한 고리들을 보강하며 우점들을 더욱 살리는 방향에서 전법을 완성하며 그에 기초하여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발전시키고 인민군대의 무기와 군사기술기재들을 끊임없이 개선하여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무기들을 많이 만들어내며 우리 나라의 공업발전수준에 따라 군사장비를 현대화하여나가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군군인들의 전투훈련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전법에 정통하며 우리의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충분히 소유하는 방향에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작은 나라이며 갓 발전된 나라입니다. 내놓고 말하여 우리는 군사기술장비면에서 발전된 나라들과 경쟁을 할수 없으며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쟁의 운명은 결코 그 어떤 현대적무기나 군사기술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 아닙니다. 제국주의자들이 비록 군사기술적우세를 가지고있지마는 그대신 우리 인민군대는 그들에 비하여 정치사상적우월성을 가지고있습니다. 조국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숭고한 사명과 혁명정신, 장병들사이의 동지적우애와 자각적군사규률, 인민들과의 혈연적련계와 같은 고상한 기풍은 어떠한 제국주의침략군대도 가질수 없는 우리 인민군대의 특성입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바로 자기의 이와 같은 정치사상적우월성으로 하여 기술적으로 우세한 적들과 능히 싸워이길수 있습니다.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전당과 전체 인민이 다 달라붙어 전쟁준비를 더욱 다그쳐야 합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안일성과 해이성을 반대하고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어떤 불의의 시각에 원쑤들이 쳐들어와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맞받아나아가 싸울수 있도록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하며 특히 전쟁을 두려워하는 수정주의적사상조류가 우리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하여야 할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전선과 후방의 인적 및 물적 수요를 장기적으로 원만히 보장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많이 달려있습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강화하여 필요한 물자의 예비를 충분히 마련하며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고 정세의 요구에 맞게 경제를 개편하며 전시에도 생산을 계속할수 있도록 미리부터 준비하고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우리는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물질적토대를 튼튼히 닦아야 할것입니다.

동지들! 우리의 국방력은 말 그대로 방위적성격을 띠고있으며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우리 조국과 우리 인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위협하려 하지 않으며 그 누구도 침략하려 하지 않습니다. 남에 대한 위협과 침략, 이것은 우리 당의 정책과

는 아무런 인연도 없습니다. 우리 나라는 평화애호적인 사회주의나라이며 우리 인민은 평화를 열렬히 사랑하는 인민입니다. 우리는 우리 국가사회제도의 본질로부터 출발하여 시종일관 평화를 주장하며 평화를 유지공고화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평화를 고수하려는 우리의 지향과 념원 그리고 참을성있는 노력을 나약성의 표현으로 오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민은 누구를 먼저 다치려 하지 않지만 그 누가 우리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쟁하면서도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제국주의자들이 무력으로 덤벼들 때에는 침략자들이 다시는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소탕할것입니다. 우리는 국방력을 강화하여 원쑤들의 어떠한 불의의 공격이라도 견정적으로 대처부시고 사회주의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할것이며 사회주의동방초소를 굳건히 지켜나갈것입니다.

## 5. 인민생활의 균형적발전

동지들!

인민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키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입니다. 우리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도 결국은 전체 인민이 더욱 넉넉하고 골고루 다 잘살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인민생활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계속 끊임없는 배려를 돌릴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미 많은 일을 해놓았으며 우리가 마련하여 놓은 경제적밑천은 매우 큽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다 인민생활에 돌린다면 우리 인민은 지금보다 훨씬 더 넉넉하게 살수 있으며 남보다 못하지 않게 잘살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혁명하는 도상에 있습니다. 미제가 조국의 절반땅을 강점하고있고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도발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고있으며 조국통일의 위업을 아직 이룩하지 못한 조건에서 우리는 결코 사치하고 화려한 생활을 할수 없으며 혁명하는 시대의 사람들답게 언제나 검박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최대한으로 절약하고 축적하여 원쑤들의 임의의 침공에 대처할수 있는 전쟁준비와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는 물질적준비를 선차적으로 하면서 근로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살수 있게 하며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다같이 고르롭게 높이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현시기 인민생활을 높이는 분야에서 우리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빨리 없애는것입니다. 물론 총결기간 우리 당은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강화하여 농촌의 면모를 개변시키고 농민들의 생활을 빨리 높이였으며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여놓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날 우리 나라 농촌이 너무나 뒤떨어져있었기때문에 아직도 농촌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도시보다 뒤떨어져있으며 우리 농민들이 원래 너무 어렵게 살았기때문에 그들의 생활은 아직 로동자들의 생활보다 못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푸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 하루빨리 농촌의 락후성을 종국적으로 없애고 농민들의 생활을 로동자들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민들의 생활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군을 잘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는것입니다.

군은 직접 농촌을 지도하며 농민들의 살림에 직접 접근하고있는 행정적인 말단지도단

위이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거점입니다. 그러므로 농촌의 발전과 농민생활의 향상은 군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군을 잘 꾸리고 그 역할을 높여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더욱 다그치며 농민들의 생활을 빨리 높이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무엇보다먼저 농촌에 대한 공급기지로서의 군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군들에 랭동공장과 과일, 남새 가공공장, 고기가공공장들을 꾸리고 이동식가공설비들도 많이 마련하여 농민들이 생산하는 고기와 과일, 남새를 비롯한 농산물을 제때에 수매하여 가공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군의 공급기지를 잘 꾸리고 농촌상점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가공된 식료품과 여러가지 공업제품을 농촌에 공급하는 사업을 더 잘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군이 농산물수매사업과 농촌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을 잘하면 농민들의 수입은 더 빨리 늘어날것이며 농촌에서도 도시에서와 같이 필요한 상품을 마음대로 살수 있을것입니다.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나서는 절박한 문제의 하나는 모든 농촌리들에 뻐스가 들어가도록 하는것입니다. 농촌리들에 뻐스가 들어가게 되면 농촌근로자들이 교통의 불편을 느끼지 않게 될뿐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서 도시와 농촌의 련계는 더욱 밀접하여질것이며 이것은 농촌의 락후성을 빨리 없애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몇해동안에 군과 리들을 련결하는 길들을 잘 닦고 아직 뻐스가 들어가지 못한 모든 농촌리들에 뻐스가 다 들어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주민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농촌수도화를 실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직 수도시설이 갖추어져있지 않는 군소재지들은 물론 모든 농촌부락들에까지 수도를 놓아 농촌녀성들이 물을 이고다니는 현상을 없애며 모든 농촌주민들이 보다 위생문화적으로 살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며 농촌주민들의 문화생활조건을 개선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들의 생활문제를 더욱 원만히 풀기 위하여 살림집을 계속 많이 지어야 하겠습니다. 해마다 도시에서 10만세대, 농촌에서 15만~20만세대씩의 살림집을 짓기 위한 전군중적운동을 벌려 지금 모자라는 살림집과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는데 따르는 살림집수요를 해결하도록 할것입니다. 그리고 살림집들을 알뜰하고 쓸모있고 현대적이며 문화적으로 짓도록 하는데 응당 큰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평양시를 비롯한 주요도시들에 중앙난방을 실시하여 근로자들이 더 편리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수 있게 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몇해동안에 로동자, 사무원들의 로임을 전반적으로 올리고 특히 낮은 로임을 받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로임을 훨씬 올리며 일용품을 비롯한 여러가지 소비품생산이 늘어나는데 따라 모든 소비품의 값을 대폭 낮추며 인민들이 많이 쓰는 대중소비품의 값은 50%이상 낮추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보건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사람들의 생명을 더 잘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끊임없이 증진시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병원들을 증설하고 의료일군들을 늘이며 여러가지 의약품과 의료기구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치료예방사업을 더욱 개선하도록 할것입니다. 특히 군병원들을 잘 꾸리고 농촌녀성들을 위한 산원시설을 강화하며 농촌리의 진료소들을 병원화하고 모든 리에 아동병동을 꾸려 농촌주민들에 대한 의료봉사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을 다같이 고르롭게 높이며 우리 나라의 모든 근로자들이 보다 더 행복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 Ⅲ.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동지들!

남조선혁명은 전조선혁명의 구성부분입니다.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것과 함께 남조선에서 혁명투쟁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총결기간에 남조선정세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자기들의 군사침략기지로, 군사적부속물로 더욱 철저히 전변시켰으며 군사파쑈독재에 의거하여 침략과 전쟁 정책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였습니다. 다른 한편 남조선에서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이 더욱 첨예화되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혁명적 진출이 적극화되였으며 따라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에는 보다 심각한 위기가 조성되였습니다. 이것이 지난 기간 남조선정세발전에서의 주되는 총화입니다.

남조선혁명은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인 동시에 미제의 앞잡이들인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과 그들의 파쑈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입니다. 이 혁명의 기본임무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침략세력을 내쫓고 그 식민지통치를 없애며 군사파쑈독재를 뒤집어엎고 선진적인 사회제도를 세움으로써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이룩하는데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있는 실제적통치자이며 남조선혁명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입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 식민지통치는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입니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며 그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지 않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이 오늘의 불행한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습니다. 남조선의 한줌도 못되는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을 충실히 집행하고있으며 그들의 비호밑에 남조선인민들을 억압하며 가혹하게 착취하고있습니다.

남조선혁명의 동력은 로동계급과 그의 믿음직한 동맹자인 농민을 비롯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진보적인 청년학생, 지식인, 애국적군인, 일부 애국적 민족자본가들과 소자산계급입니다.

남조선에서의 혁명투쟁은 미제침략세력과 그와 결탁한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반대하는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진보적 청년학생, 지식인, 애국적군인, 애국적 민족자본가들과 소자산계급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의 정의의 투쟁입니다.

남조선인민들은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혁명투쟁을 계속 꾸준히 벌려왔습니다.

특히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전후시기에 와서 점차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어려운 시련속에서 그 성과를 확대하면서 자기의 앞길을 개척하여왔습니다. 전후에 남조선인민들은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에 고무되면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며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와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계속 억세게 싸웠습니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피도 많이 흘렸고 가슴아픈 실패도 여러번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한 희생과 실패는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포악한 적들과는 오직 조직된 힘으로 맞서야만 승리할수 있다는 혁명투쟁의 고귀

한 진리를 점차 깨닫게 하였습니다.

남조선혁명가들은 혁명력량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우며 투쟁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당을 내올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였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남조선혁명가들의 줄기찬 투쟁의 결과로 그리고 남조선혁명운동발전의 필연적요구를 반영하여 1955년 12월에 남조선혁명가들의 합법적정당으로서 진보당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진보당은 반제, 반파쑈, 평화통일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투쟁강령을 내놓고 각계각층의 애국적민주주의력량을 묶어세우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렬정책과 파쑈화정책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였습니다.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진보당의 위신은 높아졌으며 특히 이 당이 내놓은 평화통일강령은 남조선사회에서 커다란 지지를 받게 되였습니다. 1956년에 있은 괴뢰대통령 《선거》때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폭압과 사기와 협잡속에서도 진보당이 내세운 《후보자》가 미제의 충실한 앞잡이인 리승만이 얻은 투표수보다 약간 적은 수인 200만표이상의 찬성투표를 받았다는 사실은 이에 대한 뚜렷한 증거로 됩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이 미제의 식민지파쑈통치와 민족분렬정책을 반대하며 조국의 평화적통일과 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절실히 념원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진보당의 영향력이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빨리 확대강화되는데 겁을 집어먹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류혈적인 탄압책동을 벌려 수많은 진보당 당원들을 체포, 투옥하고 그 당수 조봉암선생을 학살하는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으며 당을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그리하여 1958년 1월에 진보당은 자기 존재를 끝마치게 되였습니다. 비록 진보당이 원쑤들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기세를 대중적혁명운동으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자체의 혁명력량을 보존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으나 남조선에서 조국통일의 기운을 더욱 높이고 인민들의 반미반독재투쟁을 발전시키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진보당이 해산된후 남조선의 애국적인민들에 대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탄압책동은 더욱더 강화되였습니다. 그러나 온갖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혁명투쟁은 계속 줄기차게 벌어졌으며 혁명력량은 끊임없이 자라났습니다.

1960년 4월에 있은 인민봉기는 남조선혁명운동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어놓았습니다. 4월인민봉기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오래동안 쌓이고쌓였던 남조선인민들의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였으며 남조선전역에서 수백만명에 이르는 광범한 군중이 참가한 대중적인 반미구국항쟁이였습니다. 남조선 청년학생, 지식인들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미제의 오랜 앞잡이인 리승만괴뢰정부는 결국 무너지고말았습니다. 이것은 전후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에서 이룩한 첫 승리였습니다. 4월인민봉기는 남조선인민들의 영웅적기개를 뚜렷이 시위하였으며 인민대중이 힘을 합쳐 억압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일떠선다면 원쑤들의 어떠한 아성도 능히 짓부실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4.19봉기를 계기로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정세는 혁명의 편에 리롭게 전변되였습니다.

4월인민봉기에 뒤이어 남조선 애국자들과 인민대중의 혁명적진출은 날로 강화되고 진보적인 정치세력이 대두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대중당이 나오게 되였습니다. 남조선혁명가들의 지도밑에 사회대중당은 민족자주로선에 기초한 민주주의적통일국가의 창건을 당면과업으로 내세우고 인민들의 대중적진출을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구국운동에로 이끄는 활발한 조직정치활동을 벌렸습니다. 이 당은 광범한 민주주의력량의 통일전선적련합체인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를 뭇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각계각층 인민들의 공동투쟁을 조직지도하였습니다. 사회대중당의 지도밑에 투쟁의 불길은 남조선 온 지역에 세차게 타번지고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통일만이 살길이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구호를 들고 남북의 장벽을 허물어뜨리기 위한 영웅적인

투쟁을 벌렸습니다.

그러나 사회대중당은 청년학생들의 혁명적진출을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끝장내며 그 식민지통치기구를 때려부시고 민주주의적정권을 세우기 위한 투쟁에로 발전시키지 못하였으며 이 투쟁에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조직동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사회대중당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반동군사깡패들을 내세워 반혁명적인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혁명력량에 대한 파쑈적인 공격을 감행하여나섰을 때 그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지 못하였으며 청년학생들의 투쟁은 결국 탄압당하고말았습니다.

5.16 《군사정변》이 있은후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남조선에서 로골적인 군사파쑈통치를 실시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남조선인민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마저 짓밟고 모든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들을 강제로 해산시켰으며 언론, 출판 기관들을 폐쇄하고 수십만의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을 닥치는대로 검거, 투옥,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다. 원쑤들의 이와 같은 야수적폭압으로 말미암아 사회대중당은 파괴당하고 남조선의 혁명력량은 커다란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전후 이러한 투쟁과정을 통하여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더욱더 각성되였으며 많은 귀중한 교훈과 가치있는 투쟁경험을 쌓았습니다. 남조선혁명운동의 력사적경험은 정권을 위한 투쟁에서 평화적이행이란 있을수 없으며 또한 순수 대중운동만으로는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미제의 비호밑에 남조선의 력대반동통치배들은 인민들의 지지를 받는 진보적인사들이 정권에 들어 앉을 기색이 조금이라도 보이기만 하면 그들을 무참히 학살하였으며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나라의 통일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대중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매번 야수적으로 탄압하는것으로써 대답하였습니다. 진보당도 바로 조국통일의 구호밑에 선거에서 인기를 끌게 되자 곧 파괴당하였으며 사회대중당 역시 광범한 대중을 조국통일을 위한 구국투쟁에로 이끌고 인민들속에서 신망이 높아지자 강제로 해산당하고말았습니다. 자기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혁명적으로 나가려는 사람들에 대하여 테로를 감행하는것은 원쑤들의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놈들은 해방직후에도 려운형선생을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주장하였다는 단 한가지 리유로 암살하였으며 김구선생 역시 남북조선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에 참가한뒤 진보적으로 나가게 되자 암살하였습니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남조선의 반동통치배들이 자기의 지배권을 공순히 양보하려 하지 않으며 진보적력량을 압살하기 위하여 반혁명적폭력에 필사적으로 매여달리고있는 조건에서 오직 혁명적인 투쟁방법으로써만 정권을 쟁취할수 있다는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였습니다. 그들은 혁명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대중투쟁을 적극 벌리는것과 함께 적들의 반혁명적폭력에 혁명적폭력으로 대항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어야 한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되였습니다.

특히 4.19인민봉기와 그후의 사태발전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며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기 위한 결정적인 혁명투쟁을 통해서만 인민들은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쟁취할수 있으며 이러한 투쟁은 오직 로동계급의 전위대인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밑에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이 동원되여야만 승리할수있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남조선혁명가들은 원쑤들과의 투쟁에서 피의 대가로 얻은 고귀한 경험과 교훈을 옳게 살리면서 군사파쑈통치배들의 악독한 폭압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혁명투쟁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습니다. 그들은 지난날 남조선혁명운동의 본질적약점을 극복하고 혁명을 성과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관건적고리를 로동계급의 맑스-레닌주의당창건에서 찾았으며 온갖 간난신고를 이겨내면서 통일혁명당건설을 다그치였습니다.

통일적맑스-레닌주의당, 로동계급의 당으로서의 통일혁명당은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간고한 혁명투쟁속에서 나오게 되였습니다. 로동계급의 맑스-레닌주의당의 출현으로 남조선의 억압받고 착취받는 광범한 인민대중은 자기의 계급적 및 민족적 리익의 참다운 옹호자를 가지게 되였으며 자유와 해방을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자기의 믿음직한 정치적참모부를 가지게 되였습니다.

통일혁명당의 정치적립장과 투쟁목표는 지난해 8월 서울에서 이 당 중앙위원회의 명의로 발표된 통일혁명당 선언과 강령에 뚜렷이 밝혀져있습니다.

통일혁명당 선언과 강령에서는 당의 지도리념이 맑스-레닌주의적주체사상이라는것을 강조하고 당의 최고목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것이며 당면목적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와 파쑈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여 부패한 식민지반봉건적사회제도를 뒤집어엎고 그 무덤우에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세우며 나아가서 민족의 희망과 념원인 조국통일의 대업을 성취하는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혁명당이 내세우고있는 투쟁목표와 투쟁강령은 남조선사회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각계각층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미제침략자들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의 공동의 정치강령으로 되며 전체 남조선인민들의 투쟁목표로 됩니다.

통일혁명당조직들은 매국적《한일회담》을 반대하는 1964년의 6.3봉기, 《한일협정》을 배격하는 1965년 8월투쟁, 1967년의 괴뢰대통령 및 괴뢰국회의원 《선거》반대투쟁을 비롯한 많은 투쟁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에서 지도적역할을 하고있습니다. 투쟁과정에서 당은 끊임없이 혁명적으로 단련되였으며 남조선인민들속에서 그 영향력과 신임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오늘 남조선혁명가들은 통일혁명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는 한편 그 주위에 애국적인민들을 굳게 묶어세우며 지하와 산속에서, 감옥과 교수대에서 영웅적인 반미구국투쟁을 벌리고있습니다.

동지들! 남조선에서 반혁명을 때려부시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혁명력량을 계속 강화하여야 합니다. 혁명력량을 충분히 마련하여야 원쑤들의 반혁명적공세를 제때에 물리칠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할수 있습니다.

혁명력량을 마련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혁명의 참모부인 맑스-레닌주의당을 강화하며 그 주위에 로동자, 농민을 굳게 묶어세워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것입니다. 남조선혁명가들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혁명군중이 있는 모든곳에서 당력량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대중속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당의 대중적지반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속에서 계속 여러가지 형태의 대중단체들을 조직하며 그것을 튼튼히 하여야 합니다.

혁명의 기본부대를 잘 꾸리는것과 함께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계층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반혁명세력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혁명력량의 절대적인 우세를 보장할수 있습니다. 남조선의 혁명조직들은 반제, 반파쑈민주화의 기치밑에 모든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와 각계각층 군중들과 개별적인사들을 망라하는 반미구국통일전선을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할것입니다. 특히 청년학생들을 혁명대오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이들과 혁명의 주력군인 로동자, 농민들과의 조직적뉴대를 긴밀히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혁명력량은 광범한 대중적투쟁이 벌어지는 조건에서만 끊임없이 장성강화될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만 인민대중의 정치적각성이 높아지고 조직적결속이

축진되며 혁명의 핵심대렬이 늘어나고 혁명조직들의 전투력이 강해집니다.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장성발전시키는 과업이 긴급하면 할수록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대중적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조직전개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옳은 전략전술적지도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판단하고 혁명발전의 요구와 군중의 의식수준을 잘 참작하여 그에 알맞는 투쟁구호를 내세우고 투쟁형태와 투쟁방법을 옳게 선택하며 원쑤들의 내부모순과 약점들을 비롯한 온갖 가능성들을 능숙히 리용하는것입니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합법 및 반합법 투쟁과 비합법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큰 규모의 투쟁과 작은 규모의 투쟁과 같은 여러가지 투쟁형태와 투쟁방법을 옳게 결합하여 혁명운동을 적극 밀고나가야 할것입니다.

현단계에서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적폭압을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투쟁을 적극 발전시키는것입니다.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군사파쑈독재를 반대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적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정치투쟁과 생존의 권리를 위한 근로대중의 경제투쟁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정치적자유를 위한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더욱 목적의식화하면서 그들의 민주주의운동을 로동자, 농민들의 정치투쟁과 밀접히 련결시키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혁명적폭력은 혁명적폭력으로 짓부시며 폭력에는 언제나 폭력으로 맞설수 있도록 혁명력량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투쟁을 통하여 정치적군대를 튼튼히 꾸리고 혁명력량을 끊임없이 축적하여나간다면 혁명의 결정적시기를 준비있게 맞이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리하여 구경은 현 반동정권을 뒤집어엎고 인민민주주의정권을 세움으로써 남조선혁명의 목적을 이룩하고야말것입니다.

물론 남조선혁명의 승리는 쉽게 이루어질수 없으며 그 앞길은 의연히 험난합니다. 그러나 원쑤들의 어떠한 발악도 어떠한 간난신고도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일떠선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으며 남조선혁명의 승리적전진을 멈춰세울수 없습니다.

남반부인민들은 자기의 혁명투쟁에서 외롭지 않으며 북반부에 위력한 혁명기지를 가지고있습니다. 물론 남조선혁명은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자신의 투쟁입니다. 억압받고 착취받는 인민대중은 오직 자신의 혁명투쟁에 의하여서만 자유와 해방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남조선인민들자체가 주동이 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북반부인민들은 같은 민족으로서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원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국제정세는 반혁명에는 불리하고 혁명에는 유리하게 전변되고있으며 모든 대륙의 진보적인민들이 남조선에 대한 미제국주의의 침략정책을 규탄하고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해방투쟁을 견결히 지지성원하고있습니다.

남조선에서 미제식민지통치의 붕괴와 인민들의 혁명위업의 승리는 반드시 오고야말것입니다.

동지들!

미제국주의의 남조선강점으로 인한 국토의 량단과 민족의 분렬은 남조선인민들에게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있을뿐아니라 전체 조선인민에게 커다란 민족적재난을 가져다주고있으며 전조선사회의 통일적발전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있습니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현단계에 있어서 전체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임무이며 한시도 미룰수 없는 가장 절박한 과업입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방침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민족적량심을 가진 민주인사가 정권에 들어앉아 미군철거를 주장하고 정치범들을 석

방하며 민주주의적자유를 보장하는 조건이라면 그들과 언제 어디서나 평화적조국통일문제를 가지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것을 루차 표명하였습니다. 남조선의 현위정자들이 파쑈적인 군사정변을 꾸며내고 정권을 가로챈 다음에도 우리는 그들이 매국배족행위를 그만두고 진정으로 민족적립장으로 돌아설것을 바라면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내놓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참을성있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대를 몰아낸 다음 남북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이고 서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데 대한 협정을 맺으며 남북사이의 경제문화교류와 인사왕래를 비롯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며 조선인민의 자주적의사에 따라 평화적방법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기본조건이 마련될 때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민주주의통일정부를 세울것을 남조선당국에 여러번 제의하였습니다. 만약 이러저러한 리유로 남북조선총선거를 당장 실시할수 없다면 먼저 민족공동의 관심사로 나서는 긴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하나의 과도적대책으로서 남북조선의 련방제라도 실시할것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조선의 위정자들은 전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한 우리의 정당한 제안들을 매번 묵살해버렸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한사코 반대하여 왔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리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비호밑에 남조선괴뢰들은 조선의 통일은 오직 《승공통일》이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힘을 키워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있지도 않는 이른바 《남침의 위협》으로부터 남조선을 《보호》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조선혁명을 말살하고 나아가서는 공화국북반부를 무력으로 침공하려는 침략적야망을 가리우기 위한 연막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쑤들은 이런 황당한 구실을 내걸고 미제침략군대의 남조선강점을 영구화하려고 꾀하는 한편 남조선에서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며 군사시설들을 확장하며 전쟁준비를 미친듯이 다그치고있습니다.

남조선위정자들이 부르짖고있는 《승공통일》이란 공산주의를 없애고 《통일》하자는것입니다. 이것은 허황한 망상이며 얼빠진자들의 잠꼬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벌써 25년 동안이나 공산주의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고 자기들의 행복한 새 생활을 창조하여왔습니다. 공산주의사상은 이미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의 심장을 튼튼히 틀어잡았으며 허물수 없는 위대한 물질적힘으로 전변되었습니다. 조선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제쳐놓고 나라를 통일하겠다는것은 사실상 통일을 하지 않자는것이며 남조선을 영원히 미제의 식민지로 내맡기자는것입니다.

요즘 남조선괴뢰들이 떠들어대고있는 이른바 《평화통일구상》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조국통일문제를 실현할 아무런 방도도 없는, 철두철미 허위와 기만에 찬 정치적모략선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평화통일구상》이요, 뭐요 하고 떠벌이는 목적은 남조선에서 날로 높아가고있는 자주적평화통일기운을 무마하고 저들의 매국배족행위를 가리우며 우리의 조국통일방안을 지지하는 세계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려는데 있습니다.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총칼로 탄압하며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계속 애걸복걸하며 일본군국주의침략세력까지 남조선에 끌어들이며 자기 민족을 외국의 노예로 팔아넘기며 월남침략전쟁에서 남조선청장년들을 미제의 총알받이로 내몰고있는 이 매국역적들과 어떻게 나라의 통일문제를 운운할수 있단 말입니까?

남조선에 미제침략군대와 현괴뢰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나라의 평화통일이란 생각조차 할수 없습니다.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인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그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현군사파쑈독재를 뒤집어엎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남조선에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 서면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조선의 애국적민주력량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우리 조국의 통일은 순조롭게 실현될것입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그 어떤 발악적인 책동으로써도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억센 투지를 꺾을수 없습니다. 남북조선의 전체 인민들은 굳게 뭉쳐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원쑤들의 음흉한 책동을 반드시 짓부시고야말것이며 조국을 기어코 통일하고야말것입니다.

# IV.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지들!

총결기간 우리 당은 변천되는 복잡한 국제정세를 제때에 옳게 평가하고 옳바른 대외정책을 실시하였으며 국제관계분야에서 많은 일을 하여놓았습니다. 당의 자주적이고 원칙적인 대외정책은 세계의 많은 형제당들과 나라들, 세계의 수많은 혁명조직들과 인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있으며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많은 혁명동지들과 벗들을 가지게 되였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끊임없이 강화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이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결과이며 우리 당 대외정책의 정당성을 뚜렷이 보여주는것입니다.

우리 혁명의 국제적환경은 오늘도 의연히 복잡하고 긴장합니다. 그러나 정세발전의 전반적추이는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에게는 리롭게, 제국주의와 반동 력량에는 불리하게 전변되고있습니다. 현국제정세의 중요특징은 인민들의 반제혁명투쟁이 날로 앙양되고있는 반면에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이 더욱 강화되고있는것입니다.

최근년간에 국제무대에서 벌어지고있는 모든 사변들은 제국주의 무엇보다도 미제국주의의 침략적, 략탈적 본성을 더욱더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의 침략적야망에는 끝이 없습니다. 미제국주의는 온 세계를 지배하려는 번합없는 목적밑에 아세아와 중근동,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구라파와 대양주 그리고 큰 나라와 작은 나라 할것없이 세계의 모든 대륙, 모든 지역, 모든 나라들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으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위업에 악랄하게 도전하여나서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가 내리막길을 걷고있고 그 처지가 어려워짐에 따라 더욱더 필사적으로 침략과 전쟁 정책에 매여달리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힘의 정책》을 공공연히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니, 《협상》이니, 《교류》니 하는 갖가지 허울좋은 간판들을 들고나오고있으며 이른바 《평화전략》에 대하여 떠들어대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들의 침략정체를 가리우며 세계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기 위한 상투적인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제의 《평화전략》이란 곧 뒤집어놓은 전쟁전략을 의미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다름아닌 《평화》의 미명밑에 진보적인민들을 반대하는 야만적인 침략전쟁을 벌려놓고있으며 또한 《평화》의 미명밑에 그들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사상정치적와해책동을 강화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는 현대의 가장 흉악하고 파렴치한 침략자, 략탈자이며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의 첫째가는 공동의 원쑤입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 미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보다 더 절박한 과

업은 없습니다. 오직 미제국주의침략세력을 반대하는 견결한 투쟁을 통하여서만 세계평화를 수호할수 있으며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위한 투쟁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도 승리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오늘 미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막을수 없는 시대의 추세로 되였습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로동운동이 강화되고있으며 더욱 많은 평화애호인민들이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서고있습니다. 인민들의 반전운동은 미국안에서도 대중적인것으로 되였습니다. 미제국주의는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얻어맞고있으며 안팎으로 곤경에 빠지고있습니다.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서는 아세아와 구라파,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큰 나라와 작은 나라 할것없이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반미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더욱 광범히 벌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미제의 범죄적인 웰남침략을 반대하는 반전운동을 전세계적인 범위에서 힘있게 벌리며 모든 반제력량이 인도지나인민들을 비롯한 싸우는 나라 인민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것입니다. 이와 함께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국가들과 진보적인민들은 분렬된 나라들에서의 미제의 침략책동을 반대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오직 미제가 발붙이고있는 세계의 모든곳에서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며 모든 반제력량이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지지성원하여야만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성과적으로 파탄시킬수 있으며 세계평화와 안전을 유지공고화할수 있습니다.

동지들! 오늘 아세아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가장 치렬한 투쟁전선으로, 반제혁명투쟁의 기본무대로 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침략의 예봉을 아세아에 돌리고있는것도 바로 이 지역에 혁명하는 나라들, 싸우는 나라들이 많고 이 지역에서 반제혁명운동이 치렬하게 벌어지며 제국주의자들의 지반이 밑뿌리로부터 뒤흔들리고있는 사정과 관련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서 혁명력량의 급격한 장성을 가로막고 식민지통치를 부지하기 위하여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사상적으로 나약하고 반제적립장이 견결하지 못한 나라들에 대하여서는 사상문화적침투를 강화하여 이 나라들을 안으로부터 와해시키려 하는 한편 아세아의 혁명하는 나라들은 무력으로 각개격파하려 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강도적본성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범죄적침략전쟁을 계속하고있을뿐아니라 라오스에 대한 무력간섭을 더욱 강화하고있으며 최근에는 저들의 침략무력과 추종국가고용병들을 동원하여 캄보쟈에 대한 공공연한 무력침공을 감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전쟁은 인도지나전역에 확대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키려고 매일과 같이 도발책동을 감행하고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의 불가분리의 령토인 대만을 계속 강점하고 중국인민을 반대하는 침략행위를 끊임없이 강화하고있습니다.

미국의 현통치자들은 아세아에 대한 침략정책을 가리우기 위하여 그 무슨 정책변경에 대하여 많이 떠들어대고있습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에서 실시하고있는 침략정책에서 달라진것이란 아무것도 없으며 또 결코 달라질수도 없습니다. 달라진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만 그 침략성과 교활성이 더 강화되고있는것뿐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무력을 직접 동원하여 침략을 강화하는 한편 악명높은 《새 아세아정책》에 따라 일본군국주의를 비롯한 아세아의 추종국가들과 괴뢰들을 동원하여 주로 《아세아인들끼리 싸우게 하는》 방법으로 아세아에 대한 자기들의 침략적야망을 손쉽게 실현하려는 더욱 흉악한 목적을 추구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침략책동으로 말미암아 아세

아의 모든곳에서 정세는 극도로 첨예화되고있으며 전반적세계평화는 엄중한 위협에 처하여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국가들과 진보적인민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인도지나전역에서 전쟁을 확대하며 아세아의 전반적지역에서 침략책동을 강화하고있는것을 결코 그대로 보고만 있을수 없으며 한결같이 일떠서 미제의 전쟁정책과 침략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동요와 소극성도 있을수 없습니다.

미제국주의는 아세아침략의 장본인이며 따라서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공고화할수 없습니다.

미제의 아세아침략을 좌절시키기 위하여서는 특히 아세아의 혁명적나라인민들의 전투적단결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아세아나라인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혁명을 위하여 함께 싸워이긴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있습니다.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은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서도 같이 싸웠고 미제국주의를 반대하여서도 같이 싸워이겼습니다. 인도지나인민들은 프랑스제국주의와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함께 싸워 승리하였으며 지금은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벌리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의 침략은 오늘 아세아의 모든 혁명하는 나라들을 미제를 반대하는 하나의 공동전선에 결합시키고있습니다. 미제의 직접적인 침략을 당하고있는 조선과 중국, 웰남과 라오스, 캄보쟈를 비롯하여 아세아의 모든 혁명적나라인민들은 반제반미통일전선을 더욱 강화하고 반미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 미제의 아세아침략에 보다 강력한 집단적반격을 가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남조선과 대만에서, 남부웰남과 라오스, 캄보쟈에서, 미제침략자들이 발붙이고있는 아세아의 모든곳에서 그들을 몰아내야 하며 아세아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려는 미제의 모략을 파탄시켜야 할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지금은 비록 허장성세하지만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지지밑에 혁명하는 아세아나라인민들이 모두 달라붙어 공동으로 타격을 주며 압력을 가한다면 그들은 배겨내지 못할것이며 결국에 가서는 아세아에서 쫓겨나고야말것입니다.

오늘 아세아인민들과 세계진보적인민들 앞에는 미제국주의침략을 좌절시키는것과 함께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할 매우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미제의 적극적인 부추김을 받아 지금 아세아에서는 일본군국주의가 또다시 머리를 쳐들고 일어났으며 세계 평화와 아세아나라들의 독립과 안전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의 위협은 날로 커가고있습니다. 이것은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들의 커다란 불안과 우려를 자아내지 않을수 없습니다.

일본군국주의는 력사적으로 큰 제국주의세력을 등에 업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데 버릇되여온 아세아인민들의 철천지원수입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지난날 미영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여 그들의 비호밑에 조선을 강점하고 아세아대륙에 침략의 마수를 뻗쳤으며 아세아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파쑈독일 및 이딸리아와 공모결탁하여 태평양전쟁의 불을 질렀으며 아세아의 《맹주》가 되려고 미쳐날뛰였습니다. 일본군국주의는 침략과 전쟁으로 살쪄왔으며 결국 전쟁으로 망하였습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아세아인민들과 전세계 인류 앞에 저지른 죄악의 력사는 지금도 인민들의 기억속에 생생합니다.

그러나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죄악의 력사는 오늘 또 되풀이되고있습니다.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변하지 않았으며 결코 변하지 않을것입니다.

오늘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는 미제를 등에 업고 또다시 조선과 아세아나라들에 침략의 마수를 공공연히 뻗치고있으며 이른바 《대동아공영권》의 옛망상을 실현하여보려고 분

별없이 날뛰고있습니다. 미제의 《새로운 아세아정책》과 일본군국주의의 해외팽창정책의 요구에 따라 지금 일본에서는 침략무력이 대대적으로 증강되고있습니다. 아세아를 지배하려는 극히 야심적인 계획밑에 추진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무장책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습니다. 일본반동지배층은 입만 벌리면 일본이 《아세아의 주역》을 놀아야 한다고 떠들어대며 《국력에 상응한 군사력》을 가질 때가 되였다고 하면서 군국화에 박차를 가하고있으며 국내체제의 파쑈화를 더욱 다그치고있습니다.

특히 최근년간에 아세아를 침략하기 위한 미일간의 반동적결탁이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이러한 공모결탁은 미제가 일본을 기지로 침략의 예봉을 아세아에 돌리고있는것으로 하여 그 위험성이 더욱 커가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서 침략과 전쟁 정책을 더욱 강화하면서 손아래 동맹자, 침략적군사기지로서의 일본의 군사경제적잠재력을 자기들의 침략정책수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리용하는 길에 들어서고있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아세아전략에 편승하여 자기의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하려 하고있습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감행하고있는 발광적인 재무장책동과 침략책동은 바로 미제국주의자들의 아세아전략의 직접적산물입니다.

일본은 아세아에서 또다시 새로운 침략과 전쟁의 온상으로 되고있으며 아세아인민들은 이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이지 않을수 없습니다. 일본군국주의의 해외침략에서 우리 나라는 그 첫번째 공격대상으로 되고있습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미 남조선에 기어들기 시작하였으며 미제의 조종밑에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극히 모험적인 전쟁계획을 짜놓고 조선전선에 자기들의 침략무력을 투입할데 대한 모략을 공공연히 꾸미고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작전지역으로까지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일본반동들은 해외팽창의 더러운 야망밑에 《평화》의 탈, 《원조자》의 탈을 쓰고 아무런 제재도 받음이 없이 세계의 모든곳을 마음대로 싸다니고있으며 동남아세아와 중근동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 대한 경제문화적침투를 강화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벗》으로 가장하고 이 지역인민들의 반제투쟁을 무마하며 반제전선을 와해시키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습니다.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며 미제의 아세아전략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의 중요한 고리입니다.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이 미제를 반대하는것과 함께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일치한 행동으로 그의 침략적야망을 꺾어버려야 합니다.

일본반동지배층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환상도 기대도 가질수 없습니다. 독점자본이 국내에서 팽창하게 되면 해외침략의 길로 나간다는것은 제국주의의 움직일수 없는 법칙입니다. 일본독점자본은 이미 팽창될대로 팽창되였으며 다시 자기 지배권을 확립하였습니다. 일본군국주의의 재무장과 해외팽창 정책은 바로 일본독점자본의 이러한 부활과 그 지배체제의 확립에 기초하여 실시되고있는것입니다.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성을 보지 않고 그와 투쟁하지 않으며 일본반동정부를 미화하거나 그와 가까이 한다면 그것은 아세아에서 전쟁의 위험을 더욱 증대시키며 그 해외팽창을 조장하여주는것으로 될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아세아에서 미제의 지위를 강화해주며 전반적반제투쟁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다주게 될것입니다.

일본군국주의의 재무장과 해외침략 책동을 단호히 저지시켜야 하며 침략적인 미일결탁을 결정적으로 파탄시켜야 합니다. 특히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평화》의 가면을 벗겨버리고 국제무대에서 그들을 고립시키며 반제전선을 와해시키려는 그들의 책동을 철저히 폭로하고 분쇄하여야 할것입니다.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며 미일반동들의 침략적결탁을 깃부시기 위하여서는 일본인민들

의 투쟁을 지지하며 그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인민의 투쟁은 미제의 아세아침략과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있으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위업에 크게 이바지하고있습니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일본에서의 위험한 사태발전을 높은 경각성을 가지고 주시하고있습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그것을 반대하여 계속 철저히 투쟁할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책동에 적극 협력가담하고있는 일본반동정부의 음모책동을 저지파탄시키며 미제의 조종밑에 체결된 범죄적인 《한일조약》을 폐기하기 위하여 일본인민을 비롯한 아세아의 모든 반제혁명력량과 굳게 단결하여 끝까지 투쟁할것입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와 결탁하여 조선과 아세아나라들을 침략하며 아세아의 《맹주》가 되려고 미쳐날뛰고있으나 이것은 허황한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아세아는 어제날의 뒤떨어진 아세아가 아닙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에서 주인행세를 하던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오래동안 제국주의에 의하여 억압당하고 략탈당하여온 아세아의 수억만 인민들이 힘차게 일떠서 력사의 무대에 등장하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이 비할바없이 강화되였으며 영웅적윁남인민을 비롯한 인도지나인민들의 해방투쟁의 세찬 불길이 막을수 없는 힘으로 타오르고있으며 일본인민들의 혁명적각성이 더욱 높아가고있습니다. 그 어떠한 제국주의세력도 아세아인민들을 정복할수 없으며 그들의 단결된 힘을 깨뜨릴수 없습니다. 오늘 아세아인민들은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매장하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력량으로 자라났습니다. 만일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아세아인민들과 세계진보적인민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조선과 아세아나라들을 침략하는 모험의 길에 뛰여든다면 그들은 아세아인민들의 위대한 혁명력량앞에서 종국적으로 멸망하고야말것입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을 타승하기 위하여서는 아세아의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뿐아니라 세계의 모든 혁명하는 나라, 투쟁하는 나라 인민들이 련대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이 련합된 힘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은 온갖 술책을 다하여 혁명하는 나라들, 투쟁하는 나라들이 힘을 합치는것을 방해하며 혁명력량을 하나하나 말살하는 전략으로 나오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이 전략을 결정적으로 파탄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아세아의 혁명적나라인민들과 팔레스티나인민을 비롯한 싸우는 아랍인민들,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의 인민들,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미제국주의자들에게 타격을 주며 미제의 각을 떠야 합니다. 혁명하는 나라, 투쟁하는 나라 인민들이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각각 미제의 팔도 뜯어내고 다리도 뜯어내며 머리를 잘라버려야 합니다. 비록 적은 힘이라고 하더라도 세계혁명적인민들이 이렇게 모두 함께 달라붙어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미제의 각을 이르는곳마다에서 뜨게 되면 미제는 결국 멸망하고야말것입니다.

동지들! 조선혁명은 세계혁명의 한 부분이며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혁명투쟁의 승리는 남북조선에서 혁명력량을 강화발전시키는것과 함께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가 못하는가에 많이 달려있습니다.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여 우리의 혁명위업에 대한 지지와 동정을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그만큼 미일반동들과 그 앞잡이들을 더욱더 고립시키고 우리 혁명발전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할수 있습니다.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것, 이것은 당면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민족해방혁명을 완수하며 조선에서의 긴장상태를 가시며 우리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자체의 주체적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과 함께 국제혁명운동을 발전시키고 그와의 긴밀한 뉴대를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합니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기치,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인민들과 단결하며 공산당, 로동당들과 단결하며 국제로동계급과 단결하며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단결하며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단결하여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계속 억세게 싸워나갈것입니다.

# V. 당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지들!

총결기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우리가 거둔 위대한 승리와 성과들은 조선로동당의 옳바른 로선과 정책,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입니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를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으면서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맞는 가장 옳바른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 관철에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안팎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치열한 투쟁을 통하여 더욱 재련되고 단련되였으며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섰으며 전당이 맑스-레닌주의사상, 우리 당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굳게 통일단결되여있습니다. 이것이 총결기간 당사업에서 이룩한 가장 중요한 성과이며 우리 당의 전투력을 더욱 높이게 한 기본요인입니다.

지난날 우리 당 활동의 내외적환경은 매우 어렵고 복잡하였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였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는 수정주의가 대두하여 통일과 단결을 방해하고 사상적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맞서있는 우리 나라에서 정세는 더욱 복잡하고 긴장하였습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거의 매일과 같이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소동을 벌렸으며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 많은 난관을 조성하였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강화되고 외부로부터 수정주의적사상조류가 침습해들어오게 되자 당안에 숨어있던 수정주의분자들은 양봉음위의 방법으로 당정책을 성실하게 집행하지 않았으며 부르죠아사상과 봉건유교사상을 부활시키려고 양으로 음으로 책동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당조직들과 당원대중을 발동하여 부르죠아분자들과 수정주의분자들의 음모책동을 철저히 폭로분쇄하였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대하며 당의 통일을 좀먹던 온갖 경향들을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자들이 퍼뜨린 온갖 반동적 및 기회주의적 사상여독을 뿌리빼기 위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우리 당은 부르죠아 및 수정주의 분자들과 그들의 사상여독을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하는 한편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속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는 기풍을 세우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당안에는 맑스-레닌주의사상, 우리 당의 혁명사상이 꽉 들어찼으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르는 확고한 신념으로 무장되고 당정책을 자로 하여 모든 문제를 재보고 그와 어긋나는 현상과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투쟁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전당이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당의 통일과 전투력은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하여 한마음한뜻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단결되였습니다. 당은 하나의 유기체와 같은 전일적인 산 조직으로 되였으며 어떠한 풍파라도 뚫고나갈수 있는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조직으로 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은 새로운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가장 생활력있고 가장 공고한것으로 되였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그처럼 바라던 당의 통일과 단결은 오늘에 와서야 비로소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완전히 실현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오랜 투쟁의 빛나는 결과이며 우리 당 건설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승리입니다.

동지들! 우리 당의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의 진수를 이루는것은 맑스-레닌주의적인 주체사상이며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주체의 사상체계입니다.

총결기간 당은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벌림으로써 당대렬의 통일을 실현하였을뿐아니라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보장하였습니다. 오늘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우리의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가장 옳바른 지도적지침으로 되였습니다. 이것이 또한 총결기간 우리 당 활동에서의 가장 주되는 총화의 하나입니다.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다는것입니다. 이것은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기 머리로 사고하며 자기 힘을 믿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자기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가는 자주적인 립장을 견지한다는것을 의미하며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리와 다른 나라의 경험을 자기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적용하여나가는 창조적인 립장을 견지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의 근본원리에 전적으로 맞는것이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발전단계와 그 필연적요구를 반영하여나온것입니다.

주체를 세우는 문제는 우리 나라 력사발전의 특수성과 우리 나라가 처한 지리적 환경과 조건, 우리 혁명의 복잡성과 간고성으로 하여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섰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사대주의는 오랜 력사적근원을 가지고있습니다. 우리의 일부 사람들의 머리속에는 오래전부터 자기 힘을 믿지 않고 남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며 추종하는 비굴한 사상이 생기게 되였습니다. 해방된 다음에도 사대주의는 의연히 혁명과 건설에서, 당의 강화발전에서 커다란 장애로 되였습니다. 거기에 교조주의까지 겹치다보니 그 해독은 더욱 컸습니다.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에 물젖은자들은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 자기의 주권과 당을 가지게 된 시기에 와서도 여전히 자기 힘을 믿지 않고 남만 쳐다보면서 우리의 현실은 연구하지 않고 남의것만 기계적으로 본따려하였습니다.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의 해독성은 전쟁때 심하게 나타났으며 전후에 와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이 본격적으로 진척됨에 따라 더욱더 참을수 없는것으로 되였습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기회주의적사상조류가 널리 대두됨에 따라 사대주의자들과 교조주의자들은 심지어 그것을 우리 나라에 끌어들

이는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뿌리뽑고 주체를 철저히 세우지 않고서는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에 튼튼히 의거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없었습니다. 력사적경험은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하며 당이 사대주의를 하면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는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혁명을 령도하는 첫 시기부터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여 왔으며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되는데 따라 그 투쟁을 더욱 정력적으로 벌렸습니다. 특히 총결기간에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은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부되여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되였습니다. 당은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강하게 벌리는 한편 그들을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교양하며 특히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주로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꾸준히 교양하였습니다.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생활과 사고방식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는 위대한 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자기의것은 덮어놓고 깔보고 남의것을 통채로 삼키려는 현상이 없어지고 민족적 자부심과 자주의식이 더욱 높아졌으며 자력갱생하는 혁명가적기풍이 철저히 서게 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 속에서 사상조류로서의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 교조주의는 기본적으로 없어졌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사상에서 주체확립, 이것은 민족자주의식을 좀먹던 낡은 사상의 구속으로부터 우리 인민을 해방한 사상혁명령역에서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우리 당은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는것과 함께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주체사상으로 관통되여있습니다.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은 주체사상을 모든 분야에 구현한것입니다.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우리 나라는 완전한 정치적자주권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강한 자위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사회주의나라로 되였습니다. 주체를 세움으로써 오늘 우리는 국제혁명위업에도 더 잘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승리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며 우리 당 자주로선이 가져다준 위대한 열매입니다.

총결기간 우리 당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개선하는데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철저히 전환시키기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모든 당조직들에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계를 세워놓았습니다. 전당에 간부사업체계와 당원들의 당생활지도체계가 정연하게 섰으며 군중을 교양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이 확립되였습니다.

우리는 특히 당사업에서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는데 계속 깊은 관심을 돌렸습니다.

집권당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서 언제나 경계할것은 당세도와 관료화되는 경향입니다. 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맑스-레닌주의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지 못한 일부 일군들속에서 틀을 차리며 군중로선을 어길 위험성이 커지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이 군중로선을 관철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를 옳게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하여나가야 하는것입니다.

당은 총결기간 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강화하며 그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며 당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당의 지도작풍과 사업방법을 개선하는데서 획기적인 전변을 가져왔으며 당사업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청산리방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오래동안 내려오면서 당사업발전을 가로막던 낡은 관료주의적사업작풍이 기본적으로 없어지고 모든 일군들이 혁명적 사업작풍과 사업방법을 가지게 되였으며 당안에서 민주주의가 전면적으로 발양되였습니다. 당은 또한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웃기관일군들이 직접 아래에 내려가 아래일군들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워놓았습니다. 중앙은 도를 도와주고 도는 군을 도와주며 군기관일군들은 리에 늘 내려가 리일군들과 함께 일하면서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며 아래일군들의 사업을 책임적으로 도와주게 하였습니다. 당은 지도일군들로 하여금 현지에 내려가 방식상학과 시범상학을 널리 조직하여 생동한 모범으로 아래일군들에게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며 이동강습의 새로운 형식을 리용하여 당사업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며 현지에서 초급일군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치사업을 앞세워 인민대중의 정치적각성을 끊임없이 높이며 그들이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것은 청산리방법의 중요한 요구이며 공산주의자들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혁명적인 사업방법입니다. 우리 당은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원칙을 확고히 지켰으며 어떤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서나 그에 대한 당의 정책을 모든 당원들과 군중에게 철저히 해석침투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동원되도록 하였습니다.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하는데서 당은 한사람이 열사람을 움직이고 열사람이 백사람을 움직이고 백사람이 천사람을 움직이며 이렇게 하여 전당과 전체 인민을 움직이는 혁명적인 사업방법을 견지하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간부들과 핵심들을 잘 교양하여 그들이 당원들을 교양하고 도와주도록 하였으며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여 광범한 군중을 교양하여 혁명과업수행에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습니다.

우가 아래를 도와주며 웃기관일군들이 현지에 내려가 아래일군들을 가르쳐주고 간부들과 핵심들이 당원들과 군중을 교양하여 움직이는 사업체계가 섬으로써 당사업이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되였을뿐아니라 당중앙위원회의 의도가 아래에 빨리 들어가게 되였으며 상하가 더욱 단결되고 기맥이 잘 통하게 되였습니다. 모든 당원들이 당사업발전을 위한 창발적 의견들을 적극 내고있으며 당조직들에서는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건설적인 의견들을 허심하게 받아들이는 기풍이 서게 되였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 당안에는 우가 아래를 도와주며 또 동지들사이에 서로 도와주는 공산주의적미풍이 높이 발양되고있으며 모든 당원들이 당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사업에서 거둔 매우 귀중한 성과입니다.

총결기간 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이 더욱 강화되고 전당에 학습기풍이 철저히 서게 되였습니다.

당의 옳바른 방침에 따라 전당에 정연한 당원교양체계가 서게 되였으며 그 내용과 방법이 더욱 개선되였습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 교양망이 조직되여 당중앙의 유일적인 지도밑에 운영되고있으며 모든 당원들이 다 거기에 망라되여 정상적으로 정치사상교양을 받고있습니다.

빨리 발전하는 현실은 간부들과 당원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더욱 높일것을 절실히 요구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당은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매일 2시간이상씩 학습하며 토요일마다 간부들이 집체적으로 학습하는것을 제도화하였으며 강연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은 특히 모든 현직간부들을 해마다 한달씩 각급 정치학교에서 공부시키는 대담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당에서 학습은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되고있으며 완전히 생활화되고있습니다.

전당에 혁명적학습기풍이 서고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성과 정치실무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당의 통일과 단결은 더욱 의식적이고 자각적인것으로 되였으며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높은 정치적각성을 가지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동지들!

총결기간 우리는 당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고귀한 경험과 교훈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과와 경험이 아무리 크고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당을 더욱 강화하며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토대를 닦은데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계속 공고발전시키며 혁명과 건설에서 그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당을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계속 확고히 보장하는것입니다.

사상의지의 통일은 맑스-레닌주의당의 생명이며 모든 승리의 결정적요인입니다. 만일 당안에 당의 유일사상과 어긋나는 딴 사상이 조금이라도 허용되거나 행동상 통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당은 사실상 하나의 당이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유일한 지도사상에 기초하여 통일단결되지 못한 당에는 언제나 분파가 생기는 법이며 따라서 이러한 당은 대중을 자기 두리에 묶어세울수 없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통일적인 령도를 보장할수 없을뿐아니라 자기의 존재자체도 제대로 유지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사상,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하여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사상의지의 통일을 강화하는 사업을 총적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당사업을 계속 심화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당사업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입니다. 다시말하여 간부들과 당원들과 군중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무장시켜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사람들과의 조직정치사업이 바로 당사업입니다. 우리는 당사업을 기술실무화하려는 온갖 편향들을 반대하고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에 기본을 두고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조직들은 무엇보다먼저 간부들과의 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간부는 당의 기본핵심력량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을 직접 조직지도하는 우리 혁명의 지휘성원입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결국 간부들을 통하여 실현되며 모든 문제는 간부들에 의하여 해결됩니다.

오늘 간부들과의 사업에서 나서는 가장 절박한 과업은 간부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간부들은 다 좋은 간부들이며 우리는 간부대렬을 기본적으로 당과 혁명에 충실한 일군들로 꾸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간부들의 준비정도는 빨리 발전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있으며 그들의 자질은 당의 요구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낮은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간부들속에서 혁명화하기 위한 투쟁이 강화되지 않고있는데 주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간부들이 일이 바쁘다는 구실밑에 공부도 잘하지 않고 당생활도 잘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일부 간부들가운데는 혁명적단련을 게을리 하는데로부터 직위가 높아지면 틀부터 차리기 좋아하고 거칠게 일하며 동지들의 충고도 귀담아들으려 하지 않고 관료주의를 부리며 교만해져서 자기 직위를 마치 타고난 벼슬자리처럼 여기면서 행세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중에는 사상적으로 부패변질되여 혁명대오에서 떨

어져나가는데까지 이르고있습니다.

사회주의건설이 높은 단계에로 올라서고 특히 사상혁명이 더욱더 심화되여가고있는 우리의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준비된 간부들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누구보다먼저 간부들자신이 철저히 혁명화되고 정치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여야 발전된 사회주의사회를 제대로 움직여나갈수 있으며 사상혁명을 옳게 지도하고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빨리 다그쳐나갈수 있으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할수 있습니다. 간부들의 자질을 높이는것, 이것은 현시기 우리의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기 위한 선결조건입니다.

우리는 간부들을 교양하는 사업에 선차적주목을 돌려 간부들을 혁명화하며 그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전당적으로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들속에서 당생활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경험은 어떤 간부를 막론하고 당생활을 게을리 하고 당적통제에서 벗어날 때에는 례외없이 안일해이해지고 교만해지며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여나갈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는 간부들속에서 당생활에 잘 참가하지 않으려는 경향들과 강하게 투쟁하며 모든 간부들이 빠짐없이 당생활에 적극 참가하고 당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부들은 언제나 당조직에 의거하여 일하고 생활하며 당조직과 당원대중의 통제를 받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간부들을 강한 비판속에서 단련시키는것이 중요합니다. 간부들속에서 원칙적비판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그들에 대한 비판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간부들은 자기 결함을 제때에 비판할줄 알며 당원대중의 비판을 허심하게 받아들일줄 아는 혁명가적품성을 가지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간부들속에서 비판사업을 통하여 사상투쟁을 강화하며 강한 사상투쟁속에서 간부들이 끊임없이 혁명적으로 단련되여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간부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또한 그들속에서 학습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임무입니다. 누구나 학습하지 않고서는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없으며 혁명사업을 계속해나갈수 없습니다.

모든 간부들은 당정책학습을 강화하여 우리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당정책을 환히 꿰들고 언제 어디서나 그것을 자로 하여 일해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간부들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지식을 꾸준히 배우며 자기 맡은 사업에 정통하도록 할것입니다. 학습은 누구나 다 하여야 하지만 특히 책임간부일수록 더 많이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책임간부들의 학습을 철저히 통제하며 그들속에서 자각적학습기풍을 세우는데 각별한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증된 한달강습체계를 계속 잘 운영하여 모든 간부들이 해마다 한번씩은 의무적으로 그에 망라되여 공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일군들가운데서 공장, 기업소 지배인, 기사장과 협동농장관리위원장을 비롯하여 직접 생산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일군들로부터 간부양성기관들에 보내여 재교육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실지 사업과정을 통하여 간부들을 꾸준히 교양하고 단련시키며 모든 부문에서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기 위한 방식상학을 널리 조직하여 간부들의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개별교양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간부들을 교양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각급 당조직들은 지도일군들이 자기가 맡은 간부들을 늘 료해하면서 꾸준히 개별교양을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웃간부가 아래간부들을 교양하고 교양받은 간부가 또 자기의 아래간부들을 교양하는 방법으로 모든 간부들이 늘 교양을 받으면서 남을 교양하는

전당적인 정연한 간부교양체계를 세워야 할것입니다.

당조직들은 간부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간부선발배치사업을 옳게 하는데 계속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간부선발사업에서 사람들의 정치적표징을 위주로 하면서 그에 실무적표징을 옳게 배합할데 대한 당의 일관한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며 실천투쟁속에서 검열되고 단련된 로동자들을 비롯하여 지난날의 고농, 빈농과 같은 기본계급출신들을 간부로 선발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조직들은 간부선발사업에서 가정주위환경에만 매달리는 그릇된 경향들을 엄격히 경계하여야 하며 어디까지나 본인의 정치사상적준비정도를 기본으로 하여 간부들을 선발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우리의 간부대렬을 계급적으로, 정치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요구되는 간부들을 제때에 보충하기 위하여서는 후비간부양성체계를 똑바로 세워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현직간부들가운데서 간부후비를 장악하고 잘 키우는것과 함께 실천투쟁속에서 검열되고 단련된 핵심당원들 특히 기간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의 핵심로동자들을 간부후비로 많이 선발하여 체계적으로 키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후비간부양성사업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간부양성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는것입니다. 우리는 각급 간부양성기관 교원대렬을 정치실무적으로 준비된 일군들로 잘 꾸리고 교수교양사업을 당정책화하고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며 그의 과학리론적수준을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조직들은 간부들을 선발배치하며 교양육성하는 사업을 반드시 그들의 당생활에 기초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서는 문건에만 매달려 간부들을 평가하는 주관주의적사업태도를 결정적으로 버리고 본인의 당생활과 실지사업을 통하여 간부들을 늘 검열하며 체계적으로 료해장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사업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당원들과의 사업을 잘하며 특히 당원들의 당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입니다.

당은 당원대중이 뭉친 정치적조직입니다. 당이 힘있고 생기있는 전투적조직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당을 이루고있는 모든 당원들이 정치사상적으로 건전해야 하며 당원들이 다 당의 조직원칙에 따라 잘 움직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생활은 당원들의 조직생활, 정치생활이며 당원들이 당규약상 의무를 수행하는 활동입니다. 당사업의 기본고리는 당원들의 당생활을 옳게 지도하는데 있으며 당건설의 기초도 바로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당생활을 강화하여야만 당원들의 당성이 단련되고 혁명과 건설에서 그들의 선봉적역할이 높아지며 우리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갈수 있습니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모든 당원들이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원들에게 있어서 당생활에 참가하는것보다 더 높은 영예는 없으며 그보다 더 큰 의무는 없습니다. 모든 당원들은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며 당조직규범에 따라 당생활에 충실히 참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원들의 당생활에서 민주주의를 더욱 발양시키며 비판의 무기를 높이 들고 당안에 혁명적인 당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옳게 조직하며 잘 지도하는것은 당생활을 강화하는 중요한 담보입니다. 당조직들은 매 당원들의 특성에 맞게 당적분공을 똑똑히 주며 그 집행정형을 제때에 검열하고 그것을 옳게 수행하도록 적극 도와주며 이미 준 과업이 다 수행되면 총화하고 다시 새 과업을 주어 모든 당원들이 언제나 당적분공을 받고 늘 움직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

다. 당조직들은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한 비판의 분위기속에서 정상적으로 총화하며 당회의들을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조직진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리하여 모든 당원들이 정치사상적으로 건전하며 대중의 앞장에 서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열렬한 정치활동가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것과 함께 당대렬을 끊임없이 늘이고 그 질적구성을 계속 개선하여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해방후 사회주의교양을 많이 받은 새세대들이 나라의 믿음직한 주인으로 등장하고있으며 그들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당조직들은 당이 키운 이러한 새세대들 특히 로동계급청년들속에서 좋은 사람들을 당에 적극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당대렬의 질적구성을 더욱 개선하고 당의 핵심대렬을 끊임없이 늘이며 우리 당이 언제나 혁명적기백이 왕성한 당으로 발전하여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간부들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세포들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당세포는 대중속에서 당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전투단위이며 모든 당원들이 소속되여 당생활을 하는 우리 당의 말단조직입니다. 우리는 당세포핵심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모든 당세포들이 간부들과 당원들과의 사업을 더욱 능숙하게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각급 당위원회들의 사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당위원회들은 간부들과 당원들과의 사업체계를 바로 세우고 그들의 당생활에 대한 지도를 더욱 실속있게 짜고들어야 하겠습니다.

당위원회들을 생기발랄하게 움직이는 전투적참모부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각급 당위원회들을 간부들과 핵심당원들을 잘 배합하여 꾸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 당위원회들에 생산현장에서 직접 로동하는 핵심로동자당원들을 많이 넣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위원회들에 핵심로동자들을 적절히 배합하여넣으면 우리 당의 로동계급적성격을 강화할뿐아니라 당이 대중속에 더욱 깊이 뿌리를 박고 아래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며 옳바른 지도대책을 제때에 세울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면 새로운 로동계급간부들을 많이 키울수 있으며 간부들이 당위원회를 통하여 로동계급적관점과 로동계급의 혁명성과 전투성을 배울수 있을것입니다.

간부들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는데서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조직부는 당대렬을 관리하고 당원들의 당생활을 직접 장악지도하는 부서입니다. 당조직들이 잘 움직이는가 잘 움직이지 못하는가,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는가 꾸리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주로 당조직부의 역할에 달려있습니다. 당위원회들은 조직부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당조직들에 대한 지도를 잘하며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생활을 체계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옳게 지도통제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생활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위원회의 조직부와 선전선동부가 배합작전을 잘하여야 합니다.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생활을 지도하는데서 조직부는 의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선전선동부는 약제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는 의사가 병에 대한 진단을 바로 하고 약제사가 그 진단에 따라 약을 주어야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려면 조직부가 당생활을 늘 장악하고 거기에서 나타난 결함과 그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옳은 판단을 내려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선전선동부는 결함을 고치는데 알맞는 사상교양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의 조직원칙에 따라 잘 움직이며 모든 당조직들이 자기의 기능을 옳게 수행하는 산 전투적조직으로 되게 하여야 할것입니다.

당조직들은 군중과의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혁명은 인민을 위한것이며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입니다. 광범한 대중을 조직동원하지 않고서는 혁명에서 승리할수 없으며 결국 군중을 많이 전취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승리와 성과를 결정하는 근본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맑스-레닌주의당은 자기 대렬을 강화하는 한편 언제나 광범한 인민대중을 교양개조하여 자기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군중과의 사업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켜 우리 혁명의 계급적진지를 튼튼히 꾸리며 극소수의 계급적, 반동적 적대분자들을 내놓고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도록 하는것입니다.

기본군중은 우리 당이 의거하고있는 계급적지반입니다. 기본군중을 잘 교양하여 그들의 계급적각성을 끊임없이 높여야 우리 혁명의 계급적진지를 강화하고 혁명의 기본부대를 튼튼히 꾸릴수 있습니다. 당조직들은 기본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그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현재의 동향을 기본으로 하여 매 사람을 평가하며 사람들을 믿고 검열하며 투쟁을 통하여 개조하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군중사업원칙입니다. 당조직들은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혁명적군중관점을 철저히 세우고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진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계급적분해를 더욱 촉진시켜 반동분자들에게는 독재를 실시하며 쟁취할수 있는 사람은 다 교양개조하여 혁명의 편에 튼튼히 묶어세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근로단체들을 통하여 군중과의 사업을 하는것은 대중지도의 맑스-레닌주의적원칙입니다. 근로단체들을 적극 발동시켜야만 당의 두리에 군중을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으며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 옳게 조직동원할수 있습니다.

근로단체들에 대한 당의 지도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그의 자립성을 높여 근로단체들로 하여금 자기 사업을 능동적으로 조직진행하도록 하는것입니다. 근로단체들에 대한 당의 지도를 강화한다는것은 결코 당이 근로단체사업을 가로맡아 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단체들에 대한 당적지도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근로단체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에 근거하여 자기 사업을 자립적으로, 창발적으로 잘해나가도록 도와주는데 있습니다. 당조직들은 일군들속에서 근로단체들에 대한 옳은 관점을 세우고 군중과의 사업에 근로단체들을 적극 내세우며 일을 대담하게 맡겨야 합니다. 근로단체들에 사업조건을 잘 보장하여주고 그 특성에 맞게 사업방향과 제기된 과업의 수행방도를 똑똑히 가르쳐주어 근로단체들로 하여금 군중과의 사업을 주동적으로 능숙하게 조직전개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근로단체들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군중속에서 핵심대렬을 튼튼히 꾸려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근로단체들에서 핵심대렬을 끊임없이 늘이며 동맹의 기본핵심인 간부들을 튼튼히 꾸리도록 잘 지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근로단체들이 핵심들을 발동하여 동맹원들을 적극 교양하고 잘 움직여 자기의 기본과업을 옳게 수행하여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오늘 근로단체들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은 근로자들속에서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잘하는것입니다.

근로단체들은 동맹원들속에서 사상교양을 강화하며 특히 모든 동맹원들을 조직생활에 적극 참가시켜 꾸준히 교양하고 단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직맹, 농근맹, 사로청, 녀맹

조직들은 동맹내부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나감으로써 모든 동맹원들을 당의 붉은 전사로, 견결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차게 조직동원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사업을 강화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우리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청년들의 전투적조직으로서 우리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이며 적극적인 방조자입니다. 조국의 앞날과 혁명의 전도는 결국 청년들을 어떻게 키우는가에 달려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에 중심을 두고 각계각층 청년들과의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조직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사로청조직들은 동맹원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다양하게 조직하며 그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청년들로 하여금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성스러운 사업에 크게 이바지한다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하며 미래에 대한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을 가지고 언제나 혁명적으로 살며 명랑하고 생기발랄한 분위기에 휩싸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로청조직들은 특히 학생청소년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당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 혁명의 계승자로, 지덕체를 갖춘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청년들이 언제나 우리 당의 정책을 높이 받들고 조국보위사업과 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선봉대, 돌격대의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조직들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당사상사업을 강화하는것입니다.

당사상사업은 당조직사업과 함께 중요한 당내부사업의 하나이며 이 두가지사업은 서로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습니다. 당조직사업과 당사상사업이 잘 배합되여야만 당이 조직사상적으로 강화될수 있으며 당의 전투력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습니다.

당사상사업부문앞에 나선 중심과업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계속 실속있게 끌고나가는것입니다. 당조직들은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며 부르죠아사상과 수정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당의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켜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계급적으로 끊임없이 각성시키고 적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으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합니다.

오늘 당사상사업에서 특히 중요하게 나서는 과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사상교양을 강화하는것입니다.

수정주의는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진수를 거세하려는 반혁명적기회주의사상조류입니다. 수정주의의 가장 큰 해독성은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부인하고 계급투쟁을 반대하며 적아의 계선을 모호하게 하며 미제의 원자공갈정책에 겁을 집어먹고 그앞에 굴복하며 말로는 반제적립장에 서있다고 하면서도 제국주의자들에게 추파를 던지며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포기하고 그와 타협하며 전쟁에 대한 공포심과 부르죠아평화주의사상, 제국주의와 반동들에 대한 환상을 퍼뜨리면서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무장해제시키며 피압박인민들이 혁명하는것을 꺼려하고 방해하는데 있습니다. 수정주의의 해독성은 또한 혁명적조직규률을 반대하고 [illegible] 리기주의를 조장하고 사람들을 안일부화하고 일하기 싫어하게 만드는데 있습니다. 수정주의는 결국 사회주의를 좀먹고 자본주의를 복구하는 위험한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수정주의

를 반대하는 투쟁을 결코 소홀히 할수 없습니다. 만일 맑스-레닌주의당이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하지 않고 당안에 수정주의사상조류를 조금이라도 허용한다면 그러한 당은 투쟁하는 당, 혁명하는 전투적당으로 될수 없고 결국 무기력한 소부르죠아적당으로 되고말것입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사상사업을 계속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맑스-레닌주의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한편 그들에게 수정주의의 본질과 해독성을 똑똑히 인식시키며 당안에 수정주의적사상독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력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수정주의는 부르죠아사상을 바탕으로하여 생겨나고 자라나며 그것을 매개물로 하여 널리 퍼집니다. 또한 수정주의는 부르죠아사상을 부활시키는 장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정주의를 극복하자면 부르죠아사상여독을 철저히 뿌리뽑아야 합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부르죠아사상과 봉건유교사상을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 여독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낡은 사상이 되살아날수 있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사상교양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주의적공동로동에 성실히 참가하지 않으며 국가와 사회의 재산을 침해하는 건전치못한 온갖 현상들과 강한 사상투쟁을 벌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아직도 분렬되여있으며 우리는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맞서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자만도 안일성도 해이성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계속 튼튼히 무장시키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우려는 혁명적투쟁정신으로 충만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불건전한 사상, 혁명가답지 못한 모든 현상들과 강한 사상투쟁을 벌리며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사업기풍과 혁명적생활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우도록 사상사업을 짜고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언제나 혁명적으로 생활하며 우리의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건전하게 발전되여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현시기 당사상사업부문앞에 나선 과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상사업에 대한 당조직들의 조직지도사업을 더욱 개선하여야 합니다. 각급 당조직들은 사상사업을 당원들의 수준과 실정에 맞게 그리고 당면한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시켜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선전사업과 선동사업을 옳게 결합시키고 여러가지 선전선동수단들을 잘 배합하여 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조직하며 그 기동성을 잘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조직들은 당사상사업을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포치하며 그 수행정형을 제때에 료해장악하여 총화하고 다시 포치하는 방법으로 계속 심화시켜나감으로써 당사상사업에서 형식주의를 결정적으로 없애야 할것입니다.

당사상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사상사업부문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하며 모든 간부들이 자기 사업과 결부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정치사상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당일군들과 행정경제기관일군들이 가는곳마다에서 강연, 담화, 해설 사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대중속에서 당정책을 널리 선전하며 정치사상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동지들!

우리는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는 한편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현단계에서 우리 당의 기본임무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남조선인민들을 지원하여 남조선혁명을 와수하고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는것입니다 우리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것도 결국은 당의 전투력을 높여 우리앞에 나선 이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의 정치적령도자입니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과 건설,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있으며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으며 우리 인민의 광명한 미래도 바랄수 없습니다.

경험은 당의 유일적인 지도밑에서만 국가, 경제, 문화 기관들과 근로단체들이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행동상 통일을 보장할수 있으며 전체 인민대중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목적지향성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국내외환경이 복잡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더욱 심화발전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일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발전하는 현실과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당적령도를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먼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에서 중요한것은 당위원회들이 키잡이를 잘하는것입니다. 당이 경제사업에 대한 키잡이를 한다는것은 당위원회의 집체적토의에 기초하여 당정책의 집행방향과 방도를 규정하고 옳바른 결정을 채택하며 해당부문의 당조직들과 당원들을 발동하여 그것을 옳게 집행하도록 정치적으로 보장하는것을 의미합니다. 당위원회들은 자기앞에 새롭게 나서는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토론하여 옳은 대책을 세우며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 아래 당조직들과 당원들, 근로단체들과 대중을 동원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하며 위원회에서 분공되고 결정된 문제들이 옳게 관철되도록 검열하고 총화하는 사업을 제도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야만 경제사업지도에서 개인의 주관과 독단을 없애고 성, 관리국들과 경제기관, 기업소 일군들의 자립적역할과 책임성을 높이며 사업과정에서 나타나는 편향과 부족점들을 제때에 바로잡아나갈수 있습니다.

당위원회들은 국가경제기관들로 하여금 우리 당에 의하여 창조된 사회주의경제관리의 훌륭한 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요구에 맞게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기업관리를 정규화함으로써 우리의 경제를 더욱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당과 인민대중을 련결시키는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이며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며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진 호주입니다.

당조직들은 각급 인민위원회들을 계급적립장이 확고하고 당에 끝없이 충실하며 인민들속에 신망이 높은 우수한 일군들로 튼튼히 꾸리며 혁명과 건설에서 그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인민위원회가 자기 지역안에 있는 모든 기관, 기업소들과 주민들에 대하여 주권행사를 원만히 하도록 정치적으로 도와주며 인민위원회들로 하여금 인민들의 생활과 국가 및 사회 재산을 보호관리하며 모든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책임을 직접 맡고있는 호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민군대와 사회안전기관, 사법, 검찰 기관과 같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많이 가지고있는 기관들에 대한 당적령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군대에 대한 당적령도를 강화하는것은 혁명무력건설에서의 기본요구입니다. 인민군대는 오직 당의 령도밑에서만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으며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다할수 있습니다.

총결기간 우리는 군대안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약화시키고 정치사업을 소홀히 하며 군사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군벌관료주의를 부식시키려던 경향을 제때에 극복하고 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와 군대내 당정치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군대안에서 당위원회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며 인민군대의 모든 사업이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조직집행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군대안에서 나서는 모든 군사, 정치적 문제들은 다 해당단위의 당위원회에서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여야 하며 당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군사일군들은 군사사업을 하고 정치일군들은 정치사업을 하며 후방일군들은 후방사업을 하는 사업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할것입니다. 군대안의 당위원회들은 특히 군사지휘관들이 언제나 당위원회에 의거하여 사업하며 당조직생활에 충실히 참가하도록 당적통제를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위원회를 강화하는것과 함께 인민군대안에서 당정치사업을 직접 조직하고 집행하는 정치기관들과 정치일군들 특히 정치위원들의 역할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정치기관들과 정치일군들은 군인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정력적으로 진행하며 전투정치훈련과 부대의 전투준비를 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당적으로, 정치적으로 잘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군대에 대한 당적지도와 함께 로농적위대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각급 당위원회들은 로농적위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로농적위대 대원들속에서 군사정치훈련을 강화하며 전투준비와 지휘체계를 더욱 완성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사회안전사업과 사법검찰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위원회들은 사회안전사업과 사법검찰사업을 정상적으로 토론하고 사업방향을 바로잡아주며 사회안전기관들과 사법검찰기관들의 모든 활동을 철저히 지도통제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안전기관들과 사법검찰기관들은 당의 정치적보위자로서 당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그 집행을 감독하며 특히 우리 국가사회제도를 해치려는 간첩, 파괴암해분자들을 모조리 잡아내며 철저히 진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가, 사회생활의 모든 부문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혁명적규률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혁명과 건설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함으로써 당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높이며 우리 당의 령도밑에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 * *

동지들!

총결기간 우리 당은 인민대중을 령도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는 더욱 공고화되였으며 커다란 우월성을 나타내고있습니다. 나라의 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키고 근로자들의 복리를 끊임없이 높이며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지원하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할수 있는 물질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였으며 우리의 군사적위력이 비할바없이 강화되였습니다. 우리의 사회는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였으며 우리 나라는 류례없는 번영기에 처하여있습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되였으며 온 사회가 명랑하고 생기발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혁명적정열과 혁명적락

관으로 가득차있습니다.

이 모든것은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증명하는것이며 당의 령도밑에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을 시위하는것입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전진도상에는 난관도 많았으며 우리는 시련도 여러번 겪었습니다. 그러나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언제나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깊이 확신하고 불굴의 투쟁을 벌려 모든 난관과 시련을 이겨냈으며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더욱 훌륭히 건설하여놓았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보다 더 힘있고 보람찬것으로 되였으며 우리앞에는 더욱 광활한 전망이 펼쳐져있습니다. 당대회가 내세우는 웅대한 강령이 실현되면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는 더욱 강화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될것입니다. 이 강령의 실현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더욱 고무추동할것이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는데서 결정적인 국면을 열어놓게될것입니다. 우리는 당대회가 내세우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계속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 힘차게 투쟁하여야 하며 모든 애로와 난관을 박차고 더욱 빨리 앞으로 달려나가야 하겠습니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혁명위업은 정당하며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입니다. 당의 령도밑에 정당한 혁명위업을 위하여 싸우는 우리 인민앞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이 있을것입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전진을 가로막을 그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

모두다 맑스-레닌주의의 기치, 우리당 주체사상의 위대한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 개회사

## 김 일 성

동지들!

우리 당 제4차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에 우리 당은 자기 대렬에서 김계림동지, 김경석동지, 강진건동지, 강영창동지, 김은순동지, 리봉수동지, 김갑순동지, 김태근동지, 안룡각동지, 강상호동지, 리주연동지, 김원빈동지를 비롯하여 당에 끝없이 충실하였으며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한 여러 동지들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총결기간에 안재홍선생, 한동백선생, 정로식선생, 김욱성동지, 계응상선생, 홍명희선생, 태을민동지, 원홍구선생을 비롯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시책을 높이 받들고 각 정당, 민주단체들, 과학, 문화, 예술 부문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힘과 재능을 다 바쳐 투쟁한 저명한 민주인사들과 원사, 교수, 박사, 인민배우, 인민예술가들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에 공화국남반부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며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한 최백근동지, 조용수동지, 로복동동지, 박두진동지, 최영도동지, 김종태동지, 리문규동지, 윤상수동지, 권재혁동지, 민형기동지, 김홍태동지, 권오종동지, 임관재동지, 윤의로동지, 전후경동지, 최원석동지를 비롯한 수많은 혁명동지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간에 일본에서 미일반동들을 반대하고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위하여, 조국의 통일과 독립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한 리종광동지, 김민화동지, 김병소동지를 비롯한 여러 동지들을 잃었습니다.

이 기간에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자기 대렬에서 호지명동지, 더.엔.아이더르동지, 모리스 토레즈동지, 팔미로 똘리아띠동지, 게오르기우 게오르게 데스동지, 체 게바라동지, 요한 코플레니히동지를 비롯한 여러 탁월한 활동가들을 잃었습니다.

나는 본대회사업에 앞서 대회의 이름으로 당과 혁명을 위하여,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고귀한 생애를 바친 내외의 혁명동지들과 민주인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할것을 제의합니다.

동지들!

우리 당 대회에는 대회를 축하하기 위하여 리종혁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남조선통일혁명당대표단이 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에는 최용근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인축하단이 참가하였습니다.

나는 이 대회와 우리의 모든 당원들의 이름으로 남조선통일혁명당대표단과 재일조선인축하단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우리 당 대회앞으로 개회직전까지 형제적공산당 및 로동당들과 신생독립국가의 집권당들, 세계 여러 나라들의 혁명조직들과 국제민주단체들, 개별적정치활동가들로부터 수십통의 따뜻한 축하문과 축전이 왔습니다.

나는 우리 대회를 축하하여준 모든 나라 당들과 혁명조직들, 국제민주단체들과 개별적정치활동가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는 온 나라가 높은 정치적열의와 로력적성과로 끓는 환경속에서, 우리 당

에 대한 전체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신뢰의 깊은 사랑속에서 제5차당대회를 맞이합니다.

올해에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7개년계획의 마지막고지를 기한전에 점령하기 위하여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로 힘차게 달려나갔으며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웠습니다.

수풍발전소, 천리마황해제철소, 천리마강선제강소, 김책제철소, 남포제련소, 문평제련소, 무산광산, 천리마검덕광산, 성흥광산, 신창탄광, 흥남비료공장, 본궁화학공장, 2.8비날론공장, 청진화학섬유공장, 2.8세멘트공장, 승호리세멘트공장, 천리마룡성기계공장, 천리마대안전기공장, 기양뜨락또르공장, 천리마희천공작기계공장, 평양방직공장, 신포수산사업소, 림업부문과 제염공업부문기업소들을 비롯한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과 조선기록영화촬영소, 조선예술영화촬영소, 과학아동영화촬영소를 비롯한 많은 문화기관들이 이미 당대회전에 7개년계획과 올해 년간계획을 완수 및 초과완수하는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높이 받들고 군수공업부문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당대회전에 7개년계획과 올해 년간계획을 넘쳐완수하였습니다.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방의 예비를 적극 동원하여 반년남짓한 기간에 당대회에 드리는 선물공장 500여개를 포함하여 1,760여개의 지방산업공장들을 새로 일떠세우고 여러가지 인민소비품들을 만들어내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에 대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끝없는 충성심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당대회에 만풍년을 선물하기 위하여 혁신적인 투쟁을 벌렸으며 올해에 례년에 드문 대풍작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의 도시와 농촌 건설자들은 당대회를 맞이하면서 수도 평양시를 더욱 웅장하게 건설하였으며 사리원시를 비롯한 지방도시들과 수십만세대의 아담한 농촌문화주택들을 건설하여놓았습니다.

나는 대회의 이름으로 당대회를 맞이하면서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무비의 헌신성과 영웅주의를 발휘하여 빛나는 업적을 쌓아올린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근로농민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당대회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인민군대, 경비대, 사회안전기관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전투정치훈련과제와 특히 대규모군사련습계획들을 훌륭히 수행하였으며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일을 하여놓았습니다.

나는 당의 군사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한 모든 인민군장병들과 경비대원들 그리고 당의 정치보위자로서의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있는 모든 사회안전일군들에게 대회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우리 당 제4차대회로부터 이번 대회에 이르는 기간에 우리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서는 위대한 변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대회는 제4차당대회와 당대표자회가 내세운 혁명과업수행정형을 총화하고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빨리 다그치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투쟁과업을 내세우게 될것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당대회대표자선거세칙에 따라 각 도(직할시)당대표회에서 선출된 결의권을 가진 대표 1,734명과 발언권을 가진 대표 137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나는 대회에 참가한 모든 대표들의 열성적인 참가밑에 대회사업에서 높은 성과가 이룩되리라는것을 확신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나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 페회사

## 김 일 성

동지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는 이제 자기 사업을 끝마치게 됩니다.

이번 대회는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그 어느때보다도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벅찬 환경속에서 소집되였으며 온 나라가 높은 정치적열의와 혁명적정열로 들끓는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습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대회를 열렬히 축하하고 대회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표동지들이 대회사업에 진지하게 참가하였습니다.

대회는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서 대표동지들의 적극적인 참가밑에 의정에 상정된 모든 문제들에 대한 토의를 성과적으로 끝마쳤으며 자기앞에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대회사업의 진행정과 결과에 대하여 우리는 매우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대회사업의 성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 대표동지들과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대회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이번 대회는 총결기간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승리와 성과를 총화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을 령도하여 앞을 가로막는 중첩되는 난관과 애로를 용감하게 뚫고나가면서 제4차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켰습니다. 우리는 부강한 사회주의 새 조국 건설에서 또하나의 높은 령마루를 점령하였습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력사적인 당대표자회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떠한 불의의 침공도 능히 물리치고 조국의 안전과 사회주의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지켜낼수 있는 자위력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총결기간 남조선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이 더욱 강화되여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며 조국을 통일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는 획기적인 전진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의 자주적이고 원칙적인 대외정책에 의하여 우리 당과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가 더욱 공고화되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이 전례없이 강화되였습니다.

우리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이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우리 당 주체사상의 위대한 승리이며 그 빛나는 구현입니다.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는 꾸준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웠으며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보장하였습니다.

대회는 주체사상이 오늘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되였다는것을 일치하게 확인하였으며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이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를 비롯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되고있다는것을 만족스럽게 지적하였습니다.

전당에 맑스-레닌주의사상, 당의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고 우리 당 대렬의 통일과 단

결이 새로운 기초우에서 더욱 강화되였으며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굳게 단결되여있습니다.

우리 당 제5차대회는 우리 당과 우리 나라의 력사에서 공업화의 위대한 승리의 대회,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의 대회로 불리울수 있을것입니다.

대회는 우리 인민에게 새로운 투쟁방향과 목표를 밝혀주었으며 6개년계획의 웅대한 과업을 내놓았습니다.

대회가 내놓은 과업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전투적강령입니다.

이 새로운 강령이 실현되면 우리 나라는 더욱 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발전된 사회주의나라로 될것이며 우리의 혁명력량은 불패의것으로 장성강화될것이며 우리의 모든 생활은 보다 넉넉하고 문화적인것으로 될것입니다.

이 강령의 실현은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할것이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는데서 결정적인 국면을 열어놓게 될것입니다.

동지들!

지난 기간 우리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참말로 위대한 승리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업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아직도 혁명과 건설의 도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난관에 굴하지 말고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계속 힘차게 전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로서 언제나 혁명적생활기풍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휘황한 앞날에 대한 커다란 포부와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당대회가 내세운 전투적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계속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 투쟁하여야 하며 더욱 빨리 앞으로 달려나가야 하겠습니다.

당대회결정을 관철하는데서 우리는 무엇보다먼저 당을 강화하고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려야 합니다.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사상의지의 통일을 확고히 보장하며 인민대중을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워야 하겠습니다.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열렬한 혁명가, 참다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더욱 앞당겨야할것입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우리는 인민경제 모든 분야에서 당대회가 내놓은 6개년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과학과 기술을 열심히 배우며 사회주의건설에 자기의 온갖 정력과 재능을 다 바쳐야 합니다. 모두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부닥치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나가야하며 천리마의 기세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6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건설과 함께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하며 전쟁에 대처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평화적기분과 전쟁을 두려워하는 수정주의적경향을 배격하고 원쑤들이 감히 무력으로 우리에게 덤벼들 때에는 이를 용감하게 맞받아나아가 싸우겠다는 전투적기백과 혁명정신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의 자위적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며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강화하여 더 많은 물자예비를 마련하며 전시생산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앞에 나선 과업은 어렵고 방대한것이며 우리의 투쟁은 의연히 간고성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진도상에는 아직 난관도 많을것이며 우리는 시련도 겪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모든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새로운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온갖 조건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정확하며 그것은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당을 믿고있고 당의 두리에 굳게 단결되여있으며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물불을 가리지 않고 힘차게 싸워나가고있습니다.

우리의 혁명위업은 정당하며 우리는 전세계 혁명적인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있습니다.

우리에게 맑스-레닌주의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그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이 있으며 우리에게 국제적인 지지성원이 있는 이상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인것입니다. 그 어떤 힘도 우리 당과 인민의 승리적전진을 가로막을수 없습니다.

동지들! 대회는 새 중앙위원회를 만장일치로 선거하였습니다. 나는 새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높은 신임을 표시하여준데 대하여 대표동지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새로 선거된 중앙위원회 앞에는 커다란 책임과 무거운 임무가 나서고있습니다.

나는 새 중앙위원회가 대회결정을 성과적으로 관철하며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있게 투쟁함으로써 대회가 표시한 높은 신임에 보답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동지들! 우리의 대회는 형제당들과 국제적벗들의 열렬한 축하속에서 진행되였습니다.

수많은 공산당, 로동당들과 신생독립국가들의 집권당들, 세계 여러 나라의 혁명조직들이 우리 대회 앞으로 친절한 축하문과 축전을 보내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매우 기쁘게 해주며 우리에 대한 커다란 고무로 됩니다.

나는 이 대회와 우리의 전체 당원들의 이름으로 대회에 축하문과 축전을 보내준 형제적 공산당, 로동당들과 신생독립국가들의 집권당들, 모든 나라의 혁명조직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대회의 이름으로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에 지지성원을 주고있는 전세계 로동계급과 혁명적인민들에게 인사를 보내며 그들의 투쟁에서 더욱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우리 대회에는 남조선 통일혁명당대표들과 재일조선인축하단이 참가하여 대회를 열렬히 축하해주고 우리를 고무하여주었습니다.

나는 대회의 이름으로 우리 대회를 축하해준 남조선 통일혁명당대표들과 그들을 통하여 남조선 통일혁명당에 감사를 드리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적폭압에도 굴하지 않고 자유와 해방과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영용하게 싸우는 남조선의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에게 열렬한 성원을 보냅니다.

나는 또한 우리 대회에 참가한 재일조선인축하단과 그를 통하여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에 감사를 드리며 민족적권리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용감하게 싸우고있는 60만 재일동포들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동지들!

대회가 끝나면 대표동지들은 자기 초소로 돌아갈것이며 대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새로운 투쟁에 달라붙게 될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을 대표하여 대회에 참가한 당신들은 대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특별히 무거운 책임을 지니고있습니다.

나는 여러 동지들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하고 끝까지 관철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조직동원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밀고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모두다 맑스-레닌주의의 기치, 우리 당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당중앙위원회두리에 굳게 뭉쳐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나는 대회참가자들과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대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앞으로의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하면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의 페회를 선언합니다.

# 동방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 관한 레닌의 위대한 사상은 승리하고있다

(웨. 이. 레닌 탄생 100돐에 즈음하여)

## 김 일 성

오래지 않아 우리는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과 함께 웨. 이. 레닌탄생 100돐을 뜻깊게 맞이하게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며 인류의 영재인 레닌은 자기의 온 생애를 국제로동계급과 전세계 피압박민족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위업에 바쳤으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불멸의 업적을 남겨놓았다.

레닌은 온갖 기회주의적조류들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속에서 맑스주의의 혁명적진수를 고수하였으며 제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혁명시기의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맑스주의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고 더욱 풍부화시켰다. 레닌은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이 극도에 이르렀던 제국주의시대에 활동하면서 맑스가 발견한 자본주의의 발생, 발전 및 몰락에 관한 법칙에 따라 자본주의의 최고단계이며 최후단계로서의 제국주의의 본질과 력사적지위를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그 멸망의 불가피성을 론증하였으며 처음으로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의 승리에 관한 리론을 내놓았다. 그는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사상을 더욱 발전시키고 새형의 맑스주의당의 조직, 사상적 기초와 전술적원칙들을 정식화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강령을 만듦으로써 전세계 로동계급과 피착취, 피압박 근로대중을 사회주의를 위한 혁명적결전에로 불러일으켰다.

레닌주의는 제국주의시기의 창조적맑스주의이며 프로레타리아혁명의 리론과 전략전술이며 낡은 사회를 뒤집어엎고 새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혁명적인민들의 위력한 무기이며 우리 시대의 위대한 전투적기치이다. 현실은 세계를 변혁하는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적학설로서의 레닌주의의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증명하여주고있다. 레닌의 불멸의 혁명적기치는 지구우의 가는곳마다에서 높이 휘날리고있으며 날이 갈수록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투쟁을 더욱더 힘있게 추동하고 전인류를 광명한 미래에로 믿음직하게 이끌고있다.

레닌의 학설에서 식민지—민족문제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레닌은 금융자본의 지배에 기초한 민족억압의 시기인 제국주의시기의 민족—식민지혁명리론의 정연한 체계를 창조하였다. 독점자본주의시기에 와서 세계는 극소수의 제국주의렬강들과 지구상 주민의 대다수를 이루는 피압박민족들이 살고있는 식민지예속국가들의 두 부분으로 갈라지게 되였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레닌은 민족문제를 식민지문제와 결부시켰으며 그것을 구라파의 《문명한》 나라의 민족들에 국한된 부분적문제로부터 제국주의기반에서의 피압박민족들의 해방에 관한 전반적문제로 확대하였으며 식민지—민족문제를 프로레타리아혁명과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전반적문제의 한 부분으로 보았다. 레닌은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을 제국주의의 예비군으로부터 프로레타리아혁명의 동맹군으로 전환시켜야 하며 로동계급은 사회배외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이제까지 력사밖에 서있었으며 오직 력사의 대상으로만 간주되여오던 수억만 피압박민족들과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레닌은 민족—식민지문제해결의 기본원칙인 민족자결에 관한 맑스의 과학적사상을 더욱 심화발전시켰다. 그는 모든 민족은 평등하고 자주적이며 어느 한 민족에도 특권을 주어서는 절대로 안되며 소수민족의 권리를 침해하는 온갖 조치를 불법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모든 민족은 국가적분리의 자유와 정치적자결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그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선 민족들의 참다운 단결을 제창하였으며 《말로는 민족의 평등권을 인정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어느 한 민족의 몇몇 특권을 고집하며 (흔히는 인민의 배후에서 은밀하게) 항상 〈자기〉 민족을 위하여 (즉 자기 민족의 부르죠아지를 위하여) 더 많은 리익을 얻는것, 제 민족을 리간시켜 그들사이에 장벽을 쌓는 것, 민족적배타성을 발전시키는것 등등에 노력》(레닌전집, 조선문판, 제19권, 682페지) 하는 집요한 민족리기주의와 부르죠아민족주의를 단호히 배격하였다.

레닌은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면서 특히 동방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에 각별한 관심을 돌렸다.

19세기말 20세기초에 걸쳐 동방나라들은 세계제국주의렬강들의 식민지로 분할되였으며 아세아대륙은 세계자본주의 렬강의 원료원천지, 자본수출지, 잉여상품판매시장으로, 제국주의의 광대한 후방으로 전변되였다. 이로 말미암아 봉건사회내부에서 자본주의적관계가 적지 않게 싹트고있던 동방나라들의 경제는 자기 발전의 정상적길을 크게 저지당하였다. 동방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렬강의 압박과 착취의 강화, 아세아나라들의 사회경제발전의 억제는 불가피적으로 제국주의렬강과 이 지역 인민들사이의 민족적모순을 첨예화시켰다. 동방인민들은 발전된 자본주의나라 인민들보다 이중삼중의 혹심한 착취와 제국주의자들의 야만적인 민족적, 인종적 억압을 당하였다. 제국주의렬강의 동방에 대한 침략의 강화와 아세아나라들의 식민지, 반식민지화 과정의 촉진은 이 지역에서의 계급적모순도 극도로 첨예화시켰다. 외래제국주의자들의 략탈은 토착반동지배계급들의 착취와 결합되여 더욱 참을수 없는것으로 되였다. 식민지 리권과 세력권을 쟁탈하려는 제국주의렬강들 및 독점자본집단들호상간의 모순도 이 지대에서 심하게 충돌되고있었다. 참말로 이 지대는 혁명을 분만하는 여러가지 모순의 집결처였으며 제국주의전선의 련쇄가 가장 약한 고리였으며 세계정치투쟁의 결전장이였다. 동방은 민족—식민지문제의 중심으로 되였다. 동방인민들은 세기적잠에서 깨여났으며 19세기말엽부터 아세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자유와 독립을 위한 인민들의 혁명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동방이 각성하는 시기에 뒤이어 현대혁명에서는 모든 동방인민이 치부의 대상으로만 되지 않기 위하여 전세계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참가하게 될 그러한 시기가 가까와오고있다. 동방민족은 실지로 행동하며 매개 민족마다 전인류의 운명문제를 해결하는데 참가하기 위하여 잠에서 깨여나고있다.》 (레닌전집, 조선문판, 제30권, 181페지)

로씨야에서의 위대한 사회주의10월혁명은 동방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의 새 시대를 열어놓았다. 10월혁명의 승리는 지금까지 중세기적정책에 의하여 몽매하여졌고 자본주의문명을 위한 거름으로만 되여온 동방인민들을 더욱 각성시켰으며 피압박민족들의 해방투쟁을 국제로동계급의 혁명운동과 결합시켜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켰다.

식민지—민족문제에 관한 레닌의 위대한 사상에서 끝없는 힘과 용기를 얻고 10월혁명의 승리에서 투쟁의 옳바른 길을 찾은 동방인민들은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단호하고도 과감한 투쟁을 벌림으로써 력사적인 승리를 쟁취하였다. 특히 제2차세계대전후 동방에서는 위대한 혁명적전환이 일어났으며 아세아의 면모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중국인민은 오래동안에 걸치는 반제해방투쟁끝에 마침내 외래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

고·봉건주의 및 관료자본주의 통치를 뒤집어엎었다. 중국혁명의 승리는 그 의의로 보아 위대한 10월혁명의 다음가는 큰 국제적사변이였다. 세계인구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인민이 제국주의명에를 벗어던지고 사회주의길에 들어선것은 제국주의식민지체계에 또 하나의 커다란 돌파구를 낸것이였으며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력량관계를 사회주의편에 결정적으로 리롭게 전변시켰다.

영웅적웰남인민은 피어린 투쟁을 벌려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을 비롯한 외래침략자들을 내쫓고 동남아세아에서 첫 사회주의국가를 창건하였다. 오늘 웰남은 반제반미투쟁의 가장 치렬한 전선으로 되고있다. 바로 웰남땅에서 반제혁명력량과 미제국주의침략세력사이에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고있다. 남부웰남인민해방무장력과 인민들은 이미 국토의 5분의 4와 인구의 3분의 2를 해방하고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를 세웠다. 그들은 미제침략자들에게 계속 돌이킬수 없는 심대한 군사, 정치적 패배를 주고있으며 미제와 남부웰남괴뢰들을 진퇴량난의 막다른골목에 몰아넣고있다.

라오스인민들은 라오스애국전선의 령도밑에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인도지나와 동남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에게 련속적인 공격을 들이대여 날에날마다 투쟁성과를 확대하고있다. 일본의 로동계급과 인민들은 반미, 반독점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고있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의 전쟁정책과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있다. 타이와 말라이 인민들은 미제국주의자들과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으며 필리핀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은 미제에 의한 나라의 정치, 경제적 예속을 반대하여 항쟁의 거리에 용감하게 떨쳐나서고있다. 캄보쟈인민들은 민족의 자주권과 령토완정을 위하여 싸우고있으며 인도, 세일론, 버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을 비롯한 아세아의 모든 나라 인민들이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대렬에 합류하여 전진하고있다.

간고한 시련과 영웅적사변들로 가득찬 조선혁명의 전행정은 영생불멸의 레닌의 기치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로정이다. 조선인민은 위대한 레닌의 사상에서 해방의 무기를 찾았으며 그 기치밑에 자유와 독립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벌려왔으며 창조와 승리의 력사를 개척하여왔다.

민족적비운이 드리웠던 일제식민지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레닌의 혁명사상을 전략전술적지침으로 삼아 반제민족해방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15성상의 영웅적무장투쟁을 벌림으로써 일제를 패망시키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승리를 이룩하였다.

8.15해방후 새 생활의 길에 들어선 우리 인민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철저히 수행하고 북반부에 믿음직한 혁명기지를 창설하였으며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야만적인 무력침공을 영웅적으로 물리치고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지켜냈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승리는 그 어떠한 제국주의침략세력도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밑에 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일떠선 인민을 정복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으며 미제의 취약성과 부패성을 폭로하고 세계피압박민족들에게 미제가 결코 무적이 아니며 그와 싸워 얼마든지 이길수 있다는 굳은 신심을 안겨주었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리와 다른 나라의 경험을 우리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자기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가는 주체적로선을 튼튼히 견지함으로써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승리와 성과를 이룩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는 정치에서 완전한 자결권을 가진 그리고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찬란한 민족문화와 강한 자위력을 가진 사회주의나라로 되였다.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위대한 사회경제적변혁은 미제의 악독한 식민지통치밑에서 신음하

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커다란 혁명적영향을 미치고있다. 륭성발전하는 북반부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은 미제가 남반부를 강점한 첫날부터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군사침략정책을 반대하여 억세게 싸워왔다. 1946년 10월인민항쟁과 미제의 오랜 앞잡이인 리승만괴뢰정권을 뒤집어엎은 1960년 4월의 대중적인민봉기를 비롯하여 《한일회담》을 반대하고 매국적인 《한일협정》을 짓부시며 현남조선위정자들의 장기집권책동을 반대하여 련이어 일어난 남조선인민들의 줄기찬 투쟁은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았다. 지금 남조선에서 혁명투쟁은 점차 조직화되고 혁명의 주력군인 로동자, 농민들 속에 깊이 뿌리박고있으며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이 반미, 반괴뢰 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자기들의 혁명조직을 더욱 확대강화하면서 이르는 곳마다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과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군사파쑈독재를 반대하고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광범한 대중적인 투쟁을 적극 벌리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투쟁을 통하여 더욱더 각성되고 단련될것이며 결국에 가서는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그 앞잡이들을 때려부심으로써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고야말것이다.

어제날 식민지대륙이였던 아세아는 제국주의를 매장하는 거세찬 혁명적폭풍이 휘몰아치는 지대로 전변되였다. 이 지역은 오늘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국제혁명전선의 전초지로, 세계적범위에서 벌어지고있는 자유와 해방을 위한 혁명투쟁의 기본무대로 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동방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의 강력한 타격에 의하여 치명상을 입고 만신창이 되였으며 사면초가에 빠지고있다. 수억만 인민들을 가난과 굶주림에서 헤매이게 하던 치욕스러운 제국주의, 식민주의는 오늘 동방에서 자기의 마지막시각을 살고있으며 그 완전한 청산이 일정에 오르고있다.

세계인구의 과반수와 방대한 자연경제적잠재력을 가지고있는 아세아대륙인민들의 반제혁명투쟁은 세계자본주의체계의 전반적위기를 격화시키고 제국주의를 그 후방으로부터 타격함으로써 세계무대에서 사회주의나라들의 지위를 강화하며 국제로동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있다. 여러 세기에 걸쳐 외래침략자들의 억압과 략탈을 당하였으며 혹독한 민족적멸시와 인종적차별을 받아온 동방민족들이 오늘은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력량으로 등장하였으며 인류의 력사를 전진시키는 커다란 동력으로 되였다.

레닌은 일찌기 《…박두하는 세계혁명의 결정적인 전투에서 최초에는 민족해방을 지향하였던 세계인구의 대다수운동이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반대하게 되여 우리가 기대하는것보다 훨씬 더 큰 혁명적역할을 수행할수 있다는것은 아주 명백하다.》 (레닌전집, 조선문판, 제32권, 629페지)라고 하였다.

혁명적사변들로 아로새겨진 인류의 현대력사는 날이 갈수록 레닌의 예언의 정당성을 더욱더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아세아에서 날로 장성강화되고있는 반제혁명력량에 겁을 집어먹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료원의 불길처럼 타번지고있는 이 지역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을 진압하고 뒤흔들리고있는 자기들의 식민지통치를 부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지역에 해외군사원조비의 대부분을 쏟아넣고있으며 여기에 숱한 군사기지들을 설치하고 해외침략무력의 3분의 2를 투입하고있다. 그들은 자기의 침략무력을 강화하는 한편 일본군국주의를 《돌격대》로 내세우고 아세아의 추종국가들과 괴뢰들을 동원하여 주로 《아세아인들끼리 싸우게 하는 방법》으로 아세아에 대한 침략을 손쉽게 달성하려고 어리석게 망상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일본군국주의를 재무장시켜가지고 남조선괴뢰들과 결탁시켰으며 그것을 축으로 아세아《반공》군사동맹을 꾸며내려고 발광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아세아를 침략하기 위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음모책동은 더욱 강화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손아래동맹자, 침략적군사기지로서의 일본의 군사경제적잠재력을 아세아침략에 적극적으로 리용하는 길에 들어섰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를 등에 업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려고 공공연히 날뛰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미 미제의 웰남침략에 적극 가담하고있으며 조선과 다른 아세아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전쟁준비를 로골적으로 다그치고있으며 이 지역 나라들에 대한 경제문화적침투를 강화하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제아무리 발악하여도 아세아에서 이미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한 자기들의 처지를 구원할수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에서 침략과 전쟁 정책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들은 아세아인민들의 더 큰 반항에 부닥치게 될것이다. 동방인민들은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아세아를 건설하기 위하여 비타협적이며 결사적인 투쟁을 벌림으로써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식민지체계를 종국적으로 무너뜨리고야말것이다.

쏘련인민은 레닌때부터 반제민족해방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피압박인민들의 해방위업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쏘련인민은 일제의 식민지통치기반에서의 우리 인민의 해방위업을 도와주었으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고수하며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물심량면으로 커다란 원조를 주었다. 우리 인민은 쏘련인민이 준 국제주의적 지지와 원조를 잊지 않고있다. 조선인민은 반제반미투쟁전선에서 쏘련인민과의 친선단결을 매우 귀중히 여기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과 쏘련인민과의 전투적련대성은 더욱 강화되고있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한 공동투쟁의 불길속에서 맺어졌으며 력사의 시련을 이겨낸 조쏘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투적단결은 앞으로도 계속 공고발전될것이다.

백전백승의 레닌의 혁명적기치밑에 굳게 뭉친 국제로동계급과 전세계 피압박민족들의 반제혁명위업 만세!

#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총리 주은래동지를 맞이하여 비행장에서 한 김일성동지의 연설

(1970년 4월 5일)

존경하는 주은래총리동지!

친애하는 중국손님 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우리의 친근한 벗인 주은래총리동지와 그 일행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조선인민은 형제적중국인민의 사절인 주은래동지를 따뜻한 우애의 정을 가지고 반가이 맞이하고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 인민은 오래동안 생사운명을 같이하면서 공동의 원쑤 일본군국주의와 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어깨겯고 함께 싸워온 가까운 전우이며 형제입니다.

조선인민은 피어린 간고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맺어진 중국인민과의 친선을 매우 귀중히 여기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중국인민이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중국혁명을 승리적으로 수행한 다음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앙양된 정치적열의와 근면한 로동으로 새 중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진심으로 기뻐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전반적위력이 급속히 장성강화될것을 충심으로 바라고있습니다.

총리동지!

당신이 미일제국주의자들의 로골적인 침략과 전쟁 책동으로 말미암아 아세아에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는 때에 우리 나라에 온것은 매우 의의깊은 일입니다.

총리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과 당신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렬한 환영은 피로써 맺어진 전투적친선의 뉴대를 강화하며 제국주의의 침략에 공동으로 대처해나가려는 두 나라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의 표시로 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방문이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투쟁에서 조중 두 나라 사이의 호상 지지와 협조를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우리의 귀중한 손님인 총리동지와 그 일행이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 동안 즐겁고 유익하게 시간을 보낼것과 아울러 당신들의 이번 방문이 훌륭한 결실을 보게 될것을 충심으로 바랍니다.

조선인민과 중국인민 사이의 전투적우의와 형제적친선단결만세!

#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주은래동지를 환영하여 베푼 연회에서 한 김일성동지의 연설

(1970년 4월 5일)

존경하는 주은래총리동지!

친애하는 중국의 손님 여러분!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우리는 오늘 기쁜 심정으로 우리의 친근한 벗인 주은래총리동지를 우리 나라의 수도 평양에서 맞이하였습니다.

나는 형제적친선과 우의의 정이 넘치는 이 자리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총리동지와 그리고 당신과 같이 온 중국 손님들을 다시한번 열렬히 환영합니다.

조선과 중국은 혈연적관계를 가지고있는 우방이며 두 나라 인민은 뿌리깊은 친선의 뉴대로 련결된 형제입니다.

우리 두 나라 인민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자유와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간고하고도 험난한 투쟁의 길을 걸어왔으며 이 과정에 피도 많이 흘렸습니다.

조중 두 나라의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 로동자, 농민들은 항일의 기치밑에 손에 무장을 들고 공동의 원쑤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함께 투쟁하였으며 또한 두 나라 인민들은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제를 비롯한 세계반동의 련합세력을 반대하여 한전호에서 어깨겯고 싸웠습니다.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은 실생활을 통하여 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며 나라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지키기 위한 자기들의 투쟁이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다는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우리 두 나라 인민은 과거에도 단결의 힘에 의하여 투쟁에서 승리하였으며 앞으로도 같이 싸워 승리할것입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두 나라 인민들이 이룩하고있는 성과들은 우리의 힘을 더욱 강화하여주고있습니다.

형제적중국인민은 모택동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과 국내반동세력을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을 벌려 중국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중국혁명의 승리와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중국인민의 력사에서 근본적인 전환이였으며 세계제국주의세력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아세아의 정세를 평화와 사회주의에 유리하게 전변시킨 획기적사변이였습니다.

새 생활 창조의 길에 들어선 중국인민은 모든 힘을 다하여 더 많이, 더 빨리, 더 좋게, 절약하면서 사회주의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프로레타리아문화대혁명을 수행하며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조선인민은 앞으로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중국인민의 투쟁에서 새로운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모든 분야에 계속 철저히 구현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룩하여놓은 위대한 사회경제적변혁에 기초하여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더욱 튼튼히 다지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형제적중국인민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나날에 보내준 숭고한 국제주의적지원에 대하여 언제나 잊지 않고있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여주고있는데 대하여 감사히 여기고있습니다.

중국인민의 이러한 지지성원은 조선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남아있을것입니다.

동지들과 벗들!

미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나라들과 신생독립국가들을 반대하는 무력침공과 파괴활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며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는 오늘의 정세는 혁명적인민들이 공동으로 그에 대처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미제는 지금 아세아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있으며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비롯한 아세아의 추종국가들과 괴뢰들을 묶어세워 아세아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는 방법으로 저들의 침략적야망을 이룩해보려고 책동하고있습니다.

미제에 의하여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일본의 군국화, 파쑈화 과정을 더욱 촉진시키고있으며 아세아인민들을 반대하는 침략의 길에 공공연히 들어서고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아세아에서 침략전쟁의 전초기지로, 거점으로 전변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일본군국주의세력과 결탁하여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적략탈과 군사기지화정책을 강화하며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키려고 더욱 미쳐날뛰고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실시하면서 《두개 중국》조작음모에 계속 집요하게 매달리고있습니다.

미제는 전쟁의 《웰남화》라는 간판밑에 웰남침략전쟁을 더욱 강화하고 라오스에 대한 무력간섭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있으며 얼마전에는 캄보쟈에서 우익반동세력을 부추겨 정변을 조작하고 이 나라를 우경에로 돌려세우려고 획책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미일제국주의자들이 제아무리 발악하여도 이 지역인민들의 혁명투쟁을 가로막지 못할것이며 아세아에 대한 자기들의 침략적목적을 결코 이룩할수 없습니다.

시대는 달라졌으며 오늘의 아세아는 어제날의 아세아가 아닙니다.

만일 미일제국주의자들이 력사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새로운 모험적인 침략전쟁을 일으킨다면 조선인민은 사회주의전취물을 지키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지난날과 같이 중국인민과 함께 원쑤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싸울것입니다.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을 비롯한 아세아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조만간 남조선과 대만에서 그리고 아세아의 모든곳에서 반드시 쫓겨나고야말것입니다.

조선인민은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것을 자기의 신성한 국제주의적의무로 간주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웰남에서의 미제국주의자들의 범죄적인 침략전쟁을 단호히 반대하며 영웅적웰남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 인민은 미제의 끊임없는 침략책동을 짓부시면서 혁명의 전취물을 지키며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있는 꾸바인민의 영웅적투쟁을 견결히 지지합니다.

조선인민은 라오스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무력간섭을 규탄하며 민족적독립을 위한 라오스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 인민은 미제와 그 앞잡이 유태복고주의자들의 무력침략을 반대하고 민족적독립과

존엄을 고수하며 강점당한 아랍땅을 되찾고 팔레스티나인민의 해방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아랍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조선인민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세계 모든 지역 인민들의 혁명투쟁에 지지와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인민들과 단결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혁명적인민들, 세계 모든 진보적인민들과 단결하여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계속 억세게 투쟁할것입니다.

존경하는 주은래총리동지!

당신은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시기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이 조중친선협조관계를 두 나라 인민의 공동위업의 리익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시킴에 있어서 새로운 기여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조선인민과 중국인민들사이의 불패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전투적단결을 위하여, 모택동동지의 건강을 위하여, 주은래동지의 건강을 위하여, 중국손님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각국 외교대표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가한 여러 동지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 김일성동지를 위하여 주은래동지가 차린 연회에서 한 김일성동지의 연설

(1970년 4월 7일)

존경하는 주은래총리동지,

친애하는 리운천대사동지,

동지들과 벗들,

이번에 주은래총리동지는 우리의 초청을 받고 며칠 안되는 짧은 기간 우리 나라에 머물렀으나 정력이 강하기때문에 많은 사업을 할수 있었습니다.

주은래총리동지는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을 통하여 미일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며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앞당기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크게 고무하고 용기를 북돋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두 나라 당 및 정부의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많은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총리동지의 우리 나라 체류일정은 매우 긴장하였으나 우리들은 두 나라 사이에 제기되고있던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호상 리해하고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당 중앙위원회는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번 주은래총리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이 두 나라 당 및 국가간의 관계를 더한층 강화발전시킴에 있어서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하여 주은래동지와 그리고 같이 온 여러 동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이 기회를 리용하여 주은래총리동지가 조국에 돌아가면 조선인민은 언제든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두 나라 사이의 친선단결을 계속 고수할것이며 어떠한 환경속에서도 미일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모든 반동파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중국인민과 어깨겯고 함께 싸워나갈것이라는것을 모택동동지와 림표동지 그리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전하여줄것을 희망합니다.

나는 위대한 중국인민의 수령인 모택동동지의 건강과 림표부주석의 건강을 위하여, 이번에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한 주은래동지의 건강을 위하여, 리운천대사동지의 건강을 위하여, 여기에 모인 여러 동지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 평양을 떠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총리 주은래동지를 바래여 비행장에서 한 김일성동지의 연설

(1970년 4월 7일)

존경하는 주은래총리동지!

친애하는 중국의 손님 여러분!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우리의 친근한 벗인 주은래총리동지와 그 일행은 우리 나라 방문을 끝마치고 이제 곧 조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는 귀중한 손님들과 작별하게 된 이 자리에서 방문기간 조선인민의 혁명위업에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여주었으며 우리 근로자들의 투쟁을 고무하여준데 대하여 당신들에게 충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당신들과 같이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고 친선의 정을 두터이 할수 있은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신들은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을 통하여 투쟁속에서 맺어졌으며 온갖 시련을 이겨내면서 강화발전되여온 조중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형제적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총리동지의 조선방문은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한 투쟁전선에 튼튼히 서있는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의 전투적 친선과 단결의 시위였으며 미일제국주의에 대한 커다란 타격으로 되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조중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여러 분야에 걸쳐 더욱 강화발전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조선인민은 중국에서 모든 일이 언제나 잘되여나가며 중국인민이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것을 축원하고있습니다.

총리동지!

당신이 우리 나라에 머물려있은 시일은 비록 짧았으나 우리 인민에게 잊을수 없는 깊은 인상을 남기였습니다.

나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당신들이 조국에 돌아가면 모택동주석과 림표부주석 그리고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형제적중국인민에게 보내는 뜨거운 친선의 인사를 전하여주기를 바랍니다.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사이의 불패의 친선단결만세!

#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는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 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맞이하여 역두에서 한 김일성수상의 연설

(1970년 6월 15일)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부인!

존경하는 뻰 누트친왕과 부인!

존경하는 캄보쟈의 귀한 손님 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캄보쟈국가원수이며 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이며 우리의 친근한 벗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그 부인,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 수상이며 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장인 뻰 누트친왕과 그 부인 그리고 캄보쟈의 귀한 손님 여러분의 우리 나라 방문을 충심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그 일행은 미제국주의자들의 강도적무력침략으로 말미암아 캄보쟈와 인도지나 전역에 전쟁의 불길이 확대되고있으며 이를 반대하는 캄보쟈인민과 인도지나인민들의 정의의 구국항쟁이 날로 거세차게 고조되고있는 때에 우리 나라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공동의 원쑤 미제를 반대하는 혁명적전우인 캄보쟈의 애국적인민들을 적극 지원하며 그와의 전투적련대성을 백방으로 강화할 결의를 더욱 굳게 하는 가운데 당신들을 맞이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캄보쟈민족통일전선의 옳바른 령도밑에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캄보쟈를 건설할 때까지 미제와 끝까지 싸워이기려는 캄보쟈인민의 견결한 립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이 투쟁에서 애국적 캄보쟈 인민과 민족해방군이 날로 확대하고있는 성과들을 자기자신의 성과와 같이 기뻐하며 열렬히 축하합니다.

캄보쟈에 대한 미제의 무력침공은 바로 아세아의 넓은 지역에 침략전쟁의 불길을 확대하려는 그들의 계획적책동의 한고리입니다.

이번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어떠한 불의의 침공과 새 전쟁 도발책동도 짓부실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추며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계속 긴장된 투쟁을 벌리고있는 우리 인민에 대한 큰 고무로 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이 방문이 아세아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혁명적인민들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며 우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과 단결을 새로이 공고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손님 여러분!

노로돔 시하누크 친왕은 이번에 두번째로 우리 나라에 왔습니다. 우리 조선은 친왕에게 이미 친숙한곳이며 우리 인민은 친왕을 잘 알고 높이 존경하고있습니다.

당신들은 이르는곳마다에서 혁명적 우리 인민들의 열렬한 환영과 환대를 받을것이며 싸우는 캄보쟈인민에 대한 우리 인민의 두터운 친선의 정을 몸가까이 느끼게 될것이며 우리 조선인민과 캄보쟈인민들간의 굳게 단결된 힘을 보게 될것입니다.

조선인민과 캄보쟈인민사이의 친선단결 만세!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전세계 인민들의 단결 만세!

#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한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을 환영하여 배푼 연회에서 한 김일성수상의 연설

(1970년 6월 15일)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부인!
존경하는 펜 누트친왕과 부인!
존경하는 캄보쟈의 귀한 손님 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오늘 우리는 우리 나라의 수도 평양에서 캄보쟈왕국의 탁월한 지도자이며 우리의 친근한 벗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몇년만에 다시 만나 이처럼 형제적친선의 정이 넘치는 가운데 자리를 같이 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캄보쟈국가원수이며 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그 부인,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 수상이며 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장인 펜 누트친왕과 그 부인 그리고 캄보쟈의 귀한 손님 여러분을 다시한번 열렬히 환영합니다.

캄보쟈인민은 공동의 원쑤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한 전선에서 우리와 함께 싸우고있는 형제이며 벗이며 또한 전우입니다.

캄보쟈인민에 대하여 품고있는 우리 인민의 이 진실한 감정이 오늘 당신들을 맞이하는 평양시민들로 하여금 그처럼 뜨겁고도 일찌기 보기 드문 기쁨과 환호로 들끓게 하였습니다.

캄보쟈인민은 지난 열여섯해동안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옳바른 령도밑에 독립, 평화, 자유를 누려왔으나 미제국주의자들의 야만적인 무력침략과 그 앞잡이 캄보쟈우익반역도당들의 매국배족행위로 말미암아 지금 전쟁의 참화를 겪고있습니다.

미제의 강도적침략을 반대하여 캄보쟈의 애국적인민들은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새로 조직된 캄보쟈민족통일전선의 두리에 굳게 뭉쳐 성스러운 구국항전에 용감히 일떠섰으며 이미 캄보쟈의 넓은 지역을 해방하였습니다.

캄보쟈민족통일전선 령도하의 왕국민족련합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비롯하여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세계 많은 나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승인을 받았으며 그의 국제적지위는 확고부동한것으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짓부시기 위하여 취한 모든 옳바른 조치들과 그의 불굴의 반제반미투쟁정신을 높이 평가하며 이 투쟁에서 캄보쟈인민과 민족해방군이 거두고있는 성과를 자기자신의 성과처럼 기뻐하며 그를 열렬히 축하합니다.

력사적인 인도지나인민들의 수뇌자회의 공동선언에 따라 캄보쟈, 웰남, 라오스 세 나

따 인민들은 굳게 단합된 공동투쟁으로 미제침략자들에게 날로 더큰 타격을 가하고있으며 미제는 캄보쟈에 대한 무력침공으로 전세계 인민들속에서와 미국안에서까지 일찌기 없었던 분노에 찬 규탄과 반항에 부딪치고있습니다.

이 모든것은 미제가 제아무리 발악하여도 무너져가는 론 놀—시리크 마타크괴뢰도당을 결코 부축할수 없으며 멸망하여가는 저들의 운명을 건져낼수 없다는것을 보여줍니다.

조선인민은 캄보쟈인민들이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3월 23일 5개항목선언에 따라 온 캄보쟈땅을 완전히 해방하고 민족통일전선의 기치밑에 독립되고 자유롭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번영하는 캄보쟈를 건설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이 앞으로도 공동의 원쑤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형제적캄보쟈인민의 정의의 반미구국항전이 최후의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것을 다하여 적극 지원할것이라는것을 다시금 엄숙히 선언합니다.

동지들과 벗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인도지나에서 전쟁의 불길을 확대하고있을뿐아니라 조선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려고 거의 매일과 같이 불장난을 감행하고있으며 대만해협에서 계속 정세를 긴장시키고있으며 아세아의 전반적지역에서 전쟁의 위험을 날카롭게 조성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여기에서 이른바 《닉슨주의》의 간판밑에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본격적으로 침략의 앞장에 내세우며 그를 골간으로 하여 남조선, 대만, 남부월남, 타이와 같은 아세아 괴뢰들과 추종국가들을 《반공》군사동맹에 묶어세워 《아세아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는》방법으로 저들이 처한 궁지로부터의 출로를 찾으려고 더욱 미쳐날뛰고있습니다.

모든 사실은 오늘 아세아가 혁명적폭풍이 가장 세차게 휘몰아치는 지대이며 세계적범위에서 벌어지고있는 혁명투쟁의 기본무대로 되고있기때문에 미제국주의자들이 여기에 공격의 예봉을 집중하여 혁명력량을 말살하려고 발악하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우리는 이 지역의 혁명적나라들이 미제를 반대하는 공동전선을 강화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인정합니다.

아세아인민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혁명투쟁을 벌려온 빛나는 력사를 가지고있습니다.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은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여 오래동안 함께 싸워왔습니다. 조중량국인민은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어깨겯고 싸워이겼으며 조선전쟁때도 조중인민들은 힘을 합하여 미제의 코대를 꺾어놓고 그들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았습니다.

인도지나인민들은 프랑스제국주의와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을 함께 벌려 승리하였으며 바로 오늘 불굴의 월남땅과 캄보쟈, 라오스 등 인도지나전역에서 미제침략자들은 패배를 거듭하고 헤여날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고있습니다.

캄보쟈, 라오스, 월남, 중국, 조선을 비롯하여 아세아의 여러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이 공동전선을 펴고 미제에 집단적으로 달라붙어 타격을 가한다면 능히 그를 때려눕힐수 있으며 우리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을것입니다.

우리의 단결은 비단 력사적으로 형성되였을뿐아니라 지금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우리 아세아의 혁명하는 나라들로 하여금 단결을 더욱 강화하게 하여줍니다. 우리는 단결하여 견결히 투쟁할 때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때려부셔온 경험을 가지고있으며 앞으로도 어떠한 강적이든지 능히 때려부실수 있다는것을 확신합니다.

조선인민과 캄보쟈인민은 지난 시기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굳게 단결하여 긴밀히 협조하여왔습니다.

캄보쟈왕국과 캄보쟈인민은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

미 국제무대에서와 여러 기회에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주고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캄보쟈왕국과 인민이 우리의 정당한 위업에 언제나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여주고있는데 대하여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전체 캄보쟈인민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미제국주의가 가장 횡포하게 행동하는 오늘 그들의 취약성은 그 어느때보다도 뚜렷이 드러나고있으며 전반적정세는 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계속 발전하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민은 우리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더욱 굳게 뭉쳐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힘있게 병진시키며 원쑤들의 어떠한 침공에도 대처할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추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들과 단결하며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과 단결하며 특히 아세아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아세아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 지역의 모든 혁명적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투쟁할것입니다.

우리 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캄보쟈인민과 웰남인민, 라오스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언제나 적극 지지할것입니다.

우리 인민은 미제와 그 앞잡이 유태복고주의자들의 무력침략을 반대하고 민족적독립과 령토완정을 수호하며 팔레스티나를 해방하기 위한 아랍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조선인민은 미제의 끊임없는 침략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꾸바인민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자유와 해방과 민족적독립의 공고화를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세계의 모든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견결히 지지합니다.

동지들과 벗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은 반미공동투쟁에서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전투적단결과 호상 협조를 새로이 강화하며 아세아에서 혁명적인민들의 반미공동전선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기여로 될것입니다.

나는 화기에 넘친 이 자리에서 형제적캄보쟈인민의 반미구국투쟁에서의 빛나는 승리를 위하여,

조선인민과 캄보쟈인민들사이의 전투적친선단결을 위하여,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전투적친선단결을 위하여,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부인의 건강을 위하여,

존경하는 뻰 누트친왕과 부인의 건강을 위하여,

존경하는 캄보쟈손님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 김일성수상동지와 부인 김성애동지를 위하여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차린 연회에서 한

# 김일성수상의 연설

(1970년 6월 27일)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

존경하는 펜 누트친왕과 부인!

존경하는 캄보쟈의 귀한 손님 여러분!

존경하는 앙 겜 코안대사각하와 부인!

동지들과 벗들!

나는 먼저 캄보쟈국가원수이며 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이며 우리의 친근한 벗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께서 오늘 저녁 우리를 친절히 초대하여주었으며 또한 우리에게 그처럼 따뜻하고 감동적인 말씀을 하여준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은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였습니다.

이 방문은 공동의 원쑤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우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투적 친선과 단결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킨 획기적사변으로 되였으며 아세아에서 싸우는 혁명적인민들의 반미공동전선을 강화하는데 력사적공헌으로 되였습니다.

우리는 그사이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함께 지낸 뜻깊은 나날에 전우로서, 형제로서 또한 벗으로서의 우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호상 리해를 더욱 두터이 하였으며 우리의 공동위업의 승리에 대한 신심을 무한히 굳게 하였습니다.

국가원수친왕은 우리 근로자들과의 상봉에서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흉악한 범죄적책동을 견결히 단죄하고 그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싸워이기려는 캄보쟈인민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확고한 립장에 대하여, 캄보쟈민족통일전선과 그 령도하의 왕국민족련합정부두리에 굳게 뭉친 애국적캄보쟈인민이 거두고있는 성과들에 대하여 그리고 이 투쟁의 빛나는 전망들에 대하여 모든것을 명백하고 감명깊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국가원수친왕은 또한 우리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가장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습니다.

캄보쟈인민의 탁월한 령도자이며 저명한 반제투사인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형제적캄보쟈인민이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승리적으로 벌리고있는 투쟁은 공동전선에 서 있는 우리 조선인민에게 힘찬 고무로 되였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캄보쟈왕국과 국가원수친왕께서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을 조선인민의 유일한 합법적국가로 인정하고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건설성과를 높이 평가하여주었으며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 침략정책을 언제나 신랄히 폭로규탄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위업을 강력히 지지하여주고있는데 대하여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에게 다시금 가장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이번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우리 나라 방문으로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친선단결은 새로운 기초우에서 강화되고 조선으로부터 중국, 웰남, 라오스 그리고 인민적이며 반제적인 캄보쟈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걸친 반미공동전선이 보다 굳게 다져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에게 있어서 매우 귀중한 전취물입니다.

미제는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그 어떤 폭력에 의거한 침략행위로써도 또한 신생독립국가들에 대한 그 어떤 군사정변의 조작이나 공공연한 무력간섭으로써도 멸망하여가는 저들의 운명을 결코 건져낼수 없으며 그 앞잡이들의 파멸을 막을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것입니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과 관련한 모든 훌륭한 성과들과 그가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표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캄보쟈왕국의 공동성명에 명백히 밝혀져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불패의 단결된 위력을 시위한 이 공동성명은 혁명적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과 고무를 줄것이며 우리의 원쑤들에게는 폭탄과 같은 또하나의 심대한 타격으로 될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성명에 밝혀진 행동로선에 따라 앞으로 형제적캄보쟈인민이 반미구국항전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정신적으로뿐만아니라 물질적으로 계속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하여 그들을 적극 지원할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것을 자기의 마땅한 국제주의적의무로 여기고있습니다.

전체 인도지나인민과 굳게 단결되여 있으며 조선인민,중국인민 그리고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는 캄보쟈인민의 정의의 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입니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단히 강력하고 실제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현지에서 형제적인 웰남과 라오스 인민들의 전투적련대성을 받고있는 우리 인민은 가까운 장래에 조국을 해방하고 독립과 중립 그리고 평화와 진보를 되찾을수 있다는것을 확신합니다.》

캄보쟈인민과 민족해방군은 지금도 끊임없이 전과를 확대하고있으며 적들은 프놈펜에 대한 포위망이 점점 조여든다고 비명을 올리고있습니다.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캄보쟈민족통일전선의 옳바른 령도밑에 캄보쟈인민이 미제와 그 앞잡이 론 놀반역도당을 때려부시고 온 캄보쟈땅을 완전히 해방할 날은 반드시 올것입니다.

이번에 《미제반대투쟁의 날》 행사를 비롯한 반미공동투쟁월간행사들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는 중화인민공화국대표단, 웰남민주공화국 정부대표단, 남부웰남공화대표단, 라오스애국전선대표단 등 여러 형제나라 대표단들이 왔습니다.

특히 조중 두 나라 사이에는 높은 급의 대표단이 교환되였으며 우리 나라의 수도 평양과 청진, 사리원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와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 베이징과 상해, 심양 등 여러 도시들에서는 수십만의 군중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한 군중대회들이 진행되였습니다.

이 성대한 군중대회들에서는 미제의 흉악한 침략책동을 견결히 단죄하는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의 우렁찬 목소리들이 울려퍼졌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조선인민의 반미투쟁을 지지하는 행사들이 진행되였습니다.

이번 반미공동투쟁월간행사들은 피로써 맺어진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의 불패의 전투적친선단결을 더욱 강화할뿐만아니라 미제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에서 아세아의 혁명적인민들의 단결을 더욱 굳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미제를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대한 뜨거운 련대성의 표시로서 우리 나라를 방문한데 대하여 지금 여기에 자리를 같이하고있

는 여러 형제나라 대표단들에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캄보쟈의 손님 여러분!

따뜻한 형제적친선의 정과 전투적단결의 놀끓는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당신들의 우리나라 방문은 우리 인민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놓았습니다.

우리는 국가원수친왕의 이번 방문이 모든 분야에 걸쳐 성과적으로 결속되게 된것을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국가원수친왕의 이번 방문으로 조선, 캄보쟈 두 나라 인민들사이에는 새로 친선의 꽃이 활짝 피여올랐으며 그것은 의심할바없이 앞으로 공동의 원쑤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의 위대한 승리로 열매맺게 될것입니다.

나는 형제적캄보쟈인민의 성스러운 반미구국항전에서의 영광스러운 최후승리를 위하여,

조선인민과 캄보쟈인민들사이의 불패의 전투적친선단결을 위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전세계 모든 혁명적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의 건강을 위하여,

존경하는 펜 누트친왕과 그 부인의 건강을 위하여,

존경하는 캄보쟈의 귀한 손님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존경하는 앙 집 코안대사각하와 그 부인의 건강을 위하여,

그리고 여기에 자리를 같이한 존경하는 중화인민공화국대표단 단장의 건강을 위하여,

존경하는 웰남민주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의 건강을 위하여,

존경하는 남부웰남공화대표단 단장의 건강을 위하여,

존경하는 라오스애국전선대표단 단장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 평양을 떠나는 노로돔 시하누크 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을 바래여 역두에서 한 김일성수상의 연설

(1970년 7월 1일)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

존경하는 펜 누트친왕과 부인!

존경하는 캄보쟈의 귀한 손님 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캄보쟈국가원수이며 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이며 우리의 친근한 벗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 수상이며 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장인 펜 누트친왕과 그 부인 그리고 캄보쟈의 귀한 손님일행은 이제 우리나라 방문일정을 성과적으로 끝마치고 평양을 떠나게 됩니다.

캄보쟈인민의 친선의 사절인 당신들과 헤여지는 이 시각에 우리는 조선인민과 캄보쟈인민사이의 전투적 친선과 단결을 남김없이 시위한 그동안의 뜻깊은 나날을 감회깊게 돌이켜보게 됩니다.

캄보쟈인민의 탁월한 령도자이며 저명한 반제투사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그의 불굴의 반제반미투쟁정신과 그가 실시하고있는 옳바른 정책들 그리고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그의 가장 강력하고 적극적인 지지성원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속에서 참으로 커다란 감명을 불러일으켰으며 높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는 가장 높은 단계로 발전하였으며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조선인민과 캄보쟈인민사이의 친선의 력사에 영원히 기록될 빛나는 공적을 남기였습니다.

이 방문은 또한 아세아의 혁명적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국가원수친왕께서 남기고가는 그 두터운 친선의 정과 여러 기회에 하신 연설들과 담화들, 《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하신 훌륭한 고무적인 말씀들을 언제나 잊지 않을것입니다.

존경하는 캄보쟈의 귀한 손님 여러분!

당신들은 이제 우리와 헤여지게 되지만 당신들과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로 고동칠것이며 조선인민과 캄보쟈인민은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한전선에 끝까지 함께 서있을것입니다.

오늘 캄보쟈인민이 맞서 싸우고있는 적은 우리 인민의 철천의 원쑤인 바로 그 미제침략자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은 당신들의 투쟁을 우리 자신의 투쟁과 같이 여기고있으며 전우로서 또한 형제로서 캄보쟈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모든것을 다할 굳은 결의를 가지고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조인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캄보쟈왕국의 공동성명은 국가원수친왕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에서 이룩된 모든 훌륭한 성과들과 함께 서로 지지하고 협력하며 싸워나가려는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확고한 공동 투쟁립장을 뚜렷이 밝혔습니다.

지금 캄보쟈인민이 벌리고있는 투쟁은 자기 조국의 해방과 완전한 독립을 위한 투쟁일뿐만아니라 아세아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아세아를 건설하기 위한 이 지역 인민들의 성스러운 투쟁의 한고리입니다.

자기의 탁월한 령도자를 가지고 전투적인 조직과 정권의 옳바른 령도를 받으며 손에 무장을 잡고 정의의 투쟁에 한사람같이 일떠선 캄보쟈인민은 반드시 승리할것입니다.

어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께서 캄보쟈에 대한 침략전쟁을 더욱 확대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흉악한 기만적책동을 폭로규탄하여 발표하신 성명에서 다시금 힘있게 천명된바와 같이 미제는 발악하면 할수록 더욱 궁지에 빠지고 인민들은 싸우면 싸울수록 더욱 강대해지고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원수친왕의 6월 30일부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끝으로 나는 국가원수친왕의 고귀한 사업에서 앞으로 보다 빛나는 성과가 있을것과 캄보쟈인민의 반미구국투쟁에서 위대한 승리가 있을것을 열렬히 축원하며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실것을 바랍니다.

조선인민과 캄보쟈인민사이의 불패의 전투적친선단결 만세!

영웅적캄보쟈인민 만세!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전세계 인민들의 단결 만세!

#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는 수단민주주의공화국 혁명지도리사회 위원장 겸 수상인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소장을 맞이하여 비행장에서 한

# 김일성수상의 연설

(1970년 8월 13일)

존경하는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위원장각하!

존경하는 수단의 귀한 손님 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수단민주주의공화국 혁명지도리사회 위원장이며 수상인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소장각하와 수단의 귀한 손님 여러분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평양시민들은 수단인민에 대한 뜨거운 형제적친선의 정을 안고 당신들을 환영하는 거리와 광장에로 떨쳐나왔으며 명절날과 같은 분위기에 휩싸여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수단인민이 독립후 특히 지난해의 5월혁명이후 자기의 탁월한 지도자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위원장각하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지도리사회의 령도밑에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새 생활을 성과적으로 건설하며 아랍인민의 정당한 위업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는것을 커다란 관심속에 주시하고있으며 수단인민을 반제공동전선에서의 전우로, 형제로 여기고있습니다.

이번에 위원장각하와 그 일행은 민주주의공화국의 기치밑에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선 수단인민의 약동하는 기상을 안고 공동의 원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우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투적친선과 련대성을 더욱 굳건히 하려는 숭고한 념원을 지니고 우리 나라에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어떠한 도발과 침공도 때려부실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추며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계속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우리 인민에 대한 커다란 고무로 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이번 방문이 조선인민과 수단인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발전에서 새로운 획기적계기로 될것이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단결의 강화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손님 여러분!

조선과 수단은 멀리 떨어져있으나 두 나라 인민은 식민지통치밑에서 겪은 지난날의 생활처지의 공통성과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오늘의 공통된 투쟁으로 하여 전투적친선의 뉴대로 가까이 잇닿아있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우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열렬한 환영과 환대를 받을것이며 형제적수단인민에 대한 우리 인민의 두터운 친선의 정을 몸가까이 느끼게 될것입니다.

나는 손님 여러분이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 동안 즐겁고 유익한 나날을 보내며 이번 방문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게 될것을 충심으로 바랍니다.

조선인민과 수단인민사이의 친선단결 만세!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전세계 인민들의 단결 만세!

#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한 수단민주주의공화국 혁명지도리사회 위원장 겸 수상인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소장을 환영하여 베푼 연회에서 한

# 김일성수상의 연설

(1970년 8월 13일)

존경하는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위원장각하!

존경하는 수단민주주의공화국의 귀한 손님 여러분!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오늘 우리는 우리 나라의 수도 평양에서 수단민주주의공화국 혁명지도리사회 위원장이며 수상인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소장각하를 비롯한 수단의 귀한 손님들과 이처럼 자리를 같이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수단인민의 탁월한 지도자이며 우리의 친근한 벗인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소장각하와 그 일행을 다시한번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번 당신들이 아프리카의 먼곳으로부터 여기 동방의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한것은 조선인민과 수단인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발전에서 새로운 획기적사변으로 되며 나아가서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반제반미공동전선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의의를 가집니다.

오늘 수단은 아프리카대륙에서 반제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나아가고있습니다.

수단인민은 외래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오래동안의 간고한 투쟁을 벌려 민족적독립을 이룩하였으며 특히 수단인민의 력사에서 새 기원을 열어놓은 1969년 5월혁명의 승리와 수단민주주의공화국의 선포후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수단인민은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위원장각하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지도리사회의 령도밑에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와 반동세력들의 계속되는 파괴암해책동을 단호히 물리치면서 짧은 기간에 낡은 사회의 통치기구들을 청산하고 인민적인 제도를 세웠으며 대담하게 여러가지 진보적인 민주주의개혁들을 실시하여 자립적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며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고있습니다.

수단민주주의공화국 정부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견결히 반대하고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나라들과의 협조관계를 적극 발전시키고있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 유태복고주의자들을 짓부시고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과 민족적독립을 수호하고 령토완정을 이룩하기 위한 전체 아랍형제들의 투쟁을 강력히 지원하며 모든 피압박민족들의 해방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형제적수단인민이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위원장각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새로운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며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나아가고있는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당신들의 성과를 열렬히 축하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이미 택한 길우에서 반드시 통일되고 부강한 새로운 수단을 건설하게 될것이며 아프리카의 해방투쟁에 더욱 큰 고무적영향을 미치게 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조선인민은 언제나 수단인민의 편에 튼튼히 서있을것이며 수단민주주의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혁명적인 정책들과 정당한 투쟁을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지지할것입니다.

동지들과 벗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멸망하여가는 저들의 운명을 구원할 출로를 침략과 전쟁에서 찾으려고 발악하면서 아세아의 전반적지역에서 새 전쟁의 위험을 날카롭게 조성하고있으며 아프리카와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평화를 교란하고있습니다.

아세아에서 미제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을 침략의 《돌격대》로 내세우고 괴뢰들과 추종국가들을 긁어모아 아세아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며 중근동에서는 이스라엘을 침략의 전초기지로 삼고 아랍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며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는 방법으로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이루어보려고 더욱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이미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한 저들의 처지를 돌려세울수 없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발악하면 할수록 그것은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의 단결을 도리여 더욱 강화하게 하며 인민들의 반항을 더 크게 불러일으킬뿐입니다.

어제날 식민지대륙으로서 제국주의의 후방이였던 아세아, 아프리카는 제국주의를 매장하는 거세찬 혁명적폭풍이 휘몰아치는 지대로 전변되였으며 여기에서 제국주의의 마지막생명선이 끊어져가고있습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날로 로골화되는 범죄적침략책동에 대처하여 아세아의 동쪽으로부터 중근동과 아프리카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걸쳐 반미공동전선이 굳게 다져지고 이르는곳마다에서 혁명적인민들이 달라붙어 미제에 타격을 가할 때 제국주의의 종국적멸망의 날은 더욱 빨리 도래할것입니다.

조선인민은 미제와 그 앞잡이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빼앗긴 조국땅을 되찾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성스러운 해방투쟁과 민족적존엄을 지키고 령토완정을 이룩하기 위한 전체 아랍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는 미영제국주의자들이 공모결탁하여 아프리카의 소수 백인인종주의도당에게 살인무기를 더욱 많이 대줌으로써 아프리카인민들에 대한 탄압과 학살만행을 강화하려는것을 신랄히 규탄하며 식민지적억압과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자유와 해방을 위한 앙골라, 모잠비크, 기네(비싸우), 남아프리카, 나미비아, 짐바브웨 인민을 비롯한 모든 아프리카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에 굳은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우리는 아세아를 침략하기 위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범죄적공모결탁을 단호히 규탄하며 윁남, 라오스, 캄보쟈 등 인도지나 3개국 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과 대만해방을 위한 중국인민의 투쟁, 미제의 전쟁정책과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을 반대하는 일본인민의 투쟁, 그리고 아세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오늘 조선은 세계제국주의의 원흉과 직접 맞서있는 반제반미투쟁의 가장 치렬한 전선의 하나로 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며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어떠한 침공도 물리칠수 있도록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고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그 괴뢰도당의 군사파쑈통치를 청산하고 자유와 해방과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날로 더욱 억세게 벌리고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철거시키고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

투함으로써 자기에게 맡겨진 민족적 및 국제적 임무를 다할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수단민주주의공화국 정부와 수단인민이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주고있는데 대하여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위원장각하와 수단인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수단의 손님 여러분!

조선인민과 수단인민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나라의 통일과 새 생활 창조를 위한 공통된 투쟁을 통하여 두터운 친선협조관계를 맺었습니다.

수단민주주의공화국이 수립되고 우리 두 나라 사이에 외교관계가 맺어진 다음 우리의 친선관계는 모든 분야에 걸쳐 만족스럽게 강화발전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특히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이 호상 래왕하며 경험을 나누고 서로 배우며 유무상통하는것은 반제공동위업을 촉진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인정합니다.

나는 앞으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우리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 사이의 전투적친선단결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할것이라는것을 확언하면서 수단민주주의공화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반제반미공동전선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존경하는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위원장각하의 건강을 위하여,

존경하는 수단의 귀한 손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 김일성수상을 위하여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 위원장이 차린 연회에서 한

# 김일성수상의 연설

(1970년 8월 16일)

존경하는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위원장각하!

존경하는 수단의 귀한 손님 여러분!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수단민주주의공화국 혁명지도리사회 위원장 겸 수상이며 우리의 친근한 벗인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소장각하의 우리 나라 방문은 끝나가고있습니다.

나는 오늘저녁 위원장각하께서 우리를 친절히 초대하여주었으며 또한 우리에게 그처럼 훌륭한 말씀을 하여준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선과 수단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불패의 친선단결을 시위하는 획기적사변으로 되였습니다.

위원장각하께서는 반제공동전선을 강화하며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

기 위한 불같은 념원을 안고 우리 나라에 왔으며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을 견결히 지지하는 형제적수단인민의 우렁찬 목소리를 전하여주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고 유엔의 기발을 도용하여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야수적인 침략만행과 새 전쟁 도발책동을 가장 신랄히 단죄하였으며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갈것과 조선은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통일되여야 한다는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진실한 전우들과 벗들이 세계 이르는곳마다에 있다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는것으로서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것이며 또한 큰 고무로 됩니다.

우리는 이번 당신들과의 상봉을 통하여 사회주의의 길에서 새 생활을 창조하려는 수단인민의 깊은 지향과 5월혁명승리후에 이루어진 커다란 성과들에 대하여 그리고 원쑤들과 끝까지 싸워이기려는 당신들의 불굴의 투지에 대하여 더잘 알게 되였으며 수단인민의 빛나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수단인민이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위원장각하의 령도밑에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온갖 파괴암해책동을 철저히 진압하며 민족해방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하고있는 성과들을 곧 우리의 승리로 된다고 인정하며 수단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서로 지지하는 관계에 있으며 미제를 반대하는 한전선에서의 승리는 다른 전선에서의 승리를 그만큼 촉진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위원장각하와의 회담에서 공동의 원쑤 미제를 반대하여 더욱 견결히 싸울데 대하여서와 이 투쟁에서 호상 지지와 협조를 백방으로 강화하며 싸우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적극 지원할데 대하여 그리고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조선과 수단사이의 이 전투적친선의 불패의 뉴대는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반제반미공동전선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또하나의 커다란 전진으로 됩니다.

어제날 식민지통치의 암흑속에 놓여있던 조선과 수단이 오늘 다같이 당당한 자주독립국가로서 서로 굳게 손을 잡고 반제전선에 확고히 서있는것은 우리 시대 발전의 막을수 없는 추세인 식민지체계의 전면적붕괴와 제국주의의 불가피적인 멸망과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존경하는 수단의 손님 여러분!

우리는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위원장각하와 그 일행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이 가져온 훌륭한 결과에 대하여 매우 만족스럽게 여기며 아프리카대륙에 수단인민과 같은 친근한 전우를 가지고있는것을 커다란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생독립국가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가능한 모든것을 다하여 서로 배우고 지지협조하는것을 일관한 원칙으로 삼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침략과 파괴 책동을 반대하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며 자립적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입니다.

이제 조선과 수단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개화발전의 높은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조국에 돌아가면 수단인민에게 보내는 우리 인민의 열렬한 형제적친

선의 정과 반제공동전선에서 언제나 수단인민과 함께 싸워나아가려는 우리 인민의 확고한 결의를 전하여주기 바랍니다.

나는 끝으로 수단인민이 5월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키며 통일되고 번영하는 수단을 건설하는 사업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것을 축원하면서 조선인민과 수단인민사이의 전투적친선단결을 위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존경하는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위원장각하의 건강을 위하여,

존경하는 수단의 귀한 손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 결정서

1970년 11월 12일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사업총화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는 당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청취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총결기간 당의 활동은 제4차대회와 1966년에 진행된 대표자회가 내놓은 로선에 기초하여 진행되였다.

대회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작성하시고 제시하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정치로선과 조직로선의 정당성을 일치하게 확인한다. 대회는 총결기간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로골화되고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복잡한 정세가 조성됨으로써 우리 혁명의 앞길에 수많은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인 준엄한 정세하에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가 내놓은 모든 방침들과 그 관철을 위한 당중앙위원회의 실천활동에 대하여 전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한다.

대회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제시하신 결론들과 과업들에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동의하며 그것이 앞으로 우리 당의 모든 활동에서 강령적지침으로 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 1

대회는 총결기간에 우리 당이 전체 인민을 령도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위대한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문화혁명과 사상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는것을 만족스럽게 지적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결기간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된 가장 위대한 성과는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여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된것입니다.》**

사회주의공업국가에로의 전변은 우리 당이 이미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공업화의 전기간에 걸쳐 견지하고 그 관철에로 인민대중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함으로써 이룩된 빛나는 승리이다.

당의 올바른 공업화로선에 따라 7개년계획기간에 공업은 매우 빨리 발전하여 그 면모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1957～1970년에 이르는 공업화의 전기간에 걸쳐 공업생산은 해마다 평균 19.1%의 높은 속도로 장성하였다.

특히 중공업이 매우 빨리 발전하였다. 인민경제의 발전과 기술적진보의 기초인 자체의 튼튼한 기계제작공업이 창설되였으며 공업의 빠른 발전과 전면적기술혁명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동력기지가 더욱 강화되였다. 흑색야금공업은 생산공정이 완비되고 여러가지 강재와 금속자재에 대한 인민경제의 날로 늘어나는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킬수 있는 강력한 공업부문으로 발전하였으며 화학공업의 면모도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석탄공업과 광업, 건재공업을 비롯한 다른 중공업부문들도 빨리 발전하였다.

강력한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우리의 중공업은 나라의 정치경제적자립성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고있으며 인민경제를 더욱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튼튼한 물질적토대로서 경공업과 농촌경리의 발전 그리고 국방력강화에서 큰 힘을 나타내고 있다.

경공업발전에서도 획기적인 전진이 이루어졌다. 경공업발전을 위한 당의 올바른 로선과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는 방직공업과 식료가공공업, 일용품공업을 비롯하여 모든 경공업부문들이 다 갖추어졌으며 소비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를 완전히 자체의 생산으로 충족시킬수 있는 현대적경공업기지가 창설되였다.

공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그 규모가 커지는데 따라 사회총생산물과 국민소득에서 공업은 더욱더 결정적역할을 놀게 되였다. 공업과 농업 총생산액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6년에 34%이던것이 1969년에는 74%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에 공업과 농업 부문에서 창조된 국민소득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로부터 65%로 높아졌다. 중요공업제품의 인구 한사람당 생산량에서 우리 나라는 발전된 공업국가들의 수준에 이르렀으며 부분적으로는 따라 앞서게 되였다.

총결기간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전면적기술혁명의 과업도 성과적으로 실현되였다. 기계제작공업을 비롯한 중공업이 발전되는데 따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장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였으며 인민경제의 전기화와 자동화가 널리 실현되였다.

중공업의 강력한 지원밑에 농촌경리의 기술개건이 성과적으로 실현되였다.

당은 제4차대회의 방침과 특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밝혀놓은 길을 따라 농촌경리의 기술적개조에 커다란 힘을 돌림으로써 이 분야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당은 먼저 농촌수리화에 큰 힘을 넣음으로써 어떤 가물이 드나 장마가 져도 언제나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는 완전한 수리화체계를 마련하여 놓았다. 수리화와 함께 농촌경리의 기계화가 힘있게 추진되고 농촌전기화의 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농촌경리의 화학화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루어졌다.

농촌기술혁명이 성과적으로 진척되는데 따라 농업생산의 모든 부문이 빨리 발전하였다. 알곡생산이 늘어나 식량문제가 완전히 풀렸으며 농촌경리의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알곡생산토대가 마련되였다. 축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닦아지고 닭고기와 닭알을 비롯한 축산물생산이 빨리 늘어났다.

철도전기화를 실현한것은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사업에서 이룩된 중요한 성과의 하나이다. 7개년계획기간에 철도전기화공사가 힘있게 추진되여 우리 나라 주요간선들에서의 철도전기화가 기본적으로 끝났다.

이 모든것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우리 나라가 현대적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당은 현대적공업건설에서 나서는 수많은 난관들과 어렵고 복잡한 모든 문제들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우리 인민을 옳게 령도하였다. 그리하여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옹근 한세기 지어는 몇세기에 걸쳐서야 할수 있었던 공업화의 어려운 과업을 14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빛나게 실현하였다.

총결기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은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갔으며 이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이 실시됨으로써 일반교육과 기초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결합하여 후대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형의 인간으로 키워내는 가장 선진적인 교육제도가 창설되였다.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가 더욱 강화되였으며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고등교육체계가 더욱 발전하였다.

당의 옳바른 교육정책에 의하여 모든 지방에 종합적인 간부양성기지가 튼튼히 꾸려짐으로써 지방들에서 간부에 대한 수요를 기본적으로 자체로 충족시킬수 있게 되였다. 지방에 널리 분포되여있는 대학과 고등기술학교들은 문화혁명의 거점으로서 지방들에 현대적기술문명을 보급하며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기술인재양성사업과 함께 근로자들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성인교육사업이 강화되고 방송선전사업과 출판물보급사업이 더욱 개선되였다.

총결기간 과학의 발전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문학과 예술도 찬란히 꽃피고있다. 문학예술분야에서 나타났던 수정주의적요소와 복고주의적경향이 없어지고 당의 혁명적문예정책이 훌륭히 관철되였다.

우리 당은 총결기간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하며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며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하는데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한 방침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켜 적대분자들에 대한 독재를 강화하면서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는것이였습니다.》**

당은 언제나 적대분자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진압하는것을 혁명대오를 강화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성과를 보장하는 필수적조건으로 인정하였으며 계급투쟁을 약화시키려는 우경투항주의적사조를 제때에 짓부시고 계급투쟁의 무기로서의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계속 강화하였다. 당의 지도밑에 반혁명분자들과의 투쟁이 전당적, 전인민적운동으로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계급적원쑤들의 온갖 음모책동은 제때에 분쇄되고 혁명의 전취물은 튼튼히 수호되였으며 이 과정에서 극소수의 적대분자들이 철저히 고립되고 우리 혁명의 계급적진지는 더욱 굳건히 다져졌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며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다음 프로레타리아독재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당은 총결기간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며 로동계급을 본보기로 하여 농민과 인테리를 교양개조하는 원칙에 튼튼히 서서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당은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과 우리 나라 로동계급이 가지고있는 일련의 특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로동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의 계급적자각성을 더욱 높이고 생산투쟁속에서 그들을 꾸준히 단련하도록 하였으며 로동계급의 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로동계급속에서 혁명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 로동계급의 선봉적

역할과 령도적역할이 더욱 강화되였다.

우리 혁명의 기본부대의 하나인 농민을 로동계급화, 혁명화하는것은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이다. 당은 농민들의 머리속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소소유자적근성과 리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을 뿌리뽑기 위한 사상투쟁을 강화하는 한편 그들속에서 조직생활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적공동로동을 통하여 그들을 끊임없이 단련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그들속에서 집단주의정신과 조직성이 더욱 배양되였다.

당은 인테리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돌렸으며 그들을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참다운 로동계급의 인테리로 만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당의 꾸준한 사상교양과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하여 인테리들속에서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이 강화되고 그들속에 남아있던 사대주의, 교조주의적 경향도 성과적으로 극복되였으며 모든 인테리들이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단련되였다.

우리 당은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사상교양을 위주로 하여 해설과 설복의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사람들을 교양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였다.

대회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온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방침의 정당성을 일치하게 확인하며 총결기간 이 방침이 성과적으로 관철됨으로써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이 더욱 공고화되고 우리의 혁명대오가 불패의것으로 강화되였다는것을 만족스럽게 지적한다.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객관적요구와 특히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침략자들과 직접 맞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었다.

총결기간에 당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따라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방침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한 결과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는 튼튼한 자위력을 가질수 있게 되였다.

당의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방침이 훌륭히 관철됨으로써 인민군대는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단련된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되였다.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 방침이 성과적으로 관철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다 총을 메고 있고 총을 쏠줄 알며 온 나라의 모든 지역에 철옹성같은 방위시설이 쌓아졌으며 중요한 생산시설들까지도 다 요새화되였다.

이와 함께 튼튼한 자립적국방공업기지가 창설되여 조국보위에 필요한 여러가지 현대적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을 자체로 만들수 있게 되였다.

총결기간 당의 령도밑에 전체 인민이 간고분투하여 마련하여놓은 위력한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와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미제침략자들과의 대결에서 가장 단호한 립장과 태도를 취할수 있게 하였으며 원쑤들의 끊임없는 침략책동을 걸음마다 여지없이 짓부셔버릴수 있게 하였다.

대회는 총결기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대표자회에서 내놓으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이 우리 나라 정세발전의 요구와 우리 혁명의 근본리익에 전적으로 맞는 정당하고 현명한 로선이라는것을 일치하게 인정하며 이 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당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전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한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고 나라의 전면적기술개건사업이 촉진된 새 환경은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문제를 새롭게 해결할것을 요구하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사회주의적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확립하는것은 우리 당앞에 나선 가장 절박한 과업의 하나였다. 이 과업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경험을 일반화하고 맑스-레닌주의원리를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당의 군중로선을 경제관리에 구현한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 그리고 계획의 일원화체계와 세부계획화방침을 내놓으심으로써 훌륭히 해결되였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공장, 기업소들이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모든 경영활동을 진행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생산자대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경제과업을 수행하며 우가 아래를 책임적으로 도와주며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훌륭한 경제관리체계입니다.》**

지배인유일관리제가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체계로 바뀌어진 결과 기업관리에서 개인의 주관과 독단이 없어지고 집체적지혜를 동원하여 경리를 훌륭히 운영할수 있게 되였으며 광범한 대중이 생산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창발성과 적극성을 낼수 있게 되였다.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정연한 지도체계와 생산보장체계가 섬으로써 경제지도에서 관료주의적방법이 점차 밀려 나가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생산지도체계는 생산지도와 기술지도를 밀접히 결부시켰으며 특히 생산에 대한 기술지도를 더욱 강화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경제관리에서 자본주의적방법을 종국적으로 없애고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원칙을 훌륭히 구현한 새로운 기업관리형태이다.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현명한 방침에 따라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내옴으로써 농촌경리도 공업과 마찬가지로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할수 있게 하였다.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확립은 농업생산발전에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게 하였으며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로 접근시키는 과정을 힘있게 촉진시켰다.

계획의 일원화체계와 세부계획화방법은 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적규률을 더욱 강화하며 경제를 보다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계획의 일원화체계는 계획화사업에서 당의 의도와 국가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 동원적이고 적극적인 계획을 세울수 있게 하며 이와 함께 계획기관들의 주관주의와 관료주의를 없애고 계획의 객관성과 현실성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한다.

세부계획화방법은 나라의 전반적경제발전과 개별적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을 밀접히 련결시키며 계획지표를 구체화하여 세부에 이르기까지 맞물리도록 함으로써 경제발전에서 불균형성과 자연생장성의 요소를 완전히 없애고 경제의 빠른 발전을 보장할수 있게 한다.

대회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조되였으며 우리 나라에 전면적으로 확립된 새로운 경제관리체계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완전히 맞으며 사회주의경제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나라의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적경제관리체계라는것을 높은 긍지를 가지고 지적한다.

## 2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혁명과 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야 할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두 요새인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먼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는 기술적진보를 이룩하며 나라의 생산력을 더욱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 6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입니다.》**

새로운 전망계획기간에 공업부문들에서는 부문내부구조를 완비하며 우리 공업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연료에 기초한 제철공업을 적극 발전시켜 흑색야금공업의 자립성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6개년계획기간에 립철과 조강 생산을 늘이고 해면철과 환원구단광 생산을 빨리 공업화하도록 할것이다. 이와 함께 강종을 늘이고 강질을 높이며 압연강재의 품종과 규격을 훨씬 늘이고 2차금속가공제품생산을 빨리 발전시키도록 할것이다.

우리 나라의 풍부한 유색금속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할수 있도록 유색야금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며 특히 알루미니움을 비롯한 경금속생산기지를 꾸리도록 할것이다.

이미 마련된 화학공업의 토대에 기초하여 무기화학공업과 유기화학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며 새로운 화학공업부문들을 창설하여 우리 나라의 화학공업을 더욱 다방면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화학비료와 살초제, 살충제 생산을 늘이며 화학섬유생산기지와 합성수지생산기지를 확대하고 대규모의 석유화학공업기지를 창설할것이다. 합성고무생산기지를 빨리 꾸리도록 하며 경공업에 요구되는 여러가지 화학자재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할것이다.

기술혁명을 새로운 단계에로 전진시키며 나라의 생산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기계공업의 발전에 계속 큰힘을 넣어야 한다. 6개년계획기간에 대형기계생산기지들을 확대강화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요구되는 대형기계와 대형설비들을 많이 만들도록 할것이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또한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 기지를 더욱 강화하며 인민소비품생산에 필요한 여러가지 단능설비들을 많이 생산하도록 할것이다. 기계공업부문앞에 나서는 방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작기계생산량을 빨리 늘이며 특히 특수공작기계들과 자동 및 반자동 공작기계, 대형공작기계, 능률적인 단능공작기계들을 많이 생산하도록 할것이다.

우리 나라에 많이 매장되여있는 자연부원을 적극 개발하며 마그네샤크링카와 세멘트 생산량을 훨씬 늘일것이다.

경공업부문에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은 일용품공업을 빨리 추켜세우는것이다. 일용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그 질을 훨씬 높임으로써 가까운 몇해안에 일용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경리부문의 중심과업은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는것이다. 새로운 전망계획기간에 2모작면적을 적극 늘이며 특히 30만정보의 밭에 분수식관수를 비롯한 관개체계를 실시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것이다.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더욱 다그쳐 6개년계획기간에 경지면적 1정보당 화학비료

시비량을 1톤이상에 이르게 하며 화학비료의 질적구성을 개선하고 과학적인 시비체계를 세우며 살충제를 비롯한 농약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공급할것이다. 농작물의 정당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생물학적연구사업을 강화하며 그 성과를 생산에 널리 적용할것이다. 농업생산을 집약화하는것과 함께 새 땅을 더 얻어내기 위한 간석지개간사업을 널리 진행할것이다.

공업과 농업 생산을 빨리 늘이는것과 함께 생산된 공업제품들과 과일, 남새, 고기를 비롯한 농산물과 축산물의 저장과 가공 그리고 상품포장을 결정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그 랑비를 없애도록 할것이다.

수송의 긴장성을 푸는것은 현시기 나라의 전반적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나서는 매우 절실한 문제이다. 이천—세포사이 철도건설을 빨리 다그치며 만포—혜산—무산사이의 새 철도 건설을 적극 밀고나감으로써 나라의 동서부를 련결하는 철도의 긴장성을 빨리 풀도록 할것이다. 철도의 전기화를 계속 다그치며 전기화하지 않을 구간은 내연화하며 렬차의 견인중량과 운행속도를 높여 철도의 수송능력을 더욱 높이도록 할것이다. 늘어나는 무역화물수송을 원만히 보장하며 철도의 긴장성을 덜기 위하여 수상운수와 자동차운수를 더욱 발전시킬것이다.

기술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는 것은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당면한 로력의 긴장성을 풀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도록 할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가까운 몇해동안에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3대기술혁명과업이다.

무엇보다먼저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줄이고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을 없애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반자동화, 자동화를 널리 실시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이 그 어느 부문보다도 많은 채취공업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 기계화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며 점차 반자동화, 자동화에로 넘어가도록 할것이다. 림업부문과 건설부문에서 기계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철도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 짐을 싣고 부리는 일의 기계화를 빨리 다그칠것이다. 수산부문에서 물고기잡이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도록 하며 특히 수산물가공작업을 결정적으로 기계화하도록 할것이다.

흑색야금공업, 화학공업, 세멘트공업을 비롯하여 고열작업이 진행되는 부문들에서 생산공정을 자동화하며 점차 원격조종에로 넘어가도록 하며 화학공업, 건재공업을 비롯한 일련의 공업부문들에서 기술적개조를 다그쳐 하루빨리 유해로동을 없애도록 할것이다.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치는것은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 있는 매우 절박한 과업이다. 6개년계획기간에 농촌경리의 기계화와 화학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여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농촌로력을 많이 절약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 있는 농기계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한편 새로운 농기계들을 더 많이 창안제작하며 토지정리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릴것이다. 전망계획기간에 먼저 관수체계가 실시되는 2모작밭들과 벼직파를 하는 논들에서 종합적기계화를 실시하며 가까운 앞날에 전반적인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도록 할것이다. 이와 함께 효능이 높은 여러가지 살초제를 널리 리용하여 김매는 일을 화학적방법으로 하도록 할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농촌에서도 공장, 기업소들에서와 같이 점차 8시간로동제를 실시하며 로동조건에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훨씬 줄이도록 할것이다.

녀성들을 부엌과 가정일의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식료가공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는것이다. 여러가지 부식물가공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며 주식물가공도 널리 조직하여 모든 식료품을 공업적방법으로 가공하여 공급하도록 할것이다. 이와 함께 여러가지 부엌세간들을 많이 생산하여 공급함으로써 녀성들이 부엌일과 가정일을 짧은 시간에 헐하게 할수 있도록 할것이다.

문화혁명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요구할뿐아니라 근로자들의 높은 문화수준을 요구합니다. 기술혁명과 함께 문화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만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길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질적 요구를 충족시킬수 있습니다.》**

현시기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이다. 우리는 문화혁명의 기본화살을 무엇보다먼저 제국주의자들의 문화적침투를 반대하는데 돌림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온갖 썩어빠진 부르죠아문화와 생활양식이 우리 내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며 문화건설분야에서 조그마한 부르죠아적요소도 나타나지 않도록 할것이다.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또한 복고주의적경향을 철저히 반대하여야 한다. 민족문화유산을 계승한다고 하면서 지난날의 낡고 반동적인것을 기계적으로 본따거나 미화분식하는 경향과 강하게 투쟁하며 민족문화유산가운데서 뒤떨어지고 반동적인것은 버리고 진보적

이며 인민적인것은 오늘의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키도록 할것이다.

교육부문에서는 기술자, 전문가의 대부대, 인테리대군을 키우는데 힘을 집중할것이다. 그리하여 새 전망계획기간에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의 로력구성에서 기사, 기수 및 전문가들이 10% 이상에 이르도록 하며 가까운 앞날에 기술자, 전문가의 대오를 100만명이상으로 늘일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미 있는 대학과 고등기술학교들의 사업을 개선강화하고 그 양성규모를 늘이며 여러가지 형태의 고등교육기관들을 새로 더 내오도록 할것이다.

근로자들의 일반지식과 기술지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한다. 9년제기술의무교육의 질을 높이고 성인교육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출판물보급사업과 방송선전사업을 개선강화하며 특히 텔레비죤방송망을 더욱 늘여 가까운 년간에 온 나라의 텔레비죤화를 실현하도록 할것이다.

학령전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기르도록 하는것은 문화혁명과 사회주의사회건설의 중요한 과업이다. 탁아소, 유치원들의 수용능력을 더 늘이며 현대적설비를 갖춘 탁아소, 유치원들을 더 많이 건설하여 우리 나라의 모든 학령전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기르도록 할것이다.

우리앞에 나선 사회주의건설의 방대한 과업 특히 새로운 기술혁명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과학연구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자연과학부문에서는 사회주의공업화의 성과를 공고히 하며 기술혁명을 더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들을 적극 개척하여나가도록 할것이다. 사회과학부문에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풍부한 경험들을 리론적으로 일반화하며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더 깊이있게 론증하도록 할것이다.

문학예술부문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세계관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혁명적인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는데 있다. 작가, 예술인들은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과 투쟁력사 그리고 공화국북반부의 장엄한 현실과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잘 형상하도록 할것이다. 문학예술창작에서 사회주의사실주의창작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며 문학예술을 전군중적으로 널리 발전시키도록 할것이다.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조선어를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강요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민족어말살정책을 전민족적운동으로 철저히 짓부셔버리며 고유한 우리 말을 살려쓰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다.

체육을 대중화하고 국방체육을 널리 발전시키며 체육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체육과학과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도록 할것이다.

대회는 사상혁명수행에서 이미 얻은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앞으로도 사상혁명을 모든 사업에 철저히 앞세우며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온 사회를 로동계급화, 혁명화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먼저 근로자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적관점으로 무장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계급적원쑤를 미워하며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비롯한 온갖 반동들과 착취제도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할것이다. 근로자들속에서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며 언제 어디서나 사회와 인민의 리익,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치는 높은 혁명정신과 공산주의적생활기풍을 기르기 위한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에 대하여 참다운 공산주의적태도를 가지도록 그들을 꾸준히 교양할것이다.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우리 혁명의 전취물인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과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가 있는 사회주의조국을 끝없이 사랑하며 그 륭성발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도록 할것이다.

공산주의교양은 반드시 혁명전통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깊이있게 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력사적뿌리를 똑똑히 알게 하며 그들을 혁명선렬들의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백절불굴의 투지와 혁명적락관주의 그리고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투쟁경험과 공산주의적 사업방법과 작풍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리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발전시킨것으로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한 가장 옳바른 전략과 전술이며 우리의 모든 활동의 지침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정책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이 모두다 당의 유일사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그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당정책을 끝까지 옹호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할것이다.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은 혁명적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될 때에만 높은 성과를 나타낼수 있다. 근로자들속에서 여러가지 형태의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그들이

혁명투쟁과 사회주의건설의 실천투쟁을 통하여 혁명적사상과 의지를 단련하도록 하는 사업을 강화할것이다. 특히 생산실천과 떨어져있는 인테리들이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지식을 공고히 하면서 로동계급의 전투성과 조직성,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을 배우도록 할것이다.

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교양의 학교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조직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모든 사람들이 다 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며 언제나 조직의 지도와 통제 밑에서 생활하도록 할것이다. 조직생활에서 혁명적비판을 통한 사상투쟁을 강화하는것이 특히 중요하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비판에 대한 원칙적태도를 가지도록 하며 그들이 언제나 혁명적비판의 분위기속에서 생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온갖 그릇된 현상들을 사상투쟁의 방법으로 제때에 극복하며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교양개조되고 혁명화되여나가도록 할것이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철저히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는것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국가사업과 경제관리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잔재들을 철저히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관리방법과 규정들을 완성하며 그것을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는 한편 사람들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사회주의적공동생활질서를 정연하게 세우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맞는 문화도덕생활의 규범들을 끊임없이 창조하여나가도록 할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방침을 받들고 자신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며 가정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특히 지도일군들이 자신과 가정을 혁명화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가정과 인민반, 작업반과 직장을 비롯한 모든 생활단위들에서 혁명화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점차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은 사회주의 경제, 문화 건설을 다그치는 한편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침략책동과 새 전쟁 도발음모는 더욱더 로골화되고있으며 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이 또한 날로 강화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전쟁의 위험은 날을 따라 더욱더 커가고있다.

대회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 방침을 계속 견지하며 자위의 원칙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이 이미 내놓은 전체 인민의 무장화와 전국의 요새화,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 방침을 계속 견지하며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국방력을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전민무장화를 더욱 전면적으로 실현하는것이다. 전체 인민이 무장하고 군사를 성실히 배우며 군사훈련에 더욱 정력적으로 참가함으로써 적이 일단 덤벼들 때에는 이르는곳마다에서 침략자들을 소멸할수 있도록 언제나 튼튼히 준비되여있어야 한다.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전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완성시키며 그에 기초하여 군사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며 인민군대의 무기와 군사기술기재들을 끊임없이 완성하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군군인들의 전투훈련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전법에 정통하며 우리의 군사 과학과 기술을 충분히 소유하는 방향에서 진행하도록 할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절대로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히지 말고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며 전체 인민이 한사람같이 달라붙어 전쟁준비를 더욱 다그치도록 할것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여 필요한 물자의 예비를 넉넉히 마련하며 전시에도 생산을 계속할수 있도록 경제를 개편하는 한편 군수공업을 더욱 발전시킬것이다.

인민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키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이다. 당은 전쟁준비와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는 물질적준비를 선차적으로 하면서 근로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살수 있게 하며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다같이 고르롭게 높이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 분야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빨리 없애는것이다.

농민들의 생활을 빨리 추켜세우기 위하여서는 군을 잘 꾸리고 그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먼저 군에 랭동공장과 가공공장들을 잘 꾸며 농민들이 생산하는 고기, 과일, 남새를 비롯한 축산물과 농산물을 제때에 수매하여 가공하는 한편 군의 공급기지를 잘 꾸리고 농촌상점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가공된 식료품과 여러가지 공업제품을 농촌에 원만히 공급하도록 할것이다.

가까운 몇해동안에 군과 리를 련결하는 길들을 잘 닦고 아직 뻐스가 들어가지 못한 모든 농촌리들에 뻐스가 다 들어가도록 하며 군소재지와 모든 농촌부락들에 다 수도를 놓도록 할것이다.

농민의 생활수준을 높이며 농촌주민들의 문화생

활조건을 개선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높이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의 살림집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하여 해마다 도시에서 10만세대, 농촌에서 15만~20만세대씩의 살림집을 짓기 위한 전군중적운동을 벌릴것이다. 근로자들이 더 편리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평양시중앙난방공사를 빨리 끝내며 그밖의 중요도시들에도 중앙난방을 실시하도록 할것이다. 이와 함께 가까운 몇해안에 로동자, 사무원들의 로임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한편 소비품의 값을 대폭 낮추도록 할것이다.

병원들을 증설하고 의료일군수를 늘이며 의약품과 의료기구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치료예방사업을 더욱 개선할것이다.

대회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령도밑에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온갖 정력과 지혜를 다 바쳐 투쟁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당이 내놓은 전투적과업들을 반드시 빛나게 수행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 3

대회는 총결기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기치밑에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는것을 일치하게 지적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혁명은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인 동시에 미제의 앞잡이들인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과 그들의 파쑈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입니다.》**

남조선혁명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은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이다. 남조선의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은 미제의 침략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그의 앞잡이다.

남조선혁명의 동력은 로동계급과 그의 믿음직한 동맹자인 농민을 비롯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진보적인 청년학생, 지식인, 애국적군인, 일부 애국적민족자본가들과 소자산계급이다.

남조선인민들은 해방직후부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혁명투쟁을 계속 꾸준히 벌려왔다. 특히 남조선인민들은 전후에 와서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에 고무되여 더욱 힘차게 싸웠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이러한 투쟁과정에 피도 많이 흘렸고 가슴아픈 실패도 여러번 겪었으며 귀중한 경험과 교훈도 많이 얻었다.

남조선혁명가들은 자기의 체험을 통하여 혁명력량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우며 투쟁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당을 내올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결과 1955년 12월에 남조선혁명가들의 합법적정당으로서 진보당이 나오게 되였다.

반제, 반파쑈, 평화통일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진보당의 강령과 활동은 광범한 남조선인민들속에서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그 평화통일강령은 남조선사회에서 커다란 지지를 받았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진보당의 영향력이 강화되자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이 당에 대한 류혈적인 탄압책동을 벌렸으며 1958년 1월에는 당을 강제로 해산시켰다.

진보당이 해산된 다음에도 인민들의 혁명투쟁은 그치지 않고 계속 줄기차게 벌어졌다.

1960년 4월에 일어난 대중적인민봉기를 계기로 남조선 애국자들과 인민대중의 혁명적진출은 더욱 강화되고 진보적인 정치세력이 대두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대중당이 나왔다.

사회대중당은 민족자주로선에 기초한 민주주의적통일국가의 창건을 당면과업으로 내세우고 인민들의 대중적진출을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구국투쟁에로 조직동원하였다. 사회대중당의 지도밑에 남조선전지역에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났으며 특히 청년학생들의 혁명투쟁이 더욱 강화되였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혁명적진출이 강화되자 이번에는 반혁명적인《군사정변》을 조작하고 로골적인 군사파쑈통치를 실시하는길에 들어섰다. 원수들의 야수적인 탄압책동으로 말미암아 사회대중당은 파괴당하고 남조선의 혁명력량은 커다란 손실을 입었다.

남조선에서 혁명운동발전의 이러한 력사적경험은 평화적방법으로는 정권을 전취할수 없으며 또한 순수 대중투쟁만으로는 혁명에서 승리할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남조선혁명가들은 남조선혁명운동의 본질적약점을 극복하고 혁명을 성과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관건적고리를 로동계급의 맑스-레닌주의당창건에서 찾았으며 온갖 간난신고를 무릅쓰면서 당건설을 위하여 투쟁하였다. 통일적 맑스-레닌주의당, 로동계급의 당으로서의 통일혁명당의 출현으로 남조선인민들은 자기의 계급적 및 민족적 리익의 참다운 옹호자를 가지게 되였으며 혁명투쟁에서 믿음직한 정치적참모부를 가지게 되였다.

통일혁명당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지도리념으로 삼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최고목표로 내세우고있으며 당면하게는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적통치를 반대하는 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며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통일혁명당조직들은 조직초기부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대중투쟁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에서 지도적역할을 수행하고있다.

오늘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통일혁명당의 지도밑에 지하와 산속에서, 감옥과 고수대에서 영웅적인 반미구국투쟁을 벌리고있다.

대회는 통일혁명당의 맑스-레닌주의적 선언과 강령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며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 인민들의 영웅적반미구국투쟁에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에서 반혁명을 때려부시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혁명력량을 계속 강화하여야 합니다. 혁명력량을 충분히 마련하여야 원쑤들의 반혁명적공세를 제때에 물리칠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할수 있습니다.》**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것은 혁명력량을 강화하는데서 첫째가는 과업이다. 남조선혁명가들은 맑스-레닌주의당을 더욱 강화하며 그 주위에 로동자, 농민을 튼튼히 묶어세우고 당의 대중적지반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여야 한다.

남조선의 혁명조직들은 반제반파쑈민주화의 기치밑에 모든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군중과 개별적인사들을 망라하는 반미구국통일전선을 이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혁명력량은 투쟁을 통하여서만 끊임없이 장성강화될수 있다.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판단하고 혁명발전의 요구와 군중의 의식수준에 맞게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합법 및 반합법 투쟁과 비합법투쟁, 큰 규모의 투쟁과 작은 규모의 투쟁과 같은 여러가지 투쟁형태와 투쟁방법을 옳게 결합하여 혁명운동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한다. 현단계에서 당면하게는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적폭압을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투쟁을 적극 발전시켜야 하며 생존의 권리를 위한 근로대중의 경제투쟁을 이와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정치적자유를 위한 청년학생들의 민주주의운동을 로동자, 농민들의 정치투쟁과 밀접히 련결시켜야 한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반혁명적폭력을 혁명적폭력으로 짓부시며 폭력에는 언제나 폭력으로 맞설수 있도록 강력한 혁명력량을 준비함으로써 남조선의 현 반동정권을 뒤집어엎고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세워야 한다.

남조선혁명의 주인은 남조선인민이며 남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남조선인민들이 자체의 주체적힘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남반부인민들은 자기의 혁명투쟁에서 외롭지 않다. 남조선인민들의 편에는 공화국북반부의 위력한 혁명기지가 있으며 북반부인민들은 언제든지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다.

또한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이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해방투쟁을 지지 성원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혁명위업은 정당하며 그들은 반드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것이다.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현단계에 있어서 전체 조선인민앞에 나선 최대의 민족적과업이다.

총결기간 당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모든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대회는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당이 견지하여온 원칙적립장과 당의 모든 활동이 정확하였다는것을 확인한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당의 정당한 방침과 합리적인 방안들에 대하여 매번 침략과 도발 책동으로 대답하였다. 미일반동들의 비호밑에 남조선괴뢰들은 남북조선인민들의 일치한 조국통일지향을 총칼로 가로막고 공화국북반부를 무력으로 침공하려는 침략적야망을 더욱더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다. 남조선에 미제와 그 앞잡이인 현괴뢰도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조국의 평화적통일이란 생각조차 할수 없다.

조국통일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그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현군사파쑈독재를 뒤집어엎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여야 한다.

남조선에 참다운 인민정권이 서면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남반부의 애국적민주력량의 련합된 힘에 의하여 우리 조국의 통일은 순조롭게 실현될것이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어떠한 발악적인 책동으로써도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억센 투지를 꺾을수 없다. 대회는 남북조선의 전체 인민대중이 하나로 뭉쳐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미제를 몰아내고 그 앞잡이들을 때려부시며 갈라진 조국을 기어코 통일하고야말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 4

총결기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은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고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대회는 총결기간 당이 실시한 대외정책이 정확하였으며 국제관계분야에서 많은 일을 하여놓았다는것을 만족스럽게 지적한다.

현시기 국제정세발전의 중요특징은 인민들의 반제혁명투쟁이 앙양되고있는 반면에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이 더욱 강화되고있는것이다.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은 날이 갈수록 자기의 침략적 및 략탈적 본성을 더욱더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모든 지역, 모든 나라들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

으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위업에 악랄하게 도전하여 나서고있다.

미제는 현대의 가장 흉악하고 파렴치한 침략자이며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의 첫째가는 공동의 원쑤이다.

오늘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있어서 미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보다 더 절박한 과업은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서는 아세아와 구라파,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큰 나라와 작은 나라 할것없이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반미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더욱 광범히 벌려야 합니다.》**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은 무엇보다도 미제의 윁남침략을 반대하는 반전운동을 전세계적인 범위에서 힘있게 벌리며 모든 반제력량이 인도지나인민들을 비롯한 싸우는 나라 인민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것이다. 이와 함께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국가들과 진보적인민들이 분렬된 나라들에서의 미제의 침략책동을 반대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오늘 아세아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가장 치렬한 투쟁전선으로, 반제혁명투쟁의 기본무대로 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날로 격화되고있는 침략책동으로 말미암아 아세아에서 정세는 극도로 첨예화되고있으며 전반적세계평화는 엄중한 위험에 처하여있다.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국가들과 진보적인민들은 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범죄적인 침략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대회는 미제의 아세아침략을 반대하는데서 특히 아세아의 혁명적나라 인민들의 전투적단결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인정한다. 미제의 직접적인 침략을 당하고있는 아세아의 혁명적나라 인민들이 반미공동전선을 더욱 강화하고 반미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 미제국주의침략자들에게 보다 강력한 집단적반격을 가하여야 할것이다. 그리하여 아세아에서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몰아내며 아세아인들끼리 싸우게 하려는 미제의 흉악한 모략을 철저히 파탄시켜야 한다.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미제와 함께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오늘 일본군국주의는 미제의 적극적인 부추김을 받아 되살아났으며 침략과 전쟁의 새로운 온상으로 되였다. 일본군국주의는 미제를 등에 업고 공공연히 해외침략의 길에 나서고있으며 이른바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여보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다. 특히 최근년간에 아세아를 침략하기 위한 미일간의 반동적결탁이 더욱 강화되였다.

일본군국주의의 해외침략에서 우리 나라는 그 첫번째 공격대상으로 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미 남조선에 기여들기 시작하였으며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모험적인 전쟁계획을 짜놓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작전지역으로 선포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해외팽창의 야망밑에 《평화》와 《원조자》의 탈을 쓰고 세계의 모든곳을 미친듯이 싸다니고 있으며 동남아세아와 중근동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 대한 경제문화적침투를 강화하고있다.

일본반동지배층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환상도 기대도 가질수 없다. 일본군국주의의 재무장과 해외팽창정책은 일본 독점자본의 부활과 그 지배체계의 확립에 기초한것으로서 독점자본주의발전의 필연적산물이다.

모든 평화애호국가들과 진보적인민들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해외침략책동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그것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일본군국주의의 해외침략책동과 침략적인 미일결탁을 저지파탄시켜야 하며 특히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평화》의 가면을 벗겨버리고 국제무대에서 그들을 철저히 고립시켜야 한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그것을 반대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할것이다. 우리는 특히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책동에 적극 협력가담하고있는 일본반동정부의 음모책동을 저지파탄시키며 범죄적인 《한일조약》을 폐기하기 위하여 일본인민을 비롯한 아세아의 모든 반제혁명력량과 굳게 단결하여 끝까지 투쟁할것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와 결탁하여 조선과 아세아나라들을 침략하려고 미쳐날뛰고있으나 이것은 헛된 망상이다.

오늘의 아세아는 어제날의 뒤떨어진 아세아가 아니며 아세아에서 제국주의자들이 주인행세를 하던 시기는 지나갔다. 오늘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였으며 아세아인민들의 혁명적각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 어떠한 제국주의세력도 각성된 아세아인민을 정복할수 없으며 그들의 단결된 힘을 꺾드릴수 없다. 만일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또다시 조선과 아세아나라들을 침략하는 모험의 길에 뛰어든다면 그들은 아세아인민들의 위대한 혁명력량앞에서 종국적으로 멸망할것이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을 타승하기 위하여서는 아세아의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뿐만아니라 세계의 모든 혁명하는 나라, 투쟁하는 나라 인민들이 련대성을 더욱 강화하는것이 필요하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련합된 힘을 무엇보다도 무서워한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혁명적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미제국주의자들

에게 타격을 주며 미제의 각을 떠야 한다. 비록 적은 힘이라고 하더라도 함께 달라붙어 사방에서 타격을 주며 각을 뜨게 되면 미제국주의자들은 결국 멸망하고야 말것이다.

조선혁명은 세계혁명의 한부분이며 국제혁명력량과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혁명 승리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체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과 함께 국제혁명운동을 발전시키며 그와의 긴밀한 뉴대를 이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공산당, 로동당들과 단결하며 국제로동계급과 단결하며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단결하며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단결하여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계속 힘차게 싸워나갈것이다.

## 5

총결기간 우리 인민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거둔 위대한 승리와 성과들은 조선로동당의 올바른 로선과 정책,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안팎의 원수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을 통하여 더욱 세련되고 단련되였으며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습니다.》**

총결기간 당사업분야에서 거둔 가장 큰 성과는 당안에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고 전당이 맑스-레닌주의사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굳게 통일단결된것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은 당안에서 나타난 동요분자들과의 투쟁을 동반하였다. 당은 총결기간 새로운 환경에서 나타난 부르조아분자들과 수정주의분자들을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하였으며 그들이 퍼뜨린 온갖 반동적 및 기회주의적 사상여독을 뿌리뽑기 위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이와 함께 당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속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는 기풍을 세우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였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맑스-레닌주의사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이 꽉 들어찼으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와 어긋나는 현상과는 비타협적으로 투쟁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은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으며 가장 생활력있고 가장 공고한것으로 되였다.

대회는 총결기간 당의 통일과 단결을 위하여 당중앙위원회가 취한 모든 조치와 그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한다.

총결기간 당은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벌림으로써 당대렬의 통일을 실현하였을뿐아니라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보장하였다. 오늘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우리의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가장 올바른 지도적지침으로 되였다.

주체를 세우는 문제는 우리 나라 력사발전의 특수성과 우리 나라가 처한 지리적 환경과 조건, 우리 혁명의 복잡성과 간고성으로 하여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우리 당은 혁명을 령도하는 첫시기부터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였으며 특히 총결기간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하였다.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민족적자부심과 자주의식이 더욱 높아졌으며 그들속에서 사상조류로서의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 교조주의는 기본적으로 없어졌다.

당은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는것과 함께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힘있게 투쟁하였다.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주체사상으로 관통되여있다.

우리의 모든 승리는 우리 당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며 우리 당의 자주로선이 가져다준 위대한 열매이다.

총결기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체계와 방법을 개선하는데서도 커다란 전진이 있었다.

전당에 사람과의 사업체계 즉 간부사업체계와 당원들의 당생활지도체계, 군중과의 사업체계가 튼튼히 수립되였다.

우리는 특히 당사업에서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당의 지도작풍과 사업방법을 개선하는데서 획기적인 전변을 가져왔으며 당사업을 더욱 심화시켰다. 일군들의 관료주의적사업작풍이 기본적으로 없어지고 우가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며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혁명적사업기풍이 수립되였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관철된 결과 당사업이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되였을뿐아니라 당중앙위원회의 의도가 아래에 빨리 들어가게 되

였으며 상하가 더욱 단결되고 기맥이 잘 통하게 되였다.

총결기간 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이 더욱 강화되고 전당에 혁명적학습기풍이 철저히 수립되였다.

당은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매일 2시간이상씩 학습하는 제도를 엄격히 세웠으며 정체학습과 강연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특히 당의 대담한 조치에 의하여 모든 현직간부들이 해마다 한달씩 각급 정치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였다. 결과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성과 정치실무수준이 더욱 높아졌으며 그들이 당과 혁명을 위하여 더잘 복무할수 있게 되였다.

총결기간 당사업분야에서 거둔 이러한 성과들은 우리 당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우리는 이미 거둔 성과에 기초하여 앞으로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혁명과 건설에서 그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계속 힘있게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당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계속 확고히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사상,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하여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사상의지의 통일을 강화하는 사업을 중심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당사업을 계속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당사업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이다. 당사업을 기술실무화하려는 온갖 편향들을 반대하고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에 기본을 두고 진행하도록 할것이다.

대회는 모든 당조직들이 무엇보다먼저 간부들과의 사업에 큰 힘을 넣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현시기 간부들과의 사업에서 나서는 가장 절박한 과업은 간부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것이다. 오늘 우리의 간부대렬은 기본적으로 당과 혁명에 충실한 일군들로 꾸려졌으나 그들의 준비정도는 빨리 발전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당의 요구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낮은 형편에 있다. 우리는 간부들을 교양하는 사업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며 간부들을 철저히 혁명화하며 그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전당적으로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한다.

간부들의 당생활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며 특히 간부들을 강한 비판속에서 단련시켜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간부들속에서 원칙적비판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일상적인 비판사업을 통하여 사상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간부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또한 그들속에서 학습을 강화하여야 한다. 모든 간부들이 당정책학습을 기본으로 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 군사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지식을 꾸준히 학습하며 특히 책임간부들일수록 학습을 더 많이 하여야 한다. 간부들의 한달강습체계를 계속 잘 운영하며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못한 생산단위의 지도일군들부터 간부양성기관들에서 재교육하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것이다. 이와 함께 실지 사업을 통하여 간부들을 꾸준히 교양하고 단련시키며 방식상학을 널리 조직하여 간부들의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간부개별교양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간부들에 대한 개별교양사업을 일상적으로 꾸준히 진행하도록 할것이다.

간부선발배치사업을 잘하는것은 간부사업의 중요한 과업이다. 당조직들은 간부선발사업에서 사람들의 정치적표징을 위주로 하면서 그에 실무적표징을 옳게 배합하는 원칙을 견지하여 우리의 간부대렬을 계급적으로, 정치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도록 하여야 한다.

간부선발배치사업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서는 후비간부양성체계를 바로세우고 후비간부를 전망성있게 체계적으로 키워야 한다. 간부양성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강화하며 교수교양사업의 사상성과 과학리론수준을 더욱 높일것이다.

각급 당위원회들은 간부를 선발배치하며 교양육성하는 사업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문건에만 매달려 간부를 평가하는 주관주의적태도를 버리고 당생활과 실지 사업을 통하여 간부를 검열하고 평가하며 체계적으로 료해장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의 사업 특히 당원들의 당조직생활을 강화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이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며 당조직규범에 따라 당생활에 충실히 참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당원들에 대한 당적분공조직사업을 잘하며 당생활정형을 비판의 분위기속에서 정상적으로 총화하며 당회의를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회는 당대렬을 끊임없이 늘이며 그 질적구성을 계속 강화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당조직들은 새세대들 특히 로동계급청년들속에서 좋은 사람들을 당에 적극 받아들여 당대렬의 질적구성을 더욱 개선하고 핵심대렬을 늘이며 우리 당이 언제나 혁명적기백이 왕성한 당으로 발전하여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당세포는 대중속에서 당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전투단위이며 모든 당원들이 소속되여 당생활을 하는 우리당의 기층조직이다. 당세포핵심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 모든 당세포들이 간부들과 당원들과의 사업을 더욱 능숙하게 하도

록 하여야 한다.

각급 당위원회들은 간부들과 당원들과의 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그들에 대한 당생활지도를 더욱 실속있게 짜고들어야 한다. 당위원회들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급 당위원회들을 간부들과 핵심당원들을 배합하여 꾸리며 특히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 당위원회들에 생산현장에서 직접 로동하는 핵심로동자당원들을 넣도록 할것이다.

간부들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는데서 각급 당위원회조직부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위원회들은 조직부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 당조직들에 대한 지도와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생활지도를 더욱 잘하여야 한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지도하는데서 조직부가 의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선전선동부는 약제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할수 있다. 조직부와 선전선동부는 의사와 약제사처럼 배합작전을 잘하여 당원들의 당생활지도를 더 실속있게 짜고들어야 한다.

당조직들은 군중과의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군중과의 사업에서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켜 혁명의 계급적진지를 튼튼히 꾸리며 극소수의 계급적, 반동적 적대분자들을 내놓고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도록 하는것이다.

당조직들은 먼저 기본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그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조직들은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진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계급적분화를 더욱 촉진시켜 반동분자들에게는 독재를 실시하며 쟁취할수 있는 사람은 다 교양개조하여 혁명의 편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한다.

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당조직들은 근로단체들의 자립성을 높여 그가 당의 로선과 정책에 근거하여 자기 사업을 능동적으로 조직진행하도록 하며 근로단체들에 사업을 대담하게 맡기고 그 수행을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당조직들은 근로단체들에서 핵심대렬을 끊임없이 늘이며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도록 잘 지도하여야 한다.

근로단체들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은 근로자들속에서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잘하는것이다. 근로단체들은 동맹원들속에서 조직생활과 사상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당의 붉은 전사로, 견결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그들을 당정책관철에 힘차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사로청조직들은 사로청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각계각층 청년들과의 사업을 그들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더욱 적극적으로 조직전개하여야 한다. 사로청조직들은 학생청소년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당에 충실한 우리 혁명의 계승자로, 지덕체를 갖춘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워야 한다.

당사상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당사상사업부문앞에 나선 중심과업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계속 실속있게 끌고나가는 것이다. 당조직들은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며 부르죠아사상을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당조직들은 특히 근로자들속에서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사상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맑스-레닌주의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한편 그들에게 수정주의의 본질과 해독성을 철저히 인식시킴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맑스-레닌주의혁명적원칙을 고수하며 수정주의사상독소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정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부르죠아사상여독을 철저히 뿌리뽑아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부르죠아사상과 봉건유교사상을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여독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하며 낡은 사상이 되살아날수 있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사상교양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의 정세는 어떠한 자만과 안일성도 허용하지 않으며 계속 긴장하게 투쟁하며 혁명적으로 생활할것을 요구한다. 당조직들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우려는 혁명적투쟁정신으로 충만되도록 교양하며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사업기풍과 혁명적생활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우도록 사상사업을 짜고들어야 할것이다.

사상사업에 대한 당조직들의 조직지도사업을 개선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사상사업을 당원들의 수준과 실정에 맞게 그리고 당면한 혁명과업과 결부시켜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선전사업과 선동사업을 옳게 결합시키고 여러가지 선전선동수단들을 잘 배합하여 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기동성있게 진행하며 사상사업에서 형식주의를 결정적으로 없애야 한다.

당사상사업부문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하며 모든 간부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강연, 담화, 해설 사업을 비롯한 정치사상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

야 한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과 건설을 전적으로 책임지고있다. 당의 유일적인 지도밑에서만 국가, 경제, 문화 기관들과 근로단체들은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우리는 발전하는 현실과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당적령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당위원회들은 경제사업에 대한 키잡이를 잘하며 국가경제기관들이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요구에 맞게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경제를 더욱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할것이다.

인민위원회는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며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진 호주이다. 당조직들은 각급인민위원회들을 당과 혁명에 충실하며 인민들속에 신망이 높은 좋은 일군들로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 인민위원회가 주권행사를 더욱 원만히 하며 나라와 인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진 호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특히 인민군대와 사회안전기관, 사법, 검찰 기관과 같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당적령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인민군대에 대한 당적령도를 강화하는것은 혁명무력건설의 기본요구이다. 군대안에서 당위원회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며 인민군대의 모든 사업이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조직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각급 정치기관들과 정치일군들 특히 정치위원들의 역할을 높여 군인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과 당원들의 당생활지도를 더욱 정력적으로 진행하며 전투정치훈련과 전투준비완성을 위한 사업을 당적으로, 정치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위원회들은 로농적위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로농적위대의 군사정치훈련을 강화하며 전투준비와 지휘체계를 더욱 완성하도록 일상적으로 지도할 것이다.

당위원회들은 사회안전사업과 사법, 검찰 사업을 정상적으로 토론하고 사업방향을 바로잡아주며 사회안전기관들과 사법, 검찰 기관들의 모든 활동을 철저히 지도통제함으로써 그가 당의 정치보위자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사업분야에 나서는 이 모든 과업을 원만히 수행함으로써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그의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할것이다.

* *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는 지난 기간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와 성과를 총화하였으며 우리 인민앞에 정확한 투쟁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광활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대회는 전당과 전체 인민이 당대회가 내세운 새로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계속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 힘차게 투쟁하며 모든 애로와 난관을 박차고 더욱 빨리 앞으로 달려나아갈것을 호소한다.

오랜 기간의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기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조선인민을 계속 승리에로 확고히 인도할것이다.

대회는 전당과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함으로써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새로운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 결정서

1970년 11월 12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6개년(1971~1976)계획에 대하여

우리 인민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모든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이겨내고 우리 당 제4차대회에서 채택된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7개년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총결기간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되여 우리 나라는 공업—농업국가로부터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였다.

이미 마련된 자립적민족공업의 토대에 의거하여 7개년계획기간에 공업은 매우 빨리 발전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현대적공업을 창설하기 위한 간고한 투쟁은 빛나는 열매를 맺게 되였다. 7개년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우리 나라에는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기지와 현대적인 경공업기지가 창설되였다. 우리의 공업은 새 기술로 장비되고 튼튼한 자체의 원료기지를 가진 그리고 부문구조가 잘 조화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모든 공업제품을 자체로 충족시키는 자립적체계가 튼튼히 선 공업으로 되였다.

사회주의공업화의 실현, 이것은 유구한 우리 민족의 력사에서 획기적사변이며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이룩된 가장 위대한 승리이다.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도 빛나는 승리가 이룩되였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적농업강령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밝혀준 길을 따라 총결기간에 우리 나라 농촌에서 수리화와 전기화가 완성되고 기계화, 화학화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농촌기술혁명이 빨리 추진되는데 따라 알곡을 비롯한 농업생산의 모든 부문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다.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의 하나인 문화혁명을 수행하는데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총결기간 동방에서 처음으로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이 실시되고 빨리 추진되는 사회주의공업화와 전면적기술개건의 요구에 맞게 기술자, 전문가 양성사업이 강화되여 민족간부의 대렬이 튼튼히 꾸려졌으며 근로자들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도 훨씬 높아졌다. 당의 주체적인 과학정책에 따라 과학기술이 빨리 발전하였으며 문학예술부문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총결기간 당은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깊은 관심을 돌렸으며 그 결과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은 훨씬 높아졌다.

경제건설과 함께 국방건설분야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력사적인 당대표자회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자체의 튼튼한 국방공업을 가지게 되고 전시생산준비를 하는 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온 나라를 원수들의 어떠한 불의의 침공도 성과적으로 무찌를수 있는 철벽의 요새로 전변시켜놓았다.

총결기간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서 이룩된 위대한 성과들은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대중의 영웅적이며 헌신적인 투쟁의 결과이다.

대회는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맞게 창조적이며 독창적인 로선과 정책을 내놓고 그 관철에로 인민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하심으로써 우리 당 제4차대회에서 채택된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7개년계획이 빛나게 수행되고 력사적인 당대표자회결정이 훌륭히 관철되였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위대한 승리가 이룩되였다는것을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적한다.

력사적으로 매우 짧은 기간에 웅대한 사회주의공업화의 과업을 빛나게 수행한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할 위대한 경제건설강령인 6개년계획을 수행하는 보람찬 투쟁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대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6개년(1971~1976)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의하고 당중앙위원회가 내놓은 6개년계획이 대회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강령적지침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였으며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선혁명의 전국

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인정한다.

# 1. 6개년계획의 기본과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 6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입니다.〉**

7개년계획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여 나라의 경제토대와 생산잠재력은 비할바없이 커졌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 빨리 밀고나갈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 마련되였다. 우리 나라에 마련된 현대적공업과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나라의 경제적위력과 방위력은 더욱 강화될것이며 인민생활은 훨씬 높아질것이다.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와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공업과 농업생산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현시기 경제건설에서의 중심적인 과업으로 나선다.

기술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의무이며 6개년계획기간에 힘을 넣어야 할 중요한 과업이다. 7개년계획기간에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기본적으로 현대적기술의 토대우에 올라섰으며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사업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로동조건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어렵고 힘든 로동을 하고있는 근로자들도 적지않다. 6개년계획기간에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의 차이를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에서 해방하기 위한 3대기술혁명과업을 수행하여 우리 나라의 모든 근로자들을 힘들고 품이 많이들며 비능률적인 로동에서 해방하고 모두가 일을 안전하고 헐하게 하면서도 높은 로동생산능률을 낼수있게 하여야 한다.

# 2. 공업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키기 위하여서는 공업을 계속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6개년계획기간에 공업총생산액은 2.2배 그 가운데서 생산수단생산은 2.3배, 소비재생산은 2배로 장성시킬것이다.

공업부문의 중심과업은 공업부문 내부구조를 완비하며 공업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는데 있다.

우리 나라에 창설된 현대적공업의 생산잠재력은 비할바없이 크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면 큰 건설을 많이 하지 않고도 생산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일수 있다. 6개년계획기간에 공업부문에서는 새 건설은 될수록 적게 하면서 동력공업과 채취공업의 발전을 확고히 앞세우고 모든 공업부문들에서 살볼이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하여 마련된 공업생산토대를 최대한으로 리용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공업의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아직 우리 나라에 없거나 적은 자원을 찾아내고 공업적방법으로 해결하며 수입원료를 적게 쓰거나 그것을 국내원료로 대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벌려 모든 공업부문들을 적어도 원료의 60~70% 이상을 자체원료에 의거하는 주체가 철저히 선 공업부문들로 만들것이다.

## 1) 중공업

나라의 경제적위력과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며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공업을 계속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6개년계획기간에 전력공업은 2.1배, 석탄공업은 1.8배, 광석채굴업은 2배, 야금공업은 1.8배, 기계제작공업은 2.7배, 선박공업은 5.8배, 화학공업은 2.5배, 건재공업은 1.9배로 장성시킬것이다.

**전력공업:** 전력을 많이 쓰는 공업부문들이 확대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반자동화, 자동화가 널리 실현되며 주민들의 전력소비가 훨씬 늘어나는데 맞게 나라의 동력기지를 더욱 강화하며 전력생산을 빨리 늘여야 한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새로운 발전소들의 건설을 다그쳐 6개년계획기간에 220만키로와트의 발전능력을 새로 마련하며 1976년에 발전량을 280억~300억키로와트시에 이르게 할것이다.

서두수발전소건설을 빨리 끝내고 금성수력발전소건설을 적극 밀고나가며 희천발전소건설을 시작할것이다.

북창화력발전소건설에 큰 힘을 넣어 6개년계획기간에 새로 70만키로와트 이상의 발전능력을 마련하며 웅기, 청진, 개천, 남흥 지구들에 새 화력발전소들을 건설하여 총발전능력에서 화력의 비중을 절반에 이르게 할것이다.

지금 있는 중소발전소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유리한 수력지점들과 공장, 기업소의 폐열, 여열을 리용하여 새로운 중소발전소들을 많이 전

설할것이다.

지금 있는 송배전계통을 정비보강하고 새로 형성되는 동력기지들과 공업중심지들을 련결하는 송전선을 더 늘여 인민경제에 대한 전력공급을 보다 원활히 하며 전력의 지역사이 융통능력을 한계단 더 높이도록 할것이다. 6개년계획기간에 북창—동흥사이, 북창—상원사이를 비롯한 900여키로메터의 220키로볼트송전선을 새로 늘이며 최신계산수단을 비롯한 선진기술을 적용하여 전력계통의 운영을 더욱 현대화하도록 할것이다.

전력절약투쟁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차게 벌려야 한다. 전력을 많이 쓰는 생산부문들을 전력을 적게 쓰는 부문들로 전환하고 전력을 적게 쓰는 공업생산부문들을 빨리 발전시키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전력소비기준을 결정적으로 낮추며 전력소비에 대한 국가적 및 사회적 통제를 더욱 강화할것이다.

**채굴공업:** 생산의 첫공정인 채굴공업을 확고히 앞세워 석탄과 광물에 대한 빨리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지금 있는 탄광들에서 석탄생산량을 높이는 한편 덕천, 강서, 안주 지구를 비롯한 유망한 지구들에서 새로운 탄광들과 갱들을 적극 개발하며 석탄을 캘수 있는 모든곳에서 중소탄광들을 널리 개발하여 1976년에 석탄생산량을 5,000만~5,300만톤 그 가운데서 중소탄광들의 석탄생산량을 1,000만톤 이상에 이르게 할것이다. 모든 탄광들에 선별시설을 빨리 갖추며 안주탄광, 고건원탄광, 전천탄광에 현대적인 선탄장을 건설하여 인민경제의 수요에 맞게 질좋은 석탄을 용도별, 규격별로 생산보장하도록 할것이다.

광업부문에서는 채굴능력과 선광능력을 높여 6개년계획기간에 중요광물생산량을 철광석은 1.8배, 동은 1.7배, 연, 아연은 1.8배, 중석은 1.9배, 수연은 4.4배로 늘일것이다.

무산광산을 년산 650만톤, 덕현광산을 년산 75만톤의 정광을 생산할수 있게 확장하며 덕성, 서해리, 송암 광산의 개발을 적극 다그치며 개천, 룡원 광산에서 통철광을 120만톤 캐내도록 할것이다.

유색광업부문에서는 지금 있는 큰 광산들을 개건확장하며 은파, 부포, 혜산과 같은 유망한 대규모광산들의 개발을 적극 다그치며 호하광산과 칠봉광산을 새로 개발할것이다.

흑연, 중정석, 린회석을 비롯한 비금속광물생산을 늘이며 희유금속광물생산도 늘일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채취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요한것은 지질탐사사업을 앞세우고 기술혁명을 실현하며 과학연구사업을 적극 추진시키는 세가지 원칙을 견지하는것입니다.》**

채굴공업을 전망성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질탐사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지질탐사부문에서는 지금 있는 탄광, 광산들의 예비매장량을 늘이기 위한 세부탐사와 작업탐사를 강화하고 새로운 탄광, 광산 후보지들을 마련하기 위한 전망탐사를 적극 벌리며 자강도, 량강도를 비롯한 내륙지대탐사를 강화하여 여러가지 지하자원의 매장량을 빨리 확정할것이다. 철광석과 석탄탐사에 힘을 넣으면서 수은, 니켈, 중석, 크롬, 망간, 보크사이트 자원에 대한 탐사도 적극 진행할것이다. 지질탐사사업을 앞세우기 위하여 탐사일군대렬을 늘이고 지질탐사부문에 현대적인 탐사설비들을 더 많이 보내주며 물리탐사, 지구화학탐사를 비롯한 선진적인 탐사방법을 널리 적용하여 탐사 속도와 효률을 높이도록 할것이다.

채굴공업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석탄과 광물생산을 빨리 늘이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며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절박한 과업이다.

6개년계획기간에 유연탄광들에서 채탄막장의 종합적기계화를 기본적으로 끝내며 무연탄광들에서도 점차 채탄막장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도록 할것이다. 광산들에서는 천공, 적재 및 운반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빨리 끝내고 반자동화, 자동화를 널리 실현하도록 하며 동발을 세우고 메우를 놓는것과 같은 작업도 적극 기계화할것이다.

종합굴진기를 비롯한 능률적인 굴진설비들을 적용하며 고속도굴진운동을 계속 힘있게 벌릴것이다.

탄광들에서 중요갱도들의 영구화를 다그치는 한편 매장량이 많은 큰 탄광, 광산들에 수직갱과 사갱들을 널리 건설하며 갱내 운반수단들을 대형화, 중량화하도록 할것이다.

탄광, 광산들에서 갱내 착암, 발파, 채탄, 운반과정에 생기는 가스와 몬지를 없애기 위하여 습식착암방법을 널리 적용하고 갱내에 강력통풍을 하며 가스탄광들에 내폭설비들과 가스경보계를 설치하는것을 비롯하여 지하작업장들에 로동안전시설과 산업위생시설들을 더욱 완비하도록 할것이다.

채굴공업부문의 과학연구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대렬을 늘여 합리적인 탐사, 채탄, 채굴방법과 능률적인 탐사, 채굴설비들을 창안하며 석탄과 광물 자원의 분석, 처리, 리용과 같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빨리 풀도록 할것이다.

**야금공업:** 우리 나라 연료에 의한 철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며 제철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며 압연강재의 품종과 규격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2차금속가공제품생산을 더욱 발전시켜 흑색금속에 대한 인민경제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1976년에 선철 및 립철은 350만~380만톤, 강철은 380만~400만톤, 압연강재는 280만~300만톤에 이르게 할것이다.

제철공업부문에서 소결광, 해면철, 환원구단광생산을 늘여 용광로에 모두 예비처리한 원료를 넣도록 하고 선진기술공정을 널리 적용하여 지금 있

는 용광로들의 생산성을 높이며 새로 대형용광로 1기와 중형용광로들을 건설하여 선철생산을 늘일것이다. 4월 13일 제철소건설을 다그쳐 우리 나라 연료에 기초한 철생산을 더욱 발전시킬것이다.

강철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원료처리와 제품처리능력을 보강하고 선진기술공정을 널리 적용하여 지금 있는 제강설비들의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한편 100만톤능력의 김책제철소 강철직장건설을 끝내도록 할것이다. 인민경제와 기술발전의 요구에 맞게 강종을 많이 늘이며 특히 합금강생산을 더욱 발전시킬것이다.

압연강재의 품종과 규격을 늘이고 2차금속가공제품생산을 빨리 발전시킬것이다. 황해제철소 선재압연직장을 개건확장하고 강선제강소와 김책제철소에 압연직장을 새로 건설하며 강재를 많이 쓰는 공장, 기업소들에도 중소압연기들을 널리 설치할것이다.

6개년계획기간에 2차금속가공제품생산시설들을 더 꾸려 인발관생산은 1.7배, 아연도철판생산은 4.2배로 늘이며 랭간압연강판, 석도금판, 박벽관, 전기용접관 생산을 빨리 늘일것이다.

흑색야금공업부문에서 진공용해, 진공조괴, 전기광재용해를 비롯한 선진기술공정을 널리 적용하고 수정, 열처리, 교정과 같은 제품의 후처리공정들을 빨리 보강하여 강질에 대한 현대적공업과 최신과학기술의 높아가는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할것이다.

유색야금공업부문에서는 지금 있는 제련소들의 능력을 높이는 한편 동부지구에 동제련소와 서부지구에 연, 아연 광석을 동시에 처리하는 제련시설을 새로 꾸리며 유색금속가공제품생산을 더욱 발전시킬것이다. 6개년계획기간에 2만톤 능력의 알루미니움공장을 새로 건설하여 자체의 경금속생산기지를 마련하며 전자공업과 약전공업에 요구되는 여러가지 희유금속과 순금속에 대한 국내수요도 자체로 생산보장하도록 할것이다.

야금로들과 열설비들에 랭각장치와 밀폐장치를 하여 높은 열을 최대한으로 막으며 고열이 심한 부문부터 먼저 시작하여 고열작업이 진행되는 모든 생산공정들을 자동화하며 점차 원격조종에로 넘어가도록 함으로써 가까운 앞날에 이 부문에서 고열로동을 완전히 없애도록 하여야 한다. 유색야금공업부문에서 생산과정에 나오는 유독성 증기와 가스를 모조리 회수리용하기 위한 대책도 세울것이다.

**기계제작공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술혁명을 새로운 단계에로 전진시키며 나라의 전반적생산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문제가 중요하게는 기계공업의 발전에 달려있습니다. 6개년계획기간에 기계공업의 발전에 계속 큰 힘을 넣어 대자연개조사업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요구되는 보다 능률적이며 경제적인 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계제작공업을 빨리 발전시켜 능률적이며 경제적인 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1971~1976년간에 중요기계제품생산량을 다음과 같이 늘일것이다.

| | |
|---|---|
| 공작기계 2.6배 | 발전기 5배 |
| 전동기 1.8배 | 변압기 1.7배 |
| 시추기 3.3배 | 공기압축기 1.5배 |
| 굴착기 3.2배 | 랭동기 1.8배 |
| 자동차 2.4배 | 화차 2.1배 |

기계제작공업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대형기계생산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이다. 6개년계획기간에 대형기계생산기지들을 확대강화하여 10메터대형선반을 비롯한 대형공작기계, 220톤보이라, 5만크바 타빈과 발전기, 10만크바 변압기를 비롯한 대용량동력설비들, 3,000메터시추기, 종합굴진기, 300마력불도젤, 1,000마력권양기, 4립방메터굴착기를 비롯한 대형 채굴 및 건설 설비들, 전기기관차, 2,000마력디젤기관차를 비롯한 대형운수설비들의 생산을 늘일것이다. 지금 있는 대상설비공장들의 능력을 높이고 새로운 전문대상설비공장들을 조직하여 야금공장, 세멘트공장, 화학공장 설비들을 종합적으로 생산하도록 할것이다.

반자동화, 자동화가 널리 실현되는데 따라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이미 마련하여놓은 전자공업기지를 더욱 강화하고 자동화기구공장을 새로 건설하여 전자관과 여러가지 자동화요소, 전기 계기와 기구들의 생산을 빨리 늘일것이다.

단능설비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려 식료기계를 비롯하여 인민소비품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여러가지 단능기계들을 더 많이 생산하며 식료품공장, 일용품공장들의 종합설비들도 생산보장하도록 할것이다.

인민생활에 필요한 기계일용품생산을 빨리 늘일것이다. 지금 있는 기계일용품생산기지들을 확장하며 새로운 생산기지들을 더 꾸려 1976년에 가정용 랭장고는 12만 6,000대, 가정용 세탁기는 11만대 생산하도록 할것이다. 텔레비죤수상관공장을 새로 건설하고 도마다 텔레비죤수상기조립공장을 꾸려 1976년에 텔레비죤수상기생산량을 10만대에 이르게 할것이다.

전자계산기를 비롯한 계산기계기구들, 록음기, 자동교환기를 비롯한 방송, 통신기계들의 생산도 빨리 늘일것이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기계생산을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지금 있는 뜨락또르공장들을 확장하여 1976년에 뜨락또르는 2만 1,000대에 이르게 할것이다. 건조기와 수확기 전문생산기지를 꾸려 1976년에 벼수확기는 6,000대이상, 종합수확기는 1,700대, 건조기는 5,000대 생산하며 벼직파기, 사과따는 기계를 비롯한 여러가지 농기계들도 많이 생산하도록 할것이다.

기계제작공업의 대대적인 발전은 공작기계생산을 빨리 늘일것을 절실히 요구한다. 지금 있는 공작기계공장들을 확장하고 연마반공장, 치절반공장, 단능공작기계공장들을 새로 꾸려 여러가지 특수공작기계, 자동 및 반자동 공작기계, 대형공작기계, 단능공작기계 생산을 훨씬 늘일것이다.

기계공업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기계설비들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기계설비들의 설계를 더욱 완성하고 주물과 소재의 질을 높이며 경금속과 합성수지를 널리 리용하여 기계설비의 무게를 훨씬 줄이며 정밀한 측정공구와 계기들을 널리 리용하고 정밀형단조와 반자동 및 자동 용접의 비중을 높여 기계설비들의 정밀도를 더욱 높이도록 할것이다.

**선박공업:** 수산업과 수상운수를 발전시키며 강하천건설과 간석지개간과 같은 대자연개조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선박공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지금 있는 선박생산기지들을 개건확장하고 새로운 선박생산기지들을 꾸려 6개년계획기간에 선박생산을 3.6배로 늘일것이다.

먼바다물고기잡이와 해상운수에 필요한 대형선박생산을 빨리 늘여야 한다. 지금 생산하고있는 대형랭장운반선과 원양작업선을 계속 많이 생산하면서 1만톤급 가공모선과 화물선을 새로 생산하도록 할것이다. 이를 위하여 청진조선소의 배건조능력을 높이고 6월 24일 조선소와 룡암포조선소 건설을 다그치며 6월 12일공장에 대형원양작업선을 건조할수 있는 기지를 꾸리도록 할것이다.

강하천수송과 근해 및 세소 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소형선박생산을 훨씬 늘여야 한다. 원산조선소와 김책선박공장, 남포선박공장, 신의주선박공장들을 정비보강하여 중소형물고기배, 끌배와 끌림배들을 많이 건조하며 만포와 수풍에 강하천용 끌배들의 건조 및 수리기지를 새로 꾸릴것이다.

항만건설, 강하천건설, 간석지개간, 해양탐사에 요구되는 준설선, 기중기선, 시추선, 수사식말뚝선과 같은 여러가지 기술선박들도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선박공업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관생산을 늘여야 한다. 지금 있는 기관공장들을 개건확장하며 새로운 기관생산기지를 꾸려 2,500마력기관과 3,000마력기관을 비롯한 대형선박용 기관들을 자체로 생산하도록 하며 여러가지 중소선박들과 기술선박들에 쓸 질좋은 기관들을 많이 생산하도록 할것이다.

지금 있는 선박공장들의 의장품직장들을 확장하는 한편 현대적인 의장품공장들을 새로 건설하여 전파탐지기, 라침의를 비롯한 여러가지 의장품들을 국내에서 자체로 생산보장하도록 할것이다.

선박수리공장들의 기술장비를 강화하여 수리능력을 훨씬 높이고 새로운 선박수리기지들을 많이 꾸려 중소형선박은 물론 대형선박들도 수리하도록 할것이다.

**화학공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화학공업의 발전은 공업의 원료기지를 확대하며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강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이미 마련된 화학공업의 토대에 기초하여 무기화학공업과 유기화학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며 새로운 화학공업부문들을 창설하여 우리 나라의 화학공업을 더욱 다방면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무기화학공업과 유기화학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며 석유화학공업을 창설하여 여러가지 화학제품생산을 빨리 늘여야 한다. 6개년계획기간에 화학비료생산은 2배, 살초제생산은 4.5배, 화학섬유생산은 1.9배, 합성수지생산은 3배로 늘일것이다.

효능이 높은 요소비료와 질안비료의 생산비중을 높이고 린비료생산을 늘이며 복합비료를 새로 생산하도록 할것이다.

화학비료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지금있는 석회질소비료공장들의 생산을 정상화하며 석탄가스화에 의한 암모니아생산공정을 정비보강하고 암모니아공장과 요소비료공장들을 건설하며 도들에 소형질안공장을 건설하도록 할것이다.

새로운 농약생산기지들을 꾸려 살충제생산을 높이며 살초제의 품종과 생산량을 빨리 늘이도록 할것이다.

6개년계획기간에 피.시.피, 2.4 디생산을 발전시키며 살초제공장들을 건설하여 시마진, 디.시.피.에이, 엠.시.피, 엠.시.피.비, 니프와 같은 효능이 높은 새로운 살초제들을 생산할것이다.

화학섬유공장들과 합성수지공장들의 생산능력을 확대하여 비날론, 스프, 염화비닐, 요소 및 멜라민수지 생산을 늘이는 한편 원유가공공장건설을 빨리 끝내고 석유화학공장을 건설하여 아닐론과 빼트론, 폴리에틸렌수지를 새로 생산하도록 할것이다.

합성고무공장건설을 다그쳐 고무생산을 늘이며 다이야를 비롯한 기술용 고무제품생산을 늘이고 그 질을 더욱 높이도록 할것이다.

지금 있는 물감, 칠감 공장들을 개건확장하고 중소화학공장들을 널리 조직하여 직접물감, 산성물감, 류화건염물감, 분산물감들과 합성수지칠감 생산을 늘이며 가소제, 촉진제, 안정제, 방부제, 향료를 비롯한 보조화학약재생산을 빨리 발전시킬것이다.

기초화학공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산, 알카리 생산을 강화하여 6개년계획기간에 가성소다생산은 1.8배, 탄산소다생산은 2.7배, 류산생산은 1.3배로 늘이며 유기합성공업의 기본원료인 카바

이드, 펜졸, 나프탈린, 메타놀, 포르말린 생산을 빨리 늘일것이다. 소금밭면적을 늘이고 선진기술을 널리 적용하여 6개년계획기간에 소금생산을 1.4배로 높일것이다.

화학공장들에서 유해생산공정을 전면적으로 자동화하고 엄밀한 밀폐장치를 하며 배풍시설들을 더욱 완비하여 화학공업부문에서 유해로동을 빨리 없애도록 할것이다.

**제약 및 의료기구 공업:** 의약품생산기지와 의료기구생산기지를 더욱 확대하여 항생제 및 합성의약품 생산을 늘이고 생약가공을 발전시키며 전자의료설비를 비롯한 여러가지 의료기구생산을 빨리 늘일것이다. 6개년계획기간에 의약품생산은 2.5배, 의료기구생산은 2.4배로 높일것이다.

**건재공업 및 림업:** 대규모건재공업과 중소규모 지방건재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세멘트, 금속건재, 화학건재를 비롯한 여러가지 건재생산을 빨리 높여야 한다.

지금 있는 세멘트공장들을 확장하며 지방세멘트공장들을 더 건설하여 1976년에 세멘트생산량을 750만~800만톤에 이르게 할것이다. 세멘트소성공정과 분쇄계통들에 제진장치들을 완비하며 이 부문에서 유해로동을 없애도록 할것이다.

평양, 청진, 함흥, 사리원 지구에 쇠창문생산기지를 꾸리고 그 생산량을 늘이며 위생난방설비들과 여러가지 금속전구, 조명기구, 승강기를 비롯한 건축설비생산을 빨리 높이도록 할것이다.

남포유리공장에 압연유리직장을 신설하고 리원에 판유리공장을 건설하여 6개년계획기간에 판유리생산을 1.8배로 높이며 압연유리, 연마유리, 문양유리를 더 많이 생산할것이다.

화학수지건재생산기지들을 확대강화하여 경질비닐판과 비닐바닥판을 비롯한 여러가지 화학건재생산을 더욱 발전시킬것이다.

중소형압연공장을 잘 꾸리고 벽돌, 석재, 지붕재, 주철관, 오지관, 위생자기, 전구 생산기지들을 많이 꾸려 지방건설에 소요되는 건재를 지방자체에서 생산보장하도록 할것이다.

내화물공업을 빨리 추켜세워 내화물에 대한 인민경제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내화물생산기지들을 확대하여 6개년계획기간에 내화벽돌 생산량을 2배로 늘일것이다. 원료관리를 개선하고 턴넬소성법을 비롯한 선진기술공정을 널리 적용하여 내화물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특히 고알루미나벽돌, 마그네샤벽돌과 같은 고질내화물생산을 빨리 발전시킬것이다. 마그네샤클링카생산에 큰 힘을 넣어 6개년계획말에 그 생산량을 160만톤에 이르게 할것이다.

림업부문에서 순환식채벌방법을 널리 실시하고 기술장비를 더욱 강화하여 통나무생산을 늘이며 베여낸 통나무의 종합적리용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통나무생산기지를 튼튼히 마련하기 위하여 새로운 림산지대들을 적극 개발하며 능률적인 림업기계들을 많이 창안도입하여 림업부문에서 기계화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여야 한다. 6개년계획기간에 나무베기, 나무모으기, 나무실어나르기 작업의 기계화를 기본적으로 끝냄으로써 림업로동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도록 할것이다.

6개년계획기간에 제재실수률을 높이고 림산화학공업을 발전시키며 지금 있는 목삭판, 목섬유판설비들을 효과있게 리용하고 새로운 목삭판, 목섬유판 생산능력을 많이 조성하여 목삭판생산은 3.2배, 목섬유판생산은 6.8배로 높일것이다.

## 2) 경공업

인민소비품의 품종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넉넉하게 하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부담에서 해방하는것은 6개년계획기간에 경공업부문에서 해결하여야 할 중심과업이다.

**방직공업:** 방직공업부문에서는 섬유제품의 질적구성을 개선하고 편직물생산을 늘이며 피복가공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연사직물을 비롯하여 근로자들의 기호에 맞는 좋은 천을 많이 짜며 모직물과 아닐론, 떼트론 천과 같은 질좋은 옷감생산을 빨리 늘여야 한다. 1976년에 천생산량은 5억~6억메터에 이르게 하며 그 가운데서 모직물과 아닐론, 떼트론 천을 5,000만 메터이상 생산하도록 할것이다. 6개년계획기간에 40만추 이상의 방추를 새로 늘이며 그 가운데서 가는 실을 뽑는 방추수를 빨리 늘일것이다. 마쎌가공, 방수가공, 털태우기와 같은 직물의 전후처리와 염색가공을 개선하여 천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것이다.

편직물생산을 발전시켜 새로운 전망계획기간에 내의는 1.4배, 셰타와 쟈케트는 2.1배, 양말은 1.8배로 그 생산을 늘이며 특히 아닐론과 나이론 편직물생산을 빨리 늘일것이다.

지금 있는 피복공장들을 확장하고 현대화하는 한편 중요도시들에 피복공장들을 새로 건설하고 분공장과 가내작업반을 널리 조직하여 여러가지 옷들을 많이 만들며 피복연구사업을 강화하여 천을 절약하면서도 근로자들의 몸매에 어울리게 의복제도를 개선하도록 할것이다.

**신발공업:** 신발공업을 빨리 추켜세우는 것은 경공업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신발생산을 늘이고 가죽구두의 비중을 높이며 신발생산을 현대화하며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지금있는 가죽구두공장들을 개건확장하는 한편 현대적인 가죽구두공장을 새로 건설하며 도마다 가죽이김공장과 가죽구두공장들을 꾸며 1976년에 가

죽구두생산량을 1,000만컬레에 이르게 할것이다.

우리 나라의 기후조건, 근로자들의 발생김에 맞게 신발의 형태를 개선하며 신발천과 가죽이김의 질을 높이고 특히 가죽구두의 겉면가공을 잘하도록 할것이다. 그리하여 여러가지 신발을 계절별, 성별, 년령별, 호수별, 색갈별로 신기 편리하면서도 질기고 맵시있게 만들며 특히 겨울신발과 녀자신발 및 어린이신발 생산을 더욱 발전시킬것이다. 1976년에 신발생산량은 7,000만컬레에 이르게 할것이다.

신발생산이 늘어나는데 맞게 신골형을 비롯한 신발생산에 필요한 여러가지 보조자재와 공구들의 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며 재생고무의 생산능력을 더욱 확대하고 그 질을 높이며 경질수지창을 비롯한 여러가지 신발창들의 생산도 빨리 늘일것이다.

**종이공업:** 종이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 종이생산량과 그 가지수를 더욱 늘이도록 하여야 한다.

6개년계획기간에 종이생산량은 1.8배로 늘일것이다.

신문종이, 필기종이 생산을 늘이는 한편 모조지, 고급인쇄종이 공장과 난알짚을 원료로 하는 인쇄종이공장을 새로 건설하며 지금 있는 종이공장들에 특수종이생산설비들을 더 갖추어 모조지, 고급인쇄종이를 비롯한 좋은 종이와 여러가지 특수종이까지 국내에서 생산보장하도록 할것이다. 지방종이공장들을 많이 꾸리고 그 기술장비를 강화하여 지방의 종이수요를 더잘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종이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난알짚팔프와 해목팔프 생산을 늘이고 그 질을 높일것이다.

**식료공업:** 식료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 식료가공품생산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한다.

식료공업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부식물가공을 발전시키는것이다. 생산지와 소비지에 남새, 고기의 저장 및 랭동시설을 빨리 갖추어 부식물의 1차가공을 잘하며 식료가공공장들을 많이 꾸려 부식물의 반제품과 완제품생산을 빨리 늘일것이다. 6개년계획기간에 고기가공품은 5.9배, 남새가공품은 14.7배로 늘이며 그 가운데서 고기통졸임과 병졸임은 8.8배, 남새통졸임과 병졸임은 23배로 늘일것이다. 평양시, 함흥시를 비롯한 큰 도시들에서는 김치를 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하여 근로자들에게 공급하도록 할것이다.

모든 기름원료원천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하여 기름생산을 늘임으로써 1976년에 먹는 기름이 인구 한사람당 매일 15~20그람씩 차례지도록 할것이다.

맛내기, 아미노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양념감생산을 빨리 늘일것이다. 평양, 함흥, 구성지구에 현대적인 맛내기공장을 건설하고 도마다 소형맛내기공장 또는 맛내기직장을 꾸려 1976년에 맛내기 생산량을 2,800톤에 이르게 할것이다.

근로자들의 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간장, 된장, 고추장을 더 맛있게 다양하게 만들며 전분원료에 의한 간장생산의 비중을 높여 장생산에서 콩을 적게 쓰도록 할것이다.

주식물가공을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 6개년계획기간에 주요도시들에 30만톤의 옥쌀생산능력을 더 마련하며 국수생산시설들을 많이 갖추어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잡곡을 가공품으로 공급하며 밥공장, 빵공장들을 많이 꾸려 녀성들의 로력적부담을 덜어주도록 할것이다.

과일생산이 빨리 늘어나는데 따라 전군중적운동으로 과일가공공장들을 꾸려 과일잼, 과일즙, 과일통졸임, 과일병졸임을 많이 만들며 과자와 사탕, 청량음료 생산도 늘여야 한다. 6개년계획기간에 과일가공품생산은 9.2배, 청량음료생산은 4.3배로 늘일것이다.

식료공업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식료품가공의 모든 생산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함으로써 식료품의 위생문화성을 보장하도록 할것이다.

**일용품공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공업부문에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은 일용품공업을 빨리 추켜세우는것입니다.》**

철제일용품, 수지일용품, 도자기 및 유리제품, 문화용품의 가지수와 생산량을 빨리 늘이며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전기가마를 비롯하여 녀성들의 부엌일을 덜어줄수있게 하는 여러가지 부엌세간들과 알루미니움제품, 시계, 수지일용품, 도자기, 유리 제품생산을 더욱 발전시킬것이다. 6개년계획기간에 알루미니움제품생산은 2.8배, 유리제필수품생산은 5.2배, 도자기필수품생산은 2.3배, 시계생산은 2.5배로 늘일것이다. 학용품과 놀이감, 체육기구, 민족악기를 많이 생산하며 여러가지 가구들과 초물제품, 공예제품 생산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대규모중앙공업기업소들의 생활필수품직장들을 잘 꾸려 부산물과 폐설물을 리용하여 여러가지 일용품을 많이 만들도록 할것이다. 6개년계획기간에 대규모중앙공업기업소 생활필수품직장들의 소비품생산을 1.7배로 늘일것이다.

**지방공업:** 지금 있는 지방산업공장들의 기술장비를 강화하여 생산을 늘이고 질을 높이는 한편 지방에 있는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적극 동원하여 새로운 지방산업공장들을 더 많이 꾸리도록 할것이다.

모든 군에 과일과 남새 가공공장, 고기와 물고

기 가공공장을 꾸려 계절적으로 많이 생산되는 남새와 과일, 고기와 물고기를 제때에 가공하도록 하며 지방의 원료를 리용하여 일용품공장들도 계속 많이 건설하도록 할것이다.

6개년계획기간에 지방공업생산액을 2.6배로 높일것이다.

## 3) 수산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면에 바다를 끼고있으며 또 바다에 무진장한 자원이 있는 우리 나라에서 수산업은 우리가 반드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요한 부문의 하나입니다.》**

6개년계획기간에 수산부문에서는 먼바다물고기잡이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가까운바다물고기잡이를 계속 강화하고 연안세소어업과 양식양어사업을 군중적운동으로 벌려 수산물생산량을 훨씬 높이며 수산물가공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 그 가공품생산을 빨리 늘이도록 하여야 한다.

1976년에 수산물생산량을 160만~180만톤 그 가운데서 물고기생산량은 130만톤에 이르게 할것이다.

대형선박들을 더 보충하여 강력한 원양어선대를 묶고 김책항과 신포항을 원양어업기지로 튼튼히 꾸리고 양화, 원산항도 점차 먼바다어업기지로 꾸리도록 할것이다.

가까운바다물고기잡이를 더욱 발전시킬것이다. 물고기자원의 변동상태에 맞게 어업조직을 개선하여 철따라 밀려드는 물고기들을 많이 잡으며 특히 연안세소어업을 대대적으로 벌릴것이다.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탐색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선진적인 어로방법을 널리 적용하여 과학적인 어로체계를 세워야 한다. 현대적인 과학기재를 갖춘 해양관측선들과 전문탐색선들을 늘여 생산탐색과 전망탐색을 옳게 배합함으로써 물고기자원과 회유상태에 맞게 어로전을 기동적으로 할수 있게 하며 바다의 중층과 깊은바다어장을 적극 개척하도록 하여야 한다. 어구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려 어구를 다양하게 만들며 어구를 경량화하여 물고기잡이에서 생산성을 더욱 높이도록 할것이다.

동서해안의 넓은 천해와 간석지, 강하천, 호수, 저수지들을 리용하여 양식양어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6개년계획기간에 천해양식에서의 생산량을 2.3배로 늘일것이다.

수산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물고기가공사업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켜 잡은 물고기를 한마리도 허실함이없이 다 가공하여 근로자들에게 공급하도록 하는것이다. 6개년계획기간에 물고기랭동품은 3.4배, 물고기 통졸임과 병졸임은 2.9배, 물고기 젓갈품은 2.4배, 물고기가루는 2.5배로 그 생산을 늘일것이다.

모든 고기배들에 랭동시설을 갖추고 랭동운반선, 랭장, 랭동차를 많이 생산하며 생산지와 소비지들에 랭동공장들을 많이 건설하여 어장으로부터 소비지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랭동체계를 세우도록 할것이다.

지금 있는 물고기가공공장들과 고기배들에서 물고기가공품생산을 높이는 한편 전군중적운동으로 모든 군에 물고기가공시설을 꾸려 이르는곳마다에서 물고기를 공업적방법으로 가공하도록 할것이다.

## 4) 공업제품의 질제고

제품의 질을 높이는것은 현시기 공업발전의 절실한 요구이며 6개년계획기간에 공업부문에서 해결하여야 할 중심과업의 하나이다. 근로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제품의 질에 대한 검사사업과 사회적통제를 강화하며 필요한 조직기술적대책을 세워 모든 공업제품의 질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는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들을 원만히 보장하여 주는것이다. 기계설비와 소비품들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품종과 규격의 흑색금속자재, 칠감과 물감들, 화학약제, 수지재료들을 너넉히 대주도록 할것이다.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또한 기술공정을 완비하고 생산을 현대화하며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이빠진 공정들을 빨리 갖추고 모자라는 설비들을 보충하며 생산공정을 적극 기계화, 자동화하고 선진기술공정을 널리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지금 거의 모든 공업부문에서 약한 고리로 되여있는 원료의 예비처리, 제품의 전처리와 후처리 공정들을 완비하도록 할것이다. 현대과학기술의 요구에 맞게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들을 끊임없이 완성하며 필요한 시험분석설비들과 계측, 계량 수단들을 갖추어 모든 생산공정이 엄격히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원료관리와 제품관리를 개선하는것은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석탄저장고, 저광사, 내화물창고를 비롯한 원자재창고들과 완제품창고들을 빨리 갖추도록 하며 원료와 제품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관리하는 정연한 체계를 세울것이다.

포장재생산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며 포장방법을 개선하여 제품포장의 락후성을 빨리 없앨것이다.

지금 있는 크라프트지공장의 생산능력을 완전히 리용하며 크라프트지생산을 늘이고 버짚이 많이 나는 지대들에 주름판지공장들을 꾸려 주름지합생산을 빨리 늘이며 지방종이공장들을 많이 꾸려 식료포장종이를 비롯한 포장종이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일것이다. 폴리에틸렌수지를 많이 생산하여 누기를 받는 화학제품, 수산물, 식료가공품, 의약품들을 포장하도록 하며 이르는곳마다에 나무통, 오지단지, 사기단지 생산을 널리 조직하여 지방의 포장재수요를 지방자체로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식료공업이 발전하는데 따라 빨리 늘어나는 여러가지 유리병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마다 유리병생산 공장을 건설하며 6개년계획기간에 유리병생산을 3.7배로 늘일것이다. 철재포장재, 알루미니움박지, 석도금판, 세로판지 생산기지도 새로 꾸릴것이다.

포장방법을 개선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릴것이다. 지금 생산하고있는 포장용기들의 불합리한 기술규정들을 고치고 제품에 따라 진공포장과 색소포장도 하며 식료가공품의 소포장비중을 훨씬 높이도록 할것이다.

제품포장의 문화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상표의 질을 높여야 한다. 철판인쇄, 세로판인쇄, 수지막인쇄, 알루미니움박지인쇄를 비롯한 상표인쇄설비들을 갖추어 상표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도록 할것이다.

수송도중에 제품이 부패변질되거나 파손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수수단들을 마련하며 수송조직을 더욱 개선하도록 할것이다. 유개차를 많이 생산하고 랭동, 랭장 화차와 통풍화차, 랭동자동차 생산을 늘이며 량곡과 세멘트수송을 위한 전용화차들을 생산하여 무포장수송도 발전시킬것이다. 식료품수송의 위생조건과 기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송조직을 더욱 개선할것이다.

## 3. 농촌경리

농촌경리부문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은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천명된 방침에 따라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며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데 있다.

**농산업:** 농업생산의 기본인 알곡생산에 큰 힘을 넣어 1976년에 알곡생산량을 700만~750만톤 그 가운데서 벼는 350만톤 이상에 이르게 할것이다.

남새생산을 늘여 근로자들에게 사철 남새를 떨구지 않고 넉넉히 공급하도록 하며 공예작물생산도 늘일것이다. 기름원료를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콩주작면적을 늘이고 그 재배기술을 발전시키며 해바라기, 깨, 아주까리를 비롯한 유지작물을 많이 심도록 할것이다. 아마를 비롯한 섬유작물과 담배, 박하를 비롯한 기호작물생산도 늘일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경리부문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은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는것입니다.》**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함으로써 1976년에 알곡작물의 정당수확고를 논벼는 5.3톤, 강냉이는 4.2톤, 콩주작은 2.3톤, 남새는 100톤이상의 수준에 이르도록 할것이다.

농업생산을 집약화하기 위하여 밭관개를 널리 하여야 한다. 이미 마련하여 놓은 관개시설들을 잘 정비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6개년계획기간에 2모작이 가능한 지대들에서 새로 10만정보의 밭에 분수식관수체계를 실시하며 20만정보의 밭에 고랑식관수 또는 뜨락또르에 의한 강우식관수를 하도록 할것이다.

큰물피해가 심한 대동강, 청천강, 압록강, 두만강, 성천강, 례성강들과 중소하천들에서 강하천정리사업을 널리 하여 농경지와 농작물을 더잘 보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더욱 다그쳐야 한다. 1976년에 정보당 화학비료시비량을 한톤이상의 수준에 이르게 하며 과학적인 시비체계를 세워 비료의 효능을 더욱 높이도록 할것이다. 효능이 높은 여러가지 살초제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농촌에서 가장 어렵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의 하나인 김매는 일을 화학의 힘으로 하며 살초제가 많이 생산되는데 따라 논벼를 직파재배하는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할것이다. 살충제공급량을 늘여 농작물을 병해충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도록 할것이다.

토지의 비옥도를 높이기 위한 토지개량사업도 널리 할것이다.

농작물의 육종 및 채종 기술을 발전시켜 일찍 여물고 풍수해와 병해충에 잘 견디면서도 수확이 높은 논벼들과 2모작농사에 맞는 올계통의 밀, 보리, 강냉이를 비롯한 알곡작물품종들과 생산에서 계절성을 완전히 없앨수 있는 남새품종, 수확이 높은 공예작물품종들을 많이 길러내여 퇴화된 모든 작물의 품종들을 우량품종들로 갱신하도록 하여야 한다. 유일적인 종자 생산 및 공급체계를 세우며 국가집중채종지구들과 중요농산지대들에 현대적인 종자처리공장들을 건설하여 종자들을 공업적방법으로 처리하여 공급하도록 할것이다.

새 땅을 얻기 위한 간석지개간사업을 적극 밀고나갈것이다. 6개년계획기간에 온천, 월도, 홍건도, 다사도를 비롯하여 관개할수 있는 지대들에 힘을 넣어 3만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도록 할것이다.

6개년계획기간에 농촌경리부문에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은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는데 있다.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조건과 토양조건, 작물재배방법에 맞는 물논뜨락또르, 소형뜨락또르, 경사지용뜨락또르와 벼이앙기, 벼직파기, 만능파종기, 벼수확기, 맥류수확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련결농기계들을 많이 창안제작할것이다. 6개년계획기간에 농촌경리부문의 뜨락또르대수는 4.2배, 자동차대수는 2.5배로 늘일것이다. 뜨락또르와 련결농기계들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논밭갈이로부터 씨뿌리기, 모내기, 김매기, 비료치기, 농약뿌리기, 가을걷이, 마당질, 낟알말리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농산작업을 기계화하며 특히 논벼직파재배와 밭2모작재배에서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1976년까지 종합적기계화의 면적을 50만정보이상에 이르게 하여야 한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토지건설을 대대적으로 하여야 한다. 농촌에 불도젤과 토지정리용 기계설비들을 많이 보내주어 6개년계획기간에 20만정보의 논밭을 새로 정리할것이다.

알곡생산을 계계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중요알곡생산지대를 잘 꾸려야 한다.

6개년계획기간에 우리 나라에서 중요곡창지대의 하나인 황해남도를 200만톤의 알곡을 생산할수 있는 알곡생산지대로 튼튼히 꾸릴것이다. 이를 위하여 황해남도에 농기계를 비롯한 영농자재들을 더 많이 보내주며 농업생산과 농산물처리를 위한 공업토대들을 빨리 마련하도록 할것이다.

**축산업:** 이미 마련된 축산업의 토대를 튼튼히 하며 축산업을 현대화, 집약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축산물생산을 빨리 늘여야 한다. 1976년에 고기는 40만톤, 알은 30억개, 젖은 6만톤, 양털은 2,500톤 생산하도록 할것이다.

돼지기르기를 현대화, 집약화하며 돼지고기생산을 빨리 늘여야 한다. 평양에 1만톤, 함흥시, 청진시를 비롯한 중요도시들에 2,000~5,000톤, 매군에 500톤의 고기를 생산할수 있는 현대적돼지목장들을 새로 건설하며 협동농장들에서도 돼지고기생산을 집약화하도록 할것이다.

가금공장들에서는 사양관리를 개선하여 고기와 알생산을 늘이고 생산원가를 낮추도록 하는 한편 큰 도시와 로동자구들에 닭알공장과 닭고기공장들을 새로 건설할것이다.

축산업을 현대화, 집약화하는것과 함께 협동농장 작업반들과 농장원세대를 비롯한 집짐승을 기를수 있는 지대의 로동자, 사무원 세대들에서 전군중적운동으로 돼지와 닭을 길러 1976년에 협동농장 작업반마다 2~3톤의 고기, 농장원과 로동자, 사무원 세대마다 100키로그람이상의 고기와 1,000개 이상의 닭알을 생산하도록 할것이다.

산간지대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지방들에서 소, 양, 염소, 토끼와 같은 초식동물을 많이 기를것이다.

축산업을 집약화하기 위하여서는 배합먹이생산공급체계를 세워야 한다. 지금 있는 배합먹이공장들의 능력을 더욱 늘이고 새로운 배합먹이공장들을 많이 건설하며 항생제, 비타민, 미량원소를 넉넉히 대주어 필요한 영양요소들이 다 들어있는 배합먹이를 많이 생산하도록 할것이다.

종자집짐승에 대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종자집짐승생산기지를 많이 꾸리며 특히 고기생산을 집약화할수 있도록 생산성이 높은 종자돼지의 원종 및 종축 토대를 튼튼히 닦고 고기생산목장들에서 1대잡종에 의한 고기생산체계를 세우도록 할것이다.

축산부문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발전시켜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집짐승별 표준사양법을 만들며 먹이원천을 적극 탐구하여 그 생산을 늘이며 선진적인 육종사업과 인공수정법을 널리 적용하도록 할것이다.

수의방역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온갖 질병으로부터 집짐승들을 보호하며 특히 가금업부문에서 전국적인 방역체계를 철저히 세울것이다.

**과수업 및 잠업:** 6개년계획기간에 이미 마련하여놓은 과수원을 알뜰히 가꾸어 과일생산을 늘이는데 중심을 두면서 새로운 과수원을 더 많이 마련하여 1976년에 과수총면적은 30만정보, 과일총생산량은 80만~100만톤에 이르게 할것이다.

지금 있는 과수원들에서 비배관리를 잘 하는 한편 나무없는 산, 송충피해지, 휴경지들 가운데서 과일나무가 잘 자랄수 있는 지대를 골라 새로운 과수원을 계획적으로 마련할것이다. 과수원을 마련하는데서 수익성이 높은 사과를 위주로 하면서 올과일과 늦과일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앵두, 살구, 추리, 복숭아, 감, 대추와 같은 빨리 크고 열매가 일찌기 열리며 로력과 농약이 적게 드는 과일나무와 좋은 과일의 비중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과일생산이 빨리 늘어나는데 맞게 과일저장대책을 결정적으로 따라세워야 한다. 과수농장과 협동농장들에서 군중적으로 굴식 및 반지상식 저장고와 랭동식저장고를 비롯한 여러가지 저장시설들을 마련하여 과일을 더 많이 저장하도록 할것이다.

잠업부문에서는 뽕누에치기를 기본으로 하면서 아주까리누에치기, 가둑누에치기를 잘하여 1976년에 가서 고치생산량을 4만톤에 이르게 할것이다.

**경제림조성:** 전군중적운동으로 목재림, 섬유재지림을 비롯한 경제림을 많이 마련하며 특히 유지림을 대대적으로 조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미 마련하여 놓은 유지림을 잘 가꾸면서 산을 낀 모든 지방들에서 호두, 쪽가래, 분지, 잣, 초피와 같은 여러가지 기름나무를 대대적으로 심어 유지림면적을 빨리 늘이며 6개년계획기간에 황해남도와 강원도를 비롯하여 호두를 재배할수 있는 지역의 야산들에 3만정보의 호두나무림을 마련하도록 할것이다.

수삼나무, 플라타나스, 포플라, 황철나무, 이깔나무, 잠송과 같이 빨리 자라고 쓸모가 많은 나무들도 많이 심도록 할것이다.

조림에 필요한 묘목생산을 앞세워 그 수요를 충족시키며 조림지들을 잘 관리하여 활착률과 성장률을 높이도록 할것이다.

## 4. 운수 및 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송의 긴장성을 푸는것은 현시기 나라의 전반적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나서는 매우 절실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빨리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교통운수발전에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6개년계획기간에 철도화물수송량은 1.7배, 선박화물수송량은 1.7배, 자동차화물수송량은 1.8배로 각각 늘일것이다.

철도운수에서는 철도의 전기화와 내연화를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며 운수수단들의 고속화, 대형화, 중량화를 실현하고 철도운영을 보다 합리화하여 지금 있는 철도의 통과능력과 수송능력을 높이는데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새로운 철도건설도 진행하여야 한다.

6개년계획기간에 구배가 심하고 물동량이 많은 길주—혜산사이, 희천—고원사이, 청진—라진사이, 청진—무산사이의 철도를 새로 전기화하며 평양—개성사이, 평양—해주사이를 비롯한 서부지대 철도구간들을 내연화할것이다.

렬차가 더 많은 짐을 싣고 빨리 달릴수 있도록 전기기관차와 화차들의 구조를 개조하고 철길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6개년계획기간에 지금 있는 철길의 경량레루를 모두 중량레루로 바꾸고 250만정의 예비응력콩크리트침목을 생산하여 낡은 침목과 바꾸도록 할것이다. 렬차운행이 복잡하고 통과능력이 긴장된 구간들에 자동화를 실시하며 순환식직결수송을 널리 조직하여 직통화물렬차의 비중을 높이며 렬차편성능력을 높이고 렬차편성작업을 적극 자동화할것이다.

기관차, 화차들의 수리기지를 강화하고 교체식수리방법을 널리 적용하여 운수수단들의 리용률을 더욱 높이도록 할것이다.

인민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철도들을 더 건설할것이다.

이천—세포사이의 철도건설을 다그쳐 나라의 동부와 서부를 련결하는 새 철도를 빨리 개통하도록 하며 6개년계획기간에 동부와 서부를 련결하는 강계—혜산—무산사이의 새로운 철도건설을 밀고나갈것이다. 수교—과일읍—은률사이의 철도부설을 비롯하여 새 철도를 더 놓으며 황해남도일대의 협궤철도를 광궤로 개조하도록 할것이다.

철도의 긴장성을 덜어주며 나라의 전반적인 수송문제를 풀기 위하여 수상운수를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강하천수송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 6개년계획기간에 강하천선박수송량을 늘일것이다. 평양—남포, 만포—삭주를 비롯하여 이미 운영하고 있는 강하천배길들을 정비하고 넓히면서 6개년계획기간에 평양—순천, 사리원—남포사이를 비롯한 200여키로메터의 배길을 새로 개척하며 이에 따라 새로운 포구들을 널리 꾸리도록 할것이다.

남포, 흥남 및 청진항을 비롯한 항들을 정비보강하여 연해화물수송량을 높이고 우리 나라 배에 의한 무역화물수송을 발전시켜야 한다. 연유수입량이 늘어나는데 따라 연유수송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두들을 건설하고 대형유조선에 의한 연유수송량을 빨리 늘이며 부두와 가공지 및 중요소비지사이에 송유관으로 원유를 수송하기 위한 대책도 세울것이다. 선박척수가 많아지고 화물취급량이 늘어나는데 맞게 항과 포구들에서 구내운반수단들을 보강하고 적재 및 저장 시설들을 더욱 늘일것이다.

화물자동차대수를 늘이고 그 실동률을 높이며 화물이 집중되는 도시들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군소재지들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수송대를 내오며 중요도시들에 먼거리자동차수송사업소들을 새로 조직하여 자동차화물수송량을 늘일것이다. 6개년계획기간에 자동차부속품공장과 자동차수리공장들을 새로 꾸려 자동차수리기지와 자동차부속품생산을 결정적으로 강화할것이다. 자동차운수가 발전하는데 맞게 도로와 교량들을 보수정비하며 포장도로구간을 늘일것이다. 새로운 전망계획기간에 평양시를 중심으로 반경 80키로메터, 도소재지를 중심으로 반경 40키로메터구간의 도로들과 군소재지도로들을 먼저 포장하고 점차 모든 도로들을 다 포장하도록 하며 새로운 도로들을 더 건설할것이다.

려객수송을 더욱 원활히 보장하기 위하여 려객자동차대수와 로선을 늘이고 중요도시들에 무궤도전차선로를 새로 늘이며 특히 6개년계획기간에 뻐스로선을 더 늘여 모든 농촌리에 뻐스가 들어가도록 할것이다.

짐을 싣고부리는 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작업량이 많은 철도역과 부두들에서 산적화물과 무거운 화물을 비롯한 다량화물을 싣고 부리는 일을

완전히 기계화하며 이동식기중기를 널리 리용하여 기계화수준이 비교적 낮고 물동량이 적은 중간역들과 크지 않은 공장,기업소들의 전용선 그리고 동력이 없는 작업장들에서 짐을 싣고부리는 작업을 기계화하도록 할것이다.

체신부문에서는 늘어나는 통신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며 방송출력을 높이고 온 나라의 텔레비죤화를 다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6개년계획기간에 중앙과 도 사이에 초단파중계통신을 실시하고 도와 군 사이에 반송회선에 의한 다중화를 추진하며 중요기업소들을 중앙과 직통시키고 군체신소들과 중요 기관, 기업소들의 구내전화의 자동화를 실현할것이다.

지금 있는 방송국들의 출력을 더 높이며 소출력방송국들을 더 많이 배치하도록 할것이다.

텔레비죤중계체계를 세워 1976년에 텔레비죤방송의 포괄구역을 주민세대의 90%까지 넓히도록 할것이다.

## 5. 기본건설

기본건설부문의 중심과업은 기본건설투자의 방향과 건설대상의 선후차를 옳게 규정하고 건설을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진행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정확히 관철하며 건설에서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고 건설기간을 줄여 투자의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이는데 있다.

6개년계획의 중심과업으로부터 출발하여 국가기본건설투자의 78%는 생산적건설에, 22%는 비생산적건설에 돌리며 기본건설투자총액가운데서 공업건설에 49%, 농업건설에 18%, 운수건설에 9%를 돌릴것이다. 비생산적건설투자의 많은 몫을 주택, 학교, 유치원과 탁아소 건설에 돌리며 과학연구사업을 위한 건설에도 상당한 몫을 돌릴것이다.

이미 마련한 경제토대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도록 살을 붙이고 보강하며 지금 하고있는 중요대상들의 건설을 빨리 끝내는데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제발전을 위하여 절실히 필요한 새로운 대상들을 건설하도록 할것이다. 새로운 건설을 한꺼번에 많이 벌려 놓지 말고 섬멸전의 방법으로 한개 대상씩 완공하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북창화력발전소와 서두수발전소, 웅기화력발전소, 개천발전소, 베아링공장, 원유가공공장과 석유화학공장, 김책제철소의 강철직장 및 압연직장과 같은 중요대상들에 건설력량을 집중할것이다.

기본건설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기본건설부문에서 계획화수준을 높이고 건설계획을 세부대상별로 면밀히 짜며 대상설계와 건설자재를 종합적으로 대주는 정연한 체계를 세울것이다. 건설계획화에서 연료와 원료조건, 수송조건, 공업용수, 후방시설, 로력원천과 같은 여러가지 기술경제적조건들을 세밀히 따지고 종합적으로 타산하여 건설대상을 정하도록 하며 필요한 대상들은 반드시 중간시험공정을 거쳐 계획에 예견하는 엄격한 제도를 세울것이다.

설계일군대렬을 늘이고 설계작성을 적극 전문화하며 표준설계와 규격설계를 널리 적용하여 설계를 시공에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설계작성에서 허식과 랑비를 없애고 설계 및 기술 과제심사사업을 개선할것이다.

기본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는 건설의 공업화수준을 높이는데 있다. 조립식건설의 비중을 더욱 높이고 미끄럼식건설방법을 널리 적용하며 건설작업을 적극 기계화하도록 할것이다.

주택건설과 공공건물건설은 물론 산업건설에서 조립식건설의 비중을 훨씬 높이며 큰 건설장들에서 확대식조립의 비중을 더욱 높일것이다. 건설부재를 대형화, 경량화하며 그 규격화를 적극 실현하여야 한다. 주택과 공공건물 건설에서 간막이부재와 통방부재를 비롯한 대형부재들과 다겹부재, 거품부재, 광재부재와 같은 경량부재들을 널리 적용하며 산업건설과 공공건물건설에서 대형예비응력콩크리트부재를 적극 리용할것이다. 지금 있는 부재공장들의 생산능력을 높이는 한편 청진, 남흥지구를 비롯하여 큰 산업건설지구들에 대규모부재생산기지들을 꾸리며 석탄재를 쓰는 경량소결골재공장과 부석, 모래를 쓰는 씨리카트부재공장들을 널리 건설할것이다. 부재가 대형화되는데 따라 부재운반수단들도 대형화하도록 할것이다.

고층주택, 공공건물을 비롯한 현대적고층건물건설에서 미끄럼식건설방법을 널리 적용하여 건설속도와 건설물들의 질을 높이도록 할것이다.

현대적이고 능률적인 건설기계들을 더 많이 생산보장하며 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 건설작업을 적극 기계화함으로써 건설속도를 높이며 건설자들의 힘든 로동을 덜어주어야 한다. 로공, 운반, 상하차, 미장을 비롯한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건설작업의 기계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건설장들을 규모있게 꾸리고 보조작업들까지 적극 기계화하며 중요건설장들에서 굴착, 매몰, 정지, 상하차작업을 점차 종합적으로 기계화하도록 할것이다.

건설물의 질을 높이는것은 나라의 만년대계와 관련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건축공학과 건설기술을 발전시키고 질좋은 건재들과 건구들을 널리 쓰며 시공조직을 개선하고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제도를 강화하여 건설물의 질을 더욱 높이도록 할것이다.

## 6. 교육, 과학, 문화

6개년계획기간에 교육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빨리 전진하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요구에 맞게 기술자, 전문가 양성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나라의 인테리대군을 마련하며 전반적기술의무교육의 질을 더욱 높이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육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기술자, 전문가의 대부대, 나라의 인테리대군을 마련하는것입니다.〉**

6개년계획기간에 60여만명의 기술자, 전문가들을 새로 양성하여 1976년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일하는 기술자, 전문가 수를 100만명이상에 이르게 할것이다.

기술자, 전문가 양성에서는 기계, 석탄, 광업, 야금, 화학을 비롯하여 당면한 인민경제발전을 위하여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문의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면서 전자 및 자동화공학, 전자계산장치, 항공력학, 로케트공학, 순금속학을 비롯한 최신과학기술부문의 기술자, 전문가들을 체계적으로 길러내도록 하며 특히 새로 창설되는 공업부문의 관리운영을 담당할 기술자들을 전망성있게 양성할것이다.

대학 및 고등기술학교들과 그 주간학생수를 늘이면서 공장대학 학생수와 야간 및 통신 학생수를 많이 늘일것이다. 자동화대학, 선박건조대학, 과일대학, 계획경제대학을 비롯한 새로운 대학들을 내오며 고등기술학교수를 늘이고 교종별 배치를 합리적으로 할것이다.

기술의무교육에서 일반기초기술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중학교졸업생들이 자동차나 뜨락또르를 운전할수 있도록 중학교들에서 학생들에게 자동차, 뜨락또르의 기본원리와 그에 대한 운전 및 조작기술을 가르쳐주도록 할것이다.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6개년계획기간에 10년제기술의무교육으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갖출것이다.

교육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야 한다. 6개년계획기간에 보통교육부문의 학교는 해마다 5,000교실이상씩 건설하며 지금 있는 대학들을 확장하고 새로운 대학들을 건설하여 대학들의 교수교양조건을 더잘 마련하여줄것이다. 과학의 전당인 김일성종합대학건설을 다그쳐 끝낼것이다. 각급 학교들의 실습 및 실험조건들을 더잘 갖추어주며 학교의 후생시설들도 더욱 완비할것이다.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탁아소와 유치원들을 많이 건설하며 중요도시들에는 주탁아소와 주유치원을 널리 운영하여 가까운 앞날에 우리 나라 모든 지역의 학령전어린이들을 다 국가와 사회적부담으로 키우도록 할것이다.

과학기술부문에서는 이미 마련하여 놓은 경제토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우리 공업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며 기술혁명을 더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들을 적극 개척하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내화물의 질을 높이고 품종을 늘이기 위한 연구사업, 촉매들의 활성을 높이고 수명을 늘이기 위한 연구사업, 광석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며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유가금속들과 부산물들을 모조리 회수리용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비롯하여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를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하여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과학기술력량을 집중할것이다.

국내자연부원을 조사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우리 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적극 밀고나갈것이다. 아직 우리 나라에서 찾아내지 못한 광물자원들을 빠른 시일안으로 찾아내고 인민경제발전과 국방력강화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광종들을 더욱 늘이며 품위낮은 광석과 석탄을 리용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도록 할것이다. 석유화학에 기초한 유기합성공업부문들을 창설하며 알루미니움을 비롯한 경금속생산기지를 창설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문제들을 빨리 해명하며 우리 나라 원료에 의한 내산, 내열 강들과 전자공업, 반도체공업, 원자력공업에 쓰이는 순도가 높은 금속과 순금속들을 얻어내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적극 밀고나갈것이다.

기술공학 특히는 기계공학과 전자공학의 발전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 력학, 열공학을 비롯한 기계공학의 기초리론분야를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며 우리 나라에 창설된 전자공업의 토대를 튼튼히 하고 더욱 발전시키며 여러가지 전자재료와 전자기구들을 생산하고 자동화요소들을 적극 개발하며 자동화리론, 자동화방법에 대한 연구사업을 강화할것이다.

자체의 원료와 기술로 원자력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을 계속 정력적으로 진행하며 방사선동위원소와 방사선을 인민경제 여러부문에 리용하는 분야에서 이룩된 과학연구성과들을 더욱 확대하도록 할것이다.

방대한 토지건설 및 간석지개간을 비롯한 대자연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며 국토를 종합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연구사업, 인민경제발전의 전망적요구에 맞게 새로운 동력자원들을 개발리용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체계적으로 할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당면한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일뿐아니라 인민경제의 장래발전과 나라의 만년대계를 위한 중대한

사업이다. 과학연구기지들을 튼튼히 꾸리며 과학연구기관들에 중간실험공장들을 잘 꾸려주고 실험설비와 실험기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주며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온갖 조건을 더잘 지어주도록 할것이다.

문학예술부문에서는 문화시설들을 늘이고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여 근로자들의 문화적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6개년계획기간에 과학영화촬영소를 건설하고 예술영화촬영소를 더잘 꾸려 광폭예술영화를 비롯한 여러가지 영화를 많이 창작하도록 하며 극장과 영화관, 문화회관들을 새로 건설하며 특히 1972년까지 모든 협동농장들에 고정영사시설들을 갖추어주도록 할것이다.

6개년계획기간에 인쇄시설들을 현대화하고 확장하여 교과서와 도서, 신문, 잡지 발행부수를 훨썬 늘이며 그 질을 높일것이다.

## 7. 인민생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기 인민생활을 높이는 분야에서 우리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빨리 없애는것입니다.〉**

6개년계획기간에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높이면서 특히 농민들의 수입을 늘이고 농촌주민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릴것이다.

전망계획기간에 국민소득을 1.8배로 높일것이며 그에 따라 근로자들의 실질수입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조치들을 취할것이다.

6개년계획기간에 전반적으로 소비품의 값을 30%이상 낮추며 천, 신발을 비롯하여 근로자들이 많이 쓰는 대중소비품의 값은 50%이상 낮출것이다.

1971~1976년기간에 로동자, 사무원들의 로임을 전반적으로 올리고 낮은 로임을 받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로임을 훨썬 높여 우리 나라에서 로동자, 사무원들의 월평균 로임수준을 90원에 이르게 하며 1976년에 벌방지대는 물론 산간지대에서까지 협동농장원들의 세대당 화폐수입을 평균 1,800원이상에 이르게 할것이다.

6개년계획기간에 사회문화시책비를 1.5배로 늘여 더 많은 근로자들이 무료교육, 무상치료, 유급휴가의 혜택을 받도록 할것이다.

근로자들의 살림집문제를 더욱 원만히 풀도록 하기 위하여 6개년계획기간에 도시와 농촌에 100여만세대의 문화주택을 건설하며 이미 지어놓은 집들을 제때에 수리하고 알뜰히 관리하도록 할것이다.

상하수도시설을 더 늘여 근로자들의 물에 대한 수요를 더욱 원만히 보장하며 특히 농촌수도화를 실현하도록 할것이다. 물이 적고 수질이 나쁜 지역과 먹을 물이 먼데 있는 농장과 부락들에 먼저 수도를 놓으며 점차 모든 농장과 부락에 수도를 놓도록 할것이다.

평양시중앙난방공사를 빨리 끝내고 청진시와 송림시, 라진시를 비롯한 중요도시들에 중앙난방시설을 하여 인민들이 더 편리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할것이다.

생산이 늘어나고 근로자들의 구매력이 높아지는데 맞게 상품공급사업을 개선하여야 한다. 6개년계획기간에 소매상품류통액은 2배이상으로 늘이며 근로자들에게 가공된 식료품과 질좋은 여러가지 겨울용 상품, 텔레비존수상기를 비롯한 문화용품을 더 많이 공급할것이다.

상업망을 늘이고 합리적으로 포치하며 상품공급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특히 농촌상점들을 잘 꾸리며 농민들의 생활에서 절실히 필요한 상품들을 농촌에 집중적으로 공급하도록 할것이다.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 나서는 절박한 과업의 하나는 남새, 과일, 고기, 물고기를 비롯한 부식물의 지역적, 계절적 편중공급현상을 없애는것이다. 여러가지 부식물을 더 많이 생산하는것과 함께 그 저장 및 가공대책을 잘 세우며 지역별 교류를 널리 하여 모든 지역 근로자들에게 남새, 과일, 고기, 물고기를 비롯한 부식물들을 사철 떨구지 않고 골고루 공급하도록 할것이다. 특히 탄광, 광산을 비롯한 산간오지대들에 대한 상품공급체계를 바로 세우고 직송공급의 비중을 높이며 이 지대들에 필요한 랭동 및 저장 시설들을 먼저 갖추어주고 자동차와 랭동차도 먼저 대주어 상품공급을 잘 하도록 할것이다.

도시의 편의봉사시설들을 늘이고 현대화하는 한편 협동농장들에 세탁소와 양복점, 목욕탕, 리발소들을 잘 꾸리며 여러가지 일용품들의 수리소들을 내오고 필요한 부속품과 자재를 계획적으로 대주어 농촌주민들에 대한 편의봉사를 결정적으로 개선할것이다.

인민보건사업을 발전시켜 근로자들의 건강을 더욱 증진시켜야 한다. 6개년계획기간에 예방치료질단을 1만개 더 내오고 병원침대수를 1.4배로 늘이며 의사 및 준의수를 훨썬 늘여 의사담당구역제를 더욱 강화하도록 할것이다. 주민들에게 체계적인 전문과적의료방조를 줄수 있도록 전문병원과 전문병동을 더 많이 꾸릴것이다. 특히 군병원들에 전문과들을 내오고 구급차들을 더 많이 보장하여주어 왕진치료를 강화할수 있게 하며 농촌녀성들을 위한 산원과 산과병동을 많이 내오고 농촌진료소들을 병원화하며 리마다 아동병동을 꾸려 농촌근로자들에 대한 의료봉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획기간에 지금 있는 료양소들을 확장하고 우리 나라의 이름있는 약수와 온천 지구에 료양소들을 새로 지어 그 수용능력을 훨씬 늘일것이다.

## 8. 국방건설

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과 함께 날로 격화되는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국방건설을 다그치며 전쟁준비를 더욱 철저히 갖출것이다.

군수공업을 발전시켜 군수품생산을 더욱 늘이고 일단 유사시에 전선과 후방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중공업제품, 경공업제품, 농산물을 중단없이 생산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갖추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강화하여 더 많은 전략물자의 예비를 마련하도록 할것이다.

* *

6개년계획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전진으로 되는 웅대한 계획이며 생산과 건설의 매우 빠른 속도를 예견하는 긴장한 계획이다. 이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당 및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탁월한 경제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실천활동에 구현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계속 높이 불러일으키고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의 커다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할수 있도록 조직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경제지도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를 보장하는 기본조건이며 방대한 6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과 위대한 생활력이 확증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경제관리운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기업관리를 정규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는 것이다. 지도일군들은 경제지도와 기업관리에서 정치사업을 철저히 앞세워 언제나 당적, 정치적 방법으로 군중을 발동하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혁명적자각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경제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며 온갖 창의창발성을 다 내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사업에 대한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를 옳게 보장하는것은 대안체계의 가장 본질적인 요구이며 모든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이다. 공장, 기업소 당위원회들을 지도일군들과 현장에서 직접 생산투쟁을 하는 핵심로동자들을 옳게 배합하여 튼튼히 꾸리며 생산전반을 지휘하고 감독하며 통제하며 그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는 집체적령도기관으로서의 당위원회의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도록 할것이다. 이와 함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발기에 의하여 새로 조직된 집체적협의기관인 성, 중앙기관당지도위원회를 간부들과 현장에서 단련된 우수한 핵심당원들로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여 생산계획문제, 생산조직과 지도문제, 계획수행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제때에 집체적으로 토의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움으로써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계획을 어김없이 완수 및 초과완수하도록 할것이다.

당이 내놓은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대안의 사업체계를 관철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지구계획위원회들과 국가계획부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며 계획화방법론을 끊임없이 완성하여 인민경제의 종합적균형과 함께 부문사이, 지역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고 공장, 기업소 생산활동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서로 잘 맞물리도록 할것이다. 계획작성에서 경제기술적타산을 더욱 과학적으로 하며 계획수행에 대한 통제와 특히 경영활동의 질적지표들과 기술발전계획수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나서는 절실한 문제는 지도일군들의 경제지식수준을 높이는것이다. 국가, 경제 기관 일군들과 공장, 기업소 관리일군들속에서 혁명적인 학습기풍을 세우고 웃기관일군들이 아래일군들을 꾸준히 가르쳐주고 도와주어 모든 일군들이 우리 당의 경제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지식수준을 높이도록 할것이다.

나라의 로력사정은 의연히 긴장하며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6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나서는 매우 절박한 과업이다.

로력의 긴장성을 푸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여 로력을 절약하며 있는 로력을 가지고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직도 손로동이 남아있는데서는 빨리 기계화하고 기계화된데서는 반자동화, 자동화하여 한사람당 생산액을 훨씬 높이도록 할것이다. 특히 일이 힘들고 로력이 많이 드는 채취공업을 비롯한 중공업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전당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농촌에 대한 기술적지원을 강화하여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할것이다.

로력배치사업과 로력조절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비생산부문과 간접부문의 로력을 줄여 생산부문과 직접부문 로력의 비중을 더욱 높이며 경공업을 비롯한 경로동부문에서 녀성로력을 널리 쓰고 거기에서 장정로력을 뽑아 중로동부문에 돌리기 위한 조절사업을 잘하도록 할것이다.

생산조직을 짜고들어 로력랑비를 없애고 로동시

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할것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자재와 예비부속품을 앞세우고 설계를 비롯한 기술준비를 앞세우며 로동자들의 모든 생산조건을 빈틈없이 갖추어 작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로동시간내에 최대한의 생산능률을 낼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앞세우고 소재와 반제품생산을 강화하여 원료와 자재를 생산에 확고히 앞세우며 자재공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협동생산규률을 강화하며 우에서 아래로 자재를 책임지고 현물로 날라다주는 기자재공급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생산자들속에서 자재절약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생산단위들에서 한달분이상의 자재와 석달분이상의 예비부속품을 마련하도록 할것이다.

모든 부문, 모든 생산단위들에서 설비관리를 잘하고 계획적예방보수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엄격히 지켜 설비사고를 미리 막으며 설비를 개조하여 그 생산성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속에서 낡은 기준과 공칭능력을 타파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갱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로동정량이 높아지는데 따라 근로자들의 로임도 높아지도록 로임조절사업을 잘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은 로동행정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입니다. 후방공급사업을 잘하여 근로자들이 로동과정에서 소모한 힘을 회복하고 충분히 휴식해야 앞에서 계속 높은 능률을 낼수 있는것입니다. 우리가 후방공급사업이 중요한 정치사업이라고 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은 근로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며 거기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릴것이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후방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부식물공급체계를 바로 세워 근로자들에게 남새, 고기, 물고기를 비롯한 부식물들을 넉넉히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의 살림집조건을 개선하며 특히 채취공업과 야금공업, 화학공업, 수산 부문을 비롯한 중로동부문과 유해로동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그들이 충분히 쉴수 있는 집을 보장하여 주도록 할것이다.

이와 같이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여 6개년계획기간에 로동생산능률을 공업부문에서는 1.7배, 기본건설부문에서는 1.4배로 높이며 공업생산장성의 70% 이상을 로동생산능률제고에 의하여 보장하도록 할것이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나라살림살이를 깐지게 꾸리며 절약투쟁을 강화하는것은 6개년계획에 예견된 생산과 건설의 긴장한 과제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원료와 자재, 자금을 비롯한 국가재산의 랑비- 없애며 그것을 애호절약하기 위한 사상투쟁을 있게 벌릴것이다. 각급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 자들 속에서 개인리기주의를 비롯한 자본주의사- 잔재를 뿌리뽑으며 모든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의 - 동재산에 대하여 참다운 공산주의적태도를 가지- 록 하기 위한 사상투쟁과 교양사업을 힘있게 벌- 것이다.

국가재산관리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할것이다

국가재산관리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 국가재산이 랑비되지 않도록 그 소비를 엄격히 - 산통제하며 특히 물자소비기준과 제품의 원가계- 을 바로세워 물자를 절약하고 원가를 낮추기 위- 투쟁을 강화하도록 할것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불합격품과 오작품생- 을 없애고 원자재를 종합적으로 리용하며 폐설- 과 부산물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하기 위한 조- 적, 기술적 대책들을 철저히 세우며 특히 공업용- 와 폐열을 회수하여 쓰기 위한 대책을 세워 전- 과 석탄, 건설비를 더욱 절약하도록 하여야 한다

6개년계획기간에 공업부문에서 생산물의 원가- 28%, 건설원가는 10% 낮출것이다.

사회주의건설을 더 빨리 다그치며 6개년계획- 높은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하여서-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무궁무진한 창조- 을 남김없이 동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 리마작업반운동을 새로운 현실에 맞게 더욱 심- 발전시켜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은 천리마작- 반운동을 계속 줄기차게 이끌고나감으로써 당원- 과 근로자들 속에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 는 하나를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끌며 나아가는 - 산주의적생활기풍을 널리 발양시키며 6개년계획- 기한전에 넘쳐완수하기 위한 집단적혁신운동의 - 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6개년계획의 수행은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 앞당기기 위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투쟁에 - 다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게 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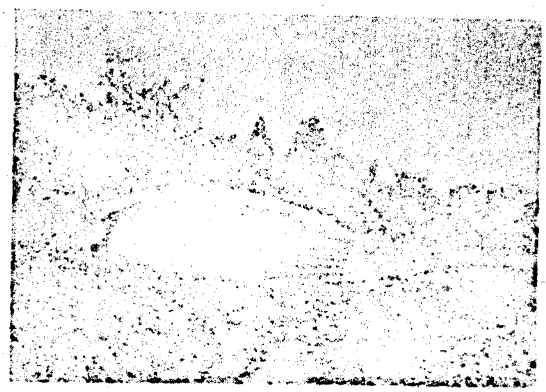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 매우 높다. 그들은 자기 세대에 맡겨진 숭고한 - 사적사명과 무거운 임무를 똑똑히 깨닫고있으- 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 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전투적강령을 기어코 - 행하고야말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대회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 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령도밑에 천리마의 - 엄한 대진군을 계속하여 6개년계획을 승리적으- 완수함으로써 이땅우에 조국의 통일과 후손만대- 번영을 위한 보다 튼튼한 밑천을 마련하여 놓으- 라는것을 굳게 믿는다.



조선혁명의 전투적참모부인 조선로동당과 영광스러운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확고하게 인도하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5년 2월말~3월초에 다홍왜회의와 같은 해 3월하순에 요영구회의를 소집하시고 반《민생단》투쟁의 미명밑에 조선혁명에 엄중한 해독을 끼친 대국주의자들과 사대주의자들, 종파분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폭로분쇄하시고 조선혁명의 주체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시여 혁명대렬의 통일단결을 수호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요영구회의에서 두만강연안에 창설되였던 유격근거지를 발전적으로 해산하고 조선인민혁명군이 조선과 남북만의 광활한 지대에 진출하여 일제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에로 넘어갈데 대한 새로운 군사전략적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사진은 다홍왜회의가 있었던 장소(우)와 요영구회의가 있었던 장소(오른쪽)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40년 8월 10일 소할바령회의를 여시고 민족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사진은 력사적인 소할바령회의가 열리였던 장소

# 김일성동지 혁명력사 주요년대표

| | |
|---|---|
| 1912. 4. 15 |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만경대에서 탄생 |
| 1917. 3. 23 | 김형직선생께서 《조선국민회》를 조직 |
| 1921. 겨울 | 김일성동지께서 팔도구소학교에 입학 |
| 1923. 봄 | 김일성동지께서 창덕학교에 편입 |
| 1925. 초 |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광복의 큰 뜻을 품으시고 압록강을 건너 동북으로 가심 |
| 1925. 봄 | 김일성동지께서 무송 제1소학교에 편입 |
| 1926. 여름 | 김일성동지께서 화성의숙에 입학 |
| 1926. 가을 | 김일성동지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ㅌ.ㄷ)을 조직. 청년들과 학생들 속에서 맑스-레닌주의 보급 |
| 1926. 겨울 | 김일성동지께서 《새날소년동맹》을 조직. 신문 《새날》을 발간 |
| 1927. 봄 | 김일성동지께서 길림육문중학교에 입학 |
| 〃 |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길림소년회》를 조직 |
| 1927. 여름 |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려길학우회》를 《조선인류길학우회》로 고치시고 지도 |
| 〃 | 김일성동지께서 《ㅌ.ㄷ》성원을 중심으로 《반제청년동맹》을 조직 |
| 〃 | 김일성동지께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조직 |
| 1928. | 김일성동지께서 반동교원들과 군벌을 반대하는 동맹휴학을 조직지도 |
| 1928. 10~11 | 김일성동지께서 일제의 만주침략의 교량인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과 일화배척투쟁을 조직지도 |
| 1929. 가을~1930. 봄 | 김일성동지께서 길림감옥에서 옥중생활 |
| 1930. 여름 |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맑스-레닌주의적혁명로선 제시. 항일무장투쟁을 위하여 조선혁명군을 조직. 로동자, 농민들 속에서 혁명활동을 강화 |
| 〃 | 김일성동지께서 장춘현 카룬, 이통현 고유수 일대에서 농촌혁명화를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 |
| | 잡지 《볼쉐위크》를 발간 |
| 1930. 가을 | 김일성동지께서 회덕현 오가자일대에서 농촌혁명화를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 잡지 《농우》를 발간 |
| 1931. 초 | 김일성동지께서 공청을 비롯한 혁명조직들을 복구하시고 혁명력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 |
| | 길동지구 공청사업을 적극 지도 |
| 1931. 봄 | 김일성동지께서 지하혁명활동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 안도를중심으로 한 지하혁명조직들의 활동을 지도 |
| 1931. 가을 | 김일성동지께서 안도에서 소집된 당조직 및 군중단체 책임자회의를 조직지도 |
| 1931. 11 | 김일성동지께서 항일유격대결성을 위한 투쟁을 강력히 추진. 명월구회의 김일성동지께서 중국인 《반일부대》들과의 반제공동전선형성을 위한투쟁을 조직진행 |
| 1932. 4. 25 |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유격대를 창건. 우리 나라에서 반일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 |
| 1932. 여름~ | 김일성동지께서 두만강연안에 혁명근거지를 창설. 근거지내에서 제반 민주주의적개혁을 실시 |
| 1933. 3 | 김일성동지께서 공청확대회의에서 청년공작원들의 임무에 대하여 연설 |
| 1933. 3. 31 | 왕칭현 쟈피거우전투 |

| | |
|---|---|
| 1933. 봄 | 김일성동지께서 인민혁명정부로선 제시, 인민혁명정부수립 |
| 1933. 4 | 김일성동지께서 국제공산당 파견원을 접견하시고 주체적인 조선혁명운동발전에 관한 로선을 재천명 |
| 1933. 4. 17~19 | 소왕청방어전투 |
| 1933. 6 | 김일성동지에 의한 반제공동전선의 빛나는 실현. 반제공동전선형성에서 국제적모범창조 |
| 1933. 9. 6 | 동녕현성진공전투 |
| 1933~1934 | 김일성동지께서 유격근거지—해방지구방위를 위한 투쟁을 조직령도하시는 한편 항일유격대를 친솔하시고 두만강연안에서 유격활동을 강화 |
| 1933. 12~1934. 1 | 소왕청유격근거지방어전투 |
| 1934. 3 | 김일성동지께서 항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편성 |
| 1934. 6. 26~28 | 라자구전투 |
| 1934. 말~1935. 초 |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제1차북만원정 |
| 1935. 2. 24~3. 3 | 김일성동지께서 다홍왜회의를 지도 |
| 1935. 3. 하순 |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의 주체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시여 혁명의 난국을 극복타개. 요영구회의를 지도<br>혁명대렬의 통일단결의 실현 |
| 1935. 6 | 김일성동지의 령솔하에 조선인민혁명군 적극적공세에로 이행 |
| 〃 | 동녕현 로흑산전투 |
| 1935. 6~1936. 1 |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제2차북만원정 |
| 1935. 7 | 녕안현 산동둔전투 |
| 1936. 2 |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남호두회의를 지도. 조선공산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 준비의 적극적추진 |
| 1936. 3 | 김일성동지께서 미혼진회의를 지도 |
| 1936. 5. 1~15 | 김일성동지께서 동강회의를 지도 |
| 1936. 5. 5 |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광복회를 창건<br>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작성하신 조선혁명의 불멸의 기치 조국광복회 10대강령, 규약, 창립선언을 발표 |
| 1936. 6 | 무송현 서강전투 |
| 1936. 8. 17 | 무송현성진공전투 |
| 1936. 여름 | 김일성동지께서 백두산근거지를 창설.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일대앙양 |
| 1936. 9. 1~2 | 장백현 대덕수, 소덕수전투 |
| 1936. 12. 1 |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광복회기관지 《3.1월간》을 발간 |
| 1937. 1. 11 | 장백현 회사즈거우전투 |
| 1937. 2. 14 | 장백현 홍두산전투 |
| 1937. 2. 20 | 장백현 도천리전투 |
| 1937. 2. 26 | 장백현 리명수전투 |
| 1937. 3 | 김일성동지께서 서강회의를 지도 |
| 〃 | 몽강현 소탕하전투 |
| 1937. 6. 4 | 조선인민에게 민족해방의 서광을 안겨준 력사적인 보천보전투 |
| 1937. 6. 5 | 구시산전투 |
| 1937. 6. 30 | 간삼봉전투 |
| 1937. 8 |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및 병사대회에서 연설 |
| 1937. 9 | 김일성동지께서 중일전쟁발발과 관련하여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 |

| | |
|---|---|
| 1937. | 김일성동지께서 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를 발표 |
| 1938. 4. 12 | 장백현 가재수전투 |
| 1938. 4. 26 | 림강현 6도구전투 |
| 1938. 4. 28 | 림강현 쌍산자전투 |
| 1938. 8 | 장백현 8도구 금광전투 |
| 1938. 11 | 김일성동지께서 남패자회의를 지도 |
| 1938. 12~1939. 3 | 고난의 행군. 김일성동지의 친솔하에 조선인민혁명군 압록강연안에로 재진출 |
| 1939. 4 | 김일성동지께서 북대정자회의를 지도 |
| 1939. 4. 26 | 장백현 15도구전투 |
| 1939. 5. 1 | 김일성동지께서 5.1절 경축대회에서 연설 |
| 1939. 5. 3 | 장백현 반절구전투 |
| 1939. 5. 18~23 | 무산지구전투에서 대승리 |
| 1939. 5~1940. 7 | 김일성동지의 천재적인 전략전술에 의한 조선인민혁명군의 대부대선회작전 |
| 1939. 6 | 화룡현 을기강전투 |
| 1939. 8 | 김일성동지께서 일제의 할힌골침공과 관련하여 명령발표 |
| 1939. 8. 23~24 | 대사하전투 |
| 1939. 12. 17 | 돈화현 륙과송전투 |
| 1939. 12. 24 | 돈화현 자신즈전투 |
| 1940. 1 | 안도현 한앙구전투 |
| 1940. 3. 11 | 화룡현 대마록구전투 |
| 1940. 3. 25 | 화룡현 홍기하전투 |
| 1940. 8 | 김일성동지께서 소할바령회의를 지도 |
| 1941. 6 | 김일성동지께서 쏘독전쟁개시와 관련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새로운 활동방침 제시 |
| 1941~1945. 상반년 | 김일성동지의 령솔하에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이 광활한 지역에서 소부대 유격활동과 정치공작을 강력히 전개. 정치, 군사적으로 무장대오를 강화. 민족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전개 |
| 1943. 3 | 김일성동지께서 현정세와 공산주의자들의 과업에 대하여 연설 |
| 1945. 8. 9 | 김일성동지의 친솔하에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이 쏘련군대와의 협동작전으로 일제침략자들에게 총공격개시 |
| 1945. 8. 15 |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위대한 승리. 일제의 패망. 조선해방 |
| |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신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개선 |
| 1945. 10. 10 | 김일성동지께서 조선공산당을 창건. 당의 정치로선과 조직로선 제시 |
| 1945. 10. 13 | 김일성동지께서 각 도당 책임일군들앞에서 《새 조선 건설과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 연설 |
| 1945. 11. 1 |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지도하에 당기관지 《정로》를 발간 |
| 1945. 11. 15 |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조직위원회 제2차확대집행위원회를 지도 |
| 1945. 11. 18 | 북조선민주녀성동맹 결성 |
| 1945. 11. 30 | 북조선직업총동맹 결성 |

| | |
|---|---|
| 1945.12.17~18 |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조직위원회 제3차확대집행위원회를 지도 |
| 1946. 1. 17 | 북조선민주청년동맹 결성 |
| 1946. 1. 31 | 북조선농민동맹 결성 |
| 1946. 2. 8 | 김일성동지의 인민정부로선의 빛나는 실현.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수립 |
| 1946. 3. 4 |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조직위원회 제5차확대집행위원회를 지도 |
| 1946. 3. 5 | 토지개혁법령 발포 |
| 1946. 3. 23 | 김일성동지께서 20개조정강 발표 |
| 1946. 5. 21 | 김일성동지께서 보통강개수공사착공식에 참가하시여 첫삽을 뜨심 |
| 1946. 6. 24 | 로동법령 발포 |
| 1946. 7. 22 |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결성 |
| 1946. 7. 30 | 남녀평등권법령 발포 |
| 1946. 8. 10 | 중요산업국유화법령 발포 |
| 1946. 8. 28~30 | 김일성동지께서 북조선로동당창립대회에서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의 창건을 위하여》 보고. 북조선로동당창립 |
| 1946. 9. 1 | 당기관지로서 《로동신문》, 잡지 《근로자》를 발간 |
| 1946. 9 | 남조선로동자들의 총파업 |
| 1946. 10 | 남조선에서 10월인민항쟁 |
| 1946. 11. 3 | 우리 나라에서 첫 민주선거 실시 |
| 1946. 11. 25 | 김일성동지께서 건국사상총동원운동—사상의식개변을 위한 투쟁을 전개할데 대한 방침 제시 |
| 1947. 2. 22 | 북조선인민위원회 조직.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 개시<br>김일성동지께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천명 |
| 1947. 3. 15 | 김일성동지께서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회의를 지도 |
| 1948. 2. 8 | 김일성동지께서 불패의 혁명무력—영웅적조선인민군을 창건 |
| 1948. 3. 27~30 | 김일성동지께서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를 지도 |
| 1948. 4. 20~24 | 김일성동지께서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들의 련석회의를 지도 |
| 1948. 9. 9 |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
| 1949. 2. 12~13 | 김일성동지께서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회의를 지도 |
| 1949. 6. 25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 |
| 1949. 6. 30 | 남북조선로동당 합동 |
| 1949.12.15~18 |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2차전원회의를 지도 |
| 1950. 6. 25 | 미제와 그 주구 리승만역도의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무력침공. 조국해방전쟁개시 |
| 1950. 6. 26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방송연설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하는 군사위원회를 조직 |
| 1950. 6. 28 | 서울해방 |
| 1950. 7. 8 | 김일성동지의 방송연설 《미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공을 단호히 물리치자》 |
| 1950. 7. 20 | 대전해방 |
| 1950. 10. 11 | 김일성동지께서 방송연설 |
| 1950. 11. 20 |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군 독로강군정간부회의를 지도 |
| 1950.12.21~23 |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를 지도 |

| | |
|---|---|
| 1951. 9~ | 1,211고지전투 |
| 1951. 11. 1~4 |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4차전원회의를 지도 |
| 1952. 2. 1 | 김일성동지께서 도, 시, 군 인민위원장 및 당지도일군련석회의에서 《현계단에 있어서의 지방정권기관들의 임무와 역할》에 대하여 연설 |
| 1952. 6. 21 | 김일성동지께서 락원기계공장을 현지지도 |
| 1952. 12. 15~18 |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를 지도 |
| 1953. 7. 27 |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조국해방전쟁에서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 미제의 패배 |
| 1953. 8. 3 | 김일성동지께서 강선제강소를 현지지도 |
| 1953. 8. 5~9 |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인 전후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제시. 당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를 지도 |
| 1953. 12. 18~19 |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7차전원회의를 지도 |
| 1954. 3. 21~23 |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3월전원회의를 지도 |
| 1954. 11. 1~3 |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11월전원회의를 지도 |
| 1955. 4. 1~4 |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를 지도 |
| 1955. 4 |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의 성격과 과업에 관한 테제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를 발표 |
| 1955. 12. 2~3 |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12월전원회의를 지도 |
| 1955. 12. 28 | 김일성동지께서 당선전선동일군들앞에서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연설 |
| 1956. 4. 23~29 |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를 지도 |
| 1956. 8. 1 |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 실시 |
| 1956. 8. 30~31 |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8월전원회의를 지도 |
| 1956. 12. 11~13 |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우리 당의 총로선—천리마운동 개시<br>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12월전원회의 |
| 1957. 4. 18~19 |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를 지도 |
| 1957. 10. 17~19 |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10월전원회의를 지도 |
| 1957. 12. 5~6 |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12월확대전원회의를 지도 |
| 1958. 3. 3~6 |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지도 |
| 1958. 6. 5~7 |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6월전원회의를 지도 |
| 1958. 8 |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협동화방침의 위대한 승리. 농촌경리의 협동화와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의 완성 |
| 1958. 9. 26~27 |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9월전원회의를 지도 |
| 1958. 10. 2 | 전반적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며 기술의무교육제를 준비할데 관한 법령을 발표 |
| 1958. 11. 20 | 김일성동지께서 전국 시, 군당위원회 선동원들을 위한 강습회에서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 연설 |
| 1959. 1. 5~9 | 전국농업협동조합대회 |
| 1959. 2. 23~25 |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2월전원회의를 지도 |
| 1959. 6. 27~30 |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6월전원회의를 지도 |
| 1959. 10. 14 | 전국지방산업 및 생산협동조합 열성자대회 |
| 1959. 12. 1~4 |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12월확대전원회의를 지도 |
| 1960. 2. 8 | 김일성동지께서 강서군 청산리당총회에서 《사회주의적농촌경리의 정확한 |

| | |
|---|---|
| | 운영을 위하여》 연설 |
| |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청산리 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 |
| 1960. 4. 19 | 리승만파쑈통치를 반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봉기. 리승만괴뢰정권붕괴 |
| 1960. 8.8~11 |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8월확대전원회의를 지도 |
| 1960. 12.20~23 |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12월확대전원회의를 지도 |
| 1961. 3. 20~22 |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3월전원회의를 지도 |
| 1961. 4. 7 |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의를 지도 |
| 1961. 9. 11~18 | 김일성동지께서 승리자의 대회, 단결의 대회—조선로동당 제4차대회를 지도 |
| 1961.11.27~12.1 |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2차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지도 |
| 1961. 12 | 김일성동지께서 대안전기공장과 숙천군에 대한 현지지도,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공산주의적지도관리체계 확립 |
| 1962. 3. 6~8 |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3차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지도<br>김일성동지의 결론 《당조직사업과 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
| 1962. 8. 7~8 | 김일성동지께서 지방당 및 경제일군 창성련석회의를 지도 |
| 1962. 12.10~14 |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원회의를 지도 |
| 1963. 5. 13~15 |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6차전원회의를 지도 |
| 1963. 9. 3~5 |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7차전원회의를 지도 |
| 1964. 2. 25~27 |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전원회의를 지도.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 |
| 1964. 6. 25~26 |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9차전원회의를 지도 |
| 1964.12. 14~19 |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0차전원회의를 지도 |
| 1965. 3. 25 |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발기밑에 조선농업근로자동맹창립 |
| 1965. 4. 14 |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를 발표 |
| 1965. 6.29~7.1 |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1차전원회의를 지도 |
| 1965. 10. 10 | 김일성동지께서 당창건 20주년 경축대회에서 《조선로동당창건 20주년에 제하여》 보고 |
| 1965.11. 15~17 |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2차전원회의를 지도 |
| 1966. 3.28~4.4 |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3차전원회의를 지도 |
| 1966. 4. 29 | 농업현물세제를 완전히 폐지할데 대한 법령 발표 |
| 1966. 10. 5~12 |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에서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에 대하여 보고.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 및 전반적세계혁명운동의 획기적발전을 위한 위대한 혁명로선 제시 |
| 1966. 11. 24 |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 발표 |
| 1967. 5. 4~8 |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를 지도 |
| 1967. 5. 25 | 김일성동지께서 당사상사업부문일군들앞에서 《당면한 당선전사업방향에 대하여》 연설 |
| 1967. 6.28~7.3 |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6차전원회의를 지도 |
| 1967. 8. 12 | 김일성동지께서 로작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를 발표 |
| 1967. 12. 16 |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강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를 발표 |

# 조선혁명의 승리에 관한 주체적인 맑스-레닌주의적 혁명로선을 천명한 력사적회의

## —력사적인 카륜회의 40돐에 즈음하여—

일찌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독자적으로 맑스-레닌주의의 길을 개척하시면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 봄 길림감옥에서 출옥하신후 옥중에서 무르익히신 조선혁명의 위대한 구상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카륜, 고유수 동지에 혁명활동의 중심지를 옮기시였다.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조선혁명을 위하여 옥중에서 쇠약해지신 몸을 돌보실 사이도 없이 정력적이며 적극적인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그이께서는 1930년 여름 카륜에서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 지도성원들의 회의를 소집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오래동안 구상하여 오신 조선혁명승리를 위한 맑스-레닌주의적 혁명로선과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적 형편과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라는것을 천명하시고 그 임무와 과업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조선민족이며 조선청년들이다. 우리 조선청년들은 아름다운 조국강토와 사랑하는 동포형제자매들이 일제에 의하여 짓밟히고 학대받는것을 앉아서 보고만 있을수 없다. 우리는 일제를 조국강토에서 몰아내고 조선을 해방하고 독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만 머물러있을수 없다.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무산대중을 억압착취하는 지주, 자본가놈들을 또한 그대로 둘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본주의제도를 전복하고 무산대중의 숙망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그런데 이 두가지 혁명과업은 서로 동떨어진것이 아니다. …무산혁명을 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달성해야 하며 다음에 조국땅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며 세계혁명도 수행해야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각 계급들과 계층들의 처지와 립장, 계급적력량관계를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수행에서 혁명의 동력은 로동계급을 비롯하여 그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자인 광범한 농민과 소자산계급이며 민족부르조아지와도 련합할수 있다고 가르치시였으며 혁명의 대상은 일본제국주의 및 그와 결탁한 지주, 예속자본가, 친일파, 민족반역자이라고 명백히 밝히시였다. 그리고 우리의 혁명과업은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을 해방하며 우리 나라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거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나아가서 세계혁명을 수행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 현실을 맑스-레닌주의적으로 심오하게 분석하시고 조선혁명의 성격과 임무, 동력과 투쟁대상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규정하심으로써 우리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에게 투쟁의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성격과 과업을 명시하시였을뿐만아니라 그 실현을 위한 주체적혁명로선—항일무장투쟁로선을 내놓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의 당면목적은 일본제국주의 침략자를 타도하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달성하는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투쟁대상인 일제는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이다.…그러므로 일제는 스스로 물러가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조선을 독립시켜야 하는가?! 외국의 원조로써는 절대로 독립을 찾을수 없다.…

유일한 길은 우리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일제와 맞서서 싸워이기는것이다. 그러자면 무장투쟁을 해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항일무장투쟁로선은 조선혁명은 조선사람자체의 힘과 투쟁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완수해야한다는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관된 유일하게 정당한 혁명로선이며 반혁명적폭력에는 혁명적폭력으로 맞서야 하며 오직 무장투쟁으로써만 무장한 반혁명을 타승할수 있다는 가장 철저한 반제혁명로선이다.

또한 이 로선은 상비적무력에 의한 조직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주되는 투쟁형태로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인민대중의 다른 모든 형태의 투쟁에 대한 전반적지도를 실현함으로써 조선혁명승리를 강력히 촉진시킬것을 목적으로 한 가장 정당한 로선이다.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항일무장투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방도로서 무장투쟁의 핵심적골간의 육성, 대중적지반의 축성, 그리고 군사경험을 축적할데 대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적의 힘을 과대평가하여도 안되지만 결코 과소평가하여도 안된다. 간악한 적과 싸워이기자면 우리의 힘을 빨리 길러내야 한다.…물론 우리는 지금 혁명력량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으므로 무의미한 충돌과 희생을 삼가하여야 하지만 실지투쟁을 통하여 단련하고 또한 전략전술도 연구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승리가 저절로 올것이라고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을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무장으로 일제를 타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힘을 빨리 길러내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강도 일제와 맞서서 국가적후방이나 민족군대의 토대, 그리고 그 어떤 외부적지원도 없이 싸워야 하는 간고한 조건에서도 스스로 무장투쟁의 핵심적골간을 길러내며 대중적지반을 쌓고 군사경험을 쌓으면서 무장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는 가장 적극적이며 혁명적인 방도를 내놓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항일무장투쟁로선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방침들은 우리 나라의 선행한 공산주의운동 및 민족해방투쟁에서 쓰라린 력사적교훈을 되풀

이하지 않기 위한 혁명적인 로선이며 폭력적으로 진출하는 대중의 지향과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현명하고 정당한 로선과 방침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이 구현된 항일무장투쟁로선은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을 가장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고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한 혁명적인 로선이며 일제를 격멸하고 조국을 해방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을 명시한 과학적인 로선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독창적인 항일무장투쟁로선을 내놓으시였을 뿐만아니라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조선인민의 모든 반일애국력량을 조직동원할데 대한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을 제시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 조선혁명은 소수 공산주의자들의 힘만으로는 결코 성취할수 없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을 혁명조직에 묶어세워 우선 그들을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에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을 내놓으시면서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서는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 기초우에서 반제적이며 반봉건적인 모든 력량을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대렬에 튼튼히 묶어세워야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 내놓으신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은 애국적조선인민의 절절한 념원을 반영한 현명한 로선이며 반제적인 모든 계급과 계층들을 조선인민의 민족적 및 계급적 원수인 일제를 격멸소탕하는데로 조직동원함으로써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시켜 혁명의 결정적승리를 이룩할수 있게하는 가장 정확한 로선이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회의에서 조선공산당창건을 위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한 우리의 위업을 달성하자면 우리는 반드시 맑스·레닌주의당을 가져야 합니다. 더우기 우리의 혁명투쟁은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쟁취하는것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 나라를 쏘련과 같은 사회주의국가로 만들자는것이 우리의 일관한 주장입니다. 이 원대한 과업을 어떻게 혁명의 참모부가 없이 해나갈수 있겠습니까. 당—이것은 우리의 모든 승리의 향도성입니다. 그러므로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하는것은 우리 조선공산주의자들앞에 제기된 가장 절실하고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일부 종파분자들이 말하는것처럼 우리 형편에서 지금 당장 당을 창건하자고 할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준비와 혁명력량의 축적이 없이 즉시 당을 창건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허공에 집을 짓겠다는것과 같은 공허한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장 신중하게 그리고 가장 정력적으로 당을 창건하기 위한 조직사상적토대를 한걸음씩 축성해나가야 할것입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종파분자들이 《령도권》 장악을 위하여 아무런 준비없이 제가끔 《당재건》 간판을 내거는 놀음을 철저히 극복하고 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준비를 충분히 갖춘 기초우에서 혁명적인 당을 창건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투쟁을 통하여 로동자, 농민 출신의 정수분자들을 공산주의자로 키우고 그 대렬을 확대하여 당창건을 위한 조직적골간을 튼튼히 꾸리며 종파주의와 좌우경기회주의를 극복하고 공산주의대렬의 조직사상적통일을 확고히 실현하여야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근로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광범한 군중을 조직에 묶어세워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밝히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당창건준비를 위한 투쟁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배격하고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할데 대한 문제, 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을 가장 높은 투쟁형태인 무장투쟁을 비롯한 실제적인 혁명투쟁과 밀접히 결합시켜 나갈데 대한 문제 등 견지하여야할 원칙적립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시였다.

조선공산당을 창건하기 위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방침은 당시의 혁명정세와 1920년대 공산주의운동의 심각한 교훈을 분석총화하시고 혁명적당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적용하시고 발전시키신 현명한 방침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같이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과 조선공산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을 밀접히 결합하여 동시적으로 추진시킴으로써 조선혁명을 전반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전략적방도를 명시하시였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조선혁명에 대한 주체적인 혁명로선이 제시됨으로써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 인민들은 그이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을 따라 확고히 나갈수 있게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카륜회의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제시하신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맑스-레닌주의적혁명로선은 혁명발전에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적혁명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조선혁명이 비로소 명확한 투쟁방향과 투쟁목표를 가지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에서 획기적인 새 시대를 열어놓은데 있다.

또한 그이께서 제시하신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맑스-레닌주의적혁명로선은 식민지민족해방운동과 국제공산주의운동, 로동운동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는데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투쟁강령으로서 력사상 처음으로 민족해방운동을 맑스-레닌주의와 확고히 결합시키고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의 구현인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맑스-레닌주의적혁명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보물고를 더욱 풍부화하시였으며 혁명력사에 영생불멸의 위대한 공적을 남기시였다.

# 조선혁명의 주체로선을 확고히 견지함에 있어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한 력사적회의

—다홍왜회의 및 요영구회의 35돐에 즈음하여—

력사적인 다홍왜회의 및 요영구회의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께서 천명하신 주체적인 맑스-레닌주의적혁명로선을 따라 주체적혁명력량이 튼튼히 꾸려지고 조선혁명이 급속히 확대발전되고 있는 때에 소집되였다. 다른한편 항일무장투쟁의 거세찬 불길을 압살하려는 일제의 발악적인 무장공격과 근거지봉쇄정책, 혁명대렬을 내부로부터 와해하려는 책동이 그 어느때보다 강화되고 여기에 대국주의자들과 그 추종분자들의 파괴책동이 날을 따라 우심해지고 있던 시기에 진행되였다.

발악적인 무장공격과 근거지봉쇄정책만으로는 항일무장투쟁의 거세찬 불길을 막을수 없다는것을 알게된 강도 일제는 제놈들이 조작한 《민생단》이라는 반혁명간첩단체에 망라된 주구들을 잠입시켜 혁명대렬을 내부로부터 와해하려고 음흉한 책동을 벌리였다. 그러나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는 각성된 근거지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일제의 음흉한 《민생단》 모략은 그 초시기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 《민생단》 투쟁을 전군중적운동으로 전개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과 투쟁원칙을 제시하시고 항일유격대원들과 근거지인민들을 반간첩투쟁에 불러일으키심으로써 일제의 반혁명간첩단체인 《민생단》의 정체는 폭로분쇄되였다. 《민생단》의 정체가 폭로되자 일제는 그것을 해산하고 그후 《협조회》라는것을 날조하여 《민생단》 모략을 계속하였다.

당시 일제가 《협조회》를 만들어내여 《민생단》 모략을 계속할수 있었던것은 전적으로 대국주의자들과 사대주의자들, 종파분자들의 반혁명적책동과 관련되여있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34년에 북만원정의 길에 오르신후 이를 기화로 대국주의자들과 사대주의자들, 종파분자들은 저들의 추악한 정치적야욕을 로골적으로 들어내놓고 조선혁명의 주체로선을 반대하며 주체적혁명력량을 말살하기 위한 범죄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대국주의자들과 그 추종분자들은 민족해방을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적구호를 반대하고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민족적임무를 부인하여 나섰으며 조중인민들속에서 날로 높아가고있던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위신을 꺾아내리고 조선사람을 지도적지위에서 떼내려고 책동하였다.

놈들은 각종 《죄명》을 들씌워 조선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을 마구 학살하는 만행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근거지인민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혁명대렬이 와해될 험악한 사태가 조성되였으며 한편 일제의 군사적공격은 전례없이 더욱 강화되였다.

실로 조선혁명 앞에는 엄중한 위기가 조성되였다.

그릇된 길로 나가는 반 《민생단》 투쟁을 바로 잡는가 못잡는가 하는 문제는 곧 조선혁명의 명맥을 이어가느냐 끊기고마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되여있었다.

조선혁명이란 말만하여도 《민생단》으로 몰리는 당시의 형편에서 그 누구도 감히 조선혁명을 엄중한 위기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대국주의자들과 그 추종분자의 책동을 반대하여 원칙적인 투쟁을 벌릴수가 없었다.

이러한 실정에서 혁명적인민들은 북만원정의 길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루 빨리 돌아오시기를 목마르게 기다렸다.

이 엄중한 사태는 오직 확고한 혁명적원칙성과 혁명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나 자신의 모든것을 다바쳐싸우시는 고결한 희생성과 백절불굴의 의지와 견결한 혁명적기개를 지니신 김일성동지에 의해서만 극복될수 있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북만원정의 길에서 돌아오시자 모든 사람들은 《이제야 살았다!》 《이제는 모든 일이 바로 되리라》고 하면서 끓는 환희와 열정을 안고 그이를 맞이하였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 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북만원정의 귀로에서 축한으로 몹시 쇠약해지신 몸도 돌보시지 않으시고 1935년 2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다홍왜회의와 같은 해 3월 하순에 요영구회의를 소집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홍왜 및 요영구 회의들에서 반 《민생단》 투쟁의 미명밑에 조선혁명에 엄중한 해독을 끼친 대국주의자들과 그 추종분자들인 사대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범죄적책동을 폭로분쇄하시고 조선혁명의 주체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시여 혁명대렬의 통일단결을 수호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의 민족적해방을 위한 혁명적구호를 《민생단》이 내건 일제통치하의 조선인에 의한 간도자치제의 반동적구호와 동일시하고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를 서로 대치시켜 민족적혁명임무를 부인하여 나선 대국주의자들의 부당한 견해를 신랄히 폭로규탄하시고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로선과 자주적립장을 정정당당하게 천명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이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책임지고 끝까지 수행하며 일제식민지통치기반으로부터 민족적해방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며 조선인민에게 맡겨진 혁명임무이라는 것을 똑똑히 밝히시였다. 그리고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이 자기 나라의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국제적임무와 배치되는 민족주의적편향으로 규정하려는 대국배타주의자들을 론박하시면서 그것은 오히려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과 일치하며 국제혁명운동발전에 기여하는것이라고 천명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좌경배타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이

일제의 교활한 민족리간정책에 넘어가서 적아를 혼돈하고 혁명대렬을 파괴하는 참을수 없는 범죄적책동을 날카롭게 폭로규탄하시고 주체적인 혁명력량과 혁명대렬의 통일단결을 수호하여 완강히 투쟁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국주의자들과 그 추종분자들의 그릇된 주장과 죄행을 폭로분쇄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의의를 가지는 《민생단》의 발생근원에 대하여 명백히 밝히시였다.

그이께서는 《민생단》의 발생근원이 조선의 민족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의 《파쟁》에 있는것이 아니라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과 혁명대렬의 통일단결을 파괴하려는 일제의 모략적책동에 의하여 생겨난것임을 명백히 밝히심으로써 대국주의자들과 기회주의자들의 어리석기 짝이없는 허황한 주장을 일격에 폭로분쇄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거에 민족주의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이라고 일률적으로 파쟁분자로 볼수는 없다. 그중에는 홍범도를 비롯하여 량심적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훌륭한 사람들이 많으며 또한 민족주의자들이 과거에는 맑스주의를 몰랐지만 지금에 와서 맑스주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기를 개조하여 공산주의운동에 헌신한다면 좋은 일이지 그들을 과거 민족주의자라고 해서 나무라서는 안된다.

과거에 민족주의운동에 참가하였다하여 다 《민생단》일수도 없으며 또 일본제국주의주구로 규정할수도 없다.

또한 종파분자들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그러하다. 우리는 조선공산주의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종파분자들에 대하여 증오하며 응당 반대하여야 한다. 그러나 1920년대의 조선공산주의운동에 있어서도 종파주의자의 대부분은 지도층에 있었을뿐이다. 그러므로 1920년대의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어느 파벌에 속하였다 하여 덮어놓고 전부 종파분자들인것은 아니다.

따라서 과거에 파벌에 속하였다 하여 그들 전부를 《민생단》으로 규정한다면 우리의 혁명대오는 큰 손실을 입을것이다. 동지들을 서로 믿고 실지사업을 통하여 검열하여야 한다. 덮어놓고 과거에 나빴으니 현재도 나쁘다고 하며 《민생단》과 관련시켜 색안경을 쓰고 보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사업태도가 아니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동만의 조선공산주의자들의 80~90%가 《민생단》에 참가했거나 그 련루자로 무책임하게 론단하고 있는 대국주의자들과 그 추종분자들을 신랄히 론박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만약 동만에서 활동하고있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80~90%가 《민생단》이라면 그들이 … 유격근거지에서 엄동설한에 집도 없이 입을것도 입지 못하고 먹을것을 먹지 못하고 무엇하려 참았단 말인가? 이는 삼척동자도 능히 알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만일 80~90%가 《민생단》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회의를 할수 있겠는가, 만일 다홍왜주위에서 방위를 하고있는 군대의 80~90%는 고사하고 그 10분의 1인 8~9%만 《민생단》이라도 우리들이 마음을 놓고 이 자리에서 회의할수도, 쉴수도 없을것이다.

우리는 《민생단》에 몰려 희생된 많은 동무들에게서 《민생단》에 몰려 죽더라도 적앞에는 투항하지 않겠다는 순결한 정신을 수없이 찾아볼수 있었다. 《민생단》에 몰려 희생되면서도 《공산당 만세!》, 《조선독립 만세!》, 《조중인민의 혁명승리 만세!》를 웨치는것을 당신들도 많이 목격하지 않았는가? 이들이 과연 《민생단》이란 말인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론리정연한 이 반박에 감히 나서서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이께서는 조중인민의 반일공동투쟁에서 간부문제에 대한 대국주의자들의 편협한 민족배타주의적인 《주장》도 신랄히 폭로비판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간부라는것은 계급적립장이 확고하며 맑스-레닌주의로 무장하고 혁명에 대하여 무한히 충실하며 불요불굴의 혁명적투지와 강인성이 있어야 하며 인민대중에 대한 조직동원력과 교양력이 있어야 한다.

조선인간부는 중국인민을 지도할수 없으니 중국인간부로 갈아야 한다는 주장은 반맑스주의적이며 계급적립장을 떠난 민족주의적인 견해이다.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자인 우리가 간부문제의 제기방법에 있어서 민족주의적으로 대할수는 없다.

간부구성을 고친다 하여 다년간의 혁명투쟁에서 단련되고 계급적의식이 강하며 능력이 있는 조선인간부들을 기계적으로 내몰고 준비정도도 고려함이 없이 중국인이라 하여 무원칙하게 등용할수 없다는것은 무장투쟁 그 자체가 웅변적으로 대답하여주고있다.…

혁명의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같이 간부문제에서 나타난 대국배타주의자들의 민족리기주의적이며 좌경기회주의적인 본질을 밝히시고 그들의 반맑스-레닌주의적이며 민족리기주의적인 주장을 폭로분쇄하시였다.

또한 그이께서는 대국주의자들과 그 추종분자들이 우수한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을 《민생단》의 루명을 들씌워 배척하고 멸리한것을 폭로하시면서 이것은 혁명대렬을 내부로부터 파괴하려는 일제의 책동에 합세한 범죄적행위이며 혁명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신랄히 규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동지에 대한 평가에서 선입감과 편견이 있어서는 안되며 어디까지나 동지를 믿고 혁명대렬의 통일단결을 굳건히 수호해야하며 군중관점을 철저히 세우고 광범한 반혁명력량을 묶어세워 주되는 적인 일제를 때려부시는데 총동원해야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생단》이 일제의 간첩주구단체인것만큼 응당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하지만 이 투쟁은 어디까지나 적들의 간계를 물리치고 혁명대렬의 통일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주동을 치고 피동을 포섭하여 교양개조함으로써 더 많은 군중을 혁명의 편에 전취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반《민생단》투쟁에서의 좌경적편향을 반대한다고 하여 반혁명파의 투쟁에서 우경에 빠져서도 안된다고 하시면서 요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반 《민생단》투쟁에서 좌경기회주의를 반대한다 하여 반혁명파의 투쟁에서 우경에 빠져서도 안된다. 오늘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민생단》의 변형적조직으로서의 《협조회》를 조작하여놓고 우리의 혁명대렬내부를 교란하기 위한 간악한 흉책을 계속 꾸미고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일제의 음흉하고도 교활한 간책에 넘어가지 말고 그의 앞잡이인 반동들과 변절자, 파쟁분자와 좌경기회주의자, 협애한 민족주의자들의 반혁명적책동을 반대하며 그들에 대한 혁명적경각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

그이께서 가르치신 이 강령적방침들은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정확히 결합시키는 기초우에서 모든 반제혁명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워 일제에게 투쟁의 예봉을 돌릴수 있게한 유일하게 정당한 방침이였다.

혁명의 위기를 한몸으로 막아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원칙성과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한 정당한 가르치심과 견결한 투쟁에 의하여 대국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고 머리를 수그리게 되였으며 그이께서 제시하신 현명한 방침에 따라 반《민생단》투쟁은 비로소 바른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특히 혁명동지들에 대한 그이의 크나큰 신임과 너그러우신 포용력에 의하여 억울하게 《민생단》의 루명을 쓰고 혁명대렬에서 제거되여 갖은 멸시와 박해를 받고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요영구회의에서 혁명근거지에서 달성한 모든 성과들과 조성된 혁명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총화하신데 기초하시여 두만강연안의 광활한 지역에 설치되였던 유격근거지—해방지구를 발전적으로 해산하고 일제에 대한 적극적공세에로 넘어가 조선과 남북만의 광활한 지대에 혁명의 씨앗을 뿌리며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한 전반적 조선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끌어올데 대한 독창적이며 주동적인 군사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새로운 군사전략적방침을 접수하지않는 《근거지사수론자》들의 그릇된 견해에 대하여 그것은 적을 과소평가하고 투쟁의 전반적발전을 내다보지 못하며 유격투쟁의 전술적원칙을 리해하지 못하는 완둔한 군사모험주의적표현이라고 준렬히 비판하시였다. 그리고 이 견해는 그동안 급속히 자라난 혁명력량을 옳게 평가하지 못하고 유격투쟁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할것을 고려하지 않는 소극적이며 보수주의적경향이라고 지적하시였다.

회의에서는 《근거지사수론자》들의 견해를 여지없이 분쇄하고 유격근거지—해방지구를 발전적으로 해산하고 조선인민혁명군이 계속 주도권을 틀어쥐고 전술적우세를 견지하면서 적극적공세에로 넘어갈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새로운 군사전략적방침을 채택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진행된 다홍왜회의와 요영구회의는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의 주체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시고 대국주의자들과 사대주의자, 종파분자들의 책동을 분쇄하심으로써 혁명대렬의 통일단결이 이룩되고 조선인민의 주체적혁명력량이 더욱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다는데 있다.

또한 그 의의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유격근거지를 해산하고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 적극적인 공세에로 넘어갈데 대한 새로운 군사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끌게 하였다는데 있다.

다홍왜 및 요영구 회의는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들에서 대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반대하는 원칙적인 투쟁을 통하여 각국의 공산주의자들이 혁명투쟁에서 견지해야 할 혁명적립장과 호상관계에서 가져야 할 원칙을 가르쳐주시였으며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의 산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그리고 그이께서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정에서 쌓은 경험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발전을 위한 고귀한 혁명적재부로 된다.

# 조선혁명의 새로운 앙양을 이룩한 위대한 원정

## —제2차 북만원정 35돐에 즈음하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영구회의후 조선인민혁명군 각부대들을 남만과 동만, 국내 등 여러지방으로 진출시키시는 한편 몸소 주력부대를 인솔하시고 1935년 여름 력사적인 북만원정의 길에 또다시 오르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북만원정의 목적에 대하여 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학살하며 교활하게 책동하는 일제놈들을 소멸하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인민들을 결속시켜 반일력량을 강화하는데 우리의 큰 목적이 있다. 북만은 동만지대와는 다르다. 아직도 그곳 인민들은 우리 빨찌산을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일제놈들과 토비들의 략탈과 강박과 기만속에서 살고있다.

그런것만큼 우리는 일제놈들을 소멸하는 투쟁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인민을 위한 군대라는것을 보여주어야 하며 인민들을 존경하고 교양하는 실제행동을 통하여 그들을 우리 주위에 묶어세워 반일력량을 확대하여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원정의 길에 오르시기전에 그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직사업과 함께 일련의 전투들을 지휘하시여 원정준비를 더욱 철저히 갖추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북만원정을 준비하고 있을때 로흑산부근에 주둔하고있던 가장 악질적인 《정안군》놈들이 4도하자마을에서 49명의 죄없는 인민들을 마구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으며 반일력량에 대한 탄압에 미쳐 날뛰고 있었다.

항상 인민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는 어버이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하늘에 사무친 인민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기 위하여 로흑산전투를 계획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투에 앞서 적들의 만행에 의하여 참변을 당한 4도하자마을 희생자들을 위한 추도식을 베푸시였으며 몸소 추도연설을 하시였다.

어버이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4도하자인민들은 자기 조국을 사랑한 탓으로, 근면하고 량심적으로 산 탓으로 만리 이국땅의 외로운 혼백이 되였습니다. 원한이 하늘에 사무치고 애통함이 땅에 넘친 이곳 4도하자인민들의 비통한 처지를 어찌 보고만 있을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놈들이 더는 우리 인민을 함부로 천대하고 학살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며 우리 나라에서 주인행세를 못하게 해야합니다. 원쑤 일제놈들을 몰아내고 삼천리 조국강산을 다시 찾아야 하며 2천만 동포를 피바다속에서 건져야합니다. 그날이 오기전에는 우리 인민들에게 들씌워지는 이 비운은 가셔지지 않을것입니다.

4도하자인민들의 피맺힌 원한을 풀어주기 위하여 원쑤들에게 천백배의 복수의 불벼락을 안깁시다!…

어버이 수령 김일성동지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 원수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으로 가득찬 연설은 추도식에 참가하였던 인민들과 유격대원들로 하여금 복받쳐오르는 비분과 적개심을 금할수 없게하였으며 적에게 천백배의 복수의 불벼락을 안길 비장한 결의를 다지게하였다.

추도식이 있은후 그이께서는 악질적인 《정안군》을 소멸하기 위하여 적들의 주둔지 가까운 골짜기의 량편에 빈틈없는 매복진을 펴시는 한편 《산림대》로 가장한 유인대를 편성하여 적 주둔지에 파견하시였다.

당시 《정안군》은 조선인민혁명군앞에서는 오금을 못쓰면서도 《산림대》만 나타나면 기를 쓰고 달려들군하였다.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적아간의 력량관계와 지형지리적조건 뿐만아니라 놈들의 이러한 심리적동향까지 자세히 살피시고 유인매복전으로 적을 소탕하도록하시였다.

그리하여 놈들이 소위 《철군》이라고 자랑하던 《정안군》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유인매복전술에 의하여 삽시에 녹아났다.

이 전투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은 일본지도관놈을 비롯한 수많은 적들을 살상포로하였으며 박격포, 중기, 경기, 보총과 권총 100여정, 포탄 수십발, 탄알 수천발, 군마 10필 등 많은 군수물자를 로획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포로들에게 더는 왜놈의 개질을 하지말것을 해설해주시고 그들에게 려비와 량식까지 주어 돌려보내도록 하시였다.

포로들은 너무나 감격하여 더는 왜놈의 주구노릇을 하지 않고 일제를 반대하여 싸울것을 다짐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부대를 친솔하시고 로흑산전투에서 승리한 기세드높이 북만원정을 하기 위하여 태평구로 돌아오시였다. 이곳에서 그이께서는 모든 대원들이 북만원정의 준비를 철저히 갖추도록 하시는 한편 로흑산전투에서 참패를 당한 적들이 추격하여 오리라는것을 예견하시고 그를 물리칠 전투준비를 세우시였다.

그이께서 예견하신대로 적들은 태평구 성구비에로 또다시 달려들었다.

놈들의 움직임을 미리 간파하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적들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올때 로획한 박격포로 섬멸할것을 명령하시였다. 적개심에 불타던 박격포수는 단두방에 놈들의 배를 명중시켰다. 그리하여 적들은 숱한 주검을 강물속에 내던진채 도망치고말았다.

로흑산전투와 태평구전투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동지의 천재적 군사전략과 령군술을 또다시 온세상에 과시하였으며 특히 유인전과 매복전, 반공격전과 적군와해공작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로흑산전투와 태평구전투의 승리는 요영구회의에서 제시하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방침을 실현하며 특히 제2차북만원정을 성과적으로 준비함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이 전투들을 통하여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전략전술적방침과 그이의 령도를 따라 싸운다면 그 어떤 강적이라도 타승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다지게되였으며 적들의 현대적 무기를 비롯한 수많은 각종 군수물자를 로획함으로써 북만원정을 승리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준비를 튼튼히 다질수 있게 되였다.

로흑산전투와 태평구전투의 승리를 통하여 인민에 대한 어버이 수령 김일성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높은 덕성을 집중적으로 보여주었다.

어버이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흑산전투를 몸소 조직지휘하시여 《정안군》을 격멸소탕하심으로써 인민들의 피맺힌 원한을 풀어주시였으며 놈들이 다시는 이 일대에서 인민들에게 악독한 만행을 감행하지 못하게하시였다.

그리고 그이께서는 로흑산전투에서 로획한 많은 물자들을 가난한 인민들에게 나누어주시여 그들의 생활에 보탬을 주시였다. 이때 최원화어머니의 집에서도 어버이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보내주신 군마 한필과 고기와 돈을 받았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친솔하에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는 로흑산전투와 태평구 성구비전투에서 승리한 기세드높이 군마와 포를 끌고 천고의 밀림을 헤치며 험준한 로야령을 넘어 북만으로 진출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려운 행군길의 앞장에 서시여 대원들을 어버이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대원들이 힘들어할 때면 몸소 그들의 배낭과 무기를 메다주시면서 고무해주시였으며 혁명가요를 지어 대원들에게 가르쳐 주시여 그들이 노래부르며 힘과 용기를 내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야령을 넘어 녕안현 삼도하자 부근에서 부대를 머무르게 하시고 대원들을 휴식시키면서 계속될 행군과 전투, 인민들속에서 전개할 정치사업준비를 철저히 갖추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관하부대에 내려가시여 중대당지부회의도 지도하시면서 대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5년 7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거느리시고 녕안현 산동둔에 진출하시였다.

적들은 이때 비로소 두만강연안일대에서 활동하던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솔하신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북만에 들어와 산동둔부근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고 긴급히 목단강시, 동경성, 녕안현성, 등지에서 800여명의 병력을 긁어모아가지고 산동둔으로 밀려들었다.

적들의 공격기도를 통찰하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적들을 격멸소탕할 작전계획을 짜시였다.

그이의 면밀한 작전계획에 따라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던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수랑상우세를 믿고 아군을 포위할 목적밑에 산동둔의 서북쪽고지로 기여드는 적들에게 집중사격으로 부리죽음을 안기였다. 적들의 전투서렬은 산산이 흩어지고 말았다.

이렇게되자 적들은 일부력량으로 공격을 계속하면서 력량을 수습해서 아군을 익측과 후방으로부터 타격할것을 기도하였다. 그러나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예견성있게 배치하신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에 의하여 적들은 다시금 된매를 얻어맞았다.

두차례의 공격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활한 적들은 다시금 력량을 재수습해가지고 산동둔 서북쪽고지로 미친듯이 달려드는 한편 골짜기의 개울에 처박혀서 전투를 오래 끌면서 증원부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황을 주의깊게 살피고계시던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적의 어리석은 기도를 간파하시고 가까운 거리에 다가선 적들에 대해서는 저격무기화력으로 소멸하고 먼거리의 적들은 박격포사격으로 소멸할것을 명령하시였다.

아군의 모든 화력이 적들에게 집중되였다. 특히 박격포사격은 첫발부터 적을 명중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직접 지휘하시는 전투에 참가한 높은 긍지와 영예를 간직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기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사방에서 원수들에게 무리죽음을 주었다. 죽음의 도가니속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일마간의 적들은 ≪〈공산군〉에는 꼬까지 있다! …≫ 고 아우성을 치면서 이틈을 타서 도망치고 말았다.

이날 전투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한명의 손실도 없이 수많은 적들을 살상하고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다.

산동툰전투의 승리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새로운 군사전략전술적방침의 정당성과 그 방침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이 광활한 지역에 진출하여 적극적공세에로 넘어갔음을 세상에 알리는 첫 신호였으며 장성강화된 조선인민혁명군의 위력을 시위하였다.

산동툰전투승리는 또한 녕안일대에서 활동하던 반일부대들과 중국인민에게 커다란 고무적영향을 주었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눈부신 활동에 질겁한 적들은 수많은 병력을 녕안방향으로 집중시키기 시작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정황을 통찰하시고 집중된 적을 분산시키며 그들의 흉계를 파탄시키는 동시에 보다 넓은 지대에서 군사정치활동을 활발히 벌리시기 위하여 새로운 기동작전을 짜시였다.

그이께서는 이해 8월경 원정부대중에서 일부는 다시 왕청, 훈춘 방면으로 떠나보내시고 일부는 녕안현일대에서 계속 활동하게 하신후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경박호를 건너 멀리 액목현쪽으로 진출하시였다.

1935년 9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구자에 주둔하고 있는 일제수비대를 소멸할것을 계획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적들을 부락안에 두고 전투를 한다면 인민들에게 피해를 줄수있다고 념려하시여 지하공작원인 자위단장을 시켜 청구자남쪽부락(6호툰)에 유격대가 나타났다는것을 수비대에 《밀고》케 하시고 그쪽으로 적들을 유인하여 불과 수십분동안에 놈들을 완전히 소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친솔하에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왕구, 소황지 등지를 거쳐 판지일대로 이동하면서 수많은 전투를 진행하여 이 일대의 적들에게 거듭 섬멸적인 타격을 주었다.

특히 1935년 12월 액목현 판지(류차구)부근 전투에서는 중무기로 무장한 《정안군》 300여명과 싸워 그중 120명을 격멸하는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다.

이렇듯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북만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일제침략자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주시였을뿐만아니라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혁명의 씨앗을 안겨주시고 그들을 반일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몸소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시여 그들의 어려운 생활형편에 대하여 념려해주시였으며 압박과 착취가 없는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일제를 때려부셔야 한다고 차근차근 깨우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적들의 와선전과 강압에 못이겨 항일유격대를 해하려던 한 청년까지도 심중히 대하시고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여 그를 설복교양하심으로써 옳은 길로 이끌어주시였다. 또한 일제침략군놈의 짐군으로 강제동원되였던 가난한 로인의 아들을 구원하시여 조선인민혁명군에 받아들이고 자신께서 입으시였던 털외투까지 벗으시여 헐벗은 그 로인에게 입혀주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그이의 가르치심과 군중정치사업에서 이신작칙의 모범을 따라 북만땅의 이르는곳마다에서 그 지방인민들의 풍습을 존중히 하고 로인들을 존경하고 어린이들을 사랑하면서 우리 인민들이 못사는것은 일제와 지주, 자본가놈들 때문이라는것을 알기 쉽게 해설해주었으며 제나라 제땅에서 압박과 착취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일제를 반대하여 싸워야한다는것을 깨우쳐주었다.

그리하여 수많은 로동자, 농민 출신의 청장년들이 자진하여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였으며 판지—남호두간의 일제군용도로를 닦던 로동자들이 《조국을 반대하는 치욕스러운 공사에서 손을 떼라!》 는 구호를 웨치면서 파업을 단행하는 등 광범한 군중들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러러받들며 반일투쟁에 힘차게 떨쳐 나섰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북만원정의 나날 광범한 인민들을 깨우치시여 반일투쟁에 조직동원하시는 사업과 함께 반일부대들과의 사업, 위만군을 반변시키고 와해하는 공작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였다. 그리하여 위만군병사들이 집단적으로 조선인민혁명군에 넘어 오기도 하였고 위만군련대장이 항일유격대를 도와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 참가하였다.

력사적인 북만원정의 나날 경애하는 어버이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육친의 정으로 대원들을 보살펴 주시였으며 그들에게 커다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대원들의 건강상태, 식사조건, 학습정형 등 모든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애로조건과 걸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대원들이 힘들어할때는 배낭과 총을 메다주시였고 부대가 숙영할 때면 대원들을 먼저 재우고 일일이 돌아보신 다음에야 자리에 드시였고 아침에는 제일먼저 일어나셨다. 추운 겨울날 깊은 밤에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잠든 대원들의 젖은 신발을 벗기여 우등불에 말리여 주시였고 짚을 솜처럼 부드럽게 두드려 《도로기》 안에 깔고 손을 넣으시여 신바닥을 일일이 다듬기까지하여 주시였다. 그러기에 항일유격대원들은 어버이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사된 높은 영예를 간직하고 그 어떤 애로와 난관도 극복하고 용감무쌍하게 싸워나갔던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북만원정행정에서 북만의 인민혁명군부대들을 지도해 주시였을뿐만아니라 그 부대들에 우수한 지휘관들과 대원들을 파견하시여 그들 정치군사적으로 튼튼히 꾸려주시였다.

력사적인 요영구회의방침에 따라 진행된 북만원정은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조선혁명운동을 가일층 발전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우선 일제침략자들에게 만회할수 없는 타격을 주고 조선인민혁명군의 필승불패의 전투적위력을 떨리파시하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을 강력한 혁명무력으로 더욱 확대강화하였다.

북만원정이 가지는 의의는 또한 광범한 지역에 혁명의 씨앗을 뿌리고 인민들을 각성시켜 반일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킴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보다 튼튼히 다지고 혁명력량을 더욱 확대강화하였다는데 있다.

# 일제를 전률케 한 대부대 선회작전

## —대부대선회작전승리 30돐에 즈음하여—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친솔하시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무산지구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둔 뒤 일제에게 더욱 큰 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두만강을 건너 백두산동북부로 진출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백두산동북부지대에 혁명의 대중적지반을 시급히 꾸리고 유격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국내 깊이 침투하여 혁명조직을 확대할 웅대한 전략적구상을 짜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시였다.

백두산동북부일대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대대적인 군사정치활동은 조선과 만주에서 일제의 식민지통치체계를 밑뿌리채 뒤흔들어 놓았으며 일제의 대륙침략전쟁책동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였다.

당시 일제는 조선과 만주를 저들의 안전한 전략적후방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대륙침공에서 그 어떤 《성공》도 바랄수 없다고 통절히 느끼지 않을수 없게되였다.

그리하여 일제는 관동군, 위만군, 경찰, 자위단, 그리고 변절자들로 조직된 특수부대인 《신선대》를 비롯하여 정보기관, 사법기관, 행정기관 할것없이 총동원하여 조선혁명의 사령부가 있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에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였다.

백두산동북부일대의 골짜기와 릉선들은 《토벌대》로 꽉 들어차고 단 몇걸음도 옮겨디디기 어렵게되였다. 적들은 독약을 친 음식물을 산막마다 갖다 놓았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을 내부로부터 와해하려고 이르는 곳마다에 귀순과 투항을 설교하는 삐라도 뿌려 놓았다.

항일무장투쟁과 조선혁명의 앞길에는 그 어느때보다도 간고한 시련이 가로놓이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를 깊이 통찰하시고 오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아군은 현재까지 10년간 간이한 군사정치정세하에서 항상 우세한 적과 싸워서 승리하였다.

일제놈들은 자기 후방의 공고화를 위하여 막대한 유생력량과 군사기재의 손실을 무릅쓰고 아군에 대하여 집중공격을 하고있다. 우리는 적들이 집중공격을 하고있는 새 환경에 대처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혁명적경각성을 견지하고 새로운 전략전술로써 적들로 하여금 갈피를 잡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와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과학적으로 타산하시고 조성된 난국을 주동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서 백두산동북부일대에서 대부대선회작전방침을 제시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백두산동북부일대에로 《토벌대》 력량을 대대적으로 집중하는 일제의 흉계를 간파하시고 우선 적들이 집중되여있는 두만강연안일대의 여러곳을 불의에 들이쳐서 놈들을 갈팡질팡하게 만들어놓고 적의 포위진을 벗어나 미리 정하여 놓은 비밀로정을 따라 재빨리 돈화현 북부지대로 들어가 그곳에서 몇번 큰 전투를 하고는 다시 백두산기슭의 두만강연안으로 진출할 령활한 전술을 짜시였다.

1939년 12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저 《토벌대》 놈들이 두만강연안일대의 산발을 뒤지고 있을 때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친솔하하시고 미리 정해진 로정을 따라 북상하여 돈화원정을 진행하시였다.

돈화현에 진출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륙과송과 쟈신즈의 적들을 련속 들이치고 200여명의 로동자들을 대오에 받아들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화룡현일대에서 빠져나와 전격적으로 돈화의 큰 목재소를 들이친 이 령활한 작전은 적들로 하여금 완전히 넋을 잃게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그렇게 빨리 북으로 쑥 빠져 진격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미리 예견하신대로 적들은 륙과송과 쟈신즈에서 제놈들이 녹아났다는 급보를 받고서야 비로소 제정신을 차리고 돈화오지로 부랴부랴 몰려들었다.

두만강연안에서 돈화현까지의 천리길은 기동수단을 리용할수 없는 울창한 밀림과 깊은 골짜기가 겹겹이 가로놓여 있었다.

이 험준한 밀림의 눈속을 헤매이면서 놈들이 대병력을 돈화오지까지 뒤아가자면 몇달은 걸려야 하였다.

이러한것을 예견하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륙과송전투와 쟈신즈전투를 진행하신 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선회하여 남쪽으로 쭉 진출하시다가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어 송화강류역 백석탄밀영에서 대규모적인 군정학습을 조직하시였다. 그처럼 어려운 시기에 그이께서는 적들의 동태를 손금보듯이 헤아리시고 대담하게 조직지도하신 대규모적인 군정학습은 조선인민혁명군을 정치군사적으로 더욱 단련강화하고 항일무장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발전시키며 조선혁명의 새로운 앙양을 위하여 취해진 가장 현명한 조치였다.

40여일간의 군정학습을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군사과학, 유격전술과 정규전술 등을 배우고 전투력을 튼튼히 다진 조선인민혁명군부대는 다시금 국내에로 진출하기 위하여 백석탄밀영을 떠나 충검의 숲을 헤치면서 두만강연안의 무산지구대안에 진출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1940년 3월 11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휘밑에 일제침략자놈들의 《토벌작전》의 중심지의 하나인 대마록구의 적을 총한방 쏘지 않고 일격에 격멸하고 수많은 무기와 100여벌의 군복, 700여포대의 밀가루, 이밖에 많은 물자를 로획하였다.

이 빛나는 전투승리의 소식에 접한 이곳 수백명의 로동자들과 그의 가족들은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인민혁명군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면서 항일유격대를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항일유격대의 정치공작원들은 연면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하였으며 헐벗고 굶주리는 로동자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식량과 피복을 나누어 주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마록구 전투후 뒤따라오는 적들을 교묘하게 따돌리고 화라즈밀림에서 부대를 충분히 휴식시킨후 다시 1940년 3월 하순경에 두만강연안 창평방향으로 진출시키시였다.

이때 조선인민혁명군의 행방을 찾던

적들이 다시 뒤따라왔다.

그이께서는 적들의 기도를 제때에 간파하시고 창평방향으로 나가던 행군방향을 동남쪽으로 돌리게 하시고 부대를 대담하게 대마록구 코앞에서 숙영할것을 명령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은 뒤따르는놈들을 족쳐놓아야 하겠소. 놈들을 뒤에 달고 무산으로 가다가는 창평을 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친다고 하여도 빠져나오기가 힘들것이요. 무산지구에 대한 진공을 떠루더라도 우선 추격하는놈들부터 잡아치워야 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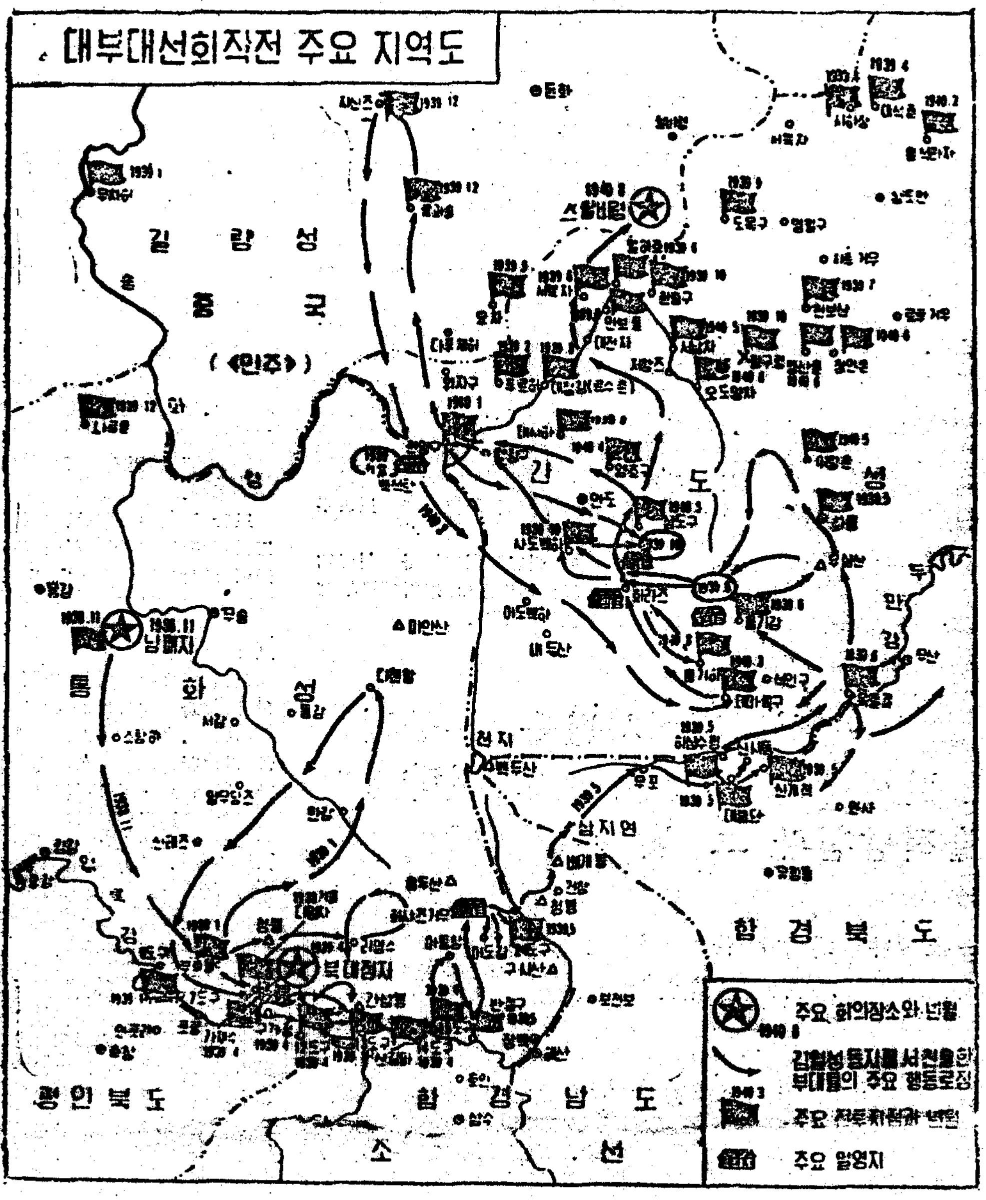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작전계획에 따라 홍기하에서 유인매복전술로 적을 순식간에 전멸시켰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이 유명한 홍기하전투에서 마에다부대장놈을 비롯하여 근 200명의 적을 살상포로하고 경기관총 6정, 보총 100여정, 권총 30여정, 무전기, 탄약 수만발을 비롯하여 많은 군수물자를 로획하는 빛나는 전과를 올리였다.

이렇게되자 산지사방에서 헤매던 적들은 또다시 국경일대에로 몰려들어 소동을 벌렸다.

그러나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은 승리의 기세드높이 화라즈방향으로 철수하였으며 3도구계 이르러 여러개의 부락을 동시에 들이쳐서 놈들에게 다시금 공포와 죽음을 안기였다.

이와같이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미리 지정된 비밀로정을 따라 적들이 상상할수 없는곳에 나타나서 불의에 치고 또 옮겨가서 치고 하면서 적들을 완전히 수세계 몰아넣었다.



적들은 대병력으로 집요한 《토벌작전》을 벌리면서 1939년 말까지 조선인민혁명군을 《전멸》 시킨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빈말이 아니라 온 겨울이 다 지나가도록 산발과 깊은 눈속에서 헤매였으며 따라가다가 얻어맞고 제소굴에 앉아서도 된벼락을 맞아 수많은 유생력량과 막대한 전투기재를 잃었다.

대부대선회작전을 통하여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일제의 발악적인 《토벌작전》을 여지없이 격파하였을뿐만아니라 당시 제2차대전을 앞두고 더욱 강화된 일제의 침략전쟁책동을 분쇄하고 적들에게 돌이킬수 없는 심대한 군사정치적타격을 주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휘밑에 진행된 백두산동북부에서의 대부대선회작전은 항일무장투쟁과 조선혁명발전에서 거대한 정치군사적의의를 가진다.

대부대선회작전의 승리적로정을 통하여 일제의 전례없는 《토벌작전》을 격파하고 적들을 수세에 몰아넣었을뿐만아니라 조선인민혁명군을 불패의 대오로 더욱 강화하였으며 인민들에게 혁명의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치게 하였다.

그리하여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이 더욱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으며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은 더욱 확대발전되였다.

대부대선회작전의 승리는 또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완강한 혁명적전개력과 탁월한 전략전술의 빛나는 승리를 과시하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전법—천만가지로 변하는 천재적인 전법과 령활한 유격전술은 일제침략자들을 문자그대로 벌벌 떨게하였다. 당시 일제는 그이의 탁월한 전략전술과 천재적인 령군술에 대하여 《공산군의 전략전술은 참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어느 병서에도 찾아볼수 없는 〈군법〉으로 전쟁을 한다. 그들은 황군의 정규작전과는 조금도 부합되지 않는 방법으로 대항하기때문에 제일 곤난하다.》고 비명을 올렸던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전략적방침과 신출귀몰한 천재적 유격전술, 그리고 령활한 령군술은 일제의 《무적황군》의 《신화》를 여지없이 깨뜨려 버리고 1939—1940년 《동기토벌공세》를 완전히 분쇄하였으며 조선혁명을 계속 승리의 한길로 이끌었다.

대부대선회작전의 빛나는 승리는 국제적으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의 할힌골침공과 관련하여 적배후 교란작전을 대대적으로 조직전개하시여 놈들의 대륙침략전쟁책동을 파탄시키고 이웃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무장으로 옹호하고 성원하였으며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산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그리고 세계혁명적인민들과 식민지반식민지 나라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힘차게 고무하였다.

# 조국해방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위대한 전략전술적방침과 그 빛나는 승리

## —소할바령회의 30돐, 항일무장투쟁승리 25돐에 즈음하여—

혁명의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40년 8월 소할바령회의를 소집하시고 당시 조성된 혁명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다가올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위한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당시 국내외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간고하였다. 파쑈국가들인 독일, 일본, 이딸리아 등이 소위 《반공협정》을 맺고 구라파에서 감행하던 침략전쟁을 1939년에 이르러 제2차세계대전으로 확대하였다.

세계적으로 대두한 파쑈세력은 세계대전에서 일시적우세를 리용하여 구라파와 아세아의 많은 지역을 강점하였으며 침략전쟁을 확대하려고 계속 미쳐 날뛰였다.

중일전쟁에서 일시적우세를 차지한 일제는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서두르면서 쏘련과 동남아세아에 대한 침략적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이 침략적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제는 조선과 만주를 제놈들의 《공고한 후방》으로, 전략적교두보로 꾸리려고 미친듯이 날뛰였다. 그리하여 일제는 제놈들의 배후에서 커다란 위협을 주는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전례없는 군사적공세를 강화하였다. 일제는 100만에 달하는 관동군의 주력과 조선주둔 일제침략군을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토벌작전》에 내몰았다. 이와함께 일제는 조선인민혁명군과 광범한 인민대중과의 긴밀한 조직적련계를 끊어보려고 악명높은 집단부락정책과 삼광정책을 더욱 강화하면서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허위선전을 일삼았다. 그리고 각지방의 지하혁명조직을 탄압파괴하고 수많은 혁명투사들을 검거투옥하였으며 그들을 잔인무도하게 학살하였다. 그리고 조선인민혁명군을 내부로부터 《와해》 시키기 위하여 온갖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또한 놈들은 경제적으로 조선인민혁명군의 활동을 봉쇄하기 위하여 인민들의 일상생활필수품에 이르기까지 엄격히 통제하면서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인민들의 물자공급을 가로막으려고 미쳐날뛰였다.

한편 일제는 조선인민에 대한 가혹한 탄압과 무제한 한 경제적략탈을 강화하였다. 놈들은 조선민족의 모든것을 말살하려고 조선말조차못하게하였다. 일제는 《비상시국》이요 《전시조건》이요 하면서 로동자들에게 12~15시간의 로동을 강요하였으며 《공출제도》를 내걸고 탈곡장에서 농민들의 쌀을 몽땅 빼앗아갔으며 청년들은 살아돌아오지 못할 징용과 징병으로 끌려갔다. 그야말로 조선은 일제식민지통치의 커다란 감옥으로 변하였다.

이처럼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일제의 발악은 이 시기에 이르러 극도에 이르렀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쏘일중립조약》 체결문제가 일정에 오르게되였다.

이것을 기화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공세를 더욱

악착하게 감행하였다. 이때 일부 사대주의에 물젖었던 자들이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세는 그에 따르는 새로운 전략과 투쟁방침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이러한 정세하에서 력사적인 소할바령회의를 소집하시였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와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독일, 이딸리아, 일본 등 파쑈국가들이 불원간 망하고 조선의 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천재적으로 밝히시였다.

그이께서는 파쑈 독일, 일본, 이딸리아의 소위 《반공협정》도 하나의 발악적인 허장성세에 불과하며 그것은 가장 반동적이며 극악한 승냥이들의 집단이므로 서로 단합될수 없으며 멀지않아 그들의 소위 《동맹》과 《협정》은 깨여지고 말리라는것을 론증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급변하는 정세발전에 대처하여 조선혁명의 전도를 명철하게 내다보시고 조선혁명은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수행해야한다는 철저한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시여 다가올 혁명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천재적인 전략전술적방침을 내놓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 결정적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우리의 무장력을 옳게 보존하며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에 대하여 결정적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당면한 곤난을 타개하는데만 급급하고 있다.

우리가 적들에게 계속적인 타격을 주자면 수많은 동지들의 희생을 동반하지 않으면 안된다.

적들과의 싸움에서 아직 우리는 최후결전에 다달은것은 아니다.

만약 최후결전이라면 우리는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최후의 승리를 위하여 응당 결사전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아직은 최후결전시기가 아닌 이상 우리들이 10년간의 실지 전투를 통하여 정치군사적으로 단련육성된 견실한 간부들을 혁명의 전체 리익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격렬한 대규모적인 전투에 되는대로 내몰아 무모한 희생을 내게하는 모험맹동주의를 엄격히 배격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모험적인 맹동주의는 현정세하에서 적에게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는것으로 되기때문이다.

놈들은 지금 될수 있는대로 아군과의 결전을 요구하고있다. 그것은 아군보다 수십배의 손실을 당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반일무장투쟁을 저지시키려는데서 나온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무장력을 소모약화시키려는 적들의 소원을 이루어줄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적의 흉계에 대처하여 능란한 전술로 대처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현정세에 정확히 립각하여 앞으로 적에게 결정적타격을 주며 대사변을 영접하기 위하여 모험맹동주의를 버리고 우리의 귀중한 혁명력량을 계속 보존육성하면서 당면한 전투임무를 실행할수 있는 정확한 전략전술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군사정치정세로부터 제기되는 당면과업에 대하여 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첫째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당면한 군사적위기를 타개하며 견실한 군사정치간부들을 보존육성하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대부대활동으로써가 아니라 소부대유격활동을 민활히 전개하여 도처에서 적들에게 계속적인 타격을 주어야한다.

이 소부대활동에서는 주로 현재 우리들의 주요한 힘의 원천으로 되여있는 대중단체의 조직지도사업에 력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조선과 동북에서 광범한 인민대중을 반일민족통일전선에 결속하며 파괴된 지하 당조직을 복구하며 적군와해공작을 가강히 전개하여 우리들의 혁명력량을 준비하여야만 앞으로 유리한 정세가 조성될 때에 놈들에게 치명적타격을 줄수 있다.

이때는 바로 놈들과의 최후결전의 시기를 말하는것이며 또한 우리들의 최후승리를 말하는것이다.

그러므로 금후 우리들의 사업과 투쟁방법은 과거 지하운동을 할 때와 같이 극비밀리에 진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하운동 당시의 우리의 구호인 《혁명비밀을 사수하자!》, 《혁명가들의 혁명적비밀은 혁명운동의 생명이다!》를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로, 광범한 조중인민대중을 조직하여 앞으로 도래할 대사변을 맞이하자면 우리들은 전사나 지휘원을 막론하고 모두다 군중의 조직자가 되는 동시에 선전선동원이 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진리를 토대로 삼고 수립한 반일민족통일전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백방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을 쟁취하기 위하여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인민대중에게 상세히 해설하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조국해방투쟁에 대한 목적과 최후 승리에 대한 신심을 굳게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조중인민의 굳은 단결이 적을 타승할수 있는 불패의 힘의 원천이라는것을 똑똑히 인식시켜야 한다.

대중단체 조직사업이나 선전사업이나 어느것을 막론하고 역시 극비밀리에 전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우리가 신중한 사업태도로써 극비밀리에 자기사업을 주도세밀하게 조직하지않는다면 일보도 혁명과업을 수행해나가지 못하리라는것은 과거 투쟁력사가 실증하여주고있다.

현재의 모든 형편은 우리들로 하여금 대중집회에서 선동강연을 할 조건이 못되며 또 설사 한다하여도 놈들의 극악한 탄압으로 말미암아 위축된 대중들을 오히려 공포에 떨게할수 있으며 우리와 리탈되게할수 있다. 때문에 지방대중단체 조직지도사업은 객관적실정을 옳게 파악하고 그 토대우에서 진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셋째로, 현국제정세는 조중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에 유리하게 조성되고있다.

지금 쏘련공산당의 정확한 령도하에 위대한 쏘베트동맹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부단히 장성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반면에 제국주의국가들은 침체와 몰락으로 일관되여있다. 제국주의국가들은 자국내의 정치경제적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제2차세계대전을 야기시켰다.

자본주의제도를 전복하려는 혁명운동과 피압박민족해방운동의 미증유의 앙양은 도처에서 식민지통치자들에게 일대 공포와 멸망을 촉진시키고있다.

특히 중국공산당의 령도하에 전개되고있는 중국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에서의 거대한 승리, 동북일대에서의 아군에 의한 일제의 참패는 불원한 장래에 일제의 완전한 패망을 가져오게 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제1차세계대전의 결과 로씨야에서 위대한 10월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였다면 앞으로 제2차세계대전의 결과에는 몇개의 나라 특히 중국혁명이 승리하게 될것이다.

때문에 아군은 불원한 장래에 유리한 대사변을 영접하고 최후승리를 쟁취하게 될것이다.

넷째로, 매개 전사들과 지휘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의 정치적의식수준을 높이며 풍부한 군사지식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대사변을 영접하게 되든가 또는 광범한 인민대중을 투쟁에로 조직

**동원시키자면 혁명적리론으로 무장한 우수한 간부들이 대량 요구된다. 혁명적리론을 소유한 우수한 간부가 없이는 혁명운동을 정확한 로선에서 실천할수 없다는것도 또한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투쟁은 항상 우수한 군사 및 정치 간부들을 양성하는 학교로 전변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견실한 군사, 정치 간부들을 양성하는것이 혁명운동에서 결정적승리를 보장하는 관건으로 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시 정세와 관련하여 이상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 것이 절대로 군사적으로 소극적이며 퇴보를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앞으로 민족해방투쟁의 최후결전에 적극적으로 참가할수 있는 혁명력량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며 가일층의 전진을 위한 준비로 된다고 강조하시고 보고의 마지막부분에서 당면한 실천적선전내용과 투쟁구호에 대하여 천명하시였다.

광범한 대중을 조직하고 반일민족해방투쟁에 그들을 궐기시키기 위하여 매개 전투원들이 선전선동원이 되며 모든 군사정치활동을 극비밀리에 진행하여 혁명력량을 보존하면서 온갖 조건을 다 리용하여 적에게 죽음을 줄데 대하여 호소하시고 가능한 한 적의 군사시설과 교통수단을 파괴하며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자고 하시였다.

또한 군사 정치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 모두다 맑스-레닌주의혁명리론을 학습하는 학도가 되라고 강조하시였다.

반일민족통일전선을 더욱 강화하고 조중인민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그들의 반일의식수준과 승리의 신심을 부단히 높이며 일제침략자놈들을 조선과 동북에서 몰아내고 근로대중의 리익을 보장하는 인민정권을 수립해야한다. 오직 그러한 때에라야 로동자, 농민등 근로인민의 진정한 사회적해방과 행복한 생활을 보장할수 있다고 천명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새로운 국내외정세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시면서 일제를 포함한 파쑈국가들의 패망과 조선혁명의 승리를 과학적으로 밝히시고 항일무장투쟁의 결정적승리를 위한 새로운 전략전술적방침을 천명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정세발전에 대처하여 혁명의 전도를 명철하게 예견하시고 철저한 주체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우선 정치, 군사 간부들을 많이 양성하며 한편으로는 대부대활동을 소부대활동으로 변경하고 지하투쟁을 강화하여 일제침략자들에게 계속 심대한 타격을 주는 동시에 전인민적봉기를 준비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전략적방침의 정당성은 그후의 혁명적실천에서 뚜렷이 확증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활동을 더한층 은밀하게 진행하며 대중속에서의 조직정치사업을 극비밀리에 전개하여야한다고 가르치시고 군사정치활동의 거점으로서 림시적인 비밀근거지를 설치 할것을 제시하시였다.

소할바령회의후 그이께서는 새로운 전략전술적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 령도하시면서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는데 선차적주목을 돌리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남의 힘을 믿고 자기 혁명를 하겠다고 추호도 생각해서는 안된다. 우리 혁명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힘으로 해야한다.**

**우리의 항일무장투쟁은 바로 여기에 큰 의의가 있는것이다.**

**그래야만 우리는 앞으로 닥쳐올 대사변을 떳떳이 맞이할수 있으며 해방된 조국의 민주건설도 우리의 손으로 할수 있다.…**

경애하는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과 대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동시에 현대전에 대처한 군사기술을 습득시키며 군사훈련을 강화하여 대규모적현대전을 능숙하게 지휘 할수있는 유능한 군사지휘관으로, 해방된 조국의 앞날에 당 및 국가건설의 중요한 역군으로 피양육성하시였다.

그이의 어버이사랑과 배려속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과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조국해방을 위한 대규모적현대전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 유능한 군사정치간부로, 해방된 조국땅에서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조직지도할수 있는 믿음직한 역군으로 자라나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전체 대원들을 확고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시였을 뿐만아니라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을 수십개의 소부대와 소조로 편성하여 각지에 파견하시고 그들의 군사정치활동을 지휘하시는 한편 1941년 봄 소부대를 인솔하시고 안도, 연길 일대에 진출하시여 몸소 소부대 군사정치활동의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1941년 6월 30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왕청현 자피거우 림시 근거지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및 병사들 앞에서 하신 연설에서 급변하는 내외의 정세에 대처하여 당면한 행동방침을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선 국제정세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6월 22일에 파쑈독일이 배신적으로 쏘련을 향하여 침략전쟁을 개시하였다는 것과 동방에서도 강도일제가 쏘련을 향하여 침공을 개시하지 않으리라고 단정할수 없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신 다음 이러한 정세에 대처한 아군의 행동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전세계 로동계급과 피압박민족해방운동의 성새인 쏘련를 무장으로 옹호하며 조선인민의 세기적숙망인 조국의 해방과 자유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일체 반일력량을 통일집결시켜야 한다.**

**…매개 전투원들과 지방정치공작원들은 승리의 자신심을 더욱 굳게 가지고 참을성있게 당 및 대중단체들을 복구 확대하는 사업에 전력을 경주하여 우리들의 후비력량을 준비하며 수많은 습격소조들을 조직하여 적들을 교란시키며 앞으로의 대사변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로서 특히 군사정찰사업을 강화하여야 하겠다. …즉 정확한 정찰사업은 군사행동의 승리를 보장하여주는 결정적요인의 하나로 되기 때문에 정찰사업을 홀시 하여서는 안된다.**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들과 정치공작원들은 그이의 가르치심을 따라 승리의 신심을 굳게 가지고 전국적범위에서 군사정치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였다.

그이의 지도밑에 소부대와 소조들은 함흥, 평양, 원산, 서울, 인천, 부산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무장활동을 그 어느때 보다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들과 소조들은 군사활동의 모든 지역에 림시 비밀근거지를 설치하고 그에 근거하여 이르는곳마다에서 적에 대한 습격전과 군용렬차, 철도, 교량, 군수창고에 대한 파괴전을 맹렬히 전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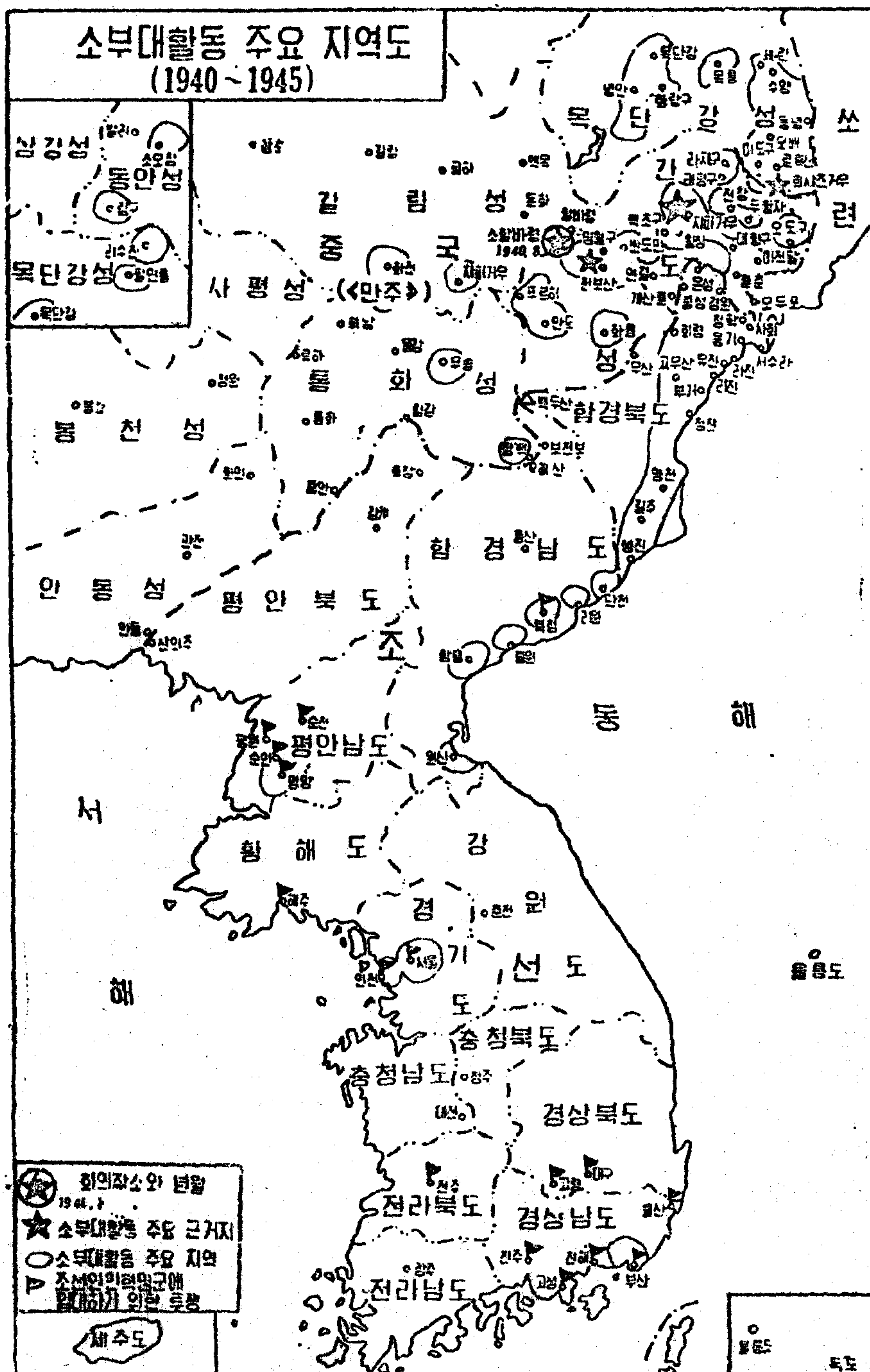
이와 함께 파괴된 혁명조직을 복구하고 확대강화하였으며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이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을 해설침투시켜 그

들에게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겨주었으며 그들을 반일반전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44년 9월 조선인민혁명군 전체 성원들 앞에서 하신 연설에서 소할바령회의 이후의 군사정치활동을 총화하시고 조성된 정세하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 앞에 나서는 당면한 투쟁과업을 천명하시였다.

당시 일제는 침략전쟁의 주요 전선에서 완전히 수세에 빠져있었으며 멸망의 시각이 가까와지고 있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시 조성된 정세를 예견성있게 통찰하시고 이에 대처하여 소부대활동과



주력부대의 군정훈련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조선인민의 모든 반일력량을 총동원하여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완성하며 멀지않아 해방될 조국땅에서 당과 정권을 세우며 민주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의 이 력사적인 선견은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항일무장투쟁의 종국적승리를 보장함에 있어서 그리고 해방후 조국건설을 위한 정치사상적준비와 혁명의 골간부대를 더욱 튼튼히 꾸리는데 있어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최후승리를 눈앞에 두고 그 준비를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밀고나가시였다.

이 시기 우리 인민들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를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조선인민의 유일한 령도자로, 민족의 태양으로 더욱 높이 우러러 보면서 그이께 자기들의 운명을 의탁하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조국광복을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평양, 서울, 청진, 부산을 비롯한 전국각지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강도일제에게 항거하여 태업과 파업, 방화와 일제통치기관에 대한 습격, 징병기피, 집단탈출 등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하여 일제를 반대하여 싸웠다.

특히 이 시기 인민들속에서는 그이께서 조직령도하시는 영웅적항일무장투쟁에 합류하려는 움직임이 대중적형태를 띠고 급속히 확대되여갔다.

당시 충청남도 서천군에는 《반도청년들아! 오랑캐 일본을 따르지 말고 김일성장군이 쳐들어오기를 기다리라!》는 구호가 나붙었으며 1944년 8월 경상남도 진해해병단에서는 일제의 《특별지원병》으로 끌려간 조선청년들이 비밀단체를 조직하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조선인민혁명군에 합세하려 하였다.

또한 1944년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끼 사이를 오가던 《고안마루》라는 관부련락선 삼등침실천정에는 《조선독립대장 김일성》이라고 붉은 글자로 쓴 구호가 붙어있었다.

특히 로동계급과 청년학생들 속에서는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결정적시기에 경애하는 어버이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혁명군과 합세하기 위한 무장폭동준비들이 추진되였다.

이와 같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일제의 패망을 촉진하고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맞이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혁명적기운은 날을 따라 더욱더 높아갔다.

그리하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소부대활동이 적극화되고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에서 일반병종과 특수병종을 포함한 군사훈련이 전면적으로 진행되였으며 작전계획수립과 력량편성 등 일제를 패망시키고 조국을 주동적으로 해방하기 위한 전투준비가 최종적으로 끝났으며 전인민적봉기의 준비가 인민들의 반일투쟁이 세차게 일어나는속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여 나갔다.

1945년 8월 9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에 조국해방의 성전에 총동원할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작전계획에 따라 멸적의 기세드높이 쏘련군대와 함께 철천지원수 일제를 격멸소탕하는 최후결전에 참가하였다.

이날을 위하여 오랜 세월 모진 설한풍속에서 그 모든것을 참고 이겨내면서 수령을 따라 영용하게 싸워온 조선인민혁명군 각부대들은 라진, 청진으로, 남양과 웅기 방면으로 각각 진격하여 조국땅의 여러지역을 해방하였으며 인민들의 반일투쟁과 배합하여 마지막 발악을 다하는 일제놈들을 이르는 곳마다에서 격멸소탕하였다.

이리하여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15성상의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은 마침내 력사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우리 조국은 근 40년에 걸치는 일제의 식민지통치기반에서 해방되였다.

조국의 해방과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승리, 이것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해서만 이룩될수 있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직접조직령도하신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켰으며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이룩할수 있게 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을 통하여 우리 혁명의 참모부인 조선공산당 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기초가 확고히 마련되였으며 조선혁명의 주체적혁명력량이 튼튼히 꾸려졌다.

이와 함께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과 사회주의공산주의 혁명의 력사적뿌리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이룩되였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탁월한 전략전술과 고매한 덕성, 강의한 의지와 혁명적원칙성,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 등이 구현되여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사상체계와 공산주의적혁명정신, 투쟁업적과 경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이 빛나는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인민이 대를 이어가면서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할 가장 귀중한 혁명적재부일뿐만아니라 조선혁명의 튼튼한 밑천이며 뿌리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은 당시 반제반파쑈운동과 세계혁명운동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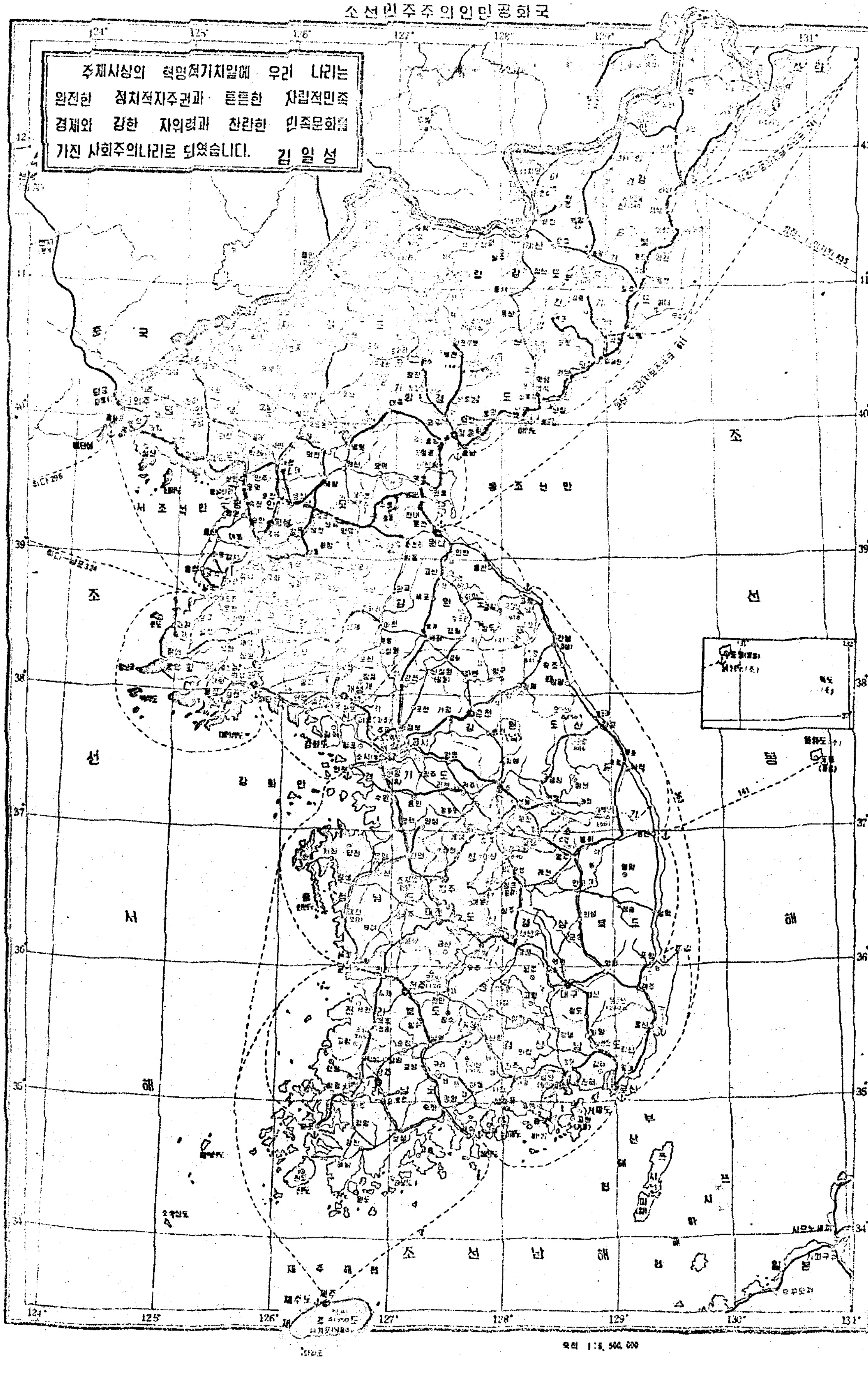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은 반제투쟁의 선구자적모범을 보여주었으며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력사적시대를 열어놓았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모든 혁명적업적과 고귀한 경험은 오늘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싸우는 인민들에게 투쟁방향과 투쟁방법을 가르쳐주고있으며 그들을 승리에로 고무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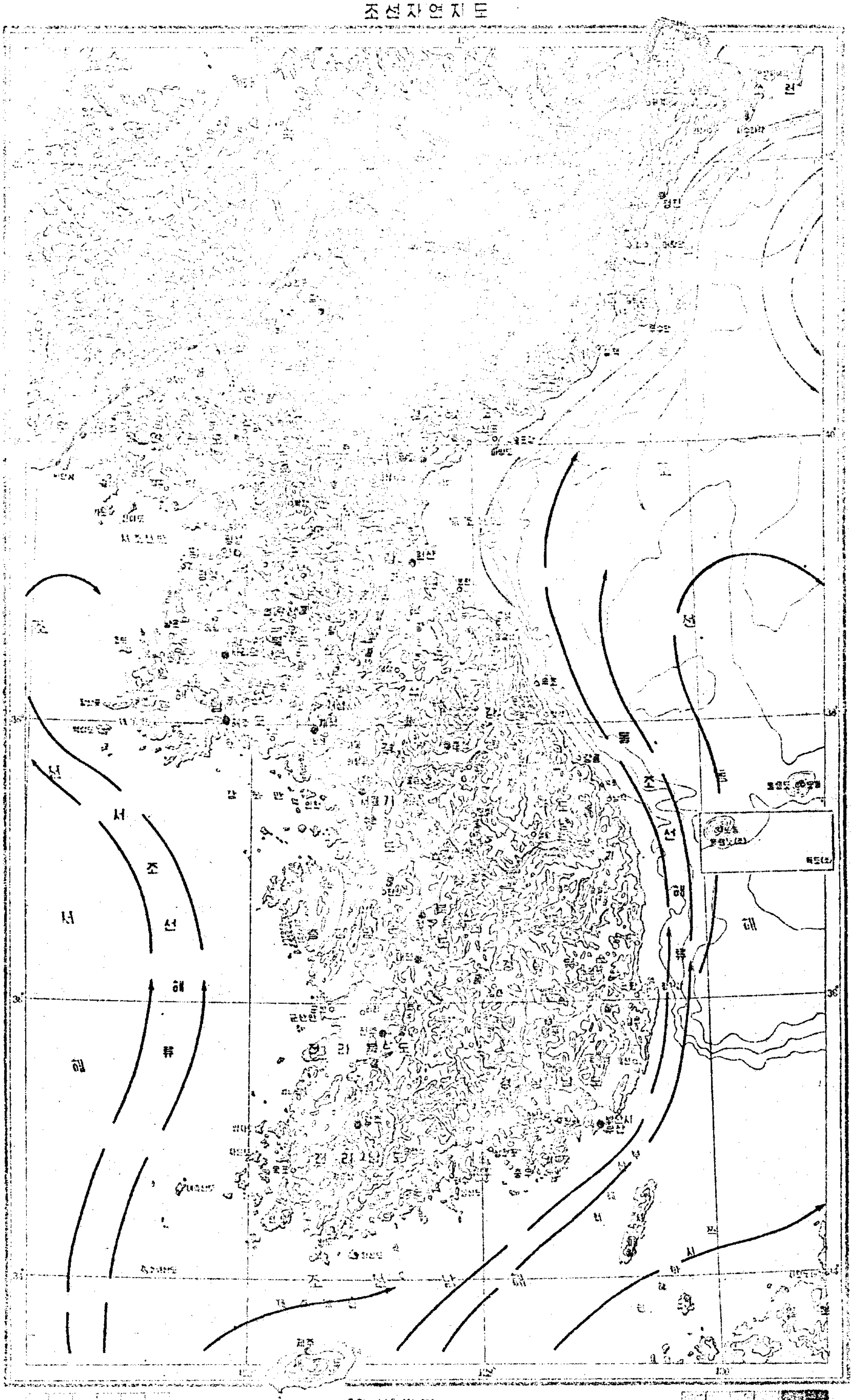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은 조선인민의 혁명적기개를 온세계에 떨치고 민족의 영예를 고수한 자랑찬 투쟁이였으며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이룩한 위대한 혁명투쟁이였으며 오늘도 래일도 우리 혁명승리의 힘의 원천으로 되는 불멸의 위대한 업적을 이룩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이였다.

우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는 높은 혁명적자각과 기풍을 소유하며 자신을 부단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함으로써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하루빨리 앞당겨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조선자연지도



# 우리 나라 지리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조선은 문자그대로 삼천리 금수강산이다. 산도 좋고 물도 맑다. 어느 곳, 어디서나 좋은 물이 필요되지 않는다. 비옥한 토지에서는 기름진 오곡을 풍성하게 거둘수 있게 하며 동서해안의 무진장한 가지가지의 수산물과 가는곳마다에 매장된 금, 은, 동, 철, 석탄 등 모든 귀중한 자연부원들은 우리 인민들을 모두다 잘 살수 있게 하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다.…**

## 자 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 바와같이 산좋고 물맑아 살기 좋은 삼천리 금수강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아세아대륙의 동쪽 중앙부에서 남북으로 뻗은 조선반도와 그 둘레에 있는 3,300여개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나라의 북쪽끝은 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북위 43° 00′ 36″)이고 남쪽끝은 제주도 남서쪽바다에 있는 마라도(북위 33°06′40″)이다. 서쪽끝은 평안북도 룡천군의 신도서쪽에 있는 마안도(동경 124°11′00″)이고 동쪽끝은 울릉도 남동쪽에 있는 독도(동경 131°52′33″)이다.

우리 나라는 위도상으로 10°사이에 남북으로 길게 놓여있기때문에 북쪽끝에서는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으며 남쪽끝에서는 여름이 길고 겨울이 짧다. 동쪽끝과 서쪽끝의 경도의 차이는 7° 41′33″이고 시간차이는 약 30분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동경 135°자오선 지방표준시를 쓰고있다.

## 넓이

령토의 넓이는 22만 791km²며 그 가운데서 섬들의 넓이는 5,963km²이다.

남북의 가장 긴 거리(섬을 포함하지 않음)는 825km(자강도 중강군의 북쪽끝—전라남도 장흥반도의 남쪽끝)이며 동서의 가장 넓은 거리는 351km(황해남도 장산곶 서쪽끝—강원도 양양군의 북쪽끝)이다. 섬을 포함한 남북의 가장 긴 거리는 약 1,100km이고 동서의 가장 넓은 거리는 약 620km이다.

## 경계

우리 나라는 동해와 서해, 남해와 면하고있는 해양국가임으로 바다경계선이 전 국경선의 87%에 달한다.

우리 나라의 총 둘레의 길이는 1만km이다. 그중 바다경계선의 길이는 8,693km이며 륙지경계선의 길이는 약 1,376km이다.

## 땅생김

우리 나라는 산지가 많은 나라로서 전령토의 75%가 산지이며 25%는 벌이다. 그러나 땅생김의 평균높이는 482m로서 세계륙지의 평균높이 875m에 비하여 약 절반밖에 안된다.

우리 나라의 땅생김은 북부와 동부가 높고 서해안과 남해안쪽으로 가면서 점차 낮아지고있다.

**산지—** 우리 나라의 높은 산지는 북쪽과 동쪽에 치우쳐있다.

산줄기들은 몇개의 방향으로 뻗어있다.

대체로 랑림산줄기를 등마루로 하여 여러 산줄기들이 갈라져나간다. 랑림산줄기의 동쪽은 넓고 높은 고원을 이루고있다. 고원의 북쪽에는 우리 나라에서 제일 높은 백두산(2,750m)이 솟아있다.

백두산에서는 마천령산줄기가 남동방향으로 뻗어있으며 이 산줄기의 거의 중앙부에서 북동방향으로 우리 나라에서 가장 높고 험한 함경산줄기가, 남서방향으로는 부전령산줄기가 뻗어있다. 함경산줄기와 부전령산줄기의 북서쪽에는 백무고원과 개마고원이 있다.

랑림산줄기 서쪽에는 남서방향으로 강남산줄기, 적유령산줄기가 뻗어있고 그 남쪽에 묘향산줄기, 북대봉산줄기, 아호비령산줄기, 마식령산줄기 등이 뻗어있다.

동해안을 따라 남북방향으로 뻗어있는 태백산줄기의 서쪽에는 광주산줄기, 차령산줄기, 소백산줄기, 남쪽에 로령산줄기, 경상산줄기들이 뻗어있다.

태백산줄기에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금강산(1,638m)을 비롯하여 설악산(1,708m), 오대산 (1,563m), 태백산(1,561m), 1,211고지 등 이름난 산들이 많다.

**벌—** 우리 나라 령토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벌들은 주로 큰 강들의 중류 및 하류 류역과 바다가지대에 펼쳐져있다.

주요한 벌은 조선서해안지대에 있는 룡천벌, 운전벌, 안주벌, 평양언덕벌, 재령벌, 연백벌, 김포벌, 호남벌, 전남벌 등이 있다.

조선동해기슭에는 수성벌, 길주벌, 함흥벌, 영흥벌이 있으며 조선남해기슭에는 진주벌과 김해벌이 있다.

가장 큰 벌은 재령벌, 평양언덕벌, 호남벌이며 그 넓이는 각각 500km²정도이며 그 다음은 400km²의 연백벌, 300km²의 안주벌, 함흥벌이 있다.

이 벌들은 우리 나라의 중요한 농업지대로 되여있다.

## 바다

우리 나라는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이다. 즉 조선동해, 조선서해, 조선남해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바다들은 모두 태평양과 잇닿아 있다. 세바다가운데서 가장 크고 깊은 바다는 조선동해이다.

조선동해에는 반도와 만, 섬들이 적다. 비교적 큰것은 호도반도, 경성만, 동조선만, 영일만, 울릉도, 마양도 등이다.

조선동해에는 남쪽으로부터 난류인 동조선해류가 북쪽으로 흐르며 북쪽으로부터 한류인 북조선해류가 남쪽으로 흐른다.

조선서해는 우리 나라 바다가운데서 가장 얕은 바다이다. 여기에는 반도, 만, 섬들이 많다. 주요한 반도, 만, 섬은 철산반도, 옹진반도, 태안반도, 무안반도와 서조선만, 강화만, 신미도, 강화도, 안면도 등이다.

조선서해에는 구로시오에서 갈라져나온 난류인 서조선해류가 흐른다.

조선서해는 밀물과 썰물의 차가 크고 얕으므로 바다가에는 넓은 간석지가 펼쳐있다. 이 간석지들은 중요한 농경지로, 로천전과 제염업기지로, 수산물 양식장으로 널리 리용된다.

조선남해는 우리 나라 바다가운데서 제일 작은 바다이다.

조선남해에는 반도, 만, 섬들이 매우 많으며 제주도, 거제도, 남해도를 비롯한 2,200여개의 섬들이 있어 세계적인 다도해를 이루고있다.

## 기후

우리 나라는 기후대상으로 북온대의 남쪽에 있으므로 비교적따뜻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네철이 바뀌는것이 뚜렷하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기후는 사람들의 경제활동에 적합하다.

우리 나라 기후는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겨울이 몹시 춥고 여름이 매우 더운것은 우리 나라 기후가 바다의 영향보다 대륙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나라 기후는 여름철과 겨울철에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철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때문에 여름철에는 남동쪽에서 누기있고 훈훈한 남동풍이 불어와서 자주 구름이 끼여 날씨가 흐리고 무더워지며 겨울철에는 북서쪽에서 차고 마른 북서풍이 불어와서 춥고 맑은 날씨가 계속된다. 그러므로 여름에는 기온이 높고 누기가 많으며 겨울에는 춥고 마른다.

봄철과 가을철은 철바람이 바뀌는 시기로서 대체로 따뜻하며 개인날씨가 계속된다. 봄철은 기온이 갑자기 높아지며 증발량이 많아짐으로 년중을 통하여 가장 마른시기로 된다.

가을철은 대체로 개인 날씨가 계속되며 따뜻한 편이며 년중을 통하여 날씨가 가장 좋은 시기로 된다.

**기온**— 우리 나라의 기온은 철에 따라 다르다.

한해평균기온은 10°C이지만(북쪽에서 4°C, 중부에서는 10°C, 남쪽바다가와 바다우의 섬들에서는 14°C) 가장 더운달인 8월평균기온은 24°C이고 가장 추운 달인 1월평균기온은 −6°C이다.

기온은 지방에 따라서도 다르다.

남쪽바다가의 8월평균기온은 26°C이고 1월평균기온은 0°C인데 북쪽산지방에서는 8월평균기온이 16°C이고 1월평균기온은 −22°C나 된다.

바다가와 내륙지방사이에도 기온의 차가 있다. 바다가지방은 내륙지방보다 기온이 겨울에는 대체로 4~6°C가량 높고 여름에는 1~2°C가량 낮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높은 기온은 1939년 7월의 39.8°C(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이며 가장 낮은 기온은 1933년 1월의 −43.6°C(자강도 중강)로 관측되였다.

**강수량**—우리 나라의 한해 평균강수량은 1,000mm이다. 한해 강수량의 55~60%는 6~8월의 3개월사이에 내린다.

강수량은 지방에 따라 다르다.

한해강수량이 많은 지방은 남쪽바다가 지방(1,400~1,500mm), 중부지방의 마식령산줄기와 광주산줄기 사이에 있는 지방(1,300~1,400mm), 북쪽에 있는 적유령산줄기 남쪽지방 등이다.

한해강수량이 적은 지방은 함경북도의 북쪽지방(500mm)과 바다가지방(700mm), 평안남도 및 황해남도 바다가지방(800mm)이다.

우리 나라에서 강수량이 제일 많은 기록은 1954년 강원도 장전의 3,150.3mm였으며 제일 적은 기록은 1924년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의 208.5mm였다.

**강** 우리 나라의 강은 지형상 특성으로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흐르는것이 많다.

강은 전체적으로 조선서해비탈면, 조선동해비탈면, 조선남해비탈면으로 흐르는 강들로 나눈다.

조선서해비탈면과 조선남해비탈면으로는 땅생김이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으므로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한강, 금강, 섬진강, 락동강 등 큰 강들이 흐르며 조선동해비탈면으로는 산줄기들이 바다가에 급하게 비탈져있으므로 두만강과 성천강을 내놓고는 모두 짧은 강이 흐르고있다.

큰 강으로는 압록강 (821km), 락동강(525km), 두만강(520km), 한강(514km), 대동강(439km), 금강(401km), 림진강(254km), 섬진강(212km), 청천강(199km), 례성강(192km) 등이 있는데 이 강들은 우리 나라의 10대강이다.

이러한 강들에는 물의 자원이 풍부하므로 대규모 또는 중소규모의 수력발전소들이 건설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전기를 공급하여 주고 있으며 농촌경리의 수리화, 수상운수 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있다.

우리 나라에는 천지와 자연호를 비롯한 수많은 자연호수들과 수풍호, 부전호, 연풍저수지, 태성저수지 등 많은 저수지들이 있다.

**온천과 약수**—우리 나라에는 온천과 약수가 매우 많다. 그 가운데서 널리알려진것은 함경북도의 주을온천(경성군), 평안남도의 룡강온천(온천군), 양덕온천(양덕군), 황해남도의 신천온천(신천군), 충청남도의 온양온천(아산군)이며 강원도의 삼방약수(세포군), 평안남도의 강서약수(강서군), 평안북도의 옥호동약수(선천군), 부산시 동래구의 동래와 해운대에 있는 약수 등이다.

**자연부원** 우리 나라가 남북으로 길게 놓여있는 지리적특성으로 기후가 다양하고 땅생김과 지질이 복잡한것과 결합되여 우리 나라의 자연계는 더욱 다종다양하며 또 각종 자연부원이 풍부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는 령토로 보나 인구로 보나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며 자원도 매우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석탄과 쇠돌을 비롯한 여러가지 지하자원과 울창한 산림, 기름진 농토, 넓은 어장과 같은 풍부한 자원은 부강한 나라를 세우기에 아무런 부족도 없는것입니다.》**(《청소년사업과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임무에 대하여》, 1권, 73페지)

우리 나라는 지하자원이 다양하고 풍부한것으로 세계에 유명하다.

지금까지 알려진것만 하여도 300여종이 넘으며 그 가운데서 쓸모있는 광물만 하여도 200종이나 된다. 특히 석탄, 철, 연, 아연, 금, 동, 마그네사이트, 월프람, 흑연 등은 그 량과 질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힌다.

우리 나라는 산림자원이 많은 나라의 하나이다. 산림의 넓이는 전령토의 73%이며 그 가운데서 약 60%는 북반부에 있다.

우리 나라 산림식물종수는 1,100여종이며 그중 교목만 하여도 침엽수가 19종, 활엽수가 136종이나 된다. 우리 나라 산림에는 700여종의 약용식물, 200여종의 산채류, 450여종의 꿀원용식물 등을 비롯한 경제적으로 유용한 식물이 풍부하다.

섬유 및 제지 식물로서는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황철나무, 닥나무, 노박덩굴, 유지식물로서는 잣나무, 가래나무, 호두나무, 초피나무 등이 있다. 산과실로서는 밤나무, 돌배나무, 들쭉나무, 산구나무, 머루, 다래, 산딸기, 매지나무, 염료식물로서 시닥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특수용재의 수종으로서 참대, 오동나무, 황경피나무 및 기타 많은 나무들이 있다.

우리 나라는 수력자원이 세계적으로 풍부한 나라중의 하나이다.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1,000만kw이상의 수력자원을 가지고있다. 수력자원이 많은 하천들을 보면 압록강수계, 두만강수계, 대동강수계 그리고 림진강수계, 한강수계, 금강수계, 락동강수계다. 그중에서도 특히 수력자원이 많은 지역은 압록강 류역과 두만강류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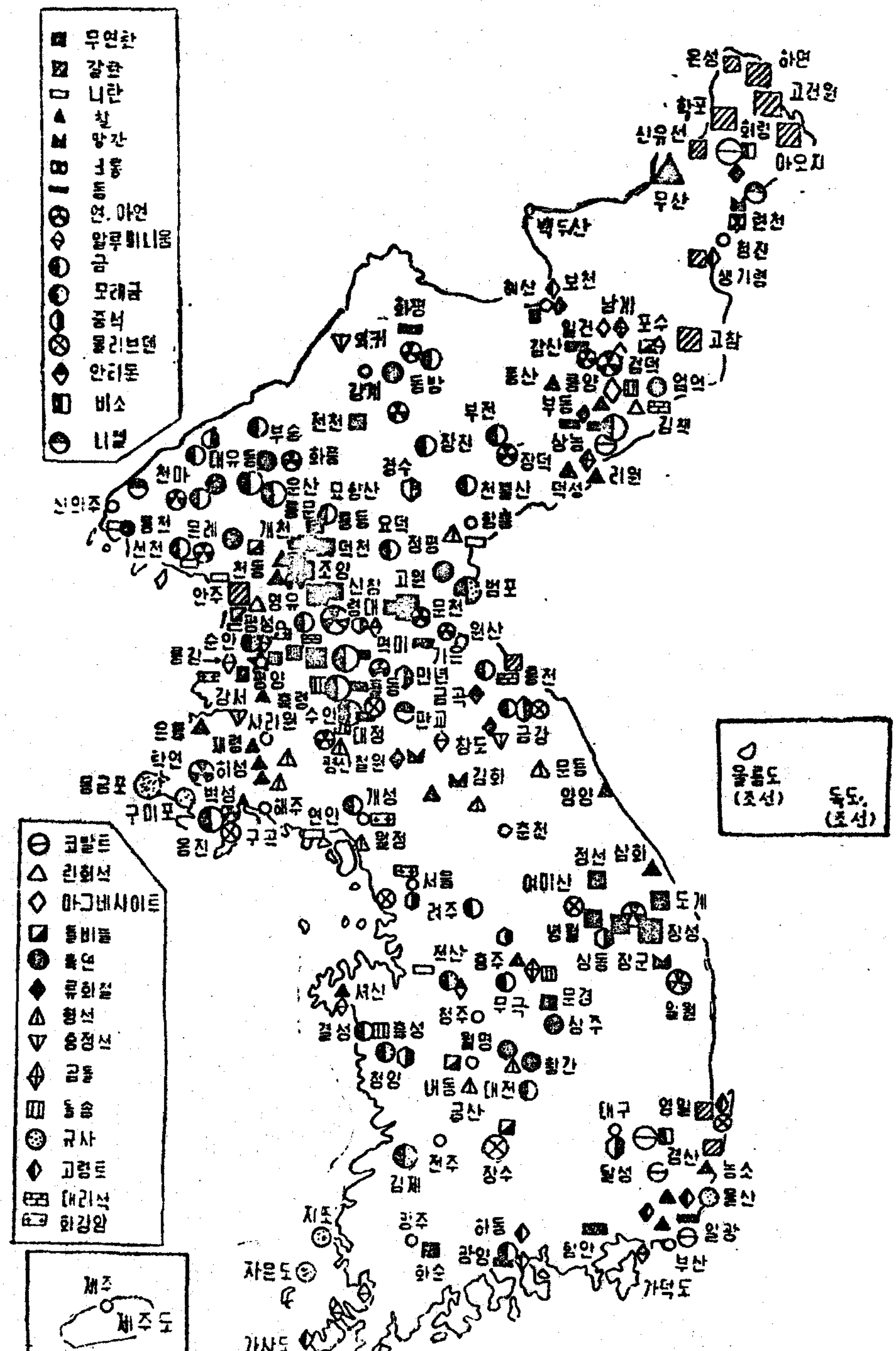
우리 나라는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으로서 수산자원이 세계적으로 풍부한 나라들 중의 하나이다.

조선동해는 한류와 난류가 사귀는 지역이므로 한류성물고기들과 난류성물고기들이 모여오는 세계 4대어장의 일부에 속한다.

우리 나라 수산자원은 650여종에 달하며 그중 530여종은 바다에, 120여종은 호수, 저수지, 하천 등에 분포되여있다. 대표적인 물고기들을 들면 동해에서는 명태, 고등어, 청어, 대구, 가재미, 방어 등이며 서해에서는 조기, 새우, 민어, 도미, 삼치, 갈치, 바스레기, 대합조개, 김, 굴, 미역 등이고 남해에서도 도미, 고등어, 갈치, 새우 등이다.

무진장한 지하자원과 산림자원, 수력자원과 수산자원은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고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는데 통일적으로 개발리용되지 못하고있으며 모든 분야에서 남북간의 차이가 점차 심화되고있다.

나라의 풍부한 자연부원을 전조선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며 우리의 아름다운 삼천리강토우에 부강하고 번영하는 통일조국을 건설하여 4천만 조선인민이 다같이 어버이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한가정에서 행복하게 살려는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숙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하루속히 몰아내야 한다.



# 우리 나라 력사(해방전)

아득한 옛날부터 조선반도에 인류가 살았다는 사실은 최근년간에 발견된 평양시 상원군 검은모루유적에서 다시한번 확인되였다.

검은모루유적은 평야지대에 솟아져있는 야산들에 생긴 천연동굴로서 그 속에는 화석화된 흙과 동물들의 뼈들이 가득차있었다. 굳어진 흙속에 박히었는 뼈들은 이 동굴속에 자리잡고 살던 사람들이 잡아먹고 버린 동물들의 뼈들이다. 뼈무지속에서 사람들이 쓰던 조잡한 석기(구석기)가 발견되였다. 고고학자들의 판단에 의하면 유적은 수십만년전의것으로 알려져있다.

검은모루유적은 앞서 함경북도 웅기군에서 발견된것보다 좀 늦은 시대의 유적인 굴포유적과 함께 현재까지 알려진 매우 귀중한 우리 나라 구석기시대의 유적이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 반도에는 다음 시대인 신석기 시대에 들어와서야 사람들이 대륙으로부터 몰려와서 살게되였다는 일제어용학자들의 허황한 주장을 격파하였다.

조선사람의 조상들이 구석기시대에서 벗어나 갈간 석기와 토기를 쓰게되는 신석기시대로 들어온것은 기원전 5천년경이였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벌써 원시무리의 생활로부터 벗어나 원시공동체를 무어 생활하게 되였다.

생산도구의 개선은 생산력의 발전을 가져오게 하였다. 기원전 2천년대에 우리 조상들은 청동기를 발견하여 썼으며 기원전 천년대에는 철기를 사용하게 되였다. 원시공동체사회의 붕괴와 고대국가(노예소유국가)의 형성은 원시시대 말기에 일어났던 생산력발전의 필연적산물이였다.

우리 력사에서 첫 고대국가는 고조선이였다. 우리 반도의 서부지방과 북쪽으로는 료하류역에 이르는 지역에 자리잡았던 이 나라는 기원전 8~7세기 이전에 이미 국가로 형성되고 있었다. 이 나라는 기원전 194년 그 마지막 왕조가 멸망할때까지 여러번 그 서쪽의 침략국가들과 싸웠다. 당시 이 나라는 다만 《조선》이라고 불리웠으나 종전부터 이를 후세의 리씨조선왕조와 구별하기 위하여 고조선이라고 불러오고있다.

고조선보다 몇세기 늦어서 형성된 고대국가는 부여였다.

부여는 송화강류역의 넓은 평야지대에 자리잡고있었으며 고조선과 마찬가지로 농업과 목축이 당시로서는 상당히 발전한 나라였다. 이 나라는 기원초에 봉건국가 고구려에 의하여 통합되였다.

우리 력사의 또 하나의 고대국가 진국은 부여보다도 1~2세기 늦어서 고대국가로 형성되였다.

조선반도의 중부이남에 자리잡았던 이 나라는 그 서남부인 마한지역을 주요 구성부분으로 하고 그 동쪽의 진한, 변한 등 지역을 포괄하고 있었다. 농업을 주되는 생업으로 하고있었던 진국은 다른 고대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앙집권적인 나라였으나 지방들에 대한 중앙의 통제력은 매우 약했던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 력사에서 고대국가들의 종말과 봉건국가들의 성립은 대체로 기원전후시기였다.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강대한 봉건국가를 형성한것은 고구려였다.

고구려는 압록강의 지류 동가강류역에 자리잡았던 5개의 강력한 봉건세력들의 련합으로 이루어진 봉건국가였다.

그 건국전설에서 시조왕 고주몽이 부여에서 망명해온것으로 되어있는것은 이 나라가 종족—문화적으로 특히 부여와 친연관계가 깊었던것을 말한다.

기원전 1세기에 봉건국가를 형성한 고구려는 처음부터 서방 한나라를 비롯한 침략세력들과 마주서 치렬한 투쟁을 벌리였다. 국가로서의 고구려의 강화발전과정은 이러한 침략세력들을 반대하여 싸운 과정이였으며 이를 정복 또는 몰아내는 과정이였다.

농업을 주되는 생업으로 하면서 목축도 당시로서는 발전된 수준에 있었던 고구려에서는 강력한 기마군대를 조직하여 침략자들에 항거하였다. 국민들속에는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는 상무의 기풍이 지배하였음으로 고구려의 군대는 강력하였다. 이리하여 5, 6세기경부터 고구려는 고조선령역내에서 침략자들을 다 소탕하고 북으로는 료하류역으로부터 남으로는 한강류역에 이르는 광대한 령역을 포괄하게 되였다.

고구려보다 좀 뒤늦게 대체로 기원1세기경에 한강류역 오늘의 광주를 중심으로 하여 백제봉건국가가 형성되였다. 이 국가를 형성한것도 고구려계통사람이라고 하는 이 지방의 유력한 5개의 봉건세력이였다. 이 국가는 고구려가 아직 그 세력을 남쪽으로 뻗기이전시기에 있어서는 반도내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다. 국가를 형성한지 얼마안되어 백제는 마한을 통합하였으며 이웃의 여러 《소국》들을 정복하여 령토를 넓혀갔다.

신라는 오늘의 경주(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서 6개의 봉건세력들이 련합하여 형성한 봉건국가이며 국가형성의 시기는 대체로 2세기경이였다.

우리 력사에서 세나라(삼국)라고 할때에는 이상 고구려, 백제, 신라를 말한다. 세나라는 7세기후반기에 이르기까지 존속하였다.

기원전후시기 봉건국가의 형성과정이 진행되였을때 료하류역으로부터 반도의 남단에 이르기까지에는 수많은 봉건《소국》들이 있었다.

세나라도 각각 처음에는 그러한 《소국》들 가운데 하나였으며 그 발전과정에서 이웃의 《소국》들을 많이 정복, 통합하였다.

그러나 백제와 신라의 사이, 오늘의 락동강연안에 자리잡고있었던 6개의 가야(가락)국들은 가장 오래동안 존속하였다.(6세기 전반기까지) 6개의 가야국들은 한때 공고한 동맹체를 형성하여 백제, 신라에 대항하기도 하였다.

백제, 가야, 신라 사람들은 진국시기이래로 활발한 해상활동을 진행하였다.

특히 이 나라 사람들은 가까운 서부일본으로 많이 진출하여 선진적문화를 그곳에 전파하였으며 정치적으로는 유력한 세력을 이루면서 그곳의 력사발전에 기여하였다.

봉건시대의 첫 시기에 해당하는 세나라시기에는 국제정세도 복잡하였다.

주로 그것은 고구려와 이웃하고 있는 중국의 봉건왕조의 침략정책과 관련되는것이였다.

중국의 봉건왕조들은 7세기에 이르러 고구려에 대한 대규모적인 침략전쟁을 감행해나섰다.

6세기말에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는 고구려를 침략하기 위하여 598년에 벌써 30만명의 군대를 동원한 일이 있었다.

첫 실패에도 불구하고 수나라의 침략기도는 집요하고도 교활하였다.

침략자는 신라와 백제의 봉건통치배들을 고구려를 반대하는 방향에로 유인하기도 하였으나 침략자의 목적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러차례에 걸치는 수나라의 침략전쟁가운데서 가장 큰 규모의것은 612년의 침략전쟁이였다.

이때 침략자들은 력사상 동방에서 처음보는 백만의 침략군과 2백만의 보조인원들로 이루어진 대규모의 침략군대를 내몰았다. 용감한 고구려의 군대와 인민들은 명장 을지문덕의 지휘아래 침략군의 주력을 청천강에서 격파하고 놈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였다.

7세기후반기에 이르러 정세는 급변하였다. 조선반도에서는 신라의 력량이 강화되였다.

신라는 660년에 백제를 통합하고 668년에 고구려 멸망후 그 남쪽지역을 통합하였다.

고구려의 북부지역인 료하, 송화강이남은 한때 당나라침략군대에 의하여 강점되고 있었으나 7세기말에 이르러 고구려귀족들이 침략군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리용하여 발해라는 봉건국가를 세웠다. 발해봉건국가는 고구려의 계승자로서 한때는 광대한 령역과 비교적발전된 봉건문화를 가진 나라로서 약 2세기동안 존속하였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가진 우리 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인류문화의 공동적보고에 기여할만한 적지않은 과학적 창조와 발명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성선집》, 4권, 1954년판, 259페지)

고대국가들의 과학 문화를 이어 받은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등의 나라들에서는 당시로서는 매우 발전된 천문학과 건축술 그리고 그림, 공예를 비롯한 문화를 자랑하고 있었다.

특히 오늘까지 남아있는 고구려의 벽화무덤들과 신라의 첨성대는 비록 봉건귀족들에게 복무하는것들이기는 하나 거기에는 우리 인민들의 과학적 창조력과 슬기로운 예술적재능이 반영되여있다.

통합신라는 9세기말, 10세기초에 이르러 지방봉건세력들의 대두와 그들서로끼리의 충돌 그리고 대규모의 농민폭동으로 말미암아 매우 약화되였다. 이러한 기회를 리용하여 자기 세력을 확장하고 중앙집권적인 봉건국가를 건립한것은 개경(개성)을 중심으로 하는 봉건세력인 고려였다. 고려왕조는 935년 신라왕조를 통합하였다. 이듬해에 고려는 그의 가장 큰 적수였던 후백제를 멸망시켜 조선반도를 통합하였으며 이 시기 거란족에 의하여 멸망한 발해의 유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였다.

고려는 10세기 이후 봉건적중앙집권국가로서 강화되여갔다. 고려는 1392년 리조에 의하여 멸망할때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강포한 외래침략자들과 싸웠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란폭한 침략자는 10세기말, 11세기초의 거란과 13세기의 봉건몽골의 군대였다.

거란침략자들은 30년에 걸쳐 여러번 침략전쟁을 걸어왔으나 고려인민은 빈번히 이를 물리쳤으며 특히 그 마지막 침략인 1018~1019년전쟁에서 고려군대는 강감찬의 지휘아래 다시는 침략하지 못하도록 호된 징벌을 가하였다.

봉건몽골침략군대와의 싸움은 힘겨운것이였으나 고려인민은 애국심을 발휘하여 나라의 독립을 지키내였다.

고려인민이 창조한 문화 가운데서 특히 자랑할것은 우아한 고려자기와 12세기경부터 사용된 금속활자이다.

물론 이러한 문화적창조물은 봉건통치계급들에게 독점되였다.

고려인민은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용감하였을뿐만아니라 특히 12세기후반기 이후에는 대규모의 농민폭동으로 봉건통치배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고려에 교체한 리조(리씨왕조의 준말, 정식이름은 《조선》)는 15세기초 오늘의 서울에 자리잡은 후 중앙집권적 봉건국가의 체제를 강화하였다.

이 시기에 함경도를 휩쓴 큰 농민폭동이 일어났다.

왕조가 성립한 초기에는 봉건문화가 일정하게 발전하였다.

우리의 글자(훈민정음)와 세계 최초의 측우기가 발명된것도 이 시기였다.

16세기말에 이르러 조선은 일본의 침략을 받았다.

1592—1598년에 걸친 반침략전쟁에서 조선인민은 침략자들에게 응당한 징벌을 주었으며 독립과 영예를 고수하였다.

우리 함대의 훌륭한 지휘관이였던 리순신장군은 철갑선인 거북선을 만들어 놈들을 바다우에서 무리로 쓸어눕히였다.

전쟁에서 파괴는 심하였으나 전후 근면한 우리 인민은 봉건질곡아래에서도 생산을 회복하고 발전시켜나갔다.

17세기후반기부터는 상품—화폐관계가 장성하였고 18세기 이후에는 광산과 일부 수공업부문들에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요소들이 발생하였다.

새로운 자본주의적요소의 장성의 길은 매우 험난하였으나 계속 장성의 길을 밟아나갔다.

이 시기의 사회경제적현상을 반영하여 일부 량반지식분자들속에서 새로운 학풍—실학이 대두하였다. 우리 나라의 력사, 지리, 언어, 문학, 풍속 연구를 주장하고 《쓸모있는》학문탐구를 주장하면서 자연, 기술과학을 연구하고 실험, 실천의 방법을 존중시하던 이 학풍은 당시의 조건에서는 선진적의의를 가지였다.

18세기이후 특히 19세기에 들어와서 리조봉건체제는 더욱 부패타락하였다. 농민들은 더욱더 치렬하게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고대, 중세의 전기간을 통하여 압제자를 반대하여 투쟁을 멈춘일이 없었던 우리 인민들은 국내의 계급적원쑤들뿐만아니라 이와 결탁한 외래침략자들을 맞서서 힘찬 투쟁을 전개하였다.

조선인민의 근대력사는 19세기 60년대 미제침략자들을 선두로한 구미자본주의 렬강들의 무력침공을 격퇴하고 오래동안 우리 나라의 사회발전을 억제하던 봉건제도를 반대하는 반침략반봉건투쟁으로써 시작되였다.

조선인민은 1866년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평양근방까지 침입한 미제침략자들의 해적선 《샤만호》를 불태워버림으로써 근대사의 첫 페지를 장식하였다.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증조할아버님이신 김응우선생께서는 이때 인민들의 투쟁의 앞장에서 용감히 싸우시였다.

애국적인 우리 인민들은 같은 해에 프랑스함대와 1871년의 미국함대의 침략도 성과적으로 격퇴하였다.

1876년 미제침략자들을 등에 업고 조선침략의 《돌격대》로 나선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리조봉건통치배들을 무력으로 위압하면서 불평등적인 《강화도조약》을 강압체결하였다. 이때로부터 우리 나라는 반(半)식민지화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조선에 대한 일제의 침략이 강화됨에 따라 인민들의 반침략투쟁도 더욱 강화되였다. 1882년(임오)군인폭동은 일본군국주의침략자들 및 그에 아부굴종하던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애국적인 군인들과 인민들의 폭동이였다.

1884년 김옥균의 지도아래 우리 나라에서 첫 부르죠아혁명이 일어났다. 《갑신정변》으로 알려진 이 부르죠아혁명은 나라의 봉건적락후성을 청산하고 새로운 자본주의발전을 지향한 진보적인 혁명이였으며 외래침략자들의 예속밑에서 벗어나 나라의 자주성을 고수하기 위한 진보적운동이였다. 그러나 이 부르죠아혁명은 외래침략자들 및 그와 결탁한 반동적봉건통치배들의 탄압과 운동지도자들의 사회정치적제약성으로 말미암아 실패하였다.

19세기말 20세기초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적극적인 부추김을 받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책동이 더욱 강화되자 조선인민의 반제반봉건투쟁은 대중적성격을 띠고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1894년 《보국안민》, 《척양척왜》의 구호밑에 대규모적인 농민전쟁이 일어났다. 1894년(갑오)농민전쟁은 일제침략자들과 봉건통치배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우리 나라 사회발전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재정, 군사, 정치적원조밑에 1894~1895년 청일전쟁과 1904~1905년 로일전쟁에서 이길수 있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책동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1905년 11월에 자기들의 무력을 동원하여 가장 야만적인 강압적방법으로 조선의 봉건통치배들에게 《을사보호조약》을 강요하고 1910년에는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하고 우리 나라를 저들의 완전한 독점적식민지로 강점하였다. 그러나 애국적인민들은 식민지노예의 운명에 떨어지게 된 조국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국내의 각지에서 각종형태의 운동을 벌리였다.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10년 망국당시를 전후한 시기의 조선인민의 반일해방투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혀주시였다.

**《1910년 망국당시를 전후하여 근 10년동안이나 계속된 반일의병운동은 일본강도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습니다. 비록 원쑤들의 야만적탄압으로 인하여 의병운동은 실패하고 말았지마는 조선민족의 반일무장투쟁은 계속되였고 나중에는 만주에서 독립군운동으로 전개되였습니다. 망국후 10년동안에 국내에서는 적의 폭정하에서 비밀결사와 애국문화운동 등으로, 국외에서는 혁명단체들의 조직 또는 반일무장투쟁으로 민족해방운동은 끊임없이 전개되였습니다.》**(《김일성선집》, 1권, 1963년판, 146~147폐지)

조선인민의 각종 형태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은 일제강점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나 이 모든 형태의 운동들은 부르죠아민족주의의 계급적 및 정치사상적 제약성으로 인하여 실패를 면할수가 없었다.

1919년 전민족적인 3.1봉기가 일어났다. 이 봉기는 조선인민의 애국적투지와 혁명적정력을 시위하고 일제강점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준 반면에 부르죠아민족주의의 제한성과 약점을 전면적으로 드러내놓았다. 3.1운동이 있은 뒤에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은 점차 로동계급을 선두로 하여 맑스-레닌주의기치밑에 발전하게 되였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로동계급이 자라나 투쟁무대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맑스-레닌주의사상이 급속히 보급되였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창건되였다.

공산당의 창건은 로동운동과 농민운동, 민족해방운동의 발전을 추동하였다.

그러나 당지도부를 차지하였던 종파분자들의 심한 파벌싸움으로 말미암아 당은 자기 대렬의 통일을 보장할수 없었다. 그리하여 조선공산당은 일제의 탄압과 종파분자들의 파괴책동을 이겨내지 못하고 창건된지 3년만에 조직된 력량으로서의 자기 존재를 끝마치게 되였다.

일제강점후 1920년대에 이르기까지 조선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이 많은 결함과 부족점을 나타내면서 실패와 곡절을 겪고있을 때 반일민족해방투쟁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께서는 조선민족을 새 력사의 려명에로 이끌어주시였다.

김형직선생께서는 일찌기 중학시절부터 반일투쟁을 지도하시였으며 1917년 3월에는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시였다.

조선국민회는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을 튼튼히 결속하여 유리한 혁명정세가 다가올 때 조선독립을 조선사람자체의 힘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달성할데 대한 투쟁과업을 제기하였다. 조선국민회는 우리 나라에 맑스-레닌주의가 보급되기 이전시기 반제적립장이 가장 철저한 혁명조직이였으며 그 조직규모와 활동범위에 있어서도 가장 큰 반일지하혁명조직이였다.

3.1운동후 1920년대 중엽에 이르는 기간에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께서는 조선민족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의 위대한 길을 개척하시면서 불면불휴의 혁명투쟁을 계속하시다가 1926년 6월 5일 혁명의 큰 뜻을 이루지 못하시고 애석하게도 서거하시였다.

1926년대말 1930년대초에 일제의 폭압은 전례없이 심하여졌으며 합법적투쟁의 온갖 가능성이 말살되였다.

이와 함께 일제의 폭력적탄압에 항거하는 로동자, 농민들의 폭력적투쟁은 더욱 강화되였다.

조선인민은 선행한 시기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맑스-레닌주의적혁명로선과 전략전술로서 확고한 승리에로 인도할 탁월한 령도자 위대한 수령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정세의 요구를 가장 정확하게 통찰하시고 우리 인민을 확고한 승리의 길로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활동을 시작하면서 일찌기 1926년 가을 타도제국주의동맹(략칭은 Ｅ．Ｄ)을 결성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길림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하신 초기혁명활동과정에 조선혁명의 지도리론을 세우시였으며 확고부동한 혁명적원칙성과 불굴의 의지, 능숙한 조직력과 비상한 혁명적전개력,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 높은 령도예술을 지니신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로, 조선혁명의 위대한 령도자로 등장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에서 일대 전환을 이루는 새로운 력사적단계를 열어놓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유격전을 항일무장투쟁의 기본형식으로 규정하시고 이에 따라 상비적인 혁명무력인 항일유격대를 창건하며 유격근거지를 창설하고 반제공동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방침에 따라 1932년 4월 25일 조선인민의 첫 맑스-레닌주의적혁명무력인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조선의 북부국경지대인 두만강연안일대에 유격근거지를 창설하시였으며 근거지내에서 세계력사상 처음으로 인민혁명정부를 세우시여 조선인민의 영광스러운 사회주의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깊은 뿌리를 마련하시였다.

실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침략자들을 타승하고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는 가장 적극적이며 결정적인 투쟁인 동시에 인민대중의 다른 모든 형태의 투쟁을 강력히 고무추동하는 가장 위력있는 투쟁형태로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의 확고한 중심을 이루었다.

항일무장투쟁은 로동계급과 농민대중의 근본적리익과 우리 인민의 민족적숙망을 전면적으로 정확히 반영하여 민족해방의 과업과 사회혁명의 과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위대한 투쟁으로서 전체 조선인민에게 희망과 혁명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그들을 거족적인 반일투쟁에로 불러일으켰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의 반일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력사에서 처음으로 주체를 철저히 확립하시여 맑스-레닌주의를 조선혁명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발전시키시였으며 독창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확고히 조직령도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비로소 맑스-레닌주의가 조선현실에 결합되고 공산주의운동이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한 조선인민의 혁명투쟁과 밀접히 결부되여 하나의 통일적인 흐름속에서 발전하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광복의 홰불을 높이 추켜드시고 조직령도하신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은 크게 세개의 단계를 거쳐 발전하였다.

첫단계는 김일성동지께서 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고 부장대오를 조직하시여 무장투쟁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1936년 남호두회의 직전까지의 기간을 포괄하고있다.

이 시기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제시하신 조선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적혁명로선에 기초하여 항일무장대오를 조직하시고 넓은 지역에서 군사정치활동을 진행하시였다. 바로 이 시기 그이께서는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역에 혁명의 근거지를 창설하시고 처음으로 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하시여 혁명의 골간을 하나하나 키우시고 대중적지반을 더욱 튼튼히 꾸리시면서 그에 의거하여 무장투쟁을 발전시키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같이 항일무장투쟁의 첫단계에서 무장대오를 중심으로 한 혁명력량을 꾸리시고 혁명의 급격한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의 둘째단계는 1936년 2월 남호두회의로부터 1940년 8월 소할바령회의직전까지의 기간을 포괄한다.

이 시기 김일성동지께서는 백두산일대에 새로운 혁명근거지를 창설하시고 그에 의거하여 적에 대한 적극적공세에로 넘어간 단계이다.

그이께서는 이 시기 무장투쟁을 광활한 지역에로 확대하고 대규모적인 군사활동을 강력히 조직전개하시였다. 또한 이 시기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고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과 조선공산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을 보다 전면적으로 추진시키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둘째단계에서 우리 인민의 주체적인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일대 앙양에로 이끄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세째단계는 1940년 8월 소할바령회의로부터 1945년 항일무장투쟁이 종국적으로 승리한 때까지를 포괄하고있다.

이 시기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국내외정세에 대처하여 민족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현명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시던 시기이다. 그이께서는 이 시기 조선인민혁명군을 정치군사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면서 수많은 소부대들과 정치공작원들을 적후방 특히 국내깊이까지 파견하시여 일제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인민대중을 반일반전투쟁에로 세차게 불러일으키시였다.

그리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15성상의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은 력사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우리 조국은 근40년에 걸친 일제의 통치기반에서 해방되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은 조선인민의 혁명적기개를 떨치고 민족의 영예를 고수한 자랑찬 투쟁이였으며,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이룩한 위대한 혁명투쟁이였으며, 오늘도, 래일도 우리 혁명승리의 힘의 원천으로 되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한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이였다.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승리는 절세의 애국자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공산주의 혁명의 력사적뿌리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이룩된 혁명전통에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탁월한 전략전술과 고매한 덕성, 강의한 의지와 혁명적원칙성,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 등이 구현되여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사상체계와 투쟁정신, 사업방법과 사업작풍, 투쟁경험과 업적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빛나는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인민이 대를 이어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가장 귀중한 혁명적재부이며 조선혁명의 튼튼한 밑천이며 뿌리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심으로써 조선인민의 민족적숙망인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고 영광스러운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여 이 땅우에 착취없고 압박없는 지상락원인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였다.

# 조선로동당

조선로동당은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이며 우리 나라 근로대중의 모든 조직들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혁명조직이다.

조선민족과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혁명적맑스-레닌주의당인 조선로동당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우리 혁명의 영재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의 한분이시며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1945년 10월 10일에 창건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은 우리 나라 로동자, 농민, 인테리 등 근로자들 가운데서 근로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 싸우는 선진투사들로 조직되였다.

조선로동당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직접 이어받은 혁명적인 맑스-레닌주의당이다.

조선로동당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시여 구현하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범위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하고있는 조선로동당은 창건된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는 조선혁명의 참모부로서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을 조직하고 고무하여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위대하고 찬란한 업적을 쌓아올렸으며 자기에게 맡겨진 력사적임무를 빛나게 수행하여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오늘 우리 당은 자기의 현명한 령도와 확고한 맑스-레닌주의적원칙성과 조선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리익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원수들에 대한 비타협적인 견결한 투쟁으로 하여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임을 얻었으며 조선인민이 전적으로 자기의 운명을 맡기고있는 그들의 믿음직한 향도적력량으로 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52페지)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조선인민의 향도적력량인 조선로동당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깊고도 억센 뿌리에서 자라났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불길속에서 조선혁명을 위한 완전히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당창건방침을 제시하시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정력적으로 추진시키심으로써 당을 창건할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혁명적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은 로동계급이 투쟁무대에 적극적으로 나선 1920년대부터 끊임없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시기 당창건을 위한 투쟁은 공산주의운동안에 있은 본질적인 결함으로 하여 실패를 거듭하였다.

맑스-레닌주의가 보급되고 로동운동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1925년에 나왔던 조선공산당은 자체의 본질적인 약점과 결함으로 하여 진정한 맑스-레닌주의당으로 발전할수 없었으며 그것마저 3년도 못가서 일제의 탄압과 종파분자들의 분렬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직된 력량으로서의 자기 존재를 끝마치고 말았다.

1928년 조선공산당이 해산된후에도 종파분자들은 당재건문제를 둘러싸고 종파적, 사대주의적 해독행위를 더욱 우심하게 벌리였다. 이자들은 저들의 종파적목적과 출세주의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5.30폭동과 같은 좌경모험주의적책동도 서슴없이 감행하여 당창건문제에서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철저히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당창건방침을 제시하는 문제는 매우 절박한 혁명의 요구였으나 당시까지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였으며 또 해결할수도 없었다.

이 문제는 오직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체득하시고 일찌기 우리 혁명의 전략과 전술을 확립하시였으며 조선혁명의 당면임무와 장래 발전전망을 환히 내다보고계셨을뿐만아니라 그에 대한 높은 혁명적책임감을 지니셨으며 혁명투쟁에서 당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로동계급의 전위대로서의 그의 사명을 깊이 통찰하시고 계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서만 해결될수 있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시 혁명정세와 1920년대 공산주의운동의 심각한 교훈을 분석총화하시고 혁명적인 당창건을 위한 투쟁에서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는 문제,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을 대대적으로 키워 조선공산주의자대오를 새로 편성하며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는 문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토대를 튼튼히 쌓으며 그에 기초하여 당을 창건하는 문제, 당창건을 위한 투쟁을 무장투쟁 및 통일전선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 문제 등 조선공산당창건을 위한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 방침은 철저한 주체사상과 혁명적원칙으로 일관된 가장 현명한 방침으로서 당창건문제와 관련한 종래의 모든 리론과 주장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 방침이며 조선에서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할수 있는 유일하게 옳은 길을 밝혀준 가장 정당한 방침이였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활동을 전개하신 첫 시기에 벌써 1920년대 조선공산주의운동의 교훈을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신데 기초하여 당창건은 조직사상적준비를 철저히 갖춘 기초우에서만이 실현될수 있다는것을 현명하게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요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였다.

**…당—이것은 우리의 모든 승리의 향도성입니다. 그러므로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하는것은 우리 조선공산주의자들앞에 제기된 가장 절실하고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하여 일부 종파분자들이 말하는것처럼 우리 형편에서 지금 당장 당을 창건하자고할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준비와 혁명력량의 축적이 없이 즉시 당을 창건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허공에 집을 짓겠다는것과 같은 공허한 망상에 지나지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장 심중하게 그리고 가장 정력적으로 당을 창건하기 위한 조직사상적토대를 한걸음씩 축성해나가야 할것입니다.…**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에 대한 혁명의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의 구상속에는 항일무장투쟁과 반일민족통일전

선운동을 통하여 혁명투사들을 육성하며 공산주의대오를 확대강화하며 당의 조직적골간을 굳건히 꾸리는 문제, 혁명대오에서 종파주의, 기회주의 등 온갖 불순한 사상을 철저히 반대배격하며 대오의 조직사상적순결성과 사상의지의 통일단결을 보장하는 문제, 대중적지반을 반석같이 다지는 문제, 당의 조직원칙과 당생활규범을 확립하는 문제, 당의 투쟁강령을 준비하고 지도리론을 확립하며 전체 공산주의자들과 혁명투사들을 유일한 혁명사상과 혁명로선으로 무장하는 문제 등 매우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포함되여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만 쳐다보고 남에게 의존하여 당을 창건하려는 사대주의, 교조주의, 종파주의와 온갖 기회주의를 철저히 반대배격하시고 주체적립장에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줄기차게 밀고나가시였다.

그리하여 혁명적맑스-레닌주의당창건에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방침들은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이 행정에서 우리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가 확고히 마련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에 기초하여 해방후 복잡하고 어려운 정세하에서 당창건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혁명투쟁에서 세련된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고 여러 지방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그루빠들을 망라하여 맑스-레닌주의적당건설원칙에 엄격히 서서 당을 다시 창건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해방직후의 복잡하고 혼란된 환경속에서, 계급적원쑤들의 파괴책동을 반대하며 종파주의, 지방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속에서 태여났습니다.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에서 이룩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에 기초하여 그리고 우리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높아진 혁명적열의와 적극적인 지지에 의거하여 모든 난관과 장애를 이겨내고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하는 위업을 훌륭히 실현하였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290페지)

해방후 조성된 정세하에서 혁명을 전진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창건을 위한 사업에서는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강점, 혁명력량의 급속한 장성을 방해하는 반동들의 온갖 책동, 종파분자들의 당창건 방해책동 등으로 해아릴수 없이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있었다.

조선혁명이 처한 이 난국을 타개하고 당을 창건하는 문제는 오직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당창건의 튼튼한 조직사상적기초를 마련하시였고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속에서 절대적인 신임과 권위를 가지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에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에 기초하시여 새형의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할수 있는 명확한 길을 밝히시였다.

그이께서는 우선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육성단련된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고 각 지방에 흩어져있던 공산주의자들을 망라하여 맑스-레닌주의적당건설원칙에 엄격히 서서 당을 창건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나라의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강유력한 당중앙지도기관으로서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를 결성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적극적이며 현명한 당건설방침이 관철됨으로써 내외의 원쑤들의 파괴책동이 극복되고 1945년 10월 10일 조선혁명의 참모부인 맑스-레닌주의당창건의 력사적위업이 빛나게 실현되였다.

이것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시기 위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투쟁하시고 노력하여오신 결과에 이룩된 빛나는 열매이다.

우리 당의 창건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전반적혁명운동발전에서 거대한 력사적사변이였다.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은 이때로부터 혁명투쟁에서 자기의 힘있는 전위부대, 혁명의 참모부를 가지게 되였으며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새 조국건설을 위한 혁명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하여나가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제때에 당을 창건하시였을뿐만아니라 그것을 조직사상적으로 부단히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특히 조선공산주의운동의 통일을 실현하는 우리 시대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이룩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이 신민당과 합당하여 근로대중의 통일적정당인 로동당으로 발전하게 된것은 우리의 혁명력량을 확대강화하는데서 획기적인 사변이였습니다. 합당의 결과로 우리 당은 로동계급뿐만아니라 근로농민과 근로인테리의 선진분자들을 자기 대렬에 묶어세운 대중적정당으로 되였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288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맑스-레닌주의당건설리론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시여 1946년 8월 우리 당을 다른 근로자당들과 합당하여 근로대중의 통일적정당인 로동당으로 발전시키는 현명한 조치를 취하심으로써 당을 짧은 기간에 강유력한 대중적정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공산당과 신민당의 합당은 당력량을 강화하고 혁명가들의 대렬을 더 늘일수 있게 하였으며 당이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를 박을수 있게 하였다. 특히 근로자당의 합당은 근로인민의 혁명력량을 갈라놓을수 있는 위험성을 없애고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각계각층 근로인민들의 동맹을 강화하였으며 통일전선을 더욱 튼튼히 할수있게 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정확한 반종파투쟁을 제시하시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심으로써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에서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해독을 끼친 종파분자들을 우리 당대렬에서 완전히 청산하고 조선공산주의운동의 통일을 실현하시였다.

이와 함께 사대주의, 교조주의 등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심으로써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시였으며 우리 당을 세련되고 단련된,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결속된 맑스-레닌주의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시고 당조직을 강화하심으로써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전투대오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당의 군중로선을 관철하시여 각계각층의 군중을 튼튼히 묶어세우심으로써 당과 인민대중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들은 40여년동안 공산주의운동을 위하여 싸웠으며 일본제국주의와 미제국주의와 국내반동세력을 반대하는 혁명투쟁에서 피도 많이 흘렸으며 여러번 쓰러졌다가는 다시 일어나는 간고하고도 험난한 투쟁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들은 제국주의침략세력과 국내반동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였을뿐아니라 공산주의운동대렬안에서 나타난 각양각색의 기회주의를 반

대하여서도 장기적이고 심각한 투쟁을 하여왔습니다.

조선로동당은 이와 같은 투쟁의 불길속에서 자라나고 튼튼하여졌으며 투쟁을 통하여 위대한 업적과 많은 경험을 쌓은 세련된 맑스-레닌주의당입니다. 우리 당은 하나의 사상의지로 통일되고 인민대중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있으며 보수와 침체를 반대하고 계속 전진하며 계속 투쟁하는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맑스-레닌주의당입니다. 이것은 우리 당이 어떠한 풍파라도 뚫고 나아갈수 있으며 조선혁명을 능숙하게 그리고 확신성있게 령도할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줍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280-281페지)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어렵고 복잡한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안팎의 원수들을 반대하는 치열한 투쟁을 통하여 더욱 세련되고 단련된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그 어느때보다 강화되고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는 수정주의가 대두하여 당의 통일과 단결을 방해하고 사상적혼란을 일으킬 때 당조직들과 당원대중을 발동하여 당안에 숨어있던 부르죠아분자들과 수정주의분자들의 음모책동을 철저히 폭로분쇄하시였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대하며 당의 통일을 좀먹던 온갖 경향들을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하시였다. 또한 이자들이 퍼뜨린 온갖 반동적 및 기회주의적 사상여독을 뿌리뽑기 위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리시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당안에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 당의 유일사상이 꽉 들어찼으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밖에는 그 어떤 사상도 모르는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튼튼히 무장되였다. 전당이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당대렬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확고한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은 새로운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가장 생활력있고 가장 공고한것으로 되였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그처럼 바라던 당의 통일과 단결은 오늘에 와서야 비로소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완전히 실현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10페지)

오늘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통일단결된 우리 당은 하나의 유기체와 같은 전일적인 산조직으로 되였으며 어떠한 풍파라도 뚫고나갈수 있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조직으로, 백전백승의 강철의 조선로동당, 김일성동지당으로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조선로동당과 그이의 령도를 받들고 싸워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만이 약속되여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조선인민은 단일한 민족으로서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정부를 가지고있을뿐입니다. 조선민족의 유일한 국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며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만이 전체 남북조선인민의 참다운 민족적리익과 의사를 대표하고있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단행본, 76페지)

우리 공화국정권은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애국적이고 반제적이며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정권이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옹호하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오래동안 민족적독립과 진정한 인민의 주권을 위하여 피흘려 싸웠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에 벌써 정권문제를 혁명의 근본문제로 제기하시였으며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인민정권을 세우기 위한 튼튼한 터전을 닦아놓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일본제국주의식민지통치기구의 파쑈적본성,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의 력사적교훈,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혁명적폭력에 의거하여야만 주권을 쟁취할수 있다는 혁명적방도를 제시하시였다.

또한 그이께서는 로동계급의 국가형태에 관한 맑스-레닌주의국가건설리론을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키시여 처음으로 인민정권형태를 발견하시고 인민혁명정부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인민혁명정부로선은 반제민족해방의 과업이 당면한 임무로 나서고 있는 혁명단계에서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반제반봉건계층들을 망라하는 통일전선에 의거한 인민혁명정부를 세워야 하며 이 정부는 일제식민지통치의 전복과 민족해방을 당면임무로 하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모든 반제반봉건적계층들의 리익을 옳게 반영한 민주주의적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것을 밝힌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로선이다.

그이께서는 1930년대초에 이미 우리 인민이 앞으로 세워야 할 정권은 인민혁명정부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밝히시였으며 1936년 5월 동강회의에서 발표하신 조선인민의 위대한 정치강령인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서 그를 집대성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시련속에서 인민정권창건을 위한 혁명적골간을 준비하시였을뿐만아니라 인민혁명정부로선실현에서 고귀한 사업경험을 창조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간고한 조건에서 장기적으로 진행된 항일무장투쟁시기 특히 항일무장투쟁의 초시기 두만강류역의 유격근거지들에서 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하고 혁명적시책들을 실시하며 근거지와 인민의 혁명정권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에서 귀중한 경험이 축적되였다.

로동계급이 정권을 전취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적폭력에 의거해야하며 혁명적폭력에 의해서만 계급적원수들의 침해로부터 정권을 지켜낼수 있다는 귀중한 경험과 함께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반일력량의 통일전선에 의거한 인민정권만이 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며 인민대중과 혈연적련계를 맺고 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할수 있다는

경험이 축적되였다.

또한 정권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주체확립의 원칙을 지침으로 삼을 때에만 인민정권을 공고발전시킬수 있으며 혁명근거지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강화할수 있다는 경험, 지도일군들의 수준을 높이고 그들이 계급적립장을 바로 세우는것과 함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소유할 때에만 혁명정부의 시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대중을 활동히 조직동원할수 있다는 경험 등 정권문제해결과 혁명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귀중한 경험들이 이룩되였다.

이와 같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미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인민정권건설의 튼튼한 뿌리, 그 견고한 기초를 마련하시였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해방후 그처럼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제때에 인민정권을 세워 주권문제를 정확히 해결할수 있었다.

해방후 인민정권수립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침략자들과 온갖 반동들의 반인민적책동으로 말미암아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진행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국내외적으로 혁명과 반혁명, 민주와 반동간의 대립이 첨예화되고 미제의 침략책동이 격화되고 있는 복잡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새 조국건설을 지향하는 각당, 각파, 각계각층 민주력량파의 통일전선을 이루고 광범한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새 형태의 인민정권을 수립할데 대한 명철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북반부에 강력한 민주기지를 창설할데 대한 혁명적인 로선을 내놓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정확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일제의 낡은 통치기구를 철저히 짓부시고 새 형태의 참다운 인민정권인 인민위원회들을 세웠으며 그에 토대하여 1946년 2월 8일 중앙정권기관인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여 광범한 반제반봉건적민주력량을 망라하고있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의거한 인민정권으로서 인민민주주의독재의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정권앞에 나선 기본과업은 조국광복회 10대강령과 20개조정강을 실현함으로써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과업을 완수하며 북반부에 혁명적민주기지를 창설하는데 있었습니다.》(우와같은 책, 9페지)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여 광범한 반제반봉건적민주력량을 망라한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의거한 인민정권이다. 따라서 이 정권은 제국주의와 그와 결탁한 반동세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독재를 실시하며 민족자본가까지 포함한 반제반봉건적민주력량에 대하여서는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인민민주주의독재기능을 수행하였다.

이 정권의 기본과업은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하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로 세우신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성격과 기능, 그 기본과업을 명확히 밝혀주시고 그를 옳게 수행하도록 이끌어주심으로써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지체없이 토지개혁, 산업국유화를 비롯한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민주주의혁명이 완수되고 북반부에서 점차 사회주의혁명에로 넘어갈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짐에 따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인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사회주의혁명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맞게 더욱 강화발전시키는 방법으로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을 세울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1947년 2월 22일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창설하시였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우리 나라에 탄생한 첫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으로서 점차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북반부의 혁명적민주기지를 정치경제적으로 튼튼히 꾸리는 한편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할 정규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였다.

해방후 짧은 기간에 우리 나라 북반부는 조선혁명의 믿음직한 기지로 발전되였으며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통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튼튼한 토대가 이룩되였다. 인민정권의 사회경제적기초가 공고화되였고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과 인민대중의 정치도덕적단결이 강화발전됨으로써 인민정권의 정치적지반이 더욱 튼튼히 다져졌다. 또한 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수많은 혁명적골간이 자라났으며 인민대중이 더욱 각성되고 우리의 혁명력량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였다.

한편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침략자들은 우리 조국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고 남조선을 제놈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군사기지로 만들기 위해 괴뢰정권을 꾸며 내려고 미쳐날뛰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민족분렬의 위험한 시기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적통일정부수립에 모든 힘을 다 돌리시였다. 그이께서는 1948년 신년사와 3월에 있은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제25차회의에서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조선최고립법기관을 선거하고 전조선적인 통일적중앙정부를 세울것을 전체 남북조선인민들에게 호소하시였다.

이와 함께 그이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초안을 작성하시여 전인민적토의에 붙이는 사업을 조직지도하시였으며 1948년 4월 20일~24일에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들의 련석회의를 소집하시고 남조선에 단독정부를 조작하려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책동을 분쇄하며 외국의 간섭이 없이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통일적중앙정부를 세우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전개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남북조선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대중적투쟁을 벌리여 남조선에서의 5. 10망국단독선거를 완전히 파산시켰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은 《선거》결과를 날조하여 끝내 단독괴뢰정권을 꾸며냈다. 이리하여 미제의 조선침략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고 민족분렬의 위기는 더욱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엄중한 정세하에서 1948년 6월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의 협의회를 소집하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체없이 창건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남북조선 전체 인민을 남북총선거의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방침에 따라 1948년 8월 25일 남북조선 전체 지역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승리적으로 진행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어버이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1948년 9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회의에서 력사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탄생을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이 회의에서는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공화국헌법을 채택하였으며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하는 통일적중앙정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조직하였다.

회의에서는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 영웅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으로 추대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나라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며 부강한 민주주의독립국가건설을 목적으로 한 전민족적투쟁강령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정강을 발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이룩할데 대한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의 구현으로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의 빛나는 승리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지난날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아오던 민족으로부터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힘있고 존엄있는 민족으로, 주권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체의 힘으로 자기 조국을 건설하여 나아가는 자주독립국가의 슬기로운 인민으로 되였습니다. 공화국의 창건으로 조선인민은 쓰라린 망국노의 운명에서 영원히 벗어나 떳떳한 독립국가의 기치밑에 새로운 력사무대에 등장하였으며 오래동안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조국은 세계의 대소국가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국제무대에 진출하게 되였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단행본, 14～15페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며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철저히 수행할수 있는 더욱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오래동안 제국주의자들의 예속하에 있던 동방에 새로운 사회주의의 위력한 보루가 일떠서 찬란한 빛을 뿌리게 되였다. 공화국의 창건은 민족적독립과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전세계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고무추동하고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첫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를 창건하시였을뿐만아니라 그것을 부단히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현명한 방침들을 제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에서 국가정권기관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국가기관은 우리 당의 총로선의 집행자이며 그 정책을 실시하는 수단입니다.》**(《김일성선집》, 4권, 1960년판, 97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사명과 기능에 관한 문제, 국가활동의 기본원칙에 관한 문제, 국가기관들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에 관한 문제 등 맑스-레닌주의국가건설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을 새롭게 천재적으로 밝히시였다. 또한 계급로선과 군중로선, 계급투쟁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위한 사업을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방침,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 등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이 모든 방침들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국가의 정치적지반과 경제적기초를 반석같이 다질수 있었으며 나라의 위력을 불패의것으로 강화할수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자기 활동의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짧은 기간내에 우리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와 강력한 자립적인 민족경제, 자위적인 국방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사회주의공업의 강국으로 전변되였다.

오늘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위신은 비상히 높아졌으며 우리 나라는 전세계 인민들로부터 《천리마 조선》,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불리우고있다.

## 최고주권기관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립법권은 최고인민회의만이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최고인민회의는 국가최고권력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 및 림시회의를 가지는데 정기회의는 1년에 2차 소집하며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현 최고인민회의는 제4기로서 1967년 11월 25일에 실시한 선거에서 선출한 대의원 457명으로 구성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있어서는 최고주권기관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자기사업활동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을 진다.

## 국가중앙집행기관

**〔내각〕** 국가주권기관의 최고집행기관이다.

내각은 헌법 및 법령에 의거하여 결정 및 명령을 공포할수 있다. 공포한 결정 및 명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토안에서 의무적으로 집행한다.

내각은 각 성 및 직속기관의 사업활동을 통할하며 지도한다.

내각은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에 복종하며 그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현 내각은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회의 제3일회의(1967년 12월 16일)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하여 조직되였다.

## 지방주권기관

**〔각급인민회의〕** 지방주권기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관 구성법》에 따라 구성된다.

도, 시, 군(구역), 리(읍, 로동자구)에 있어서의 지방주권기관은 해당 인민회의이다.

각급 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도인민회의는 4년임기로 시, 군(구역) 및 리(읍, 로동자구) 인민회의는 2년 임기로 각각 선거한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 정기회의는 6개월에 1차씩, 리(읍, 로동자구, 동)인민회의 정기회의는 3개월에 1차씩 소집하며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회의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법령, 정령, 내각 및 상급기관의 결정 명령, 지시에 의하여 그 집행을 정확히 보장한다.

【각급 인민위원회】 도(직할시), 시(구역), 군, 리(읍, 로동자구, 동)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의 집행기관이며 지방의 국가행정기관이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기관의 결정, 지시에 의거하여 자기관할 지역내에서 모든 국가행정사업을 수행한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해당 인민회의 및 상급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을 지며 모든 인민위원회는 내각의 통일적지도를 받으며 그에 복종한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및 위원들로 구성한다.

## 재판소 및 검찰소

【재판소】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 시, 군 재판소 및 특별재판소에서 수행한다.

재판소는 선거에 의하여 구성한다.

최고재판소는 3년을 임기로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도재판소는 3년 임기로, 시, 군 재판소는 2년 임기로 해당 인민회의에서 비밀투표로 각각 선거한다.

선거권을 가진 일체 공민은 판사 또는 참심원이 될수있다.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재판은 공민의 사회적 지위, 재산, 직위 및 민족별 여하를 가리지 않고 모든 공민에 대하여 유일하며 평등하다. 모든 재판에 있어서 헌법, 민법 및 소송법은 유일하며 의무적이다.

판사는 재판에 있어서 독립적이며 오직 법령에만 복종한다.

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며 모든 재판기관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검찰소】 검사는 각 성 및 그 소속기관, 단체 공무원 및 일체 공민이 법령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준수하며 집행하는가를 감시하며 각 성의 성령, 규칙 및 지방주권기관의 결정지시가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 명령에 적응한가를 감시한다.

검찰소의 수위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임명하는 최고검찰소의 검사총장이다.

도, 시, 군 검사는 검사총장이 임명한다.

검사는 지방주권기관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조선인민군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항일무장투쟁의 직접적계승자로서, 로동당이 령도하는 혁명무력으로서 당과 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의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로써 조직된 군대이며 상하가 일치단결되여있고 인민들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361~362페지)

우리 인민군대는 어떠한 제국주의침략군대도 가질수 없는 맑스-레닌주의 혁명적군대의 특성과 우월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몸소 이룩하신 혁명무력건설의 경험에 기초하시여 우리 나라가 세계반동의 우두머리인 미제국주의자들과 대치하고 있으며 특히 미제가 전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혁명발전의 전도를 명철하게 내다보시고 해방직후부터 인민무력건설에 힘을 기울이시였다.

1945년 10월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민족분렬책동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수 없다.

또한 어느 누가 우리를 독립시켜주고 군대를 조직하여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수 없다.

조선인민은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군대를 조직하여 통일되고 독립된 민주조국의 창건을 촉진하여야 할것이다.

우리가 창건할 군대는 우리 혁명의 위업을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튼튼히 보위하며 나아가서는 통일적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립을 무력으로 담보하는 그러한 목적과 사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군대가 되자면 조선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아들딸로 조직되여야 하며 과거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항일무장투쟁에 모든것을 바쳐온 조선의 진정한 애국자들을 골간으로 하며 그들의 투쟁정신을 계승하는 군대가 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군대는 반드시 현대적과학기술로 무장된 정규군대가 되여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같이 인민무력건설에 관한 명확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조국이 통일되기전에 무슨 군대가 필요한가?》고 떠드는 반당분자들의 비방과 온갖 방해책동을 단호히 물리치시고 해방후 곧 인민무력창건을 위한 준비를 추진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1945년 11월에 평양학원을, 1946년 7월에 평양보안간부학교를, 1946년 8월에는 보안간부훈련소를 창설하시고 군사정치간부들을 육성하시였으며 각 군종, 병종부대들도 조직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준비사업에 기초하시여 1948년 2월 8일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몸소 키우신 혁명투사들을 골간으로 하여 로동자, 농민의 우수한 아들딸들로 구성된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일제의 가혹한 탄압밑에서 조국과 인민을 해방하기 위하여 항일무장투쟁에 모든것을 바쳐온 조선의 진정한 혁명가들을 골간으로 하여, 그들이 쌓은 풍부한 투쟁경험을 토대로 하여 조직되였습니다.》(《우리의 혁명과 인민군대의 과업에 대하여》, 16페지)

조선인민군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조선혁명은 조선인민자신의 힘으로 끝까지 수행해야 한다는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이어 받았다.

조선인민군은 또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육성된 항일유격대원들이 발휘한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억천만번죽더라도 원

수를 치자!》는 백절불굴의 투쟁정신과 계급적원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 열렬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과 숭고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정신, 뜨거운 혁명적동지애와 원칙적단결에 기초한 상하일치의 기풍, 《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수 없는것과 같이 유격대는 인민을 떠나서는 살수 없다》는 군민일치의 기풍과 인민적사업작풍 등을 계승하였다.

이와 함께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조된 탁월한 군사전략과 어떤 불리한 정세하에서도 수십수백배가 넘는 적들을 순식간에 섬멸하는 천재적인 령군술, 신출귀몰하는 령활한 전법과 투쟁경험들을 이어 받았으며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세련되고 단련된 혁명투사들을 골간으로 하여 조직되였다.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직접 계승한 현대적정규무력—조선인민군이 창건됨으로써 조선인민은 혁명의 전취물을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믿음직하게 보위하며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담보하는 자기의 혁명적무장력을 가지게 되였다.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자위로선의 빛나는 구현이며 새 조국건설에서 조선인민이 쟁취한 위대한 승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무력을 창설하신후 그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꾸려 일당백의 혁명군대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군대내에 우수한 간부들을 수많이 파견하시고 군사정치훈련과 전투준비를 강화하도록 하시는 한편 전인민적운동으로 인민군대를 원호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하시였다. 그리하여 인민군대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며 원쑤에 대한 적개심으로 불타는 조선로동당의 군대로서 전통적인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기풍이 확립된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조선인민군은 혁명의 매 단계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보위하였으며 조국과 인민 앞에 불멸의 공훈을 세웠다.

특히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군대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령도밑에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의 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조선인민군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위대한 수령 이신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들고 그이께서 밝히신 갱도전, 야간전, 습격전, 비행기사냥군조운동, 땅크사냥군조운동 등 그 누구도 해보지못한 새 전투방법과 형식들을 능숙하게 적용하여 이르는 곳마다에서 미제침략자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였다.

영웅적조선인민군대는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행정에서 미제침략군 39만 7천여명을 포함하여 적 109만 3천여명을 살상포로하였으며 1만 2천여대의 적비행기, 3천여대의 적땅크, 250여척의 각종 함선을 비롯하여 수많은 전투기술기재들을 로획 및 파괴파손하였다.

실로 조선전쟁에서 미제침략자들이 입은 병력손실은 제2차세계대전시기 태평양전쟁에서 입은 손실의 근 2배나 된다.

우리의 조선 인민군과 인민은 100여년의 침략력사에서 단 한번도 져본 일이 없다던 미제침략군에게 처음으로 참혹한 군사적패배를 주어 무릎을 꿇게 하였으며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여지없이 깨뜨려버리고 미제국주의가 내리막길에 굴러떨어지게한 시초를 열어놓았다.

백전백승의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침략자들과 맞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조건에서 정세발전의 추이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일련의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시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위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탁월한 전략적방침을 내놓으심과 함께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킬데 대한 방침과 독창적인 군사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우리 당의 군사로선을 관철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군대의 간부화, 군대의 현대화, 전체 인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를 군사로선의 기본내용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실생활에 구현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으며 여기에서 이미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363페지)

당의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방침이 훌륭히 관철된 결과 우리의 인민군대는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단련된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되였다.

또한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며 온 나라를 요새화하기 위한 방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다 총을 쏠줄 알며 총을 메고 있으며 온 나라의 모든 지역에 철옹성같은 방위시설들을 쌓아놓았고 중요한 생산시설까지도 다 요새화되였다. 한편 튼튼한 자립적인 국방공업기지기 창설되여 자체로 조국보위에 필요한 여러가지 현대적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을 만들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전체 인민의 반석같은 정치사상적통일과 튼튼한 자립적경제체계가 이루어진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실현될수있는 가장 위력한 방위체계로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하고 독창적인 자위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며 인민무력건설과 국방력강화에서 조선인민이 이룩한 자랑찬 승리이다.

오늘 적들은 우리 나라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키려고 매일과 같이 미쳐날뛰고있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으나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맑스-레닌주의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가 있고, 불패의 혁명군대와 전인민적무장이 있으며 요새화된 강토가 있다.

우리는 언제나 적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할 만단의 전투준비가 다 되여있다.

만약 그 어떤 침략자들이 우리를 침공한다면 영웅적조선인민군과 우리인민들은 1969년 4월 미제대형간첩비행기 《이씨—121》을 단방에 요정낸것처럼 침략자들을 단매에 때려 눕힐것이며 한놈도 살아 돌아가지 못하게 할것이다.

# 근 로 단 체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단체들은 광범한 군중에 대한 사상교양단체이며, 당의 외곽단체입니다.》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보전하는 인전대로서의 근로단체들은 우리 당의 가장 믿음직한 방조자이며 후비대입니다.》(《김일성선집》, 4권, 1960년판, 550페지)

근로단체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근로자들속에서 해설선전하고 그 관철에로 그들을 조직동원하는 사상교양단체이며 당밖에 있는 근로대중을 조직에 결속하여 당자체도 힘있게 만드는 외곽단체이다. 뿐만아니라 근로단체들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을 교양훈련하여 당에 받아들일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당을 확대강화하는 저수지의 역할을 한다.

우리 당의 인전대이며 믿음직한 방조자이며 광범한 군중을 망라하고 그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당의 외곽단체인 우리 나라 근로단체들은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그 억센 뿌리가 내려졌다.

우리 당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이르는곳마다에서 혁명적대중단체를 조직지도하시여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을 혁명의 길로 이끄시였으며 혁명적대중단체건설의 고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을 쌓아놓으시였다.

그이께서 이룩하신 혁명적대중단체건설에 관한 고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은 해방후 우리 나라 사회단체건설의 고귀한 밑천으로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조선혁명의 참모부인 우리 당을 창건하신데 뒤이어 민주주의혁명의 요구에 맞게 사회단체들을 조직하시고 그의 강화발전을 위한 독창적인 리론과 방침들을 제시해주시였으며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안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그의 성격과 임무, 활동방향에 이르기까지 명백히 규정하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근로단체들은 자기들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였으며 광범한 군중을 혁명과 건설에 적극 조직동원하였다.

## 조선직업총동맹

조선직업총동맹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발기와 지도에 의하여 1945년 11월 30일에 창립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부터 확고한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시여 선행한 모든 혁명운동의 교훈을 전면적으로 총화하시고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맑스-레닌주의 혁명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나라 혁명운동을 높은 단계에로 이끌어 올리시였으며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위대한 혁명적 새 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령도계급인 로동계급에게 정확한 투쟁목표와 구체적인 혁명임무, 맑스-레닌주의적전략전술을 명시하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로선과 방침, 혁명적강령들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발전시킬수 있게 한 불멸의 해불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을 조직적으로 묶어세우시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항일유격대원들과 정치공작대원들을 각지에 파견하시여 이르는곳마다에서 친목회, 상조회, 반제동맹, 반일회, 로동자협회 등 각이한 명칭으로 로동계급의 혁명적대중단체를 조직하시고 그를 확대하여나가시였으며 광범한 대중을 반일민족해방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대중단체들은 유격근거지와 국내 각지의 공장, 기업소, 광산, 철도, 항만들에 널리 퍼져갔으며 로동운동을 급속히 앙양시켰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보살핌속에서 조선의 혁명적로동계급은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투쟁에 한결같이 일떠섰으며 항일무장투쟁의 승리와 조국의 광복을 이룩함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기혁명활동과 그이의 령도하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이 이룩되였고 조선로동운동의 고귀한 혁명업적과 경험이 쌓아졌으며 그것은 해방후 우리 나라 직맹운동의 귀중한 밑천으로서 조선직업총동맹에 의하여 훌륭히 계승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조직사상적준비에 기초하시여 로동계급의 전위대인 당을 창건하시고 그에 뒤이어 당의 인전대이며 외곽단체인 직업총동맹을 손수 창립하여주시였다.

이때로부터 우리 나라 로동계급은 맑스-레닌주의 당에 의하여 지도되는 합법적인 대중적정치조직을 비로소 전국적범위에서 가지게 되였으며 사회정치생활에 떳떳이 참가하여 자기의 력사적임무를 더 잘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직업동맹을 창립하여주시였을뿐만아니라 그가 자기의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인민정권하에서의 직업동맹의 성격과 임무에 대하여 명확히 가르쳐주시였다.

《주권이 인민에게 있고 공장, 기업소들이 인민의 소유로 된 우리 공화국에서 직맹단체의 사업은 국가와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새롭게 조직되여야 합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1권, 94～95페지)

《…정권이 인민에게 쥐여져있는 조건에서 경제기관과 직맹단체들의 과업은 한가지 목적인 공화국을 공고부강케 하며 전체 인민의 물질적복리와 문화수준을 높이는데 있는것입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1권, 95페지)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직업동맹은 민주주의혁명과 혁명적인 민주기지창설을 위한 투쟁,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 동맹원들을 힘차게 조직동원함으로써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임무를 빛나게 실행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에서 당의 외곽단체이며 인전대로서의 근로단체의 위치에 관한 천재적인 해명을 주신으로하여 조선직업총

동맹은 언제나 자기의 위치에 똑바로 서서 당과 로동계급을 련결시키는 인전대이며 사상교양단체이며 당정책의 적극적관철자로서의 자기의 임무를 옳게 수행할수 있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이후시기의 직업동맹의 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우리 당 제4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9차전원회의 그리고 수차례에 걸치는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 선구자대회에서 주신 교시, 1968년 10월 11일에 주신 교시를 비롯한 여러차례의 교시들에서 사회주의건설시기 직맹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해명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지난 시기 직업동맹사업에서 달성한 성과와 함께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새 현실에 맞지 않게된 낡은 사업체계와 활동방식에 대하여 깊이 분석하시고 변천된 현실에 맞게 동맹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울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 직업동맹의 임무와 역할에 대하여 전적으로 새롭게 밝히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직업동맹은 무엇보다도 먼저 로동계급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 학교입니다. 그것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광범한 로동자, 사무원들을 묶어세운 근로단체이며 당과 로동계급을 련결시키는 인전대입니다.

로동계급이 정권을 틀어쥔 사회주의사회에서 직업동맹의 기본임무는 모든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이 사회주의건설과 사회주의경리운영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당의 사상으로,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132~133페지)

사회주의하에서 직업동맹의 임무와 활동방향을 명시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본질적요구에 완전히 부합되는 우리 직업동맹의 전투적강령으로 된다. 직업동맹은 수령님의 이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며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그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육성하고있다.

특히 직업동맹은 조선로동당, 김일성동지 당의 인전대이며 외곽단체로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당이 내세운 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함으로써 당과 수령을 튼튼히 보위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웅대한 강령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 조선농업근로자동맹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농민운동에 큰 의의를 부여하시고 혁명적농민조직을 건설할데 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몸소 조직지도하시였다.

일찌기 그이께서는 조선혁명의 반제반봉건적성격을 독창적으로 규정하신데 기초하시여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을 밝히시고 혁명적대중단체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우리 나라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시여 독창적으로 발전시킨 혁명적농민조직건설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그이께서는 혁명적농민조직건설방침을 구현하기 위하여 초기혁명활동시기 몸소 농촌에 나가시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농촌군중을 교양하시였으며 농민들을 혁명화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지도하시는 간고한 나날에도 혁명적농민조직을 끊임없이 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국광복회를 결성하신 다음에는 혁명적농민조직을 모든 대중적조직들과 함께 그 산하에 망라시켜 유일적으로 지도하심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조선인민의 반일혁명투쟁을 전국적범위에서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 올리시였다.

바로 이 과정에서 혁명적농민조직건설의 고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이 이룩되였으며 이것은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 혁명적농민조직을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는 력사적뿌리로 그가 이어나아가야할 귀중한 재부로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조성된 혁명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빈농을 중심으로 하는 농민동맹을 창립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1946년 1월 31일 조선농민동맹을 창립하여주시였을뿐만아니라 농민동맹이 자기의 력사적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였다.

농민동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높이 받들고 새 조국을 건설하며 토지개혁을 실시하며 농업협동화를 수행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농업협동화의 완성과 농촌경리의 급속한 발전,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새로운 변천된 조건에서 빈농을 기본으로하여 조직되였던 조선농민동맹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현실에 맞지 않게 되였다.

우리 당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에서 협동화가 완성된 새로운 환경에 맞게 농민동맹을 발전적으로 해체하시고 1965년 3월 25일 광범한 농업근로자들의 정치적조직으로서의 농업근로자동맹을 창립하여주시였다.

뿐만아니라 그이께서는 프롤레타리아독재체계에서 농근맹이 차지하는 위치와 사명, 투쟁목적에 대하여, 동맹의 조직원칙과 기본임무 등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농업근로자동맹은 모든 농민대중을 포괄하는 근로단체로서, 농촌사업을 보장하는 우리 당의 외곽단체로서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내놓은 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면 됩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128페지)

《농민들이 선진적인 로동계급을 따라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조직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조직생활을 하지 않으면 뒤떨어질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농민들을 다 일정한 조직에 들게 하고 그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과 기술문화교양사업을 강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내세운 농촌에서의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습니다. 농업근로자동맹의 조직은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농민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절실히 필요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126~127페지)

《농업근로자동맹의 기본임무는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기 위하여 농민대중속에서 교양사업을 진행하며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조직동원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128페지)

농업근로자동맹을 조직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창조적인 방침, 여기에는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다음 농촌에서 혁명을 계속하고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을 발양시키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공산주의사회까지 이끌고 가시려는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이 구현되였으며 농업근로자들에 대한 두터운 사랑과

배려가 깃들어있다.

또한 농민동맹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농업근로자동맹을 조직할데 대한 그이의 창조적방침은 근로단체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발전시켜 당의 인전대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해결함으로써 광범한 농업근로자들을 혁명의 튼튼한 주력군으로 묶어세우게 한 탁월한 모범으로 된다.

당과 농촌근로자들을 련결시키는 강력한 인전대이며 테제의 적극적인 관철자인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은 농업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며 농촌에서 계급진지를 튼튼히 꾸리고 로농동맹을 강화하며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밀고나가고있다.

##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우리 나라 청년운동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께서 밝혀주신 독창적이며 주체적인 길을 따라 힘차게 발전하여 왔다.

어버이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와 15성상의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청년운동을 직접 조직지도하시여 위대한 주체사상체계와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청년조직건설의 원칙, 고귀한 업적과 경험,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청년적인 사업작풍 등 조선청년운동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룩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청년운동의 풍부한 경험과 우리 나라 혁명의 성격과 임무, 각계각층 청년들의 계급적처지 우리 나라 청년운동발전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혁명에서 청년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시고 《민주주의기발아래 애국적청년들은 단결하라!》는 구호밑에 공청을 민청으로 개편하며 조선청년운동을 통일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이 방침에 따라 공청을 민청으로 개편하는 사업은 어버이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국내반동분자들의 청년운동에 대한 분렬책동과 반당종파분자들과 교조주의자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성과적으로 추진되였다.

그리하여 1946년 1월 17일 어버이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혁명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그이께서 이룩하신 청년운동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 받은 조선민주청년동맹이 창설됨으로써 조선청년들의 혁명적인 대중조직으로 강화발전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 청년운동의 중심과업은 각계각층 청년들을 묶어세우고 공산주의핵심을 양성하여 그들에 의거하여 투쟁을 진행하는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민주청년동맹은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공산주의청년핵심진지를 튼튼히 꾸리고 그에 기초하여 수백만의 각계각층 청년들을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결속시켰으며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며 혁명적민주기지를 창설공고화하는 투쟁에로 청년들을 힘차게 조직동원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우리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무비의 용감성과 영웅적기상을 떨쳐 일편단심 수령님을 위하여 당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바쳐 싸웠다.

어버이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이 전면적으로 심화발전됨에 따라 조선민주청년동맹 제5차대회에서 민주청년동맹을 청년들의 공산주의적대중단체인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1964년 5월 12일 개칭)으로 고쳐주시고 우리 나라 청년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이끌어 올리시였다.

어버이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후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종국적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의 한 구성부분으로 당의 외곽단체이며 인전대이며 전투적후비대인 청년조직들에 대한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문제, 당의 령도밑에 청년조직들이 수행해야할 임무와 역할문제에 대하여 독창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전면적으로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우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생각할수 없으며 청년운동의 발전도 청년들의 더 훌륭한 앞날도 바랄수 없습니다.

우리 조선청년들은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 일하든지 언제나 로동당의 령도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당에 대한 충실성, 이것은 우리 나라 청년조직들과 모든 청년들의 활동에서 기본으로 되어야 합니다.

…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중앙위원회로부터 초급단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청년조직들과 청년들 속에서 당적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그들을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워야 하겠습니다. …

우리 청년들은 로동당의 후비대이며 우리 조국의 앞날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 혁명의 장래발전과 우리 조국의 앞날은 청년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당의 붉은 전사로 자라날 때 우리의 혁명위업은 계속 힘있게 전진할것이며 우리 조국은 더욱더 번영할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103페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청년운동발전의 근본이며 사로청의 활동과 청년들의 생활에서 확고부동한 기본원칙으로 신념으로 되고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로청은 수령께서 밝혀주신 휘황한 길을 따라 확고하게 전진하여 왔으며 사로청조직내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청년들을 수령의 붉은 전사로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사수하는 근위대, 결사대로 육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청소년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당 제5차대회에서 우리 혁명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였으며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로부터 사로청이 수행해야할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에 중심을 두고 각계각층 청년들과의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조직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사로청조직들은 동맹원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다양하게 조직하며 그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31페지)

경애하는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사로청은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에 중심을 두고 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사로청은 광범한 청년들을 망라한 당의 전투적후비대로서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을 키워내는 위력한 전투적조직으로서 사로청원들과 청소년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지덕체를 갖춘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고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은 언제나 우리 당

의 정책을 높이 받들고 조국보위사업과 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선봉대, 돌격대의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 조선민주녀성동맹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직맹, 농근맹, 사로청과 함께 녀성동맹을 조직하시여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을 조직된 력량으로서 혁명과 건설에 힘차게 조직동원하시였으며 녀성문제를 독창적으로 해결하시였다.

우리 나라 녀성운동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으면서부터 비로소 정확한 맑스-레닌주의로선을 따라 활발히 전진하게 되였으며 이때로부터 녀성문제해결을 위한 튼튼한 터전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우리 나라 녀성들의 사회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방침에 대하여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녀성들이 해방되여 정치, 경제, 사회 생활의 각 분야에서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자면 봉건제도와 식민지통치제도를 없애버려야 하며 이것을 없애버리려면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달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녀성들이 반일민족해방투쟁에 적극 참가하여 남자들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이 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부터 곳곳에 녀성단체들을 조직하시고 녀성들속에서 정치계몽사업을 널리 진행하시였으며 녀성들을 반일사상과 지주, 자본가를 비롯한 착취계급을 미워하며 그와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혁명정신으로 교양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그이께서는 부녀회를 비롯한 반일녀성단체들을 조직하시여 광범한 녀성들을 반일혁명투쟁에 적극 불러일으키시였다.

천대받고 압박받던 수많은 녀성들이 그이의 직접적인 지도와 보살핌속에서 항일유격대와 부녀회조직을 통하여 훌륭한 혁명가로 자라났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혁명의 성격과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본질, 녀성운동의 경험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서 남녀차별없는 일률적평등과 부녀의 사회상 대우를 높이고 녀자의 인격을 존중할것이라고 녀성문제해결을 위한 강령을 정식화하시였다.

이 강령은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으며 세기적인 암흑과 질곡에서 신음하는 우리 나라 녀성들에게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초기혁명활동과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과 녀성운동의 고귀한 경험들은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발전과 녀성문제의 해결을 위한 력사적뿌리로, 귀중한 재부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주권을 쥔 로동계급의 당이 녀성문제를 당과 국가의 목적의식적인 투쟁과 녀성운동의 강화발전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당과 전체 녀성들을 조직동원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인 1945년 11월 18일 조선민주녀성동맹을 창립하시고 뒤이어 남녀평등권법령(1946년 7월 30일)을 발포하심으로써 녀성들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남자와 꼭 같은 권리를 누릴수 있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녀성들은 자기의 세기적숙망을 실현하게 되였으며 녀성문제해결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해방된 우리 녀성들앞에는 전체 인민들과 함께 일제의 식민지적잔재와 봉건적잔재를 청산하며 각급 인민정권기관들을 건설하며 사회정치생활에 적극 참가하여 새 조국건설에 크게 이바지하여야 할 중대한 임무가 나섰다.

조선민주녀성동맹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모든 녀성들을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로 적극 조직동원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 녀성문제는 녀성들을 온갖 착취와 예속관계에서 완전히 해방하며 그들을 사회주의근로녀성으로 만드는데 있다고 천명하시면서 그 해결을 위한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확히 조직령도하시여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이후시기에 녀성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처음으로 밝히심으로써 녀성해방문제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 녀성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필수적요구이라는것을 밝히시였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이미이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보고에서 3대기술혁명과업을 제시하시면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부담에서 해방할데 대한 빛나는 전망을 펼쳐주셨으며 녀성동맹앞에 나서는 강령적과업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녀맹조직들은 동맹내부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 모든 동맹원들을 당의 붉은 전사로, 견결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차게 조직동원하여야 하겠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31폐지)

녀성동맹은 동맹의 전투적과업을 밝혀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모든 녀맹원들과 녀성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부단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고있다.

이미이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조선민주녀성동맹은 오늘 전 동맹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고 수백만의 녀성군중을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운 강력한 혁명조직으로 강화발전되였으며 녀성동맹원들을 일편단심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지식있는 문명한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튼튼히 준비시키였다.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발기와 그이의 지도밑에 1949년 6월 25일 남북조선의 70여개 정당, 사회단체들을 망라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 결성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전선은 직업, 성별, 신앙, 정당의 차이를 불문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향하는 모든 계층을 다 망라하고있습니다. 조국전선은 우리 당의 정책을 더욱 광범한 군중속에 침투시키며 모든 애국적력량을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동원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조직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1권, 308~309페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향하는 각계각층의 모든 군중을 망라하고 그들을 우리 당의 정책으로 무장시키며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조직동원하는 조직체이다.

이와 같은 사명을 지닌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의 빛나는 전통을 직접 계승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을 시작하신 첫날부터 반일민족통일전선의 실현을 우리 혁명의 중심문제의 하나로 제기하시고 우리 나라의 식민지 반봉건적사회경제관계와 계급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민족의 모든 반일력량, 애국적민주주의력량을 묶어세워 일본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고 민족해방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 총동원할데 대한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그 실현을 위하여 초기혁명활동시기에 합법적 및 비합법적 혁명조직들을 무우시고 여기에 청소년학생들과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결속하시는 한편 민족주의자들의 분렬책동과 공산주의대렬내에서 파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 유격대를 창건하시고 무장투쟁을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조직전개하심으로써 민족적단합과 행동통일, 전민족적범위에서의 반일민족통일전선의 실현을 위한 투쟁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역에 창설된 유격근거지들에 각종 대중단체들을 조직하시였으며 로농동맹에 기초한 모든 반제반봉건적 계층들을 망라하는 통일전선에 의거한 인민정권을 세우시는 등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를 결성하기 위한 기초를 축성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와 그후 수년간의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이룩하신 투쟁성과와 고귀한 경험에 토대하여 1936년 5월 5일에 우리 나라에서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인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고 위대한 10대강령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건된 조국광복회는 자체의 독자적인 조직체계와 조직형식을 가진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동시에 그이의 직접적인 령도밑에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하는 혁명조직이였다.

조국광복회의 창건은 전체 조선인민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의 광복을 실현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나는 결실이였으며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의 발전에서 하나의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조국광복회가 창건됨으로써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전민족의 단합을 이룩할데 대한 조선인민의 력사적인 숙망이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조국광복회는 각계각층 군중을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결속시켜 조국광복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킴으로써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과 민족통일전선운동에 불멸의 공헌을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광복회는 우리의 민족해방투쟁의 목적과 과업을 광범한 인민대중에게 해설하며 조국해방을 위한 공동투쟁의 기치밑에 조선의 모든 애국적 력량을 동원집결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김일성선집》, 4권, 1960년판, 293~294페지)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에 걸쳐서 벌어진 반제민족통일전선운동은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력사적승리에로 이끄는데 있어서 커다란 기여를 하였을뿐만아니라 국제반제반파쑈투쟁의 강화발전에서도 커다란 역할을 놀았다.

혁명의 위대한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 정세에 맞게 민족통일전선운동을 더한층 발전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력사적인 우리 당창립대회에서 당의 정치로선을 밝히시면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수행을 위한 력량편성에서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운동을 우리 당의 기본과업으로 규정하시고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이 우리가 세워야 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초로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45년 10월 13일 각 도당책임일군들 앞에서 하신 연설 《새조선 건설과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에서 당의 통일전선정책을 전면적으로 천명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 연설에서 조선혁명의 성격과 임무를 과학적으로 규정하시면서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우기 위하여 로동계급과 농민뿐만아니라 민족자본가도 포함한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이 참가하는 통일전선을 결성해야 한다고 가르치시고 통일전선운동에서 우리 당이 견지해야할 기본원칙들을 밝히시였다.

그이께서는 통일전선내에서 공산당이 자기의 독자성을 고수하고 령도적 역할을 확고히 수행하여야 하며 통일전선은 반드시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을 기본으로하고 민족자본가들까지 망라하는 광범한 애국적민주력량을 최대한으로 묶어세우되 민족자본가들과의 련합에서는 단결과 투쟁의 원칙을 견지해야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통일전선은 반드시 반동세력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의 원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통일전선운동에서 제기되는 과업들을 천명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가 공산당을 강화하고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며 광범한 대중을 공산당의 주위에 집결하는 사업에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에 달려있습니다. 매 공산당원들은 당대렬을 부단히 확대강화하며 우당들과 성실성의로 합작하며 광범한 군중을 쟁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1권, 9페지)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운동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힘차게 추진되였다. 그리하여 광범한 대중이 당의 두리에 튼튼히 결속되고 민주주의정당, 사회단체들의 행동통일이 강화되였으며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수립을 통하여 실제상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이 이루어지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운동에서 이룩된 성과에 기초하여 1946년 7월에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을 단합한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은 민주과업을 수행하는 실지 투쟁협정에서 결성되였으며 성장하였습니다. 그것은 광범한 인민대중과 긴밀히 련결되여있으며 그 주위에는 이미 600여만의 조직된 군중이 집결되였습니다. …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된지 겨우 반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위대한 민주개혁들을 능히 성과있게 수행할수 있었던것도 각 정당, 사회단체, 각계각층 인민들의 단결된 힘에 의거하였기때문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1권, 74~75페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통일전선로선이 관철됨으로써 광범한 애국적력량이 굳게단합되였고 반제반봉건적민주개혁은 매우 짧은 기간에 철저히 수행되였다.

또한 미제의 민족분렬책동을 박차고 남북조선의 전체 인민들을 조국의 통일과 민주주의적발전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데 있어서도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였다. 1948년 4월에 소집된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는 남북조선의 각계각층의 인민대중을 묶어 세우기 위한 우리 당 통일전선정책의 빛나는 승리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북조선의 애국적정당, 사회단체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사업에서 거둔 빛나는 성과에 기초하여 1949년 6월 25일 남북조선의 모든 애국적력량의 총 집결체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시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결성은 전반적 우리 혁명력량을 일층 확대강화하였으며 미제를 비롯한 반제혁명력량을 고립시키고 우리 나라에서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혁명력량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시켰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결성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혁명사상과 그이의 맑스-레닌주의적 전략전술에 기초한 독창적인 민족통일전선로선의 빛나는 승리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창립하여주시였을뿐만아니라 매시기마다 그의 강화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명확히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전선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망라된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과의 관계를 더욱 개선하여야 하며 그 정당, 사회단체들의 매 성원들을 조국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으로 교양하여야 합니다. 만일 우리 당 단체들이 조국전선의 의의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옳은 지도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조국전선을 강화할수 없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1권, 307페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결성된 첫날부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령도밑에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인 조국통일방침에 따라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남북조선총선거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것을 제의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왔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이 전면적으로 진행되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에서 통일전선정책을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조선혁명의 승리적발전을 추진시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화국북반부에서 각계각층 인민의 통일전선은 민주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형성발전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을 통하여 새로운 정치경제적 토대우에서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김일성선집》, 5권, 1960년판, 167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참가하였고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사회주의를 지지하여 나선 모든 혁명력량을 단결시키는 창조적인 통일전선정책을 구현하심으로써 각계각층 군중을 사회주의근로자로 개조하는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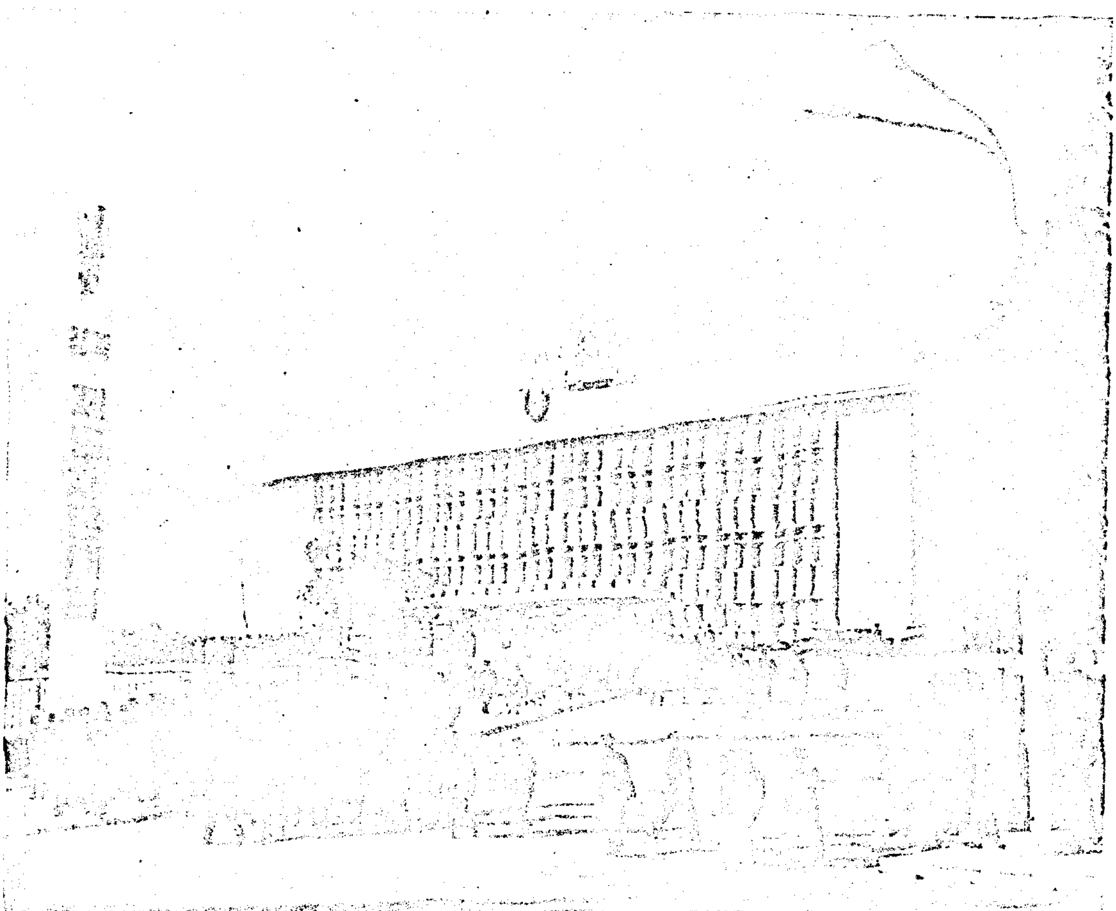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통일전선사상은 우리 나라에서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을 발전시키기 위한 대중적지반을 꾸리는 앞길을 밝혀주었고 오늘도 남조선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승리에로 이끄는 강령적지침으로 되고 있을뿐만아니라 세계혁명운동을 발전시키는 위대한 리론실천적무기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국제적으로 반제무장투쟁의 기치를 제일 먼저 드시고 15성상의 피어린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국제반파쑈운동의 가장 강력한 전선을 이루어놓은 풍부한 력사적 경험에 기초하여 현시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를 때려엎기 위한 반제반미통일전선과 반미공동투쟁에 관한 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세계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반제반미통일전선과 반미공동투쟁에 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세계인민의 공동의 원쑤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국제혁명운동을 승리에로 이끄는 가장 옳은 길을 밝혀주고있으며 전세계 혁명적인민들로부터 한결같은 지지를 받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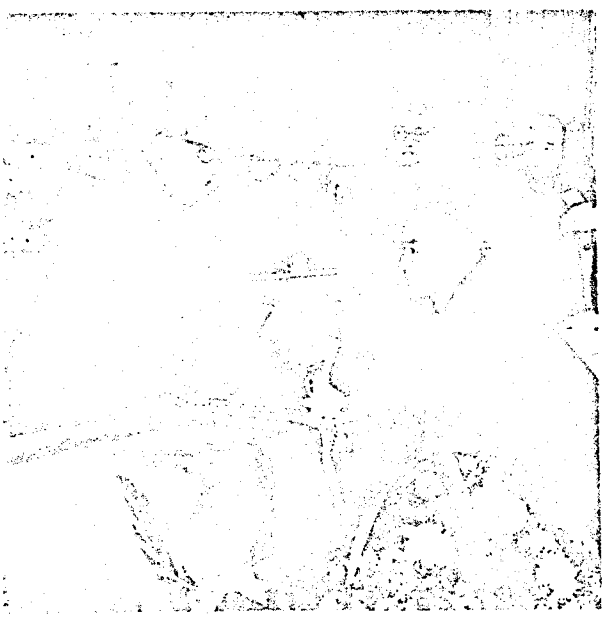
## 기타 정당 및 사회 단체

북조선민주당 1945년 11월 3일 창립.
천도교청우당 1946년 2월 8일 창립.
조선기자동맹, 조선문학예술총동맹(산하 부문별 동맹—조선작가동맹, 조선음악가동맹, 조선미술가동맹, 조선연극인동맹, 조선영화인동맹, 조선무용가동맹, 조선사진가동맹)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조선적십자회, 조선대외문화련락협회, 조선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조선민주법률가협회, 조선민주과학자협회, 조선학생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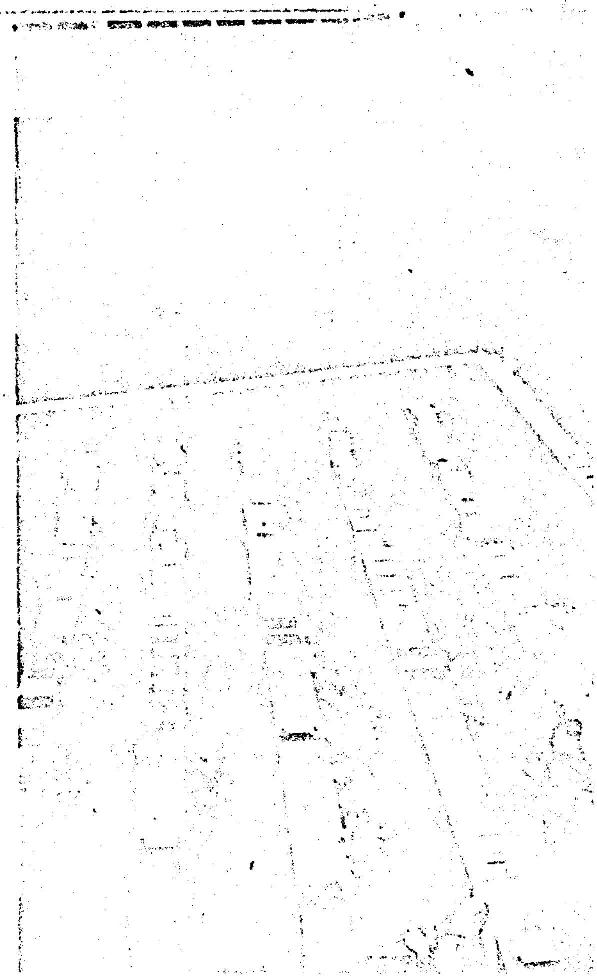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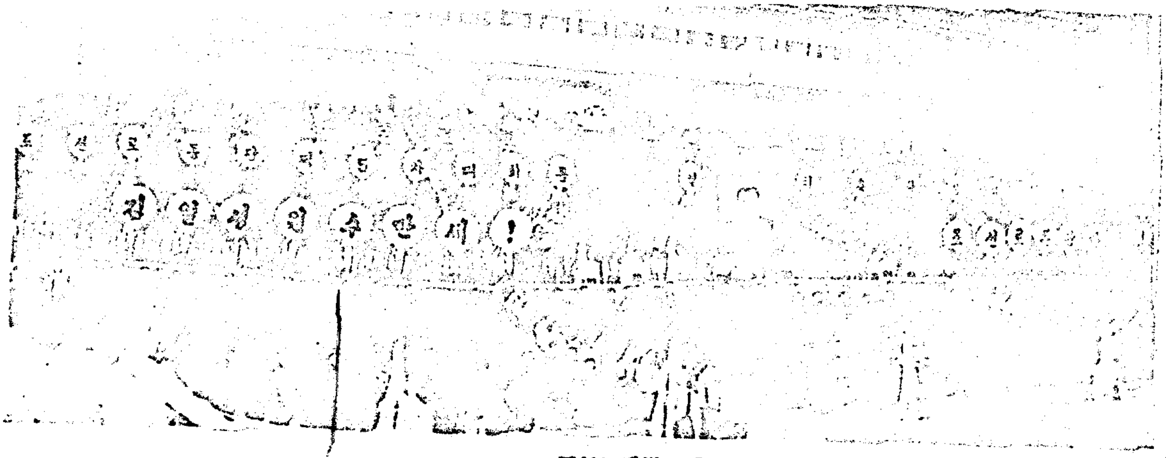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 대회장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하시는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고 령도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김일성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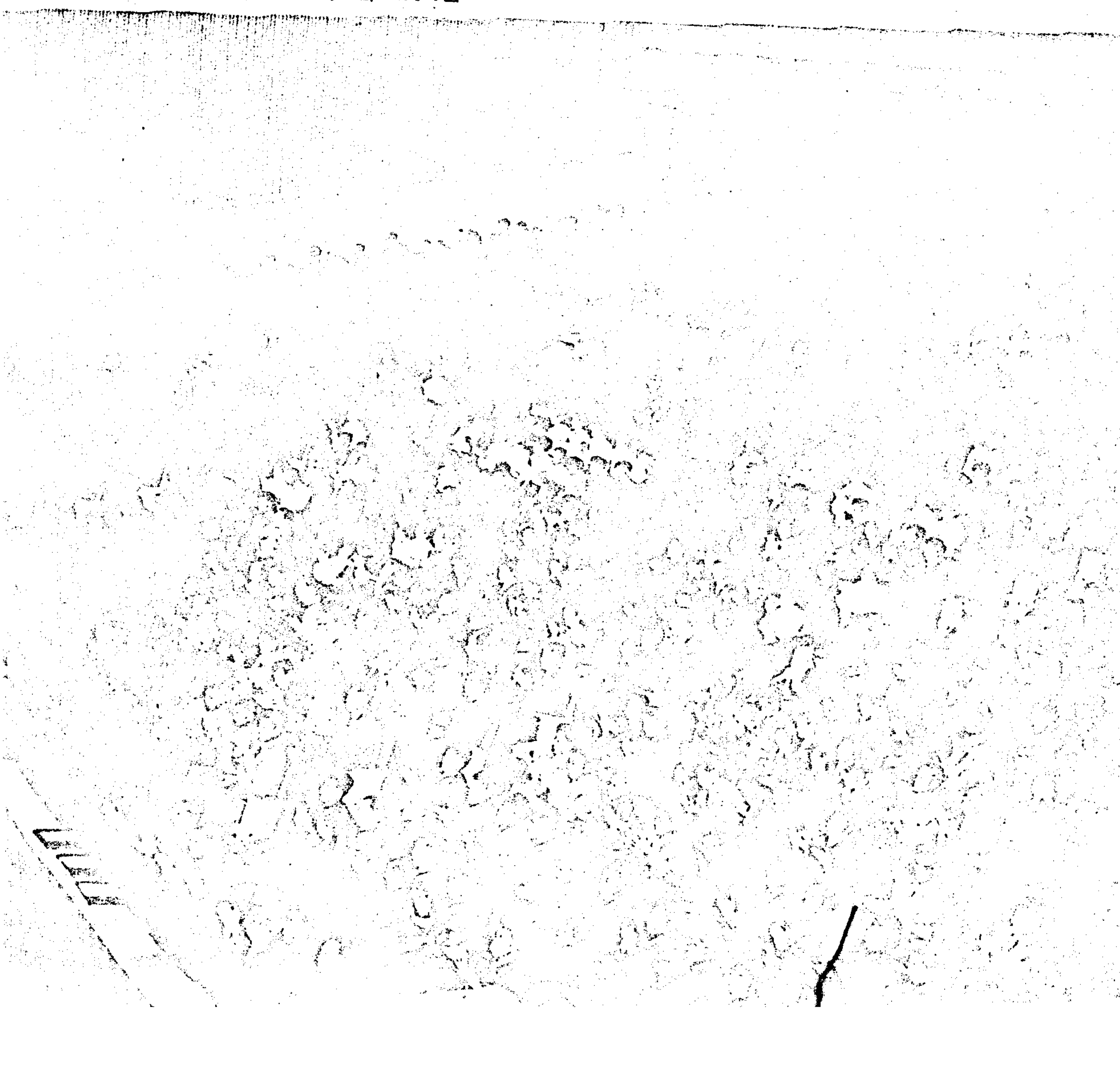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 드리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축기를 재일본조선인축하단 단장이 드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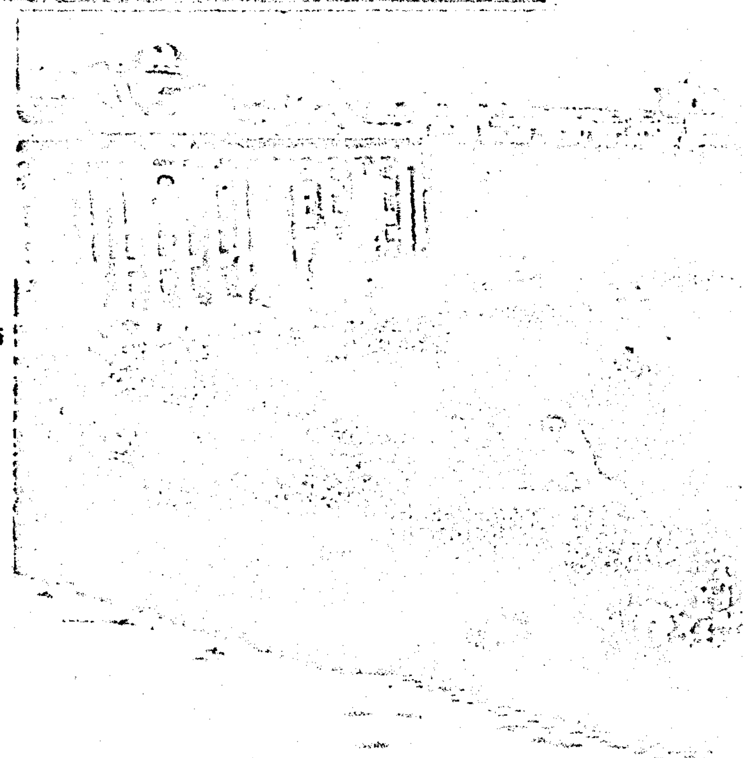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열렬히 축하하는 소년단축하단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 참가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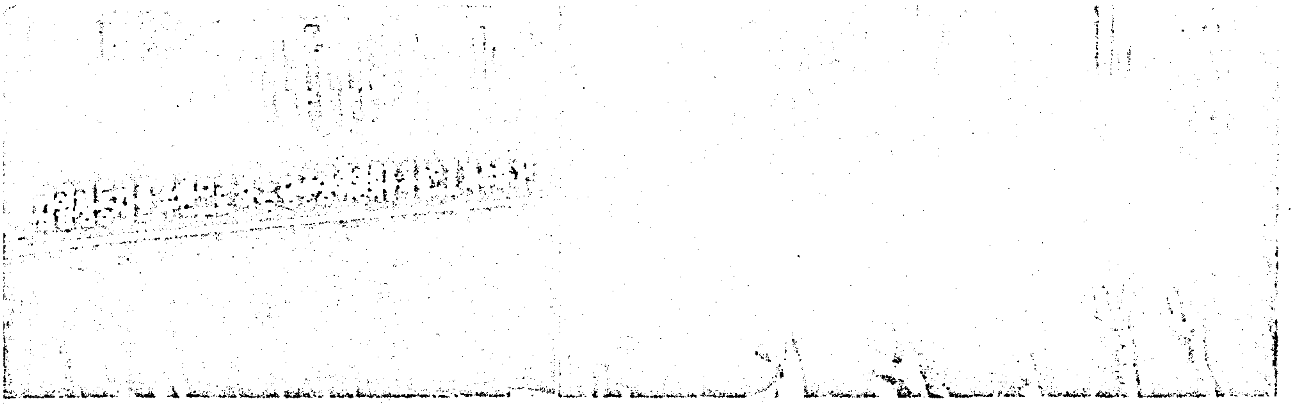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고 령도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경축 평양시군중대회에서 참가자들의 열렬한 환호에 답례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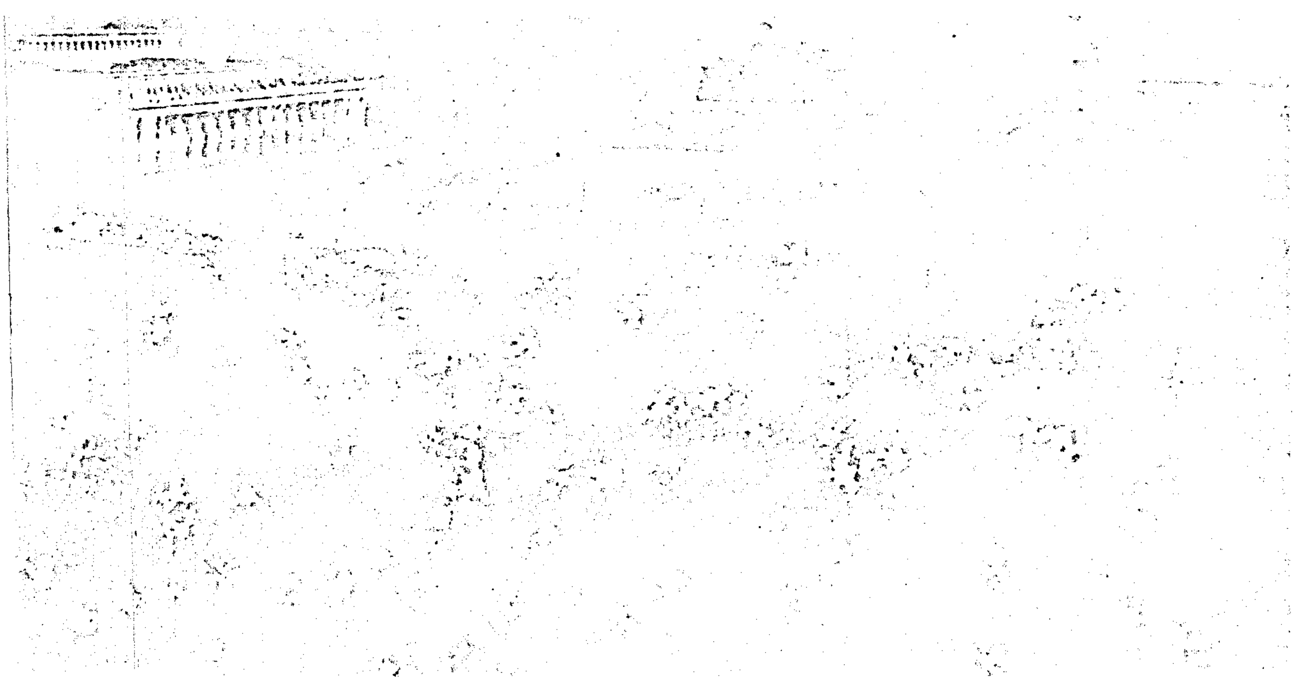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경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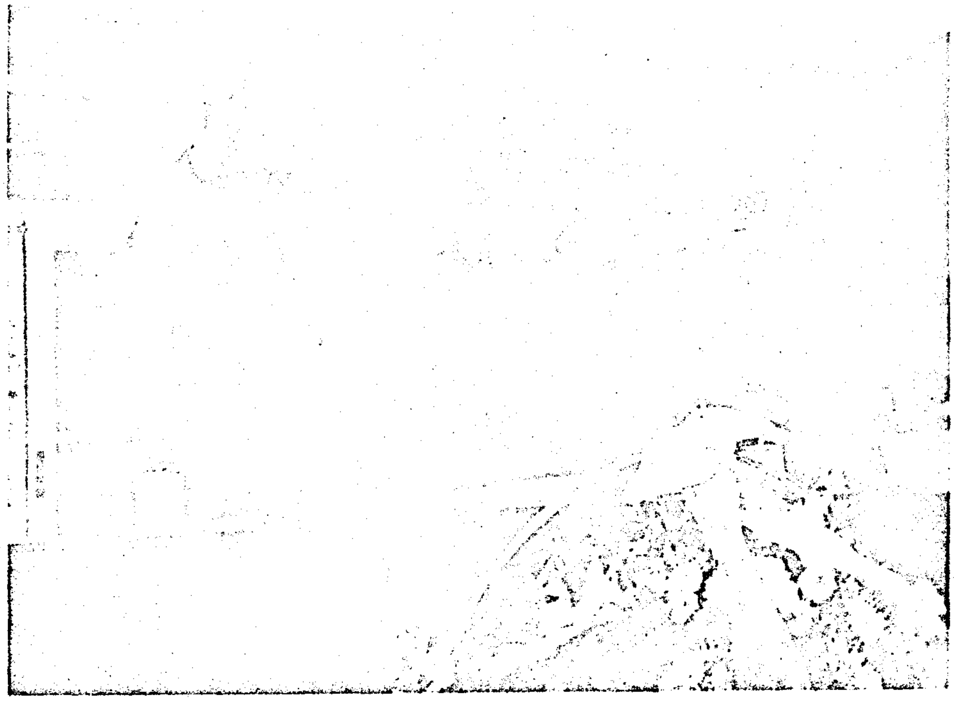
하는 평양시군중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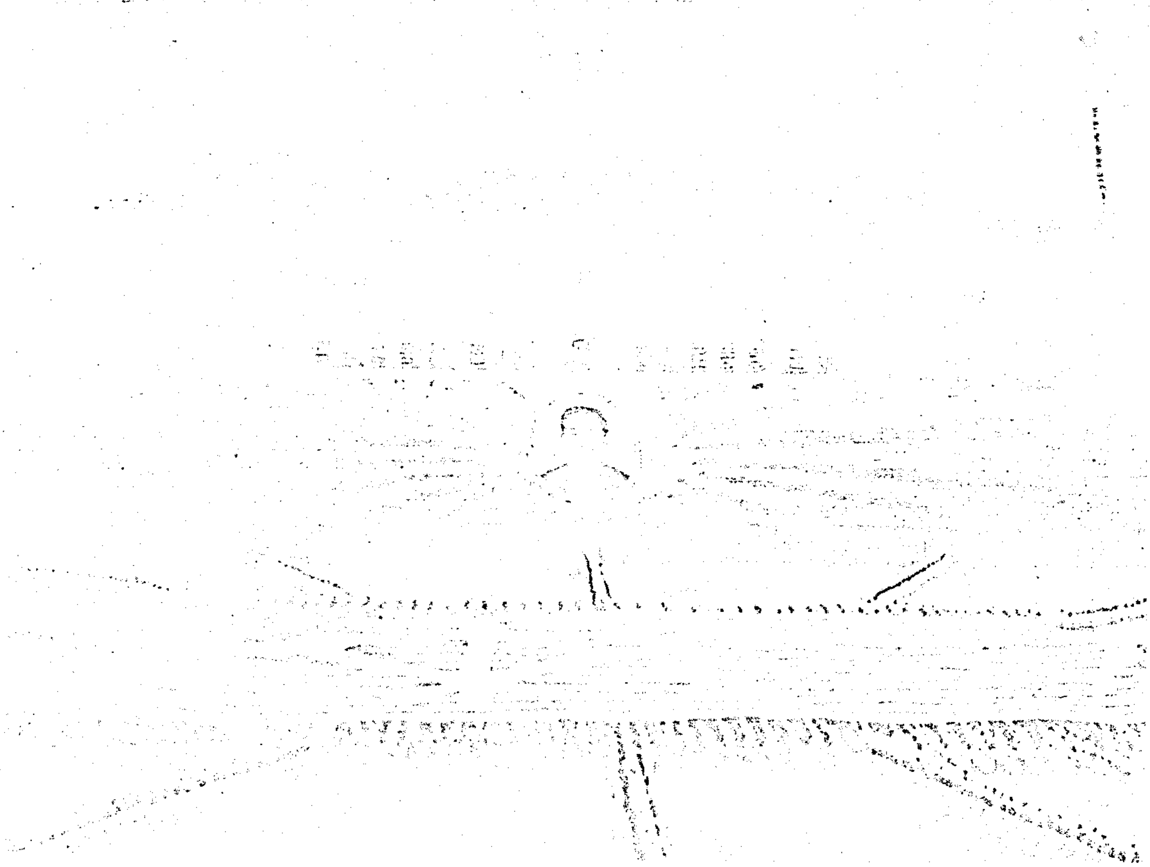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할것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시위대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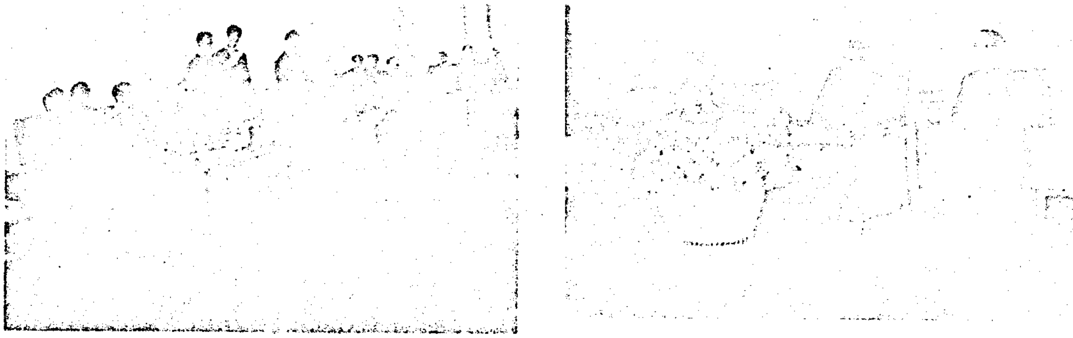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경축 집단체조 《로동당의 기치따라》를 보시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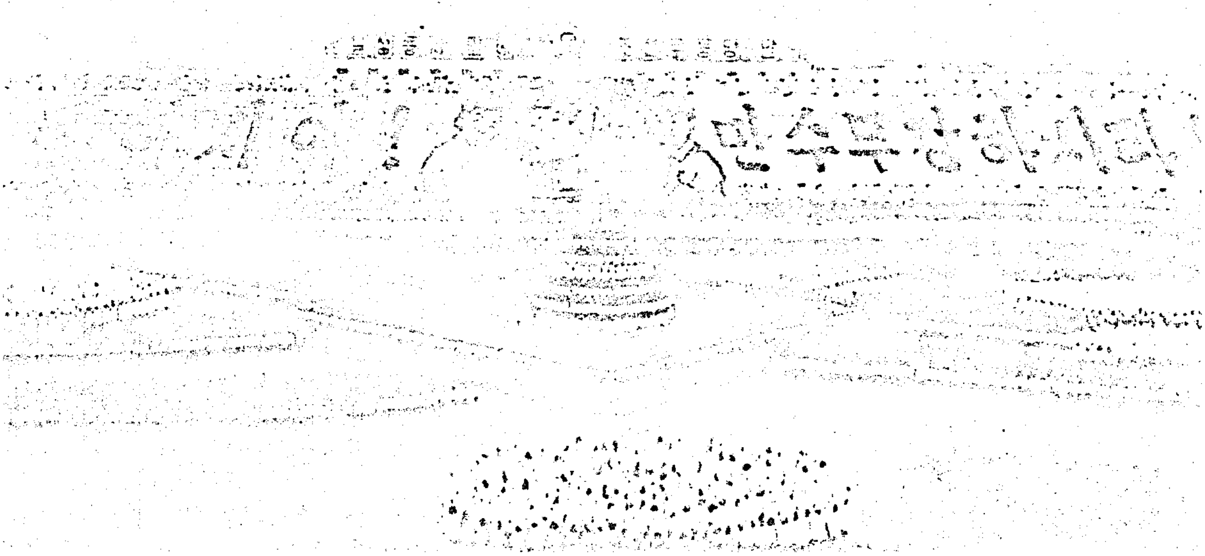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경축 집단체조 《로동당의 기치따라》에서 《4천만은 수령을 노래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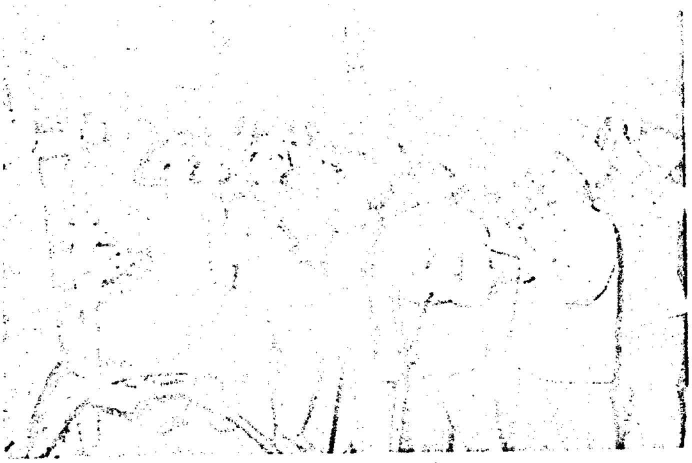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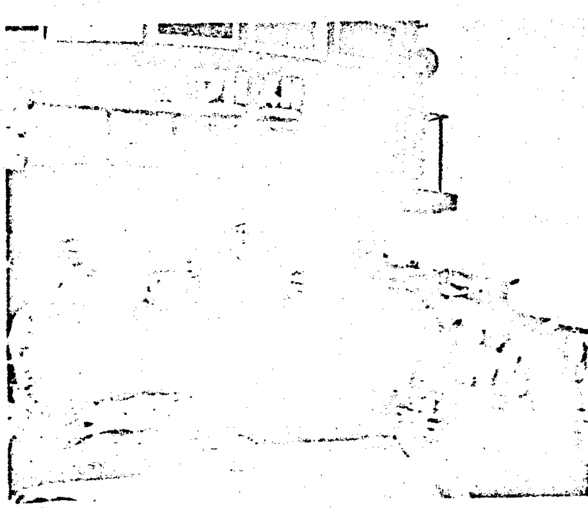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우리 나라에 와있는 각국외교대표들이 열렬한 축하를 드리였다 사진은 축하를 받으시는 김일성동지 (오른쪽), 각국 외교대표들 (왼쪽)

*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의 장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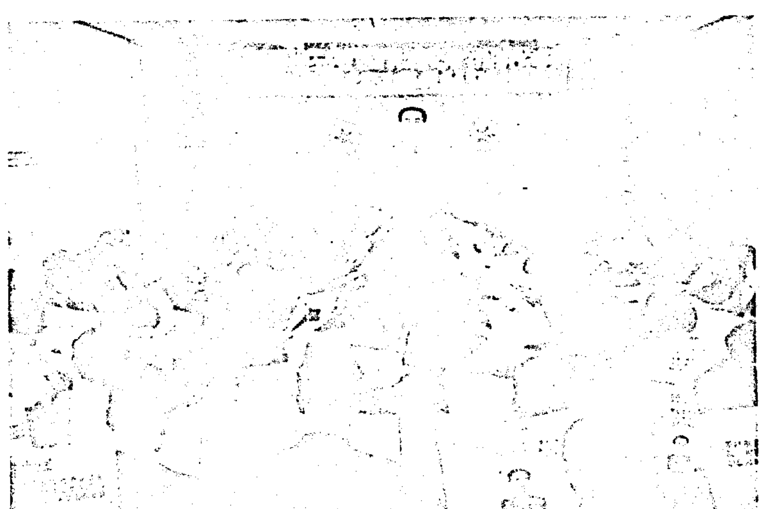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시는 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 접한 각지 근로자들—강철전사, 수산전사, 농업전사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학습하고있는 재일동포들

# 공업화의 위대한 승리의 대회,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의 대회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

우리 당과 우리 혁명발전에서와 우리 인민의 정치생활에서 거대한 력사적사변으로 되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가 1970년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성대히 진행되였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는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동지의 지도하에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는 전당과 전체인민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그 어느때보다도 굳게 단결되여 있으며 방대한 7개년계획이 빛나게 수행되고 우리 혁명이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선 시기에 그리고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이 세차게 일어나고 있는 력사적시기에 열리였다.

또한 대회는 세계적규모에서 혁명과 반혁명, 진보와 반동간의 투쟁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으며 전세계혁명적인민들이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더욱 힘차게 싸워 승리하고 있는 장엄한 시기에 열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실로 일대 혁명적경사로 되는 당제5차대회를 맞이하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정은 한없이 격동되였었다.

당대회소집의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과 인당백으로 준비된 초병들의 뜨거운 심장은 하나로 높이 고동쳐 당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눈부신 투쟁을 벌렸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로 힘찬 진군을 다그쳐온 영웅적 로동계급은 7개년계획과 1970년계획을 당대회전으로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련일 자랑찬 승리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 개회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는 온 나라가 높은 정치적열의와 로력적성과로 들끓는 환경속에서, 우리 당에 대한 전체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신뢰와 깊은 사랑속에서 제5차당대회를 맞이합니다.

올해에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7개년계획의 마지막고지를 기한전에 점령하기 위하여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로 힘차게 달려나갔으며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웠습니다.

수풍발전소, 천리마황해제철소, 천리마강선제강소, 김책제철소, 남포제련소, 문평제련소, 무산광산, 천리마검덕광산, 성흥광산, 신창탄광, 흥남비료공장, 본궁화학공장, 2.8비날론공장, 청진화학섬유공장, 2.8세멘트공장, 승호리세멘트공장, 천리마룡성기계공장, 천리마대안전기공장, 기양뜨락또르공장, 천리마희천공작기계공장, 평양방직공장, 신포수산사업소 림업부문과 제염공업부문기업소들을 비롯한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과 조선기록영화촬영소, 조선예술영화촬영소, 과학아동영화촬영소를 비롯한 많은 문화기관들이 이미 당대회전에 7개년계획과 올해 년간계획을 완수 및 초과완수하는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높이 받들고 군수공업부문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당대회전에 7개년계획과 올해 년간계획을 넘쳐완수하였습니다.〉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앞장에서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를 창조한 강선의 강철전사들은 막아나서는 온갖 장애물과 기술신비주의, 보수주의를 걸음마다 물부시면서 내달림으로써 강철고지에 승리의 기발을 날리여 금속공업부문에서 전국적으로 년간계획을 제일 먼저 끝내고 어버이수령께 충성의 보고를 올리는 영광을 지니였다.

우리 나라의 강력한 제굴공업기지 천리마검덕광산의 붉은광부들은 7개년계획의 최종고지를 이미 두해전에 점령하고 1970년도계획을 승리적으로 끝내였다.

또한 우리의 자립적공업의 위용을 자랑하는 기념비적창조물인 천리마황해제철소 5.14종합직장을 비롯한 현대적공장과 직장들이 새로 조업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기계의 《왕》인 6천톤프레스와 25톤급 대형자동차 《승리산》호, 련속식대형굴착기, 12메터프레나, 300마력대형불도젤, 10메터타닝반, 정밀도 1,000분의 1미리를 다루는 정밀기계 등이 당대회를 앞두고 물밀듯이 막 쏟아져 나왔다.

이 벅찬 진군의 나날에 명천—청진간 철도전기화가 완공되였으며 반년 남짓한 기간에 전국의 모든 시,군들에 당대회에 드리는 선물공장 500여개를 포함하여 1,760여개의 지방산업공장들이 우후죽순처럼 새로 솟아났다. 그리고 웅근 하나의 현대적도시에 해당하는 평양천리마거리와 서성거리가 불과 몇달사이에 웅장하고 화려하게 일떠섰으며 모든 도시와 마을이 그 면모를 일신하였다.

공업과 나란히 전진하는 사회주의농촌경리에서는 붉은 협동농

장원들이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로 불리한 기후조건을 훌륭히 이겨내고 백무고원으로부터 재령나무리와 풍덕에 이르는 벌과 산마다에 대풍의 가을을 마련하여 황금로적가리를 하늘높이 쌓아올렸다.

또한 암흑을 뚫고 불사조와 같이 싸우며 전진하는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 해외동포들의 불타는 마음이 수령을 우러러 희망찬 투쟁을 벌렸다.

이와 같이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개와 혁명적열의가 온 나라, 온 강산에 굽이치며 암흑의 땅 남조선에서 싸우는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의 불타는 심정이 수령을 우러러 뜨겁게 끓어번지며 세계 수억만 혁명적인민들의 큰 기대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각도(직할시) 당대표회에서 선거받은 대표자 및 발언권대표자 1천871명과 당, 국가, 경제기관, 근로단체, 인민군대, 교육, 보건, 문학예술부문일군들을 포함한 방청자 1천160명 모두 3천031명이 참가하였다. 그리고 미제와 그 주구들의 파쑈적폭압속에서 남조선혁명을 위하여 굴함없이 싸우고있는 통일혁명당대표들과 멀리 일본으로부터 온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이 참가하였다.

당대회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진행되였다.

대회가 시작되는 날 아침 대회장은 그처럼 흠모하여 마지않던 수령님께서 등단하실 순간을 고대하는 수천명의 한결같은 심정으로 하여 숭엄하게 설레였다.

정각 9시,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오늘과 같은 필승불패의 강철의 당으로 공고발전시키시였으며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대회주석단에 등단하시였다.

순간 대회장은 천지를 진동하는 우뢰와 같은 박수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의 환호성으로 끓어번졌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근 반세기에 걸쳐 온갖 풍랑과 가시덤불길을 헤치시면서 잃었던 나라를 다시 찾아주시고 모진 억압과 착취밑에서 허덕이던 우리 인민을 오늘의 번영과 행복에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 오매에도 그리던 자애로운 어버이 수령님을 뵈옵는 모든 대표들은 일제히 일어나 열광적인 환호를 올리고 또 올렸다.

대회의 회순에 따라 집행부선거가 있었을 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대회의 집행부에 추대되시자 대회의 전체 참가자들은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존경과 불보다 뜨거운 충성의 마음을 담아 그이를 열렬히 환영하였으며 대회장은 또다시 우뢰와 같은 박수와 만세의 환호성으로 들끓었다.

그이에 대한 열렬한 환호와 충성의 열정은 그이께서 개회사를 하시고 조선혁명과 세계혁명발전에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하시였을 때 더욱 고조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온 정신을 가다듬고 수령님의 보고를 한구절 한구절 놓칠세라 마음속 깊이 새겨넣으면서 그칠줄모르는 열렬한 박수로 환영하였다.

오래 계속된 우뢰와 같은 박수로 하여 보고는 자주 중단되였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의 커다란 감격과 흥분 속에서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차전원회의에서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의 한분이시며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총비서로 추대되시였다는것이 알려지자 전체 대회대표들과 방청자들은 끓어넘치는 기쁨과 감격을 안고 일제히 일어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를 소리높이 불렀다.

온 장내는 우리 당과 인민을 항상 승리와 영광에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다시금 당중앙위원회 총비서로 모시는 영예를 지니게 된 기쁨과 자랑, 드높은 긍지로 차넘치였으며 그이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와 환호, 박수는 그칠줄 모르고 오래동안 계속되였다.

이와 같이 높은 정치적분위기속에서 진행된 당대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을 토의하였다.

**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사업총화**

**2.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사업총화**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6개년(1971~1976)계획에 대하여**

**4. 조선로동당 중앙지도기관선거**

의정 첫째문제에 대하여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보고하시였다.

뒤이어 많은 대표들이 총비서동지께서 하신 보고를 전적으로 지지찬동하여 토론에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당중앙검사위원회사업총화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총비서동지의 보고에서 제시된 총적방향에 기초한 의정 셋째문제에 대한 보고와 이를 지지하는 여러 대표들의 토론이 있었다.

대회에서는 우리 당의 총비서이시며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중요한 결론의 말씀을 하시였다.

대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결정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6개년(1971~1976) 계획에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대회에서는 또한 현행 조선로동당 규약에서 일부 조항들을 새 환경에 맞게 수정 및 보충할데 대한 제의를 승인하며 대회에 제

기한 당규약개정초안을 조선로동당규약으로 채택할데 대한 결정서를 통과시키였다.

당중앙지도기관선거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을 선거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차전원회의에서는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총비서로 추대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전체 당원들, 인민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우리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며 영원히 수령께 충직할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우리 당 제5차대회는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우리 당과 우리 혁명력사에 영원히 빛날 업적을 남기였다.

## 대회에서는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고 령도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대회보고에서 우리 당 제4차대회와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력사적투쟁과 거기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빛나게 총화하시고 사회주의건설의 가일층의 촉진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보고에서는 위대한 수령의 탁월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이 맑스-레닌주의기치, 주체사상의 위대한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영웅적투쟁과 헌신적인 로력으로 우리 나라를 자립적인 현대적공업과 발전된 농업, 꽃피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와 금성철벽의 전인민적방위체계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키는 력사적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안팎의 원쑤들과의 끊임없는 투쟁속에서 전당에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확고부동한 통일단결을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성과가 긍지높이 총화되였다.

보고에서는 또한 수령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위업수행에서 획기적전진을 이룩한 커다란 성과와 국제혁명운동의 선두대렬에서 반제반미투쟁과 세계혁명의 촉진에 적극 이바지하여온 우리 당의 빛나는 활동과 업적이 자랑스럽게 총화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보고는 바로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인 위대한 주체사상이 이땅우에 빛나게 구현되여 오늘의 세기적인 변혁을 가져온 찬란한 력사적승리의 총화이며 나라의 사회주의건설과 전반적조선혁명을 촉진하고 민족적해방과 독립,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우리 시대의 위대한 전진운동을 힘차게 떠밀어온 자랑찬 승리의 기록이다. 보고는 또한 위대한 수령께서 우리 나라에서 몸소 열어놓으시고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주체의 시대,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승리하는 새로운 력사적시대의 장엄한 송가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우리 혁명의 새로운 더 큰 승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휘황한 진로와 빛나는 전망을 펼쳐주시였다.

보고에서는 또한 조국통일의 한길에서 북반부인민들과 함께 싸워나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혁명운동의 새로운 힘찬전진을 위한 명확한 앞길과 투쟁방침들이 뚜렷이 명시되였으며 아세아와 세계의 전반적범위에서 반제반미투쟁을 새롭게 발전시키고 국제혁명운동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확고한 립장과 투쟁전략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천재적인 통찰력과 심오한 리론으로 우리 당과 인민의 빛나는 혁명업적과 풍부한 투쟁경험을 과학적으로 분석일반화하시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길, 공산주의에로의 대로를 휘황히 밝혀주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보고는 실로 우리 당과 인민을 새로운 위대한 전투와 위훈에로 불러일으키는 불멸의 혁명적홰불이며 위대한 투쟁의 기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금번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보고는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발전을 위하여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보고는 우리 당과 인민이 쟁취한 위대한 승리와 업적의 자랑찬 총화이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휘황한 길을 밝혀준 웅대한 투쟁강령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보고는 우리 나라에서 위대한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총화한 력사적문헌으로서 우리 당과 우리 혁명 발전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섰으며 전당이 맑스-레닌주의사상, 우리 당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굳게 통일단결되여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08페지)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당의 확고부동한 통일을 이룩하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당으로 강화발전되였으며 전당과 전체 인민을 주체의 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결속시켰다.

뿐만아니라 주체사상이 있음으로 하여 오랜 력사적기간 민족자주의식을 좀 먹던 낡은 사상의 구속으로부터 우리 인민을 완전히 해방하는 사상혁명령역에서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우리 당은 또한 주체사상의 구현인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확고히 틀어쥐고 나감으로써 정치적자주성을 공고히 하고 국제적위신을 전례없이 강화하였으며 락후했던 우리 나라를 발전된 자립적민족경제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켰으며 개화만발하는 민족문화와 강유력한 자위적국방력을 가진 위대한 나라로 만들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보고는 또한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와 그 위대한 생활력을 총화함으로써 주체사상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이며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갈때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바로 여기에 보고의 위대성과 커다란 력사적의의가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보고는 또한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의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는 웅대한 설계도로,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력한 투쟁의 무기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대회 폐회사에서 다음과같이 말씀하시였다.

《대회가 내놓은 과업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전투적강령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한 6개년계획의 투쟁강령을 제시하시면서 3대기술혁명과업, 사회주의문화건설의 과업,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과업,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업, 인민생활의 균형적발전을 위한 과업 등을 전면적으로 천명하시였다.

보고에서 제시된 이 위대한 강령이 실현될 때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는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될것이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는데서 결정적인 국면이 열리게 될것이다. 이것은 우리 인민에게 커다란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고있으며 우리들의 용기와 투지를 천백배로 높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총화보고에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전략전술적방침들, 그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업을 다시금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보고에서 천명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전략전술적방침들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인민민주주의혁명의 승리를 보장하며 조국통일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길을 명시한 투쟁방침으로 된다. 이 길로 확고히 전진할 때 남조선혁명은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능숙하게 헤치면서 승리를 이룩하게 될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보고는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발전을 위한 강령적문헌으로, 투쟁의 교과서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보고는 비단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해서뿐만아니라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전세계혁명적인민들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국제정세발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세계혁명의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위력한 투쟁의 무기를 안겨주시였다. 보고에서는 현시기 세계혁명의 가장 초미의 문제들인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전략, 특히 아세아에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전략전술적방침과 투쟁과업들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 제시하신 아세아의 모든 혁명적나라인민들이 반제반미통일전선을 강화하고 미제에게 집단적인 반격을 가할데 대한 방침은 이 지역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파탄시키고 놈들의 멸망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와 함께 보고에서는 반제반미투쟁을 저해하는 수정주의의 온갖 책동과 그 해독성을 폭로규탄하고 전세계혁명적인민들이 확고한 혁명적립장을 견지하고 반제반미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릴수 있게 하는 전투적기치를 그들에게 안겨주시였다.

또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경험을 집대성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보고는 사회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세계의 모든 나라 당들과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의 지침이며 교과서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우리 당의 고귀한 실천적경험을 일반화하시여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조건하에서 사회주의를 어떻게 건설해야 하며 특히 식민지반봉건사회의 처지에서 어떻게 짧은 기간내에 위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를 건설할수 있는가,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이후 경제관리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것인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인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어떻게 개조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해나가겠는가 하는 등 현시대가 제기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장 정확히 푸는 전략전 술적방침들을 밝혀주시였다.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앞길을 밝혀주는 혁명의 교과서로, 투쟁의 지침으로 된다.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보고에서 나아갈 길을 찾고있으며 우리 당이 창조한 모범에서 배우고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보고는 또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가일층 발전풍부화시키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현시대의 맑스-레닌주의인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전면적인 과학리론적해명을 주시였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우리 시대가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모든 문제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반적리론과 전략전술을 천재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번 보고에서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된 이후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어떻게 축성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새롭게 제시하시고 완전무결하게 해명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보고에서 자립적공업체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완성시켜나가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는 가장 정확한 길이라는것을 밝혀주시였으며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된 조건하에서 기술혁명의 근본과업이 무엇이며 그 내용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를 새롭게 천명하시였다. 그이께서는 3대기술혁명과업을 해결하는 것이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는 기본담보로 될뿐만아니라 중로동과 경로동간의 차이, 공업로동과 농업로동간의 차이를 없애고 녀성들을 가정적부담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기본방도라는것을 밝히시였다.

이것은 사람들을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며 로동계급과 농민의 차이를 없애며 녀성들을 종국적으로 해방하는데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혁명의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보고에서 또한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점령할데 대한 리론을 발전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보고에서 사상혁명에 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완성체계화하시면서 특히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가 없어진 다음에도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여야만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완전히 점령할수 있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천명하시였다. 그리고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과업들과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의 확립에 관한 문제들을 새롭게 밝히시였다.

그이께서 천명하신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의 사상과 방침은 외부로부터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가 계속되고 내부에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어떻게 건설해야 하는가를 밝혀주신 위대한 강령이다.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전과정에서의 맑스-레닌주의당건설에서 제기되는 근본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시고 해명하시였다.

그이께서 내놓으신 당의 조직사상사업의 총적방향으로서의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에 관한 문제,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에서의 당의 령도적역할에 대한 문제, 맑스-레닌주의당의 혁명적사업체계와 사업방법에 관한 문제들은 로동계급의 당을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부대로 강화발전시키며 그의 력사적사명을 완수할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혁명리론이다.

그이께서 밝혀주신 이 모든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은 혁명과 건설, 로동계급의 당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에서 전혀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 그를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특출한 기여를 한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그이께서 하신 보고에서는 이외에도 인민민주주의혁명에 관한 리론, 현시기 세계혁명의 초미의 문제들에 대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천재적인 리론실천적해명이 주어졌다.

실로 혁명의 영재이시며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하신 보고는 혁명과 건설에 관한 천재적사상과 리론, 전략전술을 집대성한것으로서 과학적공산주의리론을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위대한 맑스-레닌주의고전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보고는 바로 이와 같은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문헌이기 때문에 그것이 보도되자 전세계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세계의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로부터 《백과전서적인 불후의 맑스-레닌주의 문헌》, 《가장 강력한 힘을 주는 위대한 문헌》, 《귀중한 문헌》으로 한결같은 찬양을 받고있다.

# 당대회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대회에서는 총비서동지께서 하신 력사적인보고를 전적으로 지지찬동하여 많은 대표들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면서 이 력사적인 보고는 4차당대회 이후 오늘에 이르는기간 우리 당이 그이께서 제시하신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이룩한 빛나는 성과와 경험을 심오히 분석총화하고 과학리론적으로 일반화한 력사적문헌이며 우리 당의 지도사상인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이룩한 위대한 승리의 기록으로 된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또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보고는 조선혁명의 참모부인 우리 당을 더욱 강유력한 전투적부대로 발전시키며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할 투쟁의 앞길을 밝혀준 홰불이며 우리 당과 인민을 새로운 전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투쟁강령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토론자들은 그이께서 하신 총화보고는 미제의 세계전략을 짓부시고 그의 종국적멸망과 전반적국제혁명위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과학적인 투쟁전략과 방침을 밝힌 탁월한 혁명적문헌으로, 혁명과 건설에 관한 그이의 천재적인 사상과 리론, 과학적인 방침을 집대성한 탁월한 맑스-레닌주의문헌으로 된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당 제4차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우리 당이 걸어온 로정은 자연과 사회 그리고 사람들을 개변시킨 력사적사변으로 충만된 영광스러운 로정이였다고 하면서 당 제4차대회에서 제시한 웅대한 강령적과업과 당대표자회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위대한 성과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지적하였다.

대회는 총결기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가 이룩된 결과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이 더욱 철저히 관철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승리가 이룩되고 정치, 경제, 국방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나라의 위력이 전례없이 강화된 사실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토론자들은 특히 총결기간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한 가장 큰 승리는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 공업—농업국가로부터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킨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유구한 우리 민족의 력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전진운동에서 획기적사변이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사회주의공업화로선의 위대한 생활력을 확증해주는것이라고 일치하게 말하였다.

대회에서는 총결기간 우리 당이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해온데 대하여 깊은 주목을 돌렸다.

토론자들은 총결기간 우리 당이 원쑤들의 날로 로골화되는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경제건설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국방력을 강화하는데서 이룩한 거대한 성과에 대하여 지적하고 생활은 이 로선의 정당성을 확증해준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당대회에서 수령께서 제시하신 과업을 빛나게 수행할것을 다짐하였다.

다음으로 토론자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휘황한 빛발아래 우리의 사회주의농촌건설분야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에 대하여 긍지높이 지적하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테제에서와 이번 대회보고에서 제시하신 과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더욱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또한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문화혁명수행에서도 거대한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특히 교육과 과학문화가 전면적개화의 길에서 새로운 높은 봉우리에 올라선데 대하여 긍지높이 말하고 대회에서 제시하신 문화혁명의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굳은 결의들을 다지였다.

대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명확한 방향에 따라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문제에 깊은 주목을 돌렸다.

토론자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기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것이라고 하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와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또한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관한 리론은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말하면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된 다음 새 환경의 요구에 맞게 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체계를 옳게 해결하는것은 가장 절실한 문제였는바 이것은 오직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해서만 해결될수 있었다고 하였다.

특히 토론자들은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문제에 깊은 주목을 돌리면서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계속 높여 생산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정치사업을 앞세워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며 경제관리방법을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부단히 개선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또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경제건설의 기본로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비롯하여 수령께서 독창적으로 제시하신 로선들과 당의 경제정책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공업화를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6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수행하는데서 또다시 천리마조선의 영웅적기개를 남김없이 발휘할 굳은 결의들을 다지였다.

토론자들은 총결기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위업을 촉진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력사적인 전진이 이룩된데 대하여 말하였다.

특히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고있는 로동계급의 맑스-레닌주의당인 통일혁명당이 창건되고 그 지도밑에 여러가지 형태의 혁명투쟁이 날로 확대발전하고있는것은 남조선혁명발전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에 관한 전략전술적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하는것이라고 일치하게 말하였다.

다음으로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우리 당의 대외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에 대하여 긍지높이 말하고 앞으로 이를 계속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우리 혁명위업에 대한 동정자, 지지자의 대렬을 끊임없이 늘이고 조선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한 위업에 적극 이바지할것이라고 하였다.

대회에서는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건설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함께 그이께서 제시하신 과업들을 더 잘 관철할데 대하여 토론하였다.

특히 대회는 우리 당의 통일단결이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완전히 실현되여 우리 당의 전투력이 비할바 없이 강화된데 대하여 강조하였으며 이것은 우리 당이 당건설분야에서 이룩한 가장 큰 승리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토론자들은 우리 당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이와 어긋나는 온갖 부르죠아사상과 수정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봉건사상 등을 반대하는 장기적이고도 원칙적인 투쟁을 통하여 전당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워놓았으며 전당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철통같은 통일을 이룩한 불패의 전투대오로, 어떤 바람이 불어도 추호의 동요도 없이 수령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혁명의 앞길을 독자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세련된 혁명의 참모부로 강화발전되였다고 한결같이 말하였다.

그러면서 토론자들은 수령께서 제시하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을 더욱 조직사상적으로 공고발전시키고 그 전투력을 높이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힘주어 말하였다. 그리고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근로단체들의 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킬데 대하여서도 심중한 주목을 돌리였다.

이와 함께 모든 토론자들은 지난날에도 그러하였던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당과 4천만 조선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할것이며 특히 이번 당대회에서 수령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길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당대회에서 우리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위대한 리정표로 될 6개년계획의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대회보고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6개년계획을 제시하시면서 그 기본과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 6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입니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39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6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현단계에서 경제건설의 총적과업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도 심오한 과학적인 정식화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6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길에서 사상적요새와 함께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하여 나서는 필수적인 중요 과업을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다.

뿐만아니라 그것은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됨으로써 우리 나라에 마련된 현대적공업의 위력을 더욱더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는 기술적진보를 이룩하며 나라의 생산력을 더욱 빨리 발전시키고 모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는것을 성숙된 문제로 제기하고있는 현시기 사회주의경제발전의 절박한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6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또한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촉진하여 북반부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할것을 절실한 문제로 제기하고있는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이와 같이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모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데 대한 위대한 사상은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객관적요구와 우리 혁명과 건설의 절박한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된 다음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경제건설의 진로를 천재적으로 밝힌 가장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지도사상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 6개년계획의 기본과업과 함께 그 실현을 위한 인민경제의 중요 부문별과업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사회주의공업화 이후시기 기술혁명발전의 요구를 정확히 분석하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3대기술혁명을 실현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앞으로 가까운 몇해동안에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3대기술혁명과업입니다.》(우와 같은 책, 47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3대기술혁명을 실현할데 대한 강령적과업은 공업화가 실현된 이후의 기술혁명의 총적방향과 그 내용, 그 실현방도를 처음으로 밝힌 천재적이고도 독창적인 방침이며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된 다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인 기술혁명문제를 정확히 해결할수 있게하는 탁월하고도 현명한 방침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6개년계획의 기본과업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 제5차대회는 새 전망계획기간에 도달시켜야 할 인민경제발전의 중요목표들을 지표별로 명시하였다.

1971~1976년간에는 무엇보다 먼저 공업생산은 해마다 평균 14%씩 높이고 공업총생산액은 2.2배로 늘어나게 된다.

1976년에 가서 전력은 280억~300억 키로와트시, 석탄은 5천만~5천300만톤, 선철 및 립철은 350만~380만톤, 강철은 380만~400만톤, 압연강재는 280만~300만톤, 화학비료는 280만~300만톤, 세멘트는 750만~800만톤, 수산물은 160만~180만톤, 직물류는 5억~6억메터, 알곡생산은 700만~750만톤, 고기는 40만톤, 알은 30억개, 과일총생산량은 80만~100만톤에 도달하게 된다.

6개년계획의 이 전망 과업은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와 공산주의의 휘황한 앞날을 내다보시며 인류의 리상을 현실로 전환시키는 현명한 령도예술을 지니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마련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설계도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6개년계획은 그이의 위대한 주체공업로선과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 그리고 기술혁명에 관한 탁월한 리론과 현명한 방침, 탁월한 군사전략적 구상을 정확히 구현하고있을뿐만아니라 문화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과 방침, 인민의 복리를 계획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배려하시는 높은 덕성을 구현하고있다.

이 휘황한 새 전망계획의 수행은 수령의 천재적경제리론의 정당성, 그이에 의하여 마련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비할바없는 우월성과 무궁무진한 생활력 그리고 천리마조선의 위용과 그이께 무한히 충직한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개를 온 세상에 더욱 힘있게 떨치게 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당대회가 내세우는 웅대한 강령이 실현되면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는 더욱 강화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될것입니다. 이 강령의 실현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더욱 고무추동할것이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는데서 결정적인 국면을 열어놓게 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142페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당과 인민 앞에 펼쳐주신 위대한 사회주의건설강령인 6개년계획의 실현은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촉진하는데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사회주의건설강령인 6개년계획수행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비할바 없이 강화하고 나라의 생산력을 높이 발전시키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훨씬 줄이며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앞당길것이다.

뿐만아니라 6개년계획의 수행은 자기 위력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피흘리며 굳세게 싸워나가고있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여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를 더욱 앞당기게 될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세대에 조국을 통일하여 부강하고 문명한 통일된 조국에서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신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어버이 수령으로 모시고 그이의 령도밑에 다 같이 행복하게 살려는 남북조선 4천만 인민의 한결같은 열렬한 지향을 빨리 실현시키게 될것이다.

6개년계획의 수행은 또한 세계혁명운동의 발전에 새로운 거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제도의 불패의 생활력을 과시하고 국제적범위에서 사회주의의 전반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게 될것이며 특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혁명하는 나라인민들에게 더욱 큰 희망과 포부를 안겨주고 그들의 반제반미투쟁과 민족적 및 사회적해방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고무할것이다. 이것은 정세발전의 전반적추이에 새로운 영향을 미치고 현대의 가장 흉악하고 파렴치한 침략자이며 세계 모든 진보적인민들의 첫째가는 공동의 원쑤인 미제를 우두머리로하는 제국주의의 멸망을 촉진할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백전백승의 혁명적기치,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6개년계획의 기한전 완수를 위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고있다.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당의 일치한 의사와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에 의하여 당중앙위원회 총비서로 추대되시였다

대회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들과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들을 전원 찬성으로 선거하였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의 커다란 감격과 흥분속에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차전원회의가 있었다.

전원회의에서는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의 한분이시며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중앙위원회 총비서로 추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중앙위원회 총비서로 추대한것은 전당의 일치한 의사와 전체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을 반영한것으로서 자신의 운명과 혁명의 장래전도를 전적으로 경애하는 수령께 의탁하고있는 우리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절대적인 신뢰의 뚜렷한 표시이며 영원히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그이께서 이끄시는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굳세게 싸워나가려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철석같은 의지와 신념의 표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총비서로 모시게 된것은 우리 당의 발전과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우리 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가장 의의깊은 일이며 그이의 혁명전사로 살며 싸워나가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있어서 무한한 영광이며 자랑이며 행복이다.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진두에 서시여 이끄심으로 하여 우리 당은 그어떤 사나운 풍파와 시련도 뚫고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확신성있게 인도하는 로숙하고 세련된 참모부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선두대렬에서 나가는 혁명적이고 권위있는 전위부대로 되였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이땅우에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영광스러운 당으로 더욱 빛날것이다.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진행된 당대회는 전례없이 앙양된 정치적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으며 단결의 대회, 승리의 대회, 앞으로 더 큰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대회임을 시위하였다

당대회 전과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흠모, 절대적인 신뢰와 끓어넘치는 충성의 열정으로 일관되였으며 수령의 두리에 철석같이 통일단결된 전당과 전체 인민의 불패의 위력을 뚜렷이 시위하였다.

당대회는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고 령도자이시며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끝없는 흠모와 열화같은 충성심으로 일관되였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대회주석단에 등단하실때, 개회를 선언하실때,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하실때, 특히 그이께서 당중앙위원회 총비서로 또다시 추대되시였을때 대회 전체 참가자들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심정을 모아 그이를 우러러 우뢰와 같은 박수로 열렬히 찬영하였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의 환호성은 대회장을 진감케하였다.

이것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수령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려는 혁명적의지와 철석같은 각오로 충만되였으며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옹호관철하려는 혁명적기풍이 전당에 튼튼히 섰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와 열화같은 충성심, 그이를 중심으로한 전당의 불패의 통일단결은 대회토론의 전과정에서도 힘있게 과시되였다.

토론자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를 구현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리론적으로, 사실로써 증명하였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 바로 여기에 우리의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가 있다는것을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모든 토론자들은 수령님이 계심으로하여,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오늘의 위대한 승리가 있다는것을 긍지높이 말하면서 앞으로도 주체의 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 수령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려는 결의들을 굳게 다지였다.

토론에 참가한 모든 대표들은 우리 나라에서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승리한데 대하여, 특히 우리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이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확고부동하게 이룩된데 대하여 가장 절절한 심정으로 격조높이 강조하였으며 그때마다 대표들은 살아도 수령을 위하여 살며 죽어도 수령을 위하여 한목숨을 기꺼이 바치려는 각오들을 심장깊이 새기고 또 새기였다.

대회의 모든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조선인민을 항상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에로 이끄시는 그이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충성의 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광을 드렸으며 그이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였다.

대회에서 한 각계대표와 모든 축하단의 축하연설들에서도 수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위대성, 그이의 령도의 현명성과 숭고한 공산주의적덕성, 수령의 두리에 반석같이 통일단결된 조선로동당과 인민의 불패의 위력에 대하여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였으며 수령님께 최대의 경의와 축하를 드리였다.

남조선의 통일혁명당대표단과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은 축하연설에서 오직 민족의 태양이신 수령님이 계시고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이 있음으로 하여 간악한 원수들과의 간고한 싸움에서 승리하며 희망과 신심에 넘쳐 살며 싸우고있다고 말하면서 남녘땅 형제들과 60만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심정을 담아 수령님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소년단축하단, 조선인민군축하단, 로농적위대축하단, 붉은청년근위대축하단, 로동자축하단, 농업근로자축하단, 청년학생축하단, 녀성축하단, 과학문화예술인축하단들은 한결같이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긍지높이 노래하였으며 우리 인민들을 친어버이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고 계시는 그이의 한없이 고매한 덕성에 대하여 칭송하였다.

뿐만아니라 대회를 축하하여 형제당들과 혁명조직들, 국제민주단체들로부터 보내온 수많은 축하문과 축전들에서도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세계혁명의 가장 걸출한 령도자》로,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로, 《현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상 리론가》로 높이 우러러 흠모하며 그이께서 밝혀주신 길을 따라 투쟁할 결의들

이 담겨져있었다.

대회의 마감날 전체 당원들과 4천만 조선인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또다시 우리 당의 총비서로 추대되시였다는것을 알리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의 환호소리가 폭풍과 같이 온 대회장을 진감하였다.

대회에 참가한 대표들은 그이께 전체 당원들과 4천만 조선인민의 충성의 한마음을 담은 꽃바구니를 드리고 그이의 만수무강을 축원하였으며 전체 대회참가자들이 수령께서 내놓으신 강령적과업을 기어이 완수할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실로 대회는 우리 당안에 주체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고 우리 당과 전체 조선인민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철석같이 통일단결되여있다는것을 온세상에 뚜렷이 시위한 력사적인 대회였다.

대회는 또한 시종일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대회는 개막첫날부터 폐막하는 시각까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하고 관철하며 어떠한 난관과 시련도 용감히 뚫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끓어넘치는 혁명적정열과 전투적기백으로 충만되였었다.

대회는 온갖 내외의 원쑤들, 세계의 모든 반동들과 수정주의자들을 준렬히 단죄하고 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추켜들었다.

대회에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더욱 견결히 싸우며 이 투쟁을 저해하고 혁명의 전진을 가로막는 수정주의와 온갖 반동적 부르조아사상을 철저히 분쇄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수령님의 가르치심에 접한 대회참가자들은 원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으로 불탔으며 미제와 그주구들의 침략책동을 예리하게 폭로규탄하고 오직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싸워나갈 각오를 더욱 굳게 다지였다.

대회의 모든 토론자들은 미제의 격화되는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경제건설을 잘하면서도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계속 커다란 힘을 돌리며 한손에는 총을 들고 다른 한손에는 마치와 낫을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긴장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회는 또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위대한 성과에 대한 높은 긍지와 자부심으로 충만되였으며 승리의 신심 드높이 새로운 강령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해나가려는 확고한 결의로 일관되였다.

대회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선포하시였을 때 그리고 당건설과 경제건설, 국방건설, 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이룩된 위대한 성과와 고귀한 경험을 총화하시였을 때 대회참가자들의 가슴은 승리자의 높은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한없이 부풀어 올랐다.

대회의 모든 토론자들은 지난기간 이룩한 빛나는 성과에 대하여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승리의 신심드높이 혁명적대담성과 용감성을 가지고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6개년계획의 새로운 전투적과업을 훨씬 앞당겨 완수할 굳은 결의들을 다지였다.

대회참가자들 뿐만아니라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대회를 통하여 현시대의 가장 위대한 혁명의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있는 끝없는 긍지감, 그이께서 령도하시는 세계에서 권위있고 존엄있는 혁명적당, 조선로동당의 기치따라 세계혁명의 선두에서 싸워나가는 혁명전사된 영예를 깊이 간직하고 우리 혁명을 더욱 힘있게 전진시켜 조국통일의 위업을 실현하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수하려는 확고한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대회 전과정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는 전당과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단결의 대회, 승리의 대회, 앞으로 더큰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대회임을 온세계에 시위하였다.

당 제5차대회는 바로 우리 당과 4천만 조선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그이를 유일한 중심으로 하나로 굳게 뭉친 전당의 불패의 조직사상적통일과 전체 인민의 확고부동한 정치사상적통일을 뚜렷이 과시한 위대한 단결의 대회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대회 폐회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당에 맑스-레닌주의사상, 당의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고 우리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이 새로운 기초우에서 더욱 강화되였으며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굳게 단결되여있습니다.》**

당대회 전행정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직하고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보위하며 수령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옹호관철하려는 대회참가자들의 불타는 혁명적열정과 투지로 끓어번졌으며 어떤 모진 풍파속에서도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뇌수이시며 심장이신 경애하는 수령의 높은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옹호하고 그이를 중심으로 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며 오직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승리의 앞길로 억세게 싸워나갈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로 높이 뛰었다.

당대회를 통하여 다시금 힘있게 확증되고 자랑스럽게 과시된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의 사상, 의지 및 행동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통일,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의 절대적인 권위와 그이에 대한 전당과 전체 인민의 끝없는 신뢰에 의하여 실현된 위대한 통일이며 수령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하나의 사

상, 하나의 로선과 정책으로 관통되고있는 진실로 가장 공고한 통일이며 준엄한 투쟁과 력사의 시련속에서 강화발전된 필승불패의 통일이다.

이것은 조선공산주의운동이 이룩한 그 무엇과도 비길수 없는 가장 귀중한 전취물이며 지난날도,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당 제5차대회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력사적승리를 빛나게 시위한 위대한 승리의 대회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대회 폐회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 제5차대회는 우리 당과 우리 나라의 력사에서 공업화의 위대한 승리의 대회,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의 대회로 불리울수 있을것입니다.》

당대회는 주체사상이 오늘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되였다는것을 일치하게 확인하였으며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되여있다는것을 긍지스럽게 지적하였다.

당대회는 민족자주의식을 좀먹던 사대주의, 교조주의의 구속으로부터의 우리 인민의 완전한 사상해방을 실현하고 세기적으로 물려받은 경제, 기술, 문화적 락후성을 청산하고 이 땅우에 발전된 사회주의공업국가를 일떠세운 위대한 승리와 력사적전변을 세상에 자랑높이 선포하였다.

오늘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시대,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승리하는 력사적시대에 사는 영광스러운 인민이며 발전된 강력한 자립적 민족경제와 찬란한 사회주의적 민족문화와 철벽의 자위력을 가진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수 없는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이며 세계선진국가들과 어깨겨누며 당당히 나아가는 슬기로운 자주적인 인민이다.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 이것은 우리 인민의 유구한 력사에서와 근 반세기의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력사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광스러운 사변이다.

당 제5차대회는 또한 전당과 전체 인민앞에 새로운 휘황한 전망과 장엄한 투쟁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우리 당과 우리 혁명발전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은 의의깊은 대회이다.

당과 인민 앞에 더욱 발전되고 부강한 사회주의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었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명확한 진로를 밝혀준 당대회는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새로운 력사적리정표로 된다.

또한 당대회는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더욱 강화하며 아세아와 세계의 전반적지역에서 반제반미혁명투쟁을 더욱 힘있게 추동하는 거대한 고무적사변으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지도밑에 승리적으로 결속된 당대회의 자랑찬 소식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을 무한히 격동시켰으며 새로운 위대한 전투와 영웅적위훈에로 힘차게 불러일으켰다.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경축 평양시 군중대회와 30만근로자들의 장엄한 시위가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전투적강령에 끝없이 고무되여 온나라가 혁명적정열과 새로운 투쟁결의로 들끓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11월 15일 김일성광장에서는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공업화의 위대한 승리의 대회,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의 대회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경축하는 평양시군중대회와 30만근로자들의 장엄한 시위가 있었다.

이날 혁명의 수도 평양시 근로자들은 전국의 근로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으로, 부강한 사회주의 새조국건설에서 또하나의 높은 령마루를 점령한 승리자의 드높은 긍지와 자부심으로, 수령께서 밝혀주신 새로운 승리의 한길을 따라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 불같은 결의로 가득찼었다.

력사의 광장, 김일성광장으로 통하는 드넓은 거리들과 그 주변 통로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 제4차대회와 당대표자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달성한 자랑찬 성과들과 그리고 수령께서 새로 펼쳐주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위대한 강령적과업들을 보여주는 도표들과 직관물들을 든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무장한 로농적위대원들과 붉은청년근위대원들의 전투적대렬들이 꽉들어 찼었다.

환영곡이 높이 울리는 가운데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고 령도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의 폭풍같은 환호성이 하늘땅을 뒤흔들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중들의 열렬한 환호에 손을 드시여 답례하시였다.

군중들은 계속 만세의 환호를 올리며 꽃묶음을 높이 들어 흔들면서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근 반세기동안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온갖 풍파를 몸소 헤치시면서 우리 혁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확고히 이끌어주고계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열렬히 환영하였으며 그이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이 옳은 길을 걷지 못하던 민족수난의 시기에 백전백승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조선혁명이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시고 몸소 15성상의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조국을 광복시키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룩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마련한 혁명전통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내외 원쑤들의 온갖 책동을 짓부시면서 우리 당을 어떤 풍파라도 뚫고나갈수 있는 전투적인 당으로, 전당이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수령의 두리에 철석같이 통일단결되고 인민대중과 혈연적련계를 맺고있는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혁명의 앞길을 밝히시면서 우리 당과 인민을 혁명과 건설에로 조직령도하시여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반석같이 다지시고 미제의 무력침공으로부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시였으며 우리 나라를 짧은 기간에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간부화되고 현대화된 일당백의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전인민적방위체계가 확고히 수립되고 온 나라가 요새화된 불패의 자위의 강국으로, 전체인민이 다 공부하고 주체과학과 사회주의적민족문화가 전면적으로 꽃피는 혁명적인 나라로 전변시키시였다.

광장은 우리 인민을 오직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의 한길로 확고히 령도하고계시는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와 열화같은 충성심으로, 그이를 수령으로 모시고 그이의 혁명전사로서 살며 투쟁하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위대한 수령께서 당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끝까지 빛나게 수행하려는 우리 인민의 불같은 혁명적정열과 새로운 투쟁결의로 세차게 끓어넘치였다.

군중대회는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였다.

군중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이며 내각제1부수상인 김일동지가 연설하였다.

연설이 끝나자 수백발의 축포가 올라 혁명의 수도 평양의 상공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뒤이어 30만 평양시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로농적위대원들과 붉은 청년근위대원들의 장엄한 시위가 있었다.

군중대회와 시위는 전체 당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전자이시고 령도자이시며 절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 위대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철통같이 통일단결된 우리 당과 인민의 불패의 위력과 우리 당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군중대회와 시위는 또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가진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떠한 불의의 침공도 능히 물리치고 조국의 안전과 사회주의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지켜낼수 있는 불패의 자위의 나라로, 모두가 공부하고 주체과학기술과 사회주의적민족문화가 활짝 꽃피는 혁명적인 나라로 전변된 우리 나라의 위용을 온 세상에 과시하였다.

군중대회와 시위는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맑스-레닌주의기치, 우리 당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하여 수령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강령을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려는 우리 인민의 굳은 결의와 혁명적기백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대회대표들과 함께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경축 집단체조 《로동당의 기치따라》를 보시였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보고에 접하여 온 나라가 감격과 환희로 들끓고 있으며 승리자의 드높은 긍지와

새로운 무쟁견의로 끓타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11월 8일 모란봉경기장에서는 당대회를 경축하는 집단체조 《로동당의 기치따라》가 진행되였다.

이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5차대회에 참가한 각도(직할시) 당 조직대표들과 함께 집단체조를 보시였다.

환영곡이 높이 울리는 가운데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고 령도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 배경대에는 《김일성동지께 영광을 드립니다》라는 글발이 새겨졌다. 집단체조참가자들과 전체 관람자들은 일제히 일어서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를 목청껏 부르며 꽃묶음을 높이 들어 흔들고 수백수천개의 고무풍선들을 하늘높이 날리면서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근 반세기동안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우리 인민을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의 한길로 확고히 령도하고계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열렬히 환영하였다.

이날 진행된 집단체조 《로동당의 기치따라》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에 대하여서와 그 터전우에 창건된 우리 당이 위대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통일단결된 내정백승의 혁명적당으로, 인민대중과 혈연적련계를 맺고 그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권위있는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된데 대하여 그리고 수령께서 당 제4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이 빛나게 실현됨으로써 우리 나라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으로,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위력한 전인민적방위체계를 가진 자위의 나라로, 전체 인민이 다 공부하고 과학과 문학예술이 전면적으로 꽃피는 혁명적이며 문명한 나라로 된데 대하여 감명깊이 보여주었다.

또한 집단체조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제5차대회에서 밝혀주신 위대한 강령적과업들을 대서사시적화폭속에 생동하게 펼쳐보이면서 당의 유일사상인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신을 부단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수령께서 당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고 근로자들과 녀성들을 힘든일과 가정적 부담에서 해방할데 대하여와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 남조선혁명을 촉진하고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앞당기며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전세계 혁명적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때려부시고 세계혁명의 승리를 촉진하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을 훌륭히 반영하였다.

집단체조 《로동당의 기치따라》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과 전체 인민의 철통같은 통일단결과 그 불패의 위력을 힘있게 보여주었다.

집단체조는 깊은 정치사상적내용과 높은 예술성,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으로하여 관람자들의 깊은 감명을 불러일으켰으며 절찬을 받았다.

집단체조가 끝나자 전체 집단체조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일제히 일어서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를 목청껏 부르며 꽃묶음을 높이 들어 흔들고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힘차게 합창하면서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중들의 열렬한 환호에 높이 손을 드시여 답례하시였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뜻깊은 집단체조를 본 각도(직할시)당조직대표들과 전체 관람자들은 당의 유일사상인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고 일편단심 그이께 충직하며 수령께서 당 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끝까지 빛나게 완수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앞당기려는 결의를 다시금 굳게 다지였다.

#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와 대회에서 혁명의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또다시 총비서로 추대되신데대하여 세계혁명적벗들로부터 열렬한 축하를 보내여 왔다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새롭게 전진시키는 획기적사변으로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기치와 더불어 세계 혁명운동력사에 길이 빛날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는 전당과 전체 조선인민뿐만아니라 세계의 형제당들과

국제적인민들의 열렬한 축하속에서 진행되였다.

특히 당대회는 자신의 운명과 혁명의 장래 전도를 전적으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 의탁하고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조선로동당을 따라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끝세계 싸워나가려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철석 같은 의지와 신념을 담아 그이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로 추대하였다.

근반세기동안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폭풍우를 헤치시며 조선혁명을 항상 승리의 곧바른 한길로 인도하시였을 뿐아니라 심오하고도 독창적인 리론실천적활동을 통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 식민지 및 예속국가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계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총비서로 추대되신것은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과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그리고 전반적세계혁명의 발전을 위하여 가장 의의깊은 일이며 그이의 혁명전사된 우리 인민들과 함께 전세계 피압박인민들에게 있어서 무한한 영광이며 자랑이며 행복으로 되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와 대회에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또다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로 추대되시였다는 소식에 접한 형제적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 신생독립국가의 집권당들, 세계 여러 나라들의 혁명조직들과 국제민주단체들, 개별적 정치활동가들로부터 따뜻하고도 열렬한 축하전문과 축하편지들을 끝없이 보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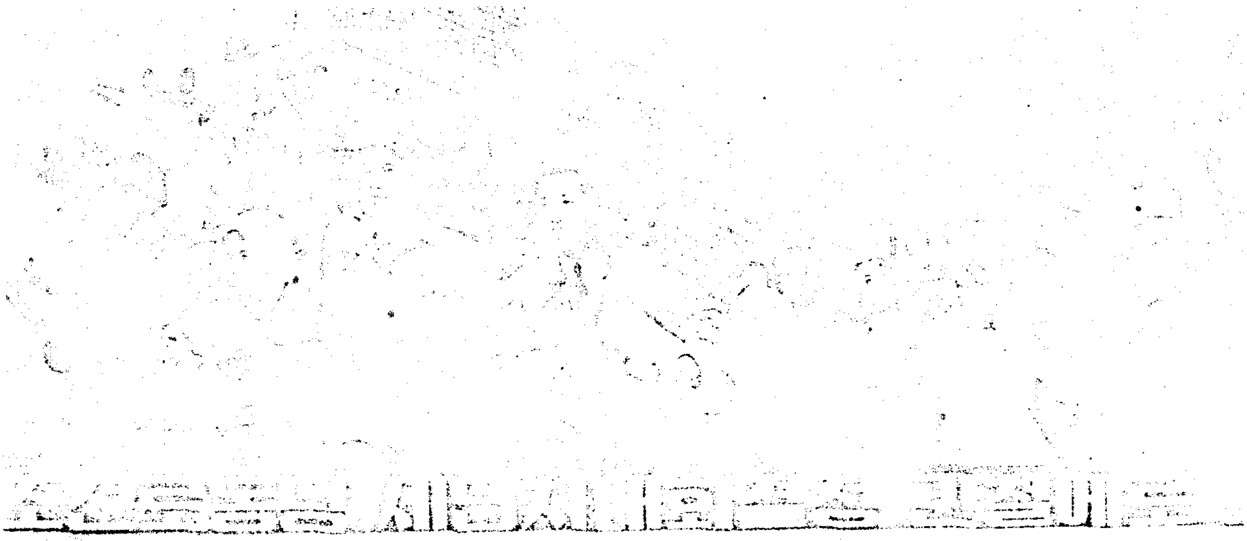
세계의 광범한 혁명적벗들은 당대회를 축하하여 보내온 축하전문과 축하 편지들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조직령도하시는 조선로동당, 일찌기 조선민족이 일제의 식민지망국노의 뼈저린 고통과 유린속에서 신음하던 이 땅우에 오늘처럼 세기를 주름잡아、나라를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키고 전세계인민들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락원을 창조하도록 우리 인민들의 투쟁을 조직령도한 조선혁명의 참모부인 조선로동당을 《불패의 혁명적인 당》, 《자주적인 당》, 《로숙하고 세련된 혁명적전위대》라고 높이 칭송하면서 그가 달성한 위대한 성과는 오직 경애하는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패의 주체사상의 위대한 생활력을 시위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가 조선혁명의 보다 찬란한 전망을 밝혀줌으로써 조선혁명을 보다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게 될뿐만아니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힘있는 지원》으로, 《세계민족해방운동에 새로운 리론실천적무기를 안겨주》게 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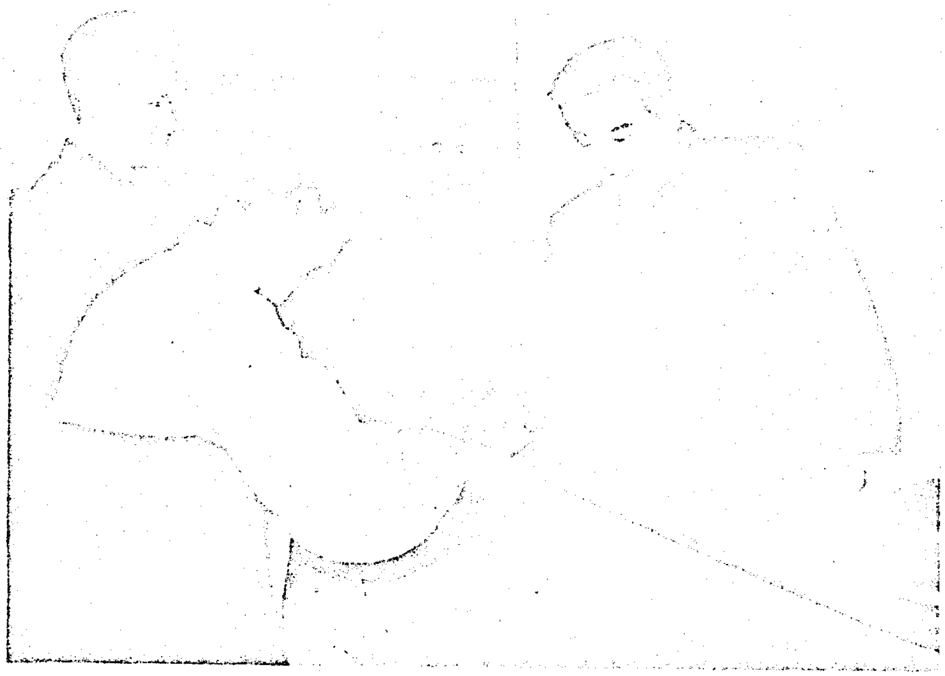
전세계혁명적인민들과 벗들은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로 추대되신데 대하여 《가장 열렬한 축하》, 《충심으로부터의 축하》를 보내오면서 그이를 세계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빛나는 혁명의 태양으로 우러러 칭송하고 있다.

그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또다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로 추대되신것이 조선인민의 《전적인 신뢰》와 《흠모의 표시》라고 하고 이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중요한 단계를 열어놓은 획기적인 사변》, 세계혁명운동발전에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은 《또하나의 력사적사변》으로서 《세계혁명가들에게 새로운 신심을 안겨주며》,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심대한 타격으로 된다》고 하면서 그이께서 세계 싸우는 나라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계속 령도해 주시기를 열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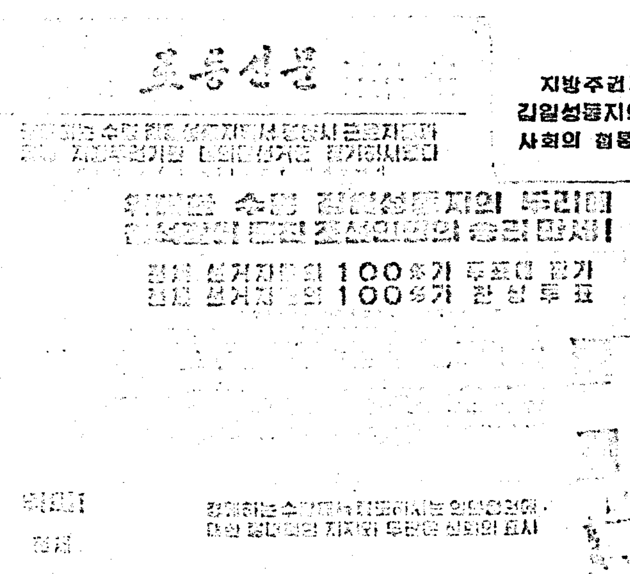
또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민족해방투쟁투사들과 각국 사회단체 책임자들, 친선단체지도자들, 정치인, 문화인, 청년학생들은 근반세기동안의 리론실천적혁명활동을 통하여 조선혁명뿐만아니라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 식민지 및 예속국가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한 존경과 흠모의 정을 담아 그이를 《혁명의 위대한 밝은 태양》, 《영생불멸의 지도자》, 《동방의 반파쑈영웅》, 《3대륙인민들의 희망의 등대》, 《절세의 애국자이며 위대한 령도자》이라고 높이 칭송하면서 《청사에 영원히 빛날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각하 만세!》, 《세계혁명의 지도사상인 김일성수상각하의 위대한 주체사상 만세!》, 《김일성수상 각하의 령도를 받는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 만세!》를 소리 높이 웨쳤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결정 관철에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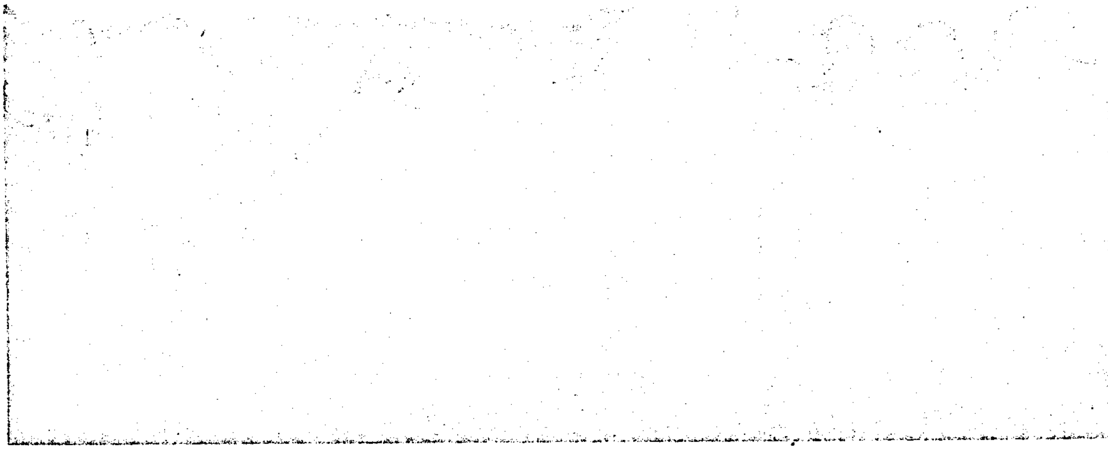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시근로자들과 함께 지방주권기관대의원선거에 참가하여 투표하시였다


로동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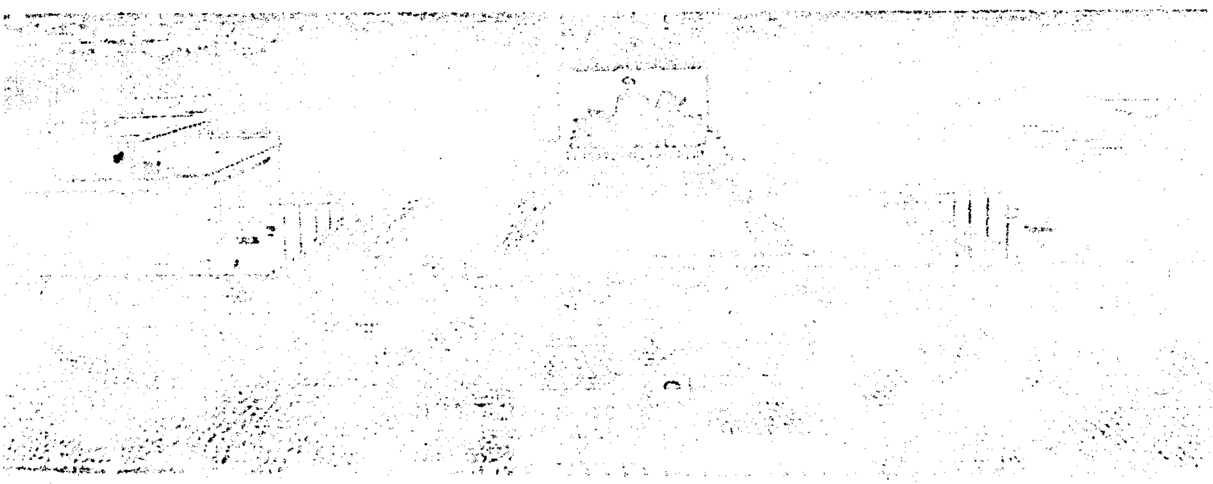
지방주권기관대의원선거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전사회의 철통같은 정치사상적통일을 시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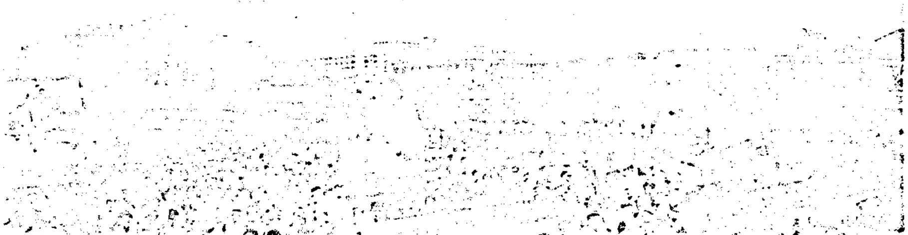


지방주권기관대의원선거에 참가한 무한한 감격과 기쁨을 안고 춤과 노래로 흥성대는 선거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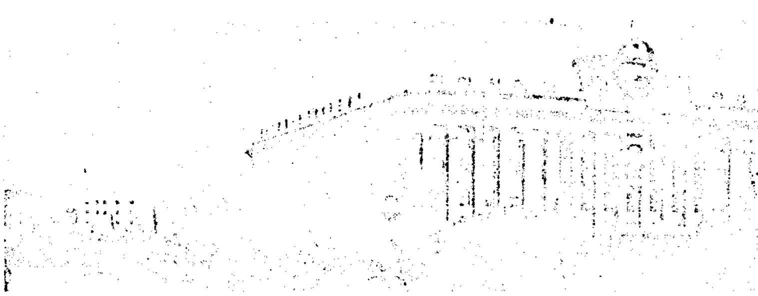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을 맞는 조선인민군구분대를 찾으시여 군인들의 열렬한 환호에 답례를 보내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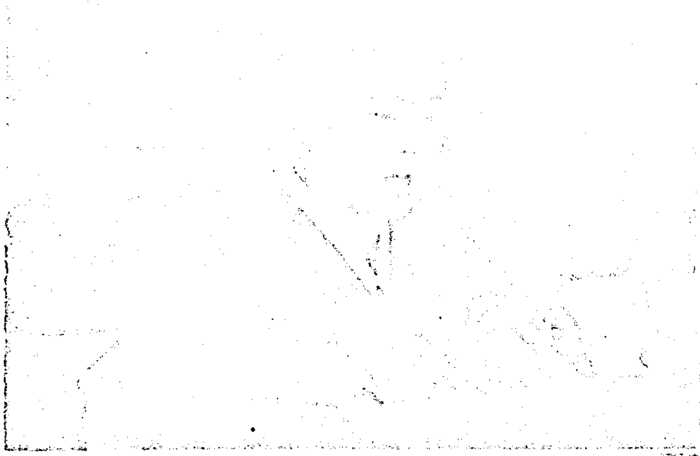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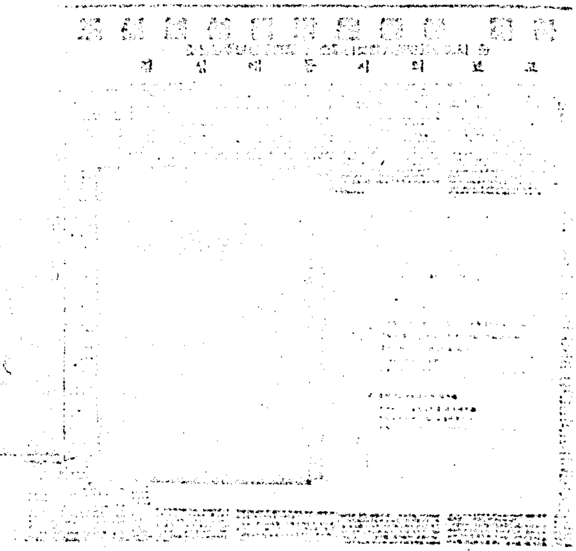


《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군중대회—《미제침략자들은 당장 물러가라!》, 《세계 도처에서 미제의 각을 떠내자!》라는 구호를 웨치며 물밀듯이 나아가는 시위군중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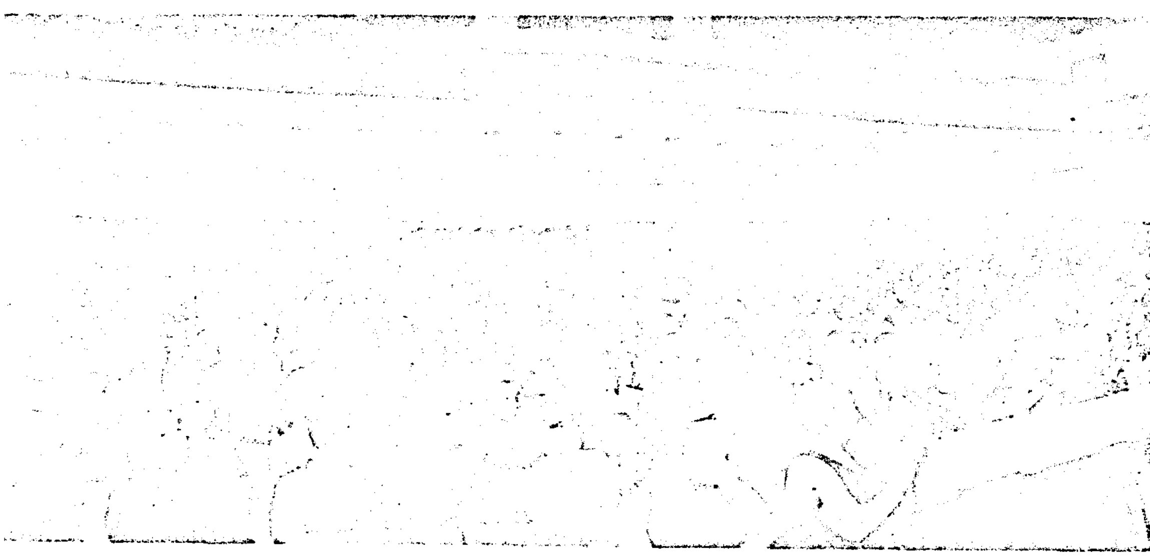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제5차대회를 경축하여 마련한 《직맹호》 땅크를 비롯한 중무기를 조선인민군부대에 드리는 평양시직맹원들의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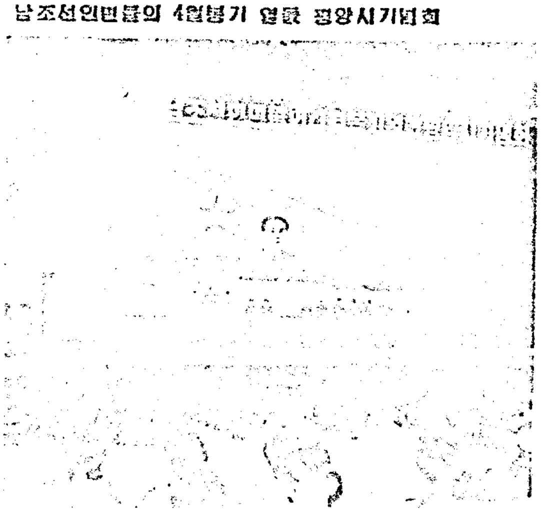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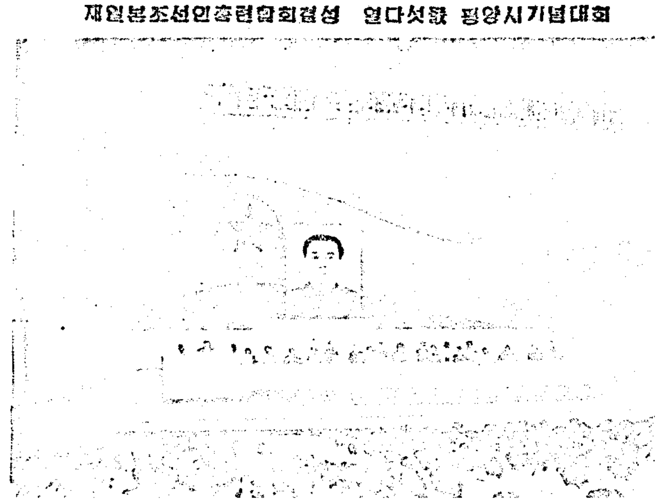
김성애동지께서 조선민주녀성동맹창립 스물다섯돐기념 보고회에서 조선녀성해방운동에 대하여 보고하시였다



3.8 국제부
예순돐기념
보고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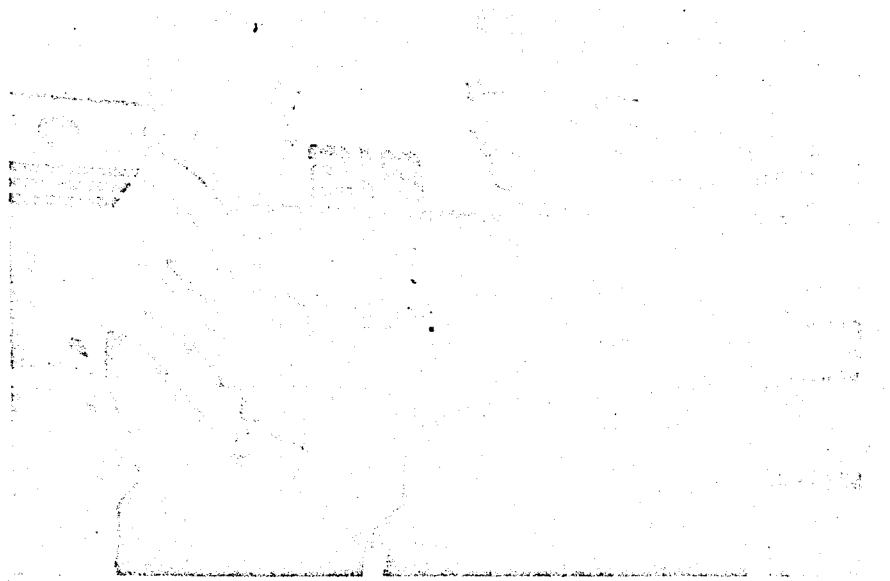


미제의 오랜 앞잡이인 리승만괴뢰정부를 무너뜨린 남조선인민들의 4월봉기 열돐 평양시기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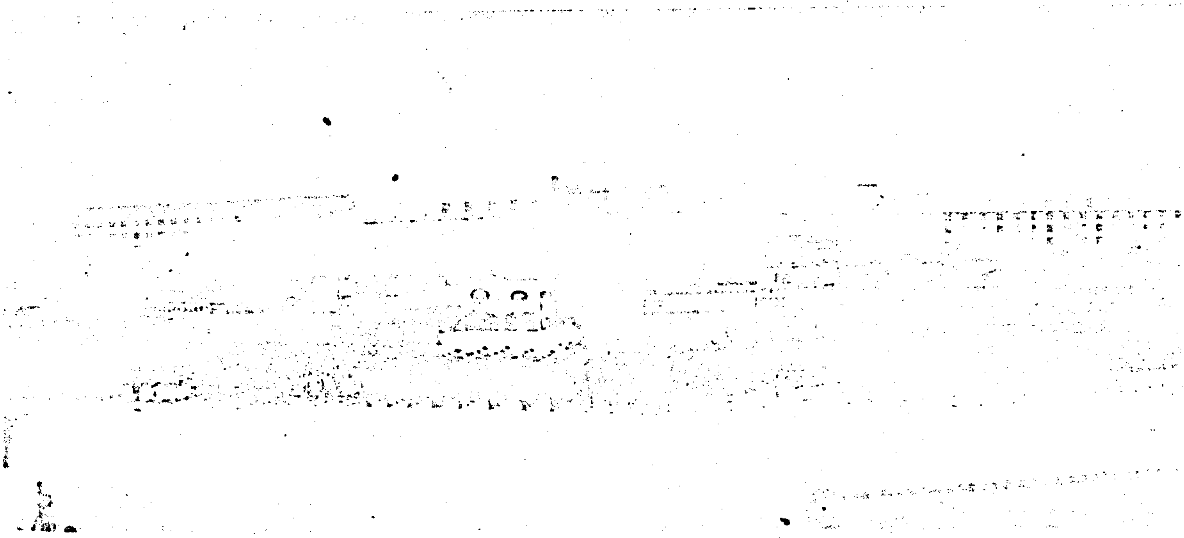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 열다섯돐 평양시기념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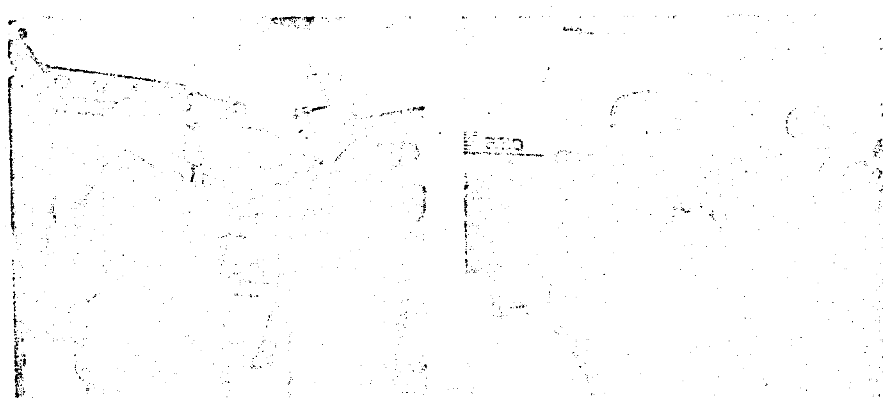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총리 주은래동지와 뜨거운 악수를 나누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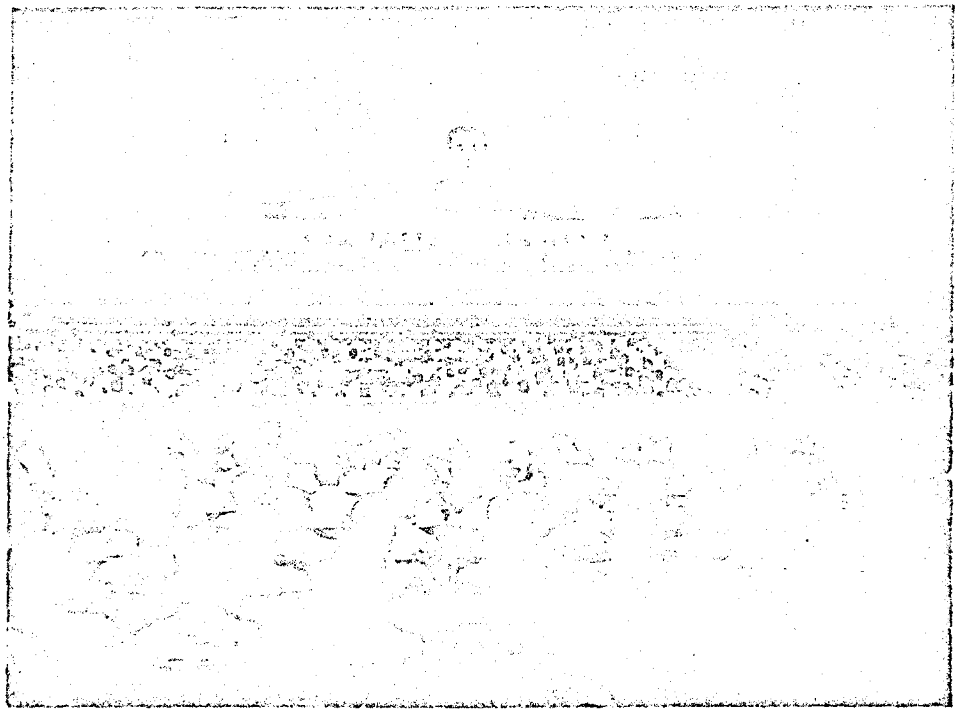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스무돐기념 사리원시군중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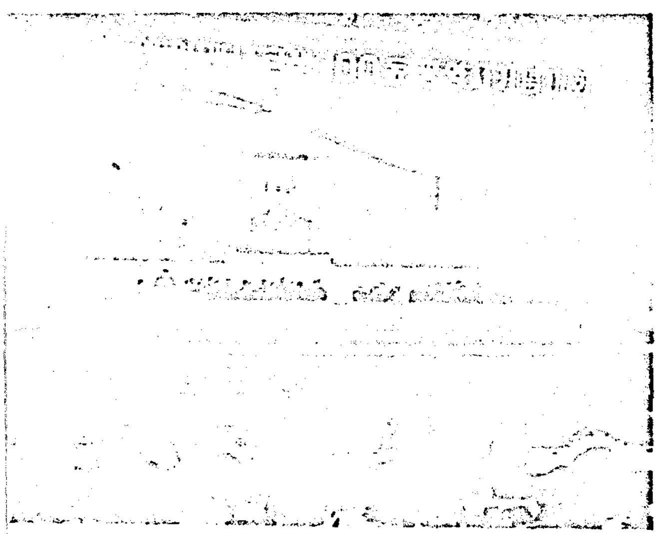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스무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중국인민친선대표단을 혈육처럼 뜨겁게 맞이하였다





8.15해방 스물다섯

양시경축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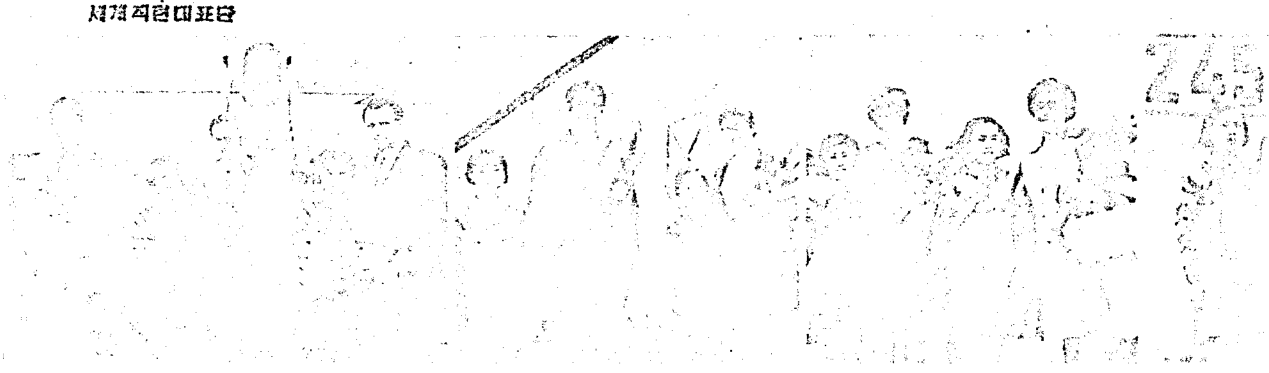


위. 이. 레닌 탄생 100돐 평양시기념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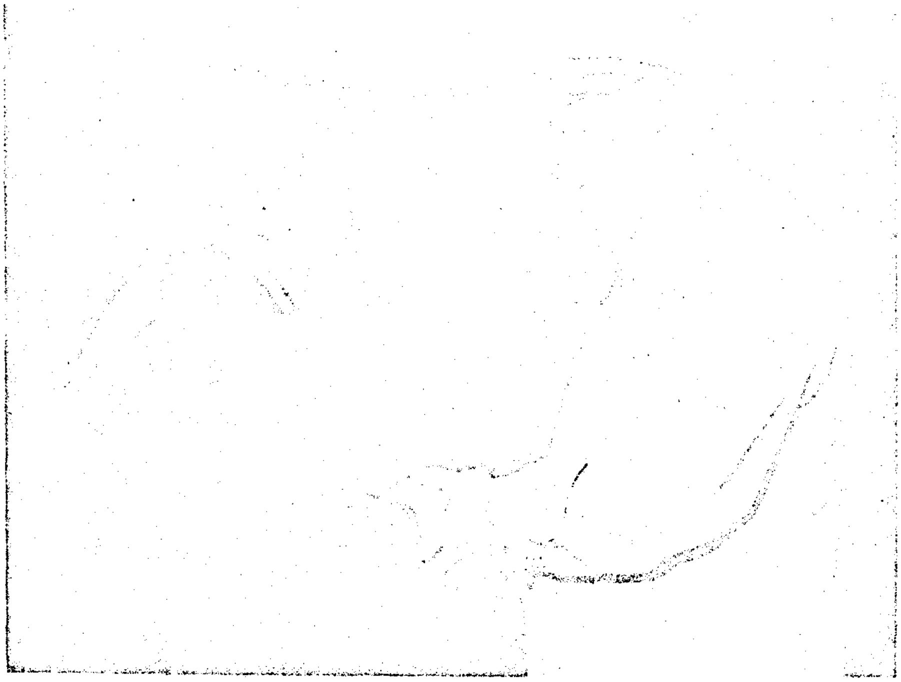


8.15해방 스물다섯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라를 방문하는 쏘련당및정부대표단을 열렬히 맞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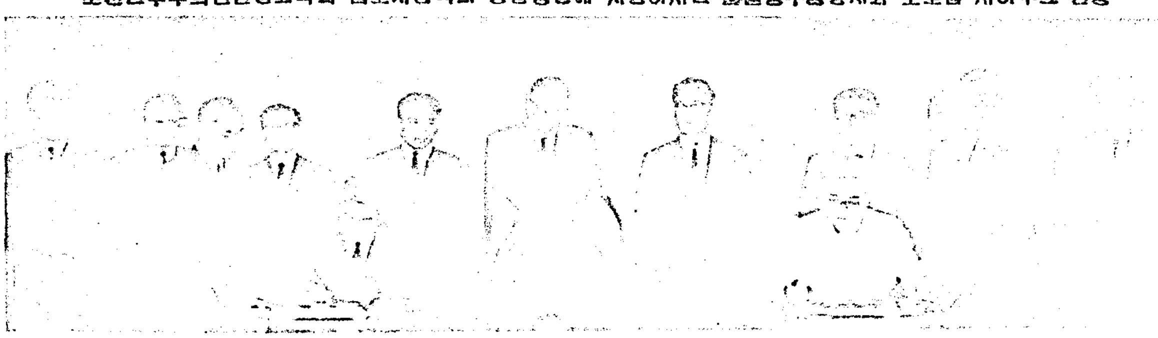
우리 나라를 방문한 국제민주단체대표단들—(왼쪽으로부터) 국제학생동맹대표단, 세계민주청년련맹대표단, 국제녀맹
세계직련대표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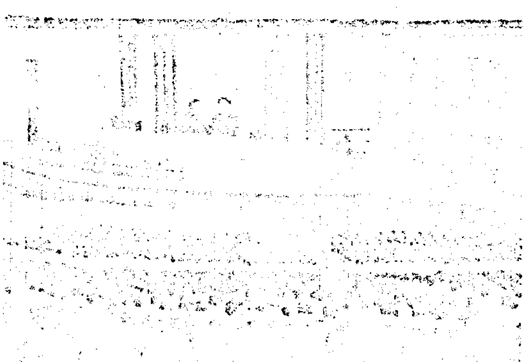
김일성수상께서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기 위해 도착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굳은 악수를 나누시고 뜨겁게 포옹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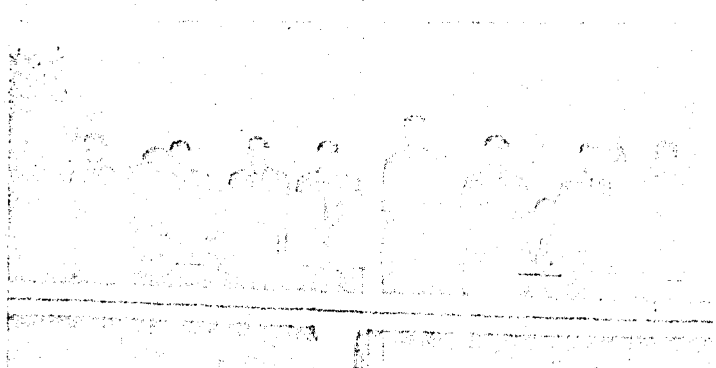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캄보쟈왕국의 공동성명에 서명하시는 김일성수상동지와 노로돔 시하누크 친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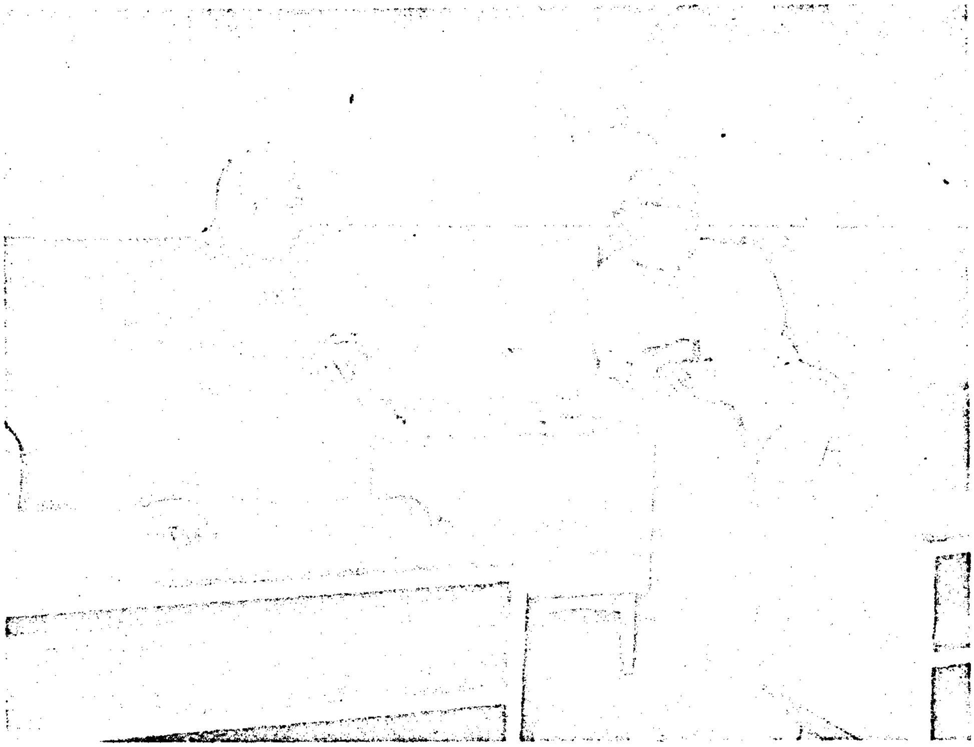


바인민의 무장봉기 열일곱돐에 즈음한 《꾸바인민과
련대성월간》개막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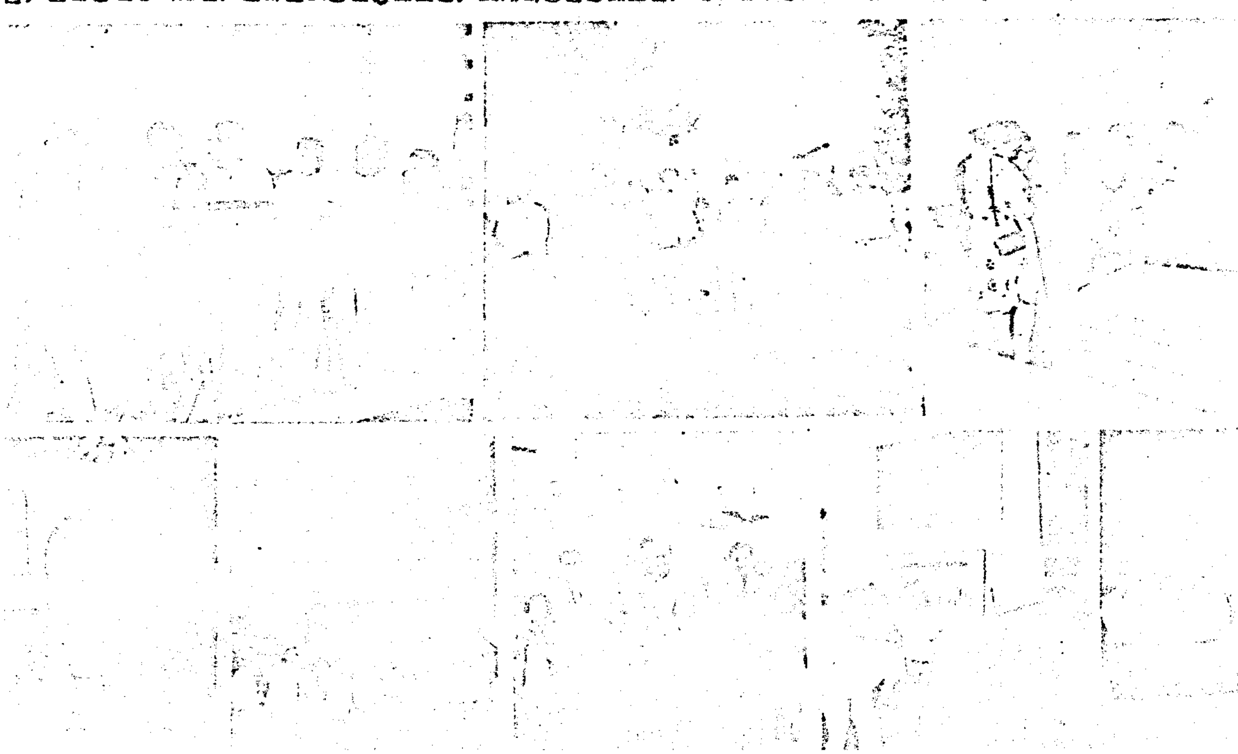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월남민주공화국에 경제 및 군사원조를 무상으로 제공할데 대한 협정조인





김일성수상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한 자파르 모하메드 니메리위원장과 친선적인 담화를 하시였다

우리 나라를 방문한 각국 당대표단들—(왼쪽으로부터) 인도공산당(맑스-레닌주의) 대표단, 일본사회당대표단, 미국공산당대표단, 칠레공산당대표단, 단마르크공산당대표단, 오지리공산당대표단, 스위스로동당대표단, 희랍공산당대표단



# 정 치

## 혁명의 위대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빛나는 승리와 력사적사변들로 가득찬 1970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1970년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력사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전진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사변들로 가득찬 한해였으며 우리 조국의 력사에 찬란히 아로새겨질 위대한 투쟁과 승리의 한해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1년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1970년은 우리 당과 우리 혁명발전에서 매우 뜻깊은 해였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빛나는 성과가 이룩된 위대한 승리의 한해였습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1970년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전진 운동에서 위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사변들로 가득찼으며 우리 당을 강화발전시키고 우리 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운 찬연히 빛날 한해였다.

특히 이 해에 있은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는 우리 당과 혁명의 발전에서와 우리 인민의 정치생활에서 거대한 력사적사변이였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전당과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대회사업에 대한 그들의 커다란 관심속에서 그리고 국제적벗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속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당 대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우리 시대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문헌으로, 우리 혁명과 국제혁명위업의 새로운 승리를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혁명강령으로 일치하게 접수하고 전폭적으로 열렬히 지지찬동하였으며 전당과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심정을 반영하여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총비서로 추대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다시금 당중앙위원회 총비서로 모시게 된것은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조국의 무궁한 륭성번영을 위하여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며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렇기때문에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이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순간부터 끓어넘치는 환희와 기쁨과 더없는 민족적긍지에 휩싸여있으며 일편단심 그이를 모시고 살며 싸워나갈 충성의 열정으로 불타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대회에서 하신 보고에서 안팎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을 통하여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당대렬의 확고부동한 통일단결을 이룩하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이룩한 위대한 성과와 업적을 긍지 높이 총화하시였으며 우리 나라가 자립적이며 힘있는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였다는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수령께서는 또한 보고에서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길을 밝혀주시였으며 아세아와 온 세계에서 반제반미투쟁을 더욱 강화하며 전반적국제혁명위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명확한 진로를 명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보고는 우리 시대와 우리 혁명발전이 새롭게 제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제반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이며 과학적인 해답을 준 수령의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이 정연하게 체계화되고 집대성된 백과전서적인 불후의 고전적문헌이다.

조선로동당 제 5차대회는 실로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의 위대한 통일단결의 대회, 공업화의 위대한 승리의 대회로,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의 대회로서 우리 당과 우리 나라 력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질 력사적인 대회이다.

당대회를 통하여 조선혁명의 세련된 참모부인 우리 당의 전투력은 더욱 강화되고 인민대중속에서 당의 권위와 신임은 비할바없이 높아졌으며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은 더욱더 불패의것으로 되였다.

또한 이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조치에 의하여 지방당조직들이 더한층 튼튼히 꾸려지고 그의 전투력과 지도적역할이 한층 더 제고되였을뿐만아니라 당의 외곽조직인 근로단체들도 기능과 역할이 더욱 강화되였다.

더우기 당은 이 해 계급투쟁의 무기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인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새로운 혁명임무의 요구에 맞게 더한층 개선강화하기 위하여 그의 하부기관인 지방주권기관 대의원선거를 실시하였다.

지방주권기관 대의원선거에서 빛나는 승리는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석같이 뭉친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과 전사회의 위대한 정치사상적통일을 또다시 내외에 뚜렷이 시위하였으며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우리 인민정권기관의 위대한 생활력을 다시 한번 똑똑히 보여주었다.

지방주권기관 대의원선거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지방주권기관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계급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새로운 혁명임무에 맞게 그 기능과 역할을 개선할수 있게 되였으며 인민정권과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가 더욱 두터워지고 수령의 교시와 당의 정책이 인민대중속에 신속 정확히 침투되여 철저히 관철되게 되였다.

이 해 우리 당과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더한층 강화하였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전면적인 새로운 앙양을 이룩하였다.

1970년에 우리 당이 이룩한 무엇보다도 귀중한 성과는 우리의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린 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맑스-레닌주의사상, 우리 당의 혁명사상이 꽉 들어찼으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르는 확고한 신념으로 무장되고 당정책을 자로 하여 모든 문제를 재보고 그와 어긋나는 현상과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투쟁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09~110페지)

우리 당은 이 해 전당과 전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모든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깊이있게 정력적으로 조직전개하였다.

전당이 학습하며 간부들을 교양할데 대한 수령의 교시에 따라 혁명적학습기풍이 철저히 서게 되고 당사상교양사업이 강력히 전개되였다.

당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 그리고 수령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정력적으로 전개하였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혁명의 교과서인 《김일성저작선집》을 비롯한 수령의 교시와 로작들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학습하였으며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을 위한 사상교양사업의 거점인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들을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 더 잘 꾸리고 수령의 초기혁명활동으로부터 근 반세기에 걸치는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숭고한 공산주의적덕성을 깊이 학습하였다.

우리 당은 이와 같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교양하는 것과 함께 부르죠아사상의 침습을 막아내며 그들속에 남아있는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뽑기 위한 사상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사상혁명을 앞세우고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에 따라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서, 우리 인민의 정치도덕적풍모에서 그리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전변이 일어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통일단결이 실현되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의 교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확립되였다.

위대한 수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당과 전체 인민이 하나로 굳게 뭉친 철통같은 통일단결, 바로 이것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 이룩한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가장 위대한 승리이며 바로 여기에 혁명과 건설에서 기적을 창조하는 원천이 있으며 앞으로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가 있다.

사상혁명을 앞세워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비상히 높였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7개년계획의 마지막고지에 당대회전으로 승리의 기발을 꽂기 위한 총돌격전이 힘차게 전개되였으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와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가 창조되여 세인을 경탄케 하는 일대 혁명적고조가 일어났다.

특히 이 해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의 불을 지펴주신 어버이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친히 전국지방산업일군대회와 전국가금업부문일군대회를 비롯한 인민경제 각 부문의 열성자회의들을 마련하여 주시고 대회들을 친히 지도하여주시였다. 이 대회들에서 주신 강령적교시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을 새로운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였다.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우리의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수령의 강령적 교시를 높이 받들고 하늘을 찌를듯한 혁명적열의로 영웅적인 투쟁을 벌려 이르는 곳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면서 진군속도를 힘차게 다그쳤다.

그리하여 천리마강선제강소를 비롯하여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당 제5차대회전까지 7개년계획과 년간계획을 넘쳐완수하였으며 우리 나라 공업은 이 해 10월말 현재로 그 전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131%의 높은 장성속도로 뛰어오르는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전례없는 혁명적앙양속에서 수많은 현대적인 대규모공장들이 신설 또는 개건확장되였으며 불과 반년남짓한 기간에 당대회에 드리는 선물공장 500여개를 포함하여 1천 760여개의 지방산업공장이 새로 일떠섰다.

농촌경리분야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그이의 천재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휘황한 길을 따라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였으며 우리의 농업생산은 만풍년을 가져올수 있는 강력한 물질기술적토대우에 확고히 올라섰다.

이 해 대풍작을 이룩한 알곡을 비롯하여 고기와 알, 남새, 과실, 누에고치 등 농촌경리 모든 분야에서 생산이 계속 늘어났다.

이리하여 우리의 농촌은 알곡뿐만아니라 여러가지 농산물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킬수 있게 다각적으로 발전된 튼튼한 알곡 및 원료 생산기지로 전환되였다.

사회주의공업화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온 오늘 우리 나라에는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이 창설되고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현대기술의 토대우에 확고히 올라서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 경제는 더욱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자립경제로 되였다.

공업과 농촌경리의 빠른 발전과 함께 과학과 교육문화가 찬란히 개화발전되고 혁명의 수도 평양에 새로 웅장하게 일떠선 현대적인 《천리마거리》, 《서성거리》를 비롯하여 우리의 모든 도시와 농촌이 더욱 아름답게 건설되였으며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대폭적인 임금인상조치를 비롯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수령의 거듭되는 극진한 배려에 의하여 우리 인민들은 더욱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 전체 근로자들은 자기들에게 오늘의 보람찬 생활과 행복을 마련하여 주신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있으며 그이의 혁명전사된 영예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그이께서 이끄시는 승리의 한길을 따라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다.

전당과 전체인민은 또한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는 한편 미제 침략자들의 더욱 격화되는 새 전쟁 도

발책동에 대처하여 국방건설에 큰 힘을 돌려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철벽으로 다져놓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군사분야에 주신 교시들과 이 해 2월 8일 조선인민군 리종우동지소속구분대를 찾으시고 조선인민군창건 스물두돐을 맞는 군인들을 축하하시면서 주신 교시는 우리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현대적간부군대로 강화발전시킴에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

수령의 강령적교시를 심장으로 받든 우리 인민군군인들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자신들을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자위적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혁명대오는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혁명무력으로, 현대적인 간부군대로 강화발전되였다.

인민군장병들은 당의 유일사상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되여있으며 모든 군인들이 자기의 직무는 물론 한 등급이상 더 높은 군사적직무를 원만히 담당할수 있게 준비되였다. 또한 인민군대는 최신무기로 장비되였으며 그어떤 강대한 적도 능히 때려부실수 있는 강력한 방어수단과 공격수단들을 다 갖춘 현대적무력으로 자라났다.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장성강화된 우리 인민군대는 미제침략자들이 감행하는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무모한 도발책동을 걸음마다 단호히 분쇄하고 사회주의조국을 영예롭게 지켰다.

우리 인민군대는 최근년간에만도 조선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려는 계획적책동의 한고리로서 미제침략자들이 우리측 연해와 령공에 침입시켰던 1967년 1월《경호함 56호》, 1968년 1월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1969년 4월 대형간첩비행기 《이씨—121》, 1970년 6월 무장간첩선 《아이—2》에 대하여 매번 준엄한 징벌을 가하였으며 조선인민의 본때를 보여주었다.

우리 인민군대가 이룩한 빛나는 성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군사사상과 그이의 탁월하고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의 현명하고 탁월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는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이 더욱더 강화되고 인민들의 생활은 좋아지고있으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맞이할수 있는 준비가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있다.

이해 또한 남조선인민들도 수령께서 밝혀주신 승리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였다.

남조선에서 1970년은 미제침략자들과 그의 주구 박정희파쑈악당들의 새 전쟁도발책동과 인민들에 대한 야수적 탄압과 학살만행이 전례없이 우심해졌으나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원쑤들을 맞받아 과감히 진출하여 탄압도, 교수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와 해방과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영웅적인 투쟁을 벌려 놈들을 더욱 궁지에 몰아 넣고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였다.

남조선혁명가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백전백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자기들의 통일적인 맑스-레닌주의당, 통일혁명당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그의 지도적역할을 높임으로써 남조선혁명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힘있게 전진시켰다.

남조선 인민들은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충성심으로 가슴불태우면서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승리의 한길을 따라 반미구국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섰으며 이 행정에서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이 비상히 높아지고 단련되였다. 그리하여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점차 조직화되고 혁명의 주력군인 로동자, 농민속에 더욱 깊이 뿌리박으면서 힘차게 발전하고있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받들고 싸우는 오직 그 한길에서만이 자유와 해방을 전취할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총검의 숲을 이룬 원쑤들의 광란적인 폭압속에서도 불사조마냥 굴함없이 싸워왔으며 또 싸우고있는것이다.

남조선의 애국적인민들이 도처에서 혁명의 결정적시기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한고리로서 원쑤들의 무기고를 습격하거나 괴뢰군경을 까눕히고 무기를 탈취해내며 원쑤들의 전쟁정책과 파쑈적폭압책동을 반대하여 군용렬차를 뒤집어엎고 군용통신선들과 경비전화선들을 끊어치우는 대담한 투쟁을 벌리고있는것은 그의 뚜렷한 표현의 하나이다.

1970년의 남조선정세발전은 미제와 그 주구들이 발악하면 할수록 제놈들의 멸망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올뿐이며 남조선인민들은 반드시 원쑤들을 쓸어버릴 거세찬 혁명력량으로 자라나 혁명의 결정적시기를 맞이할것이며 혁명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야 말리라는것을 힘있게 보여주었다.

또한 이 해 60만 재일동포들은 총련의 지도하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공화국정부의 정책을 높이 받들고 그것을 견결히 옹호관철함으로써 자기앞에 나선 애국사업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총련은 간부들과 동포대중들 속에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력히 벌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기 대렬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굳건히 하였으며 총련조직을 더욱 믿음직하게 꾸렸다.

재일동포들은 총련의 지도하에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해진 원쑤들의 파괴압해책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당한 해외공민으로서의 민족적존엄과 민주주의적권리를 영예롭게 지키고 동포자녀들의 민족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켰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그를 앞당기기 위한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와 함께 총련은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일본인민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진보적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더욱 강화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제적위신과 영향력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한 이해 대외관계분야에서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의 높으신 국제적권위로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국제적지위가 비상히 제고되였으며 그 영향력이 비할바없이 확대강화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자주적이고 원칙적인 대외정책은 세계의 많은 형제당들과 나라들, 세계의 수많은 혁명조직들과 인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있으며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많은 혁명동지들과 벗들을 가지게 되였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95페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국제적지위가 높아지고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과의 전투적련대성이 비상히 강화된것은 전적으로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당의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대외정책의 결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와 절대적인 신뢰는 날로 더욱더 높아가고있다.

특히 이 해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 5차대회에서 전당의 일치한 의사와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반영하여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총비서로 다시금 추대하였다는 소식에 접한 형제나라 당의 당원들과 인민들, 세계의 수많은 동지들과 벗들은 무한한 감격과 기쁨에 휩싸여 그이께 충심으로부터 가장 열렬한 축하를 보내왔다. 그리고 그이께서 하신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보고를 세계의 수많은 나라 출판물들과 방송이 광범히 소개선전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세계 수많은 나라 당 및 국가지도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자기들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는 지도적지침》이라고하면서 그이의 천재적로작들을 손가까이 두고 깊이 연구하고 있다.

지금 많은 나라의 진보적단체들과 출판사들에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기와 혁명활동략력, 그이의 불후의 로작들을 세계 각국어로 번역출판하고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들에 《김일성동지로작번역위원회》, 《김일성동지로작출판위원회》가 나오고 있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 《김일성동지로작연구위원회》 등 여러가지 조직들을 내오고 있으며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 《김일성도서관》등을 정중하게 꾸리고 활발히 운영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리론으로 하여 그리고 그이의 높으신 권위와 위신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가 강화되고 우리 혁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이 더욱 강화되였다.

이 해에 우리 나라는 쌔일론, 말디브제도공화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칠레와 무역관계를 맺었으며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들과의 국가관계와 무역 및 문화적련계가 전면적으로 더욱 활발해졌다.

그리하여 조선인민의 불멸의 기상을 상징하는 공화국기발은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하늘높이 휘날리고있다.

오늘 세계에는 어디를 가나 우리를 적극 지지하며 동정하는 혁명동지들과 벗들이 있으며 우리를 지지하는 목소리는 날과 더불어 더욱 세차게 메아리치고있다.

이것은 바로 이 해 진행된 우리 당 제5차대회에 대한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의 그처럼 깊은 관심과 심장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열렬한 축하를 통하여 보여준 바와 같이 우리의 혁명동지들과 벗들이 얼마나 많고 또 우리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높은가 하는것을 잘 말하여준다.

또한 《미제반대투쟁의 날》과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 월간》행사는 이 해 특히 세계적범위에서 광범히 진행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미제반대투쟁의 날》행사에는 중국, 윁남, 라오스, 캄보쟈를 비롯한 많은 나라 대표들이 와서 참가하였으며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 행사는 사회주의나라들은 물론 아세아, 아프리카 신생독립국가들과 싸우는 라틴아메리카인민들, 일본, 스웨리예, 핀란드, 단마르크 등 아세아와 구라파의 자본주의나라들과 지어 미국에서까지 광범하게 진행되였으며 이 행사들에서는 미제를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굳은 련대성을 보내주었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들고 반제투쟁의 선두대렬에 확고히 서 나가고있으며 그이께서 제시하신 반제반미투쟁의 전략적방침은 세계 수억만 혁명하는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고 그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높이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으로부터 중국, 윁남, 라오스 그리고 인민적이며 반제적인 캄보쟈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걸친 반제반미공동전선은 어느때보다도 굳게 다져지고있다.

대외관계분야에서 이룩된 이 위대한 전변은 주체사상을 이 분야에 구현하시여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대외정책을 제시하시고 그의 관철에로 당과 정부와 인민을 정확하게 이끄시고 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세계혁명운동발전에 바치신 그이의 위대한 공헌에 의하여 이루어진 필연적결과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의 영생불멸의 혁명적기치이다.

그 어떠한 힘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당과 인민의 거세찬 전진운동을 가로막을수는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전진하는 우리 당과 인민앞에는 언제나 위대한 승리와 휘황한 미래가 약속되여있을뿐이다.

오늘 조선인민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한 위대한 력사적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4차회의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치여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전으로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한 총돌격전에 떨쳐나서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높이고 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4차회의가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일군들, 경제, 과학, 교육, 문화, 보건, 예술 부문일군들 그리고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리면서 경제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근로자들이 많이 참가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에 와있는 각국 외국대표들이 회의에 초대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69년 국가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과 1970년 국가예산에 대하여의 의안을 토의하였다.

회의 의안에 대한 보고와 회의 의안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회의 심의결과보고가 있은데 뒤이어 많은 대의원들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보고와 토론들에서는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전체 근로자들이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천리마의 기세, 일당백의 기세로 힘찬 로력투쟁을 벌린 결과 1969년 국가예산은 방대한 자금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고도 초과수입을 가지고 결산되였다고 하였다.

그들은 이 해 국가예산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대표자회보고와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 공화국창건 스무돐경축대회보고에서 제시된 방침을 관철하며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점령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였다는것을 일치하게 지적하였다.

토론자들은 1969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구현인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들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하면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달성된 모든 성과는 오직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정확한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우리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의 결과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 재정정책의 거대한 생활력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시위하는것이라고 하면서 수령께서 마련하여 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 재정과 국가예산이 얼마나 공고하고 인민적이며 우월한가를 뚜렷이 실증해준다고 하였다.

토론자들은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 매국도당의 식민지파쑈통치로 말미암아 남녘땅이 날을 따라 더욱 인간생지옥으로 전변되고있음을 지적하면서 미제와 박정희도당이 꾸며낸 남조선괴뢰정부의 재정예산의 반동성을 폭로하였다.

보고와 토론들에서는 1970년 국가예산은 우리 당이 제시한 전략적방침에 따라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다 같이 힘있게 다그쳐 7개년계획을 빛나게 완수하고 나라의 방위력을 더한층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을 재정적으로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정확히 편성되였다고 하면서 특히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전으로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한 총돌격전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혁명적대고조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들은 1970년 국가예산이 근로자들의 헌신적로력투쟁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집행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심의에 제출된 1970년 국가예산을 전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토론자들은 일치하게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를 견지하고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우리 당 제5차대회전으로 점령하며 1970년 국가예산을 성과있게 집행하는데서 결정적담보는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 그들의 정치사상적준비를 튼튼히 갖추는 것이라고 하면서 모든 근로자들을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되게 할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힘있게 벌리여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며 로동행정사업을 강화하고 재정관리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그 구현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미제침략자들의 날로 악랄하여지고있는 새 전쟁 도발책동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을 준렬히 폭로규탄하면서 혁명적경각성을 더욱 높이며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더욱 철저히 갖출것이라고 말하였다.

회의 전체 참가자들은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쳐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맞이하기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수령께서 가리키시는 승리의 한길을 따라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69년 국가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을 승인하는 결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70년 국가예산에 대한 법령을 전원찬성으로 채택하였다.

사흘동안에 걸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4차회의는 우리 혁명의 최고뇌수이시며 심장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충천한 기세로 의척같이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의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직성, 무궁무진한 힘과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 위대한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의 불패의 통일을 시위

## —지방주권기관 대의원선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인민정권의 하부기관인 지방정권기관들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기 위하여 1970년 1월 15일 정령으로 시(구역), 군, 리(읍, 로동자구, 동)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1970년 3월 10일에 진행할데 대하여 공포하였다.

우리 인민은 이 선거의 날을 우리 혁명의 전투적참모부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앞두고 충천한 기세로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으로 맞이하였다.

이 경사스러운 날을 맞이하여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우리에게 인민주권을 세워주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을 올바른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시여 오늘의 자유와 행복을 안겨주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경모의 정으로 가득찼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의 파쑈적폭압이 절정에 달하였던 시기에 오직 빼앗긴 조국을 다시 찾기 위하여, 인민의 혁명적정권을 세우시기 위하여 확고한 주체적립장에 서시여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시고 조선혁명에 대한 가장 정확한 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15성상에 걸치는 장기간의 간고한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고 전반적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마침내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광복의 위업을 이룩하시였다.

이 위대한 혁명투쟁행정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이루어졌으며 이 투쟁의 불길속에서 정권건설의 독창적인 길인 인민혁명정부로선이 력사상 처음으로 창시되고 장차 해방된 새 조선에 인민정권을 창건하기 위한 혁명적골간이 마련되였으며 인민정권건설을 위한 귀중한 경험이 축적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해방후 우리 인민은 바로 이와 같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제기한 맑스-레닌주의적인민정권로선과 고귀한 사업경험에 토대하여 항일무장투쟁과정에서 자라난 공산주의자들의 올바른 지도밑에 내외원쑤들과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인민정권을 세우며 민주주의적 새 조국을 건설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단행본, 7~8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조선혁명의 참모부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신데 뒤이어 우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의 기치인 인민정권을 창건하시고 그를 강화발전시키시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우시였다.

또한 그이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탁월하고 독창적인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집행자인 인민정권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시고 완성하시여 그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시였으며 인민대중을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시여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다.

위대하고 영명하신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구현으로 되는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어제날 뒤떨어진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를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와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 어떠한 원쑤도 일격에 쳐물리칠수 있는 위력한 자위적인 방위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자주적인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켰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는 온 세상사람들로부터 《주체의 조국》, 《천리마조선》, 《사회주의 모범의 나라》로 불리우고있다.

우리 인민들은 경애하는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당과 인민정권이 가져다 준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온갖 착취와 억압, 빈궁을 모르고 마음껏 일하고 무료로 공부하며 무상치료제를 비롯한 제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행복하게 살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들은 김일성동지와 같이 위대하신 분을 수령으로 모시고있는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민족의 크나큰 자랑으로 생각하면서 그이께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일편단심 그이께 무한히 충성을 다하며 수령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의 인민정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더없이 귀중히 여기며 열렬히 사랑하고있다.

## 높은 정치적열의속에서 지방주권기관 대의원후보자 추천사업과 상봉모임을 진행

전체 선거자들은 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주권의 주인된 자랑을 안고 우리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인 인민주권을 더욱 반석으로 다질 높은 정치적열의속에서 지방주권기관 대의원후보자 추천사업에 참가하였다.

시(구역), 군 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 추천은 정당, 사회단체들과 국가기관, 기업소 종업원회의, 협동농장 농장원회의, 협동조합 조합원회의 및 주민회의들에서 진행되였으며 리(읍, 로동자구, 동)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 추천사업은 리(읍, 로동자구, 동)선거자총회들에서 진행되였다.

시(구역), 군 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들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실하며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고 실지 사업과 투쟁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우수한 인민의 아들딸들인 당 및 국가기관 일군들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로력영웅들과 로력혁신자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의 진정한 대표들을 추천하였다.

리(읍, 로동자구, 동)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자총회들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직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인민대중으로부터 높은 신임을 받고있는 참된 일군들이 추천되였다.

이리하여 시(구역), 군 인민회의 및 리(읍, 로동자구, 동)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 추천 및 등록 사업을 성과적으로 끝마친 전국 각지 선거구들에서는 추천된 대의원후보자들과 선거자들의 상

념모임들이 진행되었다.

## 혁명의 위대한 수령께서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인민주권에 대한 전체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표시

전국의 선거자들은 무한한 감격과 흥분속에서 우리 인민의 력사에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로 아로새겨질 3월 10일 경사스러운 지방주권기관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였다.

전체 선거자들은 수령의 주위에 그 어느때보다도 철통같이 뭉친 우리 인민의 위대한 통일단결을 온세상에 떨칠 굳은 결의로 선거에 참가하였다.

이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도근로자들과 함께 평양시 중구역 제 74호분구선거장에서 투표하시였다.

인민주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는 이 뜻깊은 날,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의 직접적계승자인 불패의 조선로동당과 우리 나라에서 첫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를 창건하시고 우리 혁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확고히 령도하고계시는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몸가까이 모시고 선거를 하게된 평양시 중구역내 근로자들의 감격과 기쁨은 한없이 컸다.

선거장은 이른 아침부터 명절분위기에 휩싸였다. 시내 근로자들은 수령님을 모시고 인민주권을 반석같이 다지게될 기쁨을 안고 화려한 명절차림에 수기와 꽃묶음, 가지각색의 고무풍선을 들고 영광의 선거장으로 앞을 다투어 모여들었다.

즐겁게 노래하며 춤추는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는 지난날 나라를 빼앗기고 인민의 주권을 가지지 못하였던 탓으로 하여 갖은 민족적압박과 멸시, 가혹한 착취와 빈궁속에서 시달리던 자기들에게 잃었던 조국을 다시 찾아주시고 진정한 인민정권과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하여주시였으며 자주, 자립, 자위의 존엄있는 사회주의 강국의 떳떳한 공민으로서 보람찬 생활을 누릴수 있게 하여 주신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열화같은 충성심이 흘러넘치고 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선거장에 도착하시였다.

순간 선거장에서는 《김일성동지 만세!》의 환호가 힘차게 울려퍼지고 수백수천개의 고무풍선이 높이 날아올랐다. 군중들은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꽃묶음을 높이 들어 흔들면서 어버이 수령님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중들의 열렬한 환호에 손을 들어 답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분구선거위원회 위원장에게서 선거표를 받으시여 투표를 하시였다.

뒤이어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동지들 그리고 근로자들이 투표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중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시면서 선거장을 떠나시였다.

이날 어버이수령을 몸가까이 모시고 그이에 대한 끝없는 경모와 충성의 마음으로 선거에 참가한 이곳 선거자들은 나라의 번영과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수령께서 만수무강하실것을 삼가 축원하면서 그이께 영원히 충직할 새로운 결의를 가다듬었다.

이것은 비단 평양시 중구역 제74호 분구 선거자들의 심정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 모든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이였다.

이날 혁명의 수도 평양시근로자들, 각지의 용해공들과 강철전사들, 붉은 기계전사들 그리고 지하막장에서 일하는 탄부들과 광부들, 백두, 개마 고원의 벌목공들, 바다의 어로공들과 협동벌의 농민들을 비롯한 나라의 모든 선거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긍지를 안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이의 초상화를 우러러 보며 그이께 충성다할 일념으로 찬성의 한표한표를 바치였다.

그리하여 선거는 공화국북반부의 전지역에서 전체 선거자들의 비상히 높은 정치적열성과 혁명적앙양속에서 위대한 승리로 끝났다.

## 위대한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사회의 철통같은 정치사상적 통일을 시위

전체 인민들이 지방주권기관 대의원선거에 비상히 높은 정치적열의로 한결같이 참가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력사에 찬연히 빛날 또 하나의 승리를 기록하였다.

전국의 시(구역), 군, 리(읍, 로동자구, 동)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 외국에 려행하고있는 선거자들을 제외하고 선거자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들의 100%가 선거에 참가하였으며 선거자들의 100%가 시(구역), 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각 선거구와 리(읍 로동자구, 동)선거위원회에 등록된 시(구역), 군, 리(읍, 로동자구, 동)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들에게 각각 찬성투표를 하였다.

이것은 일찌기 혁명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근반세기동안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온갖 풍파를 몸소 헤치시여 우리 혁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확고히 이끌어주고계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끝없는 신뢰와 충성심의 표현이다.

그리하여 시(구역), 군 인민회의 대의원 24,022명(그중 녀자 6,401명), 리(읍, 로동자구, 동)인민회의 대의원 87,063명(그중 녀자 29,740명)이 전체 선거자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밑에 각각 선거되였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 찬연히 빛날 또하나의 획기적사변이다.

지방주권기관 대의원선거에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석같이 뭉친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과 전사회의 위대한 정치사상적통일을 또다시 내외에 뚜렷이 시위하였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과 우리 인민정권의 위대한 생활력을 다시한번 똑똑히 보여주었다.

지방주권기관 대의원선거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경애하는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투사들이 피로써 쟁취하였으며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우리 인민이 목숨바쳐 지켜낸 계급투쟁의 무기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인 인민정권의 하부기관인 지방주권기관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계급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새로운 혁명임무의 요구에 맞게 그 기능과 역할을 더한층 개선할수 있게 하였다.

지방주권기관이 혁명과 건설의 실천투쟁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우수한 일군들로 꾸려짐으로써 인민정권의 하부기관이 일층 강화되고 인민정권과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가 더욱 두터워지고 당의 로선과 정책이 인민대중속에 신속 정확히 침투되어 철저히 관철되게 되었다.

# 당과 수령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크나큰 배려를 돌리시였다

##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임금을 평균 31.5% 올렸다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온 나라가 전례없는 혁명적대고조로 들끓고 있는 가운데 공화국내각은 1970년 8월 31일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임금을 또다시 대폭 올릴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서 찬연히 빛날 당과 정부의 이번의 임금인상조치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근로자들에게 베풀어주시는 또하나의 한없이 뜨거운 배려와 육친적인 사랑의 표시로서 우리 인민들의 생활향상과 우리 혁명위업의 수행에서 [illegible]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7개년계획의 마지막고지를 바야흐로 점령하고있는 력사적시기에 그리고 인민들의 의식주문제가 이미 해결된 기초우에서 취해진 이번의 임금인상은 인민들의 생활을 전면적으로 한계단 더 높일데 대한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을 훌륭히 실현하는것으로서 각계층 근로자들의 생활을 넉넉하고 윤택하게 만들고 고르롭게 향상시키며 그것을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하게 높은 수준에 끌어올리는데서 획기적인 사변으로된다.

인민생활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수많은 시책들을 실시한데 뒤이어 취해진 이번의 새로운 임금인상조치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가장 으뜸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과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는 것이다.

내각결정 전문은 다음과 같다.

## 내각결정 제 70호 1970년 8월 31일

##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임금을 올릴데 대하여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는 력사적인 사회경제적변혁이 이룩되여 착취와 빈궁의 사회적근원이 없어지고 전체 인민이 다 같이 일하고 행복하게 사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졌다.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난 다음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7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하는 위력한 중공업기지와 현대적인 경공업기지가 믿음직하게 마련되였으며 사회주의농촌경리도 더욱 발전하였다.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나라의 생산력이 매우 빨리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훨씬 늘어났다.

이 모든것은 축적을 우선적으로 증대시키면서 소비를 계통적으로 늘일수 있는 튼튼한 밑천으로 된다.

최근년간 우리 당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날로 격화되는 새 전쟁 도발책동에 대처하여 국방건설에 많은 추가적인 국가투자를 돌리면서도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일련의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당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낮은 임금을 받는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보통교육부문 교원들의 임금이 훨씬 높아졌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로동에 의한 분배외에 추가적인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을 많이 받고있다. 국가보상에 의한 식량과 연료의 공급은 물론 날을 따라 더욱더 많은 근로자들에게 무료교육, 무상치료, 유급휴가의 혜택이 베풀어지고있으며 탁아소, 유치원 원아들과 모든 학생들에게 옷과 신발이 눅은 값으로 공급되였으며 대중소비품의 값이 대폭 낮아졌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이 국가로부터 추가적으로 받고있는 혜택은 그들이 받고있는 임금에 거의 맞먹는다.

특히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로동자, 사무원들의 수준에 접근시킬데 대한 당의 옳바른 방침에 따라 농민들의 실질수입이 빨리 높아졌다. 농업현물세제가 폐지됨으로써 우리 농민들은 로동당시대에 와서 처음으로 온갖 세금부담에서 해방되였다. 우리 농민들은 국가 투자에 의하여 기본생산시설들과 문화주택을 보장받고있으며 국가로부터 기계설비, 영농기재들을 무상으로 공급받고있다.

우리 인민은 당이 마련하여준 사회주의사회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으며 우리 인민을 남부럽지 않게 잘 살게 하려는 당의 극진한 배려는 이루다 헤아릴수 없다.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는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를 앞두고 7개년계획의 마지막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최후돌격전에서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로 모든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이겨내면서 질풍같이 내달리는 우리 나라 모든 근로자들의 영웅적기개와 로력적열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또다시 그들의 임금을 전반적으로 훨씬 높이기로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은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토의된 정신에 기초하여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임금을 올릴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1970년 9월 1일부터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임금을 평균 31.5% 올릴것이다. 낮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많이 올리고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적게 올리는 원칙에서 모든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월평균임금이

70원에 이르게 할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 개정된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 임금표, 각종 가급금표, 산업부문별 로동자 직종 및 기능 등급표를 승인한다.

2. 경공업부문과 농업, 상업을 비롯한 해당부문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임금이 높아지는데 따라 늘어나는 주민들의 구매력에 맞게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고 로동생산능률을 끊임없이 높여 천, 신발과 철제, 수지 및 목제일용품을 비롯한 일용필수품들과 고기, 남새, 닭알, 과일, 수산물과 같은 여러가지 식료품을 많이 생산공급하도록 할것이다.

3. 국가계획위원회, 로동성, 재정성을 비롯한 해당 기관들에서는 이 결정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당의 배려가 모든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돌려지도록 할것이다.

4. 모든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광범한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높은 혁명적 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발휘하여 우리 당 제5차대회 전으로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를 점령하고 계속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여 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은 모든 근로자들이 우리 당 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하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김 일 성

## 금속, 지질, 지방산업, 출판, 방송, 설계 부문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투쟁업적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새로 절과 영예의 칭호를 제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금속공업부문, 지질탐사부문, 지방산업부문, 출판보도부문, 방송부문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투쟁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의 업적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1970년도에 새로 금속로동자절, 지질탐사절, 지방산업절, 출판절, 방송절을 제정하는 정령을 발표하였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으로서 제강제철부문과 설계사업부문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용해공들과 설계일군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하기 위하여 공훈용해공칭호와 인민설계가, 공훈설계가 칭호를 제정하였다.

이것은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돌려주시는 높은 신임의 표시이며 또하나의 극진한 배려인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속로동자절;** 1970년 4월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금속공업부문일군들이 수령께 끝없는 충실성을 발휘하여 이룩한 빛나는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이 부문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영웅적인 투쟁업적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10월 9일을 해마다 금속로동자절로 제정하였다.

이날은 바로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에 개선하신후 처음으로 강선제강소 로동자들을 찾으시여 우리 나라 금속공업 발전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신 력사적인 날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질탐사절;** 1970년 2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질탐사부문일군들이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61년 5월 15일 지질탐사부문에 주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애국적헌신성과 로력적위훈을 발휘하여 많은 지하자원을 찾아냄으로써 나라의 경제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며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해마다 5월 15일을 지질탐사절로 제정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산업절;** 1970년 4월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방산업부문 일군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지방산업을 발전시키며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룩하고있을뿐만아니라 지방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그들의 업적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6월 7일을 해마다 지방산업절로 제정하였다.

이날은 바로 우리 나라 지방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며 인민소비품생산을 확대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를 열어놓으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교시가 있은 날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판절;** 1970년 12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시기에 발간하시고 지도하신 혁명적출판물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고있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로동신문》을 비롯한 혁명적출판보도물들이 논 역할에 대하여서와 이 부문일군들이 거둔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출판보도부문일군들과 인쇄부문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이 거둔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그들의 업적을 기념하며 수령의 붉은 문필전사, 붉은 인쇄전사로서의 영예를 영원히 빛내이도록 하기 위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로동신문을 창간하신 날인 11월 1일을 해마다 출판절로 제정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송절;** 1970년 10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혁명적선전선동활동의 빛나

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나라 방송이 조선로동당의 위력한 선전수단의 하나로서 전체 인민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부문일군들의 성과와 업적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방송부문일군들의 업적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조국개선연설로 우리 방송을 시작한 뜻깊은 날인 10월 14일을 방송절로 제정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용해공칭호를 제정;** 1969년 12월 3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교시와 조선로동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제강, 제철부문의 용해공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하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용해공칭호를 제정하였다.

규정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용해공칭호는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교시와 조선로동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용해공(전기로, 용광로, 평로, 전로, 립철로, 회선로, 합금철로와 5톤이상 능력의 주강로에서 일하는 용해공들과 해탄로에서 일하는 해탄공 및 조괴공)으로서 15년이상 이 부문에서 계속 일한 일군들에게 수여하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설계가, 공훈설계가 칭호를 제정;** 1970년 4월 2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설계사업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설계일군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설계가, 공훈설계가 칭호를 제정하였다.

규정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설계가칭호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고 설계사업에 오래동안 종사하면서 설계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정확히 반영하고 새 기술을 연구도입하여 실용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특출한 설계작품을 창작함으로써 나라의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후비를 많이 양성하여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훈설계가들에게 수여하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설계가칭호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고 설계사업에 오래동안 종사하면서 설계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정확히 반영하고 새 기술을 연구도입하여 우수한 설계작품을 창작함으로써 나라의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설계일군들에게 수여하게 되였다.

#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위대한 생활력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청산리와 강서군에 대한 지도를 하시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시하신 때로부터 10년이 지났다.

지난 10년간은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위력한 무기인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당 및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 더욱 전면적으로 일반화되고 심화되어온 빛나는 력사적로정이였으며 그 위력이 남김없이 발양된 승리의 로정이였다.

1960년 2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청산리와 강서군에 대한 현지지도와 거기에서 주신 강령적 교시,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의 창시는 우리 나라 혁명발전과 전반적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사변이였다.

당시 혁명과 건설에서 변천된 새로운 환경은 이에 맞게 당의 령도적역할과 전투력을 높이고 대중을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우며 그들을 혁명과업 수행에로 옳게 조직동원하는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업체계와 령도방법을 확립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었다.

과학적예지와 예리한 통찰력을 지니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성숙된 요구를 해결하시고저 몸소 우리 나라의 한 농촌인 청산리를 찾으시고 15일간이나 현지에 계시면서 현실을 깊이 료해분석하시고 군중과 진지하게 의논하시여 당 및 국가 지도,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들에 대하여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으며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시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산리와 강서군에 대한 력사적인 지도에서 일군들이 현지에 내려가 아래 일군들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방법, 대중을 설복하고 교양하여 그들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방법, 실태를 깊이 료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옳은 대책을 세우는 방법, 그리고 사업의 선후차를 가리고 중심고리에 힘을 집중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포치한 사업을 한 단위에 심화시켜 그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방법 등 당 및 국가 경제사업에 대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지도방법의 전형을 창조하시였다.

실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창시는 대중에 대한 령도와 일군들의 사업방법에서 혁명적전환을 이룩한 위대한 사변이며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다음 그에 맞는 당 및 국가 경제기관들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의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맑스-레닌주의적 혁명적령도방법의 전형으로서 혁명적군중로선을 확고한 초석으로 삼고있으며 그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조건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킨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혁명적본질을 과학적으로 천명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은 우리 당의 전통으로 되여있는 혁명적군중로선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킨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298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인민대중의 힘을 믿으시고 그에 의거하여 사업하시였으며 특히 간고하고 장기적인 항일무장투쟁을 령도하시면서 언제나 철저한 주체적립장과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하여 혁명사업을 힘있게 추진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력을 믿으시고 그들속에 들어가시여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항일유격대원들을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하는 정신으로 무장시켰으며 인민들과 혈연적련계를 맺고 인민들속에 깊이 뿌리박은 혁명군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그리하여 항일무장투쟁시기에 그이께서 이룩하신 혁명적군중로선의 빛나는 모범은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으로 되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반일민족해방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는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이처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는 첫 시기부터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시였으며 이 행정에서 공산주의적사업방법과 혁명적령도예술의 빛나는 전통을 이룩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해방후에도 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실 때마다 항상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과 고락을 같이 하시면서 나라일을 의논하시고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동원하여 난관을 타개하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바로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은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 깊고 억센 력사적뿌리를 두고있으며 오랜동안의 혁명과 건설투쟁의 실천적행정에서 검증되고 확증된 불패의 생활력을 가지고있는것이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지난 기간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장엄한 실천투쟁을 통하여 거대한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였으며 그것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온 누리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지난 10년간의 실천적경험은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당 및 국가 경제지도에서 근본적변혁을 가져왔으며 낡은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에 대한 혁명적 사업체계 및 사업방법의 전면적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한 가장 우월하고 독창적인 지도사상,지도방법이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창조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관철됨으로써 당 및 국가 경제지도의 모든 분야에서 관료주의, 형식주의, 주관주의 등 전진운동을 저해하던 온갖 낡은 사상, 낡은 사업체계와 사업방법, 사업작풍은 가셔지고 새로운 혁명적인 사업체계, 사업방법, 사업작풍이 전면적으로 확립되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산리방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오래동안 내려오면서 당사업발전을 가로막던 낡은 관료주의적사업작풍이 기본적으로 없어지고 모든 일군들이 혁명적 사업작풍과 사업방법을 가지게 되였으며 당안에서 민주주의가 전면적으로 발양되였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단행본, 115페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국가 경제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당위원회들이 최고지도기관이 되여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키잡이와 사람과의 사업이 더 한층 강화되였으며 모든 일군들이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체득하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떠밀고나가는 혁명적사업기풍을 확립하였다.

여기에서 특히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구현으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 경제관리체계의 확립은 바로 관료주의, 주관주의, 행정식방법 등 온갖 비당적 사업방법을 반대하는 우리 당의 투쟁의 력사적인 총화로, 승리로 되며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군중로선과 혁명적사업방법이 당 및 국가 경제활동의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구현되고 개화발전되게 한 일대 전환의 계기로 되였다.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일어난 전변은 무엇보다도 당 및 국가, 경제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행정식, 명령식 사업방법을 없애고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세움으로써 근로대중의 자각적열성과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철저히 전환시키기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모든 당조직들에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계를 세워놓았습니다.》(우와 같은 책, 114페지)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당적령도체계가 더욱 철저히 확립되고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이 높아졌으며 당사업이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됨으로써 당의 의도가 대중속에 거침없이 들어가고 당정책이 더 잘 관철되고있다.

당사업이 정치사업, 사람과의 산 창조적사업으로 전환됨으로써 어떤 혁명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나 먼저 대중속에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을 가르쳐주고 일깨워주며 대중의 정치적열의를 발동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는 당적, 정치적 방법이 확고히 서고있다.

모든 당조직들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하는데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어 한사람이 열사람을 움직이고 열사람이 백사람을 움직이며 백사람이 천사람을 움직이여 전당과 전체 인민을 움직이게 하는 혁명적인 사업방법을 확고히 견지하고있다.

그리하여 모든 당조직들에서는 일군들과 간부들과 핵심들을 잘 교양하여 그들이 당원들을 교양하고 도와주도록 하고있으며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여 광범한 군중을 교양하여 혁명과업 수행에로 고무추동하고있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사업과 생활을 개변하면서 사람들의 사상의식에서도 거대한 개변을 가져왔다.

그리고 혁명화의 위력한 방법인 청산리방법이 대중에게 접수됨으로써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이 대중자신에 의하여 전사회적으로 힘있게 추진되였으며 이에 따라 혁명적으로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는 공산주의적원칙이 온 사회에 더 훌륭히 구현되고있다.

다음으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된 거대한 전변은 낡은 사무실적사업방법을 마스고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혁명적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튼튼히 세운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은 또한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웃기관일군들이 직접 아래에 내려가 아래일군들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워놓았습니다.》(우와 같은 책, 115페지)

우가 아래에 내려가서 현지에서 책임지고 도와주는 사업체계의 확립은 사회주의하에서 군중로선에 기초한 하부지도의 새로운 위대한 발전을 열어놓는것으로서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반드시 제기되는 하부지도문제를 독창적으로 훌륭히 해결한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사업체계가 확고히 섬으로써 관료주의, 사무실적 작풍이 극복되고 우의 지도가 아래에, 대중이 살며 일하는 약동하는 현실속에 침투되고있다.

이와 같이 당과 국가 경제기관의 활동이 일층 강화됨으로써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고 가르쳐주는 사업체계가 확고히 서게 되였다.

그리하여 오늘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이 아래의 당원들과 군중속에 더 잘

리 더 깊이 침투되고있으며 상하가 단결되고 기맥이 잘 통하여 모든 사람, 모든 부문이 동지적으로 협조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집단주의적, 공산주의적 기풍이 높이 발양되여 모두가 수령의 교시 관철을 위하여 한결같이 떨쳐나서고있다.

경제관리에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구현한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되고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조직이 더욱 째여졌고 경제지도관리수준은 한계단 높이 올라갔으며 객관적인 경제법칙에 따라 경제는 계획적으로 빨리 발전해나갔다..

지난 년간 우리 나라에서 생산력이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해왔으며 7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이 빛나게 완수되고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훌륭히 실현되였으며 사회주의적민족문화가 개화발전되고 공산주의적사상과 도덕이 전반적으로 승리한 당 및 국가 경제사업의 모든분야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와 성과들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와 그이께서 창조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가져온 빛나는 결실이다.

실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관철됨으로써 당 및 국가 경제기관과 그 일군들의 사업에서 관료주의가 뿌리뽑혀지고 진정한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이 확립되였으며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가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것으로 되였으며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전변과 앙양이 이룩되였다.

오늘의 위대한 전변의 현실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야말로 사회생활의 혁명적개조를 위한 위력있는 무기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추동력이라는것을 힘있게 말하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나갈때 어떤 난관도 뚫고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혁신과 위대한 승리를 이룩해나갈수 있다는것은 투쟁과 생활을 통하여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된 확고부동한 신념이며 의지이다.

#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인 천리마작업반운동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창조하여 주신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우리 인민의 공산주의적인 대중적대진군운동이며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하며 집단적영웅주의와 집단적혁신에로 불러일으키는 공산주의적인 대중적대진군운동입니다.》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자》, 단행본, 1페지)

우리 나라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은 불과 10여년이란 기간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와 극진한 보살핌속에 혁명과 건설에서 세상사람들의 놀라움을 금치못하는 위대한 기적을 창조하면서 심화발전되여왔다.

우리 나라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이 시작될 때인 제1차 5개년계획실행에 들어서던 시기 우리의 경제형편은 아직 어려웠고 인민생활도 펴이지 못한데다가 자체의 자재와 자금도 모자랐다. 여기에 또한 온갖 기회주의자들과 사대주의, 교조주의에 물젖은 당내종파분자들은 내외부로부터 우리 당의 로선을 반대해나섰으며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와 그 주구들은 《북진》나발을 미친듯이 불어댔다.

이러한 정세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그 어려운 난국을 뚫고 경제를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며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칠것을 요구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당대렬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전체 인민을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움으로써 내외원수들의 공세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면서 주되는 힘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집중하도록하는 현명한 방침을 취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56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비상히 촉진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천리마의 속도로 달리자!》라는 구호밑에 전원회의결정관철을 위한 영웅적투쟁에로 전당과 전체 근로자들을 조직동원하심으로써 천리마운동의 새 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후 강선제강소를 비롯한 전국 각지 공장과 농촌들을 몸소 찾으시여 로동자, 농민들에게 나라의 어려운 형편과 혁명의 요구와 당의 결심을 해설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제기된 혁명과업의 해결방도를 의논하시여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을 위한 창조와 혁신의 불을 그들의 심장속에 지펴주시였다.

이처럼 수령의 가르치심을 심장으로 받든 강선제강소 강철전사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서로 돕고 이끌면서 6만톤의 공칭능력의 설비에서 12만톤의 강편을 생산하는 일대 혁신을 일으켰다.

이리하여 천리마작업반운동의 보람찬 력사가 시작되였으며 강선제강소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의 고향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물론 전후복구건설시기의 3년동안의 투쟁도 역시 천리마적인 대진군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이 공업에서 정식화된것은 1957년부터이며 우리는 이때부터 천리마작업반운동의 력사가 시작되였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우와 같은 책, 6~7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펴주신 강선제강소의 한점의 불꽃은 거대한 힘으로 전국에 퍼져나갔으며 전체 근로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모든 난관과 애로를 용감히 이겨내면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운동을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1960년 8월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를 소집하시고 《천리마기수들은 우리 시대의 영웅이며 당의 붉은전사이다》라는 연설을 하시여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인 교시를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우리 나라 수백만 근로자들의 대중적

운동으로 전환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를 더욱 앙양시키는 위대한 혁명운동으로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후 또다시 1968년 5월 제2차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를 소집하시고 천리마작업반운동발전의 력사적로정을 총화하시면서 이 운동의 혁명적본질과 위대한 생활력을 과학리론적으로 심오히 밝히시고 이 운동을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중심과업은 첫째로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이며, 둘째로 설비, 자재와의 사업을 잘하는것이며, 셋째로 책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사람과의 사업을 하라는것은 사상혁명을 하라는것이며 설비, 자재와의 사업을 하라는것은 기술혁명을 하라는것이며 책과의 사업을 하라는것은 곧 문화혁명을 하라는것입니다.》**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자》, 단행본, 11페지)

수령의 강령적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일떠선 전국의 천리마기수들과 근로자들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림으로써 사상과 도덕, 경제와 문화의 모든 령역에서 전례없는 위대한 변혁과 전환을 일으켜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인민경제와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을 포괄하는 전인민적운동으로 확대발전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적극분자, 새 형의 대표자들의 대렬이 급속히 확대발전하여 나갔다.

또한 천리마작업반운동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2중천리마작업반, 천리마직장, 천리마공장 칭호를 쟁취하기 위한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 공업부문에서만 하여도 천리마작업반은 69만6천여명의 천리마기수들이 망라된 2만8천624개에 달하고있으며 그중 1천214개의 작업반이 2중천리마 칭호를, 339개의 직장과 89개공장이 각각 천리마칭호를 받고 24개의 2중천리마작업반이 천리마영예상을 받았다.

농촌에도 거의 모든 작업반들이 천리마작업반운동에 참가하여 1만1천200여개의 작업반이 천리마작업반칭호를, 350여개의 천리마작업반이 2중천리마작업반칭호를, 8개의 2중천리마작업반이 천리마영예상을, 51개의 농장과 농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이 천리마농장과 천리마공장칭호를 받았으며 86만6천여명의 농근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영예로운 천리마기수대렬에 들어섰다.

위대한 천리마운동의 기치밑에 학생소년들속에서 《천리마학급》, 《모범분단》 운동이 더욱 확대발전되여 천리마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과 2중천리마학교인 만경대구역 창덕학교를 비롯하여 156개의 학교가 2중천리마 및 천리마학교로, 1만7천356개의 학급이 2중천리마 및 천리마 학급으로, 3만2천200개의 분단이 2중모범분단 및 모범분단으로 되였다.

이밖에도 기타 인민경제부문들과 사무기관, 과학문화, 예술부문, 인민반에 이르기까지 전체 인민들이 천리마작업반운동에 참가하여 천리마기수 대렬에 망라되고있다.

오늘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사상, 기술, 문화혁명수행의 힘있는 수단으로 끊임없이 심화발전되였으며 그 위대한 생활력은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의 실천투쟁속에서 충분히 발현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심화발전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과 밀접히 결부시켜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7개년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과 함께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이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차게 벌어지게 되였습니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26페지)

천리마작업반운동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상혁명의 어려운 과업을 대중적인 힘으로 훌륭히 풀어나가고있는것이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이 확대발전되는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됨으로써 사상혁명의 어렵고 힘든 과업이 성과적으로 해결되고있으며 극소수의 적대분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을 한사람도 남김없이 교양개조하여 당과 수령의 주위에 굳게 묶어세울데 대한 우리 당의 로선이 훌륭히 관철되고있는것이다.

천리마작업반운동에서 사상혁명수행에 선차적으로 주목을 돌린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과의 사업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입니다.**

**천리마기수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자》, 단행본, 12페지)

천리마기수들과 천리마작업반운동 참가자들은 집단내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수령의 교시와 당의 정책을 자기의 피와 살로 만들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더욱 확고히 서게 되였으며 그들은 수령께 충실한 친위대, 결사대로서 훌륭히 준비되고있다.

그리하여 천리마기수들과 근로자들속에서는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그것을 끝까지 옹호관철하며 언제나 수령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가는 혁명적기풍이 높이 발양되고있다.

또한 천리마기수들은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하기 위해 노력할뿐만아니라 모두가 인간개조의 붉은 교양자로서 한사람이 열사람을, 열사람이 백사람을 교양하여 모든 조소, 모든 단위를 붉은 집단으로 만들데 대한 당의 방침을 훌륭히 실현해나가고있다.

특히 천리마작업반들에서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가장 힘있는 군중교양방법인 긍정적모범에 의한 감화교양을 대중적운동으로 강력히 진행함으로써 긍정이 긍정을 낳고 모범이 모범을 낳는 공산주의적미풍이 높이 발양되고있으며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잔재들이 성과적으로 극복되고 모두가 다 새로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되여나가고있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에 기초하고 그이를 유일중심으로 하는 전당과 전체 인민의 확고부동한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된 불패의 보루로 튼튼히 꾸려지고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또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천리마작업반들에서는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천리마작업반들에서는 전체 성원들이 공동으로 생각하고 공동으로 노력하며 집체적지혜와 집체적창발성을 발휘하여 생산과 기술의 발전에서 집단적혁신을 이룩하고있습니다.》 (《직업동맹사업에 대하여》, 114페지)

천리마작업반들에서는 설비, 자재와의 사업을 잘하여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 나가지 않고서는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없다는것을 자각하고 설비에 정통하고 그를 능숙하게 다룰뿐만아니라 집체적지혜와 창발성을 발휘하여 생산공정을 적극 기계화, 자동화해나가고있다.

천리마작업반들에서는 생산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며 실천을 통하여 체득된 생산자들의 경험을 과학과 기술에 능숙하게 결합시킴으로써 기술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키고있다.

또한 천리마기수들과 근로자들은 나라 살림살이의 주인다운 립장에서 우리 인민의 귀중한 재부인 자재, 원료를 철저히 보관관리하며 더 많이 절약하여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이와 같이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통하여 설비, 자재와의 사업을 잘하며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확고히 견지하고있다.

천리마기수들과 천리마작업반운동참가자들은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으로 가슴을 불태우면서 생산과 건설에서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계속전진, 계속 혁신하였으며 소극성, 보수주의 등 온갖 낡은것을 쓸어버리고 새 기록, 새 기준을 창조하면서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확고히 보장하였다.

특히 1970년에 우리의 천리마기수들과 모든 근로자들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였다.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그들은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로 하늘을 찌르는 혁명적열의로 영웅적인 투쟁을 벌려 도처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면서 진군속도를 힘차게 다그쳤다.

그리하여 천리마강선제강소를 비롯한 2천 396개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당 제5차대회전까지 1970년도 계획을 빛나게 초과완수하였으며 우리의 공업은 이해 10월말 현재로, 그 전해에 비하여 131%의 높은 장성속도로 뛰어오르는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전례없는 혁명적앙양속에서 우리 나라 흑색야금공업발전에 큰 의의를 가지는 황해제철소 5.14종합직장건설공사, 우리 시대의 기념비적건설인 북창화력발전소 제1계단공사, 사리원방직공장 등 수많은 현대적인 대규모공장들이 신설 또는 개건확장되였으며 불과 반년남짓한 기간에 당대회에 드리는 선물공장 500여개를 포함하여 1천 760개의 지방산업공장들이 새로 일며서 우리 나라는 더욱 조밀한 공장의 그물로 뒤덮이게 되였다.

이러한 새로운 대고조의 계기를 열어놓은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는 공산주의적인 대중적대진군운동인 위대한 천리마운동이 발전하는 행정에서 나온 새로운 천리마속도이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는 대중의 일시적 흥분이나 자극에 의해서 나온것이 아니라 바로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한 대중의 비상히 앙양된 혁명적열의에서 솟구치는 위력한 속도이며, 발전된 대규모사회주의경제의 풍부한 잠재력에 원천을 둔 공고한 속도이며,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업체계에 의하여 담보되는 믿음직한 천리마속도인것이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로서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사회주의경제리론의 정당성을 실천적경험과 산 현실로써 확증하였으며 기회주의경제리론에 결정적타격을 주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사상혁명, 기술혁명과 함께 책과의 사업 즉 문화혁명도 힘차게 밀고나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실상 사상혁명과 기술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도 문화혁명을 어떻게 잘하는가에 크게 달려있습니다.》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자》, 단행본, 23페지)

수령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든 천리마기수들과 천리마작업반운동참가자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워 무엇보다도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해서 그이의 천재적로작들과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을 비롯한 혁명전통교양자료들을 깊이 학습하는것을 생활화하고있다.

또한 그들은 사회과학서적과 기술서적, 혁명적문학작품들도 많이 읽으면서 자체의 정치, 기술, 문화 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기 위해 투쟁하고있을뿐만아니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생산에서 떨어지지 않고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학습과 실천을 훌륭히 결합시켜 나감으로써 로동계급속에서 새 기술부대들이 대대적으로 늘어나고있다.

또한 천리마기수들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참가자들은 대중자신의 노력과 집단적, 동지적 방조를 효과적으로 결합시키면서 뒤떨어지고 비문화적인 생활인습을 반대하며 사회주의적생활문화와 생산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이상에서 보여준바와 같이 혁명의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여주신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통하여 그이의 가르치심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의 과업들이 훌륭히 실현되고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혁명위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가 더욱 앞당겨지고있다.

# 조선로동당창건 스물다섯돐을 뜻깊게 기념

우리 나라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앞두고 온 나라가 전례없는 혁명적열정과 창조적혁신으로 들끓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인 조선로동당창건 스물다섯돐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이 뜻깊은 날에 즈음하여 10월 9일 저녁 평양대극장에서 조선로동당창건 스물다섯돐기념중앙강연보고회가 있었으며 전국의 각도 소재지들과 시, 군(구역), 공장, 협동농장, 기관, 기업소, 인민군구분대들에서도 기념강연보고회들이 광범히 진행되였다.

강연보고회들에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을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감회깊이 돌이켜 보면서 앞으로도 혁명의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당의 기치따라 끝까지 싸워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1945년 10월 1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우리 당의 창건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전반적조선혁명발전에서, 조국의 통일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력사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위대한 사변이였다.

우리 당의 창건은 우리 나라에서 강력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건설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의 빛나는 실현이며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공산주의자들과 로동계급이 오랜기간에 걸친 투쟁에서 이룩한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투쟁에 나서시여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의 지도리론과 전략전술을 확립하시였으며 혁명활동의 첫시기부터 당창건의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시면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창건의 조직사상적 기초를 튼튼히 마련해나가시였다.

그이께서는 15성상에 걸치는 류례없이 간고하고도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직접 조직령도하시여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면서 실천투쟁속에서 새로운 공산주의자들을 수많이 키우시여 당창건의 조직적골간을 튼튼히 꾸리시였다. 또한 종파주의와 온갖 기회주의를 극복하고 공산주의대렬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사상의지적통일을 실현하시였으며 광범한 반일군중을 각성시키고 교양하시여 각종 혁명조직에 묶어세우심으로써 당창건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닦으시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진정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는 력사적위업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께서 이룩하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가 있음으로 하여 해방직후 복잡하고 혼란된 환경속에서도 내외의 계급적원수들의 온갖 분렬파괴책동을 분쇄하고 제때에 빛나게 실현할수 있었으며 당은 창건첫날부터 확고한 토대우에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을 창건하시였을뿐만아니라 혁명적당건설에 관한 새로운 독창적인 리론을 창조하시고 그를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우리 당을 강위력한 전투부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우리 당건설의 근본문제로 제시하시고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당핵심대렬을 튼튼히 꾸리는 한편 종파주의를 뿌리뽑기 위한 당내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정확히 조직령도하시였으며 종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이리하여 우리 당은 종파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 기회주의, 부르죠아사상, 봉건유교사상 등 일체 반혁명적 사상독소들을 짓부시고 전당을 오직 하나의 사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켰으며 당안에 유일사상체계가 꽉 들어차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확고부동한 통일단결, 이것은 우리 인민의 장기간의 혁명투쟁에서와 우리 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가장 귀중한 전취물이며 우리 혁명의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중적당건설에 관한 독창적방침에 기초하여 당핵심을 튼튼히 육성하시면서 당대렬의 량적장성에 질적공고화를 밀접히 따라세워 그것을 부단히 확대강화하시는 한편 실천투쟁을 통하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고 혁명임무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의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고 당조직생활을 강화하며 당의 기층조직인 세포를 강화하여 모든 분야, 모든 단위들에서 당의 령도적기능을 높이도록 하시였다.

또한 그이께서는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인전대인 근로단체들의 사업을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강화하며 대중지도에서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시여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시여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전체 인민을 당이 가리키는 한길로 싸워나가게 하시였다.

수령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전당에 일반화됨으로써 관료주의, 형식주의가 극복되고 당사업이 철저히 사람과의 산 창조적사업으로 전환되게 되였으며 당의 령도적역할과 당과 대중과의 련계는 전례없이 강화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건되였고 그이의 독창적인 당건설방침에 따라 부단히 강화발전된 조선로동당은 오늘 전당에 수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꽉 들어찬 불패의 전투적대오로, 어떤 원쑤도 타승하고 어떠한 난관도 뚫고 우리 혁명을 끝까지 승리에로 이끌수 있는 로숙하고 세련된 혁명적전위부대로, 국제혁명의 선두대렬에서 확고히 나아가는 위대한 맑스-레닌주의당으로 되였다.

당이 창건된후 25년, 이것은 당의 력사에서 그리 긴 시일이 아니다. 이 기간 우리 당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우리 혁명과 국제혁명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참으로 우리 당력사에 찬연히 빛날 위대한 업적을 쌓아 올렸다.

혁명의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과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주로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시였으며 천재적인 예지와 과학적통찰력으로 혁명발전의 매시기마다 독창적인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새로운 승리에로 드팀없이 이끄시였다.

우리 당은 혁명의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독창적인 로선과 방침에 따라 공화국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하였으며 계속하여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짧은 기간에 승리적으로 완수함으로써 착취와 압박이 없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았다.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과 전후경제건설의 기본로선, 대규모중앙공업과 중소규모지방공업의 병진로선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이악하게 관철하였으며 그이께서 발기하신 위대한 천리마운동과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를 끊임없이 확대발전시켜 계속혁신, 계속전진함으로써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빠른 속도로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는 력사적과업을 이룩하였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밝혀준 길을 따라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여 우리 농촌은 어떠한 자연재해도 이겨내고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장성시키는 발전된 농촌으로, 온갖 락후와 빈궁을 털어버린 풍요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농촌으로 전변되였다.

이리하여 어제날 뒤떨어진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 공업—농업국가로, 오늘에는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된것이다.

수령님께서 일떠세우신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에 토대하여 그리고 그이의 인민들에 대한 극진한 사랑과 배려가 깃든 당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우리 인민들은 먹고 입고 쓰고 사는 걱정, 병치료와 자녀교육에 대한 걱정을 모르고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이 성과적으로 실시되고있으며 주체적인 과학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되고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이 찬란히 개화발전되고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독창적인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방침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당과 혁명을 위하여, 집단과 사회를 위하여 신심과 락관에 넘쳐 혁명적으로 투쟁하고 생활하게 되였으며 전사회에 혁명적열의가 들끓고 온 나라가 화목하고 단합된 붉은 대가정으로 꾸려지고 있다.

또한 당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항일무장투쟁의 직접적계승자인 조선인민군을 제때에 창건하고 그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끊임없이 강화하였으며 미제가 강도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하여왔을 때에는 인민군대와 전체 인민을 전쟁승리를 위한 영웅적투쟁에로 힘차게 조직동원하여 미제에게 수치스러운 패배를 주고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를 영예롭게 지켜냈다. 그리하여 미제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았으며 세계인민의 반제반미투쟁에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았다.

우리 당은 수령께서 독창적으로 제시하신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과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어떠한 강적도 일격에 쳐부실수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전인민적방위체계를 가진 강력한 보루로 튼튼히 꾸려놓았다.

어제날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는 오늘 세상사람들로부터 《주체의 조국》, 《천리마조선》,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불리우고있으며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힘있고 존엄있는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로 동방일각에 거연히 솟아 전세계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한 우리 당과 인민은 오늘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나가는 전인미답의 길에서 새롭게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완전한 해답을 주신 그이의 탁월한 사상과 리론, 방침들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종국적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투쟁하여나가고있다.

조선혁명의 참모부인 우리 당은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조건에서 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최대한으로 촉진시키는 한편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여 투쟁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여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국을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방안을 일관하게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계신다.

오늘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러 흠모하면서 그이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전략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원쑤들의 가혹한 탄압속에서 적극적인 반미구국투쟁을 과감히 벌리고있다.

남조선혁명가들은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통일혁명당을 창건하고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면서 광범한 혁명력량을 결속하여 주권전취를 위한 결정적투쟁을 믿음직하게 준비하여 나가고있다.

우리 당은 국제혁명대오의 믿음직한 민족부대로서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고 국제혁명운동의 전반적발전을 다그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왔다.

혁명의 위대한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현국제정세와 국제혁명운동의 실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반제반미투쟁과 세계혁명발전을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오늘 그이께서 제시하신 미제에 주되는 창끝을 돌릴데 대한 세계혁명의 기본전략, 국제적인 반미공동행동과 반미통일전선을 이룩할데 대한 방침, 세계도처에서 미제의 손발을 얽어매고 타격을 주며 특히 혁명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이 달라붙어 미제의 각을 뜰데 대한 투쟁전략, 사회주의나라들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혁명적원칙과 방도 등은 세계 수많은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공명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국제혁명위업촉진에 커다란 혁명적작용을 하고있다.

우리 당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기치,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수호하고 강화하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모든 나라 인민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고 그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며 우리와 직접 맞서있는 미제침략자들과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건되고 령도되는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의 기치따라 이와 같이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은 우리 혁명과 세계

혁명을 위한 투쟁에서 자랑찬 승리와 빛나는 업적을 이룩하였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현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향하여,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고있다.

# 8.15해방 스물다섯돐을 뜻깊게 기념

우리 인민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전으로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한 장엄한 총돌격전을 벌리고있으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반미구국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는 전투적환경속에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 주신 우리 인민의 민족적명절 8.15해방 스물다섯돐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이날을 맞이하여 우리 인민은 지난 근 반세기동안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령도하시여 잃었던 조국을 다시 찾아주시였으며 오늘의 이 훌륭한 사회주의제도와 자유롭고 행복한 새 생활을 안겨주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다함없는 영예와 감사를 드리였다.

이 경사스러운 명절을 뜻깊게 맞이하여 8월 14일 평양만수대의사당에서 8.15해방 스물다섯돐기념 평양시 경축대회가 진행된것을 비롯하여 황해북도 사리원시, 함경북도 청진시, 함경남도 함흥시들에서와 전국 각지에서 경축회가 있었다. 그리고 여러곳에서 쏘련손님들의 참가하에 친선모임들도 진행되였다.

특히 8월 15일저녁 만수대의사당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하에 8.15해방 스물다섯돐경축 내각연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내각연회에는 우리 나라에 머무르고있는 수단민주주의공화국 혁명지도리사회 위원장 겸 수상인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소장과 그 일행,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며 쏘련 내각제1부수상인 까. 떼. 마주로브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쏘련 당및정부대표단, 일본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 나리다도모미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사회당대표단 등 우리 나라에 와있는 외국대표들과 우리 나라에 머무르고있는 외국손님들과 벗들이 초대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8.15해방 스물다섯돐을 열렬히 축하하면서 우리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의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축배를 들었다. 그리고 수단민주주의공화국 혁명지도리사회 위원장의 건강을 위하여, 쏘련 당및정부대표단 까. 떼. 마주로브단장과 우리 나라에 머무르고있는 외국대표단성원들과 외교대표들의 건강을 위하여 축배를 들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연회에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에서 조일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과 단결의 강화를 위하여 일본사회당대표단 단장과 함께 축배를 드시였다.

연회는 시종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와 열화같은 충성심으로 충만되였었다.

8.15해방 스물다섯돐 경축대회와 경축회들에서는 보고와 연설들이 있었다.

평양시 경축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및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내각제2부수상인 박성철동지가 보고하였으며 이어 쏘련인민의 친선의 사절인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쏘련내각제1부수상인 까. 떼. 마주로브동지의 연설이 있었다.

사리원시경축회에서는 황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과 쏘련 당및정부대표단 단장인 까. 떼. 마주로브동지가, 청진시경축회에서는 함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과 쏘련연해변강근로자대의원쏘베트집행위원회대표단 단장이 각각 연설하였다.

경축대회와 경축회 참가자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조국강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을 짓부시며 매국역적 박정희도당을 쓸어버리고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반드시 이룩하고야말 결의를 더욱 굳게 다졌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해방후 스물다섯해동안 실로 자랑찬 로정을 걸어왔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식민지통치의 가장 암담하던시기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시여 조선혁명이 나아갈 유일하게 정확한 로선을 제시하시였으며 우리 인민의 첫 맑스-레닌주의적혁명무력인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조국의 자유와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15성상 조선인민의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항일유격대는 중첩되는 시련과 류례없는 곤난을 이겨내면서 영웅적무장투쟁을 전개하였으며 마침내 쏘련군대와 함께 강도 일제를 몰아내고 조국광복의 혁명위업을 성취하였다.

조선인민이 마침내 승리하고 일제를 패망시킨것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전취한 위대한 승리였다.

해방후 25년간의 혁명과 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력사는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공을 격파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한 영광스러운 투쟁의 력사이며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조국땅우에 새사회를 건설한 위대한 창조의 력사였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미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강점으로 인하여 조성된 복잡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나라의 북반부에 강력한 혁명기지를 창설할데 대한 정확한 혁명로선을 제시하시고 혁명의 매단계마다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내놓으시여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의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으며 우리 인민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따라 해방후 25년간 우리 인민은 자기 수중에 주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성과있게 수행하였고 미제와 그 주구들의 강도적인 무력침공으로부터 조국의 독립과 영예를 수호하였으며 짧은 기간에 전쟁의

혹심한 상처를 가시고 나라의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그리고 위력한 전인민적방위체계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자주적인 사회주의강국으로 되였으며 당의 유일사상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기초한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은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확고부동한것으로 되였다.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이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나는 열매이다.

그러기에 우리 인민은 우리를 항상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에로 이끌어주시고계시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무한히 흠모하고 신뢰하며 그이를 조선혁명의 수령으로 모시고 그이의 령도를 따라 살며 혁명하는것을 무한한 영광과 행복으로, 크나큰 자랑으로 여기고있으며 일편단심 수령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이다.

# 위대한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을 이 땅에서 영영 쓸어버릴것이다

—《미제반대투쟁의 날》과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우리 인민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앞두고 웅대한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한 창조적로력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으며 남반부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구국투쟁의 불길이 높이 타오르고있는 전투적환경속에서, 제국주의식민지체계가 급속히 무너져가고있으며 특히 아세아에서 반미투쟁의 거세찬 폭풍이 휘몰아치는 력사적환경속에서 《미제반대투쟁의 날》과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6.25—7. 27)을 맞이하였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우리 인민은 불타는 적개심으로 침략자 미제를 기어코 남조선에서 내몰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며 조선과 극동의 평화를 굳건히 지키려는 철석같은 결의를 더한층 굳게 다지였다.

이 월간을 맞으면서 광범한 반제혁명력량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이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며 미제침략군대를 남조선으로부터 철거시키기 위한 광범한 국제적인 반미투쟁을 벌렸으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의로운 투쟁에 더욱 굳은 전투적련대성을 보내여왔다.

특히 이 월간을 맞으면서 중화인민공화국대표단, 월남민주공화국 정부대표단, 남부월남공화대표단, 라오스애국전선대표단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에서 각계대표들이 우리 나라에 왔었다.

이것은 남조선으로부터 미제를 철거시키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전투적련대성의 표시로 된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침략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없애치우고 아세아대륙에까지 침략의 마수를 뻗치려고 망상하면서 20년전 1950년 6월 25일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불의의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침략의 야욕을 이루어보려고 제놈들의 륙해공군의 중요력량과 15개 추종국가군대 및 남조선괴뢰군을 포함한 2백여만의 대병력과 막대한 량의 최신전투기재들을 조선전선에 동원하였으며 세균무기와 화학무기의 사용, 주민지구에 대한 무차별폭격과 평화적주민에 대한 대량학살 등 일찌기 전쟁력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야만적인 방법과 수단을 다 적용하였다.

그러나 원쑤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우리 인민을 굴복시킬수 없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무비의 용감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미제를 괴수로 한 세계반동의 련합세력을 반대하는 3년간의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무력침공자들을 여지없이 때려부시고 위대한 력사적승리를 이룩함으로써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과 나라의 자유와 독립, 조국과 민족의 영예를 빛나게 지켜냈으며 사회주의위업과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수호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인민의 위대한 승리는 전당과 인민을 확고한 반제반미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시키시였으며 원수격멸에로 모든것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하신 혁명의 위대한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의 전기간 전선과 후방의 모든 중책을 한몸에 지니시고 전쟁의 매계단마다 정확한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여 전당과 인민과 인민군대를 전쟁승리에로 조직동원하시는 한편 적들의 수적, 기술적 우세를 정치사상적, 전략전술적 우세로써 타승하고 조국해방전쟁을 위대한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오직 오랜기간에 걸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으셨으며 위대한 혁명사상과 심오한 혁명리론, 탁월한 령도력과 천재적인 군사전략을 겸비하시고 불굴의 의지, 비상한 혁명적전개력과 높은 덕성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백전백승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하고 위대한 승리를 쟁취할수 있었다.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의 승리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필승불패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널리 시위하였으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손에 무장을 잡고 일떠선 인민은 어떠한 간악한 원수와도 능히 싸워 이길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력사적승리는 아세아와 세계의 압박받고 착취받는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크게 고무추동하였으며 반제반미투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새시대를 열어놓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인민이 쟁취한

위대한 승리의 거대한 세계사적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코대를 꺾어놓고 그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산산이 깨뜨려버렸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았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단행본, 19페지)

전후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세련된 령도밑에 북반부에서 짧은 시일에 전쟁의 피해를 가시고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는 한편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위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왔다.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고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조국통일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은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의 공정한 방안과 합리적인 제안들을 모조리 거부하였을뿐만아니라 남조선에 계속 주저앉아 조선정전협정을 계통적으로 짓밟으면서 새로운 침략전쟁준비에 미쳐날뛰고있다.

놈들은 조선정전협정에 서명한 잉크가 채마르기도전에 남조선괴뢰도당과 《한미호상 방위조약》을 조작하여 저들의 남조선 영구강점을 《합법화》하는 한편 침략무력과 괴뢰군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그 장비를 강화하면서 지상, 해상, 공중에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적대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여왔다.

남조선에서와 군사분계선상에서 벌어지고있는 일련의 사태들은 바로 미제가 20년전에 조선에서 전쟁을 도발하던 그때를 방불케 하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우리 인민을 반대하여 꾸미는 새 전쟁도발음모에 재생재무장시킨 일본군국주의침략세력까지 끌어들이며 그들 새로운 침략전쟁의 《돌격대》로 내세우려고 책동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전쟁정책에 가담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망상하면서 《자위대》의 조선침공을 예견한 면밀한 작전계획까지 짜놓고 호시탐탐 파병의 기회를 노리고있다.

이와 같이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책음모는 오늘 극도에 이르고있다.

박정희매국반역도당은 미제의 전쟁정책실현의 앞장에 서서 괴뢰군의 대대적인 징발과 우리측을 반대하는 무장도발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고있으며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을 닥치는대로 검거투옥 학살하고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날로 로골화되는 새 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는 임의의 시각에 다시 전쟁이 터질수 있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미제는 조선에서 뿐만아니라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침략정책을 강화하며 인민들의 민족적독립과 자유,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있으며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며 학살하고있다.

특히 미제는 아세아인민들의 자유와 민족적독립을 교살하고 이 지역 인민들을 노예화하기 위하여 월남과 라오스에서 침략정책을 강화하고 전쟁의 불길을 캄보쟈에까지 확대하고있을뿐만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령토인 대만을 계속 강점하고 대만해협에서 정세를 첨예화시키면서 아세아의 전반적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다.

이와 같이 미제는 조선인민의 피맺힌 원수일뿐만아니라 아세아와 세계인민들의 공동의 원수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가 격화되고 새 전쟁이 터질 위험이 극도에 달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의 침략정책에 있다.

그러므로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는것은 조선에서 전쟁의 근원을 제거하고 조선문제를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사람자신의 손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극동의 평화를 유지공고화하기 위한 근본담보로 된다.

만약 미제가 물러가지 않고 조선에서 끝끝내 전쟁의 길로 나간다면 놈들은 지난 조선전쟁때보다도 더 수치스러운 참패를 면치 못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인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일 적들이 우리에게 새 전쟁을 강요한다면 전체 인민은 공화국북반부의 위대한 사회주의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조국의 완전한 해방과 통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영웅적인 투쟁에 한사람같이 일떠설것이며 원수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줄것입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단행본, 68~69페지)

남조선에 미제침략군대와 박정희괴뢰도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나라의 통일이란 생각조차할수 없다.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인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그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현군사파쑈독재를 뒤집어엎어야 한다.

오늘날 내외정세는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편에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조국통일의 결정적담보인 북반부의 혁명기지는 불패의 력량으로 자라나고 우리 인민은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그 어느때보다도 굳게 뭉쳐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혁명의 길을 따라 남조선의 혁명력량도 급속히 장성강화되고있으며 인민들의 혁명투쟁도 계속 앙양되고있다.

또한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광범한 세계반제력량과 수억만 혁명적인민들도 미제를 반대하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로 될뿐아니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반제반미공동투쟁을 강화하며 미제의 국제적고립과 패망을 촉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특히 미제가 혁명의 폭풍이 가장 거세차게 휘몰아치고있는 아세아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있는 조건에서 아세아의 혁명적인민들은 반제반미통일전선을 더욱 강화하고 반미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 미제침략자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가하고있다.

오늘의 조선은 어제날의 조선이 아니며 오늘의 아세아는 어제날의 아세아가 아니다.

오늘 우리 인민의 혁명력량은 미제가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일으켰던 20년전과는 비할수 없으리만큼 훨씬 장성강화되였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그 어느때보다도 굳게 단결되여있다. 뿐만아니라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강력한 자립경제가 있고 불패의 혁명군대와 전인민적무장이 있고 요새화된 강토가 있는 이상 우리는 어떠한 침략자도 능히 때려부실수 있다.

만약 미제침략자들이 조선에서 물러가지 않으면 놈들은 우리 인민의 투쟁에 의하여 쫓겨나고야말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물러갈뿐만아니라 월남에서, 캄보쟈에서, 라오스에서, 대만에서, 놈들이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는 모든 곳에서 몰려가야 한다.

우리 인민은 기어코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통일의 민족적위업을 완수하고야말것이다.

우리 인민의 결의는 확고부동하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은 필승불패이다.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하에 《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군중대회와 장엄한 시위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의 참석하에 《미제반대투쟁의 날》 6월 25일 평양시군중대회가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였다.**

**이날은 바로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킨 때로부터 스무해가 되는 날이다.**

**이날을 맞은 조선인민의 피끓는 가슴마다에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며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과 단결하여 지구상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이룩할 혁명적기백과 투쟁결의가 소용돌이치고있었다.**

혁명의 수도시민들은 미제침략자들을 단죄하는 구호들을 웨치며 이른아침부터 김일성광장에로 물밀듯이 모여들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최고사령관 김일성원수의 명령을 받들고 조국의 고지마다에서 대중적영웅주의와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눕히고 조국의 독립과 영예를 지켜낸 공화국영웅들과 모범전투원들,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성전에서 용맹을 떨치였으며 오늘은 한손에는 마치와 낫을 들고 다른 한손에는 총을 들고 일터와 마을을 믿음직하게 지키고있는 일당백의 로농적위대원들, 우리 당 제5차대회에 빛나는 로력적선물을 드리고저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로 내달려 날마다 시간마다 기적을 창조하고있는 공장, 기업소의 천리마기수들과 로력혁신자들, 정무원들, 협동농민들, 가두녀성들, 청년학생들, 거리에 떨쳐나선 20여만 군중들로 하여 김일성광장과 그에 잇닿은 거리는 대해마냥 설레이고있었다.

광장은 대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을 단죄하며 피맺힌 원수놈들을 복수하고야 말리라는 군중들의 노호한 웨침소리로 끓어번지고있었다.

주석단 뒷열 초대석에는 당, 정권기관, 인민군, 근로단체, 출판보도 부문의 책임일군들이 자리잡고있었다.

또한 초대석에는 《미제반대투쟁의 날》행사를 비롯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진행되는 행사들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한 여러 나라 대표단 성원들과 우리 나라에 머무르고있는 여러 나라 손님들, 그리고 우리 나라에 와있는 각국 외교대표들과 대사관 관원들, 외국류학생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항상 흠모하여 마지않던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20여만 군중들의 《김일성동지 만세!》의 환호성은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 끊임없이 환호하는 모든 사람들의 심장마다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우리 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같은 신념과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청춘도, 생명도 다바쳐 끝까지 싸우려는 굳은 결의가 간직되여있었다.**

**주석단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부인 김성애동지와 함께 우리 나라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동지들과 근로단체책임간부들이 올랐다.**

군중들의 열렬한 박수속에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 수상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장인 펜 누트친왕과 그 부인, 중화인민공화국 대표단 단장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인 황영승동지와 부단장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중국인민해방군 부참모장이며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정치위원인 리작붕동지, 월남민주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인 월남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월남민주공화국 수상부 부장인 쩐휴즉동지, 남부월남공화대표단 단장인 남부월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및 남부월남공화림시혁명정부 특사 웬 반히우각하, 라오스애국전선 대표단 단장인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선훈책임자인 싸난 쑤티짝각하가 주석단에 올랐다.

그리고 꾸바근로자 중앙대표단 단장, 월남직맹대표단 단장,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조합총련맹대표단 단장, 알제리근로자총동맹대표단 단장, 콩고인민공화국 로동조합총련맹대표단 단장, 라틴아메리카근로자통일로동조합 상설대회 서기국상주대표, 도미니까공산당 청년부대표단 단장, 이라크농민조합총동맹대표단 단장, 쎄일론독립학생동맹대표단 단장, 기네공화국 외무담당국무성 유엔부장이 주석단에 올랐다.

**군중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및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며 내각 제1부수상인 김일동지가 연설하였다.**

**이어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중화인민공화국 대표단 단장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인 황영승동지, 월남민주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인 월남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월남민주공화국 수상부 부장인 쩐휴즉동지, 남부월남공화대표단 단장인 남부월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및 남부월남공화림시혁명정부 특사 웬 반히우각하, 라오스애국전선대표단 단장인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선훈책임자인 싸난 쑤티짝각하 등 여러 나라 대표단 단장들이 연설하였다.**

군중대회에서는 《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하여 남조선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대회에 이어 20여만 군중들의 장엄한 시위가 있었다.

이날의 군중대회와 장엄한 군중시위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친 영웅적조선인민의 불패의 전투적위력과 100여년의 피맺힌 철천지원쑤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고야말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결의를 보여주었다.

또한 군중대회와 시위는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 특히 아세아의 혁명하는 여러 나라 인민들과 힘을 합쳐 미제를 아세아에서 몰아내며 지구상에서 쓸어버릴 때까지 계속 견결히 싸워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억센 기상을 보여주었다.

##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열일곱돐 평양시 경축대회가 있었다

조선인민과 조선인민군 군인들은 커다란 혁명적자부심과 승리의 신심을 안고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대회로 맞이하기 위하여 온 나라가 전례없는 혁명적대고조로 들끓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앙양되고 세계도처에서 반제반미투쟁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오르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세계혁명운동사와 인류해방투쟁사에서 찬란한 금문자로 새겨진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열일곱돐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이날을 맞이하여 7월 26일 평양대극장에서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열일곱돐 평양시 경축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대회장은 오로지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의 명령을 심장에 아로새기고 조국의 한치한치의 땅을 피로써 지켜내고 우리 인민의 100여년의 피맺힌 원쑤 미제침략자들을 쳐부시는 싸움에서 무비의 영웅성을 발휘하였으며 오늘도 미제의 침략과 새 전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단호히 물리치면서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키고있는 공화국영웅들과 조선인민군 및 경비대 장병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원쑤들을 요정낸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오늘도 경애하는 수령께 충성다할 한마음안고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고있는 영예군인들, 나라의 륭성발전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고있는 로농적위대원들, 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들을 비롯한 시내 근로자들로 차고넘쳤다.

대회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는 우리 당과 인민을 이끄시여 조국해방전쟁에서 인류의 가장 흉악한 원쑤 미제를 타승하고 놈들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깨뜨려버림으로써 인민들의 혁명위업에 위대한 공헌을 하시였으며 공화국북반부에 불패의 혁명기지를 마련하여주시였고 조선인민군을 어떠한 침략자도 일격에 쳐물리칠수 있는 정치군사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키워주시였으며 그를 핵심으로 하는 철통같은 전인민적방위체계를 세워놓으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과 열화같은 충성심으로 끓어번지였다.

경축대회는 우리 나라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 간부들과 인민군장령들이 참가하였다. 여기에는 또한 우리 나라에 와있는 각국 외교대표들과 무관들이 초대되였다.

경축대회에서는 민족보위부상이 보고를 하였다.

경축보고를 듣는 참가자들은 현대의 가장 횡포하고 야만적인 침략자이며 제국주의와 세계반동의 괴수인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력사상 처음으로 만회할수 없는 참패를 주고 영웅적조선인민의 혁명적기상을 온 세상에 떨친 이 력사적인 승리의 날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이미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철천지원쑤 미제침략자들을 이땅에서 영영 쓸어버리고 우리 세대에 조국을 통일하고야말 불같은 결의를 가다듬었다.

그들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며 그이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통같이 뭉쳐 승리의 신심도 드높이 사회주의건설과 혁명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벌리며 미제와 그 앞잡이 박정희괴뢰도당을 타도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며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할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 조선인민의 반미투쟁에 세계의 혁명적인 벗들과 진보적인민들이 전투적련대성을 표시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일으켰던 날인 6월 25일부터 놈들이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정전협정에 도장을 찍은 날인 7월 27일까지의 기간에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 행사가 세계적범위에서 전례없이 광범히 그리고 적극적인 성격을 띠고 진행되였다.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행사는 사회주의나라들은 물론 아세아, 아프리카의 민족적독립국가들과 싸우는 라틴아메리카나라들, 일본, 스웨리예, 핀란드, 단마르크 등 아세아와 구라파의 자본주의나라들 그리고 미국내에서까지 지구상 수많은 나라들에서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광범히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혁명투사들, 정치 및 사회계 인사들과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군중이 참가하였다.

바로 이번의 국제적인 반미공동투쟁월간행사가 그 어느 해보다도 넓은 세계적범위에서 더욱 적극적인 형태를 띠고 진행된것은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지지와 련대성이 날로 더욱 강화되고있는 뚜렷한 표시로 된다.

이 월간을 맞으며 중화인민공화국대표단, 월남민주공화국 정부대표단, 남부월남공화대표단, 라오스애국전선대표단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에서 각계 대표들이 우리 나라에 왔었으며 그리고 우리 나라 대표단이 초청을 받고 중화인민공화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 갔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이번의 《미제반대투쟁의 날》행사를 비롯한 반미공동투쟁월간행사들에는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중에 있던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중국, 월남민주공화국, 남부월남, 라오스 및 기타 많은 나라들에서 온 외국의 여러 혁명동지들과 벗들이 참가하였으며 그리고 중국과 기타 여러 나라들에서는 우리 나라 대표단의 참가하에 반미공동투쟁월간행사들이 진행되였다.

이 반미공동투쟁월간을 맞으면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위업을 지지하여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로므니아공산당 총비서이며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위원장인 니꼴라에 챠우쉐스꾸와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내각 수상 이온 게오르게 마우레르,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벌가리아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인 또도르 쥡꼬브, 남부월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이며 남부월남공화 림시혁명정부 자문리사회 위원장인 윈우수와 남부월남공화림시혁명정부 주석 훵 떤 팔,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 아랍련합공화국 대통령 가말 아브델 나쎄르, 이라크공화국 대통령 아흐마드 하싼 알 바크르, 예멘아랍공화국 수상 모흐센 알아이니, 기네공화국 대통령 아흐메드 세쿠 투레, 꽁고인민공화국 대통령 마리엔 느구아비,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 리사회 위원장 쌀림 루바이아 알리, 수단민주주의공화국 혁명지도리사회 위원장 겸 수상

자파르 모하메드 니메리,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최고혁명리사회 위원장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장 베델 보카싸, 말리공화국 국가수반 정부수상 민족해방군사위원회 위원장 무싸 뜨라오레,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장 수파누봉친왕을 비롯한 수리아아랍공화국 기타 여러 나라 지도자들로부터 전문을 보내여왔다.

또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국제기구들과 3대륙의 싸우는 나라들의 여러 민족해방조직 지도자들, 우리 나라와 친선관계를 맺고있는 단체들, 각국의 진보적 정당들과 인사들, 각계각층의 군중집회참가자들로부터 전문과 편지들을 끊임없이 보내여왔다.

각국의 사회단체들로부터도 우리 나라 해당 단체들에 련대성을 표시하는 전문과 편지들을 보내여왔다.

사회주의나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의 민족적독립국가들, 라틴아메리카나라들과 일본을 비롯한 여러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정치 및 사회계 인사들과 로동자, 농민, 과학문화예술인, 청년학생을 비롯한 각계각층 군중과 그리고 혁명가들은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하여 매일과 같이 군중집회와 반미시위를 조직진행하였으며 또한 강연회, 사진전람회, 영화감상회, 기자회견 등 다채로운 련대성행사들을 진행하였다.

중국에서는 특히 커다란 규모의 련대성행사를 진행하였는바 미제의 조선침략전쟁도발 20년과 대만강점 20년에 즈음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초청으로 이 나라를 방문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의 참가하에 6월 25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군중대회를 비롯하여 중국 각지에서 진행된 련대성행사들은 공동의 원수 미제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언제나 조선인민과 굳게 손잡고 싸우려는 중국인민의 확고한 결의를 보여주었다.

꾸바에서는 이 월간에 특히 《조선인민과의 련대성꾸바조직위원회》를 조직하고 조선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지하는 여러가지 행사들을 진행하였다.

이밖에도 사회주의나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싸우는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서와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도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조선에서 놈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단죄규탄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는 군중집회와 반미시위를 광범히 진행하였다.

특히 《미제반대투쟁의 날》에 미국의 뉴헤븐시에서는 수많은 군중들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시위를 진행하였다. 시위자들은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구호를 쓴 수많은 선전화와 선전문을 주민들에게 배포하면서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강점을 준렬히 규탄하였다.

또한 이 월간에 3대륙인민단결기구집행서기국, 국제학생동맹서기국, 국제기자동맹서기국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국제민주단체들, 각국의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들과 인사들은 성명, 호소문, 담화, 서한 등을 발표하여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침략정책을 항의규탄하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각국의 출판물들과 방송, 텔레비죤들은 반미공동투쟁월간의 전기간을 통하여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미제는 모든 살인무기를 걷어가지고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라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였다.

지구상 방방곡곡에서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련대성을 표시하여 진행된 반미공동투쟁월간 행사들에서는 한결같이 《미제국주의를 타도하자!》, 《박정희도당에게 저주가 있으라!》,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은 당장 물러가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소리높이 웨쳤다.

전세계 인민들이 이 월간에 우리 인민에게 표시한 적극적인 지지성원과 련대성은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견결히 싸우고있는 우리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로 되였으며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매국반역도당에게 강력한 타격으로 되였다.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관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정당한 방침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이 물러갈것을 강력히 주장한것은 조선에서 전쟁의 근원을 없애고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실현케 하려는 숭고한 립장에서 출발한것이다.

그것은 다만 조선인민의 요구일뿐만아니라 전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일치한 요구이다.

그럼에도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서 한사코 물러가려 하지 않는다면 놈들은 전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있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의하여 쫓겨나고야말것이다.

조선인민은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견결히 싸워 반드시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조국의 통일을 달성할것이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세계인민들의 공동위업에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 조중인민들의 단합된 힘은 미제침략자들에게 종국적패망을 안길것이다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하에 미제를 반대하고 대만을 해방하기 위한 중국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평양시 군중대회 진행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며 아세아와 세계혁명적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인류의 극악한 원쑤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을 종국적으로 매려눕히고야말 우리 인민의 억센 결의가 온 나라에 끓어번지고있는 전투적인 환경속에서 미제를 반대하고 대만을 해방하기 위한 중국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평양시군중대회가 6월 27일 혁명의 수도 평양만수대의사당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대회장은 시내 각계 근로자들과 일당백의 영웅적조선인민군 군인들로 차고넘쳤다.

《미제침략자들은 대만에서 당장 물러가라!》,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라!》, 《미제침략자들은 인도지나에서 당장 물러가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을 분쇄하자!》 등 격노한 군중들의 웨침으로 진감하는 대회장은 대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말그대로 공동의 원수 미제침략자들에게 철추를 내리는 심판장을 방불케하였다.

미제의 대만섬강점은 중국인민을 반대하는 미제국주의침략정책의 또하나의 로골적인 표현이였으며 아세아에 대한 놈들의 침략정책의 한 고리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첨소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말살하기 위하여 1950년 6월 25일 조선에서 불의에 침략전쟁을 도발하는 한편 6월 27일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만섬을 비법적으로 강점하였다.

미제의 대만강점은 새로 탄생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에 대한 간악한 침해이며 중국인민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며 대만을 중국에 귀속시킬것을 예견한 국제협정들에 대한 란폭한 유린행위였다. 그것은 또한 민족적독립과 진보를 위하여 일떠선 아세아인민들과 세계인민들에 대한 새로운 도발이였다.

침략자 미제는 조선전쟁에서 참패한 후에도 대만섬에서 물러가지 않고 그곳을 저들의 식민지로, 침략적군사기지로 전변시켰으며 여기로부터 중국본토에 대한 악랄한 군사적도발과 무력침범 등 침략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미제는 《두개의 중국》조작음모에 집요하게 매달려 대만섬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떼내려고 획책하면서 여기에 일본군국주의자들까지 적극 끌어들이고있다.

그러므로 군중대회 참가자들은 미제가 중국의 신성한 령토인 대만을 강점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과 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는데 대하여 준렬히 규탄하고 단죄하며 미제의 강점으로부터 대만을 해방하기 위한 중국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미제가 남조선과 대만에서, 아세아와 지구상에서 완전히 격멸될 때까지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밑에 형제적중국인민과 어깨겯고 싸워나아갈 굳은 결의가 넘쳐있었다.

대회에는 우리 나라에 와있는 중국대사관 성원들과 중국인민지원군 련락처성원들을 비롯한 이 나라 손님들과 외국손님들이 초대되였다.

또한 여기에는 우리 나라 당 및 정권기관, 과학문화, 출판보도 기관 책임일군들과 조선인민군장령들이 참가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 중화인민공화국대표단 단장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장 황영승동지와 함께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 전체 참가자들은 일어서서 장내를 진감하는 우렁찬 박수로써 열렬히 환영하였다.

주석단에는 또한 우리 나라 당 및 정부의 지도간부동지들과 근로단체·책임간부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대표단 부단장과 대표단 단원들 전체가 올랐다.

또한 주석단에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 수상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장인 펜 누트친왕, 월남민주공화국정부대표단 단장, 남부월남공화대표단 단장, 라오스애국전선대표단 단장이 주석단에 올랐다.

군중대회에서는 개회선언에 이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와 우리 나라 애국가가 주악되였다.

군중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대장 오진우동지가 연설하였다.

연설이 끝나자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전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속에 대회명의로 된 축기를 중화인민공화국대표단 단장 황영승동지에게 전달하였다.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사이의 불패의 친선단결을 상징하여 두 나라 국기들이 나란히 새겨진 축기에는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사이에 피로써 맺어진 전투적친선단결 만세!》라는 글자가 수놓아졌다.

대회에서는 또한 중화인민공화국대표단 단장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장 황영승동지가 연설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연설을 마친 그와 굳은 악수를 나누시였다.

군중대회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우리 당 제5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길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또한 그들은 중국인민의 위대한 수령 모택동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문화대혁명을 거쳐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며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형제적중국인민이 반드시 미제를 몰아내고 자기의 신성한 령토인 대만을 해방하고야말리라는 굳은 확신을 표시하였다.

이날 군중대회는 피로써 맺어진 조중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불패의 친선단결을 시위하였으며 조선, 중국, 월남, 캄보쟈, 라오스를 비롯한 아세아 혁명적인민들의 반미공동전선을 더욱 강화하여 미제의 멸망을 앞당기고야말 전투적기개를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스무돐을 성대히 기념

조선인민과 조선인민군장병들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앞두고 온 나라가 혁명적대고조로 들끓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의 조선참전 스무돐(10월 25일)을 성대히 기념하였다.

20년전 미제국주의자들의 강도적인 무력침략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민이 엄혹한 시련을 겪고있던 시기에 형제적중국인민은 항미원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기의 우수한 아들딸들로 지원군을 조직하여 조선전선에 보내주었다.

중국인민의 위대한 수령 모택동동지의 가르침을 받고 조선전선에 달려온 중국인민지원군용사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을 친부모, 친형제와 같이 사랑하고 조선인민군과 함께 목숨으로 조선의 촌토를 빛나게 사수하였다.

우리 인민은 중국인민지원군용사들을 자기의 혈육처럼 사랑하고 돌봐주었다.

조선인민군용사들은 한전호속에서 중국인민지원군용사들과 한모금의 물도 나누어 마시면서 그들과 어깨겯고 함께 싸웠다.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은 이와 같이 단결하여 싸워 마침내 미제를 우두머리로 한 세계반동의 련합세력의 강도적침략을 성과적으로 짓부시고 조선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미제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깨뜨려버리고 놈들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았다.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사이의 친선과 단결, 호상지지와 원조의 미풍과 혁명적이며 동지적인 관계는 오랜 력사적 뿌리를 가지고있다.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은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어깨

결고 싸워이겼다.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조국의 광복을 위해 싸웠을뿐만아니라 중국인민의 혁명위업을 피로써 도왔으며 중국인민의 국내혁명전쟁시기 조선인민의 수많은 우수한 아들딸들은 중국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자기의 귀중한 생명을 바쳤다.

이와 같이 조중인민들사이의 피로써 맺어진 형제적이고 동지적이며 혁명적인 단결은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다.

바로 중국인민지원군의 조선전선참전은 조선인민에 대한 형제적중국인민의 사심없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표현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특히 극동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위업에 있어서의 조중량국인민간의 국제주의적 호상련대성의 표현이다.

이 뜻깊은 중국인민지원군참전 스무돐에 제하여 우리 나라에서 진행되는 행사들에 참가하기 위하여 중국인민이 보낸 친선의 사절인 중국인민친선대표단이 우리 나라에 왔으며 우리 인민은 그들을 형제적친선의 정으로 열렬히 환영하였다.

이날을 맞이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스무돐 평양시기념대회와 사리원시군중대회를 비롯한 많은 행사들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10월 24일 진행된 평양시기념대회는 평양만수대의사당에서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교육, 문화, 출판보도부문 책임일군들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중국인민지원군용사들과 함께 미제무력침공자들을 반대하는 싸움에서 용맹을 떨친 조선인민군 모범전투원들, 인민군장병들과 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주석단에는 우리 나라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동지들과 근로단체책임일군들, 조선인민군장령들이 올랐다. 또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스무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한 중국인민친선대표단 단장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중국인민해방군 무한부대 사령원이며 호북성혁명위원회 주임 증사옥동지, 대표단 부단장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중국인민해방군 베이징부대 정치위원 진선서동지를 비롯한 대표단 단원들과 우리 나라에 와있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가 주석단에 올랐다.

대회에는 또한 우리 나라에 와있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관원들과 군사정전위원회 중국인민지원군 련락처 묘검처장과 이 련락처 성원들, 우리 나라에 머무르고있는 중국원양운수공사해운대표단성원들 그리고 우리 나라에 와있는 각국 외교대표들과 대사관 무관들이 초대되였다.

대회의 개회를 선언하자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와 우리 나라 애국가가 주악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오진우동지가 연설하였으며 이어 중국인민친선대표단 단장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중국인민해방군 무한부대 사령원이며 호북성혁명위원회 주임 증사옥동지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의 연설이 끝나자 력사의 시련과 혁명의 불길속에서 굳게 맺어진 전투적친선단결을 상징하는 축기들을 서로 교환하였다.

10월 25일에는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스무돐을 기념하는 사리원시군중대회가 시중앙광장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이에 앞서 사리원시를 방문하는 형제적중국인민의 친선의 사절인 중국인민친선대표단을 10여만 군중이 10여리 연도에서부터 열렬히 환영하며 뜨겁게 맞이하였다.

감격과 흥분으로 끓어번지는 환영군중들과 손님들의 격동된 얼굴마다에는 지난날도 그러한것처럼 오늘도 미제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전선에서 영원히 어깨겯고 함께 싸워 승리할것이라는 억센 결의가 넘쳐있었다.

사리원시군중대회가 진행되는 광장에는 우리 당의 혁명로선을 높이 받들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총을 멘 로농적위대원들, 펜과 총을 튼튼히 틀어잡고 나아가는 남녀 붉은 청년근위대원들과 군중들이 꽉들어찼다.

환영곡이 울리고 군중들의 환호성이 메아리치는 가운데 중국인민친선대표단 단장, 부단장동지들을 비롯한 대표단 성원들, 우리 나라에 와있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사와 함께 우리 나라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동지들, 황해북도 및 사리원시의 지방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군들, 조선인민군장령들이 주석단에 올랐다.

대회 개회선언에 이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와 우리 나라 애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대회에서는 먼저 조선로동당 황해북도위원회 책임비서가 연설하였으며 이어 군중들의 열렬한 박수속에 중국인민친선대표단 단장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연설을 끝마치고 조중인민들의 영원한 전투적친선을 상징하는 축기들을 서로 전하였다.

공동의 원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피로써 맺어진 조중 두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투적친선단결의 정과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을 아세아와 지구상에서 완전히 소멸하고 세계혁명이 종국적으로 승리할 때까지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들고 조중 두나라 인민들이 끝까지 어깨겯고 함께 싸워나갈 혁명적인 결의로 충만된 연설들은 군중들의 우렁찬 박수로 하여 여러번 중단되였다.

공동의 원수를 반대하여 한전호속에서 어깨겯고 싸워온 혁명전우들 중국인민친선대표단 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하고 진행된 기념대회와 군중대회는 조중 두 나라 인민들사이에 피로써 맺어진 전투적친선단결을 남김없이 시위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반대하며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에서 조중 두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투적친선단결을 더욱 강화발전시킬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 조선직업총동맹창립 스물다섯돐을 뜻깊게 기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전투적강령에 끝없이 고무되여 온 나라가 새로운 결의를 안고 혁명적대고조로 더욱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전체 인민들은 우리 당의 강유력한 인전대이며 믿음직한 방조자인 조선직업총동맹창립 스물다섯돐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이날을 맞는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은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며 로동계급의 대중적정치조직인 조선직업총동맹을 몸소 창건하여주시고 그를 오늘과 같은 강유력한 혁명대오로 강화발전시켜주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11월 30일 평양대극장에서는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조선직업총동맹 창립 스물다섯돐기념보고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보고회는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일군들, 중앙과 지방의 직맹일군들, 시내 로력혁신자들과 천리마기수들이 많이 참가하였다.

환영곡이 높이 울리는 가운데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시며 조선직업총동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일제히 일어서서 회장을 뒤흔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의 폭풍같은 환호와 그칠줄 모르는 우뢰와 같은 박수로써 그이를 열렬히 환영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회장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를 조선혁명실천에 구현하시면서 우리 인민을 오직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의 한길로 확고히 인도하고계시는 우리시대의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와 불타는 충성심으로 가득차있었다.

조선직업총동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발기와 직접적인 지도에 의하여 1945년 11월 30일에 창립된 이후 지난 스물다섯해동안 수령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쳐 그이를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그이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지지옹호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영광에 찬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달려왔다.

조선직업총동맹이 창립된지는 비록 스물다섯해이지만 그 력사적뿌리는 매우 깊으며 조선직업동맹운동은 40여년의 영광스러운 력사를 가진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오르신 초기부터 우리 나라 로동계급을 혁명의 령도계급으로 굳게 믿으시고 그들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힘있게 이끌어 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이 이루어져 조선로동운동의 고귀한 업적과 풍부한 투쟁경험이 쌓아졌으며 그것은 해방후 우리 나라 직맹운동의 귀중한 혁명적재부로 되었다.

조선민족해방투쟁을 찬란한 승리에로 이끄시였으며 조선로동운동의 영광스러운 뿌리와 직업동맹창건의 토대를 닦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조선혁명의 참모부인 우리 당을 창건하신데 뒤이어 로동계급의 대중적정치조직인 조선직업동맹을 창건하여주시였다.

직업동맹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나라 로동계급은 력사상 처음으로 맑스-레닌주의당에 의하여 지도되는 자기의 대중적이며 통일적인 정치조직을 가지게 되였으며 사회정치생활에 적극 참가하여 자기의 력사적임무를 더욱 철저히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직업동맹을 창건하시고 그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혁명발전의 매시기, 매계단마다 독창적인 직업동맹건설방침을 제시하시고 그가 나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면서 우리 나라 로동운동과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을 승리의 한길로 확고히 이끌어 주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인 배려속에서 직맹은 그이의 가르치심따라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힘차게 불러일으켜 해방후 평화적건설과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시기의 전행정에 걸쳐 영광스러운 승리의 로정을 걸어오면서 대중적영웅주의와 무궁무진한 창조적위력을 발휘하여 당과 혁명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다.

특히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위한 시기에는 안팎의 온갖 원쑤들의 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 인민경제의 강력한 추동력인 천리마운동을 진행함으로써 영웅적조선로동계급의 거대한 힘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로동계급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옹근 한세기 지어는 몇세기에 걸쳐서 한 공업화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단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빛나게 실현하여 해방전까지만 하여도 기술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진 식민지농업국이였던 우리 나라를 당당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켜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모범의 나라》의 천리마기상과 로동계급의 무궁무진한 창조적위력을 온 세상에 시위하였다.

오늘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로동계급의 사상성과 조직성, 문화성을 더욱 높이며 그 대열을 튼튼히 꾸리고 로동계급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더잘 수행할데 대한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사회의 모든 계층들에 대한 령도적역할을 강화하며 사상정신적풍모에서 모든 근로자들을 자기 모양대로 개조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광명한 미래에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실로 지난기간 우리 나라 로동운동과 직업동맹건설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조선직업총동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독창적인 직맹건설리론의 빛나는 구현이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와 두터운 배려, 끝없는 보살피심의 고귀한 열매이다.

보고회 전체 참가자들은 당의 유일사상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전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 수령께서 내세우신 전투적강령을 빛나게 실현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며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였다.

또한 그들은 철천의 원쑤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 일본군국주의 재침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남조선로동계급을 비롯한 애국적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과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재일동포들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혁명하는 전세계 로동계급과 련대성을 더욱 강화하며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쓸어버리고 자유롭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전세계 로동계급의 투쟁을 지지하여 계속 억세게 싸워나갈 결의를 다시 굳게 다졌다.

# 조선민주녀성동맹창립 스물다섯돐을 뜻깊게 기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여주시고 령도하고계시는 우리 당의 강유력한 인전대이며 믿음직한 방조자이며 녀성들의 대중적혁명조직인 조선민주녀성동맹창립 스물다섯돐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조선민주녀성동맹창립 스물다섯돐기념보고회 진행

11월 17일 평양대극장에서는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조선민주녀성동맹창립 스물다섯돐기념보고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보고회에는 녀성항일혁명투사들, 당 제5차대회에 참가하였던 녀성대표들과 각도 녀맹조직대표들, 녀성군무자들, 렬사가족들, 시내 녀맹일군들과 녀성로력혁신자들이 참가하였다.

환영곡이 높이 울리는 가운데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시며 조선민주녀성동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일제히 일어서서 회장을 뒤흔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의 폭풍같은 환호와 그칠줄 모르는 우뢰와 같은 박수로써 그이를 열렬히 환영하였다.

보고회는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였다.

김성애동지께서 《조선녀성해방운동에 대하여》라는 보고를 하시였다.

보고회장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녀성문제해결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면서 우리 나라에서 맑스-레닌주의적녀성해방운동의 시초를 열어놓으시고 그 발전을 위한 튼튼한 터전을 마련하여주시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해방후 조선민주녀성동맹을 창건하시고 그를 승리의 한길로 확고히 이끌어주고계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와 열화같은 충성심으로 충만되였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를 조선혁명실천에 구현하시면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시고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불패의 나라, 강대한 사회주의공업국가를 일떠세우시였을뿐만아니라 녀성운동의 강화발전과 녀성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명확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해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주시고 계신다.

그이께서는 열렬한 공산주의자이시며 탁월한 녀성혁명가이신 강반석어머님을 지도방조하시여 부녀회를 조직하시고 그 활동을 지도하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맑스-레닌주의적녀성해방운동의 시초를 열어놓으시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하신 녀성운동의 빛나는 전통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곧 조선민주녀성동맹을 창립하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시여 녀성들에게 남자들과 꼭 같은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주시고 그들을 혁명전사로, 국가와 사회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워주시였을뿐만아니라 전국 도처에 수많은 탁아소, 유치원, 아동병동과 편의봉사시설들을 내오시여 녀성들이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할수 있게 하여주시였다.

특히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자유와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있는 우리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까지 해방하여 녀성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력사적과업을 내세우시였다.

우리 녀성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와 육친적배려속에서 우리 나라 녀성운동은 강반석어머님께서 부녀회를 조직하신 때로부터 일제의 식민지기반에서 나라가 해방될 때까지의 반일민족해방투쟁시기, 해방후 평화적건설과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 시기의 전행정에 걸쳐 영광스러운 승리의 한길을 걸어오면서 당과 혁명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다.

오늘 우리 나라 녀성들은 최고인민회의로부터 리(읍, 로동자구, 동) 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인민주권기관들에서 3만 6,900여명의 녀성들이 대의원으로 일하고있으며 10만명이 넘는 녀성기사, 기수, 전문가들이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하고있다.

인민경제 로력구성에서 녀성들이 48%나 되며 이들은 어버이 수령님의 자애로운 사랑의 품속에서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자기 혁명초소에서 마음껏 일하고 배우며 당과 수령의 충직한 녀성혁명가로 자라나고있다.

## 녀맹창립 스물다섯돐기념 전국녀성국방체육대회

11월 19일 모란봉경기장에서는 녀성동맹창립 스물다섯돐기념 전국녀성국방체육대회가 열렸다.

경기장 발가운데는 각 도(직할시)에서 뽑혀온 선수들이 정렬하였고 관람석은 시내 녀성들과 근로자들로 꽉 들어찼다.

김성애동지를 비롯한 녀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군들과 녀성항일혁명투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영광스럽게도 며칠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수상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조선민주녀성동맹창립 스물다섯돐기념보고회를 성대히 가졌으며 오늘 또다시 그이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전국녀성국방체육대회에 참가하게되는 무한한 기쁨으로 하여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감사의 정과 불타는 충성심으로 가득차있었다.

《김일성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된 개막식에 이어 각 도(직할시) 선수단들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기를 정중히 모신 꽃자동차가 모터찌클의 호위하에 주석단앞을 지나갈 때 모든 참가자들은 일제히 일어서서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경모의 정과 충성의 열정을 담아 우뢰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대회에서는 먼저 국방체육선수단 녀성선수단들이 모범출연이 있었다.

모형로케트발사에 이어 모형항공기

들의 고무동력기, 피에기, 분사식속도기, 체공기들의 비행 그리고 침입한 적간첩들이 언제 어디에서 날리는 전파이건 모조리 잡아낼수 있음을 보여주는 무선통신 《여우잡이》 등이 련이어 진행되였다.

특히 녀성락하산선수들의 정확한 판단력과 능숙한 동작은 관중들의 이목을 집중하였다.

모범출연에 이어 경기장에서는 각 도 선수단들의 장애물극복, 독해물극복, 부상병나르기, 로농적위대복단추달기, 모자만들기, 바줄당기기, 사격경기 등이 진행되여 선수들의 불굴의 투지와 날랜 동작, 백발백중의 명중률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국방체육대회의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앞으로도 국방체육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육체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자신들을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 미제침략자들을 단매에 요정낼수 있는 일당백의 전투력을 더 굳게 다져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 3.8국제부녀절 예순돐을 뜻깊게 경축

전체 근로자들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치여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결정으로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한 총돌격전에 떨쳐나서서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으며 전세계적범위에서 반제반미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우리 나라 전체 녀성들은 전세계 진보적녀성들의 전투적련대성의 날인 3.8국제부녀절 예순돐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3.8국제부녀절 예순돐기념 중앙보고회가 있었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우리 녀성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3월 7일 오후 평양대극장에서 전세계 녀성들의 국제적명절인 3.8국제부녀절 예순돐기념 중앙보고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보고회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충직한 혁명전사로서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 싸워온 녀성항일혁명투사들,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자신을 부단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면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렬사가족들과 녀성로력혁신자들이 많이 참가하였으며 그리고 각 도에서 온 녀성대표들과 평양시내의 녀성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에 와있는 여러 나라 녀성들이 초대되였다.

어버이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게 된 영광의 회의장은 우리 녀성들을 낡은 사회의 2중 3중의 억압과 구속으로부터 해방하여주시고 그들을 나라의 참된 주인으로, 어엿한 사회주의건설자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와 열화같은 충성심으로, 그이의 혁명전사된 크나큰 영예와 자부심으로 충만되어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 전체 참가자들은 일제히 일어서서 회장이 떠나갈듯한 《김일성원수 만세!》의 우렁찬 환호와 그칠줄 모르는 우뢰와 같은 박수로써 경애하는 수령님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끓어넘치는 흠모의 정을 안고 그이를 우러러 열렬히 환호하는 녀성들, 오늘 그들이 누리고있는 값없는 행복은 정녕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현명한 령도, 그이의 육친적인 배려를 떠나서 결코 생각할수 없다.

애국가주악으로 시작된 보고회에서는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회장은 녀성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안겨주시였으며 자기들을 사회주의건설자로 키워주시고 승리와 영광, 행복에로 확고히 이끌어주고 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열화같은 충성심으로 충만되어있었다.

3.8국제부녀절이 제정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60년간 지구상에서는 국제 로동계급과 그리고 피압박인민들과 녀성들의 거세찬 투쟁에 의하여 위대한 혁명적변혁과 사회적진보가 이루어졌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이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3.8국제부녀절의 숭고한 투쟁리념이 가장 훌륭하게 실현되였고 녀성문제해결과 녀성운동발전에서 빛나는 승리가 이룩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녀성문제의 력사적근원과 계급적성격, 그 본질적내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녀성문제를 사회혁명의 근본문제의 하나로 인정하시고 녀성들의 사회정치적해방을 위한 투쟁을 로동계급의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시키시였으며 혁명의 매단계와 매시기마다 녀성문제해결을 위한 독창적인 길을 밝히시고 녀성운동을 승리에로 힘있게 이끌어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초기혁명활동시기부터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문제를 혁명에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여기시고 녀성들이 조국의 광복과 자신의 사회적해방을 위하여 힘을 합쳐 투쟁할수 있도록 녀성단체들을 조직하시고 그를 직접 지도하여주시였으며 녀성들을 유격대에 받아들여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열렬한 혁명가로, 공산주의투사로 키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당을 창건하신후 일찍부터 무르익혀 오신 녀성문제해결의 원대한 구상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조선민주녀성동맹을 창건하여주시고 이어 남녀평등권 법령을 발포하여주심으로써 녀성들이 자기의 정치적조직을 가지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수 있게 하여 주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녀성들은 세기적숙망을 실현하게 되였으며 녀성문제해결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 녀성들을 온갖 착취와 예속관계에서 완전히 해방하며 그들을 사회주의적근로녀성으로 만드는데 있다고 하시고 모든 녀성들을 사회주의적근로자로 만들기 위하여 그들이 사회주의적생산에 적극 참가할수 있는 광활한 길을 열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

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녀성들을 로동에 참가시키는 목적은 또한 그들을 온갖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평등한 사회적지위를 보장해주자는데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180페지)

그이께서는 도처에 유치원과 탁아소를 설치하여주시고 산전산후유급휴가제를 실시하여주시였으며 어린이를 셋이상 가진 모성로동자들에게는 6시간 로동을 시키고 8시간분의 로임을 주시고 각종 편의봉사시설들을 널리 내오게 하시는 등 녀성들이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광범히 진출하여 자기들의 힘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주시고 각별히 두터운 배려를 베풀어주시였다.

그리하여 지난날에는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무권리와 숨막히는 봉건적질곡에서 억울하게 살아오던 우리 녀성들이 오늘은 수령의 원대한 뜻을 높이 받들고 나라일을 의논하는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한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으로, 로력영웅으로, 공장, 기업소와 협동농장의 유능한 관리일군으로, 과학자, 작가, 예술인, 체육인으로 자라나 각이한 혁명초소에서 수령님의 참된 전사로서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빛나는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어버이수령께서는 또한 사회주의제도가 선 이후시기의 녀성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밝히심으로써 녀성해방문제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모든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그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승리에로 확고히 이끌어주시고 계신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의 위대한 구상인 녀성문제가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우리 나라 전체 녀성들은 자기들을 승리와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며 혁명과 건설의 전행정에서 언제나 그러하였던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수령께 충성다할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보고회에서는 남조선녀성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3.8국제부녀절 예순돐에 즈음하여 각도소재지들에서도 기념보고회가 진행되였다.

기념보고회들에 앞서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는 3.8국제부녀절 예순돐에 즈음하여 전체 녀성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8일 옥류관에서는 김성애동지의 참석하에 3.8국제부녀절 예순돐에 즈음한 녀성들의 친선모임이 있었다. 여기에는 우리 나라에 와있는 여러나라 외교대표들의 부인들과 기타 외국녀성들이 초대되였었다.

이상의 모임들에서는 참가자들 모두가 녀성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더욱 다그치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려는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또한 그들은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폭압에도 굴하지 않고 영웅적반미구국투쟁을 벌리고있는 남조선녀성들과 해외에서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며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억세게 싸우고있는 재일동포녀성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전세계 모든 진보적녀성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그들과의 전투적련대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 웨. 이. 레닌탄생 100돐을 기념

우리 인민은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과 함께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며 인류의 영재인 웨. 이. 레닌탄생 100돐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웨. 이.레닌탄생 100돐에 즈음하여 《동방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 관한 레닌의 위대한 사상은 승리하고있다》의 론문을 쓰시여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쁘라우다》에 발표하시였다.

또한 레닌탄생 100돐 평양시기념대회를 비롯하여 각지에서 기념회와 친선모임들이 진행되였으며 사진전람회도 열렸다.

레닌은 자기의 온생애를 국제로동계급과 전세계 피압박인민들의 사회적 및 민족적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위업에 바쳤으며 인류의 광명한 미래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불멸의 기여를 하였다. 레닌이 쌓아올린 위대한 혁명적업적과 공헌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자유와 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한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투쟁력사에 찬연히 아로새겨져있다.

맑스주의의 충직한 옹호자이며 계승자인 레닌은 온갖 기회주의적조류들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속에서 맑스주의의 혁명적진수를 견결히 고수하였으며 제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혁명시기의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맑스주의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고 더욱 풍부화시키였다.

레닌은 걸출한 사상리론가였을뿐만 아니라 사회주의를 과학적리념으로부터 현실로 전환시킨 탁월한 혁명가, 불굴의 실천적투사였으며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인류력사의 새 시대의 시초를 열어놓은 위대한 선구자, 개척자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레닌주의는 제국주의시기의 창조적맑스주의이며 프로레타리아혁명의 리론과 전략전술이며 낡은 사회를 뒤집어엎고 새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혁명적인민들의 위력한 무기이며 우리 시대의 위대한 전투적기치이다.》(《동방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 관한 레닌의 위대한 사상은 승리하고있다》, 단행본, 2페지)

레닌의 혁명적기치는 오늘 지구상의 광대한 대륙에서 높이 휘날리고있다.

레닌이 열어놓은 사회주의는 이미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적체계로 전환되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제국주의를 불안과 공포속에 몰아넣으며 더욱더 장성발전하고있다.

위대한 레닌의 기치, 그 불멸의 혁명사상은 우리 나라에서 승리하고있으며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혁명의 위대한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광복의 기치, 맑스-레닌주의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선혁명의 진두에 나서신것은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과 조선공산주의운동발전에서 영광스러운 혁명적 새 시대를 열어놓

은 위대한 사변이였으며 이때부터 레닌주의는 우리 나라에서 훌륭히 구현되고 가일층 발전하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철두철미 주체적립장에서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 관한 레닌의 사상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시였으며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최고형태로 하는 식민지민족해방투쟁로선을 새롭게 천명하시였으며 독창적인 맑스-레닌주의당창건방침, 인민혁명정부로선, 반제민족통일전선과 반제공동행동을 이룩할데 대한 창조적로선 등을 제시하시고 빛나게 관철하시여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을 이룩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에도 조성된 정세와 우리 혁명의 전도를 명철하게 통찰하시고 혁명의 매시기, 매단계마다 독창적인 혁명로선을 제시하시고 우리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오시였다. 해방직후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지체없이 반제자주적인 혁명적민주기지창설로선,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천재적인 군사전략과 령활한 작전적방침, 전후에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혁명적경제건설의기본로선, 농업협동화를 비롯한 독창적인 사회주의개조 방침 등을 제시하시고 빛나게 관철하여 오신 그이의 탁월한 혁명로선과 그의 빛나는 구현은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더욱 발전시킨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조국광복을 위한 민족해방투쟁시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조선혁명발전의 전행정은 맑스-레닌주의를 철저한 주체적립장에서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키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혁명리론이 빛나게 구현되고 승리해온 자랑찬 로정이다.

혁명의 위대한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을 끊임없이 새로운 승리에로 이끌어 오시였으며 오늘 우리 시대와 혁명발전이 제기하는 성숙된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으로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길을 환히 밝혀주고계신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문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두 요새를 점령할데 대한 문제, 사회주의하에서 계급투쟁과 사상혁명, 사회주의농촌문제,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경제지도관리문제, 사회주의국가의 방위문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종국적승리,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로 이행함에 있어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 등 우리 시대와 오늘의 혁명발전이 제기하는 성숙된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정연하게 밝혀주신 그이의 위대한 사상과 리론, 방침은 과학적공산주의리론을 전면적으로 발전완성시키며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을 승리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특출한 공헌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이 제기하는 근본문제들에 명확한 해답을 주시였으며 오늘의 력사적조건에 맞게 국제혁명운동의 리론과 전략전술을 새롭게 발전시키시여 그 승리적전진을 이룩하는데 탁월한 기여를 하고계신다.

미제국주의에 창끝을 집중할데 대한 세계혁명의 기본전략과 혁명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이 달라붙어 미제의 각을 뜰데 대한 전략, 국제적인 반미공동행동과 반미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방침, 미제와 함께 그 동맹자들 특히 일본군국주의 침략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방침 등은 미제를 격파하고 전반적제국주의체계의 멸망을 촉진하며 세계혁명의 승리를 앞당기는 가장 정확한 방침으로 된다.

오늘 우리 시대와 인류앞에 혁명승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광활한 앞길을 열어주시고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의 승리적진로를 명시해주신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혁명사상, 혁명리론은 민족해방혁명, 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모든 단계의 리론과 실천 그리고 세계혁명의 전략과 전술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심오하고 위대한 혁명사상, 혁명리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를 받들고 영웅적인 투쟁과 승리의 길을 걸어온 우리 당과 인민은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혁명리론의 불패성을 깊이 확신하고있으며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신심과 투지와 용기에 넘쳐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 웨. 이. 레닌탄생 100돐 평양시 기념대회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며 인류의 영재인 웨. 이. 레닌탄생 100돐을 맞이하여 4월 21일 평양에서 기념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기념대회에는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일군들 및 과학, 교육, 문화, 출판보도부문 일군들과 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으며 우리 나라에 와있는 쏘련대사와 대사관 관원들과 우리 나라에 머무르고있는 쏘련손님들,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이 초대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및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내각 제1부수상 김일동지가 기념보고를 하였다.

이어 우리 나라에 와있는 쏘련특명전권대사 엔. 게. 쑤다리꼬브가 연설하였다.

기념대회참가자들은 혁명위업에 자기의 전생애를 바치여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린 인류의 영재인 웨. 이. 레닌의 생애와 활동을 감회깊이 돌이켜 보면서 맑스-레닌주의기치,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세계혁명적인민들과 힘을 합쳐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분쇄하며 세계혁명운동의 승리를 앞당겨 나아갈 결의에 충만되여 있었다.

그들은 전체 조선인민과 함께 우리시대의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철석같이 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대외정책의 빛나는 승리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의 한분이시며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대외정책분야에서 우리 민족 력사상 일찌기 없었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있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가 대외활

동분야에서 달성한 위대한 승리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승리이며 그 구현인 우리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대외정책의 빛나는 결실이다.

항상 조선혁명뿐만아니라 세계혁명의 발전을 명철하게 통찰하시고 그의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활동의 정확한 방침과 방도를 명철하게 제시하시고 그 승리에로 확고하게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 년간 또다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에서와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의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천명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기치,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공산당, 로동당들과 단결하며 국제로동계급과 단결하며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단결하며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단결하여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계속 억세게 싸워나갈것입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07폐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에는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으로부터 출발한것으로서 우리 나라 혁명과 세계혁명의 전반적발전을 다그치기 위한 전략적방침들—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고 그 력량을 장성발전시키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한 국제반혁명력량을 고립약화시킬뿐만아니라 그를 종국적으로 멸망시키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립장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이 전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된 철저한 혁명적립장이 관통되여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에 관통되여있는 주체와 자주성, 철저한 반제적립장과 국제주의 이것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초기혁명활동과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일관하게 확고히 견지하여오신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의 기본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초기혁명활동과 항일무장투쟁시기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 깊은 뿌리를 두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서 대외정책의 원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시였다.

《…조선민족에 대하여 평등적으로 대우하는 민족 및 국가와 친밀히 련합하며 우리 민족해방운동에 대하여 선의와 중립을 표시하는 나라 및 민족과 동지적친선을 유지할것.》

이것은 맑스-레닌주의원칙에 립각하여 당시 조선혁명의 구체적실정에 부합되게 작성된 주체적이며 반제적인 대외정책의 원칙을 정식화한것으로서 오늘 우리 당 대외정책의 기본을 이룬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우리 당 대외정책의 이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해방후 새롭게 조성된 국내국제정세와 통일적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혁명의 구체적과업에 맞게, 세계혁명의 리익에 부합되게 전면적으로 계승발전되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국제관계분야에서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립장과 견결한 반제반미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 첫날부터 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고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을 존중하며 우리 나라와 평등한 립장에서 국가관계를 맺을것을 원하는 모든 나라들과 친선관계를 도모할것을 시종일관 천명하여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대외정책분야에서 이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90폐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자주적이며 반제적인 립장으로부터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력량인 사회주의력량과 민족해방운동을 비롯한 모든 반제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였을뿐만아니라 세계혁명운동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투쟁하여왔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과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지침으로 자기의 대외정책을 세우고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 내정불간섭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 정치, 경제적관계를 맺기 위하여 모든 힘을 기울여왔다.

대외정책에서 자주성을 견지하는것, 이것은 원래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원칙,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발전의 필연적요구로부터 흘러나오는것이며 그것은 또한 우리 나라가 처한 지리적위치와 환경, 력사발전의 특수성 그리고 우리 혁명의 간고성과 복잡성으로하여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된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나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어디까지나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과 신념에 기초하여 진행하여왔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리익에 맞는것이라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원칙적인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왔으며 언제나 주동적으로 모든 조치를 취하여왔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대외정책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였기에 지난 시기 대내외정세가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으며 나라의 민족적번영을 가져올수 있었다.

이와 함께 우리 인민은 민족해방운동의 오랜 투쟁경험을 통하여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확신하고 반제반미투쟁의 원칙적립장을 시종일관 견지하여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자주적이고 원칙적인 대외정책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활동에서 불패의 생활력을 나타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자주적이고 원칙적인 대외정책은 세계의 많은 형제당들과 나라들, 세계의 수많은 혁명조직들과 인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있으며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많은 혁명동지들과 벗들을 가지게 되였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끊임없이 강화되고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95폐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국제적지위가 높아지고 조선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과의 전투적련대성이 비상히 강화된것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

최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의 높으신 국제적권위와 그 영향력이 비할바없이 확대강화된데서 이룩된 결실이다.

지금 세계혁명적인민들과 많은 나라의 진보적단체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위대한 수령》으로, 《반제반미투쟁의 상징》으로, 《전세계 피압박인민들에게 실제로 해빛을 비쳐주는 위대한 태양》으로, 《폭풍의 시대 국제혁명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위대한 지도자》로 우러러 모시면서 그이께 절대적인 신뢰와 끝없는 흠모를 표시하고 있다.

오늘 세계 수많은 나라 혁명적인민들은 우리 시대의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자기들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는 지도적지침》이라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8월 우리 나라를 방문한 세일론국회의장은 평양시환영군중집회에서 한 연설에서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해방과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인민들에게 고무를 주는 원천입니다.…

레닌주의가 제국주의와 독점자본주의시대의 맑스-레닌주의였다면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제국주의가 패망하고 멸망하는 시대의 맑스-레닌주의입니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현시대의 맑스-레닌주의입니다.》라고 하였다.

우리 당 5차대회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다시금 당중앙위원회 총비서로 추대되신것과 관련하여 그이께 보내온 축하편지에서 베를린에서 공부하고있는 류학생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성원들은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당신께서 다시금 당중앙위원회 총비서로 추대되신것은 전반적조선혁명의 합법적요구일뿐만아니라 제국주의의 마지막 아성을 때려부실것을 목적으로 하는 세계혁명의 전반적요구입니다.》라고 하였다.

오늘 세계의 많은 당 및 국가 지도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들을 손가까이 두고 깊이 연구하고있다.

아세아의 한 저명한 사회활동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수상의 로작이야말로 창조적으로 적용된 맑스-레닌주의의 산 모범이며 류례없는 전형이다. …진정으로 혁명을 하려는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공산주의자로 되려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위대한 혁명사상에서 배워야 한다.》

지금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기와 혁명활동략력, 그이의 불후의 로작들을 대대적으로 번역출판하여 광범히 보급하고있으며 그를 위한 각종 조직들과 상설기관들이 수많이 나오고있다.

1970년도 1년간에만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연구 및 출판단체들이 30여개의 나라들에 새로 조직되였으며 그 나라 민족어로 그이의 천재적로작들이 300여만부 번역출판되였으며 또한 최근 1~2년간에 수령의 전기, 혁명활동략력을 비롯한 불후의 로작들은 근 400종의 세계 각국 신문과 잡지들에 게재되였는데 그 총부수는 무려 1억부에 달한다.

특히 일본, 프랑스와 세일론, 미국에서까지 그이의 근 반세기동안의 영광찬란한 전기 《김일성전》이 출판되였으며 네팔과 싱가포르, 아랍과 수단 그리고 서독과 영국, 스웨리예를 비롯한 세계 수많은 나라 신문과 잡지들이 그이의 전기를 《조선은 20세기의 영웅을 낳았다》는 표제밑에 크게 소개선전하였다.

그리고 오늘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김일성동지로작번역위원회》, 《김일성동지로작출판위원회》들과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 《김일성동지로작연구위원회》 등 여러 조직들을 내오고있으며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 《김일성도서관》 등이 수많이 설립운영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을 연구하기 위한 이러한 소조들과 위원회들은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5대륙의 여러 나라들에 근 100개나 조직되였다.

여기에 참가하고있는 로동자들과 청년학생, 지식인들, 사회활동가들과 혁명투사들, 각계각층 인사들은 위대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따라배우게 된것을 커다란 기쁨과 무한한 행복으로 여기며 거기에서 자기들의 투쟁방향과 방도를 찾고 크나큰 힘과 용기를 얻고있다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아프리카 학생들의 《김일성동지로작 및 혁명활동력사 연구소조》 성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보내온 편지에서 자기들의 결의를 다음과 같이 다지였다.

《만물이 태양을 우러러 따르듯이 우리는 당신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높이 받들고 나아갈것이며 당신의 혁명사상을 실천하는 투사로 될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새것을 지향하고 혁명을 하려 하며 그것을 위한 리론을 목마르게 기다리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말하여주는것이다.

이처럼 전세계 혁명적인민들과 진보적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배우며 그이께서 내놓으신 반제민족해방혁명에 대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자기들의 투쟁의 지침으로 삼고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리론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가 강화되고 우리 혁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이 더욱더 강화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는 국가간의 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과 자주권을 행사하면서 세계의 광활한 무대에 나서고있다.

1970년에만도 우리 나라는 세일론, 말디브제도공화국과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칠레와 무역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들과의 국가관계와 무역 및 문화관계가 전반적으로 더욱 활발해졌다.

이리하여 지금 우리 나라는 12개의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하여 25개의 아세아, 아프리카 신생독립국가들과 외교관계를 가지고있으며 아세아의 5개 신생독립국가들과 총령사관계를, 6개의 자본주의나라들에 무역대표부, 공보부를 두고있다.

또한 우리 나라는 세계의 근 80개 나라들과 무역 및 통상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공화국의 각기관 단체들은 106개의 여러 국제기구들에 가입하여 활동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으신 국제적권위와 그이의 주체사상이 대외활동분야에 "전면적으로 구현됨으로써 오늘 세계에는 어디를 가나 우리 인민을 적극 지지하며 동정하는 혁명동지들과 벗들의 대렬이 늘어나고있으며 조선인민의 불멸의 기상을 상징하는 공화국 기발은 세계에 이르는곳마다에서 높이 휘날리고있다.

이해 우리 인민은 정치, 경제, 문화부문 등 74개의 각종 국제회의와 국제기구회의들에 참가하였으며 우리 대표들이 참가한 국제회의들에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여 채택한 성명, 호소문, 결의문, 지시문 등은 무려 210여건이나 된다.

우리 나라의 대외관계가 오늘처럼 확대되고 그 명성과 권위가 오늘처럼 높았던 때는 일찌기 없었다.

오늘 우리 당과 공화국의 국제적권

위가 얼마나 높아지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이 얼마나 강화되였는가 하는것은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축하하여 여러 나라 공산당, 로동당들과 신생독립국가의 집권당들, 세계 여러 나라의 혁명조직들, 친선단체들, 국제기구 및 각국 사회단체들 그리고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활동을 연구하는 여러 단체들로부터 수많은 축하문과 축전을 수없이 보내왔으며 세계의 여러 나라 신문, 통신들이 기념론설을 발표하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보고를 광범히 소개선전한데서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해마다 더욱더 많은 여러 대표단들과 개별적인 손님들이 련이어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1970년 한해동안에만도 사회주의 나라 245개의 대표단을 비롯하여 중립주의나라 80여개의 대표단, 자본주의 나라 390여개의 대표단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또한 우리 혁명위업에 대한 지지와 동정자들이 날로 늘어남과 함께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이 더욱 강화되고있다. 세계의 더욱더 많은 나라와 인민들이 우리의 조국통일방침을 지지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있다.

이해 6.25~7.27 반미공동투쟁월간에 38개의 나라들에서 190여회의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를 가졌는데 여기에 34만여명이 참가하였다.

또한 유엔에서 《조선문제》토의시 우리의 립장을 지지하는 나라들의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있으며 례래와 같이 지난날 미제의 침략도구인 《언커크》에 망라되였던 나라들이 거기에서 탈퇴하고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고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관계분야에서 이룩한 이상의 성과는 주체사상을 대외관계분야에 구현하시고 그의 관철에로 당과 정부와 인민을 정확하게 이끄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세계혁명운동발전에 바치신 그이의 위대한 공헌에 의하여 이루어진 필연적결과이다.

## 반제반미투쟁의 강화와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지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과 정부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자유와 해방을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것을 대외정책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333페지)

조선인민은 언제나 피압박인민들의 편에 튼튼히 서서 그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성원하여왔으며 그들과 손을 맞잡고 미제를 우두머리로 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왔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철저한 반제반미적립장에 서서 제국주의의 침략정책과 전쟁책동을 반대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성원함으로써 반제투쟁과 민족해방운동의 급속한 발전에 거대한 기여를 하여왔다.

특히 1970년 11월에 있은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보고는 미제국주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며 미제가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는 모든 지역, 모든 나라에서 미제에게 공동으로 타격을 가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보고에서 현국제정세의 중요 특징, 최근 년간 국제무대에서 벌어지고있는 일련의 사변들과 반제반미투쟁의 전략전술적 방침, 특히 아세아혁명적나라들의 반제통일전선강화에 대한 심오하고도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과업에 대하여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는 온 세계를 지배하려는 변함없는 목적밑에 아세아와 중근동,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구라파와 대양주 그리고 큰 나라와 작은 나라 할것없이 세계의 모든 대륙, 모든 지역, 모든 나라들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으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위업에 악랄하게 도전하여나서고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96페지)

이해에도 미제국주의는 세계를 지배하려는 목적밑에 세계의 모든 지역, 특히 아세아에서 혁명력량의 급격한 장성을 가로막고 식민지통치를 부지하기 위하여 갖은 발악을 다하면서 인도지나를 비롯한 아세아의 전반적 지역에서 전쟁정책과 침략책동을 미친듯이 감행하였다.

아세아침략을 강화함에 있어서 닉슨도당은 악명높은 《새아세아정책》에 따라 일본 사또반동파 반동적결탁을 가일층 강화하면서 일본군국주의세력을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 리용하기 위하여 놈들의 해외팽창야망을 적극 사촉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세계전략을 짓부시기 위한 반제반미투쟁의 전략전술적 방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서는 아세아와 구라파,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큰 나라와 작은 나라 할것없이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반미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더욱 광범히 벌려야 합니다.

…오직 미제가 발붙이고있는 세계의 모든곳에서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며 모든 반제력량이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지지성원하여야만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성과적으로 파탄시킬수 있으며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유지공고화할수 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97~98페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반제반미투쟁의 전략적방침은 현시대에 대한 옳은 평가와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오랜기간 반제투쟁의 경험에 기초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방침으로서 그 위대한 생활력은 날을 따라 더욱더 커가고 있으며 세계혁명적인민들속에 혁명승리에 대한 굳은 신심을 안겨주고있다.

특히 오늘 아세아는 반제혁명투쟁의 기본무대로 되고있으며 미제를 녹여내는 치렬한 결전장으로 되고있다. 가렬한 반제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조선, 중국, 월남, 라오스, 캄보쟈를 비롯한 아세아의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의 반제반미통일전선이 더욱 강화되고 반미공동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아세아의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의 반제반미공동전선과 반미공동투쟁의 강화는 아세아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아세아를 건설하기 위한 아세아인민들의 정의의 위업의 승리를 촉진하는 믿음직한 담보로 되고있다.

이해에 혁명적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은 중근동과 아프리카에서도 새로운 앙양을 보여주고있다.

그리하여 미제침략자들은 이르는곳마다에서 얻어맞고 각을 뜯기우고있다.

1970년 공화국정부와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투쟁방침에 따라 우리 나라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세계

도처에서 감행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행위와 전쟁책동을 전세계에 광범히 폭로규탄하며 놈들을 국제적으로 더욱 철저히 고립시키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공화국정부와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은 수십차례에 걸쳐 미제와 그 주구들의 침략행위를 걸음마다 폭로분쇄하며 그를 단죄하는 성명, 비망록, 성토문 등을 발표하였다.

다른 한편 조선인민은 조선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려는 계획적책동의 한고리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 온갖 도발책동을 감행하는 미제침략자들의 음흉한 기도를 걸음마다 폭로분쇄하면서 련이어 우리 측 령해와 령공에 침입하여 각종 정탐행위와 파괴행위를 감행하는 놈들의 간첩비행기와 간첩선들에 단호한 징벌을 가하여왔다.

이것은 미제침략자들의 1967년 1월 《경호함 56호》, 1968년 1월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1969년 4월 대형간첩비행기 《이씨—121》, 1970년 6월 무장간첩선 《아이—2》 등 우리의 령해와 령공을 침입하여 부모한 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하는 놈들에게 단호한 징벌을 가하여 조선인민의 본때를 보여줌으로써 미제침략자들의 기도와 놈들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여지없이 분쇄해 버렸으며 싸우는 세계인민들에게 반제반미투쟁을 크게 고무하였다.

이해 또한 우리 나라에서는 수많은 대표단들을 국제회의들에 파견하여 조선에서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가로막으며 세계 도처에서 침략과 전쟁 행위를 감행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을 신랄히 폭로규탄하였으며 모든 반제력량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해 특히 아랍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국제국회의원대회, 세계 민청8차대회를 비롯하여 70여개의 각종 국제회의들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독립의 공고화를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고무하여 주었으며 그들에게는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한 리해를 더욱 깊게 하였다. 제3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 참가한 15개국 국가수반 및 외상들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책동을 규탄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것을 비롯하여 이해 여러 국제 기구, 국제회의들에서는 200여건의 각종 련대성 조치를 취하여 우리 인민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표명하였다.

공화국 정부와 우리 인민은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제의 동맹자인 일본군국주의와 서부독일군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아세아인민들과 세계진보적인민들 앞에는 미제국주의침략을 좌절시키는것과 함께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할 매우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01페지)

오늘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는 미제를 등에 업고 조선과 아세아나라들에 침략의 마수를 공공연히 뻗치고있으며 이른바 《대동아공영권》의 옛 망상을 실현하여 보려고 미쳐날뛰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조선을 첫공격대상으로 삼고 이미 남조선에 기어들기 시작하였으며 미제의 조종밑에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모험적인 전쟁계획까지 짜놓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작전지역으로 선포하는데까지 이르고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미제에 의한 일본군국주의의 재생과 미일간의 정치, 군사적 결탁의 위험성을 경고하였으며 특히 일본군국주의 침략성을 보지 않고 그를 미화하거나 가까이하는것은 미제의 지위를 강화하여주며 반제투쟁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데 대하여 경고하고 그를 견결히 반대하였다.

그리고 우리 인민은 일본군국주의와 미제의 아세아침략을 반대하며 미일반동들의 침략적결탁을 짓부시고 평화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일본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그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또한 공화국정부와 우리 인민은 서부독일복수주의 재생과 그의 복수주의적야망을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며 서부독일복수주의야망을 뒤받침해주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본성과 범죄적책동을 견결히 규탄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 인민은 서부독일군국주의 재무장을 반대하는 독일인민의 투쟁과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정당한 립장을 적극 지지하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또한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침략자들과 투쟁하는 동시에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조선인민은 반미구국항전에 떨쳐나선 영웅적웰남인민의 투쟁,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고 민족적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라오스인민의 정의의 투쟁, 미제의 범죄적침략행위를 반대하고 독립과 자주권, 중립, 령토완정을 위한 캄보쟈인민의 투쟁 등 아세아인민들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성원하였으며 또한 미제와 그 앞잡이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의 무력침략을 반대하며 민족적 독립과 존엄을 고수하고 강점당한 아랍땅을 되찾으며 팔레스티나를 해방하기 위한 아련, 수리아를 비롯한 아랍인민들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하였다.

조선인민은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하며 나라의 번영을 위한 알제리, 기네, 말리, 콩고(브), 남부예멘, 소말리아, 수단, 탄자니아, 잠비아, 부룬디 등 기타 여러 나라 인민들의 투쟁과 스미스도당의 일방적인 남로데시아 《독립》 책동을 반대하는 남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였다.

우리 인민은 자유와 해방을 위한 콩고(킨), 앙골라, 모잠비크, 뽀르뚜갈령기네를 비롯한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였다.

공화국정부는 꾸바혁명승리에 고무되여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방방곡곡에서 반미반독재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과떼말라, 우루과이, 브라질, 꼴롬비아, 베네수엘라, 아르헨띠나, 도미니까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였다.

공화국정부는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강력한 반미투쟁의 조류속에서 수립된 진보적칠레공화국정부의 반미자주적정책과 페루인민의 견결한 반미적립장을 지지하였다.

우리 인민은 또한 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며 자기들의 민주주의적권리와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자본주의 나라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에게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여 그들의 투쟁에 열렬한 성원을 보내였다.

## △ 웰남인민의 투쟁에 대한 지지

1970년에도 우리 인민은 웰남에서의 미제국주의자들의 야만적침략을 단호히 반대하며 영웅적웰남인민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성원하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웰남문제의 정당한 해결을 위한 웰남민주공화국정부의 립장과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의 립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우리 인민은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이 끊임없이 감행되고 있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웰남민주공화국에 많은 원조를 주었다.

이해 11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경제대표단은 느구옌 콘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월남민주공화국 정부경제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기간 그와 회담을 가지였다.

전투적친선단결과 협조의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회담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월남민주공화국에 경제 및 군사원조를 무상으로 제공할데 대한 협정이 체결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월남민주공화국 정부간의 1971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이 협정들은 공동의 원쑤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두 나라 인민들사이에 굳게 맺어진 전투적친선단결과 협조를 더욱 강화발전시킴에 있어서 크게 이바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월남에서 당하고있는 수치스러운 패배를 만회하기 위하여 야만적인 전쟁행위를 강화하고있는 미제의 범죄적침략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여 3건의 정부성명과 5건의 외무성 및 외무성대변인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들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미제의 전쟁확대정책과 야만적인 살륙만행을 준렬히 폭로규탄하고 월남문제해결을 위한 월남로동당과 월남민주공화국 정부의 공명정대한 원칙적인 립장과 미제침략자들을 종국적으로 타승할데 대한 굳은 결의를 표명한 월남민주공화국 정부와 영웅적 월남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함과 함께 형제적 월남인민의 투쟁을 자신의 투쟁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투쟁을 계속 적극적으로 지지성원할테 대한 립장을 표명하였다.

특히 이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월남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월남민주공화국 정부의 12월 10일부 호소문을 지지하여 발표한 12월 13일부 정부성명에서는 월남침략전쟁의 불길을 새로 확대하려는 미제의 흉악한 책동을 아세아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을 반대하는 엄중한 도발행위로서 단호히 규탄하고 월남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월남민주공화국 정부의 12월 10일부 호소문에서 표명된 립장을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성명에서는 미제침략자들이 《전쟁의 월남화》정책과 《평정계획》을 실현해보려고 애쓰면서 남부월남에서 야만적인 살륙전쟁을 계속하고있으며 라오스와 캄보쟈에 대한 침략행위를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데 대하여 견결히 규탄하면서 제놈들의 침략군과 추종국가 및 괴뢰들의 군대를 걷어가지고 지체없이 무조건 물러갈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 성명에서는 월남문제는 남부월남공화림시혁명정부의 10개항목의 전반적해결책과 보충적인 8개항목에 기초하여 해결되여야 한다는 월남민주공화국과 남부월남공화림시혁명정부의 립장을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성명에서는 또한 조선인민이 반미구국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월남인민의 투쟁을 끝까지 지원할데 대한 립장을 다시금 표명하였다.

## △ 꾸바인민의 투쟁에 대한 지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꾸바혁명을 보위하며 꾸바인민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것을 사회주의나라들과 전세계 혁명적나라 인민들의 신성한 국제주의적의무라는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제국주의의 침략과 도발 책동을 짓부시면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며 사회주의나라들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꾸바공산당과 꾸바혁명정부의 립장을 견결히 지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미제와 그 주구 반혁명고용병악당들이 꾸바공화국의 령해를 침범하여 정상적인 어로작업을 하던 꾸바어선을 공격하여 그를 침몰시키고 선원들을 랍치해가는 날강도적인 적대행위를 감행한 것을 규탄하여 5월에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꾸바어선에 대한 미제와 반혁명고용병악당들의 해적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여 발표한 피델 까스뜨로수상의 5월 13일부 공보에서 천명한 꾸바공화국 혁명정부와 꾸바인민의 확고한 립장과 정당한 요구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그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또한 성명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이 꾸바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책동을 당장 중지하고 랍치한 꾸바의 선원들을 무조건 꾸바로 돌려보낼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만약 미제국주의자들이 꾸바인민을 반대하는 침략과 파괴책동에 계속 매여 달린다면 그들은 전세계인민들로부터 강도적침략자로서 더욱 준엄한 규탄을 면치못할것이며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할것이라고 규탄하였다.

이해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꾸바인민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파괴암해책동, 그리고 례년에 드문 불리한 자연조건을 용감히 이겨내면서 사탕생산에서 꾸바력사상 일찌기 없었던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열렬히 축하하였다.

조선인민은 꾸바혁명승리 열두돐기념일, 꾸바인민의 쁠라야 히론전투승리 아홉돐기념일을 계기로 각종 행사들을 조직하여 꾸바인민의 혁명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냈다.

또한 조선-꾸바단결위원회,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조선민주녀성동맹은 7월 26일 무장봉기 열일곱돐에 즈음하여 7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의 기간을 《꾸바인민과의 련대성월간》으로 설정하고 영웅적꾸바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투적친선단결과 련대성을 일층 강화하기 위한 군중집회들과 각종 행사들을 광범히 조직진행하였으며 수많은 축전과 축하편지들을 보내였다.

또한 《꾸바인민과의 련대성월간》에 조선—꾸바단결위원회,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조선민주녀성동맹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미제를 반대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에서 꾸바인민과 굳게 손잡고 영원히 함께 나아갈데 대한 조선인민의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 △ 라오스인민의 투쟁에 대한 지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라오스애국전선의 령도밑에 손에 무장을 튼튼히 틀어쥐고 반미구국투쟁을 세차게 벌리고있는 라오스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이해 10월 평양시인민위원회, 조선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는 공동주최로 라오스독립절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기념집회를 가지였다.

기념집회에서 조선인민은 영웅적반미구국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형제적 라오스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였으며 라오스인민을 반대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에서는 라오스에 관한 제네바협정이 체결된 날에 즈음하여 라오스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지성원하는 군중집회를 가지였으며 라오스의 해당조직들에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였다.

공화국외무성은 1962년 라오스에 관한 제네바협정이 체결된후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이 계속 이 협정을 란폭하게 파괴유린하고 라오스인민을 반대하는 범죄적침략전쟁을 확대하면서 해방지역에 대한 야수적폭격만행을 감행하는데 대하여 준렬히 폭로규탄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들에서 라오스애국전선의 통제밑에 있는 해방지역들을 야수적으로 폭격하고 군사적공격작전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는 미제의 침략책동을 폭로규탄하면서 조선인민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침략을 반대하고 평화롭고 독립된 중립적이며 민주주의적인 통일되고 번영하는 라오스를 건설하기 위한 라오스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 굳은 련대성을 보내였다.

또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라오스문제는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라오스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하며 라오스문제는 라오스인민의 근본리익에 부합되는 제네바협정과 라오스애국전선이 천명한 1970년 3월 6일 다섯개항목에 따라 해결되여야 한다는 정당한 립장을 견결히 지지하였다.

성명들에서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싸우는 라오스인민의 편에 튼튼히 서서 그들의 정의의 반미구국항전에서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할때까지 굳게 손잡고 나아갈데 대한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 △ 캄보쟈인민의 투쟁에 대한 지지

조선인민은 미제와 그의 충실한 주구들을 때려부시고 나라를 해방하기 위하여 영웅적인 투쟁을 벌리고있는 캄보쟈인민의 투쟁위업을 지지하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항쟁의 불길속에서 태어난 캄보쟈민족통일전선의 결성과 그 령도하의 왕국민족련합정부의 수립을 열렬히 축하하였으며 또한 조선인민은 캄보쟈인민과 민족해방군이 이룩한 승리를 자기의 승리와 같이 여기면서 그를 적극 지지하였다.

이에 공화국정부는 캄보쟈인민을 반대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강도적 침략행위를 단호히 규탄하여 정부성명(5월 4일, 10월 11일)과 외무성 및 외무성대변인성명을 여러차례 발표하였다.

성명들에서는 캄보쟈에 대한 미제침략군의 대규모적침공이 캄보쟈의 독립과 자주권을 란폭하게 짓밟는 행위일뿐만아니라 전체 인도지나인민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는 범죄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은 5월 4일 발표된 정부성명에서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조작된 우익반동정권이 애국적캄보쟈인민의 강력한 항거에 부닥쳐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캄보쟈에 대한 직접적무력침공을 감행하는데 이른 미제침략자들을 준렬히 폭로규탄하였다.

성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아세아와 세계평화에 직접 위험한 후과를 미치게될 인도지나전역에서의 사태발전을 결코 수수방관할수 없으며 공동의 원쑤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형제적월남인민, 라오스인민, 캄보쟈인민들의 정의의 반미구국항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모든것을 다할것이라는것을 엄숙히 선언하였다.

성명들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미제의 강도적무력침공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고있는 캄보쟈인민의 편에 언제나 튼튼히 서있을것이며 그들의 성스러운 투쟁을 모든 힘을 다하여 계속 적극 지원할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와 우리 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 있으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한 제국주의자들의 멸망을 촉진시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고있다.

##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의 강화발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나라들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원칙에 서서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며 공동의 목적을 위한 하나의 투쟁대렬에 뭉쳐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단행본, 25페지)

사회주의나라들은 세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국제로동계급의 계급적단결의 요구에 의하여 하나의 투쟁대렬에 뭉쳐왔으며 모든 사회주의나라 인민들은 다같이 자유롭고 행복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공통된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의 존재와 그 단결된 힘은 제국주의침략과 전쟁정책을 제어함으로써 전세계적범위에서 민족해방운동, 로동운동, 민주주의운동의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전세계인민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하여 주고있으며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그러므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이 나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왔다.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우리 당의 자주로선을 대외관계분야에서 구현한것으로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근본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이다. 이로부터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우선 조선혁명을 잘하는것이 사회주의나라들의 위력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을 강화하는 길이라는것을 인정하고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국제혁명운동의 전반적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여왔다.

이해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께서 제시하신 대외정책의 방침에 따라 자립적이며 원칙적인 립장에서 맑스-레닌주의순결성을 확고히 고수하면서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많은 힘을 기울여왔으며 이 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와 우리 인민은 월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자신에 대한 침략으로 인정하고 그를 견결히 규탄하면서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월남인민의 반미구국항전에 할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하였으며 또한 꾸바에 대한 미제의 끊임없는 침략과 파괴책동으로부터 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형제적꾸바인민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동시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조선로동당대표단과 8개의 공화국정부급대표단을 포함하여 300여개의 여러 대표단을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에 파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및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비서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용건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이 웨. 이. 레닌탄생 100돐 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쏘련을 방문하였다.

최용건동지는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웨. 이. 레닌탄생 100돐을 경축하는 쏘

련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쏘련최고쏘베트와 로련최고쏘베트합동회의에서 연설하였다. 연설에서 레닌의 탄생 100돐에 즈음하여 그에게 영광을 드리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쏘련정부와 쏘련인민에게 축하를 보내였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은 6월 중화인민공화국정부의 초청으로 미제의 조선침략전쟁도발 20년과 대만강점20년에 즈음하여 진행되는 련대성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은 가는곳마다에서 중국인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며 중국에서 진행되는 조선조국해방전쟁 20주년을 기념하며 미제국주의자들의 대만강점을 규탄하는 베이징, 상해, 심양 등 군중대회에 참가하여 연설하였으며 중국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의 중국방문을 통하여 피로써 맺어진 조중 두나라 인민들사이의 불패의 친선단결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다른 한편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주은래동지, 쏘련 당및정부대표단(8월),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민족회의 및 국가쏘베트 대표단(6월), 뽈스까인민공화국 세임대표단(5월), 웽그리아애국인민전선 전국리사회 및 전국평화리사회 대표단(5월), 꾸바인민친선대표단(8월), 윁남민주공화국 정부경제친선대표단(11월) 등 9개의 당 및 정부급 대표단을 포함하여 240여개의 대표단을 받아들이였다.

###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인 주은래동지의 우리 나라 친선방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인 주은래동지가 1970년 4월 5일부터 7일까지 우리 나라를 공식적으로 친선방문하였다.

주은래총리와 그 일행은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동안 조선인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이것은 형제적중국인민에 대한 조선인민의 두터운 친선의 정의 표시이다.

방문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인 주은래동지 사이에 형제적친선의 분위기속에서 회담이 진행되었다.

회담에서는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기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회담에서 특히 피로써 맺어진 조중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투적우의와 친선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는것이 공동위업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인정하면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강화하며 여러 분야에 걸쳐 호상 협조관계를 일층 발전시켜 나가려는 두나라 인민들의 확고한 결의와 념원을 표시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인 주은래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한 조중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과 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킴에 있어서 새로운 기여로 된다.

우리 나라와 형제적 사회주의 나라들사이의 여러 분야에 걸친 끊임없는 래왕과 경제문화교류의 발전은 이미 맺어진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며 전체 사회주의나라들 사이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신생독립국가들과의 친선관계의 발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민족적독립국가들과 우호적관계를 맺으며 발전시키는것을 대외정책의 중요한 한 고리로 삼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95페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시종일관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민족적독립국가들과 친선관계를 맺으며 이미 맺어진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다.

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싸우는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그들을 성의껏 도와주었으며 이 나라들과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많은 힘을 돌려왔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광대한 지역에서 수세기동안 제국주의에 의하여 억압당하고 략탈당하여온 수억만 인민들이 저주로운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낡은제도를 짓부시고 새생활을 창조하는 길로 나가고있다.

오늘 새로 정치적독립을 이룩한 신생독립국가들과 혁명적인민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이께서 이룩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경험에서 배우려고 하고있으며 그이를 찾아 뵈옵고 방문하는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여러 신생독립국가들의 집권당들, 나라의 해방과 독립의 공고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여러 나라 혁명조직들과 싸우는 인민들로부터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와 대회에서 혁명의 위대한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또다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로 추대되신데 대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내왔으며 그이께서 하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투쟁의 지침으로》, 《혁명의 교과서로》 삼고 연구하면서 출판물들을 통하여 광범히 소개선전하고 있는것이다.

또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완전한 평등과 호상 존중의 원칙에서 아세아, 아프리카의 민족적독립국가들과 관계를 맺었으며 이미 맺어진 친선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이해 우리 나라는 말디브제도공화국과 대사급외교관계를 새로 맺었고 세일론과는 대사급외교관계에로 높이였으며 칠레와는 정부급 무역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이미 외교관계를 맺고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들과의 우호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였다.

우리 나라는 또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신생독립국가들과의 경제 및 기술협조와 과학문화교류를 더욱 확대발전시키였다.

우리 나라는 20여개의 나라와 80여건의 경제협정, 과학기술협정, 문화협정, 체신협정, 방송 및 통신협정, 령사협정 등을 체결하였다.

우리 나라는 신생독립국가들과의 경제 및 문화교류를 발전시키는것과 함께 친선적인 호상 래왕과 접촉을 더욱 강화하였다.

공화국정부는 이해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을 비롯하여 여러 대표단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생독립국가들에 파견하였다.

우리 나라 당및정부대표단의 이라크방문(7월) 최고인민회의대표단이 레바논을 비롯하여 중근동나라들을 방

(1월)하였으며 이외도 정부대표단과
부친선대표단들이 탄자니아(3월),
단(9월), 적도기네, 소말리아, 칠
(11월) 등 여러 나라를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 대표단은 이 지역을 방문
는 기간 이곳 인민들에게 보내는 조
인민의 친선적인 인사를 전하였으며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욱 확대발전시키였다. 그리고 이 나
인민들로 하여금 우리 나라에 대한
해를 더욱 깊게 하였다.
우리 나라 여러 대표단의 동남아세
및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라들에 대한 친선방문은 미제를 우
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대하는 공동투쟁에서 우리 나라와
지역 나라들 사이에 이미 맺어진 친
과 단결을 더욱 강화발전시키였으며
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
다.
다른 한편 우리 공화국정부의 초청
의하여 이 해 많은 나라대표단들이
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 △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이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
며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와 그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용건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캄보쟈국
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
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하누크친왕 부인과 함께 캄보쟈인민
친선의 사절이 6월 15일부터 7월
까지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였다.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동안 노로돔
하누크친왕과 그 일행은 평양시를
롯하여 이르는곳마다에서 조선인민
열렬한 환영과 환대를 받았다.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
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 그리고 그
행은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기간
은기반경대혁명학원, 조선인민군구
대들, 경제, 교육문화기관들을 방
하였다.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
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 군중대회
참가하여 연설하였으며 대만을 해
하기 위한 중국인민의 투쟁을 지지
는 평양시 군중대회에도 참가하
다.

김일성수상과 노로돔 시하누크친왕 사이에 여러차례 회담을 진행하였다. 혈제적친선과 전투적단결의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회담에서는 현국제정세문제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의 강도적침략으로 말미암아 캄보쟈와 인도지나지역에 전쟁의 불길이 확대되고있으며 아세아의 전반적지역에서 전쟁의 위험이 커가고있는데 대한 문제, 조선인민과 캄보쟈인민사이의 친선과 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며 미제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그 밖의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았다.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우리 나라 국가방문은 반미공동투쟁에서 조선인민과 캄보쟈인민사이의 불패의 전투적단결과 밀접한 협조를 가장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며 아세아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반대하는 혁명적인민들의 반미공동전선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기여로 되였다.

## △ 수단민주주의공화국 혁명지도리사회 위원장 겸 수상인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소장이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수단민주주의공화국 혁명지도리사회 위원장이며 수상인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소장이 1970년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였다.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소장과 그 일행은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 동안 평양시의 경제, 교육문화 기관들과 구분대를 돌아보았으며 이르는곳마다에서 조선인민의 열렬한 환영과 환대를 받았다.

방문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와 수단민주주의공화국 혁명지도리사회 위원장이며 수상인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소장 사이에 따뜻하고도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회담이 진행되였다.

회담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수단민주주의공화국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으며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방문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단민주주의공화국에 경제, 문화 및 기술협조를 줄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수단민주주의공화국정부사이의 협정이 체결되였다.

수단민주주의 공화국 혁명지도리사회 위원장이며 수상인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소장의 우리 나라 국가방문은 조선과 수단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새로운 획기적계기로 되였으며 아세아, 아프리카인민들의 반제반미공동전선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밖에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정부대표단(6월), 상부볼따공화국정부친선대표단(4월), 잠비아공화국정부친선대표단(4월), 쎄일론국회대표단(8월), 적도기네공화국정부 대표단(11월), 네팔왕국정부친선대표단(12월) 등 15개 정부급 및 국회대표단을 비롯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친선적나라들과 민족적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나라들로부터 165여개의 대표단을 받아들이였다.

이해 우리 나라를 방문한 여러 나라 대표단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감탄을 금치못하였으며 미제를 철거시키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이 해 우리 나라를 방문한 외국의 많은 벗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단호히 규탄하면서 조선인민의 정당한 자위적조치와 견결한 립장에 대하여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이상에서 보여주는바와 같이 우리 혁명발전에서와 세계혁명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있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적활동에서 이룩한 성과는 오직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령도의 현명성의 빛나는 열매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어 앞으로도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하에 세계혁명력량들과 단결하여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계속 견결히 싸워나갈것이다.

# 국　　　방

##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군은 일당백의 불패의 혁명무력

###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물두돐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나라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총돌격전을 벌리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물두돐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이 경사스러운 날을 맞이하여 전체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우리의 인민군대를 몸소 창건하시고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키워주시였으며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를 언제나 승리와 영광의 길로 이끄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위대한군사전략가이신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감사와 영광을 드리였다.

일찌기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맑스-레닌주의적혁명무력인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의 침략군대와 맞서 영웅적으로 싸워 승리하였으며 이 간고한 투쟁행정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룩하시고 혁명적무력건설에서 지도적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을 창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복잡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심과 함께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와 인민들의 절박한 념원을 정확히 반영하여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혁명전통을 계승한 정규적인 현대적 인민무력을 건설할데 대한 새로운 로선을 제시하시고 모든 준비를 갖추신 기초우에서 몸소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였다.

조선인민군대는 바로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시기 수령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과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루어진 혁명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 적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과 열렬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 숭고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정신, 상하일치, 군민일치의 기풍을 자체에 체현하고있으며 수령께서 창조하신 백전백승의 전략전술과 풍부한 군사정치적경험들을 직접 계승하고있다.

조선인민군의 창건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자위적인 군사사상의 구현으로서 우리 혁명발전에서 획기적사변이였다.

조선인민군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강력한 정규군을 가질데 대한 력사적숙망을 실현하고 자기의 당, 자기의 정권과 함께 자기의 혁명무력을 가진 당당한 자주독립국가의 존엄있고 힘있는 인민으로 되였다,

조선인민군의 창건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또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계급적 및 민족적 원수들의 침해로부터 조국의 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게 되였으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을 주동적으로 전개할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창건하시였을뿐만아니라 그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무장한 일당백의 군대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끊임없는 지도를 주시였으며 육친적인 배려를 베푸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핌속에서 우리의 인민군대는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으로, 현대적군사과학과 기술로 튼튼히 무장한 강철의 군대로 장성강화발전되였으며 자기의 영웅적이며 희생적인 투쟁으로서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혁명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하였다.

특히 미제무력침공을 격퇴하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인민군대는 위대한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조국과 인민 앞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웠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력사에 길이 빛날 업적을 쌓아올렸다.

미제는 최신무기로 장비한 제놈들의 방대한 침략무력과 15개 추종국가 고용병들을 수많이 끌어들여 우리 인민을 단숨에 굴복시키려고 발광하였다.

이 준엄한 시각에 우리의 영웅적인 인민군장병들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그이의 탁월한 전략작전적방침과 전법에 무한히 고무되면서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지키기 위하여 원수격멸의 성전에 떨쳐나서 무비의 영웅주의를 발휘하였다.

그들은 수령께 충성다할 오직 한마음으로 가슴을 불태우면서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원수들을 무자비하게 족쳤으며 조국의 한치한치의 땅을 피로써 지켜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군과 인민은 불굴의 영웅적투쟁을 전개하여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눕힘으로써 원수들에게 패배를 안기고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영예를 지켰을뿐만아니라 미제의 전쟁확대음모를 분쇄하고 사회주의나라들의 안전과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수호하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또한 전세계 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위업에 불멸의 기여를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전쟁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은 미국력사에서 처음으로 참혹한 군사적패배를 당하였으며 이것은 미제국주의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의미하는 것이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289페지)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위대한 승리는 미제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여지없이 깨뜨려버렸으며 놈들과 싸우면 능히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전세계 인민들에게 보여주었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한 영웅적조선인민군장병들은 전후에도 수령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 군사로선관철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그를 구현하시였으며 인민과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우리 당 군사로선을 제시하시고 그의 관철에로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를 조직동원하시였다.

지금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당의 유일사상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되여있으며 언제어데서나 수령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그이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하기 위한 불타는 결의로 차고 넘치고 있다.

이와 함께 인민군대안에는 상하일치, 동지적우애와 자각적규률, 군민일치의 아름답고 고상한 기풍이 온 대오를 지배하고있다.

수령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전군간부화방침이 빛나게 실현된 결과 모든 군인들이 자기의 직무는 물론 한등급이상 더 높은 군사적직무를 원만히 감당할수 있게 되였다.

또한 전군현대화방침의 실현에 의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최신무기로 장비되였으며 그 어떤 강대한 적도 능히 때려부실수 있는 강력한 방어수단과 공격수단을 다 갖춘 현대적무력으로 자라났다.

또한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방침이 훌륭히 실현되여 로동자, 농민, 인테리, 청년학생 할것없이 모든 사람이 다 총을 메고있으며 전연과 후방 할것없이 이 나라의 모든 지역에 철옹성같은 방위시설들이 생겨났을뿐만아니라 생산시설들까지 다 요새화되였다.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자라난 우리 인민군대는 미제침략자들이 조선전쟁에서 참패의 교훈을 찾지않고 또다시 조선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매일과 같이 감행하는 군사적도발책동을 모조리 짓부셔버렸으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믿음직하게 보위하고있다.

인민군대는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우리 나라 령해와 령공에 기어들어 군사정탐행위를 감행하는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통채로 사로잡고 대형간첩비행기 《이씨—121》을 공중에서 박산냈으며 무장간첩선 《아이-2》를 바다속깊이 처넣음으로써 원수들의 도발에 단호한 징벌을 안기였다.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이 모든 빛나는 승리와 성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군사사상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높은 군사기술지식을 소유한 일당백의 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앞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이 있을뿐이다.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민군구분대를 찾으시여 조선인민군창건 스물두돐을 맞는 군인들을 축하하시였다

조선인민군대를 직접 창건하시고 그를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현대화된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키워주신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2월 8일 조선인민군리종우동무소속구분대를 찾으시고 명절을 맞는 군인들을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뜻깊은 명절을 경축하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 이 구분대 전체 지휘관들과 군인들은 이날 끝없는 행복과 기쁨에 휩싸여있었다.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을 뵈옵고 그이께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씩씩하게 자라난 자기들의 름름한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는 기쁨을 안고 이른 아침부터 병영앞에 정렬한 전체 군인들의 가슴마다는 한없이 높뛰고있었다. 군인들과 함께 그들의 가족들도 명절옷차림에 꽃묶음을 들고나와 줄지어 서있었다.

구분대정문에는 명예위병대가 정렬하여 있었다.

일편단심 수령께 끝없이 충성다하며 그이의 부름이라면 언제든지 목숨바쳐 싸울 결의에 가득차있는 이곳 군인들,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군대가 걸어온 지난 스물두해의 영광찬란한 전투적행로를 돌이켜보는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한몸에 지니시고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일제를 때려눕히고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시였으며 그 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과 인민군대의 깊고도 억센 뿌리를 마련하시였고 해방후 항일무장투쟁의 직접적계승자인 인민군대를 몸소 창건하시고 그를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키워주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 열화같은 충성심이 어리여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구분대에 도착하시였다.

순간 《김일성원수 만세!》의 우렁찬 환호가 방선의 높고 낮은 산발을 메아리치며 힘차게 울려퍼졌다.

군인들과 그 가족들은 목청껏 만세의 환호를 올리면서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를 항상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에로 인도하여주고계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를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신 다음 군인들의 열광적인 환영에 손을 들어 답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구분대 훈련설비들과 교양실, 침실들을 돌아보시면서 모든것이 군인들의 전투정치훈련과 생활에 알맞게 잘 꾸려진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어 구분대군인들의 전투정치훈련과 생활에 대하여 친어버이심정으로 일일이 알으시고 보살펴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날 전투정치훈련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더욱 높이고 전투준비를 완성하며 군인들의 조직정치생활을 강화하는 사업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교시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날 또한 구분대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고 구분대군인들이 출연한 예술공연을 보시였으며 구분대군인들

파 함께 점심을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몸가까이 모시고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물두돐을 뜻깊게 맞이한 이곳 구분대군인들은 수령의 두리에 더욱 철석같이 뭉치여 그이께 끝없이 충직한 항일유격대원들처럼 수령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상하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기풍을 더욱 높이 발양하여 그이께서 내놓으신 독창적인 군사로선과 구분대를 찾으시여 주신 강령적교시를 철저히 관철할것을 굳게 결의하였다.

실로 우리 당과 조선혁명의 력사적뿌리인 위대한 혁명전통의 창시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몸소 이룩하신 혁명무력건설의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교양육성하신 항일혁명투사들을 골간으로 하여 해방후 항일무장투쟁의 직접적계승자인 인민군대를 창건하시였으며 그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육성강화하시였다.

오직 위대한 혁명사상과 심오한 혁명리론, 탁월한 령도력과 천재적인 군사전략을 겸비하시고 불굴의 의지, 비상한 혁명적전개력과 높으신 덕성을 지니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인민군대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확고히 무장되고 풍부한 전투경험을 쌓았으며 현대적군사과학과 최신기술로 튼튼히 장비된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자라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들고 그이께 끝없이 충성다해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다만 승리만이 약속되여있다는것을 심장으로 느끼고있는 그들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그이에 대한 충성심은 변하지 않으며 오직 그이의 사상의지대로 숨쉬며 행동하며 수령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자기의 청춘도 생명도 다바쳐 싸워나아갈 굳은 결의들을 다지고 또 다지였다.

또한 대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승리의 신심드높이 조국의 통일과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아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 조선인민군창건 스물두돐기념평양시 경축대회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물두돐을 뜻깊게 경축하여 2월 7일 평양대극장에서는 평양시경축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축대회장에는 항일혁명투사들과 조국보위의 혁명초소를 철벽으로 지켜선 인민군(인민경비대) 장병들, 한손에는 마치와 낫을 들고 다른 한손에는 총을 들고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에 승리의 붉은기를 휘날리기 위한 총돌격전에서 날에날마다 새기록, 새기적을 창조하고있는 로농적위대원들을 비롯하여 시내 근로자들, 렬사가족들, 인민군후방가족들, 영예군인들로 꽉들어찼다.

우리 나라에 와있는 각국 외교대표들과 대사관무관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대회주석단에는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동지들과 근로단체 책임간부들, 공화국영웅들과 모범전투원들이 올랐다.

경축대회는 애국가주악으로 시작되였으며 대회에서는 기념보고가 있었다.

기념보고를 듣는 참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조선인민군창건 열병식에서 《…우리 인민군대는 민주조선의 정규군대로서 비록 오늘 창건되기는 하지마는 실지로는 오랜 력사적뿌리를 가진 군대이며 항일유격투쟁의 혁명전통과 고귀한 투쟁경험과 불굴의 애국정신을 계승한 영광스러운 군대입니다.》(《우리의 혁명과 인민군대의 과업에 대하여》, 6페지) 라고 하신 교시를 가슴깊이 되새기면서 지난 22년간 어버이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고 그이께 끝없이 충실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혁명력사에 찬란한 업적을 기록한 인민군대의 영광스러운 전투적로정을 긍지높이 돌이켜보고 있었다.

# 김책정치군관학교와 조선인민군 제867군부대창립기념일들을 뜻깊게 기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온 나라가 새로운 혁명적열의로 들끓는 환경속에서 김책정치군관학교창립 스물다섯돐과 조선인민군 제867군부대창립 스무돐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서 김책정치군관학교 및 조선인민군 제867군부대교직원들을 표창하시였다.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김책정치군관학교창립 스물다섯돐과 조선인민군 제867군부대창립 스무돐에 즈음하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군사로선과 군사교육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함으로써 부대의 전투력강화에 크게 기여한 이곳 학교 교직원들을 각각 표창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수령이신 김일성원수님의 표창장과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들이 11월 20일 현지에서 각각 진행되였다.

영광스럽게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표창장과 선물을 받은 이곳 교직원들과 모임에 참가한 전체 군인, 종업원들의 얼굴마다에는 독창적인 천재적군사로선을 제시하시고 몸소 그 실현을 지도하시여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키워주신 혁명의 위대한수령 김일성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심, 그이의 참된 혁명전사로 자라나고있는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이 어려있었다.

이어 공화국훈장과 메달 수여식도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표창장과 선물 그리고 공화국훈장과 메달을 받은 교직원들과 종업원들을 비롯한 전체 참가자들은 오늘의 이 영광을 가슴깊이 새기고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자신을 더욱 철저히 무장하며 수령

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 과업을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그이께서 베풀어주신 크나큰 배려와 높은 신임에 충성으로 보답할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 김책정치군관학교와 조선인민군 제867군부대에서 창립기념일을 맞아 각각 기념보고회 진행

기념보고회는 11월 20일 현지에서 각각 성대히 진행되였다.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된 보고회들에서는 먼저 피직원학생들에게 보내온 축하문과 축기들이 전달되였다. 김책정치군관학교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조선인민군 제867군부대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축하문이 각각 전달되였으며 축기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것이 각각 전달 되였다.

이어 보고회들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락독이 있은 다음 학교와 군부대에 국기훈장 제1급이 각각 수여되였다.

그리고 기념보고들이 있었다.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 내각의 축하문에서 지적하고있는 바와 같이 김책정치군관학교와 조선인민군 제867군부대는 경애하는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보살핌에 의하여 실로 자랑찬 승리의 로정을 걸어왔다.

김책정치군관학교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터전을 잡아주시고 그이의 깊은 배려와 극진한 보살핌속에서 창립되였다.

김책정치군관학교의 창립은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이룩한 혁명전통을 계승하여 해방후 새 조국건설과 미제와 그 주구들의 침략책동으로부터 우리 조국의 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수호할수 있는 혁명무력을 창건할데 대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방침을 실현하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김책정치군관학교가 창립됨으로써 조선로동당은 로동계급과 우리 인민의 새로운 정규군대의 정치군사간부를 키워내는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지난 25년간 김책정치군관학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와 사랑속에서 자기앞에 부과된 혁명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하였다.

김책정치군관학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이께서 제시하신 정규적 인민무력건설방침을 관철하여 해방후 로동자, 농민 출신의 우수한 정치군사간부를 키워냈으며 미제무력침공자들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모든 난관과 시련을 영웅적으로 이겨내면서 수령께 충직한 정치일군들을 수많이 키워 전선에 내보냄으로써 전쟁승리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전후시기에도 김책정치군관학교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우리 당의 독창적인 자위적군사로선을 높이 받들고 정치군사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정치간부들을 길러냄으로써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다음으로 조선인민군 제867군부대도 인민공군무력의 창건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발기에 의하여 창립된 후 지난 스무해동안 그이의 깊은 배려와 극진한 보살핌속에서 영광에 찬 승리의 길을 걸어왔으며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하여왔다.

군부대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적교육전통을 계승한 우리 당의 공군간부양성기관으로서 수령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이께서 제시하신 공군무력건설방침을 높이 받들고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정치군사적으로 준비된 수많은 비행사, 기술성원들을 짧은 시일내에 키워내여 인민군대의 공군무력을 급속히 확대강화하고 미제공중비적들을 때려부시게 함으로써 조국해방전쟁승리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전후시기에도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되고 군사기술적으로 준비된 공군간부들을 수많이 길러냄으로써 공군무력을 일당백으로 강화하며 나라의 방위력을 다지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그리고 오늘 군부대는 당의 믿음직한 공군간부양성기지로, 항공과학의 전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이 모든 자랑찬 성과들은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배려에 의해서만 이룩될수 있었다.

보고회들에서는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시며 인민군대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맹세문들을 채택하였다.

맹세문들에서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자신들을 더욱 철저히 무장하며 수령께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그이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보답할것을 맹세하였다.

그리고 맹세문들에서는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였다.

##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이어받아 조선인민군대에 대한 전인민적인 뜨거운 지성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는 충성심으로 불타고있는 우리 나라 전체 근로자들은 수령께서 이룩하신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더욱 높이 발양하여 인민군대의 전투력강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1970년 우리 나라 전체 근로자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로선에 따라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자기 앞에 맡겨진 전투적과업들을 두몫, 세몫씩 해제끼면서 사회에 유익한 일을 힘있게 벌려 나라에 많은 리익을 주고 있고, 비

형기, 함선들과 중무기들을 마련하여 조선인민군대에 드렸다.

우리 나라 전체 근로자들속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이 운동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시기에 항일유격대원들이 인민을 위함이라면 자기 목숨도 서슴없이 바쳤으며 인민은 항일유격대를 모든 힘을 다하여 도와나선 그 전통적미풍을 이어받은 애국적운동이다.

경애하는 수령께서 이룩하신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계승한 영웅적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은 한손에는 마치와 낫을, 다른 한손에는 총을 튼튼히 틀어잡고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전으로 점령하기 위하여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로 힘차게 내달리였다.

그리하여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은 더많이 생산하고 더많이 절약하여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 크게 이바지하면서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목적에서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기념 《직맹호》땅크를 비롯한 중무기들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마련한 선물들을 황해남도 직맹원들은 조선인민군 리정호, 림동철동무소속구분대에, 함경북도내 직맹원들은 한명원동무소속구분대에, 평양시직맹원들은 박기석, 조영구동무소속구분대에 각각 드리였다.

또한 농업근로자들도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앞두고 7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로 알심있게 일하여 또다시 만풍년을 이룩하였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빈땅에 호박, 역삼, 콩당콩, 해바라기 등을 심고 잘 가꾸며 약초캐기, 산과실따기, 짐승잡이 등을 군중적운동으로 벌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기념 《농근맹호》비행기와 땅크를 비롯한 중무기들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마련된 지성어린 선물들을 평남도 농근맹원들은 조선인민군 강진옥동무소속구분대에, 강원도 농근맹원들은 박철호동무소속구분대에 각각 드리였다.

녀맹원들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수상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을 힘있게 벌렸다. 특히 평양시내 녀성들은 맡은바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해제끼면서 공장과 농촌, 사무직장과 가정들에서 짬시간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피마주누에고치생산과 빈땅에 호박, 수세미오이, 역산, 약초 등을 심어 국가에 많은 리득을 주면서 마련한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기념 《녀맹호》땅크를 조선인민군 박기석동무소속구분대에 드렸다.

또한 경애하는 수령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육성단련되여 언제나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며 일하기 좋아하는 청년학생들은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앞두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높이면서 이르는곳마다에서 좋은일하기운동을 힘있게 벌려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물두돐을 맞이하여 마련한 《사로청호》땅크를 인민군대에 드렸다.

그들은 이미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하여 나라를 돕고 인민군대를 원호하는 여러가지 좋은일하기운동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특히 이들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애국로동과 절약운동을 힘있게 벌려 《민청호》의 이름을 가진 비행기, 땅크, 함선들을 전선에 보내고 많은 조국보위기금을 마련하여 나라에 바침으로써 인민군대의 전투력강화와 전쟁승리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전후시기에도 역시 《사로청호》땅크와 기타 중무기, 그리고 전기기관차와 자동차, 뜨락또르 등 수령님께 충성어린선물을 마련하여 나라에 바쳤다.

그런데 1970년 또다시 조선인민군창건 스물두돐을 맞이하여 전국의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은 사회주의조국보위에 대한 자기들의 높은 책임감과 조국의 초소를 믿음직하게 지켜선 인민군장병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담아 마련한 《사로청》호땅크를 전국 청년학생련합모임에서 조선인민군 황층손동무소속구분대에 드렸다.

사로청원들과 함께 전국의 소년단원들도 《조선인민군창건20주년기념 소년호》함선을 마련하여 조선인민군 강원호동무소속구분대에 드리였다.

소년단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시기 항일유격대를 모든 힘을 다바쳐 도운 아동단원들의 모범을 본받아 그리고 《조선인민군창건 20주년기념 소년호》땅크, 비행기, 함선을 드리기 위한 운동을 벌릴데 대한 강원도 평강군내 소년단원들의 애국적발기를 지지하여 혁명과 건설에 유익한 좋은일하기운동을 힘있게 벌려왔다.

그리하여 이미 1968년 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을 계기로 《소년호》땅크헌납금을, 1969년도 2.8절을 계기로는 《소년호》비행기헌납금을, 1970년 2.8절을 계기로는 《소년호》함선헌납금을 마련하였던것이다.

개성시청소년학생들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기념 《사로청호》, 《소년호》땅크를 또 마련하여 조선인민군 구분대에 드렸다.

이와 같이 전인민적인 지원으로 인민군대에 드린 땅크, 비행기, 함선 등을 비롯한 중무기들에는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인민군대의 무장장비를 일층 강화하며 조국보위에 완벽을 기하여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려는 우리 나라 전체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불같은 마음이 깃들어있다.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함으로써 천대와 멸시, 불행과 고통속에서 신음하는 남녘땅형제들을 하루속히 구원하려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이 또한 담겨져있는것이다.

이것은 오직 우리 전체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직한 열렬한 혁명가로, 공산주의자로, 믿음직한 혁명전사로, 조선혁명을 짊어지고 나갈 참된 근위대 결사대로 철저히 준비되고 있음을 실증해주는것이다.

미제침략자들은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일당백으로 준비된 영웅적인민군대와 우리 인민은 한몸이되여 원수들이 어느때, 어떤곳에서 덤벼든다하여도 놈들을 한놈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소탕해버릴것이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높은 군사기술지식을 소유한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군과 우리 인민앞에는 언제나 승리만이 있을뿐이다.

# 미제침략자들의 조선정전협정위반행위

1953년 조선정전협정의 체결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며 조선문제의 종국적해결이 실현될때까지 일체 적대행위와 무장행동

완전한 정지를 보장할것을 담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정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전협정을 격히 준수하면서 조선에서 정전을 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나라의 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성의있 노력을 다하여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 의 통일문제가 자주적으로, 민주주 적기초우에서 평화적으로 해결되여 한다는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조 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떠한 외세의 간섭없이 조선인민자신 손으로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 하며 통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중앙 부를 수립할것을 제의하였으며 조국 일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정 한 방안들과 합리적인 제의들을 거 해왔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노 을 다하여왔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은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한 방안 과 합리적인 제의들을 모조리 거부하 였다. 지어 놈들은 나라가 남북으로 라진채 25년동안이나 생사여부를 르고있는 부모, 처자, 친척간에 편 거래를 하며 기아선상에서 헤매는 조선실업자들과 고아들을 받아들여 업과 생활을 보장해주며 남조선인민 이 겪고있는 온갖 불행과 고통을 덜 주기 위하여 필요한 물자들을 제공 주겠다는 우리의 동포애적제의마저 조리 거부하였다.

이처럼 미제침략자들의 온갖 방해책 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민은 우리 나 가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된지 5년, 조선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7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남북으로 갈 진채 헤아릴수 없는 민족적불행과 통을 겪고있다.

오늘 남조선은 미제침략자들의 식민 약탈정책과 침략과 전쟁정책으로 미암아 4천년래의 민생고에 허덕이 인간생지옥으로 전변되였을뿐만아 라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침략자들은 르는곳마다에서 테로와 학살, 방화, 탈, 습격, 부녀자에 대한 릉욕, 무 한 주민들에 대한 사살 등 천인공노 만행을 거리낌없이 감행함으로써 조선을 암흑의 땅으로 전변시켰다.

이와 같이 미제침략자들은 조선의 화적통일을 반대하며 남조선인민들 오늘의 모든 불행과 고통속에 몰아 으면서 제놈들의 침략정책의 야망을 현해보려고 조선정전협정을 계통적 로 파괴유린하여왔다.

미재침략자들은 정전협정에 서명한 그날부터 17년이 지나온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루도 정전협정을 위반하지 않은날이 없다.

미제침략자들은 지난 20년전 조선전쟁을 도발하던 때와 같은 수법으로 남조선에서 군사기지를 대대적으로 신설 확장하며 여러가지 작전장비들을 끌어들이는 한편 군사력을 확대강화하며 전쟁연습을 미친듯이 벌리면서 공화국 북반부를 반대하는 엄중한 군사적도발을 련이어 감행하여왔다.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짓밟고 계통적으로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는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나라의 정세는 극도로 긴장되여있으며 임의의 시각에 미제에 의하여 또다시 전쟁이 터질수 있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 미제침략자들이 새 전쟁도발을 발광적으로 준비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정전협정을 계통적으로 위반하고 전후 남조선에서 자기의 군사적잠재력을 쉬임없이 강화하여왔으며 특히 최근년간에 그것을 더욱 격증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미제가 남조선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새로운 침략전쟁을 발광적으로 준비하고있는것과 관련되여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단행본, 87페지)

최근년간 미제는 우리 나라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려는 책동을 로골화하면서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무력을 증강하며 그 전투력을 더욱 보강하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제놈들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을 계기로 《남조선주둔미군시설을 늘이고 림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떠들어대면서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을 증강하기 위하여 남조선에 《미제5공군전방사령부》와 《미18군야전지원사령부》를 설치하고 미국본토와 일본 및 태평양지역으로부터 200여대의 전투폭격기와 1만 2,000여명의 공군지상병력 그리고 각종 살인무기들과 작전장비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였다.

1969년에 미제는 제놈들의 간첩비행기 《이씨—121》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수많은 무력을 동원하여 71기동함대라는것까지 새로 무어 우리 나라 근해에 배치하고 공공연히 적대행위를 감행하면서 전쟁도발을 꾀하는 한편 제5공군소속 2개 전투비행대와 미공군방공사령부소속 1개 전투폭격기대대를 남조선에 끌어들였다.

다른 한편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에서 제놈들의 군사적잠재력을 강화함에 있어서 미제침략군의 유지비에 비하여 25분의 1밖에 안드는 값싼 식민지고용군대인 남조선괴뢰군병력을 증강하고 그 군사장비를 현대화하는데 광분하였다.

그것은 《푸에블로》호사건과 간첩비행기 《이씨—121》사건을 계기로 더욱 발광적으로 감행되였는바 수개의 괴뢰군전투사단, 기갑려단, 전투비행단을 새로 편성하고 예비역을 소집하며 괴뢰군병사들의 제대를 중지시키고 복무년한을 연장하는 등으로 괴뢰군병력을 대대적으로 늘이였다.

이와 같이 괴뢰군병력을 대대적으로 늘이고있을뿐만아니라 신형무기와 작전장비들을 계속 끌어들여 남조선괴뢰군에 넘겨줌으로써 그의 군사장비의 현대화를 발광적으로 촉진시켰다.

1970년도에는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을 강점한 제놈들의 침략군의 《감축》을 떠벌이면서 그 연막뒤에서 남조선에 비행기, 함선을 비롯한 신형무기와 작전장비들을 끌어들였으며 제놈들의 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의 무력증강에 미쳐 날뛰였다.

미제침략자들이 퍼뜨린 기만적인 《감축》설이란 제놈들의 남조선강점을 합리화하고 남조선에 더 많은 살인무기들을 끌어들이는 동시에 조선침략전쟁에 일본군국주의침략세력을 동원하여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도발준비를 더욱 교활하고 음흉하고 악랄하게 다그치려는 흉악한 정치적음모의 산물이다.

그런데 미제침략자들은 제놈들이 퍼뜨린 《감축》설의 기만정체가 온 세상에 드러나자 《감축》을 《전면중지》할것이라느니, 《미군의 전면철수》는 없을것이라느니 하면서 지금까지 뒤집어썼던 이른바 《감축》설의 기만적가면마저 완전히 벗어던지고 더욱 로골적으로 새 전쟁 도발책동을 다그쳤다.

미제침략자들은 1970년초에 《에프—5비》제트전투기 15대와 수십대의 《티—33》제트기, 《씨—54》대형수송기 그리고 수만정의 《엠스엠지》 기관단총과 500만딸라분에 달하는 작전장비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괴뢰군에 넘기주었으며 뒤이어 《에프—4팬텀》전투폭격기로 편성된 미전략공군사령부소속 2개의 전술비행단과 여러대의 《오2에이》군용비행기를 남조선에 끌어들였다.

또한 미제침략자들은 《에프—105》제트전투폭격기로 편성된 오끼나와강점 미제침략군 제313공군사단소속 제18전술비행대대를 남조선에 끌어들여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작전임무》를 수행케하는 범죄행위를 감행한데 뒤이어 남부월남침략전쟁터에서 살륙적인 《전투경험》을 쌓은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 끌어들였으며 여러대의 《에스—2》해군초계기를 끌어들여 남조선괴뢰군에 넘겨주었다.

또한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사령부는 태평양 및 아세아 지역에 있는 미제침략군의 이른바 《재배치》의 한 고리로써 일본 이자와공군기지에 있는 《에프—4팬톰》전투폭격기로 편성된 항공단을 남조선의 군산공군기지로 끌어들이며 또한 일본의 이다즈께공군기지에 있는 《이씨—121》정찰기로 편성된 항공대를 남조선의 광주공군기지로 끌어들이려 하고있다.

이미 공화국북반부 령공에 침입하여 정탐비행을 하다가 우리의 단호한 징벌을 받고 격추된바있는 《이씨—121》간첩비행기와 같은 형의 간첩비행기를 직접 남조선에 끌어들여 대피하기로 한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 도발음모가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보여준다.

이것은 미제침략자들이 떠벌인 미제침략군의 《감축》설이란것이 얼마나 교활하고 악랄한 정치적모략책동이였는가를 여지없이 폭로해주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이와 같이 제놈들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적인 전쟁도발음모를 위하여 악명높은 호전광들과 전쟁미치광이들을 남조선에 잇달아들여보내여 《한미고위정치회담》이니 뭐니하는 전쟁모의를 벌리면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공을 가상한 《군사연습》소동에 미쳐 날뛰였다.

1970년에도 미제의 전쟁사환군들이 남조선에 꼬리를 물고 기어드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남조선의 곳곳에는 군사기지들과 군사시설들이 신설확장되고 제주도를 미제의 새로운 핵기지로 전변시키며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을 임의의 시각에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에 내몰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전쟁연습소동을 빈번히 벌리였다.

미제침략자들은 1970년초에 수십척의 여러가지 해군함선들과 항공기들을 동원하여 실전을 방불케하는 이른바 《한미련합대잠수함훈련》을 벌린데 이어 그 무슨 《야전군 준계대기훈련》이니 뭐니하는 따위의 화약내 풍기는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소동을 매일과 같이 벌리였다.

또한 미제침략자들은 이른바 《한영해군해병대련합상륙작전》과 《전진상륙작전》을 벌리였으며 이해 9월에는 미제침략군 7함대소속 전투항공모함 《아메리카》호를 비롯한 많은 구축함, 호위구축함들과 함께 우리 나라 동해에 끌어다놓고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상륙작전훈련》을 벌렸다.

이 모든것은 남조선을 방대한 군사력이 집결된 일대 병영으로, 새 전쟁도발을 위한 련병장으로 전변시킨 미제국주의자들이 그곳을 침략기지로 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얼마나 미쳐날뛰고있는가를 보여주고있다.

## 미제침략자들이 감행한 각종 군사적도발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에서 새 전쟁도발준비에 미쳐날뛰고있을 뿐만아니라 직접 침략전쟁도발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각종 군사적도발행위를 악랄하게 감행하면서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은 특히 최근년간에 더욱 격화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강도적본성을 더욱더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무장도발을 련일 감행하고있으며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이끌어 가고있습니다.》**(우와 같은책, 83페지)

미제침략자들은 조선정전협정에 서명하고 그 잉크가 채 마르기전부터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여 여러가지 군사적도발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여왔다. 놈들이 감행한 갖은 군사적도발행위와 정전협정위반행위는 1953년 7월 정전직후부터 1970년 4월초까지 우리측이 정식으로 항의한것만 하여도 무려 7만 7,500여건에 달한다.

미제침략자들의 무모한 군사적도발행위는 1966년 10월 당시 미제의 전쟁두목이였던 죤슨이 남조선에 기여들어 군사분계선일대를 싸다니면서 새 전쟁도발을 고취하고 돌아간 후와 특히 1969년초 호전광 닉슨도당이 미제의 새로운 전쟁두목으로 등장하여 《조선반도는 세계의 다음번 폭발점으로 될수 있다》느니, 《제3차대전은 구라파에서가 아니라 아세아에서 발생할것》이라느니 하면서 조선에서 또다시 전쟁을 도발할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은것과 때를 같이하여 더욱 악랄하게 계획적으로 감행되였다.

이 전쟁미치광이들의 부추김을 받은 남조선강점미제침략군우두머리놈은 비무장지대에서 공화국북반부를 향하여 포사격을 가해도 일없다는 도발적인 명령을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의 각 부대에 하달하였으며 남조선괴뢰무리들은 《정전협정은 완전히 휴지화》되였다느니, 《필요한 전투개시도 불사》한다느니 하면서 분별없이 날뛰였다.

이때로부터 조선에서 긴장상태는 더욱더 첨예화되였으며 모든 사태발전은 미제가 전쟁준비단계로부터 전쟁을 직접 도발하려는 단계로 넘어섰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미제침략자들은 바로 조선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려는 계획적책동의 한 고리로서 1967년 1월 동해안 우리측 연해에서 《경호함56호》침입사건을 일으키고 뒤이어 1968년 1월에는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을 일으켰으며 1969년 4월에는 대형간첩비행기 《이씨—121》사건을, 1970년 6월 5일에는 또다시 무장간첩선 《아이—2》침입사건을 일으켰다.

우리 인민은 우리의 령해와 령공을 침입한 미제침략자들의 무모한 군사적도발행위에 대하여 매번 단호한 징벌을 가하였으며 조선인민의 본때를 보여주었다.

여기에서 미제침략자들은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1970년에도 계속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지상, 해상, 공중에서 우리측을 반대하는 여러가지 군사적도발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1970년 미제침략자들의 조선정전협정위반행위는 우리측이 적측에 항의한것만 하여도 무려 1만 1천 200여건에 달한다.

미제침략자들이 우리측을 반대하여 감행한 온갖 군사적도발행위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전쟁을 일으킬 구실을 마련할 목적으로 오직 전쟁전야에만 하는 상투적인 침략행위이다.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우리측을 반대하는 미제침략자들의 적대적도발행위가 날을 따라 더욱더 격화되고있을뿐만아니라 악랄성을 띠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의 군사적도발행위가 얼마나 악랄성을 띠고 감행되고있는가 하는것은 이해 8월부터 몇달사이에 적들이 림진강 하류와 한강하구 일대에서 우리측에 쏘아댄 포탄과 총탄수만 하여도 정전후 지난 13년동안에 적들이 우리측에 쏘아댄 포탄과 총탄수의

13배를 넘는 무려 11만 4,600여발에 이르고있는 사실이 잘 말하여준다.

1970년도 미제침략자들이 지상, 해상, 공중에서 감행한 갖은 군사적도발행위에 대하여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서 우리측이 폭로규탄한 그 자료의 일부만도 다음과 같다.

**【지상에서】** 미제침략자들은 1969년 11월 14일부터 1970년 1월 21일까지의 사이에 19차에 걸쳐 장갑차와 106, 7미리 박격포를 비롯한 수많은 중장비들과 중무기들을 비무장지대안에 끌어들이였다. 놈들은 또한 1969년 11월 13일부터 1970년 1월 24일까지의 기간에 비무장지대안에 비법적으로 끌어들인 106, 7미리 박격포를 비롯한 각종 중무기들과 자동무기들로 107차에 걸쳐 우리측 지역과 군사분계선 일대에 수천발의 포탄과 총탄을 쏘아대는 적대적행위를 감행하였다. 이 기간 또한 미제침략자들은 정탐, 파괴행위를 목적으로 수많은 무장간첩들을 우리측 지역에 침입시켰으나 놈들은 정탐임무를 수행하지 못한채 우리 인민군초병들에 의하여 모조리 사로잡혔거나 사살되고 말았다.(1월 26일, 군사정전위원회 제298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은 군사정전위원회 제298차회의 이후에도 계속 비무장지대안에 106.7미리박격포와 57미리무반충포를 비롯한 각종 중무기들을 비법반입하여 우리측 지역과 군사분계선일대를 향하여 100여차에 걸쳐 포탄과 총탄을 발사하는 엄중한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또한 놈들은 9명의 무장간첩들을 우리측 지역에 침입시켰으나 정탐임무를 수행하지 못한채 우리 인민군초병들에 의하여 사로잡혔거나 사살되였다. (3월 30일, 군사정전위원회 제299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은 군사정전위원회 제300차회의(4월 6일) 이후에도 또다시 우리의 국가 및 군사비밀을 탐지하기 위하여 수많은 무장간첩들을 우리측 지역에 침입시키는 악랄한 범죄행위를 감행하였으나 놈들은 우리 인민군초병들에 의하여 모조리 사로잡혔거나 사살되고말았다. 이 기간 또한 미제침략자들은 비무장지대안에 땅크, 장갑차 그리고 106.7미리박격포를 비롯한 각종 중무기와 자동무기를 끌어들이는 한편 우리측 지역과 군사분계선일대에 총포사격을 가하는 로골적인 적대행위를 계속 감행하였다. 4월 29일 하루에도 무려 1시간에 걸쳐 비무장지대안에 있는 우리측 초소를 향해 1만여발의 중무기사격을 가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이 감행한 이러한 총포사격행위는 군사정전위원회 300차회의가 있은후 즉 4월 6일부터 5월 14일까지 무려 136차에 달하며 놈들이 쏘아댄 포탄과 총탄은 1만 6,200여발에 이른다.

또한 미제침략자들은 5월 8일 우리측에 대한 무장습격을 목적으로 무장악당들을 집단적으로 비무장지대 우리측 지역에 침입시켰으나 경각성 높은 우리 인민군초병들에게 발각되자 황급히 꽁무니를 빼고말았다. (5월 15일, 군사정전위원회 제301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은 6월 3일 16시경 전선중부에 10여명의 무장악당들을 동원하여 57미리무반충포와 각종 자동무기들로 우리측 초소를 향하여 포사격과 총사격을 가하였으며 이날밤 23시 45분경에는 전선서부 림진강 남안 69고지와 48고지에서 각각 3문의 기관포와 대구경기관총으로 비무장지대 우리측 부분과 림진강 북쪽 우리측 지역을 향하여 도발적인 총포사격을 가하였다. 이 총포사격을 신호로 하여 그 부근 일대의 림진강 남안의 여러곳에서 이날밤 24시까지 10여문의 기관포와 기관총 그리고 수많은 자동무기들로 무려 수만발의 총포탄을 우리측 지역에 쏘아대였다.

이밖에도 미제침략자들은 5월 13일부터 6월 6일까지의 기간에 비무장지대안에 비법적으로 끌어들인 81미리박격포를 비롯한 여러가지 중무기와 자동무기들로 우리측 지역과 군사분계선일대에 수많은 포탄과 총탄을 쏘아대는 적대행위를 감행하였으며 5월 14일 18시경에는 무장습격을 목적으로 여러놈의 무장악당들을 우리측 지역에 침입시켰다가 우리 인민군초병들에게 발각되여 놈들은 꽁무니를 빼고 말았다. (6월 9일, 군사정전위원회 제302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은 6월 23일과 24일에 여러가지 중무기와 자동무기들로 전선동부 월비산 동남방 비무장지대 우리측 초소를 향해 수백발의 사격을 가한것을 비롯하여 6월 8일부터 6월 26일까지의 기간에 81미리 박격포를 비롯한 중무기와 자동무기들로 우리측 지역과 군사분계선일대에 수많은 포탄과 총탄을 쏘아대는 엄중한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또한 놈들은 이 기간 여러대의 장갑차와 각종 중무기들을 비무장지대에 끌어들였으며 수많은 무장간첩들을 우리측 지역에 침입시켰다. (6월 29일, 군사정전위원회 제303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은 7월 1일 57미리무반동포사격을, 7월 31일과 8월 10일 밤에는 서해 강화도에서 우리측 초소를 향하여 포사격과 중무기 및 자동무기들로 수백발의 사격을 감행하였다. (8월 11일, 군사정전위원회 제304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은 9월 7일밤 12시경부터 다음날 아침 7시 20분경까지에 림진강계선의 오금리와 48고지, 그리고 대동리 일대에 이미 배치하여놓고있던 105미리곡사포와 81미리박격포 및 대구경기관총과 경기관총으로 우리측 50.4고지와 림한리 일대에 여러차례에 걸쳐 수백발의 포탄과 1만여발의 총탄을 쏘아댔으며 이보다 앞서 8월 30일 9시경부터 군용비행기의 엄호하에 수백명의 미제침략군과 괴뢰군들을 김포반도의 강안인 대룡리부근과 48고지일대에 전개시켜놓고 림한리계선 우리측 초소를 향하여 기관총과 자동무기들로 일제히 사격을 가하였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60미리 및 81미리박격포사격을 가하는 무장도발행위를 일으켰다.

이밖에도 미제침략자들은 8월 11일과 8월 14일에 여러차례에 걸쳐 그 지역에서 우리측 지역에 중무기사격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8월 11일부터 9월 8일까지의 사이에 106.7미리박격포를 비롯한 여러가지 중무기와 자동무기들과 함께 수많은 무장악당들을 비무장지대에 끌어들여 우리측에 여러차례에 걸쳐 포탄과 총탄을 쏘아댔을뿐만아니라 우리의 국가 및 군사 비밀을 탐지하며 우리측 인원들을 살해랍치할 목적으로 무장간첩들을 침입시켰다. 그러나 이 무장간첩들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채 우리 인민군초병들에 의하여 개죽음을 당하고말았다. (9월 8일, 군사정전위원회 제305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은 9월 23일과 27일 전선중부 비무장지대의 여러지점들에서 박격포를 비롯한 중무기를 동원하여 우리측에 수천여발의 총포탄을 쏘아댔으며 9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의 사이에는 무려 70여차에 걸쳐 비무장지대안에서 우리측을 향하여 5,200여발의 총포사격을 감행하였다. 한편 놈들은 9월 10일, 10월 2일과 3일 장갑차와 105미리곡사포를 비롯한 여러가지 구경의 포들과 기관총들을 비무장지대안에 끌어들였으며 9월 13일과 10월 6일, 11일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무장간첩들을 우리측 지역에 침입시켰다.

또한 놈들은 10월 7일과 8일, 10일 3일동안에는 연 4차에 걸처 전선서부 림진강과 한강하구일대의 여러지점들에서 여러가지 중무기들로 무장한 수백놈의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을 동원하여 우리 인민군초소들에 무려 10

여만발의 중무기사격을 가하였으며 10월 9일과 12일에는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본부가 자리잡고 있는 공동경비구역안에 연 200여명의 미제침략군불한당들을 동원하여 우리측을 반대하는 극히 악랄한 도발행위를 감행하는 한편 우리측 경비인원들에게 덤벼들었다. 이러한 사태하에서 우리측 경비인원들은 부득히 자위적조치를 취함으로써 놈들은 응당한 징벌을 받고 여러놈이 너부러진후에야 도발행동을 중지하였다. (10월 17일, 군사정전위원회 제306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은 10월 15일, 17일, 21일 연거퍼 비무장지대안에서 포와 기관총, 자동무기들로 우리측 초소들을 향하여 사격하였으며 10월 18일에는 비무장지대안에 4대의 장갑차를 비법적으로 끌어들여 전투태세를 갖추게 하였으며(10월 23일, 군사정전위원회 제307차회의) 10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의 사이에는 비무장지대안에서 우리측을 반대하여 33차에 걸쳐 6,200여발이상의 총탄과 포탄을 쏘아댔다. 그리고 10월 19일 16시 35분경 전선중부 건천리 남방 비무장지대안에 수십명의 무장악당들을 끌어들여 우리측 초소를 향해 수천발의 중무기사격을, 11월 1일에는 전선중부 죽동남방 비무장지대 우리측 부근을 향하여 수천발의 중무기사격을 감행하였으며 이보다 앞서 10월 20일에는 전선중부 탑골일대의 9개의 지점들에서 비무장지대 우리측 부근을 향하여 수백발의 자동무기사격을 일제히 감행하였다.(11월 24일, 군사정전위원회 제308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은 11월 30일 공동경비구역안에서 정상적인 작업을 하고있는 우리측 인원들에게 자동무기로 조준사격을 가했으며 12월 5일에는 전선서부 림진강하류일대에서 우리의 인민군초소들을 향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1만여발의 중무기사격을 감행하였다. (12월 16일, 군사정전위원회 제310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은 12월 15일 13시 15분경 12.7미리대구경기관총으로 1,500여발의 총탄을, 12월 19일 10시 15분경에는 106.7미리박격포로 14발을 쏘아댄것을 비롯하여 1970년 12월 15일부터 1971년 1월 9일까지의 기간에 우리측 지역과 군사분계선일대에 연 50여차에 걸쳐 4,740여발의 포탄과 총탄을 쏘아댔다. 또한 놈들은 12월 17일 밤 9시경과 12월 20일 20시 20분경에 전선서부비무장지대 우리측 지역에, 12월 20일 새벽과 12월 22일 저녁 전선동부 비무장지대 우리측 지역에 무장습격단을 침입시켰다. 그러나 놈들은 우리 인민군 초병들의 자위적인 강력한 보복타격에 의하여 현장에서 개죽음을 당하였으며 부상당한 놈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쳤다. (1971년 1월 12일, 군사정전위원회 제311차회의)

**【바다에서】** 미제침략자들은 6월 5일 아침 안개가 낀틈을 리용하여 무장간첩선 《아이-2》를 황해남도 앞바다 우리측 연해에 은밀히 침입시켜 정탐활동을 하며 정상적인 어로작업을 하고있던 우리측 고기배들을 랍치하려고 획책하였다.

우리측 고기배들로부터 통보를 받고 조선인민군 해안경비정이 현장에 다달았을 때 미제침략군무장간첩선 《아이-2》는 북위 37도 42분, 동경 125도 26분의 해주 앞바다에까지 깊이 들어와 있었다. 우리측 경비정이 이에 접근하여 정지하라고 명령하였으나 도리여 미제무장간첩선 《아이—2》는 정지할 대신 우리측 경비정과 어선들에 마구 총포탄을 쏘아댔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미제침략군 전투기들이 나타나 우리의 경비정과 어선들에 사격을 가하였으며 연평도로부터는 맹렬한 포사격을 가하여왔다.

우리 인민군해병들은 놈들의 발악적 행위에 더는 참을수 없어 대응사격을 하여 미제침략군간첩선 《아이—2》를 여지없이 파괴소멸하고 바다속에 처박고말았다. (6월 9일, 군사정전위원회 제302차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미제침략군간첩선 《아이—2》는 놈들이 떠드는것처럼 120톤급의 《방송선》이 아니라 미제침략자들의 《해군정보부 8296부대》소속 180톤급의 전문적인 무장간첩선으로서 우리측 연해깊이 침입하여 정탐과 적대행위를 수없이 감행하였다. 이 무장간첩선의 《현황보고서》에는 《아이—2》의 사명이 《대북첩보공작임무수행이 목적》이고 1964년부터 1965년 1년동안에만도 《무려 30회(월평균 3회이상)의 침투공작을 수행하였음》이라고 적혀있었다.(10월 23일, 군사정전위원회 제307차회의)

또한 미제침략자들은 12월 26일 아침 7시부터 간첩선을 포함한 여러척의 무장함정들을 동해의 장전항 동쪽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켰다. 현지에서 순찰근무를 수행하고 있던 조선인민군 해군경비정의 자위적인 반격을 받게되자 놈들은 현장에 비행대까지 동원하는 한편 지상으로부터는 군사분계선연장선 이북 해상에 있는 우리측 경비정을 향해 50여발의 대구경포사격까지 감행하였다,

조선인민군 해병들은 오만무례한 범죄행위를 감행하던 침략자들에게 결정적인 반격을 가함으로써 미제침략자들의 무장도발행위를 완전히 분쇄해버렸다.(1971년 1월 12일, 군사정전위원회 제311차회의)

**【공중에서】** 미제침략자들은 1월 10일에 2대의 전투기를 우리측 령공에, 1월 14일에는 1대의 군용비행기를 비무장지대상공에 침입시키는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1월 26일, 군사정전위원회 제298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은 3월 19일에는 2차에 걸쳐 군용비행기를 우리측 령공에 침입시키는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3월 30일, 군사정전위원회 제299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은 4월 6일 군사정전위원회 제300차회의가 있은후 5월 14일까지 기간에 3차에 걸쳐 군용비행기를 우리측 령공에 침입시켰으며(5월 15일, 군사정전위원회 제301차회의) 5월 19일에도 비무장지대 상공에 한대의 군용비행기를 침입시켰다.(6월 9일, 군사정전위원회 제302차회의)

또한 미제침략자들은 8월초순에도 서해 우리측 강령반도상공에 2대의 전투기를 침입시켰으며(8월 11일, 군사정전위원회 제304차회의) 9월 3일 21시 58분경부터 23시 25분경까지 사이에는 서해 우리측 령공에 군용비행기를 여러차례에 걸쳐 침입시키는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9월 8일, 군사정전위원회 제305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은 9월 21일과 22일 및 10월 1일과 4일에도 4대의 군용비행기를 비무장지대와 우리측 지역상공에 각각 침입시켰으며(10월 17일, 군사정전위원회 제306차회의) 12월 4일에는 두대의 군용비행기를 우리측 령공에 침입시키는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12월 16일, 군사정전위원회 제310차회의)

이상의 모든 사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미제침략자들이야말로 정전협정의 계통적인 파괴유린자이며 조선에서 다시 전쟁이 터질수 있는 험악한 정세를 조성한 장본인이며 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발광하고 있는 침략자이며 전쟁광신자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세를 격화시켜 끝끝내 전쟁의 길로 나간다면 그때에는 더 큰 참패를 당하리라는것을 각오해야 할것이다.

# 사회주의경제건설

## 사회주의공업국가에로의 전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부터 사회주의공업국가에로 전변된데 대하여 선포하시였다.

《총결기간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된 가장 위대한 성과는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여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된것입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4페지)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공업국가에로의 전변, 이것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이며 현명한 사회주의공업화로선의 생활력을 과시해주는 력사적사변이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며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력사적인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사변이며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에서 찬란히 빛날 자랑스러운 사변이다.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된 결과 우리 나라에는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였으며 경제건설, 국방건설, 인민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자체로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되였다.

또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된 결과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는 더욱 강화되였으며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하고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며 나라의 장래번영을 보장할 튼튼한 밑천이 마련되였다.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이 창설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결과 우리 나라는 세계 선진국가들의 대렬에 들어섰으며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세계 모든 민족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국제무대에 나설수 있게 되였다.

## 강력한 자립적이며 현대적공업의 창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이미 5개년계획기간에 자립적민족공업의 토대가 닦아지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할수 있는 물질적토대가 마련된데 기초하여 7개년계획기간에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가진 그리고 새 기술로 장비된 자립적인 현대적공업을 창설하며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였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5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공업화로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에 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독창적인 사상이다.

사회주의공업화로선의 독창성은 무엇보다 먼저 지난날 자본주의발전단계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못한 뒤떨어졌던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공업화가 합법칙성이라는것을 밝히시고 경리형태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앞세운데 기초하여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할데 대한 혁명사상을 천명하신데 있다.

다음, 사회주의공업화로선의 독창성은 사회주의공업화의 중심이 중공업건설에 있다는 맑스-레닌주의리론을 발전시켜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을 창설하며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을 실현할데 대한 로선을 력사상 처음으로 천명하신데 있다.

또한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으로부터 시작하여 공업화의 자금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데 대한 방침에 이르기까지의 크고작은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해명하심으로써 사회주의공업화를 짧은 기간내에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대로를 새로 개척하신데 있다.

사회주의공업국가가 반드시 구비하여야 할 과학적인 내용도 처음으로 완벽한 해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주체적인 공업화로선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 그리고 우리 인민의 영웅적인 투쟁에 의하여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옹근 한세기 지어는 몇세기에 걸쳐서 실현한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우리 나라에서는 불과 14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빛나게 실현되였다. 이로써 우리 나라에는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이 창설되였다.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이 창설되는 전기간에 우선 공업생산이 매우 빠른 속도로 장성되였으며 공업의 부문구조와 기술적토대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공업화의 전기간에 공업생산은 해마다 평균 19.1%의 높은 속도로 늘어났다. 그리하여 1970년에 공업총생산액은 1956년에 비하여 11.6배로 높아지게 되였으며 그 가운데서 생산수단생산이 13.3배, 소비재생산이 9.3배로 늘어나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공업화의 높은 속도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공업화로선의 정당성과 커다란 생활력을 실증해주고있으며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시위해주고있다.

총결기간에 공업화에서 주도적역할을 놀며 그 물질적토대로 되는 중공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7개년계획기간에 중요하게 나선 과업은 먼저 중공업의 부족점을 보충하고 그 골간에 살을 붙이며 나아가서는 중공업기지를 더욱 확대강화하는데 있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7개년계획기간

에 먼저 야금공업, 화학공업, 기계제작공업, 연료공업, 동력공업, 건재공업을 비롯한 기간적중공업부문들을 정비보강하였으며 많은 자금을 들여 발전소, 탄광, 광산, 야금공장, 기계공장, 화학공장, 세멘트공장을 비롯하여 수많은 중공업공장들을 새로 건설하였다.

총결기간에 중공업건설에서 이룩된 가장 큰 성과는 공업화의 밑천이며 중공업의 핵심인 강력한 기계제작공업이 창설된것이다.

오늘 우리의 기계제작공업은 여러가지 대형기계들과 정밀기계들을 훌륭히 만들어내고있으며 현대적인 공장들의 설비를 종합적으로 생산보장하는 높은 수준에 올랐다.

중공업부문에서는 또한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의 건설, 대규모발전소와 중소규모발전소의 건설을 병진하여 전력공업을 인민경제의 발전에 앞세웠으며 동력기지를 질적으로 강화하여 전력생산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게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중공업부문에서는 특히 선철과 립철생산능력을 높이고 제철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며 압연능력과 2차금속가공능력을 높이는 투쟁을 통하여 선철생산으로부터 강철, 압연강재, 2차금속가공제품에 이르기까지의 생산공정이 완비된 흑색야금공업을 건설하였다.

중공업부문에서는 총결기간에 화학비료생산기지를 확대하고 농약생산기지, 화학섬유생산기지, 합성수지생산기지들을 강화한 결과 무기화학공업과 함께 강력한 유기화학공업기지를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7개년인민경제계획기간에 우리의 중공업은 필요한 새로운 부문들과 공정들을 기본적으로 다 갖춘 완비된 중공업으로 확대발전되였으며 그 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였다.

강력한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우리의 중공업은 나라의 정치경제적자립성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고있을뿐만아니라 인민경제의 전반적발전을 촉진하는 강력한 물질기술적토대로서 경공업과 농촌경리의 발전 그리고 국방력강화에서 큰 힘을 나타내고있다.

총결기간에 우리의 위력한 중공업과 함께 경공업도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인민소비품생산에서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우리는 새로운 현대적중앙경공업공장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였으며 지방의 예비를 동원하여 수많은 지방산업공장들을 일떠세웠으며 중공업이 발전하는데 따라 지방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개선하였다.

결과 우리 나라에는 방직공업과 식료가공공업, 일용품공업을 비롯하여 모든 생산부문들이 다 갖추어졌으며 소비품에 대한 다양한 근로자들의 수요를 자체의 생산으로 보장할수 있는 현대적경공업기지가 꾸려졌다.

자체의 강력한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완비된 중공업과 현대적인 경공업이 창설됨으로써 우리 나라 공업은 자립적체계가 튼튼히 선 현대적공업으로 전변되였다.

이에 따라 나라의 공업화수준을 특징짓는 징표들인 사회총생산물과 국민소득생산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인구 한사람당 중요공업제품생산량이 발전된 공업국가에 상응한 높이로 올라서게 되였다.

공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그 규모가 커짐에 따라 사회총생산물과 국민소득 생산에서 공업이 더욱더 결정적역할을 놀게 되였다.

공업과 농업 총생산액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6년에 34%이던것이 1969년에는 74%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에 공업과 농업 부문에서 창조된 국민소득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로부터 65%로 높아졌다.

이것은 인민경제의 지도적부문으로서의 공업의 역할이 발전된 공업국가 수준에 이르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또한 나라의 경제적위력과 공업발전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인 인구 한사람당 중요공업제품생산량이 훨씬 늘어났다.

1970년에 우리 나라에서 인구 한사람당 전력은 1천184키로와트시, 석탄은 1천975키로그람, 강철은 158키로그람, 화학비료는 108키로그람, 세멘트는 287키로그람에 이르게 되였다.

이것은 중요공업제품 인구 한사람당 생산량에서 우리 나라가 발전된 공업국가들의 수준에 이르렀으며 부분적으로는 따라 앞서게 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의 촉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공업화의 주체적로선에 따라 공업화를 실현하는 전기간에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이 창설되였을뿐만아니라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이 실현되여나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력한 자체의 중공업기지에 의거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전면적기술혁명의 과업도 성과적으로 실현되였습니다. 기계제작공업을 비롯한 중공업이 발전되는데 따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장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였으며 인민경제의 전기화와 자동화가 널리 실현되였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단행본, 9페지)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자립적인 중공업기지가 마련된 결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적장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인민경제의 전기화와 자동화가 널리 실현됨으로써 공업의 기술적토대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였다.

공업부문에서 전기화, 기계화, 자동화가 빨리 추진되였다. 공업생산의 기계화는 거의 완성되고 중앙공업의 자동화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다.

공업부문에서 기술혁명이 틀리 실현됨으로써 공업의 전기화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 나라 공업생산의 전력장비도는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우리의 전력공업은 늘어나는 이 전력수요를 자체의 생산으로 원만히 보장하고있다.

중공업의 강력한 지원밑에 농촌경리의 기술개건이 성과적으로 실현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밝혀주신 휘황한 길을 따라 농촌경리의 기술적개조에 커다란 힘을 넣음으로써 총결기간에 완성된 수리화체계가 마련되였으며 농촌경리의 기계화가 힘있게 추진되였으며 농촌전기화의 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농촌경리의 화학화에서도 커다란 진전이 이룩되였다.

우리 당은 우선 이미 마련된 관개시설들을 정비보강하는 한편 이미 시작하였던 대규모관개공사들을 끝내고 새로운 관개공사들을 적극 밀고나가며 고인물뽑기와 강하천정리사업을 대대적으로 벌리게 함으로써 어떤 큰물과 가물도 이겨내고 농업생산에서 언제나

놓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는 완성된 수리화체계를 마련하였다.

1961—1969년 사이에 저수지능력이 1.5배, 양수능력이 3.2배로 높아졌으며 중요 벼생산지대들에서 고인물피해가 없어지게 되였으며 중요도시와 로동자구마다 분수식관수체계에 의한 남새생산기지가 마련되였으며 자연재해로부터 40만정보의 논밭을 보호할 재방을 새로 쌓았다.

우리 당은 또한 가장 어렵고 품이 많이 드는 밭갈이, 써레질, 김매기, 마당질, 운반작업의 기계화에 힘을 넣으면서 점차 종합적기계화에로 넘어가게 함으로써 평지대에서 논밭갈이와 써레질 그리고 전반적지역에서 마당질을 기계화하였으며 운반작업의 기계화문제도 기본적으로 풀었다.

1961—1969년 사이에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뜨락또르대수는 3.3배, 화물자동차수는 6.4배로 늘어났으며 농촌경리부문에서 연경환산에 의한 기계화경작업량이 2.6배로 또한 장성되였다.

축산부문에서 먹이 절단과 분쇄작업이 전반적으로 기계화되였으며 물주기와 먹이운반에서도 기계화가 널리 실시되고있다.

특히 가금업에서 기계화, 자동화수준이 높아져 닭공장들에서는 닭에 모이를 주고 물을 주는 일로부터 닭우리를 씻어내고 알을 받아서 궤짝에 넣는 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작업공정이 종합적으로 기계화되고 자동화되여 사양공 한사람이 몇만마리씩의 닭을 관리하고있다.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이룩된 커다란 성과의 다른 하나는 농촌전기화가 완성된것이다.

온 나라의 농촌리들에 전기가 들어갔으며 물푸기, 마당질, 사료가공을 비롯한 농산작업이 전기동력으로 진행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 농촌에서 한해동안에 쓰이는 전력은 10억키로와트시로서 대부분이 생산용으로 리용되고있다. 이것은 농촌전기화에서 우리 나라가 이미 세계선진국가들의 대렬에 들어섰다는것을 보여준다.

농촌경리의 화학화에도 힘을 넣어 1969년도 화학비료시비량은 1960년에 비하여 3.2배, 농약산포량은 3.3배로 늘어났으며 1969년도 논정보당 화학비료시비량이 674키로그람, 밭정보당 시비량이 478키로그람에 이르렀다.

철도전기화가 성과적으로 실현되여 중요간선들에서의 철도전기화가 기본적으로 끝났다.

이 모든것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우리 나라가 현대적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확고히 전변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공업국가에로의 전변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거둔 력사적승리이다.

##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의 전면적확립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총화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고 나라의 전면적기술개건사업이 추진된 새 환경은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문제를 새롭게 해결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단행본, 31페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의 완성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를 전면적으로 확립하였으며 사회주의의 새로운 관계를 조성하였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경제에 대한 지도관리를 생산수단의 진정한 주인으로 된 생산자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며 사회성원들사이의 단결과 협조가 기본으로 되여있는 새로운 사회관계에 맞게 개선하고 완성시킬것을 요구하였다.

그것은 또한 생산력이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 경제의 규모가 커졌으며 현대적기술로 장비되고 부문사이의 련계가 매우 밀접해진 현대적대규모생산에 맞게 경제관리체계와 방법을 개선할것을 요구하였다.

혁명의 위대한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시여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할 수 있게 독창적인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몸소 세워주시였다.

그이께서 창조하신 독창적인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의 전형으로, 승리한 사회주의제도에 의거하여 더빨리 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을 훌륭히 구현한 가장 위력있는 사업체계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경제관리문제를 단순한 경제실무적 문제로, 물질적관심성을 높이는 문제로만 알고있던 당시에 처음으로 경제관리를 산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군중로선에 기초한 경제관리체계를 창시하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보물고에 위대한 기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는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경제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나라의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체계로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실로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있다.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는 경제관리에서 우선 사회주의경제법칙들의 요구를 정확히 구현하며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 중앙집권화와 민주주의를 옳게 배합하여 나갈수 있게 하고있다.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는 또한 경제관리에서 정치도덕적자극의 일면만 내세우며 상품화폐관계와 가치법칙작용의 계획적리용을 무시하는 좌경적인 편향과 정치도덕적자극을 홀시하며 물질적자극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경제지도에서 지방분권화와 기업의 자유화방향으로 나가려는 우경적견해를 완전히 극복하게 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세우시고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실시하게 하심으로써 경제관리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더욱 풍부화시키시였으며 완성하시였다.

### 대안의 사업체계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1961년에 천리마 대안전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낡은 공장관리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시고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에 기초한 공장관리운영원칙, 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와 종합적지도를 보장하는 생산지도체계, 자재를 우에서 공급해주는 자재공급체계와 새로운

후방공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워주심으로써 사회주의적공업관리체계인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있는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로서 경제에 대한 지도관리를 혁명적군중로선과 과학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창조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시대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한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위원회를 매개 경제단위의 최고지도기관으로 하는 집체적령도체계를 내오시였으며 당위원회가 공장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키잡이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업을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으로 철저히 전환시키도록 하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개인에 의한 경제지도로부터 대중에 의한 집체적인 경제관리에로, 지배인유일관리제로부터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에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경제에 대한 당적령도를 강화하며 광범한 대중을 기업관리에 인입하며 정치사업방법으로 대중의 창조적지혜를 발휘시키는 길을 열어놓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울데 대한 강령적교시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이 발양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요구가 곧 우리들의 기준량이며 공칭능력이다.》라는 혁명적구호를 들고 도처에서 공칭능력을 타파하면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 공업화기간에 년평균 19.1%라는 기적적인 공업장성속도를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지도일군들이 근로자들의 생산활동과 생활에 대하여 책임지며 일상적으로 현장에 내려가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고 생산과 생활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는 정연한 자재 및 후방물자 공급체계를 세워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자재 및 후방 공급사업이 경제관리에서 중요한 조직사업, 정치사업이라는것을 밝히시고 그것을 계획적으로 종합적으로 내려 공급하되 그 과정을 통하여 물자의 소비와 절약적리용을 통제하게 하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이 본질적요구에 따라 성, 중앙기관들에서는 부문별로 2~3개씩의 공장, 기업소들을 골라 자재 및 후방물자 보장사업과 지도사업을 강화하여 선진적인 물자소비기준과 로동정량을 비롯한 기술경제적본보기들을 만들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투쟁을 통하여 자재 및 후방물자 공급사업을 훨씬 개선하였다.

그리하여 자재와 후방물자를 공급하는 사업에서 지난날 종이쪽지나 떼주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았으며 다 생산자들이 책임지게 되여있던 명령과 호령, 관료주의적방법을 극복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현대적대규모생산은 반드시 종합적으로 기술적으로 지도해야 하며 생산에 대한 지휘는 기술을 잘 아는 기사장이 계획, 생산, 기술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참모체계를 통하여 보장하며 이 지도는 현장에 내려가 실정을 깊이 료해하고 모든 문제를 생산자대중과 토의하여 해결하며 당면한 생산지도와 기술지도, 기술발전을 다 같이 틀어쥐고 나가도록 하시였다.

우리 당 제5차대회를 앞두고 2천 396개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1969년에 비하여 대단히 장성한 1970년도 계획을 두달이나 앞당겨 완수 및 초과완수하는 빛나는 성과를 올린것도 역시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하여 당면한 생산지도와 기술지도, 기술발전계획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예견성있게 생산기술준비를 앞세운 결과이다.

그리하여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낡은 관리체계에서 계획화사업과 기술지도, 생산지도가 서로 갈라진데로부터 생산에 대한 지도를 효과적으로 실현할수 없었던 불합리성이 극복되고 생산에 대한 종합적이며 통일적지도를 강화하여 현대적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관리운영하게 되였다.

## 새로운 농업지도체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신데 뒤이어 사회주의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심으로써 경제에 대한 지도관리문제를 공업에서뿐만아니라 농업에서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우리 당은 군인민위원회로부터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기능을 떼내여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창설하였으며 도 농촌경리위원회를 새로 내오고 농업성을 농업위원회로 고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혁명의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협동경리제도의 공고발전과 농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혁명적립장을 사회주의농업을 지도관리하는데서 훌륭히 구현하시여 기업적지도에 기초한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창설하시였다.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기본인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들은 우선 농기계작업소, 관개관리소, 종자관리소와 같은 국가농업기업소들의 강력한 물질기술적력량을 직접 장악하고 농업근로자들을 조직동원하여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추진함으로써 농업생산을 높은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빨리 발전시키고있다.

각지 협동농장경영위원회들에서는 매개 군의 농경지의 특성에 맞게 배수 및 관수 체계, 뜨락또르 배치 및 리용체계, 시비체계와 농약, 살초제 리용체계를 세운데 기초하여 협동농장관리위원회와 작업반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기술지도체계를 세웠으며 논밭갈이와 씨뿌리기, 모내기와 김매기를 비롯한 중요공정들에 대한 기술지도를 체계적으로 줌으로써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보장하고있다.

각지 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또한 협동농장들의 계획작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생산조직, 자재보장, 로력관리, 재정운영 등 모든 경영활동을 직접 조직하고 도와주는 지도체계와 관리방법을 확고히 세우는 투쟁을 통하여 협동농장들에 대한 국가의 물질기술적방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있으며 협동농장들에 있던 산만성과 자연발생성을 철저히 없애고 그들의 계획화, 조직화 수준을 한층 높이고있다.

최근년간 자연기후조건이 계속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이 해마다 장성하고있는 사실은 전적으로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에 따라 협동농장들의 관리운영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한 결과이다.

협동농장경영위원회들은 또한 농업기술자들과 국가농업기업소들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그들 농업생산에 더 잘 복무하게 한 결과 국가적소유와 협동적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있으며 협동경리에 대한 국가의 정치경제적지도와 방조를 결정적으로 강화하고있다.

농촌경리에 대한 국가의 기본건설투자와 물질기술적지원이 급속히 증대된 결과 국가적소유의 물질기술적수단들이 협동농장의 공동생산에 더욱 폭 넓게 더욱 깊이있게 침투되고있다.

이제와서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국가적소유에 속하는 여러가지 기계, 비료, 물, 동력과 로동계급의 직접적참가

없이는 도대체 농업생산도, 협동경리의 관리운영도 할수 없게 되였다. 이 사실은 공업과 농업,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이 끊임없이 높아졌으며 농민들에 대한 로동계급의 정치사상적영향력이 커졌으며 선진적인 기업관리방법과 생산문화가 농촌경리에 보다 광범히 보급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우신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와 그에 의한 기업적지도가 협동적소유를 공고발전시키고 그것을 점차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 끌어올리는데서 거대한 우월성을 나타내고있으며 바로 이 길만이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로농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가장 정확한 길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혁명의 위대한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공업과 농업 관리체계를 개편한 다음 전반적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적규률을 더욱 강화하며 우리 경제를 보다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34—35페지)

그이께서는 국가계획위원회에 직속하는 지구계획위원회들과 시, 군 국가계획부와 공장, 기업소 국가계획부들을 내오게 하시였으며 성, 중앙기관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계획부서들이 해당기관에도 복종하고 국가계획위원회에도 복종하는 2중종속체계를 내오게 하심으로써 계획의 일원화체계를 정연하게 세우시였다.

계획의 일원화체계는 전국의 모든 계획기관들과 계획세포들이 국가계획위원회의 유일적인 지도밑에 통일적으로 움직이는 계획화체계이며 국가계획일군들이 직접 현실속에 들어가 계획화사업을 진행하는 체계이며 국가계획위원회가 지구계획위원회를 도와주고 모든 계획기관들이 계획세포들을 도와주며 모든 계획일군들이 생산자들을 도와주는 체계이다.

계획의 일원화체계는 경제관리사업을 개선함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놀고있다.

계획의 일원화체계는 무엇보다도 먼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잘 아는 국가계획일군들이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직접 지방과 기업소에 들어가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을 해설선전하면서 계획을 세움으로써 계획화사업에서 당성의 원칙을 훌륭히 구현하고있다.

이것은 종전의 계획화체계하에서 흔히 볼수 있었던 지방본위주의와 기관본위주의와 같은 그릇된 현상들을 없애고 성, 관리국, 도급 기관들의 계획과 공장, 기업소들의 계획을 모두 전국적인 전략계획에 복종시킬수 있게 하였으며 동원적이며 적극적인 계획을 세울수 있게 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는 상대적인 독자성을 가지면서도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며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있다.

계획의 일원화가 모든 부문, 모든 기업소들의 통일적인 련관을 보장하는 기초로 된다면 계획의 세부화는 그러한 련관의 구체적내용을 규정하고있다. 그러므로 계획의 세부화는 계획의 일원화의 본질적요구를 철저히 실현하는 형태이다.

계획의 세부화에서는 모든 부문, 모든 지방, 모든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을 밀접히 련결시키며 국가가 큰 지표는 물론 세부지표까지 다 물어주고 계획화대상에 포함시킬뿐만아니라 빈틈없이 맞물려 전략계획, 작전계획, 전투계획을 모든 측면에서 정확히 결합시키고있다.

이를 위하여 계획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본위주의와 주관주의를 없애고 생산잠재력의 모든 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고있으며 계획기관 호상간, 기업소 호상간의 협조와 련계를 강화하고있으며 책임성과 집단주의정신을 발휘하고있다.

그리하여 계획의 세부화에서는 인민경제의 발전에서 불균형성과 자연발생성을 가시고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의 요구를 훌륭히 반영하여 사회주의경제의 높은 발전속도를 보장하고있다. 계획의 세부화는 우월한 계획화방법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창시하신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의 요구대로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와 지방의 창의창발성을 가장 옳게 배합하여 민주주의중앙집권적원칙과 군중로선을 훌륭히 구현하고있다.

인민경제의 계획화체계가 완전히 일원화, 세부화된데 뒤이어 통계체계, 가격체계도 일원화되였으며 재정, 은행체계의 중앙집권적성격도 더욱 강화되고 정연한 상업체계와 국토관리체계가 세워졌다.

그리하여 인민경제의 어느 부문이나를 물론하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체계의 요구를 실현할수 있는 사업체계가 마련되였다.

혁명의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독창적인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는 사회주의사회에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생산력에 생산관계를 올바로 적용시켜나가며 확립된 토대에 맞게 상부구조를 완성시키고 토대에 대한 상부구조의 작용을 결정적으로 강화하게 한 우월한 사업체계이다.

#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로 내달려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를 빛나게 점령

1970년은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에서 하나의 구획점을 이루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친히 강선의 로동계급과 농촌경리부문일군들, 지방산업일군들과 가급일군들, 평양시건설자들과 사리원시건설자들을 만나시고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데 관한 강령적교시를 하시였으며 우리 인민들을 장엄한 투쟁에로 불러 일으켜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의 부름을 높이 받들고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들은 1970년 정초부터 세인을 놀래우는 비상한 속도와 본때있는 일솜씨로 내달리기 시작하였다.

영웅적강선로동계급이 창조한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가 전국의

로동계급의 심장을 틀어잡고 《평양속도》,《비날론속도》를 뛰여넘을 때에 청산리농업근로자들이 보여준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가 또한 농업전선에서 혁명적고조의 불길이 타번지게 하였다.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방의 예비를 동원하여 어머니당 제5차대회에 드리는 선물공장을 비롯한 지방산업공장건설과 산업건설, 평양시와 지방도시건설에 떨쳐나섰다.

온 나라에 나래치는 이 혁명적기상은 어버이 수령님께서 주신 혁명과업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용감히 뛰여들어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우리 근로자들의 수령에 대한 다함없는 충실성의 뚜렷한 표시이며 우리 당 5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맞이하려는 그들의 불타는 결의를 보여주고있다.

또한 그것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제4차당대회가 제시한 모든 고지를 을 제5차대회전으로 점령함으로써 철천의 원수 미제를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의 위업을 성취하며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려는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의 영웅적기개의 커다란 시위로 된다.

## 새로운 천리마속도《강선속도》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의 계획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올해에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7개년계획의 마지막고지를 기한전에 점령하기 위하여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로 힘차게 달려나갔으며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웠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를 창조하도록 우리 근로자들을 힘차게 불러일으켜 주시였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1969년 11월 5일과 6일 이틀동안에 걸쳐 천리마강선제강소일군들을 만나시고 7개년인민경제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기한전에 점령하는 장엄한 행군을 벌리자고 하시면서 이 영예로운 전투에서도 강선의 로동계급이 또다시 앞장서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감격한 강선의 강철전사들은 1970년도계획을 우리 당 제5차대회전으로 앞당겨 끝낼것을 다짐하고 전국에 사회주의경쟁을 호소하였다.

천리마강선제강소에서는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대중속에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조직사업을 짜고드는 한편 후방공급사업에 깊은 주목을 돌리면서 대중들을 집단적인 기술혁신운동에로 불러일으켰다.

수령님의 교시에 따라 자기앞에 맡겨진 정치적임무와 기술적임무를 똑똑히 알게 된 이곳 로동계급은 새해 첫달에 1969년 같은 시기에 비하여 강철생산량에서 2배, 기술기준지표를 갱신하는데서도 2배, 강괴조립에서도 2배, 모든 초소, 모든 단위에서 저저마다 2배이상씩 실행하였다.

실로 이것은 《평양속도》, 《비날론속도》를 뛰여넘는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이다.

수령님의 부름을 받들고 석탄공업부문에서는 중대마다 계획보다 매달 3천톤이상의 석탄을 더 캐기운동을, 철도운수부문에서는 렬차편성전문화와 집단적기다림상하차방법을 받아들여 짐차를 적게 가지고도 더 많은 짐을 나르기운동을 전개하였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이렇듯이 강선로동계급의 호소에 호응하여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로 힘차게 내달렸으며 이 과정에 천리마강선제강소, 천리마희천공작기계공장을 비롯한 2천 396개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1970년도 계획을 두달이나 앞당겨 빛나게 초과수행하였다. 결과 1970년 10월 현재로 공업생산은 1969년에 비하여 또다시 131%로 장성하였다.

그리하여 1957—1970년기간에 걸쳐 우리 나라 공업은 해마다 평균 19.1%의 높은 속도로 발전하였다.

이것은 경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생산장성의 예비는 더욱더 많아지며 생산이 또한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것이 곧 사회주의경제법칙이라고 천명하신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리론의 정당성을 또다시 실증하여주고있다.

빠른속도로 발전하고있는 우리의 공업은 우선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을 실현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5천톤급 대형랭장운반선, 수천명의 로력을 대신하는 련속식대형굴착기, 25톤급 중량자동차, 10메터 타닝반, 12메터 프레나를 비롯한 대형 및 정밀기계들을 생산하였으며 평천—청진간 전기철도와 청진시무궤도전차를 개통시켰다.

또한 1970년도 중요공업제품들의 생산장성속도에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10월 31일 현재로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하여 석탄은 140%, 철광석은 166%, 강철은 128%, 공작기계는 144%, 발전기는 327%, 화물자동차는 150%, 뜨락또르는 174%, 화차는 188%, 화학비료는 115%, 세멘트는 120%, 통나무는 128%, 직물은 118%, 내의류는 134%, 물고기는 175%로 높아졌다.

1970년에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기여할 북창화력발전소, 사리원방직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을 건설하였으며 혁명의 수도 평양시의 천리마거리와 서성거리를 비롯하여 지방도시들을 현대적으로 꾸렸다.

이로써 우리 나라에는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이 창설되였으며 사회총생산물과 국민소득의 생산에서 공업의 결정적역할이 보장되였으며 중요공업제품 인구 한사람당 생산량에서 발전된 공업국가들의 수준에 이르거나 앞서게 되였다.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부터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였다.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된 결과 우리의 혁명기지는 더욱 불패의것으로 다져졌으며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하고 조국의 통일과 장래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 마련되였으며 세계 모든 나라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국제무대에 떳떳하게 나서게 되였다.

##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의 계획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당대회에 많은 풍년을 선물하기 위하여 혁신적인 투쟁을 벌렸으며 올해에 례년에 드문 대풍작을 이룩하였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1970년 정초에 친히 농촌경리부문지도일군들의 협의회를 소집하시고 사회주의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더욱 정확히 관리운영할데 대한 강령적교시를 하시였으며 영농작업의 매 시기마다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특히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로 달리는 공업에 보조를 맞추어 농업전선에서도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켜 7개년인민경제계획의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라고 고무하여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강서군 천리마청산협동농장원들은 농산, 축산, 과수, 잠업을 비롯한 농업생산의 전반적분야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킬것을 다짐하고 새해 벽두부터 모든 농사일을 빨리 하면서도 깐지고 실속있게 해나갔다.

그들은 농장의 주되는 역량을 계속 농사에 집중하여 모든 농사일을 제철에 잘하며, 농촌기술혁명을 촉진하고 농사를 보다 과학기술적으로 지으며 모든 초급간부들이 매사에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생산로동의 앞장에서는 문제들에 모를 박고 당면한 농사일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천리마청산협동농장원들의 이러한 일본새에 대하여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라고 불러주시면서 이를 전국의 모든 농촌들에 일반화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각지 협동농장원들은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를 본받아 자신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기술문화적으로 튼튼히 준비하면서 농사에 모든 힘을 집중하고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농사일을 알뜰히 밀고나갔다.

우리 협동농민들은 이미 마련된 수리화체계, 기계화대군, 화학화의 힘, 전기화의 위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100날왕가물도, 긴장마도, 낮은 기온도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모내기를 례년보다 앞당겨 끝냈으며 그 기세, 그 기백으로 김매기, 비바람막이, 가을걷이를 실속있게 다그침으로써 례년에 드문 대풍작을 이룩하였다.

우리 농업근로자들이 보여준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는 어버이 수령님께서 주신 혁명과업이라면 모든 애로와 난관을 박차고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협동농민들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의 표현으로서 사회주의하에서 농업생산을 전적으로 책임진 혁명적본분에 대한 높은 자각과 그로부터 흘러나온 나라의 주인다운 일본새를 뚜렷이 증시하였다.

또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농촌에 마련된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거대한 우월성을 보여주었으며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빛발아래 무한히 번영하는 우리의 사회주의농촌을 더욱 꽃피워 나가려는 붉은 농민들의 확고한 결의를 보여주었다.

## 당대회에 드리는 선물 공장—지방산업공장

## 건설에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의 개회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방의 예비를 적극 동원하여 반년남짓한 기간에 당대회에 드리는 선물공장 500여개를 포함하여 1,760여개의 지방산업공장들을 새로 일떠세우고 여러가지 인민소비품들을 만들어내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1970년 2월에 열린 전국지방산업일군대회는 우리 나라 지방공업발전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는 계기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방공업을 전당적으로, 전군중적으로 더욱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데 대한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으며 그 관철에로 우리 인민들을 불러일으키시였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1958년에 당 중앙위원회 6월전원회의 결정을 받들고 전국도처에 지방산업공장들을 일떠세우던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전군중적운동으로 지방산업공장들을 건설하는데 떨쳐 나섰다.

이 거세찬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전후에 창설한 중공업이 또한 거대한 생활력을 나타내면서 강력한 지원의 손길을 뻗쳤다.

그리하여 전당과 전체 인민의 커다란 관심속에서 반년남짓한 기간에 1천 760여개의 현대적인 지방산업공장들이 새로 일어서는 또하나의 기적이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모범의 나라》인 우리 나라에서 솟아났다.

새로 건설한 지방산업공장들 가운데는 전국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께 바치는 다함없는 충성의 마음을 담아 력사적인 어머니당 제5차대회에 드리는 500여개의 선물공장들이 들어있다.

1천 760여개의 지방산업공장의 건설, 이것은 혁명의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령지시라면 무조건 끝까지 옹호관철하고야마는 영웅적조선인민의 혁명적기개의 시위이며 어머니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화같은 충성심의 표시이다.

지방공업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하여 오늘 우리 나라의 매개 군에는 근 20여개의 지방산업공장들이 일떠서고 도마다 신발, 연필, 전등알, 치솔, 비누, 안경들을 만드는 공장들이 꾸려졌으며 중앙공업에 의존하던 여러가지 일용필수품과 식료가공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도 자체로 해결할수 있게 되였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적인 립장에 확고히 서서 중앙공업과 함께 지방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자립적인 소비품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려놓음으로써 이제 와서 우리는 가정용 랭장고와 세탁기로부터 손목시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소비품을 남에 의존함이 없이 자체로 마음먹은대로 생산할수 있게 되였으며 우리가 만든 상품으로 우리의 상업망들을 가득 채울수 있게 되였다는것을 커다란 긍지를 가지고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할수 있다.

이 모든 성과는 우리 인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처럼 심려하시는 어버이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따뜻한 배려의 결과이며 경공업발전에서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독창적인 방침의 위대한 결실이다.

## 전국지방산업일군대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전국지방산업일군대회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2월 24일부터 4일간에 걸쳐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방공업은 다른 모든 부문과 마찬가지로 급속히 발전하였다.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해방된 조국땅우에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혀오신 수령님께서 해방직후부터 중앙공업과 함께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소비품생산에서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천재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전군중적운동으로 지방산업공장들을 건

실하도록 불러일으켜주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들은 불과 몇달 사이에 국가자금을 별로 들이지 않고 지방의 유휴자재와 유휴로력으로 1천여개의 지방산업공장들을 일떠세워 온 나라를 총총한 지방산업공장망으로 뒤덮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지방공업관리체계를 세워주시고 관리일군들과 기술자들을 보내주시는 한편 벌방으로부터 두메산골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에 널려있는 지방산업공장들을 몸소 찾으시고 로동자들의 생활과 로동조건을 친어버이의 손길로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결과 우리의 지방공업은 나라의 소비품생산의 절반을 담당한 위력한 공업으로 발전하였으며 로동자들은 보람찬 로동속에서 자신을 부단히 혁명화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고있다.

하기에 대회에 참가한 지방공업부문의 로력혁신자들과 관리일군들, 당, 정권 기관, 근로단체 일군들은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에로 인도하여주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대회의 주석단에 나오시자 일제히 일어서서 우렁찬 만세의 환호와 그칠줄 모르는 우렁찬 박수로서 열렬히 환영하였으며 전체 지방산업부문일군들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어린 향기그윽한 꽃바구니를 올리였다.

2월 2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전군중적운동으로 지방공업을 더욱 힘있게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며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교시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온갖 지혜와 창조적열성을 발휘함으로써 경공업제품의 질을 높이고 품종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서 모범을 보인 경공업부문일군들을 표창하시였다. 뒤이어 공화국 훈장과 메달도 수여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하여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 지방산업부문일군들이 걸어온 자랑찬 로정과 수령께 바치는 충성심을 형상한 대화폭의 부각작품을 기념으로 드리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전군중적 운동으로 지방공업을 더욱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이며 내각제1부수상인 김일동지가 보고하였다. 이어 많은 참가자들이 토론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 일용품생산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운 김영득동무가 일하는 공장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보내는 이 대회참가자들의 이름으로 된 축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전군중적운동으로 지방공업을 더욱 힘있게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데 대한 결의를 담아 그이께 드리는 맹세문을 채택하였다.

대회에서는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대로 지방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하여 이미 있는 지방공장들을 한층 공고발전시키고 그 기술장비를 더욱 강화하며 지방의 예비와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여 도처에 지방산업공장들을 더많이 일떠세우며 중앙공업의 생활필수품직장들을 확대강화함으로써 가까운 년간에 전국적으로 확대품종을 6만종에 이르게할 투쟁목표를 내세웠다.

대회에서는 이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우선 전군중적운동으로 일용품과 식료가공품생산을 높이며 지방특산품생산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또한 발전된 사회주의공업국가의 수준에 상응하게 인민소비품의 질을 부단히 높이며 기술혁신운동을 더욱 강화하여 질좋은 제품을 더많이 생산할데 대하여 일치하게 지적하였다.

대회에서는 지방공업의 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지방원료원천을 더잘 리용하며 원료, 자재의 보장사업을 개선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정상화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이 영예로운 혁명과업을 빛나게 완수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것을 결의하였다.

대회에서는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구현하고 대안의 사업체계를 관철하여 지방공업에 대한 지도를 개선하고 관리운영수준을 더욱 높일것을 다짐하였다.

대회에서는 또한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며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힘차게 벌려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기로 결의하였다.

전국지방산업일군대회의 전과정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인민소비품생산에서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행하여 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다시 한번 뚜렷이 보여주었다.

또한 대회에서 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 그이의 크나큰 신임과 깊은 배려에 드높은 정치적열의와 로력적성과로서 보답하고야 말 한결같은 결심을 시종일관하게 보여주었다.

# 전국가금업일군대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전국가금업일군대회가 3월 30일부터 2일간에 걸쳐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인 배려밑에 우리의 가금업은 눈부신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알과 고기에 대한 인민들의 늘어나는 수요를 가장 짧은 기간내에 보다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문화, 집약화되고 공업화된 현대적인 대규모가금업을 창설하는것과 함께 농촌지대에서 가금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가장 정확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에로 우리 인민을 힘있게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온 나라의 곳곳을 찾으시고 닭공장, 오리공장, 배합먹이공장의 터전을 손수 하나하나 잡아주시고 공장의 생산규모와 건설방향, 앞으로의 생산조직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가금업에 대한 통일적이

여 전문적인 지도체계를 세워주시고 청소한 우리 가금업일군들에게 크고작은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으며 몸소 시범단위를 창조하시고 그 경험을 온 나라에 일반화하시는 등으로 가금업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 극진한 보살핌속에서 우리의 가금업은 공업화된 가금업으로 발전하였으며 자동화된 배합먹이공장들을 가지게 되였으며 과학기술간부대렬을 확대강화하게 되였다.

하기에 대회에 참가한 가금업부문의 로력혁신자들과 관리일군들, 가금업을 지원한 공장, 기업소 일군들과 당, 국가, 사회단체 일군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대회의 주석단에 나오시자 일제히 일어서서 장내가 떠날듯한 만세의 환호와 박수로서 열렬히 환영하였으며 우리 나라 전체 가금업일군들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어린 향기그윽한 꽃바구니를 올리였다.

3월 3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현대적대규모의 가금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협동농장들과 농촌지대의 매세대들에서 전군중적으로 닭을 치는 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가금업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나라의 가금업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킬데 대한 강령적인 교시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온갖 지혜와 창의창발성을 발휘함으로써 1969년 알 및 고기생산에서 모범을 보인 가금업부문일군들을 표창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체 종업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으며 당의 경제정책을 높이 받들고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기업관리운영을 잘하여 1969년 알 및 고기 생산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닭공장, 오리공장들을 표창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대회에서는 《우리 나라 가금업발전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와 금후과업에 대하여》라는 내각 국영 가금총국장의 보고와 많은 토론들이 있었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가금업발전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킬데 대한 결의를 담아 그이께 드리는 맹세문을 채택하였다.

대회에서는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번 대회에서 주신 강령적교시를 받들고 국영가금업을 계속 발전시켜 닭알과 닭고기를 집중적으로 생산하며 협동농장가금업을 발전시키고 농촌집들에서 닭치는 운동을 널리 벌려 1~2년에 닭알생산량을 30억개이상의 수준에 이르게할 투쟁목표를 내세웠다.

이 영예롭고도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금 있는 가금공장들을 잘 정비보강하고 현존설비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여 생산을 정상화, 정규화할것을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또한 나라의 가금업이 집약화, 현대화된 새 환경과 새조건에 맞게 표준조작법을 개선하고 기술관리사업을 백방으로 개선강화할것을 지적하였다.

대회에서는 현대적가금업의 첫공정인 배합먹이공장들을 잘 꾸리고 질이 높은 완전가배합먹이를 더많이 생산하며 먹이절약투쟁을 강화하며 수의방역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가금업부문에 나서는 방대한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것을 결의하였다.

대회에서는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구현하고 대안의 사업체계를 관철하며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며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킬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대회의 전과정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현대적대규모 국영가금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면서 협동농장들과 농촌지대의 모든 집들에서 닭을 치는 운동을 전군중적으로 벌릴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대회의 전과정은 또한 우리 인민을 더욱 유족하고 문명하게 잘 살게 하시려는 어버이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며 우리 가금업일군들에게 베풀어주시는 그이의 높은 신임과 크나큰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붉은 가금업전사들의 높은 혁명적열의를 보여주었다.

# 공 업

## 전력공업

전력공업부문에서는 1970년에 이미 있는 발전소설비들을 최대한으로 돌리고 새로운 발전소들의 건설을 다그쳐 165억키로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하여 인민경제의 장성하는 전력수요를 충분히 보장하였다.

이로써 우리의 붉은 동력전사들은 제4차당대회에서 제시한 7개년인민경제계획의 전력고지를 승리적으로 점령하였다.

7개년인민경제계획에 예견된 전력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함으로써 우리는 전력공업을 인민경제의 발전에 확고히 앞세울수 있게 되였으며 인구 1인당 전력생산(1천184키로와트시)에서 발전된 공업국가들의 수준을 따라 앞설수 있게 되였다.

1970년에 전력공업부문에서 달성한 이러한 성과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현존동력기지의 생산능력을 더욱 높이고 그것을 질적으로 일층 강화한 결과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 풍부한 수력자원과 석탄에 의거하여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과 대규모화력발전소건설을 촉진시키며 이르는 곳마다에 중소규모의 수력발전소들과 공장화력발전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나라의 동력기지를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555페지)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이 독창적인 방침을 받들고 서두수청년발전소를 비롯한 대규모수력발전소와 북창화력발전소를 비롯한 대규모화력발전소들, 천마발전소를 비롯한 중소규모수력발전소들, 신의주화학섬유공장을 비롯한 공장화력발전소들의 건설을 다그쳐 계획한 부분조업과 완전조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그리하여 1961~1969년 동안에만 하여도 우리 나라의 총발전능력이 1.8배

로 높아졌으며 1970년의 전력생산량이 7개년계획에 예견한 전력고지우로 껑충 치달아 올랐다.

특히 이 기간에 발전능력구성에서 화력발전비중이 11배로 높아짐으로써 전력공업의 일면성과 전력생산의 계절성이 극복되고 나라의 동력기지가 질적으로 강화되였다.

결과 1970년을 포함한 지난 몇해동안에 우리 나라에서 보기드문 왕가물이 계속되여 수력발전소들의 생산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으나 화력발전소들이 은을 내여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로 계속 내달리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전력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었다.

이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수력발전소건설과 화력발전소건설을 합리적으로 배합할데 대한 독창적인 전력건설방침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실생활을 통하여 여실히 확증해주고있다.

전력공업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1970년에도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전기화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였으며 나라의 철도전기화와 농촌전기화의 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였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1970년 6월 1일에 조업한 천리마강선제강소의 6천톤프레스직장을 비롯하여 공업부문과 농업부문의 새로운 전력수요도 원만히 충족시킴으로써 우리 나라 공업생산의 전력장비도와 농업생산의 전력소비량이 세계선진국가들의 수준에 이르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명천—청진 사이의 철도전기화가 이해 10월에 끝남으로써 이 기간에 850여키로메터의 구간의 철도가 새로 전기화되였으며 우리 나라 중요간선들에서의 철도전기화가 기본적으로 완성되였다.

농촌전기화의 과업도 빛나게 실현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의 모든 리와 모든 농가들, 농업생산에 전기가 들어가 년 10억키로와트시의 전력을 소비하고 있다.

농촌전기화의 완성은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농촌의 락후성을 퇴치하고 기술혁명과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촉진시키는 믿음직한 담보로 되고있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이해에 또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1968년 10월 27일 전보지시 《전력증산과 절약투쟁을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조직전개할데 대하여》를 받들고 전기증산투쟁과 함께 전력배정량의 3~5%의 전기를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밀고나갔다.

우선 인민경제부문별로 과학자, 기술자들을 동원하여 전력을 제일 많이 쓰는 제품별 전력소비기준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전력을 극력 아껴 쓰기위한 조직기술적대책을 세우고 실천투쟁을 벌렸다.

또한 전력소비를 지역별, 분기별, 교대별, 시간별로 균형적으로 분배하고 그대로 생산조직과 설비운전조직을 진행함으로써 생산된 전력을 그 어느 해보다도 합리적으로 리용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전력공업부문에서는 1970년에 동력공업을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시종일관한 방침을 충실하게 관철하였다.

## 석 탄 공 업

석탄공업부문에서는 2천 300만~2천 500만톤의 석탄생산을 예견한 7개년인민경제계획의 석탄고지를 이미 1968년에 다른 부문보다 앞서 맨 선참으로 점령하였다. 이 기세를 늦추지 않고 붉은 탄부들은 계속 혁신의 불길을 추켜들고 힘찬 증산투쟁을 벌림으로써 석탄생산에서 계속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여왔다.

7개년계획의 석탄고지를 2년전에 점령한 기세 드높이 붉은 탄부들은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여 1970년에는 2천 750만톤의 석탄을 생산하였다. 결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7개년계획의 고지들을 점령하는데 필요한 연료를 보장하였으며 인구1인당 석탄생산에서(1천 975키로그람) 세계적으로 발전된 공업국가들의 수준에 도달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 제4차대회는 석탄매장량이 많고 발전전망이 큰 대규모탄광들을 적극 개발할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소규모의 탄광을 그만두라는것이 아닙니다.

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여러번 석탄공업부문일군들을 모아놓고 대규모탄광과 함께 중소규모의 탄광들을 많이 개발할데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3권, 48~49페지)

이 현명한 방침에 따라 석탄공업부문에서는 1970년에도 매장량이 많고 채굴조건이 좋은 대규모탄광들에 투자를 집중하면서 중소규모탄광건설과 로천채굴에 힘을 넣었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우선 매장량과 채굴조건이 좋은 영흥탄광, 오봉탄광을 비롯한 26개의 탄광들에 로력, 설비, 자재, 지도를 집중하여 탄광과 갱건설을 촉진하였으며 그중 대부분이 조업하여 석탄생산에 들어갔다.

특히 대규모탄광들에서는 계획보다 월평균 3천톤이상씩의 석탄을 증산하기 위한 투쟁에 궐기한 채탄중대들을 도와 기술관리사업과 생산조직사업을 개선해줌으로써 증산의 불길을 더욱 높이게 하였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또한 로천채굴장을 가지고있는 각지 탄광들의 로천채굴조건을 전반적으로 다시 조사장악하고 로천채굴설비들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직기술적대책을 세워주었으며 석탄생산을 높이게 하였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특히 대규모탄광과 함께 중소규모탄광들을 대대적으로 개발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새로운 중소규모탄광건설과 이미 있는 중소규모탄광생산에 기술지도와 보장사업을 집중하였다.

그리하여 중소규모탄광수는 2.7배, 그의 생산량은 4.5배로 급속히 장성하였다.

지방연료기지들이 강화된 결과 일용 및 식료품 생산의 절반을 감당하는 전국의 지방산업공장들에서 소비하는 석탄의 95%이상이 중소규모탄광들에서 생산하는 연료로 보장하게 되였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1970년에 기술혁명과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탄광들을 현대화하는데서도 큰 전진이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제5차 당대회의 보고에서 기술혁명과업을 제시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여기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과업은 힘겹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이 그 어느 부문보다도 많은 채취공업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 이 부문의 로동을 헐하고 생산성이 높으며 보다 안전한 로동으로 만드는것입니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47~48페지)

석탄공업부문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갱건설과 굴진을 생산에 앞세우기 위하여 어렵고 품이 많이 드는 일에 선진작업방법과 선진기계기술들을 받아들여 이 일을 능률이 높고 헐하며 안전하게 만들었다.

각지 탄광들에서는 굴진과 갱도영구화작업에 천공틀차, 종합굴진기, 대형블로크조립기, 분무포장기 등 현대적 기계설비들을 도입함으로써 마구리당

굴진속도와 갱도영구화속도를 높이였다.

특히 고속도굴진운동을 활발히 벌릴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고속도굴진소대들에 새로운 편제대로 현대적인 굴진장비들을 보충해주고 선진작업방법들을 받아들인 결과 일이 헐거워지면서도 굴진속도가 훨씬 높아졌다.

7개년계획기간에 마구리당 월 굴진속도가 유연탄부문에서 145%, 무연탄부문에서 155% 높아졌는데 이것은 우리 나라 석탄공업에서의 굴진속도가 선진국가들의 수준에 올랐다는것을 보여준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또한 많은 탄광들에서 쇄동발파 원통식채탄기, 보습식채탄기, 굽개식채탄기 등을 받아들여 채탄작업을 종합적으로 기계화하는 투쟁을 벌려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로동생산능률을 2배이상 높이게 하였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그밖에 갱건설을 통하여 집중화와 운반계통의 단일화를 실현한데 기초하여 주요운반갱도들의 철도화를 실현함으로써 어렵고 힘든 일의 하나인 운반작업의 기계화를 기본적으로 완성하였다.

특히 석탄공업부문에서는 1970년에 연료공업을 전당적, 전군중적 운동으로 지원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이 부문을 한계단 더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일련의 조직기술적대책을 취하고 강력히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기계제작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석탄공업의 종합적기계화와 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운동이 강력히 벌어졌다. 이러한 지원에 기초하여 석탄공업부문에서는 탄광작업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준비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였다.

# 광 업

광업부문에서는 지질탐사사업을 앞세우고 기술혁명을 실현하며 과학연구사업을 적극 추진시킬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훌륭히 관철하여 광업을 우리 나라 주체공업의 믿음직한 원료기지로 전변시켰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채취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지질탐사사업을 앞세워야 합니다. 지질탐사부문의 탐사력량과 기술장비를 더욱 강화하여 탐사사업을 더 널리, 더 깊이있게 진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389페지)

광업부문에서는 어버이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탐사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탐사력량과 기술장비를 강화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광산들의 심부와 처녀지에 대한 예비탐사 특히 세부탐사와 작업탐사를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하였으며 탐사와 굴진, 채굴 등 생산공정간의 련계를 긴밀히 보장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김석창동무가 일하는 광산을 비롯한 수많은 유색금속광산들과 김정비동무가 일하는 광산을 비롯한 수많은 철광산들에서는 확보광량이 충분히 마련되였다. 또한 우리 나라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품종들이 발견되였다.

광업부문에서는 또한 갱건설과 굴진기를 채광에 앞세울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굴진과 채광간의 로력, 설비, 자재의 비례를 5대5로 보장하고 압축기들도 막장가까이에 옮기면서 굴진속도를 높임으로써 수직갱, 사갱, 통풍갱, 수평갱도들에서 우리 당이 7개년계획의 당초에 제기하였던 굴진목표들을 1969년에 돌파하고 1970년에는 그 성과를 공고발전시켰다.

그리하여 광업부문에서는 7개년계획기간에 우리 나라 화학공업, 야금공업을 비롯한 중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는데 중요하게 이바지할 수십개의 대규모 및 중소규모의 광산들을 개발하였으며 확보광량을 또한 2배이상 높이였다.

광업부문에서는 특히 채굴작업과 운반작업을 비롯한 어렵고 힘든 작업을 적극 기계화, 자동화할데 대한 방침을 이악하게 관철하여 고된 작업의 종류와 범위를 훨씬 줄이였으며 로동생산능률을 비약적으로 높이였다.

각지 광산들에서는 우선 로동자들과 기술자들간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7개년계획기간 막장에서의 버력적재작업의 기계화비중을 3배로 높이였으며 중요운반갱도들에서의 쇠불운반작업을 기본적으로 기계화하였다.

또한 모든 광산들에서 채굴방법을 표준화하였으며 채굴막장에 침입식착암기를 도입일반화하여 대당락광량을 종전에 비하여 8배이상, 1인당생산성은 5~6배로 높이였으며 채굴준비굴진량을 3분의 1로 줄였다.

수많은 광산들에서 중단식채광법, 저광중단식채광법을 널리 받아들이고 로천채굴에서 지체토막식발파방법을 비롯한 선진채굴방법을 광범히 도입하였다.

각지 광산들에서는 특히 단천종합선광장을 비롯한 현대적인 선광장들을 신설하고 이미 있는 선광장들을 정비보강하여 선광처리능력을 7개년계획기간에 2.3배로 높이였다.

그리하여 여러가지 광물생산량이 장성하였을 뿐만아니라 그 품종이 2배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제련소들에서의 제품의 질적구성이 다양해지게 되였다.

광업부문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현명한 방침을 이렇듯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가 제시한 7개년인민경제계획의 력사적인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광업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광물로부터 유색압연제품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생산품을 완전히 자기의 자원과 자기의 기술, 자기의 설비로써 생산보장하는 튼튼한 원료생산기지로, 자립적인 민족경제건설에 믿음직하게 복무하는 주체적인 공업부문으로 전변되였다.

광업부문에서 달성한 이 모든 성과들은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와 영광에로 이끌어주시는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와 극진한 배려의 결과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광업발전의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 주시였을 뿐만아니라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손수 풀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광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그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성, 국의 지도를 발전하는 현실과 새로운 사업체계의 요구에 따라 세우기 위하여 광업성과 광종별 관리국을 새로 내오심으로써 광물자원의 전면적개발과 여러가지 유색금속생산을 통일적으로 지도할수 있게 하시였다.

광업부문에서는 이미 달성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새로운 6개년전망계획기간에 광업총생산액을 1.9배 그중 비금속광물은 2배이상 생산하기 위하여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고있다.

# 금속공업

금속공업부문에서는 1970년에 사회주의건설의 1211고지인 220만톤의 강철고지를 승리적으로 점령하였다.

그리하여 나라의 경제적위력과 공업발전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인 인구 1인당 강철생산량이 1970년에 이르러 158키로그람으로서 발전된 공업국가들의 수준에 도달하였다.

금속공업부문에서 달성한 이 모든 성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립적금속공업건설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천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줄기차게 이끌어주신 결과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의 흑색금속공업은 선철생산으로부터 강철, 압연강재, 2차금속가공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생산공정이 완비된 강력한 공업부문으로 발전되였으며 인민경제발전에 요구되는 여러가지 금속자재에 대한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키고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7페지)

금속공업부문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울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훌륭히 관철하여 제철공업의 자립성을 더욱 강화한것이 7개년계획기간에 이 부문에서 달성한 가장 으뜸가는 성과이다.

1970년 10월 24일 조업한 천리마황해제철소의 5.14종합직장 그리고 4월13일제철소들은 우리 나라에 풍부한 연료에 의거하여 제철공업을 발전시킨 기념비적인 성과로 된다.

특히 서부지구에 새로 일떠선 4월13일 제철소는 용광로로부터 평로나 전로를 거쳐 강철을 만들어낸 기성야금공업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주체적인 새야금공업체계를 세웠으며 쇠돌에서 선철을 뽑아낸 600여년간의 야금공업력사에서 처음으로 우리 나라 연료를 가지고 제철제강공업을 창설하는 새력사를 열어놓았다.

주체적인 제철공업을 창설하는 투쟁을 통하여 립철생산능력이 비약적으로 높아졌을 뿐만아니라 콕스생산에서 국내탄배합비률이 높아졌으며 구단광, 소결광 생산량이 계통적으로 늘어났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또한 금속공장들을 정비보강하고 흑색야금공업기지를 더욱 확대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금속공업의 내부구조를 개선하고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였다.

각지 제철, 제강소들에서는 우선 광석사별장과 원료저장장, 소결로와 배소로, 파철가공장과 파철저장장, 조괴장과 강재저장장 등 원료 및 제품 처리계통을 개선, 확장, 신설함으로써 주선비능력과 전후처리능력간에 새로운 균형을 잡았다.

각지 제철, 제강소들에서는 또한 분괴압연기와 박판압연기를 비롯한 강괴처리압연기들을 신설확장하고 전반적 압연공정들에서 가열능력을 높여 압연강재생산능력을 현저히 높이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금속공업은 야금생산능력과 압연생산능력간, 소재생산능력과 제품생산능력간의 균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생산순환이 보장되였으며 기술장비가 현저히 강화되였다.

강종을 늘이고 합금강생산을 발전시키고 강재의 품종과 규격을 확대하며 2차금속가공제품생산을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이 빛나게 관철됨으로써 금속공업제품의 질적구성이 또한 근본적으로 개선되였다.

천리마강선제강소의 인발강관직장과 석도금판직장, 천리마황해제철소의 아연도금판직장, 조석림동무가 사업하는 기업소의 유색압연공장과 최종손동무가 사업하는 기업소의 유색금속가공직장 등이 새로 건설되고 천리마강선제강소의 단접강관직장과 강삭직장 등이 확장되였다.

각지 제철, 제강소들에서는 꾸려진 이 물질기술적토대를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인민경제의 당면한 요구와 전망적요구에 맞게 각종 강재의 규격을 부단히 확대하였다.

1960년에 비하여 1969년에 압연강재의 생산량은 2.2배로 높아지고 그 품종과 규격이 4.2배로 늘어났으며 새로운 2차금속가공제품생산량이 또한 장성하였다.

유색금속부문에서는 원료의 종합적처리를 실현하여 더 많은 유가성분들을 회수하였으며 제련부산물로부터 값비싼 여러가지 희유금속들을 새로 생산한것을 비롯하여 유색금속생산량을 높이였다.

그리하여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철강재에 대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수요를 량적으로 뿐만아니라 재질규격별로 원만히 충족시키는 질적비약을 일으켰다.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금속공업부문에서는 6개년전망계획기간에 350만~380만톤의 선철과 립철, 380만~400만톤의 강철, 280만~300만톤의 압연강재를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 기계제작공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중공업건설에서 이룩된 가장 큰 성과는 인민경제의 발전과 기술적진보의 기초인 자체의 기계제작공업이 창설된것입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6페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배려에 의하여 우리의 기계제작공업은 강력한 중공업의 핵심으로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그 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였다.

우리 당은 우선 기계제작공업의 발전에 큰 힘을 넣은 결과 1969년도 기계제작공업의 생산액은 1960년에 비하여 3.2배로 늘어났으며 1949년 한해동안에 생산하던 기계설비들을 단 5.2일동안에 만들어내는 수준에 올라섰다.

우리의 기계제작공업은 인민경제발전에 필요한 모든 대형기계설비와 정밀기계설비들을 만들어내고있을뿐만아니라 새로 건설하는 현대적 공장, 기업소들의 설비를 종합적으로 생산보장하고있다.

기계제작공업부문에서는 우선 어머니당 제5차대회를 맞이하는 1970년의 단 10개월동안에만 하여도 1969년 같은 시기에 비하여 공작기계는 144%, 발전기는 327%, 화물자동차는 150%, 뜨락또르는 174%로 그 생산을 높이였다.

특히 이해에 5천톤급 대형랭장운반선, 수천명의 로력을 대신하는 련속식대형굴착기, 25톤급 중량자동차, 300마력불도젤, 10메터타닝반, 12메터프레나, 광학식좌표보링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형기계들과 정밀기계들을 생산하였다.

해방전에는 간단한 농기구 하나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던 우리의 기계제작공업은 오늘 전면적기술혁명의 요구에 맞게 6,000톤프레스와 대형굴착기, 중량자동차와 대형뜨락또르, 대형불도젤과 대형선박, 전기기관차와 디젤기관차들을 마음대로 생산하는 대형기계생산기지와 정밀기계생산기지들을 가지게 되였다.

기계제작공업부문에서는 특히 1970년에 2.8세멘트공장설비, 내폭전동기공장설비, 사리원방직공장설비를 비롯한 현대적공장, 기업소들의 설비를 종합적으로 생산공급하였다.

우리의 기계제작공업은 7개년인민경제계획기간에만하여도 발전소설비, 선광장설비, 야금공장설비, 화학공장설비, 세멘트공장설비와 같은 100여개 현대적공장, 기업소의 설비들을 종합적

으로 생산보장함으로써 제철공업의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고 동력기지와 건재기지를 질적으로 개선하였으며 나라의 전기화와 화학화를 촉진하였다.

오늘 우리의 기계제작공업은 개별적기계설비들로부터 현대적공장, 기업소들의 설비를 종합적으로 생산공급하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다.

기계제작공업부문에서는 이해에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혁명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전인민적방위체계를 철벽같이 다지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기계제작공업부문에서 달성한 이러한 성과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대로 기계공업의 부문내부구조를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로 장비함으로써 강유력한 기계생산기지로 그 면모를 일신한 결과이다.

기계제작공업부문에서는 대형설비생산기지와 정밀기계생산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리였으며 형단조기지와 자동화기지, 전자기구 및 측정계기 생산기지를 새로 마련하였으며 도처에 중소규모기계공장과 분공장들을 건설하여 기계생산을 합리적으로 조직할수 있는 전문화, 협동화 체계를 철저히 세웠다.

기계제작공업부문에서는 우선 인민경제발전의 전반적요구에 비추어 대형기계생산기지와 정밀기계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릴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7개년계획기간에 천리마대안전기공장의 대형발전기직장, 기양뜨락또르공장의 대형조기직장을 비롯한 대형기계생산기지와 정밀기계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였다.

기계제작공업부문에서는 또한 8월28일공장의 가공직장, 천리마락원기계공장의 조립직장, 승리종합자동차공장의 주물직장을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현대적인 조립직장, 가공직장, 주물직장들을 건설하여 기계제작공업의 조립, 가공, 주물능력을 높이는 한편 약한 고리였던 열처리, 도금, 소재준비공정들을 급격히 보충확대하였다.

기계제작공업부문에서는 새로운 기계생산기지들을 꾸리기 위하여 또한 기계제작공업의 모체로 되는 공작기계생산능력을 체계적으로 높이는 투쟁을 벌려왔다.

전문적인 대중소 공작기계공장들을 대대적으로 늘이는 한편 모든 기계공장들에서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을 힘차게 벌려 만능공작기계들과 단능공작기계들을 만들어 기계제작공업의 공정간, 기종간 균형을 맞추었다.

모든 기계공장들에 공작기계들이 보충된 결과 기계제작공업부문의 공작기계보유대수는 1960—1969년동안에 2.2배로 늘어났으며 특히 특수공작기계들과 단조압착설비대수가 많이 증가됨으로써 설비가공능력이 훨씬 높아졌다.

기계제작공업부문에서는 6개년인민경제계획기간에 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며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공업로동과 농업로동간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3대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자연개조사업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요구되는 보다 능률적이며 경제적인 기계설비생산에 달라붙었다.

# 선박공업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됨에 따라 선박공업은 7개년인민경제계획기간에 자립적민족경제의 믿음직한 구성부문의 하나로서 급속히 발전하였다.

선박공업부문에서는 1970년 7월에 진수한 5천톤급 대형랭장운반선 《봉화산》호와 8월에 바다에 띄운 1천톤급 선미뜨랄선 《대덕산》호를 비롯하여 수많은 작업선들과 운반선들, 려객선들과 화물선들, 준설선과 준천선들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선박공업부문에서는 이해에도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로 힘차게 내달려 7개년인민경제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며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산부문에서 선박들을 대형화, 현대화, 만능화하여 물고기잡이에서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48페지)

선박공업부문에서는 총결기간에 우선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대형선미뜨랄선들과 대형가공모선들, 중형뜨랄선들과 랭동랭장운반선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는데 힘을 넣으면서 기관선들과 목선들도 만들었다.

그리하여 동서해의 수많은 수산기지마다에 강력한 원양어선단들이 창설되였으며 먼바다와 가까운 바다에서 물고기잡이가 더욱 강화되였으며 수산물생산과 공급의 계절적제한성을 없애고 사철 신선한 물고기들을 공급하게 되였다.

선박공업부문에서는 또한 총결기간에 우리 나라 강하천과 연해의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려객선들과 화물선들을 만들어 수상운수의 물질기술적장비를 강화하였다.

수상운수부문에서는 1961—1969년동안에만 보더라도 선박보유척수가 거의 2배로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항로들이 열리였다.

그리하여 선박공업부문에서는 수상운수부문의 연해 및 강하천 운수량을 더욱 높이며 철도운수와 수상운수간의 련대수송을 강화하며 철도의 긴장성을 덜어주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선박공업부문에서는 7개년계획기간에 1천마력대형준설선 《9. 2》호를 비롯하여 수많은 준천선들과 준설선을 건조하여 우리 나라에서 강하천을 정리하고 간석지를 대대적으로 개간하는데 돌리였다.

선박공업부문에서는 많은 배들을 무어내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8월8일 공장을 비롯하여 지금 있는 기관공장들을 개건확장하고 새로운 기관공장들을 꾸려 여러가지 선박들에 필요한 질좋은 기관들을 많이 생산하였다.

선박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또한 선박의장품생산을 빨리 추켜세웠다. 집단적인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여 지금 있는 의장품직장들의 기술장비를 더욱 보강하였으며 수많은 의장품수요를 자체로 보장하였다.

선박생산을 늘이는것과 함께 선박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리는데도 힘을 넣었다. 지금있는 선박수리공장들의 기술장비를 강화하여 수리능력을 높이였으며 새로 대형선박수리기지를 꾸리기 시작하였다.

선박공업부문에서는 6개년전망계획기간에 대형선박과 중소형선박, 기술선박들의 생산을 3.6배로 높이기 위하여 선박건조기지, 기관생산기지, 의장품생산기지들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 화학공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화학공업의 면모도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공업화기간에 화학비료생산기지가 강화되고 새로운 농약생산부

론과 비날론을 비롯한 합성섬유와 합성수지 생산부문들이 창설되여 우리 나라에는 무기화학공업과 함께 강력한 유기화학공업기지들이 마련됨으로써 인민경제의 화학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되였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7페지)

화학공업부문에서는 1970년에 150만톤의 화학비료를 생산하였으며 1960년에 비하여 화학섬유는 2.4배, 합성수지는 40배로 각각 그 생산을 높이였다.

그리하여 자립적민족경제의 믿음직한 구성부문의 하나인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이해에도 농촌경리, 경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훌륭히 복무하였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우선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촉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비료는 곧 쌀이고 쌀은 곧 사회주의다»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주체적인 화학비료생산기지의 건설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키시였다.

그리하여 흥남의 무연탄가스화에 의한 암모니아합성공장과 아오지의 갈탄가스화에 의한 암모니아합성공장, 흥남종합비료공장의 과린산공장과 뇨소비료공장이 새로 일떠섰고 이미 있던 비료공장들이 새로운 기술로 개건되였다.

새로운 화학비료생산기지가 튼튼히 꾸려지고 이미 있던 화학비료공장들의 생산능력이 높아진 결과 화학비료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장성하였으며 특히 합성뇨소, 석회질소비료의 생산이 높아짐에 따라 산성비료의 생산에만 치우쳤던 기형성이 극복되고 알카리성비료의 비중이 늘어났으며 비료의 효능이 또한 짝이 맞게 더욱 높아졌다.

1970년에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우리 나라에 풍부한 카리 및 린 자원의 특성에 맞게 생산공정을 세우고 그 생산을 공업화하기 위한 준비사업들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와함께 피. 시. 피를 비롯한 여러가지 농약생산량을 1960년에 비하여 7배이상으로 올리여 김매기를 포함한 농민들의 힘든 로동을 상당히 덜어주었다.

화학공업은 1970년에 경공업의 발전과 인민생활의 향상에 더 잘 복무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그이의 세심한 보살핌에 의하여 창설된 2.8비날론공장과 현대적인 대규모화학섬유공장들이 더욱 보강완비되고 이미 있던 화학섬유공장들이 더욱 정비확장됨으로써 화학섬유의 생산량과 그 품종이 늘어났으며 화학섬유의 질이 훨씬 좋아졌다.

우리 나라에 풍부한 석회석과 무연탄 그리고 갈을 원료로 하는 화학섬유를 보다 많이 생산하게 되였으며 경공업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토대가 튼튼히 갖추어지게 되였다.

합성수지생산량과 그 품종을 더욱 늘일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우리 나라에 풍부한 무연탄과 석회석을 원료로 하는 폴리염화비닐의 생산능력과 합성뇨소수지의 생산을 현저히 높이였으며 페놀수지, 멜라민수지, 폴리아크릴수지들을 비롯하여 합성수지들의 생산을 다그쳐 그 품종을 확대하였다.

합성수지공업이 급속히 발전한 결과 경공업은 물론 기계제작공업, 건재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전면적화학화가 더욱 촉진되였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유기화학공업과 무기화학공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7개년계획기간에 산, 알카리를 비롯한 기초화학공업의 발전에 힘을 넣었다.

대규모의 가성소다공장, 현대적인 류산공장, 대용량의 카바이드전기로들을 새로 건설하는 한편 이미 있던 가성소다직장, 류산직장, 카바이드로들을 새로운 기술로 개건하여 산, 알카리를 비롯한 기초화학제품의 생산량을 현저히 높이였다.

소금생산부문일군들은 1970년에 소금생산계획을 반년이나 앞당겨 수행함으로써 소금을 원료로 하는 화학공업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각에서는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1970년도 소금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제염공업부문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10월 15일에 축하문을 보내였다.

대규모화학공업과 중소규모화학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전국도처에 중소규모화학공장들을 세우고 그 기술장비를 강화하였을뿐만아니라 기술관리수준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였다.

그리하여 중소규모화학공장수는 1961—1969년동안에 3배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소비품의 품종을 늘이고 질을 높이는데 절실히 요구되는 물감, 접감, 접착제를 비롯한 수백종의 화학제품들이 생산되였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6개년전망계획기간에 정보당 화학비료시비량을 1톤이상으로 높이며 섬유원료의 70%이상을 국내원천에 의거한 화학섬유로 충당시키며 합성수지와 고무가공품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 제약의료기구공업

제약의료기구공업부문에서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켜 이 땅우에 모두가 무병장수하는 사회주의지상락원을 건설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실천하는 투쟁에서 1970년에 실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제약및의료기구공업총국산하 로동자, 기술자들은 년초부터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로 힘차게 달려 1969년에 비하여 120%로 늘어났던 1970년도 의약 및 의료기구생산계획을 10월 20일까지 두달반이나 앞당겨 101.8%로 넘쳐 실행하였다.

1970년 10월 2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각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우리 당 제4차대회가 제시한 7개년계획을 빛나게 완수하고 1969년에 비하여 훨씬 늘어난 1970년 의약 및 의료기구생산계획을 넘쳐수행한 제약및의료기구공업총국산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축하문을 보내였다.

제약의료기구공업부문에서는 10개월동안에만하여도 1969년의 같은기간에 비하여 의약품생산량을 153%, 의료기구생산량은 122.5%로 부쩍 높이였다.

제약의료기구공업부문에서 거둔 이 자랑찬 성과는 오직 온 강산이 포연에 덮인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동방에서 처음으로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실시해주시고 해방전에 제약공장 하나도 없이 소독약을 못 만들던 우리 나라에 자립적인 제약의료기구공업의 토대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배려의 결과이다.

그것은 또한 당과 수령의 부름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며 제시된 의약의료기구생산과제를 끝까지 수행하고야마는 붉은 의

약의료기구전사들의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의 표현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의약품과 의료기구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보건위생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단행본, 202페지)

《그리하여 앞으로 2~3년안으로 보건성에서 요구하는 약을 자체로 생산보장하도록 하며 제약공업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203페지)

우선 각지 제약공장들에서는 합성제의약품의 품종을 늘이고 항생제의약품생산을 더욱 늘일데 대한 어버이 수령님의 간곡한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짧은 기간에 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꾸리는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리였다.

순천제약공장, 윤종섭, 문학인동무들이 일하는 제약공장들에서는 집단적기술혁신의 불길을 높여 수백건씩의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약품생산공정을 완비하는 투쟁을 통하여 종국적으로 합성제의약품생산량을 1969년 같은 시기에 비해서 3배, 항생제의약품생산량은 2배로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각지 의료기구공장들에서는 의료기구생산을 전문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단위별 전문생산설비를 튼튼히 갖추면서 종합적기계화비중을 높이는데 힘을 넣었다.

전노협동무가 일하는 공장에서는 주사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데 필요한 주사침인발기, 주사침꼭지가공기, 주사침구멍을 뚫는 기계들을 창안도입하여 로동생산능률을 10배이상씩 높였다.

그리하여 의료기구부문에서는 1970년의 단 열달도 안되는 기간에 그 전해에 비하여 전기의료기구생산량은 1.5배, 금속제의료기구생산량은 2배로 장성시키였다.

제약의료기구공업부문에서는 1970년 의약품과 의료기구뿐만아니라 생약생산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생약부문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약초재배를 위한 적지조사사업을 널리 벌리고 약초재배의 종류와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그의 가공속도를 높임으로써 생약생산량을 훨씬 높이였다.

각지 제약 및 의료기구공장들에서는 가까운 장래에 의약품과 의료기구의 생산량을 2~3배이상으로 높이고 새로운 치료예방의약품과 의료기구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의약품과 의료기구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투를 벌리고있다.

# 건재공업

건재공업부문에서는 1970년에 우리 나라에 풍부한 원료와 연료를 가지고 400만톤의 세멘트를 생산하였으며 그 품종을 훨씬 확대하였다.

그리하여 나라의 경제적위력과 공업발전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징표인 인구 한사람당 세멘트생산량을 287키로그람에 이르게 하였다.

이것은 세멘트 한사람당 생산량에서 우리 나라가 발전된 공업국가들의 수준을 따라 앞섰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건재공업발전에서 우리는 이미 있는 건재공장들을 정비확장하면서 새로운 건재공장들의 건설을 그에 옳게 배합하며 대규모중앙건재공업과 중소규모지방건재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관철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59페지)

건재공업부문에서는 우선 이미 있는 세멘트공장들을 정비보강하면서 새로운 세멘트공장건설을 다그쳐 세멘트생산능력을 500만톤 수준으로 끌어올리였다.

각지 세멘트공장들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소성로, 분쇄기들의 감속기들과 수송공정의 각종 설비들을 철저히 정비하여 모든 설비들이 만부하로 돌아갈수 있게 하였으며 소성로들의 능력에 맞게 분쇄능력, 수송능력, 저장능력을 더 조성하여 주생산설비들인 소성로의 리용률을 높이게 하였다.

각지 세멘트공장들에서는 이해에 또한 내화벽돌의 질을 높여 소성로들의 수리회수를 줄임으로써 세멘트공장들의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였다.

특히 각지 세멘트공장들에서는 고속도소성법을 비롯한 선진기술을 널리 받아들여 세멘트생산능력을 비약적으로 높이였다.

진창후동무가 사업하는 세멘트공장에서는 1968년 5월에 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고속도소성법을 비롯한 새로운 작업방법과 고질내화물, 다스트중간투입장치 등 새기술을 받아들임으로써 소성로들의 능력을 1.3배로 높였으며 그 어떤 특수구조물도 다 만들수 있는 각종 세멘트를 생산해내고있다.

건재공업부문에서는 이해에 2.8세멘트공장의 대형소성로건설을 끝내고 조업하였으며 석회석과 무연탄이 많은 일련의 지구들에 대규모의 세멘트공장들을 새로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전체 공정이 자동화된 9월25일세멘트공장이 조업단계에 들어갔으며 새로운 세멘트공장건설이 본격적인 시공단계에 들어섰다.

건재공업부문에서는 또한 이해에 대규모적인 기본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화학건재, 목질건재, 석재생산에도 힘을 넣어 여러가지 건재제품들을 많이 생산하였다.

건재공업부문에서는 대규모의 중앙건재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건재공업을 병진하여 발전시킬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지방건재생산기지를 새로 더 꾸리였다.

지방건재부문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중앙공업의 지원밑에 내부예비를 찾아내여 이미 있는 지방건재공장들의 생산능력을 더욱 높이며 세멘트, 벽돌, 석재, 토기와를 비롯한 지방건재품생산을 더욱 늘이였다.

지방건재부문에서는 또한 지방의 건재원천에 의거하여 세멘트공장, 기와공장, 벽돌공장, 소석회공장, 천연스레트공장, 금속건구공장, 합성수지건재공장들을 도처에 수많이 일떠세웠다.

그리하여 지방건재생산기지들은 오늘 지방정권기관들에서 온갖 창의창발성을 발휘하여 진행하는 소규모의 건설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고있으며 사회주의문화농촌을 건설하는데 적지 않게 기여하고있다.

건재공업부문에서는 이렇듯 중앙건재공업과 지방건재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 세멘트, 금속건재, 화학건재를 비롯한 여러가지 건재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였다.

# 림 업

림업부문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경제건설장과 국방건설장에 필요한 목재수요를 원활히 보장하였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증산투쟁을 힘차게 벌려 모두다 두세몫씩 해제낌으로써 1969년에 비하여 113%로 늘어난 1970년도 림업계획을 10월 26일 현재로 100.2%로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림업부문에서는 1969년의 같은 시기에 비하여 통나무생산량을 127%로 높이였으며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제시한 7개년림업생산계획을 1.6배로 넘쳐 수행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각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목재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 7개년계획을 이미 끝내고 1970년계획도 우리 당 제5차대회전으로 빛나게 수행한 림업부문의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10월 27일 축하문을 보내였다.

림업부문에서 이룩된 이 자랑찬 성과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림산공업의 정확한 발전방향과 방침을 제시해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림업전사들의 투쟁을 세심히 보살펴 주신 결과이다.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의 제한된 산림자원을 가지고도 빨리 늘어나는 목재수요를 계통적으로 충족시킬수 있는 순환식채벌방법을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림업부문에서 순환식채벌방법을 도입하여 원목생산을 늘이는 동시에 제재실수률을 높이고 목삭판, 목섬유판 생산을 늘여 목재를 종합적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 나라의 긴장된 목재사정을 풀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59페지)**

림업부문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나라의 산림자원을 책임진 립장에 튼튼히 서서 전망답사와 현행답사를 배합한 산림답사를 나무베기에 적극 앞세우면서 순환주기에 따라 생산을 집중화하였다.

각지 림산사업소들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천리마의 기세, 일당백의 기세로 고속도채벌운동을 힘차게 벌려 기계톱의 대당 하루생산량을 평균 1.5배로 높이였다.

벌목공들의 고속도채벌운동에 발맞추어 운재공들속에서도 집단적인 기술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오가산림산사업소 로동자들이 임의의 지점에 설치하고 마음대로 통나무를 모아 운반할수 있는 자동식삭도를 만들어 몇십배의 운재능력을 올릴때 성간림산사업소로동자들은 기계톱식착암기를 만들어 나무자르기, 새길닦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켰다.

이러한 혁신운동이 각지 림산사업소들에서도 광범히 진행되였으며 림업부문에서 품이 가장 많이 들고 힘든 작업인 중간운재작업은 90%, 운재작업은 100% 기계화하였다.

림업부문에서는 또한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 심정으로 제재실수률을 높이고 나머지 부산물로써 일용품과 목삭판, 목섬유판을 더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였다.

각지 제재공장들에서는 한토막의 나무라도 더 얻어내기 위하여 톱날의 두터이를 얇게 하고 나무의 생김새에 따라 켜나감으로써 제재실수률을 70%이상으로 높였다.

그리고 나무의 초리, 아지, 뿌리, 죽데기, 톱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1960년에 비하여 2배에 달하는 여러가지 목재가공품들과 목재화학제품들을 생산하였다.

림업부문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은 1970년도 증산투쟁을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전진한다면 점령못할 요새가 없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6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림산공업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려나가고있다.

## 경 공 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공업발전에서도 획기적인 전진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은 인민소비품생산에서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 7개년계획기간에 새로운 현대적중앙경공업공장들을 건설하는것과 함께 지방의 예비를 동원하여 수많은 지방산업공장들을 건설하도록 하였으며 중공업이 발전하는데 따라 지방공업의 기술개건사업을 적극 밀고나가도록 하였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8페지)

인민소비품생산에서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우리 인민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더욱 로골화되는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국방력강화에 많은 힘을 돌리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대규모의 현대적인 경공업공장들과 훌륭한 지방산업공장들을 도처에 건설하여 우리의 경공업을 자립적이며 발전된 소비품생산기지로 더욱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경공업은 남에 의존함이 없이 자체의 힘, 자체의 기술, 자체의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직물, 식료품, 일용품 등 경공업제품에 대한 날로 늘어나는 인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가지게 되였다.

**【방직공업】** 방직공업부문의 로동자들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전으로 1970년도 년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10월 현재로 여러가지 직물생산량을 1969년 같은 시기에 비하여 118%로 높이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한해에 4억메터이상의 여러가지 천을 짜게 되였으며 해방전에 한해 생산하던 직물을 단 30시간에 짜내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가 인구 한사람당 직물몫에서 세계적으로 발전된 나라들의 수준에 올라섰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방직공업부문에서는 7개년계획기간에 무엇보다도 먼저 함흥모방직공장, 해산아마방직공장, 사리원방직공장을 비롯한 새로운 방직공장들을 건설하는 동시에 이미 있는 방직공장들을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정비보강하였다.

새로운 방직공장건설과 정비보강사업이 성과적으로 보장된 결과 천생산능력이 2배로 높아졌을뿐만아니라 면직물과 스프직물밖에 생산하지 못하던 우리 나라에서 모직물과 아마직물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천이 펑펑이 쏟아지게 되였다.

방직공업부문에서는 천생산량이 현저히 늘어났을 뿐만아니라 그의 질적구성이 더욱 개선되였다.

1961—1969년동안에 연사직물생산능력이 6배이상 올라갔으며 그 결과 1969년에 일반직물생산량에서 연사직물이 차지하는 몫이 40%이상에 이르렀다.

또한 신의주방직공장의 염색가공직장을 비롯한 일련의 염색직장들과 직물후처리시설들이 새로 마련되여 천의 질이 훨씬 높아지게 되였다.

방직공업부문에서는 또한 7개년인민경제계획기간에 선교편직공장과 강계편직공장을 비롯한 새로운 편직공장들을 건설하면서 이미 있던 편직공장들

을 확장하여 여러가지 편직물생산능력을 계통적으로 높이였다.

그리하여 1970년에 내의류생산량은 10개월동안에만 하여도 1969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134%로 높아졌다.

방직공업부문에서는 특히 각도,시마다 피복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가내작업반을 널리 조직하여 여러가지 맵시있는 학생옷들과 지은옷들을 많이 만들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7개년계획기간에 해마다 철따라 탁아소, 유치원,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피복과 외투들을 싼값으로 공급하였으며 양말, 신발, 모자들도 자주 내주었다.

**【신발공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신발생산에서는 점차 고무신대신에 가죽구두, 의혁구두의 생산을 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18페지)

7개년계획기간 신발공업부문에서는 이 방향에서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생산공정을 적극 기계화, 자동화하여 가죽구두와 의혁구두를 비롯한 여러가지 질좋은 신발을 대대적으로 생산함으로써 우리 당 제4차대회가 제시한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이 신발걱정을 하지 않고 누구나 좋은 신발을 신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게 된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의 결과이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나날 우등불가에서 손수 유격대원들의 젖은 신발을 말리여주시고 《도로기》를 손질해주시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인민의 신발문제에 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현지지도의 나날에도 용해공들에게는 로동조건에 맞게 방열신을 만들어주게 하시였으며 벌목공들에게는 발이 시리지않게 두툼하고 큼직한 솜신발을 만들어주게 하시였으며 농촌녀성들에게는 건강을 념려 하시여 고무장화를 곱게 만들어주게 하시였으며 아이들에게는 장난이 심하니 질긴 신발을 만들어주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신발공업부문에서는 순천의혁가죽구두공장과 평양가죽구두공장을, 각도마다에는 비닐신발공장들을 건설하여 여러가지 신발들을 더 좋게 더 많이 생산하였다.

한병용동무가 일하는 공장에서는 1970년에 틀이와 비닐구두의 16개 생산공정을 체인콘베아의 한개의 흐름선으로 완성하고 이기에 현대적이며 능률적인 크고작은 설비들을 설치하여 신발생산을 완전히 흐름식으로 개조한 결과 신발의 질과 생산량이 각각 1.5배씩 높아졌다.

신발공업부문에서는 인민들의 생활풍습과 년령, 성별, 계절에 맞는 여러가지 아름다운 신발들과 방직화, 광산화, 농민장화와 같은 직업별 신발들도 생산하였다.

**【종이공업】** 이 부문에서는 7개년계획기간에 거의 매개 시군에 1개이상의 종이공장들을 꾸리고 종이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함으로써 인민들의 수요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필요한 여러가지 종이를 기본적으로 생산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이 부문에서는 이미 있는 종이공장들을 정비보강하면서 새로운 종이공장들을 꾸리는 투쟁을 벌려 리재휘동무가 일하는 주름판지공장을 비롯한 여러공장들을 건설하였다.

그리하여 7개년인민경제계획기간에 그라프트지, 주름판지를 비롯한 포장종이생산부문이 새로 창설되였으며 1961—1969년 동안에 종이생산이 2.4배, 그중에서 신문지는 2.7배, 모조지는 3.8배로 늘어났다.

모든 제지공장들에서는 우선 현존설비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동시에 기술공정을 국내원료원천에 맞게 더욱 완비함으로써 우리 나라에 풍부한 벼짚, 강냉이짚, 갈, 아마, 대마를 리용하여 새로운 종이들을 만들었다.

신의주팔프공장에서는 아마선별장을 비롯한 일부 공정들을 더욱 완비하여 대마와 짧은 아마섬유에서 질좋은 담배종이와 식료품포장용종이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토대를 닦았다.

한편 종이공업부문에서는 지방원료원천에 의거하는 중소규모의 종이공장들을 더 꾸리는 동시에 이미 있는 종이공장들을 정비하여 창호지,도배지, 천정지, 장판지 수요를 지방 자체로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였다.

중소규모의 종이공장들에서는 집단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높여 원료운반, 원료절단, 원료씻기, 종이후처리공정을 적극 기계화하여 생산능력을 높임으로써 도내 신문지, 필기용지, 식료품포장용지의 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키고있으며 농촌문화주택까지 포함한 지방의 도배지, 천정지, 장판지, 창호지의 수요를 적지않게 보장하고있다.

**【식료공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당 제4차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식료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녀성들의 가정일을 덜어주기 위하여서는 식료가공업을 계속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18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방침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편리한 식생활을 마련하여주며 녀성들의 가정적부담을 덜어주시려는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식료공업의 발전에 온갖 심혈을 다 기울여주시였다.

그리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거대한 국가투자를 실시하여 현대적인 대규모의 식료공장들을 건설하며 이미 있는 식료공장들을 정비보강하도록 하시였으며 도처에 지방원료원천에 의거한 중소규모의 식료공장들을 계속 건설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결과 오늘 우리 나라의 군마다에는 현대적인 중앙식료공장들을 제외하고도 평균 3개이상씩의 지방산업식료공장들이 있으며 멀지않아 5개이상의 식료공장들에서 새로운 품종의 주식물, 부식물, 영양식료품들이 쏟아지게 된다.

식료공업부문에서는 7개년계획기간에 우선 중공업의 강력한 지원과 집단적인 기술혁신운동을 통하여 식료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림으로써 주식물, 부식물, 영양식료품들의 생산능력을 부쩍 높이였다.

평양곡산공장의 옥쌀직장을 비롯하여 도처에 옥쌀가공공장을 건설하여 새로 10만톤이상의 옥쌀 생산능력이 조성되였으며 간장, 된장 생산이 완전히 공업화되였으며 과일저장능력이 3.6배, 과일가공능력은 15배로, 고기저장 및 가공능력도 수배로 높아지였다.

식료공업부문에서는 또한 1962년 8월 지방당및경제일군창성련석회의에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식료공업의 원료기지를 강화하였다.

각지 식료공장들에서는 50~100정보의 원료기지를 조성하는 투쟁을 통하여 많은 유지림, 과수원, 양념원료기지를 꾸리였다.

특히 농업부문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받들고 경지면적이 제한된 공화국북반부에서 식료공업의 튼튼한 주식물생산기지와 유지원료생산기지를 꾸리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식료공업발전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주시였을 뿐만아니라 녀성들을 부엌일

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업종별로 본보기 식료공장들을 꾸리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옥쌀공장,사탕과자공장, 닭고기공장, 오리고기가공공장, 도살 및 랭동공장, 과일가공공장, 남새가공공장 등 본보기공장들의 규모와 장소, 설계에 이르기까지 검토확정하여주시였으며 몸소 이 부문 일군들의 방식상학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식료공업의 발전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인민은 자애로운 어버이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식료공장들에서 생산된 여러가지 식료품들을 공급받고있으며 앞으로 인민들의 식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고 녀성들을 부엌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을 가지게 되였다.

식료품공업발전에서 달성한 이러한 성과는 전적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며 그이의 탁월한 령도와 극진한 배려에 의하여 이루어진 자랑찬 열매이다.

**【일용품공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공업부문의 중심과업은 소비품의 질을 높이고 품종을 늘이며 원가를 낮추는것입니다. 경공업부문일군들의 책임성을 높이고 생산공정을 완비하며 기술공정과 표준조작법을 엄격히 지키고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 소비품의 질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에 따라세워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59페지)

일용품공업부문에서는 수령님의 간곡한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인민들의 생활이 향상되고 공업이 발전됨에 따라 그 수요가 많아지는 철제일용품과 수지일용품, 유리도자기와 지방특산품들의 품종을 확대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였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의 야금기지들과 기계생산기지들마다에 수많은 철제일용품공장들과 철제일용품직장들이 새로 더 꾸려지고 분공장들과 가내작업반들이 광범히 조직운영되였다.

또한 철제일용품생산부문에서는 탁상선반을 비롯한 소형단능설비들과 공구지구들로 그 장비를 보충완비하였으며 앞선기술과 경험을 받아들여 제품의 도안과 설계, 후처리와 겉면가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상표도안과 포장문제를 적지않게 해결하였다.

그리하여 금구류와 가정용공구, 담배갑을 비롯한 소지품류와 몇단추를 비롯한 장신구, 소형인쇄기를 포함한 실험실습기재와 제도기를 비롯한 학용품, 전기가마를 포함한 주방도구와 세탁기를 비롯한 부엌용 기계, 안전면도날을 비롯한 위생도구와 주사기들을 포함한 치료기구, 전축을 포함한 전자기구와 사진기를 비롯한 광학기구들의 품종을 확대하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생산하는 물질기술적준비를 확고히 갖추었다.

그외에 일용품공업부문에서는 지방의 특성을 살려 남포에서는 유리그릇, 주을에서는 도자기, 함흥에서는 수지일용품, 만경대, 보천보들에서는 혁명사적지와 전적지 기념상품을, 금강산, 묘향산 등지에서는 명승지기념품들의 품종과 생산량을 급격히 확대하게 하였다.

또한 경공업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벌려 앞으로도 일용품의 질을 계통적으로 올릴수 있는 토대를 튼튼히 다지였다.

우선 로동자들속에서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주인답게 일함으로써 일용품들을 보다 아름답고 쓸모있게 만들수 있는 책임성을 높였으며 모든 제품이 필요한 공정을 거쳐서 생산할수 있게 빠진 공정들을 전부 보충보강하였다.

또한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 고급기능공대렬을 급속히 확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을 더욱 완성하였으며 우수한 제품들은 제때에 등록평가하는 체계를 세워놓았다.

그리하여 가정용랭동기와 세탁기, 재봉기와 자전거, 다리미와 시계류의 질이 더욱 높아졌으며 백색경질자기류와 유리그릇의 모양과 강도가 또한 올라갔으며 공예품, 초물제품, 수지제품의 질이 더 나아졌다. 일용품의 원가도 훨씬 낮아졌다.

**【지방공업】** 전당적, 전군중적 운동으로 지방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방침을 관철하여 중소규모의 지방산업공장들을 대대적으로 확대발전시킨 결과 7개년인민경제계획기간에 지방공업기업소수는 근 2배로, 그 생산은 3배로 장성하여 우리 당 제4차대회가 지방공업부문앞에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영예롭게 수행하였다.

사회주의공업국가에로 비약한 우리 조국의 력사가 그러한것처럼 이 빛나는 성과도 역시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첫날부터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무르익혀오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위대한 구상을 구현하시면서 현대적인 경공업기지를 창설하시는 한편 중소규모의 도영공장과 생산합작사들을 널리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을 확대하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대규모의 중앙공업이 혹심하게 파괴된 조건에서 온갖 가능성을 다 동원하여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확대하도록 령도하심으로써 어려운 전시환경에서도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여 전선과 후방의 수요를 보장하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시기 사회주의적개조가 실현된 새로운 환경과 인민들의 생활상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여 1958년 6월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리용하여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건설할데 대한 위대한 방침을 제시하시면서 그 관철에로 우리 인민들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불과 3개월동안에 1,000여개의 지방산업공장들을 일떠세우는 기적을 창조하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몸소 창성군과 삭주군의 지방산업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여 모범을 창조하시고 곧 1962년 8월 지방당및경제일군창성련석회의를 소집하시여 이를 전국에 일반화하는 사업을 일일이 조직지도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지방산업공장들의 물질기술적장비는 대중적인 기술혁신운동과 중공업의 강력한 지원에 의하여 급속히 강화되였으며 지방산업공장들의 원료기지도 역시 전군중적투쟁에 의하여 더욱 확장되였다.

지방공업이 빨리 발전함에 따라 그 관리운영수준도 훨씬 높아졌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하에 소집된 1970년 2월 전국지방산업일군대회를 계기로하여 우리의 지방공업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회에서 전군중적운동으로 지방공업을 더욱 힘있게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며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강령적교시를 하시였다.

어버이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받들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전군중적운동으로 지방산업공장건설에 떨쳐나섰으며 중공업이 또한 거대한 생산력을 나타내면서 강력한 지원의 손길을 뻗치였다.

그리하여 어머니당 제5차대회전까지만 하여도 반년 남짓한 기간에 1천 760여개의 현대적인 지방산업공장들을 일떠세웠다. 그 가운데에는 전국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 드리는 500여개의 선물공장들이 들어있다.

1천 760여개의 지방산업공장건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부름이라면 무조건 끝까지 옹호관철하고야마는 영웅적조선인민의 혁명적기상의 시위이며 어머니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성심의 표시이다.

## 수 산 업

수산부문에서는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로 힘차게 내달려 1970년에 우리 당 제4차대회가 제시한 수산물고지를 빛나게 점령하였을 뿐만아니라 그 성과를 계속 확대하여 겨울철수산물생산에서 전례없는 기적을 창조함으로써 1970년수산물생산계획도 훨씬 넘쳐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수산부문에서는 설비와 로력의 증가없이 1970년에 수산물생산량을 1969년에 비하여 151.4%, 그중 물고기는 146.3%로 높였으며 양식물생산량은 2.2배로 높이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맡겨주신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나라의 경제력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한 수산부문의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수산협동조합원들에게 12월 26일 축하문을 보내였다.

**【원양어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가까운 바다에 물고기가 적어진 조건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으려면 먼 바다에 대담하게 나가야 합니다.

지금 가까운 바다에는 멸치, 송어, 이면수 같은것밖에 맛있는 물고기가 적지만 먼 바다에는 좋은 물고기들이 수많와들하다고 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산부문일군들이 나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시였을뿐만아니라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국방건설에 많은 힘을 돌려야 하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먼 바다어업의 발전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주시였다.

그리하여 처음에 나무배로 시작하였던 원양어선대들은 최신과학설비들이 장비되여있는 현대적인 철조어선들과 1만톤의 가공모선을 비롯한 랭동운반선들로 그의 구조가 완비된 강력한 대규모어선대로 강화발전되였다.

원양어선대들에서는 우선 먼바다탐색대의 기술장비를 강화하고 새어장을 적극 개척하는 투쟁을 통하여 어로공들의 드높은 기세와 어선대들의 폭넓은 활동에 상응하게 중심어장탐색을 생산에 앞세웠다.

어선대들에서는 어장조건과 고기떼들의 움직임에 따라 기동적으로 중층뜨랄어업, 건착어업, 자망어업을 능숙하게 배합하여 기망회수와 작업일수를 부단히 늘임으로써 세계 수많은 고기배들이 모여드는 만리공해어장에서 《주체의 조국》, 《천리마조선》의 영예를 빛내였다.

례년보다 한달 앞당겨 먼 바다로 떠난 각지수산사업소 원양어선대는 풍랑이 사나운 날에도 달려드는 파도를 큰 배로 막아 뜨랄선들의 작업조건을 보장하였으며 그들이 미여지면 두번이건 열번이건 다시 고쳐 긴장하게 그물질함으로써 10월말까지 1969년 같은 기간실적의 2배에 해당하는 11만 7천여톤의 물고기를 잡았다.

잡은 물고기의 대부분은 청어, 가재미, 대구와 같이 맛좋고 기름진 물고기들이였다.

그리하여 수상님께서 창설하시고 키워주신 원양어업은 우리 나라 수산업의 계절적제한성을 완전히 극복하고 어획고를 부단히 높이는데서와《어한기》에도 멎구지 않고 사철 여러가지 수산물을 공급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근해어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사철 물고기를 잡으며 집단적으로도 잡고 분산적으로도 잡으며 먼바다에서도 잡고 가까운 바다에서도 잡으며 큰 배로도 잡고 작은 배로도 잡으며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는 식으로 쉼새없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다에 있는 여러가지 물고기들과 그밖에 다른 수산물들을 언제나 많이 잡을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2권, 427페지)

수산부문에서는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1970년에도 대형어업과 중소어업 그리고 세소어업을 동시에 배합하여 가까운 바다에 밀려드는 까나리, 멸치, 조기, 낙지, 뽈락어, 명태 등의 회유성어족과 가재미, 이면수, 문어 등의 정착성어족들을 쉼새없이 잡아내게 조직하였다.

각지 수산사업소들에서는 물고기들의 움직임에 따라 뜨랄어업, 건착어업, 저예망어업 등의 집단적인 대형어로전과 자망어업, 주낙어업과 같은 분산적인 중소어로전을 기동적으로 벌리여 많은 물고기들을 잡았다.

특히 각지 수산사업소들에서는 겨울철물고기잡이를 앞두고 15일배수리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로력관리와 보장사업을 개선하는 투쟁을 통하여 300일출어자의 대렬을 9배이상으로 늘이여 명태와 뽈락어의 최성어기에 가장 많은 배를 동원하였으며 중심어장을 가로타고 앉아 집단적인 혁신을 일으켰다. 결과 12월 한달동안에만 하여도 30만톤이상의 물고기를 잡았으며 하루에 최고 1만 8천여톤의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이것은 수산부문 력사이래 처음보는 대풍이다.

수산부문에서는 또한 이해에 정치망, 자망, 낚시어업 등의 세소어업도 강화하여 수산물생산에서 투기성을 극복하고 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게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수산부문에서는 수산협동조합들을 더욱 확대강화하고 바다가에 있는 협동농장들과 국가기관, 기업소들에서 수산반(수산분조)과 부업작업반을 널리 조직하여 물고기잡이를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리게 하였다.

또한 사회적지원으로 선박수리공장들과 어구공장들을 튼튼히 꾸려주고 여러가지 선박수리와 어구생산을 증대하게 함으로써 지방수산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게 하였다.

우리 나라 지방수산부문의 경제적토대는 례년보다 비상히 강화되였으며 이에 따라 수산물생산량중에서 중소어업생산량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였다.

**【천해양식】** 수산부문에서는 1970년도 천해양식계획을 6월 28일까지 100.8%로, 년말까지 2.2배로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그중에서 주요지표인 미역생산량은 1969년의 2.5배, 곤포는 1.4배로 늘이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이 빛나는 성과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의 결과이며 그이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충성의 한길로 달려온 붉은 양식공들의 무한한 충성심의 표시이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언제나 심려하고계시는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천해양식업의 발전방향과 방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산부문일군들은 양식사업을 널리

조직하며 그 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 미역, 곤포, 해삼, 조개, 굴, 김 같은것을 더 많이 길러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수산업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기 위하여》, 단행본, 28페지)

천해양식공들은 수령님의 이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연안에 양식장들을 대대적으로 늘이였으며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양식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였다.

곤포생산의 중심을 이루는 황남도내 천해양식사업소들에서는 모내기분할식방법, 씨뿌림육묘기침강법 등 여러가지 새로운 양식방법을 받아들이고 생산을 집약화하는 투쟁을 통하여 상반년동안에만 하여도 1969년실적보다 1만 3천여톤의 수산물을 더 걷어들이였다.

참미역생산량이 비교적 많은 함북도내 천해양식사업소들과 수산협동조합들에서는 속음생산과 짜르기생산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미역자원을 잘 보호하면서도 한때에서 평균 2톤이상씩의 수산물을 따 들이였다.

한편 천해양식부문에서는 이해에 미역, 곤포, 김의 씨받이와 모내기를 추진하였으며 여기에 직파를 배합하여 양식자원을 급격히 확대하는 사업도 원만히 다그치였다.

【담수양어】 담수양어부문에서는 국영양어와 협동농장양어를 옳게 배합하여 물이 있는 모든 곳에 물고기들이 욱실거리게 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1970년 9월 26일 교시를 훌륭히 관철하여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국영담수양어부문에서는 우선 이미 마련된 밑천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정보마다 ·새끼고기생산량을 2배이상 높이기 위한 투쟁을 벌리였다.

각지 담수양어사업소와 양어장들에서는 대담하게 못바닥을 파내고 뚝을 높이는 방법으로 새끼고기못들의 립체면적을 3배이상씩 늘인데 기초하여 례년의 2배에 달하는 새끼고기들을 넣고 키웠다.

연안, 북창, 구장양어사업소들과 신의주, 룡천, 순천, 영흥양어장들에서는 국가에서 공급하는 물고기먹이 이외에 자체로 부유동식물과 효모사료를 만들어 고기들의 먹새에 따라 더 먹이였다.

국영담수양어부문에서는 이렇게 못의 립체면적을 늘이는것과 함께 사료의 영양구성을 개선하고 새끼고기에 대한 기술관리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정보당 새끼고기생산량을 부쩍 올리였으며 특히 새끼고기 한마리당 무게를 배나 높이였다.

국영담수양어부문에서는 이해에 또한 대동강, 청천강, 재령강을 비롯한 강하천들과 연풍저수지, 광포호수를 비롯하여 파악이 있는 모든 강과 저수지, 호수들에 수천만마리 새끼고기들을 놓아주었다.

협동농장담수양어부문에서는 1970년에 어종을 과학적으로 편성하고 수역내의 사료원천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물고기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높이였다.

즉 양어못의 맨 우에는 풀을 먹는 초어를, 중간에는 부유식물을 먹는 백련이와 부유동물을 잡아먹는 화련어를, 밑바닥에는 저소생물을 먹고사는 잉어와 붕어를 기르는 립체양어를 진행하여 정보당 물고기생산량을 높였다.

한명의 양어공이 1정보의 양어장에서 4톤의 물고기를 생산한 평원군 평원읍협동농장의 경험을 본받아 1970년에 280개의 협동농장들과 34개의 기관, 기업소들에서 립체양어를 시작하였다.

협동농장담수양어부문에서도 산간지대의 강하천에서 물고기들을 대대적으로 길러내여 해안연선주민들이 부럽지 않게 살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40리 샘소강에서 칠색송어들을 길러 여기에서만도 호당 390원어치의 고기를 키워낸 초산군 구평협동농장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북부내륙지대담수양어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그리하여 협동농장담수양어부문에서는 이해에 벌방지대의 온수성물고기키우기에 비하여 뒤떨어졌던 산간지대의 랭수성물고기키우는사업을 앞으로 대대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수산물가공】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물고기가공은 랭장을 많이 하고 절임과 통졸임을 많이 하는 방향에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수산업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기 위하여》, 단행본, 32페지)

수산부문에서는 물고기가공에서 랭동랭장품비중을 우선적으로 높이면서 절임품, 통졸임, 젓갈품도 많이 생산할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생산, 수송, 공급의 모든 고리에 있는 랭동, 랭장 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는데 힘썼다.

수산부문에서는 랭동랭장부속품생산기지를 강화하여 바다의 랭장운반선들, 수산기지의 랭동공장들, 철도의 랭동운반차들, 중요도시의 랭동고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였다.

그리하여 1970년에도 철따라 생산되는 청어, 가재미, 될묵어, 명태와 같은 수산물을 생선과 랭동품으로 전국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하게 되었다.

수산부문에서는 또한 병졸임, 통졸임생산면적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졸임생산계렬을 증가하고 그 가공설비들의 정비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수십만톤씩 잡히는 명태를 비롯한 여러가지 수산물을 제때에 가공하였다.

특히 명태가공사업을 더욱 활발히 벌릴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해안연선의 기관, 기업소, 공장의 근로자들이 명태가공에 떨쳐나서 명태가공의 긴장한 첫공정을 훌륭히 풀어놓았다.

그리하여 명태내장들을 원료로하는 여러가지 젓갈품생산량이 례년보다 훨씬 늘어났으며 조개, 백하, 새우 가공품도 비교적 많아졌다.

수산부문에서는 간유공장, 간유알사탕공장, 물고기가루공장들도 더 많이 신설확장하고 기술관리체계도 더욱 개선하여 여러가지 수산물영양제와 공업원료, 단백질먹이와 광물질먹이를 대대적으로 생산공급하였다.

# 농 업

## 농 산 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밝혀주신 휘황한 길을 따라 1970년에 농업부문에서는 기술, 문화, 사상혁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로 일함으로써 알곡, 남새, 유지, 섬유작물재배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였다.

농업부문에서 7개년인민경제계획기간에 달성한 가장 큰 성과는 지난 몇해동안에 례년에 드문 자연재해가 계속되였으나 해마다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둠으로써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였으며 그것을 더욱 공고확대할수 있는 튼튼한 알곡생산토대를 닦은것이다.

농업부문에서 이룩한 이 성과는 전적으로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와 뜨거운 배려의 결과이며 그이께 바치는 우리 협동농장원들의 충성심의 표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 이것은 사회주의적협동화가 완성된 다음 농촌에서 수행하여야 할 중심적인 혁명과업이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34페지)

중공업의 줄기찬 지원밑에 농촌기술혁명이 적극 추진됨에 따라 농촌에 마련된 강력한 수리시설은 해마다 겹치는 자연재해를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높고 안전한 수확을 보장한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1961—1969년동안에 수리시설의 저수지능력이 1.5배, 양수능력이 3.2배로 높아졌다. 그중에서 곡창지대인 황남도의 물길의 총길이는 백두산과 제주도 사이를 다섯번 오가도 남음이 있으며 배수능력은 우리 나라 5대강의 하나인 대동강물의 다섯배나 되는 물이라도 단번에 뽑을수 있다.

실로 수리화를 농촌기술혁명의 첫자리에 놓고 실현한 결과 총결기간 모든 농토를 크고작은 수천개의 저수지와 촘촘한 물길로 누벼놓았다. 하기에 1970년과 같은 100날 왕가물에도 튼튼한 모를 길러냈으며 모내기를 제철에 하였으며 논배미마다 물을 요구대로 대주었다.

수리화의 위력은 농촌전기화의 위업이 실현된 결과 더 크게 나타났다.

전국의 모든 리, 모든 마을, 모든 농가에 전기가 들어갔으며 그것이 인민들의 가정생활에서뿐아니라 농업생산에서도 기계동력과 열원으로 널리 쓰이고있다.

농업부문에서 자연기후가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둔 다른 요인의 하나는 기계화를 적극 추진하여 농산작업의 기계화를 폭넓게 심도있게 실현한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모든 시, 군마다에 농촌기술혁명의 거점인 농기계작업소들을 창설하여주시였으며 전국각지에 토지건설사업소, 련결농기계공장, 뜨락또르부속품공장들을 건설하게 하시였으며 뜨락또르수리기지를 꾸리게 하시였다.

1961—1970년 기간에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뜨락또르대수는 3.5배, 화물자동차대수는 7배로 늘어났으며 여러가지현대적농기계대수도 증가되였다. 이로써 우리 나라 농촌경리의 기계화장비도는 세계선진국가들의 수준에 올랐다.

같은 기간에 기계화작업의 종류는 11종으로부터 47종으로 늘어났으며 기계화총작업량도 2.2배로 늘어났다.

1970년에 각지 협동농장들에서는 농산작업의 종합적기계화, 화학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할데 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받들고 논농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에 힘을 넣었다.

그리하여 우리의 협동농장들에서는 1970년에 논벼의 모재배에서 31개공정, 건직파재배에서 28개공정, 수직파재배에서 21개의 작업공정을 각각 기계화하고 화학비료와 농약, 살초제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정보당 로력투하공수를 훨씬 낮추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논농사에서뿐만아니라 밭농사에서도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할데 대한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황주군 룡천리와 중화군 삼성리에 각각 100정보의 포전을 정리하고 분수식관수체계를 받아들이며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할데 대하여 교시하시면서 온갖 조건을 손수 마련하여주시였다.

어버이 수령님의 현지교시와 배려를 받은 황주군 룡천리에 나가있는 이곳 기계화초병들과 농장원들은 600여필지의 뙈기밭을 100여정보의 현대적포전으로 꾸리고 분수식관수시설도 갖추고 강냉이전작과 가을밀후작으로 최고 7톤의 수확을 거두면서도 정보당 50공수의 로력밖에 들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농촌경리부문에서는 농업생산의 모든 공정을 종합적으로 기계화하며 화학화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농업부문에서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둔 다른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농촌문화혁명을 강력히 추진하여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농업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비약적으로 높인데 있다.

7개년인민경제계획기간에 농업부문에서는 근로자학교, 근로자중학교들의 운영을 정상화하여 농업근로자들의 일반지식수준과 기술지식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였으며 한개 협동농장당 기술간부대렬을 1.2명으로부터 17.5명으로 늘이였으며 문화적소양도 넓히였다.

기술간부대렬이 늘어나고 농장원들의 기술문화적수준이 높아진 결과 각지 협동농장들에서는 해당지역의 기후적특성, 토양학적성질, 종자들의 품종에 맞게 기업적지도를 강화하고있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기술적지도의 요구도 척척 받아물고 과학기술적리치에 딱딱맞게 농사지었다.

1970년에도 협동농장원들과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사이에 세워진 관수체계, 배수체계, 화학비료시비체계, 농약살포체계, 살충제적용체계를 비롯한 여러가지 복잡한 기술지도체계들이 움직이여 련방 들이닥친 왕가물, 긴장마, 해충, 찬바람과 같은 자연재해를 물리치고 대풍작을 가져오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와함께 수많은 문화주택과 학교시설, 문화후생시설들을 꾸리고 뒤떨어진 생활양식과 풍습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세워나감으로써 농업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생활기풍이 섰다.

농업부문에서는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통일적인 련관속에서 수행하면서도 사상혁명을 적극 앞세워 농민들의 정치적각성과 사상의식수준을 더욱 높이였으며 혁명화, 로동계급화과정을 더욱 촉진하였다.

그리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혁명과업을 무조건 관철하고야마는 혁명적사업기풍이 섰으며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이 발휘되였다.

사상혁명이 심화되던 1970년초에 력사의 땅 강서군 청산리에서는 어버이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주되는 력량을 계속 농사에 집중하여 모든 농사일을 제철에 잘하며 농촌기술혁명을 촉진하고 농사를 보다 과학기술적으로 지으며 모든 초급간부들이 매사에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생산로동의 앞장에 서는 문제들에 모를 박고 일하는 영농작업의 본보기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가 창조되였고 그것이 곧 전국에 일반화되어 알곡, 남새, 공예, 유지작물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났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휘황한 빛발아래 기술, 문

화, 사상혁명이 적극 추진된 결과 7개년인민경제계획기간에 농호당 분배량을 알곡은 1.8배, 현금은 2배로 높이였다.

## 축 산 업

축산부문에서는 국영축산업과 협동농장들의 공동축산을 기본으로 하고 이에 농장원들의 개인부업축산을 합리적으로 배합하여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훌륭히 관철하여 7개년인민경제계획기간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축산부문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력사적으로 물려받은 축산업의 락후성을 없애기 위하여 돼지, 소, 양, 토끼목장들을 새로 건설하거나 확장하여 축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닦았다.

또한 축산부문에서는 이미 마련한 축산업의 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축산업을 현대화, 집약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돼지, 젖소, 토끼기르기와 배합먹이생산과 공급에서 집약화를 적지않게 실현하였다.

특히 배합먹이공급체계를 세우고 단백질을 비롯한 '건먹이와 거친먹이를 넉넉히 보장하였으며 호모항생제를 포함한 영양요소들이 다 들어있는 배합먹이를 생산공급하였다.

축산부문에서는 7개년계획기간에 또한 원종 및 종축 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협동농장의 공동축산과 개인부업축산에 필요한 많은 종자집짐승들을 협동농장과 농촌지구 세대들에 공급하였다.

그리하여 협동농장 작업반마다 고기 2톤이상, 농가마다, 농촌지구세대마다 고기 100키로그람이상 생산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져 여러가지 축산물생산이 빨리 늘어났다.

축산업에서 이룩된 이러한 성과들은 우리 나라의 축산업이 현대적기술의 토대우에서 새로운 발전의 길에 힘차게 들어섰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가금업】**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 가금업에서도 거대한 전환이 일어났다.

얼마전까지만해도 락후한 기술에 매달려 수공업적으로 생산이 진행되던 우리 나라 가금업은 최근년간 력사적으로 물려받은 가금업의 락후성을 없애고 최신과학기술로 튼튼히 장비된 대규모의 현대적가금업으로 급속히 발전하였다. 가금업의 기술이 발전하고 그 생산능력이 높아진 결과 최근년간 그 생산량이 해마다 2배이상씩의 높은 속도로 장성하였다. 가금업부문에서는 우리 당 제4차대회가 제시한 알생산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실로 항일무장투쟁시기의 그 간고한 나날 이름없는 한 농막집주인에게 돈을 주시며

…적은 돈이지만 보태쓰십시오. 그리고 닭도 사다가 기르시면서 아이들에게 고기도 먹일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온 세상에 자랑할수 있는 현대적 대규모의 가금업을 일떠세우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자들에게 닭알을 먹이는 문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닭알생산을 공업화하지 않고는 도저히 풀수 없습니다.》**

그이께서 제시하신 가금업의 공업화 방침은 번식이 빠르고 사료를 적게 먹는 가금의 생리적특성을 리용하여 값눅고 영양가 높은 축산물생산을 빨리 늘일수 있게 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방침이며 우리 나라에서 짧은 기간에 인민들의 생활을 더 윤택하게 할수있는 유일하게 정확한 길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대적가금업발전의 광활한 전망을 펼쳐주시였을뿐만아니라 그의 정확한 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아끼지 않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실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다같이 밀고나가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인민들에게 고기와 알을 먹이는 문제를 미룰수 없다고 하시면서 막대한 자금을 닭공장건설에 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닭공장건설사업을 온 나라에 포치하시기에 앞서 평양시와 송림시에 현대적인 닭알공장, 닭고기공장, 배합먹이공장, 고기가공공장들을 모범적으로 꾸리시고 전국의 당, 정권기관 책임일군들과 가금업부문일군들에게 현대적가금업의 우월성과 기술적내용을 실물로 배워주시고 대담하게 전군중적운동으로 닭공장건설을 진행하게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7개년계획기간에 국영부문에서만도 닭공장, 오리공장수가 3.3배로 늘어나고 이 공장들에서 닭알과 고기가 대량적으로 생산되고있다.

이 가금공장들은 중공업의 위력에 기초하여 우리 자체의 설계와 기술로 만들어진 최신설비로 튼튼히 꾸려져 생산공정이 다 기계화, 자동화되였으며 관리공 한사람이 1만마리가 넘는 닭을 헐하게 기를수 있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급속히 발전하는 가금업의 현대화, 집약화수준에 맞게 생산성이 높은 계통의 종자닭을 몸소 마련하여주시고 과학적인 종금체계와 공고한 배합먹이생산공급체계, 위생방역체계를 직접 세워주시였다.

그중에서도 가금업발전의 첫공정인 현대적인 배합먹이공장들을 세우시고 우리 나라 원료원천에 기초하여 알곡, 동물질, 광물질 먹이, 단백질, 비타민 및 린먹이 등 여러가지 영양요소들을 충분히 갖춘 완전가배합먹이를 계획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하게 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영가금업이 공업화되고 그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됨에 따라 협동경리가금업을 물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지원하며 적극 지도방조하여 농촌지대에서 닭기르기를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릴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수행을 조직령도하시였다.

발전된 국영가금업에 의거하여 협동경리가금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이 조치는 국가의 자재, 로력, 먹이를 들이지 않고 손쉬운 방법으로 닭알생산을 늘일수 있게 하며 도시근로자들뿐만아니라 농민들과 농촌지구주민들의 닭알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한 방침이였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국영닭공장들이 주변농촌지대들을 전적으로 담당하여 병아리와 종자알을 공급하며 기술적지원을 주게 하시는 한편 평양시 만경대구역 금천리와 시주변의 구역들에 몸소 시범단위를 꾸리시고 그 경험을 온 나라 모든 농촌들에 일반화하도록 하시였다.

협동경리가금부문에서는 금천리의 경험을 본받아 닭치는 운동을 전군중적으로 벌린 결과 그 첫해에 벌써 농촌에서의 닭알생산량을 그 전해에 비하여 2.4배이상으로 급격히 늘이였으며 앞으로 더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확고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였다.

국영가금업이 현대적인 가금공업으로 전환되고 협동경리가금업이 급속히 발전한 결과 닭알과 고기 생산량이 비할바 없이 높아졌으며 생산원가는 닭알에서 60%, 닭고기에서 50%로 각각 낮아졌다.

공화국정부에서는 가금업부문에서 이룩한 이 모든 성과에 기초하여 1970년에 닭알값을 23%나 대폭인하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우리 인민들은 닭알과 고기 생산이 부쩍 늘어나고 그 값이 훨씬 낮아진 결과 영양가 높은 닭알과 고기를 일상

생활의 부식물로 먹게 되였다.

# 과 수 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과수부문에서는 과수원조성사업을 힘있게 벌려 온 나라의 야산을 과수동산으로 전변시킴으로써 대규모적사회주의과수업을 창설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대원들이 올린 몇알의 사과마저 들지않으시고 맛이좋고 색갈고운 조선의 그 사과를 아동단원들에게 보내주시던 뜨겁고도 자애로우신 사랑으로 우리 나라의 자연경제적조건에 맞게 산을 리용하여 과수업을 대대적으로 늘일데 대한 방향과 방침을 제시해주시였다.

**«산이 국토의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산을 리용하여 과수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562페지)

이 강령적교시에는 우리 나라 과수업을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는 유일하게 정확한 길이 명시되여있으며 인민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육친적인 배려가 담겨져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받들고 7개년인민경제계획기간에 과수원조성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왔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과수원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여있는것이 아니라 과실이 전혀 없던 백두산기슭과 북부고산지대, 동서해안과 분계선일대까지 새로운 과수재배지역이 생겨나 과수총면적이 비약적으로 늘어났으며 과일생산량은 2배이상으로 장성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과수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기술혁명을 강력히 추진시켜 과수원비배관리를 기계화, 현대화하며 과수업을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울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에로 몸소 조직지도하시였다.

과수원의 대부분이 산 경사지에 있는 우리 나라조건에서 과수업의 기계화, 현대화는 매우 어려운 과업의 하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산 경사지 과수업의 기계화, 현대화 해결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면서 온갖 조건을 보장하여 주시였다.

그리하여 산 경사지과수원작업에 적합한 새로운 형의 뜨락또르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장과 과수기계공장을 건설하게 하시고 여기에서 많은 뜨락또르와 여러가지 현대적과수기계들을 만들어 공급하도록 하시였으며 화학비료와 농약공급량도 늘여주시였다.

결과 과수업에서도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제시한 휘황한 길을 따라 물질기술적장비가 더욱 강화되고 기술혁명이 급속히 추진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의 과수재배지역이 전국을 포괄하게 되고 아직 과수원비배관리수준이 높지 못한 당시의 형편을 헤아려보시고 과수원비배관리에서 주체를 세우고 그를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울데 대한 문제도 몸소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 사과명산지의 하나인 북청지방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경사지과수원에서 땅의 류실을 막으며 과일나무모양만들기와 가지자르기를 비롯한 우리 나라 기후풍토와 과학적리치에 맞는 선진적인 과수재배에 대한 본보기를 창조하시고 그를 전국에 일반화하여주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과수재배분야에 주체가 철저히 세워졌으며 과실생산량이 급격히 높아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7개년계획기간에 우리 나라 과수업이 대규모적사회주의과수업으로 발전된 새로운 환경에 맞게 과수업에 대한 지도관리문제를 독창적으로 해결하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1965년 1월에 7,000정보의 과수면적을 가진 세계1등급의 송화과수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가장 혁명적이며 우월한 작업반책임제를 창조하시였다.

실천적경험은 작업반책임제가 과일생산이 하나의 복잡한 기술공정으로 전환된 새로운 환경과 과수업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한 생산단위로서 과실나무를 알뜰히 가꾸고 과수경리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근로자들의 집단주의정신과 공산주의사상을 키우는 가장 알맞는 집단생활의 세포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작업반책임제는 이러한 혁명적본질로부터 출발하여 7개년인민경제계획기간에 거대한 우월성과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작업반책임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생산활동과 집단생활, 경제사업과 정치사업을 밀접히 결합하여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며 집단주의정신과 공산주의사상을 키워 그들의 혁명화과정을 촉진하였으며 또한 근로자들이 작업반의 모든 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여 기업관리를 개선하고 과수원을 알뜰히 꾸리였으며 특히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과수업의 기계화, 현대화의 실현을 앞당기게 하였다.

우리 나라 과수업에서 달성한 이 모든 성과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의 인민에 대한 한없이 뜨거운 사랑, 고매한 덕성의 빛나는 결실이다.

# 잠 업

훌륭한 비단을 더많이 짜기 위하여 잠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잠업부문에서도 7개년인민경제계획기간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잠업부문에서는 우선 우리 나라에 산지가 많은 자연지리적조건을 리용하여 전국각지에 수많은 전문적인 잠업농장들을 조직하였고 산비탈을 일구어 수만정보의 뽕밭을 꾸리였으며 현대적설비들로서 튼튼한 누에알생산기지를 마련하였다.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대로 7개년인민경제계획기간에 잠업부문은 우리 나라 견방직공업의 믿음직한 비단실원료생산기지로 훌륭히 발전하였으며 앞으로 비약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토대를 튼튼히 닦아놓았다.

또한 잠업부문에서는 7개년인민경제계획기간에 선진적누에치기방법을 광범히 받아들여 매당 누에고치생산량과 누에치기공 한사람당 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선진적인 누에치기방법중에서 1년에 두번씩 진행하던 집누에치기대신에 1년에 다섯번에 걸쳐 계단식으로 치는 집누에치기방법, 누에가 크면 뽕밭근처에 가설막을 짓고 뽕잎이 달린 가지를 그대로 베다가 줌으로써 누에가 언제나 신선한 잎을 먹게 하는 누에치기방법, 가둑나무잎을 따다가 집누에처럼 치는 방법이 가장 널리 보급되였고 그것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

7개년인민경제계획기간에 잠업부문에서 거둔 다른 하나의 성과는 누에치기를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릴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 녀맹조직들과 협동농장들에서 중심이 되어 가둑누에와 아주까리누에치기를 널리 벌린것이다.

잠업부문에서는 뽕누에치기뿐만아니

란 가둑누에치기와 아주까리누에치기가 군중화됨에 따라 누에알공급체계, 기술지도체계를 세우고 정상적으로, 계획적으로 보장하였다.

그리하여 1970년에 녀맹조직들에서만 하여도 수령님의 1968년 7월 12일 교시를 받들고 공장과 농촌, 가두의 녀성들을 발동하여 1천톤이상의 누에고치를 생산하였으며 그것을 땅크헌납금으로 바침으로써 나라의 국방건설에 이바지하였다.

잠업부문에서는 이미 달성한 성과에 기초하여 6개년계획기간에도 뽕누에고치치기를 기본으로 하면서 가둑누에, 아주까리누에고치치기를 잘하여 1976년에는 고치생산량을 4만톤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 경제림조성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산림정책을 높이 받들고 경제림조성부문에서도 7개년인민경제계획기간에 실로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50만정보의 경제림을 포함하여 80만정보의 나무를 심을데 대한 1959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확대전원회의에서 하신 그이의 강령적교시에 따라 7개년인민경제계획기간에 91만 4천정보에 나무를 심었다.

그리하여 이 부문에서는 해마다 수백만립방메터의 통나무를 생산하는 산림면적을 림업부문에 돌리면서도 일제의 략탈정책과 미제의 초토화만행에 의하여 벌거벗었던 산지를 완전히 없앴으며 조국의 산야에 록음이 우거지게 만들었다.

특히 7개년인민경제계획기간에 그전에는 없던 51만정보의 경제림을 새로 조성함으로써 우리 나라 림상개조와 산림면적의 구성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산림축적계수를 사회주의공업국가에 상응하게 더욱 높이였다.

경제림조성에서 달성한 이러한 성과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인 산림정책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에로 우리 인민들을 현차게 조직동원하신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또한 쓸모없는 산림들을 섬유원료림, 유지림과 같은 경제적으로 쓸모있는 산림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23페지)

이 부문에서는 1947년 4월 6일 문수봉에 오르시여 조국의 산야를 록음이 우거지게 만들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면서 나무를 심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섬유제지림과 유지림조성에 기본을 두면서 용재림, 보호림, 화목림, 산과실림도 전망성있게 전군중적운동으로 꾸려나갔다.

그리하여 포프라, 황철나무, 이깔나무를 비롯한 섬유제지림이 광대한 면적에 꾸려졌으며 호두나무, 가래나무를 비롯한 36만정보의 유지림이 새로 일어났다.

특히 7개년인민경제계획기간에 정보당 기름생산량에서 평발의 3배에 달하는 백년대계의 유지림—호두림이 7,000정보가 새로 조성되였으며 자연기후적조건으로 말미암아 과거 공화국 북반부지역에 한 그루도 없던 참대숲이 또한 200여정보나 조성되였다.

7개년인민경제계획기간에 경제림조성부문에서 거둔 다른 하나의 성과는 사방야계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국토와 산림을 흙과 모래의 류실로부터 잘 보호하고 치산치수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킨것이다.

이 부문에서는 대동강, 청천강을 비롯한 6대강건설과 중소강하천정리사업에 식수조림사업을 뒤따라 세우는 투쟁을 통하여 7개년인민경제계획에 예견하였던 사방공사와 야계공사를 각각 3.7배, 3.2배씩 넘쳐 진행함으로써 풍수해로부터 국토와 산림, 농작물들을 잘 보호하였다.

경제림조성부문에서는 산림을 합리적으로 종합적으로 리용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경제의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는데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7개년인민경제계획기간에 이 부문에서는 현지확인을 통하여 산림건설 10개년계획을 세우고 산림의 경영관리를 개선함으로써 산림자원을 합리적으로 종합적으로 리용할 가능성을 조성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림업산림, 경영산림 이외에 산림토지를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과수원, 뽕밭, 작잠지, 방목지를 꾸리고 축산, 과수, 잠업을 급속히 발전시키고있으며 산채, 약초, 산과실 등의 산림부산물을 따들여 생약제조와 식료가공사업을 더욱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였다.

이 부문에서는 이미 달성한 성과에 기초하여 6개년인민경제계획기간에 3만정보의 호두림을 비롯하여 전군중적으로 더많은 목재림, 섬유제지림을 조성하기 위하여 나무모생산과 산림건설설계를 적극 앞세우고있다.

## 기본건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기본건설분야에서 주체를 확고히 세우며 건설을 집중화, 공업화, 정규화, 정상화하며 건설에서 질을 높이고 절약하여 더빨리 더많이 건설하며 건설을 전인민적운동으로 벌릴데 대한 가장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모든 건설물들을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아 더욱 아름답고 아담하고 튼튼하고 쓸모있게 건설할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기본방침을 제시하여주시였을 뿐만아니라 매시기 기본건설투자방향과 중요대상을 제시하여주시였으며 이에 로력과 자재, 설비 등 모든 물질적수단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심으로써 기본건설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게 하시였다.

이와 함께 전문부재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부재를 점차 대형화, 경량화할수 있게 하여 주시였으며 강력한 중공업에 의거하여 여러가지 건설기계들을 대대적으로 생산공급하도록 지도해주심으로써 대규모의 산업건설을 포함한 방대한 기본건설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7개년계획기간 내외정세가 복잡한 환경에서도 혁명적원칙성과 불굴의 강의성을 가지시고 나라의 기본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기본건설부문에서는 그이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래일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하더라도 오늘 밤까지는 건설을 적극 추진시켜야 한다는 확고한 립장과 혁명승리에 대한 철석같은 신심을 가지고 추호의 동요도 없이 오직 수령을 믿고 기본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갔다.

그리하여 기본건설부문에서는 미제가 당장 전쟁의 불집을 일으키려고 미친듯이 전쟁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엄중한 시각에도 건설을 중지하지 않았을뿐만아니라 우리 당의 기본건설방침대로 생산적건설을 위주로 하면서 전반적기본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7개년인민경제계획에 예견하였던 기본건설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생산의 높은 장성속도와 인민생활의 급속한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것은 어버이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배려의 결과이며 당과 수령에 대한 붉은 건설자들의 충실성의 표현이며 수령의 두리에 철석같이 통일된 우리 인민의 불패의 위력의 시위이다..

**【생산적건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7개년계획기간에 먼저 기간적중공업부문들을 정비보강하는 사업에 힘을 넣도록 하였으며 이와 함께 중공업기지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5—6페지)

기본건설부문에서는 1961—1969년기간에 중공업건설에 돌려진 공업부문투자총액의 80%를 리용하여 이미 있는 기간적중공업부문들을 정비보강하는 동시에 새로운 중공업건설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7개년인민경제계획기간에 우리의 중공업은 필요한 부문을 기본적으로 다 갖춘 완비된 중공업으로 확대발전되였으며 그 위력은 비할바 없이 강화되였다.

기본건설부문에서는 7개년계획기간에 전력공업부문에서 수력발전소운영과 화력발전소운영을 배합하며 대규모의 발전소와 중소규모의 발전소를 병진하는데 필요한 강계청년발전소, 북창화력발전소를 비롯하여 수많은 발전소들을 건설해줌으로써 동력공업을 인민경제의 발전에 확고히 앞세웠다.

또한 기본건설부문에서는 금속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며 부문구조가 완비된 흑색야금기지를 축성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4월13일제철소, 천리마강선제강소의 6천톤프레스직장, 천리마황해제철소의 아연도철판직장을 비롯하여 수많은 원료예비처리시설, 압연강재시설, 2차금속가공시설물들을 총결기간 건설하였다.

기본건설부문에서는 또한 7개년계획기간에 기계제작공업의 대형 및 정밀기계생산기지를 강화하며 약전기계기지와 자동화기구, 계기기지를 창설하는데 필요한 전자관공장, 1월18일기계공장, 2월26일공장의 유압기직장을 비롯하여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에 이바지할 수십개의 현대적기계공장, 직장들을 건설하였다.

기본건설부문에서는 대규모의 무연탄가스화공장들을 비롯하여 새로운 뇨소공장, 현대적인 화학섬유공장들을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설비, 우리의 자재로 건설하였다. 그리하여 인민경제의 기술적진보를 다그치며 사회주의농촌경리의 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총결기간에 현대적경공업, 강력한 수산업, 발전된 교통운수의 건설에서도 7개년계획기간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재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진행할데 대한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이 방침에 따라 1961—1969년 사이에 국가기본건설투자총액의 20%나 되는 방대한 자금을 농촌건설에 돌렸으며 그중에서도 대부분을 농촌경리부문의 생산적건설에 넣었다.

농촌기본건설부문에서는 1961—1969년기간에 농촌경리부문의 생산적건설에 돌려진 자금의 45%를 수리화에 집중하고 이미 마련된 관개시설들을 정비보강하면서 새로 시작한 기양, 청단, 압록강, 신계의 대규모관개공사, 10만여정보의 고인물뽑기공사, 40만여정보의 논밭을 보호할 제방공사들을 적극 밀고나감으로써 어떤 큰물과 가물도 이겨내고 언제나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는 수리화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기계화와 화학화의 촉진, 전기화의 완성에 필요한 생산적건설도 수행하였다.

농촌기본건설부문에서는 또한 1965—1969년동안에만 하여도 국가투자에 의하여 농촌에 5천 200여개의 고정탈곡장, 7천 800동의 건조장을 비롯하여 수많은 창고, 저장고, 기타 농장의 생산시설들을 건설하였다.

동시에 축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 그중에서도 가금업의 발전에 최근 7년동안에만 하여도 거의 1억원의 국가자금을 투자하여 70여개에 가까운 닭공장과 배합사료공장을 건설하여 닭알과 닭고기를 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하는 물질적토대를 마련하였다.

기본건설부문에서는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기업소의 건설과 발전된 농촌경리의 건설을 통하여 무엇보다 먼저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새로운 과학기술과 풍부한 건설경험을 가진 전문화된 건설부대를 가지게 되였으며 기본건설을 공업적방법으로 수행할수 있는 자체의 강력한 물질기술적토대를 가지게 되였으며 조국이 통일된 후 파괴된 남조선경제를 단기간내에 복구건설하고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밑천을 마련할수 있게 되였다.

생산적건설에서 거둔 모든 성과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며 우리 당 건설정책의 빛나는 승리이다.

**【주택 및 교육문화후생시설 건설】** 7개년계획기간에 도시 및 농촌문화주택과 교육, 문화, 후생시설의 건설이 활발히 벌어졌다.

총결기간 각도 소재지들과 평양시의 위성도시들을 비롯한 많은 군소재지와 협동농장들이 현대적으로 알뜰하게 꾸려졌다.

혁명의 수도 평양의 관문도시—사리원시를 더욱 웅장하고 화려한 문화도시로 건설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1970년에 고층주택, 김성포유원지, 문화회관, 려관, 백화점, 학교를 새로 건설하였으며 역사를 개건확장하였다.

특히 경암산공원을 배경으로 하고 경암호와 조화맞게 탑식문화주택, 현대적려관, 편의봉사망을 포괄하는 새로운 주택지구를 일떠세움으로써 사리원시를 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꾸리였다.

7개년인민경제계획기간에 인민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는 어버이 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많은 국가자금이 살림집건설에 돌려졌다.

1961—1969년동안에 도시와 농촌에 80만세대의 살림집이 새로 건설되여 근로자들의 주택조건이 훨씬 개선되였다. 그중에서 농촌에는 국가자금으로 30만세대가 건설되였다.

7개년인민경제계획기간에 또한 현대적인 과학연구실험설비들을 갖춘 32개의 대학들을 신설하고 2만 6천여개의 교실, 1만5천여개의 각종 실험실과 연구실, 수많은 탁아소와 유치원들이 건설되여 교육부문과 학령전어린이들의 교육교양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되였다.

또한 현대적시설을 갖춘 극장, 영화관, 도서관, 구락부들과 특히 농촌문화시설이 집중적으로 건설되였다. 영화필림복사공장이 건설되여 문화예술부문의 토대도 강화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을 후세에 길이 전할 불멸의 대기념비적창조물인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보천보혁명박물관과 만경대혁명사적관, 혁명전적지와 사적관들이 건설되여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7개년계획기간에 또한 수많은 병원과 진료소, 산원실 및 아동병동, 료양소와 그리고 정휴양소들이 건설되였다.

**【평양시건설】** 혁명의 수도 평양을 더욱 웅장하고 화려하게 건설할

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꽃피우는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설계도를 안고 평양시건설자들은 건설에서 공업화의 비중을 높이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면서 수도건설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리였다.

7개년계획기간에 평양시에는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평양학생소년궁전과 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근 19만평방메터에 달하는 공공건물과 김일성종합대학의 제1호교사와 과학도서관, 인민경제대학 등 169개의 각급 학교들이 일떠섰다.

이 기간에 평양시에는 또한 교예극장, 기록영화촬영소, 텔레비죤방송탑을 비롯한 수많은 문화시설들과 현대적문화주택들이 건설되였다.

특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밑에 서성벌에는 1970년에 단 5개월 남짓한 기간에 세계 1등급의 천리마거리와 서성거리가 일떠섰다.

평양시건설자들은 동성립체다리는 4개월만에, 신서다리는 3개월만에, 평천립체다리는 17일간에 완공하는 집단적인 혁신을 일으켰다.

평양시건설자들은 보통문으로부터 동성립체다리우를 지나 앞으로 평천부두까지 뻗을 천리마거리, 평양역사로부터 평천립체다리와 동성립체다리밑을 지나 신서다리(보통강구역)에 이르는 서성거리의 주위에 5층, 8층, 10층, 12층, 15층 건물을 즐비하게 일떠세웠으며 대통로의 풍치에 조화되게 동성, 평천 립체다리들과 신서다리를 부각시킴으로써 또 하나의 기념비로 아로새겨질 창조물을 마련하였다.

평양시건설자들은 또한 1970년에 모란봉과 천리마동상, 금수산거리와 비파거리가 한눈에 안겨오는 중심에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10층의 금수산려관을 세웠다.

천리마거리와 서성거리의 형성, 금수산려관의 건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현명한 령도의 또 하나의 빛나는 승리이며 우리 근로자들에게 돌려주시는 두터운 배려이다.

## 체 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체신부문에서도 7개년인민경제계획기간에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체신부문의 기본과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체신부문에서는 군과 리사이의 전화망을 완비하고 모든 도시의 자동교환능력을 강화할것이며 유선방송망을 더욱 늘여 매개 농촌리에 빠짐없이 방송시설을 차려놓아야 할것입니다. 이와 함께 무선방송의 출력을 훨씬 높여 방송사업을 강화하여야 하며 텔레비죤방송도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25페지)

7개년인민경제계획기간에 체신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이 강령적과업이 빛나게 수행된 결과 전국의 유선방송화가 완성되고 무선방송의 출력이 현저히 높아졌으며 텔레비죤방송이 실시되였다.

매세대에 신문과 잡지를 배포하는 가장 우월한 출판물배포체계가 서고 민활한 산업통신이 보장되였다.

그리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며 기술, 문화, 사상혁명의 수행에서 체신의 사명과 역할을 더욱 원만히 수행하게 되였다.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제고에 깊은 배려를 돌려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7개년인민경제계획기간에 모든 농촌경리에 유선방송을 차려놓고 집집마다에 고성기를 달아줄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방침에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모든 근로자들 특히 농민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더욱 높이며 그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뽑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함으로써 기술, 문화, 사상의 모든 령역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앨데 대한 그이의 원대한 구상이 담겨져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유선방송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방송청취방을 발전시킬데 대한 정확한 방향을 규정하시고 전국의 유선방송화 단계와 그 수행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으며 이 사업을 전당적, 전군중적사업으로 벌리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어버이 수령님의 강령적교시와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받들고 붉은 체신일군들과 이들을 도와 나선 각지의 로동자들은 1970년의 단 10개월동안에 1969년의 근 8배에 달하는 3만여키로메터의 선로를 늘이고 80여만대의 실내고성기와 600여대의 유선방송기를 만들어 설치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매 세대에 출판물을 배포할데 대한 새롭고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몸소 평양시에서 그 모범을 창조하신 다음 그것을 전국에 일반화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평양에 현대적인 텔레비죤방송국을 건설하게 하신데 뒤이어 우리 나라의 여러곳에 텔레비죤중계국을 건설하여 더많은 지역에서 텔레비죤을 볼수있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방침이 빛나게 관철된 결과 우리 당 제5차대회전으로 나라의 유선방송화가 완성되여 농촌의 매집은 물론이고 포전에서까지 유선방송을 듣게 되였으며 모든 집들에서 신문과 잡지를 보게 되였으며 주요 도, 시, 군소재지와 산업지구, 대부분의 농촌리들에서 텔레비죤을 볼수있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여러대의 대출력방송기와 소출력방송기들을 만들고 큰 출력의 방송국들과 함께 작은 출력의 방송국들을 수많이 건설함으로써 무선방송출력을 훨씬 높이였다.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와 지극한 배려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방송체계와 출판물배포체계가 섬으로써 어버이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근로자들을 무장시키며 나라의 기술, 문화, 사상혁명을 더욱 촉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되였다.

7개년인민경제계획기간에 날로 급속히 늘어나는 통신, 특히 산업통신을 원만히 보장하는 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관리국들과 기업소들간에 통신체계를 세우고 방송전화기들도 만들어주어 산업전화를 우선적으로 보장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한 결과 중앙으로부터 중요기업소들까지 더많은 직통전화회선이 구성되였으며 오늘에 와서는 산업통신이 더욱 조직화되고 계획화되여 성 및 중앙기관들과 중요산업기업소들간의 통신련락이 더욱 원만히 보장되고있다.

우편통신에서는 수집, 체송 등 모든 공정들을 구체적으로 타산하고 그에 맞게 작업조직들을 개선하여 편지와 전보, 송금과 소포를 신속정확히 날라주는 체계를 세움으로써 우편물의 문화성과 봉사성을 더욱 높이였다.

7개년인민경제계획기간에 체신부문에서 달성한 모든 성과들은 혁명의 위

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나는 결실이며 수령님께서 재신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지도와 육친적인 배려를 돌려주신 결과이다.

# 재정금융

## 재 정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재정부문에서는 나라의 재정토대를 공고히 함으로써 7개년계획기간에 당이 제시한 정치, 경제, 군사적과업을 재정적으로 원만히 보장하였다.

이것은 전적으로 혁명의 위대한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사회주의재정리론이 가져다준 빛나는 결실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후의 천재적로작 《사회주의건설에서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데 대하여》를 비롯하여 사회주의재정에 관한 수많은 로작들을 친히 집필하시고 사회주의재정에 관한 새롭고 독창적인 리론을 창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사회주의재정리론의 독창성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주의재정의 기능과 역할, 임무, 국민소득의 분배와 재분배, 재정통제, 사회주의은행 등 사회주의재정사업 전반문제를 새롭게 과학적으로 밝히시고 체계화한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사회주의재정리론의 독창성은 또한 군중로선에 기초한 재정관리원칙을 새롭게 밝히신데 있다.

그이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 파도적으로 남아있게 되는 경제공간으로서의 재정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심오하게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근로자들의 공산주의적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치사업을 앞세워 그들의 자각적열성에 철저히 의거하여야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재정을 관리운영할수 있다는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제시하시였다.

재정부문에서는 이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를 가지고 있음으로하여 7개년인민경제계획기간에 그렇게 복잡한 정세가 조성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인 재정정책을 정확히 관철하여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재정부문에서 주체적인 재정정책을 관철하여 7개년인민경제계획기간에 달성한 가장 귀중한 성과의 하나는 사회주의공업화의 실현을 위한 자금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훌륭히 해결한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철저히 인민에 의거하여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와 그에 기초한 자립적인 재정토대를 구축하고 자금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내부원천을 동원하여 풀어나가는 유일하게 정당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에로 우리 인민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내놓으시였고 사회주의건설의 전행정에 시종일관 견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해결하는데서 커다란 힘을 발휘하였다.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우선 중공업자체의 내부축적을 빨리 늘일수 있게 하였을뿐만아니라 경공업과 농업에서 공업화의 자금을 확고히 마련할수 있게 하였다.

또한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도 중공업자체를 위한 중공업이 아니라 경공업과 농업, 인민생활향상에 복무하는 중공업을 건설하게 함으로써 비교적 자금회전이 빠른 경공업을 빨리 발전시켜 거기에서 공업화자금을 얻어낼수 있게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고 사회주의공업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한 결과 사회주의공업화기간에 국가예산수입의 몫이 74.6%로부터 98.2%로 장성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공업국가의 위력과 사회주의경제에 확고히 의거하고있는 우리나라 재정토대의 공고성을 웅변적으로 실증해주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는것이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며 자체의 내부원천으로 나라의 재정수입을 높이는데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것을 헤아리시고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재정규률을 세우며 내부예비를 동원할 독창적인 방침과 방도들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에로 우리 인민을 조직동원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천리마대고조의 시초를 열어놓은 1956년 12월전원회의, 군중적운동에 의한 지방산업공장의 대대적건설,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 닭공장건설, 분수식판수체계확립, 관수 및 배수시설의 건설과 같은 전군중적건설운동은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하여 자금문제를 자체의 내부원천으로 해결한 모범으로 된다.

특히 지방에 잠재한 예비를 동원하여 전군중적운동으로 지방공업을 창설하고 그를 더욱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창조적방침은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를 강화하고 소비품생산을 높이는 획기적조치일뿐아니라 경공업건설에 돌려야 할 투자의 많은 부분을 중공업건설에 돌려 사회주의공업화의 실현을 촉진하였으며 지방자체의 수입으로 지방의 경제문화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원만히 충족하게 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공업화를 실현할수 있게한 방대한 자금이나 수많은 인민적시책을 실시하는데 드는 방대한 자금이나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폭 높이고 물가를 체계적으로 낮출수 있게 한 방대한 자금이나 모두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이며 천재적인 자금해결방침에 의하여 마련된것이다.

재정부문에서 7개년인민경제계획기간에 거둔 이 모든 성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사회주의재정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 재정정책의 위대한 승리이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가져다 준 빛나는 결실이다.

**【1970년국가예산집행】** 어며니당 제5차대회를 앞두고 한결같이 떨쳐나선 전체 근로자들의 앙양된 혁명적열의와 전군중적절약투쟁에 의하여 1970년도 국가예산은 성과적으로 집행되였다.

이해 국가예산수입은 62억 3천 220만원으로서 계획에 비하여 101%로 초과집행되였으며 그 전해에 비하여 117%로 장성하였다.

빨리 늘어나는 국가예산수입에 기초하여 국가예산지출은 60억 269만으로서 그 전해에 비하여 119%로 장성하였다.

그리하여 1970년국가예산은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점령하는데 필요한 방대한 자금을 확고히 보장하고도 2억 2천 951만원에 달하는 지출에 대한 수입초과를 가지고 결산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국가예산이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는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구현한 예산이며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에

기초하고있는 공고한 예산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공업화의 전기간 국가예산수입이 해마다 평균 17.3%의 빠른 속도로 장성하였으며 국가예산에서 공업을 위주로 하는 사회주의경리형태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74.6%로부터 98.2%로 높아졌다.

오늘 우리 나라 인민경제는 1949년 한해동안에 국가에 벌어들이던 수입을 단 9일동안에 벌어들이고있다.

국방건설을 힘있게 내밀면서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정을 실현하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필요한 방대한 자금을 우리 자체의 힘으로 성과적으로 해결한 바로 여기에 인민대중에 의거하고 자체의 내부원천을 동원하여 자금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게 하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창조적방침의 정당성이 있다.

## 은 행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은행의 성격에 대하여 독창적으로 밝히시고 대부를 주고 리자를 받던 종래의 낡은 은행체계를 인민경제에 대한 유일적인 자금공급과 전면적인 재정통제를 실시하는 전혀 새로운 은행체계로 개편하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우리 나라 은행부문에서는 지난날의 은행체계를 대담하게 마스고 국가자금을 공급하는 중앙은행과 대부를 취급하는 산업은행으로 개편하고 인민경제 모든부문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원에 의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우리 나라 은행체계에서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종전까지 수행하던 대부업무를 그만두고 국가가 비준한 계획에 따라 국영기업소에서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생산 및 건설 자금을 포함하여 국가예산에 예견된 모든 자금을 유일적으로 따지면서 공급하게 되였다는것이다.

중앙은행의 다른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종전의 은행체계에서는 거의 취급하지않던 나라의 모든 고정생산을 화폐적으로 다 등록하고 감독하며 평가하는 사업을 직접 수행한다는것이다.

【중앙은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발권은행으로서 우리 나라의 유일한 화폐인 자기의 은행권을 발행하며 그의 류통을 계획적으로 조절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중앙은행은 또한 전국적인 결재를 조직하고 집행하며 로임자금의 지불과 통제사업을 진행하고 모든 기업소들에서 벌어놓은 국가수입금을 책임적으로 받아들이며 국가기업소들에 류동자금, 건설자금, 대보수자금을 공급하고 그 리용에 대하여 통제하며 기관, 기업소들의 설비와 건물을 비롯한 모든 고정재산을 등록, 감독, 평가함으로써 나라의 경제생활전반을 화폐적으로 계산장악하고 모든 자재와 설비, 로력이 더욱 합리적으로 리용되도록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는것을 자기의 기본과업으로 내세웠다.

【산업은행】 조선로동당의 정확한 재정금융정책에 립각하여 급속히 발전하는 인민경제 각 부문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 협동농장들에 대한 재정적지도와 통제사업을 진행하며 국가보험, 저금사업, 개인송금사업을 조직지도함으로써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함을 자기의 기본과업으로 하고있다.

【무역은행】 중앙은행의 지도밑에 외국과의 무역 및 비무역거래에 따르는 결재사업을 집행하며 외국돈을 바꾸는 사업과 려행행표의 발행사업 및 대외송금사업을 담당수행하면서 무역기관들의 수출입계획수행과 모든 기관들에서의 외화의 획득과 지불에 대한 재정적통제를 실시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의 은행체계는 종전의 은행체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가장 우월한 은행체계이며 나라의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빨리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상혁명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계산과 통제를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을 반영한 혁명적인 은행체계이다.

사회주의은행체계의 우월성과 생활력은 무엇보다도 먼저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뻗어있는 은행지점망들에서는 나라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과 생산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는 사업에 적극적인 작용을 놀므로써 인민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며 인민의 복리증진을 다그치는데 기여하였다.

새로운 은행체계의 우월성과 생활력은 또한 인민경제의 각 부문에서 계획규률을 세우고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에 대한 원에 의한 통제를 결정적으로 강화하고있는데서 발휘되고있다.

은행부문에서는 지금 사회주의은행체계를 개선강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받들고 나라살림살이의 주인된 립장에서 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 모든 정력과 지혜를 다 바치고있다.

## 로동행정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6차전원회의, 제18차전원회의 확대회의 결론에서와 일련의 불후의 로작들에서 사회주의로동행정의 본질,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로동행정사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사회주의로동행정사업의 기본원칙과 방법에 대하여 전면적이며 과학적인 해명을 주심으로써 로동행정사업을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게 정확히 밀고나갈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였다.

그리하여 7개년인민경제계획기간에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고 인민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로동행정부문앞에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인 광범한 대중을 어떻게 사회주의건설에 인입하며 그들의 사회적공동로동을 어떻게 조직하며 로동에 대한 보수를 어떻게 지불해야 하는가 등—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교양】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행정사업은 사람과의 사업이며 중요하게는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우는 사업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493페지)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이 방침은 지난시기에 단순한 기술실무적 문제로만 알아오던 로동행정사업을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키움으로써 그들의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재능을 남김없이 발휘시키는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방침에 따라 로동행정사업을 사람과의 사업, 근로자

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우는 사업으로 힘있게 밀고나갔다.

로동행정부문에서는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근로자들을 교양하여 그들로 하여금 로동에 주인답게 참가하며 정해진 질서와 제도를 자각적으로 지키며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며 어렵고 힘든 일을 스스로 찾아하며 서로 돕고 이끄는 공산주의적품성을 발휘하게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선진적인 우리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오늘 우리 근로자들은 직업에 대하여, 의식주에 대하여, 자녀교육과 병치료에 대하여 아무러한 근심걱정이 없기때문에 돈이나 받기 위하여 일하는것이 아니라 당과 수령을 위하여, 4천만이 다 유족하고 문명하게 살게 만드시려는 그이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임무로 여기고있다.

이렇듯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한 결과 로동행정부문앞에 제기된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었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거대한 로력적앙양을 이룩할수 있었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은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함으로써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수세기에 걸쳐서 수행한 공업화를 매우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14년이라는 기간에 철저히 실현한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다그쳐 그 어떤 침략자들도 단매에 때려 부실수 있는 강력한 방위수단과 공격수단을 가진 위력한 방위력을 쌓아올리였다.

이것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교양육성된 우리 근로자들이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가지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이루어놓은 창조적 결실이다.

**【로력의 합리적배치와 리용】**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 및 경제 기관 지도일군들은 로동계획화사업을 개선하여 나라의 로력원천을 적극 동원하며 로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로동생산능률을 높일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68페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로동행정부문에서는 로력을 부단히 보충할수 있을뿐만아니라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리용할수 있는 로력대장을 작성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발기에 의하여 작성된 로력대장은 로동계획을 세우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반영하고있으며 인민경제발전의 장성하는 수요에 따라 수시로 진행하는 로력보충과 로력조절사업을 기동적으로 보장하는데서 큰 역할을 놀고있다.

로동행정부문에서 7개년인민경제계획기간에 거둔 중요한 성과는 우선 로력대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필요한 로력수요를 보장한것이다.

혁명의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으로 하여 놀고있는 로력이 없으며 조국해방전쟁의 후과로 말미암아 로력원천이 제한된 로력실태를 통찰하시고 독창적인 로력해결원칙과 방도들을 가르쳐주시고 로력문제해결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불러일으켜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근로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한 사람이 두몫, 세몫씩 일할데 대하여, 기술혁명을 강화하여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보다 적은 로력으로 더많이 생산할데 대하여, 가정부인들이 직장에 나와 일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 그들을 사회주의건설에 대대적으로 인입할데 대한 일련의 현명한 조치들을 취하시였다.

어버이 수령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충실해온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한사람이 두세몫씩 일하거나 기술혁신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막대한 로력을 절약하는 동시에 어렵고 힘든 부문과 탄광, 광산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기간부문에 자원하여 들어갔으며 수십만명의 가정부인들이 지방산업공장과 분공장들을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장에 달려나갔으며 채굴부문, 건설부문, 농촌경리, 수산부문에서 긴장한 시기마다 사회적로력지원을 계획적으로, 전군중적운동으로 보장하였다.

그리하여 7개년인민경제계획기간의 년평균 로력보충원천이 5개년인민경제계획기간에 비하여 훨씬 적었으나 로력문제해결의 기본열쇠를 사람에서 찾고 사상에서 찾고 정치사업에서 찾음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높은 속도를 계속보장할수 있었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창조적인 방침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그처럼 어렵게 제기되었던 로력문제를 풀고 경제와 국방, 공업과 농업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었다.

로동행정부문에서 7개년인민경제계획기간에 거둔 다른 중요한 성과는 생산부문종업원수의 우선적증대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인민경제발전수준에 맞게 비생산부문일군수를 보장함으로써 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간, 생산부문내에서 기본생산부문과 보조생산부문간의 옳은 로력균형을 보장하였으며 근로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한것이다.

생산부문종업원수의 우선적증대를 보장하면서 인민경제의 발전수준에 맞게 비생산부문의 일군수를 정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간접부문, 비생산부문의 작업을 적극 기계화, 합리화한데 기초하여 로력배치기준을 새로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녀성들을 사무부문, 경로동부문을 비롯한 비생산부문에 광범히 인입하였다.

여기에서 얻어진 수많은 청장년로력들을 채굴부문의 갱내작업, 림업부문의 채벌작업, 수산부문의 어로작업, 금속 및 화학부문의 기본작업, 농업부문의 농산작업에 집중시킴으로써 기본생산부문의 로력수요를 보장하였을뿐만아니라 그 질적구성을 개선하였다.

또한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시간준수에 대한 교양사업과 통제사업을 강화하여 로동시간(480분, 460분, 420분) 리용률과 로동생산능률을 부단히 높이였으며 8시간로동, 8시간휴식, 8시간 학습하는 기풍을 세웠다.

**【기술기능향상, 로력후비양성】**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로동자들에게 기술을 더 잘 가르쳐주고 그들을 오래 고착시켜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07페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인민경제의 수요에 맞게 민족기술간부대렬을 급격히 늘이며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따라세울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관철하는 투쟁에서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면적기술혁명과업에 상응하게 현대적기계기술을 다룰줄아는 기능공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기능학습과 기능전습사업을 강화하며 정규적인 교육의 독창적인 형태인 기능공학교들을 새로 세워 9년제기술의무교육을 받은 중학교졸업생들을 체계적으로 기능공으로 키울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공화국내각에서는 기사반, 기수반, 기능전습반을 포괄하는 기술기능학습반(1969년 내각결정 제 65호)과 기능공

학교들을 내올데 대한 조치를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인민경제부문별 로력후비양성사업을 정확히 계획화하고 자기부문에 필요한 기능공들을 자체로 양성하는 원칙을 세우고 교수교양에 필요한 물질적조건을 충분히 마련하였으며 그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였다.

특히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에 따라 급격히 증대되는 대형기계생산과 특수기술의 수요에 상응하게 특수기능공들을 체계적으로 길러내여 그들을 대형기계들과 함께 해당 기업소들에 파견함으로써 그 운전을 처음부터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방침이 훌륭히 구현된 결과 전면적기술혁명과정에 제기되는 복잡한 기술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원만히 해결할수 있게 되였다.

**【로동보호, 사회보험, 사회보장, 정휴양】**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시고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흥겹게 일하도록 하기 위하여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을뿐만아니라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로동보호사업을 몇몇 전문일군들만 할것이 아니라 전당적, 전군중적사업으로 진행하며 로동안전교양사업과 감독통제사업을 옳게 결합하여 진행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또한 방대한 자금을 들여 현대적로동보호시설을 꾸려주시였으며 무상으로 막대한 로동보호물자들을 공급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로동행정부문에서는 신입로동자들에 대해서는 7~31일간의 로동안전교양, 재직종업원들에 대해서는 작업전 안전교양을 강화하면서 로동보호의 월간, 주간, 날마다 로동안전 및 산업위생시설들을 개선완비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흥겹게 일하게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근로자들의 건강증진과 문화휴식에 커다란 혜택을 베풀어주시였다.

년간을 통하여 11개월간 근무한 로동자, 농민,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유급정기휴가를 실시하는외에도 탄광, 광산, 금속, 화학부문을 비롯하여 기본생산부문에서 일하는 로동자들과 수산, 건설부문을 비롯하여 장기간 이동작업하는 로동자들에게 7—21일간의 유급보충휴가제를 실시하였다.

특히 어린이를 많이 키우는 모성로동자들에게는 8시간분의 생활비를 주고 6시간로동제를 실시하였으며 임신 6개월부터의 임신부들에게는 종전의 임금을 그대로 주면서 안전한 경로동을 시키였으며 산전산후 77일간(쌍둥이어머니에게는 84일, 삼태자어머니에게는 91일간)의 유급휴가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특별혜택을 주었다.

우리 인민들에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우리 근로자들은 또한 정휴양소와 료양소들에서 문화적인 휴식과 건강증진의 나날을 보내였으며 탄광, 광산, 수산부문의 가족휴양과 모범년성로동자들을 기본으로 하는 가족휴양을 광범히 조직함으로써 온가족이 떨 한푼 들이지 않고 문화적으로 휴식하였다.

그밖에도 당과 국가로부터 우리 근로자들은 국가부담으로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을 답사하였으며 중요도시들과 명승지, 공장과 농촌들을 참관하였다.

특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배려에 의하여 우리 농민들도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같이 국가부담으로 정휴양소와 료양소들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였으며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중요도시들과 명승지, 중요 공장들과 기업소들을 답사 및 참관하는 행복을 누리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생산이 확대되고 국가축적이 늘어나는데 따라서 사회보험지출을 늘여 근로자들에게 여러가지 년금과 보조금을 더 많이 지불하고 의료상 방조를 강화하도록 온갖 배려를 다 돌려주시였다.

어버이 수령님의 육친적인 배려에 의하여 사회보장자들은 밤나무관리반을 비롯한 치료로동에 참가하여 로동자, 사무원들과 같은 식량을 받을뿐만아니라 사회보장년금 이외에도 생활보조비를 비롯한 추가적인 혜택을 받고있으며 영예군인들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특별한 혜택을 받고있다.

**【사회주의 분배원칙의 관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중의 정치사상의식을 부단히 높이면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관철하는것은 사회주의적생산을 더욱 발전시키는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68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모든 단위들에서는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려는 그들의 정치적각성과 혁명적각오를 부단히 높이였다.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가 강화되고 나라의 생산력이 매우 빨리 발전하여 국민소득이 훨씬 늘어난 결과 축적을 우선적으로 증대시키면서 소비를 계통적으로 늘일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 마련되였다.

당과 정부에서는 7개년인민경제계획기간에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날로 격화되는 새 전쟁 도발책동에 대처하여 국방건설에 추가적인 투자를 돌리면서도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계속 커다란 관심을 돌렸다.

당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낮은 임금을 받는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교육부문일군들의 임금이 올라간 반면에 대중소비품의 값이 대폭 낮아짐으로써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훨씬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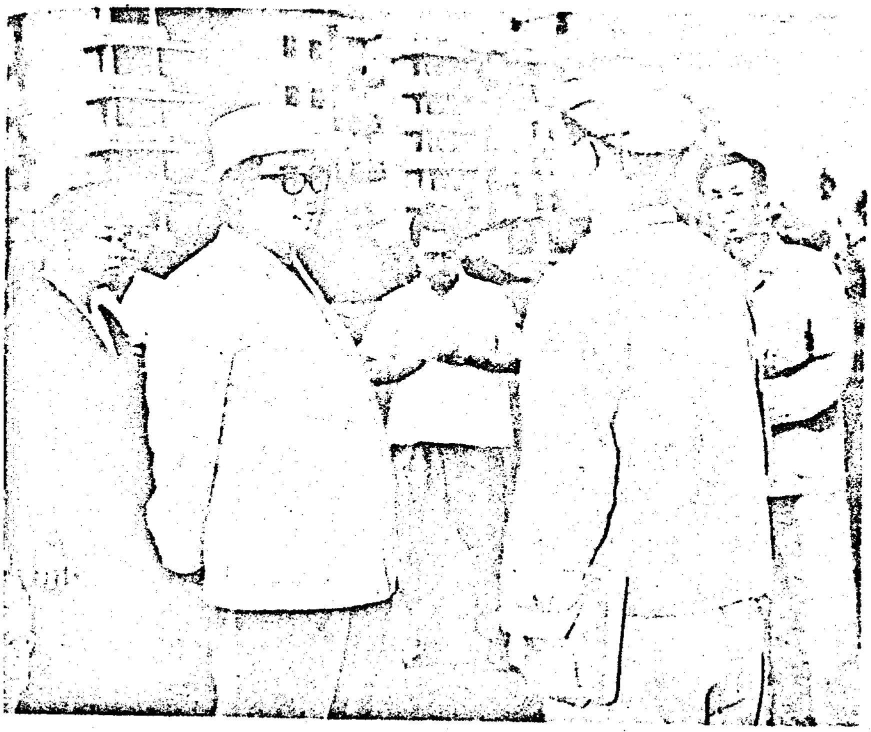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로동에 의한 분배외에도 추가적인 혜택을 받고있다. 국가보상에 의한 식량과 연료의 공급, 무료교육, 무상치료, 유급휴가제의 혜택을 받았으며 탁아소, 유치원, 각급 학교의 원아들과 학생들은 싼값으로 옷과 신발을 공급받았다. 이 모든 추가적인 혜택들은 전국적인 임금액과 맞먹는 방대한 량이다.

어버이 수령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사회주의사회에서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행복하게 사는 우리 근로자들은 제5차당대회를 앞두고 7개년계획의 마지막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돌격전에서 대중적영웅주의와 집단적혁신을 일으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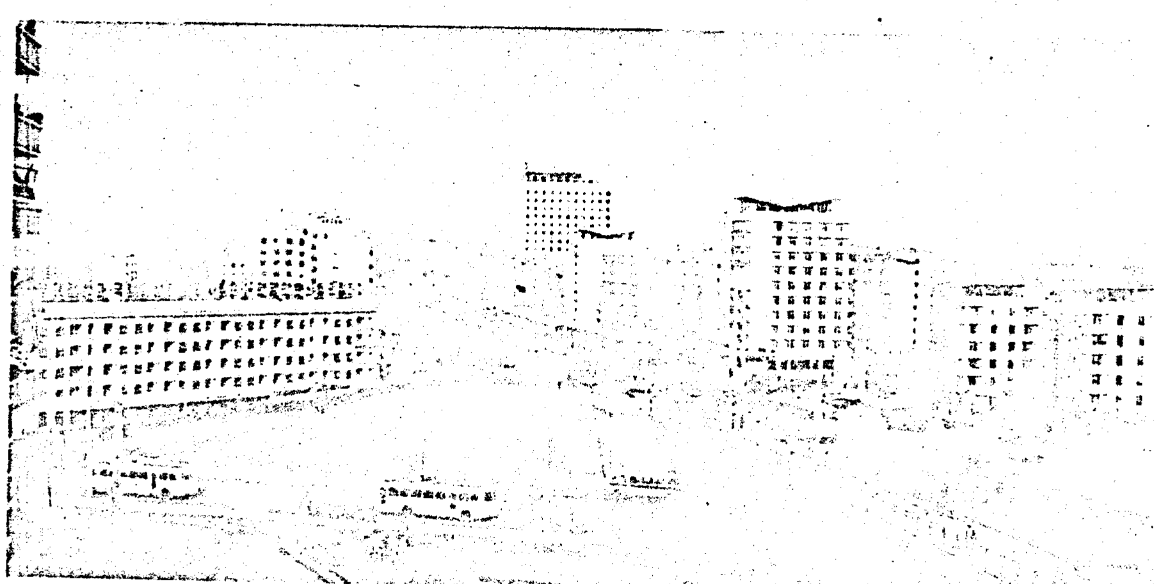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제5차 당대회를 앞두고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를 거두고있는 우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전반적으로 올려줄데 대한 크나큰 배려를 또다시 돌려주시였다.

공화국내각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1970년 9월 1일부터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임금을 평균 31.5% 올릴데 대한 내각결정 제70호(1970년 8월 31일)를 채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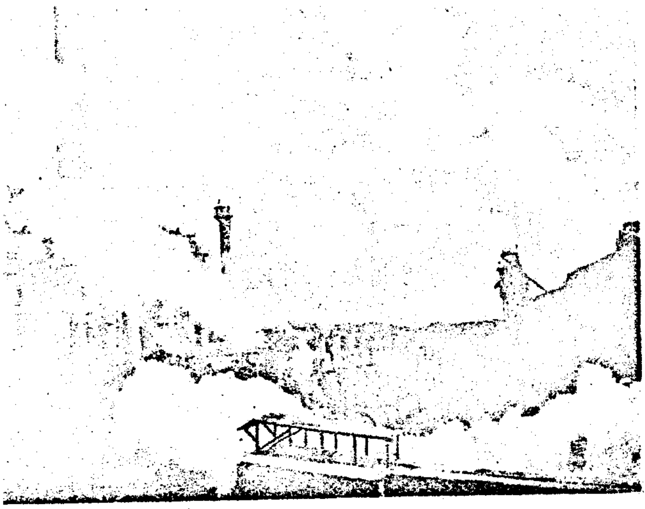
대폭적인 임금인상조치는 어버이 수령님의 향도아래 우리 인민이 쌓아올린 자립적민족경제의 무궁무진한 생활력에 기초하고있으며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우리 나라 대규모사회주의경제의 높은 장성속도에 기초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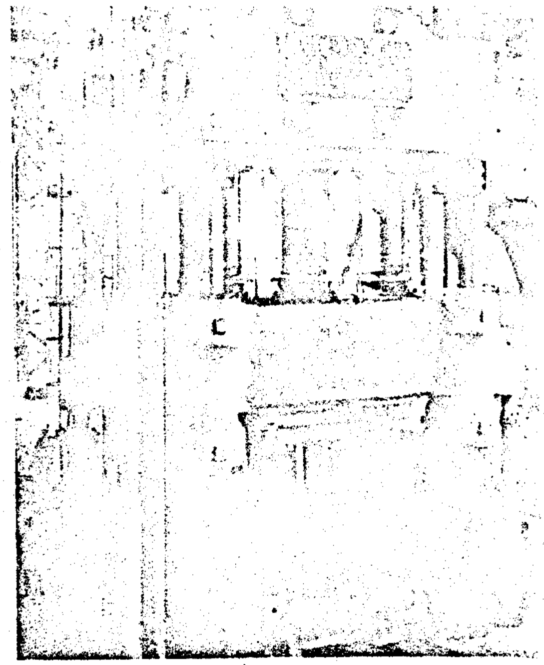
평양시건설을 몸소 지도하고계시는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세계 1등급의 거리—평양시 천리마거리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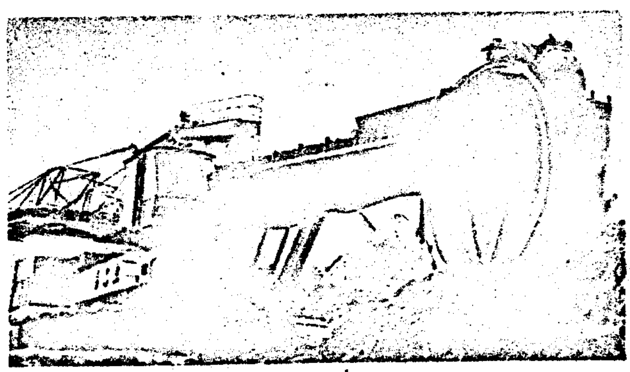
철공업의 위용을 자랑하는 강철기지 천리마황해제철소의 일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필요한 대형소재를 단조하는 천톤프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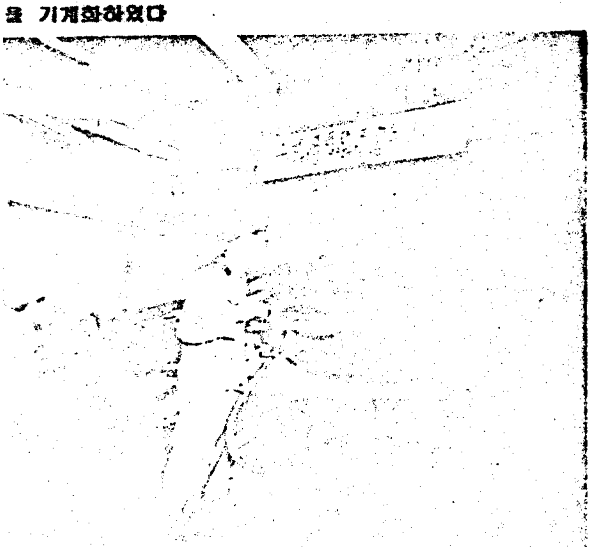


우리 나라 중요간선에서 철도전기화의 마감을 장식한 평양—청진간 전기철도 개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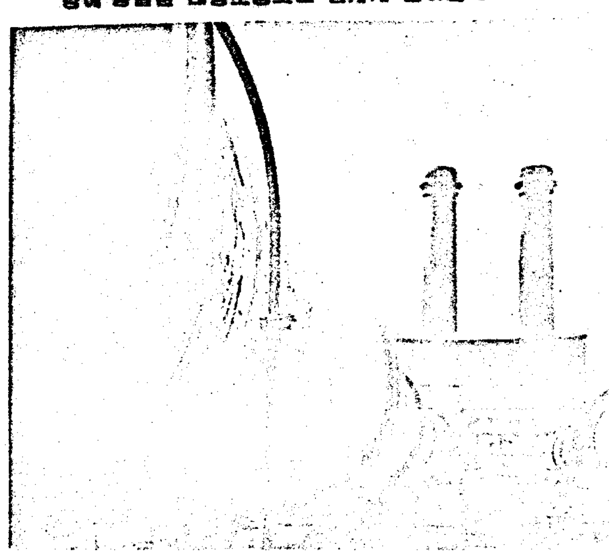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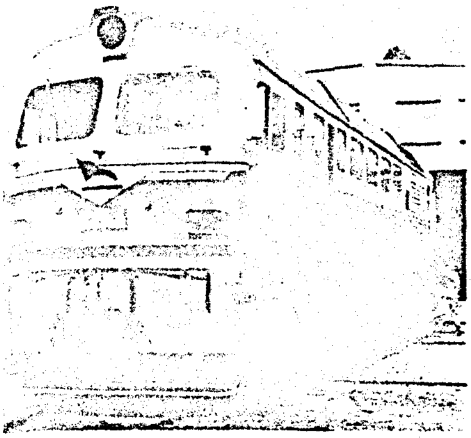
2,500명의 로력을 대신하는 대형련속식굴착기

착암대차를 받아들여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막장작업을 기계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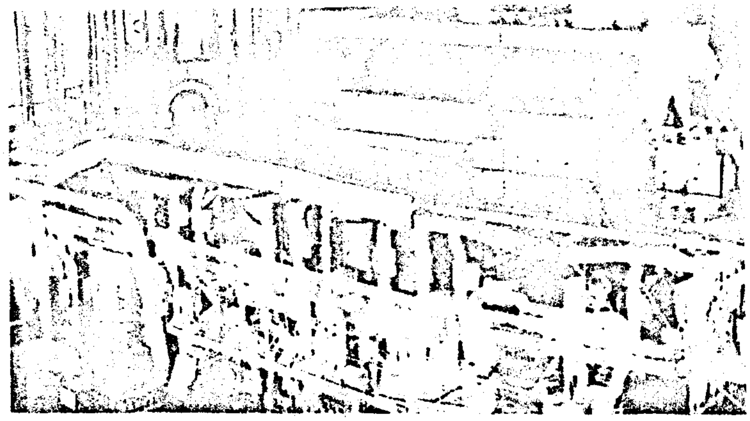


우리의 설계, 우리의 자재, 우리의 손으로 2.8세멘트공장에 증설한 대형소성로는 힘차게 돌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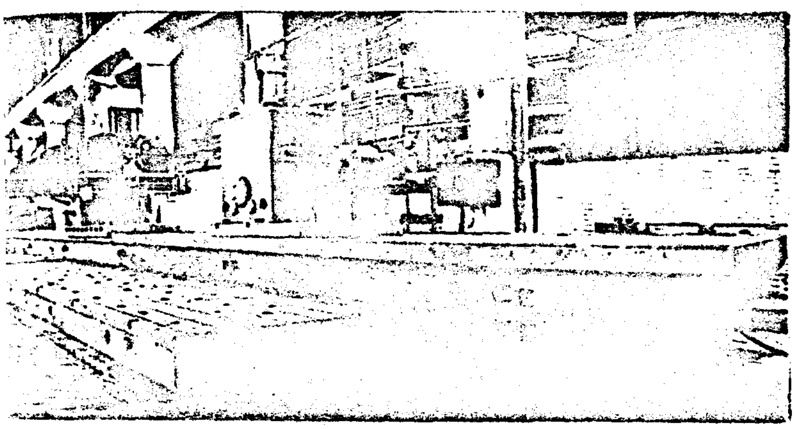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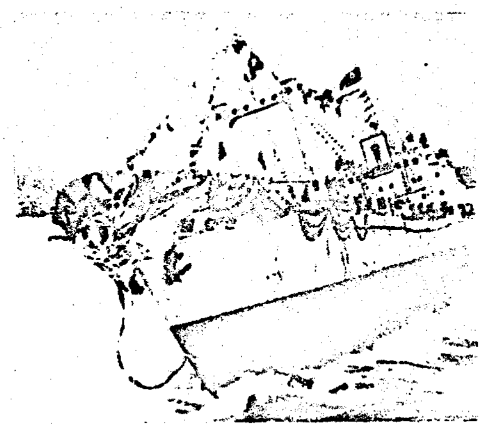
새로 만든 《새별》 디젤기관차



새로 건설한 북창화력발전소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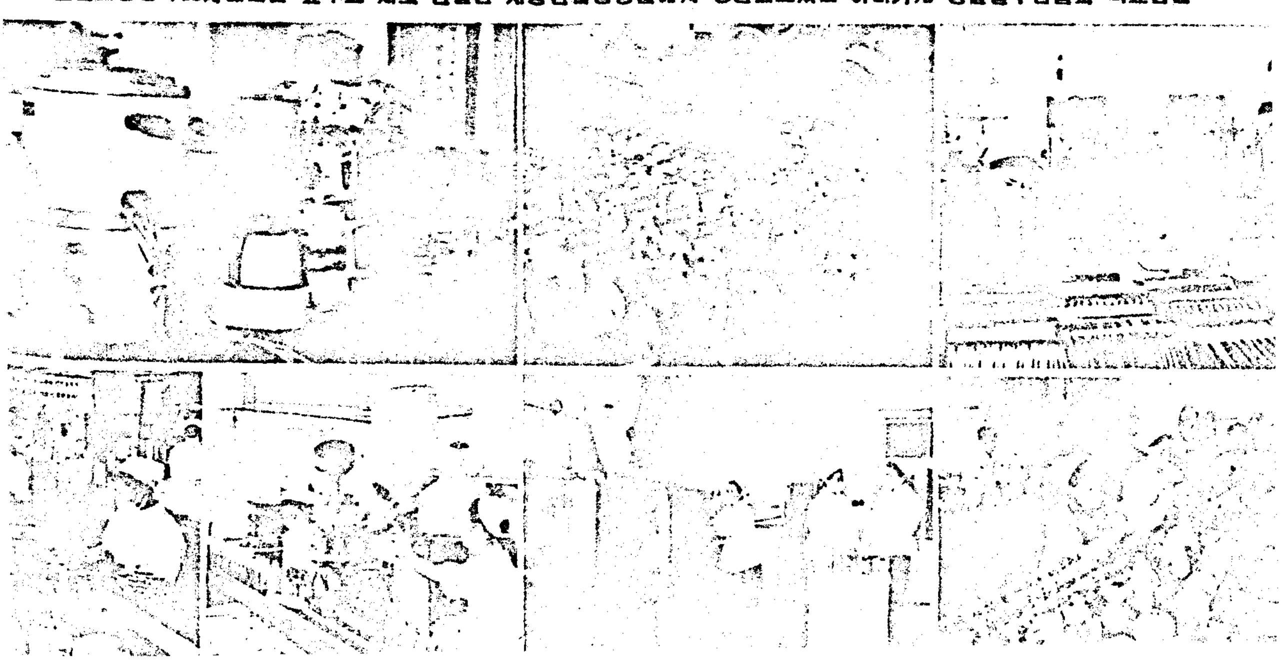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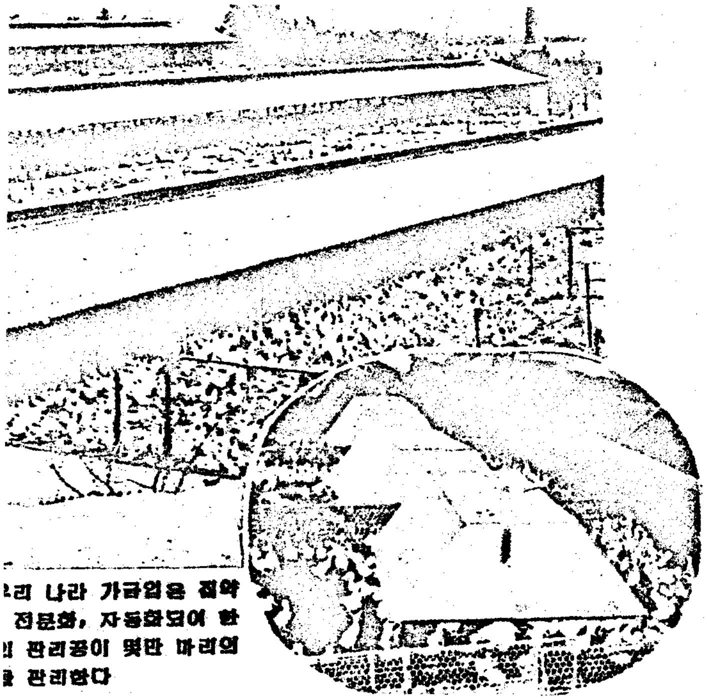
동력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어떤 소재나 임의의 속도로 동시에 가공, 련마
는 12메터프레나



우리의 로동계급은 5천톤급 대형랭장운반선
《봉화산》호를 석달동안에 무어 바다에 띄웠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앞두고 새로 건설한 지방산업공장들에서 생산되고있는 여러가지 생활필수품들과 식료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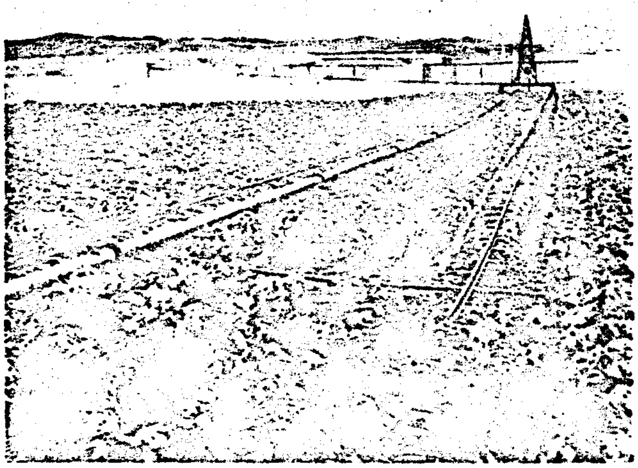




…리 나라 가금업은 전약
전문화, 자동화되어 한
…] 관리공이 몇만 마리의
…을 관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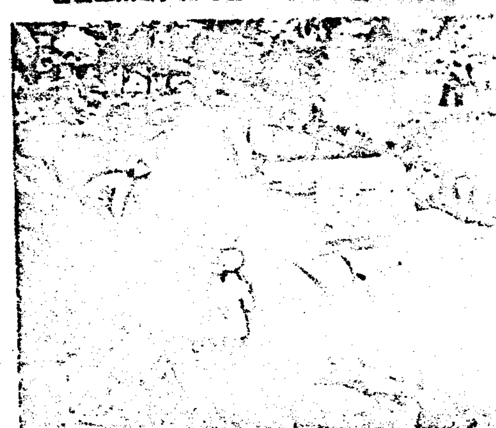


전국의 과일동산에 갖가지 과일이 주렁지다



모든 남새밭에 분수식관수체계를 받아들여 정보마다 150톤
이상의 남새를 생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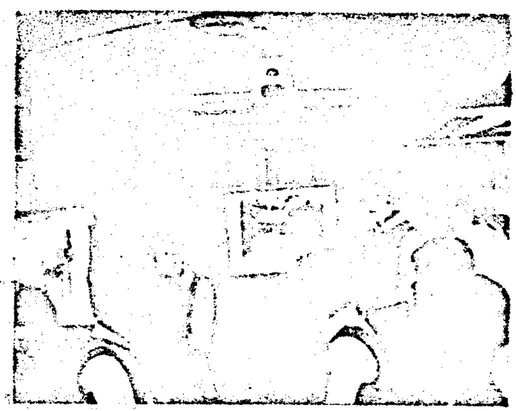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우…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착착 …
현되고있다. 사진은 기계화된 [illegible]작업을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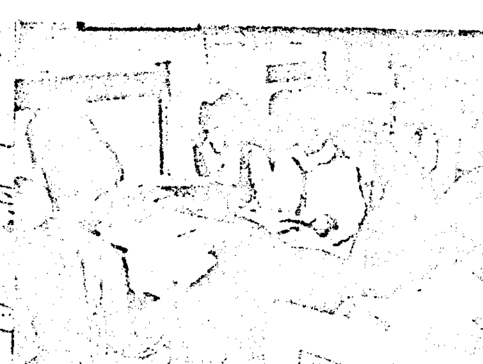
소년단 반일지와 교과서를 보아주시며 소년단생활과 학습을 잘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원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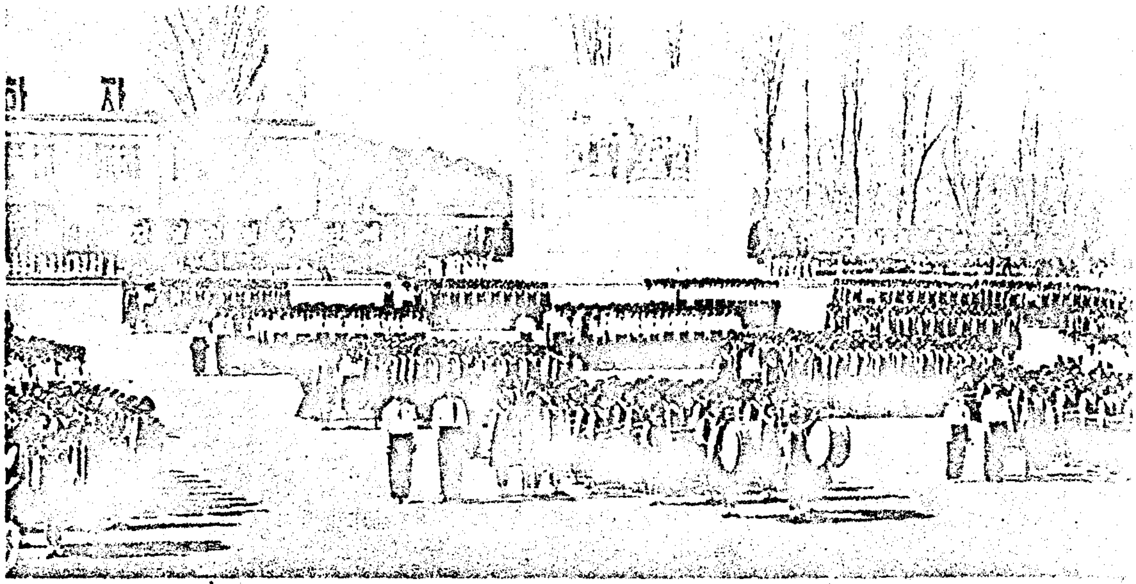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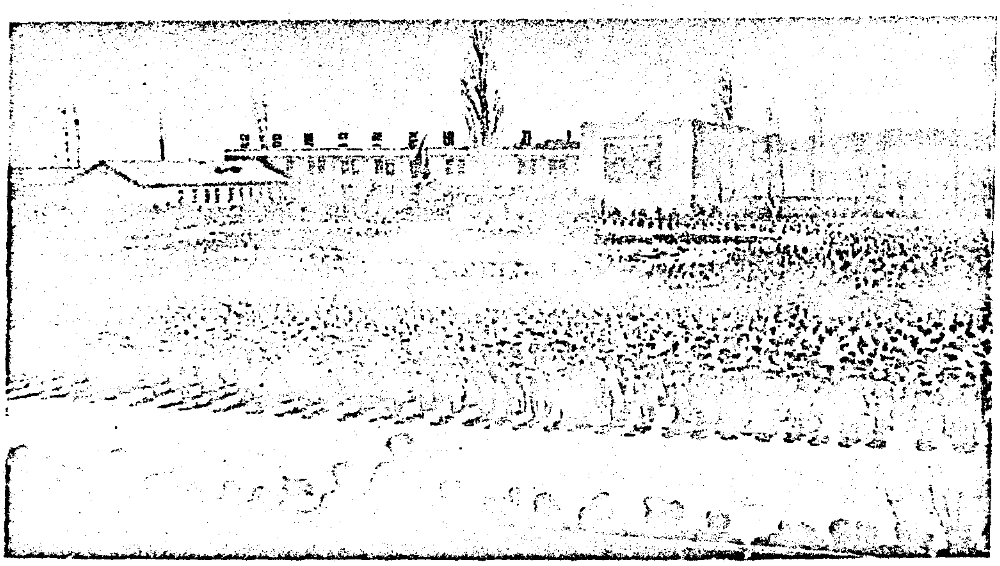


어버이수령님께서 림산마을어린이들이 산길을 걸어다니는것을 못내 가슴아파하시여 보내주신 통학렬차. 잘 꾸려진 통학렬차안에서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혁명력사를 학습하고있는 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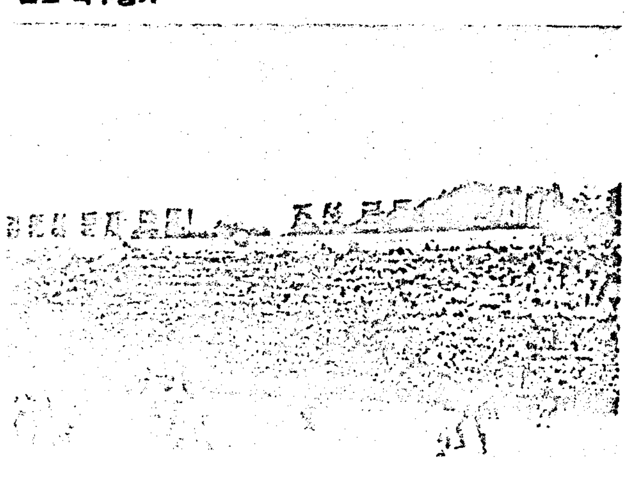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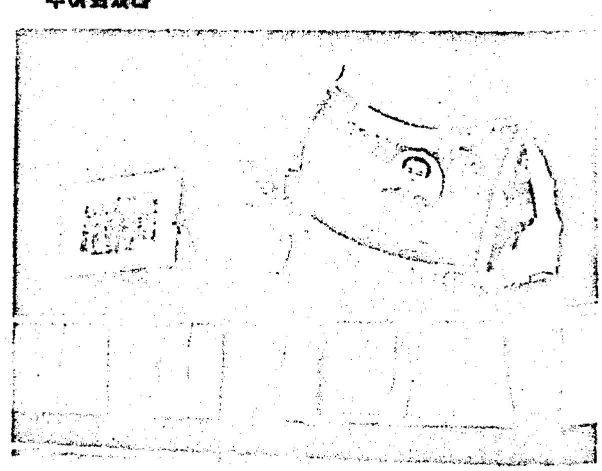


어버이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쉰여덟돐을 기념하여 혁명의 요람 만경대에서 진행된 조선소년단 평양시련합단체대회(수)와 집단체조 《혁명의 요람 만경대》의 종막(사진)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앞두고 열린 전국중학생체육대회 축구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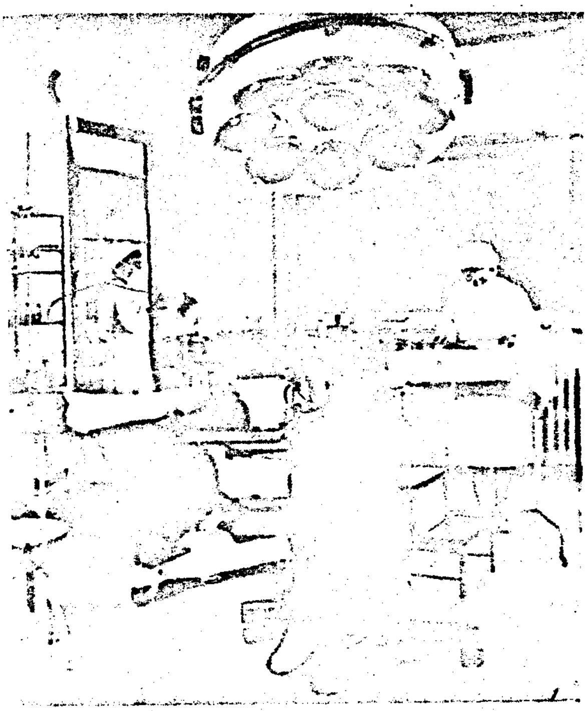


천리마창덕학교에 2중천리마학교의 영예로운 칭호가 수여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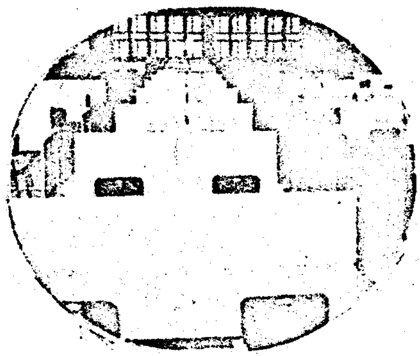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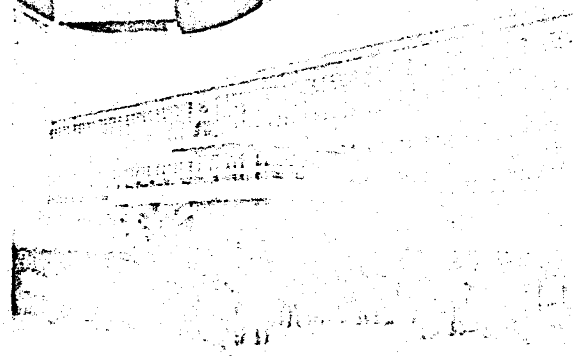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를 경축하여 공연한 대음악무용서사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의 한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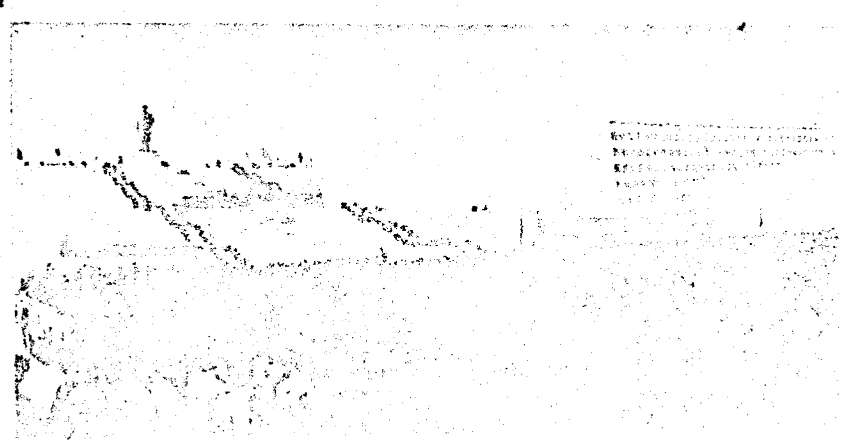
…자들에게 전반적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더 많이 받게
…위하여 현대적설비로 꾸려지고있는 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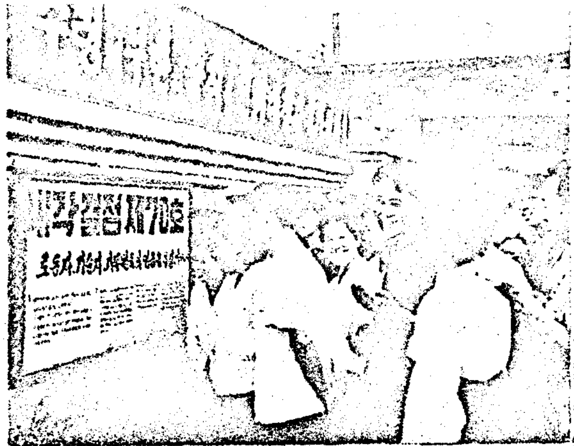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새로 일떠선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과 열람실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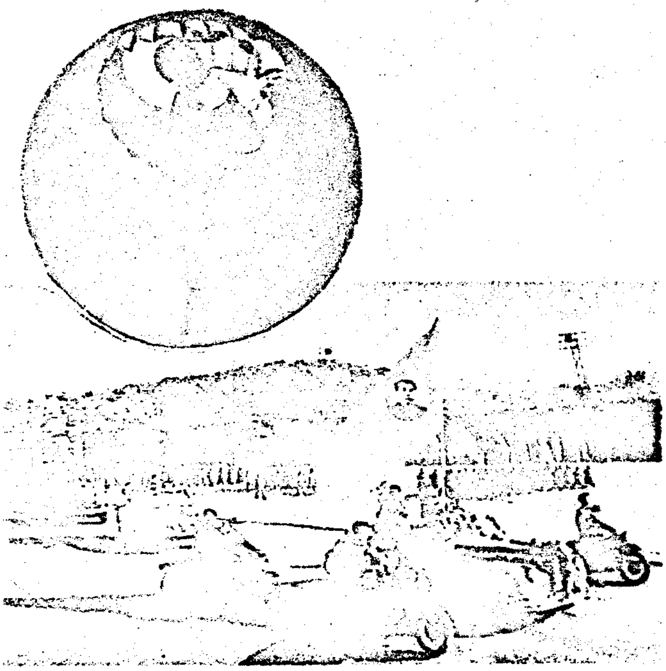
김일성종합대학에 천리마대학칭호를 수여하는 평양시대학 교직원, 학생련합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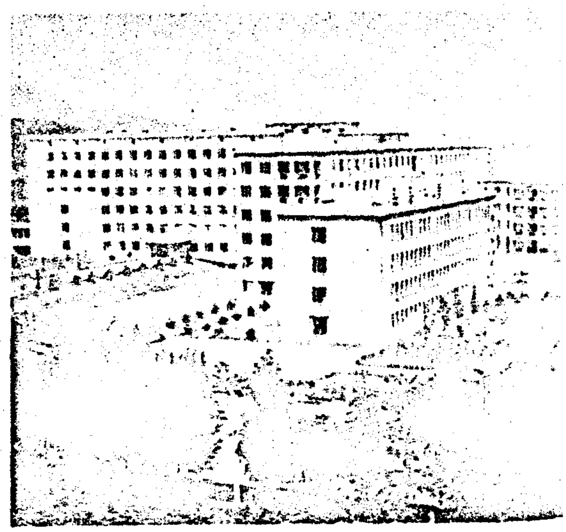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임금을 평균 31.5% 올림에 대한 내각결정 제70호가 나왔다. 감격에 넘쳐있는 근로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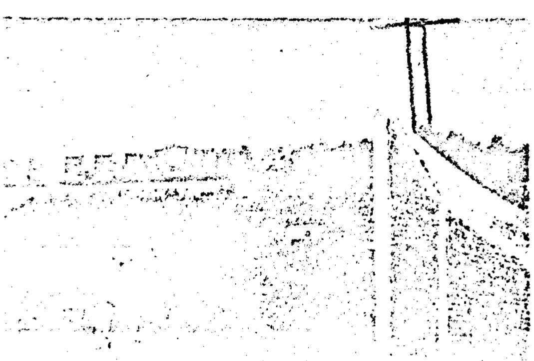


녀맹창립 스므다섯돐기념 전국녀성국방체육대회 개막식과 녀성락하산 모범경기



의학과학의 전당—함흥의학대학교사의 일부

우리 나라 제2종합축구선수단과 헝가리아 제2종합축구선수단간의 (왼쪽), 우리 나라 녀자배구팀과 독일 녀자배구팀간의 (오른쪽) 친선경기





# 사회주의 문화건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사회주의문화건설부문의 성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화혁명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된 결과 오늘 우리 나라는 어린이로부터 늙은이들에 이르기까지 전체 인민이 다 공부하는 교육의 나라로, 과학과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이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는 나라로 되였습니다.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문화적락후성은 극복되고 문화적으로 행복하게 살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망은 로동당시대에 와서 빛나게 실현되고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9페지)

문화혁명은 지난날 뒤떨어진 식민지반봉건국가였던 우리 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그것은 우리 인민이 일제의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락후한 문화를 넘겨받은 조건에서 새 사회를 건설하게 된 사정과 관련되였다.

지난날 우리 인민은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과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인하여 갖은 천대와 멸시, 무지와 몽매속에서 허덕이였으며 현대기술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져있었다.

해방후 나라의 주인으로 된 우리 인민앞에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고 문화적락후성을 시급히 없애며 새로운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창조할 과업이 절박한 문제로 나섰다.

일제의 식민지적문화의 잔재를 철저히 없애고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대중을 문화적락후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며 지난날의 문화와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창설하지 않고서는 근로자들을 높은 기술문화수준의 소유자로, 새 사회를 능숙하게 관리운영할수 있는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워나갈수 없었으며 나라의 사회주의적발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 사회 건설을 령도하시는 첫날부터 문화혁명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우리 근로자들의 문화적락후성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빨리 발전시키는데 시종일관 깊은 관심을 돌려오시였다. 그리하여 문화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독창적으로 해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문화혁명을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이후 시기에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계속 힘있게 틀어쥐고나갈 사회주의건설의 중요구성부분으로, 계속혁명의 중심과업의 하나로 규정하시고 그것을 사상, 기술 혁명과 함께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령도하여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화혁명을 수행하는데서 당은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그것을 다른 사업에 앞세웠으며 젊은 세대들을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며 기술혁명의 빠른 속도에 맞게 기술자, 전문가들을 많이 길러내기 위한 일련의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우와 같은책, 14~15페지)

문화혁명을 수행하는데서 당이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그것을 다른 사업에 앞세운것은 기술자, 전문가, 민족간부의 튼튼한 준비가 없이는 새 사회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었던 사정과 관련되였다.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정책으로 말미암아 민족인테리가 매우 적었고 주민의 절대다수가 현대적기술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져있었던 우리 나라의 형편에서 민족간부문제는 혁명과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인 문제의 하나로 나섰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문화혁명을 수행하는데서 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사업에 앞세우며 젊은 세대들을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며 기술혁명의 빠른 속도에 맞게 기술자, 전문가들을 많이 길러내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해방후 첫시기에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무르익혀오신 위대한 구상에 기초하시여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를 실시하시고 인민교육체계를 확립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근로인민출신의 새로운 민족간부를 대대적으로 양성하는 한편 오랜 인테리들을 대담하게 포섭하고 교양개조하여 새 사회 건설에 적극 인입할데 대한 독창적인 민족간부육성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께서는 해방직후부터 로동자, 농민출신의 새 인테리들을 더 빨리, 더 많이, 더 잘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과 전문학교들을 비롯한 각급 학교들을 전국 도처에 수많이 창설하시였으며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세우시였다.

만일 우리 당이 해방직후부터 커다란 힘을 넣어 인민교육사업을 빨리 발전시키며 민족간부를 많이 키워내는 예견성있는 대책을 취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자립적민족경제를 튼튼히 건설할수 없었을 것이고 공업화의 과업과 사회주의공업국가에로의 위대한 전변도 실현할수 없었을것이다. 우리는 모든 곤난을 무릅쓰고 교육사업과 간부양성사업을 앞세워 자기의 힘으로 국가와 경제를 훌륭히 관리하며 우리 사회를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는 중요한 조건을 마련하여놓았다.

실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문화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울데 대한 방침은 끊임없이 심화발전되여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요구에 맞게 인재를 예견성있게 준비해나감으로써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주로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며 혁명과 건설을 비상히 빨리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 가장 현명하고 독창적인 방침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와 발기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1956년에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된데 뒤이어 1958년부터는 동방에서 처음으로 전반적중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되였으며 1959년부터는 각급 학교들에서 수업료가 전반적으로 폐지되고 완전한 무료교육이 실시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한데 기초하여 7개년계획기간인 1967년부터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길에 들어섰다. 그리하여 8살부터 17살에 이르는 우리 나라의 모든 청소년들이 정규학교에서 무료로 기술의무교육을 받을수 있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9년제기술의무교육에 관한 사상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일반교육과 기초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훌륭히 결합시킬수 있는 가장 선진적인 교육제도를 창시하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교육리론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망을 대대적으로 늘이는 한편 일하면서 배우는 여러가지 형태의 고등교육체계를 더욱 발전시키시여 인민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기술자, 전문가들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도록 하시였다.

어버이수령의 현명한 교육방침에 의하여 우리 당은 지방의 실정에 맞는 간부를 기동적으로 양성할수 있도록 지방에 종합적인 간부양성기지를 튼튼히 꾸렸으며 성인교육사업과 어린이들을 국가적부담으로 기르는 공산주의적시책을 실시하는 사업에 커다란 힘을 돌리였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주민세대들에 유선방송시설들이 다 설치되여 제때에 우리 당의 목소리를 들을수 있게된것은 물론 신문과 잡지가 다 차례졌으며 온 나라의 텔레비죤화가 급속히 추진되고있다.

성인교육사업이 강화되고 방송선전사업과 출판물보급사업이 개선됨으로써 근로자들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은 훨씬 높아졌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가지도록 할데 대한 당의 방침은 빛나게 실현되여가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근로자들은 누구나 다 일정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목적의식적으로 참가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이 빨리 발전하는데 맞게 간부들의 정치리론수준과 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 당, 근로단체 및 국가기관들에서 매주 수요강연회와 토요학습을 진행하며 모든 일군들이 매일 2시간이상 의무적으로 학습하도록 하는 제도를 세웠다. 특히 1969년부터는 중앙과 각 지방들에 1개월강습조들을 조직하고 모든 간부들이 해마다 한달동안씩 여기에 망라되여 학습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이 조치에 따라 1969년 한해동안만하여도 50만명이상의 간부들이 1개월강습조에 망라되여 김일성동지의 로작들과 우리 당의 정책 그리고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전문지식들을 깊이있게 학습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교육사상과 교육방침에 의하여 우리의 사회주의적교육학은 더욱 완성되였으며 학교교육사업에서 주체와 로동계급적선이 똑바로 서고 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이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그이의 탁월한 령도와 육친적인 배려에 의하여 7개년계획의 마지막해인 1970년에 우리 나라에서 9년제기술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수는 320만명에 이르렀으며 10만여명이나 졸업하였다. 2~3년후부터는 해마다 30만~40만명씩 졸업하여 인민경제 여러부문에 나가게 된다.

해방전에는 대학이란 하나도 없던 우리 나라에 오늘은 129개의 대학이 새로 세워졌으며 이 대학들과 약 500개의 고등기술학교들에서 20여만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있다. 우리 당은 총결기간에 40만명에 가까운 기술자, 전문가들을 새로 양성한 결과 오늘 인민경제 여러부문에서는 49만 7천여명의 기사, 기수 및 전문가들이 일하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경제 종업원 총수에서 기술자, 전문가의 비중이 1960년의 7.2%로부터 1969년에 15.8%로 높아졌으며 같은 기간에 협동농장당 기술자, 전문가 수는 1.2명으로부터 17.5명으로 빨리 늘어났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와 뜨거운 배려에 의하여 실로 오늘 우리 나라는 어린이로부터 늙은이들에 이르기까지 전체 인민이 다 공부하는 교육의 나라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과학연구사업에서의 기본은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다는것을 천명하시고 그를 시종일관 견지하여오시였다. 그이께서는 과학자들의 과학연구사업에 세심한 관심을 돌리시고 여러가지 절박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심으로써 과학발전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게 하시였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과학기술발전방침이 관철된 결과 우리 나라에서는 국내원료에 의한 철생산공정이 확립되고 그것을 공업화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이 해결되였으며 갈을 원료로 하는 화학섬유생산에 대한 연구사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였다. 또한 무연탄가스화에 의한 암모니아생산이 성공된것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여러가지 성능이 높은 기계설비들과 자동화기구들을 창안제작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성과적으로 진척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문화혁명의 합법칙적요구와 계급적내용,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의 반동적본질 및 그 해독성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건전한 토대우에서 개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문화혁명의 기본화살을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반대하는데 돌리며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탁월한 방침을 새롭게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사회주의문학예술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사상적무기로서 부르죠아사상과 수정주의사상, 복고주의경향 등 온갖 반동사상을 철저히 반대하고 혁명과 건설을 위하여 복무하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의 특징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높은 사상예술성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있는 작품들은 현대의 유일하게 옳은 창작방법인 사회주의적사실주의에 의하여서만 창조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29페지)

경애하는 수령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문학예술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문제, 민족문화유산의 계승에 관한 문제, 문학예술의 전형에 관한 문제 등 문학예술의 근본문제에서 맑스-레닌주의문예리론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시고 풍부화하시였다.

우리 나라 문학예술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창조적인 문예리론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진실로 당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로 개화발전하였으며 이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문학예술분야에서 나타났던 수정주의적요소와 복고주의적경향이 없어지고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로동계급적선이 똑똑히 선 혁명적문학예술작품들을 창작하기 위한 투쟁이 강화되였다.

그리하여 7개년계획기간에 우리 나라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적문예사상을 집대성한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와 《한 자위단원의 운명》 등 200여편의 예술영화를 비롯하여 서사시 《우리의 태양 김일성원수》, 《푸른 소나무 영원히 솟아있으리》, 《조선의 어머니》 등 사상예술성이 높은 우수한 예술작품들을 많이 내놓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따라 배우며 그이의 혁명력사를 후세에 길이 전할 불멸의 대기념비적인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을 비롯하여 혁명박물관, 혁명전적지와 사적관들이 건설되어 근로대중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국방체육을 위주로하는 체육을 대중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전체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은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되고 있으며 체육기술은 짧은 기간내에 높은 수준으로 올라 국제무대에서까지 그 위력을 과시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와 뜨거운 배려에 의하여 실로 오늘 우리 나라는 과학과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이 개화발전하는 나라로 되였다.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문화적락후성은 우리 나라에서 없어졌으며 문화적으로 행복하게 살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망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로동당시대에 와서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교육, 과학, 문학예술 등 사회주의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쌓아올린 위대한 성과와 경험들은 사회주의문화건설에 관한 옳은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하여 시종일관 깊은 관심과 배려를 돌려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사회주의문화건설에 관한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뚜렷한 실증으로 된다.

# 교 육

세상사람들로부터 《교육의 나라》로 불리우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하에서의 인민교육사업은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수행하는 기본수단의 하나로 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교육의 목적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를, 다시말하면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고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로동계급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을 키워내는데 있습니다.》(《학생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참된 후비대로 교육교양하자》, 단행본, 6~7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학생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참된 후비대로 교육교양하자》, 《청소년교양에서 교육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를 비롯한 일련의 로작들과 1969년 12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하신 결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학의 원칙적문제들인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교육의 목적과 사명에 대하여, 학교교육에서 로동계급적선을 확고히 견지하며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그 기본으로 삼을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께서 몸소 창시하신 탁월한 공산주의교육 사상과 리론, 특히 사회주의사회의 학교교육에서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갈데 대한 사상은 오늘의 시대적요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천재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맑스-레닌주의교육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신 위대한 독창적인 교육사상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후대교육사업을 혁명의 전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깊이 통찰하시고 후대들에 대한 혁명적인 교육교양에 커다란 관심을 돌려오시였다.

그이께서는 일찌기 초기혁명활동시기에 타도제국주의동맹을 비롯한 여러가지 혁명적인 청년학생조직들을 무으시고 그에 광범한 청년학생들을 망라시켜 그들이 장차 조선혁명의 핵심적골간을 이루도록 그들에 대한 혁명적교육교양과 조직적단련을 부단히 강화하시였다.

또한 그이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혁명근거지들에서 혁명적이고 주체적인 교육사상을 구현하시여 근거지청소년들을 무료로 공부시키시였으며 혁명투쟁의 간고한 불길속에서 그들을 혁명가로, 공산주의투사로 굳건히 키워주시였다.

해방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시기부터 무르익혀오신 혁명적교육강령과 청소년학생운동의 빛나는 혁명전통에 기초하시여 누구나 다 배울수 있는 진정한 인민적교육제도를 세워주시였으며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새 조국 건설에 이바지할수 있는 쓸모있는 지식을 습득하며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다져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준비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시였다.

뿐만아니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의 학교교육의 목적과 사명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처음으로 명철하게 밝혀주시였으며 그 수행방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의 후대들을 위하여 학생이 11명밖에 없는 백무고원의 산골에도 학교를 세워주시였으며 19명밖에 안되는 산간마을학교학생들이 산길을 걸어다니는것을 념려하시여 그들에게 통학렬차까지 보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추우면 추울세라 더우면 더울세라 우리 학생소년들에게 철따라 새 교복을 주시였으며 교과서와 학용품에 이르기까지 학생교육교양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분히 마련하여주시였다.

어버이수령의 탁월한 령도와 학생소년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깊은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 인민교육사업에서는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문화혁명수행에서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그것을 다른 사업에 앞세우시였으며 그에 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결과 오늘 우리 나라에 대학은 129개로 늘어나고 고등기술학교는 376개나 새로 나왔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129개의 대학과 약 500개의 고등기술학교들에서 20여만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총결기간에 40만명에 가까운 기술자, 전문가가 새로 양성되였다. 인민경제종업원총수에서 기술자, 전문가의 비중은 1960년의 7.2%로부터 1969년에는 15.8%로 높아졌으며 같은 기간에 협동농장당 기술자, 전문가수는 1.2명으로부터 17.5명으로 빨리 늘어났다.

그리하여 오늘 인민경제 여러부문에서는 1960년에 비하여 4.3배나 더 많은 49만 7천여명의 기사, 기수 및 전문가들이 일하고있으며 그들의 지혜와 힘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국가경제기관들과 과학문화기관들,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이 훌륭히 관리운영되고있다.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두터운 배려에 의하여 1970년에 우리 나라에는 또 10여개의 대학이 새로 나왔다.

고등교육성산하의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으로서 사리원지질대학, 함북농업대학, 평양상업대학, 원주식료

공업대학, 자강농업대학과 평양과 개천, 만포 등에 일하면서 배우는 공장대학이 새로 생겼으며 보통교육성산하에 개성사범대학과 평양외국어사범대학이 새로 나옴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요구에 맞게 기술인재양성사업과 교원양성사업을 보다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7개년계획기간에 현대적인 과학연구실험설비들을 갖춘 김일성종합대학 1호교사가 완공되고 32개의 대학이 신설되였으며 특히 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1961～1969년동안에 2만 6천여교실과 1만 5천개의 각종 실험실과 연구실이 새로 건설되였다.

또한 1970년에는 수백만권의 도서를 장서하고 1천명이상의 열람자를 동시에 수용할수 있는 세계 1등급의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과 1천 11개의 교실을 갖춘 100개의 학교가 새로 건설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학교교육의 목적은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되고 새 사회 건설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공산주의건설자를 키워내는데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55페지)

경애하는 수령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모든 학교들에서는 무엇보다먼저 학생소년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 중심을 두었다.

교수과정과 과외교양사업을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들과 교시들을 전면적으로 학습시켜 학생소년들이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진수를 폭넓고 깊이있게 인식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 《김일성원수혁병활동연구실》을 거점으로 학생소년들이 수령의 위대한 혁명적가정과 근 반세기에 걸치는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배웠다.

그리하여 모든 학생소년들로 하여금 혁명의 매 시기와 단계마다에서 수령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과 고귀한 투쟁경험, 그이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깊이 연구체득하게 함으로써 그이를 무한히 존경하고 흠모하며 그이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가 되도록 하였다.

학교교육기관들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학생교육교양의 전행정에 구현하여 교육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교육의 과학리론적수준을 높임으로써 학생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참된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있다.

교수교양의 내용을 당의 유일사상이 꽉 들어차게 하기 위하여 교과서와 교재를 로동계급적선이 똑바로 서도록 개작완성하여 모든 학과목들을 당정책화함으로써 철저히 당의 정책적요구에 기초하여 교육교양하였으며 깨우쳐주는 교육방법을 적용하여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에 절실한 문제들을 잘 해결할수 있는 지식을 실속있게 가르쳐주었다.

특히 기술교육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울데 대한 수령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우리 나라 과학발전과 기술혁명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과학리론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데 계속 힘을 넣었다.

학교교육기관들에서는 일반기초교육과 현대기술의 기초에 대한 원리교육의 수준을 더욱 높여 학생들로 하여금 의무교육기간에 한가지이상의 기술기능을 실질적으로 습득하도록 하였다.

학생소년들을 《글뒤주》로가 아니라 혁명하는 시대에 사는 청년답게 혁명하기를 좋아하고 일하기를 좋아하며 배운 지식을 잘 써먹을줄 아는 산 사람으로 키우기 위하여 모든 학교교육기관들에서는 그들속에서 조직생활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정치활동에 적극 인입하여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학생소년들속에서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더욱 강화하고 조직생활을 통하여 단련하며 그들을 다양한 사회정치활동에 망라시켜 군중속에 들어가 당정책도 해설선전하게 하고 과학지식과 위생문화지식도 보급하였다.

모든 학교교육기관들에서는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지덕체를 갖춘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형의 공산주의역군으로 교육교양하기 위하여 과정안에 의하여 키크기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체육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토요체육의 날》, 《국방체육의 날》을 적극 운영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고있다.

교육부문에서는 교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부단히 강화하면서 조직생활을 더욱 짜고들어 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과정을 더욱 촉진시켰다. 그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워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 한편 과학리론수준과 실무적자질을 높임으로써 혁명가라는 영예와 책임감을 깊이 간직하고 학생교육교양사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하였다.

또한 모든 학교들에서는 《모범분단》, 《천리마학급》, 《천리마학교》 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학교와 학생집단 속에서 혁명적기백과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학습하며 일하는 공산주의적기풍이 차고넘치게 하였다.

《모범분단》, 《천리마학급》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모든 학교들에서는 점차 《천리마학교》칭호를 쟁취하기 위한 운동이 적극 벌어지고있다.

창덕학교와 약수중학교, 길주제2중학교 그리고 원산중등학원이 1970년에 2중천리마 학교 및 2중천리마 학원의 영예를 지니였다.

또한 남포혁명학원과 동림중등학원이 천리마학원의 칭호를 받았으며 창전인민학교와 봉산녀자중학교, 신천군 새길중학교, 창성녀자중학교, 벽동군 동주중학교, 부전군 백암중학교, 리원군 리원인민학교, 풍산군 미암중학교, 함흥고등기계학교, 송림고등금속공업학교, 함흥고등물리학교 등이 천리마학교로 되였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의 교육부문에서는 156개의 학교가 2중천리마 및 천리마학교로, 1만 7천 365개의 학급이 2중천리마 및 천리마학급으로, 3만 7천 200개의 분단이 2중모범분단 및 모범분단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사회적관심밑에 학교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범교육군(구역)》칭호쟁취운동을 발기하시였으며 이 운동을 전군중적으로 힘있게 벌리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평양시 만경대구역과 중구역, 평북도 창성군과 벽동군이 1970년에 《모범교육군(구역)》칭호를 받았다.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교원, 학생들을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하여 힘껏 노력하였으며 당의 교육정책을 높이 받들고 교수교양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대학생들을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교양육성하는 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수많은 대학들이 1970년에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내각의 축하문을 받았다.

농업위원회 간부학교는 창립스무돐을 맞이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내각의 공동축하문과 국기훈장 제1급을 받았으며 국제관계대학은 창립 열돐을 맞이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축하문을 받았다.

순천수의축산대학은 창립 열다섯돐,

평양외국어대학, 해주농업대학, 원산경제대학 등은 창립 열돐을 맞이하여 각각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내각의 공동축하문을 받았다.

실로 우리 나라 인민교육사업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교육사상과 후대교육에 대한 그이의 원대한 구상이 빛나게 실현됨으로써 거대한 성과가 이룩되였으며 인민적이며 사회주의적인 교육제도가 더욱 공고발전되였다.

**【9년제기술의무교육】** 우리 나라에서는 1967년부터 일반교육과 기초기술교육을 배합하는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이 실시됨으로써 모든 청소년들이 학교갈나이가 된 때로부터 일할나이까지 정규학교에서 무료로 기술의무교육을 받을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렸습니다. 당의 올바른 교육방침에 의하여 우리의 사회주의적교육학이 더욱 완성되였으며 학교교육사업에서 주체와 로동계급적선이 똑바로 서고 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이 더욱 높아지게 되였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5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공업화의 실현과 기술혁명이 비상히 빠른 속도로 촉진되고있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반적기술의무교육의 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며 특히 학생들로 하여금 기술의무교육기간에 일반지식과 현대기술의 원리를 소유할뿐아니라 실질적으로 한가지이상의 기술기능을 가지게 할데 대한 혁명적인 교육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이러한 혁명적인 교육방침은 우리 나라 인민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더욱 빛나게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현명하고 독창적인 방침이였다.

그이께서 이러한 혁명적인 교육방침을 제시하시고 그를 구현하도록 하신것은 새세대들에게 돌려주시는 또하나의 육친적인 사랑과 극진한 배려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서는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키며 지덕체를 갖춘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육교양할데 대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전반적기술의무교육의 수준을 한계단 더 높일데 관한 중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것은 후대들을 발전된 새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혁명적조치였다.

이 조치에 의하여 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주는 학교들에서는 학생소년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의무교육기간에 모두가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의 특성에 맞게 학생들에게 자동차, 뜨락또르, 발전기 운전기술, 전기와 약전 기술을 비롯하여 해당지역의 인민경제발전전망과 관련되는 기술을 더 잘 배워주었다.

이렇게 학교들에서는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육방침이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학생들이 선진과학과 기술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훌륭히 자라나게 되였다.

나라의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촉진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9년제기술의무교육부문에서는 1970년에 《김일성원수혁명활동》, 《공산주의도덕》 등 교과서들과 《김일성원수님의 혁명력사주요년대표》를 비롯한 참고서들이 수많이 출판배포되였는데 이것은 1969년보다 400만부 더 많은것으로 된다.

9년제기술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수는 1970년에 320만명이나 되였으며 10만여명이나 졸업하였다. 2~3년후부터는 해마다 30만~40만명씩 졸업하여 인민경제 여러부문에 나가게 된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질적으로 더 잘 실시하면서 10년제기술의무교육에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있다.

**【고등기술교육】**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현실생활에서 떨어지고 학생들에게 기술교육을 거의 주지 않던 그전의 고급중학교체계를 없애고 중등 및 고등 기술학교체계를 내옴으로써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모두다 과학의 기초에 대한 일반지식뿐만아니라 일정한 분야의 기술지식을 가질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모든 학교들에서 교육과 생산, 리론과 실천을 결합시키는 원칙에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87페지)

어버이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교육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 교육정책의 정당성으로하여 9년제기술의무교육의 과정을 거친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고등기술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수학, 물리, 화학, 생물학 등 기초과목교육과 전문과목교육의 수준을 한계단 더 높여 학생들에게 현대과학과 기술지식을 튼튼히 체득시키도록 하였다.

학생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기 위해 교과서와 참고서를 개작완성하여 사회과학과목을 비롯한 모든 과목의 교수내용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의 구현인 우리 당 정책으로 일관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교육내용을 적극 당정책화하며 교육과 생산, 리론과 실천을 결합할데 대한 우리 당의 교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실험실과 연구실을 더 잘 꾸려놓고 여기에서 직관교육, 실물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과정안에 생산실습시간수를 더 늘임으로써 학생들의 지식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따라세웠다.

우리 나라에는 매 군에 한개이상의 고등기술학교 또는 고등학교가 있으며 고등전문학교도 설치운영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와 육친적인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1961—1969년기간에 고등기술학교는 376개나 새로 나왔으며 7개년계획의 마지막해인 1970년에 이르러 약 500개의 고등기술학교들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기술자들을 길러내였다.

**【사범교육】**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학생들을 공산주의자로 교양육성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교양자들자신이 훌륭한 공산주의자로 되여야 하며 혁명가로 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43페지)

어버이 수령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우리 나라 인민교육부문에서는 교원들을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만들기 위하여 그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한편 빨리 늘어나는 교원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교원양성기지인 사범대학, 교원대학, 교양원대학, 도교육간부학교 등 교원양성기관들의 사업을 개선강화하였다.

7개년계획기간에 거의 모든 도들에 사범대학, 교원대학, 교양원대학들이 새로 설치되고 지방에 많이 요구되는 교원, 교양원들을 도자체에서 키울수 있는 튼튼한 간부양성기지가 꾸려졌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범대학을 교원의 원종자를 양성하는 원종장이라고 하시면서 사범대학을 그

어느 부문의 학교보다도 계급적으로 더잘 꾸리고 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하여 3~4년동안에 학생들을 완전히 혁명가로 키워내보낼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수령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교육부문에서는 사범대학을 비롯한 교원양성기관들의 규모를 크게 늘이는 한편 그를 계급적으로, 정치사상적으로 꾸리고 필요한 교육적 환경과 조건을 충분히 갖추어 주었으며 평양사범대학을 잘 꾸려 전국의 모든 교원양성부문학교들의 전형으로, 그 본보기로 만들었다.

사범교육부문에서는 9년제기술의무교육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하여 기술사범대학사업을 개선강화함으로써 늘어나는 기술교원들의 수요를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 교육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교원들을 통신, 야간 대학과 도교육간부학교 등 교원재교육망에 계획적으로 망라시켜 그들의 자질을 한계단 더 높이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10만의 붉은 교원대렬이 계급적으로 튼튼히 꾸려졌으며 그들속에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꽉 들어차고 후대들을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교육교양하는 사업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는 혁명가적기풍이 철저히 수립되였다.

**【고등교육】**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9년 12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확대회의에서 하신 교시와 1965년 2월 23일 고등교육성당총회에서 하신 교시 《고등교육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교시들에서 고등교육사업의 발전방향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그이의 위대한 교육사상과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대학교육부문에서는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이 빨리 진척되는 현실은 더 많은 기술자, 전문가들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적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기술자, 전문가들을 길러내는데 계속 커다란 힘을 돌렸으며 이 사업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6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후대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참된 역군으로 튼튼히 키우기 위하여 고등교육부문에만하여도 무려 330여차례의 현지지도와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지방에 공업을 광범히 배치하는것과 함께 우수한 간부들과 기술자, 전문가들을 수많이 육성하여 지방에 파견하는 한편 민족기술간부에 대한 지방적수요를 기본적으로 자체로 충족시킬수 있도록 지방에 대학을 비롯한 각급 학교들과 간부양성기관들을 대대적으로 내오는 조치를 취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교육사상과 그의 구현인 우리 당의 올바른 교육정책에 의하여 7개년계획기간에 거의 모든 도들에 농업대학, 의학대학, 공산대학들이 새로 설치되고 지방에 많이 요구되는 기술자, 관리간부들을 도자체에서 키울수 있는 간부양성기지가 튼튼히 꾸려진것을 비롯하여 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이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앞으로 기술인재들과 전문가들을 더 많이 길러낼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모든 지방의 실정에 맞는 간부를 기동적으로 양성할수 있는 종합적인 간부양성기지가 튼튼히 꾸려짐으로써 지난날 간부원천을 중앙에만 의존하던 제약성이 없어지게되고 지방의 경제, 문화를 더욱 성과적으로 발전시킬수 있게 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자기 지방에 맡겨진 과업을 자체의 힘으로 보다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게 하였다.

대학교육에서는 대학생들에 대한 우리 당의 유일사상교양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김일성동지혁명력사, 김일성동지의 로작, 조선로동당정책사, 조선로동당력사 과목을 비롯한 사상정치과목 교수의 질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그들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된 현실적요구에 맞게 한계단 높은 기술혁명과업을 담당수행할수 있는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기 위하여 리론과 실천,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켜 기술교육을 질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대학생들은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을 훌륭히 관리운영할수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참된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되어 인민경제 여러부문에 나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첫 인민의 대학으로 창립되였으며 그이의 세심한 지도와 따뜻한 보살핌속에서 민족간부양성의 명윤직한 기지로, 과학의 최고전당으로 장성발전된 김일성종합대학은 1970년에 첫 천리마대학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어버이수령께서는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가운데서도 종합대학사업을 념려하시여 75차에 걸쳐 현지지도를 하여주시고 203차의 직접적인 교시를 주시였으며 교육내용과 교수방법, 과학연구사업과 대학관리운영사업, 교직원,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에 이르기까지 친히 돌보아주시였고 대학발전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분히 마련하여 주시였다.

종합대학에서는 경애하는 수령의 교시를 지침으로하여 교직원, 학생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부단히 심화시켰다.

종합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은 경애하는 수령을 끝없이 존경하고 우러러 모시며 그이의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높이면서 수령의 교시와 그의 구현인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이악하게 달라붙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으로 살며 배우며 일하였다.

또한 종합대학은 교직원, 학생들 속에서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는 한편 혁명적조직생활과 사상투쟁, 사회정치생활을 통하여 그들을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였다.

종합대학은 교수교양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리론과 실천,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키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였다.

이리하여 종합대학에는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립되고 교직원, 학생들 속에서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는 공산주의적생활기풍이 높이 발양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학생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혁명과 건설에 쓸모있는 높은 과학지식을 지닌 혁명적인재를 키워내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대학의 본보기로서 세상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다.

**【일하며 배우는 교육】**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와 함께 생산에서 떨어지지 않고 배울수 있는 여러가지 형태의 고등교육체계를 병행하여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된 방침입니다. 특히 경험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확증된 공장대학들을 훨씬 늘여 로동계급속에서 리론과 실천을 다 갖춘 유능한 기술간부를 많이 길러내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28페지)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교육사상이 빛나게 구현되여 공장대학과 공장고등기술학교, 야간 및 통신 교육망이 더욱 늘어나 여기에서 수많은 현직로동자들과 행정경제일군들이 공부하고있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는 일반대학에서뿐만아니라 생산현지에서도 간부를 길러낼수 있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의 공장, 기업소들은 생산기지일뿐만아니라 믿음직한 간부양성기지로 되고있다.

일하면서 배우는 공장대학과 공장고등기술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이 생산에 직접 참가하고 있다는 실정을 고려하여 과정안에 생산실습시간보다 실험과 리론강의 시간수를 더 늘이였다.

일하면서 배우는 공장대학과 공장고등기술학교들은 해당 생산현장과 직접 련계되여있고 교수조직, 교양조직이 모두 생산활동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진행됨으로써 공장에서 생산능률을 높이는데 직접 이바지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전체 근로자들로 하여금 초급중학교졸업정도이상의 일반지식과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가지는것이 당이 내세운 문화혁명의 당면과업이라는것을 밝히시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심화발전에 따라 로동자, 농민들간의 문화기술수준에서의 차이를 없애며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더욱 높여 그들을 모두 기사, 기수의 수준으로 끌어올릴데 대한 전망과업을 내놓으시였다.

이에 기초하여 도시와 농촌에서 근로자학교와 근로자중학교, 공장기술학교들이 널리 설치운영되였다. 이것들은 광범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당면한 생산과 건설을 보장하면서 자기들의 기술문화수준을 중학교졸업정도이상으로 높이며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소유할수 있게 하는 실제적방도로 되는 창조적인 성인교육형태로서의 자기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1970년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내각에서는 창립 열돐을 맞는 송림공업대학, 평양공업대학을 비롯하여 강선, 대안, 기양, 북중, 락원, 구성, 청남, 청진, 성진, 원산, 남포, 무산, 아오지, 문평, 룡성, 덕천의 공업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공동축하문을 보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제기되는 합법칙적요구와 조성된 현실적가능성을 명철하게 통찰하시고 1960년에 교육력사상 처음으로 새로운 공산주의적교육형태인 공장대학을 내오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께서는 공장대학이 창설된지 1년도 못되는 1961년 6월 13일 내각 제5차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공장대학을 확대발전시키는데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시였으며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의 특성에 맞게 공장대학의 교수교양사업조직과 그 내용 및 방법, 대학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도록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어버이수령의 교시대로 일하면서 배우는 공장대학이 창설된후 지난 10년간 대규모 공장, 기업소들은 위력한 생산기지일뿐아니라 믿음직한 간부양성기지로 전변되고 로동계급속에서 정치실무적으로 준비된 기술간부들을 많이 길러내게됨으로써 급격히 늘어나는 민족간부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수 있게 되였다.

공장대학창립 열돐을 맞이하여 평양에서는 전국 공장대학창립 열돐기념 중앙보고회와 실험기구전람회, 전국 공장대학교원, 학생들의 학술토론회가 진행되였다.

일하면서 배우는 가장 우월한 교육체계인 공장대학은 로동계급속에서 민족기술간부를 대대적으로 육성하며 리론과 실천, 교육과 생산로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를 없애는데 훌륭히 이바지하는 가장 합리적이며 공산주의적인 교육형태로서의 자기의 우월성을 날로 더욱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 어린이보육교양

우리 어린이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물론 많은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기르는것은 나라에 큰 부담으로 되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귀여운 어린이들의 앞날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이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혁명을 하고 건설을 하는것이 다 우리의 후대들을 위한것이라면 어린이들을 키우는데 우리가 무엇을 아끼겠습니까?》(《김일성저작선집》, 4권, 450페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혁명투쟁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혁명의 미래와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언제나 어린이들의 보육교양에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으며 이 사업을 중요한 당적, 국가적 사업으로 내세우시고 커다란 배려를 베풀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의 어려운 시기에 자신은 엷은 설한에 홑옷을 입고 지내시면서도 아동단원들의 생활과 학습에 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그 간고한 환경에서도 아동단원들과 어린이들을 위하여 학교를 세워주시고 식량, 의복, 학용품들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주시였으며 마음껏 뛰놀고 공부하게 하여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해방직후 나라의 살림살이가 매우 어려웠던 형편에서도 어린이들을 보호할데 대한 법령과 규정들을 제정하시였으며 국가부담금에 의한 해산방조, 각종 보조금지불, 어린이들에 대한 무상치료제를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모든것이 재더미로 되였던 전후의 가장 어려운 복구건설시기에도 제일 먼저 탁아소와 유치원, 학교부터 세우게 하시였으며 녀성들의 사회적진출과 사회주의건설의 휘황한 전망에 맞게 어린이들을 집단적으로 키울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어린이보육교양사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주시였다.

혁명의 미래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끝없는 사랑과 아낌없는 배려에 의하여 우리의 어린이들은 전당적, 전국가적인 관심속에서 훌륭하게 보육교양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현대적으로 꾸려진 8천600여개의 탁아소에서 120만여명의 어린이들이 재롱스럽게 뛰놀면서 무럭무럭 자라나고있으며 6천800여개의 유치원에서 95만여명의 어린이들이 훌륭히 교양되고있다.

1970년 5월 3일과 4일 평양에서는 전국탁아소부문일군열성자회의가 진행되였다.

또한 6.1국제아동절 스무돐을 기념하여 중앙과 각 도들에서 기념보고회들이 있었으며 평양시내 5천여명의 유치원어린이들이 출연하는 집단체조 《세상에 부럼없어요》가 진행되였다.

전국탁아소부문일군열성자회의에서는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전국 보육원, 교양원대회에서 하신 강령적인 연설 《어린이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육성하는것은 보육원, 교양원들의 영예로운 임무》에서 제시된 과업을 실천하는 길에서 이룩한 성과를 총화하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과업을 계속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력사적인 교시를 관철하는 지난 4년간에 그이의 현명한 령도와 두터운 배려에 의하여 탁아소부문일군들의 대렬이 튼튼히 꾸려지고

보육원들과 탁아소부문일군들속에서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게되였으며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서 과학성, 위생문화성이 훨씬 높아졌다.

결과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과 신체발육이 매우 좋아졌으며 어린이들에 대한 정서지능교양사업에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전국보육원, 교양원대회에서 하신 어버이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강령적인 교시를 관철하는 길에서 이미 거둔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확대함으로써 탁아소사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어린이들을 조선혁명의 미래를 떠메고 나아갈 혁명의 후계자로 훌륭히 키우며 녀성들의 사회진출을 적극 보장하는 영예로운 과업을 훌륭히 수행할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어버이 수령님의 뜨거운 배려에 의하여 어린이보육교양사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마련되여있다.

어린이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신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오직 조국의 미래인 후대들을 위함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을 어린이들에게 돌려주시고계신다.

**어린이보육교양을 위한 훌륭한 시설;**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탁아소,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을 잘 키우고 교양하려면 보육원, 교양원들의 열성과 함께 여러가지 물질적조건들이 갖추어져있어야 합니다. 아담하고 깨끗한 집이 있어야 하고 어린이의 양육과 교양에 필요한 일정한 시설이 있어야 하며 아이들에게 먹일 좋은 음식물도 있어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452페지)

어버이수령님의 극진한 배려에 의하여 1970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현존 탁아소, 유치원들을 확장하는 한편 1만 8천 500평방메터에 달하는 108개의 유치원, 탁아소가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전으로 새로 건설되였으며 평양시와 중요도시들에 주, 월 탁아소와 유치원이 널리 조직운영되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철따라 문양고운 새옷을 내주며 어린이용 놀이감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어린이용품과 식료품을 제때에 충분히 마련해 주고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서는 또한 어린이용 옷과 신발을 어린이들의 년령상 특성에 맞게 색갈, 문양, 크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양하고 멋시있고 질기게 만들어 눅은 값으로 공급해주고있다.

이와 함께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서는 우유, 사탕, 과자를 비롯하여 어린이용 당과류와 부식물들을 더많이, 더잘 만들도록 세심한 관심을 항상 돌리고있을뿐만아니라 어버이수령님의 배려가 어린이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공급체계를 철저히 세우고있다.

우리의 귀여운 어린이들의 폭신한 잠자리와 철따라 갈아입는 좋은 옷, 영양가 높은 식료품 등 실로 그들에게 차례지는 훌륭한 모든것들에는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불러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것이 없다.

**어린이들에 대한 지능정서교양;** 탁아소, 유치원들에서는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인 우리의 어린이들을 잘 기르기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그들을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도록 교양하는 사업에 중심을 두었다.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어린이들에게 원수님의 어린시절을 따라배우도록 교양하며 수령님께서 어린이들에게 돌려주시는 크나큰 배려와 덕성을 잘 알도록 교양하였다.

탁아소, 유치원들에서는 어린이들의 년령, 심리적특성에 맞게 그들을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으로 교양하는 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어린이들을 어려서부터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의 후비대로 키우고있다.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1966년 8월 14일과 1967년 8월 6일 두차례에 걸쳐 다녀가신 삭주군 금부유치원을 비롯한 전국각지의 모든 유치원들에서는 《김일성원수님을 따라배우는 교양실》을 잘 꾸리고 그를 거점으로 하여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높은 덕성을 따라 배우도록 교양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조직진행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어린이보육교양사업은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어린시절을 따라 배우도록 교양하는 사업과 공산주의교양, 어려서부터 전면적으로 발전된 산 정치활동가로 키우기 위한 내용으로 일관되여있다.

유치원에서는 우리 말을 비롯한 각 과목교수뿐아니라 견학과 관찰, 놀이(유희), 그림극과 환등극을 비롯한 여러가지 교양수단들을 통하여 우리 어린이들에게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을 배양하고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어린이들은 어릴적부터 수령님을 무한히 흠모하며 일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믿음직하게 자라나고있다.

**어린이건강증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서는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1970년에 도처에 아동병동을 더 잘 꾸리고 관리운영하며 보건부문일군들로 하여금 어린이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여 그들의 육체적발육을 더 훌륭히 보장하도록 하였다.

우리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보건부문에서는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들에 대한 예방접종, 진단검진을 정상적으로 하여 어린이들의 건강을 증진시키였다.

한편 당의 배려에 의하여 3명이상의 어린이들을 가진 녀성들은 하루 6시간의 로동을 하게 됨으로써 어린이들의 건강관리를 더욱 잘할수 있게 되였다.

유치원들에서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키크기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체육사업도 적극 진행하여 어린이들의 체력을 더욱 증진시키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나날이 부강발전하는 사회주의조국의 현실과 더불어 더욱 더 윤택해가는 행복한 가정에서 어린이들의 사망률은 거의나 근절되고 출생률은 더욱 늘어나고있다.

**보육원, 교양원양성;** 어버이수령님의 1966년 10월 20일 교시를 높이 받들고 어린이보육교양부문에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서고 건강하며 공산주의적품성을 지닌 일군들로 보육원, 교양원 대렬을 튼튼히 꾸렸으며 그들을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하며 어린이들의 보육교양을 위하여 온갖 창의창발성과 책임성을 다하도록 교양하였다.

보육원, 교양원들로 하여금 어린이들을 보육교양하는데 필요한 당교육정책, 보건정책과 함께 위생지식, 영양학 등 필요한 전문지식을 충분히 소유하도록 강습을 주고 우수한 일군들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널리 벌리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서는 보육원, 교양원들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교원대학, 교양원대학, 고등의학학교 등 보육원, 교양원 양성기관들의 사업을 개선강화하였다.

이리하여 어버이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된 우수한 보육원, 교양원들이 수많이 양성배출되였다.

지방정권기관들에서는 어린이보육교양부문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기 위하여 《모범 탁아소, 유치원 군(시, 구역)》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였다.

오늘 우리 나라는 어버이 수령님의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육친적인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국가적부담으로 어린이들을 기르는 공산주의적시책을 실시하는데서 가장 앞선 나라의 하나로 되고있다.

# 과 학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결기간 과학의 발전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우리의 과학자들은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힘을 넣어 여러가지 절박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였으며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8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과학연구에서의 기본은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이 요구하는 방향에 따라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나가는데 있다는것을 천명하시면서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워야만 과학자들의 창발성과 재능을 높이 발양시켜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할수 있으며 자기 나라의 자원, 자기의 기술에 의거하여 우리의 경제를 더욱 빨리 발전시켜나갈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과학연구사업은 어디까지나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한데 복종하여야 하며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이룩한 과학기술적성과들과 경험들을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받아들이도록 하시였다.

이와 함께 그이께서는 당면하게는 이미 있는 경제토대를 완전히 리용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 동시에 인민경제발전의 전망과업으로부터 출발하여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부단히 개척해 나갈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립장에서 과학발전의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시고 그를 시종일관 견지하여오시였을뿐아니라 과학자들의 과학연구사업에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과학연구사업에 대한 어버이수령의 탁월한 령도와 극진한 배려에 의하여 사회과학부문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해설선전하며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깊이있게 론증하는 사업에서 많은 일을 하여놓았다. 자연과학부문에서는 이미있는 경제토대를 완전히 리용하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사업과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부단히 개척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 당 제4차대회에서 과학분야에 제시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과학자들이 이룩한 성과를 총화하고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를 와닥겨 점령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적극 풀어야할 과업을 토론하기 위하여 평양에서는 1970년 3월 14일과 15일에 걸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제15차총회가 진행되였다.

총회에서는 경애하는 수령께서 과학분야에 주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우리 나라에 풍부한 연료로써 철을 생산하는 주체적인 제철제강법을 더욱 발전시켜 흑색야금공업의 자립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연구, 인민경제의 급속한 기술개건에 맞게 기계화, 자동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연구, 기초과학을 더욱 발전시키며 새로운 과학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연구, 주체적인 화학공업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화학비료와 농약에 대한 연구사업에 계속 힘을 넣어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촉진할수 있게 하는 문제, 인민소비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그 질을 높이며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한 연구 등 부문별 과학연구과제들을 우리 당 제5차대회전으로 기어이 완수할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사회과학】**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과학분야에서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맑스-레닌주의적으로 심오하게 해설선전하여야 하며 당의 혁명전통과 민족문화의 유산들을 전면적으로 연구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27페지)

7개년계획기간에 사회과학부문에서는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혁명리론의 독창성과 창조성을 해설선전하기위한 사업에 큰 힘을 돌이였다.

무엇보다먼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깊이있게 론증하기 위한 사업에 중심을 두면서 경애하는 수령의 탁월한 령도밑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귀중한 성과와 풍부한 경험들을 리론적으로 체계화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적극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현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다》, 《현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 등을 비롯한 수많은 론문들이 발표되였다.

론문들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지구상의 모든 피착취인민들과 피압박인민들이 해방투쟁에 떨쳐나서고 있는 혁명적폭풍우의 시대, 제국주의가 멸망하고있으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온 세계적범위에서 승리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이라는데 대하여 깊이있게 해설하였다.

사회과학부문에서 이룩한 가장 큰 성과의 하나는 간부들과 근로자들, 자라나는 후대들이 우리 당의 유일사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필수적요구로 나서는 당정책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조선로동당정책사》를 집필출판한것이다.

여기에서는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 정책의 본질과 정당성을 리론적으로 해설하였으며 그 빛나는 실현을 력사적으로 개괄하였다.

사회과학부문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진행된 항일무장투쟁이 세계혁명운동발전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비롯한 수많은 론문들을 내놓았다.

1970년에 사회과학부문에서 달성된 성과들은 경애하는 수령께서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연구를 위한 전국사회과학토론회, 그이의 탄생 쉰여덟돐을 기념하여 진행된 전국사회과학토론회,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발표 여섯돐을 기념하여 진행된 과학토론회, 레닌탄생 100돐기념 전국사회과

학토론회,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재침책동을 폭로규탄하는 사회과학토론회 등 전국적으로 진행된 수많은 사회과학토론회들에서 종합발표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연구를 위한 전국사회과학토론회에서 발표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위대한 강령이며 세계혁명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리론실천적무기》,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의 진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의 영생불멸의 혁명적기치》 등 수많은 론문들에서는 그이의 보고에 담긴 사상의 정당성과 독창성, 그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에 대하여 론증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쉰여덟돐을 기념하여 1970년 4월에 진행된 전국사회과학토론회에서는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깊이있게 해설한 16편의 토론론문들이 발표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여섯돐을 기념하여 진행된 과학토론회에서는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는 맑스-레닌주의의 강령적문헌》을 비롯한 수많은 론문들이 발표되였으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발표 열여섯돐기념 전국사회과학토론회에서도 많은 해설론문들이 발표되였다.

론문들에서는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독창성과 창조성을 깊이있게 해설하였다.

웨. 이. 레닌탄생 100돐을 기념하여 진행된 사회과학토론회에서는 레닌의 혁명활동과 맑스-레닌주의를 제국주의시기의 력사적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레닌주의를 창시한 그의 빛나는 업적과 레닌주의가 우리 나라 혁명운동을 크게 고무한 사실에 대하여 토론하면서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시여 조선혁명을 령도하신 때로부터 비로소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에서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이 확고히 고수되였으며 조선혁명이 승리에로의 곧바른 길을 걷게된 사실에 대하여 론증하였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운동의 실천적경험을 전면적으로 분석일반화하시고 현시대 혁명투쟁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위대한 주체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를 가일층 발전시키고 풍부히 하신데 대하여 리론적으로 깊이있게 론증하였다.

또한 6월에 진행된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재침책동을 폭로규탄하는 사회과학토론회에서는 《일제의 조선침략과 그 식민지정책》, 《조선침략에서의 미일제국주의의 공모》를 비롯한 수많은 론문들이 발표되였는데 여기에서는 력사적으로 큰 놈을 등에 업고 이르는곳마다에서 침략과 략탈을 감행하다가 멸망한 일제가 오늘 또다시 미제를 등에 업고 되살아나고있으며 《일본대국론》을 떠벌이면서 60여년전의 《대륙정책》을 망상하고있는 조선인민의 철천의 원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생재침책동을 력사적으로 폭로단죄하였다.

사회과학부문에서는 또한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로동계급의 계급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 민족문화유산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정책적요구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64년 1월 3일 언어학자들에게 주신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에 대한 력사적인 교시를 관철하는 사업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1970년에도 광범한 근로자들의 참가하에 우리 말다듬기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일반어와 여러부문의 학술용어들을 수많이 다듬었다.

그리하여 다듬어진 새 말의 적지않은것들이 이미 출판물이나 방송물에서 널리 쓰일수 있게 되였다.

**【자연과학】**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 앞에 나서는 당면한 과업은 이미 있는 경제토대를 완전히 리용하기 위한 과학기술문제들을 해결하는 동시에 인민경제발전의 전망과업으로부터 출발하여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부단히 개척해나가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69페지)

경애하는 수령께서는 과학연구사업을 생산발전에 앞세움으로써 인민경제발전에 효과적으로 이바지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현명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주체적인 과학기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의 가르침따라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7개년계획기간에 나라의 사회주의공업화와 인민경제의 기술적개건에서 나서는 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였으며 나라의 과학기술을 전반적으로 선진수준에 확고히 올려세웠다.

과학기술부문에서 달성한 가장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국내연료에 의한 철생산공정이 확립되고 그것을 공업화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이 해결된것이다.

우리의 과학기술부문에서는 전기로에서 립철을 리용하는 기술공정을 확립하였으며 특히 제강로들에 산소취입법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일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흑색야금공업부문의 고위품정광과 무연탄을 가지고 해면철과 환원구단광제조기술을 새로이 개발하였다. 특히 가루철광석과 가루무연탄을 가지고 강철까지 뽑을수 있는 립철련속제강법의 공업화는 우리 공업발전의 안전성을 믿음직하게 보장하는 위력한 방도로써 우리 나라 야금공업분야에서 일대 비약으로 된다.

또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힘에 의하여 무연탄가스화에 의한 암모니아생산이 성공되였으며 합성고무에 대한 연구사업이 추진되여 그것을 공업화할수 있는 전망이 열렸다.

우리 나라의 광석에 의한 린비료와 카리비료생산에 대한 연구사업이 성과적으로 진척된것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여러가지 성능이 높은 기계설비들과 자동화기구들을 창안제작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성과적으로 진척되였다.

과학기술발전에서 우리가 거둔 성과의 다른 하나는 전면적기술혁명과업을 자체의 과학기술의 힘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수행한것이다.

과학원 자동화연구소에서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자동기계들과 자동화기구들을 설계하고 합리적인 자동화방법을 연구해냄으로써 기술혁명과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각종 전기 및 공기식 자동조절장치들과 전자계측장치들을 만들어 생산에 받아들일수 있게 하였다.

과학기술분야에서는 힘들고 품이 많이드는 작업의 기계화에 기술수단과

과학기술의 힘을 집중한 결과 채취공업과 수산업, 림업, 건설, 운수부문들에 새로운 성능높은 기계설비들이 창안도입되여 힘든 작업의 기계화가 적극 추진되였으며 자동화의 비중이 현저히 높아졌다.

또한 철도의 전기화와 건설의 공업화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주요간선들의 전기화를 기본적으로 끝낼수 있게 하였으며 건설의 공업화수준과 속도를 높이게 하였다.

농촌기술혁명을 수행하며 농업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힘을 기울여 수리화, 전기화를 완성하고 기계화, 화학화를 적극 추진시켰으며 생산성이 높은 새 품종들을 육성하고 선진영농방법들을 연구도입하여 농업생산의 모든 부문을 현대적과학기술의 토대우에 올려세웠다.

특히 최신과학기술의 성과에 기초하여 주체적인 국방과학을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위력한 여러가지 현대적무기와 전투기술기재를 생산하는 강력한 국방공업을 창설할수 있게 하였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거둔 성과의 다른 하나는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선진수준에로 끌어올리고 새로운 비약을 이룩할수 있도록 과학발전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여놓은것이다.

과학기술간부의 대렬을 급속히 늘이고 과학연구기지들을 확대강화하여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림으로써 그에 의거하여 모든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훌륭히 풀어나갈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여놓았다.

1970년에 우리 나라 과학기술부문에서는 제6차전국동의학학술보고회와 전국지질부문과학기술발표회, 전국건설부문학술발표회 등 수많은 발표회들이 진행되였다.

1970년 8월 31일에 과학원 함흥분원은 창립열돐을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1960년 8월 31일에 창립된 과학원함흥분원은 그이의 끊임없는 지도와 따뜻한 보살핌속에서 지난 10년간 수령의 천재적인 과학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과학정책을 높이 받들고 우리 나라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사업에서 특출한 공헌을 세웠다.

과학원함흥분원은 짧은기간내에 과학자대렬을 급속히 늘이고 그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혁명화, 로동계급화함으로써 우리 나라 화학부문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의 전당으로, 과학기술간부양성의 강력한 기지로 되였다.

과학원함흥분원은 지난기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에 튼튼히 의거하여 비날론에 대한 연구, 석탄가스화에 의한 암모니아합성에 대한 연구를 비롯한 일련의 과학연구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나라의 경공업원료기지축성과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실현하는데서 커다란 공헌을 하였으며 자립적화학공업을 창설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8월 2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빛나는 업적을 쌓은 과학원 함흥분원에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하였으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내각은 과학원 함흥분원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8월 31일 공동축하문을 보내였다.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과학원 함흥분원에서는 기념모임과 학술보고회를 가지였다.

# 문학예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근로대중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고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무기로서의 철저히 당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절대로 혁명의 리익과 당의 로선을 떠나서는 안되며 착취계급의 취미와 비위에 맞는 요소를 허용하여서도 안됩니다. 오직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하게 의거한 혁명적문학예술만이 진정으로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을수 있으며 근로대중을 공산주의적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 당의 힘있는 무기로 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2권, 579페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초기혁명활동과 항일무장투쟁의 전 과정에 걸쳐 맑스-레닌주의문예사상을 조선의 현실과 우리 문학예술사업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시여 혁명적문학예술건설에 대한 창조적인 지도사상을 제시하시고 혁명연극과 혁명가요를 비롯한 많은 혁명적작품을 친히 창작하시는 한편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을 발동하여 혁명적문학예술을 대중적으로 창작하도록 하심으로써 이 지도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문학예술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철저히 복무하여야하며 인민대중을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위한 위대한 혁명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사상적무기로 되여야한다는 혁명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시여 항일무장투쟁시기의 혁명적문학예술로 하여금 조선혁명의 가장 정확한 주체적혁명로선인 항일무장투쟁로선을 구현하며 그의 실현에로 인민대중을 각성시키고 불러일으키는데 철저히 복무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 이룩하신 혁명적문학예술의 업적과 경험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혁명적문학예술사업을 지도하시는데 커다란 힘을 기울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사회주의문학예술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사상적무기로서 부르죠아사상과 수정주의사상, 복고주의경향 등 온갖 반동사상을 철저히 반대하고 혁명과 건설을 위하여 복무하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문학예술분야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배격하고 주체를 철저히 세우며 민족문화의 우수한 유산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문학예술에서 로동계급적선을 뚜렷이 세우며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근로자들의 사상감정에 맞게 문학예술을 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그것을 인민자신의것으로 만들고 광범한 대중이 그 창조자로 되게 할데 대한 문제 등 맑스-레닌주의 문예리론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시고 풍부화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60년 11월 27일교시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와 1964년 11월 7일교시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 그리고 1967년 5월 25일교시와 1970년 2월 17일교시들에서 밝혀주신 혁명적문예사상이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문학예술분야에 나타났던 수정주의적요소와 복고주의적경향이 여지없이 분쇄되고 로동계급적선이 뚜렷이 선 혁명적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으며 특히 영화예술발전에서 획기적인 성과가 이룩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사회주의적 문학과 예술은

찬란히 꽃피고 있습니다. 당의 문예정책이 훌륭히 관철됨으로써 문학예술분야에서 나타났던 수정주의적요소와 복고주의적경향이 없어지고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로동계급적선이 똑똑히 선 혁명적문학예술작품들을 창작하기 위한 투쟁이 강화되였으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자들이 문학예술활동에 적극 참가하고있습니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참말로 당적이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로 되였으며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되고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8페지)

우리 나라 문학예술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창조적인 문예리론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철저히 복무하는 전투적인 문학예술로,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정서에 맞는 사회주의적민족문학예술로 되였으며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되였다.

1970년에 우리 나라 문학예술부문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60년 11월 27일 작가, 작곡가, 영화부문일군들과 하신 담화 《천리마 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 열돐을 맞이하여 11월 27일과 28일, 전국 영화문학통신원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지난 10년동안 영화예술부문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를 총화하고 당 5차대회보고에서 문학예술부문에 주신 수령의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문제를 토론하였다.

회의에서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맹세문이 우뢰와 같은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1960년 11월 27일교시가 있은후 지난 10년동안에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핌속에서 영화예술부문에서는 그이의 위대한 혁명적문예사상을 집대성한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와 《한자위단원의 운명》을 비롯하여 《수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네》, 인민상계관작품 《유격대의 오형제》, 《한 지대장의 이야기》 등 수많은 혁명적영화들이 제작되였다.

경애하는 수령의 1960년 11월 27일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인민상 계관작품들인 《붉은 선동원》, 《정방공》, 《밝은 태양아래》, 《분계선 마을에서》, 《인민교원》, 《꽃피는 마을》을 비롯하여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세상에 부럼없어라》,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 《사회주의 조국을 찾은 영수와 영옥이》, 《백일홍》, 《아름다운 거리》, 《녀성뜨락또르운전수》, 《어느한 녀성직장에서》 등 천리마 현실과 천리마기수들의 전형을 형상한 수많은 우수한 작품들이 창작되여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고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근로자들속에서 해마다 영화문학소조와 통신원 대렬이 늘어나고 그들의 정치실무적기량이 높아진 결과 지난 10년동안에 통신원들은 8천 750여편에 달하는 영화문학작품을 창작하였으며 그 가운데서 200여편이 현상모집에 입선하였고 많은 작품들이 출판되였거나 영화로 만들어졌다. 이와 같이 지난 기간에 영화문학의 대중적창작기지가 튼튼히 꾸려지고 현실속에 있는 근로자들속에서 영화문학창작의 후비들이 믿음직하게 자라고있는것은 가장 귀중한 성과의 하나이다.

**【문학】 소설문학**; 소설가들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이 꽉 들어찬 혁명적작품들을 창작하기 위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현실속에 들어가 생활을 깊이 체험하며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을 훌륭히 구현하기 위하여 자기의 창작적기량을 꾸준히 높인결과 1970년에 소설문학의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혁명력사와 혁명적가계를 형상화한 작품들을 비롯하여 《무성하는 해바라기들》, 《불타는 시절》 등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 그이의 품속에서 성장하는 혁명가들의 투쟁모습을 그린 혁명전통주제의 작품들, 《천산령을 넘어》, 《그들은 함께 싸웠다》를 비롯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어받아 조국해방전쟁시기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용감하게 싸운 영웅적 인민군대와 인민들의 투쟁을 보여준 조국해방전쟁주제의 작품들, 《지하의 별들》을 비롯한 천리마현실과 천리마기수들의 보람찬 생활을 그린 작품들과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힘차게 싸우고있는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혁명투쟁 등 다양한 주제의 혁명적작품들을 훌륭히 창작하였다.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은 1920년대말과 1930년대초를 배경으로 하여 투쟁의 길에 나선 한 청년지식인이 혁명의 전도를 찾아 모대기며 파란곡절을 겪던 끝에 마침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교양과 지도를 받으면서 그이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항일유격대의 유능한 지휘관으로 성장발전하는 과정을 당시의 력사적사변의 흐름과 함께 보여준 혁명적대작이다.

소설에서는 조선혁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시여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였으며 생사존망의 위기에서 우리 조국과 민족을 구원하신 민족의 태양 김일성동지의 따뜻한 해빛아래 무성하게 자라나는 해바라기들인 수많은 항일유격대원들의 헌신적인 투쟁과 락천적생활모습을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장편소설 《불타는 시절》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전개하신 항일무장투쟁시기를 배경으로 일제의 암담한 통치하에서 갈길을 몰라 헤매이던 주인공 박성진을 비롯한 농촌청년들이 수령의 직접적인 교양과 지도를 받으면서 무장획득, 대중정치사업, 근거지방어 등 각이한 사업과 투쟁속에서 검열되고 단련되여 어떻게 혁명투사로 성장하는가를 보여주고있다.

이외에도 항일무장투쟁시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직하였으며 그이의 품속에서 성장한 한 혁명가의 운명을 그린 장편소설 《자라나는 대오》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청년들이 김일성동지의 항일무장투쟁로선을 따라 항일무장대오를 조직하는 과정을 보여준 장편소설 《충든 청년들》 그리고 장편소설 《해볕을 찾아서》가 창작되여 우리 근로자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1970년은 소설작품 특히 장편소설이 왕성하게 창작된 해로서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땅 남반부를 해방하기 위해 용감히 싸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 한개 중대 전투원들의 투쟁모습을 형상한 장편소설 《천산령을 넘어》와 조국해방전쟁시기 적후 제2전선에서 인민군대와 인민이 한 몸이되여 원쑤 미제를 격멸소탕하는 이야기를 내용으로 한 장편소설 《그들은 함께 싸웠다》 등 조국해방전쟁주제의 작품들도 많이 나왔다.

우리 혁명의 국제국내정세가 매우 복잡하던 시기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부르심을 높이 받들고 우리 로동계급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우

리 당의 총로선인 천리마운동의 자랑찬 력사를 창조해 나가던 때의 이야기를 주인공 김학선이를 통해 보여준 장편소설 《지하의 별들》과 사회주의건설주제의 작품들인 중편소설 《곧은 길》, 《무지개 비낀 산발》들도 1970년에 창작발표되였다.

우리 소설가들은 또한 생활의 그 어느한 측면을 예리하게,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단편소설들을 수많이 창작하여 단편집 《빛나는 자욱》과 《비약의 나날》 등에 묶어 내놓았다.

**시문학;**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풍모와 그이의 불멸의 혁명적업적을 노래한 불멸의 서사시 《인민의 태양 김일성원수》를 내놓아 세계시문학력사를 수놓은 우리의 시문학부문에서는 1970년에 위대한 수령을 낳아키우신 조선의 어머님이시며 열렬한 공산주의자이시며 탁월한 녀성정치활동가이신 강반석녀사의 숭고한 풍모와 혁명활동을 형상한 서사시 《조선의 어머니》(조선작가동맹 시문학분과위원회 집체작, 4장, 맺음시)를 세상에 내놓았다.

1970년에 우리 나라 시문학부문에서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맞이하여 송가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헌시》(작가동맹 시문학분과위원회 집체작)를 내놓았다. 한 유자녀가 기계공장의 현실속에 뛰여들어 로동계급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준 서사시 《새 세대의 노래》와 종합시집 《당의 기치따라》도 우리 당 제5차대회를 맞이하여 발표되였다.

시문학부문에서는 또한 서정시 《불멸의 력사》, 《만경대의 아침》, 《편지》, 《조선공릉》, 《숨》, 《씨앗》, 《어데서나 보이는 집》, 《북두칠성이 바라보이는 령마루에서》와 가사 《주체사상 빛내여가세》, 《사령부의 불빛》, 《우리의 녀성들 사회주의 건설자》, 《충성의 노래》, 《수령님이 계시여 행복합니다》, 《내조국 한없이 살기 좋아라》, 《창성도 살기 좋아라》, 《백두고원에 종다리 우네》, 《남조선 혁명투사의 노래》 등이 창작발표되였다.

**아동문학;**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아동들을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하여 아동문학부문에서는 1970년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혁명력사를 해설하는 동시집 《태양을 따라》(작가동맹 아동문학분과위원회 집체작)를 내놓았다.

이 동시집은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혁명력사를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노래함으로써 우리 아동들로 하여금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배우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높은 덕성을 형상한 아동소설 《설날》과 동시 《혁명의 날개가 되였어라》가 발표된데 뒤이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아동들을 무장시키기 위하여 혁명전통주제의 작품들인 아동중편소설 《유격근거지 소년들》, 단편소설 《어머니의 편지》, 서사시 《붉은 씨앗》, 동시 《날개돋힌 마음》 등도 나왔다.

또한 단편소설 《아이들의 나라》와 《약속》 그리고 동시 《평양의 하늘아래 우리는 자랍니다》 등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옴으로써 우리 아동들의 사상교양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련속아동극 《남쪽에서 온 편지》와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들을 위한 수많은 유년소설들도 창작발표되였다.

**평론;** 1970년에 평론부문에서는 작가, 예술인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문예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기 위하여 작가동맹 기관지 《조선문학》에 《당 문예정책연구》 고정란을 설정하고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주제문제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 《사회주의적내용과 민족적형식을 옳게 결합시킴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 등을 실었다.

작가동맹과 영화인동맹 평론분과에서는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손수 창작하시고 그이의 직접적지도하에 공연된 혁명적작품을 그대로 옮긴 영화 《피바다》와 《한 자위단원의 운명》에 대한 연구토론회를 진행하는 한편 《조선문학》에 설정된 《항일혁명문예작품학습》 고정란에 항일혁명문학예술작품들을 연구한 평론들을 실었다.

평론부문에서는 1970년에 우리 당 제5차대회를 맞이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우리 문학예술이 걸어온 자랑찬 로정을 보여주는 평론 《당의 령도밑에 발전하는 혁명적인 우리의 문학예술》이 발표되였다.

**번역문학;** 1970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중국소설집 《압록강가에서》와 쏘련소설 《철의 흐름》 등 여러편의 외국작품들이 번역출판되였다.

**【음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음악도 다른 모든 예술과 마찬가지로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음악을 민족적인 선률을 바탕으로하여 발전시켜야 하겠다는 것도 결국 인민대중이 알아들을수 있고 즐길수 있는 음악을 창조하기 위한 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156페지)

경애하는 수령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음악부문에서는 인민대중이 알아들을수 있는 민족적인 선률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음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년간 진행해오던 악기개량사업을 1970년에도 계속하였으며 음악예술에서 정치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악기개량사업에서는 주로 악기의 음량을 풍부화하며 소리에서 탁성을 제거하는데서 성과가 컸으며 가야금과 양금, 단소를 비롯한 다양한 민족악기들이 형태에서 세련되고 구조에서도 한걸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음악의 창작과 연주, 대중음악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민족음악이 기본으로 발전하게되였으며 나라의 이르는곳마다 개량된 민족악기의 각종 중주단, 합주단이 조직되고있다.

음악부문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illegible]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illegible]들을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하여 회상기노래집 《충성의 한길에서》와 노래[illegible] 드리는 노래》를 우리 당 제5[illegible] 기념하여 내놓았다.

우리 나라 작곡가들속에서는 기악곡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노래》, 《봉화산기슭》을 비롯하여 가요 《백두산에 장군별 솟는다》, 《혁명투사 김형직선생》, 《봉화산의 박우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 한없이 좋네》 등 많은 음악작품들을 창작하여 근로자들속에 널리 보급하였다.

**【미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풍모와 그이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형상화한 《진격의 길에서》, 《최고사령관 김일성원수》 등 좋은 작품을 내놓은 미술분야에서는 1970년에 또다시 미술작품주제의 중요한 방향을 무엇보다 먼저 경애하는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그이의 높은 덕성에 중심을 두었다.

그리하여 유화 《당산벌의 남새풍년》과 같은 좋은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였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맞이하여 창작된 조선화 《원수님께서 주신 옷을 입고》, 《원수님께서 주신 자전거》 등 많은 작품들에서는 조선화창작

을 현대성의 높이에 끌어 올리기 위하여 조선화에서 채색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며 오늘 우리 인민들의 투쟁과 생활을 묘사한 인물화의 성격에 맞게 회화적묘사를 깊이있게 하는데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였는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의 미술가들은 천리마강선제강소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중요한 공장, 기업소들에 직접 나가 전투적인 미술소품들을 기동적으로 창작하여 현지에 전시함으로써 우리 당 제5차대회전으로 7개년계획을 끝내기 위하여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로 달려나가는 각지 근로자들의 줄기찬 로력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산업미술부문에서는 《조선강재》, 《황금산과실주》, 《대홍단샘물터》, 《일당백》 등 우리 당의 령도밑에 인민경제 여러부문에서 생산되는 공업제품들과 인민들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각종 일용품들의 형태미술도안들과 각종 산업장식미술도안들을 창작해냄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우리 당의 정책을 해설선전하며 그들을 그 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무용】**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9년 5월 1일교시에서 조선사람은 무용극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은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는것을 좋아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1970년에 무용부문에서는 작품에 주제사상적내용과 생활감정들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해주기 위하여 노래와 춤을 섞어서 더욱 다양하게 발전시키였다.

우리 당 제5차대회를 맞이하여 공연한 음악무용서사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중에서 《농장벌에 오곡은 물결친다》 장면을 비롯하여 군무 《눈이 내린다》와 《이땅의 끝까지 노래여 울려가라》, 《북청회의 열매는 온 나라에 주렁졌소》, 무용 《강성의 노래》, 《샘물터에서》, 노래와 춤 《4월의 만경대》 등 거의 모든 작품들이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우고 사랑을 받고있는 알기 쉽고 부르기 쉬운 가요들을 적절하게 배합함으로써 훌륭한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우리 당 교육정책의 우월성과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의 학생들에 대한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간결한 무용형식으로 감명깊게 형상화한 5인무 《원수님께서 주신 새옷을 입고》를 비롯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대로 분수식관수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사철 신선한 남새를 먹게 된 것을 기뻐하며 어버이 수령께 드리는 우리의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화려한 예술적화폭으로 형상화한 군무 《남새밭에 비내린다》 등 많은 작품들은 통속적인 무용작품창작에서 빛나는 성과들이 이룩되였음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연극】** 1970년에 무대예술부문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풍모와 혁명적업적 그리고 그이의 혁명적가정을 빛나게 형상함으로써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혁명전통의 력사적뿌리와 함께 위대한 수령의 혁명사상과 현명한 령도, 그이의 높은 덕성을 깊이 체득하게 하였다.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이시며 조선민족해방투쟁의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의 위대한 선구자이신 김형직선생의 숭고한 풍모와 혁명활동을 빛나게 형상한 연극 《새벽길》(6장, 종장, 청년극장창조공연)과 《연풍호》(남포연극단창조공연) 등 수많은 작품들이 이해에 창작공연되였다.

1970년에 창조한 연극작품들에는 또한 가극 《해빛을 안고》(국립가무단창조)와 《보이지 않는 근거지》(전8장, 평양극장창조), 《동트는 새벽》(철도성예술극장창조) 등 혁명전통을 내용으로 한 작품들과 연극 《전사의 임무》(붉은기 조선인민군연극단창조)를 비롯한 전쟁물, 단막극 《교대시간전에 있은 일》(평양극장창조)을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을 내용으로 한 작품들 그리고 연극《어머니의 념원》(천리마해주연극단창조)을 비롯한 남반부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반영한 작품들이 들어있다.

**【영화】** 1970년에 혁명적문학예술특히 영화예술발전에서 획기적인 성과가 이룩되였다.

우리 영화예술인들은 오직 인민들에게 휘황한 앞날과 끝없는 행복을 마련하여주시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계시는 어버이수령의 위대한 혁명활동을 수록한 기록영화들과 수령님의 끝없이 고매한 덕성을 담은 예술영화들을 수많이 창작함으로써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는 영화를 만드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새것과 낡은것과의 투쟁을 잘 반영하며 사람들에게 끝없이 넓은 앞길을 열어주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생동하게 보여주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2권, 574페지)

경애하는 수령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1970년에 우리의 영화예술부문에서는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손수 창작하시고 그이의 직접적지도하에 공연된 혁명적작품을 그대로 옮긴 영화 《한 자위단원의 운명》과 기록영화 《새 조선》(1, 2부), 인민상계관작품 《꽃피는 마을》을 비롯하여 예술영화 《세상에 부럼없어라》 등 수많은 영화들을 만들어 내놓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적문예사상을 집대성한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조선예술영화촬영소 백두산창작단 제작)은 그가 달성한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이미 나온 《피바다》와 함께 우리 나라 혁명적문학예술력사에서 또 하나의 큰 성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철저한 반제혁명사상, 혁명적문예사상을 정확하게 구현한 이 기념비적명작은 평범한 청년주인공이 당시 사회의 계급적모순을 점차 인식하고 각성되여 마침내 불합리한 착취 사회 제도를 뒤집어엎기 위한 혁명투쟁에 나서는 과정을 심각한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진실하게 그림으로써 사람들에게 혁명이란 무엇이며 혁명은 왜 해야 하는가, 혁명을 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하는 혁명투쟁의 합법칙성과 그 방법을 생동하게 가르쳐주는 투쟁의 무기, 생활의 교과서로 되고있다.

조선기록영화촬영소 창조집단이 우리 당 제5차대회에 드린 충성의 선물인 광폭천연색예술영화 《새조선》(1, 2부)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이 주체사상의 위대한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매우 짧은기간에 우리 나라를 강력한 현대적공업과 발전된 농업, 찬란한 민족문화와 금성철벽의 방위력을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킨 위대한 승리를 반영하고있다.

인민상계관작품인 예술영화 《꽃피는 마을》은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힘있게 추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방침이 우리 나라 농촌에서 어떻게 빛나게 실현되고있는가 하는것을 주인공 병철이의 형상을 통해 감명깊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가정부터 혁명화하기 위해 투쟁해야할 시대적요구에 대답하고있는 우수한 작품이다.

조선기록영화촬영소에서는 유자녀들에 대한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한없이 고매하고 뜨거운 사랑과 높은 덕성을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영화 《만경대의 꿈》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께서 농촌테제에서 밝혀주신 휘황한 길을 따라 청산리의 약동하는 현실을 화면에 담은 천연색장편기록영화 《청산리》 그리고 어제날 사람못살 고장으로 알려졌던 창성이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되여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오늘의 창성》 등 수많은 영화들을 만들어 내놓았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높은 덕성을 보여주면서 그이께서 령도하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영화는 기록영화뿐만아니라 예술영화들인 《세상에 부럼없어라》, 《만경대 오누이》, 《조국으로 돌아온 관오의 일가》 등도 있다.

천연색광폭예술영화 《세상에 부럼없어라》(조선예술영화촬영소제작)는 음악, 무용작품들을 단순히 공연형식으로 묶어놓던것과 같은 기존방법을 대담하게 버리고 거기에 담겨진 노래와 춤의 사상예술적내용을 더잘 이야기해줄수 있으며 우리 제도의 우월성과 우리 인민의 높은 정신도덕적풍모를 보여줄수 있는 극적인 내용을 줌으로써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에 맞는 음악영화의 새로운 형식을 개척하였다는것으로 큰 의의를 가진다.

혁명적영화창작에서 거둔 성과의 하나는 조선2.8예술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한 영화들인 《적후의 진달래》, 《작전문건》과 광폭예술영화 《마을을 지켜싸운 인민무장대》(조선예술영화촬영소제작) 등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하여 미제침략자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선과 후방에서 영웅적으로 싸운 인민군 장병들과 후방인민들의 투쟁을 형상한 작품들로서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준엄한 전쟁의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한 투사들로 하여금 혁명가로서의 높은 자부심을 가지게 하며 전체 인민들을 전쟁경험으로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그리고 《어느 한 녀성직장에서》, 《녀성뜨락또르운전수》, 《아름다운 거리》를 비롯하여 《처녀리발사》, 《안해의 일터》, 《보람찬 나의일터》, 《충성의 기적소리》 등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보람찬 로력투쟁과 천리마기수들을 그린 현실주제의 영화창작에서 많은 전진을 가져왔다.

예술영화 《어느 한 녀성직장에서》는 주인공 정순이의 생활에 대한 진실한 형상을 통하여 녀성들을 혁명화하며 가정과 부엌일의 부담에서 해방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의 독창적인 방침을 실현하는것이 녀성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숭고한 혁명적임무라는것을 강조하고있다. 이와 함께 영화는 녀성들의 가정적부담을 덜어주어 그들을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시키며 가정을 혁명화하는것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더욱 높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다그침에 있어서 얼마나 큰 의의를 가지는가에 대하여 잘 보여주고있다.

또한 예술영화 《딸의 심정》을 비롯한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에 관한 주제의 작품창작에서도 성과가 컸다.

1970년에 조선2.8예술영화촬영소에서는 《매화꽃은 떨어졌다》, 《숨길수없는 정체》,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는 《수상한 전파》 등 반간첩투쟁을 내용으로한 영화들도 수많이 만들었다.

**【근로대중속에서의 문학예술활동】**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문학과 예술은 로동자와 농민의것으로 되였으며 광범한 군중속에서 더욱 찬란히 꽃피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3권, 89페지)

경애하는 수령의 혁명적문예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문학예술이 인민의것으로 되고 로동하는 사람들 자신이 문학예술의 향유자로, 창조자로 되고있다.

1970년에 우리 당 제5차대회를 경축하여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와 문예출판사, 씨나리오창작사 및 희곡창작사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와 육친적인 배려속에서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는 우리 문학이 혁명과 건설에 더 훌륭히 복무하게 하며 광범한 근로자들속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적문예사상을 훌륭히 구현한 문예작품의 창작을 더욱 앙양시키고 우리의 문학후비대렬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신인문학작품모집사업을 조직진행하였다.

현상모집에는 일하면서 창작하고 있는 수천명의 문학신인들이 참가하였는데 그들이 내놓은 작품의 많은 부분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혁명력사와 그이의 령도의 현명성, 맑스-레닌주의적전략전술, 고매한 덕성 그리고 그이의 혁명적가정을 형상하였다는것은 근로대중속에서의 문학예술활동이 큰 전진을 이룩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현상모집에 입선된 단편소설들인 《자애로운 어버이》, 《조국의 품》, 《꽃은 만발하다》, 《새들이 사는곳에서》와 시 《조국땅 빈 기슭에서》, 《노을비낀 정원에서》, 《무송의 밤》 그리고 아동문학작품들인 《새 아침》, 《사랑의 글발》 등은 모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활동과 그이의 혁명적가정을 형상한 좋은 작품들이였다.

조선영화문학창작사에서 진행한 신인영화문학작품모집에는 1,200여편의 영화문학작품들이 투고되였는데 그중에서 《꽃피는 섬》, 《해남이》, 《높은 인덕으로》, 《따사로운 해빛아래》 등 예술영화문학작품들과 《돼지경찰관》, 《나무할아버지와 수동이》 등 만화영화문학작품들이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것들이였다.

조선작가동맹에서는 근로자들이 창작한 문학작품들을 묶어 신인문학작품집 《우리는 근위대》, 《전진》을 내놓은데 뒤이어 또다시 《새 일터에서》와 《청년들》을 내놓았다.

신인문학작품집은 소설과 시를 쓰거나 희곡을 창작하는데 아무런 신비한 것도 없으며 로동자, 농민들이 문학예술창작에 참가할수 있을뿐아니라 그들의 적극적인 참가밑에 진정으로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의 개화를 가져올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 군중문화

우리 당 사상사업의 한 부분으로, 대중교양의 힘있는 수단으로 되고있는 군중문화사업은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당정책관철에로 그들을 고무추동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대중정치교양사업에서 군중문화사업이 노는 거대한 역할과 의의에 대하여 항상 강조하시면서 언제나 그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이 사업의 발전방향과 기본내용, 그 형식과 방법들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초기혁명활동과 항일무장투쟁시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군중문화사업의 심오하고도 풍부한 사상적내용과 다양하고도 생동한 형식 및 방법들은 해방후 우리의 군중문화사업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훌륭히 계승발전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중문화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며 인민속에 있는 재능을 찾아내고 발양시켜 로동하는 사람들자신이 가는 곳마다에서 문학예술활동에 참가하고 예술을 마음껏 즐길수 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30

패지)

경애하는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7개년계획기간에 사회주의건설의 천리마진군에 상응하게 군중문화사업이 더욱 심화발전되였다.

1970년에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7천 658평방메터의 극장, 영화관, 도서관, 구락부들이 새로 더 건설되였으며 특히 농촌문화시설이 훨씬 늘어났다.

당창건기념관을 새로 개관한것을 비롯하여 혁명박물관이 더 잘 꾸려지어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혁명박물관, 혁명전적지와 사적관들이 더 많이 건설되였으며 전국도처에 수많은 극장과 영화관들, 군중문화회관과 로동자문화회관, 민주선전실들이 또한 많이 건설되였다.

작가, 예술인들을 비롯한 수백만명에 달하는 문학예술소조원들의 대부대가 자라났고 문학예술활동에 광범한 근로대중이 적극 참가하게됨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적민족문화는 활짝히 꽃피고있다.

**【박물관】 조선혁명박물관;** 1948년 8월 1일에 창립된 조선혁명박물관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력사를 배우는 혁명의 학교로, 우리 당 사상교양의 위력한 거점으로 되고있다.

1970년에 조선혁명박물관에서는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이바지할 귀중한 자료들을 보충정비하였다.

조선혁명박물관에는 장구한 기간 조선인민의 반제투쟁, 특히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의 위대하고 자랑찬 승리의 로정을 폭넓고 깊이있게 반영하고있는 귀중한 자료들이 크게 17개호실로 나뉘여 진렬되여있다.

1호실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영웅적으로 싸운 항일유격대를 형상한 조각이 있다.

2—3호실에는 19세기후반기(1866—1875년) 미제침략자들과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투쟁, 일제의 조선강점을 전후한 시기의 반일투쟁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이 호실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조선인민의 마음의 고향이며 우리 혁명의 요람지인 만경대의 고향집을 보여주는 사진과 그이의 혁명적가정에 대한 귀중한 자료들이 있다.

4천만 조선인민의 마음의 고향이며 우리 혁명의 요람지인 유서깊은 만경대의 고향집에서 우리 민족의 태양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증조부이신 김응우선생께서는 우리 나라에 기어든 미제의 해적선 《샤만호》를 불살라버리는 애국투쟁의 앞장에 나서시여 영용하게 싸우시였다. 조부님이신 김보현선생은 민족의 절개를 지켜 꿋꿋이 싸우시였으며 나라의 독립을 념원하시여 자제분들을 반일투쟁에 나서도록 고무하시였다. 조모님이신 리보익녀사도 왜놈들에 대한 증오심이 강하셨고 일제경찰의 모진 박해와 억압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싸우시였다.

아버님 김형직선생은 일생을 조국의 광복과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싸움에 바친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민족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의 위대한 선구자이시며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시였다.

어머님 강반석녀사는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행복, 녀성해방을 위하여 자기의 빛나는 생애를 다바쳐 싸우신 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공산주의자이시며 조선녀성운동의 탁월한 선각자이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혁명적가정에서 탄생하신 수령께서는 부모님께서 받으신 애국주의교양과 아버님의 혁명활동로정을 따라 자신이 직접 겪으신 갖은 풍랑과 시련을 통하여 남달리 일찍부터 반일애국사상과 혁명의식을 강하게 가지시게 되였다.

제4호실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기혁명활동에 대한 귀중한 자료들이 있다.

그이께서는 1923년봄부터 1925년초까지 창덕학교를 다니시다 아버님께서 체포되였다는 소식을 듣고 열네살때 만경대를 떠나 압록강을 건너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아버님의 뜻을 받들고 혁명활동을 하신 화전의 《화성의숙》에 다니실때 계시던 기숙사를 비롯하여 이 시기 혁명활동에 관한 사진들과 수령께서 비합법적 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을 조직하시고 지도하시면서 혁명활동을 하신데 대한 자료들이 전시되어있다.

5—9호실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고 무장대오를 조직하시여 항일무장투쟁을 시작하신때로부터 1936년 남호두회의직전까지 기간에 진행하신 혁명활동에 대한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유격대창건을 위한 혁명활동을 하실때 비밀회의장소로 리용하시던 안도서문밖거리에 있는 집과 다락, 그때 깔고앉으시던 말안장, 항일유격대창건을 선포하던 시기 어머님과 함께 계시던 안도현 소사하에 있는 유서깊은 집, 항일무장투쟁초시기 유격대원들을 비롯하여 공산주의자들에게 당건설문제에 대하여 강의하신 강의요지 등 수많은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경애하는 수령께서 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고 무장대오를 조직하시여 항일무장투쟁을 시작하신때로부터 1936년 남호두회의직전까지의 기간을 포괄하는 항일무장투쟁의 첫단계에 그이께서는 조선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적혁명로선에 기초하시여 항일무장대오를 조직하시고 넓은 지역에서 적극적인 군사활동과 정치공작을 진행하시였다.

한편 그이께서는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역에 혁명근거지를 창설하시고 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하시여 항일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더욱 튼튼히 꾸리시고 그에 의거하여 무장투쟁을 발전시키시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로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의 새로운 앙양이 일어나게 되였다.

이처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장대오를 중심으로 한 혁명력량을 꾸리고 우리 나라 혁명의 급격한 앙양를 일으키시였다.

10—15호실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36년 2월 남호두회의로부터 1940년 8월 소할바령회의직전까지 기간에 진행하신 혁명활동에 대한 귀중한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남호두회의와 관련한 자료들, 동강회의에서 발표한 조국광복회 10대강령과 창립선언, 규약 그리고 조국광복회 기관지인 《3.1월간》 등에 관한 자료들, 조선혁명의 참모부—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가 자리잡고있던 희샤즈거우밀영, 소박한 책상과 침실 등 수많은 자료들과 사적물들이 전시되여있다.

또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고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과 조선공산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을 보다 전면적으로 추진시키신데 대한 자료들과 조선인민혁명군의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일제의 군사적요충지인 보천보로 진격하시여 원수들을 소탕하고 조선인민에게 민족해방의 서광을 안겨주신 자료들,

그이께서 조선인민혁명군부대를 령솔하시고 적들의 발악적인 공세를 짓부시면서 또다시 북부국경일대에로 진출하신 100여일의 고난의 행군로정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1936년 2월 남호두회의로부터 1940년 8월 소할바령회의직전까지의 기간을 포괄하는 항일무장투쟁의 새로운단계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주체적인 혁명력량을 더욱 튼튼히 꾸리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과 조선공산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을 적극 추진시켜 우리 나라 혁명투쟁을 일대 앙양에로 이끄시였다.

16—17호실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40년 8월 소할바령회의로부터 1945년 항일무장투쟁이 종국적으로 승리할때까지 기간의 혁명활동에 대한 귀중한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또다시 조국에로 진군하시여 항일유격대원들과 함께 첫날밤을 숙영하신 청봉숙영지, 그이께서 다가올 전투승리를 구상하시던 사령부, 질서정연하게 꾸려진 병실과 취사장의 자취들, 고깔불자리 등 사적물들과 건창, 베개봉, 무포를 비롯한 숙영지들, 《갑무경비도로》, 신사동방향에 진출하였을 때 사령부로 정하였던 귀틀집, 부대집결처였던 대홍단벌의 국사당 등 그이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또다시 조국에로 진군하시여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하고 국내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신 무산지구전투와 관련한 자료들이 귀중히 전시되여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을 또다시 새로운 앙양에로 이끌어 올리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가장 엄혹한 시기 백두산동북부일대에서 대부대선회작전을 전개하심으로써 혁명의 기치를 영예롭게 고수하시고 조선혁명을 계속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40년 8월 소할바령회의에서 당시의 변천된 국내외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민족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신 자료들도 전시되여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사업을 진행하시는 한편 수많은 소부대들과 정치공작원들을 국내깊이까지 파견하시여 적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인민대중을 반일반전투쟁에로 세차게 불러일으키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은 빛나는 최후 승리를 달성하였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조국개선을 환영하여 1945년 10월 14일 평양공설경기장(지금의 모란봉경기장자리)에서 있은 평양시군중대회 장면이 박물관에는 대화폭으로 전시되여있다.

조선혁명박물관을 통하여 우리는 바로 우리 민족이 생사존망의 가름길에 서있던 그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를 위하여 15성상 강도일제를 반대하여 싸워오시였으며 오늘도 우리 인민을 가장 곧바른 승리의 길로 확신성있게 령도하고계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근 반세기에 걸치는 빛나는 혁명력사를 학습하고 경애하는 수령을 따라 배우며 우리 당과 사회주의조국의 억세고 깊은 력사적뿌리를 견결히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킬 결의를 다지게 한다.

**보천보혁명박물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력사를 따라배우는 혁명의 학교인 보천보혁명박물관은 1970년에 창립열다섯돐을 맞이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55년 8월 7일 유서깊은 혁명전적지 보천보에 혁명박물관을 창립하여주시였으며 1958년 5월과 1963년 8월에 몸소 이곳 혁명박물관을 찾으시고 혁명박물관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박물관에서는 그이의 강령적인 교시를 지침으로하여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옹호하며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였다. 그리하여 박물관의 내용을 부단히 보충하였으며 과학적인 보존관리체계를 세워 우리 혁명의 귀중한 재부인 혁명 전적물과 사적물들을 귀중히 보존하였다.

박물관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37년 3월에 소집하신 무송현 서강 양목정자회의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공작전계획을 제시하시면서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는 보천보에로, 다른 한 부대는 안도, 화룡을 거쳐 무산지구로, 또 다른 한 부대는 국경지대인 림강, 장백으로 각각 진격하여 적들을 족칠데 대한 대담한 대규모작전을 조치하신데 대한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또한 박물관에는 1937년 6월 4일 밤 10시에 가림천가의 정철나무밑에서 공격개시를 알리는 그이의 신호총소리가 울리자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순식간에 적의 기본거점들인 경찰관주재소, 면사무소, 산림보호구, 농사시험장, 소방대, 우편국 등을 점령하고 원수들의 머리우에 불벼락을 들씌운데 대한 자료들, 거리의 곳곳에 나붙은 《조국광복회 10대강령》, 《포고문》, 《조선인민에게 격함》 등등의 수많은 격문들과 포고문들을 비롯한 보천보전투에 대한 전적물들과 사적물들이 귀중히 전시되여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일관된 박물관은 항일무장투쟁시기 그이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탁월한 전략전술, 고매한 덕성을 폭넓고 깊이있게 연구체득할수 있게하는 혁명의 학교로 되고있다.

보천보혁명박물관은 창립이래 15년간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옹호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에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 인민들과 우리 나라를 찾아오는 외국의 벗들은 이 박물관을 통하여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며 세계혁명운동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하고 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력사를 깊이 연구체득하고 있다.

**조선민속박물관;** 1956년 2월 10일에 창립되였다. 1970년에 조선민속박물관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조하신 혁명적이며 공산주의적인 생활기풍과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진람관을 새로 꾸리고 개관하였다.

이 진람관에는 항일유격대원들의 병영생활과 학습 및 행군조직에 대한 자료, 항일유격대원들의 음식과 작식대원들의 생활, 항일유격대원들의 군복과 재봉대원들의 생활, 항일유격대내 병원과 병상자치료, 항일유격대원들의 문화생활과 아동단원들의 행복한 생활 등을 보여주는 유물, 사진, 그림, 도표, 출판물 등 수백점에 달하는 귀중한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전시되여있다.

진렬실의 첫부분에는 항일유격대원들의 병영과 행군, 숙영조직과 관련한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여기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유격대를 조직하시고 유격근거지를 창설하신 초기부터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에 변화발전된 유격대원들의 병영형태, 마당거우밀영의 내부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형이 갖

추어져있으며 대원들의 규률생활, 학습과 군사훈련의 형식과 방법, 숙영조직의 형태와 방법 그리고 유격대에서 조직한 여러가지 행사의 형식과 방법, 례절형식을 보여주는 모형들과 사진, 그림 등 자료가 전시되여있다.

항일유격대 남녀대원들이 항일유격대창건초기와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된 이후시기 그리고 1930년대 후반기에 입던 군복, 모자, 배낭, 행건, 장갑 등은 위대한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영웅적으로 싸운 항일유격대원들의 강철같은 규률생활과 높은 정신상태와 몸가짐새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다음진렬실에는 항일유격대원들의 음식과 작식대원들의 생활, 병원과 병상자치료에 관한 경험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진렬실의 마지막부분에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아동단의 생활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있다.

박물관의 전시품들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경애하는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그이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조하신 혁명적생활기풍을 이어받아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하며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항일혁명선렬들처럼 혁명적으로 살며 투쟁할 결의를 다지게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 조선미술박물관; 1954년 9월 28일에 창립되였다.

이 박물관에는 기원전 3~4세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사이의 우리 나라 미술유산들과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조형예술작품들이 시대별, 종류별로 나뉘여 전시되여있다.

1970년에 박물관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65년 3월 11일에 주신 현지교시와 그이께서 1966년 10월 제9차국가미술전람회를 보시고 미술가들과 하신 담화 《우리의 미술을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혁명적인 미술로 발전시키자》에서 주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유화, 조선화, 선전화, 출판화, 공예품, 산업미술 등 현대미술작품들을 수많이 보충전시하였다. 그중에서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을 형상한 작품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1970년에 박물관에서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경축하여 전국미술소조전람회를 열어 각지 미술소조원들이 창작한 조선화, 유화, 출판화, 조각 등 여러종류의 미술작품을 100여점을 전시하였다.

## 신천박물관; 1958년 8월에 창립된 신천박물관에는 미제침략자들이 100여년전부터 감행한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행위와 우리 인민에 대한 야수적만행을 력사적으로 폭로하는 자료들, 특히 조국해방전쟁의 일시적후퇴시기 신천군에서 수만명의 우리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한 미제살인귀들의 귀축같은 만행을 폭로하는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미제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잔인하고 야수적인 방법으로 침략전쟁을 감행한 가장 극악한 제국주의라는것을 박물관에 있는 모든 실물들과 자료들이 실증해 주고있다.

미제는 한 하늘을 이고 살수없는 우리 인민의 철천의 원쑤이다.

이 박물관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을 천백배로 복수하고야 말 굳은 결의에 불타게 된다.

박물관은 세계 각국에서 우리 나라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현대의 가장 흉악하고 파렴치한 침략자, 략탈자이며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의 첫째가는 공동의 원쑤인 미제침략자들의 야수성을 폭로함으로써 미제를 반대하여 끝까지 싸우는 반제반미투쟁정신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 조선력사박물관; 1945년 12월 1일에 창립되였다.

박물관에는 원시사회로부터 19세기까지기간의 력사적유물들과 자료들이 원시사회(원시군, 모계씨족사회, 부계씨족사회), 노예사회(고조선), 봉건사회(세나라시기 신라와 발해시기, 고려시기, 리조시기)의 순서로 나뉘여 진렬되여있다.

## 【기념관】 당창건기념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에 개선하신 후 우리 당 창건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영광의 집, 우리 당중앙이 처음으로 자리잡고 인민들을 혁명과 건설에로 조직동원한 력사의 집에 당창건기념관이 꾸려져 1970년에 개관하였다.

경애하는 수령께서 항일의 피어린 싸움에서 겪으신 피로도 푸실 사이 없이 밤을 지새우시면서 새 조국건설의 웅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고 당 및 국가 건설의 복잡한 사업들을 조직지도하신 사무실들, 그이께서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여 혁명의 앞길을 가리켜주시고 나라일을 상론하신 응접실과 회의실 그리고 어버이수령께서 한 일의 전사들과 함께 계시며 검소한 생활을 하신 숙소 등 유서깊은 사적물이 기념관에 자리잡고있다.

또한 기념관에는 위대한 수령께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쌓으시던 때로부터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로동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때까지의 그이의 영광스러운 혁명활동과 우리 당의 빛나는 로정을 보여주는 수백점의 자료들이 7개의 진렬실들에 체계적으로 전시되여있다.

1호실의 한가운데는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의 깊은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가 정중히 모셔져있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활동과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의 결성, 광범한 청소년들의 조직적결속과 그들속에서의 맑스-레닌주의의 보급, 일제 및 반동군벌을 반대하는 투쟁과 종파주의 및 기회주의를 극복하는 투쟁 등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을 보여주는 사진들과 당시의 출판물 등 수많은 자료들은 그이께서 항일무장투쟁을 몸소 조직령도하신 전행정을 통하여 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준비와 대중적지반을 마련하며 당창건구상을 어떻게 실현하시였는가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안에 당조직들을 체계정연하게 내오시고 유격근거지와 적통치구역들에 공청을 비롯한 혁명단체들을 조직확대하셨으며 항일유격대안의 당회의들을 몸소 지도하시고 대원들에게 당창건문제를 강의하여주신데 대하여 생동하게 보여주는 사진과 직관자료, 당의 강령의 기초로 된 조국광복회 10대강령과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를 비롯한 수령의 로작들이 전시되여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맑스-레닌주의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가 마련되였다.

이 깊고도 억센 뿌리가 있음으로 하여 해방후 그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우리 당이 창건되고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2호실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평양과 서울 시민들의 시위, 항철의 로동계급과 용기군 인민들의 집회 등 당시의 출판물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3호실에는 지척에 둔 고향 만경대를 찾으시는것도 뒤에 미루시고 동지들과 함께 크지 않은 2층집 검소한 숙소에 계시면서 밤낮도록 나라일을 의논하시고 새 조국건설에 모든 정력을 기울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경대앞을 지나시면서도 곧바로 강선

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로 불러일으키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진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직 혁명을 위하여 한몸을 바치시고 언제나 조국과 인민을 먼저 생각하시는 숭고한 뜻을 지니고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45년 10월 10일, 평양에서 당창립대회를 소집하시고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를 결성하심으로써 우리 당의 창건을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진렬실에는 그이께서 밝혀주신 당의 정치로선과 조직로선이 금빛으로 아로 새겨져있다.

4호실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방당조직들에 대한 현지지도하신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두리에 광범한 대중을 묶어세우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6호실에는 당중앙조직위원회청사의 서재에 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사진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그이께서는 우리 당을 창건하신후 당을 더한층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조직지도하시였다.

기념관의 2층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을 창건하시고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사업하시던 당시에 쓰시던 사무실, 응접실, 서재와 회의실이 옛그대로 있다.

그리 크지 않는 보통사무실에는 우리들이 흔히 쓰는 보통책상과 의자들이 규모있게 놓여있다. 이 방에서 수령께서는 우리 당을 창건하기 위한 준비사업과 당창건직후 당의 정치로선과 조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지도하시였으며 당중앙조직위원회 제3차확대집행위원회 결정서초안을 작성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바로 이 방에서 로작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의 창건을 위하여》를 집필하시였다.

2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중앙조직위원회 제2차, 제3차확대집행위원회를 지도하시였으며 과학자, 기술자들의 회의도 가지시고 일군들의 정치실무적인 자질을 높여주기 위한 강연에도 자주 출연하시였다.

청사밖에는 우리 당 창건 당시에 경애하는 수령께서 계신 저택이 있다. 그이께서는 이 저택에서 혁명동지들과 침식을 같이하시며 언제나 자애에 넘치는 사랑으로 그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당창건기념관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이의 령도의 현명성과 높은 덕성을 깊이 체득시키며 우리 당 건설의 빛나는 력사와 고귀한 경험으로 교양하는 훌륭한 학교로 되고있다.

**조국해방전쟁기념관;** 1953년 8월에 창립된 이 기념관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4천만 조선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한 우리의 영웅적조선인민군과 인민들이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1950—1953년)에 거둔 위대한 승리와 그들이 발휘한 대중적영웅주의, 고귀한 투쟁업적과 경험을 보여주고있다.

1970년에 기념관에서는 정의의 조국해방전쟁 개시 스무돐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7월 27일)을 맞이하여 더 많은 전시품들과 자료들을 보충정비하였다.

기념관의 첫부분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과 그것을 직접 계승한 조선인민군의 창건 및 그 강화발전을 보여주는 자료가 진렬되여있다.

또한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침략자들이 공화국북반부에 대하여 감행한 불의의 침공을 폭로하는 자료도 있다.

다음부분에는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을 전쟁승리에로 이끄신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군사사상과 현명한 령도, 탁월한 전략전술, 고매한 덕성을 보여주는 자료들, 인민군대와 인민들의 대중적영웅주의를 보여주는 자료들 그리고 전시 인민군대내 당정치사업에 대한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세번째부분에는 수령의 전사들인 조선인민군 각 군종별, 병종별 군인들의 영웅적투쟁자료들과 미제침략자들이 감행한 력사상 류례없는 야수적만행과 그놈들의 패망상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있다.

밖에 있는 진렬장에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이 빼앗았거나 파괴, 격추한 미제침략자들의 각종 포와 전차, 비행기, 함선 등이 진렬되여있다.

**【군중문화회관】** 중앙과 각 도, 시(구역), 군에 있는 군중문화회관들은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의 수단으로 되고있다. 1970년에 이 회관들에서는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근로자들을 튼튼히 무장시키며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기 위한 정치문화교양사업이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진행되였다.

문화회관들에서는 영화상영과 감상모임, 노래보급, 예술소조공연, 강연회, 독서발표회, 전람회, 독주회, 독창회, 시랑송회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을 침투시키며 그 관철에로 불러일으켰다.

각 도(직할시) 군중문화회관들에서는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할 다양한 형식의 작품들을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예술소조에 가지고나가 그들을 도와주어 공연하게 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근로자들속에서 수많은 예술소조원들을 양성하였으며 한편 근로자들의 생산성과를 고무하였다.

군중문화회관의 이동영사대원들은 논밭머리에서 농장원들에게 《논벼와 물》, 《농토관리》, 《농작물과 비료》 등 농업과학영화들을 보급하여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1970년에 중앙도서관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혁명사상을 따라배우는 근로자들에게 수령의 로작을 안내하는 일, 로작해제사업, 로작전시회, 혁명전통교양자료연구발표회, 읽은책감상발표회 등을 널리 조직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로작전시회에는 《김일성저작선집》, 《김일성선집》을 비롯하여 경애하는 수령께서 혁명발전의 매 시기에 내놓으신 보고, 론문, 연설, 담화들을 수록한 350여종의 단행본과 저작집들, 그이의 로작들을 세계의 26개나라에서 25개의 민족언어로 번역출판한 300여종의 도서들을 전시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 발행한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 《위대한 수령을 따라배우자》 등과 세계 여러나라에서 번역출판한 《인민의 태양 김일성장군》, 《김일성전》을 비롯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가정과 그이의 위대한 혁명력사에 대하여 수록한 책들을 전시하였다.

1970년에 중앙도서관에서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민족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의 위대한 선구자이시며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께서 조직지도하신 조선국민회 결성 쉰돐에 즈음하여 선생의 혁명적생애와 고귀한 투쟁업적을 연구하고 따라배우기 위하여 독자모임을 가지였

다.

또한 웨. 이. 레닌탄생 100돐을 기념하여 독자모임과 도서전시회를 열었다.

**시(구역), 군 도서관;** 1970년에 각 도(직할시), 시(구역), 군 도서관과 아동도서관들 그리고 공장, 기업소, 기관, 협동농장들에 있는 도서실들에서는 근로자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그들의 기술,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조직진행하였다.

도서관들에서는 관내에서의 열람과 함께 생산현장에 이동문고를 조직하여 《김일성저작선집》,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 등 독자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책들을 날라다 주었다.

어린이도서관들에서는 학교들에서의 교수진도와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주요 행사, 기념일 등을 참작하여 그에 알맞게 책을 내주고 학생들에게 읽게한 다음에는 감상을 쓰게하는 방법과 독서모임, 읽은책발표모임, 연구토론회 등 다양한 사업을 벌리여 어린이들이 열성적으로 책을 읽으며 읽은책의 내용을 깊이 리해하도록 도와주었다.

**【전람관】 공업및농업전람관;** 1956년 5월에 창립되였다.

1970년에 이 전람관에서는 우리 당 제5차대회를 맞이하면서 경애하는 수령의 탁월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된 면모를 보여주는 실물과 자료들을 보충진렬하였다.

전람관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 그이의 령도의 현명성을 보여주는 실물과 자료들이 중공업, 경공업, 농업, 건설, 운수 등 인민경제 부문별로 나뉘여 진렬되여있다.

1호관 1층 첫부분에는 자립적기계제작공업의 모체로되는 현대적인 각종 공작기계들과 그 부대설비들, 인민경제의 기술적진보와 자동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약전기계, 기구 등이 진렬되여있다.

중공업부분에는 우리 나라 중공업의 급속한 발전면모를 보여주는 반자동나사연마반, 고속도만능선반, 프로그람선반을 비롯한 최신공작기계들과 발전설비들, 채취공업설비들, 여러가지 강종과 강재 등이 전시되여있다.

전람관에는 우리 나라의 경공업공장들에서 만든 여러가지 훌륭한 옷감과 일용품, 식료품들이 전시되여 있으며 농촌경리의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의 발전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들과 사회문화의 발전면모를 보여주는 실물과 자료들이 진렬되여있다.

1호관 2층 첫부분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 로작들이 진렬되여있다.

2호관에는 기본건설을 집중화, 공업화, 정상화, 정규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여 력사상 류례없는 빠른 속도로 산업, 도시, 농촌 건설을 진행한데 대한 실물과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3호관(일반기계관)에는 양수설비들과 디젤기관, 전기기계공업의 창설과 그 발전모습을 보여주는 실물들이 진렬되여있다.

하루에 2천여명이 찾아오는 이 전람관에서는 1970년에 15만명의 우리 나라 근로자들과 3천여명의 외국손님들을 참관시키였다.

**어머니전람관;** 1961년 11월 17일에 창립되였다. 이 전람관에는 우리 녀성들과 어린이들에 대한 어버이 수령의 크나큰 배려에 대한 자료들과 어머니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자녀들을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는데 도움으로 될 좋은 경험과 방법들에 대한 자료들이 크게 두개부분으로 나뉘여 진렬되여있다.

첫부분에는 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공산주의자이시며 조선녀성운동의 탁월한 선각자이신 강반석녀사의 생애와 혁명활동에 대한 자료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어린시절에 대한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또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 녀성혁명가들과 아동단원들의 투쟁과 생활에 대한 자료들 그리고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용감히 싸운 녀성영웅들, 인민경제 각 분야의 녀성로력혁신자들에 대한 자료들이 있다.

다음부분에는 우리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에 대한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의 극진한 배려에 대한 자료들 그리고 탁아소, 유치원, 학교 시기로 나누어 어린이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는데서 얻은 좋은 경험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1970년에 이 전람관에서는 우리 당 제5차대회를 맞이하여 새로운 자료들을 더 보충정비하고 녀성들이 일하는 생산현장에 찾아가 이동전람회를 조직함으로써 그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평양학생소년궁전】** 어버이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발기에 의하여 1963년 9월 10일에 창립되였다. 이 궁전은 학생소년들을 경애하는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을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교양하는 종합적인 학교로, 과외교양의 거점으로 되고있다.

1970년 8월 14일 이 궁전을 찾으신 어버이수령께서는 학생소년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을 보시고 아주 잘하였다고 치하하시였다.

1970년에 이 궁전극장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경축 전국학생소년예술소조종합공연을 진행하였다.

이 궁전에는 하루에도 1만여명의 학생들이 자기의 희망과 소질에 따라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예술 등 각부문의 지식과 기술을 마음껏 배울수 있는 500여개의 연구실과 활동실들, 100여개의 련습실이 있다. 그리고 1,300개의 관람석을 가진 궁전극장, 1천여명의 관람군중이 들어가며 계절에 관계없이 종합체육경기를 할수 있는 체육관, 수만권의 책이 갖추어져있는 도서관, 1천여명을 수용하는 유희오락실이 마련되여 있으며 궁전밖에도 체육경기장, 기상관측장, 자동차운전실습장, 작은동물사, 실습포전들이 갖추어져있다.

어버이수령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학생소년들은 궁전에서 천체만원경, 공작기계, 자동차 등 수천종의 실험기구들 그리고 민족악기들과 양악기들, 화구들과 체육기자재, 무대의상 등 모든 설비들을 무료로 리용하면서 각부문의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있다.

이 궁전은 과외교양 경험과 자료, 지도리론을 종합체계화하여 전국의 과외교양기관들에 일반화하는 보급기지의 역할도 하고있다.

궁전에서는 김일성원수혁명활동연구소조를 비롯한 정치교양부문연구소조들과 물리, 화학을 비롯한 과학기술교양부문연구소조들, 문화교양부문소조 등 100여개의 소조가 박사, 학사, 기사, 전문가, 예술인들의 지도밑에 활동하고있다.

**【극장】평양대극장;** 1960년 8월에 준공된 이 극장은 1970년에 개관열돐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이 극장은 인민을 위한 문화의 대전당으로서 아름다운 민족적형식과 사회주의적내용에 현대적건축기술이 잘 배합되여있으며 예술창조사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

실과 현대적봉사시설들이 훌륭히 갖추어져있다.

1970년에 이 극장에서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경축하여 음악무용서사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이 공연되였으며 《음악무용종합공연》, 민족가극 《오직 한길로》, 민족가극 《금강산팔선녀》, 《영화예술인들의 무대》 등의 공연이 있었다.

어버이수령께서는 중앙예술단체들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의 5인무 《샘물터에서》, 《우리는 천리마단조공》 등 여러종목의 공연을 보시고 우리의 음악무용작품들의 사상예술성이 높은데 대하여 거듭 치하하여주시였다.

**천리마국립연극극장;** 이 극장은 문학예술부문에서 맨 처음 천리마극장의 영예를 지니였으며 공화국창건 20주년기념칭호를 받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극장에 열여덟차례나 나오시여 현지지도를 하여주시였으며 그때마다 작품, 연출, 연기, 지어는 대사와 배우들의 의상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자애로운 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였다.

이 극장 창조집단은 어버이수령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1970년에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경축하여 연극 《혁명의 새아침》(천리마국립연극극장 만경대창작단출연)을 창작공연한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작품을 내놓아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국립교예극장;** 이 극장에는 교예예술의 특성에 맞게 어떤 종목의 교예든지 마음대로 할수있는 원형무대, 일면무대, 공중무대가 합리적으로 배치되여 있으며 원형무대에서는 계절을 가리지않고 수중교예, 빙상교예도 다 자유롭게 할수 있다.

극장에는 또한 2개의 악사실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련습장들, 공중준비실과 현대적봉사시설이 훌륭히 갖추어져있다.

1970년에 이 극장에서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경축하여 《종합교예》(국립교예극장출연) 공연을 진행하였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로 달리자》를 비롯한 교예적특성에 맞는 여러종목의 교예들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예술축전】** 1970년에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경축하여 전국연극축전, 전국학생소년예술축전, 조선인민군 제14차예술경연 등 수많은 축전이 진행되였다.

축전무대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내용으로한 작품들과 그이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형상한 작품들 그리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직접 계승한 조선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싸움에서 발휘한 대중적영웅주의,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위한 투쟁과 천리마기수들의 슬기로운 로력투쟁,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 등을 형상한 많은 작품들이 올랐다.

축전에서는 경애하는 수령의 위대한 문예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고있으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보살핌을 받고있는 우리의 근로자들과 문학예술인들이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작품들을 창작하는데서 이룩한 성과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경축 전국연극축전;** 축전무대에는 도(직할시)의 11개예술단체들에서 창조한 14편의 장막극들과 40여편의 소품들이 올랐다.

천리마남포연극단은 어버이수령의 령도의 현명성과 높은 덕성을 형상한 《연풍호》(1등당선작품)를 가지고 축전에 참가하였으며 천리마해주연극단이 내놓은 연극 《어머니의 념원》은 남반부혁명가들과 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진실하게 보여주었다.

그밖에도 축전무대에서는 《영원한 전사》(함흥연극단), 《그들이 가는길》(혜산연극단), 《적후전파》(평양연극단) 등 많은 작품들이 공연되였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경축 조선인민군 제14차예술경연;** 조선인민군 륙해공군에서 선발된 수많은 군무자예술소조원들이 참가한 이 경연의 전종목에 걸쳐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꽉 들어차있었다. 그 어느 작품을 보나 모두가 다 일편단심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하며 수령께서 제시하신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려는 불타는 결의가 어려있었으며 남뢰망에서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기어코 성취하고야말 불굴의 투지가 차넘치고있었다.

경연무대에는 합창 《위대한 태양 김일성원수님》과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와기를 울리며》, 남성중창 《사령부의 불빛》, 노래이야기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녀성대포단》, 재담 《평양의 목소리》, 혼성군무 《반공격의 진우에 김일성장군의 노래 울려퍼지네》, 녀성중창 《전신경에서》, 경악극 《수령님의 품은 혁명의 요람》 등 수많은 종목이 올랐다.

**【전람회】** 1970년에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경축하여 전국미술소조전람회, 보통교육부문전국미술작품전람회가 진행된것을 비롯하여 경공업제품전람회, 3.8국제부녀절 예순돐기념사진전람회, 《우리 나라 닭공장》 사진전람회, 영화기술발전전람회, 《웨. 이. 레닌》 사진전람회가 있었으며 몽골, 일본 등 세계 여러나라들에서도 우리 나라 상품전람회가 진행되였다.

**경공업제품전람회;** 전국지방산업일군대회를 맞이하여 마련된 이 전람회에는 경공업부문에 주신 경애하는 수령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튼튼히 꾸려놓은 대규모의 중앙경공업공장과 지방산업공장을 비롯한 각 생산하 공장, 기업소들의 생활필수품직장과 분공장, 가내작업반들에서 생산한 5만여종에 달하는 일용필수품들과 식료품들이 전시되였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경축 전국미술소조전람회;** 전람회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혁명력사와 그이의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내용으로 한 작품을 비롯하여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이 조선화, 유화, 출판화, 조각 등 여러 종류에 걸쳐 100여점 전시되였다.

심사결과 1등작품

조선화 《원수님께서 주신 옷을 입고》

유화 《당산벌의 남새풍년》

조각 《혁명동지를 위하여》

# 체 육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의 체육은 혁명과 건설에 철저히 복무하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회주의적체육으로 급속히 발전하고있다.

그이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체육이 조선혁명에 철저히 복무해야 한다는 독창적인 체육지도사상을 창시하시고 항일유격대원들과 유격근거지인민들을 그의 실현에로 조직동원하시여 혁명적체육활동의 고귀한 경험과 업적을 이룩하시였으며 또한 해방후 우리 나라 체육의 발전방향과 방도를 명확히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앞으로 우리의 체육은 조선의 자주독립과 민주주의적발전을 위한 건국사

업의 중요한 고리로서 발전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말하여 민주조선을 건설할 씩씩한 건국투사들을 키우기 위하여 인민들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단련시키는 전인민적체육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여기에서 체육을 대중화하는것이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청소년사업과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임무에 대하여》, 1권, 38페지)

체육의 인민적성격과 기본사명을 명철하게 정식화하신 경애하는 수령의 이 교시는 우리 나라 체육발전의 휘황한 길을 밝혀주는 지도적지침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9년 11월에 진행된 전국체육인대회에서 체육이 혁명과 건설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그리고 그 의의에 대하여 또다시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현 단계에서 문화혁명의 한구성부분으로서 전인민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의 체육을 대중화하고 국방사업과 밀접히 결부시켜 발전시킴으로써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전체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체육 사업은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거대한 역할을 놀고 있다.

**【군중체육】**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체육을 대중화하는것이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왜냐 하면 체육을 대중화하고 생활화하며 광범한 대중속에 널리 보급하여야만 우리 민족의 전반적인 건강증진을 보장할수 있으며 전체 인민들로 하여금 튼튼한 체질과 건전한 사상을 가지게 할수 있기때문입니다.》(《청소년사업과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임무에 대하여》, 1권, 38페지)

체육부문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1967년 5월 30일 교시와 1969년 11월 4일 전국체육인대회에서 하신 교시의 진수를 깊이 체득하고 체육인들속에서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국방체육을 위주로 하는 체육을 모든 학교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사무기관들에서 더욱 대중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렸다.

**집단체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적극적인 보살핌속에서 사회주의적체육의 훌륭한 형태로 개화발전하고있는 우리 나라 집단체조는 그의 높은 사상성과 놀랄만한 규모와 고도로 조직화되고 세련된 예술성과 체육적기교를 보여주는 가장 훌륭한 새형의 혁명적인 체육예술로서 온 세상에 빛을 뿌리고있다.

경애하는 수령께서는 집단체조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온갖 물질적배려를 돌려주시였을뿐만아니라 집단체조의 내용과 사상성을 높이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20여차례의 교시를 주시였다.

수령의 극진한 사랑과 배려속에서 우리 나라 집단체조는 전국 도처에서 널리 창작출연할수 있게되였고 그의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다른 나라에서도 널리 보급되고있다.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대집단체조 《로동당의 기치따라》;**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경축하여 진행한 대집단체조 《로동당의 기치따라》를 1970년 11월 8일에 관람하시였다.

연 7만 5천여명의 평양시 청소년학생들이 출연한 이 집단체조에는 우리 인민이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투쟁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세기적변혁과 불멸의 업적, 그이께서 당 제5차대회 보고에서 펼쳐주신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휘황한 전망이 훌륭히 형상되였다.

집단체조는 서막, 제1장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 제2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 사상만세!》, 제3장 《위대한 총화》, 제4장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결정관철에로!》, 제5장 《싸우는 남녘땅》, 제6장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들자!》, 종막으로 진행되였다.

우리 인민의 영웅서사시로 엮어진 력사적사변들을 변화무쌍하고 호화찬란한 배경대와 체조대의 세련된 기술, 민족적정서가 풍부한 음악적선률로 우아하게 형상한 대집단체조 《로동당의 기치따라》는 우리 나라 모든 학교들에서 교육과 결합된 체육, 국방과 결합된 체육이 급속히 발전하여 청소년학생들은 모두다 지덕체를 갖추고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된 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억세게 자라나고있음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집단체조 《세상에 부럼없어요》(서막, 5장, 종막);** 6.1국제아동절 스무돌을 기념하여 평양시 유치원어린이들 5천여명이 출연한 이 집단체조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해빛보다 따사로운 사랑과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나는 새세대들의 끝없는 행복과 원수님의 어린시절을 따라 배우며 아동단원들처럼 어버이수령님의 참된 아들딸로 붉게 피어날 꽃봉오리들의 불타는 충성의 마음을 씩씩한 체조와 아름다운 률동에 담아 훌륭히 보여주었다.

**전국중학생집단체조경기대회;**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계기로 1970년 8월부터 10월말까지의 사이에 진행된 이 경기대회에는 전국의 각 중학교단위로 모든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이땅우에 길이 꽃피워나갈 청소년학생들의 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후대교육을 위하여 항상 극진한 배려를 돌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행복하게 자라는 새세대들의 고상한 집단주의정신과 불굴의 투지, 튼튼한 체력과 높은 체육기술을 남김없이 시위하였다.

대회에서는 평남도 순안군 순안녀자중학교의 서막과 종막에 3장으로 된 집단체조 《아버지 김일성원수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자라는 우리는 행복합니다》, 자강도 전천군 학무중학교의 서막과 종막에 5장으로된 집단체조 《김일성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근위대, 결사대로!》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학교체육;** 우리 나라의 각급 학교들에서는 과정안에 의한 체육교육과 과외체육활동을 널리 조직진행하여 교육과 결합된 체육, 국방과 결합된 체육을 적극 발전시킴으로써 지덕체를 겸비한 훌륭한 청소년학생들을 키워내고 있다.

1970년에 각급 학교들에서는 체육교육과 체육훈련을 활발히 진행할 목적으로 《토요체육의 날》, 《국방체육의 날》을 정하고 공중손그네, 회전그네, 목목 등을 통하여 키크기운동을 적극 벌리면서 체력단련의 기본종목인 철봉, 기계체조, 쌍봉, 달리기, 줄당기기와 민족체육종목들인 씨름, 그네, 널뛰기 등을 활발히 벌리였으며 수영, 배타기 등 해양체육과 등산, 수영, 강행군 등을 활발히 조직하여 학생들에게 인내성, 대담성, 용감성, 집단주의정신을 키우도록 하였다.

한편 청소년학생들을 청소년체육구락부와 체육소조에 광범히 망라시켜 정상적인 체육활동을 하게 하였다.

평양시에서는 청소년학생들속에서 겨울철체육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기 위해 반경대인민학교(과외 1시간체육

활동), 만경대중학교(체육수업)에 체육사업의 본보기를 꾸리고 이를 일반화하기 위한 방식상학을 조직진행하여 따라배우도록 한 결과 체육수업을 적극 당정책화하게 되였다.

키크기운동이 활발히 인내성있게 진행됨으로써 평원군 삼봉중학교, 박천군 룡곡중학교, 황주군 삼훈중학교 학생들의 키는 1970년한해동안에 평균 4~5센치메터나 더 컸으며 학교체육사업에서 앞장서고있는 안변중학교에는 한해동안에 10.02센치메터나 큰 학생까지있다.

**집단달리기;** 1970년에 각 공장, 기업소와 협동농장, 사무기관, 인민반들에서는 아침운동, 업간체조, 랭수마찰, 토요일과 일요일의 체육훈련 등을 활발히 벌리면서 집단달리기를 생활화하였다.

집단달리기는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전달계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학습과 결부된 만경대, 보천보 등 혁명사적지와 혁명전적지에로의 집단달리기로 발전하여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을 위한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그리고 공산주의교양과 밀접히 결부된 형태로서 널리 조직진행됨으로써 우리 인민들의 체력을 튼튼히 단련시키는 동시에 그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교양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1970년에는 전국각지에서 《붉은기쟁취를 위한 혁명전적지에로 달리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집단달리기를 벌려 근로자들을 정치사상적으로뿐만아니라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일당백의 혁명전사로 키우는데서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

**인민체력검정;** 1970년에 공장, 기업소와 협동농장, 사무기관, 학교들에서는 인민체력검정사업에 적극 참가하여 체력지표를 계통적으로 높이였다.

1969년도 전국인민체력검정 집단경기대회에서 1등한 만경대인민학교(인민학교부문), 2중천리마김주녀자중학교(중학교부문), 2중천리마북청고등원예전문학교(고등기술학교부문), 선천교양원대학(대학부문), 조선중앙통신사(사무부문), 와포협동농장(협동농장부문)의 인민체력검정지표를 따라 잡기 위한 투쟁을 활발히 벌리였다.

각 부문들에서는 체육의 대중화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인민체력검정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년간 훈련계획을 세밀히 세우고 적극 밀고나갔다.

우선 체육지도위원회에서는 집단달리기를 통하여 다리힘을 키우고 호흡기와 심장계통 등을 발달시키게함으로써 인민체력검정 달리기종목에 합격하게 하였고 국방체육활동을 하면서 수류탄던지기, 등반오르기 등을 하여 인민체력검정기준을 돌파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대중적인 체육활동에서 인민체력검정훈련을 중점적으로 진행한 결과 인민체력검정에서 10년간 계속 100% 합격한 2중천리마북청고등원예전문학교에서는 1970년에도 또다시 100%합격하였으며 안변중학교는 1968년부터 계속 100%합격하게 되였다.

함남도 인민체력검정사업의 경우 하나만 보아도 도적으로 인민체력검정합격자수가 1961년을 100으로 할때 1969년에는 191%로 늘어났다.

**체육후비양성;**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국체육인대회에서 나라의 체육사업을 전인민적운동으로 전개하며 체육선수후비들을 믿음직하게 키울데 대하여 주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평양체육대학을 비롯한 각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의 체육학과들에서 교수훈련의 질을 높이는 한편 전국 각 도, 시, 군의 체육구락부들에서는 학생들로 구락부생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 모두를 믿음직한 체육선수후비로 키워내고있다.

청소년체육구락부들에서는 구락부생들을 그들의 육체적준비정도와 소질, 취미에 맞게 무선통신소조, 빙상체육소조, 배구소조 등 여러가지 소조에 망라시키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훌륭히 준비된 당의 붉은 체육전사로 준비시키기 위하여 교수훈련에서 과학사상성을 높이는데 힘을 넣었다.

신포시에 있는 함남도 해양구락부를 비롯한 바다를 낀 지대의 해양구락부들에서는 청소년들을 용감한 바다의 정복자로 키우기 위하여 7~8월수영보급월간에 청소년학생들속에 헤염치기를 보급하는 한편 물속에 오래있기 위한 참을성기르기, 배타기, 물에 뛰여들기, 수구, 헤염치기와 수기신호 훈련을 적극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체육구락부들에서는 명수급에 이른 수많은 체육선수들이 자라났다.

**체육기술향상;** 1970년에 축구, 빙상, 탁구 등 여러부문에 걸쳐 체육기술이 더욱 향상되였다.

**축구;** 축구부문에서는 우리 선수들의 체질에 맞는 주체적전법인 전면공격과 전면방어에 의한 중장거리측면속공전술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훈련을 적극 진행하였다. 전면공격과 전면방어에 의한 중장거리측면속공전술은 우리 선수들의 특성을 옳게 살린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축구전법을 지향한것이였다.

**배구;** 배구에서는 높은 공타격을 위주로 하는 완만한 공격전술에 대처하여 우리 선수들은 주체적인 속도전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과 쌍순간타격전술을 경기에서 적용하기 위한 훈련을 적극 진행하였다.

**롱구;** 1970년에 우리 나라 롱구선수들은 이미 달성한 성과를 발전시켜 새로운 보다 높은 기술을 련마하는데 중심을 두고 맹훈련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 새로운 선수들이 수많이 자라났다.

**탁구;** 이미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우리 나라 탁구선수들은 경애하는 수령께서 체육부문에 주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일상적인 훈련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땀을 많이 흘려온결과 1970년에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국제탁구친선경기대회에서 1, 2, 3위를 쟁취함으로써 천리마조선체육인의 기상을 다시 한번 떨치였다.

**마라손;** 전국체육인대회가 있은후에 마라손분야에서는 마라손기록을 높이자면 속도인내력과 5키로메터당 구간속도를 해결하는 훈련을 정력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는것을 인정하고 여기에 많은 힘을 넣었다.

**속도빙상;** 이미 세계적으로 그 이름을 떨치고있는 우리 나라 속도빙상선수들은 훈련강도를 더욱 높여 맹훈련을 함으로써 1970년에 핀란드에서 세계속도빙상강자들이 모여 진행한 국제대학생동기올림픽체육경기대회에서 또다시 그 위용을 떨치였다.

우리 당의 올바른 체육정책에 의하여 축구, 배구, 롱구, 탁구를 비롯한 모든 종목의 체육기술이 급속히 향상됨으로써 오늘 우리 선수들은 수많은 국제경기들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수령의 탁월한 령도를 받는 천리마조선의 영웅적기상을 떨치고있다.

**【국방체육】**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4년 10월 22일 교육및체육부문일군협의회와 1967년 5월 30일 그리고 1969년 11월 4일 전국체육인대회에서 하신 강령적인 교시들에서 국방체육을 위주로하는 체육을 대중화할데 대한 심오한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국방체육을 위주로 체육을 대중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국방체육종목을 더욱 늘이고 대중적으로 보급발전시키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또한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때에 정상적으로 장애물이겨내기, 담벽뛰여넘기, 달리기와 같은 국방체육을 많이 하는것이 좋습니다.》(《체육을 대중화하여 전체 인민들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자》, 단행본, 11페지)

경애하는 수령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체육부문에서는 1970년에 산과 강이 많고 세면이 바다인 우리 나라 자연지리적조건을 쉽게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대중적인 국방체육종목들을 늘이고 장애물이겨내기, 담벽뛰여넘기, 달리기, 헤엄, 강하천극복하기, 행군 특히 야간행군과 등산 등을 전체 근로자들속에 널리 보급발전시켰다. 이와 함께 사격, 무선통신, 락하산, 활공기 등 현대적인 군사기술기재들을 잘 다루고 그에 정통할수 있게 하는 국방실용체육종목들을 많이 하는데 힘을 넣었다. 국방체육을 위주로 체육을 대중화하는데서 또한 중요하게는 륙상, 체조, 수영을 비롯하여 집단달리기, 생산체육, 인민체력검정 등을 널리 발전시키였다.

모든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을 복잡한 군사기술동작에 익숙시키는 동시에 현대전이 요구하는 높은 기동성과 고열, 랭한 등 온갖 곤난을 이겨나갈수 있는 그러한 강의한 육체적저항력을 길러주기 위하여 이미 있던 국방체육구락부를 더잘 운영하는 한편 일반체육구락부로 운영하여오던것을 국방체육구락부로 많이 개편하고 리론과 실기를 옳게 배합하는 원칙에서 각 소조별로 행군, 사격, 장애물돌파, 격검, 궁술, 모형항공, 자동차, 또락또르운전, 무선통신, 모터찌클 훈련을 맹렬히 진행하였으며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1970년에 진행된 전국국방체육및해양구락부경기대회와 전국지구별국방체육구락부경기대회성적이 보여준 바와 같이 국방체육의 각 종목에 걸쳐 대회기록을 갱신한것은 국방체육을 위주로 한 체육이 광범한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속에서 대중화되고 그 기술수준이 급격히 높아지고있음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녀맹창립 스무다섯돐을 기념하여 진행된 전국녀성국방체육대회에 참가한 체육선수들이 모형활공기들인 고무동력기, 교예기, 분사식속도기, 체공기들의 비행 그리고 장애물극복, 독해물극복, 부상병나르기 등 여러종목의 경기에서 발휘한 성적이 보여준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는 녀성들속에서도 국방체육이 더욱 급속히 발전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인민군군인들속에서의 국방체육은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조선인민군 군사3종경기대회의 사격, 수류탄던지기, 장애물극복경기 성적이 보여준바와 같이 우리 인민군군인들은 뛰여난 사격술을 가지고있으며 구분대의 전투준비완성과 전투력강화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고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모든 성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국방체육을 위주로 체육을 대중화할데 대한 자위의 혁명사상을 철저히 구현한 주체적인 체육방침의 정당성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주요체육경기】** 1970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수많은 국내경기와 국제경기들에서 사회주의제도하에서의 체육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시위하였다.

**국내경기;**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경축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속도빙상및휘거선수권대회와 전국스키선수권대회, 전국중학생체육대회(9월 9~17일, 평양), 조선인민군 군사3종경기대회(6월 19~21일, 평양), 조선인민군축구경기대회가 진행되였으며 녀맹창립 스무다섯돐을 기념하여 전국녀성국방체육대회(11월, 평양)가 진행되였다.

또한 조선인민군창건 스물두돐을 기념하여 《일당백상》쟁취를 위한 체육경기대회(2월초~25일, 평양과 함흥, 해주, 강계, 삼지연), 전국대학생체육경기대회(2월 7~12일, 혜산), 《일당백상》쟁취를 위한 빙상호케이경기대회(2월 1~7일)가 진행되였으며 《조국통일 마라손》경기대회(4월 1일, 평양), 제9차전국민족체육경기대회(4월 28일~5월 1일, 평양), 제10차 《만경대, 봉화리계주》 경기대회(4월 12일), 1970년도 《만경대컵》 쟁취를 위한 체육경기대회(4월 15일, 평양), 1970년도 《일당백상》쟁취를 위한 레스링경기대회(2월 10~12일, 함흥), 전국지구별국방체육구락부경기대회, 전국국방체육및해양구락부경기대회(8월 23~28일, 평양), 전국학생스케트경기대회(1월 25일~31일, 강계), 전국학생스키경기대회(2월 7~10일, 자강도 룡림군) 등 수많은 경기들이 진행되였다.

경기들에서는 국방체육을 위주로 체육을 대중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에 의하여 전체 근로자들로 하여금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되고있음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국제경기;** 1970년에 우리 나라 선수들은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국제탁구경기대회(12월 24~30일), 제6차 국제대학생동기올림픽체육경기대회(4월, 핀란드), 사회주의나라청소년《친선》속도빙상선수권대회(1월 17~18일, 베를린) 등 수많은 국제경기들에 참가하여 천리마조선체육인의 기개를 떨치였다.

국제탁구경기대회는 로므니아, 쏘련, 웽그리아, 윁남, 체스꼬슬로벤스꼬, 우리 나라 1조, 2조 선수단들의 참가밑에 진행되였는데 우리 선수들은 단체전에서 1, 2위를, 개인단식과 복식경기에서 1, 2, 3위를 차지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의 체육의 발전면모와 높은 체육기술을 남김없이 시위하였다.

# 출 판 보 도

우리 당출판물의 창간자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의 통신, 방송, 신문, 잡지, 도서 등 당적출판보도물들을 당의 힘있는 선전선동수단의 하나로,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사상적무기로, 전세계 맑스-레닌주의적출판물의 빛나는 본보기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혁명의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군대가 무기를 가져야만 적과 싸워 이길수 있는것처럼 혁명조직은 출판물과 같은 그러한 예리하고도 전투적인 사상적무기를 가져야 대중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다.…**

그이께서는 혁명투쟁에서 출판물이 노는 역할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몸소 수많은 혁명적출판물을 창간하시고 지도하시였으며 그를 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는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되게 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기혁명활동시기와 항일무장투쟁시기 《새날》, 《볼쉐위크》, 《농우》, 《3.1월간》, 《서광》, 《종소리》 등 수많은 신문과 잡지, 소책자들을 발간하시고 지도하심으로써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우리 인민은 조국광복의 성스러운 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투쟁에서 위력한 사상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그이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혁명적출판물의 빛나는 전통에 기초하여 해방후 《로동신문》을 비롯한 수많은 당적출판보도물들을 창간하시

였을뿐만아니라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한 탁월하고 독창적인 출판보도사상을 내놓으시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혁명적출판물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혁명적출판물의 성격과 사명, 출판사업에서 주체와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고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관철할데 대한 혁명적원칙 등 출판보도사업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제문제들을 전재적으로 해결하심으로써 혁명적출판보도물과 출판보도사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새롭게 발전시키시고 우리의 당적출판보도물들이 나아갈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선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을 유일사상체계로 무장시켜야 하며 특히 선전일군들자체부터 유일사상체계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이께서는 독창적인 출판보도사상에 기초하시여 1967년 5월 25일교시와 1968년 1월 3일교시를 비롯한 여러 교시들에서 우리의 당적출판보도물들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과 그 수행방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출판보도사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꾸리고 출판보도일군후비를 키우는 문제로부터 기자, 편집원들의 건강과 취재집필활동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문제에 크나큰 관심을 가지시고 육친의 정으로 극진히 보살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0년에 또다시 매해 10월 14일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송절로, 11월 1일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판절로 제정하도록 극진한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우리의 통신, 방송, 신문, 잡지, 도서 등 당적출판보도물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끊임없는 육친적배려밑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수립하며 그이께서 제시하신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과 방침들을 적극 옹호관철하는 사상적무기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1970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중앙방송개시 스물다섯돐과 《로동신문》창간 스물다섯돐을 뜻깊게 기념하였으며 교육도서출판사는 창립스물다섯돐(12월 22일), 고등교육도서출판사는 창립열돐(12월 28일)을 맞이하였다.

##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조선중앙방송 개시 스물다섯돐을 성대히 기념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하신 수령님의 력사적인 개선연설을 방송의 첫 전파에 담아 온 세상에 전한 1945년 10월 14일로부터 스물다섯해가 되는 날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이날에 즈음하여 1970년 10월 14일 평양대극장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조선중앙방송개시 스물다섯돐기념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기념회장정면에는 우리 혁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고계시는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가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어버이수령을 몸가까이 모시게될 영광의 시각을 앞두고 우리 방송이 걸어온 길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는 기념회 전체 참가자들의 가슴은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에로 이끌어주고계시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와 열화같은 충성심으로, 그이의 혁명전사된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끓어넘치고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모두 일어서서 장내를 진감하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의 우렁찬 환호와 그칠줄 모르는 우뢰와 같은 박수로서 어버이 수령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만세의 환호와 박수가 오래도록 계속되는 가운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녀성기자들이 우리 나라 전체 방송일군들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어린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기념회에서는 먼저 조선중앙방송위원회기자, 편집원, 번역원, 방송원, 방송예술인,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내각의 축하문이 전달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방송선전사업에서 맡겨진 임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방송일군들을 표창하시고 선물을 보내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날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전체 기자, 편집원, 번역원, 방송원, 방송예술인,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중앙방송개시 스물다섯돐을 기념하는 방송예술단의 공연을 보시였다.

1945년 10월 14일, 조선중앙방송이 처음으로 개시된 때로부터 지난 25년간 조선중앙방송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육친적인 사랑속에서 영광찬란한 길을 걸어왔으며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옹호보위하고 그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사명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조선중앙방송은 해방직후 복잡한 정세하에서 새 조국건설의 방향을 환히 밝혀준 당의 정치로선으로 전체 인민들을 무장시켜 그들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의 성과적수행과 혁명기지를 튼튼히 꾸리는 투쟁에로 조직동원하였다.

또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수령의 위대한 군사사상과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으로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을 교양하며 그들을 미제를 무찌르는 불멸의 위훈에로 불러일으켰으며 당의 목소리를 잠시도 중단하지 않고 전함으로써 자기에게 맡겨진 전투적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전후시기 조선중앙방송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우리 당의 독창적인 로선과 방침으로 전체 인민들을 무장시킴으로써 그들을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천리마의 대고조에로 강력히 고무추동하였으며 전후 짧은 기간에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고 당의 유일사상,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기초한 전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이룩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한 조선중앙방송은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널리 해설선전하여 남조선혁명을 촉진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큰 공헌을 하였을뿐만아니라 우리 당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폭넓게 선전하며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폭로규탄하고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을 적극지지성원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국제적

련대성을 강화함에 크게 기여하였다.

오늘 우리의 방송은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방송일군대렬과 튼튼한 현대적인 물질기술적토대를 가진 위력한 방송으로 장성강화되였으며 그 영향력은 백두산밀림산마을로부터 제주도의 어촌에 이르기까지의 조국의 방방곡곡은 물론 대륙과 대양을 지나 아세아와 구라파,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온 지구상에 미치고있다. 전체 인민들을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문명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는 어버이수령의 원대한 구상과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전국의 유선방송화, 라지오방송화가 실현되였으며 텔레비죤화가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념회에 참가한 방송일군들은 앞으로 전체 인민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더욱 철저히 무장시켜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고 우리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며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계속강화함으로써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야 할 혁명과업수행에로 적극 조직동원할 영예로운 과업을 빛나게 수행할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기념회에서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우뢰와 같은 박수속에서 채택되였다.

##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로동신문》 창간 스물다섯돐을 성대히 기념

1970년 12월 20일 평양대극장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로동신문》 창간 스물다섯돐기념보고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보고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주체사상과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창시하시고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과 강력한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당과 인민을 혁명의 전국적승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에로 확고히 령도하고계시는 혁명의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가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어버이수령을 몸가까이 모시게될 영광의 시각을 앞두고 우리의 당적출판물이 걸어온 길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는 기념보고회 전체 참가자들의 가슴은 맑스-레닌주의적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드시고 우리 혁명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하시면서 근 반세기동안 조선혁명과 혁명적출판물들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확고히 이끌어주고계시는 혁명의 위대한수령이시며 우리 기자, 편집원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와 열화같은 충성심으로, 수령님의 문필전사된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끓어넘치고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모두 일어서서 장내를 진감하는 우렁찬 환호와 그칠줄 모르는 우뢰와 같은 박수로서 어버이 수령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만세의 환호성이 계속 높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께 기자들이 로동신문사 전체 기자, 편집원들을 비롯한 우리 나라 전체 출판보도일군들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어린 향기그윽한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보고회에서는 먼저 《로동신문》 기자, 편집원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널리 해설선전하여 그 옹호관철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출판보도사업에서 맡겨진 임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로동신문사 기자, 편집원들과 인쇄공장 종업원들을 표창하시고 선물을 보내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날 로동신문사 기자, 편집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1945년 11월 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밑에 창간된 《로동신문》은 지난 25년간 경애하는 수령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며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보장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로동신문》은 당의 통일을 좀먹던 온갖 경향들과 부르죠아사상, 봉건유교사상 등 온갖 반동적사상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한편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속에서 수령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무조건 옹호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우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함으로써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우리 당의 통일 단결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신문은 수령께서 제시하신 당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철저히 세우도록 노력함으로써 당조직들의 령도적역할과 전투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하였다.

신문은 확고한 혁명적원칙성과 날카로운 필치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온갖 기회주의를 폭로비판하고 주체를 튼튼히 세우며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관철하는 투쟁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동원조직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이룩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로동신문》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위대한 수령의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 전략과 전술을 철저히 옹호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였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끊임없는 혁명적대고조에로 힘차게 불러일으켰다. 이리하여 신문은 공화국북반부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고 우리 나라를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와 필승불패의 자위적국방력을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키는 력사적위업을 실현하며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로 키우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신문은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인 방침을 널리 해설선전하며 그 관철에로 인민들을 힘차게 불러일으키는 사업과 우리 당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폭넓고 깊이있게 해설선전하며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폭로규탄하고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 사업에서도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

기념보고회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수령의 독창적인 출판보도사상과 그이께서 내놓으신 출판보도사업의 혁명적원칙들과 전투적과업들을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유일

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과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 경애하는 수령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전투적강령실천에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더욱 힘차게 불러일으킬것을 굳게 결의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우뢰와 같은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출판】** 출판보도부문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기 위하여 그이의 로작과 교시들을 출판보급하는 사업을 널리 조직하였다.

1960~1969년기간 출판인쇄기관들에서는 《김일성선집》과 《김일성저작선집》을 비롯하여 3천 900여만부에 이르는 김일성동지의 로작들과 800여만부에 이르는 그이의 혁명력사를수록한 도서들이 출판되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배포되였다. 1968년과 1969년 두해동안에만 하여도 이러한 로작과 교시집이 200만부이상이나 출판되였다.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교양에 필요한 김일성동지의 로작해설제강을 비롯하여 3천여만부에 이르는 여러가지 학습제강과 참고자료들을 출판보급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출판은 1961~1966년기간에 비하여 1967~1970년기간에는 가지수에서 2.8배, 부수에서 8배로 장성하였다.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번역출판은 1966~1967년기간에 비하여 1968~1969년기간에는 번역어문수에서 8배, 발행부수에서 11.5배로 장성하였다.

1970년에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1970년11월2일)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66년 5월 14일 언어학자들과 하신 담화 《조선어의 민족적특성을 옳게 살려나갈데 대하여》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0차전원회의에서 하신 결론 《지도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며 인민경제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1966년 10월 1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일군들앞에서 하신 연설 《당사업에서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없애며 일군들을 혁명화할데 대하여》 그리고 1963년 2월 8일 인민군부대 정치부련대장이상 간부들 및 현지 당, 정권 기관 일군들앞에서 하신 연설 《우리의 인민군대는 로동계급의 군대, 혁명의 군대이다. 계급적정치교양사업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등을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또한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63년 8월 16일 조선로동당 량강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하신 결론 《량강도 당조직들앞에 나서는 과업》과 1954년 3월 2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 《산업운수부문에서 나타난 결함들과 그것을 고칠 대책에 대하여》, 1965년 국가계획위원회 당총회에서 하신 연설 《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의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기 위하여》 그리고 1967년 7월 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6차전원회의에서 하신 결론 《당면한 경제사업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며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1970년에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문헌집 《청소년사업과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임무에 대하여》(1, 2)를 출판하였으며 그이께서 1969년 11월 4일 전국체육인대회에서 하신 연설 《체육을 대중화하여 전체 인민들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자》, 1961년 12월 23일 안주탄광 당핵심들과의 담화석상에서 하신 결론 《석탄공업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문헌집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1, 2, 3권), 《천리마운동과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에 대하여》를 내놓은데 뒤이어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는 경애하는 수령께서 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제109군부대 군인들과 하신 담화 《인민군대는 공산주의학교이다》와 1962년 2월 1일 황해남도 해주지구농업협동조합관리일군회의에서 하신 연설 《농업부문일군들은 혁명가적 기풍을 가지며 농촌경리지도사업을 더욱 개선하여야 한다》, 1965년 3월 26일 국가건설위원회 당총회에서 하신 연설 《새 환경에 맞게 건설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할데 대하여》 등을 출판보급하였다.

**【통신】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통신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에 직속하는 유일한 통신보도기관이다.

조선중앙통신사는 일간 《조선중앙통신》, 《사진통신》, 《영문통신》, 《로문통신》, 《프랑스문통신》, 《에스빠냐문통신》과 《조선중앙년감》을 비롯한 대내외선전사업에 필요한 출판물을 편집발행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사는 대외통신으로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구라파 방향 영문통신방송, 아세아, 아프리카, 구라파방향 프랑스문통신방송, 라틴아메리카방향 에스빠냐문통신방송, 구라파방향 로문통신방송을 하고있다.

**【방송】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에 직속하는 방송기관이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제1방송, 텔레비죤방송, 제2방송, 대외방송을 조직진행한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1964년 11월 29일에 국제라지오 및 텔레비죤방송기구에 가입하였다.

**【신문】** 우리 나라에는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로동신문》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을 비롯하여 각 사회단체기관지들, 각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신문들, 각 도와 평양시, 개성시에서 발행하는 신문들, 공장, 기업소와 국영농목장 및 대학들에서 발간하는 신문들이 있다.

1960~1969년사이에 우리 나라에서 신문인쇄능력은 2.8배로 늘어났다.

1970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근로녀성》 신문을 비롯한 여러신문들이 새로 편집발행되기 시작하였다.

**【잡지 및 도서】** 우리 나라에는 《근로자》를 비롯한 정치리론잡지, 《조선예술》을 비롯한 문학예술부문잡지, 《새세대》를 비롯한 학생소년잡지, 《오늘의 조선》을 비롯한 대외선전부문잡지 등 수많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있다.

1970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자들을 우리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도움으로될 《청년문학》, 《아동문학》 등을 비롯한 여러종류의 잡지들을 편집발행하였다.

1960~1969년기간 우리 나라 출판보도기관들에서는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하여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비롯한 혁명전통교양자료도서를 4천 550만부나 출판하였다.

# 인민생활향상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사회주의공업화와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을 실현하며 원쑤들의 침략책동에 대비하여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어려운 투쟁을 벌리면서도 경제가 발전하고 생산이 높아나는데 따라 인민생활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의 복리증진에 대한 배려, 이것은 공화국정부활동의 최고원칙입니다.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목적도 결국은 모든 인민의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며 그들의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려는데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62~563페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키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있는 우리 당은 근로자들의 생활향상과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시종일관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인민은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튼튼히 다졌으며 의식주문제를 자체로 해결할수 있는 확고한 물질적토대를 축성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이제는 식량문제가 완전히 풀렸으며 도처에 일떠선 닭공장에서는 1965년 한해동안에 생산하던 닭알과 닭고기 생산량을 오늘은 공업적방법으로 단 40일동안에 생산하게 됨으로써 해마다 7억개이상의 닭알과 많은 닭고기를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고있다.

또한 남새밭에 분수식관수체계가 도입됨으로써 남새생산의 공업화문제가 해결되어 인민들에게 사철 갖가지 신선한 남새를 공급할수 있게 되였다.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인민소비품생산이 급속히 장성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다종다양한 수요를 더잘 충족시킬수 있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생산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높아지는데 따라 근로자들의 실질수입을 부단히 장성시키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생산의 부단한 장성으로 이룩된 국민소득을 우리 나라 정세와 경제 발전의 요구에 상응하게 정확히 분배하도록 하심으로써 축적과 소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며 확대재생산의 높은 속도와 국방건설을 다같이 보장하면서도 인민생활을 급속히 높일수 있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확대재생산의 높은 속도와 국방건설의 성과적진행을 보장하면서도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원칙에서 국민소득을 잘 분배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릴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사회주의생산을 늘이고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는데 기초하여 근로자들의 화폐임금과 실질수입을 높이기 위한 온갖 대책을 강구할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모든 근로자들의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러가지 사회문화적시책에 더 많은 국가투자를 실시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63페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서는 생산과 로동생산능률의 부단한 장성에 기초하여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화폐임금을 부단히 장성시켰다. 낮은 임금을 받는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보통교육부문 교원들의 로임이 높아진데 뒤이어 내각결정 제70호(《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임금을 올릴데 대하여》)에 의하여 1970년 9월 1일부터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임금을 평균 31.5%나 올리는 획기적조치가 취해졌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많이 올리고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적게 올리는 원칙에서 모든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월평균임금을 70원에 이르게 하였다.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폭 올린 이러한 조치는 우리 당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기초하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계통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종일관 견지하고있는 인민적시책의 빛나는 구현으로 된다.

우리 당이 인민생활을 향상시킴에 있어서 주의를 돌린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로동자들의 생활수준과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균형적으로 높이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더욱 줄이며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수준을 계속 높이면서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여기에 접근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농업생산을 훨씬 더 높이는 동시에 협동농장들과 농민들의 부담을 계통적으로 덜어주어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71페지)

우리 당은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빨리 높이기 위하여 농업현물세률을 부단히 낮추어오다가 그것을 완전히 없앴으며 농산물의 수매가격을 올리고 농기계작업료와 관개사용료를 낮추는 등 농민들에게 막대한 국가적혜택을 주었다.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또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서는 농촌의 모든 생산적기본건설들을 국가자금으로 건설하여 주었으며 국가부담으로 농민들에게 문화주택을 지어주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나온 이듬해인 1965년부터 1969년에 이르는 5년동안에만 하여도 공화국정부에서는 국가투자에 의하여 농촌에 5천 200개의 고정탈곡장과 7천 800동의 건조장을 비롯하여 수많은 정미소와 창고, 저장고 그리고 그밖의 협동농장생산시설들과 30만세대의 농촌문화주택, 탁아소, 유치원, 진료소 등을 비롯하여 각종 문화후생시설들을 건설하여 주었으며 많은 농기계들을 무상으로 공급하였을뿐만아니라 각종 영농기자재들을 또한 눅은 값으로 대주었다.

1961~1969년동안에 우리 농민들은 국가로부터 거의 17억원의 추가적인 혜택을 받았다.

농업생산이 높아나고 농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국가적시책이 실시되는데 따라 1961~1968년동안에 농호당 알곡분배량은 1.8배, 현금분배는 2배로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에 농민들의 실질수입은 1.8배로 높아졌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우리 농민들은 세상에서 처음으로 온갖 세금부담에서 해방된 행복한 농민으로 되였으며 그들은 오늘 수령께서 마련하여주신 아담한 문화주택과 탁아소, 유치원, 진료소, 아동병동 등 갖가지 문화후생시설들을 갖춘 부유하고 문명한 사회주의농촌에

서 기계와 전기, 화학의 힘으로 농사를 지으며 의식주와 자녀교육, 병치료에 대한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행복하게 살고있다.

어버이수령께서는 근로자들의 실질임금과 구매력을 높이기 위하여 생산의 급속한 발전과 로동생산능률의 끊임없는 장성에 기초하여 직물류, 아동용품을 비롯한 수천종의 일용필수품들의 가격과 봉사료금을 대폭 낮추도록 하여주시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서는 7개년계획기간에 10여차례에 걸치는 대폭적인 물가인하를 실시하여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으로 50여억원에 달하는 혜택을 베풀어준데 뒤이어 1970년에 또다시 닭알을 비롯한 일부 소비품의 값을 낮추었다.

소비품의 가격을 낮춤에 있어서 우리 당은 대중소비품과 아동용품의 가격은 기호품과 사치품, 공급량이 제한되여있는 물건의 가격에 비하여 보다 큰 폭으로 인하하고 낮은 수준으로 정함으로써 화폐수입이 각이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에 일정한 균형을 잡도록 깊은 배려를 돌렸다.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적분배의 싹은 더욱 발전하여 근로자들은 로동에 의한 분배외에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을 많이 받았다. 1969년에만 하여도 1960년에 비하여 사회문화시책비는 2.1배로 늘어났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서는 농촌어린이들에게 눅은 값으로 겨울옷을 공급하여 주었으며 모든 어린이들과 인민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 겨울옷과 솜외투를 비롯하여 신발과 모자에 이르기까지 겨울나이에 필요한 모든것을 눅은값으로 공급하여 주었다.

녀성들의 사회적진출을 보장하며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도 세심한 배려가 돌려지고있다. 훌륭한 설비를 갖춘 탁아소, 유치원망이 확장되고있으며 3명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녀성들에게는 6시간일하고 8시간의 로임을 지불하는 혜택이 베풀어지고있다.

또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사업에 대한 국가적지출이 계속 증대되고있다. 우리 나라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협동농장원들은 휴양소와 정양소들에서 무료로 즐거운 휴식을 보내는 혜택을 받고있다.

국가는 영예군인들과 전사자가족들, 애국렬사유가족들에 대하여 지극한 배려를 돌리고있으며 년로자들의 생활까지 세심히 돌보고있다.

1960~1969년기간에 사회문화시책에 의하여 근로자들이 받은 추가적수입과 거저주나 다름없는 식량공급, 국가부담에 의한 어린이들의 옷공급, 무료교육, 무상치료, 유급휴가 등 국가로부터 받은 추가적혜택의 규모는 로동자, 사무원의 경우에는 그들이 받은 로임총액과 거의 맞먹으며 농민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번 화폐수입의 거의 50%나 된다. 이것은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다같이 빨리 높이기 위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육친적배려와 우리 당의 인민적시책의 뚜렷한 표현으로 된다.

공화국정부에서는 근로자들의 살림집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이 부문에 방대한 자금을 지출하였다.

그리하여 평양시에서는 1970년에 우리 당 제5차대회를 앞두고 단 5개월 남짓한 기간에 세계 1등급의 천리마거리와 서성거리를 일떠세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극진한 보살핌에 의하여 새로 일떠선 이 거리에는 매 세대마다 중앙열난방이 들어간 여러칸의 방들에 목욕실을 비롯한 모든 문화적인 시설을 갖춘 수천세대의 다층주택들이 즐비하게 일떠서 수도시민들의 생활을 더욱 알뜰하고 편리하게 하였다.

농촌에도 아담하고 쓸모있는 살림집들이 수많이 건설되여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더욱 높이였다.

1961~1969년동안에 도시와 농촌에 80만세대의 문화주택이 새로 건설되여 근로자들의 주택조건을 더욱 개선하였다.

우리 당의 인민적인 상업정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상품류통분야에서는 벌써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가 없어졌으며 산간벽지에까지도 도시에서와 꼭같은 상품이 다 들어가고 나라의 어디에서나 유일한 가격에 의하여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그리하여 근로자들의 다양한 상품수요를 더 잘 충족시킬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은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부문의 발전에 거대한 배려를 돌림으로써 보건시설들이 큰 규모로 확장되였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의료봉사는 더욱 개선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사람들의 수명은 해방전에 비하여 26년이상이나 연장되였다.

7개년계획기간에 우리의 도시와 농촌을 더욱더 아름답게 건설하며 우리 인민의 모든 생활을 넉넉하고 문화적이고 더욱 즐거운것으로 만드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구상이 오늘 빛나게 실현되였다는것을 우리의 현실이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모든것은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향상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있는 우리 당의 인민적시책에 의해서만 실시될수 있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가능한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러기에 세상사람들은 《사회주의조선이 한없이 부럽다》, 《훌륭한 지도자를 모시고있는 조선인민은 정말 행복한 인민이다》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보람차고 유족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는 조선인민에 대한 부러움을 금치못하고있다.

# 상 품 공 급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의 상업은 본질상 근로자들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으로서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복무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서 상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상업은 생산과 소비를 련결시키며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련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상업을 발전시키지 않고는 공업과 농업을 더욱 발전시킬수 없으며 로농동맹을 강화할수 없으며 인민생활을 높일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2권, 1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상업이 노는 이러한 역할로부터 출발하시여 상업부문에 커다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이의 탁월한 령도와 극진한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생산이 늘어나고 근로자들의 구매력이 높아지는데 맞게 상품공급사업이 더욱 개선되였다.

**【상업망의 확장】**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1년 전국상업일군열성자회의와 1962년 9월 각 도인민위원회위원장들의 협의회를 비롯한 일련의 회의들에서 우리 나라 상업의 발전방향을 정확히 밝혀주시였을뿐만아니라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가운데서도 상업발전을 위하여 1천 200여차례의 교시를 주시였으며 수도의 백화점으로부터 농촌상점에 이르기까지 무려 430여차례에 걸쳐 친히 찾으시고 상업부문에서 해야할 일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상품공급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업망을 잘 포치하고 더욱 늘이며 상업시설들을 현대화하여야 할것이며 지역별, 계절별, 계층별 수요에 맞게 상품을 잘 배정하여야 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63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1970년에 상업부문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 많은 전문상점들과 직장상점들을 새로 더 조직하고 상업망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였다.

상업망을 근로자들의 생활단위에 최대한 접근포치할데 대한 우리 당의 원칙이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수많은 기본상업망과 각종 형태의 직매점과 직장상점 그리고 위탁상업망들이 도시와 농촌의 모든 지역에 뻗게되였다.

그리하여 산간지대에까지도 도시와 꼭같은 상품이 다 들어가고있으며 우리 농민들은 도시에서와 한가지값으로 필요한 모든 생활필수품들을 편리하게 사쓰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의 상품류통분야에서는 벌써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가 없어졌다.

상업의 기술적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하여 상업부문에서는 상업망의 표준화와 규격화를 실시하고 랭동 및 랭장체계와 저장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힘썼다. 그리고 상업활동을 더욱 문명하고 능률적으로 조직할수 있도록 상업의 작업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하고 상품진렬장, 보관장, 계산 및 계량 설비들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상업부문에서는 상점들에 가공반을 튼튼히 꾸리고 생산공장에서 미처 미치지 못하고있는 상품들을 자체로 생산하여 공급하도록 하였다. 천리마평양아동백화점의 경우 하나만 보아도 1970년뿐만아니라 해마다 무려 600여종에 달하는 세소상품과 27만매의 어린이옷들을 가공반에서 만들어 전국의 탁아소, 유치원에 공급하였으며 1960~1969년기간에 이 백화점에서 생산공급한 어린이옷은 213만매에 달한다.

【주문제 확립】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상업의 문화성과 봉사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업일군들의 사상의식을 끊임없이 높이는 기초우에서 상품품종을 다양하게 갖추고 인민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봉사할데 대하여 간곡하게 교시하시였으며 모든 상점들에서 반드시 근로자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싫어하는가를 잘알고 필요한 상품을 주문해서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께서 제시하신 주문제방침에 따라 도매상업체계를 중앙에 유일화하여 주문에 의한 통일적이며 계획적인 분배 및 공급 체계를 세웠으며 또한 소매상업에 대한 관리를 시, 군적으로 단일화하여 상품공급에서 주문제를 더욱 강화하고 지방의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있게하였다.

상점들에서는 수요조사카드와 대장을 만들어놓고 주문서작성의 기초자료로 삼았으며 수요연구대장에 근거하여 필요한 상품을 떨어지지않게 공급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소비품의 생산과 분배, 수요와 공급간의 균형을 정확히 유지해나갔다.

상업부문일군들은 주민들의 살림살이를 책임진 립장에 서서 상품수요정형을 조사하고 매가정들에서 요구되는 상품을 제때에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공장, 기업소나 협동농장의 포전에 상품을 가지고 나가 공급해주는 미풍을 발휘하고있다.

주민들에 대한 상품공급에서는 영양가높은 부식물들인 고기, 알류, 물고기, 남새 등의 공급이 급격히 장성되였다. 또한 질좋은 옷감들과 신발, 내의, 세타, 쟈케트 그리고 여러가지 문화용품과 각종 가정용품이 근로자들의 번천되는 생활상 요구에 맞게 더욱더 많이 공급되여 먹는문제와 입는문제를 더잘, 더 유족하게 해결할수 있게 하였다.

1970년에 전국의 상업부문에 사회주의경쟁을 호소한 천리마평양제1백화점에서는 주문제를 철저히 확립하여 1970년에 1964년에 비하여 무려 50%나 적은 류통비를 가지고 근 2배나되는 상품을 공급하였으며 상품의 가지수도 1.7배나 높이는 혁신을 일으키였다.

【편의봉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여러가지 식당을 더 설치하고 사회급양의 질을 개선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상 편의를 더 잘 도모하여야 할것입니다.… 이리하여 많은 가정부인들이 사회적로동에 참가하여 로동계급화, 혁명화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어야 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64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1970년에 상업부문에서는 사회급양과 편의봉사시설들을 늘여 근로자들의 생활상 편의를 더 잘 도모함으로써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수 있는 조건을 더잘 마련하여놓았다.

도시의 편의봉사시설들을 더 늘이고 현대화하는 한편 협동농장들에 양복점, 목욕탕, 리발소 등을 더잘 꾸려 농촌주민들에 대한 편의봉사를 개선하였다.

평양시를 비롯하여 각 도소재지들에서는 사회적공동주방인 밥공장, 반찬공장, 가족식당들과 함께 화학세탁소를 비롯한 크고 작은 세탁소와 옷을 짓고 수리하는 각종 편의봉사망들을 더 늘임으로써 우리 녀성들이 수공업적으로 하던 가정일을 사회적범위에서 맡아하도록 하였다.

1970년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교시를 받은 평양시 외성밥공장에서는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할데 대한 수령의 높은 뜻을 받들고 1천여세대를 대상하여 밥과 부식물을 공급함으로써 녀성들의 편리를 적극 도모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8차전원회의확대회의에서 하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렬차상업부문일군들은 렬차상업에서 봉사성을 높여 려행하는 손님들의 편의를 더욱 도모하기에 힘썼다.

【상업일군양성】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상업일군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영예감과 책임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근로자들에 대한 그들의 봉사성은 높아질것입니다. 상업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게 되면 상업일군들은 근로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성과 창발성을 내게 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2권, 15~16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상업일군들의 사상의식을 높이는것이 사회주의상업문제해결에서 가장 근본문제로 된다는것을 깊이 통찰하시고 상업일군들을 당에 무한히 충직한 일군들로 교양하기 위하여 상업기관들에 정치부지배인제를 내오게 하시였다.

그이의 독창적인 사회주의상업건설방침에 따라 상업부문에서는 상업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상업부문의 특성에 맞는 교양사업체계를 확립하였다.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상업일군들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으며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영예를 간직하고 봉사성을 더욱 높이였다.

우리의 상업일군들은 인민생활향상

을 위한 당과 수령의 깊은 배려의 직접적인 실현자라는 영예를 가지게 됨으로써 여러가지 봉사형식과 판매방법을 부단히 적용하여 상품공급에서 문화성과 봉사성을 더욱 높일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상업부문일군들을 체계적으로 교양하기 위하여 야간 및 통신 대학을 비롯한 일하면서 배우는 각급 학교들에서 재직간부들을 재교양하는 한편 1970년 9월 1일 새학년도부터 평양상업대학을 새로 내오게하심으로써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상업부문일군들을 적극 양성할수 있게 하시였다.

수령께서는 또한 상업신문과 상업잡지를 비롯한 여러가지 교양수단들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이리하여 우리의 상업일군대렬은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붉은 녀성상업전사들로 튼튼히 꾸려지고 인민의 참된 봉사자로 자라남으로써 오늘 우리의 모든 상점, 식당들은 전적으로 녀성들에 의하여 훌륭하게 관리운영되고있다.

상품공급사업에서 달성한 이상의 모든 성과들은 혁명의 위대한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상업건설 사상과 리론의 빛나는 승리이며 우리 당의 정확한 상업정책의 위대한 결실로 된다.

## 도시경영

우리 나라에서의 도시경영사업은 나라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 인민들의 문화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는 중요한 봉사사업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2년 9월 5일 《도시경영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와 1964년 2월 10일에 주신 력사적교시 그리고 1966년 7월 6일 평양시 모란봉구역 천리마북새동에 주신 교시를 비롯하여 도시경영사업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갈 강령적교시들을 주시였다.

어버이수령께서는 1970년 한해에만 하여도 도시경영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무려 수십차례에 걸쳐 교시를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도시를 아름답고 아담하게, 인민들의 실생활에 편리하게 꾸리도록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제시하여주시였으며 도시관리에서 걸리고있는 일련의 문제들을 친어버이 심정으로 손수 현지에서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이 전개되여 지난기간 도시경영사업에서는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건물관리 및 구획정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거리와 마을, 자기의 직장과 학교 그리고 자기 가정을 늘 깨끗하게, 문화적으로 꾸려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183페지)

경애하는 수령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1970년에 도시경영부문에서는 수령의 현지교시대상들을 위주로 하면서 우리 당 제5차대회를 맞이하여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비롯하여 대상건물들과 시설물을 관리 및 보수하며 도시를 미화하는 사업에 력량을 집중하였다.

그리하여 평양시, 함흥시, 원산시를 비롯한 6개도시들에 19개의 지역들과 92개의 대상들, 도시와 마을이 보다 알뜰하고 위생문화적으로 꾸려졌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리원시를 모범도시로 화려하게 꾸릴데 대하여서와 평양시 천리마거리와 서성거리를 세계1등급의 현대적인 도시로 꾸릴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수령의 교시가 빛나게 관철되여 사리원시와 천리마거리, 서성거리는 현대적으로 꾸려졌으며 새로 형성된 이 거리의 건물과 구획들은 더욱 아름답게 정비되였다.

도시경영부문에서는 강서도시경영사업소를 모범기업소로 잘 꾸리고 전국에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켰으며 각 도들에서도 시범단위를 만들고 일반화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함남도 도시경영관리국일군들은 신포시 련호동을 시범단위로 선정하고 울타리, 도로포장, 석축공사, 구획정리, 건물내부타이루붙이기, 도장작업, 어린이놀이터와 공동빨래터 건설 등 도시미화사업을 조직진행하고 시범상학을 조직하여 그를 매개군들에 일반화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의 주택과 공공건물들은 인민생활에 편리하게 더잘 꾸려졌다.

도시경영부문에서는 건재상점들을 잘 운영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수용자재를 적극 보장해주는 한편 지방자체로 자재를 생산보장하는 사업도 적극 밀고나갔다. 평남도, 자강도를 비롯한 많은 도들의 도시경영관리국산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리용하여 자체의 세멘트생산기지를 꾸리고 도시경영관리와 보수에 필요한 세멘트를 기본적으로 해결하였으며 벽돌, 소석회, 보일유, 못, 토관 등도 자체로 생산보장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오랜 세월을 두고 우리 조상들이 상상조차할수도 없었던 문명에로의 위대한 비약이 일어났으며 우리의 도시와 농촌, 산간마을과 어촌 그어데나 할것없이 그 면모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였다.

**【도로정비 및 관리】** 1970년에 도시경영부문에서는 평양시 모란봉구역 천리마북새동의 모범을 일반화하여 주택주변의 도로를 규모있게 정리하고 포장하는 사업을 계속 줄기차게 벌렸다.

그리하여 도로를 한결 아담하고 쓸모있게 더잘 꾸렸다.

평양시에서는 천리마거리와 서성거리를 비롯한 새로 일떠선 주택구획정리에 힘을 집중하여 지대를 고르고 아빠트주위의 길들을 아담하게 포장하였다.

우리 당 제5차대회를 맞이하여 각 도시내 도로를 보수정비하고 마사진 보도블로크를 바꾸는 한편 인민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새로운 구간을 콩크리트, 아스팔트, 돌들로 포장하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여 도시의 문화성을 일층 높이였다.

이밖에도 도시도로와 강하천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개선하기 위하여 기관, 기업소, 동 별로 관리구간을 설정하고 그를 자체로 관리사업을 잘하도록 하였다.

**【상하수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소 도시주민들과 근로자들의 가정을 찾으시여 상하수도시설과 물을 알뜰히 관리할데 대하여서까지 극진히 보살펴주시였다.

어버이수령의 뜨거운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크고 작은 도시와 많은 농촌에 이르기까지 상하수도시설이 계속 늘어났다.

평양시에서는 남강수원지확장공사를 비롯하여 여러 수원지가 보강되여 물생산량이 훨씬 늘어났으며 상하수도망도 더욱 늘어나 도시주민들에게 물을 더욱 원만히 공급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께서는 도시뿐만아니라 농촌산간오지의 주민들에게까지 생명수를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주시였다.

그리하여 도시는 물론 농촌에까지 상하수도시설이 대대적으로 늘어나고 그 장비정도가 강화되고 상하수도시설들의 능력이 한층 높아지게됨으로써 우리의 도시와 농촌은 더욱 아름답고 문명하게 되였다.

과거에는 하수도가 정비된 도시란

하나도 없었던 우리 나라에는 1960—1969년기간 4천 700여리에 달하는 오수망이 건설되였으며 도시안에는 오수망, 우수망이 대대적으로 건설되여 인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게되였다.

【열 및 온수 난방】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평양에 중앙난방체계를 세우시기 위한 대담한 조치를 취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중앙난방을 관리운영할 사업소를 친히 꾸려주시고 방바닥에 관을 넣어서 온돌식으로 난방을 할데 대하여서까지 가르쳐주시였다.

그리하여 지금 평양시에는 송수관과 난방관이 수많이 새로 건설되여 공공건물에 중앙난방이 더 많이 설치운영됨으로써 근로자들은 더욱 편리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수 있게 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열공급부문에서는 헌신적투쟁을 벌려 창의창발성을 발휘한 결과 열관리사업에서 획기적전진을 가져왔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중앙난방이 운영되던 1967년 12월 6일 어버이수령께서는 평양시 평천구역 안산2동 18호동의 아빠트를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온수온돌이 놓인 방들을 돌아보시고 조선사람은 예로부터 아래목을 덥게하고 웃목은 서늘하게했는데 아래목에는 관을 더 넣어서 더운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래목에서 자고 서늘한데를 좋아하는 사람은 웃목에서 자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방의 온도가 너무 더운것 같다하시며 관의 간격을 좀 넓게하여 온도를 조절하게 하고 관을 절약하여 평양시를 다 이렇게 하여야 하겠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 난방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도록 세심한 배려를 돌려주심으로써 도시경영부문에서는 보이라난방관리체계가 새로 세워지게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주택과 공공건물들에 열을 공급하고있으며 따라서 인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고있다.

【원림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육친적인 배려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문화휴식을 보장하며 도시의 문화성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도시원림화사업도 더욱 개선되였다.

주택지구와 공공건물주변의 구획정리를 잘하고 모든 공한지들을 다 리용하여 작은 공원과 화단들을 많이 꾸렸으며 도처에 나무를 많이 심어 도시의 문화성을 더욱 높이였다.

1969년에는 1960년에 비하여 공원과 유원지는 4.6배로 늘어났으며 평양동물원, 평양식물원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있는 동물원과 식물원의 규모가 확대되였다. 또한 새로 동물원, 식물원이 더 건설되여 우리 나라의 동물과 식물로 꾸려졌다.

도처에 크고 작은 공원들이 꾸려져 우리 나라는 가장 훌륭한 공원시설과 세계에서 가장 높은 록지면적을 가진 나라로 되였으며 근로자들에게 문화휴식을 더잘 보장하고 자연에 대한 산지식을 주며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정신을 키워주고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의 모든 도시들이 새로운 현대적시설을 갖춘 공공건물과 다층주택, 공원, 유원지로 전변되였으며 발전된 도로와 시설을 갖춘 도시로 그 면모를 일신하였다. 이 모든 것은 나라의 사회주의건설과 인민들의 물질문화적복리증진에 전적으로 복무하고있다.

# 보 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의 보건사업은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한사람도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을 기본으로 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제도에서 사람보다 더 귀중한 보배는 없습니다. 우리는 보건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더욱 증진시켜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33페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보건위생사업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우리 혁명발전의 매 시기와 매 단계마다에서 보건위생사업의 정확한 방향과 구체적인 방도를 제시하여주시면서 이 사업에 끊임없는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혁명적인 보건사업의 깊은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시였으며 보건위생사업의 고귀한 경험과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해방직후 보건위생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제반 국가적시책들을 제시하시고 도처에 보건기관들을 꾸려주시였으며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미제의 세균무기만행을 반대하는 전체 인민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고 혁명과 건설이 촉진됨에 따라 그에 상응하게 보건위생사업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보건분야에 구현하시여 사회주의의학의 기본인 예방의학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천재적인 리론을 창시하시였으며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여 예방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진행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보건위생사업발전의 지도적지침으로 되는 원칙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제시하심으로써 이 사업을 짧은 기간에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배려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들의 평균수명이 해방전에 비하여 26년이상이나 길어졌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보건부문에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1970년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는 전국위생방역일군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먼저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관철하는 길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를 총화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관철하는 길에서 중앙으로부터 도, 시, 군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위생선전사업체계가 수립되고 모범위생군창조운동이 군중적으로 힘있게 벌어진 결과 창성, 삭주, 양덕군을 비롯한 거의 모든 시(구역), 군들이 2중모범위생군 또는 모범위생군으로 되거나 그 수준에 이르렀으며 로동위생, 식료위생, 어린이위생 사업이 더욱 강화발전되였다.

또한 예방접종과 방역사업이 철저히 실시되고 근로자들의 전반적생활수준이 훨씬 높아짐으로써 우리 인민은 60청춘에 90환갑을 노래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보건부문에 주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위생방역부문일군들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경애하는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할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그들은 주민들속에서 위생선전사업을 강화하고 위생문화사업과 방역

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모든 주민들의 위생문화수준을 한층 높이고 거리와 마을, 일터와 가정을 보다 위생문화적으로 꾸리며 농촌수도화를 도와 근로자들의 건강을 더잘 보호하며 6개년계획기간에 모든 군을 2중모범위생군으로 만들며 모든 리를 《병없는 리》로 만들것을 결의하였다.

회의에서는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맹세문이 전체 참가자들의 우렁찬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이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며 위생방역사업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위생방역】**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보건사업에서 예방의학적방침을 확고히 견지하며 도시와 농촌에서 위생방역사업을 일상적으로 힘있게 진행하여야 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34페지)

경애하는 수령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1970년에 위생방역부문에서는 근로자들이 병없이 건강하고 튼튼한 체력으로 혁명투쟁에 헌신분투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서 창의창발성과 적극성을 더잘 발휘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촉진시키는데 훌륭히 이바지하였다.

위생방역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들의 위생문화수준은 비상히 높아지고 도시와 농촌, 거리와 마을이 가장 우월하고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에 맞게 위생문화적으로 꾸려졌으며 온 나라에는 위생방역망으로 뒤덮인 철벽의 방역진이 형성되였다.

예방접종사업과 방역사업을 철저히 실시한 결과 특히 최근년간 세계적범위에서 코레라가 류행되고 남조선의 넓은지역에 이것이 퍼져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빼앗기고있을 때에도 우리 나라에서는 철저한 위생방역진을 펴고 위생방역사업을 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코레라가 들어오는것을 철저히 막아냈다. 인민군대내 위생방역일군들이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여 인민들과의 밀접한 련계밑에 코레라의 침습을 철저히 막아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위생방역부문에서는 특히 3—4월, 9—10월 위생월간에 공장, 기업소, 농촌의 로동위생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로동보호시설들과 산업위생시설들을 완비하며 개인보호용구들을 위생학적요구에 맞게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식료품의 생산과 공급에서 철저한 위생문화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식료부문일군들에 대한 위생교양사업과 위생검열사업을 강화하였다.

또한 사로청, 녀맹, 직맹, 농근맹단체들에서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일상적으로 근로자들속에 보건위생지식을 보급선전하며 모든 학교들에서는 《학생문화위생근위대》의 역할을 높이어 그들이 도처에서 위생 선전사업을 진행하여 위생방역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인민대중을 위생방역사업에 망라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과 조직사업을 틀어쥐고 나갔다. 도, 시, 군 위생지도위원회가 해당 단위에서 위생문화사업전반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만큼 지방정권기관들은 해당 위생지도위원회와의 밀접한 련계밑에 한 단위에 모범을 창조하고 그를 일반화하는 혁명적 사업방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모범위생가정, 모범위생인민반 창조사업으로부터 모범위생직장, 모범위생군 창조운동에 이르기까지 모범위생단위창조운동을 강화하였으며 이 사업을 천리마작업반쟁취운동과 결부시켜 힘있게 밀고나갔다.

그리하여 1970년에 중앙위생지도위원회로부터 모범위생군들인 평북도 창성군과 평남도 양덕군이 2중모범위생군 칭호를, 48개의 군(시, 구역)이 모범위생군(시, 구역)칭호를 받았다. 우리 나라에서 모범위생군 칭호를 받은 군(시, 구역)수는 1970년현재 2중모범위생군을 포함하여 모두 187개나 된다.

**【예방치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6년 10월 20일 보건일군들앞에 주신 《사회주의의학은 예방의학이다》라는 강령적교시에서 가장 선진적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그 우월성에 맞게 인민들이 한사람도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을 의학의 기본으로 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의 교시에 따라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예방을 기본으로 하는 전반적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더 많이 받게 하기 위한 물질적토대를 충분히 갖추기 위하여 보건부문에 대한 자금지출을 증대시킴으로써 1970년에 291개의 병원 및 진료소들을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전으로 새로 세웠다.

우리 나라에서는 7개년계획기간에 인민보건사업이 더욱 발전하여 1969년에만보아도 1960년보다 치료예방기관수는 1.3배, 그 침대수는 2.5배, 의사 및 준의수는 3배로 늘어났다.

우리 나라에서는 경애하는 수령의 독창적발기에 의하여 사회주의보건조직에서 가장 선진적인 의사담당구역제가 실시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시, 군 인민병원들과 리진료소들을 늘이고 거기에 의사들을 많이 배치하여 선진적의료봉사제도인 의사담당구역제를 가까운 기간에 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곳에 산원, 소아과병원, 결핵병원을 비롯한 전문병원들을 새로 내오며 주요한 온천, 약수 지대에 료양소를 더 많이 지어야 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33～134페지)

경애하는 수령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보건부문에서는 모든 의료기관들과 의료일군들이 일정한 지역내의 주민들을 담당하여 그들에게 전문적인 의료방조를 해줄뿐만아니라 의료일군들이 매개 가정과 직장에 일상적으로 나가서 병을 예방하고 그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고있다. 특히 여러가지 질병들을 예방하기 위한 집단검진, 예방접종, 화학예방사업이 널리 진행되여 우리 나라에서 몇세기동안 내려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던 고질적인 전염병들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는 산간벽지에 이르기까지 목욕탕, 리발소 등 각종 위생편의시설들이 더많이 꾸려졌으며 농촌문화주택들이 가는곳마다에 일떠섬으로써 농촌위생문화사업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 풍부한 온천과 약수가 대대적으로 개발되여 거기에 새로 수많은 료양소들이 설치되였다. 시중호료양소, 강서료양소를 비롯하여 수많은 중앙료양소들과 청학, 대동, 송화 등 새로운 지방료양소들이 설치되여 근로자들이 의사의 진단과 본인의 희망에 따라 1970년에도 경치좋고 풍경좋은 온천과 약수료양소들에서 치료를 받았다.

우리 나라에서는 영예군인들을 위하여 진료소, 영양제식당, 야간정양소와 편의봉사시설들을 갖춘 보양소도 운영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1950년 8월 19일에 창립된 천리마영예군인보양소는 1970년에 자기의 창립 스무돐을 맞이하여 조

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내각의 공동축하문을 받았으며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받았다.

**【어머니와 어린이 건강보호증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의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의 질병예방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주시였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실시할때에도 이들에게 그 혜택이 우선적으로 미치도록 하여주시였으며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할때에도 소아과와 산부인과부터 먼저 실시하도록 배려하여주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산원과 산과병동을 더 증설하고 모든 녀성들에게 해산방조를 주는 한편 산모들에 대한 산후보호를 더잘 하도록 77일간의 유급산전산후휴가를 주고있으며 자녀가 3명이상되는 녀성들의 로동시간을 6시간으로 줄이고 그들의 체질에 맞게 작업조건과 로동보호대책을 철저히 보장해주고있다.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이미 있던 탁아소의 수용능력을 더 높이고 현대적설비를 갖추어놓고 어린이 양육에서 위생문화성을 더욱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건강을 적극 보호하고있다.

우리의 어린이들은 나서 10일만되면 벌써 첫 예방약을 먹으며 그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곳곳에 소아과병원과 농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곳에 아동병동이 설치되여있다. 보건부문일군들은 탁아소, 유치원들의 위생관리와 영양관리를 비롯한 위생방역사업을 강화하며 아동병동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림으로써 어린이들을 병없이 건강하게 튼튼히 키우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보건일군양성 및 의학기술발전】** 각도마다 있는 의학대학과 수많은 고등의학학교들에서는 1970년에도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 당의 붉은 보건전사들을 수많이 육성하였다.

보건부문일군들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자신을 부단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내세웠다. 그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예방의학사상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며 수령님께서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돌려주신 커다란 배려와 고매한 덕성을 깊이 체득하며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한 고귀한 위생방역사업경험을 본받기에 힘썼다.

그리하여 보건일군들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신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하여 수령께서 마련하여 주신 우리 나라 인민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발휘하도록 적극 노력함으로써 도처에서 위급한 환자들에게 피와 살을 나누어 소생시킨 아름다운 공산주의적미풍이 높이 발양되고 있다.

천리마함흥의학대학병원 의료일군들은 환자치료를 위해서는 자기의 피와 살도 바친 경험을 살려 1970년에 또다시 74%의 전신화상을 입어 사경에 처한 환자에게 650여명의 피와 살을 바치고 끝없는 정성을 다하여 기적적으로 살려냈다.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발양하여 사경에 처한 조선경비대군인을 소생시킨 의료일군들, 사경에 처한 세 어린이들을 기적적으로 살려낸 신포시인민병원 의료일군들에 대한 이야기 등 환자들에 대한 치료는 우리의 붉은 보건전사들의 높은 정치도덕적풍모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7개년계획기간에만도 현대의학의 발전추세에 맞게 많은 의학연구소들을 새로 꾸려주시였으며 의학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할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마련하여주시였다.

그리하여 비루스조직배양에 의한 예방약생산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등 림상의학이 급속히 발전하고 조선사람의 각종 기준치에 대한 연구사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여 이 분야에서 우리 나라 의학은 세계적수준에 올라서게되였다.

의료부문일군들은 새로운 식도수술방법을 도입하여 어렵고 복잡한 식도수술문제를 성과적으로 풀고있으며 효능높은 수많은 약품들을 합성하여냄으로써 국가에 막대한 리익을 주었으며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국가에서는 현대적항생소의 약품생산기지와 합성제약기지 그리고 식물화학의약품생산기지들을 새로 조성하였으며 인나지트, 레보미찐, 피로찌정을 비롯한 새로운 약품들과 의료기구들을 생산공급하였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배려하에 무병장수하는 가장 선진적인 보건제도하에서 전반적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받으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이 모든것은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며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그 무엇이든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한없이 크고 뜨거운 배려의 결과이다.

#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혁명은 전조선혁명의 구성부분입니다.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것과 함께 남조선에서 혁명투쟁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79페지)

북반부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은 다같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통일적인 조선혁명의 구성부분으로서 호상 밀접히 련결되여있다.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은 조선혁명의 특성에서 흘러나온것으로서 그것은 다같이 조선혁명에 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과업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조국통일은 남조선혁명을 전제로 하는 조국통일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기치하의 통일이다. 그것은 단순히 분렬된 국토와 민족을 통합하는데 그치는것이 아니라 남조선에서 혁명을 일으켜 북반부와 같이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기초한 선진적인 사회제도를 수립할것을 지향하고있다.

따라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은 호상 통일적인 련관관계에 있으며 조국통일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촉진시킴과 함께 남조선혁명을 적극 추진시켜야할 과업이 우리 앞에 나서고있다.

1970년에도 전체 남북조선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강령적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기어이 우리 세대에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주기 위하여 거족적인 투쟁을 힘차게 벌리였다.

북반부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고 수령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과업의 실현을 다그쳐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는 한편 모든 힘을 다하여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북반부인민들의 지원밑에 자체의 힘으로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북반부형제들과 힘을 합쳐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전개하였다.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려는 조선인민의 이 숭고한 투쟁은 국제혁명력량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있다.

그리하여 이해에 조국통일을 한사코 방해한 국제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행정에서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과 국제적 련대성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은 가일층 추진되였다.

이해 정세발전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방침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해주었다.

《오늘 남조선혁명가들은 통일혁명당 조직들을 튼튼히 꾸리는 한편 그 두리에 애국적인민들을 굳게 묶어세우며 지하와 산속에서, 감옥과 교수대에서 영웅적인 반미구국투쟁을 벌리고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88페지)

1970년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투쟁에서 특별히 주목되는것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통일적인 맑스-레닌주의당인 통일혁명당의 지도밑에 지난시기 남조선혁명운동의 본질적 약점을 극복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운데 기초하여 혁명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우고 반미, 반파쑈투쟁을 더욱 확대발전시킨것이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이해에 더욱 힘차게 투쟁하였다. 이러한 투쟁행정에서 혁명대오는 보다 확대강화되였으며 혁명투쟁은 일층 앙양되였다.

## 영명하신 수령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끝없는 흠모와 충성

남조선혁명가들은 간고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나온 통일혁명당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남조선도처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지방조직들을 끊임없이 접수하고 각 지방에 통일혁명당 조직을 확대하며 그것을 더 잘 꾸리는 등 어려운 사업을 힘차게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남조선혁명가들은 통일혁명당의 지도밑에 남조선인민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우며 의식화, 혁명화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전개하였다.

통일혁명당은 지하의 어려운 환경에서 내온 자기의 기관지 《혁명전선》과 《통일혁명당목소리》 방송을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이께서 제시하신 남조선

# 수령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밑에 거대한 전진

## —1970년의 남조선인민운동개관—

혁명의 영재이시며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과 조국통일방침을 널리 해설선전하였다. 한편 그들은 지하에서 수령의 로작들을 출판하고 평양방송에서 수령의 연설들을 제때에 청취하여 학습하고 광범한 인민들에게 널리 해설선전하였다.

이리하여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속에서는 조선혁명의 최고뇌수이신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모시고 사는 보람과 긍지를 안고 그이를 끝없이 흠모하며 그이의 혁명사상을 절대화하는것을 생활의 철칙으로,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삼는 기풍이 더욱 철저히 서게 되였으며 그들의 가슴마다는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으로 불타오르게 되였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한결같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불세출의 영웅》으로, 《절세의 애국자》로,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의 위대한 태양》으로, 《민족통일의 유일한 중심》으로, 《4천만 조선인민을 한품에 안아주시고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로 높이 우러러 받들고 있다.

영명하신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가슴깊이 간직한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김일성원수님에 대한 존경과 신뢰,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을 하나의 지향으로 결속해주는 위대한 기발이다》, 《우리는 남조선인민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주위에 철석같이 묶어세우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것이다》라고 하면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야만적폭압하에서도 이르는곳마다에서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들을 수많이 조직하고 《김일성저작선집》을 비롯한 수령님의 불후의 로작들과 그이의 영광 찬란한 전기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을 깊이 있게 학습하였다.

남조선혁명가들은 자신들을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준비함과 함께 대중을 그이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기 위한 정치선전활동을 적극 벌리였다. 이러한 활동은 남조선 이르는곳마다에서 활발히 전개되였다.

부산과 충무, 속초와 묵호 등 광범한 지역을 무대로 하여 정력적인 혁명투쟁을 벌린 20여명의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김일성저작선집》을 비롯한 수령의 불후의 천재적로작들을 연구하면서 자신들을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해 힘쓰는 한편 로동자, 농민, 어민들속에 들어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이의 빛나는 혁명력사와 령도의 현명성 그리고 높은 덕성을 널리 해설선전하였다.

경기도내의 한 혁명가들의 집단은 로동자, 농민들속에 들어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혁명사상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아래 날로 륭성번영하는 공화국북반부의 찬란한 현실을 소개선전하면서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세우기 위하여 힘을 합쳐 싸우자》라는 내용의 삐라들을 경기도 일대에 수많이 뿌렸다.

남조선혁명조직들의 이러한 눈부신 활동의 영향아래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들은 수령님을 우러러 흠모하고 신뢰하면서 그이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힘차게 싸워나갔다.

이해 5월초순 충청남도에 사는 한 청년이 군중이 모인 어느 한 장소에서 《나는 김일성장군님의 충직한 전사이다》라고 우렁차게 웨치면서 일편단심 그이께 충성을 다할 굳은 결의를 표시하였을뿐만아니라 놈들에게 체포되여 감옥에 들어갔어도 《김일성장군님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다》라고 소리높이 웨친 사실, 남조선 강원도 어느 한 마을에 사는 10여명의 농민들이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정을 더는 억누를수 없어 대낮에 길가로 가면서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합창으로 부른 사실 등은 그 단적인 실례들이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정이 얼마나 높아가고있는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특히 여기에서 주목되는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열화와 같은 존경과 흠모의 정이 남조선의 광범한 계급계층속에 깊이 스며있으며 그들속에서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며 《김일성장군만세》를 웨치는것이 보편적인 사실로, 그 누구도 막을수 없는 대중적인 추세로 되고있는것이다. 또한 남조선인민들이 자기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경애하는 수령님께 의탁하고 있는 그것이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삼엄한 경계속에서도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그이의 영상을 우러러 힘과 용기를 얻고있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 참가한 통일혁명당 대표단단장은 그의 축하연설에서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심장마다에서 뜨겁게 고동치고있는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과 흠모의 정을 담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실로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에게 있어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자유와 해방의 구성이시고 통일단결의 유일한 중심이시며 그이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은 남조선혁명의 휘황한 등대이고 불패의 힘의 원천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바로 이러한 끓어번지는 흠모와 신뢰, 그이의 백전백승의 혁명사상을 받들고 그이께서 이룩하신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하여 싸우는 오직 그 한길에서만이 자유와 해방을 쟁취할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갖고 있기에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원수들의 광란적인 폭압속에서도 불사조마냥 굴함없이 싸우고있는것이다.

특히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보고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 인민들속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여기에서 끝없는 힘과 승리의 신심을 얻은 남조선인민들은 용기백배하여 반미구국투쟁에 더욱 거세차게 떨쳐나섰다.

그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보고를 들으니 새 힘과 용기가 막 솟구친다. 수령님께서는 당대회보고에서 남조선혁명발전로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시고 남조선혁명운동의 경험과 교훈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으며 금후 우리들의 혁명투쟁방향을 천재적으로 명시하여 주시였다. 우리는 수령님의 이 보고를 깊이 연구하여 뼈와 살로 만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할것이다》라고 격동적으로 말하였다.

참으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웅대한 강령은 남조선인민들의 혁명적열의와 승리의 신심을 무한히 북돋아주고 그들을 남조선혁명위업의 완수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키고있다. 그리하여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심장속 깊이 아로새기고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고 자유와 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결전장으로 더욱 과감히 나설것을 굳게 다짐하고있으며 바로 그 길에서 수령님의 혁명전사로서의 끝없는 행복과 보람을 찾고있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우리는 남조선혁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자체를 튼튼히 무장하며 전체 남조선인민들을 수령의 주위에 철석같이 묶어세우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싸워나갈것이다. 그리하여 적당한 때가오면 전인민적폭동으로써 혁명의 화약고를 폭발시키고 그 불길속에 원수들을 모조리 처넣을것이며 혁명은 승리할것이다》라고 억센 투쟁결의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투쟁속에서 이해 남조선에서

는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가들이 수많이 자라났으며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을 위력한 혁명력량이 더욱더 장성강화되였다.

## 대중적반미구국투쟁의 앙양, 혁명력량의 급속한 장성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4천만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군사파쑈독재를 반대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적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정치투쟁과 생존의 권리를 위한 근로대중의 경제투쟁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정치적자유를 위한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더욱 목적의식화하면서 그들의 민주주의운동을 로동자, 농민들의 정치투쟁과 밀접히 련결시키는것이 중요합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90페지)

이해 남조선혁명가들의 힘찬 투쟁에 무한히 고무된 남조선인민들의 생존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 전례없이 강한 반미적성격과 조직성, 련대성 완강성을 가지고 더욱더 확대발전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대중투쟁은 우선 그 규모와 참가인원수에 있어서 훨씬 증대하였다.

1월부터 10월말까지의 투쟁을 초보적으로 집계한데 의하더라도 1천 400여건의 각종 형태의 인민들의 투쟁이 일어났으며 이에는 110만여명이 참가하였다. 이것은 1969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투쟁건수에 있어서 약 117%, 참가자수에서 약 133%로 늘것으로 된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서 주목되는 측면의 하나는 원쑤들의 파쑈적폭압이 강화된 조건하에서도 남조선혁명의 령도계급인 로동자들의 투쟁이 보다 활발히 전개되였으며 그들속에서 자기의 조직을 가지려는 지향이 높아진것이였다.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파쑈악당들은 앙양되는 로동운동을 분렬와해시키며 탄압하기 위해 어용로조 《간부》들을 제놈들에게 더욱 충실한 졸개들로 갈아채우는 한편 로동자들의 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악법들과 반동적인 규제들을 수많이 조작해냈다.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도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은 더욱 발전하였다.

로동자들은 임금인상, 밀린 로임의 즉시 지불, 해고반대, 로동조건개선 등을 기본요구조건으로 제기하였으며 이와 함께 파쑈적인 악법의 개정 및 철폐, 로조활동의 자유보장, 단체협약의 체결, 인권유린반대 등 정치적성격을 띤 민주주의적요구들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로동자들의 투쟁에서 정치적요구의 비중이 1969년에 비하여 1.5배나 높아졌다. 로동자들은 이러한 요구조건을 관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한 결과 적들을 굴복시키고 생존과 민주주의적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적지않은 승리를 달성하였다.

로동자들의 투쟁에서 특히 주목되는것은 어용로조간부들을 배격하고 자기들의 진정한 조직을 가지려는 지향이 높아진것이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마방모산공장》 로동자들과 미국놈이 경영하는 《시그네틱스》에 고용된 로동자들의 투쟁 등에서 잘 보여주었다.

1월 17일 《마방모산공장》로동자 500여명과 72개의 섬유공장로동자들은 자기들이 《로조》를 결성하였다고 해서 적들이 핵심로동자 5명을 랍치감금하였고 이에 발맞추어 섬유부문의 기업주놈들도 72개의 중소공장들을 일제히 페쇄하는 횡포를 감행한데 격분하여 집단적으로 완강한 항의투쟁을 벌려 적들을 끝내 굴복시키고 조직을 고수하였다.

특히 서울시 평화시장내 피복공장로동자들이 권익옹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자체로 800여명을 망라하는 계조직으로서 《삼동회》라는 단체를 무은것 등은 오늘 남조선로동자들속에서 자기조직을 가지려는 지향이 더욱 높아가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로동자들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적들의 악랄한 책동으로하여 아직 《로조》결성이나 다른 이름을 가진 단체조직에 국한되고는 있지만 그 근저에는 자기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진정한 조직을 가져야겠다는 새로운 지향이 맥박치고있다.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에서 또한 새로운 측면은 산별로동자들의 투쟁에서 련대성이 강화된것이다.

이미 전해부터 임금의 75%인상을 요구하여 투쟁에 나선 부두로동자들과 임금의 69%인상을 요구하여 쟁의에 들어갔던 운수로동자들은 적들의 회유기만책동에 격분하여 이해 6월에 와서는 《하역로동자생활조건확보 대책협의회》라는 공동조직을 뭇고 련합투쟁을 벌림으로써 전례없는 산별로동자들간의 련대성을 강화하였다.

이것은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한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이 더욱 조직화되고 호상간의 련대성이 일층 강화되고있음을 보여주고있다.

이해에 남조선에서는 농민들의 투쟁도 완강하게 전개되였다.

그들은 경제투쟁을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반인민적농업정책을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하는 동시에 새 전쟁 도발책동에 미쳐날뛰면서 량곡과 농경지를 략탈하고있는 적들의 략탈만행을 반대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였다.

남조선농민들의 투쟁에서 특징적인것은 투쟁규모가 전례없이 확대되고 투쟁의 기본이 토지략탈과 각종 수탈을 반대하는데로 돌려지고있는것이다.

이것은 남조선농민들이 투쟁과정에서 점차 정치적으로 각성단련되여가고 있을뿐아니라 새로운 침략 전쟁도발에 미쳐날뛰고있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침략과 략탈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 있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자기조직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자신의 투쟁을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과 밀접히 결합시키는데 힘을 집중하였다. 청년학생들은 《상설학생 민권기구》, 《민주학생세력》 등의 조직을 무어가지고 투쟁하였으며 특히 《대학생련맹》이라는 전남조선적인 청년학생들의 조직을 내오고 그의 지도밑에 반파쑈민주화투쟁을 힘차게 벌렸다.

청년학생들은 4.19봉기 열돌을 맞으면서 《전국대학생련맹》의 명의로 《학생운동이 나아갈 길》이라는 백서를 발표했다. 여기에서 그들은 반파쑈민주화와 외세배격을 내용으로 하는 《반독재, 반매판, 반외세》 등의 구호와 함께 대중속에 들어가 대중을 깨우치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기본 군중들의 투쟁과 련합할데 대한 실천적과업들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11월 18일부터 서울시내 대학생들은 전태일청년의 분신자살을 계기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라》, 《근로조건을 개선하라》 등의 구호를 들고 근 10일간에 걸쳐 시위, 롱성, 단식투쟁을 벌렸다. 그들은 투쟁의 마지막 단계에 와서는 《로조결성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구호를 내걸고 《로동자 권익옹호를 위한 전국적범대학생련맹》과 로동자실태조사기구까지 만들것을 결의해 나섰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이 벌린 이투쟁은 청년학생운동이 로동자, 농민들의 대중운동과 실천적으로 결합시킴에 있어서 새로운 발전을 보이주었다.

이것들은 남조선청년학생들이 혁명투쟁에서 자신들이 놀아야 할 피랑자적역할을 인식하는데로부터 실천적으로 로동자들과의 투쟁뉴대를 이룩해가고있으며 통일적인 투쟁조직을 가지고 학생운동을 보다 높은 정치적성격을 띤 투쟁에로 발전시켜나가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서 특히 주목되는 다른 하나의 측면은 폭력적인 반미 투쟁이 매우 강화된것이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미제침략자들이 감행하는 민족적멸시와 야수적만행에 항거하는 반미투쟁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은 주로 미제침략군 주둔지역과 그 주변인민들속에서 벌어졌으며 이 투쟁은 투석전, 집단구타 등 폭력적성격을 띤 투쟁으로 발전하였다.

무엇보다도 남조선로동자들속에서 미제침략자들의 민족적차별대우와 비인간적만행을 반대하는 투쟁이 강화되였다.

초보적인 집계에 의하더라도 1월부터 10월까지 미제침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로동자들의 투쟁은 1969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3배로 늘었다.

3월 9일 경기도 부평지구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된 200여명의 조선인로동자들은 자기들의 생활권을 박탈하고 그대신 조선인로동자의 20여명분에 해당하는 로임을 지불하는 미국놈을 채용하려고 책동하자 《민족적차별을 하는 처사를 즉각 중지하라》는 구호를 내걸고 파업을 단행하였다. 또한 미제침략군주둔지역 100여명의 조선인로동자들은 자기들을 도적으로 몰아 방에 가두어놓고 지뢰탐지기로 몸을 수색하는 미제침략군놈들의 비인간적인 만행을 반대하여 롱성시위투쟁을 벌렸다.

미제침략자들의 민족적모욕과 만행을 반대하는 투쟁은 남조선의 도시주민들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벌어졌다.

5월 20일 경기도 파주의 2천여명 주민들이 미제침략군 제2사단 소속 야수놈들이 까닭없이 주민들을 마구 때리는것을 목격하고 사방에서 몰려나와 놈들에게 돌벼락을 퍼부었을뿐만아니라 도망치는 놈들을 뒤쫓아 2시간동안이나 미제침략군부대 정문앞까지 돌을 던지며 추격한 사실은 그 하나의 실례이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미제침략자들과 괴뢰도당의 전쟁정책과 파쑈통치를 반대하고 혁명의 결정적시기를 준비하기 위한 투쟁을 또한 힘차게 벌렸다.

우선 그들은 무장과 전투기술기재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을 보다 큰 규모에서 대담하게 벌리였다.

경상북도의 한 혁명가집단은 의정부에 있는 군수창고를 기습하여 여러 정의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를 탈취하였다.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에 사는 애국적주민들은 200메터의 지하도를 뚫고 미제침략군부대의 군수품창고밑으로 들어가 10개월간 연 7차에 걸쳐 군용통신기재와 다량의 군수품들을 지하도에 설치된 밀차로 실어냈으며 부산시내에 주둔하고 있는 애국적군인들은 주민들과 합세하여 동래구괴뢰륙군부대군수창고에서 500여상자 (40여만개)의 소총탄알을 군용트럭 2대에 실어날랐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군인들은 또한 도처에서 군용렬차를 전복시키고 군수창고들을 불살라버리였다.

경기도와 남조선 강원도, 서울지구 등 적들의 군사지휘통신망이 집중적으로 얽혀있는 지역들에서 군용지휘통신선과 경비전화선들이 매일과 같이 끊어져달아났으며 6월과 7월 진주발 부산행 군수렬차와 밀양—삼랑진사이의 군수렬차가 전복된것과 같은 렬차전복사건들이 도처에서 빈번히 일어났다. 뿐만아니라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4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미제침략군사령부내 군수창고를 불태워버렸고 6월에는 괴뢰서울고등법원 문서창고를 몽땅 불에 날려버리는 등으로 적들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였다.

이렇듯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의 전략전술적방침에 따라 객관적정세에 맞게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합법 및 반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 등 여러가지 투쟁 형태와 방법을 옳게 배합하면서 혁명투쟁을 힘있게 발전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혁명력량을 급속히 장성시켜나아갔다.

부산지구에서 활동한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큰 도시들과 동해안의 속초와 경상남도 남해안일대 그리고 제주도의 중요지역들에서 호상련계를 취하면서 도시 및 농어촌의 광범한 지역들에서 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완강하게 벌렸다. 전라북도 군산시의 한 혁명조직은 전라남도 고흥군, 령광군, 전라북도 옥구군 등 여러지역에서 그리고 충청남도와 서울지구의 혁명조직들은 충청남도 당진군 우강면과 서울시 영등포구, 동대문구에서 혁명조직을 늘이기 위하여 피어린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밖에도 남조선혁명가들은 경기도 인천시, 남조선 강원도 삼척군, 경상북도 울진군, 대구시 등지에서 혁명대오를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전개하였다.

남조선혁명가들은 이와 같은 투쟁을 통하여 로동자, 농민 등 기본군중들속에서 정치적으로 세련된 혁명적핵심들을 수많이 길러내였으며 통일혁명당 조직들을 보다 튼튼히 꾸리고 그 두리에 각계각층 인민들을 굳게 묶어세웠다.

이리하여 통일혁명당은 로동자, 농민들 속에 더욱 튼튼히 뿌리를 박고 남조선혁명의 통일적참모부로서의 그의 영향력을 확대강화하였다.

보는바와 같이 이해 남조선에서의 혁명운동은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 반파쑈민주화의 기치밑에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단계에서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적폭압을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투쟁을 적극 발전시키는것입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단행본, 89~90페지)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의 이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였다.

남조선에서 반파쑈민주화투쟁은 군사파쑈독재하에서 일어나는 합법적인 운동이다.

미제와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이 감행하고 있는 전례없는 파쑈폭압으로 남조선에서는 혁명조직들의 합법적활동과 맑스-레닌주의선전이 금지되고있을뿐만 아니라 애국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정당, 사회단체와 개별적인사들의 정치활동까지도 일체 허용되지 않고있다. 놈들은 《반공법》, 《국가보안법》등 각종 파쑈악법에 걸어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생존과 민주주의적권리를 위한 투쟁까지도 야수적

으로 탄압하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은 모든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가 말살된 암흑의 천지로 대중적 테로와 학살이 살판치는 인민의 도살장으로 되고있다.

그러므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군사파쑈독재를 그대로 두고서는 그 어떤 사회적진보도, 혁명력량의 급속한 장성도,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에 대하여서도 말할수 없다. 민주화투쟁은 곧 남조선인민들에게 전대미문의 야수적파쑈폭압을 들씌우고 있는 미제와 그 앞잡이인 박정희괴뢰도당의 군사파쑈독재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이며 나아가서 인민의 권익을 옹호보장할수 있는 인민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투쟁과 직결되여있다.

오랜 기간의 억센투쟁을 통하여 이 진리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된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들을 비롯한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은 생존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민주주의적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하여 왔으며 또 하고있다.

이해에도 광범한 남조선인민들은 남조선혁명의 참모부인 통일혁명당의 지도밑에 반파쑈민주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생존과 민주주의적권리를 위한 대중적투쟁을 세차게 벌리였다.

##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기 외래침략세력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남조선인민들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절박한 당면과업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전쟁정책을 파탄시키며 파쑈적폭압을 반대하고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390페지)**

남조선인민들앞에 나서고있는 당면과업에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남조선로동자들은 이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차게 벌렸다.

남조선로동자들은 영명하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북반부에 세워진 사회주의지상락원에서 행복하게 살고있는 북반부의 로동자들과 인민들의 보람찬생활에 무한한 고무를 받으면서 오직 수령께서 가리키시는 투쟁의 길에서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수 있다는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있다.

그리하여 남조선로동자들은 미제국주의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이 강행하고있는 전쟁정책을 저지파탄시키며 군사파쑈폭압을 반대하고 생존과 민주주의적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대중적투쟁을 더욱 세차게 벌리였다. 남조선로동자들의 이러한 대중적투쟁들은 남조선 전지역에 걸쳐 모든 부문을 포괄하면서 발전하였으며 투쟁규모에 있어서도 전례없이 확대되여갔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폭압과 가혹한 착취밑에서 그 어느 계급보다도 정치적무권리와 비참한 생활고를 겪고있는 남조선로동자들은 임금인상, 로동조건의 개선, 8시간로동제의 실시, 로조결성 및 그 활동의 자유 등의 요구를 내걸고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생존의 권리와 당면한 생활개선을 위한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은 주로 임금인상과 밀린임금의 즉시 지불, 해고반대와 로동조건의 개선 등을 요구하는 투쟁이였다.

이해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사이에 전개된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가운데서 임금과 각종 수당금의 인상, 밀린임금의 즉시 지불 등을 기본요구로 내걸고 벌어진 투쟁은 77.5%에 이르고있으며 이에는 12만 4천여명의 로동자들이 참가하였다.

이것은 1969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투쟁건수에 있어서는 2.1배, 참가자수에 있어서는 2.4배나 장성한것으로 된다.

남조선로동자들속에서 임금인상을 위한 투쟁이 급격히 늘고있는것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범죄적인 전쟁준비를 위한 군사비를 마련하려고 로동자들에게는 극도의 저임금정책을 실시하고있을뿐만아니라 응당 지불해야 할 기아임금마저도 2—6개월 지어 1년이상씩 내주지않으며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하여 그들의 피땀을 짜내고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남조선로동자들은 마소와 같이 혹사당하면서도 최저생계비의 4분의 1도 못되는 임금을 받고 있으며 그것도 제때에 받지못하고 있다. 괴뢰로동청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96개 공장, 기업소에서만도 3억여원의 임금지불이 밀렸으며 괴뢰건설부가 공개한데 의하면 군사도로, 항만 등 각종군사시설의 신설 및 확장공사에 강제로 동원시켰던 로동자들의 임금은 무려 29억원이나 내주지않았다고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남조선로동자들은 우선 살길 위하여 임금인상과 밀린임금의 즉시 지불을 요구하는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하였다.

임금 80%의 인상을 요구하여 나선 3만 4천여명의 철도부문로동자들의 투쟁, 임금의 100%, 상여금의 400% 인상을 요구하여 투쟁에 일떠서 자기들의 요구조건을 관철시킨 《서북항공회사서울지사》 종업원들의 투쟁, 임금 100% 인상을 요구하여 일떠선 《한국콜로야주식회사》 1천여명의 로동자들의 투쟁은 그 대표적인 실례들이다.

남조선로동자들은 임금인상과 함께 밀린 임금의 즉시 지불을 요구하여 완강하게 싸웠다.

서울시 《해성려객뻐스사업소》종업원 100여명이 기업주놈들의 인권유린행위를 반대하며 밀린임금의 즉시 지불과 대우개선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파업 동성투쟁을 벌리였으며 《삼호공업주식회사》 200여명의 녀성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의 즉시 지불을 요구하여 완강히 투쟁하였다. 전라남도 광주시의 《금성려객회사》의 뻐스차장과 운전수들 150여명은 자기들을 소나 말처럼 부려먹고도 석달동안 단돈 한푼 내주지않는 기업주놈의 횡포한 처사를 치솟는 분노로써 규탄하면서 밀린임금을 당장 내놓을것을 요구하여 파업을 단행하였다.

태평양의 팔도에 끌려가 고역을 당하고있는 200여명의 조선인로동자들이 6개월동안 밀려온 임금을 받아내기 위해 전해 8월에 벌렸던 투쟁에 이어 이해 2월 9일에 또다시 파업투쟁을 벌렸다.

이러한 완강한 투쟁끝에 로동자들은 기업주놈들을 굴복시키고 요구조건을 관철하여 나갔다.

임금인상과 밀린임금의 즉시 지불과 함께 생활권의 박탈을 반대하며 로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투쟁도 활발히 벌어졌다.

특히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된 남조선로동자들의 생활권박탈과 민족적박해를 반대하는 투쟁은 그때마다 원쑤들을 불안에 떨게 하였다.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된 인천과 부평의 조선인로동자 470여명은 적들이 조선인 로동자 100여명의 생활권을 박탈하려하며 민족적박해를 가하자 이를 반대하여 견결히 싸웠다. 경기도 파주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된 500여명의 조선인로동자들이 미제침략군 2사단 각 부대야전식당에 고용되여 있던 370여명의 조선인로동자들의 생활권을 박탈하려는데 격분하여 이를 규탄하는 모임을 가지였다.

이 모임에서 로동자들은 미제의 부당한 생활권박탈조치를 강경히 규탄하고 3일이내에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경우 파주지구내 4천여명의 전체

로동자들이 총파업을 단행할것을 결의해나서는 등 치밀한 사전계획밑에 투쟁한 결과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생활권 박탈과 민족적박해를 반대하는 이러한 투쟁은 인천, 부평, 파주, 동두천을 비롯한 대부분의 미제침략군의 기지에서 일어났으며 이에는 수만명의 로동자들이 참가하였다.

《대한통운》에 고용된 로동자 50여명은 기업주놈이 아무런 까닭없이 생활권을 박탈한 행위를 반대하여 롱성투쟁을 벌렸다. 인천과 부산 부두로동자 2만 1천여명은 괴뢰도당이 생활조건에 대한 아무런 담보도 없이 2천여명의 로동자들의 생활권을 박탈하려는데 항거하여 《투쟁위원회》를 뭇고 파업투쟁을 전개하였다.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에서는 임금인상, 밀린임금의 즉시 지불 등 경제적요구와 함께 8시간로동제와 인권옹호, 로조결성 및 그 활동의 자유 등 민주주의적권리에 대한 정치적요구가 전면에 제기되였으며 이에 따라 정치적요구의 비중이 더욱 높아졌다.

1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에만도 로동자들의 투쟁에서 정치적요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9년 같은 기간보다 5.2%가 더 많은 17.5%로 높아졌다.

하루에 16시간 내지 18시간 이상 혹사당하고있는 《서울빠스회사》로동자들은 8시간 로동제의 실시, 임금 50% 인상, 차장들의 기숙사시설완비와 후생시설개선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싸웠다. 서울시내 피복공장로동자들은 로동시간의 단축과 로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투쟁하였으며 《전주연초제조공장》 200여명의 로동자들이 8시간로동제의 실시를 요구하여 일제히 작업을 거부하였다.

《한국화이자제약회사》 260여명 로동자들은 기업주놈이 《단체협약의 체결》에 응하지않자 《로조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괴뢰경찰의 탄압속에서도 연 3일동안이나 단식롱성투쟁을 벌렸으며 전매부문 로동자들은 《투쟁위원회》를 뭇고 《로조》활동의 자유를 요구하여 단식롱성투쟁을 단행하였다.

이와같이 남조선로동자들속에서 자체의 조직을 가지려는 지향이 높아가고있는데 대하여 남조선출판물들도 《자기의 민주주의적권리와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로동자들은 부패한 로조간부들을 반대하며 또는 어용화된 〈대한로총〉을 반대하여 싸우고 있다》고 쓰고있다.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에서 특징적인것은 투쟁규모가 커다 확대되고 그 조직성과 련대성이 더욱 강화된것이다.

2월 27일부터 3월 16일까지의 17일동안에만도 부두로동자 2만여명을 비롯하여 《석탄공사》, 《금융로조》등 산하 로동자들과 종업원들 4만 3천여명이 대중적인 투쟁에 일떠섰다. 이것은 전해 2월과 3월 두달동안에 각종 투쟁에 동원되였던 로동자수와 거의 맞먹는 인원수이다.

이처럼 투쟁규모가 확대되고있는것은 한건당 투쟁에 보다 많은 로동자들이 참가하고있을 뿐만아니라 같은 부문을 포괄하는 대중적인 투쟁이 더욱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기간 한건당 투쟁에는 대체로 공장을 단위로하여 1천명미만의 로동자들이 망라되였다면 1969년 7월부터 부두로동자들을 비롯하여 금속, 섬유부문과 미제침략군의 《기관》 등 4개부문에 고용된 로동자들의 투쟁에는 같은 부문에 종사하고있는 로동자들이 참가함으로써 종전의 건당 1천명으로부터 1만명으로 투쟁규모가 커졌다.

이해에는 년초부터 새로 《석탄공사》 산하 11개지구의 로동자 1만 2천명, 《간호협회》에 망라된 남조선 전지역의 간호원 6천여명이 투쟁에 동원됨으로써 같은 부문을 포괄하는 투쟁에는 보다 많은 인원들이 참가하게 되였다.

이것은 같은 부문을 포괄하는 대중적인 투쟁이 더욱더 일반화되여가고있음을 말해주는것이며 이와 함께 부문내 및 지역간의 련계의 강화를 의미하는것으로서 남조선로동운동발전에서 매우 주목되는 움직임으로 될수있다.

규모가 커짐과 함께 조직성도 더욱 강화되였다.

남조선로동자들은 투쟁의 성과적보장을 위하여 자기부문 실정에 맞게 여러가지형태로 공장 또는 산업부문별 《투쟁위원회》, 《대책협의회》, 《쟁의투쟁위원회》 등을 뭇고 이 투쟁조직의 지도아래에서 투쟁을 전개하였다.

미제침략군 기관에 고용된 4만여명의 로동자들은 《퇴직금》의 지불액을 제멋대로 깎아내린 미제침략자들의 불법행위를 반대하여 자체로 《투쟁위원회》를 뭇고 이 《투쟁위원회》의 지도밑에 《퇴직금》 전액을 받아내기 위해 투쟁하였다.

이보다 앞서 2만 1천여명의 부두로동자들 역시 중앙과 지방에 조직된 《투쟁위원회》의 통일적인 지시밑에 움직이면서 계획적으로 투쟁을 벌려오던 끝에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에게 더 큰 대중적인 력량으로 타격을 가하기 위해 1만 4천여명의 운수로동자들과 [illegible]
회》를 뭇고 공동으로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한 결과 적들로부터 임금을 올린다는 《확약》을 받아내고야 말았다.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은 또한 원쑤들의 갖은 탄압과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형태를 띠고 전개되였다.

미제와 박정희괴뢰악당은 남조선로동자들의 혁명적진출을 가로막기 위해 괴뢰경찰을 늘이고 공장지대에 특무, 밀정놈들을 더 많이 박아넣으면서 탄압을 강화하였다. 놈들은 11월중순에 서울시 중구 청계천가피복공장 로동자들의 시위투쟁을 총칼로 억눌렀으며 부산에서는 롱성시위를 벌린 녀차장들을 잡아가두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한편 놈들은 로동자들의 단결을 방해하고 그들의 투쟁을 누꿋혀보려고 거짓 《약속》을 꾸며내고 내부와해를 책동하였다. 그러나 놈들의 이러한 탄압과 회유기만책동은 남조선로동자들의 각성을 더욱 촉진시키고 그들의 투쟁에 키질을 하였을 뿐이다.

11월 25일에 남조선철도로동자들은 《신분법》을 만들겠다고 거짓 《약속》만 늘여놓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의 흉악한 책동을 폭로규탄하면서 적들의 《철도청장실》에 밀려가서 밤새워 롱성투쟁을 벌렸다. 한편 그들은 《중앙투쟁위원회》를 새로 뭇고 남조선각지에 이미 조직해놓은 《지부투쟁위원회》들을 통하여 완강한 투쟁을 전개한 결과 요구의 일부를 관철하였다.

충청북도 옥천군내 230여명의 《은성제사공장》로동자들은 임금인상과 《단체협약체결》을 기업주놈에게 들이대였으나 아무러한 반응도 보이지않자 일제히 파업을 단행하였다. 기업주놈은 로동자들의 요구조건을 해결해주기는커녕 괴뢰도당에게 공장폐쇄를 《신고》하는 등 로동자들의 단결된 힘을 꺾어보려고 탄압책동에 날뛰였다. 이에 격분한 로동자들은 일치단결하여 10여일에 걸쳐 완강한 파업투쟁을 전개하여 끝내 요구조건의 일부를 관철하였다.

서울시 영등포구 200여명의 《한국랭동공장》건설로동자들은 밀린임금을 받아내기 위한 투쟁을 여러차례에 걸쳐 전개하였다. 그러나 기업주놈이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자 로동자들은 일제히 몽둥이를 들고 공장에 모여 사무실을 점거하고 당장 밀린임금을 내놓으라고 강력히 들이대는 한편 유리창과 책상들을 까부시며 완강하게 싸웠다.

남조선의 선박 《지남호》의 선원들이 자기들에게 착취와 폭행을 감행하는 선장놈을 때려눕히고 자체로 선장을 선출하였다. 이보다 앞서 《제10광명

호》의 선원들은 기업주놈들이 임금을 제대로 주지않는데 격분하여 작업을 거부하고 선주놈을 칼로 위협하면서 항구로 되돌아왔다.

이상의 모든 사실들은 남조선로동자들이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는 투쟁과정에서 령도계급으로서 더욱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조직적으로 단련되여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 남조선농어민들의 투쟁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에게 참을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씌우고있는 전쟁정책과 파쑈화정책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에 대한 더욱 큰 불만을 자아내고있으며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와 나라의 통일에 대한 강렬한 지향을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388페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날로 로골화되고있는 침략과 전쟁정책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생활고와 무권리에 시달리고있는 남조선농민들은 이해에 적들의 전쟁정책을 반대하며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렸다.

초보적인 집계에 의하더라도 남조선농민들은 1월부터 9월말까지의 기간에만도 336건의 투쟁을 벌렸다. 그 가운데 참가인원수가 밝혀진 270건의 투쟁에만도 연 41만 8천여명이 참가하였다. 이것은 1969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투쟁건수는 1.5배, 투쟁참가자수에 있어서는 2.2배나 늘어난것이며 최근년간 남조선농민투쟁에서 가장 격렬했던 1968년도의 같은 시기에 비해서도 투쟁건수와 투쟁참가자수가 각각 1.4배 1.5배나 늘어난것이다. 남조선농민투쟁의 이러한 량적장성은 그 투쟁이 더욱더 광범한 농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으면서 급속히 확대발전하고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이해 남조선농민투쟁은 량적으로 장성했을뿐만아니라 그의 질적측면에서도 급격한 발전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1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 벌어진 시위, 롱성, 집단항의 등 적극적인 형태의 투쟁이 전해 같은기간에 비하여 1.8배로 장성한 사실과 그리고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의 군용지략탈과 군량미략탈을 반대하는 정치적성격을 띤 투쟁이 활발히 전개된 사실에서 찾아볼수 있다.

남조선 강원도 춘성, 린제, 양구 등 괴뢰도당이 벌린 토목공사로 토지에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보상금의 인상을 요구하여 투쟁을 벌려왔다. 그러나 박정희괴뢰도당이 이를 해결해주기는 고사하고 평당 시가보다 3분의 1도 안되는 눅은 값으로 보상금을 결정해버린 부당한 처사에 격분하여 《땅값보상금을 인상하라》는 프랑카드를 들고 일제히 시위투쟁에 떨쳐나섰다.

파쑈악당들이 농민들의 시위투쟁을 탄압하려고《기동경찰대》를 내몰았으나 농민들은 이를 물리치고 괴뢰강원도도청앞까지 진출하여 《도회의실》을 점거하고 치렬한 롱성투쟁을 벌려 적들을 끝내 굴복시켰다.

경기도 양주군내 150여명의 농민들이 부근의 《동한화학주식회사》로부터 흘러나오는 유독성가스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으나 아무러한 대책도 세우지않고있는 괴뢰도당의 부당한 처사에 항거하여 단행한 시위투쟁을 비롯하여 충청북도내 전체 잎담배경작자들이 잎담배강제《매상》을 전면거부해나선 투쟁,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내 100여명의 농민들이 관개시설을 요구하여 전개한 롱성투쟁 등 남조선농민들의 투쟁은 보다 높아갔다.

이와 같은 투쟁의 적극화와 함께 농민들의 투쟁규모도 확대되였다.

남조선강원도 삼척군 삼척읍내 6개마을의 3천 500여명의 농민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놈들이 군수공장을 만들어놓고 많은 농토를 못쓰게 만들었을뿐만아니라 유독성가스와 오물을 마구 퍼뜨려 인체와 농작물에 막심한 피해를 입히고있는데 격분하여 놈들의 공장에 몰려가 《14년간의 피해를 보상하라》고 웨치면서 완강한 롱성투쟁을 벌렸다.

이밖에도 미제침략군의 만행을 반대하여 싸운 경기도 파주군 내 농민 1천 500여명의 치렬한 투석전과 시위투쟁, 밀린로임을 받아내기 위한 전라북도 정읍군내 농민 400여명의 롱성투쟁 등 남조선농민들의 투쟁규모는 더욱 커갔다.

이러한 남조선농민들의 투쟁은 모두 원수들의 범죄적책동을 반대하고 생존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끝까지 싸우려는 그들의 억센투지와 단결된위력을 과시한 것으로서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남조선농민들의 투쟁에서 또한 주목되는것은 미제와 그 주구들이 새 전쟁도발소동에 미쳐날뛰면서 많은 농토와 농작물을 못쓰게 만들고있는것을 계기로하여 놈들의 토지략탈을 반대하며 그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투쟁이 급격히 확대발전하고 있는것이다.

전라북도 완주군 해전리내 농민들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고속도로》건설을 구실로 아무런 보상도 없이 거의 먹을수 있게 된 보리밭과 뽕밭 등을 마구 파헤쳐 농작물을 망쳐버린데 격분하여 공사현장에 몰려가 《농작물 및 개간비를 내라》고 웨치면서 놈들이 파놓은 흙을 모두 뿌려던짐으로써 공사를 중단케 하는 등 완강한 투쟁을 벌렸다. 또한 경상북도 월성군 강동면내 농민들이 많은 농토를 빼앗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범죄적책동에 항거하여 괴뢰도당의 어용수탈기구에 집단적으로 몰려가 련 3일간에 걸쳐 힘찬 롱성투쟁을 벌림으로써 적들을 굴복시켰다. 1월부터 10월말까지의 기간에 전개된 농민들의 투쟁에서 토지략탈과 각종 수탈을 반대하는 투쟁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이상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전해에 비하여 2배이상 높은것으로 된다. 특히 이 기간에 치산치수와 관개 및 제방시설 등을 요구하는 투쟁은 전해의 같은 기간에 비하여 3.5배이상이나 늘었다.

이것은 농촌수탈에만 눈이 뒤집힌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치산치수와 관개시설 및 제방공사 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가물과 큰물로 농사를 도저히 지을수 없게된 사정과 관련된다.

이 모든 것은 생존의 권리와 당면한 생활개선을 위한 남조선농민들의 투쟁이 로동자들의 투쟁과 함께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반미반정부투쟁에로 힘차게 발전하고 있음을 말해주었다.

농민들과 함께 남조선어민들도 생존의 권리와 당면한 생활개선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렸다.

남조선어민들의 투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것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더욱 발광적인 전쟁도발소동과 파쑈폭압책동을 반대하고 어로활동의 자유와 어로조건의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이였다. 그것은 범죄적인 전쟁연습으로 인한 어장파괴책동을 반대하며 어장의 확보와 어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어민들의 투쟁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경상남도 남해안일대의 2천여명의 어민들은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파쑈악당들이 범죄적인 전쟁연습을 위해 제멋대로 《금지구역》을 만들어놓고 이를 침범했다는 구실을 붙여 어민들을 박해하며 그들이 잡은 물고기를 빼앗고 지어 배와 그물까지 《압수》하는 파쑈적폭압만행을 반대하고 어로활동의 자유를 요구하여 완강히 싸웠다. 경상남도 영안군내 어민들은 그 일대의 어

장에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이른바 《금룡작전》이라는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소동을 벌려놓고 어민들이 쳐놓은 그물을 몽땅 찢어놓는 등 막대한 손실을 입힌 만행을 규탄항의하고 괴뢰도당에게 어로활동의 자유보장을 요구하여 견결히 싸웠다. 남조선동해안의 5만여명의 어민들은 박정희파쑈악당들이 바다에까지 펼쳐놓은 파쑈적폭압망인《어로저지선》때문에 출어를 마음대로 못한데 항거하여 어로활동의 자유보장을 요구하여 굳세게 싸웠다.

적들의 파쑈폭압책동을 반대하며 어장의 확보를 위한 남조선어민들의 투쟁은 각지에서 끊임없이 전개되였다.

남조선어민들은 또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어장파괴 및 략탈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웠다.

경상남도 사천군과 남해군의 2만여명의 어민들은 미제와 박정희군사깡패들이 전쟁연습소동을 벌린끝에 남강수문을 열어놓아 흙탕물이 밀려들게 함으로써 이곳 어민들이 가꾸어온 미역, 굴, 조개 등의 양식장을 못쓰게 만든데 항거하여 완강하게 싸웠다. 어민들은 《투쟁대책위원회》를 뭇고 원쑤놈들의 죄행을 항의규탄하면서 피해보상금 지불을 요구하여 줄기차게 투쟁하였다. 경상남도 울산을 중심으로한 방어진, 온산, 장생포 등지의 2천여명의 어민들은 미제와 괴뢰도당들이 울산에다가 군용시설들을 늘여놓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폐유와 유독성화학물질들을 쏟아버림으로써 연안일대에 어민들이 가꾸어온 미역, 김들의 양식장을 몽땅 못쓰게 만든 만행을 항의규탄하며 피해보상의 지불을 요구하여 억세게 싸웠다.

남조선어민들은 적들의 어장파괴책동을 반대하는 투쟁과 함께 략탈책동을 반대하여 또한 줄기차게 싸웠다.

경상남도내 7개 시, 군의 어민대표들은 괴뢰도당의 략탈도구의 하나인 《수산협동조합 경남지부》에 몰려가 《어업자금》 등을 떼처 다 주지못했다하여 보잘것없는 어선과 어구들 마구 《차압》해 가는 날강도행위를 규탄하면서 농성투쟁을 벌렸다. 남조선 강원도 구진항 일대의 어민들이 《어업조합》에 몰려가 《위탁판매》의 간판밑에 강제로 빼앗아간 물고기값을 당장 내놓으라고 요구하여 농성투쟁을 전개하였다. 경상북도 영일군내 300여명의 가난한 어민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이 구실을대 어민들이 피땀으로 가꾸어놓은 미역양식장이 제놈들의 마음에 들자 모리배놈과 결탁하여 이를 강탈하는 날강도행위를 감행한데 항의하여 억센투쟁을 벌렸다.

또한 어로조건의 보장을 요구하는 남조선어민들의 투쟁은 곳곳에서 한시적으로 전개되였다.

전라북도 옥구군 미면 오식도내 어민들이 배가 드나들수 있는 포구와 방파제를 마사버린 괴뢰도당의 파괴행위에 항거하며 어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하여 싸웠다. 경상남도 거제군 동부면내 350여명의 어민들과 경상북도 월성군 감포항의 어민들이 적들의 파괴와 략탈책동을 규탄하면서 포구시설을 확장할것 등 요구조건을 괴뢰도당에게 각각 들이대고 그 관철을 위해 투쟁하였다. 이 밖에도 경상북도 영일군내 1천여명의 어민들과 충청남도 보령군 오천면의 섬지방인 외연도 내어민들도 파괴된 포구시설과 방파제의 복구를 요구하여 싸웠다.

남조선어민들은 이해에 들어와서 더욱 격증된 일본해적들의 날강도행위를 반대하여서도 힘차게 싸웠다. 이러한 투쟁은 동해와 남해, 서해에 이르는 남조선의 모든 해역에서 일어났으며 이에는 수많은 남조선의 가난한 어민들이 참가하였다.

일본해적들의 강도행위를 반대하는 어민들의 투쟁에서 주목되는것은 어민들이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2중의 개인 박정희괴뢰도당을 거치지않고 직접 일본해적무리들을 상대로 하여 투쟁을 벌리고 있는것이다.

남해안일대에서 물고기잡이를 하던 남조선어민들이 일본해적선 《다까사고마루》에 올라가 자기들이 쳐놓은 그물을 찢고 달아난 놈들의 해적행위를 치솟는 민족적분노로 항의규탄하면서 손해배상금을 당장 내놓을것을 요구하여 힘찬 투쟁을 벌렸다.

그 며칠후에는 또 다른 어민들이 같은 해적행위를 감행한 일본의 《에비스마루 37호》에 올라타고 런사흘동안이나 용감히 싸웠다. 이를 전후하여 남조선의 《대광호》, 《중광호》, 《제2선영호》, 《제5속광호》 등의 수많은 어민들도 일본해적의 무리들의 강도적만행을 반대하는 격렬한 투쟁들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어민들의 투쟁들에서 특히 주목되는것은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이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죄행을 감싸주기 위하여 만들어놓은 매국적인 《규정》들과 놈들의 간섭을 짓부시고 일본해적놈들을 만행현장에서 붙들어놓고 [illegible] 놈들을 쫓아가서 격렬한 투쟁을 벌린끝에 놈들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버리고 요구를 관철해내는 대담하고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고있는것이다.

남조선어선 《백성호》의 선원들은 자기들이 쳐놓은 그물을 찢어버리고 달아나는 일본해적선 《하마요시마루》를 일본 나가사끼항에까지 뒤쫓아가 해적놈들을 자기들의 배에 끌어다놓고 해당한 피해보상금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13일간이나 견결히 싸움으로써 끝내 놈들을 굴복시키고 15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받아내고야만 사실은 그 단적인 실례이다.

이 모든 투쟁에서 남조선어민들은 로동자, 농민들과 함께 생존을 위한 자기들의 투쟁을 정치적요구와 밀접히 결부시키면서 보다·적극적이며 대중적인 반미구국투쟁에로 발전시켜나감으로써 적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남조선농민들과 어민들은 이와 같은 투쟁과정에서 더욱 각성되고 단련되였으며 거대한 혁명력량의 하나로 자라났다.

##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지식인들의 투쟁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의 청년학생, 지식인들은 학원의 군사화와 모리화를 반대하며 교육제도의 민주주의적개혁을 요구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46페지)**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지식인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자신들의 정치적자유를 위한 투쟁을 더욱 조직화하며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과 밀접히 결합시키는데 힘을 집중하였다. 청년학생들은 전남조선적인 조직을 내오고 그의 지도밑에 반파쑈민주화투쟁을 힘차게 벌렸다.

이리하여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지식인들은 자기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미제와 괴뢰도당을 쓸어버리기 위한 반미구국투쟁에로 더 한층 발전시켜 나아갔다.

### 【학원의 파쑈화와 모리화를 반대하며 민주주의적권리를 위한 투쟁】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더욱 악랄해진 미제와 박정희파쑈악당의 학원탄압과 모리화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들 150여명은 학원의 파쑈화를 반대하며 부당하게 강제 퇴학당한 동료학생들의 복교를 요구하여 농성, 시위투쟁을 벌리던끝에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이 대

학교의 문리파대학 학생들도 박정희괴뢰경찰에 의하여 학교에서 억울하게 쫓겨난 동료학생의 복교를 요구하여 서로 련대성을 강화하면서 완성 시위투쟁을 련일 벌려오다가 동맹휴학에로 넘어갔다.

서울시 성북구 경일중고등학교학생 3천여명이 학교운동장에 모여서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책동으로 폐쇄된 자기들의 학교가 복교될때까지 단식투쟁에 나설것을 결의하고 그중 1천여명의 학생들이 5층강당에 바리케트를 치고 단식 롱성투쟁을 벌렸다.

남조선학생들의 이와 같은 투쟁은 미제와 그의 더러운 개 박정희괴뢰도당의 식민지파쑈통치를 반대하며 학원의 자유와 배움의 권리를 비롯한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위한 지향의 표시였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인 탄압이 보다 강화된 조건하에서도 이를 단호히 물리치고 4월인민봉기 열돐을 뜻깊게 기념하는 행사들을 다양하게 조직하고 새로운 투쟁 결의들을 다지였다.

4월 18일 서울시내의 고려대학교 2천여명의 학생들과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4. 19봉기기념 모임에서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 받아 앞으로도 끊임없이 불의와 부정의에 항거하여 싸우겠다》고 엄숙히 다짐하였다. 서울대학교의 법과대학과 문리파대학 학생들이 4. 19용사들의 피의 대가를 가로챈 미제와 그의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해불시위를 벌렸으며 이를 막으려는 괴뢰경찰들과 맞서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경북대학교 학생들이 4. 19 열돐《기념식》을 갖고 오늘 남조선에서 감행되고 있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반민주, 반민족적인 처사는 4.19정신을 근본적으로 좌절시키고있다》고 규탄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불의와 부정을 단호히 거부하여 1백만 학도는 민족구국투쟁의 대열에 언제나 나설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

4. 19 열돐을 기념하는 행사는 서울시내의 대학들을 비롯한 남조선의 각 대학들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속에서 광범히 진행되였다.

이해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에서 주목되는것은 그것이 반《정부》적 성격을 띤 투쟁이며 특히 그들의 투쟁이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기본군중들의 생존과 민주주의적권리를 위한 투쟁과 밀접한 련관속에서 진행된 것이다.

6월 4일 새벽 부산시의 애국적청년들이 짝을 지어 택시를 타고 가면서 시내 여러곳에 괴뢰정부의 파쑈탄압정책을 반대하는 수만매의 삐라들을 뿌리고 자취를 감추었다. 이들이 뿌린 삐라에는 《박정권의 발악적인 처사에 국민은 분노한다》, 《현정권은 국민의 귀와 입을 봉쇄하지 말라》, 《언론탄압은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협이다》 등의 내용이 담아져 있었다. 경기도와 전라남도, 충청남도 등지에도 괴뢰정부의 반동정책을 폭로규탄하며 인민들을 반미구국투쟁에로 부르는 내용의 삐라들이 수많이 뿌려졌다.

또한 남조선청년학생들은 임금인상과 로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동료들과 함께 대중적인 시위 투쟁에 나섰다가 오늘의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악정에 죽음으로써 항거한 서울의 피복로동자 전태일청년의 참변을 계기로 로동자들과의 세찬 공동투쟁을 벌렸다.

11월 20일부터 서울대학교 법파대학을 비롯하여 문리파대학, 상파대학,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리화녀자대학교 등 서울시내 대학생들이 《전태일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다》, 《로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라》 등의 구호를 들고 성토대회 추도식 등을 열고 선언문을 발표한후 시위투쟁을 벌렸다.

삶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한 로동자들의 정의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여 서울시내의 각 대학교 청년학생들이 벌린 대중적공동투쟁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청년학생들이 이미부터 자기들의 투쟁을 로동자를 비롯한 대중투쟁과 결합시키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얻어진 하나의 열매이며 이것은 그들의 투쟁이 새롭게 발전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강제징집과 전쟁훈련을 반대하는 투쟁】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미쳐날뛰고있는 미제와 박정희군사깡패들은 남조선학원을 침략의 대포밥을 걸러내는 련병장으로 더욱 전변시켰다. 놈들은 이해에도 청년학생들에 대한 강제징집과 전쟁훈련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남조선청장년들속에서는 미제와 그의 더러운 개 박정희괴뢰도당의 새전쟁도발책동을 반대하고 놈들의 침략의 제물로 되기를 거부하는 투쟁이 더욱 줄기차게 전개되였다.

남조선청장년들의 이러한 투쟁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감군》모략의 연막뒤에서 침략과 전쟁책동을 더욱 미친듯이 감행한것과 때를 같이하여 일층 확대강화되였다.

적들이 극히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 치욕스러운 미제의 식민지고용병이 되기를 거부하여 강제징집을 위한 《신체검사》에 단어 응하지 않았거나 괴뢰군훈련소에 끌려가는것을 반대하여 나선 청년들만도 1만 8천명이 훨씬 넘었다. 그밖의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강제징집을 거부한 청년들의 수는 이보다도 더 많다.

같은 기간에 경기도에서는 괴뢰군징집대상자의 70%이상에 달하는 청년들이 적들의 강제징집을 반대하여 자취를 감추었거나 《신체검사》에 응하지 않았으며 경상북도에서는 3천 500여명의 청년들이 미제의 치욕스러운 식민지고용병이 되기를 거부하여 자취를 감추었다.

이와 같은 강제징집을 거부하는 남조선청년들의 투쟁기세에 대하여 박정희괴뢰도당은 《병역기피현상은 이제는 더 이상 막을수 없는 앞으로 되고 있다》고 비명을 질렀다.

남조선청장년들은 또한 치욕스러운 《향토예비군》에 끌려나가는것을 반대하여 완강히 싸웠다.

상반년동안에 충청남도에서는 2만여명이 경상북도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청년들이 《향토예비군》에 끌어내려는 원수들의 책동을 반대하여 싸웠다.

이것은 남조선청장년들이 자기들을 동족상쟁의 씻을수 없는 죄악의 길로 내몰려고 발악하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범죄적책동에 강력히 항거하면서 전쟁 대포밥의 대대적인 조달을 꾀하는 적들에게 타격을 가하고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 각지의 《향토예비군》에 강제로 얽매인 청장년들은 적들이 매일같이 강요하는 각종 훈련, 《작전》을 견결히 반대거부해나섰다. 1월부터 9월말까지의 동안에 남조선 강원도에서 10만 3천여명, 충청북도에서 4만 5천여명을 비롯하여 수십만명의 청장년들이 저주로운 《향토예비군》을 반대하여 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지 않았다. 이에서 특히 주목되는것은 《향토예비군》대원들속에서 적들의 새 전쟁 정책과 파쑈폭압을 반대하여 무기와 실탄을 가지고 도망치거나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여 원수놈들을 처단해버리는 현상이 계속 늘어나고있는것이다.

10월 2일 경상북도 경산군에 사는 《향토예비군》대원 김아무개청년이 카빈총과 30여발의 실탄을 가지고 도망친것을 비롯하여 9월초 경기도 인천시내 김아무개청년이 보초근무에 동원되였다가 총과 여러발의 실탄을 가지고

도망쳐 자취를 감춘 사실, 서울시 성북구내 10여명의 청년들이 악질경찰관놈의 모진 《기합》에 항거하여 그 놈을 까눕히고 무기와 실탄을 가지고 도망친 사실, 10월 22일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월림리에 사는 리아무개청년이 집합장소를 리탈했다는 리유로 《기합》을 가하는 악질상관놈을 때려죽인 사실 등은 그 단적인 실례들이다.

이 모든 사실은 미제의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끌려나가기를 거부하는 투쟁이 이해에 광범한 남조선 청장년들속에서 폭넓게 완강하게 벌어졌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지식인들의 투쟁】

남조선의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투쟁에 고무된 지식인들은 이해에 생존과 민주주의적권리를 위한 투쟁과 함께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적탄압책동을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견결히 벌렸다.

남조선의 각지 교원들이 미제와 그의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의 악독한 식민지노예교육과 학원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반대하여 억세게 싸웠다.

경상북도 달성군 구지중학교 교원들은 학생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준 애국적인 교원들을 부당한 구실밑에 학교에서 내쫓은 괴뢰악당놈들의 범죄행위에 격분하여 학생들과 함께 일제히 수업을 거부하고 1개월에 걸쳐 줄기찬 투쟁을 벌리였다.

서울시 오산중고등학교 교원 40여명도 애국적인 교원들을 부당하게 내쫓고 제놈들의 특무분을 《교육자》로 가장하여 학교에 박아 넣으려는 괴뢰악당놈들의 악랄한 책동을 반대하여 싸웠다.

남조선교원들은 학생들에게 《반공》사상을 주입시켜 청년학생들의 애국적인 기세를 막아보려는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책동에 항거해 나서고 있다.

고려대학교를 비롯한 서울시내 대학들의 일부교원들은 악독한 《반공》교육시간을 더 연장할것을 강요하는 괴뢰도당의 책동을 규탄하면서 그 집행을 단호히 거부해 나섰다.

이것은 남조선교원들이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탄압책동을 반대하고 자신의 정치적자유와 학원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과감히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고있다.

파쑈적탄압을 반대하고 사회활동의 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를 위한 투쟁은 언론인들속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였다.

남조선언론인들은 박정희파쑈악당의 가혹한 언론탄압으로 하여 남조선에서 [illegible]

하여 신랄하게 폭로규탄하였다.

그들은 남조선에서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많은 제약과 억압을 받고있다》, 《언론의 자유는 관념론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사실상 위험선상에서 허덕이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언론인들은 이처럼 오늘 남조선에서 《언론이 압력과 탄압속에서 좌절과 패배와 비극》을 강요당하고있다는것은 전적으로 언론, 출판기관들에 대한 《국가권력기관의 압력에 있다》고 일치하게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언론인들은 박정희파쑈악당이 《국가안보》라는 구실하에 악랄하게 보도관제를 실시하는 한편 반동적인 《언론륜리위원회법》을 조작하여 취재보도의 자유를 억압하고있을뿐만아니라 특무들을 동원하여 제놈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기자들에게 테로를 가하고있다고 폭로규탄하였다.

8월 17일 괴뢰군부출입기자들로 무어진 《출입기자단》은 박정희괴뢰도당에게 항의문을 들이대고 이 기자단의 성원인 《조선일보》의 리아무개기자를 부당하게 체포구금한것을 단호히 규탄하고 그를 즉시 석방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제상전의 《감군》모략의 막뒤 조종에 따라 전쟁준비에 더욱 미쳐날뛰고있는 제놈들의 흉악한 내막이 드러나는것을 막으려고 괴뢰군부출입기자들의 취재활동을 방해하기에 갖은 책동을 다하던끝에 《조선일보》리아무개기자를 비롯한 여러 기자들에게 괴뢰헌병놈들을 내몰아 야만적인 모욕과 구타를 감행케하였다. 뿐만아니라 저들의 만행을 항의규탄하였다 하여 협잡문건을 만들어 그를 《범인》으로 몰아 이른바 군사재판에까지 넘겨 《형벌》을 들씌우려고 흉책하였다.

적들의 이와 같은 만행에 대하여 《출입기자단》은 박정희괴뢰도당이 리아무개기자를 체포하여 박해하는것은 비렬한 《보복》이며 야만적인 폭압행위라고 락인찍고 그러한 깡패식 탄압행위를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의 항의문에서 언명하였다.

남조선기자들의 단체인 《기자협회》는 박정희괴뢰도당이 리아무개기자를 체포구금한것은 원쑤들의 군사파쑈적언론탄압의 산물이라고 항의성명에서 폭로규탄하고 이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것임을 표명하면서 리아무개기자의 즉시 석방을 강경히 요구하였다.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한 기자단체도 박정희파쑈악당놈들이 《전남일보》신문》기자를 부당하게 체포한것을 규탄 [illegible]

였다.

미제와 박정희파쑈악당의 반동통치를 반대하고 새 정치, 새 생활을 요구하는 투쟁은 남조선의 문화예술인속에서도 일어나고있다.

남조선의 한 시인은 미제와 괴뢰도당의 식민지 파쑈테로통치로 말미암아 암흑의 천지로 된 남조선현실을 《하늘에는 먹장구름 일고, 땅에서는 독버섯이 피여나는》 하나의 철조망으로 묘사하면서 그 현실에서 살아가는 매일 매시간을 《징역의 시간》이라고 통렬히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해를 밝히는 화산이 터져》나오고 언덕넘어로 《붉은 해》가 비쳐올 때 자유를 쟁취할수 있다고 예언함으로써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투쟁기세에 발맞추어 문화예술인들도 싸움 결의가 충만되여있다는것을 표시하였다.

이와 같이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지식인들은 미제와 그의 더러운 개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테로통치를 반대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위하여 이해에도 줄기차게 싸웠다. 이러한 투쟁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은 일층 높아갔다.

## 기타계층들의 투쟁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의 광범한 대중은 생존의 권리와 자기들의 가장 절박한 요구인 당면한 생활개선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391페지)

이해 생존의 권리와 자유를 위한 도시의 가난한 주민들을 비롯한 소상인·중소기업가 등의 투쟁도 세차게 벌어졌다.

남조선도시의 가난한 주민들은 생존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한고리로서 판자집 강제철거를 반대하는 투쟁을 격렬하게 벌리였다.

서울시 영등포구 구로동 300여명의 주민들이 남조선인민들을 회유기만하기 위하여 《난민정착지》로 불하해주었던 땅을 악덕모리배들에게 팔아먹으려는 박정희반역도당의 반인민적인 처사에 격분하여 《우리 재산 모리배에게 줄수 없다》, 《10년 동안 개척한 땅 생명걸고 투쟁하자》, 《우리 재산, 우리 생명 단결되면 내것이다》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완강한 투쟁을 벌리였다.

부산시 구덕한지역의 철거대상 주민 [illegible]

선정해주지 않는한 철거에 응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면서 괴뢰부산시청에 몰려가 롱성을 벌리였으며 서울시 성동구화양동 판자촌 주민 600여명이 강제로 판자집을 헐려는 《경찰기동대》에게 몽둥이 아니 돌벼락을 안기였다.

판자집철거를 반대하는 도시주민들의 투쟁은 폭력적인 성격을 띠고 완강하게 전개되였다.

서울시 동대문구 룡두동 4천 700명의 주민들이 골목마다 바리케트를 치고 대못을 박은 몽둥이와 쇠스랑, 식칼, 돌멩이들을 들고 주택철거에 동원된 800여명의 《경찰기동대》놈들과 맞서 치렬하게 싸웠다. 서울시 동대문구 창신동 일대의 판자집촌에 사는 600여명의 가난한 주민들은 아무러한 대책도 없이 강제로 집을 헐려는 박정희괴뢰도당의 반인민적인 책동과 만행에 격분하여 강제로 집을 헐려고 악착스럽게 달려드는 놈들과 한시간이상 맞서 투석전을 벌려 수많은 적들을 때려눕혔다.

서울시 영등포구 사당동내의 3천여명의 주민들이 박정희괴뢰도당의 주택강제철거만행을 반대하여 억세게 싸웠다.

파쑈악당들은 이곳 주민들의 집 500여채를 닥치는대로 헐어없애치우기 위하여 괴뢰《구청》의 악질관리놈들과 200여명의 《깡패》들을 현장에 내몰았다. 악당들은 현장에 이르자 다짜고짜로 주민들의 집에 달려들어 마구 헐려고 날뛰였다.

이때 이곳 주민들 3천여명은 일제히 마을에 떨쳐나서 자기들의 집을 마구 헐려고 덤벼드는 악당놈들을 돌로 까눕히며 완강히 싸웠다. 이리하여 악당놈들의 강제철거만행을 일단 저지시켰는데 그후, 박정희괴뢰도당은 무장한 수많은 괴뢰경찰놈들을 현장에 내몰았다. 악독한 괴뢰경찰놈들은 주민들을 탄압하며 최루탄을 마구 쏘아대면서 주민들의 살림집을 닥치는대로 헐어없애치우려고 발악하였다.

이에 더욱 격분한 주민들은 조금도 굴함없이 괴뢰경찰놈들에게 돌벼락을 안기며 더욱 견결히 싸웠다. 이것은 도시의 가난한 주민들이 미제침략자들과 그의 앞잡이 박정희괴뢰도당이 새로운 침략전쟁을 위하여 벌리고있는 강제철거만행을 짓부셔버리며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억세게 싸웠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남조선 도시의 가난한 주민들의 투쟁에서 또한 주목되는것은 생활개선을 위한 투쟁을 미제침략자들의 민족적인 멸시를 반대하는 강력한 반미투쟁과 결합하여 전개하고있는것이다. 서울시 용산구 리태원동 100여명의 주민들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놈들이 네명의 대학생들을 병사로 끌고가 때려 중상을 입힌데 격분하여 야수놈들의 병영에 몰려가 복수의 돌벼락을 들씌웠으며 이보다 앞서 경기도 파주군 적성면 장파리내 주민 200여명이 미제침략자들의 민족적인 멸시와 만행을 반대하여 치렬한 투쟁을 벌리였다. 이들 200여명의 주민들은 권아무개주민을 비롯하여 6명의 주민들에게 아무러한 까닭없이 달려들어 집단적폭행을 가하는 만행을 감행한데 격분하여 미제침략자들에게 돌벼락을 안기였다. 주민들은 바빠맞아 도망을 치는 원쑤놈들을 림진강미리끼까지 추격하여 수십명을 까눕히고 《사과》까지 받고야 말았다.

또한 남조선 도시의 가난한 주민들은 괴뢰도당의 가혹한 략탈행위를 반대하여서도 완강히 투쟁하였다.

서울시 서대문구 응암동 일대 100여명의 가난한 주민들이 괴뢰경찰서에 집단적으로 몰려가 《수도시설을 설치해주겠다》는 구실을 붙여 많은 돈을 빼앗아간 놈들의 악랄한 략탈행위를 규탄하여 완강하게 싸웠다. 박정희괴뢰도당의 략탈행위와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참을수 없는 굶주림에 먹을 물까지 없어서 더욱 심한 고통을 겪고있는 이들은 놈들의 날강도적인 략탈행위를 치솟는 격분으로 폭로규탄하고 《빼앗아간 돈을 당장 내놓으라》, 《수도시설을 설치하라》고 웨치면서 장시간 롱성투쟁을 벌리였다.

경기도 인천시 십정동일대의 가난한 주민들이 괴뢰인천시청에 몰려가 많은 돈을 빼앗아가고도 수도시설을 설치하기는 고사하고 음료수를 보내라는 자기들의 요구를 계속 묵살한 놈들의 악랄한 처사를 폭로규탄하고 《먹을물을 당장 보내라》고 강력히 요구하면서 억세게 싸웠다.

한편 부산시 영동구 동삼동일대 주민들도 가난한 주민들을 가혹하게 수탈하는 박정희괴뢰도당의 날강도행위를 규탄하여 완강한 시위투쟁을 벌리였다. 전라남도 려수시 덕충동내 주민들은 괴뢰려수시청에 몰려가 놈들의 파렴치한 강도적 략탈책동을 견결히 폭로규탄하고 10개월전에 빼앗아간 돈을 당장 내놓으라고 웨치면서 롱성투쟁을 벌렸다.

이와 같은 생활조건의 개선과 삶을 위한 가난한 주민들의 투쟁은 남조선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끊임없이 벌어졌다.

남조선의 소상인, 중소상공업자들도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세금수탈을 반대하며 영업활동의 자유를 요구하여 싸웠다.

전라남도 목포시 남교동에 사는 령세상인들이 자기들의 생활터전을 빼앗으려는 박정희군사깡패들의 악랄한 책동에 항거하여 견결히 싸웠다. 그들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생활터전인 판자집마저 헐어치우려는 원쑤놈들의 범죄적책동을 치솟는 분노로 규탄하고 500만원의 철거보상금을 당장 내놓으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서울시 성북구 소유동내 100여명의 가난한 상인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이 시장사용《보증금》 이라는것을 80%나 끌어올린 략탈책동을 반대하여 근세게 싸웠다.

경상남도 마산시 《청과시장》내 령세상인들이 괴뢰시청에 몰려가 시장점포들을 빼앗아내여 악질 모리배놈들에게 독점시키려는 괴뢰악당놈들의 범죄적책동을 치솟는 격분으로 폭로규탄하면서 영업조건을 보장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에 앞서 경상북도 경산군 경산읍내 령세상인들도 괴뢰군청에 몰려가 읍시장안의 점포를 악질 모리배놈들에게 넘겨주려는 원쑤놈들의 범죄적책동을 규탄하면서 길가에서 광주리장사를 하고있는 자기들에게 배정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경기도 부평에 있는 《부평공설시장》의 가난한 상인 수십명이 영업조건의 보장을 요구하여 억세게 싸웠다.

이들은 박정희괴뢰도당에게 직접 항의문을 들이대고 악질모리배들에게 시장을 독점시키기 위해 구멍가게들마저 이른바 《무허가판자집》이라는 트집을 걸어 마구 헐어치움으로써 자기들을 한데에 나앉게 한 악당놈들의 범죄적 만행을 치솟는 격분으로 규탄하였다. 그들은 돈벌이에만 눈이 뒤집혀 악질모리배들을 쫓아내고 령세상인들의 영업조건을 하루빨리 보장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경상북도 대구시내의 상인들이 갈수록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는 박정희괴뢰도당의 세금수탈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웠다.

괴뢰도당이 관리운영하는 시내의 시장에서 농산물을 사고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상인들은 침략적인 전쟁비용을 짜내기위해 괴뢰도당놈들이 터무니없는 세금을 들씌운데 항거하여 일제히 상품거래를 중단해버렸다.

남조선의 중소기업가들도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반동적인 시책을 반대하여 싸웠다.

전라남도 광주시내 중소기업가들이 원료공급과 영업조건 등의 보장을 요구하여 대중적투쟁에 일떠나 줄차게 싸웠다. 그들은 괴뢰도청에 몰려가 이곳 《국장》놈의 사무실을 점거하고 업

죄적전쟁정책수행을 위해 석탄마저 얻어쓸수 없게하는 놈들의 죄행을 신랄히 폭로규탄하면서 버티기 투쟁을 벌렸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파렴치한 행위를 당장 걷어치우라고 격분에 넘쳐 규탄하고 당장 업자들에게 원료인 석탄을 공급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충청남도내의 중소기업가들이 미제의 충실한 개 박정희매국도당의 민족산업말살책동에 항거하면서 영업조건을 보장할것을 요구하여 견결히 싸웠다.

50명이하의 로동자들을 고용하여 약간씩의 석탄을 캐내고 있는 중소기업가들인 이들은 괴뢰도지사놈에게 항의문을 들이대고 자기들을 파산에 몰아넣으려는 원쑤놈들의 범죄적책동을 치솟는 격분으로 폭로규탄하면서 영업조건을 당장 보장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 도내의 중소석탄생산업자들은 다른 지방의 업자들과 마찬가지로 박정희매국도당이 미제상전놈들의 값비싼 석유를 더 많이 팔아주기 위해 매국적인 《유류전환정책》이라는것을 내놓고 남조선의 중소탄광들을 강제폐쇄하는가 하면 그들에 대한 은행자금의 대부를 억제하고 세금수탈을 강화함에 따라 더욱 극심한 경영난에 빠졌다. 그런데 원쑤놈들은 동발나무마저 제놈들의 전쟁준비를 위한 공사판들과 매판자본가놈들에게만 돌리면서 중소기업가들에게는 《배정》조차 하지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파산위기에 빠진 이곳 중소석탄생산업자들은 일제히 들고 일어나 영업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것이다.

보는바와 같이 이해 남조선에서는 도시의 가난한 주민들과 소상인, 중소기업가들도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에 고무되고 각성되면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보다 악랄해진 파쑈적폭압과 략탈책동을 반대하고 삶의 권리를 위해 더욱 세차게 싸우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 괴뢰군내 애국적군인들의 투쟁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남조선에서의 혁명투쟁은 미제침략세력과 그와 결탁한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반대하는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진보적 청년학생, 지식인, 애국적군인, 애국적 민족자본가들과 소자산계급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의 정의의 투쟁입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80페지)

대부분이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자제들인 괴뢰군병사들과 중하층 장교들은 남조선에서 고조되는 혁명운동의 영향하에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며 부모형제들을 살륙할것을 강요하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행위에 가담하기를 원치않고 있을뿐만아니라 일부 괴뢰군내 애국적군인들은 미제와 괴뢰도당을 반대하는 반미반괴뢰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고있다.

침략과 전쟁을 일삼으면서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의 청장년들을 제놈들의 값싼 대포밥으로 쓸 목적으로 괴뢰군에 끌어다가 온갖 민족적멸시와 박해를 가하고있다. 더우기 오늘 미제침략자들은 모략적인 《감군》설의 연막뒤에서 새 전쟁 도발책동에 더욱 미쳐날뛰면서 괴뢰군에 대한 전쟁《훈련》과 폭압을 그 어느때보다도 발악적으로 강화하고있다.

원쑤들의 이와 같은 범죄행위에 증오와 격분을 금치못하고있는 애국적인 괴뢰군병사들과 중하층장교들은 집단탈영, 명령거부 및 악질 《상관》처단, 나아가서 반미폭력투쟁 등으로 치욕스러운 괴뢰군살이를 반대하여 나서고있다.

1월 경기도 부평에 있는 미제침략군 69대대 702중장비중대에 얽매인 100여명의 괴뢰군병사들이 원쑤놈들의 민족적멸시와 학대에 항거하여 집단적인 반미투쟁을 단행한것은 그 대표적실례로 된다. 미제야수놈들이 최아무개라는 병사를 모욕하던 끝에 돌로 그의 머리를 때려 피투성이의 중상을 입히는 횡포한 만행을 감행한데 참을수 없었던 그들은 일제히 미제침략군 《중대장》놈의 사무실로 몰려가 돌벼락을 퍼부어 사무실을 짓부시고 원쑤놈들을 공포와 불안속에 몰아넣었다. 2월에도 미제3유도탄기지사령부 42포대의 괴뢰군병사들 100여명이 미제침략군놈들의 민족적멸시와 학대에 항거하여 놈들의 《명령》을 뿌리치고 집단적인 항의투쟁을 벌린것을 비롯하여 반미폭력투쟁이 련속 벌어졌다.

미제의 전쟁정책을 반대하는 괴뢰군병사들의 투쟁은 그들속에서 괴뢰군살이를 배격하여 부대를 뛰쳐나가는 청장년들이 급격히 늘어나고있는데서도 여실히 나타나고있다.

괴뢰군내에서는 미제의 더러운 고용병살이를 반대하여 한해동안에도 무려 3만 5천여명의 병사들이 부대를 탈출하고있다.

이러한 탈출투쟁은 개별적으로뿐아니라 집단적으로도 힘차게 전개되고있다.

례컨대 지난해 2월말 괴뢰군 모부대의 8명의 병사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새전쟁도발책동을 반대하여 무기를 가지고 집단적으로 부대를 뛰쳐나갔으며 2월 6일에는 20여명의 병사들이 카빈총과 탄약을 휘대한채 사라졌다. 이러한 투쟁은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다. 적들이 극히 줄여서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9월 한달동안에 무기와 실탄을 가지고 병영을 뛰쳐나간 병사들만도 50여명에 이루고있다.

이와 함께 괴뢰군내에서는 살인적인 파쑈규률과 혹심한 《기합》에 항거하여 《상관》놈들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그놈들을 처단해버리는 사건도 계속 늘어나고있다.

5월 괴뢰륙군 모부대의 김아무개병사가 《작전명령》을 거부하고 수류탄으로 악질《중대장》놈을 포함한 9명의《상관》놈들을 처단한 사건과 6월 경상북도 영천군에 있는 괴뢰군 모부대의 경비중대 김아무개병사가 학대와 폭압을 일삼는 악질장교들을 총으로 쏴죽이고 자취를 감춘 사건을 비롯하여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괴뢰군병사들의 각성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에 와서는 집단적인 항거로 번져가고있다.

괴뢰군 5군단의 27명의 병사들이 《상관》놈들의 횡포한 만행에 격분하여 집단적으로 놈들을 습격하고 19명의 깡패장교놈들을 처단한것은 그 대표적실례로서 그들의 투쟁이 얼마나 견결한가를 보여주고있다.

이밖에 괴뢰군병사들은 치욕스러운 미제의 고용병살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제대운동》도 완강히 벌리고있다. 7월말 괴뢰해병대의 한《해안초소장》과 그 분대원들은 미제의 저주로운 침략도구에 더는 얽매여있지 않을 굳은 결심밑에 구체적인 제대계획까지 짜놓고 투쟁하였으며 서울에 있는 괴뢰군《군의관》들 수십명도 집단적으로 제대를 위한 투쟁을 벌리였다.

괴뢰군내 애국적군인들의 이 모든 투쟁들은 원쑤들의 더욱 악랄해지는 파쑈폭압과 삼엄한 경계를 무릅쓰고 끊임없이 전개되고있다.

이것은 곧 그들의 높아가는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의 직접적반영이다.

여기에서 가장 주목되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각성된 괴뢰군병사들속에서

어버이 수령 김일성원수님에 대한 흠모와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된 공화국북반부를 동경하는 심정이 더욱 두터워져가고있는것이다.

괴뢰군병사들속에서는 원쑤들의 삼엄한 경계와 파쑈폭압속에서도 경애하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흠모와 존경심에 넘쳐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거나 서로 배워주면서 그이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일이 적지않게 나타나고있다. 특히 이해에 이러한 현상은 개별적 병사들로부터 중하층장교들까지 망라된 집단행동으로 표현되였다.

수령님에 대한 경모의 정이 병사들속에서 더욱 높아가고있는 가운데 3월 괴뢰군사단 모중대 장교들이 《우리 민족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 령도하시는 조선로동당의 정책이 정당하며 김일성장군님의 령도를 받는 인민군대와 인민은 필승불패이다.》라고 하면서 그이에 대한 끝없는 흠모와 존경의 정을 표시한것은 그의 단적실례이다.

이미 병종이 서로 다른 신영복, 리영근, 홍준철, 신남휴 등 중하층장교들이 지하혁명조직에 망라되여《김일성선집》을 비롯한 그이의 불후의 로작들과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전기 《김일성전》을 탐독하면서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체득하기에 힘쓰는 한편 동료병사들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적극 활동한데서도 알수 있는바와 같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에 대한 깊은 경모의 정으로 가슴불태우는 그들의 애국적활동은 더욱 목적의식화되여가고있다.

이것은 괴뢰군병사들의 각성을 촉진시키고 그들을 미제의 침략전쟁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나서게 하는데서 거대한 고무적힘으로 되고있다.

특히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자라난 우리 인민군이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미제의 거듭되는 군사적도발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참패를 안겨주고있는 당당한 위세와 륭성발전하는 공화국북반부의 자랑찬 현실은 그들의 반미반전투쟁을 고무하고있다.

괴뢰군병사들속에서 김일성장군님의 령도를 받는 북반부는《나날이 발전하며 인민들은 누구나 잘 살고있다》, 《못살곳은 남조선이다, 월북해야 한다》, 《이북의 군사력은 비할바없이 강하다》는 말들이 널리 퍼지고 있는것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러 기회를 리용하여 사선을 헤치고 용약 공화국북반부로 넘어오고있다. 이해에도 괴뢰군 28사단 80련대 3대대 11중대 중대장(대위)이였던 김해진을 비롯하여 많은 괴뢰군장병들이 대담하게 의거입북하였다. 또한 괴뢰륙군 모사단 소속 51련대 1대대 장교 안아무개와 병사들 3명은 괴뢰군살이를 벗어나는 길만이 참된 삶의 길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공화국북반부로 간다》는 편지를 써놓고 부대를 뛰쳐나갔다.

괴뢰군내애국적군인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에 기초한 반미반파쑈투쟁은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있다. 그것은 또한 남조선에서 반혁명세력의 내부위기를 심화시키는 중요 요인의 하나로 되고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미제와 박정희반역도당은 어떻게하든지 괴뢰군병사들을 침략의 대포밥으로 얽어매놓고 새 전쟁도발에로 내몰기 위하여 파쑈적인 폭압규률을 더욱 강화하며 《반공》선전에 기를 쓰고 매달리면서 인민들의 드높은 혁명투쟁의 영향이 병사들속에 미치지 못하게 하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다.

그러나 놈들의 이러한 발악적책동은 도리여 애국적군인들의 반대기세를 북돋아줄 뿐이다. 적들의 무모한 새전쟁도발책동과 탄압이 격화되면 될수록 애국적군인들의 반미반전투쟁이 더욱 적극화되여가고있는 사실은 그것을 여실히 실증해주고있다.

격동된 혁명정세속에서 민족적 및 계급적각성이 드높아가고있는 남조선의 괴뢰군내 애국적군인들은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과 함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에 더욱 억세게 나설것이다.

#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 혁명승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우리의 조국통일방침에 대해서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방침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민족적량심을 가진 민주인사가 정권에 들어앉아 미군철거를 주장하고 정치범들을 석방하며 민주주의적자유를 보장하는 조건이라면 그들과 언제 어디서나 평화적조국통일문제를 가지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것을 루차 표명하였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91—92페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립장은 예나 오늘이나 다름이 없다.

공화국정부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민주주의통일정부를 세우는 방법으로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할것을 시종일관 남조선위정자들에게 제의하였다.

공화국정부는 만일 남조선당국이 이러 저러한 사정으로 당장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접수할수 없다면 먼저 민족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긴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하나의 과도적조치로서 남북조선련방제라도 실시할것을 여러번 제의하였다.

우리 당과 정부가 제기한 모든 방안들은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어디까지나 우리 인민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려는 자주적립장을 구현하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민주주의적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념원을 그대로 반영한것이다.

이것은 그 공명정대성으로 하여 전체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지지와 환영을 받고있다.

그러나 남조선의 괴뢰도당은 전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한 우리의 정당한 제안들을 매번 묵살해버렸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한사코 반대하여 왔다.

조국통일을 반대하고 극악한 매국배족행위만을 일삼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이 《통일》에 대하여 말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다만 《유엔감시하의 선거》와 《승공통일》을 뇌까리는것뿐이다.

놈들이 떠벌이는 《유엔감시하의 선거》란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에 외세를 끌어들이려는것으로서 그 반동성은 이미 남조선에서 여러번 감행된 이른바 《유엔감시하의 선거》에서 여지없이 드

러났으며 해마다 미제가 거수기를 발동하여 유엔에서 《채택》하는 소위 조선문제에 대한 결의가 무엇보다도 그것을 잘 폭로해주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이 떠벌이는 《유엔감시하의 선거》란 남조선에 수립된 미제의 식민지통치제도를 북조선에까지 연장하려는 흉악한 책동을 가리우기 위한 병풍에 지나지않는다.

놈들이 부르짖고있는 《승공통일》에 대하여 말한다면 공산주의를 없애고 《통일》한다는것인데 그것은 도저히 실현될수 없는 허황한 망상이며 얼빠진 자들의 잠꼬대이다. 누구에게나 명백한바와 같이 조선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제쳐놓고 나라를 통일하겠다는것은 사실상 통일을 하지 않자는것이며 남조선을 영원히 미제의 식민지로 내맡기자는것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는 박정희반역도당의 범죄적정체는 놈들이 광고하고있는 이른바 《평화통일구상》이라는 넉두리에서 더욱 똑똑히 드러났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이른바 《평화통일구상》에서 아무런 제안도 내놓지 못하고 지금은 통일방안을 제기할 때가 아니라느니, 《유엔의 권능》이니, 《남침의 위협》이니 하고 케케묵은 공념불만을 되풀이하였다. 이것은 민족분렬을 영구화하려는 상투적인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놈들이 《통일구상》이요, 뭐요 하고 떠벌이는 목적은 남조선에서 날로 높아가고있는 자주적평화통일기운을 무마하고 저들의 매국배족행위를 가리우며 우리의 조국통일방안을 지지하는 세계의 여론을 딴데로 돌리려는데 있는것이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인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그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현군사파쑈독재를 뒤집어엎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94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이 교시는 지난 25년간에 걸친 우리 당의 투쟁의 력사적경험 그리고 조국통일의 기본장애물인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극악무도한 반동적본질과 놈들에 의하여 실시되고있는 남조선의 식민지통치의 악랄성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정당하고 혁명적인 방도를 제시해주고있다.

남조선에 미제침략군대와 괴뢰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나라의 평화적통일이란 생각조차 할수 없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오직 미제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남조선혁명을 완수하는 조건하에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가 철폐되며 박정희괴뢰정권이 타도되고 인민이 정권을 잡게되면 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조선의 애국적민주력량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우리 조국의 통일은 순조롭게 실현될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은 결코 미제국주의자들과의 투쟁을 배제하거나 인민의 원수들과의 어떤 《타협》이나 사회제도의 이른바 《평화적이행》에 관한 《리론》과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장구하고도 간고한 조국해방투쟁시기에 창조하신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우리 혁명발전의 현단계의 요구에 맞게 발전완성하신데 기초하여 조국통일을 더 빨리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혁명력량을 빨리 키워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혁명이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세가지 혁명력량이 잘 준비되여야 합니다. 그 첫째는 북조선의 혁명력량이며, 둘째는 남조선의 혁명력량이며, 셋째는 국제적혁명력량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80페지)

조국통일을 위한 3대혁명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방침은 조선혁명을 끝까지 조선인민이 책임지고 자신의 힘으로 수행할데 대한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한 탁월한 방침이며 미제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모든 혁명력량을 동원하여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게 하는 정확한 방침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실현을 위한 방침들은 실로 우리 혁명승리를 밝혀주는 등대이며 기치이다.

생활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당과 위대한 수령의 주위에 철석같이 뭉쳐 그이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공화국북반부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반석같이 다져놓았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에 관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은 오늘 남조선의 현실에 빛나게 구현되고있다.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은 적들의 류례드문 폭압속에서도 계속 장성하여왔으며 이해에도 더욱 확대강화되였다. 통일혁명당을 핵심으로 하여 혁명의 주력군이 튼튼히 꾸려져가고있으며 각계각층 광범한 군중속에 혁명의 뿌리가 내려지고있다.

남북혁명력량으로 이루어진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이 비상히 강화된것과 함께 국제혁명력량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을 높이 받들고 우리 당이 실시한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자주적인 대외정책과 원칙적인 투쟁에 의하여 조선인민과 미제와 직접 맞서 싸우는 나라, 혁명하는 나라인민들과의 단결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한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지지가 비할바없이 커졌다.**

이리하여 국내외정세는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더욱 유리하게 전변되여가고 있으며 통일의 서광은 우리 앞에 한걸음한걸음 다가오고 있다. 1970년의 사태발전은 이것을 뚜렷이 실증해주었다.

## 주체적혁명력량의 장성강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1970년에 우리 인민은 조국통일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주체적혁명력량을 더욱 강화하는 투쟁을 힘차게 벌린 결과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공화국북반부 인민들은 이해에 조선혁명의 기지로서의 공화국북반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 놓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커다란 힘을 마련하여놓았다는것을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37페지)

이해에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발전에서와 우리 인민의 정치생활에서 거대한 력사적사변이였던 당 제5차대회를 통하여 조선혁명의 세련된 참모부인 우리 당의 전투력은 더욱 강화되고 인민대중속에서 당의 권위와 신임은 비할바없이 높아졌으며 수령의 두리에 뭉친 전당과 전체인민의 통일단결은 더욱더 불패의것으로 되였다.

또한 당원들과 인민들은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를 앞두고 당 제4차대회와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과업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며 웅대한 7개년계획을 완수하기 위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그 어느때보다도 힘차게 다그침으로써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특히 영웅적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은 7개년계획의 마지막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로 내달려 우리 조국력사에 빛날 커다란 성과와 업적을 쌓아올렸다.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그들은 수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혁명적열의로 영웅적인 투쟁을 벌려 도처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당제5차대회전까지 7개년계획과 년간계획을 넘쳐완수하였으며 나라의 공업생산을 10월말에 벌써 전해실적의 131%로 올려 놓았다.

이 과정에 수많은 현대적인 대규모 공장들을 신설 또는 개건확장하였으며 불과 반년남짓한 기간에 1천 760개의 지방공장을 새로 일떠세웠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받들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였다.

우리 당 제5차대회는 우리 나라가 자립적이며 힘있는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였다는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우리의 일당백의 혁명무력인 인민군대는 맡겨진 전투정치훈련과제를 훌륭히 수행하여 자체의 전투력을 더 한층 강화하였다.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하는 당의 방침이 더욱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전국가적, 전인민적 방위체계는 어떠한 정황에도 대처할수 있게 더욱 철벽같이 강화되였다.

이리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할수있는 커다란 힘이 마련되였다.

이해에 공화국 남반부에서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남조선혁명에 관한 탁월한 방침이 실현됨으로써 혁명력량은 급속히 장성되고 혁명운동은 앙양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총결기간 남조선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이 더욱 강화되여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며 조국을 통일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는 획기적인 전진이 이루어졌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 페회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고 있는 통일혁명당이 결성됨으로써 혁명투쟁은 한층 조직화되고 의식화되고있다. 통일혁명당을 핵심으로 하여 혁명의 주력군이 튼튼히 꾸려져가고있으며 각계각층 광범한 군중속에 혁명의 뿌리가 내려지고있다.

남조선혁명의 정치적참모부인 통일혁명당의 지도밑에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들은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 민족적해방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용감히 벌렸다.

남조선혁명가들은 자신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기 위해 힘쓰는 한편 광범한 인민대중을 그이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수령의 두리에 굳게 결속하여 반미구국투쟁에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강력히 벌리였다.

결과에 통일혁명당은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공고화되였으며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음으로써 그의 영향력은 보다 확대강화되였다.

이리하여 생존과 민주주의적권리를 위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투쟁은 반미구국투쟁에로 발전앙양되여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인민들의 혁명적진출에 당황하게 된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 박정희반역도당은 심각한 궁지로부터의 출로를 무모한 전쟁도발책동과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류례없는 파쑈폭압에서 찾으려고 날뛰였다. 그러나 놈들이 그렇게 하면할수록 더욱더 헤여날수 없는 파멸적위기에 빠져들어갔다. 원수들에 대한 인민들의 항거와 불만은 날로 커가고있으며 지배층내부에서의 알력과 모순은 날을 따라 더 날카로와지고 있다.

남조선에서 혁명의 기운은 더욱더 성숙되여가고있으며 정세는 자유와 해방,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혁명투쟁에 보다 유리하게 전변되였다.

우리 공화국의 영예로운 해외공민인 60만 재일동포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공화국정부의 정책을 높이 받들고 이해에도 총련의 지도밑에 자기 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총련조직은 더욱 반석같이 다져지고 그의 영향력과 국제적지위는 보다 강화되였다.

전체 재일동포들은 경애하는 어버이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총련의 주위에 튼튼히 결속되여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영예롭게 지키며, 《민단》영향하의 동포들과의 민족단합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그들은 미일반동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의 침략적매국책동을 걸음마다 폭로 분쇄하며 남조선인민들의 성스러운 반미구국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 투쟁을 힘차게 벌리였다.

이와 함께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진행하여 일본인민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진보적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조국통일방안을 널리 해설선전하는데 힘썼다. 이리하여 공화국의 위신을 높이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와 같이 1970년 한해동안에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은 비상히 장성강화되였으며 남북조선 전체 인민은 혁명의 위대한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쳐 그이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방침의 실현을 위해 힘차게 투쟁하여 나아갔다.

##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반부인민들은 자기의 혁명투쟁에서 외롭지 않으며 북반부에 위력한 혁명기지를 가지고있습니다. …북반부인민들은 같은 민족으로서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원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90~91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할 열망에 불타고있는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를 더 한층 앙양시켜 혁명기지를 더욱 튼튼히 다짐과 함께 남반부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이해에 공화국북반부에서는 남반부인민들의 투쟁을 지지성원하여 여러차

레에 걸치는 공화국 정부성명 및 비망록, 외무성성명, 외무성대변인성명, 근로단체 및사회단체들의 성명과 담화들을 발표하였으며 광범히 진행된 군중집회, 보고회들에서 남조선 각계층인민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호소문들을 채택하였다.

성명, 담화, 비망록, 호소문, 편지들에서는 남조선혁명의 주되는 대상이며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인 미제침략자들과 그의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의 새 전쟁 도발책동과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행위를 단호히 폭로규탄하는 동시에 남반부인민들의 정의의 반미구국투쟁을 열렬히 지지성원하였다.

공화국정부는 8월 29일에 정부성명, 6월 22일과 9월 16일에 정부비망록을 발표하였으며 7월 26일, 8월 23일, 10월 25일, 12월 11일에 외무성성명, 10월 14일과 12월 24일에 외무성대변인성명을 각각 발표하였다. 성명들은 일치하게 남조선을 강점하고 남반부인민들에게 모든 고통을 들씌우고있는 불구대천의 원수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의 동맹자 및 앞잡이놈들의 죄행을 준렬히 폭로규탄하였다.

8월 29일부 정부성명과 6월 22일부, 9월 16일부 정부비망록들을 통하여 공화국정부는 조선에서 력사적으로 감행된 미제의 침략행위를 낱낱이 폭로단죄하고 놈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의 범죄적진상과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비법성을 온 세상에 다시한번 폭로하였다.

공화국정부는 성명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이 침략전쟁 도발책동을 당장 그만두고 저들의 침략군대와 살인무기를 걷어가지고 지체없이 남조선에서 물러가야 하며 미제의 침략적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은 해체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8월 23일부 공화국 외무성성명과 10월 14일, 12월 24일부 외무성 대변인성명들에서는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감축》의 기만소동의 막뒤에서 격화시키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폭로규탄하고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감히 조선에서 또다시 새 전쟁을 도발하는 군사적모험의 길에 들어선다면 놈들은 제놈들이 지른 전쟁의 불길속에서 영영 타없어지고야 말것이라고 경고하였다.

7월 26일부 외무성성명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서 새 전쟁 도발책동을 더욱 격화시키면서 여기에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끌어들이며 남조선괴뢰도당의 군사력을 더욱 증강하기 위하여 미친듯이 날뛰고있는것을 폭로규탄하였다. 성명은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자기의 주권과 령토완정을 침해하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방해하는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의 공모결탁을 결코 용허하지 않을것이며 놈들의 어떠한 침략책동도 짓부셔버리고야 말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해 2월에 근로단체들과 사회단체들에서는 미제의 지시밑에 감행하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인 동족매매행위를 규탄하며 이에 항거해 싸우는 남반부인민들의 투쟁을 지지성원하는 성명과 담화들을 발표하였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월 2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미제의 지시밑에 감행되고있는 박정희매국도당의 배족적인 동족매매행위를 단호히 규탄하였으며 남조선인민들이 단 한사람도 해외에 팔려가지말고 다같이 들고일어나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을 타도하며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억세게 싸우라고 호소하였다.

그러면서 성명은 남조선인민들이 우리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굳게 뭉쳐 반미구국투쟁을 더욱 억세게 벌림으로써 반드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자유와 해방을 달성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들도 각각 담화를 발표하여 박정희괴뢰도당이 미제의 지시밑에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녀성들을 또다시 해외에 팔아넘기는 천추에 용납못할 범죄적행위를 감행하고있는것을 단호히 규탄하고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박정희괴뢰도당을 쓸어버리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견결히 싸우라고 호소하였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8월 17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미제침략자들의 야수적만행을 규탄하고 놈들의 만행에 항거하여 과감히 싸우고 있는 남조선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에 전투적지지와 동포애적성원을 표시하였다. 성명은 조선인 로동자들에게 집단적폭행을 가하며 사람들을 자동차로 깔아죽이고 사냥총으로 쏘고 녀성들을 때려 실신시켜놓고는 면도칼로 머리를 밀어버리는 등 남조선에서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의 야수적만행을 폭로하고 이것은 해적의 후예들이며 20세기의 야만들인 미제침략자들만이 저지를수 있는 천추에 용납못할 범죄행위라고 규탄하였다.

성명은 또한 남조선괴뢰도당이 극히 축소하여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범죄적인 《한미행정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최근 3년간에 미제침략군놈들이 감행한 만행건수는 무려 7천여건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오늘 남조선인민들이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의 범죄적만행에 치솟는 민족적격분을 터뜨리면서 대중적반미구국투쟁을 힘차게 벌리고 있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천만번 정당한 애국투쟁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는 남조선에서 로동자들과 인민들의 분신자살참극이 련이어 일어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12월 1일에 성명을 발표하여 이것은 미제국주의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의 침략적이며 매국배족적인 정책과 남조선의 반인민적인 사회제도의 직접적산물이며 따라서 이것은 곧 자살이 아니라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이 감행한 타살행위라고 락인하였다.

그러면서 성명에서는 남조선로동자들은 죽음으로써 원쑤들에게 항거할것이 아니라 놈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끓어오르는 격분을 바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는 투쟁에 돌리여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군사파쑈독재를 단호히 분쇄하며 언론, 출판, 집회결사, 시위 및 파업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적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정치투쟁과 임금인상, 로동조건의 개선, 8시간로동제의 실시 등 생존과 민주주의권리를 위한 투쟁을 더욱 강력히 벌리라고 호소하였다.

이에 앞서 조선운수및 항만로동자직업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7월 16일에 담화를 발표하여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찾기 위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해 용감히 싸우고있는 남조선철도로동자들에게 열렬한 전투적지지와 성원을 보냈다.

이해에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남반부인민들의 4월봉기열돐기념, 남조선청년학생들의 6. 3투쟁여섯돐기념회를 비롯하여 광범한 군중집회들을 가지고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6월 25일에 진행된 《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군중대회에서는 남조선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이 호소문에서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가혹한 파쑈폭압에도 굴함없이 자유와 해방과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싸우고있는 통일혁명당 당원들

과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등 각계각층 인민들의 정의의 반미구국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전투적 성원을 보냈다.

호소문에서는 또한 남조선인민들은 투쟁에서 외롭지 않다고하면서 남조선인민들에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혁명의 진로가 있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으며 공화국북반부의 강력한 혁명기지와 북반부인민들의 전투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다고 지적하고 남조선인민들은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수령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승리의 신심 높이 더욱 억세게 더욱 용감하게 싸우라고 호소하였다.

이해에 또한 전국수산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은 남조선어민들에게, 3.8국제부녀절 예순돐기념중앙보고회 참가자들은 남조선녀성들에게, 전국중학생체육대회 참가자들은 남반부학생들에게 각각 그들의 반미구국투쟁을 열렬히 지지성원하는 편지를 보냈다.

60만 재일동포들을 비롯한 해외동포들도 이해에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열렬히 지지성원하여 나섰다.

재일동포들은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각종 군중집회들과 담화들을 발표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4월봉기열돐에 즈음하여 재일조선청년학생들은 일본각지에서 기념대회들을 가지고 남조선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반미구국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지성원하며 남조선에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을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투쟁을 더 한층 강화할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특히 이해에 남조선청년학생들이 삶의 권리를 위한 로동자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며 대중적공동투쟁을 힘차게 벌린것과 관련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교육부장은 담화를 발표하여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이 투쟁은 오늘 남조선청년학생들과 로동자들간의 조직적뉴대가 더욱 긴밀해지고있으며 청년학생들의 투쟁이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하여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60만 재일동포들이 미제와 그 주구들의 전쟁정책과 파쑈폭압을 반대하며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우는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모든 힘을 다하여 지지성원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자유와 해방,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이 공화국북반부인민들과 재일동포들의 힘찬 지지성원에 고무되면서 줄기차게 전개되고있음을 말하여주고있다.

## 국제적련대성의 강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전반적국제정세는 반혁명에는 불리하고 혁명에는 유리하게 전변되고있으며 모든 대륙의 진보적인민들이 남조선에 대한 미제국주의의 침략정책을 규탄하고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해방투쟁을 견결히 지지성원하고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91페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군대가 물러간 조건에서 어떠한 외부세력의 간섭도 없이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조국의 통일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안은 남북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반영하고있는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침이다.

때문에 전세계 혁명적인민들과 벗들은 한결같이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이 방침을 열렬히 지지하고있으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싸우고있는 조선인민에게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고있다.

1970년 4월에 우리 나라를 공식적으로 친선방문한 중화인민공화국 주은래총리는 공동콤뮤니케를 통하여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 침략정책이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이며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날수있는 항시적근원이라고 인정하면서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사람들 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정당한 조국통일방침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것을 재확인하였다. 이해 6월에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한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완전히 무조건 철거시키고 유엔이나 그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국을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통일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정당한 립장과 조선인민의 거족적인 투쟁에 무조건적인 지지를 다시금 표명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해에 우리 나라를 방문한 칠레공산당대표단, 단마르크공산당대표단, 오지리공산당대표단, 스위스로동당대표단, 일본사회당대표단을 비롯한 형제당들과 벗들은 한결같이 미제를 남조선에서 무조건 즉시 완전히 철거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면서 세계 모든 인민들이 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하고있는 침략과 전쟁도발책동에 경각성을 높이며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고 조선인민자신이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광범한 련대성운동을 벌리는것이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강조하였다.

전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은 또한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에 열렬한 지지성원을 보내고있다.

2월말 세계직련뷰로회의는 조선인민이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자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하여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이 즉시 철거할것을 주장하며 투옥된 모든 남조선애국자들을 석방하도록 요구할것을 세계의 모든 근로자들과 직맹들에 호소하였다. 4월 17일 세계민주청년련맹뷰로는 남조선인민들의 4월봉기 열돐에 즈음하여 세계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여 세계 모든 진보적청년들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의 즉시 철거를 요구하는 견결한 조치를 취할것을 호소하였다.

버마조선친선협회에서도 남조선인민들의 4월봉기 열돐에 즈음하여 군중집회를 가지고 남조선인민들에게 보내는 련대성 편지를 채택하였으며 인도사회단체들도 4.19인민봉기 열돐에 즈음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에게 련대성을 표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해에도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의 기간에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이 세계적범위에서 진행되였다.

이해의 국제적인 반미공동투쟁월간행사는 사회주의나라들은 물론 아세아, 아프리카의 민족적독립국가들과 싸우는 라틴아메리카나라들, 일본, 스웨리예, 핀란드, 단마르크 등 아세아와 구라파의 자본주의 나라들 그리고 미국내에서까지 전례없이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였다.

이 월간에 중화인민공화국대표단, 윁남민주공화국 정부대표단, 남부윁남공화대표단, 캄보쟈대표단, 라오스애국전선대표단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에서 각계대표들이 우리 나라에 왔었다.

이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조선인민의 정당한 위업을 지지하여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로부터 전문을 보내왔으며 국제기구들과 3대륙의 싸우는 나라들의 여러 민족해방조직 지도자들, 우리 나라와 친선관계를 맺고있는 단체들, 각국의 진보적정당들과 인사들, 각계각층의 군중집회참가자들로부터 전문과 편지를 보내여왔다.

사회주의나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의 민족적독립국가들, 라틴아메리카나라들과 일본을 비롯한 여러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하여 군중집회와 반미시위들을 광범히 조직진행하였으며 강연회, 사진전람회, 영화감상회 등 다채로운 련대성행사들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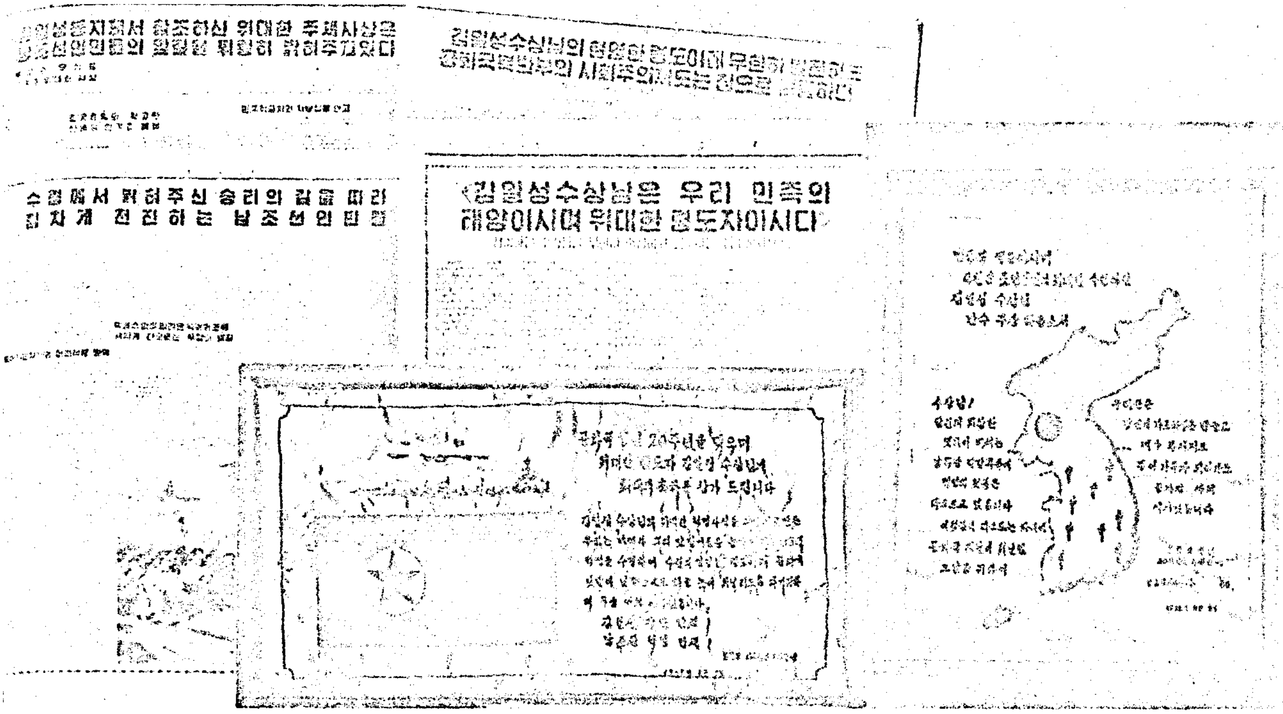
중국에서는 베이징에서 진행한 군중대회를 비롯한 중국각지에서 광범히 진행한 련대성행사들을 통하여 공동의 원수 미제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언제나 조선인민과 굳게 손잡고 싸우려는 중국인민의 확고한 결의를 보여주었으며 꾸바에서는 이 월간에 특히 《조선인민과의 련대성꾸바조직위원회》를 조직하고 조선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지하는 여러가지 행사들을 진행하였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조선에서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단죄규탄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는 군중집회와 반미시위들은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도 광범히 진행되였다.

《미제반대투쟁의 날》에 미국의 뉴헤븐시에서는 수많은 군중들이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강점을 규탄하고 조선인민에게 련대성을 표시하는 시위를 벌리였으며 도꾜를 비롯한 일본의 여러 도시들과 단마르크의 수도 코펜하겐 및 스웨리예, 핀란드 등 기타 자본주의나라들의 도시들에서도 각계층의 수많은 인민들이 미제의 조선강점과 침략정책을 단죄규탄하는 군중집회와 반미시위를 벌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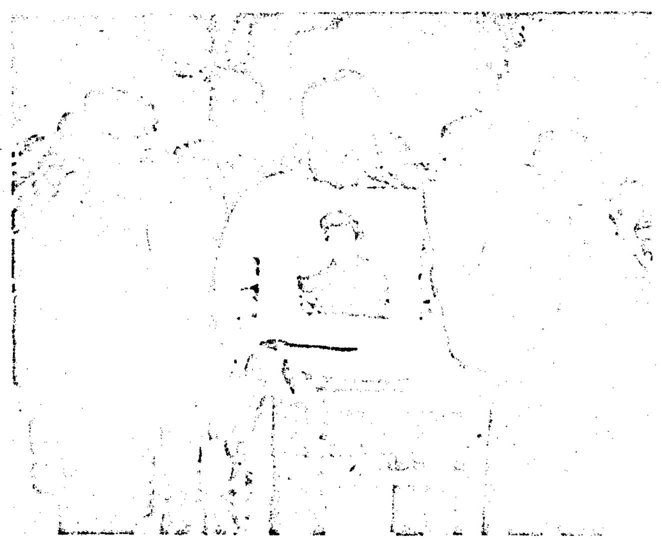
또한 3대륙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 국제학생동맹 서기국, 국제기자동맹 서기국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국제민주단체들, 각국의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들과 인사들은 성명, 호소문, 담화, 서한 등을 발표하여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침략정책을 항의규탄하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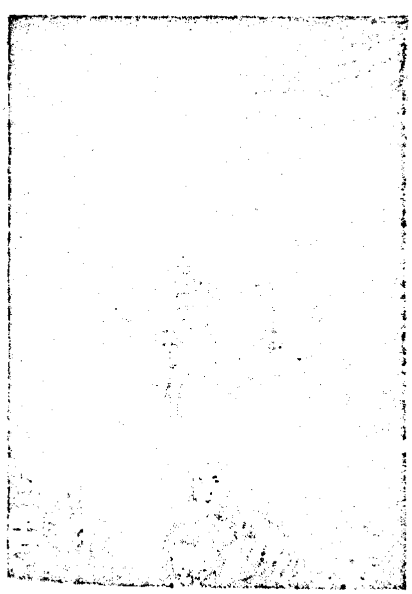
혁명의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을 높이 받들고 우리 당이 실시한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주적인 대외정책과 원칙적인 투쟁에 의하여 조선인민과 투쟁하는 나라,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과의 단결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한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지지가 비할바없이 커졌다. 이와 같이 이해에 우리 혁명의 국제적환경도 조선인민에게 더욱더 유리하게 변하여 갔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4천만의 어버이 수령이신 김일성수상님께서 밝혀주신 승리의 길을 따라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충성의 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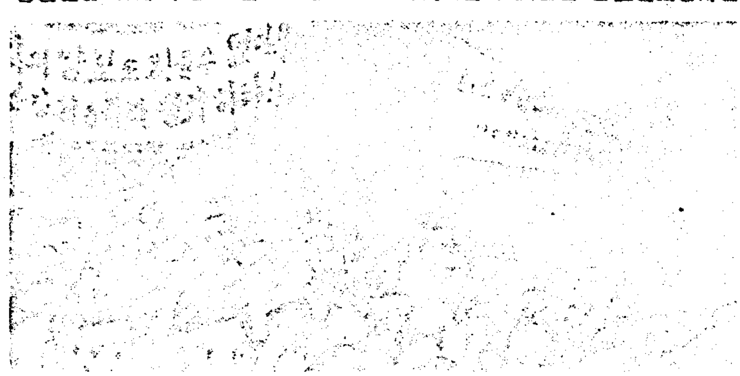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착취와 억압에 항거하여 분신자살한 재봉공 전태일청년의 추도식을 갖고있는 남조선청년학생들. 이들은 《전태일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다》, 《로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로동자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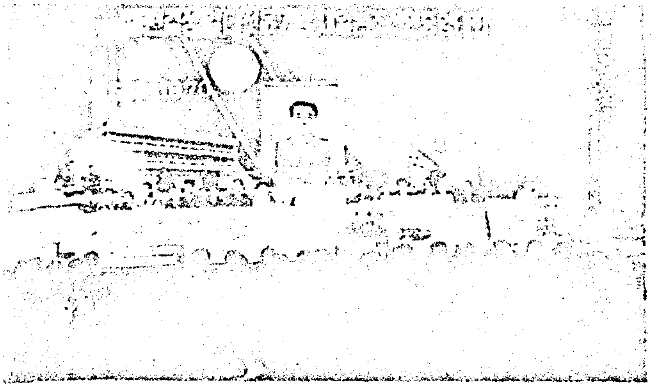




사기적방법으로 살림터를 빼앗으려는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여 싸우고있는 서울 영등포주민들

생존권을 위해 투쟁에 떨쳐나선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된 남조선로동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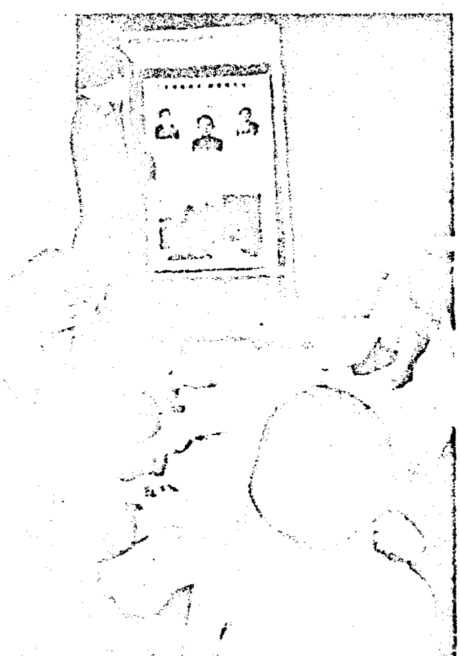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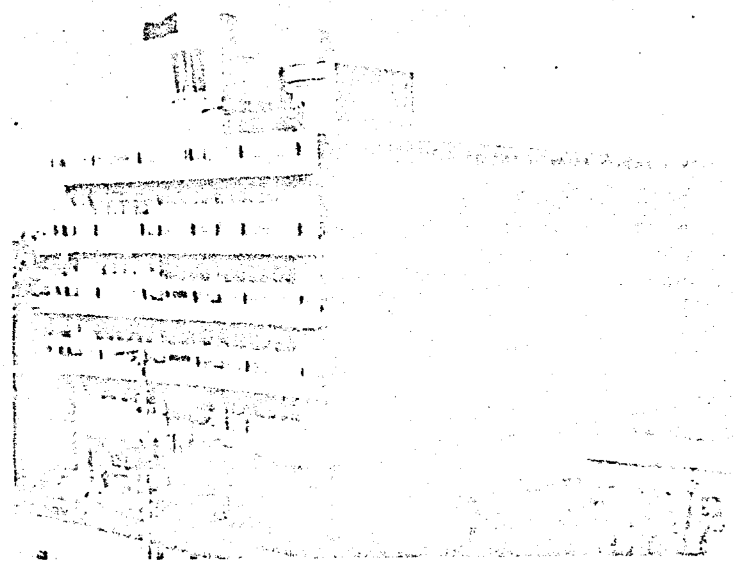
총련결성열다섯돐기념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신 김일성원수님께서 총련결성열다섯돐 및 제9차전체대회를 축하하여 보내주신 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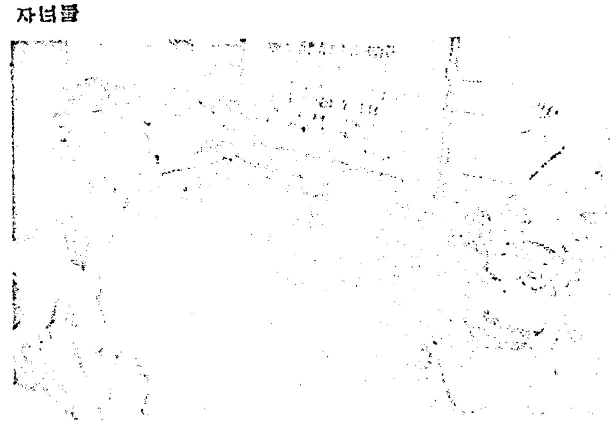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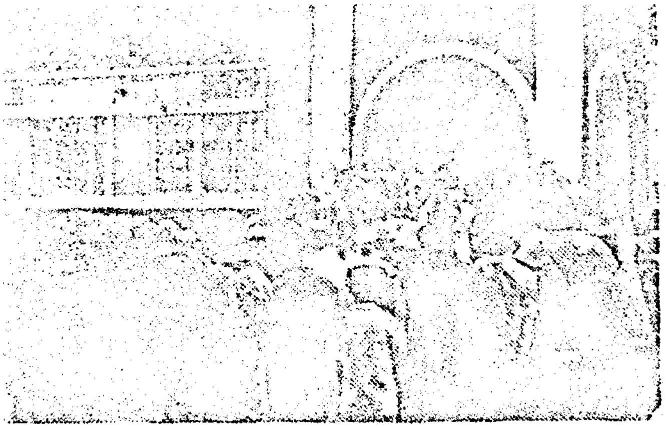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하여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역사를 깊이 학습하고있는 재일동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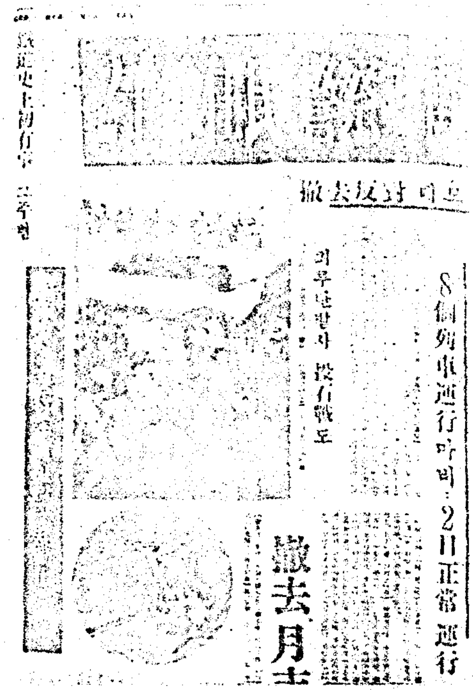
60만 재일동포들의 단결된 힘을 과시하는 재일본조선회관

어버이 수령님께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또다시 보내주시였다는 속보를 보고 기쁨에 넘쳐있는 재일조선동포들의 자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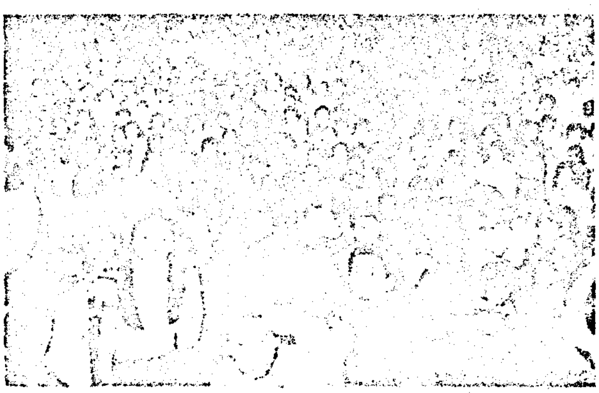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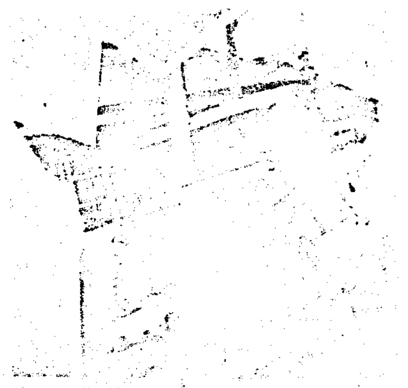
전쟁준비를 위한 공사를 벌려 논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괴뢰도당의 악랄한 행위를 반대하여 괴뢰군청에 몰려가 싸우고있는 남조선농민들




박정희파쑈악당의 강제철거를 반대하여 완 투쟁을 벌리고있는 려수시주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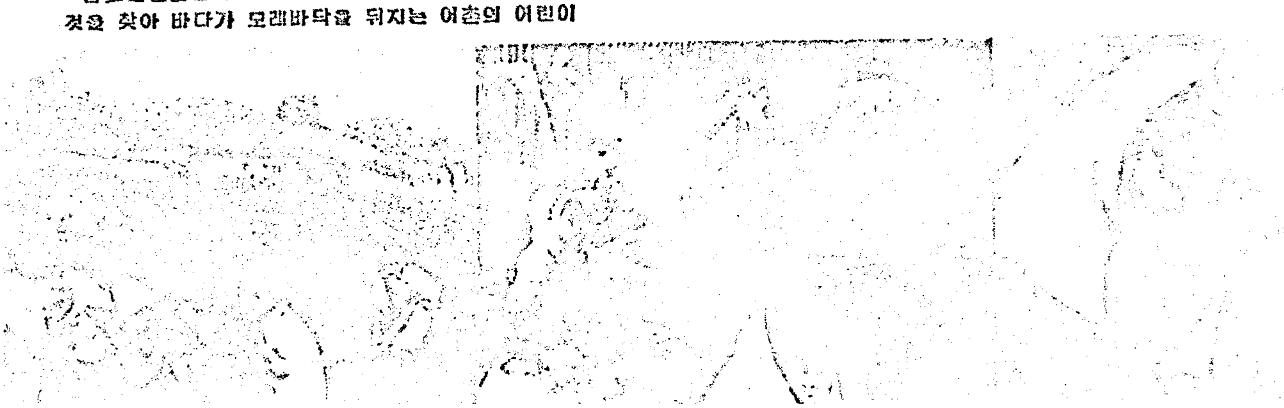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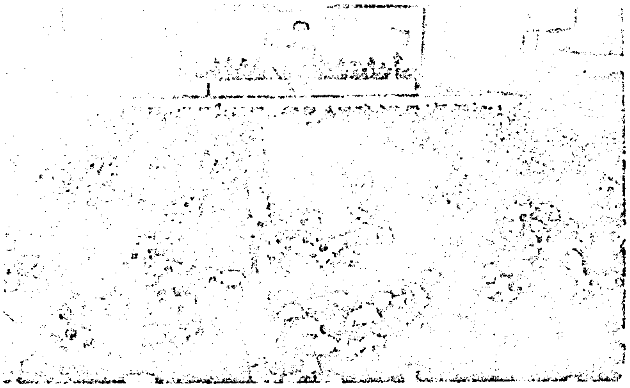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탄압을 반대하며 학원의 민주화를 위하여 싸우고있는 남조선학생들과 부형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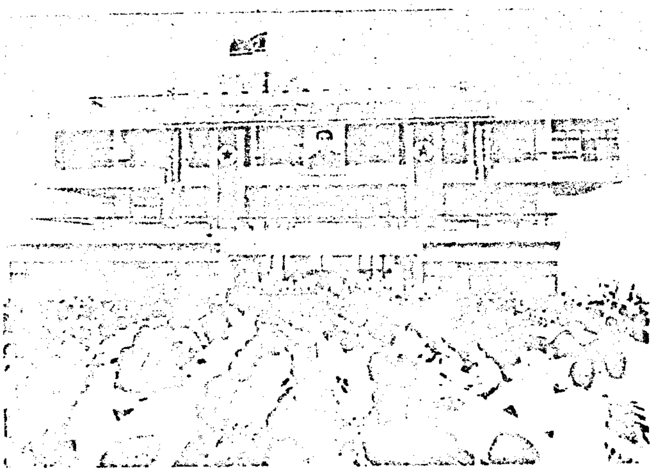
미제침략군 야수놈이 짚차를 미친듯이 몰아 길가는 주민을 깔아죽였다

남조선인민들의 참상—(왼쪽으로부터) 소가 없어 사람들이 대신하는 논갈이, 삯김을 찾아 도시로 밀려든 리농민들, 먹을것을 찾아 바다가 모래바닥을 뒤지는 어촌의 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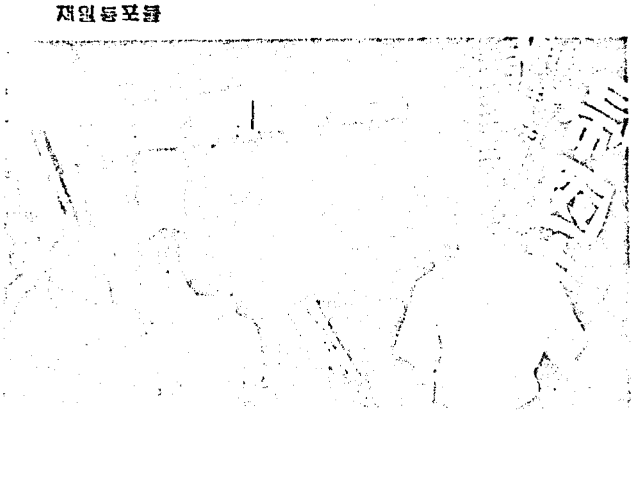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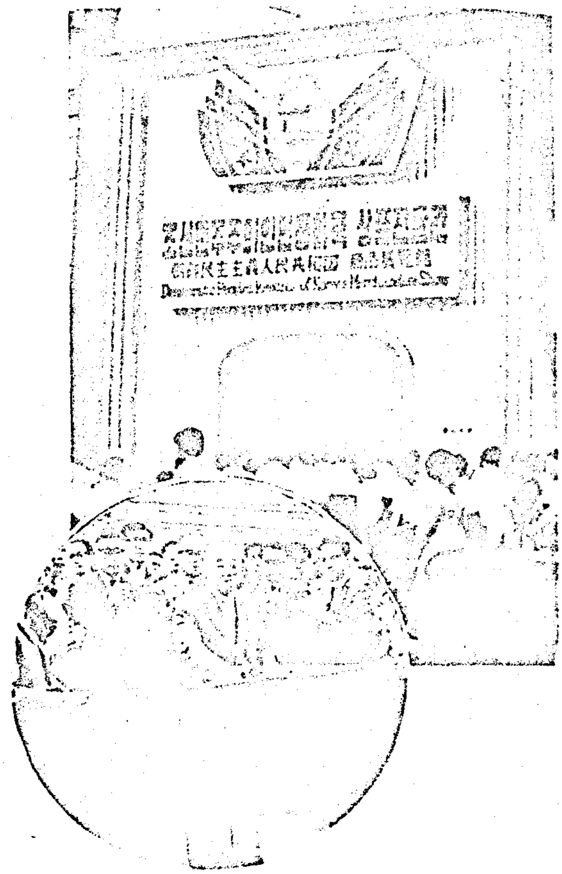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열렬히 축하하는 재일동포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두돐기념 후꾸시마 조선초급학교 새 교사준공모임을 갖고있는 재일동포들

귀국의 배길을 다시 열기 위하여 완강히 투쟁하고있는 재일동포들





60만 재일동포들의 환호와 일본인민들의 깊은 관심속에서 련일 대성황을 이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상품전람회, 개막테프를 끊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한덕수의장



치욕스러운 괴뢰국적을 벗어던지고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되찾고 기쁨에 넘쳐 《김일성원수 만세!》를 목청껏 웨치는 재일동포들

# 미제강점하의 남조선형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총화기간 남조선정세추이를 특징지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자기들의 군사침략기지로, 군사적부속물로 더욱 철저히 전변시켰으며 군사파쑈독재에 의거하여 침략과 전쟁 정책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였습니다. 다른 한편 남조선에서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이 더욱 첨예화되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혁명적진출이 적극화되였으며 따라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에는 보다 심각한 위기가 조성되였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79페지)

이해 남조선에서의 정세추이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침략과 전쟁정책에 더욱더 발악적으로 매여달림으로써 남조선에서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은 그 어느때보다 날카로와지고 이에 따라 미제의 식민지통치위기가 보다 심화된것이였다.

## 발악적인 침략과 전쟁책동

교활한 미제침략자들은 세계도처에서 갈수록 드높아가는 반미기세를 무마하며 악명높은 《새 아세아정책》을 실현하려고 남조선에서 모략적인 《미군감축》설을 요란하게 퍼뜨리면서 그 연막뒤에서 새 전쟁준비와 도발책동을 더욱 발악적으로 감행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군사깡패들로 하여금 있지도 않는 《북으로부터의 침입》을 고아대게 하면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새로운 침략전쟁준비에 미쳐날뛰였다.

적들은 남조선을 제놈들의 침략적군사기지로 더욱더 전변시키며 무력증강과 광란적인 전쟁도발소동을 끊임없이 감행 하였다.

**【군사침략기지 강화책동】**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의 요구에 따라 오늘 남조선에서는 이르는곳마다에서 군사비행장, 항만, 로케트기지, 전략도로를 비롯한 여러가지 군사기지와 군사 시설들이 대대적으로 신설확장되고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단행본, 69페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침략적인 전쟁계획에 따라 남조선을 직접적군사행동 지대로 《완비》하기 위하여 이해에도 이르는곳마다에 군사비행장, 항만, 로케트기지, 전략도로를 비롯한 여러가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대대적으로 신설확장하였다. 특히 놈들은 일단 유사시에 수많은 미제침략군병력을 미국본토로부터 남조선에 급속히 투입할수 있는 공수작전체계를 강화할것을 획책하였다.

적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월부터 6월 사이에만 하여도 500여개의 직승기착륙장을 신설하였으며 수십개의 비행장확장공사를 끝냈다.

뒤이어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제의 지시에 따라 9억 8천만원의 자금을 쓸어넣어 진해공군기지확장공사를 벌리는 한편 전해부터 벌려오던 울산, 려수, 제주, 전주, 설악산 등 수많은 비행장확장공사를 서둘러댔다.

또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해군기지들도 대대적으로 신설확장하기에 미쳐 날뛰였다. 적들은 이미 전해에 100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쓸어넣어 부산항을 비롯한 이른바 군사적으로 중요하다는 10여개의 항만들을 큰 선박들이 드나들수 있도록 확장한데 이어 이해에 19억 7천만원의 자금을 새로 넣어 29개의 항만확장공사를 벌리였다.

미제의 더러운 개 박정희반역도당은 인천항과 부산항을 이른바 《특수항》으로 꾸리는 한편 12억 6천 500만원의 막대한 자금을 쓸어넣어 포항, 마산, 묵호, 죽변 등 30여개의 항만시설들을 정비보강하며 수개의 군항을 신설할것도 획책하였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범죄적인 침략전쟁도발시 대폭 늘어날 군수물자수송의 이른바 《기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군용도로들도 대대적으로 정비보강하였다.

놈들은 전연지대와 해안선의 도로의 폭을 넓히는 한편 《군사전략상 중요지점》들을 련결시키는 군용도로들을 확장하는 공사를 미친듯이 벌렸다.

그것은 적들이 10월에 서울—부산간의 군용도로포장공사를 끝낸것을 비롯하여 대전—전주간, 공주—대전간의 《고속도로》건설을 다그친 사실, 서울—원주간, 전주—순천간, 순천—부산간의 《고속도로》건설을 또한 계획하고 있는데서 잘 보여주었다.

이밖에 놈들은 300억원을 쏟아부어 서울일대에 땅굴파기공사를 벌리고 500만~1천만딸라를 들여 서울북방 의정부일대와 한강류역일대를 중심으로 한 120여리에 장벽과 엄폐호를 쌓는 등 군사기지건설에 미쳐날뛰였다.

이 모든 사실들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현지 군사적잠재력을 강화할데 대한 전쟁광 닉슨도당의 침략적교리를 남조선에서 실현하기 위해 얼마나 미쳐 날뛰고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무력증강과 침략적군사동맹조작책동】**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정전협정을 계통적으로 위반하고 전후 남조선에서 자기의 군사적잠재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왔으며 특히 최근년간에 그것을 더욱 격증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단행본, 67페지)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미제국주의자들의 광란적인 전쟁준비책동은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가지 신형무기들과 군사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남조선에서 저들의 침략무력을 강화하며 괴뢰군무력의 《현대화》를 촉진시킨데서 잘 나타났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 범죄적인 전쟁도발음모를 실현하기 위해 호전광들을 남조선에 잇달아 들여 보내여 《한미고위 정치회담》이니, 《한미군사실무자회담》이니, 《한미국방각료회담》이니 하는 전쟁모의들을 련거퍼 벌렸다. 이에 따라 남조선에서는 미제침략군무력과 괴뢰군무력이 급속히 증가되였다. 미제는 일본과 오끼나와 등지에 있던 전투비행대대들과 전술비행단을 남조선에 끌어들인데 뒤이어 12월 21일에는

일본에 있는 신형전투폭격기 3개 대대를 또다시 남조선에 끌어들였다. 뿐만아니라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은 《전투태세의 완비》에 대하여 떠들어대면서 여러가지 신형무기들과 군사장비들을 끌어들여 남조선괴뢰군의 《현대화》와 《향토예비군》의 《무장화》를 다그쳤다.

그것은 놈들이 괴뢰군의 《현대화》를 위해 1억 5천만딸라의 추가《군사원조》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이 쓰고 있던 전차, 박격포, 등 군사장비 (1억 2천 200만딸라분)를 괴뢰들에게 넘겨준것을 비롯하여 12월 8일 미국방장관이란놈이 미국무장관놈과 함께 미상원세출위원회에 나가 《남조선은 닉슨주의의 시험장으로 될것》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남조선에 앞으로 5년동안 10억딸라 이상의 《군사원조》를 더 증가하여줄것을 요청한 사실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미제는 저들의 침략군무력을 강화하는 한편 현지고용병을 더욱 증강하기에 날뛰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제놈들의 군대유지비의 25분의 1밖에 안되는 남조선의 값싼 현지고용병을 더 늘이기 위하여 1970년에 괴뢰군 강제징집을 전담하는 《중앙병무청》을 새로 꾸며냈으며 여기에 복무하는 졸개들에게 《사법경찰관》의 《권한》까지 주어 청장년들을 제멋대로 체포하여 괴뢰군에 끌어가도록 하였다. 또한 놈들은 파쑈적인 《병역법》을 비롯하여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을 수차 개악하여 종전에 괴뢰군징집에서 적용하던 303종의 이른바 《병종판정》기준을 75종으로 줄여 팔다리가 없는 병신이외의 허약자들까지 모조리 괴뢰군에 끌어갔으며 날로 늘어나는 괴뢰군 《향토예비군》기피자들을 막기 위하여 빈번한 《특별단속기간》이라는 것까지 《제도화》하고 발광적인 《가두검색》에서 닥치는대로 괴뢰군에 끌어갔다.

그리하여 최근년간 70만으로 불어난 남조선괴뢰군이 이해에는 더욱 늘어났다.

한편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200여만명의 《향토예비군》을 이른바 《전력화》, (전투병력화)하여 침략전쟁에 즉시 투입할수 있도록 그 조직체계를 부단히 뜯어고치고 악질분자들로 그 지휘체계를 강화하였다. 특히 적들은 4월부터 예비군 《전력화계획》의 한고리로 《향토예비군》만으로 무어진 6개의 《방위사단》을 조작하고 후방에 있던 《예비사단》이 침략전쟁도발에 따라 전선에 투입되는 즉시 그 자대를 《향토예비군》이 맡도록 하였다. 그리고는 11월에 《향토예비군》의 《전투력》을 시험할 목적으로 수만명을 강제로 끌어내여 9일간에 걸치는 《향토예비군비상훈련》을 감행하였다.

또한 미제침략자들과 괴뢰도당은 현지고용병을 최대한으로 늘이기 위하여 남조선청년학생들에 대한 이른바 《학도군사훈련》을 전례없이 강화하였다.

적들은 1969년까지만 하여도 일부 지역학교들에서만 하던 《학도군사훈련》을 이해에는 중고등학교이상 모든 학교들에서 실시하도록 강요하였으며 매 학교에 파쑈적인 《군사교관》까지 배치하였고 군사훈련도 사격에 중심을 두고 그 시간을 배나 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새 전쟁 준비책동의 한 고리로서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을 위수로하여 아세아 괴뢰들을 조선침략전쟁에 끌어넣기 위한 아세아 《반공》군사동맹조작에 날뛰였다.

미제침략자들의 이와 같은 책동은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돌격대》로 삼고 아세아 괴뢰추종국가들을 놈들의 침략책동에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려는데서 출발된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런 죄악적목적달성을 위해 침략적《반공》 군사동맹의 골간으로 삼을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지위를 높여 주는 한편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과의 군사적결탁을 각방으로 조종하였다.

4월 10일 미정무담당국무차관이란자는 《일본의 역할과 미국동관계의 장래》라는 연설에서 《지역안보체계가 동남아세아에서 형성될것》이라고 하면서 《일본의 국력과 번영이 동북아세아에서의 안정과 평화를 이룩할것》이라고 떠벌임으로써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맹주》로 하여 새로운 《반공》군사동맹을 조작하려는 속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미제의 범죄적계획에 따라 4월 20일부터 사흘동안 서울에서 《한일협력위원회 제2차총회》를 벌려놓고 《아세아안보문제》를 중요하게 토의하였다. 뒤이어 괴뢰국무총리란자가 일본에 불리워가 사또도당과 《한반도의 안보문제》, 《중국, 북조선, 북부윁남을 포괄하는 아세아공산세력에 대한 우방제국의 결속문제》등에 대해 쑥덕공론하고 《한일》간의 군사적결탁의 강화와 아세아, 태평양지역에서 새로운 《반공》군사동맹을 빨리 만들데 대해 획책하였다. 여기에서 사또반동도당은 《한국의 안보가 일본의 안보에 직결된다》는 《닉슨—사또공동성명》을 다시 《확인》하고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일본은 즉각 지원할것》이라는 종래의 침략적 립장을 다시 되풀이하였다.

6월에 미, 일반동들이 《안보조약》을 《연장》시키자마자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 장개석도당이 도꾜에서 밀의를 갖고 《아세아를 공동으로 보위》할데 대해 호상 밀접한 련계를 갖기위한 《련락위원회》라는것을 내오기로 합의하였다.

그후 수급전쟁범죄자 기시 노부스께를 우두머리로하는 일본반동정객들과 독점자본의 두목들이 서울에 기여들어 박정희괴뢰도당과 장개석도당과의 밀의끝에 《련락위원회》라는것을 만들어냈다.

이 《련락위원회》는 사실상 미제를 뒤받침으로하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맹주》로 하는 군사동맹의 골간인것이다.

이에 앞서 미제의 충실한 개 박정희반역도당은 상전의 지시에 따라 괴뢰외무부장관이란자를 남부윁남, 대만, 타이에 띄워보내여 《아스파크》(아세아태평양지역각료리사회)의 군사동맹화문제에 대해 그곳 괴뢰들과 《공동보조》를 취할데 대한 밀담을 벌리게 하였다.

이리하여 6월 12일 타이국방부차관이란자가 남조선에 기여들어 괴뢰도당과 《타이, 한국간의 군사협정》문제를 모의하였다. 그리고 괴뢰들은 17일—19일에는 뉴질랜드 수도 웰링톤에서 열린 《아스파크 제5차 각료회의》에서 《확고부동한 담보를 가지고 지역협력을 결의》했다고 떠들어댔다.

**【범죄적인 전쟁도발책동】**1970년에도 미제국주의자들과 박정희반역도당은 전쟁준비를 적극 추진시키면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공을 가상한 전쟁연습소동을 련이어 벌리였으며 군사적도발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위대한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강도적본성을 더욱더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무장도발을 련일 감행하고있으며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이끌어가고있습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단행본, 83페지)

미제와 괴뢰도당은 조선에서 전쟁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해 실전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을 빈번히 벌리는 한편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무장습격과 총포사격을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이해에 전쟁분위기를 고취하며 새로

은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를 구체적 밀담을 벌리고 전연과 군사기지를 싸다니면서 괴뢰군의 전투준비상태를 현지에서 직접 검열하기 위하여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의 전쟁사환군들은 부대통령 애그뉴놈을 비롯하여 수백명에 달하였다.

적들이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 일본《자위대》, 영국침략군까지 끌어내여 뻔질나게 벌린 도발적인 군사연습은 놈들자체가 떠벌인것처럼 《합동훈련》으로 종전에 수없이많이 벌려온 군사훈련들에 대한 《총결산평가》를 위한 것으로 특징지어졌다.

례컨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4월 13~25일까지의 기간에 경상북도 포항앞바다에서 미침략군과 괴뢰군 수천명, 미제7함대소속 항공모함과 잠수함을 비롯한 수십척의 함선, 전투폭격기 수백대까지 동원하여 대규모적인 이른바 《한미해군 및 해병대련합춘기상륙작전》 훈련을 진행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는 경우 해안상륙을 위한 공중수송과 해상상륙 등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의 합동작전체제를 《검열》하였다고 한다.

9월 21~23일까지 사이에는 영제국주의자들과 괴뢰군과의 소위 《한영해군 및 해병대련합상륙작전》훈련소동이 벌어졌다. 이 도발적훈련은 이미 1969년 3월에 진해만에서 《폴리포트 1호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벌린바있는 훈련의 연장으로서 이번에는 《폴리포트 2호작전》이라는 간판을 달고 감행되였다. 여기에는 영제국주의자들의 항공모함을 포함하여 10여척의 각종 함정들과 수십대의 비행기, 수십개대대의 괴뢰해병대들이 동원되는 등 큰 규모에서 《평면 및 수직기습돌격》훈련을 벌렸다. 이것은 조선에서 또다시 침략전쟁을 도발하는 경우 그것을 유엔의 간판밑에 감행되는 《국제적인 전쟁》인듯한 인상을 미리부터 조성해놓기 위한 미제의 침략전쟁계획에 따른 전쟁연습소동인것이다.

10월 17일부터 약 한달동안에 걸쳐 이른바 《한미합동특수전훈련》이란 또 하나의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소동이 벌어졌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미제침략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쯔시마해협일대에서 이른바 미일 《합동해군훈련》이라는 군사연습소동을 감행하였다. 이 군사연습소동에는 미제7함대의 구축함, 잠수함 및 비행기들과 일본해상 《자위대》의 호위함, 잠수함을 비롯한 많은 함선들과 수많은 항공기들로 증강된 해군무력이 참가하여 10여일간에 걸쳐 《대잠수함수색공격과 해상급유, 통신련락의 훈련》 등을 감행하였다.

미제의 이 화약내풍기는 전쟁도발위험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이른바 《감축》이요 하는 따위의 나발이 한낱 모략적선전소동에 지나지 않으며 실상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이 정치모략선전 뒤에서 새로운 조선침략전쟁도발준비를 촉진하며 특히 조선주변과 극동지역에 저들의 침략무력을 증강하고 침략전쟁도발태세를 갖추는데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는것을 말해주었다.

그러면서 미제침략자들은 전쟁도발의 구실을 만들어내려고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군사적도발을 더욱 격화시켰다. 미제침략자들이 이해에 들어와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여 감행한 도발행위는 우리측이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하여 정식 항의규탄한것만 하여도 무려 1만 1천 200여건에 달한다.

10월 7일과 8일, 10월 3일동안에만도 연 4차에 걸처 전선서부 림진강과 한강하구일대의 여러 지점들에서 여러가지 중무기들로 무장한 수백놈의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을 동원하여 우리 인민군 초소들에 무려 10여만발의 중무기사격을 가하는 극히 엄중한 무장도발을 일으켰다.

또한 미제침략자들은 이보다 앞서 9월 23일과 27일 전선중부비무장지대의 여러 지점들에서 박격포를 비롯한 중무기를 동원하여 우리측에 수천여발의 총포탄을 쏘아댔으며 9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의 사이에 무려 70여차에 걸쳐 비무장지대안에서 우리측을 향하여 5천 200여발의 총탄을 쏘아댔다.

한편 미제침략자들은 9월 10일, 그리고 10월 2일과 3일에 장갑차와 105미리곡사포를 비롯한 여러가지 구경의 포들과 기관총들을 비무장지대안에 끌어들이였으며 9월 21일과 22일 및 10월 1일과 4일에는 4대의 군용비행기를 비무장지대와 우리측 지역상공에 각각 침입시키는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또한 9월 13일과 10월 6일, 11일 그리고 그후에도 련달아 국가 및 군사비밀을 탐지할 흉악한 목적밑에 네놈의 무장간첩들을 각각 우리측 지역에 침입시키는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이상의 두달동안의 실례에서만도 미제와 그 주구들이 전쟁도발의 구실을 조작하기 위해 얼마나 미쳐날뛰였으며 무모하게 행동하였는가를 잘 알수있다.

이리하여 이해에도 조선에서 임의의 시각에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정세가 조성되였던것이다.

## 파쑈테로통치의 강화책동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와 그 주구들이 파쑈화정책에서 추구하는 주되는 목적은 자기들의 식민지통치와 전쟁정책 실현에서 장애로 되는 모든 사회정치적요소들을 제거하려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들은 각종 파쑈적악법들을 조작하는 한편, 폭압기구를 대대적으로 늘여 남조선전역을 군사, 경찰, 정보, 특무망으로 뒤덮었으며 전사회를 무서운 공포속에 몰아넣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387폐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더러운 개 박정희파쑈악당놈들은 제놈들이 직면한 파멸적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침략과 전쟁정책의 강화에서 찾으려고 날뛰면서 식민지통치와 전쟁정책, 그리고 저들의 장기집권야망 실현에 장애로 되는 모든 사회정치적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파쑈폭압에 더욱더 매달리였다.

놈들은 1970년 초부터 범죄적인 회의놀음을 련일 벌려놓고 파쑈폭압을 강화하기 위한 악랄한 조치들을 꾸며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탄압소동을 미친듯이 벌리였다.

**【파쑈폭압기구의 강화책동】**남조선의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을 한사코 가로막기 위한 적들의 파쑈폭압조치의 하나는 파쑈폭압기구와 그 력량을 더욱 높이고 그 장비를 《현대화》하는것이였다.

미제와 괴뢰도당은 폭압력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치안체제의 정비강화》니 《경찰행정의 미비점보완》이니 뭐니 하면서 수많은 《이동지서, 파출소》, 《이동경찰서》, 《경찰초소》, 《해안경찰기지대》 등을 새로 내왔으며 서울과 부산, 대구와 대전, 인천, 광주등 중요도시들에 《방범기동순찰대》라는 폭압기구를 새로 꾸려놓았다.

이에 따라 박정희괴뢰도당은 경찰인원수를 30% 더 늘이였는데 그것도 부족하여 1971년에 3개의 괴뢰경찰서와 100개의 《지, 파출소》를 새로 증설하고 경찰수도 5천 수백명이나 더 늘이겠다고 떠벌렸다. 놈들은 또한 파쑈적폭압을 강화하기위한 책동의 한고리로서 새로 조작한 《전투경찰》을 군사화하려고 획책하였다.

미제와 박정희반역도당은 이처럼 파쑈통치기구와 그 력량을 늘이는 한편 폭압장비의 이른바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적들이 서둘러댄 폭압장비 《현대화》책동에서 주목되는것은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을 탄압하는데 필요한 순찰용 비행기, 쾌속정, 통신장비 등 설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폭압장비를 대폭 강화한것이다. 적들은 이해초에 벌써 20척의 《초계정》을 끌어들여 《해양경찰대》의 각 지대들에 배치하였을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간첩》용 해군초계기, 초단파무전 중계시설을 비롯한 여러가지 경보기 등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괴뢰경찰과 괴뢰군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놈들은 이와 같은 폭압장비들의 《현대화》책동과 병행하여 그에 필요한 수백개소의 헬리콥터 착륙장 건설공사도 감행하였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감행한 악랄한 파쑈폭압조치의 다른 하나는 놈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남조선혁명가들을 적발하며 남조선인민들의 일체 반미 반정부움직임을 탐지하기 위한 이른바 《정보사찰》과 정보망체계를 강화한것이다.

미제와 박정희파쑈악당들은 특히 남조선청년학생들에 대한 《정보사찰》을 강화하였다. 세상에 알려진 자료에 의하더라도 놈들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괴뢰특무기관의 정탐군 십여명을 박아넣고 진보적학생들의 사상동향과 활동정형을 일일이 내탐하고있다. 이밖에도 놈들은 식당, 려관 등에 접대원으로 가장시켜 밀정들을 들여보내 주민들의 동태를 내탐케 하고있다.

그러면서 미제와 파쑈악당은 이미 조작한 파쑈적악법인 《주민등록법》을 휘둘러 18~65세까지의 1천 700만사람들의 열손가락지문을 강요하며 문밖출입도 마음대로 할수없게 하는가하면 인민들의 통일동향과 반미 반《정부》적동향을 내탐할 목적으로 《류언비어와 매점매석행위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악법을 또 꾸며냈다.

이와 함께 놈들은 《대공정보망》을 비롯하여 《어선정보망》, 《외사정보망》 등 갖가지 《정보망》을 늘여놓고 남조선인민들의 일체 언행을 감시하고있다. 실로 기간산업부문이나 중요 로동자지구에서는 10~15명당 1명씩, 어민은 5명당 1명씩의 《정보원》이 그림자처럼 뒤따르고있다. 놈들은 또한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혈연적련계를 끊어보려고 파쑈적인 《집단부락화》책동을 일층 강화하였다. 두메산골에 널려있는 독립가옥들과 10세대미만의 작은 섬들에서 살고있는 가난한 농어민들을 괴뢰 지, 파출소와 특무들이 욱실거리는 지역으로 강제《집단이주》시켜 《집단부락》을 만들고 그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반동사상을 불어넣으려고 갖은 책동을 다 하였다. 파쑈악당들은 남조선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4개의 도에서만도 1천 790호의 독립가옥을 강제로 《집단부락》에 이주시켰다.

놈들이 감행한 《집단부락》설치책동에서 특히 주목되는것은 악질제대군인들과 특무들로 꾸리는 이른바 《반공전략촌》과 《반공시범부락》을 수없이 만들어놓은것이다. 이 《반공전략촌》과 《반공시범부락》들은 《반공》선전의 중요거점으로뿐만아니라 남조선혁명가들에 대한 파쑈탄압의 거점으로도 리용되고있다.

이리하여 오늘 남조선은 더욱더 삼엄한 경찰, 정보, 특무 등 파쑈폭압망으로 뒤덮이고있다.

## 【더욱 악랄해진 파쑈폭압만행】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폭압과 학살만행의 예봉은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에게 돌려졌다. 그것은 놈들이 남조선혁명가들을 탄압학살하기 위하여 정보, 수사 부문의 괴뢰경찰을 특별히 많이 늘이며 전체 괴뢰경찰의 90%이상을 남조선혁명가들에 대한 탄압에 돌리고 모든 《경찰지서》들에 한건이상의 《지하조직》을 《적발》할 과제까지 주고있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났다. 놈들의 파쑈적탄압은 갈수록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였다.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리들은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혁명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이른바 《검문검색》과 《수색작전》을 미친듯이 벌렸다. 별의별 이름을 단 《검거검색소》를 남조선도처에 거미줄처럼 펼쳐놓고 놈들이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는 진보적인사들과 《요시찰인》은 물론 주민들의 일거일동을 항시적으로 감시하였을뿐만아니라 수십차례의 《특별검문검색》소동을 벌려 수많은 죄없는 주민들을 닥치는대로 체포투옥하였다.

그러면서 파쑈악당들은 《올빼미작전》이니, 《박쥐작전》이니 하는 따위의 갖가지 이름의 《수색작전》을 수십차례나 벌려놓고 여기에 괴뢰경찰을 비롯한 괴뢰군전투부대들과 《향토예비군》등 수많은 병력을 끌어내고 지어는 비행기와 각종 경비정 등 중무기들까지 동원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소란을 피웠다.

특히 미제와 박정희파쑈악당들은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 싸우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을 탄압하기에 더욱 미쳐날뛰였다.

적들은 5월 3일 충청남도 서산군과 전라북도 군산을 투쟁무대로 활동하던 한 아무개를 비롯한 22명의 혁명가들을 얼토당토않은 구실을 붙이 체포투옥하였으며 10월 17일에 속초와 묵호 등 남강원도 일대에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싸운 20여명의 혁명가들을 체포투옥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놈들은 체포투옥한 혁명가들에게 가장 악랄하고 야만적인 고문을 가하는 한편 날조된 《사건조서》를 꾸며가지고 매일과 같이 살인공판을 벌렸다.

1970년 10월에 체포구금한 경상남도와 남조선 강원도의 속초, 묵호 등지에서 활동하던 14명의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에 대한 살인재판놀음을 1971년 1월 8일에 벌려놓고 그들에게 사형과 중형을 들씌운 적들은 바로 그 다음날인 1월 9일에 이 혁명조직의 성원인 김윤희동지를 서울형무소 감방안에서 잔인하게 학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 천추에 용서못할 귀축같은 학살만행은 오직 흉악한 살인악마의 무리들인 미제와 그 더러운 개 박정희파쑈악당만이 감행할수있는 저주로운 짓이며 이것은 놈들의 파쑈폭압이 더욱더 악랄성을 띠고 감행되고 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었다.

또한 적들은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그들의 혁명적영향하에 날로 강화되는 각계각층 인민들의 대중투쟁을 탄압말살하기 위해서도 발광하였다.

특히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벌린 탄압소동에서 주목되는것은 언론, 출판인들에 대한 파쑈폭압이 보다 악랄해진것이다.

놈들이 언론, 출판인들에 대한 탄압에 더욱 날뛴것은 1971년에 감행되는 괴뢰대통령 및 괴뢰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조선인민들앞에 미제의 식민지파쑈통치의 악독한 후과와 제놈들의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죄행이 폭로되는것을 사전에 막기위한것이다. 또한 날로 날카로와지는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과 그를 해결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소개선전하지 못하게 하며 나아가서 언론, 출판, 보도기관들을 더욱 어용화하여 미제의 식민지파쑈통치를 미화분식하는데 리용하려고 언론탄압의 올가미를 조이고있는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흉악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적들은 언론, 출판, 보도기관들에 충실한 졸개들을 박아넣고 보도기사들을 모조리 검열통제케하고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보도기사에 대

해서는 란폭한 탄압을 가하도록하였다.

뿐만아니라 파쑈악당들은 제놈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출판물과 언론기관에 대해 가차없는 폭압을 가하였다.

2월 남조선월간잡지 《다리》에 실린 한 문학평론가의 론문이 남조선도 아닌 바로 《프랑스의 5월학생혁명》을 《력사적배경》으로 썼다하여 그것이 《북조선의 리》에 맞는다느니, 남조선학생들에게 《사회변혁》의 《지침》을 《암시》했다느니 하면서 필자와 편집인을 《반공법》에 걸어 검거체포구금하였다.

또한 놈들이 현괴뢰정부의 반동적인 매국배족행위와 부패상을 전면적으로 폭로한 풍자시 《5적》(현괴뢰집단의 우두머리들을 등장시키고 이자들의 반인민적인 매국배족행위와 추악한 내면생활을 풍자적으로 신랄하게 폭로한 담시)의 필자와 그것을 실은 출판기관에 대한 파쑈적탄압은 그 대표적인 실례들이다.

원수들은 제놈들의 죄행을 폭로한 우의 풍자시를 실은 출판물과 그 기관의 출판기재를 《압수》하는 한편 필자 김영일을 비롯하여 편집원, 출판기관대표 등 4명을 검거투옥하고 살인공판까지 벌리였다.

언론탄압에 피눈이 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언론인 단속방안》이라는 것을 새로 조작하고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에 관한 법률》 등 파쑈적악법들을 더욱 개악하여 진보적언론, 출판기관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놈들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언론인들과 기자들을 대량제거해버리기 위한 흉악한 기도밑에 《기자대렬정비》니, 《사이비기자단속》이니 하면서 수시로 《사이비기자단속기간》이라는 파쑈적인 《단속》놀음을 벌려놓고 언론인탄압에 급급하였다.

례하면 2월 2일 괴뢰파주경찰은 《한국신문》의 6명의 기자들에게 《사이비기자》라는 딱지를 붙여 잡아가두었으며 이에 앞서 1월 15일 장흥읍내 읍반실태를 실은 보도기사가 각 신문에 발표되자 이를 구실로 《용공행위》로 몰아 전라남도 장흥주재 《대한일보》, 《전남매일》을 비롯한 각 신문사기자 23명을 검거투옥하였다.

뿐만아니라 놈들은 진보적언론인들에게 강압과 강제, 협박편지와 협박전화 등의 방법으로 남조선사회현실을 보도하지 못하게 위협하였으며 지어 남조선현실을 그대로 폭로한 량심적기자들에 대하여 테로까지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2월 1일 미제와 박정희파쑈악당은 괴뢰륙군 모 부대 장교놈들의 비인간적인 만행을 감행한 사실을 보도한 《대한일보》양평주재기자를 야밤중에 집에까지 따라와서 집단폭행을 가해 실신케 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한 사실은 그 단적인 실례이다.

놈들의 이와 같은 야만적인 언론탄압행위에 격분을 금치못한 남조선언론인들은 《현군사통치하에서 언론의 자유란 조금도 존재》하지 않으며 《현통치세력은 신문들에 대한 탄압과 박해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있다고 폭로규탄하였다.

제놈들의 반동적인 반인민적정책의 후과를 가리기 위해 언론탄압에 날뛰여온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검거선풍을 련달아 일으키고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만행을 발악적으로 감행하였다.

미제의 조종밑에 박정희군사깡패도당은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에 남조선전역에서 파쑈적인 검거선풍을 일으키고 무려 3만 4천 900여명의 죄없는 인민들을 잡아가두었다.

놈들은 체포해간 이 숱한 인민들중 1만 4천 700여명이 치욕의 괴뢰군살이를 반대하여 강제징집을 거부했거나 괴뢰군병영에서 뛰쳐나갔다 하여 그들에게 악랄한 형벌을 들씌우는 한편 그들을 괴뢰군에 다시금 끌어가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였다. 나머지 2만여명에 대해서는 《폭력배》의 모독적인 딱지를 붙여 그 일부를 특무기관에 넘겨 처형하려고 흉책하였으며 다른 일부는 이른바 《즉결재판》에 넘겨 터무니없는 《죄》를 들씌웠다.

또한 놈들은 7월 중순부터 실시하여오던 무슨 《단속》기간이라는것을 9월 20일까지 연장하여놓고 괴뢰검찰과 경찰들을 모조리 동원하여 죄없는 주민들을 마구 붙잡아 탄압박해하였다.

파쑈악당들은 이 죄악적 《단속》놀음을 시작한지 28일만에 1만 333명의 주민들을 마구 붙잡아다 《폭력배》로 몰아 《즉결재판》에 넘기는 미제강점하의 남조선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찾아보기 힘든 파쑈광란을 부렸다.

이것은 놈들의 파쑈폭압의 도수가 어느정도에 이르고있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인민들의 반대배격에 부딪쳐 불안에 떨고있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피비린내나는 탄압마수를 바다에까지 뻗쳐 어민들에 대한 탄압도 일층 강화하였다.

놈들은 특히 풍랑으로 조난당하였다가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의 뜨거운 동포애적구원을 받고 돌아간 어민들에 대한 탄압에 보다 미쳐날뛰었다. 파쑈괴뢰들은 돌아간 어민 모두를 《요시찰》대상으로 삼아 감시할뿐만아니라 함부로 체포투옥하고 파쑈적인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및 《수산업법》에 걸어 처형하고있다.

이와 같은 남조선어민들에 대한 적들의 탄압책동은 공화국북반부에 왔다 돌아간 어민들을 통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된 공화국북반부의 휘황찬란한 성과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남조선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지는것을 막아보려는 어리석은 시도인것이다.

놈들은 이 해에도 바다에 처놓은 이른바 《어로저지선》이라는 폭압망을 넘어선 어선들을 억류하고 어민들을 체포 구금하고 형벌에 처하였다.

1월 10일 미제와 박정희반역도당은 이른바 《수산업법》 등 파쑈적악법들을 휘두르면서 남조선 강원도 거진앞바다에서 명태잡이하던 고기배 16척을 억류하고 96명의 어민들을 체포하였다. 놈들은 이와 전후하여 그 일대 어장에서 고기잡이 하던 81척의 고기배를 억류하여 627명의 죄없는 어민들을 체포구금하고 살인 《재판》에 넘기였다. 바다에서의 이런 파쑈폭압소동을 더욱 강화하려고 기도한 박정희반역도당은 1월 17일 괴뢰 《대검찰청》으로 하여금 《어로저지선》을 넘어 고기잡이하는 어민들에 대해서는 《반공법》을 적용하여 최고 《사형》에까지 처할것이라고 짖어대게하고 그의 《강력한 시행》을 괴뢰 《지방검찰청》들에 시달케했다.

같은날 놈들은 괴뢰《해양경찰대》에 고기잡이하는 남조선어선들에 대한 모든 《단속권》을 부여하고 이른바 《어로저지선》을 넘어서는 어선들을 모조리 《구속》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괴뢰《동해경비사령부》 등 현지 폭압기구들에 어민들을 보다 더 가혹하게 탄압하라고 《명령》하였다.

남조선어민들에 대한 박정희괴뢰도당의 이러한 파쑈폭압소동은 남조선어민들의 정치적권익은 물론 생존권마저 빼앗음으로써 어민들을 더욱 비참한 생활처지에 빠뜨리게 하였다.

보는바와 같이 오늘 남조선사회는 류례없는 파쑈광란으로 글자그대로 《공기없는 천지, 흙이 없는 땅, 빛이 없는 세상》으로 《민주주의가 질식당한 폐허》로 변하였다.

그러므로 남조선인민들은 남조선사회를 그처럼 중세기적암흑천지로 만든 미제와 파쑈악당의 군사파쑈테로통치를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위하여 과감히 싸우고 있는것이다.

## 남조선괴뢰도당과 일본군국주의자들과의 결탁강화 책동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른바 《새로운 아세아 정책》의 성과적수행을 위해 이해에 남조선괴뢰도당과 일본군국주의자들과의 결탁을 강화하려고 갖은 책동을 다 하였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를 좋은 기회로하여 남조선에 대한 침략책동을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하여 나섰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일본군국주의는 아세아에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일본군국주의세력은 미제를 등에 업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망상하고있습니다. 일본의 사또정부는 미제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조선과 다른 아세아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전쟁계획을 짜놓고있을뿐아니라 이미 남조선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기 시작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323페지)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서 무너져가는 제놈들의 식민지통치지반을 부지하기 위한 최후발악적인 책동으로서 악명높은 《닉슨주의》라는 《새로운 아세아정책》을 들고나오면서 조선에서 범죄적인 침략전쟁을 도발하려고 더욱더 모험적인 전쟁정책에 매여 달리였다.

미제의 《새로운 아세아정책》의 기본은 제놈들의 나래밑에서 길러온 일본군국주의세력을 《주도세력》으로, 미제의 아세아침략 특히는 조선침략에 전면적으로 동원리용하는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범죄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본군국주의자들로 하여금 이른바 《자주방위론》을 요란히 떠들게 하고 군국화에 전면적인 박차를 가하도록 함과 함께 남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을 강화하고 조선침략전쟁에로의 참전준비를 서두르도록 채찍질하였다. 한편 미제는 남조선괴뢰도당과 일본군국주의자들과의 전면결탁을 강화할것을 다그쳐대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이러한 책동의 흐름을 타고 제놈들의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조선을 첫 공격대상으로 삼고 침략책동에 미쳐날뛰였다.

**【군사적결탁의 강화】**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서 도발하려는 새로운 침략전쟁에 끼여들어 옛 《지위》를 되찾으려고 망상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상전의 지시밑에 우선 남조선괴뢰도당과의 군사적결탁을 강화하기에 급급하였다. 놈들의 이러한 책동은 침략적인 《닉슨—사또회담》이 있은 이후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되였다.

일본이 아세아에서 《지도적역할》을 놀아야 한다는 닉슨도당의 추김에 우쭐해진 사또반동도당은 미제의 《새로운 아세아정책》의 일환으로 남조선에서 꾸며진 미제침략군의 일부 《감축》설이 퍼진이후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침략책동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였으며 박정희군사깡패들과의 군사적결탁을 더욱 더 다그쳤다.

미제의 지시밑에 오래전부터 《세개화살작전》을 비롯한 일련의 침략계획을 짜놓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은《한일운명공동체론》의 간판을 들고 이른바 《방위상의 일체화》를 더욱 요란하게 떠들면서 일본 《방위청》과 《자위대》의 두목놈들을 수많이 남조선에 보내는 한편 남조선괴뢰두목놈들을 일본에 련달아 불러들여 빈번한 군사적음모를 꾸미였다. 이 밖에도 놈들은 《한일협력위원회》,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 《한일각료회담》 등에서 미제침략군의 일부 《감축》과 관련한 《협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할데 대한 쑥덕공론도 꾸몄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기회있을 때마다 《아세아의 안정문제의 주역을 담당하는것은 일본》이라거니, 《일본은 자체적으로 한국을 방위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거니 하고 침략적야망으로 가득찬 망언을 서슴없이 늘어놓았다. 한편 미일 반동들의 2중주구인 박정희반역도당은 교활한 미제국주의자들이 정치적모략으로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일부 《감축》설을 퍼뜨리자 《일본이 한국의 힘이 되여주기 바란다》느니, 《일본의 아세아집단안전보장을 위한 부담을 현재보다 훨씬 더 크게 져야한다》느니 하고 고아대면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옷자락에 더욱 더 매여달리는 매국역적으로서의 더러운 정체를 다시한번 드러내보이였다.

범죄적인 《한일협정》 조작을 계기로보다 본격화된 남조선괴뢰도당과 일본군국주의자들간의 군사적결탁이 《미, 일, 한, 공동군사작전체제》의 간판밑에 일층 강화되여온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제의 조선에서의 새 전쟁 도발정책에 적극 가담하여 나서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침략무력인 《자위대》로 하여금 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이 새 전쟁을 도발하는 경우에 이에 곧 가담할수있는 모든 준비와 《임전태세》를 갖추기에 급급하였다.

이런 죄악적목적을 위해 이른바 《제4차방위계획》까지 꾸며내여 《자위대》무력증강을 서둘러대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침략무력인 《자위대》내에서 조선의 지형과 기후에 적응한 특수교육을 강화하고있으며 조선어를 《자위대》학교들과 《자위대》안에서 필수과목으로 가르치고있다. 뿐만아니라 놈들은 조선전쟁시기의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의 작전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자위대》원들에게 침투시키며 《방위청》에서 만든 《조선전쟁사》를 군사교과서로 리용하기까지 하고있다.

그러면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미제침략군과 일본 《자위대》, 남조선괴뢰군간의 《합동군사훈련》을 끊임없이 벌렸다. 3월부터 6월까지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간에는 이른바 《금룡작전》이란 《합동군사훈련》이 진행되였다. 이작전의 일환으로 《자위대》가 조선에서 새 전쟁 도발을 위해 미국본토로부터 오끼나와로 급히 오는 미제침략군과 함께 미리 지정된 지역을 차지하는 《적지점거통합연습》소동을 벌린것 등은 그 대표적 례로된다.

남조선괴뢰도당과 일본군국주의자들간의 군사적결탁에서 주목되는 다른 하나는 쌍방간의 군사정보 교환체계와 군수품수리보급체계가 확립되고있는 것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서울에 설치한 《일본대사관》의 《무관》을 통하여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군국주의호전광놈들을 남조선에 보내여 군사분계선과 군사시설들을 돌아보게 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은 《한일간의공동방위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제놈들의 《장교》들을 각각 《교류근무》시키기로 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방위청》의 《고급장교》놈들을 《선발》해서 1971년부터 남조선에 들여보내여 《근무》시키기로 하였다고한다.

이것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떠들어온 《일한협력》, 《일한의 뉴대강화》 등의 진짜내막이 남조선에 대한 군국주의적침략을 위한것임을 더할나위없이 폭로해주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또한 남조선괴뢰군에 전차, 수송차, 기관총, 함정 등을 공급하는 한편 비행기 수리와 각종 중무기수리도 해주며 비행기 조종사까지 양성해주고있다.

이것은 사실상 일본이 남조선괴뢰도당의 군수보급기지로 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이처럼 남조선괴뢰도당과 일본군국

주의자들과의 군사적결탁은 갈수록 강화되고있다.

**【정치, 문화적결탁의 강화】** 이밖에도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한일조약》을 발판으로 보다 본격화된 경제, 군사, 문화적침략을 위한 정치적지반을 꾸리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놈들은 지난날 조선을 통치하던 때에 《경험있는》 우두머리놈들을 긁어모아 그 무슨 《중앙일한협회》니 《일한우호협회》니 하는 따위의 이른바 《친한단체》를 50여개나 만들어 그것을 남조선침략의 앞장에 내세우고있다.

《일한친선》을 부르짖고있는 이 단체들은 모두가 지난날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에 《경험있는》 악질관료들로 꾸려져있다.

이자들은 남조선에 기여들어 《총독부 정치가 공평히 봐서 조선을 위한것이였다》느니 《일본의 조선통치는 선의의것이였다》느니 하는 극악한 망발을 공공연히 늘어놓으면서 어제날의 친일주구들을 찾아다니면서 다시 침략의 앞잡이로 만드는데 골몰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소위 《한일국교정상화》라는 간판밑에 《협력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에 침략기구들을 대대적으로 설치하며 반동정객들을 비롯한 수많은 길잡이들을 남조선에 들여보내여 친일매국세력을 규합하는 한편 박정희괴뢰도당에게 수백억원의 정치자금을 던져주는 등으로 매국노들을 더욱 철저한 친일주구로 리용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범죄적인 《한일조약》 조작후 침략의 거점인 《주한일본대사관》 외에도 남조선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침략을 위한 정기적이며 상설적인 침략기구들을 수많이 조작하였다.

그의 전형적인 침략기구로서는 《한일정기각료회》, 《한일국회의원 간담회》, 《한일협력위원회》,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 등이다. 《한일정기각료회》는 남조선괴뢰정부와 일본반동정부의 《외상급》 이상의 《각료》들이 참가하는 상설적인 정기《회》로서 일본군국주의의 남조선재침을 공모하고 실현시키는 침략적이며 매국적기구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조작한 《한일국회의원간담회》도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간의 정치, 경제, 군사적결탁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낸것이다.

《한일조약》을 미끼로하여 또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관광객》이라는 외피를 씌워 침략의 길잡이들을 수많이 남조선에 들여보내여 침략적지반을 꾸리고있다.

남조선에서 마련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정치적지반은 날로 더욱 강화되고있으며 그리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미제와 함께 정치적지배자로 떳떳이 행세하려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인민들의 반일감정을 무마시키고 친일사상과 군국주의사상을 불어 넣기 위한 사상문화침투도 강화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반공》사상과 군국주의사상, 친일사상, 허무주의, 색정주의를 고취하여 민족적 및 계급적 의식을 마비시키려고 반동적인 출판물들을 대대적으로 침투시키고있으며 이를 적극화하기 위해 손때묻은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을 리용하여 《도서보급회》를 비롯한 여러가지 친일단체까지 만들어놓았다.

뿐만아니라 놈들은 남조선에서 저들이 직접 각종 《책》들을 대량적으로 출판하여 남조선인민들과 특히 청소년들에게 배포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사상문화 침략에서 또한 종교를 중요한 침략수단의 하나로 간주하고 그를 적극적으로 남조선에 침투시키고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천리교》를 통하여 조선과 동남아세아 나라들을 침략하여온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바로 저들의 침략에서 선도적역할을 수행한 이 국수주의적인 《천리교》를 오늘 또다시 남조선에 대한 재침략의 길잡이로 리용하고있다.

남조선에 침투된 《천리교》는 850여개의 교회를 가지고있으며 또한 각 지방에 그 지부가 설치되였다. 지어 놈들은 《천리교》를 부식시키기 위하여 남조선에 학교까지 세우고 남조선학생들에게 친일사상을 《교육》하고있으며 《강습소》를 차려놓고 저들의 앞잡이를 길러내고있으며 또 독자적인 출판물도 내고있다.

이미 1959년부터 남조선에 침투된 《창가학회》는 박정희매국도당의 비호밑에 서울, 부산 등 큰 도시들에 7~8개의 지부를 두고있다.

남조선에 침투전파된 《창가학회》는 《아세아의 지도자는 일본민족》이라고 허황한 소리를 줴치면서 남조선인민들속에 깊이 뿌리 박힌 반일감정을 무마시키고 천황숭배사상과 군국주의사상을 설교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한편 《일본불교》를 인천을 비롯한 도처에 광범히 침투시키고 그를 전파시켜 일본을 숭배하도록 꾀하고있다.

이와 같이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천리교》를 비롯한 국수주의적 침략종교들을 대대적으로 침투시켜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의식을 마비시키고 인민들속에 깊이 뿌리박힌 반일감정을 무마시켜 재침의 길을 닦으려고 날뛰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또한 남조선에 대한 사상문화적침략에서 광범한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고있는 영화와 음악을 중요한 침략수단으로 리용하고있다. 놈들은 《문화교류》라는 간판밑에 허무주의, 색정주의, 패륜패덕 등을 내용으로 한 반동적인 일본영화와 죽음을 례찬한 세기말적인 일본류행가따위를 남조선에 무수히 침투시키고있다.

제국주의적팽창야망에 날뛰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사상문화적침략에서 또한 《인사교류》를 중요한 침략수단의 하나로 삼고있다. 놈들은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을 디딤돌로 삼아 각양각색의 《대표단》, 《친선사절단》, 《조사단》, 《시찰단》, 《교류단》, 《견학단》, 《교환교수》 등의 이름을 띤 수천수만의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척후병》들을 남조선에 련달아 들이밀고있다.

《척후병》들은 남조선에서 주인행세를 하면서 지난날의 본색 그대로 가슴에 《히노마루》를 달고 남조선각지를 싸다니고있으며 《자유우방》이니, 《형제지간》이니 뭐니 하면서 《협력》과 《동맹》을 떠벌리며 저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를 퍼뜨리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더불어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사상문화적침략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에서는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문화와 미풍량속이 무참히 짓밟히고있으며 반동적이며 퇴폐적인 미국식생활양식과 왜색, 왜풍이 만연되여 《문화적 2중식민지》로 굴러떨어져가고있다.

**【경제적결탁의 강화】** 남조선괴뢰도당과의 정치, 군사적결탁을 강화하고 침략의 촉수를 깊이 뻗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경제에 대한 침략을 일층 강화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수많은 경제침략기구들을 조작하고 박정희괴뢰도당과의 예속적인 《협정》들을 체결하는 등으로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침략의 길을 닦아왔다.

놈들의 경제침략기구만 하여도 20여개에 이르고있으며 박정희괴뢰도당과 조작한 예속적인 《협정》 역시 《한일무역협정》을 비롯하여 수십종을 헤아리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제놈들의 국가

자본을 들이미는외에도 《경제협력》이란 간판밑에 이미 200여개의 상사들과 대리점들을 남조선에 차려놓고 침략적 지반을 닦기에 미쳐날뛰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범죄적 《한일협정》이 조작된후 남조선에 침투시킨 자본은 이미 5억딸라를 훨씬 넘어 남조선에 들이민 외국독점자본총액에서 미국다음가는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남조선경제 각 분야에 침투한 일본독점자본가놈들은 남조선의 《보세가공공업》을 비롯한 여러 경제부문의 기업체들을 손아귀에 거머쥐고 독점적지배와 략탈을 강화하고있다.

일본독점재벌들은 《공동개발》의 구실밑에 심지어 남조선근해의 해저자원을 거머쥐려고 책동하는가하면 포항이남의 공업지역과 일본의 관서지방경제권을 통합하여 이른바 《한일경제협력권》이라는것을 만듦으로써 이 지역을 제놈들의 경제권에 완전히 편입시키려고까지 책동하고있다.

일본독점자본의 남조선침투에서 주목되는것은 사독점자본진출이 강화되고 종래의 《차관》으로부터 직접 및 합작 투자단계에 전면적으로 들어서고있는 사실이다.

다른 나라에 대한 자본의 직접투자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의 중요수단이라는것이 잘 알려져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일본독점자본을 본격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일본독점재벌들이 요구하는대로 유리한 투자조건을 조성해주고있으며 놈들이 남조선경제를 마음대로 략탈할수 있는 온갖 매국적조치를 다 취하고있다.

박정희매국도당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집요하게 요구해온 이른바 《조세협정》과 《공업소유권협정》, 《해운협정》등을 거리낌없이 받아들이였다.

앞으로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침략을 더욱 확대강화하기 위해 상설적인 침략기구들인 《경제협력연구위원회》와 《경제협력조사위원회》라는것까지 새로 꾸미는데 《합의》하였다.

이리하여 박정희괴뢰도당은 일본독점자본의 100%직접투자를 《인가》하는 매국행위도 서슴없이 감행해나서고있다.

놈들은 이미 서울에 진출하려는 일본의 《야구장갑제조업체》의 100%투자를 《인가》하였으며 남조선의 지하자원을 마음대로 략탈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업권》까지도 일본독점자본에 통채로 넘겨주었다.

남조선에 대한 일본독점자본의 급속한 침투로 인하여 미제의 군사적부속물로 전락된 남조선경제는 미일독점자본의 2중의 지배와 예속하에 더욱더 굴러떨어지고있다.

## 광란적인《반공》소동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에서 〈반공〉은 인민들을 탄압하며 정치적반대파를 제거하는것으로부터 전쟁소동을 일으키며 동족상쟁을 고취하는데 이르기까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모든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만병통치의 약〉으로 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387페지)

미제침략자들과 그의 더러운 개 박정희반역도당은 발광적인 전쟁정책과 악랄한 파쑈적폭압책동을 《합리화》하려고 이해에도 범죄적인 《반공》소동을 더욱 광란적으로 벌리였다.

남조선에서의 《반공》, 이것은 식민지 예속화정책과 전쟁정책을 실현하며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기 위하여 미제국주의자들과 파쑈악당들이 정치적수단으로 리용하고있는 범죄적구호이다.

흉악하고 철면피한 날강도인 미제침략자들은 바로 《반공》의 간판밑에 남조선에 침략무력과 대량살륙무기들을 계속 끌어들이고있으며 공화국 북반부를 반대하는 새 전쟁 도발책동을 그 어느때보다도 로골화하고있다. 적들은 미제의 식민지테로통치를 뒤집어 엎고 나라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용감히 일떠선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을 《반공》의 이름아래 야수적으로 탄압학살하고있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우리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가장 훌륭한 사회제도인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악의에 찬 비방중상과 인간생지옥으로 전변된 썩어빠진 남조선 사회제도를 미화분식하는것이 미제와 그의 앞잡이들이 떠들어대는 《반공》선전의 중심내용으로 되고있다.

놈들은 《반공》나발을 불어대면서 남조선인민들속에서 공화국북반부의 혁명적영향력을 말살하며 날로 륭성발전하는 공화국북반부의 휘황찬란한 성과들로부터 인민들의 주의를 딴데로 돌려보려고 어리석게 시도하고있다.

《반공》을 이른바 《국시》로 삼고있는 적들은 이해를 《승공태세확립》의 해라고 하면서 이른바 《정신적근대화》란 색다른 간판을 내걸고 《반공》소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놈들은 《반공》책동을 보다 강화하려고 《반공》선전기구와 조직들을 수많이 만들어 냈다.

놈들은 《반공》을 일삼고있는 《문화공보부》기구를 정비보강하는 한편 남조선에 무수히 만들어놓은 《반공》선전기구들을 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소위 《국토통일원》에 배속시키려고 책동하였다.

그러면서 적들은 시, 군들에 《반공》선전을 위한 《특수선전위원회》를 두는 동시에 이른바 《반공부락》과 《승공에향반》이란것 등을 수많이 만들었으며 《문화선전대》, 《이동공보반》을 비롯한 갖가지 《반공선전대》를 대대적으로 조작편성하여 《반공선전》에 강제로 내몰았다.

이것은 원쑤들이 《반공선전》을 강화하기에 얼마나 미쳐날뛰고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준다.

적들은 이와 같은 《반공선전》기구의 대대적인 조작과 함께 《반공》선전을 더욱 악랄한 방법으로 감행하였다.

놈들은 허위와 날조로 꾸며진 소위 《실물자료》에 의한 죄악적인 《직관선전》방법과 형식에 더욱더 악랄하게 매달리였다.

박정희악당들은 남조선도처에 《반공사진전시회》, 《반공관》, 《승공교육관》등을 꾸미고 남조선인민들을 강제로 끌어다 《견학》시키고 있으며 《반공영화》들과 《반공만화》, 《반공연극》등을 만들어 상영시켜 강제로 보게 하고있다.

파쑈악당들은 또한 여러가지 이름을 단 《반공선전대》, 《문화선전대》, 《이동공보반》에 악질반동들과 악질군경 및 종교인들을 망라시켜 농어촌지역과 산간지대 및 해안도서들을 몰아치게하면서 《반공강연회》, 《반공좌담회》 등을 벌리게 하고 여기에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시키고있다.

심지어 놈들은 《반공선전》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것을 통해 《반공선전》을 강화하려고 이른바 《승공을 위한 노래부르기운동》, 《승공행군》 등을 조작하고있으며 주민들의 환갑잔치까지 《반공선전》의 장소로 삼는 광태를 부리였다.

이해에 미제와 박정희파쑈악당들은 학생청소년들속에서 《반공》선전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그들을 《반공》선전에 강제로 내몰았다.

이를 손쉽게 하려고 놈들은 각급 학교 교육체계를 뜯어고치는 한편 교육내용을 개악하기에 골몰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각 대학들에 《반공교육과》를 새로 두었고 매 군에는 1개 학교씩 《반공쎈터》를 새로 두게 하였으며 중고등학교와 대학들에는 《반

공학생회》라는것까지 만들게 하였다.

또한 놈들은 1만 2천여명의 학교 교원을 재 교육시켜 각 학교들에 《반공교육전담교사》로서 배치하였다고한다.

그러면서 적들은 《반공》교육시간을 배로 늘구고 매 과목강의에서는 반드시 《반공선전》을 결부시키도록 하였으며 지어 《반공시범학교》까지 설치하고 학교관리운영과 강의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반공선전》을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강요하였다.

이와 함께 악당들은 청소년학생들을 《반공선전》에 강제로 내몰기 위하여 《학생농촌개발봉사단》을 비롯한 갖가지 이름의 학생 《반공선전대》를 만들어 도시와 농어촌부락에 내몰고있을뿐만아니라 《학교담당제》까지 만들어놓고 방학때마다 《반공선전》을 진행하도록 강요하였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비방중상과 제놈들의 날조한 《성과》를 선전하는 《해외공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책동도 대대적으로 벌렸다.

적들은 이른바 《해외공보반》을 대폭 늘이는 한편 국제회의들과 《관광객》들, 해외려행자들을 리용하여 《반공선전》을 강화하기위한 책동도 감행하였다.

이와 같이 미제와 그의 더러운 개 박정희 파쑈악당은 제놈들의 전쟁정책과 파쑈폭압 등 범죄행위를 가리워 보려고 《반공》소동을 악랄하게 벌림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의 주의를 딴데로 돌리며 그들을 기만해보려고 책동하였다.

그러나 놈들은 각성된 남조선인민들을 속여넘길수 없었으며 공화국북반부에 쏠리고있는 그들의 주의와 동경심을 결코 돌려세울수 없었다.

《반공》의 간판아래 감행된 놈들의 범죄적책동이 강화되면 될수록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이 더욱더 거세차게 타번지고있는 사실은 그것을 여실히 실증하여주었다.

## 식민지통치위기의 심화

1970년 남조선정치정세에서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광범한 인민대중의 혁명적진출의 강화로 반혁명세력이 약화되고 미제의 식민지통치위기가 보다 심화된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남조선에서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이 더욱 첨예화되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혁명적진출이 적극화되였으며 따라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에는 보다 심각한 위기가 조성되였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79페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는 남조선혁명의 참모부인 통일혁명당의 지도밑에 전개된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생존과 민주주의적권리를 위한 거세찬 투쟁은 적들을 공포에 떨게하였으며 일대 혼란속에 몰아넣었다.

**【군사파쑈통치체계안에서의 동요와 혼란】**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혁명적진출에 겁을 집어먹은 괴뢰경찰들과 괴뢰《공무원》들속에서 공포와 불안, 동요와 혼란이 더욱더 증대되여 미제의 식민지통치체제는 밑뿌리로부터 뒤흔들리였다.

괴뢰정권의 존재가 멀지않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괴뢰경찰과 《공무원》들은 자기의 앞길과 운명을 걱정하면서 인민탄압에 내몰리는것을 기피하거나 상관놈의 《명령지시》를 공공연히 태공하고있다.

적들이 줏어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69년에 이른바 《비위》 경관수가 3천 47명(그 가운데 직무태공 경관이 2천명)이였다면 1970년에는 1—4월까지의 넉달동안에만도 무려 3천 121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직무태공현상은 괴뢰경찰들뿐만아니라 일반 《공무원》들속에서도 급격히 늘었다. 이에 대해 괴뢰국무총리란자는 《요즘 관리들의 안일한 직무태세, 지시사항의 불리행 등으로 업무 수행에 커다란 혼란과 지장을 초래하고있다》고 비명을 질렀다.

또한 괴뢰경찰들과 괴뢰 《공무원》들속에서는 퇴직현상이 급격히 늘어났다.

남조선강원도 괴뢰 《경찰국》산하에서는 4월말까지 매달 평균 21명의 괴뢰경관이 퇴직하였다. 이것은 1969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퇴직하는 경관이 월평균 7명씩 더 늘어난것으로 된다. 일반《공무원》들속에서도 퇴직하는자가 더 늘었다. 지난년간에는 해마다 평균 《공무원》퇴직률이 5%였다면 1970년에는 그 보다 3%가 더 늘어난 8%에 달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괴뢰경관과 《공무원》들 뿐만아니라 괴뢰군속에서도 무수히 나타났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식민지통치의 기둥으로 여기고있는 괴뢰군병사들과 중하층장교들속에서도 상관놈에게 항거하거나 악질상관놈들을 처단하고 도망하는 현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적들이 줏어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2월 한달동안에 괴뢰군 모 부대산하에서만도 40여명의 탈주사건이 났다.

괴뢰군 모 사단 107련대 리아무개 병사 등 몇명의 병사들이 《인사장교》놈을 카빈총으로 쏴죽인 사건과 3월 10일 괴뢰군 모 련대 3대대소속 도아무개병장이 2개의 수류탄으로 8명의 악질장교놈들을 쓸어눕힌 사건을 비롯하여 악질장교놈을 처단하고 도망하는 사건이 련달아 생겼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의 어용출판물까지도 하극상사건의빈발, 《도망병의 증대》는 《자유당말기의 군기를 재현하고있다》고 쓰지않을수 없었다.

동요와 항거현상은 괴뢰군뿐만아니라 《향토예비군》들속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에 사는 리아무개를 비롯한 11명의 《향토예비군》대원들은 남조선혁명가들을 적발하기 위한 《수색작전》에 동원되라는 악질상관놈의 《명령》을 받게 되자 그놈을 처단하고 도망해버렸다.

《향토예비군》들속에서는 또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강요하는 군사훈련을 의식적으로 기피하며 조직적으로 항거하는 현상이 속출하였다.

적들이 줏어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향토예비군》훈련에 참가하지 않은자가 1969년에 82만 7천 618명이였다면 1970년에는 1월부터 4월까지의 동안에만도 무려 52만 127명을 헤아렸다. 이런 사실들은 미제의 식민지통치체제안에서 동요와 혼란이 갈수록 심화되여가고있다는것을 실증하는 징표들이다.

**【괴뢰지배층내부모순과 알륵의 심화】** 미제식민지통치위기의 심화를 반영하는 괴뢰반동지배층내에서의 대립과 알륵도 보다 격화되였다. 남조선반동지배층내부에서의 모순과 알륵은 1971년에 있을 괴뢰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정권》쟁탈을 둘러싸고 더욱 격심해졌다.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제놈의 장기집권을 위한 준비책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면서 그의 적수인 반대파들과 그 활동에 대한 탄압을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였다. 이에따라 괴뢰정권을 노리온 보수야당계렬들의 반발과 공세가 또한 격렬하여졌다. 이리하여 괴뢰반동지배층간의 모순과 갈등은 가일층 심각화되여갔다. 여, 야당간의 모순과 갈등은 주로 괴뢰선거법개정문제, 야당기관지 《민주전선》탄압사건, 《와우아빠트붕괴사건》 등을 중심으로 하여 극도에 이르게 되였다. 괴뢰반동지배층내에서의

대립과 알륵의 초점은 군사깡패당인 《민주공화당》과 보수야당인《신민당》간의 괴뢰정권쟁탈을 위한 개싸움질이였다. 박정희반역도당의 장기집권책동의 강화와 《선거관계법개정》문제를 둘러싸고 이 량자간의 모순과 갈등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1969년 9월 박정희도당이 이른바《3선개헌안》을 야당소속괴뢰국회의원들 몰래 야밤삼경에 날치기로《통과》시킨 뒤로부터 보수야당은 《3선개헌안의 무효화》와 《선거제도의 근본개혁》을 주장하면서 근 8개월동안이나 괴뢰국회 참가를 거부하여 나섬으로써 괴뢰국회의《기능》은 완전히 마비되고 말았다. 이른바 《선거제도의 근본개혁》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이 두 반동세력간의 더러운 개싸움질에서 이자들이 추구한 목적은 전혀 상반되는 것으로서 1971년도 《선거》에서 각기 저들에게 유리하도록 《선거법》을 뜯어고치자는 것이였다. 매국역적박정희괴뢰도당을 괴수로 하는《민주공화당》은 부정선거 조작에 유리하게끔 꾸며진 현존하는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보존하려고 꾀하였고 반대로 보수야당은 현재의《선거제도》를 뜯어 고침으로서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박정희괴뢰도당의 부정선거를 다소라도 막아보자는 속심이였다. 그러므로 정권욕에 사로잡혀있는 반동지배층들이니만큼 《선거법개정》을 둘러싸고 개싸움질하는것은 응당한 일이였다. 여, 야당간의 모순과 갈등은 야당의 기관지인《민주전선》에 대한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탄압을 계기로 하여 더욱 날카로워졌다. 박정희괴뢰도당이 제놈들의 죄행을 폭로한 풍자시 《5적》을 실은 야당기관지《민주전선》을 압수하고 편집인을 체포한것을 동기로 하여 야당계렬들은 괴뢰국회에서《3선개헌》책동 때 깡패당인《민주공화당》이《국민협세로 민주공화보》(여당기관지)를 찍어 통, 반장들을 통하여 강제 배포한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박정희패거리들을 궁지에 몰아 넣었다. 이에 당황하게 된《민주공화당》깡패무리들은 제놈들의 죄행을 폭로한 야당《의원》의 멱살을 잡고 차고 때리는 통에 괴뢰국회는 또다시 여, 야간의 더러운 개싸움장으로 화하였다. 한편 남조선인민들의 반정부기세에 편승하여 괴뢰정권을 잡아보려는 보수야당은 《와우아파트붕괴사건》(건설비를 횡령해먹은 탓으로 무너져 숱한 인명이 피해를 입은 사건) 등 박정희괴뢰도당의 부정부패행위와 추잡한 내면생활과 전대미문의 야만적파쑈폭압책동을 폭로규탄함으로써 민심을 끌어 당기려고 대여당, 대《정부》공격의 화살을 련속 퍼부었다. 반동지배층안에서의 모순, 대립은 비단 여, 야당간에서 뿐만아니라 또 야당 내부에서도 벌어져 분파투쟁이 그칠사이가 없었다. 박정희군사통치집단안에서는 괴뢰대통령감투와 군사파쑈통치체제안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암투가 계속되였다. 이 파쟁은 주로 박정희역적과 김종필역도간, 김종필역도(전민주공화당의장)와 정일권역도(전괴뢰국무총리)간의 대립과 알륵이였다. 괴뢰대통령감투를 은근히 탐내온 김종필역도는 매국역적 박정희역도놈이 괴뢰대통령감투를 계속 눌러쓸 작정으로《3선개헌》책동을 벌리자 김종필역도는 이를 반대하여 나섰다가 군사깡패당의 《의장》자리에서 쫓겨난다음 그후 박정희역도와의 밀담을 통해 적수 정일권놈을 괴뢰국무총리자리에서 떼며, 《민주공화당》의 요직에서 쫓겨난 제놈의 심복들을 다시 복직시킨다는 전제밑에 괴뢰대통령《선거》운동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역적놈들간에는 권모술수와 암투가 계속 벌어졌다. 박정희역도는 12월 19일 이른바《개각》놀음을 통하여 정일권놈을 괴뢰국무총리자리에서 떼버리는데까지 이르렀다.

뿐만아니라 1969년말과 1970년 초에 박정희괴뢰도당이 실시한《요직개편》과 《기구개편》책동을 통하여《당》요직에서 밀려난 자들은 1971년에 있을《선거》놀음을 앞두고 박정희역적의 처사에 로골적인 불만을 표시하면서 괴뢰국회의원《후보공천》에서까지 제외될 경우에는 야당과 합세할 움직임을 보이였다. 이와 함께《민주공화당》의 각 《지구당》들에서는 괴뢰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그 후보자리를 둘러싸고 개싸움들이 치렬히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박정희괴뢰집단내부에서의 파쟁이 앞으로 있을《선거》놀음을 계기로 더 격화되리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또한 보수야당들 자체내의 분파싸움도 역시 심하였다.《신민당》에서는 1월의 《당수》선출을 위한《림시전당대회》와 9월의 괴뢰대통령 후보지명대회를 전후로 하여 괴뢰대통령후보자리와 이른바 《당권》을 노리는 파벌두목들간의 싸움이 치렬하게 벌어졌다. 광범한 남조선인민들의 혁명적진출과 함께 이와같이 반혁명세력내부에서의 심한 동요와 혼란 그리고 괴뢰반동지배층내에서의 모순과 갈등의 격화로 말미암아 이해에 반혁명세력은 더욱 약화되고 미제의 식민지통치위기는 일층 심화되였다.

# 남조선경제의 전면적파탄과 예속의 심화

**【박차를 가하는 경제의 군사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증대되는 군사적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남조선경제를 더욱더 군사화하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335페지)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식민지군사기지로 전락시키고 그것을 발판으로 전조선과 아세아를 침략하려는 음흉한 목적을 추구하면서 남조선의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제놈들의 침략목적수행에 동원하고 있다.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에서 감행하고 있는 경제의 군사화는 이러한 책동의 한 고리이다. 미제와 그의 더러운 개 박정희괴뢰도당은 이해에도 범죄적인 전쟁정책을 강화하기에 미쳐날뛰면서 경제의 군사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박정희매국도당은 미제상전의 지시대로 경제의 군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른바 《새해는 국방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할 해》라느니 《1970년도는 예비군전력화완성의 해》라느니 떠들어대면서 모든 인적 및 물적 자원을 경제의 군사화를 감행하는데 종속시킴으로써 군사적잠재력을 더욱 강화하려고 서둘러댔다. 적들은 직접적군사비만도 1969년에 비하여 184억원이나 더 많은 1,005억원을 썼을 뿐만아니라 1,406억원에 이르는 방대한 투자를 경제분야에 돌리고 그 거의 전부를《고속도로》건설과 항만확장, 군수수요의 현지조달부문 등 군사경제적잠재력을 강화하는데 썼다. 놈들은 그것도 부족하여 7월중순에는 135억원의 《추가예산》까지 만들어 군사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부문과 군용도로, 항만 등의 신설확장에 돌렸다. 적들은 군수용철도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5천 500만딸라의 《차관》을 《세계은행》으로부터 빌려왔다.

매국역적의 무리들은 남조선의 중요지역들을 련결하는 군용도로의 신설확장공사에만도 217억원의 자금을 쏟아부었다. 또한 놈들은 《군수산업의 개발육성과 전시산업에로의 전환》을 한다는 구실밑에 이미 추진해오던 이른바《방위 산업3개년계획》(1969~1971)을 비롯한 일련의 범죄적《계획》을

감행하는 한편 새로 군수산업의 기초로 되는《기간공업》을 《육성》하기 위한 책동을 더욱 강화하였다. 미제와 박정희반역도당은 이해에 이른바 《중공업개발계획》이란것을 만들었다. 놈들이 떠드는 《중공업개발계획》이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과 괴뢰군에 대한 군사적수요를 현지에서 생산공급하기 위한 군수산업과 군사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부문들을《건설》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려고 매국도당들은 철강업자들인 매판자본가놈들에게는 《장기저리》의 외국자본도입과 원료의 구입, 기자재공급을 위한 재정적지원과 세금의 감면 등 모든 《특혜》를 보장해줄것을 내용으로 하는 《철강공업 육성법시행령》이라는것까지 조작해냈다. 한편 놈들은 중요군수품생산공장들을 《통합》하거나 지방에 분산시키며 군용송유관을 매설하고 체신시설들을 《전시체제》에 맞도록 보강확장하는 등 경제의 모든분야에 걸쳐 군사화책동을 발악적으로 다그쳐댔다.

뿐만아니라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수십만의 로동력을 제놈들의 군사기지확장 및 건설공사에 강제동원시키고 있으며 10만명이상을 미제침략군과 괴뢰군을 위한 군수기관에 고용하고 있다.

경제의 군사화가 촉진됨에 따라 군사적 수요를 위한 각종물자와 징발량도 증대되고 있다. 석탄은 해마다 년생산량의 50%, 유류는 40%가 군사적소비에 돌려지고있으며 놈들이 다그쳐 진행하고 있는 《고속도로》건설에 투입되는 세멘트만도 년 생산량의 20%나 된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경제의 군사화에 소요되는 방대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민수탈에 더욱더 매달리였다. 이해에 4천여억원의 방대한 세금수탈목표를 세워놓은 놈들은 이를 남조선인민들에게서 깡그리 짜내기 위하여 년초부터 여러가지 《세법》들을 뜯어 고치거나 새로 만들어 내는 한편 세금수탈기구와 인원을 대대적으로 늘였다. 그러면서 이른바 《세무공관장회의》라는 것을 자주 벌려놓고 졸개들에게 략탈훈련을 시킨후 수탈《책임량》까지 떠맡겨 세금수탈에로 내몰았다. 이리하여 놈들은 인민들의 보잘것없는 세간살이를 닥치는 대로 강탈하는 등의 강도적략탈만행을 남조선도처에서 감행하였다.

박정희악당들은 본질상 세금이나 다름없는 여러가지 공공료금과 협정료금들을 련달아 끝이 올리며 수백억원어치의 각종 채권을 찍어 내여 인민들에게 강제로 떠맡기는 등 별의별 방법과 수단을 다하였다. 군량미확보와 군수품조달을 위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농촌수탈도 전례없이 강화되였다. 놈들은 수백만석의 벼보리를《매상》등의 명목밑에 생산비도 안되는 헐값으로 략탈한데 이어 500만석의 량곡을 수탈하려하였다. 제반사실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의 군사경제적잠재력을 제놈들의 침략적인 전쟁정책수행에 리용하기 위하여 얼마나 악랄하게 책동하였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 【매국적인 외국자본도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남조선당국자들은 조선인민의 의사를 거역하고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데서 나갈 길을 찾으려 하고있습니다.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것은 예속의 길이며 망국의 길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405페지)**

1970년에도 박정희반역도당은 경제의 군사화에 필요한 방대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략탈을 강화함과 함께 침략적인 외국독점자본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에 미쳐날뛰였다. 이리하여 남조선경제를 외래독점자본가놈들에게 더욱더 예속시키는 길에 빠져들게 하였다. 매국의 무리들은 외국독점자본을 더 많이 끌어들이려고 2월 13일에 미제상전의 조종밑에 미국, 일본, 서독, 영국 등을 포함한 11개나라독점자본가들과 남조선매판자본가놈들로서 실제상 남조선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기구인 《국제경제인협의회》란것을 만들었고 3월 1일에는 《외국인 투자업무창구일원화》를 단행하였다.《외국인투자업무창구일원화》란 남조선에 대한 외국독점자본가놈들의 투자업무를 보다 간소화하고 짧은 기간내에 빨리 해결해 주기 위해 괴뢰도당의 일부《경제기구》를 《개편》한것을 말한다.

이해 외국독점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적들의 책동에서 특징적인것은 종래의 차관위주로부터 직접 및 합작투자 도입을 강화한것이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직접 및 합작투자를 더 많이 끌어 들이려고 외국독점자본가들이 남조선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투자조건》과 《투자환경》을 조성해 주려고 급급하였다.

1969년 12월 23일 괴뢰국회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체 로동자들의 《로동조합의 결성 및 로동쟁의 조정법》을 강압적으로 통과시킴으로써 외국인 기업체에 고용된 로동자들로 하여금 생존과 민주주의적 권익을 위한 투쟁을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월 2일에는 남조선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인 상사, 회사, 《대표》들과 《조세간담회》라는것을 벌려놓고 그들에 대한 세금의 감면문제를 《론의》하였다.

심지어 놈들은 경상남도 마산에 20만평의 《수출자유지역》을 설정해놓고 여기에 투자하는 외국독점자본가들에 대하여서는 관세, 소득세, 영업세 등 모든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물론 공장건물, 부지면적 등을 헐값으로 빌려 주도록하였으며 이러한 일을 전담하는 《수출자유지역관리청》까지 내왔다.

그리하여 마산은 외국독점자본가놈들의 손아귀에 완전히 들어 가게 되였다.

또한 박정희괴뢰도당은 더 많은 침략적인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년중 무슨 《대표단》이요, 《사절단》이요 하는것들을 보내여 외국독점자본의 침투를 구걸하였다. 놈들은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렸던 《대한국제경제협의체 총회》에 괴뢰들을 파견하여 남조선경제의 군사화를 위하여 1억 6천 6백만딸라의 차관제공을 구걸하였다. 한편 미국과 영국, 서독에 이른바 《경제대표단》을 띄워 보내여 외국독점자본구걸행각을 벌리게 하였다.

이와 함께 매국노들은 옛 상전인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찾아가 남조선과 일본사이에는 《국경이 없다》느니 남조선이 일본령토의 《연장》이라느니 하면서 《서슴없이 진출해줄것을》 애걸하는 매국배족적책동도 감행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간에는 2월 도꾜에서 이른바 《한일지역수출진흥회의》를 벌린데 이어 3월에는 《마산자유수출지역에 대한 회담》, 4월에는 《한일협력위원회 제2차총회》, 5월에는 《한일민간경제위원회회의》 등 침략과 매국의 흥정판이 매일과 같이 벌어졌으며 남조선경제의 군사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일본독점자본의 남조선에로의 진출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협력추진특별위원회》라는 침략기구까지 조작되였다. 매국역적박정희괴뢰도당은 형식상 만들어 놓았던 이른바 《대일지역수입 제한》마저 《철폐》하고 일본군국주의자들과 《한일조세협정》을 맺는 등으로써 일본군국주의독점재벌들이 한푼의 세금도 물지 않고 아무런 제한도 받음이 없이 남조선에 마음대로 쓸어들수 있는 온갖 《조건》들을 보장하기에 기를 썼다.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박정희매국도당은 심지어 남조선의 포항지구이남의 《공업지역》과 일본의 관서경제권을 통합시켜 소위 《한일경제협력권》을 조작하여 이 지역에 《한일수직분업체계》까지 만들데 대하여 《합

외》함으로써 포항이남의 《공업지역》과 남해안지역은 사실상 일본독점재벌들에게 완전히 떠맡기졌다. 뿐만 아니라 《공동개발》등의 구실밑에 일본독점자본가놈들은 남조선동서남해안의 해저자원까지 거머쥐려고 로골적으로 책동하는데까지 이르고있다. 이리하여 이해 1월부터 11월 15일까지에만도 4억 9천 5백만딸라의 외국독점자본이 침투했거나 하기로 확정됨으로써 11월 말 현재 외국독점자본의 총 도입확정금액은 29억딸라에 달한다. 이것은 남조선인구 1인당 3만원의 외국에 대한 빚을 걸머진것으로 된다. 놈들은 남조선인민들로부터 수탈한 막대한 자금과 끌어들인 외국독점자본을 범죄적인 전쟁준비를 위한 비행장을 비롯한 군사기지들과 군사시설들을 확장하며 군수공업을 《육성》하는데 썼다. 또한 적들은 남조선에서 군사행동의 기동력과 그 보급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군용도로, 항만, 철도 등을 신설확장하며 전략물자를 마련하는데 자금을 쏟아 넣었다.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매국역적들에 의한 이와 같은 남조선경제의 군사화책동과 외국자본도입책동은 파멸적인 후과를 가져 오고 있다.

그것은 남조선 민족공업 및 농업의 전면적파탄과 그 식민지예속성의 심화 그리고 인민생활의 극도의 령락에서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은 매국적인 외국독점자본의 도입책동을 견결히 반대하여 나서고 있는 것이다.

## 【전쟁예산과 략탈의 강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괴뢰정부의 재정을 완전히 자기 손에 틀어쥐고 그 예산을 미국점령군과 방대한 괴뢰군대와 파쑈적통치기구를 유지하는데 전적으로 돌리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2권, 23~24페지)

남조선괴뢰정부예산은 그 편성으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행정이 미제침략자들의 손아귀에 거머쥐여있으며 미제의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재정적으로 뒤받침하는데 복종되고있다. 따라서 괴뢰예산은 날로 강화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재정적으로 보장하며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략탈의 공간으로 리용되고있다.

이해에도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제상전의 전쟁정책에 추종하여 다그처댄 무력증강과 경제의 군사화를 재정적으로 안받침하기 위하여 굉장히 불어난 전쟁예산을 꾸미고 인민수탈에 더욱 미쳐날뛰였다.

1970년도 괴뢰정부예산은 놈들의 예산이 가지고있는 반동적, 반인민적 성격과 식민지괴뢰예산으로서의 본질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내였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미제의 충실한 개인 박정희괴뢰도당이 이른바 《예산교서》에서 제놈들의 이해의 《시책방향》이 《미국의 새 아세아정책》에 대처한 이른바 《국방태세를 확립》하는데 있으며 따라서 이해 《예산의 특징》도 《능동적인 국방태세를 확립하는 예산》이라는데 있다고 떠벌인 데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제의 지시밑에 1969년 당초 예산에 비하여 133.4%(1천 84억원)나 불어난 총규모 4천 3백 27억원에 달하는 괴뢰정부예산을 조작했다.

이것은 박정희반역도당이 괴뢰정권을 가로 타고 앉기 전인 1960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무려 9배로 늘어난 《류례없는 팽창예산》이다.

괴뢰예산의 이 급격한 팽창은 전적으로 미제와 박정희군사깡패들의 범죄적인전쟁준비와 관련한 비용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난데 기인된다.

그것은 이해 괴뢰정부예산이 군사력과 군사잠재력의 강화 및 파쑈테로통치비의 증대를 목표로하여 꾸며지고 《예산》총액의 거의 대부분이 이에 집중배정된 사실에서도 여실히 실증된다.

괴뢰《예산》에서 직접적군사비는 1969년 괴뢰정부 당초《예산》에 올랐던 그것보다 194억원이나 늘어난 1천 5억원으로서 이것은 1961년에 비하여 7배나 불어난 막대한 금액이다.

전례없이 팽창된 군사비는 괴뢰군장비의 《현대화》, 《군수시설의 확장》, 실전을 가상한 대규모적전투훈련의 강화 등 《전시체제확립》에 지출할것을 《계획》하였다.

이와 함께 간접적군사비인 《일반경비》와 군사적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투융자》항목에 대한 자금지출도 대폭 늘이였다.

괴뢰정부세출예산에 계상된 《일반경비》는 1천 910억원으로서 이것은 1961년 괴뢰정부예산에 확정되였던 그것보다 근 8.2배나 늘어난것이며 1969년에 비해서는 432억원이 대폭 늘어난것이다.

괴뢰경찰 및 파쑈테로통치기구유지비를 기본으로 하는 《일반경비》의 이와 같은 팽창은 오늘 남조선에서 급격히 앙양되고있는 혁명가들과 애국적인 민들의 혁명적진출을 억누르기 위하여 괴뢰경찰과 특무 등 폭압력량의 확대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것이였다.

또한 그것은 1971년에 감행될 괴뢰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놀음을 앞두고 제놈들의 충실한 심복들로 지반을 꾸리기 위한 음흉한 목적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넣기 위한 책동이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이 꾸민 이해 《예산》의 군사적성격은 《재정투융자》의 항목별 자금배정에서도 뚜렷이 드러났다.

놈들은 괴뢰정부《재정투융자》비로 1969년에 비하여 48%(459억원)나 늘어난 1천 406억원을 올려놓고 그중 740억원을 서울—부산간, 서울—횡선간, 대전—전주간 등의 《고속도로》와 묵호, 인천항 등 항만확장공사 그리고 통신, 철도 등 군사적의의를 가지는 부문에 쏟아넣도록 하였다.

미제의 침략적전쟁정책을 떠받들고 박정희군사깡패도당이 꾸며낸 이해 괴뢰정부예산의 군사적성격은 또한 《재정투융자》의 대부분을 군수공장을 비롯한 군사적의의가 큰 산업부문에 집중적으로 쏟아놓은데서도 잘 나타났다.

놈들은 《군납산업의 육성》이니, 뭐니 하면서 《재정투융자》중 많은 금액을 군수물자의 현지조달에 복무하고있는 매판자본가놈들에게 《장려금》과 《지원금》이라는 명목밑에 집중《배정》하였다.

이리하여 괴뢰정부예산지출총액가운데서 범죄적인 전쟁준비를 위하여 쏟아넣은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를 넘고있다.

나머지 자금도 그 대부분이 농산물수탈에 필요한 비용과 《공채》발행비, 《군경원호비》따위로 지출되고 파괴된 민족경제의 복구와 령락된 인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단 한푼도 내지않고 있다.

이와 같이 괴뢰정부의 이해 《예산》의 세출구성은 철두철미 미제침략자들의 전쟁준비를 뒤받침하는 전쟁예산이라는것을 명백히 실증하고있다.

미제상전의 전쟁정책집행에 복무하는 식민지괴뢰예산으로서의 박정희괴뢰도당의 예산의 이러한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본질은 그 세입구성과 내용에서도 명백히 드러나고있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생활은 몹시 령락하였으나 남조선의 통치자들은 많은 군사비를 짜내기 위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조세수탈을 더욱더 강화하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3권, 401페지)

미제의 조종밑에 방대한 전쟁예산을

꾸며낸 박정희군사깡패도당은 미제상전의 침략적전쟁정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헐벗고 굶주리고있는 남조선인민들에게서 짜내는 조세로 충당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1970년도 괴뢰정부예산의 조세수입규모와 그것이 이해 예산세입총액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난것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괴뢰정부예산세입 구성에서 조세수입(《전매익금》포함)은 《세입예산》 총액의 86.5%인 3천 742억원으로서 1961년에 비하여 무려 14.5배나 늘어난것이였다. 이것은 남조선주민 호당평균 7만원의 조세부담으로서 박정희매국역도가 괴뢰정권에 기여든 이후 로동자, 농민들의 실질소득이 20~30%나 떨어진것을 고려할때 이 금액은 남조선인민들이 도저히 감당할수 없는것이다.

그러나 박정희괴뢰도당은 《짜내면 나온다》는 상전 미제의 강도적론리에 따라 각종 《세법》을 전면적으로 개악하여 대중과세를 15—100%까지 엄청나게 끌어올렸다. 놈들은 《물품세법》을 더욱 개악하고 《직물류세》를 새로 조작하는 등 갖은 악랄한 방법으로 《물품세》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간접세수탈 목표액을 184억원이나 더 불구어놓았다.

박정희군사불한당놈들은 인민들에게 들씌운 《세계 제1의 세률》인 엄청난 세금을 모조리 강탈해내기 위하여 세금 수탈기구들을 대대적으로 신설, 확장하고 《세무공무원》을 늘이였다. 놈들은 세금수탈을 위한 《비상근무령》을 내리고 괴뢰경찰들까지 동원하여 세금수탈《독려반》과 《기동반》 등을 무어가지고 거리와 마을들을 싸다니면서 중소기업가들의 보잘것없는 설비들과 어민들의 어선, 인민들의 세간살이와 집짐승들까지 닥치는대로 《차압》하는 악랄한 수탈만행을 련중 계속 감행하였다. 남조선출판물들도 지적하고있는바와 같이 남조선은 《세금지옥》으로 전변되였다.

놈들은 이것으로도 모자라 이해 2월 20일에는 또 《내국세》의 수탈목표액을 310억원이나 더 불구었으며 7월중순에는 또 135억원의 《추가예산》까지 조작해내였다.

박정희날강도무리들은 340억원의 여러가지 《국채》와 《공채》를 발행하며 각급 학교학생들의 《등록금》과 《수업료》를 50~100%나 끌어올려 수백억원(《육성회비》라는 명목으로 중고등학교학생들에게서 강탈해낸 금액만도 148억 7천여만원에 달함)을 강탈해내였다. 또한 놈들은 《저축》이라는 이름밑에 로동자, 사무원들의 임금봉투에서 미리 잘라내고 농민들의 되박쌀까지 훑어내며 지어는 《국민학교》어린이들에게까지 《책임량》을 강제할당하는 등 악랄한 방법으로 2천이억원을 긁어내여 군사경찰비에 탕진하였다.

미제의 더러운 개 박정희반역도당의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재정금융정책, 특히 현금차관의 도입과 예산적자의 보충을 위한 지폐의 람발 등으로 남조선의 통화량은 이해에 또 886억원이 늘어나 3천 65억원에 이르렀으며 생활필수품값은 평균 20%이상, 상품에 따라서는 무려 300%나 더 올랐다.

놈들은 통화팽창과 물가앙등을 억제해보려고 살인적인 《긴축》에 더욱더 매여달렸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자금대출을 극력 억제하며 《지불준비금미달》이라는 미명아래 은행들의 대부업무를 동결시키는 한편 각종《국채》와 《채권》을 마구 찍어내여 은행들에 떠넘김으로써 340억원의 방대한 자금을 훑어들이였다.

1월부터 4월기간에 금융기관의 대출액이 전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80억원이나 줄었다는 사실은 놈들의 이른바 《긴축》이 어느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수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이와 같은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재정금융정책은 남조선경제와 인민생활을 보다 깊은 파국에로 몰아넣었다.

미제의 지시에 따른 박정희괴뢰도당이 감행한 살인적 《긴축》과 략탈은 남조선기업의 98%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자금류통을 마비상태에 빠뜨리는 등 걷잡을수 없는 파국과 혼란만을 더욱 심화시켰다.

놈들이 단행한 《금융긴축》으로 일반시중의 자금은 전례없이 고갈되였으며 이로 인한 부도수표가 급격히 늘어났는바 8월말현재 어음부도액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8억원이나 늘어났으며 고리대업이 이 기회를 리용하여 더욱 활개치게 되였다.

이로 인하여 해마다 자금난, 원료난 판로난으로 허덕이던 중소기업들의 파산과 몰락과정은 더욱 촉진되였으며 남조선의 민족공업은 여지없이 파산되였다.

로동자, 농민들의 실질소득은 박정희괴뢰도당의 《집권》당시에 비하여 30~40%나 더 떨어졌으며 인민생활은 형언할수 없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고있다.

이 모든 사실은 남조선괴뢰정부예산은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에 복무하는 철두철미 전쟁예산이며 박정희괴뢰도당은 방대한 전쟁비용을 짜내기 위하여 갖은 악랄한 행위를 다하고있는 흉악무도한 인민수탈자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그러기에 남조선인민들은 《위정자들이 말하듯이 생활이 펴지기는커녕 오히려 쪼들려만가고 세금은 늘기만하니 이것이 복지사회건설의 길인가》, 《살인적인 세금을 낼수 없다》고 쌓이고 쌓인 울분을 터뜨리면서 놈들의 략탈을 반대하여 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이다.

**【파산몰락하는 남조선민족공업】**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국독점자본과 예속자본의 압박으로 말미암아 민족공업은 더욱더 령세화되여가고있으며 끊임없이 파산몰락하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3권, 139폐지)

남조선의 민족공업은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이 이른바 《근대화》의 이름밑에 강행한 발광적인 경제의 군사화와 외국자본도입책동으로 말미암아 이해에 그의 파산몰락이 더욱 촉진되였다.

박정희반역도당은 미제의 지시에 따라 전쟁준비에 소요되는 방대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남조선인민들에게 더많은 군사적부담을 들씌우는 한편 살인적인 《초긴축정책》을 일층 강행하였다.

놈들은 또한 《부실기업체의 정비》를 단행하는 한편 《군수산업의 육성》이라는 간판밑에 군수품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공업단지》건설을 추진시키면서 여기에 원료와 자금을 집중공급하였다.

이와 함께 매국도당은 형식상 만들어 놓았던 《수입제한조치》마저 《철폐》함으로써 미국과 일본 등지의 과잉상품이 물밀듯이 쓸어들게 하였다.

그리하여 남조선민족공업의 파산과 예속은 한층 심화되였다.

남조선의 출판물들도 이해 남조선공업의 생산실태에 대하여 《혹심한 자금난과 판매난》, 《50년래의 불황》, 《사상최악의 위기》 등으로 특징지었다.

경기도내에서는 107개의 중소기업체들이 자금난과 원료난, 판로난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으며 경상북도 대구에서는 109개, 부산에서는 161개의 중소기업체들이 파산하였다. 남조선에서 1970년 상반년간에 휴업 또는 폐업한 중소기업체수는 1969년 하반년간의 그것보다 40%나 더 늘어났으며 경상남도 진주같은 곳에서는 휴업 또는 폐업한 중소기업체수가 시내 중소기업체총수의 80%에 이르렀다.

거우 명맥을 이어가고있다는 나머지 중소기업체들도 그 가동률이 형편없이 떨어졌다.

상반년간 남조선의 화학섬유, 세멘트, 제지, 기계부문업체의 가동률은 40%에 지나지않았으며 섬유제품생산업체들의 가동률은 26.7%, 식료생산업체들의 가동률은 31.8%로, 남조선 전체 중소기업체들의 가동률은 1965년의 54.8%보다 17.8%나 더 낮은 37%로 떨어졌다.

남조선의 채굴공업도 전면적인 파산상태에 빠져들었다.

경상남북도내의 탄광광산들의 70~95%가 휴광하거나 페광하였으며 전라남도내에서는 92%, 충청남도에서는 75%의 탄광, 광산들이 가동을 멈추었다.

남조선의 철광석매장량의 70%가 집중되여있는 남조선의 강원도 홍천군에서는 원시적인 설비로 쇠돌을 조금씩 캐내던 광산들이 극심한 자금난에 빠져 거의 모두 휴광하였다. 남조선석탄생산량의 80%를 차지했던 남조선 강원도에서는 중소민영탄광들이 미제와 그 앞잡이 박정희괴뢰도당의 반동적인《연료전환정책》(석탄대신 미국석유를 연료로 사용하게 하는 매국정책)의 후과로 모두 쓰러져 5천여명의 탄부들이 실업자로 전락되였다.도내 탄전지대는 《전쟁터와 같은 페허》로 되였다한다.

이리하여 남조선의 탄광, 광산들중 휴광하거나 페광한 탄광, 광산은 80%에 이르고있다.

간신히 명맥이나 유지하고있는 중소기업체들도 미제와 그 주구들의 략탈파괴책동으로 인하여 더욱더 령세화되여가고 있으며 외래독점자본과 매판자본의 하청기업으로 전락되였다.

남조선중소기업의 령세성은 특히 그 경영규모가 계통적으로 적어진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69년말현재 남조선 중소기업체들중 종업원 5~30명에 불과한 기업체들은 그 전해보다 10.4%나 늘었으며 그것이 기업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8.4%에 이르렀다. 1970년에는 규모가 작은 기업체의 비중이 더 늘었다.

또한 중소기업의 령세성은 그 기계설비들의 락후성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남조선면방직업체의 시설은 75%이상이 낡아서 당장 교체하지않으면 안될 형편이며 그 가운데서도 《섬유산지》로 알려져있는 대구시내의 방적시설들은 대부분이 40여년전 일제시기의 것으로서 도저히 기계라고 할수없는것들이다.

.기업의 령세화와 파산 그리고 설비의 락후는 공업생산의 계통적인 감퇴를 가져오고있다. 7, 8, 9월 석달동안에만도 광업생산량은 7.3%, 전력생산은 10.2%나 각각 줄어들었다. 하반년간에 경상북도 대구시내에서는 보잘것없었던 전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도 화학공업품은 25.1%, 종이는 16.8%, 천은 7.8%, 나무제품은 15.4%나 그 생산이 각각 줄었다.

페업 또는 휴업한 중소기업체들의 절반이상이 괴뢰도당의 《긴축정책강행으로 인한 심한 불경기》에 기인하였으며 나머지는 외국독점자본과 이와 결탁되여있는 매판자본가놈들에 의한 원료, 자재, 판로의 독점 등으로 인한 경영난의 심화였다. 그리고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합병》, 《계렬화》(중소기업체를 대기업체의 분공장화하는 것)책동은 또한 중소기업체들의 파산몰락을 촉진시킨 중요한 요인의 하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이른바 《재정투융자》의 대부분을 군수산업과 관련된 매판자본가놈들에게 돌리고 중소기업가들에게는 단 1%를, 그것도 명목상으로 《배정》하였을 뿐이였다. 그러면서 놈들은 《초긴축》의 표방밑에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은행의 대출까지 막아나섰다.

이로 인하여 극심한 자금난에 부닥친 남조선의 중소기업가들은 기업운영을 위하여 고리사채에 의존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이해에 남조선제조업부문 중소기업체들중 고리채에 얽매인 기업체수는 86.1%에 이르렀다. 8월말까지의 월평균 사채류통량은 전해보다 34%나 불어난 907억원에 이르렀고 그에 대한 리자액만도 254억원을 헤아렸다.

이리하여 남조선의 중소기업체들은 거의 모두가 더욱더 무거운 빚더미속에 파묻혀들어갔으며 수많은 업자들이 자금난으로 끝내 파산하였다. 남조선신문이 남조선《생산기업체의 경영실태》를 전한데 의하더라도 휴업 또는 파산한 중소기업체들 가운데서 자금난에 기인한것이 1969년 상반년에는 41%를 차지하였다면 1970년 상반년에는 43%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미제의 충실한 개인 박정희반역도당의 반동적인 재정금융정책의 후과와 그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이해에 얼마나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그대로 보여준다.

또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원료난, 판로난까지 들씌워 중소기업의 파산을 촉진시키였다.

박정희매국도당은 외래독점자본가들에게 남조선시장을 완전히 내맡김으로써 외래상품이 홍수처럼 밀려들게 하였다. 이로하여 그렇지 않아도 인민들의 구매력 감퇴로 인한 중소기업체들의 판로난을 더욱 가중시켰다.

남조선에 기여들어 제놈들의 상사를 차려놓고 장사를 하고있는 일본독점자본의 상사만도 《미쯔비시상사》와 《미쯔이물산》, 《이도추상사》를 비롯하여 100여개에 이르고있다. 일례로 남조선에 기여든 《미쯔이물산》은 남조선에서 5천여가지의 상품을 월간 500~600만딸라어치나 취급하면서 막대한 식민지초과리윤을 짜냄과 동시에 남조선중소기업체들의 판로를 틀어쥐고 좌락펴락하고 있으며 그들을 파멸에로 몰아넣고있다.

이밖에도 박정희괴뢰도당은 그 무슨 《군사상 수요》니, 《전략물자》니 하면서 남조선의 모든 원료원천은 물론 수입원자재들까지 모조리 군수생산과 관련한 매판자본가놈들에게 독점케하고 그 값을 마구 끌어올리는 등 가격조작의 방법으로 중소기업체들의 원료난을 더욱더 악화시켰다.

남조선의 중소방적업체들이 이해에 미제침략자들의 농간으로 수입한 목화가 떨어져 《장기간 문을 닫》은 사실과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지에 《차관》을 들이밀어 벌목권을 틀어쥔 일본군국주의 독점자본가놈들이 남조선에 대한 《원목 공급을 동결》시키는 바람에 남조선의 수많은 목재가공공장들이 한꺼번에 휴업 또는 파산한 사실, 미제와 그 앞잡이놈들의 농촌경리파괴책동과 가혹한 수탈정책의 후과로 제주도와 전라남도 일대의 고구마생산이 파탄되자 이 일대에 집중되여있던 전분생산업자들이 절반이상이나 무리로 쓰러진 사실 등은 심화된 원료난으로 인한 남조선중소기업의 파탄상을 보여주는 몇가지 실례에 불과하다.

1970년에 남조선의 공업분야에서 나타난 다른 하나의 중요 특징은 그의 식민지적예속성이 더욱 심화된것이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적인 외국자본도입책동에 따라 쓸어든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비롯한 외래제국주의독점자본가놈들은 남조선경제의 중요 명맥과 산업기업체들을 제놈들의 손아귀에 거머쥐고 그것을 통하여 다른 부문을 장악하였다. 박정희매국도당이 종래의 《차관》형태로부터 이해에는 《직접 및 합작투자》형태로 외국자본도입정책을 바꾼 결과 외래독점자본가놈들은 제놈들의 자본을 들이밀어 새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미 남조선에 있던 회사의 주권을 사서 공장의 관리운

영권을 직접 제놈들의 손아귀에 틀어쥐였다.

미국의 《칼프》석유독점재벌은 울산정유공장에 대한 주식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15년동안의 경영권을 완전히 제놈들의 손아귀에 넣었을뿐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화학공업부문에도 손을 뻗쳐 지배와 략탈을 확대해나가고있으며 충주비료공장은 미국의 《다우케미칼》회사놈들이 지배하고있다.

남조선의 《신진자동차회사》에 자본을 틀이밀어 그 경영권을 거머쥔 일본독점자본가놈들은 원자재와 부속품공급까지 독점하고 보다 많은 식민지초과리윤을 짜내기 위해 그 공급을 일시 중단하는 등 온갖 횡포를 다하였다.

《차관》형태외에도 이처럼 《직접 및 합작투자》형태의 자본수출을 통하여 략탈적인 외국독점자본가놈들이 남조선의 기업체를 직접 틀어쥔것만해도 10월말현재 무려 203개에 달하였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외국독점자본이 남조선정유공업의 100%, 합성수지 및 펄프공업의 100%, 자동차수리 및 조립공업의 100%, 전력공업의 80%, 세멘트공업의 65%를 완전히 틀어쥐고 지배와 략탈을 강화하고있으며 남조선의 중소기업은 놈들의 하청공장, 부속공장으로 굴러떨어지고있다.

남조선의 공업은 《직접 및 합작투자》 형태의 외국자본도입에 의해서뿐만아니라 《기술협력》의 간판밑에 숨어든《기술고문》을 비롯한 기술집단과 기계설비의 도입에 의해서도 그 예속성이 한층 더 심화되였다. 외래독점자본의 기술장비에 의한 예속은 그에 따르는 부분품과 부속품, 원료와 자재 등의 수입을 증대시켰으며 놈들에 의한 원자재 및 부속품과 부분품공급이 중단되면 공장을 움직일수 없는 한심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남조선의 공업은 원유, 사탕, 고무, 합성수지, 화학섬유와 화학펄프 등의 원료는 더 말할것도 없고 그전에 남조선에서 많이 생산해서 쓰던 밀과 목화 제지원료마저 오늘은 100% 수입에 의존하고있으며 지어는 유지원료와 목재까지도 80~90%를 수입해다가 써야 하는 한심한 상태에 빠져있다. 이리하여 오늘 남조선의 공업은 기계설비는 물론 주요 원료자재까지도 80~100%를 값비싼수입원자재에 의존하고 있다.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에 의하여 다그쳐진 외국자본도입책동으로 남조선의 공업은 미제침략자들의 《원조》에 의한 예속에 겹쳐 마구 숨어든 사독점자본에 의해서도 예속되여 결국 그 예속성이 2중 3중으로 강화되였다.

파국과 예속이 더욱 심화되 보는바와 같은 남조선공업의 실태는 미제의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전쟁정책 그리고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책동이 남조선 경제에 어떤 파멸적후과를 가져다주고있는가를 더욱 뚜렷이 보여주었다. 또한 그것은 미제침략자들의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고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을 타도하지 않고서는 파괴된 남조선의 민족공업을 복구할수도 없으며 도리여 파국과 예속만이 심화될뿐이라는것을 다시한번 실증하였다.

**【농촌경리의 전면적파탄】**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농촌경리도 여지없이 파괴되였습니다. 광범한 농민대중은 의연히 봉건적지주제도밑에서 가혹한 착취를 받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지주들의 략탈과 착취로 말미암아 남조선농업은 몹시 쇠퇴하였습니다. 경지면적과 파종면적은 계속 줄어들고있으며 농업생산은 여전히 중세기적인 뒤떨어진 기술에 기초하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3권, 401페지)

1970년에 남조선농촌경리도 더욱 전면적으로 파산되였다.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제상전의 사촉밑에 《중농정책》이요, 《농업근대화》요라는 기만적 구호를 계속되뇌이면서 남조선농촌에 대한 수탈책동을 더욱 강화하였다.

남조선농업의 물질적토대는 보다 더 파괴되고 농업생산은 일층 줄었다. 남조선농민들은 미제와 괴뢰도당의 식민지적략탈과 지주들의 봉건적착취로 더욱 령세화되고 파산몰락에 허덕이게 되였다. 이것은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의 20여년간에 걸친 반동적 농업정책의 필연적후과인것이다.

미제침략자들은 식민지적지배와 략탈에 유리하게끔 남조선농촌에서 봉건적착취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남조선농업생산력을 고의적으로 파괴하여왔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치산치수는 하지않고 종래부터 있던 보잘것 없는 수리시설마저 모조리 파괴함으로써 수많은 농경지를 황폐화시켰다. 이에 따라 경지면적 가운데서 88%가 상시적인 수해의 위협을 받고있다.

놈들은 수많은 농경지를 군용지로 징발하였으며 남조선토질에는 맞지도 않는 제놈들의 잉여비료를 강제시비케하여 매년 7만정보이상을 산성화 시키고있다.

이리하여 경지면적의 85%이상이 산성화되였다.

남조선에서 이미 10여만 정보의 토지를 강탈하여 군용지로 만든 미제와 괴뢰도당은 이해에 군사시설의 신설확장책동을 더욱 벌리였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충실한 개 박정희괴뢰도당은 군용도로를 비롯한 군사기지확장공사들을 도처에 벌려놓고 수많은 농토를 략탈파괴하고 폐허로 만들었다. 얼마 길지 않은 서울—수원간의 군용도로공사구간에서만도 놈들은 70여만평의 농경지를 략탈파괴하였으며 경상남도 진양군에서는 전쟁준비와 관련한 토목공사를 벌려놓고 군내 남강하류의 일부지역에서만도 400정보의 벼농사를 완전히 망쳐놓았다.

이밖에 경상남도 울주군내 5개면에서 46만평, 진주지방에서 80만평의 농토가 못쓰게 된것을 비롯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의 범죄적전쟁준비책동으로 이해에 새로 줄어든 농경지만도 최소한 수만정보에 달하며 이보다 몇배나 더 많은 농토와 농작물이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 농촌의 기본생산수단인 농경지는 일제강점시기에 비하여 20만정보나 줄었으며 파종면적도 40만정보나 줄었다.

놈들은 또한 이미있던 보잘것없는 농기구공장마저 거의 다 파괴해버렸다.

때문에 남조선 농민들은 호미, 낫, 보습 등 중세기적인 농기구에 의한 손로동으로 농사를 짓고있다.

적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남조선에서 농호당 인력제초기와 인력탈곡기는 각각 0.3대에 지나지않으며 그것마저도 그 대부분이 지주 부농들에 쥐여져있어 착취의 수단으로 리용되고있다.

남조선농촌에서 1966~1968년간에 부림소는 10만마리가 줄었으며 1970년에는 수많은 부림소가 또한 팔리였다.

이미 대부분의 청장년들을 괴뢰군에 끌어간 박정희괴뢰도당은 《향토예비군》의 군사훈련과 군사도로를 비롯한 군사고역장들에도 농촌청장년들을 강제로 끌어냄으로써 충청남도 서산과 례산을 비롯하여 경상북도 고령, 영주, 금릉, 경상남도 진주 등 많은 지방들에서와 같이 《농번기의 일손부족》으로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게 하였다. 게다가 큰물과 가물 등 자연재해 또한 막심하여 7월 한달동안 거듭된 큰물에 의해서만도 9만여정보의 논밭이 물에 잠겼거나 흙에 파묻혀버렸으며 많은 강하천제방과 수리시설들이

파괴되였다. 그리하여 괴뢰도당자신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6월부터 9월까지의 사이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총액은 박정희괴뢰도당이 괴뢰정권을 가로타고앉은 후 10년간의 년평균 피해액에 비하여 70여억원이나 더 많은 무려 174억 7천 400여만원에 달하였으며 큰물피해는 그후에도 막심하였다. 최근년간 남조선에서 류실되거나 매몰되여 농경지에서 떨어져나가는 면적은 해마다 1만 5천정보~2만정보에 이르고있다.

큰물과 가물로 인한 자연피해가 이처럼 혹심한 데다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반인민적책동으로 농민들은 농약하나 제대로 쓰지 못한 결과 모든 지방의 논밭 곡식들에 퍼진 병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또한 막심하였다.

미제와 괴뢰도당의 반동적인 농업정책으로 인한 농경지와 파종면적의 대대적인 축감, 농기구와 농업기술의 락후, 농업로동력과 부림소의 부족 등으로 남조선에서 농업생산은 해마다 줄어들었으며 그것이 이해에는 더욱 줄었다.

여름에 걷이들인 밀보리는 그 생산이 평년작에 비하여 30~40%나 줄었으며 가을곡식생산량은 보잘것없던 1969년에 비해서도 100만석이나 또다시 줄었다.

1969년도의 알곡생산이 일제시기의 평년작에 비하여 240만톤이나 줄었다는것을 고려할때 이해 남조선의 농업생산이 얼마나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짐작할수 있다.

알곡생산이 이처럼 엄청나게 줄어든 결과 적들자신도 1971년에 남조선에서는 지난 10년간 평균량곡도입량에 비하여 2.6배나되며 그것이 가장 많았던 1969년도보다도 훨씬 더 많은 267만 6천톤의 량곡을 사들이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에 이르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사상최대의 규모》로서 《놀라움을 자아내는 일》이라고 비명을 질렀다.

이와 같이 알곡생산의 대폭 축감뿐만 아니라 남조선에서 중요 공예작물의 하나인 면화생산은 전멸상태에 이르고있으며 축산업, 과수업도 파산상태에 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식민지적 및 봉건적 착취관계에 의하여 악랄하게 감행된 농촌수탈책동은 농민생활을 극도로 령락시키고 계급분화과정을 촉진시켰으며 남조선농촌경리 전반을 더욱 수습할수 없는 파국에로 몰아넣었다.

미제의 지시밑에 박정희괴뢰도당은 농사가 전면적으로 망쳐졌음에도 불구하고 1969년가을부터 벌려오던 가을곡식수탈을 계속하여 250여만석의 쌀을 생산비도 안되는 헐값으로 《매상》 등의 명목밑에 농민들로부터 강제로 빼앗아냈다. 수백만석의 밀보리를 또한 같은 방법으로 강탈하였다.

이어 놈들은 500만석의 이해 가을곡식수탈계획을 꾸며놓고 그것을 걷어들이기 위하여 발광적으로 날뛰였다. 놈들은 이밖에도 84만톤의 고구마를 비롯하여 많은 양의 잡곡류와 그리고 남새와 축산물을 비롯한 24개품종의 농산물 9만 3천여톤과 여러가지 공예작물들을 《군납》 등의 명목밑에 그 전해보다도 훨씬 눅은 값으로 빼앗아내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이른바 《저미가정책》을 농촌수탈의 중요한 방패로 삼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은 직접 괴뢰관권을 동원하여 강제수집, 강제매상, 《군납》 등 명목하에 농민들에게서 생산비의 50%에도 이르지 않는 헐값으로 매해 350~500만석이상의 량곡을 수탈하면서 농기구, 비료 등 공업상품을 높은 독점가격으로 강매하고있다.

례하면 최근년간 남조선의 량곡을 제외한 전반적물가지수는 평균 30~40%가 폭등하였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농업생산비의 40%를 차지하는 비료값은 근 50%가 뛰여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량곡을 비롯한 농산물가격은 그 자리에 못박혀있음으로 하여 남조선농민들은 매해 평균 300억~400억원을 수탈당하여왔다.

박정희괴뢰도당들은 또한 이른바 《농사자금》과 《비료값》 등을 《회수》한다는 구실밑에 제놈들이 《농업조합》을 통하여 《대출》했던 돈에다 엄청난 리자와 연체리자까지 덧붙여서 강탈해내는 고리대착취도 전례없이 강화하였다.

놈들은 헐벗고 굶주리는 농민들이 이 엄청난 돈을 한꺼번에 내지 않는다하여 수많은 졸개놈들을 농촌 각지에 내몰아 집집을 뒤지게 하면서 그들이 당장 먹을 몇되박의 식량이며 부림소, 닭, 오리 등 집짐승들과 가장집물, 지어는 집에까지 《차압》딱지를 붙이고 빼앗아가는 강도적략탈만행을 이르는 곳마다에서 감행하였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비호밑에 지주놈들에 의한 봉건적착취도 악랄하게 감행되였다.

남조선전체경지면적의 40%이상에 달하는 방대한 토지와 210여만정보의 산림, 기타 많은 하천부지와 주택대지 등을 틀어쥐고있는 지주놈들은 140만호의 농가를 《전세제》, 《수곡이제》, 《할논팔기제》 등 여러가지 새로운 소작제도에 얽어매놓고 수확고의 50~60%를 수탈하고있다.

농사가 전면적으로 망쳐져 농가수입이 엄청나게 줄어든데다가 식민지적 및 봉건적 착취관계에 의하여 악랄하게 감행된 농민들에 대한 략탈과 착취는 그들을 극도의 빈궁속에 몰아넣었으며 절대다수 빈고농들을 가혹한 고리채에 더욱 얽매이게 하였다.

남조선농가의 95%가 80—100% 이상의 높은 리자를 물어야하는 고리채를 걸머지고있다. 그리하여 남조선농민들은 가을걷이때부터 벌써 절량과 굶주림에 허덕이고있다. 《4천년래의 민생고》를 겪고있는 남조선농민들의 빈궁상태를 가장 집중적으로 반영한 절량농가수는 박정희괴뢰도당의 《집권》 후보다 급격히 증대되고있다.

해마다 100만호를 헤아리던 절량농가수가 박정희괴뢰도당의 《집권》후 지난 10년간 년평균 160만호에 달하고있다. 이해에는 225만호의 농가가 절량되였다. 이와 같은 농민들의 절량상태를 틈타서 남조선농촌에서는 《장리곡》, 《색갈이》, 《벼돈》, 《보리돈》 등으로 불리우는 형형색색의 고리채가 성행되고있다.

남조선농가의 고리채총액은 1961년에 180억원이던것이 1968년에는 730억원으로 늘어났으며 1970년에는 이보다 훨씬 늘어났다.

이리하여 농민들의 영농규모의 령세화와 파산몰락이 심화됨으로써 농촌에서의 계급분화가 급격히 촉진되였다.

농가 호당 경작규모는 8.15전의 1.11정보로부터 0.86정보이하로 줄어들고 한정보도 못되는 땅뙈기에 생계를 의지하고있는 령세농가가 전체 농가의 73%이상으로 늘어났다. 특히 0.5정보미만의 령세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반동적《농지개혁》을 실시하기 전의 33.9%로부터 42.7%이상으로 높아졌다.

갈수록 조들려만가는 생활속에서 더는 농사를 지을수 없게된 수많은 농민들이 고향땅을 등지고 리농하였다. 경기도에서도 4월말까지의 넉달동안에만도 4만 5천여명이 고향땅을 등졌으며 충청북도 청원군같은데서는 상반년간에만도 그 전해에 리농한 수의 3배나 되는 농민들이 나서자란 고향마을을 떠나 리농의 길에 올랐다.

평택읍과 송탄읍을 비롯하여 경상북도 월성군 산내면 대현3리, 충청남도 서산군 인리면의 어느 마을같은데서는 실로 마을농민의 절반이상이 집을 비리고 고향을 등졌다.

이러한 농촌마을들에서는 황폐화된

《논밭을 바라보며 통곡하는 농민》들의 원쑤놈들에 대한 원한과 저주의 울부짖음이 메아리쳤다.

놈들이 줄여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더라도 박정희괴뢰도당이 《집권》후 남조선농촌에서 리농한 농가수는 40만호에 이르고있으며 최근 2~3년간에는 매해 5만호이상을 헤아렸다.

이 한해동안 남조선농촌에서 벌어진 이 모든 사태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이 불어댄 《증농정책》이요, 《농업근대화》의 구호가 농촌을 수탈하기 위한 한낱 기만적구호였으며 남조선농촌경리를 더욱더 수습할수 없는 파국에로 몰아넣는 반동적이며 략탈적인 구호라는것을 더할 나위없이 실증해준다.

또한 그것은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의 반인민적책동이 끝장나지 않는한 남조선농촌경리의 파국적상태는 결코 가시여질수 없을 뿐아니라 날이가고 해가 바뀔수록 더욱더 엄중한 국면에로 굴러떨어질 뿐이라는것을 잘 설명해주었다.

**【쇠퇴몰락하는 수산업】**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남조선은 정치, 경제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수습할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어가고있습니다.》**
(《김일성선집》, 5권 228페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강도적인 식민지수산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수산업도 날로 더 쇠퇴몰락하고있다. 수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는 심히 파괴되고 어획고는 해마다 계속 줄어들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수산업에 대한 식민지적예속과 략탈을 강화할 흉악한 목적밑에 원래 락후했던 수산업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혹심하게 파괴하고 변변치 않았던 배수리시설마저 폐쇄해버림으로써 기본생산수단인 고기배는 전면적인 파괴상태에 이르렀다.

적들자신이 공개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남조선의 전체 어선의 80%이상은 가랑잎같은 쪽배가 아니면 바람에 의지하여 겨우 다니는 돛배들이며 몇척안되는 동력선의 경우도 먼바다에는 나갈수 없는 작은것들이다.

오늘 남조선에 남아있는 몇척안되는 고기배들중 발동기를 단 동력선은 불과 15%도 안되며 그것마저 건조한지 30년이상된 고물들이다. 남조선 강원도 같은데서는 발동선의 70%이상이 낡을대로 낡아 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형편에서 바다에서 일기예보를 들을 수 있는 무전시설이나 기타 어로장비에 대해서는 더 말할 여지조차 없다.

남조선에서는 어선장비가 이처럼 락후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배마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에 있다. 초보적인 집계에 의하더라도 남조선의 어선수는 최소한 필요량의 6분의 1도 안된다.

이밖에 그물을 비롯한 어로장비들도 매우 뒤떨어진것들이여서 남조선 어업은 말그대로 《원시적 어로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우기 미제와 그 주구들의 범죄적 전쟁 정책과 파쑈폭압책동, 남조선연해 어장에까지 제멋대로 기어들어 판을 치는 일본해적무리들의 강도적 행패와 만행 그리고 날을 따라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2중 3중의 가혹한 략탈책동 등으로 남조선수산업을 더욱 전면적인 파국상태에 빠져 들게 되었으며 수많은 어민들을 파산 몰락시켰다. 미제와 그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은 연해어장들과 중요어항들을 군사연습장으로 만들어 놓고 매일처럼 전쟁연습소동을 벌리면서 어민들이 바다에 나가는것조차 극력 가로막는가 하면 해안지방들에 전쟁준비와 관련되는 공장과 시설물들의 공사를 벌려놓고 수많은 어장들을 황폐화시켰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또한 남조선어민들을 통하여 공화국 북반부의 휘황찬란한 발전모습과 그 정치, 경제, 군사적위력이 남조선 어민들에게 알려지는것을 무엇보다도 두려워 하면서 바다에까지 이른바《어로저지선》이라는 파쑈폭압망을 쳐놓고 어민들이 고기떼를 따라 이 근처에 얼씬만 해도 그들을 체포하고 어선을 억류하며 지어 총포까지 마구 쏘아대여 어민들을 살상하는 등의 만행을 감행하고있다. 놈들의 이 범죄적인 책동으로 남조선 서해안의 연평도를 비롯한 4개의 어장에서만도 2만여명 어민들이 년간 5억 6천 3백여만원의 손해를 보았으며 남조선 동해안의 《어로저지선》근방의 5만여명의 어민들은 명태잡이철 4개월동안에만도 종전 어획고의 70%에 해당하는 손실을 보았다. 이해에 일본해적선들의 해적행위로하여 남조선 어민들이 입은 피해가 특히 심하였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남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더욱 본격화된 재침책동에 발맞추어 일본해적의 무리들은 남조선의 연해어장깊이에까지 매일처럼 몰려들어 판을 치며 몰아쳤다. 오만무례한 이 해적의 무리들은 원시적어로설비에 의지하여 간신히 바다에 나와 물고기잡이를 하는 남조선어민들이 쳐놓은 그물을 찢어 버리며 남조선어선을 고의로 들이받아 파괴하는 등 횡포무도한 해적행위를 감행하면서 남조선어선의 그것에 비하여 배나 되는 물고기를 건져 갔다. 이러한 만행사건은 1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에 전해의 같은 기간에 비하여 2배로 늘어났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매국적《한일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1968년 4월까지의 기간에 입은 피해액의 1.5배나 되는 무려 7천 8백 6십여만원에 달하였다.

원쑤들의 이 모든 범죄적책동으로 하여 남조선에서의 어획고는 이해에 더욱 급격히 줄어들었다. 괴뢰도당자신이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남조선의 서해와 남해안일대에서 남조선어민들이 안강망과 정치망으로 잡은 물고기의 량은 최근 2~3년간에 30~50%나 줄어들었다. 어획고가 이처럼 급격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그 주구들의 어민들에 대한 략탈과 착취행위는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감행되었다. 더 많은 전쟁비용 등을 짜내기 위해 인민수탈에 미쳐날뛰고있는 미제의 더러운 개 박정희괴뢰도당은 《면허세》, 《소득세》, 《영업세》, 《재산세》를 비롯한 수십종의 세금을 어민들에게 들씌우는가하면 《위탁판매수수료》를 비롯한 여러가지 명목의 수수료를 종전에 비하여 배로 끌어 올려 빼앗아내는 날강도적행위를 감행하고있다.

남조선어민들은 이밖에 어업자본가들과 선주들에게 잡은 물고기의 많은 부분을 빼앗기고있으며 《객주》를 비롯한 중간모리배들에게서 또한 가혹한 착취를 당하고있다. 이처럼 2중3중으로 뜯기고나면 실지 어민들에게 차례지는 몫은 어획고의 10분의 1밖에 안되며 괴뢰도당자신도 남조선어민들의 수입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는 고사하고 자기들 혼자의 입에 풀칠도 할 수 없는 최저생활비의 6분의 1밖에 안된다는데 대하여 숨기지 못하고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반인민적책동으로 인한 수산업의 전면적파탄, 놈들에 의하여 강요된 2중 3중의 략탈과 착취는 남조선의 가난한 어민대중에게 참을 수없는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 남조선어촌들에서는 자기들을 참을 수 없는 고통속에 몰아 넣은 미제와 그주구놈들에 대한 천추의 원한을 품고 정든 고향마을을 떠나는것과 같은 참상이 련종 꼬리를 물고빚어졌다. 괴뢰도당자신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남조선에서는 수많은 어민들이 고향땅 어촌을 떠난 결과 1968년과 1969년 두해 동안에만도 어업인구가 15만명이나 줄어들었다.

제반 사실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 통치와 매국역적박정희괴뢰도당

의 군사파쑈독재를 쓸어버리고 참다운 인민의 정권을 세우지 않는한 농촌경리와 마찬가지로 남조선수산업도 날과 더불어 쇠퇴와 몰락과 파탄만이 심화되고 따라서 남조선어민들에게는 더욱 참을 수 없는 빈궁과 기아와 고통만이 더해갈뿐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 짓밟힌 민족교육과 민족문화

미제와 그의 더러운 개 박정희괴뢰도당의 식민지노예교육정책과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오늘 남조선에서는 민족교육이 짓밟히고 학원은 군사화, 파쑈화, 모리화되였으며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는 여지없이 파괴되고 썩어빠진《양키문화》와 왜색, 왜풍이 판쓰는 암흑의 천지로 전변되고 있다.

**【식민지노예교육】**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학원은 모리화되고 파쑈화되였으며 청년학생들은 괴뢰군에 끌려나가 미제침략자들과 그의 앞잡이들의 야수적인 탄압밑에 자기 동포들과 형제자매들을 반대하여 총부리를 겨눌것을 강요당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116페지)**

미제침략자들이 강점하고있는 남조선에서는 민족적 및 민주주의적교육발전의 길이 가로막혀 남조선청년학생들에게는 식민지노예교육이 강요되고있으며 과학연구와 진리탐구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고있다.

미제와 그의 충실한 개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에서 다른 모든것과 마찬가지로 남조선교육도 제놈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전쟁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리용하고있다.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실시하고있는 식민지노예교육은 바로 미제가 전조선을 지배하고 극동과 아세아를 침략하기 위한 군사기지로 만들려는 목적에 복종되고있다.

바로 이러한 침략적목적으로부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시종일관 강요하는 식민지노예교육의 주되는 내용의 하나로 되고있는것은 침략과 새 전쟁도발을 위한 학원에 대한 군사화책동이다.

놈들은 이러한 범죄적목적을 쉽게 달성하기 위해 또한 학원을 파쑈화, 모리화하기에 급급하고있다.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학원에 대한 군사화책동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남조선청년학생들을 강제적인 군사훈련에 대대적으로 내몰기 위하여 미쳐날뛰였다.

놈들은 최근년간 침략적인 새전쟁준비를 더욱 다그치면서 종전에 전반적인 4년제대학의 3~4학년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던 군사훈련을 각 대학 1~2학년학생들에게는 물론 남조선전역의 모든 전문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에게까지 강요하고있다.

심지어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이해 초부터 중학교학생들까지 강제적인 군사훈련에 내몰려고하였으며 나아가서는 《청소년행정개선방안》이라는것을 꾸며내여 이른바 《장기국방계획》에 따르는 기술병의 확보와 《전투력증강》의 한고리로 14살이상의 《소년병제》까지 꾸며낼것을 획책하였다.

이와 함께 놈들은 반동적인 《학도군사훈련단》에 더 많은 청년학생들을 끌어넣기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이처럼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더 많은 청년학생들을 군사훈련에 강제적으로 내몰기 위하여 발악하였으며 그를 통하여 보다 많은 병력원천을 확보하고 남조선의 청년학생들을 제놈들의 값눅은 대포밥으로 내몰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놈들은 또한 군사훈련지휘체계와 군사 교육내용을 정비보강하고 군사훈련시간을 늘이기에 미쳐날뛰였다.

미제와 박정희반역도당은 새로 괴뢰국방부내에 청년학생들의 군사훈련을 전담하는 부서를 내왔으며 각 대학들에는 《학도군사훈련단》 학생 련대, 대대, 중대, 소대들을 편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놈들은 남조선의 모든 대학들과 고등학교들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것과 관련하여 저들의 충실한 졸개인 괴뢰군현역장교들을 《교관》으로 선발배치하였다.

놈들은 저들의 침략적인 전쟁정책의 요구에 맞게 군사훈련내용을 정비보강하였으며 일반과목시간을 줄이면서 군사훈련시간을 대대적으로 늘이였다.

이리하여 오늘 남조선에서의 학원은 배움터가 아니라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침략정책수행을 위한 군사훈련장으로 값눅은 대포밥원천지로 전변되였으며 청년학생들은 배움의 길을 완전히 빼앗기고 괴뢰군에 끌려나가 자기의 부모형제 자매들을 반대하여 총부리를 겨눌것을 강요당하고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이와 같은 범죄적목적을 쉽사리 달성하며 또 남조선청년학생들을 저들에게 순종하는 식민지노예로 길러내기 위하여 더욱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놈들은 학생들에게 반동사상을 주입시키기 위해 피눈이 되어 날뛰면서 이해초부터 악명높은 《반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책동하였다.

놈들은 《자유민주주의사상으로의 무장》이니 《공산주의에 이길수 있는 력량배양》이니 뭐니 떠벌이면서 남조선청소년학생들속에 범죄적인 《반공》 숭미사상을 고취할것을 중요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통일교육시행방안》이란것을 조작해냈다. 이와 함께 놈들은 이 《통일교육시행방안》을 보다 구체화한 이른바 《반공교육 6개 방안》이란것을 꾸며냈다. 그 내용의 몇가지만 보아도 《반공지도교육의 체계화》이니 《승공시사교육의 실시》이나 《반공지도방안의 강화》이니 하는 등 철두철미 《반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범죄적내용으로 일관되어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제놈들의 이《반공교육방안》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조선 각급학교들의 《교육과정안》들을 더욱 반동적으로 뜯어고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이른바 《반공》교육을 위한 《지침》이라는것을 조작하고 이에 따라 남조선각급학교마다에 《반공교육담당교사》를 두고 그들을 《중앙반공연구원》에서 《교육》시키는 한편 매일 《반공도덕조회》와 《정기적인 반공연극 및 학예회》 등을 학생들에게 강요하였다.

지어 놈들은 《국민학교》의 《교육과정안》을 《반공국민교육헌장구현에 중점》을 두는 방향에서 전면적으로 뜯어고치였다.

놈들은 학교 《교육과정》으로서만 아니라 청소년학생들의 《과외활동》을 통해서도 《반공》숭미사상을 주입시키려고 날뛰였다.

괴뢰도당은 남조선의 중고등학교와 대학에 이른바 《반공학생회》를 조직하며 청소년학생들을 대상으로 《승공교육》 및 《대학생반공쎄미나르》이라는것을 벌려놓고 《반공》사상주입을 서둘러댔다. 또한 원쑤들은 학원에 끊임없는 파쑈적탄압을 강화하여 청년학생들속에서 날로 높아가는 반파쑈민주화기세를 억눌러 보려고 책동하였다.

적들은 은밀한 수법으로 정보원들을 학교와 교육기관들에 수많이 박아넣고 학생들에 대한 일거일동을 감시하게 하고있다.

례하면 박정희파쑈악당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만도 15명의 특무놈들을 더 박아넣었으며 고양군에 있는 항공대학에 특무 여러명을 박아넣은것을 비롯하여 남조선 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정보원들을 박아넣었다.

또한 각급 학교들에 이른바 《학생생

생지도전담교사》라는 이름아래 특무들을 박아넣고 학생과 교원들의 동태를 감시케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파쑈악당들은 각 《시, 도교육위원회》마다에 《학생지도를 원활하게 한다》는 구실하에 악질주구들로 《학생선도 대책협의회》와 《학생지도 전담반》을 설치하여 놓고 여기에서 정기적으로 학생들의 동태를 분석한데 기초하여 탄압대책을 취하도록 하고있다.

놈들은 이와 같이 학생들에 대한 이른바 정보사찰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간부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더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7월 9일 박정희반역도당은 4.19일돐기념때에 전남조선 《대학생련맹》의 명의로 《학생운동이 나아갈 길》이라는 《백서》를 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4학년 조아무개학생을 파쑈적인 《반공법》에 걸어 《구속》하고 그를 야만적으로 박해한 사실을 비롯하여 애국적인 학생들에 대한 놈들의 탄압박해행위는 그칠사이가 없었다.

교활하고 간악한 미제와 박정희악당은 학생운동을 내부로부터 분렬와해하기 위한 책동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미제와 그 졸개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의 학원을 제놈들의 대포밥을 길러내기 위한 《군사련병장》으로 철창없는 《감옥》으로 전변시켜놓았을 뿐만아니라 침략적인 군사비를 짜내는 수탈의 마당으로, 제놈들의 더러운 배속을 채우기 위한 모리장으로 만들어놓고 학생들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고있다.

미제와 그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은 이해에도 중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등 《공납금》을 종전의 그것보다 25~50%, 대학에서는 100~150%나 엄청나게 끌어올렸다.

이리하여 적들이 극히 줄여서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대학에 다니는 한학생이 빼앗기게 되는 《등록금》만도 8만~10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에 달하고있다.

그런데 놈들은 이와 같이 남조선학생들에게서 《공납금》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돈을 빼앗아내고도 성차지않아 더많은 돈을 수탈해낼 목적밑에 조작한 략탈기구인 이른바 《학교육성회》회비로 년간 195억원이란 막대한 금액을 학부형들에게 들씌워놓고 강제로 빼앗아가고있다.

그리하여 이해에 괴뢰도당이 《공납금》과 《육성회비》 등의 명목으로 남조선학생들에게서 빼앗아낸 금액은 적들이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무려 848억원을 헤아리고있다.

원쑤놈들의 이와 같은 학원략탈행위로 말미암아 이해 남조선에서는 또 수많은 가난한 청소년들이 학교문앞에도 가보지 못한것은 더말할것도 없고 학교에 들어간 학생들도 놈들이 강요하는 학비를 마련할수 없어 배움의 길이 막혀버렸다. 적들이 반동적인 이른바 《중학교무시험진학제》를 실시하였던 서울, 부산, 광주 등 10개 도시에서만도 이러한 학생들이 무려 3만 5천여명에 달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바로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반동적인 교육정책이 빚어낸 악독한 후과이다.

**【짓밟힌 민족문화】**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미일반동들과 그 앞잡이들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민족문화가 여지없이 짓밟히고 썩어빠진 <양키문화>와 왜색, 왜풍이 판을 치고있으며 인민들의 정신세계를 좀먹고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53페지)

미제침략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썩어빠진 말세기적인 《문화》와 《생활양식》의 침습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은 우리 인민의 유구한 민족문화와 아름다운 생활풍습이 짓밟히고 온갖 패륜과 패덕이 휩쓴 범죄의 소굴로, 암흑의 천지로 되였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악독한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진보적요소들을 탄압말살하는 한편 고유한 민족문화를 짓밟고 반동적인 사상문화의 침투에 날뛰여왔다.

원쑤들은 이렇게 하여 식민지통치의 사상적지반을 구축하는 한편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의식을 마비시켜 그들을 제놈들에게 순종하는 《노예》로 만들려하고있다.

서울에 둥지를 틀고있는 악명높은 《주한미공보원》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사상문화적침투를 전문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침략의 소굴로서 남조선의 괴뢰기구들을 장악통제할뿐만아니라 출판물, 영화 등 사상문화침투를 위한 각종 수단들을 동원하여 썩어빠진 《문화》와 더러운 《미국식생활양식》을 직접 퍼뜨리고있다.

미제는 이와 함께 《인사교류》이니 《문화교류》이니 하는 따위의 간판밑에 《의사》, 《교원》 등 이른바 《평화》의 너울을 뒤집어씌운 수많은 간첩, 특무놈들과 침략의 머슴군들을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정탐, 첩보행위를 감행케하면서 악독한 반동사상을 퍼뜨리기에 악을 쓰고있다.

이해 한해동안에만하여도 미제의 이러한 침략의 머슴군들이 남조선에 무려 8만여명이나 기어들었다.

원쑤들은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있는 제놈들의 사상문화침략기구들의 역할을 더한층 높이기 위해 괴뢰《공보부》를 《문화공보부》로 이름을 바꾸고 이른바《문화행정위원회》라는 구실밑에 《문화공보부》안에 수많은 반동적인 기구들을 더 만들어 놓았다.

또한 미제는 제놈들의 침략기구로서 활동하고있는 《아세아태평양각료리사회》의 《사회문화쎈터》라는것까지 서울에 꾸며놓고 이른바 《회원국》들의 《문화교류》라는 이름밑에 남조선에 온갖 낡고 썩은 반동적인 사상문화를 끌어들이고있다.

남조선에서 반동적인 출판물과 썩어빠진 문학예술은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에 기초한 황금만능과 인간증오, 살인과 략탈, 애수와 절망, 패륜과 패덕으로 일관된 더러운 《미국식생활양식》을 퍼뜨리는데 전적으로 복무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의 일반과학도서의 출판을 억제하면서 저속하고 퇴폐적인 미국식생활양식을 퍼뜨리는 《서적》을 대대적으로 출판하고있다.

또한 미제를 등에 업고 남조선을 재침략하려는 일본군국주의자들도 군국주의적이며 퇴폐적인 왜색문화를 퍼뜨리기 위한 반동적출판물을 수없이 들이밀고있다.

그러면서 미일반동들과 그의 더러운 2중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인민들을 제놈들의 순수한 노예로 만들며 민족문화를 말살하기 위한 도구로 남조선문학예술을 또한 리용하고있다.

놈들은 구미반동문학을 이른바 《한국화》한다느니,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조》한다는 구실밑에 반동문학예술작품들을 만들어내며 조선인민의 고유하고 전통적인 민족문화유산들을 여지없이 유린말살하고있다.

그리하여 문예작품들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퇴폐적이고 말세기적인것들을 번역 출판하거나 모방한것으로서 그태반이 불안과 타락, 비애와 절망, 색정과 음탕 등의 내용으로 일관되여있다.

남조선의 음악 역시 퇴폐적인 저속한《쟈즈》음악과 류행가로 되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우아한 무용은 흔적조차 사라져버리고 광란적인 《딴스》와 《트위스트》가 길가에서까지 추어지고있다.

남조선의 영화예술은 철두철미 미국식생활양식을 고취하는 도구로서 남조선인민들에게 해독적영향을 미치고있다.

남조선 출판물까지도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수 없는 륜리규정을 벗어나 민족문화발전을 저해하거나 미풍량속을 파괴하며 주민들에게 도덕적악영향을 주는 외국영화는 반인민적인것으로 락인찍히고 준렬히 규탄당하여야 한다》, 《하등의 문화가치도 없는 서부활극이나 갱영화들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있는 형편이다.

뿐만아니라 남조선에서 우리의 고유한 민족어는 영어, 일본어, 한자어 등이 뒤섞인 잡탕어로 변하여가는 한심한 상태에 있으며 지어 사람들의 이름까지 외국식으로 변해가고있는 형편에 있다.

이와 같이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침략과 민족문화말살정책에 의하여 남조선에서는 우리 인민의 찬란한 민족문화가 여지없이 모독, 유린당하고있으며 미국식생활양식과 왜색, 왜풍이 판을 치고있다.

이로 말미암아 남조선에서는 사회도덕생활은 물론 모든 생활령역에서 범죄행위와 비도덕적인 참상들이 수없이 빚어지고있다.

살인, 강도, 사기협잡 등 범죄행위가 갈수록 늘어가고있으며 가짜상품이 범람하고있는 사실들은 그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있다.

이 모든것이 바로 미일반동들의 사상문화침략과 민족문화말살정책의 악독한 후과임은 더 말할것도 없다.

# 참담한 인민생활, 심화되는 사회적혼란

## 참담한 인민생활

**【로동자들의 비참한 처지】**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로동자들은 일제때보다도 오히려 더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권리는 고사하고 생명을 보전하기도 어려운 정도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2권, 89페지)

현대식민지통치의 극악한 전형으로 되고있는 미제와 박정희역적무리들의 파쑈통치밑에서 남조선로동자들은 《법의 보호로부터 완전히 제외》되여있으며 《직업병의 정글(원시림)속에서》 그레가 드문 살인적인 《저임금과 장시간로동으로 생명의 단축을 강요당하고 있다.》

남조선로동자들은 성별, 년령에 관계없이 12~18시간이라는 긴시간의 로동을 강요당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최근년간 더욱 전쟁도발책동에 날뛰면서 유해로동시간을 더 연장실시하며 전반적부문들에서 맞교대와 24시간철야작업을 강요하고있다.

광업부문에서의 중로동이 12시간정상으로 되어있으며 17~18세의 어린 소녀들의 차장, 운전수의 로동시간은 20시간이상, 부두로동자들의 경우에는 하루 24시간로동이 2~3일씩 계속되는 일이 많다. 제조업부문들에서는 《각성제》(잠을 깨우는약)까지 먹여가면서 로동자들을 밤낮으로 부려먹는 범죄행위가 공공연하게 감행되고있다.

박정희역적놈은 미제상전의 새전쟁도발책동과 일본군국주의독점자본의 재침책동을 보장하기 위해 《로동조직의 합리화》, 《로임제도의 합리화》, 《생산성임금》을 떠벌이면서 장시간 로동의 강요와 더불어 로동강도를 더욱 높이도록 매판자본가놈들을 내몰았다. 따라서 남조선의 예속적산업분야들에서는 로동자들에게 숨돌릴짬도 주지 않기 위해 작업대상을 세분화, 전문화하고 높은 책임량을 설정하는 등 악랄한 방법으로 로동자들의 피땀을 짜내고있다. 지어 놈들은 로동강도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경찰, 감독, 십장 등을 작업장마다에 배치해놓고 그놈들의 감시밑에서 로동자들을 혹사하였으며 작업도중 한눈만 팔아도 무자비한 채찍을 가했고 벌금을 받아냈다.

남조선로동자들의 임금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식민지노예임금이다. 남조선출판물에 의하면 그곳에서 한달 최저생활비는 2만 5천원 내지 3만원이다. 이에 비해 남조선로동자들의 명목상로동임금은 5천원내외이다. 결국 남조선로동자들은 매달 막대한 로동력의 손실과 더불어 생명의 단축을 강요당하고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비도 높은쪽의 로임을 기준으로 한것이고 현실상태는 보다 말이 안된다.

남조선출판물들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1970년 12월현재 서울을 비롯한 인천, 대전, 부산, 광주, 대구 등 6개 도시에 있는 기업체들에서의 평균로임(도급제)실태는 아래와 같다.

| | |
|---|---|
| 부산 | 2,800(원) |
| 서울 | 2,300 |
| 인천 | 2,000 |
| 대전, 광주, 대구 | 1,000 |

우의 실태로 볼때 로동자들은 최저생활비에 비해 너무나도 형편이 없는 로임을 받고있다. 또한 우의 로임실태에서는 지역에 따라 로동자들의 명목상수입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미제와 박정희파쑈악당이 근로자들에 대한 로동력착취에서 식민지적노예임금제도를 철저하게 추구하고있다는것을 실증하는것이다. 놈들은 같은 부문, 같은 직종, 같은 로동시간에 대한 로임을 지대별, 성별, 년령별 등등에 따라 세분하고 로동자들 호상간의 리간을 조성리용하여 최저한의 로임지불에 대한 최대한의 로동력지출을 획책하고있다. 오늘날 남조선녀성로동자와 소년로동자들이 같은 로동력을 지출하고도 남성로동자의 반액정도, 같은 성별, 년령층에서도 숙련정도에 따르는 로임계산의 복잡성과 격차가 혹심한것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식민지적노예임금마저도 《전표제》, 《현물지급제》, 지어는 《체불》(기업주놈들이 제멋대로 로임지불을 미루는 현상) 등을 통해서 남조선로동자들은 막대한 추가적희생을 당한다.

《전표제》는 현금대신으로 《전표》로 로임을 지불하고 돈을 쓰려는 로동자의 《전표》를 중간상인을 통해 표기액의 10% 또는 20%~30%가 적은 금액으로 사들이게 하거나 기업주자신이 경영하는 상점을 통해 체화상품과 바꾸어주는 제도이다. 《현물제》는 상인과 결탁된 기업주들이 체화상품, 례하면 썩은 쌀 등을 정점의 시가로 계산해서 지불하는 한편 중간상인을 통해 지불된 《현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로동자로부터 다시 헐값으로 사들여 리득을 보는 제도이다. 이상 두가지중 어느 제도를 물론하고 로동자들에게 지불해야 할 현금은 기업주놈들의 기업운영—로동력착취에 리용되고있다. 이밖에 《체불》은 로임을 기업운영에 리용하는 점에 있어서 가장 횡포한 방법인 동시에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비호밑에 괴뢰정부직할기업을 비롯하여 자본가놈들사이에서 광범하게 가장 일반화되여 감행되여온 날강도적착취행위이다.

기업주놈들은 공공연하게 《기업운영》을 내걸고 수개월, 지어는 몇해씩 로임지불을 미루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이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70년에 《체불》기업체수는 1969년의 2배로 늘어났다.

로동자들이 9월말현재로 받지못한 로임액은 10여억원에 달하고있다.

한편 미제와 괴뢰반역도당의 새전쟁도발책동과 관련한 《저임금정책》과 《통화팽창정책》에 따르는 각종 세금과 생활필수품값의 인상 등으로 말미암아 로동자들의 실질임금은 박정희역적놈이 《집권》하기 직전인 1960년에 비해 1970년에 60%로 떨어졌다.

최저생활비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로임으로 로동자들이 살고있는데 대해 남조선출판물들은 《세기적인 기적》, 《공기를 먹고사는 기적》, 《살아있다는 자체가 기적》인것이라고 쓰고있다.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서울주변에 사는 로동자들의 살림집형편을 조사한바에 의하면 그 실태는 다음과 같다.

남조선로동자들의 살림집 형편

| (살림집모양) | (%) |
|---|---|
| 판자집 | 40 |
| 땅 굴 | 24 |
| 천 막 | 11 |
| 마루우 곁살이 | 5.1 |
| 기 타 | 19.9 |
| 계 | 100 |

우의 실태에서 보는바와같이 남조선로동자들의 주택은 나은쪽이라야 판자집이고 대부분이 그 이하이다. 이것도 집을 가졌다는 경우가 그러한것이고 다리밑, 한지에 몇장의 거적을 둘러치고 사는 로동자들이 그 수를 헤아릴수 없이 많다.

식생활에서도 시래기를 위주로 하고 약간의 날알가루를 섞어 쑤운 멀건 죽으로 연명하는 로동자들이 대다수를 이루고있으며 이러한 식생활이나마도 2~3일에 하루 또는 몇끼씩 굶고 지내는것이 실정이다.

남조선로동자들은 또한 기업주놈들이 로동안전, 로동보호 대책을 무시하고 혹사만을 강요하는것으로 말미암아 증가되는 로동재해를 입어 생목숨을 잃거나 평생고질을 만나 로동능력을 잃고있다.

괴뢰도당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70년 상반년기간에만도 1969년의 같은 기간보다 3천 595건이나 더 많은 1만 5천 636건의 로동재해가 일어나 248명의 로동자들이 무참히 죽고 1만 5천 800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특히 탄광들에서 로동재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있다. 10월까지 강원도 태백산지구의 각 탄광들에서만도 하루평균 19명, 연 6천여명의 로동자들이 인명피해를 입었다.

매일과 같이 일어나는 사고로 하여 어린것들이 아침 일찌기 갱내로 들어가는 탄부들을 뒤따라나와 《아빠! 오늘도 꼭 살아나오세요…》라고 쓴 패말을 갱입구에 세워놓는 눈물겨운 정경이 남조선탄광들에서 벌어지고있다.

남조선로동자들의 62%가 진폐증에, 72%가 청각장애에, 녀성로동자들의 80%가 각종 질병에 걸려있다. 특히 화학약품을 다루는 로동자들의 90%이상이 유해물질에 중독되어 간장염, 뇌중추신경마비, 전신피부염 등 고치기 어려운 병에 걸려 신음하고있다.

**【농민들의 암담한 생활처지】**

봉건적인 경제구조와 말할수 없이 령세한 경영규모를 가진 남조선농촌은 광범한 대중을 포괄하고있는 유일한 경제부문이라는데로부터 침략자들의 첫째가는 수탈대상으로 되어있다.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을 강점한 이래 식민지통치의 기반으로 되는 매판자본을 길러내는 한편 공화국북반부를 침공하기 위한 군사비, 괴뢰통치기구의 유지비를 내용으로 하는 괴뢰정부 예산수입의 압도적인 몫을 남조선 농촌으로부터 짜냈다. 특히 월남침략에서의 돌이킬수 없는 참패와 《푸에블로》호의 나포에 이은 《이씨—121》의 격추 등 전쟁도발책동의 거듭되는 파탄에 초조해진 미제와 박정희반역도당은 남조선에서 더욱더 새전쟁도발준비에 미쳐날뛰면서 갖가지 가렴잡세를 통한 남조선농민들에 대한 략탈을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은 군사적목적달성을 위해 농민들로부터 수십만여정보의 농토를 군용지로 앗아냈으며 미제와 괴뢰도당의 농지파괴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에서 농경지는 계속 줄어들었다.

남조선농업생산에서 기본을 이루고있는 알곡생산은 일제강점시기에 비해 1969년에 240만톤이 줄었으며 1970년에는 가을곡식에서 1969년보다 또다시 100만석이 적었다. 미제와 괴뢰도당의 반동적 반인민적 농업정책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생산의 체계적인 감퇴는 농민들의 생활을 더욱 위협하였다.

1970년에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직접적군사비로만도 1천 5억 1천 400만원(1960년의 7배)이란 엄청난 전쟁예산을 세우고 농민수탈에 달라붙었다. 우선 《농지세》를 비롯한 괴뢰정부의 직접적인 현물수탈에서만도 수백만섬의 목표를 내세우고 괴뢰공무원들에게 수탈《책임량》까지 매워가지고 내몰아 농민들의 쌀독을 털어갔다. 이밖에 《농업조합》을 비롯한 어용기구들을 통해 《농사자금》회수 등 수십종의 별의별 가렴잡세를 들씌워 농민들의 피땀을 짜냈다. 그리하여 농촌들에서는 괴뢰정부와 그 졸개들이 《강권》을 휘둘러 빚이내는 차압소동이 계속되였다.

남조선농민들은 박정희괴뢰도당에게 직접 빼앗기는 몫외에 지주들에게 생산량의 50—60%를 소작료로 때운다. 남조선에서 소작제도는 다만 경제적측면에서만 생산량의 대부분을 지주들에게 뜯기우는데 그치는것이 아니라 농민들을 신분적으로까지 예속시키고 그들을 마음대로 부려먹고있다.

남조선에서 일반적으로 실시되고있는 각종 《고지》형태의 소작제는 지주놈들에게 높은 비중의 소작료를 떼앗기는 외에 갖가지 부역과 심지어는 드난살이를 강요하고있는 노예적굴종을 동반하고있다. 특히 박정희역적놈이 《정권》을 거머쥔 이후부터는 paddy 전세를 받고 소작권을 주며 전세로 받은 돈으로 농민들에게 빚놀이를 해먹는 《전세제》, 수확에는 관계없이 비싼소작료를 앞질러 받아먹는 《앞는팔기제》 등이 생겨나 가난한 농민들의 마지막 피할방울까지 빨아내고있다.

토지소작관계를 통해서 략탈당하는 외에 농민들은 현물 또는 현금의 고리대형식을 통해서 지주놈들에게 착취와 압박을 받고있다.

고리대를 통하여 최근 2~3년간에 농민들이 략탈당한 액수는 매해 평균 300억원이나 된다. 그리고도 남조선농가의 부채액은 매호 4만여원(1953년의 100배)으로 늘어나고있다.

령세한 농업경영을 하고있는 남조선농민들은 미제와 괴뢰반동관료, 지주놈들의 가혹한 략탈과 억압으로 말미암아 해마다 밑지는 경영을 하게되고 따라서 부채만이 늘어가고있다.

지주놈들은 농민들로부터 빚을 받아내자고 곡식이 익기전부터 미쳐날뛰면서 가을하기전에 벼를 논에 세워놓은채 헐값으로 팔게하는 《립도선매》를 강요하였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가혹한 수탈과 착취로 말미암아 가을마당이자 절량마당으로 되고 있는 농촌에서는 《사상최고》라고 하던 1969년보다 1970년에 더 극심한 절량이 빚어졌으며 농민들은 기아와 빈궁속에서 신음하였다.

1969년 가을이 끝난 직후부터 남조선농촌을 휩쓸기 시작한 절량은 1970년에 접어들면서 벌방지대와 산간지대를 가리지 않고 빈고농들은 물론 중농들까지 잡을수 없는 상태에 몰아넣었다. 그리하여 3월말에는 남조선 전체 농가의 90%, 225만세대가 절량상태에

빠졌다. 한편 이 극심한 절량상태를 기화로 해서 지주놈들은 장리쌀 한가마니에 리자를 5말에서 7말로 끌어올렸다. 당장 굶어죽게 된 농민들은 할수없이 부림소며 보잘것없는 세간살이들을 절반값도 안되는 헐값으로 마구 팔아 버리고 농촌을 떠났다.

남조선에서 리농은 1965—1969년간에 184만 6천명, 매해평균 36만 9천명의 리농인구를 내였으나 1969년에는 그것이 45만명에 이르렀다.

남조선농촌경리의 피폐몰락은 리농가의 증가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있거니와 최근년간 1~2정보의 땅을 가지고있는 중농층에서 리농이 급격하게 늘어가고있는것은 더우기나 그 심각성을 표현하고있다. 이미 일부 지방들에서는 이러한 중농의 리농비중이 10%이상을 차지하고있다. 전라남도 광주, 화순, 함평, 담양 일대 농촌들에서는 15대를 내려오면서 농사를 하던 실농군들이 무리를 지어 리농하였다. 이와 같은 리농현상은 1970년에 들어와 더욱 더 심각하였다. 이해 1~3월기간에만도 경상북도 영주군에서는 200여호가 리농하였는데 이것은 이 고장에서 1969년 용군 한해동안에 고향을 떠난 농가호수와 맞먹는것이다.

특히 곡창으로 이름이 높던 호남지방에서 리농이 더욱 많았는바 이해 1~3월어간에 전라남도 보성군에서만도 농가호수의 12%가 되는 2천 4백여세대가 리농하였다.

최근년간 남조선농민들은 자기들의 참담한 생활체험을 통해 점차 계급적으로 각성되고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농촌건설성과에 고무되여 《배고파 못살겠다》, 《쌀을 내라》고 외치면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반동적인 농업정책을 반대하여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 【어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

1970년에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인 전쟁책동과 령세어민들에 대한 파쑈적억압략탈정책의 강화, 더욱 횡포해진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어선단의 날강도적인 행패, 어업자본가, 선주들의 2중 3중의 착취와 수탈 등으로 말미암아 100여만 남조선어민들의 생활형편은 더욱 참을수 없는것으로 되였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바다에서 매일같이 전쟁연습소동을 벌려놓고 고기잡이를 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고기잡이금지구역을 확대하여 어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고기잡이금지구역확대로 말미암아 이해 서해안의 연평도를 비롯한 4개의 어장에서 고기잡이를 하여 생계를 유지해오던 2만여명의 어민들은 년간 5억 6천 3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또한 5만명의 동해 《이로저지선》연안의 어민들은 명태잡이철 4개월기간에만도 총선 어획고의 70%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었다.

고기잡이금지구역의 확대와 아울러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어민들을 삼엄한 감시망속에 몰아넣고 어로활동을 이모저모로 억제하는 동시에 《수산업법》을 마구 휘둘러 탄압, 구속하고있다.

박정희역적놈이 매국적 《한일조약》을 맺은후 일본군국주의침략어선단이 남조선앞바다에 기여들어 도적질해가는 물고기량은 종전의 10배로 늘었다. 이로 말미암아 남조선어민들의 손실은 막대하거니와 미제와 박정희반역도당의 비호를 받으면서 나날이 횡포해지는 일제해적선의 행패로 남조선어민들이 입은 피해는 더욱 크다. 《한일협정》이 체결된 이후 1968년 4월까지에 왜놈들의 해적선이 감행한 행패로 206척의 남조선령세어민들의 배가 침몰당하였고 어구, 어망을 파괴당하여 그 손실액만도 수천여만원이나 되였다. 1970년에 들어와서는 그 행패가 더욱 심악하여져 행패건수는 1월—10월간에 1969년간의 그것에 비해 10배로 늘었으며 10월중에는 매일 1건이상의 행패를 저지르고있다. 따라서 이해 1월—10월기간에 어구 어망의 피해액은 《한일협정》체결이후 3년간의 그것의 1.5배인 7천 860여만원으로 급격하게 늘어 남조선어민들의 수산활동에 큰 위협을 주고있다.

미제와 박정희반역도당의 반동적, 매국배족적 책동으로 남조선수산업의 파멸과 아울러 어민들의 고기잡이 수입은 체계적으로 줄어들어 오늘날 월평균 4천원정도, 남조선 《황금어장》의 중심인 제주도 총어획고의 26%를 차지하는 제주해녀의 년평균수입은 2만 6천원(월 2천여원)을 넘지 못한다.

최저생활비의 6분의 1~10분의 1밖에 안되는 가난한 수입에서 어민들은 《면허세》, 《부과세》, 《소득세》, 《영업세》, 《재산세》를 비롯한 수십종에 달하는 갖가지 세금과 거의 2배로 올린 《어선용유류취급수수료》, 《위탁판매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박정희도당에게 빼앗긴다. 어민들은 《어업면허》를 한번 내는데도 《지방세》 600원과 각종 《수수료》를 포함시켜 월평균수입의 75%나 되는 3천원을 괴뢰도당에게 빼앗기고있다. 박정희반역도당은 어민들이 잡아온 고등어, 도미, 삼치 등 고급어종들에 《전략어종》이란 딱지를 붙여 헐값으로 수탈하여다가 왜놈들에게 팔아먹는 한편 어민들에게 주어야 할 물고기값은 몇달씩 미루어가면서 내주지 않는따위의 강도질을 제멋대로 하였다. 여기에 선주놈들의 략탈과 《객주》들의 중간착취, 고리대금업자들에게 6할이나 되는리자 등을 뜯기우고 나면 어민들은 잡은물고기값의 10분의 1도 손에 쥐여보지 못한다.

날로 우심해진 박정희괴뢰도당과 그 앞잡이놈들의 2중, 3중의 착취와 수탈로 말미암아 어민들은 더욱 급격히 령세화되고 파산몰락되였으며 빚만 더욱 늘어나고 심한 굶주림과 빈궁에 신음하였다.

어민들은 고기잡이철을 맞이하고도 출어자금을 마련할수 없어 바다에 나가지못했으며 어로시설이 없어 고기떼를 보고도 물고기잡이를 못하였다.

이해 남해안일대의 59개섬을 비롯하여 동해안의 울진, 영덕 일대의 60개 어촌부락 등 남조선전역의 어촌들에서 사철 절량이 휩쓸었다.

조여드는 굶주림을 참다못해 어민들은 계속 어촌을 등지고있는데 이해 6월 목포항을 중심으로 한 일대 어촌에서만도 어민의 90%가 떠났다.

괴뢰도당이 극히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68년부터 1969년까지 2년동안에만도 15만명의 어민들이 살길을 찾아 어촌을 떠났다.

**【도시빈민의 처지】**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자기의 완전한 식민지로, 침략적군사기지로 만들었으며 남조선인민들을 굶주림과 가난, 테로와 학살이 지배하는 생지옥에 몰아넣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115~116페지)

남조선에서 도시빈민의 급격한 증가는 철천지원쑤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의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아세아대륙침략을 위한 군사기지화책동의 직접적인 후과이다.

남조선의 도시빈민은 그 대부분(80%이상)이 실업자들이다. 나머지가 뜨내기날품을 파는 자유로동자 또는 한달에 3천원도 못되는 낮은 수입으로 연명해가는 근로층이다.

남조선에서 실업자의 대렬은 1963년 현재로 이미 총인구의 28%, 로동능력을 가진 사람수의 60%를 차지하였었다. 그후 계속 심해지는 민족산업의 대량적인 파산, 몰락과 농업파탄으로 실업대렬은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다.

더우기 박정희역도들은 최근년간에 미제가 요구하는 《유류전환정책》(남조선에서 나는 석탄을 쓰는 대신에 인민경제 모든 분야에서 미국산 원유, 기타 유류를 쓰도록 하는 반동정책)을 실시하여 남조선 석탄공업을 파탄에 몰아넣고 수많은 탄광로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한편 1970년 6월까지에 이르는 1년반동안에 걸쳐 외부기업소들에서 단거번에 4천 300여명에 달하는 로동자들을 집단해고한것을 비롯하여 1970년의 첫 10개월동안에 감행된 서울 《삼성 무역》과 《와이에스무역》의 1천 200여명, 경성방직, 대한방직의 각각 700여명, 그 밖에 매판 기업체들에서의 수백명으로부터 천여명에 이르는 대량해고가 계속되여 실업사태를 더욱 험악하게 만들었다.

남조선괴뢰지배층들이 1968년현재로 도시극빈자들가운데서 일부(350만명)를 선택하여 조사한바에 의하면 그의 35%가 리농민이라는것이 밝혀졌다.

다른 한편 괴뢰도당이 줄여서 발표한 수자에 의하더라도 최근 5~6년간에 농촌에서는 평균 약 37만명(1969년에는 45만명)의 리농인구를 내여 이들의 압도적인 부분이 도시로 밀려들었다. 이 밖에 해마다 나오는 각급 학교 학생, 괴뢰군 제대자들로 되는 실업군이 그의 대부대를 보충하고있다. 그리하여 이들의 대부분이 도시에 집중되고있는것으로 보아 남조선에서 도시극빈자의 수는 실업자이상으로 그 수를 헤아릴수 없는 방대한 인구를 이루고있음을 알수있다. 불충분하기는 하나 괴뢰도당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 다음으로 크다는 부산시 인구의 83%가 도시빈민들로서 날품을 파는 실제상의 실업자이다.

도시극빈자들은 도시변두리에 판자집, 반토굴, 땅굴, 거적집, 천막집들을 치고 수백, 수천세대씩 몰켜 하나의 지대를 이루고 살고있다. 《집》들이란 한평남짓한 방이 오직 하나 있을뿐, 이 방한개에 많은 경우에는 10여명까지 되는 온 식구가 산다.

서울에만도 이러한 빈민들이 사는지대는 80여개소나 되며 이 빈민지대는 남조선도시의 이르는 곳마다에 도시의 크기에 따라 수개소로부터 수십개소씩이 있다.

이 빈민지대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들의 증오와 멸시의 대상으로 되고있으며 놈들이 군사시설들을 확장할때마다 의례히 《도시미관》을 구실로 하여 강요하는 《철거》의 위협속에 놓여있다. 따라서 오직 하나뿐인 생명의 거처를 지키기 위해 이곳 주민들은 《판자집철거》에 동원된 괴뢰 경찰과 왈자이들에 맞서 치열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그들은 새벽 4시면 일어나 늙은이는 쓰레기통뒤지기로, 장정들은 지게 또는 다 마사져가는 손달구지를 가지고, 학교갈 나이의 어린것들은 구두닦기로, 온 집안식구가 남보다 앞질러 벌거리를 찾아서 길거리에 나선다. 밤이 깊도록 떠돌아다니다가 요행수로 얻는 수입은 몇십원으로부터 국수한그릇값(150원)이 고작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도 공치는 날이 더 많다.

식생활은 벌어들이는 날이라야《꿀꿀이죽》(돼지나 먹는 죽이라는데로부터 붙은 이름, 밥건 시래기죽이다) 한그릇이 차례진다. 괴뢰도당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꿀꿀이죽》이나마 사흘에 하루씩 굶는 세대가 21.8%, 두끼를 굶는 세대가 37%이다.

일을 하고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이들은 굶주린배를 채워보보자고 피를 판다. 《혈액은행》(피를 사는 곳)에 가면 《데빵》(《혈액은행》에서 소개비를 떼는 중간착취자)을 통해야만 하고 피판돈의 4분의 1을 《데빵》에게 내놓아야 한다. 생활난에 쪼들리는 빈민들은 피만이 아니라 눈알을 뽑아팔고 콩팥까지 떼서 팔고있다. 그들은 굶어서 지친 몸으로 날품팔이 리야까를 끌고가다가 길거리에 쓰러져 숨지고있으며 20~30대의 청장년들이 먹지 못해 초겨울 추위에 얼어죽는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다.

빈민지대에는 일체 공공시설이 되여있지 않다. 식민지괴뢰통치밑에서 학대와 착취의 대상으로 박해와 희생만을 받아온 도시극빈자들에게는 전기, 상수도, 하수도 등 초보적인 시설마저도 주어지지 않는다. 괴뢰통치의 중심인 서울 주변의 80여개소나 되는 빈민지대 100여만명의 주민들은 더러운 우물물을 마시고있으며 그나마도 한개 우물에 2천여세대가 매달리는것이 보통이다. 먹을 걱정이 태산같은 그들에게는 목을 추길 한모금의 물걱정도 큰 문제로 되고있다. 하수도가 없는 빈민마을에서는 집집을 련결하는 좁은 골목길이 그대로 하수도이다. 궂은날엔 질퍽하기 짝이없는 이《도로》는 맑은날에는 독한 악취를 내뿜어 마을공기를 온통 흐려놓는다. 괴뢰통치배들의 눈총과 차별정책밑에서 위생문화와는 인연을 끊게된 마을 사람들은 철따라 만연되는 갖가지 전염병들의 침습을 받아 수다한 희생을 내고있으며 주민의 100%가 각종 만성질환을 갖고있다. 밤이면 전등불 하나 없는 마을들은 하루의 모대김에서 얻은 피로를 안고 암흑세계로 변한다.

남조선출판물들은 빈민들의 참정경에 대하여 《어린것들이 천막속에서 추위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있으며 어른들은 문자그대로 하늘을 이불삼고 맨땅을 자리삼아》 지샌다고 쓰고있다.

【학생 및 교원들의 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에서는 지금 수많은 청소년들이 배우지 못하고있으며 학비가 없어서 자기의 피까지 팔고있습니다.》(《우리의 혁명과 인민군대의 과업에 대하여》 1968년판, 169페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새전쟁도발책동을 더욱 미친듯이 벌리면서 모든 자금을 전쟁준비와 제놈들의 향락을 위해 탕진하고 《문교예산》을 삭감하였다. 1970년에는 학부형들로부터 《육성회비》와 중고등학교의 《수업료》를 올려 도합 848억 수천만원의 《교육비》를 짜냈다. 이 밖에 중고등학교 교과서값을 6~9%, 《국민학교》 교과서값을 10% 올려 학부형들로부터 약 1억원을 추가적으로 짜냈다.

남조선출판물이 집계, 분석한 지대별 《교육비》(1969년현재)는 아래와 같다. (단위는 원)

| | | |
|---|---|---|
| 《국민학교》(6년간) | | |
| | 농촌 | 22, 723 |
| | 도시 | 35, 562 |
| | 대도시 | 105, 141 |
| 중학교(3년간) | | |
| | 농촌 | 49, 408 |
| | 도시 | 75, 197 |
| | 대도시 | 172, 618 |
| 고등학교 (3년간) | | |
| | 농촌 | 93, 458 |
| | 도시 | 135, 974 |
| | 대도시 | 236, 861 |

우의 통계에 의하더라도 서울, 부산을 비롯한 좀 크다는 도시에서는 3천원을 받는 로동자가 어린것 하나를 《국민학교》만 졸업시킨다 치더라도 3년간의 수입을 몽땅 털어넣어야 하며 고등학교까지 나오게 하자면 15년간의 수입을 모두 털어넣어야 된다.

이 엄청난 《학비》를 마련할수 없어 남조선에서는 학교갈 나이가 된 270여만명의 아동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깡통을 차고 거리와 마을을 헤매고있으며 구두닦기, 신문팔이를 하고있다.

《입학난》, 《시험난》을 간신히 뚫고 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의 경우에도 무거운 학비를 감당해 낼수가 없이 학교에서 쫓겨나거나 상급학교에 갈 권리를 빼앗기고만다.

박정희괴뢰도당이 학원을 더욱더 모리장으로, 수탈장으로 만들기 위한 반동적책동에 의해 이해 서울, 부산을 비롯한 남조선 10개 도시에서 확대실시한 《중학교무시험진학추첨제》로 말미암아 근로계급의 자녀들이 엄청난 《공납금》을 미리 낼수가 없어서 배움의 길을 빼앗기고 말았다. 또한 서울시 휘문고등학교에서 100여명의 학생들이 《공납금》을 물지 못하여 무데기 퇴학처분을 받은것을 비롯해 각지 각급 학교들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학비가 없이 강제퇴학처분을 받았다.

향학열에 불타는 청소년학생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공부를 해보려고 박정희반역도당이 제멋대로 끌어올려 강요하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문배달, 구두닦기 등을 하거나 지어는 《혈액병원》을 찾아다니면서 피를 팔고있다.

온양녀자고등학교 학생 30여명이 《공납금》을 마련하기 위해 《혈액병원》에 가서 피를 판 사실, 인천시내의 한 《혈액병원》에서 100여명의 학생들이 줄지어 서서 기다린것 등 기막힌 현상은 남조선학생들의 학비난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의 청소년학생들은 학비난으로 해서 배우지 못할뿐아니라 학교에 가는 경우에도 미제와 박정희도당이 학교시설에 대하여서는 전혀 도외시하고있는데로부터 수업에서 큰 지장을 받고있다.

적들이 극히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국민학교 전체 교실중 30%가 30~40년전에 지은 목조건물인데다가 개교후 한번도 보수하지 않아 비가 새고 무너질 직전에 있는 교실들이여서 비만 오면 수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라남도 려천군의 250여개의 교실들도 비가 새고 기둥이 다 썩어들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속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있다.

1970년에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7월 3일과 8일에 내린비에만도 83개의 학교시설이 파괴되고 무너져 수업을 전폐하였다. 또한 각급 학교들에서는 교실이 절대적으로 부족되고있다.

적들이 극히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경우에만도 2만여개의 교실이 부족하다. 《국민학교》의 거의가 정원의 3~4배를 수용하는 《콩나물교실》에서 수업을 하고있으며 복식수업과 3부제, 4부제 수업, 심지어 《로천수업》까지 하고있다.

남조선교원들은 《콩나물교실》에서 매일 3부제 강의를 하면서도 최저생활비의 3분의 1도 안되는 보수를 받고있다. 더구나 산간지대, 섬지방 교원들은 도시교원들의 4분의 1도안되는 한심한 보수를 받고있다. 이것마저도 학원모리배들의 중간착취로 말미암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몇달씩 밀리므로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가정교사나 신문팔이 등 부업을 하고있다.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모동국민학교》에서는 17년간 교원생활을 해온 한 교원이 수업중 교단에서 숨을 거두었다. 생활난으로 하여 빈번하게 빚어지는 이러한 참상은 남조선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어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배족적문교정책에 격분을 자아내게 하고있다.

교원생활로서는 더는 생계를 유지할수 없게되여 교단을 떠나는 교원들의 수가 최근년간에 급속히 늘어가고있는데 적들이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70년 8월 현재 7천 449명의 교원들이 교단을 떠났다.

## 【괴뢰군제대자들의 생활처지】

새전쟁도발책동에 더욱더 미쳐날뛰고있는 미제와 박정희반역도당에 의하여 남조선에서는 해마다 20여만명의 청장년들이 괴뢰군에 강제로 끌려가고 제대자들이 나오고있으나 제대자들의 절대다수가 실업군으로 전락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의 하나로 되고있다.

대다수가 로동자, 농민 출신인 제대군인들은 지난날 가난했기때문에 학교에 갈수 없었고 오랜 기간의 괴뢰군살이로 사회생활에 익숙치 못하다 하여 《무식》하다, 《기능》이 없다는 딱지가 붙게 되고 취직전선에서 거의나 제외대상으로 되고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무조건 《향토예비군》에 편입되여 매일과 같이 동원되여야 하므로 기업주놈들은 제대자들을 채용하려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제대자들은 실업자, 반실업자가 되여 거리를 헤매고있다.

괴뢰군제대자들의 취직난은 사병들뿐만이 아니라 중하층장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어제날에는 지휘관이였지만 오늘은 길거리에 내몰린 패잔병》으로, 《서푼짜리도 못되는》 무용지물로 되어 하루 한끼벌이도 되나마나한 리야까군, 지게군을 하거나 쓰레기통뒤지기, 심지어는 거지가 되어 떠돌아다니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현지고용병을 늘이는 한고리로서 《향토예비군》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괴뢰군 제대자들은 《정규훈련》의 경험을 가진자라고하여서 자동적으로 《편입》되게끔 규정지어놓았다. 따라서 그들은 《훈련》과 《동원》에 응하지 않으면 3년으로부터 5년까지의 징역살이를 해야 하거나 3만원이상의 《벌금》을 물지 않으면 안된다.

미제와 박정희역적놈들의 강압적인 규정에 얽매이게 된 괴뢰군제대자들은 하루 한끼도 변변히 먹지 못하여 쇠약한 몸으로 12시간~20시간의 고된 강제《훈련》과 《동원》에 끌려다니던 끝에 견디다 못해 피를 토하고 그자리에서 죽거나 병신이 되는 등 참상을 빚어내고있다.

1970년 1월 충청남도 서천군에서 한 괴뢰군 제대자가 《훈련》도중 피를 쏟고 죽은것, 경상북도 대구시에서 송아무개라는 청년이 영양실조와 과로로 쓰러진채 살아나지 못한것 등은 그 몇개의 례이다.

《향토예비군》의 강제 《동원》과 《훈련》은 괴뢰군 제대자들의 생활유지에도 막대한 후과를 끼치고있다. 괴뢰군 제대자들은 매달 한주일이상, 《취약지구》(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이 보다 더 활발하게 전개되고있는 지방, 지구)들에서는 10일이상을 무조건 《동원》되게 되여있으며 《동원》기간은 완전무보수이다. 하루종일 뼈빠지게 벌어도 가족은 고사하고 자기 한입 풀칠하기 힘든 형편에서 이렇게 끌려다니다나면 로임이 잘리우고 일자리마저 떼운다.

경기도 파주군에 사는 한 괴뢰군 제대자는 《훈련》으로 4일을 직장에 못나간동안에 해고를 당하였으며, 전라북도 전주시의 한 괴뢰군 제대자는 2일간의 《동원》중 결근했다는 리유로 한달분의 로임을 잘리우고 다섯식구 온 가족이 굶어죽을 지경에 빠졌다.

《향토예비군》의 복장을 비롯한 일체 비품은 그 모두가 자체부담으로 되고 있느니만큼 이것만으로도 가난한 괴뢰군 제대자들에게는 세간살이를 모두 쏟아대도 모자라는 큰 위협적부담으로 되고있다.

괴뢰군에 끌려간 동안에 집안살림은 형편없이 되어 온 식구가 거지신세가 되였고, 그들자신은 괴뢰군생활행정에서 죽을고비를 겪고나왔으나 생활보장대책이 없는데로부터 방랑생활을 하다가 굶어죽고, 얼어죽고, 병들어 죽거나 일가자살하는 참상이 벌어지고있다.

서울시 룡산구 룡산동에 사는 전괴뢰군중령 홍아무개는 땅굴속에서 산다고하여 《땅굴중령으로 불리워오다》 병들어 죽었으며, 충청남도 대전시 대흥동에 살던 전괴뢰군중령 문아무개는 굶주리며 살아오다가 거리 한 복판에서 얼어죽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사당동에 사는 괴뢰군 제대자인 김아무개는 품팔이로 연명해오다가 앓아누은 안해와 밥달라고 졸라대는 자식들을 죽이고 그도 독약을 먹었다.

남조선괴뢰군제대자들은 미제의 고용병으로 끌려다니면서 온갖 민족적멸시와 천대를 받아왔으며 제대후에도 가장 비참하게 살아가고있다. 생활과정을 통하여 식민지나라 인민의 쓰라린 고통을 뼈에 사무치게 체험한 그들은 비참한 현실을 낳고있는 남조선의 현사회제도를 그냥두고서는 결코 자기들의 생활처지를 개선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하게 깨달아가고있다. 그들은 생활보장대책을 요구하여, 《향토예비군》을 반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벌리면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전쟁정책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있다.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의 정치를 받으며 그이의 품속에 안겨살 그날을 절절히 념원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은 자기들의 생활처지가 악화되면 될수록 더욱더 과감히 일어나 싸우고있으며 투쟁과정에서 그들은 더욱더 각성되고 단련되고있다.

**【《이민》, 《로동력수출》로 팔려간 남조선인민들의 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 반역자들은 남조선의 수백만 실업자들을 북조선에 받아들여 취업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우리의 제의를 거부하고 동족을 구미 각국에 상품과 같이 팔아넘기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193페지)

식민지군사기지정책으로 경제가 여지없이 파탄되고 실업과 빈궁, 기아와 무권리가 남조선사회를 휩쓸이가자 미제는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쌓여가는 울분의 폭발을 막아보려고 력대의 괴뢰앞잡이들을 시켜 《이민》책동을 추진시켰다.

미제의 보다 충실한 개 박정희역적놈은 괴뢰정권을 거머쥔 이후 남조선에서의 세기적인 빈궁과 무권리는 인구가 너무 많은데 있다고 미제상전놈이 속임수로 꾸며낸 악선전을 되풀이하면서 매국배족적《이민》놀음에 달라붙었다. 그리하여 1962년 12월 18일 15세대 97명의 혈육을 첫 노예선에 실어 부산항을 떠내보내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3차회의(1964년 3월)는 숭고한 민족적 의무감과 동포애로부터 출발하여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촉진하기위한 구국대책을 시급히 세울데 대하여 토의하고 남조선경제의 파국을 수습하고 그 정상적발전을 도와주며 남조선에서 일자리없이 가난에 떨고있는 실업자들을 북반부에 받아들여 직업을 보장해주며 그들의 생활을 안착시켜줄것을 결정하고 이를 남조선측에 제의하였다.

민족반역자 박정희란놈은 우리의 제의를 묵살하고 《외국에 가면 돈을 번다》, 《기술을 배운다》, 《일확천금을 하는 길이다.》라는 등 허위기만선전을 계속 늘어대고 기승을 부려가면서 혈육을 노예시장에 내팔아왔다. 그리하여 1962년부터 7년동안에 무려 6만 2천여명에 달하는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기술자, 간호원들을 구미 각국과 일본 등지의 탐욕적인 자본가놈들과 농장주놈들에게 팔아넘겼다.

1966년 이후부터는 남조선의 젊은 녀성들까지 《간호원》이라는 이름밑에 서부독일군국주의자들에게 팔아넘기였으며 그수는 3천 200여명에 달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을 외국독점자본가들과 농장주들의 종신노예로 팔아넘긴 대가로 박정희괴뢰역적은 1965년부터 5년간에 3억 8천 737만 8천여딸라를 받아 제놈들의 군비확장과 부귀향락에 탕진하였다.

박정희역적놈은 1970년에 또다시 2만 5천명의 남조선인민들을 해외노예로 팔아넘길것을 작정하였다. 그를 위해 역적놈들은 종전부터 있던 동족매매기구들을 통합하여 괴뢰정부 《로동청》산하에 《인력수출쎈터》를 만들려고 꾀하였으며 《외무부》에는 《해외시장정보쎈터》란것을 두고 범죄적인 동족매매책동에 미쳐 날뛰여 8천 400여명의 동족을 노예로 팔아 넘구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지어 《사산아》와 《락태아》, 어린이의 시체의 장기를 《의학연구용》이라는 딱지를 붙여 15딸라씩의 값을 받고 미제상전에게 팔아 넘기는 극악한 범죄행위까지 감행하였다.

《이민》으로 팔려간 남조선인민들은 이국땅에서 독점자본가들과 농장주들의 민족적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노예로동을 강요당하고있다.

남부월남에 팔려간 로동자들은 미제의 월남침략을 위한 군사기지에서 항시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장시간의 고된로동을 강요당하면서도 보수는 《약속》된 액수의 절반도 못받고있다. 뿐아니라 미제의 《빌크》회사에 고용된 3천 500명의 남조선로동자들중 1천 500명이 해고당하여 이국땅에서 헤매고있다.

서독에 팔려간 광부들은 《언제 어떤 위험》이 닥쳐올지 모르는 《천길땅속》에서 《사자밥》을 짊어지고 《목숨과 바꾸는 고역》을 당하고있다고 남조선출판물들은 쓰고있다.

일본, 미국, 서독에 팔려간 남조선의 간호원들은 락발자들의 롱락물이 되여 무참히 유린당하고있다.

또한 남미주에 팔려간 남조선 《이민》들은 찌는듯한 열천아래 진펄과 황무지에서 독사와 짐승의 밥이 되고있으며 포악한 농장주들의 채찍아래 마소와 같이 혹사당하고있다. 그들은 온갖 민족적멸시와 갖은 천대속에서 더는 살수없이 농장을 탈출해나와 도시빈민으로 전락되거나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헤매다 무참히 쓰러지고있다.

《이민》으로 팔려간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박정희반역도당의 범죄적동족매매책동의 본질을 깨달아감에 따라 놈들을 반대하는 투쟁이 벌어져가고있다. 1969년 브라질에 있는 동포들이 남조선괴뢰대사의 추방을 요구하여 집단적인 투쟁을 벌린데 이어 1970년에는 싼—빠울로에 있는 괴뢰령사관에 폭탄을 던져 박정희괴뢰도당을 공포에 떨게하였다.

**【늘어가는 미제침략군의 만행】**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국강도들의 만행에 의하여 남조선에서 수많은 애국적인민들과 죄없는 겨레들의 피가 흐르고있으며 우리의 자매들이 모욕당하며 짓밟히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41페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의 야수와 같은 만행은 원수들이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거리낌없이 감행되여왔으며 최근년간 적들의 새전쟁도발책동이 더욱 로골화되여가는것과 함께 그 건수가 더욱더 늘어가고있을뿐아니라 악랄성과 잔인성에 있어서도 인류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을 정도이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극히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63—1969년간에 남조선인민들에게 저지른 미제침략군놈들의 갖가지 만행건수는 9배를 넘어섰다. 이와 같은 귀축같은 만행의 증가에서 특히 격분을 참을수 없게 하는것은 1963년부터 《한미행정협정》이 미제와 박정희반역도당사이에 맺이진 해인 1966년까지의 3년간에는 약 1.5배로 늘은것에 비해 《한미행정협정》을 꾸며낸 이후 1969년까지의 같은

3년동안에는 무려 6배이상으로 증가하고있는 사실이다. 이것은 이른바 《한미행정협정》에 의해 미제침략군놈들의 범죄적만행이 합법화되고 조장된데 그 원인이 있다. 또한 전쟁확대정책을 추구하면서 미제가 조선에서 새전쟁도발책동의 한고리로 침략군속에서 진행하여오던 인간증오사상의 주입을 더욱 강화하고 고용군놈들이 저지르고있는 야수적만행을 《영웅적행동》으로서 극구 찬양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1969년 3월에 새전쟁도발책동의 한 고리로 감행된 《포커스 레티너》공수작전을 벌렸던 17일동안에 경기도 양평, 리천, 려주 등 3개 지역에서 미제침략군이 저지른 각종 범죄건수는 400여건, 하루평균 24건으로 매시간 1건이상의 범죄사건을 일으키고있다. 이것은 미제의 새전쟁도발책동강화와 관련하여 급격히 증가되고있는 미제침략군의 야수적만행의 한 례에 지나지 않는다.

새전쟁도발책동과 관련하여 또한 미제침략군의 범죄적만행은 보다 더 잔인무도하고 극악무쌍하게 감행되고있다.

1969년의 만행총건수 1천 968건중 대부분은 남조선녀성들에게 가해진 야수적만행으로서 총과 흉기류, 폭행에 의한 범죄가 50%이상을 차지하고있는것은 그 악랄성을 여실히 폭로하고있다. 더우기 이해 미제침략자들의 만행에 의한 사상자는 무려 2천 500여명이나 되여 그 잔인성을 명백히 실증하고있다.

1970년에 들어와서 이와 같은 잔인한 만행사건이 더욱 빈절나게 일어나고있는바 조보적인 자료에 의하더라도 1—3월동안에 파주기지부근 촌락에서 저질러진 폭행, 방화, 강도, 강간, 살인 사건만도 30여건으로 3일에 1건이상의 갖가지 야수적만행이 감행되였다.

1970년 한해동안에 미제침략군야수놈들이 저지른 수많은 범죄적만행가운데서 몇개사실을 보면 다음과 같다.

4월 21일 오후 4시경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생연리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제침략군놈들은 온 겨울 절량속에서 굶주림을 견디못해 산나물을 캐러나왔던 박영숙과 박순자 녀성들을 총으로 쏘아죽였다.

5월 18일밤 10시경 서울시 성동구 약수동에서 룡산구 리태원동쪽으로 미친듯이 군용자동차를 몰고가던 미제침략군 의무중대소속 바크란 야수놈은 길가는 심제운주민에게 전속력으로 차를 몰아 잔인하게 깔아죽이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5월 29일 낮 1시 30분경 경상남도 마산시내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제침략군부대의 톨린이라는 살인악마놈은 《봉덕국민학교》1학년 학생인 강형대와 박현주 두·어린이를 고의적으로 련이어 깔아 넘기고 이 부근에 사는 쉰세살에 나는 리정희할머니가 어린이들을 구원하려고 달려오는것을 보자 다시 그에게로 차를 돌려 떠받아넘기는 악독하기 그지 없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3월 23일 미제침략군 제51통신대 《에이》중대의 아이슨이라는 살인귀놈은 경기도 의정부 가릉동에 사는 리아무개 녀성을 롱락하려다가 단호한 항거에 부딪치자 그의 목을 짓눌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3메터 깊이의 하수구에 밀어넣고 도망쳤다.

4월 경기도 파주군 임진면 선유리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제침략군 5명은 마을의 윤아무개녀성의 집에 뛰여들어 수욕을 채우려다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윤녀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까고 면도날로 얼굴과 온몸을 마구 째고 찔러 형체를 알아볼수 없게 만들어놓고 달아났다.

미제침략군 8군 19군수지원사령부 본부중대소속 상등병 살인귀 스림 우드는 서울시 룡산구 리태원동에 사는 임순희(22)녀성을 겁탈하려다가 완강한 반항에 부딪치자 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목을 졸라 죽인다음 시체에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불까지 질러놓고 도망쳤다.

·5월 17일 새벽 미제침략군부대 2대대소속 화이트라는 미제승냥이놈은 경기도 포천군 운전리에 사는 문아무개녀성의 집에 문을 들부시고 뛰여들어 수욕을 채우려다가 단호한 항거에 부딪치자 집세간살이를 모조리 부셔놓고 다시 이웃집에 뛰여들어 김아무개녀성에게 달려들었으나 또다시 완강한 항거에 부딪치게 되자 집에 불을 질렀다. 불길에 휩싸인 집안에서 김녀성이 뛰쳐나오는 것을 본 화이트란놈은 그를 되밀어넣어 태워죽였다.

25년간의 실제생활체험과 날로 악랄해지고있는 미제침략군의 귀축같은 만행에 대하여 민족적격분을 참지 못하는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반미감정이 더욱 격화되고있으며 미제의 만행을 반대하는 투쟁은 날을 따라 확대되고 조직화되고있다.

**【극심한 주택난】** 박정희괴뢰도당이 극히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남조선에서 집이 없이 사는 세대수는 145만 6천세대를 넘는다. 이것은 남조선 전체 세대수의 약 30%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1천만명에 가까운 인구가 방한간 없이 떠돌아다니며 살고있다는것을 말한다.

주택난은 도시일수록 심하여 202만세대의 남조선도시총세대중 51.5%가 집이 없는 세대이다. 이것을 남조선에서 가장 큰 5개 도시들에서 본다면 아래와 같다.

도시에서의 집없는 세대의 비중(%)

| | |
|---|---|
| 서울 | 59.0 |
| 부산 | 59.1 |
| 대구 | 60.2 |
| 대전 | 49.3 |
| 인천 | 46.3 |

농촌에서도 집의 긴장성은 도시에 못하지 않다. 전쟁도발책동과 관련한 미제침략군의 군사 기지와 시설의 확장강화, 군사도로의 신설, 확장 등으로 해서 농민들의 수많은 살림집들이 헐리워갔다. 여기에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반동적, 반인민적 농업정책으로 말미암은 농촌의 피폐몰락이 겹쳐 최근년간 농촌들에서의 주택부족블은 해마다 급격히 불어나 절예한 상태에 이르고있다. 그것은 전라남도 담양군내 농민들중 55%가 집한간이 없이 살고있는데서도 볼수있다.

집이 없이 지내는 이들 남조선근로자들은 그 모두가 다리밑, 오수관속이나 한데에 가마니를 둘러치고 하늘을 천정삼아 살고있다.

남조선에서 주택난은 도시변두리들을 에워싸고있는 수만세대씩되는 판자집촌, 땅굴집촌, 거적집촌들에서도 볼수있다. 어둡고 습하고 악취가 코를 찌르는 한평 남짓한 이 《집》들 속에서는 4~5식구로부터 7~8식구가 살고있다. 서울에서만도 동대문구,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를 비롯해 변두리로 돌아가면서 수백 또는 수천세대씩 뭉쳐서 하나의 부락을 이루고있는 이 빈민굴은 남조선인민생활의 령락을 말하는 실증적존재이다. 이 빈민촌에서 사는 세대는 32만 4천세대를 훨씬 넘는다. 이 빈민촌들은 집한채에 수억원씩 들여 외국에서 자재를 사들여다가 박정희괴뢰도당과 매판자본가놈들이 세워는 동빙고동에 자리잡은 《도둑촌》의 궁궐같은 《호화주택》과 대조하면서 남조선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폭로하고있다.

현재 근로층들이 쓰고사는 《집》들도 인민생활이 령락되여감에 따라 보수를 하지 못해 해마다 3만여호씩 무너져가고 있다.

집이 귀한 틈을 타서 도시, 농촌할 것없이 집세와 집터값들이 해마다 계속 뛰어오르고있는데 집세는 평균 30~80%씩 오른다.

남조선에서 주택난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미제와 박정희매국역적은 새전쟁도발책동에 미쳐날뛰면서 군사적목적을 위해 《도시미화》니, 《무허가 건축》이니 하는 구실밑에 《주택철거 6개년계획》이란것까지 세워가지고 1971년까지의 4년동안에만도 4만 6천 710여세대(주민 32만 7천여명)를 마구 헐어버리고 주민들을 한데로 내쫓는 귀축같은 만행을 일삼고있다.

놈들은 1970년에 서울시에서만도 7만 3천 900여명에 달하는 주민들의 집을 헐어버리였다.

그리하여 극도에 이른 주택난에 허덕이는 남조선인민들은 《주택》강제철거에 동원되는 괴뢰앞잡이들과 맞서 투쟁을 곳곳에서 벌리였으며 이러한 투쟁은 최근년간 폭력적인 투쟁에로 점차 발전해가면서 확대강화되고있다.

**【늘어가는 만성질환과 전염병】**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생활의 무참한 령락과 보건사업에 대한 집권자들의 범죄적무관심의 결과로 오늘 남조선에서는 여러가지 전염병과 만성질환이 무섭게 퍼지고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채 신음하고있으며 죽어가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46페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새전쟁도발책동의 강화로 남조선인민들은 무참한 빈궁에 쪼들리고있다. 더우기 열악한 로동조건밑에서 강요되는 장시간의 노예로동은 남조선근로자들의 체위를 끊임없이 저하시켰다. 결과 남조선에서 사회적질환을 격증케하고 인민들의 수명을 파괴 단축시키고있다. 여기에 반인민적보건정책이 병진되어 그 후과는 더욱 혹심해지고있다.

1969년 현재 결핵환자는 주민의 72%이상을 차지하고 해마다 13만여명씩 불어나고있다.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수만도 300여만명이나 되는데 그중 매년 8만여명씩 죽어간다. 결핵리환률에서나 사망률에 있어서 남조선은 세계제일로 꼽히고있다. 각종 기생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는 전체 주민의 99%를 포괄하고있으며 그 절대다수가 두가지이상의 기생충을 가지고있다. 간 및 폐 지스토마환자는 830여만명이나 되며 락동강류역일대에서는 어린이들의 50%, 교원의 90% 이상이 폐지스토마에 걸려 앓고있다. 《망국병》으로 알려져있는 성병환자는 1967년현재 120만명으로서 미국 다음가는 세계 제2위의 다수를 차지하고 그 전염도는 《위험한계》를 넘어 수습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있다.

만성질환과 함께 일본뇌염, 코레라, 각종 티브스 등 급성질환이 해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토착화되고있다.

1970년 8—9월에 걸친 한달동안에 경상남도 창녕지구에서 발생한 코레라환자만도 1천 350여명에 달했으며 120여명의 생명을 희생시켰다. 7월에는 서울시를 비롯하여 충청남도 대덕군, 부령군 등지에서 장티브스와 기타 전염병이 만연되어 수다한 인민들의 생명을 앗아갔다. 괴뢰도당의 공식자료에 의하더라도 1—3월사이에 서울시에서 발생한 장티브스를 비롯한 각종 전염병환자수는 1969년 한해동안에 발생한 환자수의 근 2배에 달하였다.

병원을 비롯한 의료시설도 심히 부족하다.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의료시설마저도 도시에 집중(의사수의 90.2%)되여있으므로 지방들에서는 병이 나도 약한첩 써보기가 매우 힘들다.

극히 축소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남조선전역의 1천 463개 면중 의사없는 면이 무려 800개를 넘는다. 특히 전라북도에서는 162개면중 110개의 면에 의사가 없고 충청남도내 70개의 섬에는 단 한명의 의사도 없다. 그리하여 한번 치료를 받자 해도 50~100리길을 걸어야 한다.

이와 같이 몇개 안되는 의료시설마저 자금난으로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있다.

남조선통신에 의하면 전체 《보건소》의 25%이상이 문을 닫고있으며 운영되고 있다는 《보건소》들도 시설이 없거나 자금이 모자라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의 반동적보건정책은 놈들의 《보건예산》에 그대로 반영되여 있는바 전라남도 령광군의 명목상 《보건비》는 년간에 주민 1인당 31전(냉면 한그릇값의 500분의 1), 놈들이 소위 《시범모범군》을 꾸린다고 떠벌이면서 투자를 집중한다고 한 김제군의 경우에도 54전에 불과하였다.

남조선을 다녀간 한 외국의 기자는 그곳 보건실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가장 나쁜 우려를 가지고 남조선에 가더라도 그 참상은 그보다 더 비참하다. 그곳의 곤궁과 빈곤은 훨씬 더 놀라운 것이다… 당국은 병원에 대하여 아무런 의료시설과 약품비도 지출하지 않고있어 사람들은 각지에서 죽어가고 있다. 남조선에서 사람들은 평균 30~40세로 살뿐이다.》

## 심화되는 사회적혼란

**【격증되는 각종 범죄】** 미제침략자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은 남조선에서 해마다 각종 범죄를 조장, 증가시켜왔다. 특히 미제의 사촉밑에 박정희역도가 감행한 《군사정변》의 조작과 최근년간 더욱 미쳐날뛰는 새전쟁도발책동, 이른바 《근대화》의 미명하에 씌운 부패타락한 미국식생활양식의 부식조장 등은 민족문화와 도덕, 미풍량속을 말살하고 《약육강식》의 야수적법칙이 온 사회를 지배하게 함으로써 남조선에서 각종 범죄의 증가를 격화시켰다.

1960—1969년간에 범죄건수는 거의 3배로 늘었다. 특히 《군사정변》이 있었던 1961년에는 그 전해에 비하여 1.5배로 급격하게 늘었을뿐아니라 그후 년간의 범죄증가률도 상당하게 높다.

1969년에는 하루평균 2천 479건, 매시간에 103건, 매분에 1.7건의 범죄가 일어나고있다. 이해 1월 부산시에서는 전년 같은달에 비해 35%가 늘어난 1만 114건의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12월 24일 하루밤사이에 남조선 각지에서 일어난 범죄건수는 3천 748건으로서 각각 최고기록을 내여 남조선의 험악한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범죄건수의 증가와 함께 최근년간 《폭력단》을 비롯한 조직화된 《범죄단》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 범죄수법이 악랄해졌다. 극히 축소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68년한해동안에 범죄에 의한 인명피해는 사망 4천 736명, 부상 9만 5천 539명 이란 놀라운 수자이다. 또한 이해의 범죄총건수 90만 8천 357건중 살인, 강도, 강간, 폭력 등 《강력범》은 34만 210건으로서 38%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1969년에 살인범죄자수는 1960년에 비해 2배로, 절도범죄자수는 1.6배로 불었다.

박정희괴뢰도당이 집권한 이후 10년간 폭력에 의한 범죄행위는 매년 18%씩 늘어나 매일평균 살인, 강도사건이 60여건씩 발생하였다. 한편 1968년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보름동안에 걸거된 《폭력단》은 100여개나 되였고 이해 7월—10월사이에 새로 조직된 《폭력단》은 무려 70여개나 되였다. 이와 같은 범죄의 경향성에 대하여 남조선

출판물들은 그 수법이 점점 지능적인것으로, 흉악한것으로 되여가고있다고 쓰고있다. 또한 남조선 녀성들이 《미국식생활양식》에 침습되여 민족전래의 미풍량속을 저버리고 범죄의 길로 빠져들어가고있다고 폭로하면서 이는 중요한 《사회적문제의 하나》로 되였다고 개탄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일반범죄의 증가와 함께 학생, 소년들의 범죄가 최근년간에 급격히 증가하고있다.

미제의 식민지략탈정책으로 인한 극심한 생활고, 청소년들속에서의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우매화책동, 미국식생활양식의 침투, 더우기 4.19인민봉기이후 강행된 식민지교육내용의 더한층의 반동화 등은 남조선 학생들과 소년들 속에서 범죄증가를 조장격화시켰다.

청소년범죄는 1960년에 비해 1968년에는 2.5배로, 소년범죄는 1969년에 1961년의 2.7배로 각각 늘어났을뿐아니라 그 어느것을 막론하고 더욱 악랄하여졌다.

1970년초에는 18세안팎의 소녀들로 무어진 《깡패단》까지 나타나게 되였다. 1968년 소년범죄건수에는 살인강도, 강간 등 《강력범》이 24%나 되며 《성범죄》가 1960년에 비해 4.1배로 불은것 등은 남조선사회가 더욱더 썩어가고있음을 실증하고있다.

소년범죄의 경향에 대하여 남조선출판물들은 《점차로 형사범으로 변모하고있으며 사회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고있다.

**【사고투성이】** 남조선사회의 무질서와 혼란상은 미제와 박정희반역도당들의 발광적인 전쟁도발소동과 파쑈통치의 후과로 빚어지는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의 급격한 증가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1970년한해동안의 교통사고발생건수는 3만 7천 243건으로서 1969년에 비해 16%, 5천 151건이 늘고있으며 박정희역도가 괴뢰정권을 거머쥔기간에 실로 11배로, 3만 3천 872건이 불고있다.

이해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인명피해를 보면 사망이 3천 69명, 부상이 4만 2천 830명으로 전년과 대비하여 사망 395명, 부상 4천 239명이 각각 늘었으며, 박정희역도의 집권년간에 사망은 4.5배, 부상은 4.6배로 각각 늘었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의 격증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광란적인 전쟁도발소동으로 말미암은 교통량의 격증과 미제침략군놈들의 야수적만행, 미친듯이 달리는 속도가 원인으로 되고있다. 이 밖에 도로정비와 교통안전시설이 전혀 되여있지 않은것 낡은차를 보수하지 않은채 부리는데서와 로동강도가 강한데로부터 사고의 격증을 가져오고있다.

남조선의 도로상태를 보면 이른바 《고속도로》(전략도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들이 차를 어길수 없는 좁고 낡은것으로서 거의가 다 파괴상태에 있다. 뿐만아니라 총 6천여개의 건널목중에서 93%가 차단장치가 없고 있다는 경우에도 사람이 배치되여있지 않아 실제로 쓰이지 않고있다.

남조선에서는 또한 군용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들이 낡은것들이다. 전체 차량의 약 30%가 일제시기부터 부려먹은 고물들이고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그런것이 37%나 된다. 그우에 수리조차 변변하게 하지 않고 부려먹고있다. 괴뢰도당이 축소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70년 1~3월동안에 일어난 자동차사고 총건수 1천 214건중 13%가 《부속품결함의 결과》로 되고있으며 1969년중 인명손실의 46%까지가 《불량화물자동차에 의한것》이라는 사실은 그의 실태를 명백하게 드러내고있다.

또한 기업주놈들의 《온종일 쉴사이 없는 운전》과 3~5일간씩 계속되는 운행의 강요 등 운전수들에 대한 혹독한 로동력착취로부터 교통사고의 증가는 더욱 격심해지고있다.

1970년에는 또한 1969년보다 334건이 더 많은 720건의 해상사고가 일어나 6천 3명의 인명피해를 내였다. 이해 12월 15일에는 선체검사도 받지 않은 배가 정원과 적재량을 2배나 초과하여 싣고 운항도중 침몰하여 37명의 생목숨을 물속에 장사지낸 사고를 일으켜 남조선인민들의 격분에 찬 규탄을 받았다.

화재사고는 1970년 1~10월사이에만도 3천 971건에 900여명의 주민들이 생명을 잃었거나 심한 화상을 입었으며, 2천 460여채의 살림집들을 불태웠다. 그리하여 전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건수는 30%, 인명피해는 24%가 더 늘어났다.

또한 11월말현재로 759건의 산불을 일으켜 지난 한 해동안에 불탄 산림면적의 7배, 피해액의 3배나 되는 1만 3천 700여정보, 6천여만원어치의 산림자원을 불살랐다.

미제와 괴뢰도당의 반동적반인민적시책으로 말미암아 해마다 년중행사처럼 겪는 물난리는 1970년에 지난 40여년간의 남조선 평균 풍수피해액인 50여억원보다 17억 6천여만원이나 더많은 큰 손실을 보게한 변을 인민들에게 들씌웠다. 7월 3~9일과 13~20일 두차례에 걸친 내린 비로 사망자 67명을 비롯한 인명피해 167명, 리재민 2만 4천 132명을 내였다. 재산피해는 침수, 매몰된 논밭이 9만 1천여정보, 파괴된 건물이 1만 3천 400여동, 도로파괴 2천 500여개소, 농작물피해 4만 6천여톤, 떠내려간 배가 200여척으로 도합 67억 6천 658만원에 달하였다. 전후 15일간에 내린 비로 입은 손실액은 지난해 7월 12~25일까지의 14일간에 있은 큰물피해액 10억원에 비하면 거의 7배나 되는 막대한것이였다. 이번의 큰물로 령남과 호남, 령동 지방들에서는 쌀생산이 절반이하로 줄게 되였고 가산을 몽땅 잃고 한지에 나앉은 2만 4천여명리재민들의 생활처지는 그야말로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였다.

1968년의 110건보다 21건이 더 많은 131건의 폭발물사고로 76명의 사망자와 216명의 부상자를 낸 1969년에 이어 1970년에 들어와서도 미제침략자들의 전쟁연습소동이 빚어내는 남조선인민들의 인명피해는 계속되였다.

이해 2월 25일 부산시 서구 감천 1동을 지나던 뻐스안에서 폭발물이 터져 27명의 승객이 중화상을 입은것을 비롯하여 3월 24일 남조선 강원도 철원군 갈마면 신철원리에서 미제침략군의 포탄폭발로 말미암아 6명의 어린이들이 즉사했고 역시 남조선 강원도 홍성군 남면에서 미제침략군의 폭발물로 3명의 소년이 억울하게 목숨을 빼앗기였으며, 경기도 포천군 청산면 대전리에서도 미제승냥이놈들의 폭발물에 의해 학교에 가던 두명의 어린이가 생명을 잃고 두명이 중상을 입는 등 폭발물사고가 꼬리를 이었다.

이 밖에 가스사고가 1967~1969년간에 2배로 는것을 비롯하여 식중독과 익사사고 등 갖가지 사고가 계속 늘어가고 사고투성이로되여 버린 미제강점하에 있는 남조선사회의 무질서와 혼란상을 드러내여 철천지원수미제에 대한 민족적격분을 자아내게 하고있다.

# 미제의 조선침략의 발자취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국주의는 〈샤만호〉의 침입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100여년동안이나 우리 나라를 침략하여온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첫침략기도에서부터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과 략탈 만행을 끊임없이 감행하였으며 조선인민앞에 영원히 씻을수 없는 수많은 죄악들을 저질렀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단행본, 75페지)

미제국주의는 조선인민의 100여년의 피맺힌 철천지 원쑤이다.

아름다운 우리 나라 금수강산을 제놈들의 식민지와 군사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미제는 100여년전부터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여 왔으며 8.15후에는 남조선을 직접 강점하고 25년동안이나 가장 반동적인 식민지군사파쑈테로통치를 실시하고있다.

더우기 미제는 우리 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하고 전대미문의 파괴와 살륙만행을 감행하여 무고한 우리의 부모형제들을 무참히 학살하였으며 오늘도 남조선에서 남녘동포들을 억압착취하며 닥치는 대로 체포구금 학살하고있다.

미제는 흉악한 침략자이며 략탈자이며 피에 주린 흡혈귀이며 전쟁방화자이다.

가장 악랄하고 강도적인 침략과 략탈, 가장 음흉하고 야수적인 살륙과 폭압, 파괴와 유린으로 일관된 조선에 대한 미제침략의 전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1866. 8. 8 미해적선 《제네랄 샤만호》의 대동강침입.

1868. 4 《샤만호》의 침입에 뒤이어 해적선《시난도아호》의 대동강하류침입

1868. 5.10 상해주재 미령사관성원인 젠킨스도당 미국무성의 지시로 리조봉건정부에 불평등조약을 강요할 목적밑에 충청도 덕산군 가야동에 침입.

1871. 6. 1 미침략군 리조봉건정부에 불평등조약을 강요하기 위하여 강화도에 침입.

1882. 5. 22 예속적이며 불평등적인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체결.

1884~1885 미국무성 침략의 길잡이로 리용하기 위하여 기독교회 장로파 알렌, 언더우드, 감리교회계의 아펜셀러 등 선교사들을 조선에 파견.

1886. 6 미국놈선교사 아펜셀러 미국무성의 지시밑에 조선인민에게 숭미공미사상을 설교할 목적밑에 서울에 《배재학당》을 설치.

1886 미국무성의 앞잡이 데니 리조봉건정부의 내무협판 겸 외무장교사자리를 탈취.

1890 미국무성이 파견한 리젠드르 갑산 고진동광산, 평안도 은산광산, 운산광산, 강원도 화천, 강릉광산의 채굴권을 독점, 모르스, 콜부란, 포스트위크 등 서울—인천간, 서울—개성간의 철도부설권, 서울시내 전기, 수도, 전차부설권, 산림자원의 개발권을 탈취.

1895. 11. 28 리젠드르, 언더우드 미국무성의 지시밑에 조선에서 반로씨야친미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고종을 랍치하려다 실패.

1890년대 미국무성이 파견한 리젠드르 리조봉건정부의 외부고문, 그레트하우스 외무, 법무, 광부《고문》, 산도아 궁내부《고문》직을 각각 탈취.

1902 데쉴러라 수만의 조선인민을 아메리카에 팔아넘기기 위하여 미국노예상인들의 조선대리점 《대륙개발회사》를 조작.

1905. 7 미륙군장관 타프트와 일본수상 가쯔라간의 비밀회담진행. 미제는 일제가 필리핀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담보를 받고 일제의 조선강점을 사촉.

1907 미륙군장관 타프트 일제의 조선강점을 지지하는 성명발표.

1910 미국놈선교사들 미국무성의 지시밑에 조선에서 숭미사대주의를 부식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채택할 목적으로 서울에서 미국놈 《선교사대회》를 소집.

1925 평남도 순안에 있던 미국놈선교사 해스머 열두살난 조선소년의 이마에 청강수로 《도적》이라는 글자를 새기는 극악무도한 만행을 감행.

1931. 10 미륙군장관 헐레이, 일제륙군대신 미나미간의 회담진행, 회담에서 미제는 일제의 극동침략을 적극 고무.

1945. 8. 20 태평양《미륙군사령관》 맥아더 마닐라에서 남조선의 《치안》은 《조선총독》과 남조선강점 미침략군사령관이 《유지》할것을 《조선총독》아베에게 특별《명령》.

1945. 8. 21 하지 남조선에서 일제통치질서를 그대로 유지할데 대한 《포고》를 발포.

1945. 9. 8 미제침략군 남조선강점을 위한 인천상륙.

1945. 9. 8 태평양《미륙군사령관》 맥아더 조선 북위 38도이남지역에서 《군정》을 실시하고 《군정》기간 영어를 공용어로 할데 대한 《포고》를 발포.

1945. 9. 11 남조선강점 미침략군 《사령관》하지 남조선에 《군정청》을 설치.

1945. 9. 22 미제침략군 남조선에서 봉건적토지소유관계를 계속 유지할것을 강요하기 시작.

1945. 9. 25 미제침략군, 일제에게 소속되여있던 남조선의 공, 사 재산을 《미군정청》이 략취할데 대한 《군정법령》 제 2호, 33호 발포.

1945. 10 남조선강점 미침략군《사령관》하지 《군정청》을 남조선의 유일한 《정부》로 선포하고 인민위원회들을 강제로 해산.

1945. 11. 13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남조선괴뢰군의 기초를 꾸리기 위한 괴뢰국방사령부를 조작.

1945. 11 미제 남조선에서 괴뢰 《국방경비대》와 《해안경비대》를 조작.

1945. 12 미제 남조선에서 괴뢰사관학교의 모체인 《군사영어학교》를 설치.

1946. 2. 20 미제침략군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의 자유를 구속할 목적밑에 소위 《정당등록법》을 조작.

1946. 2 미제침략군 리승만을 소위 《의장》으로 하는 새 《군정》자문기관인 《민주의원》을 조작.

1946. 3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괴뢰어용단체인 《대한로총》을 조작.

1946. 5. 6 미제침략군 모스크바3상회의결정실행대책을 토의하는 제1차쏘미공동위원회를 파탄.

1946. 5 미제침략군 남조선에서 공산당에 대한 탄압을 목적으로 소위《정판사위조지폐사건》을 날조, 공산당원들을 대량검거, 공산당기관지 《해방일보》를 강제폐간.

1946. 8 미제침략군 강제공출을 반대하는 전라남도 무안군 하의도농민폭동을 야수적으로 진압.

1946. 8 미제침략군 남조선에서 철저한 식민지노예교육체계를 수립할 목적밑에 서울의 각 대학과 전문학교들을 통합하고 미국놈이 장악하는 하나의 《리사회》를 통하여 학교를 운영하려는 소위《국립서울종합대학안》(략칭 국대안)을 조작.

1946. 8. 15. 미제침략군 전남 화순탄광로동자들에 대한 대량학살만행.

1946. 9 미제침략군 《조선인민보》, 《현대일보》, 《중앙신문》 등 민주주의적신문을 강제폐간.

1946. 9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사령관》하지 박헌영도당에게 북반부에 잠입하여 우리 당과 인민정권을 파괴할것을 지시.

1946. 9 미제침략군 반인민적인 이중교육체계와 식민지교육체계가 그대로 답습된 소위《신학제》를 발표.

1947. 2 미제침략군 《군정청》, 《민정장관》으로 조선인 주구를 임명.

1947. 6 미제침략군 《남조선과도정부》를 조작.

1947. 8 미제침략군 남조선에서 괴뢰어용단체인 《대한농총》을 조작.

1947. 9. 23 미제 조선문제를 《유엔총회》의정에 상정시키는 비법적《결정》을 채택.

1947. 10. 20 미제침략군 모스크바3상회의결정실행대책을 토의하는 제2차쏘미공동위원회를 파탄.

1947. 11. 14 미제 《유엔림시 조선위원단》을 구성하고 이 《위원단》의 감시하에 1948년 3월 31일전으로 소위 《선거》를 실시할데 대한 《결의》를 《유엔총회》전원회의에서 강압적으로 통과

1948. 5. 10 미제침략군 남조선에서 괴뢰정부 조작을 위한 망국적인 단독《선거》를 단행.

1948. 5 미제침략군 남조선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탄압을 목적으로 《신문 및 기타 정기간행물허가에 관한》 《군정법령》 제88호를 발표.

1948. 8. 15 미제 리승만괴뢰정부를 조작.

1948. 8. 24 미제침략군 남조선 장기강점과 미제침략군《사령관》이 일체 관할통수권을 계속 장악할것을 합법화한 《과도기간 잠정적 군사 및 안전에 관한 행정협정》을 조작.

1948. 8 미제침략군 남조선 괴뢰군과 경찰을 틀어쥐기 위한 《한미군사협정》을 조작.

1948. 12. 10 미제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지배를 합법화하기 위한 《한미경제원조협정》을 조작.

1948. 12. 12 미제 《유엔총회》 제3차회의를 통하여 《유엔림시조선위원단》 대신에 그 성원국대표들로써 《유엔조선위원단》을 구성하고 조선에 파견할데 대한 비법적《결정》을 채택.

1950. 1. 26 미제 남조선을 군사기지화하기 위한 《한미군사원조쌍무협정》을 조작.

1950. 1. 26 미제 괴뢰륙군 및 《해안경비대》와 군경들을 포함한 남조선 무력을 미제침략군의 지휘하에 훈련시키기 위하여 《주한미국군사고문단설치에 관한 협정》을 조작.

1950. 6. 25 미제 리승만역도를 사촉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무력침공을 개시.

1950. 6. 27 트루맨 조선에 대한 미제침략군의 직접적인 무력간섭을 명령.

1950. 6. 27 미제 《안전보장리사회》를 통하여 《유엔》성원국들의 조선에 대한 무력간섭을 사촉하는 침략적《결정》을 채택.

1950. 6. 30 트루맨 조선전선에 미륙군이 비법적으로 개입할것을 명령

1950. 7. 7 미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통하여 소위《유엔군》을 조작하여 조선전선에 투입.

1950. 7. 14 미제 남조선에서 일체 군사지휘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통수권이양에 관한 협정》을 조작.

1950. 9 미제 조선전선에서 입은 심대한 패배를 만회하기 위하여 15개 추종국가무력을 조선전선에 비법적으로 동원.

1950. 10 미제 《유엔 조선위원단》의 침략적정체가 폭로되자 그를 대신하여 또다시 《유엔총회》 제5차회의에서 오스트랄리아, 파키스탄, 타이, 필리핀, 칠레, 화란, 토이기와 같은 추종국가들로서 소위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조작하여 남조선에 파견.

1948. 4~1950 미제침략군 제주도에서 7만여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 도내 400여부락중 295부락의 1만여호의 민가를 소각.

1950. 10 미제침략군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일시적강점기간 신천군에서 3만 5천 383명, 황해도적으로 10여만, 공화국북반부전강점지역에서 수십만의 애국자들을 무참히 학살.

1952. 1 미제침략군 조선전선에서 세균탄 및 독가스 사용개시.

1953. 8. 8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영구강점을 《법》적으로 규정한 소위 《한미호상방위조약》을 조작.

1953. 8. 17 미제 정전협정에 예견된 정치회의소집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유엔총회》 7차회의 제3기 회의를 파탄.

1954. 6. 15 미제 조선문제의 평화적조정을 위한 쏘련, 중화인민공화국, 미국, 영국 및 프랑스와 기타 관계국가들의 제네바회의를 파탄.

1954. 11. 17 미제 남조선영구강점과 전쟁준비를 획책하는 《한미군사경제원조에 관한 협정》과 《한미회담의사록》을 조작.

1954 미제 미8군《사령부》, 미극동《사령부》를 남조선에 다시 끌어들임.

1956. 3 미국무장관 덜레스 남조선에 기어들어 소위 《북진》성명을 발표.

1956. 6. 19 미제 전쟁준비를 위한 모략적책동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중립국시찰소조를 남조선에서 철수시키는 도발적행동을 감행.

1957. 7 미제남조선강점 미제7사단을 원자사단으로 개편.

1957. 10 미제 일본에 있던 미제1기병사단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미제24사단과 통합하여 원자사단으로 개편

1956. 11. 28 미제 남조선에서 무제한한 략탈의 자유를 합법화하는 《한미우호통상 및 항해조약》을 조작.

1957. 7 미제 일본에 있던 《유엔군사령부》를 남조선에 끌어들이고 《유엔군사령관》에게 남조선강점 미군 《사령관》 및 미제8군 《사령관》을 겸임시킴으로써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지배체계를 단일화.

1957. 7 미제 남조선에 대한 군사정치적지배와 경제적지배를 밀접히 결합시킬 목적으로 《유엔군사령관》관할하에 있던 소위 《원조》기관의 관리권과 《주한미군사고문단》을 《주한 미대사》에게 이관.

1960. 2 미제 남조선에 침투한 미국사자본의 권리를 전적으로 보장하며 그들의 여하한 손실도 괴뢰정부가 보상하기로 한 강도적인 《한미투자보장협정》을 조작.

1960. 4. 28 미제 남조선에서 허정《과도정부》를 조작.

1960. 8. 23 미제 남조선에서 장면괴뢰정권을 조작.

1960. 6 미제 남조선에 대한 재정적지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소위 《한미예산공동심의안》을 조작.

1961. 2. 8 미제 《한미》간의 모든 《협정》들에 규정되어있던 침략적조항들을 집대성하고 보충한 《한미 경제 및 기술원조협정》을 조작.

1961. 5. 16 미제 군사깡패 박정희를 사촉하여 군사쿠테타를 조작.

1963. 12 미제 남조선에서 매국역적 박정희괴뢰정권조작.

1965. 12 미제 범죄적인 《한일조약》을 조작.

1966. 7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영구강점과 그들의 무제한한 략탈과 만행을 《법》적으로 규정한 《한미행정협정》을 조작.

1967. 1. 19 새 전쟁 도발을 목적한 경호함《56호》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령해침입.

1969. 1. 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정탐행위를 목적한 미제무장간첩선《푸에블로》호의 우리측 령해침입.

1969. 4. 15 적대적정탐행위를 목적한 미제간첩비행기《이씨—1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령공을 침입.

1970. 6.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적정탐행위를 목적한 미제무장간첩선 《아이—2》 우리측 령해침입.

# 미제는 남조선의 실제적통치자이다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남조선을 자기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군사기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남조선을 〈독립국〉으로 선전하며 자신을 〈원조자〉로 묘사하고있으나 남조선에서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있는 실제적통치자는 바로 미국침략자들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389폐지)

미제침략자들은 25년동안 이상이나 남조선에서 식민지군사파쑈통치를 실시하고있다.

남조선에서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분야의 실권을 틀어쥐고 모든것을 좌지우지하는 실제적통치자는 바로 미제침략자들이다. 이것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간에 조작된 각종 《조약》과 《협정》들에 의해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미제침략자들은 8. 15후 현재까지 90여건에 이르는 여러가지 《조약》과 《협정》을 남조선괴뢰도당과 조작하였다. 이 문건들은 미제가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되고있다.

## 미제침략군의 장기강점, 군사적지배와 예속을 《합법화》하기 위한 《조약》과 《협정》

△ 《한미호상방위 조약》(1953년 8월 8일 조작)

이 《조약》은 바로 남조선에서의 미제침략군의 장기주둔과 군사강점을《합법화》하기 위한것으로서 침략적이며 매국적인 문건이다.

이 《조약》에는 《미합중국의 륙군, 해군, 공군을 한국령토내와 그 부근에 배비하는 권리를 한국은 이를 허용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허한다》, 《본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라고 규정되여있다.

이 《조약》의 내용이 설명해주고있는 바와같이 이것은 철두철미 침략적이며 매국적인것이다.

• 남조선에 대한 미제침략군의 강점기한을 무기한으로 규정함으로써 그것을 장기적이며 영구한것으로 만들었다.

•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강점군의 인원수에 대하여 아무러한 형식적제한도 받지않고있다.

• 남조선에 대한 미제침략군의 강점지역에는 수적, 지역적제한도 없이 전역이 포함되여있으며 미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곳에는 어디에나 군사시설을 만들수 있게 되여있다.

* 미제는 이 《조약》을 통하여 남조선에 수많은 침략무력과 함께 200여개의 군사기지를 보유하고있다.

△ 《주한미국군사고문단설치에 관한 협정》(1950년 1월 26일 조작, 1960년 10월 21일에 개악)

이 《협정》에서 미제는 《주한미군사고문단》으로 하여금 남조선괴뢰군의 조직과 동향 그의 구성 및 병력규모, 각급부대의 작전과 전략, 기술훈련과 괴뢰군의 내부질서를 통제지휘하게 하며 군사전략에 따르는 괴뢰군의 군수물자공급까지 관할하도록 하는 무제한한 권한을 틀어쥐도록 규정하였다.

이 《협정》에는 《단의 목적은 륙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를 포함한 국군의 조직관리와 훈련에 있어서 한국정부에 대하여 조언과 원조하며 전기국군이 미국의 군사원조를 유효하게 리용하도록 보장》한다고 규정되여있다.

* 여기서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른바 《조언》과 《원조》라는 문구로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가리려고 시도하고있으나 실제상으로 이것은 괴뢰군에 대한 미제의 명령과 지시 그리고 그 집행에 대한 감독통제를 의미한다.

• 이 《협정》을 방패로 하여 만들어진 《미합동군사고문단》에는 지금 약 3천명의 미제침략군성원이 망라되여있는데 놈들은 《고문단련락국》과 륙해공군별로 《고문단》을 두고 괴뢰국방부를 비롯한 괴뢰륙해공군의 군사활동을 지휘감독하고있다.

• 심지 남조선괴뢰군은 미제침략군 《고문》들의 승인과 통제없이는 단 한명도 움직일수 없게 되여 있으며 무기, 탄약, 휘발유도 마음대로 쓸수 없게되여있다.

## 경제적예속과 식민지적략탈을 《합법화》하기 위한 《조약》과 《협정》

△ 《한미경제원조협정》(1948년 12월에 조작)

미제국주의자들은 이 《협정》을 통하여 《원조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에 대한 생산통제권, 화폐신용통제권, 외화거래를 포함한 모든 수출입통제관리권을 틀어쥐였다.

이 《협정》에는 《물자의 청구, 구매, 배정, 배급가격조정 및 회계에 관한 계획을 진행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관》이 《그 계획의 진행 및 집행에 있어서 미국원조대표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되여 있다.

• 미제는 이 《협정》에 의하여 괴뢰정권의 경제활동의 일체를 장악통제하며 나아가서 남조선자체의 생산과 생산물의 처리까지도 간섭하고있다.

• 미제는 이 《협정》에 의하여 남조선괴뢰정부의 전반적경제활동을 저들에게 완전히 얽매여 놓았다.

△ 《한국정부와 통일사령부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1952년 5월 25일 조작)

이 《협정》은 미제가 침략전쟁수행상 필요한 남조선의 인적, 물적인 모든 자원을 동원략탈할것을 목적으로 조작한것이다.

• 미제는 이 《협정》에 의하여 《한국의 경제와 계획의 모든 사항을 검토》할 권한을 가진《한미합동경제위원회》를 조작하고 남조선의 전반적인 경

재생산을 통제하고있다.

• 이 《협정》에 의하여 미제침략군사령관은 《작전의 유효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남조선의 모든 인적물적자원을 마음대로 침략전쟁목적에 징발할수있게 되여있다.

△ 《경제재건 및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협약》(1953년 12월 14일 조작)

이 《협약》은 이른바 《경제재건》과 《재정안정》이라는 구실밑에 탐욕스러운 미국독점자본이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남조선에 기여들어 남조선민족경제를 마음대로 병탄할수 있는 길을 더 넓힐 목적으로 조작한것이다.

이 《협약》에는 《합동경제위원회는 사용할수 있는 자금한도내에서 가급적으로 자금의 사용과 물자의 구매, 도입 및 배정 등의 업무를 조속히 실시한다》고 규정하고있으며 또한 《합동경제위원회》로 하여금 《예산부족》을 《억제》한다는 구실하에 《세입층의 주도한 조직 및 조세와 기타 세입의 징수를 목표로 하는 재반시책을 채택》할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 미제는 이 《협약》에 의하여 남조선경제에 대한 침략도구의 하나인《합동경제위원회》로 하여금 이른바 《원조》물자의 구입과 분배는 물론 괴뢰정부의 예산편성, 세금징수 등 전반적경제분야에 대한 철저한 통제장악과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식민지적략탈을 강화하고있다.

△ 《한미우호통상 및 항해조약》(1956년 11월에 조작)

이 《조약》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경제의 예속화를 촉진시키면서 저들의 독점자본의 임의의 침투를 《법》적으로 보장한 침략적이며 매국적인 문건이다.

• 이 《조약》에 의하여 미제는 남조선지역내에서 《모든 종류의 상업, 공업, 금융업 및 기타 영리활동》의 권한을 《합법화》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지점, 대리점사무소, 공장 기타 그의 상업상 시설을 설치》할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있다.

미제는 또한 이 《조약》을 통하여《회사의 주거, 사무소창고, 공장 및 기타의 건조물》에 대한 이른바 불가침권, 남조선지역에서 《토지, 건물, 기타의 부동산》을 마음대로 점유하고 사용할 권리를 포함한 모든 치외법권적인 권리를 틀어쥐게 되여있다.

※ 이《조약》은 그후《투자보장에 관한 한미간의 협정》(1960년)에 의해 더욱 개악보충되였다. 이에 의하면 미국독점자본이 남조선에 침투하는 경우에 통화의 불안정성에 의한 위협이나 기타 재해로 인한 손실까지도 남조선괴뢰정부가 보상하도록 되여있다.

△ 《한미경제 및 기술원조 협정》(1961년 2월 8일)

이《협정》은 이미 언급된 《한미경제원조협정》(1948년), 《한국정부와 통일사령부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 《경제재건 및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협약》(1953년) 등 3개《협정》을 단일화하였으며 《한미호상방위원조협정》(1950년)과 《한미호상방위조약》(1953년)을 비롯한 기타 비밀《협정》들을 재확인한것이다.

※ 이 《협정》은 미제가 남조선괴뢰정부의 《계획사업 및 관계기록을 제약없이 관찰하고 재검토함을 허용하며 여사한 계획사업에 관한 완전한 정보》와 《기타 관계정보를 미합중국정부에 제공》하여야 한다는 등의 보다 예속적인 조항들을 첨가하여 미제가 남조선의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완전한 통제감독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규정하여 놓았다.

《법률》적기초를 명문화하였다.

• 이《협정》에는 미제가 남조선의 일체 시설을 계속 군사적목적에 리용할 요구를 제기할 권리, 전파장치들의 자유로운 사용권, 일체 공장을 독점하게 사용하는 권리, 항만 시설의 리용권 등이 포함되여있다.

• 이《협정》은 미군정시기에 미제가 남조선에서 략탈한 막대한 재산들에 대해서는 《이미 행한 처리를 승인》한다고 함으로써 저들의 략탈을 기정사실로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합법화하였을뿐만아니라 《동산 또는 부동산, 유체 또는 무체임을 막론하고 미국정부가 관심을 가진 재한국재산 및 그 첨부물을 취득》할수 있다는 강도적조항을 밀어넣어 남조선경제에 대한 무제한한 략탈을 계속감행할수 있도록 규정하여 놓고있다.

△ 《재한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협정》(1950년 7월 12일 조작)

이《협정》은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미제침략군의 범죄행위에 대하여서는《한국》은 《재판권》을 행사할수 없되 미제침략군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이른바 《가해》사건에 대해서는 미제침략자들이 그를 구속할수 있다는것을 규정한 극도로 파렴치한 문건이다.

※ 이《협정》에서 규정된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치외법권적특권은 그후에 조작한 《한미행정협정》에 의하여 더욱 교활하게 《합법화》되였다.

△ 《한미행정협정》(1966년 7월 9일 조작)

이《협정》은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과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놈들의 야수적만행을 감싸주기 위한 침략적이며 매국적인 문건이다.

• 《협정》에는 남조선인민들에 대하여 감행되는 살인, 폭행 등 미제침략군의 만행은 《공무집행》이라는 구실밑에 범죄로 인정되지않고 따라서 괴뢰들이 《재판권》을 행사할수 없도록 규정되여있다.

• 이《협정》에 의하여 《비공무》중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미제침략자들의 《요청》이 있으면 괴뢰들이《재판권》을 포기해야한다.

• 이《협정》에는 또한 남조선괴뢰들이 《재판권》을 가진다고해도 미제침략군범죄자를 마음대로 구금할수 없게 규정되여있다.

## 미제침략군의 치외법권을 《합법화》하기 위한 《조약》과 《협정》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강점 첫날부터 식민지통치의 재반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발광하였으며 괴뢰도당과 조작한 일련의 《조약》과 《협정》을 통하여 치외법권적특권을 행사하여 왔다.

△ 《한미간의 재정 및 재산 이양에 관한 협정》(1948년 9월 11일조작)

미제는 리승만괴뢰정권을 조작한후 그것을 그 어떤 독자적인 《정부》로 가장하기 위하여 《정권》이양의 형식을 취하면서 이 《협정》을 꾸며냈다.

이《협정》에서 미제는 남조선괴뢰정부가《재조선미군정청 또는 남조선과도정부의 일체의 현행법률, 법령 및 규칙들을 전적으로 계속 시행할것을 협약》케 함으로써 식민지통치에 필요한

## 교육과 문화를 예속하기 위한 《조약》과 《협정》

미제는 남조선의 교육문화분야에서도 저들의 식민지지배를 실시하며 《반공》숭미사상과 썩어빠진 미국식생활양식을 부식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예속적인 《협정》들을 조작해냈다.

△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 공급과 관련한 한미협정》(1950년 4월에 조작)

이 《협정》은 1960년 6월 30일 개악을 거쳐서 1963년 6월에 와서는 이것

을 《대체》한 것이 조작되였으며 1965년 11월에 또다시 개악되여 보다 예속적인것으로 되였다.

미제는 이《협정》에 의하여 《미국외교사절단 수석책임관리》를 《의장》으로 하는 《주한미국교육위원단》을 두고 그로하여금 남조선교육에 대한 침투와 예속을 보다 공공연히 강화하고있다.

• 이 《협정》에는 《주한미국교육위원단》은 《미합중국정부가 위원단에게 사용할수있도록 한 기금에 의한 자금공급》을 받아서 남조선과 미국에서 친미《반공》분자들을 양성하며 남조선교육계에 대한 침투를 강화하도록 규정되여있다.

• 이《협정》에 의하여 남조선교육기관에 기여들어《반공》친미노예사상을 전파하는데 광분하고있는 미국놈《고문》들과 총장 (또는 학장, 교장), 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만도 막대한 수에 달한다.

• 이《협정》에 따라 미제침략자들은 이밖에도 《교환교수》니, 《연구》니 하는 명목으로 남조선의 어용학자들을 미국에 데려다가 저들의 심복으로 길러내고있다.

△ 《한미간의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1955년에 조작)

이《협정》은 미제의 사상문화침략의 수단인 《아세아재단》, 《록펠러재단》을 비롯한 수많은 이른바《재단》들의 침략활동을 《합법화》한 것이다. 이 《협정》에는 《재단》들의 침략활동에 완전한 《법적》보장을 주고있을뿐만아니라 여러가지 특전을 부여하고있다.

△ 《정보매개를 보장에 관한 한미간의 협정》(1959년 9월 2일 조작, 그후 《한미간의 공간행활보장협정》에 의하여 개악보충)

미제는 이 《협정》에 의하여 남조선의 출판, 영화, 방송 등 사상, 문화분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있다.

이에 따라 남조선에는 미국의 퇴폐적인 잡지 등을 비롯한 수많은 반동서적들과 썩어빠진 미국영화들이 물밀듯이 쓸어들고있다.

＊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미제는 지난 25년간에 조작한 수많은 침략적이고 예속적인 《조약》과 《협정》들을 통하여 남조선에 대한 제놈들의 식민지통치를 《합법화》하면서 침략과 전쟁정책을 강화하고있다.

그러나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그 어떤 《조약》과 《협정》들을 조작하고 식민지통치를 《합리화》하려고 책동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침략자와 그 주구들사이에 조작된 비법적이고 범죄적인 문건으로서 전체 조선인민은 그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인민은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악독한 식민지테로통치를 뒤집어엎고 남조선을 해방하며 조국통일의 민족적위업을 반드시 이룩하고야 말것이다.

#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현지 지배기구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남조선의 이른바 〈대한민국정부〉는 사실상 그들의 군사적점령을 〈합법화〉하고 그 식민지통치를 가리우는 위장물로 존재하여왔으며 미제국주의의 침략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도구로 복무하여왔을뿐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단행본, 78페지)

미제국주의자들은 괴뢰정권을 조종하기 위하여 남조선에 《주한미대사관》을 비롯하여 《주한미군사령부》, 《주한미국제개발처》, 《주한미공보원》, 《미중앙정보국 남조선지부》 등 방대한 현지지배기구를 설치하고있다.

미제는 이러한 저들의 현지지배기구와 괴뢰정권을 통하여 남조선을 2중으로 지배하는 신식민주의통치체계를 수립하고있다.

△ 《주한 미국대사관》

《주한 미국대사관》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정치적지배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현지기관이다. 《주한 미국대사》놈은 남조선에 설치되여있는 미제의 식민지지배기구들을 조종지휘하면서 그것들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조절감독하고있다. 그러므로 《주한 미국대사관》은 사실상 남조선에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전반을 장악통제하고있는 《총독부》로 되고있다.

《주한미대사관》의 조직구조도 역시 남조선의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저들의 지배와 예속을 강화할수 있게 되여있다.

• 《주한미국대사관》의 주요 부서의 하나인 《정치과》에서는 남조선괴뢰정부의 조직과 대내외활동을 비롯하여 정치세력편성을 담당하고있다.

• 《경제과》는 남조선의 경제형편, 괴뢰정부의 경제정책집행과 활동을 장악통제하고있다.

• 《로무담당과》는 남조선괴뢰정부의 《사회로동부》와 어용《로조》들을 장악하고 남조선에 와있는 각종 《재단》을 움직이면서 남조선로동자들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대열을 분열와해하기 위한 모략책동을 감행하고있다.

• 《정보과》는 남조선인민들과 괴뢰지배층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매월 한번씩 정보자료를 만들어 《미국무성》에 보내고있다.

• 이밖에도 민족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괴뢰정부의 이른바 《통일정책》을 배후조종하고있는 《통일문제연구과》를 비롯하여 미국식생활양식을 침투시키는 《문정과》, 자체《공보》와 행정, 영사를 각각 담당한 《신문과》, 《행정과》 《령사과》 등이 있다. 또한 《주한미군사령부》와의 련계밑에 남조선괴뢰군의 내부상태와 군사활동을 종합분석하여 《미국무성》에 정보를 제공하고있는《주한미대사》놈에 직속된 《군사부》와 미국《고문》놈들을 총체적으로 장악하고있는 《고문실》이 있다.

＊ 《주한미대사관》은 이와 같이 11개의 부서들로 편성되여있으며 그밖에 《주한미국제개발처》의 26개부서, 《주한미공보원》의 8개부서가 미국《대사관》에 소속되여있다.

△ 《주한미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는 미국방성과 태평양지구 미침략군사령관놈의 명령에 따라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륙해공군을 총지휘감독하는 현지지배기구이다.

남조선강점미제침략군 《사령관》놈은 현지에서 미제의 침략적군사정책을 집행하는 총지휘자이며 괴뢰군에 대한 실제적인 지휘통수자이다.

《주한미군사령관》놈은 《유엔군사령관》과 《미8군사령관》의 세가지 직위를 겸하고있다.

그놈은 이 세가지의 이름으로 미국방성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륙해공군을 직접 지휘통제하고있다.

• 《사령관》놈은 상설적인 《한미합동군사지휘관회의》를 통하여 괴뢰도당의 군사전반문제를 틀어쥐고 지휘감독한다.

• 《유엔군사령관》이란 간판밑에 《유엔군사령부》의 지휘참모기구를 통하여 괴뢰륙해공군본부 및 작전부대들을 직접 지휘하고있다.

• 《주한미군사령부》는 그 산하에 있는 《주한미합동군사원조고문단본부》를 통하여 괴뢰군의 일체 군사활동과 내부생활을 직접 감시통제하고있다.

• 《주한미합동군사원조고문단본부》는 직속으로 《국방부련락고문국》과 각 괴뢰륙해공군본부에 군사 《고문단본부》를 두고 괴뢰군 각 병종본부와 괴뢰군의 주요부대, 주요기관들 즉 독립련대급이상의 각급 지휘기관, 군사학교 및 기지들에《파견대》또는 《분견대》를 두고있다.

※ 이와 같이 미군사《고문단》은 괴뢰군내에 거미줄처럼 조밀하게 포치되여있으면서 《주한미군사령관》놈의 명령지시에 대한 괴뢰군부대들에서의 집행정형을 감시통제하며 직접 지휘감독하고있다.

△ 《주한미국제개발처》

《주한미국제개발처》는 미제의 《원조》기관의 총본부인 《미국제개발처》의 직속 산하기관이나 남조선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주한미대사》의 정치적 통제를 받고있다.

• 《주한미국제개발처》는 중요 한구들에 산하지부들을 두고있으며 괴뢰정부의 중요한 경제부서들을 비롯하여 중요한 은행과《관영기업체》들에는 직접《고문》들을 배치하고있다. 이놈들은 표면상으로는 《조언자》로 되고있으나 실제상《원조》를 미끼로 지시, 명령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있으며 괴뢰정부의 각 부,처들의 사업은 물론 개별적 기업체들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직접 지휘감독하고있다.

• 《주한미국제개발처》 처장놈은 형식상 《협의체》로 조작한 《한미경제협력위원회》(이 기구는 《주한미국제개발처》 처장놈을 비롯한 6명의 미국놈들과 괴뢰정부의 《경제기획원장》놈을 비롯한 6명의 남조선괴뢰들로 구성되여있다)를 통하여 괴뢰정부에 지시, 명령하며 미제의 식민지경제정책을 지휘감독하고있다.

• 《주한미국제개발처》는 《원조》물자의 판매대금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대충자금》을 남조선괴뢰정부 《예산》에 편입시키는 방법으로 괴뢰정부의 재정자금 전반을 장악하고있을뿐만아니라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전과정을 통제하고있다.

• 《주한미국제개발처》는 또한 《대충자금》을 통한 융자에 의하여 남조선금융기관들을 장악하고 그의 대부활동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모든 경제기관들과 기업체들의 자금을 통제하고있다.

• 《주한미국제개발처》는 《한미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하여 남조선에 배당된 《원조》자금은 물론 괴뢰정부의 일체 외화를 통제하면서 남조선무역을 지배장악하고있다.

※ 이와 같이 미제는 《주한미국제개발처》를 통하여 남조선경제에 대한 지배체계를 확립하고 그것을 미제독점자본의 완전한 부속물로 전환시키고 막대한 식민지초과리윤을 짜내고있다.

△ 《주한 미공보원》

《주한미공보원》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반동적 문화정책을 집행하며 《반공》, 숭미사상과 미국놈들의 생활양식을 부식시키는 사상침략기관이다.

《주한미공보원》은 미제《공보원》의 직속 산하기관이나 남조선에서 그의 활동은 《주한미대사》놈의 정치적인 통제와 지휘밑에서 진행된다.

• 《주한미공보원》은 미제의 사상문화침략정책에 근거하여 남조선의 사상문화기관들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고있으며 여러가지 사상선전수단들을 동원하여 인민들에게 직접《반공》, 숭미 사상과 미국놈들의 생활양식을 불어넣고있다.

《주한미공보원》은 출판, 영화, 사진보도, 강연을 위한 기구들과 영화제작소를 비롯한 출판, 보도 시설들을 직접 경영하고있다. 《주한미공보원》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등지에 제놈들의 산하기관으로서 《문화관》을, 마산과 대전에는 각각 《공보관》을 두고있다.

《주한미공보원》은 출판《보조금》의 지급, 출판번역권의 《양도》, 《도서기증》 등의 방법으로 미국출판물의 수입, 번역 및 출판 등 사업들을 통제하는 한편 각종 잡지, 신문, 통신을 발행하고있다. 《주한미공보원》은 괴뢰정부와 남조선의 출판, 보도 및 문화 기관들을 예속시키고 미국놈들의 생활양식을 부식시키는데 그것을 동원리용하고있다.

△ 《미중앙정보국 남조선지부》

《미중앙정보국 남조선지부》는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최고의 첩보모략기관이다.

• 《미중앙정보국 남조선지부》는 남조선에 들어와있는 미제정탐기관들과 남조선괴뢰정탐기관들의 정보활동을 지휘감독하면서 직접 자기 밀정들을 남조선 도처에 배치하고 그놈들을 통하여 침략정책수립을 위한 정보자료들을 수집한다.

• 《미중앙정보국 남조선지부》성원들은 남조선에서 《대사관》성원, 《주한미국제개발처》성원, 신문 및 통신사특파원, 기업가, 학자, 기술자, 선교사 등등으로 위장되여있으며 이놈들은 괴뢰정부를 비롯하여 중요기관들에 침투하여 활동하고있다. 또한 남조선괴뢰《중앙정보부》에 침투하여 그것을 조종감독하고있다.

※ 미제국주의자들은 이 모든 현지지배기구들을 《주한미대사》놈에게 소속시키고 그놈의 지휘감독밑에 두고있으며 2중종속체계로 편성하고있다.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있던 력대《대사》놈들은 사실상 식민지《총독》으로서 미제지배층이 주는 기본침략정책방향에 따라 남조선괴뢰정권을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예속시켰으며 인민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탄압략탈한 배후장본인들이였다.

# 재 일 조 선 공 민

## 어버이 수령의 극진한 보살핌, 영명한 수령에 대한 재일동포들의 끝없는 경모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나라의 혁명위업과 건설사업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국땅에서 고초를 겪고있는 해외동포들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극진히 보살펴주시며 그들에게 온갖 육친적배려를 다 돌려주고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해외 조선공민들의 민족적권리를 침해하며 그들을 박해하고 멸시하는 모든 부당한 책동을 반대하여 계속 완강히 투쟁할것이며 해외동포들의 정당한 투쟁을 언제나 견결히 지지성원할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580페지)

어버이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극진한 보살핌과 육친적배려는 재일동포들의 생활과 투쟁의 구석구석에까지 미치고있으며 그것은 날로 더욱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이해에도 이국땅에서 내외반동들의 악랄한 탄압책동을 물리치고 민주주의적민족권리의 옹호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위업의 촉진을 위하여 싸우고있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가지가지의 배려와 육친적사랑을 돌려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새해축전을 보내시여 총련이 이해에 수행하여야 할 과업을 뚜렷이 제시해주시였으며 총련결성열다섯돐에 즈음하여 친히 축전을 보내주심으로써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위하여 이해에 네번에 걸쳐 12억 450만 6천 600원(일본돈)이라는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였으며 1971년에 들어와서 서른여덟번째로 3억 236만 5천원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또다시 보내주시였다. 그리고 각종 교구비품들과 여러가지 악기 및 체육기재들을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1957년부터 1971년 1월 28일까지 끊임없이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총액은 무려 100억 2천 31만 2천 633원의 막대한 금액에 달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또다시 수많은 총련일군들과 애국적인 동포들, 동포상공인들에게 국가수훈과 표창의 영예를 안겨주시였으며 총련의 사업을 치하하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공화국정부와 외무성, 근로단체 및 각 사회단체들이 제때에 성명을 발표하여 일본반동정부의 부당한 탄압책동을 규탄하며 재일동포들의 공화국공민권을 비롯한 제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보호하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하여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특히 일본에서 처음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품전람회를 가질수있도록 배려를 돌려주심으로써 재일동포들에게 사회주의공업국가의 공민된 영예를 안겨주시고 우리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성과를 크게 과시할수있게 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 재일조선인축하단이 참가할수있는 영예를 안겨주시였으며 재일동포들의 귀국의 권리와 조국래왕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온갖 배려를 다 돌려주시였다.

그러기에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하고 자애로우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모시고 사는 긍지를 안고 그이께 무한히 충직하고 충성을 다하는것을 최대의 민족적임무로 여기면서 총련의 애국사업에 전력을 기울이고있다.

도꾜도의 한 동포녀성은 수령님의 초상화앞에 3년을 하루같이 매일아침 향기그윽한 꽃묶음을 가져다놓고 그이의 만수무강을 축원하였다.

산따마의 한 동포는 수령님께 드리는 열화같은 충성의 한마음으로 구역안에서 가장 깨끗한 자기의 살림집을 《김일성원수혁명력사연구실》을 꾸리는데 자진하여 내놓았다.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경모의 정은 이 몇사람에 한한것이아니라 오늘 60만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심정인것이다.

수령님의 초상을 한상 자기 앞가슴에 소중히 모시고다니면서 총련과업실천에 헌신하다가 《원수님을 한번만 만나뵈였으면 이 늙은것이 소원이 풀리겠는데…너희들은 수령님을 잘 모시고 떳떳이 살아야 한다》라는 고결한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전로인이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나운 불길에 휩싸인 집안에 뛰어들어 수령의 초상화를 모시고나와 안전한 곳에 정중히 모신 나어린 조선학생들, 환갑이 지난 나이에도 아들, 손자, 며느리를 《선생》삼아 우리 말과 글을 배워 《김일성저작선집》을 학습하여 총련사업을 맡아나서고있는 동포 등 오늘 재일동포들속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에 대한 끝없는 경모와 충성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이 발휘되고있다.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절대적인 신뢰, 열화같은 충성심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조국인민들과 더불어 마음속깊이 간직하고 있는 가장 숭고한 사상감정이다.

이 고결한 사상감정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나아갈 때 조국과 민족의 앞길에는 오직 빛나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것을 실생활을 통하여 체험하고있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철석같은 신념에 기초하고있다. 그리고 그이의 혁명사상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과 풍모를 깊이 체득하고있는 그들의 확고부동한 의지에 토대하고있다.

그러기에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불후의 천재적인 로작들과 교시,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깊이 연구체득하면서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자기들의 뼈와 살로 만들고있으며 수령의 가르치심을 생활과 투쟁의

모든 분야에서 실천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고있다.

## 영명하신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총련에 보내신 새해 축전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총련은 모든 간부들과 재일동포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데 계속 큰 힘을 넣으면서 자기 대오를 더욱 믿음직하게 꾸려야 하겠습니다.》

총련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새해 축전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전체 총련일군들과 60만 재일동포들속에서 수령님의 주체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리였다.

총련은 《김일성원수혁명력사연구실》을 보다 정중히 꾸리며, 간부교양망과 대중교양망을 정비확대하며, 《김일성저작선집》을 비롯한 수령의 불후의 천재적로작들과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비롯한 혁명전통교양자료들을 더많이 출판보급하는 사업을 적극 조직진행하여 많은 일군들과 동포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교양하기에 힘썼다.

이와 함께 총련은 집중학습과 단기강습을 수시로 조직하는 한편 군중집회 등 온갖 계기를 리용하여 집중적이며 대중적인 선전교양사업을 광범히 벌리였다. 이렇게하면서 일군들과 동포들로 하여금 수령님의 교시와 로작학습과 혁명력사학습을 생활화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였다.

총련은 새해 첫 사업으로서 총련중앙을 비롯하여 총련 각급기관들과 단일단체, 사업체, 학교 등 모든 단위들에서 일군들과 동포들이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새해 축전의 교시를 자기들의 피와 살이 되도록 심오히 연구체득하기 위한 집중학습을 조직진행하였다.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쉰여덟돐에 즈음하여서와 총련결성열다섯돐을 맞이하면서 1천수백개의 강연구들에서 《김일성원수님은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따사로운 보살핌속에서 총련은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힘차게 걸어왔다》라는 제목으로 연설회, 강연회, 해설담화사업을 진행하여 수십만명의 일군들과 동포들을 교양하였다.

또한 총련은 이해 년초에 진행한 1970년도 총련의 활일을 더 많이 더 잘하기 위한 간또지방열성자들의 모임, 총련결성열다섯돐을 기념하는 총련 각급 기관들의 모임 등을 통하여 대중교양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을 수령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특히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앞두고 총련이 조직전개한 《120일간혁신운동》은 매우 큰 의의를 가지였다.

총련은 《120일간혁신운동》을 벌림에 있어서 일군들과 동포들 속에서 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을 반대하며 그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중심과업으로 내세우고 이 사업을 1969년에 벌린 《100일간혁신운동》때에 비하여 더욱 깊이있게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였다.

총련은 이 기간에 일군들과 동포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심오한 리론, 40여년간에 걸친 영광찬란한 혁명투쟁업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사상리론적으로 더욱 깊이있게 체득하도록 힘썼다.

그리하여 많은 총련조직들이 《100일간혁신운동》때보다 2~3배나 더 많은 일군들과 동포들을 집중학습과 단기강습에 망라하여 교양하였다.

이 과정에 분회일군들과 동포들은 《우리 분회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혁명사상이 꽉 들어찬 분회로 만들자》라는 구호밑에 《김일성원수혁명력사연구실》을 보다 정중히 꾸리고 그를 거점으로 하여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을 더욱 줄기차게 진행하였다.

영예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20주년 칭호를 받은 오끼노분회를 비롯하여 많은 총련조직들에서 아침마다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교시 및 천재적로작학습을 끊임없이 진행하였다.

또한 총련 오사까본부에서는 지난해의 수배나 되는 일군들과 동포들을 망라시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교시와 천재적로작학습을 꾸준히 진행하여 분회단기년간학습지표를 4개월 앞당겨 빛나게 수행하였다.

실로 《120일간혁신운동》기간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이 대중적으로 끊임없이 심화되였다. 그것은 온집안 식구들이 모이앉아 수령님의 교시와 천재적로작들을 거듭 읽고 배우면서 가정을 애국적으로 꾸리는 등 위대한 수령을 따라배우기 위한 학습이광범하게 진행된 사실에서 찾아볼수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사업은 그이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강령적보고를 총련사업에 구현하기 위한 총련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회의가 있은 이후 더욱 심화되였다.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를 깊이있게 학습하였다.

총련 쇼난지부 오후다분회 일군들과 열성동포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강령적보고를 자기들의 피와 살로 만들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분회내의 동포들의 집을 찾아 다니면서 당대회 보고를 해설침투하였다.

총련은 《120일간혁신운동》기간에 특히 일군들과 동포들 속에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몸소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무장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김일성원수혁명력사연구실》을 거점으로 하여 보다 대중적으로 더욱 폭넓게 진행하였다.

총련의 각급 기관들과 분회들에서는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과 《김일성원수혁명력사연구실》 도록해설제강,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인민들속에서》 등을 자체의 실정과 준비정도에 맞게 집체학습과 개별학습, 연구발표모임, 토론회, 강연해설, 담화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혁명전통학습을 진행하였다.

총련의 모든 조직들에서는 《120일간혁신운동》기간에 특히 그이의 근 반세기에 걸치는 혁명력사가 아로새겨진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을 통달할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매주 3회씩 집체학습을 진행하는 동시에 매개인이 자체학습계획에 근거하여 개별학습을 강화하는 사업을 힘차게 벌리였다.

그리하여 이 기간에 4천개단위들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혁명력사학습이 그 어느때보다도 생활화되여갔다.

총련 오사까 이꾸노서지부 일군들은 종전보다 1시간 일찌기 사무실에 나와 매일 2시간이상씩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학습을 꼭꼭 진행하였으며

총련 교또부 니시장지부 시찌구분회일군들과 동포들은 매주 3회씩 집체학습을 하고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심오히 연구학습하였다.

총련 후꾸오까현 후꾸오까지부 나지마분회일군들은 《김일성원수혁명력사연구실》도록의 축쇄판을 가지고 동포들의 집에 찾아 다니면서 해설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총련이 정치사상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결과 모든 총련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더욱 깊이 체득하고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보위하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오직 수령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나아가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계승자로, 《주체조선》의 훌륭한 해외공민으로 교양육성되고있다.

그리하여 일군들과 동포들은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살며 일하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영명하신 수령님께서 령도하시는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견결히 옹호하는 애국적기백을 높이 발양하고있는것이다.

총련은 또한 60만 재일동포들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령도하고계시는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의 정신으로 교양하기 위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였다.

총련은 동포들속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에 수립된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과 조국의 눈부신 발전모습을 광범히 소개선전하여 동포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모시고 공화국공민으로 사는 높은 긍지와 민족적자부심을 가지게 하는한편 우리 인민이 이룩한 고귀한 사회주의전취물을 끝없이 사랑하고 그를 견결히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교양하였다.

총련은 우선 재일동포들의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말과 글을 옳바르게 쓰도록 하는데 각별한 힘을 돌리면서 이 사업을 청년학교와 성인학교를 통하여 더욱 힘있게 벌리였다.

총련은 또한 생동한 사실적자료들을 가지고 강연회, 해설담화사업을 진행하여 우리 나라의 번영하는 오늘의 현실과 과거,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와 미제강점하의 남조선의 참혹한 현실을 대비하여 교양함으로써 재일동포들로하여금 사회주의제도의 본질과 우월성을 똑똑히 인식하도록 하였다.

특히 도꾜에서 7개월동안에 걸쳐 열리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품전람회를 통하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된 우리 나라의 발전된 모습을 수많은 동포들에게 보여주었다.

또한 5월에 조국을 방문하였던 6명의 재일동포들의 보고회와 강연회 등을 통하여 공화국의 눈부시게 발전하고있는 웅장한 모습들을 직접 보고 느낀점들을 동포들에게 널리 선전하여 재일동포들이 공화국공민으로서의 한없는 긍지감과 행복감을 더욱 깊이 간직하도록 하였다.

총련은 일군들과 동포들속에 미, 일반동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의 침략적인 본성과 악랄성을 철저히 폭로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원수들을 철저히 증오하며 남조선인민들을 한시도 잊지않고 우리 세대에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도록 교양하였다.

그리하여 동포들속에서는 공화국의 공민된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이 높아지게 되였으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령도하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굳건히 지키려는 숭고한 애국적기백이 더욱 흘러 넘치게 되였다.

## 총련조직을 더욱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총련결성 열다섯돐에 즈음하여 보내신 축전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련은 모든 간부들과 재일동포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과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철석같이 결속시키며 의장동지를 중심으로 한 간부들과 동포들의 사상의지적인 통일단결을 강화하여야 할것입니다.》**

총련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이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수령님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일군들의 원칙적단결과 기층조직인 분회를 잘 꾸리여 총련조직을 더욱 공고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였다.

총련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낡은 사상과 그릇된 경향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일군들의 조직생활을 강화하여 그들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강화하기 위하여 힘썼다.

총련은 각급 기관들과 산하단체들을 수령님의 주체사상체계가 확고히 선 준비된 일군들로 더욱 튼튼히 꾸리고 일군들을 총련결정집행을 위한 실지사업을 통하여 부단히 단련시켰다.

그리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일군들의 사상의지의 통일단결이 더욱 확고한것으로 되였으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와 그리고 총련결정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움직이는 사업기풍이 분회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서게 되였다.

또한 총련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몸소 창조하신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을 총련사업에 훌륭히 구현함으로써 각계층 동포대중을 총련의 애국과업수행에로 조직동원하였으며 그이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세웠다.

총련은 우선 간부일군들속에서 형식주의, 관료주의 등 낡은 틀을 마스고 아래에 내려가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걸린 문제를 풀어주는 등 사업체계와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였으며 총련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총련은 이해에 1969년의 약 2배나 되는 130여개의 지부와 500여개의 분회조직들에 깊이 들어가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걸린문제를 풀어주는 등 실속있는 지도방조사업을 통하여 수많은 일군들과 동포들을 《120일간혁신운동》에 힘차게 불러일으켰으며 총련 도꾜와 히로시마조직에 대한 조직실습을 진행하여 수많은 긍정을 창조하고 그를 적극 일반화하였다.

그리하여 총련사업이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됨으로써 총련 각급조직들에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가 더 잘 침투되게 되였으며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정치사상적통일이 강화되였다.

총련은 기층조직인 분회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분회조직을 총련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움직이는 산조직으로 꾸리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총련은 분회조직을 더욱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분회일군들과 열성동포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과 조직생활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그들이 분회사업에 앞장서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분회일군들속에서는 수령님의 교시와 총련결정을 철저히 집행하는 기풍이 확고히 서게 되였으며 한가지 이상의 분공을 맡아 일상적으로

움직이게 되였다.

또한 총련은 내외반동들과의 첨예한 투쟁속에서 각계각층동포들을 교양하고 묶어세우는 사업을 꾸준히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하였으며 한사람이라도 더많은 동포들을 수령님의 두리에 묶어세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함으로써 총련조직의 대중적지반을 확대 공고화하였다.

총련일군들은 내외반동들의 민족분렬책동을 반대하고 공화국공민된 영예를 고수하기 위한 정치선전사업을 광범히 벌리였으며 관하동포들과 미조직동포들의 집을 한집도 빠짐없이 거듭 찾아가 반복교양하여 총련조직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웠다.

한편 재일동포들의 구성상 변화와 관련하여 젊은 계층 동포들과의 사업에 힘을 집중하여 20대, 30대의 분회위원대렬을 더욱 확대하였으며 동포상공인들과의 사업을 목적의식적으로 진행하여 총련조직들의 대중적지반을 한층 공고히 하였다.

총련은 이해 각 단일단체들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며 총련의 애국과업수행에로 적극 조직동원하였다.

총련은 《120일간혁신운동》기간에 전체 재일동포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무한히 충실한 애국자로 교양하는 대중적학교이며 총련의 애국사업수행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일동포들의 집단적혁신운동인 모범창조운동을 군중적토대우에서 더욱 심화발전시키였다.

총련의 모범창조운동은 3천 800개의 단위들에서 《총련의 모든 분회는 모범분회로, 모범분회는 2중모범분회로》라는 구호밑에 힘차게 벌어졌으며 그중 2천 353개의 단위들이 2중모범칭호와 모범칭호를 쟁취하였다. 그리하여 1967년에 비하여 총련의 2중모범분회는 실로 17.8배, 모범분회는 5.3배로, 조청모범반은 7.1배로, 녀맹모범분회는 6.3배로 급속히 늘어났다.

총련의 모범창조운동은 모범지부창조운동에로 더욱 심화발전되였다. 《120일간혁신운동》기간에만도 전체 지부의 28%가 모범지부창조운동에 궐기하였으며 총련 도꾜도 이따바시지부가 모범지부의 영예를 지니게 됨으로써 4개의 지부들이 모범지부의 영예를 지니게되였다.

이와 같이 모범창조운동이 더욱 줄기차게 전개됨으로써 총련조직들이 더욱 튼튼히 꾸려졌으며 총련의 제반애국사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어 나갔다.

모범창조운동을 통하여 전체 분회위원들을 총련결정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교양육성하였으며 일성자대렬을 끊임없이 확대 공고화하고 각계각층 동포들을 자기 조직에 망라하게 되였다.

이리하여 분회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높아지고 총련조직안에는 수령님의 유일사상체계가 어느때보다도 확고히 서게 되였으며 총련은 어떤 역경과 세찬 풍파속에서도 수령님의 교시를 어김없이 옹호관철해나갈수 있는 믿음직한 조직으로 튼튼히 다져졌다.

##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위하여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총련결성 열다섯돐에 즈음하여 총련에 보내신 축전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일반동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의 반동적공세가 날로 격화되고있는 조건에서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서 응당 지녀야 할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견결히 고수하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총련은 1970년에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사상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주권국가의 해외공민으로서 당당한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기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림으로써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거둔 가장 큰 성과의 하나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공화국국적법에 의하여 확고히 보장된 공화국공민권을 굳건히 지킨것이다.

총련은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과 총련조직에 대한 내외반동들의 탄압과 파괴책동이 그 어느때 보다 로골화되고 동포들에 대한 원쑤들의 괴뢰국적과 《영주권신청》강요책동이 더욱 악랄해진데 대처하여 영웅적조선인민의 영예와 공화국공민권을 고수하며 총련의 조직대렬을 더욱 튼튼히 꾸리기 위한 대중정치선전사업을 광범히 조직전개하였다.

총련중앙을 비롯하여 총련각급기관들과 단일단체, 사업체일군들은 동포들속에 깊이 들어가 연설회, 강연회, 좌담회, 개별담화 등을 통하여 내외반동들의 《영주권신청》과 《괴뢰국적》강요책동의 반동성을 낱낱이 폭로규탄하였다. 그리고 괴뢰국적을 조선국적으로 고칠것을 요구하는 오사까부조선인대회, 조선국적을 되찾은 재일동포들의 중앙대회들을 비롯하여 각지에서 각종 집회들을 열고 공화국공민권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을 전동포적인 규모에서 벌리였다.

또한 총련은 수차에 걸쳐 성명을 발표하여 치욕스러운 괴뢰국적과 《영주권신청》을 강요하는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행위를 견결히 규탄하였으며 괴뢰국적을 조선국적으로 고치는것을 전면적으로 인정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재일동포들은 각지에서 삐라살포, 가두선전 등에 매일과 같이 떨쳐나서 내외반동들의 범죄적인 책동을 반대배격하며 영예로운 조선국적을 되찾기 위하여 강력한 투쟁을 벌렸다.

그리하여 내외반동들이 발광적으로 벌린 《영주권신청》놀음을 파탄시켰으며 12월 26일까지에 일본각지의 36개도, 도, 부, 현의 136개시, 19개구, 37개정, 1개촌에서 1천 840세대에 망라된 4천 2명의 각계층동포들이 치욕스러운 괴뢰국적을 벗어던지고 영예로운 조선국적을 되찾았다.

아까다시에서 치욕스러운 괴뢰국적을 내던지고 영예로운 조선국적을 가진 한 동포는 《10년간싸운 보람이 있어 끝내 조선국적을 도로 찾게 되였습니다. 이제부터 공화국공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였다고 생각하니 세상에 다시 태여난것같이 기쁘고 새로운 투지와 용기가 솟아 오릅니다》라고 말하면서 경애하는 수령님께 충성다할 불같은 결의를 다지였다.

이것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사회주의조국의 공민된 영예와 지조를 끝까지 지키려는 재일동포들의 굳은 애국적표시였다.

총련은 또한 이해에 재일조선공민들의 력사적숙망인 사회주의조국에로의 귀국과 자유래왕을 실현하기 위한 대중적투쟁을 힘차게 벌리였다.

도꾜, 가나가와, 사이다마, 군마를 비롯한 일본각지의 각계층동포들은《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의 길을 당장 열어라》, 《조국에로의 자유래왕을 전면적으로, 정상적으로 보장하라》는 등의 구호를 내걸고 귀국사업을 3년동안이나 일방적으로 중단하고있으며 조국래왕의 자유를 계속 억제하고 있는 일본반동정부와 일본적십자사 당국에 몰려가 대중적인 항의요청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재일동포들의 귀국사업과 조국에로의 래왕의 자유를 파괴해버리려던 사또도당은 하는수없이 6명의 동포들의 조국방문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총련은 또한 동포상공인들에 대한

내외반동들의 박해, 탄압책동을 반대배격하고 그들의 권익과 기업권을 옹호하며 상공인들속에서 호상방조의 미풍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동포상공인들의 신용조합은 34개, 점포수는 113개에 달하며 11만 수천명의 조합원과 약 1천 160억원의 예금액을 가진 대중적금융기관으로 발전되였으며 동포들의 생활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있다.

총련은 이해에 내외반동들의 재일동포들에 대한 살상, 폭행, 부당체포, 간첩강요, 모략사건날조 등 인권침해와 총련조직파괴책동을 반대하여 강력히 투쟁함으로써 동포들의 인권과 총련조직을 튼튼히 지켰다.

일본사또도당은 민족적권익옹호를 위한 총련의 정의로운 활동을 극도로 억제하는 한편 있지도 않은 《사건》을 날조하여 총련기관들을 부당하게 습격수색하고 일군들을 제멋대로 잡아가두는 횡포를 끊임없이 감행하였으며 경찰놈들과 불량배들을 사촉하여 재일동포들과 학생들을 마구 탄압 학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매일같이 일삼아왔다.

일본사또도당이 저들의 폭압정탐기구들과 특무들을 내몰아 이미 총련중앙회관을 불태워버리고 총련지방본부들에 간첩을 침입시켜 정탐행위를 감행케하였으며 각종 사건들을 날조하여 일군들을 부당하게 체포구금하고 간첩행위를 강요하여 왔다는것은 널리 알려져있다. 교활한 일본반동들은 이해에 《로동신문》을 위조하여 거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비방중상하는 허위기사를 게재하고 조선신보사의 명의로 배포하는 등 총련을 와해하기 위한 파괴모략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반동들의 사촉을 받은 일본불량배놈들은 효고현 고베시에 사는 송동포청년을 아무 까닭없이 학살하였으며 재일조선인학교학생들에게 야수적인 집단적폭행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5월 16일~22일까지 일주일동안에만도 일본불량배놈들은 도꾜조선중고급학교학생들에게 여섯차례에 걸쳐 집단적폭행을 감행하였으며 4월 8일~5월 25일까지 재일조선학생들에 대한 무려 30여건의 야수적 탄압만행을 감행하였다.

도꾜경시청관하 고다이라 경찰놈들은 이른바 《국제승공련합》의 파쑈깡패무리들을 사촉하여 조선대학교에 아무런 리유없이 달려들어 란동을 부리게 한데 뒤이어 50여명의 경찰기동대를 끌고와서 경찰곤봉으로 마구폭행을 가하고 교원들을 체포해가는 파쑈적만행을 감행하였다.

사또반동도당은 류례드문 파쑈적악법인 《출입국관리법안》과 《학교교육법일부개정안》을 기어코 조작하여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을 《합법화》하려고 계속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날이 갈수록 악랄해지는 일본반동들의 탄압책동을 반대하여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은 일본법무성에 몰려가 항의투쟁을 벌리였으며 각종 집회와 가두선전 등을 통하여 일본사또도당의 범죄적책동을 폭로 규탄하였다.

총련은 또한 성명을 발표하여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탄압책동을 당장 그만 두고 제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보장할것을 일본반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총련이 이룩한 또 하나의 성과는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더욱 발전시키고 민족교육의 권리를 굳건히 옹호한것이다.

총련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하신 1968년 3월 14일 교시를 비롯하여 교육부문에 주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교육일군들속에서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며 학생들을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일군으로 더 잘 키우기 위하여 학교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였다.

특히 《120일간혁신운동》기간에 모든 학교들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교시와 로작학습, 혁명전통교양과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심화발전시키는 동시에 그를 모든 교수교양사업에 더욱 확고히 앞세우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들속에서 조직생활을 강화하며 그들을 다양한 사회적실천활동에 광범히 참가시키였다.

그리하여 학생들은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을 비롯한 그이의 근 반세기에 걸치는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학습하는것을 생활화하였으며 또한 《김일성원수혁명력사연구실》도록을 동포들에게 해설하는 교양선전사업 등 실천활동을 통하여 자체를 더욱 단련하여 나갔다.

이와 함께 총련은 각급 학교들에서 모범분단, 모범학급, 대중적인 모범창조운동을 더욱 줄기차게 벌리여 학생들을 경애하는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기 위해 힘을 기울였다.

또한 교육일군들속에서 《김일성원수혁명활동》력사과목교육방법연구모임, 국어교육방법연구모임 등을 비롯하여 교육일군강습, 통신학부등교수업 등 제반사업들을 조직하여 각급 학교들의 교육내용과 방법을 보다 개선하였으며 교육의 과학리론수준과 교원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더욱 높이였다.

그리하여 학생들에게 수령님의 주체사상,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을 더욱 깊이있게 체득시키게되였으며 학생들을 어버이 수령님께 충직한 일군으로 더 잘 교양육성할수 있게되였다.

총련은 또한 민족교육의 자주성을 고수하고 교육의 권리를 지키며 학교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동포들의 애국적열성을 적극 조직동원하였다.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은 온갖 회유, 협박 등 악랄한 방법으로 재일조선학생들이 조선인학교에 들어오는것을 방해하며 또 조선학교에서 학생들을 떼여내려는 내외반동들의 책동을 반대배격하고 학생들을 더 많이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였다.

또한 조선인학교에 불을 지르고 조선인학생들에 대한 집단폭행을 가하는 등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에 대한 내외반동들의 방해책동을 반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벌리여 민족교육의 권리를 굳건히 지키였다.

이해 나라조선초중급학교를 비롯한 8개학교의 설치인가와 2개현의 교육회가 법인인가를 획득하였다. 이로써 155개학교 가운데 144개학교, 27개현 가운데서 26개현의 교육회가 법적인가를 받았다.

뿐만아니라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앞두고 도꾜중고급학교를 비롯하여 가나가와조선중고급학교, 가와사끼조선초급학교 등 10개학교의 새교사를 방대한 예산으로 일떠세워 학교운영의 물질적지반을 더욱 튼튼히 닦아놓았다.

이리하여 재일동포자녀들은 이국땅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155개의 정규학교들에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장학금을 받으면서 마음껏 배우고있다.

총련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주체적이며 과학적인 언어사상을 높이 받들고 특히 학교 교육에서 우리 말과 글을 옳바로 쓰기 위한 운동을 힘차게 벌렸다. 고베조선중고급학교를 비롯한 수 많은 조선학교들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학생들이 우리 말과 글을 옳바르게 쓰도록하기 위하여 발음익히기, 읽기, 말하기, 글짓기 학습 등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국어교원강습회 등을 조직하였다.

우리 말과 글을 옳바르게 쓰기 위한 운동은 동포들이 사는 곳마다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있는 성인학교, 청년학교들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결과 재일동포들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혁명사상과 혁명력사를 깊이 학습하고 총련의 애국사업을 더 잘하기 위하여 우리 말과 글을 열심히 배우고 쓰는 기풍이 더욱 확립되게 되였다.

## 조국의 자주적통일촉진을 위하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해 총련에 보내신 새해 축전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련은 자기가 벌리고있는 모든 활동을 언제나 조국의 륭성, 민족의 번영과 밀접히 결부시켜 일본에서의 민족적단합을 강화하고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과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함으로써 민족지상의 위업인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에 자기의 힘을 최대한으로 합쳐야 하겠습니다.》**

총련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1970년에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더욱더 힘차게 벌리였다.

총련은 무엇보다도 일군들과 동포들이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전략전술적방침을 깊이있게 학습하여 그것을 자신의 피와 살로 만들도록 하는 동시에 《민단》산하 동포들과 남조선인민들에게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혁명투쟁력사, 그이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널리 선전하는 한편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유일하게 정당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광범히 소개선전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갔다.

또한 조국통일을 한사코 가로막고 있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침략적이며 매국배족적인 범죄적책동을 낱낱히 발가놓았다.

총련의 적극적인 정치선전에 의하여 《민단》산하 수많은 동포들이 《김일성원수님은 참으로 위대한 민족의 령도자이시다. 우리 조국은 김일성원수님의 령도에 의해서만 통일된다는것을 깊이 알게되였다》고 하면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러보며 그이를 무한히 존경하고 흠모하고있다.

총련은 재일동포들의 애국력량을 조국 통일의 기치밑에 하나로 굳게 묶어세우기 위하여 《민단》산하 동포들과의 민족단합사업을 더욱 강화하였다.

총련은 《영주권신청》과 귀화국적을 악랄하게 강요하며 파쑈적《출입국관리법》을 조작해내려는 내외반동들의 책동을 폭로규탄하는 사업을 통하여 민족단합사업을 적극 벌리였다. 또한 3.1인민봉기 51돐기념행사와 8.15조국해방 25돐기념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할것을 《민단》측에 제의하는 등 각종 정치선전사업을 통하여 민족단합사업을 강화하였다.

총련은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발광적으로 미쳐 날뛰는 미제와 그의 더러운 개 박정희괴뢰도당을 타도하며 특히 남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반미구국투쟁에 일군들과 동포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하였다.

총련은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조응하여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규탄하며 남조선으로 부터 미제침략군의 즉시 철거를 요구하는 각종 집회들과 가두선전들을 가지였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이 서울에서 벌린 《제4차한일정기각료회의》를 규탄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 재침책동을 낱낱히 폭로규탄하였다.

이와 함께 총련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조국통일을 절절히 념원하는 남조선인민들을 기만할 목적으로 떠들어댄 이른바 《평화통일구상》의 반동적본질을 낱낱히 폭로하며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미제의 침략도구《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해체를 요구하여 강력히 투쟁하였다.

총련은 1967년~1970년까지 조국통일을 위한 대중정치선전과 민족단합사업에 무려 연 240만명의 동포들을 조직동원하였으며 2천 600만부에 달하는 각종 선전물을 배포함으로써 미제와 그주구들의 전쟁책동을 규탄하며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의 즉시 철거를 요구하는 내외여론을 크게 환기시켰다.

총련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높이 받들고 남조선에서 반미구국투쟁을 힘차게 벌려온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에 대한 미제와 박정희악당의 파쑈적인 탄압만행을 그때마다 준렬히 규탄하였으며 삶과 민주주의적권리를 위한 로동자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여 대중적공동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에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는 운동을 광범히 벌리였다.

이와 함께 남조선으로부터 일본에 오는 동포들을 동포애적심정으로 따뜻이 맞이하였으며 그들에게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 그리고 그이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방침을 널리 해설선전하였다.

그 결과 일본에 왔다가는 수많은 동포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세상에 다시 없는 영웅》,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러 받들며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으로 휩싸이게 되였다.

이와 같이 총련은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광범한 동포대중 특히 《민단》산하 동포들을 더욱 굳게 결속하고 그들속에서 반미구국투쟁을 확대강화하였으며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 추동함으로써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 문학예술, 체육 및 출판보도사업

재일동포들은 이국땅에서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육친적배려밑에 군중문화사업을 활발히 발전시키고 있으며 우리의 민족문화예술을 눈부시게 꽃피우고있다.

총련은 이해에 어버이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혁명적문예사상을 높이 받들고 문학예술활동을 힘있게 전개하여 민족문화예술을 더한층 발전시켰으며 재일동포들의 애국사업을 크게 고무추동하였다.

작가 예술인들은 주체가 서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예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였으며 집단주의정신을 발휘하여 집체창작에 많은 힘을 돌림으로써 시, 소설, 등 문학작품들과 미술작품, 노래, 무용 등 우수한 예술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업적과 높은 덕성을 읊은 시《수령께 드리는 노래》, 노래이야기《상품전람회 구경》을 비롯하여 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와 충성심을 담은 집체시《은혜로운 해살아래》, 노래《영원토록 충성하리라》, 장편천연색기록영화《조국의 해빛아래》등 우수한 문학예술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되였다.

재일동포들속에서 문학예술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재일조선중앙예술단, 연극단, 가무단들이 논 역할은 매우 크다.

총련은 조선중앙예술단, 조선연극단, 각지방 11개의 가무단을 비롯하여

각계각층 동포들속에 꾸려져있는 수천개의 예술소조들의 무대활동을 폭넓게 벌려 무대예술의 역할을 더한층 높이였다.

중앙예술단은 특히 총련결성일다섯돐을 기념하여 재일동포들과 일본인민들속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눈부시게 발전하는 사회주의조국의 모습과 재일동포들의 조국통일념원을 형상화한 《빛나는 사회주의조국》과 《수령님의 품속에서》를 가지고 순회공연을 진행하였다.

각지방에 있는 11개의 가무단과 재일조선연극단의 공연활동도 활발하였다.

예술단들은 공연들을 통하여 재일동포들을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으로 교양하고 그들을 총련애국과업수행에로 불러일으켰으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주체적인 문예사상의 정당성과 그 생활력을 내외에 크게 과시하였다.

총련은 또한 예술경연과 축전을 다채롭게 조직하여 민족예술을 대중적바탕에서 더욱 발전시켰다.

총련은 이해에 공화국창건 스물두돐기념중앙예술축전과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축하하는 총련도괴도예술소조원들의 모임, 11개조선가무단들의 경연모임을 성대히 진행하였다.

일본각지의 22개 총련현본부들과 3개단체들 그리고 각급조선학교들의 남녀예술소조원들과 학생들 2천여명의 참가하에 진행된 예술축전에서는 노래, 시랑송, 연극 등 15개종목에 걸쳐 192개의 예술작품들을 무대에 올려 일상적으로 닦아온 예술적기량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영화부문에서는 장편천연색기록영화 《조국의 해빛아래》를 비롯한 성과작들이 나와 재일동포들의 교양사업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한 《피바다》, 《유격대오형제》 등 많은 조국영화들을 상영하여 동포들을 크게 교양하였다.

총련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1969년 11월 4일 전국체육인대회에서 하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체육을 대중화하며 체육기술을 부단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체육인들속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주체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게 되였으며 체육인 대렬이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다지졌다.

또한 체육소조활동과 각종 체육경기대회들을 통하여 군중체육이 활발히 전개되였다.

총련은 이해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탄생 쉰여덟돐을 축하하는 재일본조선인 축구선수권대회를 비롯하여 총련결성일다섯돐기념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우승컵타기, 재일본조선인탁구선수권 제5차대회와 재일본조선인 신용조합협회산하 일군들의 체육대회, 그리고 공화국창건스물두돐기념 재일본조선인 중앙체육대회를 조직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체육부문에 주신 교시를 받들고 일상적으로 련마해온 체육기술을 남김없이 시위하였으며 군중체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키었다.

과학연구사업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과학연구사업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 민족허무주의가 극복됨으로써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축하하는 학술보고회에서 발표된 140편의 연구론문을 비롯하여 총련결성일다섯돐을 기념하는 학술토론회, 도까이지방, 긴끼지방학술강연회들에서는 주체가 서고 과학적수준이 높은 많은 연구론문들이 발표되였다.

또한 재일본조선학생 제15차학과별연구토론회에서도 재일본조선학생들이 학술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보여주는 연구론문 110여편이 발표되였다.

총련의 출판보도사업에서도 큰 전진이 있었다. 출판보도내용의 정치사상성이 보다 높아졌으며 《조선신보》, 《조선청년》, 《조선녀성》, 《조선상공인신문》, 《시대》, 《조선주보》 등을 비롯한 우리 말로 발간되는 신문잡지들과 외국어로된 《조선시보》, 《피플스코레아》 등 34종의 출판물의 독자수가 더욱 늘어났다.

## 대외사업

총련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에 의거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대외정책을 높이 받들고 대외활동을 줄기차게 벌림으로써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총련에 보내신 새해축전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련은 일본인민들을 비롯한 전세계 선량한 인민들과의 국제주의적련대성을 더욱 강화하고 그들의 더 많은 지지와 동정을 얻기 위한 대외활동을 힘있게 벌려야 할것입니다.》

총련은 무엇보다도먼저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원수님의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을 일본인민을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 인민들에게 널리 소개선전하며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총련에서 출판한 수령님의 전기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은 이미 일본어 및 영어로 번역되여 《김일성전》으로 출판보급된데 뒤이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쉰여덟돐에 즈음하여 프랑스어판으로 출판되였다. 이리하여 영광찬란한 수령님의 전기 《김일성전》은 일본인민을 비롯한 세계 5대륙의 140개나라 인민들속에서 《귀중한 교과서》로 《투쟁의 랑식》으로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널리 읽혀지고있다.

이해에 또한 수령님의 천재적로작을 담은 《김일성저작집》과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의 일본어판이 출판되여 광범한 일본인민들속에 널리 보급되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일본말로 번역하여 단행본으로 출판하여 일본인민들속에서 그이의 혁명사상의 위대성과 탁월한 혁명리론, 천재적인 전략전술을 더욱 깊이 리해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그들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였다.

5월부터 11월말까지의 사이에 총련이 조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품전람회를 각계층 재일동포들과 일본인민들 그리고 일본에 와있는 55개나라의 인사들이 관람하였다. 이것은 총련의 대외활동에서 이룩된 귀중한 성과의 하나였다.

공화국상품전람회를 통하여 일본인민을 비롯한 세계 각국 인사들에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날로 륭성발전하고있는 천리마조선의 벅찬 모습을 실물을 통하여 보여줌으로써 공화국의 대외적위신을 더욱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한 총련은 재일조선공민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과 자기의 영광스러운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로의 귀국문제를 비롯한 제반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대외선전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일본인민을 비롯한 세계인민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있다.

총련은 일본의 정계, 사회계, 언론계와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진행하였다.

이해에 가진 일본각지에서 총련조직대표들과 일본의 민주주의적인 60여개 정당, 사회단체들의 대표들 및 대학교수, 문화인, 기업가들과의 친선모임들

에서는 서로의 친선관계를 더욱 두터이 하였다.

일본의 각계 인사들은 민주주의적민족권리옹호를 위한 재일조선공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면서 일본반동당국의 부당한 처사를 견결히 반대하였다.

일본 각지의 90여개 시, 시장들로 무어진 《전국혁신시장회》는 림시총회를 열고 괴뢰국적을 조선국적으로 고침데 대한 재일조선공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 나섰다.

총련은 또한 사회적진보와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과 전세계 반제반미력량과의 국제적련대성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대한 더욱 광범한 국제적지지를 얻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총련의 국제적위신이 비상히 높아졌으며 대외적지위도 확고부동한 것으로 되였다.

특히 총련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철저히 폭로규탄하는 동시에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과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대한 일본인민들과 세계 여러 나라인민들의 지지성원이 더욱 강화되도록 함으로써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대한 국제적지지를 광범히 불러일으키는데 기여하였다.

총련은 일본군국주의의 재생과 그의 해외침략을 반대하며 나라의 완전한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한 일본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계속 지지하였으며 미제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그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이 총련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원칙적이며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높이 받들고 대외활동을 적극 강화하여 공화국의 국제적위신을 높이였으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대한 국제적지원을 받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는 우리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인 보살핌속에서 1955년 5월 25일에 결성되였다.

총련은 전체 재일조선공민들의 의사와 리익을 대표하고 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며 그들을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수반으로하는 공화국정부주위에 결속시키는 유일한 민주주의적조직체이며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해외공민단체이다.

총련은 48개의 지방현본부들과 300여개의 지부 및 2천여개의 분회를 가지고 있으며 그 산하에는 조청, 녀맹을 비롯한 14개의 계층별 단일단체들과 과학, 문화, 예술, 출판보도 등 12개의 사업기관들이 있다.

중앙상임위원회 의장 한덕수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재일본조선인중앙교육회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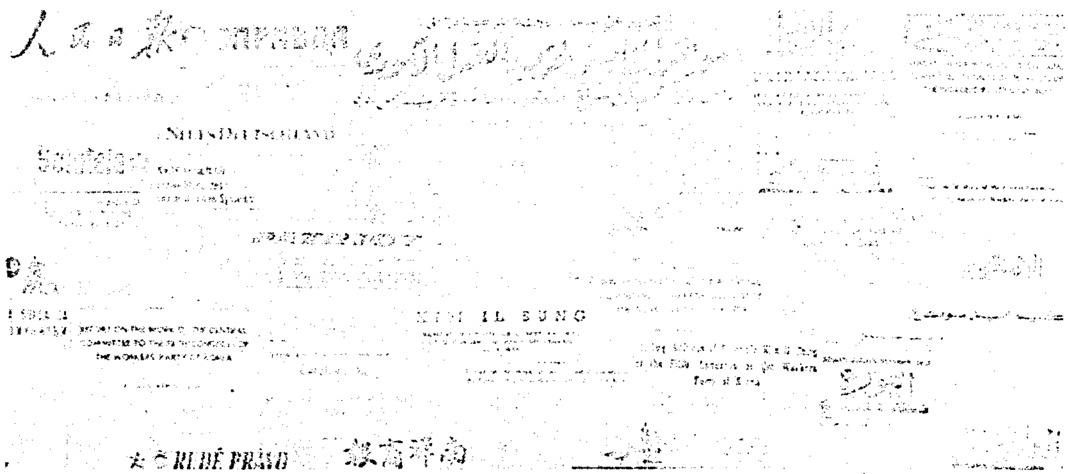
재일본조선인과학자협회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재일본조선언론출판인협회
재일본조선인신용조합협회
재일본조선인상공련합회

재일본조선인체육련합회
재일본조선인통신교육협회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

재일본조선인통일동지회
재일본조선인불교도련맹

조선신보사
조선통신사
구월서방
학우서방
조선문제연구소
조선화보사
시대사
조선중앙예술단
조선연극단
조선총련중앙학원
동해상사주식회사
조선청년사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와 대회에서 하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보고는 세계 여러나라들에서 거대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사진은 반향을 실은 각국 신문들

# 국제서술

#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 드리는

# 헌 시

피. 엘. 라칸팔

모든 압제자의 운명을 끝장내려 탄생하신 세계의 가장 위대한 수령에 의하여 창건된 그대,
그처럼 유구하고 위대한 문명의 재부우에 자라난 그대,
영용한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전통에서 솟아오른 그대,
그처럼 장구하고 간고한 싸움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 단련된 그대,
조선로동당, 그대는 온 세상 혁명가들의 사랑과 찬사를 받고있어라
찬란한 그대 업적과 조국해방전쟁에서 미국을 타승한 승리로 하여

이제 전투마당에서 뿐이랴
세계 사회주의사상령역에서
그대는 수많은 로선을 해결하였더라
반동과 교조를 대담하게 짓부시고
제 머리와 제 힘으로 사는 주체사상만이 창조할수 있는
기적을 온 세상에 떨치며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현명한 령도밑에
그대는 조선을 새로운 열정과 속도로 비약케 하였더라
남을 위하여 바치는 생애 만이
영광과 보람으로 가득찬 생애임을 가슴깊이 새기고
스무해의 세월이 흐르기도전에 그대는 조선을
세계일등급의 사회주의지상천당으로 일떠세웠어라

이 천당에선 사람마다 활개치고 마음은 자유롭고
인민들의 기쁨과 환락 속에 예술과 문화는 꽃피고있다.
이 천당에선 농민들이 유쾌히 재망을 가꾸고
행복한 로동자들 영예의 로동을 즐기고있다.
이 천당에선 인민들은 마음껏 자유로이 배우고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하고 새로운 사상을!

허나 북반부인민들이 부강과 영광의 고지를 주름잡아달릴 때
북반부를 침략하고 청소한 사회주의강국을 없애려고
남조선을 핵기지로 만든 미제의 야수적인 탄압밑에서
남녘인민들은 아픔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있거니
로동당! 그대는 남조선인민들에게
통일을 이룩하며 미제를 짓부시는 등대로 되고있어라

이제 남조선형제들에게뿐이랴
악을 반대하는 온 세상 투사들에게
로동당! 그대는 깊고깊은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고
전적인 지지와 힘을 안겨주고있어라
그대의 전투적로선은 세계제국주의를 전률게 하고
정해진 놈들의 멸망 더욱더 앞당기고있다.

사회주의진영도 조선로동당 그대를 우러러본다.
그 누구도 높고낮음이 없으며
모두다 충돌과 의견상이를 피해야 한다고
제국주의자들이 엮어놓은 심사술을
일치한 행동으로 짓부셔야 한다고
올바른 로선을 내놓았기에

겨우 스물다섯살밖에 안되는 젊은나이
허나 조선로동당! 그대는 로련한 당
그대는 민족에게 행복과 영예를 듬뿍 안기주고
세계의 가장 위대한 영재의 령도를 누리거니
온 세상은 5차대회가 열리는 평양을 우러러
눈길을 돌린다. 귀를 기울인다.

세계혁명은 옷깃 여미고 기다리노라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연설에서
만민에겐 새 생명과 희망을 안겨주고
자본주의질서를 마스고 제국주의 썩은 운명 결딴내며
온 세상 가난과 고통과 어둠을 쓸어버리는
새 힘을 안겨주는 예지의 진주가 쏟아지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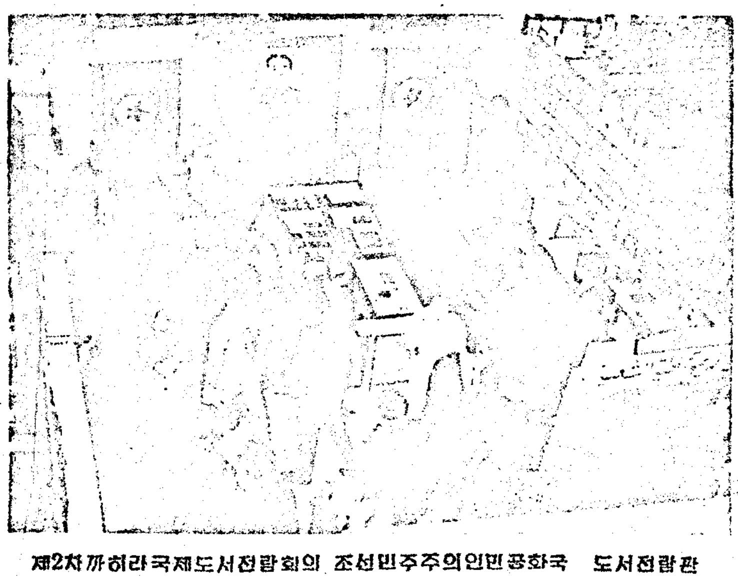
축복을 받았어라, 우리 시대는
영광스러워라, 우리 시대는
나어린 그대를 청춘의 전성기로 이끄신 창건자이며 수령,
캄캄한 어둠을 가시고 만민에게 기쁨을 주신분
세상에서 가장 휘황하고 가장 붉은 태양이신
김일성동지를 모시고있기에

김일성동지의 당은 지혜이며 정력이며 힘
아! 로동당은 나에게 더없이 귀중하여라
그대는 슬픔으로 찢긴 세상에겐 해돋이여라
인류의 희망이며, 빛나는 미래의 약속이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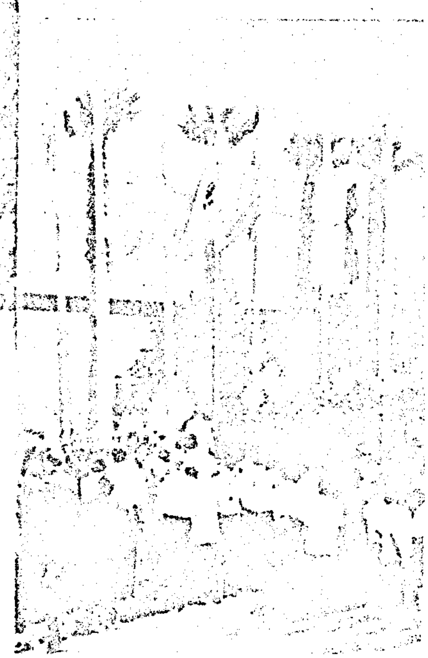
1970년 10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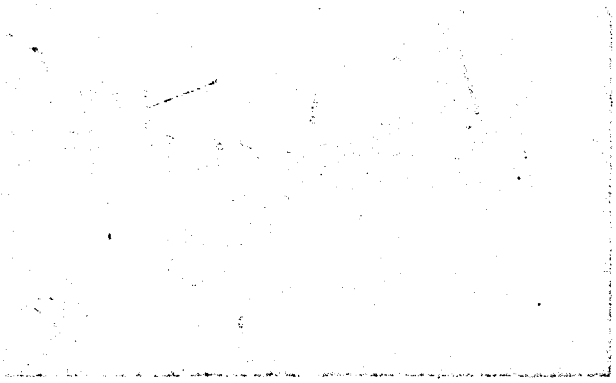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있은 아랍도서전람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관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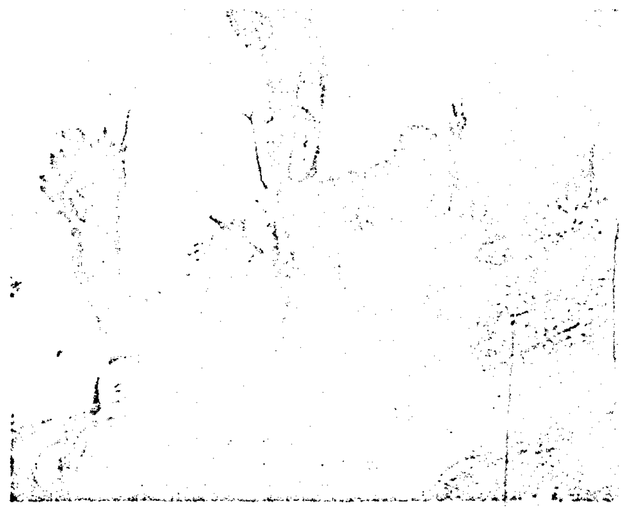


제2차까히라국제도서전람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전람관을 돌아보는 외국손님들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전람관의 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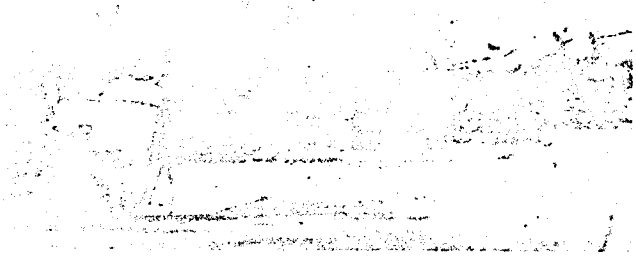
전투훈련을 강화하고있는 월남인민군 전투원



미제침략자들에게 섬멸타격을 안기고있는 남부월남인민해방

라오스인민해방군의 공격에 의하여 불타버린 미제침략
병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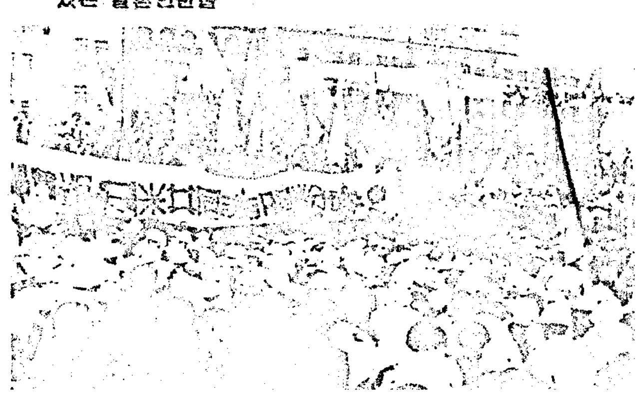


캄보자민족해방군에 의하여 녹아난 론놀도당의 프놈 펜
현장

매일 생산성과를 올리고있는 중국 근로자들



침략적인 《일미안보조약》을 규탄하여 군중집회를 가지고있는 일본인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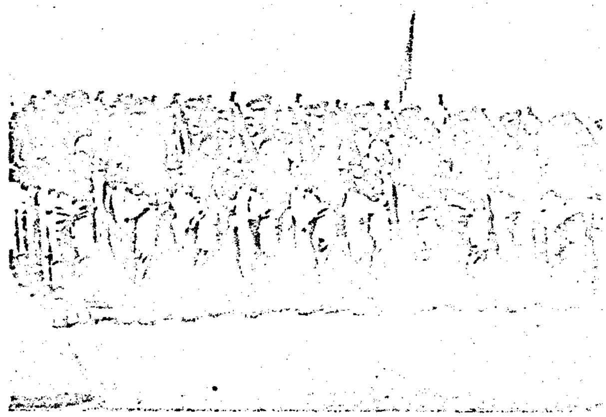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하여 이스라엘침략자들과 싸우고있는 팔레스티나유격대





나라의 해안선을 굳건히 지키고있는 아련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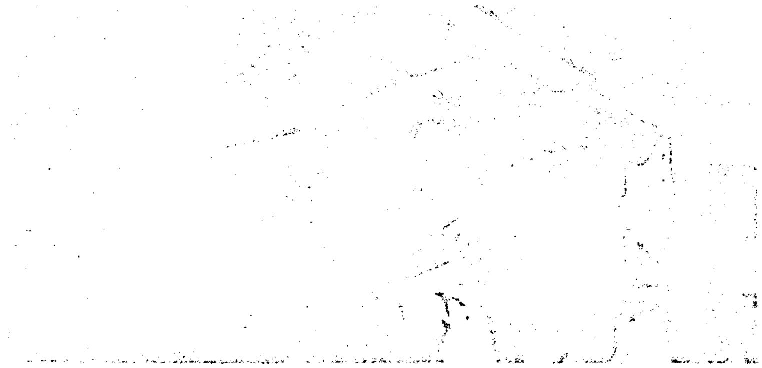
전투훈련을 강화하고있는 알제리민족인민군보병

16년간 휠러스공군기지에 둥지를 틀고있던 미제침략군을 내쫓고 자기 나라 기발을 올리고있는 리비아인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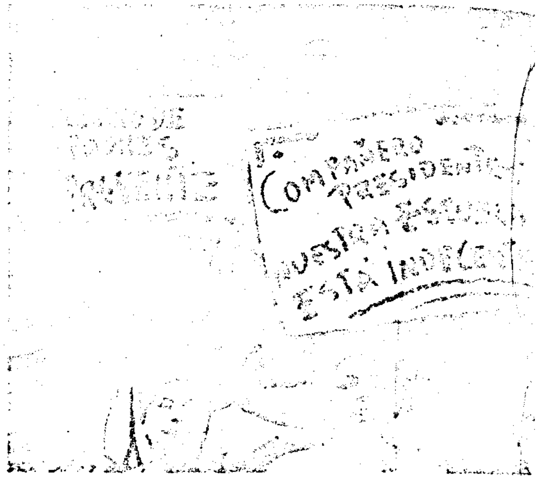


미제의 조종밑에 무장반란을 일으킨 반동들을 분쇄한 정부조치를 지지하는 수단인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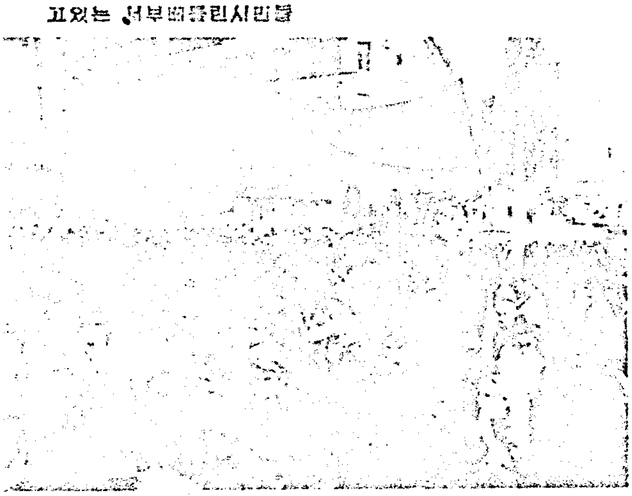


어떠한 원수도 단매에 쳐부실 기세로 포사격훈련에 열중하고 있는 꾸바혁명군 포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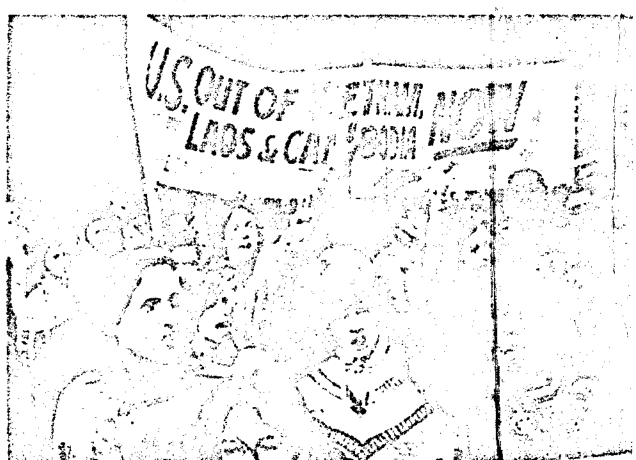


알엔데정부의 교육강령을 지지하는 칠레청년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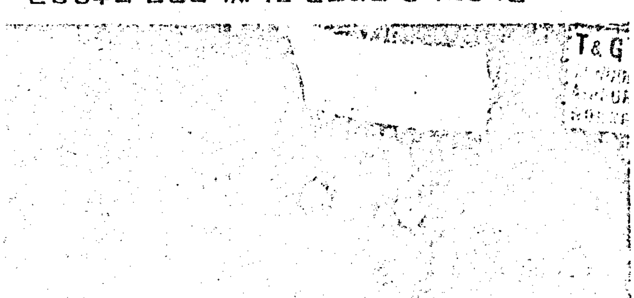
윁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여 시위를 벌리고있는 서부베를린시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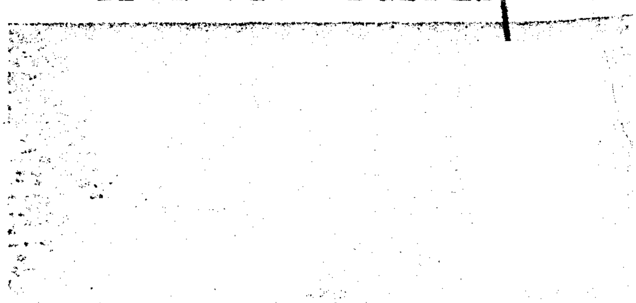
닉슨도당의 인도지나침략전쟁을 반대하여 시위를 벌리고있는 뉴욕시민들




반동정부의 반인민적시책을 반대하는 영국로동자들



닉슨도당의 인종차별을 반대하여 일떠선 미국흑인들에 의하여 불바다로 된 놈들의 소굴



# 김일성동지는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반제반미투쟁의 위대한 전략가이시다

## 김일성수상님은 조선의 태양, 20세기의 영웅, 혁명의 가장 위대한 수령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한때 세계지도우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를 오늘 세상사람들로부터 《주체의 조국》, 《천리마 조선》, 《사회주의 모범의 나라》로 불리우는 당당한 사회주의강국으로 동방일각에 거연히 솟아 오르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지난날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던 처지에서 영원히 벗어나 세계의 대소민족들과 나란히 국제무대에 진출하는 힘있고 존엄있는 민족으로 반제반미투쟁과 세계혁명의 선봉대로 그 영웅적기상을 떨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과 건설의 경험,국제공산주의운동의 경험을 일반화하시여 오늘의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제반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답을 주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를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발전시키고 그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시였다.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시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키시여 인류앞에 광활한 전망을 펼쳐주신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진보적인류의 위업에 기여한 리론실천적공헌으로하여 전세계혁명적인민들로부터 절대적신뢰와 두터운 존경을 받고계신다. 오늘 세계의 수많은 혁명적인민들과 공산주의자들은 김일성동지를 《조선의 태양》,《우리시대 20세기의 위대한 수령》,《승리와 진보,번영에로의 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태양》, 《인류력사에 찬란한 빛을 뿌리는 위대한 수령의 한분》으로 우러러 흠모하고있으며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리론을 《인류사상발전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사상리론》, 《현시대의 백과사전》으로 높이 평가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두돐을 기념하는 모리따니의 수도 누아크쇼트시 청년들의 친선모임참가자일동으로부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보내여온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가 수상동지를 그처럼 흠모하고있으며 조선인민에 대하여 경탄하고있는것은 바로 수상동지께서 4천만 조선인민뿐만아니라 세계 모든 인민들에게 있어서 불굴의 희생성과 용감성 그리고 헌신성의 가장 훌륭한 모범으로 되시기때문입니다.

…실로 수상동지께서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의와 흠모를 받고계시는 향도자이시며 귀감이시며 령도자이십니다.》

전인도민주당 위원장이며 신문 《이브닝뉴》주필인 피. 엘 라칸팔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혁명활동업적을 찬양하는 긴 글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존력사를 통해 가장 위대한 사회주의의 리론실천가이시며 세계혁명의 가장 탁월한 령도자이시다.

그이는 실로 친근하고 고상하며 령감을 불어넣어주는 인격자이시다. 세계력사에서 미래에 대한 인간의 사상에 김일성동지보다 더 큰 신심을 안겨준 분은 일찌기 없었다. 그렇게 짧은 기간에 그이처럼 거대한 성과를 달성한 사람은 일찌기 없었다.

그이께서는 가장 세련되고 고상한 덕성을 지니셨으며 가장 출중하고 능력있는 정치가, 가장 탁월한 혁명가, 군사지휘관, 그리고 가장 천재적인 사상가를 대표하신다. 력사는 이제껏 그이보다 더 위대하고 집대성된 인물을 낳지 못하였다.

그이는 비단 20세기의 영웅이실뿐만아니라 만고의 영웅이시다.》라고 높이 칭송하였으며 《김일성동지》라는 서사시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투쟁업적에 대하여 높이 찬양하면서 그이에 대한 흠모의 정을 담아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김일성! 그이는 가장 위대하고
　붉은 태양
모든 사람들에게 새힘과 생명을
　주시여라
제국주의와 반동을 밑뿌리채 뒤집어엎고
자유와 사회주의를 영원히 꽃피게
　하며
지구상에서 착취와 불행을 말끔히
　쓸어내고
만사람의 가정을 희열과 행복으로
　가득채우리

이것은 비단 라칸팔 혼자만의 심정을 노래부른것이 아니라 전세계혁명적인민들이 소리높이 부르는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송가이기도 하다.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보내온 체스코슬로벤스코에서 공부하고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3대륙학생들의 편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인민은 김일성원수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음으로하여 가장 혁명적인 당과 인민정권, 일당백의 혁명군대를 가진 불패의 인민으로,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강력한 경제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인민으로 되였으며 자기 력사에서 처음으로 혁명의 승리적인 전진의 시대, 민족적번영의 시대에 살게 되였습니다.》

《김일성수상로작연구위원회》 위원장인 파키스탄조선청년친선협회 위원장

무사히도 후배의 싸이드는 《김일성수상님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실뿐만아니라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의 존경받는 수령이시다.

김일성수상님은 승리와 진보, 번영에로의 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태양이시다.

김일성수상님은 세계혁명운동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투쟁에 거대한 기여를 하시였다.

김일성수상님은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진리를 계승하고 고수하시였으며 제국주의가 종국적으로 붕괴되고 사회주의가 영광스러운 승리를 련이어 이룩하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그를 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수상님께서는 맑스-레닌주의를 조선혁명의 구체적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시였고 맑스-레닌주의 보물고에 독창적인 기여를 하시였으며 지금까지 미해결문제로 남아있던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일련의 중요한 문제들을 명백히 해결하심으로써 그리고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에 관한 정확한 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세계력사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높은 자리에서 영원히 존경을 받으실 탁월한 분으로 되시였다.》라고 말하였다.

오스트랄리아신문기자 안드류 휴즈는 《김일성수상은 새로운 시대가 낳은 영웅이시다.

그이는 밝아오는 새 시대의 혁명적전개력을 지니신 가장 위대한 지도자이시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구라파의 영웅들속에서도 김일성수상은 제일 걸출한 영웅으로서 빛을 뿌리고있다.》고 하였으며 레바논기자동맹 서기장이며 신문 《알 무하리르》 주필 히샴아부 다르흐는 《조선의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수상—그이는 압박받는 지구상의 모든 인민들 즉 그이의 원칙적인 투쟁정신과 그이의 빛나는 경험에서 승리와 진보의 길을 찾고있는 모든 인민들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다.》라고 칭송하였다.

일조협회 리사장 하다나까마사하루는 《김일성수상의 이름은 조선민족의 자랑일뿐만아니라 아세아의 자랑이며 억압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세계인민들의 희망의 상징이다.》라고 하였다.

도꾜에 있는 아랍련맹사무소 부소장 아부 엘 마리 라흐만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무한한 흠모와 존경의 정을 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계에는 지도자들도 많이 있지만 언제나 인민들속에서 생활하고 인민들속에 계시는 김일성수상과 같은 지도자를 나는 알지 못한다.

김일성수상은 참으로 세계인민들이 우러러보는 유일하고도 탁월한 지도자이시다.》

일본주재 아랍대사관 1등서기관 유세프 엘 나메크는 《김일성수상은 우리 세기의 걸출한 령도자의 한분이시다. 그이의 혁명활동과 혁명리론은 세계인민들에게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있으며 그이의 사상은 세계 모든 인민들의 마음속깊이 살아있다.

김일성원수의 혁명사상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세계인민들의 투쟁의 지침으로 되고있으며 그들을 투쟁에로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모리셔스의 신문 《자 모리셔스 브릿지》 주필 훅센지 예두는 《김일성원수께서는 동양에서 솟아오른 새로운 아침해이시며 그 혁명의 황금빛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아들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포부를 가져다 주고있다.》

수리아신문 《알 사우라》는 《실로 김일성수상은 혁명의 세찬 조류가 홍수처럼 밀려드는 폭풍우의 시대, 투쟁의 시대에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간의 치렬한 계급투쟁속에서 온갖 낡은것을 짓부시고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에로의 휘황한 길을 밝혀주는 태양이시며 암운과 비운이 드리운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서광을 안겨주며 용기와 신심을 북돋아주는 등대이시다.

그 붉은 태양은 조선반도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곳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라고 하였다.

아르헨띠나사회활동가이며 변호사이며 법 및 사회학박사인 아벨라르도 헤츄루아린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오래전부터 외래제국주의침략과 봉건적질곡밑에서 살아왔으며 그것도 이 나라를 재더미로 만든 세상에서 일찌기 있어보지못한 가혹처절한 전쟁을 겪은 조선인민이 이와 같이 발전된 사회주의 공업 및 농업 그리고 찬란한 민족문화와 아름다운 도시와 농촌을 가지고있으리라고 과연 그 누가 상상인들 할수 있었겠는가? 과연 그 누가 락후한 농민의 나라가 오늘과 같이 현대적이며 웅장한 공장들을 일떠세우고 마음만 먹으면 그 무엇이나 다 만들어내며 풍족히 먹고 입고 쓰고 사는 오늘의 조선을 생각할수 있었겠는가? 실로 놀라운 기적이다.

아직도 세계의 인류력사는 조선에서 일어난것과 같은 위대한 전변과 변혁을 알지 못하고있다. 천리마조선에서 일어난 이 모든것은 오직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와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조선인민의 강철같은 의지의 총체인것이다. 바로 이것이 조선에서 기적을 낳은 기본열쇠라고 생각한다.》

콩고(킨)혁명기자동맹 위원장 므바라지 까지미르는 《김일성동지는 조선인민의 수령이실뿐만아니라 우리 시대 20세기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민족적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전세계 모든 인민들의 수령이시며 태양이시다》라고 하면서 흠모의 정을 금치 못하였다.

뽀르뚜갈령기네및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 성원인 제까마르띤스는 《김일성동지는 조선인민의 수령이실뿐만아니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수령이시다.》라고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쎄일론신문 《스릴라거》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하고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수상은 현세계의 천재적인 맑스-레닌주의 수령이시다.

제국주의자들의 억압을 받고있는 모든 나라 인민들은 조선의 북반부에 찬란한 사회주의시대를 열어놓으셨으며 반제투쟁을 령도하고계시는 그이를 커다란 흠모의 정으로 우러러보고있다.》고 하였으며 인도신문 《나왈자마나》는 《준엄한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적영웅으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탁월한 수령으로 되시였다.》라고 강조하였다.

꾸바에 와있는 볼리비아인련맹 위원장 아루안떼나는 그이의 탄생 쉰여덟돐에 즈음하여 발표한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께서는 우리 볼리비아 인민들속에서 매우 높은 존경을 받고계신다. 볼리비아인민은 그이를 현시대가 낳은 혁명의 천재적 수령으로 찬양하고있다. 오늘 김일성원수께서 령도하시는 조선의 혁명투쟁경험은 세계인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있다.》

팔레스티나해방조직대표단 단원 샤피크엘 호우트는 《만약 력사가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진정으로 변화시킨 사람을 센다면 김일성수상은 세계에서 이러한 영웅적령도자의 맨 첫자리에 계실것이다.》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은 권위와 위신을 높이 찬양하였다.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수단정부기관지 《알 아흐라르》 신문편집원 하티마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수상각하의 현명한 령도는 세계인민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칭송하여 마지않는 전설로 될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그로부터 배울것이며 자기의 앞길을 찾을것이다.》

인도신문 《순하리바리뜨》는 론설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김일성동지께서 나라의 독립과 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쌓아올리신 업적은 세계력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져있다.》

인도신문 《싸크쉬》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을 찬양하는 사설에서 《4천만 조선인민은 물론 전세계반제적인민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존경하며 흠모하여마지 않는다.…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을 고무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네팔신문《빠사빠트리카》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달성한 빛나는 성과를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오늘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수상님을 조선의 태양, 20세기의 영웅, 현시대의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세계인민의 수령의 한분으로 무한히 존경하고 흠모하고있다.》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으로 모시는 동시에 김일성동지와 같은 위대한 분을 자기의 수령으로 모시고 그이의 두리에 철통같이 통일단결되여있는 조선인민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한결같이 말하면서 조선인민을 무한히 부러워하고있다.

전인도조선친선협회 서부벵갈주지부가 발행하는 팜플레트는 《과학적인 혁명리론을 소유하시고 풍부히 경험을 쌓으셨으며 탁월한 령도력과 높은 덕성을 겸비하셨으며 장기간에 걸쳐 혁명의 폭풍우를 헤치시면서 조선인민을 영광스러운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따라배우며 그이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그이의 충직한 전사로서 살며 싸우는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더없는 행복이며 영광이다.》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탄생 쉰여덟돐경축연회에 참가한 이라크의 북부개발상은 《김일성수상은 세계에서 보기드문 수령이십니다. 세계력사의 흐름을 볼때 위대한 사변은 위대한 수령을 낳습니다. 바로 오늘의 국제사변은 김일성수상과 같은 위대한 분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그이는 위대한 혁명의 시대가 낳은 위인이십니다. 바로 오늘의 난국을 타개하자면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치시고 오직 승리만을 알고 인민들을 위대한 혁명의 시대에로 인도하여 오신 김일성수상과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였으며 이라크 사법상은 《김일성수상은 제국주의와 직접 맞선 어려운 조건에서 세계혁명운동을 가장 옳바로 령도하고 계십니다. 조선인민도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미제를 타승할수 있었고 동방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할수 있었습니다.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자면 김일성수상과 같은 위대한 분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였다.

구라파에 있는 짐바브웨학생동맹은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에서 《근 한세기동안이나 파쑈적폭압밑에서 신음하였고 아직도 신음하고있는 짐바브웨인민들의 리익을 위하여 자기의 생애를 바칠것을 결심한 우리들은 현명하고 용감무쌍하며 먼장래를 내다보시는 수령이 노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고있습니다.

저마다 지도자로 자처하는 영제국주의 추종분자들로부터 기만과 우롱을 당하여 온 짐바브웨인민들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김일성동지는 더없이 귀중한 분이시라는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짐바브웨학생들은 세계적인 반제투쟁에 위대한 기여를 하고계시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을 흠모하고 존경하고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라크에서 공부하고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류학생들은 《위대한 수령을 모신 조선인민이 부럽습니다. 세계혁명을 위하여 그이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위대한 수령, 그이의 령도를 받는 강력한 당, 확고한 결심을 가진 영웅적인민—이것이 바로 모든 승리의 담보입니다. 이러한 나라는 세계에 오직 하나 조선뿐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체스꼬슬로벤스꼬에 있는 케냐학생동맹 위원장은 《의심할바없이 조선인민은 바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가장 혁명적인 당과 인민정권, 일당백의 혁명군대를 가진 불패의 인민으로,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인민으로 되였으며 혁명승리의 시대, 민족번영의 시대에 살고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모시고 있는 조선인민을 무한히 부러워하였다.

상부볼따근로자직업동맹대표단 단원 깜비레 모리스는 《김일성동지는 조선인민의 수령이실뿐만 아니라 전세계인민들의 수령이시다. 만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김일성동지와 같은 위대한 분의 령도를 받는다면 세계는 모든 인민들이 평화롭고 자유롭게 무병장수하면서 사는 지상락원으로 되였을것이다.》라고 말했다.

알제에 있는 오만민족해방운동대표 모함메드 나쎄르는 《참으로 김일성수상은 위대한 분이시며 그이의 사상은 한량없이 높다. 수많은 나라들의 지도자들중에서 우리가 본받아야할 이가 누군가고 묻는다면 우리는 〈바로 김일성수상이시다〉라고 대답할것이다》라고 하였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우러러보면서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출판하여 널리 보급하는것을 숭고한 사명으로, 더없는 영광으로 여기고있으며 그이의 위대한 혁명력사를 배우는것을 끝없는 영예로 여기고있다.

《김일성전》을 출판한 일본의 《유잔가꾸》 출판사 나가사까가즈오사장은 《김일성전》 출판기념회 연설에서 《20세기에 있어서 위대하며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정치가이시며 전략가이시며 력사에 크나큰 발자취를 남기고계시는 김일성수상의 영광찬란한 반세기의 기록을 전기로서 출판하게 된것은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더없는 영광으로 간주하고있다.》고 하였다.

레바논《앗 딸리아》출판사 사장 아브델 하미드 모함메드 나쎄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출판사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우리 모두의 수령이신 김일성수상님의 불후의 로작들을 많이 출판하여 아랍지역에 널리 보급하고있다.

김일성수상님의 로작들은 모든 나라 특히는 싸우는 3대륙인민들에게 있어서 위력한 무기로 된다.

그이의 천재적인 로작들과 문헌들이 노는 역할과 위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이 무조건 준수해야 하는 헌법과 같다고 말할수 있다.

김일성수상님의 로작들과 략력을 출판하는것은 시대적요구이며 우리의 응당한 의무이다.》

서부독일신문 《프랑크푸르테르 알게마이네 짜이퉁》은 《김일성전》 제1부를 소개하는 글에서 《이 전기는 40여년동안 김일성장군님께서 인민들에게 베푸시는 열렬한 사랑에 대한 력사이며 세계력사상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그러한 민족해방투쟁을 승리에로 인도하신 영웅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감격적인 위대한 서사시이며 조선혁명운동에서의 승리와 영광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썼다.

수리아신문《알 사우라》는《김일성전》

제1부가 출판되었음을 알리는 글에서 《이 전기는 조선이 낳은 20세기의 영웅 김일성장군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이의 빛나는 혁명투쟁력사와 업적 그리고 그이의 탁월한 령도와 고매한 덕성을 알고싶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할 서적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인도네시아신문 《와르따 하리안》은 《사람들은 조선이 낳은 20세기의 영웅 김일성장군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주체사상과 함께 결출한 령도자이시며 고매한 덕성을 지니신 그이의 빛나는 혁명투쟁력사를 알고싶어하고있다.

따라서 이 책은 매우 귀중하다.》고 강조하였다.

《김일성전》을 읽은 일본평론가 시마료는 감상문에 《〈김일성전〉은 조선의 현대사일뿐만 아니라 혁명하는 세계각국인민들에게 고무적힘을 주는 귀중한 문헌이다.》라고 썼다.

##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 사상은 보편적의의를 가지는 맑스-레닌주의사상》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적폭풍우의 시대,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승리하며 반제민족해방투쟁이 전면적으로 승리하는 현시대가 제기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가장 과학적인 해답을 전면적으로 주심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위력한 사상리론실천적무기를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리론은 불패의 힘을 가지고 비상히 빨리 파급되어 온 세계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맑스-레닌주의지도사상인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의 한길로 인도하고계시는 김일성동지의 근 반세기에 걸치는 영광찬란한 혁명투쟁력사가 수록되어 있는.《김일성전》과 혁명활동략력, 그이의 불후의 로작들은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앞을 다투어 출판되고있으며 높은 열의와 탐구심을 가지고 대중적으로 애독되고있다.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그이의 혁명사상을 연구보급하기 위하여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김일성동지로작번역위원회》, 《김일성동지로작연구위원회》 등 여러가지 조직을 내오고있으며 《김일성도서관》,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 등을 정중하게 꾸리고 위대한 혁명사상을 학습하고 보급하는것을 더 없는 커다란 영예와 의무로 여기면서 그 활동을 체계화, 조직화하고있다.

이 조직에는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사회활동가, 혁명투사들, 항쟁부대의 병사들과 지휘관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망라되고있으며 그 대렬은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그들은 이와같은 조직을 내오게된 목적에 대하여 말하면서 한결같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이 자기들의 투쟁의 기치로 되며 그이의 로작연구를 통하여 실제적인 투쟁에 기여할수 있는 풍부한 지식을 얻을 수있다는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있다.

또한 많은 나라 출판물들은 성명, 론설, 담화를 발표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특히 반제반미투쟁과 세계혁명의 전략전술적 방침들에 대한 열렬한 공감과 지지를 표명하고있다.

##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승리의 길을 밝혀주는 등대로, 혁명의 교과서로 되고있다》

세계 수많은 혁명가들과 혁명적인민들은 한결같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이야말로 《인류의 사상발전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사상》, 《보편적의의를 가지는 맑스-레닌주의사상》이며 《김일성주의는 제국주의가 멸망하여가는 현시대의 맑스-레닌주의》라고 칭송하면서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체득하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따라 배우게 된것을 커다란 기쁨으로 여기고 거기에서 자기들의 투쟁을 추동하는 크나큰 힘을 얻고있다.

1970년 8월 우리 나라를 방문한 세일론국회 하원의장인 스탠리 틸레케라트네는 《위대한 수령의 혁명력사는 후대들이 배워야할 위대한 사상으로 가득차있다.》고 하면서 《만일 레닌주의가 제국주의와 독점자본주의시대의 맑스주의였다면 김일성주의는 제국주의가 멸망하여가는 현시대의 맑스-레닌주의이다.》라고 칭송하였다.

1970년 4월 15일 버마신문 《가디안》지는 《김일성수상의 혁명사상과 리론들은 맑스-레닌주의발전과 인류의 사상발전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사상, 리론이며 전세계 피착취, 피압박 인민들의 혁명투쟁에서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시기를 열어놓은 위대한 시대적사상이다.

그러므로 오늘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은 김일성수상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혁명리론을 자기들의 희망의 등대로, 투쟁의 교과서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린 편지에서 《말리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성원들은 《참으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영광스러운 혁명력사는 전체 조선인민들과 그리고 자기 조국의 독립과 번영을 위하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위하여 싸우는 세계혁명가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에게 불패의 힘과 용기와 신심을 안겨주며 혁명적정열과 지혜를 주는 원천으로,승리의 길을 밝혀주는 등대로 혁명의 교과서로 되고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보내온 편지에서 뽀르뚜갈민족해방애국전선자도부 성원 페르드난도 싼또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혁명투쟁의 현실적요구를 반영하여 창시된 주체사상의 가치는 실로 천만금과도 바꿀수 없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보편적의의를 가지는 맑스-레닌주의사상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모든 혁명가들에게 창조적정신과 투쟁에서의 원칙적립장을 견지할수 있게 하시였으며 세계혁명운동의 진정한 단결을 이룩할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시였다.

주체사상은 또한 미제침략자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위력한 무기를 가지고있기 때문에 제국주의자들과의 투쟁을 성과적으로 할수 있게 되였다.》

이라크 변호사 잘 말랄라 바이는《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계에서 김일성동지의 리론과 사상이 더욱 파문을 일

으키며 싸우는 인민들속에서 그이의 권위와 위신이 더욱더 높아지게 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오직 하나의 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만이 모든 문제해결의 기본열쇠로 되고있기때문이다.

경제건설에서나 조국보위에서나 문학예술분야에서나 주체사상은 백과전서적이며 만능적인 역할을 한다.》

아랍신문 《알메싸》 편집국장 모하메드 라쉬다는 《나는 위대하신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따라배우고있다. 주체사상은 모든 혁명가들과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 그리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혁명사상이라고 생각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를 세우는가 못세우는가 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이며 우리 민족의 흥망을 결정하는 사활적인 문제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나는 위대한 주체 사상만이 앞으로 력사와 함께 더욱더 휘황히 빛날 백전백승의 혁명사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인도—조선청년친선협회 위원장 라지꿈 아르윤따는 축전에서 《각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 반제반미투쟁로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총로선,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건설의 리론들과 당신의 빛나는 불후의 로작들은 조선에서의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추진시키는 위대한 강령으로 될뿐만아니라 전세계 모든 혁명적인 나라들과 사회주의나라 인민들이 나아갈 길을 가리켜주는 투쟁의 지침으로 되고있으며 세계혁명가들의 교과서로, 맑스-레닌주의보물고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고전적인 문헌으로 되고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이 가지는 국제적의의에 대하여 말하였다.

모리따니혁명최고리사회 위원인 모리따니 민족관현악단 단장 아 에뜨만 트 흘드메제이 우아드트는 《김일성원수의 주체사상은 지난시기 세기를 두고 제국주의자들의 가혹한 착취를 받아온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3대륙 인민들에게 진정한 앞길을 서광처럼 밝혀주고있습니다.》라고 칭송하였다.

적도기네 인민사상당 지도자의 한사람인 헤쑤스 므바 오보노는 그이께 드린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에 탁월한 기여를 하고계시는 수상각하께서 제시하신 위대한 혁명사상과 투쟁전략은 혁명투쟁에 일떠선 전세계 모든 나라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투쟁강령으로, 그들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등대로,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으며 투쟁의 교과서로, 강력한 무기로 되고있습니다.》

평고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소조》 성원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린 편지에서 《오늘의 조선을 말할때 당신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조금도 생각할수 없으며 광활한 래일의 조선을 말할때 당신의 원대한 구상과 떼여놓고는 조금도 생각할수 없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오늘 조선에서뿐만아니라 혁명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투쟁하는 인민들속에서 혁명의 씨앗으로 되여 료원의 불길마냥 세차게 타오르고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남부예멘 아덴항구로조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성원들은 편지에서 《조선이 낳은 20세기의 영웅이시며 세계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당신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리론은 인류사상발전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사상이고 리론이며 현시대의 백과사전입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수령이신 당신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리론을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있으며 그를 우리의 생활에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김일성동지께 공화국창건 스물두돐에 즈음하여 보내온 전문에서 버마련방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지지위원회》성원일동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각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혁명사상은 세계인민들의 휘황한 등대입니다.》라고 강조하였다.

버마련방 《슈따웅》지 편집성원들은 편지에서 《각하의 불패의 혁명적 주체사상은 이 지역으로부터 저 지역으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 대륙으로부터 저 대륙으로 대양을 건너 온 대륙에 퍼질것이며 전세계인민들의 심장에 새겨져 마치 활화산과 같이 그들의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불러일으킬것입니다.

이 사상은 그의 정당성과 생활력으로하여 세대를 이어 후세에 전하여질것입니다.》라고 지적하였다.

일본주재 알제리대사관 관원 아말 라레브는 《오늘 김일성원수의 주체사상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는 지침으로 되고있다.》고 말하였다.

칠레신문 《올띠마 오라》 기자 마르꼬스 세르다는 《김일성수상은 사회주의혁명을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알맞게 수행하시기 위하여 투쟁하시는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사상가이시다.》라고 하면서 그이의 혁명사상은 라틴아메리카의 혁명가들속에서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이의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면서 그를 혁명투쟁에 구현해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다.

로므니아에서 공부하는 아프리카류학생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성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보내온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각양각색의 기회주의리론에 물든 환상으로 가득찬 우리 시대에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되고있는것은 바로 당신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사상인 주체사상입니다.

우리들은 주체사상에 기초함이 없이는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이룩할수 없을뿐만아니라 이미 달성된 성과들도 공고히 할수 없다는것을 깊이 깨닫고있습니다.

그것은 주체사상만이 혁명가들의 지도리론과 지도사상으로 될수 있으며 주체사상만이 소여국가의 혁명승리와 나아가서는 세계혁명의 승리를 담보하는 확고부동한 혁명사상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들은 조선의 현실에서 주체사상의 승리를 보고있으며 조선의 기적과 모범을 통하여 그 위대한 생활력과 불패의 힘을 따라배우고 있습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따라배우고 체득하자!〉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 혁명가들과 진보적인사들의 생활의 신조로 되고있으며 투쟁의 목표로 되고있습니다.

천재적 맑스-레닌주의자이신 당신을 따라배우며 당신께서 제시하신 탁월한 전략전술적원칙에 따라 투쟁하는것은 우리 시대의 막을수 없는 추세이며 투쟁의 기본방향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린 편지에서 루안다의 청년학생들은 《해바라기들이 태양을 우러러 따르듯이 우리는 당신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받들고 나아갈것이며 당신의 혁명사상을 실천하는 투사로 될것입니다.》라고 했으며 콜롬비아의 한 혁명가는 《그이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한다면 그 어떤 풍파도 이겨낼수 있으며 그 어떤 험산준령도 넘어설수 있다는것을 우리는 심장으로 느끼고있다.》라고 강조하였다.

강점된 서부소말리아해방전선통격대

전투원들의 편지에서는 《당신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리론은 총탄보다도 위력한 우리 투쟁의 무기입니다.

천재적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가들의 태양이시며 위대한 투사이신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반제혁명전략이 있는한 우리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싸움에서 승리할것입니다.》라고 지적하였다.

##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는 《백과전서적인 불후의 맑스-레닌주의 문헌》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보고에서 당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이룩한 찬란한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와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의 길을 밝혀주시였으며 우리시대의 혁명발전이 새롭게 제기하는 문제들에 전면적인 리론실천적해답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집대성한 보고가 세상에 발표되자 온세계 혁명적인민들속에서는 커다란 반향이 일어났으며 그의 위대성과 정당성, 무궁무진한 생활력은 날을 따라 더욱더 확증되고있다.

사회주의 나라들과 신생독립국가들을 비롯한 세계 수많은 나라 신문들은 그이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보고의 전문 혹은 상세한 요지를 실었다.

콩고《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소조》, 뻬루조선친선협회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혁명력사를 연구하는 단체들과 민족해방투쟁단체들, 그리고 수많은 학자들이 보고에 대한 연구토론모임을 가지고 그에 담겨진 심오한 사상을 연구학습하고 그이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수많은 혁명투사들과 사회활동가들, 정계인사들이 담화문을 발표하여 수령의 불후의 천재적로작에 접한 기쁨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를 《혁명의 거대한 대백과사전》, 《생동한 교과서》, 《백과전서적인 불후의 맑스-레닌주의 문헌》, 《세계적의의를 가지는 고전적인 맑스—레닌주의문헌》, 《위대한 혁명의 향식》이라고 하면서 높이 찬양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린 편지에서 누아크쇼트시 《김일성수상혁명력사연구소조》성원들은 《사람들은 혁명의 길을 정확히 밝혀주는 혁명리론을 사막의 물에 비기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없는 사막에서 물을 만난것보다 비할바없이 더 큰 기쁨과 더 깊은 감동으로 수상각하의 보고를 접하였습니다.》, 《김일성수상각하의 보고는 세계 모든 혁명가들이 지침으로 삼아야 하는 혁명의 거대한 대백과사전입니다.

혁명의 이 대백과사전은 혁명의 위대한 영재이신 김일성수상각하의 탁월한 주체사상의 승리로 꽉 들어차있으며 혁명의 천재적리론과 승리적인 실천, 풍부한 경험으로 넘치고있습니다.》라고 하였으며 와세다대학 교수 후꾸시마 마사오는 《김일성수상의 보고에는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리론이 집대성되여있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김일성수상의 사상과 리론은 현시대의 맑스-레닌주의의 최고봉이며 사회주의혁명과 건설, 세계민족해방투쟁,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해답을 주고있다.》고 하였다.

모리따니청년들의 《김일성수상로작연구소조》성원들은 편지에서 《수상각하의 보고는 바로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고 그를 실천에 옮긴 전례없이 생동한 교과서이며 혁명의 전형적인 모범을 집대성한 문헌입니다.》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보고를 높이 칭송하였다.

아랍신문 《알[illegible]》는 《보고는 혁명과 건설에 관한 천재적사상과 독창적인 리론, 탁월한 방침과 훌륭한 령도예술이 집대성되여있는 혁명과 건설의 백과전서적문헌이며 투쟁과 생활의 위대한 교과서이며 귀중한 사상리론적무기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도꾜도 이다바시구로동조합련합회 일군들이 가진 《김일성수상님의 력사적인 보고학습청취모임》에서 한 로조단체 간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김일성수상님의 력사적인 보고를 듣고 그이야말로 참말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령도자이시며 위대한 혁명가이시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였다. 일본이나 기타 나라들은 100여년 또는 수세기를 걸쳐서야 공업국가로 되였는데 조선은 불과 10여년이라는 극히 짧은 기간에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였으니 참말로 놀랍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모든것은 오로지 김일성수상님의 탁월한 령도의 결과이다.

더우기 전체 인민을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을 당의 두리에 굳게 통일단결시켜 한사람같이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 불러일으키심으로써 이 거대한 사업을 승리에로 이끄신 그이의 위대성, 탁월한 령도예술은 우리를 경탄케하고있다.》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보고를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맑스-레닌주의 고전으로 높이 평가하면서 이에 한결같이 공감을 표시하였다.

쏘련에서 공부하는 라틴아메리카 류학생들의 《김일성동지로작및혁명활동력사연구소조》성원들은 축전에서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위력한 혁명의 무기이며 국제혁명가들의 혁명투쟁방도와 무기가 명시된 세계적의의를 가지는 고전적인 맑스-레닌주의적문헌》이라고 하였으며 뿌에르또 리꼬독립운동 정치국 위원이며 국제비서인 까를로스 빠딜랴 로드리게스는 그이께서 내놓으신 주체사상이야말로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라는것을 알게 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이께서는 보고에서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력한 투쟁무기로 될뿐아니라 제국주의의 철쇄를 마스고 온갖 억압과 착취로부터 인류를 해방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세계의 모든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혁명투쟁의 방도와 기본원칙들을 명시하였다.

이 보고는 과학적인 공산주의리론을 더한층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고 인류력사에 영생불멸의 특출한 공헌을 한 위대한 맑스-레닌주의고전이다.》라고 하였다.

콩고신문 《보라자빌》은 보고가 《지구상의 모든 피착취피압박인민들이 해방투쟁, 혁명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 위대한 투쟁의 시대, 세계적규모에서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승리하는 장엄한 력사적시대인 우리 시대와 오늘의 혁명발전이 새롭게 제기하고있으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에서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원칙적인 문제들에 정확한 리론실천적해답을 주었으며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실천을 통하여 그 위대성이 확증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사상, 탁월한 리론과 방침들이 전면적으로 체계화되고 집대성화된 그이의 보고는 위대한 혁명의 향식으로 력사에 길이 빛

냐 백과전서적인 불후의 맑스-레닌주의문헌》이라고 높이 칭송하였다.

아랍신문 《알 아흐바르》지는 보고가 《조선혁명발전과 전반적국제혁명운동의 발전에 불멸의 력사적공헌을 한 위대한 강령적문헌으로 된다.》, 《조선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담보하는 강유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되며 맑스-레닌주의의 보물고를 발전풍부화시킨 고귀한 혁명적재부로 된다.》고 썼다.

꾸바공산당 아바나시위원회 선전비서 호세 마누엘 디아스는 보고가 가지는 거대한 의의에 대하여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보고는 현시기 가장 귀중한 문헌으로 된다.

이 문헌은 혁명을 시작하였거나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려는 모든 혁명가들이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있다.

김일성동지의 보고는 현시기 사회주의혁명을 완수하는데서 반드시 지침으로 삼아야 할 위대한 문헌이다.》라고 하였으며 이라크신문 《바그다드 옵서버》는 《보고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더욱 촉진시킬데 대한 리론, 실천적문제들을 천재적으로 해명한 가장 위대한 문헌이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고있는 전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강령적지침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칠레신문 《울띠마 오라》는 《세계혁명을 촉진하기 위한 인류의 위대한 과업을 실현함에 있어서 김일성수상의 사상과 견해는 조선의 국경을 넘어 전세계 특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속에 파급되고있다.》고 하면서 김일성수상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보고는 《맑스-레닌주의사상리론발전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며 미제를 반대하고 민족적독립과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에게 지침으로 되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어떻게 건설하여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귀중한 혁명적교과서로 된다.》 고 썼다.

남부예멘조선친선위원회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당신께서는 조선혁명의 참모부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휘황한 전망을 또다시 밝혀주시였습니다.

당신께서 이번 보고에서 제시하신 독창적이며 위대한 혁명로선과 방침들은 영웅적조선인민을 비롯한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는 커다란 고무로 되며 미제를 우두머리로하는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치명적타격으로 됩니다.》

콜롬비아기자협회 국제비서 로드리게스는 담화에서 《보고에 담겨져있는 심오한 사상은 현시기의 가장 중요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해명해주고있다.

…보고에는 사회주의건설과 반제투쟁에서 쌓은 실천적경험이 분석되여있으며 계속 전진을 위한 새로운 구상이 천명되여있다.

김일성동지께서 분석하신 모든 경험들은 우리들과 세계혁명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력한 무기로 된다.

왜냐하면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기 조선혁명뿐만 아니라 세계혁명전반을 헤아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이시기때문이다.》 라고 강조하였다.

국제기자동맹 페루위원회 위원장이며 《국제기자상》 수상자인 헤나로 까르네로 체까는 자기의 담화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는 조선인민뿐만아니라 아세아대륙인민들과 기타 세계 모든 인민들에게 그리고 특히 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투사들에게 가장 강력한 힘을 주는 문헌이며 혁명에 대한 그이의 훌륭한 사상을 배울수 있게한다.》고 말하였으며 일본 오꼬야마국립대학교수 모또하시아쯔시는 보고에 대한 학자, 대학교수들의 학술연구토론모임에서 《보고는 사회주의건설의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해명한 귀중한 로작이며 정치, 경제, 사상 등 여러 측면에서 깊이 연구해야 할 필독문헌이다.》라고 하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민족해방투쟁단체투사들, 사회정치활동가들, 청년학생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불후의 천재적 보고를 계속 심오히 연구학습하는 동시에 그를 널리 보급선전하는 《학도》로, 《혁명전사》로 되며 승리의 그날까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싸워나갈 자기들의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콩고《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소조》성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에서 보고는 《아세아와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반제반미투쟁을 새롭게 발전시키고 국제혁명운동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확고한 립장과 투쟁전략을 뚜렷이 밝히시였다.》고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께서 하신 보고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하여 당신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더욱 깊이 체득하겠습니다.》라고 하였으며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결성모임에 참가한 알제리아에 있는 도미니까 류학생들은 편지에서 《우리는 우리 나라 혁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당신의 천재적로작들을 적극 학습하고 당신의 혁명리론들을 깊이 체득할것을 결의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버마조선친선협회 성원들은 편지에서 《우리는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와 같이 당신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혁명리론을 따라배우는 충실한 학도가 되며 혁명전사로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불타는 결의들을 다지였다.

로므니아에서 공부하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연구아프리카인소조》성원들은 《참으로 혁명의 영재이신 당신께서는 오늘 뿐만아니라 우리 대륙들의 혁명발전의 먼 장래까지를 가장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우리들에게 혁명투쟁의 강력한 무기를 주시였으며 끝없는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시였습니다. 우리들은 결코 최후승리의 날까지 이 무기를 놓지 않을것이며 투쟁을 계속할것입니다.》라고 맹세하였다.

## 김일성동지의 반제반미투쟁전략은 《제국주의멸망을 촉진시키는 위대한 전략》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을 비롯한 수많은 로작들에서 제시하신 위대한 반제반미투쟁전략은 그의 불패의 위력과 정당성 그리고 그의 무궁무진한 생활력으로하여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속에서 날이 갈수록 더욱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재적인 로작들에서 미제에 주되는 창끝을 돌릴데 대한 세계혁명의 기본전략, 미제의 앞잡이들과 그 동맹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방침, 반제공동행동과 반제통일전선을 이룩할데 대한 방침, 미제의 각을 뜰데 대한 반미투쟁전략을 내놓으시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수많은 혁명가들과 혁명적인민들은 반제반미투쟁에서 나서고있는 원칙적인 제반 문제들과 그 방도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답을 주신 그이의 천재적로작들을 각국 민족어로 수많이 번역출판하였으며 그들은 위대한 반미투쟁전략을 《과학적인 전략》, 《세계혁명발전과 제국주의의 멸망을 촉진시키는 위대한 전략》, 《진실로 혁명적이고 현명한 투

정전략》, 《피압박인민들의 승리의 열쇠》, 《반제투쟁의 강력한 무기》로 높이 평가하면서 여기에서 무한한 힘과 고무를 받고있으며 그것을 반미투쟁에서의 강력한 무기로 삼고있다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미국흑인평서당 공보상 플리버는《작은 나라들이 달라붙어 미제의 각을 뜯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반제반미투쟁전략은 매우 내용이 깊다. 그이의 이 전략과 반제혁명사상은 피압박인민들의 승리의 열쇠이다.》라고 하였으며 아바나주재 베네수엘라좌익혁명운동대표 프란씨스꼬 곤살레스는 세계도처에서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이 달라붙어 미제의 각을 뜯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전략은 《미제를 타승하며 그놈들을 매장해 버리기 위한 혁명하는 작은 나라들의 가장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투쟁전략》이라고 강조하였다.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 집행위원회 위원 에드월드 꺄드지베나는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이 전략은 오늘의 정세하에서 진실로 혁명하는 인민들간의 단결을 새로운 단계에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세계제국주의를 말로써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타파할수 있게 하는 과학적인 전략이다.》라고 하였다.

모스크바에서 공부하고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류학생, 연구생들은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제의 각을 뜯데 대한 당신의 전략, 이것이야말로 오늘 반제투쟁에 떨쳐나선 전세계혁명적인 인민들에게 확고한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는 진실로 혁명적이고 훌륭한 투쟁전략이며 맑스-레닌주의보물고를 풍부화한 천재적인 전략입니다.》

알제리로조총동가 자이비 아마르는 《혁명하는 작은나라인민들이 단결하여 반제반미투쟁을 전개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새 전략은 세계혁명발전과 제국주의의 멸망을 촉진시키는 위대한 전략이다. 세계적규모에서 반제반미투쟁을 일대 고조에로 불러일으키고 계시는 위대한 반제혁명투사이시며 세계인민들의 존경을 받고계시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반제혁명사상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그리고 세계도처에서 찬란히 꽃피고있다.》 고 말하였다.

국제기자동맹 부위원장이며 칠레국제기자련락위원회 서기장인 에르난 우리베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세계도처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기때문에 놈들이 발붙이고있는 모든곳, 모든 전선에서 강한 타격을 가해야 한다. 미제의 각을 뜯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리론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승리의 결정적열쇠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일본아세아아프리카연구소 부소장인 저명한 국제정치학자 데라모도미쯔로는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세계혁명전략의 정당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김일성수상께서는 오늘의 복잡한 정황과 혁명발전의 력사적추세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기초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이 사대주의를 버리고 주체를 세우고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여 투쟁한다면 작은 나라들을 각개격파하려는 미제국주의의 마수를 능히 꺾어버릴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나라 혁명위업과 세계혁명을 크게 촉진할수 있다고 가르치고 계신다.

김일성수상의 전략은 혁명사업에 종사하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세계혁명의 올바른 길과 그 수행방도를 제시하며 세계혁명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자신심을 안겨주며 그들을 승리에로 이끌어가는 전략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illegible] 월롱인민조선친선협회 발라꽈련아지부 위원장 엠. 쥐. 데 실바와 서기 엠. 에스. 데 실바가 공동으로 보내여온 축전에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위대한 반미투쟁로선은 수세기에 걸쳐 제국주의자들에게 압박받고 천대받던 수많은 작고 뒤떨어진 나라인민들이 떨쳐일어나 내리막길에 들어선 미제침략자들을 지구상에서 영영 쓸어버리기 위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전략이며 반제반미투쟁의 승리를 위한 강력한 무기로 됩니다. 실로 조선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경애하는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과 탁월한 공헌은 세계에서 대를 두고 세계혁명력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 영원히 전하여질것입니다.》 라고지적하였다.

프랑스잡지 《아프리끄아지아》는 《김일성수상께서 국제정세와 세계력량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제시하신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전략과 민족해방투쟁의 전략전술은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이 날로 우심해지고있는 현시기 특별한 중요성과 의의를 가진다.》

버마련방《김일성동지로작학습연구소조》 부소장은 연설에서 《미제에 주되는 공격의 창끝을 돌릴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방침은 세계제국주의의 두목인 미제의 멸망을 앞당기게 하며 광범한 반제력량을 동원하여 제국주의진영전반을 약화시키고 세계 혁명의 승리를 앞당기게 하는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인것이다.》라고 하면서 그이께서 내놓으신 반제반미투쟁전략이 갖는 거대한 국제적의의를 높이 칭송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반제반미투쟁전략에 무한히 고무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혁명적벗들은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더욱더 체득》하기 위하여 그이의 천재적로작들을 더욱 심오히 연구하여 그를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나갈것이라고하면서 그이께서 제시하신 반제반미투쟁전략을 《지침》으로 반제반미투쟁에 용감히 떨쳐나설 굳은 결의를 표시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린 편지에서 말리 《김일성동지 로작연구소조》 성원들은 혁명의 위대한 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반제투쟁전략은 《세계의 반제투쟁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현실적조건을 집중적으로 반영한 가장 현명한 전략이며 반제반미투쟁의 승리를 위한 위력한 무기이며 미제의 각개격파전략을 주동적으로 짓부실수 있는 과학적인 전략이며 작은 나라 인민들로 하여금 승리에 대한 굳은 신심을 가지고 용기백배하여 반제반미투쟁에 떨쳐나설수 있게 하는 혁명적 전략입니다.》

《우리는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 세계혁명발전과 민족해방투쟁의 승리에 바쳐진 불멸의 업적과 탁월한 공헌으로하여 전세계 혁명가들과 혁명적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무한한 존경을 받고 계시는 20세기[illegible]의 가장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들을 깊이 연구체득하는것을 무한한 영광과 행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썼다.

콩고베두성낭공장 《김일성동지로작및혁명활동력사연구소조》성원들은 편지에서 《가장 존경하는 당신의 가르치심에서 항상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있는 우리들은 앞으로도 당신께서 집필하신 위대한 로작들의 심오한 사상을 더욱더 정확히 체득하고 실생활에서 그를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공화국창건 스물두돐에 즈음하여 말리 바마꼬시 청년및체육지도부 성원일동이 보내온 편지에서는 《세계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당신께서 밝혀주신 반제반미투쟁전략과 혁명의 기치는 전세계 혁명적인민들로 하여금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미제의 각을 뜯어내고 그의 종국적멸망을 촉진시킬뿐아니라 세계혁명승리를 위한 확고한 지도리론으로, 투쟁강령으로 됩니다…》라고 강조하였다.

# 반제반미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위대한 혁명적변혁의 한해

## —1970년 국제정세개관—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미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막을수 없는 시대의 추세로 되였습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로동운동이 강화되고있으며 더욱 많은 평화애호인민들이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서고있습니다. 인민들의 반전운동은 미국안에서도 대중적인것으로 되였습니다. 미제국주의는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얻어맞고있으며 안팎으로 곤경에 빠지고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단행본, 97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1970년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국제반동세력과 세계혁명력량간의 국제적규모에서의 투쟁이 가장 치렬하게 벌어진 계급투쟁의 한해였으며 이 투쟁행정에서 사회주의와 반제투쟁력량, 평화애호력량은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고 제국주의침략세력은 더욱 쇠퇴몰락한 위대한 혁명적변혁의 한해였다.

이 해에 미제는 현대의 가장 흉악하고 파렴치한 침략자, 략탈자로서의 본성을 더욱 낱낱이 드러내놓으면서 온 세계를 지배하려는 변함없는 목적밑에 아세아와 중근동,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구라파와 대양주 그리고 큰 나라와 작은 나라 할것없이 이르는곳마다에서 잃어버린 진지를 되찾으며 칠성판에 오른 저들의 비참한 운명을 구원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그러나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은 미제의 이러한 필사적발악을 힘있게 제압하면서 미제에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고 련속 된매를 안겼으며 놈들을 돌이킬수 없는 파멸의 구렁텅이로 더욱 깊이 몰아넣었다.

이 장엄한 혁명투쟁의 거세찬 대조류속에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반제혁명사상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은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등대로,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서 찬연한 빛을 뿌리였으며 그들에게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고무적힘을 안겨주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이 해에도 전 세계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반제반미투쟁의 승리를 위한 불패의 사상리론적무기를 안겨주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무한히 경모하면서 그이의 반제혁명사상에서 진로를 찾고 미래의 승리를 확고히 내다보며 힘찬 전진을 계속하였다.

1970년에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 《김일성동지로작연구위원회》등 여러가지 조직들을 내왔으며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 《김일성도서관》등을 정중하게 꾸리고 활발히 운영하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심오히 연구학습하였다.

또한 많은 나라의 진보적단체들과 출판사들에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기와 혁명활동략력, 그이의 불후의 로작들을 세계 여러나라 말로 번역하여 수많이 출판하였다.

이처럼 이 한해동안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국제적권위는 그 어느때보다 높아졌으며 그이의 탁월한 혁명사상은 더욱더 많은 세계혁명가들과 혁명적인민들의 심장을 틀어잡았다.

1970년의 국제정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반제혁명사상과 전략전술적방침의 현명성과 정당성, 불패의 위력을 현실로 뚜렷이 보여주었다.

### 혁명의 폭풍 휘몰아치는 아세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아세아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가장 치렬한 투쟁전선으로, 반제혁명투쟁의 기본무대로 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침략의 예봉을 아세아에 돌리고있는것도 바로 이 지역에 혁명하는 나라들, 싸우는 나라들이 많고 이 지역에서 반제혁명운동이 치렬하게 벌어지며 제국주의자들의 지반이 밑뿌리로부터 뒤흔들리고있는 사정과 관련됩니다.》(우와 같은 책, 98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같이 오늘 아세아는 사회주의 반제투쟁력량을 비롯한 진보적인 력량을 한편으로하고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반동세력을 다른한편으로하는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간의 날카로운 투쟁이 벌어지고있는 투쟁전선으로, 반제반미투쟁의 기본무대로되고있다.

아세아 사회주의나라들의 존재와 그 위력의 장성, 반미공동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아세아 혁명적인민들간의 전투적인 련대성의 강화 등 반제혁명력량의 급격한 장성에 질겁한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서 혁명력량의 급격한 장성을 가로막고 무너져가는 식민지통치를 부지하기 위해 일부 나라들에 대해서는 사상문화적침투를 강화하여 이 나라 인민들을 안으로부터 와해시키려하는 한편 혁명하는 나라들을 무력으로 각개격파하려고 집요하게 책동하면서 전쟁의 위험을 날카롭게 조성하는데로 서슴없이 나아갔다. 이에 있어서 닉슨도당은 악명높은 《새아세아정책》에 따라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세력을 침략의 《돌격대》로하는 아세아추종국과 괴뢰들을 적극 내몰아 주로《아세아인들끼리 싸우게 하는》방법으로 저들이 처한 심각한 궁지로부터의 출로를 열어보려고 집요하게 날뛰였다.

전쟁모험으로써 파국의 처지를 돌려세워보려는 미제의 책동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더욱 광란성과 횡포성을 띠고 감행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조국 남반부에서 침략무력을 계속 증강하고 식민

지예속화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공화국 북반부를 반대하는 도발책동을 더욱 로골화하면서 조선에서의 정세를 극도로 첨예화시키는데로 나아갔다. 놈들은 조선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무장도발행위를 계속 감행하였으며 무장간첩선 《아이—2》를 우리 나라 서해의 령해깊이 침입시키는 엄중한 적대행위를 저지르는 등 땅과 바다, 하늘로부터의 침략과 전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전쟁미치광이 닉슨도당은 특히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 그리고 일본군국주의자들간의 3각군사동맹관계를 강화하여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려고 미쳐 날뛰였다. 그러면서 교활하고 음흉한 닉슨도당은 조선에서의 전쟁도발책동을 가리우고 세계여론을 속일 목적으로 소위 남조선주둔 《미군감축》선전소동을 곧떠지게 벌렸다.

미제의 무모한 새전쟁도발책동은 1970년에도 우리 인민의 원쑤에 맞아 여지없이 부서져나갔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반제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이의 탁월하고 현명한 령도밑에 일당백의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자라난 우리의 영웅적 인민군대와 인민들은 미제의 새전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셨으며 공화국령해에 기여든 무장간첩선 《아이—2》를 단호히 불속에 처박았다.

이 해에 공화국 남반부에서도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혁명적진출이 적극화되여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보다 심각한 타격을 가하였다.

특히 통일적 맑스-레닌주의당, 로동계급의 당으로서의 통일혁명당이 내세우고있는 투쟁목표와 투쟁강령은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의 공동의 정치강령으로, 투쟁목표로 되였으며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반제투쟁의 가장 치렬한 전선의 하나인 조선에서의 미제의 이와 같은 심대한 타격은 놈들의 침략적인 세계전략의 《핵》을 이루고있는 아세아전략에 심각한 파렬구를 조성하였으며 미제의 멸망을 가일층 촉진케하였다.

미제를 반대하는 견결한 립장, 미제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하는 견결한 투쟁을 통하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와 그이의 두리에 하나로 뭉친 우리 인민의 무적의 힘을 다시한번 온 누리에 힘있게 시위하였다.

1970년에 중국인민들도 중화인민공화국의 불가분리의 령토인 대만을 계속 강점하고 중국인민을 반대하는 침략행위를 끊임없이 강화하고있는 미제의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1970년에 영웅적 인도지나인민들도 반미구국항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다.

월남의 죽음의 함정속에서 빠져나와보려고 이미 수년간 헛된 발악을 거듭해온 미제는 1970년에 들어와 전쟁의 《월남화》라는 간판밑에 남부월남에서 야만적인 《초토화작전》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이해 5월부터는 형식상 내걸었던 《폭격중지》라는 기만적인 간판마저 집어던지고 월남민주공화국령토에 대한 폭격을 새롭게 강화하였으며 11월에는 하노이주변에 대한 야만적인 폭격과 《특공대활동》까지 벌리는 극히 엄중한 모험을 감행하였다. 미제는 또한 라오스에서 패배의 위기에 처한 《특수전쟁》을 《국부전쟁》으로 확대하기 위해 발광하였으며 1970년 3월중순에 캄보쟈에서 반동적인 정변을 조작하고 뒤이어 4월말에는 이 나라인민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직접적 무력침공을 감행함으로써 전쟁의 불길을 인도지나전역에로 확대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처럼 전쟁의 불길을 인도지나전역에 확대하여 월남, 라오스, 캄보쟈를 하나의 전선으로 련결시키고 제놈들의 침략무력과 아세아고용군들을 이 지역의 도처에 밀어넣어 세나라인민들을 동시에 공격케하는 방법으로 인도지나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과 반제전선을 파괴말살하고 인도지나침략전쟁의 파국적국면을 제놈들에게 유리하게 전변시켜보려고 헛되이 망상하였다.

그러나 미제의 이 모든 발광은 죽어가는자들의 부질없는 발버둥에 불과한것이였다.

1970년에 인도지나 3개국인민들은 미제의 우심해지는 발악에 대처하여 전투적인 단결과 반미통일전선을 강화하고 원수들에 대한 공세를 적극화하여 궤멸로부터 활로를 열어보려던 놈들의 망상을 여지없이 뒤집어놓았다.

이미 령토의 5분의 4와 인구의 3분의 2를 해방한 남부월남인민해방무장력은 1970년 1년동안에 미제침략군과 추종군 11만명을 포함한 42만명의 적들을 소멸하고 5천 900대의 비행기, 땅크 및 장갑차 7천 400대를 포함한 1만 4천 100대의 군용차를 박산내고 680척의 함선들을 물속에 처박았다.

한편 민주월남의 상공에서는 3천370대의 비행기가 녹아났는데 이것은 월남민주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의 파괴전쟁이 쓰디쓴 참패를 거듭하고있는 뚜렷한 증거이다.

령토의 3분의 2와 인구의 절반이상을 해방한 라오스애국군대는 1970년 2월초부터 적들에 대한 전면적인 총공세를 들이대여 1년동안에 근 3만명의 적을 소멸하고 375대의 비행기를 격추격상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월남, 라오스 형제들과 어깨겯고 공동의 원수를 반대하는 판가리싸움에 단호히 일어선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은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도처에서 미제침략군과 그 고용군들을 무자비하게 족쳤다.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은 1970년말까지 미제침략군과 남부월남괴뢰군 및 캄보쟈우익반동군 15만여명을 소멸하고 령토의 70%와 400만명의 인구를 해방하는 빛나는 승리를 달성하였다.

이 치렬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5월 5일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위원장으로하는 캄보쟈민족통일전선의 정치강령이 공포되고 왕국민족련합정부의 수립이 세상에 선포되였다. 이리하여 미제의 주구 론 놀—시리크 마타크도당은 사면포위된 프놈 펜의 한구석에 압착되였다.

이해에 타이, 필리핀,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를 비롯한 미제의 추종국들에서도 미제와 친미반동정권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무장투쟁과 정치투쟁이 더욱 심화되어 원수들은 궁지에 더욱 깊이 빠져들어갔다.

일본에서도 반미반정부투쟁이 힘차게 벌어져 미제와 그 앞잡이 사또도당은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년초부터 악명높은 《새아세아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천에 옮기기 시작한 닉슨도당은 《미국과 일본간의 협동관계》가 《아세아에서 닉슨주의 실현을 위한 기본열쇠》로 된다느니, 미제의 아세아침략정책수행에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더 큰책임》을 걸머지고 《독특하고 중요한 역할》을 놀아야한다느니 뭐니하고 로골적으로 떠벌이면서 사또반동무리들을 아세아침략에로 적극 사촉하였다. 6월에 기한만료된 침략적인 일미《안보조약》을 계약연장한것은 바로 작년 11월 닉슨—사또회담에서 꾸며진 위험한 아세아침략계획을 본격적으로 실천에 옮기기 위한 놈들의 범죄적책동의 산물이였다.

미제의 이러한 부추김에 극도로 얼

이 오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서의 《일본의 지도적역할》에 대해 요란하게 지껄이면서 1970년에만도 무려 5천 700억원(1969년보다 17.7%증대)을 군사비로 쏟아넣고 대미추종로선에 따르는 군국화, 파쑈화를 더욱 다그쳤다. 특히 놈들은 해외침략의 첫번째 공격대상으로 우리 나라를 설정하고 《한국의 안전은 극동과 일본의 안전에 절실히 중요》하며 《조선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나면 강건너불보듯 할수없》으며 이러한 《사태에 시기를 놓치지말고 대처》해야 한다는 전쟁열기로 들뜬 소리를 함부로 줴치면서 우리 나라를 반대하는 미제의 새전쟁도발책동에 적극 가담해나섰다.

미일반동의 이와같은 책동들은 우선 일본인민들속에서 강력한 항거를 불러일으켰다.

이해 6월 23일 일본에서는 일미 《안보조약》의 폐기를 요구하는 《일본력사상 최대규모》의 전국통일행동이 벌어졌으며 이에 뒤이어 10월 21일에는 미제의 아세아침략정책과 사또도당의 대미추종정책을 반대하는 150만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의 전국적인 공동투쟁이 세차게 일어났다.

6월 23일 전국통일행동과 10월 21일 공동투쟁은 미제의 침략과 일본군국주의의 해외침략책동을 저지 파탄시키고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한 일본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에서 새로운 페지를 기록한것으로서 미일반동들에 대한 심대한 타격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의 침략은 오늘 아세아의 모든 혁명하는 나라들을 미제를 반대하는 하나의 공동전선에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미제의 직접적인 침략을 당하고있는 조선과 중국, 윁남과 라오스, 캄보쟈를 비롯하여 아세아의 모든 혁명적나라인민들은 반제반미통일전선을 더욱 강화하고 반미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 미제의 아세아침략에 보다 강력한 집단적반격을 가하여야 합니다.》**

(우와 같은 책, 100폐지)

공동의 원쑤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아세아의 혁명하는 나라인민들간의 전투적인 단결과 친선의 뉴대가 새롭게 강화된것은 이 해의 아세아정세에서 중요한 특징의 하나였다.

1970년 6월에 《미제반대투쟁의 날》과 미제의 대만강점 20년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와 중국에서 벌어진 대규모적인 전투적련대성행사들과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우리 나라 방문 그리고 4월에 있은 인도지나인민들의 수뇌자회의 등은 공동전선을 더욱 강화하여 미제가 벌리고있는 아세아의 모든곳에서 놈들을 쉴새없이 아세아사람들끼리 싸우게하려는 미제의 모략을 철저히 파탄시키고야말 이지역 인민들의 굳은 결의를 그대로 힘있게 과시하였다.

이해 아세아에서의 정세발전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어떠한 발악적책동으로써도 아세아에서 급기히 장성하고있는 혁명력량의 진출을 가로막을수 없으며 아세아에 대한 침략적야망을 실현할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그 어떠한 제국주의세력도 아세아인민들을 정복할수 없으며 그들의 단결된 힘을 깨뜨릴수 없다.

## 도처에서 타오르는 반미 투쟁의 불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해방운동의 강력한 타격에 의하여 식민지노예의 철쇄는 이르는곳마다에서 끊어져가고있으며 인류에게 그처럼 많은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준 제국주의식민지체계는 여지없이 붕괴되여가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에게 이제 더는 〈안전한 후방〉도, 〈고요한 뒤동산〉도 존재하지 않게 되였으며 제국주의의 마지막숨통은 끊어져가고있습니다.》**(《5대륙의 진보적기자들은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들고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자》, 단행본, 3폐지)

1970년에 미제는 중근동,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인민들의 련속적인 된매를 맞고 멸망의 궁지에 깊이 빠져들어갔다.

이 해에 들어와 미제는 이른바 중근동에서의 《힘의 균형》이라는 간판밑에 이스라엘반동들에 대한 군사적지원에 박차를 가하면서 놈들을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무모한 도발에로 적극 내몰는 한편 소위 《평화》, 《협상》을 집요하게 들이대면서 날로 높아가는 아랍인민들의 반미반이스라엘기운을 말살하고 그들속에 사상적동요와 반목을 조성하여 각개격파하며 아랍국가들을 내부로부터 와해하기 위한 전복파괴와해책동을 일층 로골화하였다.미제의 적극적인 지원과 사촉밑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은 정화선일대에서의 빈번한 도발을 감행하던 종래의 범위를 벗어나 점차 아랍나라들의 후방깊이까지 침략을 확대하는데로 넘어갔으며 무력침공의 주공을 아랍에 돌리고 수리아 기타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공중 및 지상으로부터의 도발을 계단식으로 확대하면서 이 지역 정세를 전면전쟁의 직전에로 이끌어갔다. 이해 5월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침략군의 불의의 대규모적인 무력침공과 이에 뒤이어 10월 중순 미제국주의자들이 요르단반동들을 사촉하여 군사정권을 조작하고 팔레스티나유격대를 반대하는 내란전쟁을 도발한 사실 등은 중근동에서의 미제와 이스라엘반동들의 로골화되는 침략책동을 보여주는 뚜렷한 실례로 된다.

그러나 미제와 유태복고주의자들은 그 어떤 발악으로써도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고 강점당한 아랍땅을 되찾으며 팔레스티나인민의 해방위업을 성취하고야말 아랍인민들의 굳은 결의와 투지를 결코 꺾을수 없었다.

아랍군과 인민은 1970년초부터 나라의 방위력을 완비하는데 응당한 힘을 돌리는 한편 지상, 공중, 해상으로부터의 주동적인 공세를 적극화하여 원쑤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다.

수리아를 비롯한 아랍국가들도 이스라엘침략자들의 도발을 걸음마다 짓부시면서 무모하게 날뛰는 원쑤들에게 응당한 징벌을 안겼다. 팔레스티나 항쟁력량은 원쑤들의 공세에 대처하여 정규군, 유격대, 민병 등 산하 모든 무력을 단일한 군사조직에 묶어세우고 그의 통일적인 지휘밑에 도처에서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족치면서 전과를 계속 확대하였다.

이러한 투쟁행정에서 아랍인민들간의 전투적인 단결의 뉴대는 날로 공고화되였다. 1970년 2월초 까히라에서 진행된 이스라엘과 직접 대결하고있는 아랍국가수뇌자회의와 이에 뒤이어 소집된 아랍, 리비아, 수단 3개국수뇌자회의, 6개아랍국가수반들의 회의들에서는 아랍나라들의 인적 및 물적잠재력을 동원하여 단합된 힘으로 공동의 원쑤를 쓸어버리는데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들이 토의결정되였다.

이 해에 앙골라, 모잠비크, 기네(비싸우)의 애국자들도 손에 무장을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도처에서 식민주의의 마지막 보루를 허물어 버리는 진공전을 벌렸다.

무장투쟁의 불길은 라틴아메리카대륙에서도 세차게 타올랐다.

특히 한손에는 총, 다른 한손에는 마치를 들고 미제의 거듭되는 도발책동을 성과적으로 분쇄하면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 나가고있는 영웅적꾸바인민의 승리적인 전진은 반미반독재민족해방을 위한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투쟁에 거대한 혁명적영향을 미치고있다.

라틴아메리카 여러나라 유격대들은 1970년에 들어와 무장대오를 정비강화

하고 대중적지반을 더욱 확대강화하면서 적들의 소탕공격에 대한 대담한 기습작전을 전개하여 원수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1970년 3월말 과테말라애국적무장력이 [?]을 수도 중심부에까지 진출하여 미제의 《외교관》, 친미독재정권의 외상과 농업상, 총재들을 감쪽같이 사로잡고 이전 미편경찰부국장을 죽여버리는 대담무쌍한 작전을 벌려 미제와 그 주구들을 커다란 공포와 불안속에 잠아넣었다. 우루과이의 애국적무장소조원들은 백주에 친미독재정권의 감옥을 들이쳐 거기에 갇혀있던 애국자들을 해방하였으며 브라질과 기타 나라 도시들에서는 사또도당의 총령사들을 비롯하여 여러 서방제국주의나라 《외교관》들이 애국적무장소조에 의해 산채로 붙들리어가고 방송국, 회사, 은행, 경찰서들이 습격폭파당하는 사건들이 련속 벌어졌다. 이리하여 오늘에 와서 미제는 오랜기간 저들의 《고요한 뒤뜰안》으로 간주해온 라틴아메리카대륙에서조차 더는 《안식처》를 구할수 없게 되였다.

한편 1970년에 3대륙의 수많은 신생독립국가들과 민족적독립국가들에서도 반제자주의 추세가 강화되어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은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잠비아정부는 새해 첫날에 나라의 기본자원인 동광석에 대한 미제독점체의 통제를 청산하고 그것을 직접 국가가 틀어쥐게 하였으며 탄자니아정부는 제국주의독점회사들의 활동을 제한하였다. 또한 수단, 리비아정부도 미영제국주의독점회사들과 외국은행들을 국유화하는 단호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콩고인민공화국, 이라크,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말리아, 수단을 비롯한 일련의 신생독립국가들에서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악랄한 정부전복음모를 단호히 짓부셔버렸으며 기네인민은 11월 12일 미제의 사촉밑에 불의의 무력침공을 감행해온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의 고용군을 일망타진함으로써 피로써 쟁취한 독립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이 해 11월 24일 칠레에서는 친미정권이 거꾸러지고 진보적인 알엔데정부가 새로 수립되였다. 칠레정부는 미제와 국내반동들의 경제적지반을 없애고 나라의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사회주의나라들과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 길로 나아가고있다. 특히 칠레는 미제의 침략도구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에서 탈퇴하였다.

이외에도 아프리카와 중근동의 많은 신생독립국가들이 미제의 침략의 척후병인 《평화봉사단》을 내쫓고 숭미, 친미사상과 썩어빠진 미국식생활양식을 퍼뜨리는 반동적인 미국영화의 상영을 금지해버렸다.

실로 이제와서 그 어데를 보나 미제에게는 《안전한 후방》도, 《고요한 뒤뜰안》도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되였으며 놈들의 숨통은 이기지기서 좁아져가고있다.

세찬 격랑을 일으키며 막을수 없는 힘으로 도도히 흐르고있는 이 장엄한 혁명의 거세찬 조류앞에서 세계반동의 우두머리 미제는 몰락자처럼 력사무대에서 밀려나고있다.

## 막다른 골목에서 허덕이는 미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안으로부터, 밖으로부터 심대한 타격을 받고있으며 더욱 더 막다른골목에 빠져들어가고있습니다.》(《5대륙의 진보적기자들은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들고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자》, 단행본, 3페지)

세계도처에서 련속 된매를 맞아 만신창이된 미제는 자국내에서도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

특히 이 해에 닉슨도당의 침략과 탄압책동을 반대하는 국내인민들의 반전투쟁, 흑인들의 폭동적진출, 근로자들의 파업투쟁이 그 폭과 깊이에 있어서 확대심화되였다.

캄보쟈에 대한 미제의 강도적인 무력침공을 계기로 《캄보쟈에 대한 무장간섭을 당장 중지하라!》, 《미국은 인도지나에서 피묻은 손을 떼라!》, 《살인자 닉슨을 쓰레기통에 처박으라!》—전국방방곡곡에서 각계층인민들은 이렇게 웨치면서 항의시위, 군중집회, 동맹휴학, 징집령장소각, 서명수집운동 등 여러가지 투쟁형태로 미제의 캄보쟈침략을 준렬히 항의규탄해나섰으며 이 투쟁은 폭동적인 성격을 강하게 띤 대중적투쟁으로 급속히 발전해갔다. 이때문에 닉슨도당은 나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만의 경찰과 《주방위군》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될 위험한 형편에까지 처하였다.

이러한 대중적인 반전투쟁은 자유와 평등, 계급적해방을 위한 흑인들의 폭동과 합쳐 거창한 분류를 이루면서 미제반동통치지반을 크게 뒤흔들어놓았다.

닉슨도당의 전반적인 파쑈적폭압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더욱 거세여지고있는 분노한 흑인들의 폭동적인 진출로 락담의 궁지에 빠진 미제국주의자들은 미국에서 흑인들의《유격전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풍부하다》고 연신 비명을 올리고있다.

한편 년초부터 미국에서는 독점자본을 반대하는 로동계급의 투쟁이 줄기차게 발전하였는데 이에 있어서 특히 미국 31개주의 147개 공장을 휩쓴 《제네랄 모터스》회사산하 자동차공장로동자들의 대중적인 진출, 50만철도로동자들의 전국적인 파업 등은 그의 장기성, 완강성, 투쟁성격으로 보아 주목할만한 파업투쟁들이였다.

미제가 겪고있는 난국은 이뿐만이 아니다.

전쟁도박으로 골병이 든 경제의 발전을 자극해보려는 닉슨도당의 발버둥질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는 계속 파국에로 줄달음치고있다.

생산은 15개월째나 계속 하강선을 긋고있으며 1970년 한해동안에만도 무려 1만 748개에 달하는 기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여 파산몰락하였다. 그리고 실업자수는 닉슨도당의 집권이래 근 200만이나 더 불어났으며 물건값은 끊임없이 치솟아오르고 인플레의 검은 구름이 날이갈수록 미국사회를 더욱 무겁게 짓누르고있다. 이와 함께 미제의 재정예산도 극도로 긴장되고있는데 1970년 한해동안에 미제의 국제수지적자총액은 무려 98억 1천 900만딸라를 기록하고 금보유량은 1944년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련방예산에서는 1970회계년도에 280억딸라에 달하는 적자가 났다.

이리하여 한때 자본주의 세계에서 패권자로 우쭐거리던 미제는 이제와서 가련한 빚쟁이로 굴러떨어지고 제국주의금융계를 좌지우지해오던 딸라는 맥을 추지못하고 있으며 딸라, 파운드중심의 자본주의통화체계는 밑뿌리로부터 뒤흔들리게 되였다.

1929년의 대공황시기를 방불케하는 미국경제의 이 엄중한 실태와 암담한 전망으로하여 공포와 비관에 잠긴 닉슨도당은 지금 《미국경제가 엄중한 시련의 시기에 처해있다》, 《미국은 1930년대의 최악의 금융위기를 겪고있다》고 아우성을 쳤다.

왕청대 될정으로 미제는 서방 《동맹국》들로부터조차 따돌리우고 있으며 서구라파자본주의나라인민들의 저주와 규탄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미제는 인

도지나에서 당장 물러가라!», «미제야수들에게 죽음을!»이라는 인민들의 분노에 찬 함성이 그칠새없이 울려퍼지고있다. 도처에서 미국놈의 대사관, 령사관, 공보원따위 등이 습격되고 파괴당하고 피로 얼룩진 미제의 기발이 갈기갈기 찢기우고있으며 《친선리행》길에 나선 닉슨, 애그뉴를 비롯한 악한놈들은 미제전쟁수괴사환군들이 썩은닭알, 돌멩이, 뺨까 매락을 맞는 통쾌한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1970년 한해동안에 서독, 영국, 프랑스, 이딸리아를 비롯한 미제의 《동맹국》들에서 미제의 침략과 자기나라 반동지배층들을 반대하는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의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져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막다른 골목에 더깊이 빠져들어갔다.

실로 미제의 처지가 이처럼 비참한 지경에로 몰리면이지고 놈들의 지위가 뒤흔들리고 고립된적은 일찌기 없었다.

이 모든것은 닉슨을 우두머리로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 침략과 전쟁정책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이다.

1970년의 국제정세는 전세계적규모에서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는 계급투쟁의 폭풍우속에서 세계혁명력량이 시대의 온갖 오물들을 힘있게 쓸어버리면서 력사의 로정을 승리적으로 밟아나가고있으며 미제를 두목으로하는 제국주의반동세력들은 이 력사의 힘찬 진군을 가로막기에는 너무나도 무력하다는것을 립박할수 없는 사실로써 다시한번 힘있게 확증하였다.

미제는 그 어떤 발악으로써도 세계혁명의 거세찬 대조류를 막을수 없으며 이미 기울어진 제놈들의 파멸의 처지를 결코 되돌려세울수 없다.

미제를 우두머리로하는 제국주의의 완전한 멸망은 불가피하며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는 필연적이다.

# 인도지나 정세

인도지나인민들은 외래침략자들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오랜 력사적기간에 걸쳐 힘차게 전개하여 왔다. 나라의 독립과 민족적해방을 위하여 인도지나인민들은 프랑스식민주의자들과 일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완강한 투쟁을 벌리였으며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인도지나인민들은 프랑스식민주의자들과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뒤를 이어 침략의 마수를 뻗쳐온 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오늘까지 계속 영웅적인 투쟁을 전개하고있으며 놈들에게 심대한 군사정치적타격을 가하고있다.

오늘 미제는 인도지나전역에 전쟁의 불길을 확대함으로써 제놈들의 무덤을 더욱 깊이 파들어가고 있다.

인도지나에 침략의 마수를 뻗친 그 순간부터 살인, 략탈, 파괴를 일삼으면서 이 지역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들씌워온 간악무도한 침략자 미제는 지금에 와서는 인도지나전역을 피비린내나는 전면적인 전쟁의 불길속에 몰아넣고 이 지역에 대한 신식민주의적지배권을 확립해보려고 미친듯이 날뛰고있다.

실로 인도지나에 대한 미제의 침략력사, 그것은 침략과 전쟁으로 일관된 강도의 력사이며 살륙과 략탈로 이루어진 범죄의 력사이다.

웰남, 캄보쟈, 라오스 등을 포괄하고있는 인도지나는 풍요한 자연부원을 가지고있으며 지리적으로 군사전략상 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있다.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은 인도지나의 풍요한 자연부원을 략탈하며 아세아대륙에 대한 침략을 위하여 오래전부터 인도지나를 침략하고 가혹한 략탈을 감행하여왔다.

일찌기 18세기말부터 이 지역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기 시작한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1887년에 웰남과 캄보쟈를 통합하여 《인도지나 련방》을 조작한데 이어 1899년에는 라오스까지 이에 편입시킴으로써 인도지나전역을 제놈들의 식민지로 전변시켰다.

인도지나인민들은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며 나라의 독립과 민족적자유를 위한 성전에 떨쳐나서 끊임없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제2차세계대전기간인 1940년 9월에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인도지나북부지역에 기어들었으며 이듬해 7월에 이르러 인도지나전지역을 강점하였다.

일제의 패망으로 끝난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미제는 《세계제패》야망을 품고 그 실현을 위하여 우선 민족해방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인도지나와 아세아전반에 침략과 전쟁정책의 주되는 예봉을 돌렸었다.

인도지나에서의 프랑스식민주의의 종말을 고한 1954년 제네바회의개최를 앞두고 당시 악명높은 호전광이었던 미국무장관 덜레스란놈은 《프랑스가 인도지나에서 손을 떼는 경우에도 인도지나전쟁은 어떻게해서라도 계속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떠벌였으며 당시 미국부대통령이였던 닉슨이란놈도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면 미군을 인도지나에 파견하겠다》고 공공연히 줴쳐으로써 인도지나에 대한 제놈들의 범죄적인 침략기도를 숨기지 않았다.

민족해방력량의 거세찬 진출앞에서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낀 미제는 제2차 세계대전후 저들의 군사전략을《재검토》하고 핵공갈정책을 계속하는것과 함께 상용무력에 의한 침략전쟁을 세계의 여러 지역들에서 감행하기 위한 이른바《신축성있는 반응전략》이라는것을 고안해냈다. 이《전략》에 기초하여 놈들은 바로 남부웰남을 《특수전쟁》의 《시험장》으로 선정하고 민족해방투쟁을 탄압말살하기 위한 《경험》을 축적해보려고 망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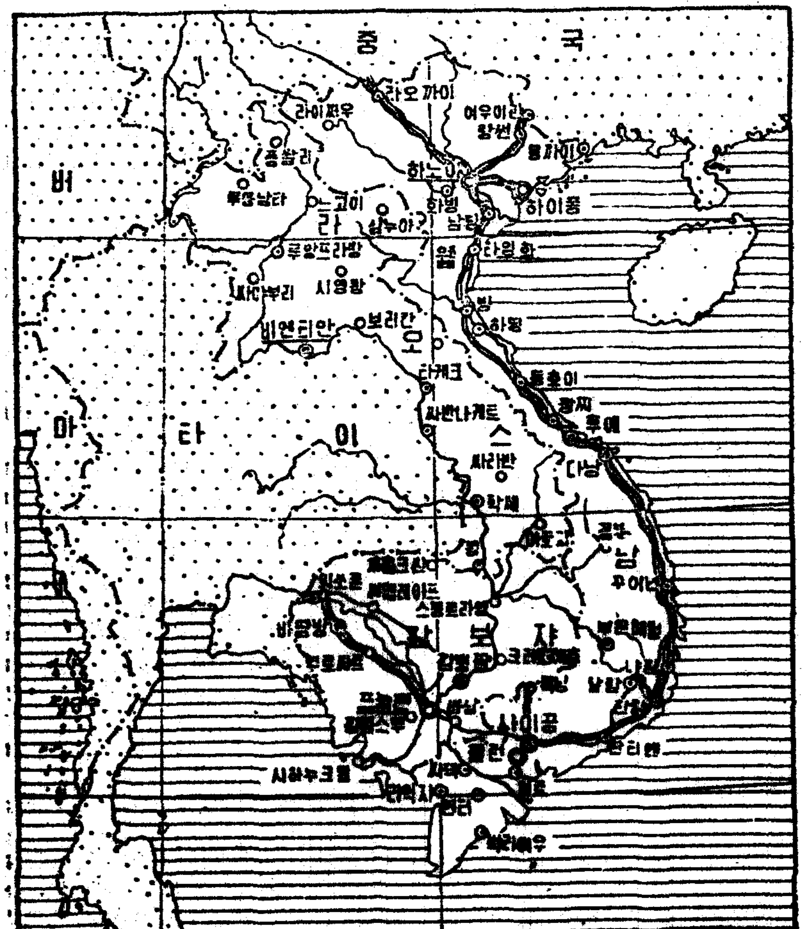
미제는 저들의 흉악한 침략계획에 따라 1954년 제네바협정이 조인되자 곧 침략적군사동맹인 세아토 (동남아세아조약기구)를 조작하고 남부웰남, 라오스, 캄보쟈를 그의 《보호지역》으로 공공연히 선포하였다.

미제는 1956년 7월에 실시하기로 되였던 웰남의 통일을 위한 전국적인 자유총선거를 파탄시키고 제놈들의 수많은 군사인원과 무기, 전쟁물자들을 남부웰남에 끌어들였으며 남부웰남괴뢰군을 대폭 증강하고 비행장, 항만, 전략도로, 군수품창고 등 군사시설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였다. 이와 같은 준비에 기초하여 미제는 1961년에 남부웰남에서 《특수전쟁》을 도발하였다.

놈들은 남부웰남을 18개월내에 《평정》할것을 기본내용으로하는 이른바 《스테일리—테일러계획》이라는것을 만들어놓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목표를 달성하고야 말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다.

그후 수많은 《18개월》이 지나갔으나 남부웰남인민해방무장력은 《소멸》되지 않았을뿐만아니라 반대로 불패의 력량으로 더욱더 장성강화되였으며 미제의 《특수전쟁》은 거덜이 나고말았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도지나인민들의 수뇌자회의에 보내신 전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미제는 그 무엇으로써도 이미 기울어진 운명을 구원할수 없으며 날로 장성되는 인도지나인민들의 거세찬 반미투쟁의 물길을 절대 가로 막을수 없습니다.

전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있는 월남, 라오스, 캄보쟈 인민들은 자기의 정의의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이며 미제침략자들은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고 조만간 인도지나에서 쫓겨나고야 말것입니다.》

미제는 제놈들의 수치스러운 참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새로운 《계단식》전쟁확대정책에 매달려 궁지로부터의 출로를 찾아보려고 더욱 미쳐날뛰였다.

이른바 《바크보만사건》의 날조는 미제의 《계단식》 전쟁확대모험의 첫 신호였다.

미제는 남부월남에서 《특수전쟁》이 파탄되자 남부월남괴뢰군을 50여만으로 늘이고 미제침략군 지상부대의 2분의 1과 공군의 5분의1, 해군의 4분의 1을 투입하여 1년에 300억딸라이상을 탕진하면서 1965년에는 드디여 《특수전쟁》을 《국부전쟁》으로 확대하는 길로 서슴없이 나아갔다.

간악한 미제는 한편 북부월남에 대한 파괴적인 《공중전쟁》을 벌려 남부월남을 동시에 공격하는 방법으로 남부월남형제들에 대한 북부월남인민들의 지원을 가로 막고 남부월남의 애국력량을 탄압말살함으로써 남부월남에 대한 군사적강점을 유지할수 있을것으로 타산하였었다.

원쑤 미제에 대한 불타는 증오를 안고 싸움에 결연히 떨쳐나선 북부월남인민은 1965년부터 1967년까지의 3년간에만도 미제침략군비행기 2천 600여대를 박산냄으로써 놈들의 《공중전쟁》을 산산이 짓부셔 버렸다.

남부월남인민과 그 무장력도 1965—1966년과 1966—1967년에 미제의 대규모적인 건조기공세에 섬멸적타격을 들씌운데 이어 1968년에는 무려 63만여명의 적을 소멸하는 자랑찬 승리를 거두었다.

이리하여 북부월남에 대한 폭격중지를 선포하지 않을수 없은 미제는 남부월남에서도 더욱더 헤여날수 없는 진창속에 빠져들어가게 되였다.

한편 《동남아세아의 전략적요충》—라오스에 오래전부터 눈독을 들여오던 미제는 라오스에 《제2전선》을 펴는 방법으로 이 나라의 애국력량을 탄압말살하고 월남침략전쟁을 위한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을수 있을것이라는 어리석은 타산밑에 남부월남에서 《특수전쟁》을 《국부전쟁》으로 확대하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라오스에서 《특수전쟁》을 도발하였다.

라오스에 관한 1962년제네바협정에 의하여 수립된 민족련합정부를 파괴한 미제는 제놈들의 제7함대와 타이 및 남부월남에 기지를 둔 공중비적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라오스해방지역에 대한 무차별폭격을 들이대는 한편 프랑스식민지통치시기에 1만 7천명이던 라오스괴뢰군을 7만명으로 늘이고 미제간첩소굴인 미중앙정보국에 직속된 《특수부대》 5만명을 편성하여 1만 2천여명의 미제침략군 《고문》놈들의 휘하에 넣고 《특수전쟁》을 미친듯이 강화하여왔다.

라오스에서의 《특수전쟁》은 제놈부터 미제가 남부월남에서 벌려놓았던 《특수전쟁》의 단순한 되풀이가 아니라 보다 악랄하고 더욱 확대된 형태의《특수전쟁》으로 되였으며 앞으로 미제가 그것을 《계단식》으로 확대하는경우 보다 급격히 《국부전쟁》으로 번져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미제는 한편 캄보쟈의 반역자들과 우익반동들을 규합하고 사촉하여 크메르인민을 반대하는 파괴암해책동과 캄보쟈정부를 뒤집어엎기 위한 전복음모를 끊임없이 감행하여왔다.

그러나 나라의 독립, 중립, 평화와 령토완정을 굳건히 지켜온 캄보쟈왕국정부는 미제의 굴욕적인 《원조》를 배격하고 외교관계를 단절하는 등 놈들의 음흉한 책동을 단호히 맞받아싸우면서 자주적발전의 길로 확고히 나아갔다.

극악무도한 전쟁미치광이이며 호전광들인 케네디와 존슨놈은 이와같은 제놈들의 침략기도를 실현해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였으나 대참패를 거듭하였다.

미제의 날강도적침략본성은 결코 변

하지 않았으며 또 변할수도 없는것이다.

존슨으로부터 전쟁두목자리를 넘겨받은 악명높은 《반공》호전광인 닉슨놈은 미제의 강도적본성을 더욱더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으면서 인도지나침략전쟁을 끊임없이 확대하기에 미쳐날뛰였다.

닉슨도당은 전쟁의 《월남화》니, 《미군철수》니 하는 따위의 연막뒤에서 남부월남괴뢰군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남조선괴뢰군과 타이반동군을 더 끌어들여 인민들을 학살함으로써 남부월남전역을 손 미와 같은 《무인지대》로 전변시켜보려고 망상하였으며 라오스에서도 이 나라의 《중립을 회복》한다는 허울좋은 간판밑에 50여개대대의 우파괴뢰군과 수많은 남부월남괴뢰군, 타이반동군, 지어 장개석잔당까지 끌어들여 1969년 8월부터 이른바 《쿠키예브작전》(명예회복작전)이라는것을 벌려 일거에 애국력량을 탄압말살하고 해방지역을 몽땅 삼켜보려고 꿈꾸었다.

그러나 놈들의 이와같은 발악적인 책동 역시 실패를 면할수 없었다.

제놈들의 야망을 손쉽게 실현할수 없다는것을 타산한 미제는 월남, 라오스, 캄보쟈를 하나의 전선으로 련결시키고 제놈들의 침략무력과 괴뢰군고용군들을 이 지역에 대대적으로 투입하여 세나라인민들을 동시에 공격하는 방법으로 인도지나인민들의 통일적인 전쟁을 가로막고 이 지역에서 망하고있는 저들의 수치스러운 참패를 만회해보려고 꾀하였다.

이리하여 미제는 1970년 3월 18일 캄보쟈에서 반동적인 정변을 조작한데 이어 4월말에는 이 나라 인민을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침략적무력침공을 감행함으로써 전쟁의 불길을 인도지나전역에로 확대하였다.

미제는 저들의 이와같은 전쟁확대모험에 아세아추종국가괴뢰들을 보다 전면적으로 끌어들이려고 음흉하게 날뛰였다. 미제가 조작한 《캄보쟈문제에 관한 아세아회의》, 《동남아세아개발각료회의》, 《아세아태평양지역각료리사회회의》, 《세아토각료리사회회의》들과 그리고 미제전쟁미치광이들의 빈번한 동남아세아행각 등은 놈들의 이러한 책동의 련쇄된 고리들이다.

그러나 미제의 이 모든 발광적책동은 죽어가는자들의 마지막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1970년에 인도지나인민들은 미제의 강화되는 침략에 대처하여 전투적인 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원수들에 대한 드센 공세를 벌려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에게 심대한 참패를 안겨주었다.

이미 령토의 5분의 4와 인구의 3분의 2를 해방한 남부월남 인민해방무장력은 4월말부터 남부월남전역에서 110여개의 적진지들과 거점들을 련속 짓이쳐 원수들을 전율케 하였다.

1970년 6월까지의 10년 동안에 인민해방무장력은 초보적인 통계에 의하더라도 미제침략군과 추종군 84만 5천여명을 포함한 적 261만 800여명을 살상포로하였으며 적 비행기 2만 4천700대를 쏴떨구거나 지상에서 파괴하였으며 군용차 5만 7천970대, 땅크와 장갑차 2만 8천 879대를 까부시고 함선 3천 935척을 물속에 처박거나 불태워버렸다.

민주월남을 반대하는 미제의 파괴적인 공중전쟁도 대참패를 거듭하고있다.

월남인민군과 인민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북부월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이 시작된때로부터 1971년 3월초까지의 기간에 근 3천 400대의 미제침략군비행기가 녹아났다.

령토의 3분의 2와 인구의 절반이상을 해방한 라오스애국군대와 인민은 1970년 2월초부터 적들에 대한 전면적인 총공세를 들이대여 전략적요충지들인 자르평원, 히엥 콸주, 아똡뿌주 등을 련이어 해방하고 적들을 전전선에서 극도의 수세와 피동에 몰아넣었다.

라오스애국군대와 인민들은 1964년부터 1969년까지의 기간에 17만명의 적을 소멸하고 박격포, 대포, 무반동포를 포함한 각종 무기 6만여정을 빼앗았으며 미제침략자들이 라오스해방지역에 대한 폭격만행을 감행하기 시작한 1964년 5월부터 1969년까지의 기간에 놈들의 비행기 근 1천200대를 쏴떨구거나 땅에서 마사버렸다. 1970년에는 근 3만명의 적을 소멸하고 375대의 적비행기를 격추격상하는 빛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리하여 자르평원과 히엥 콸지역을 장악함으로써 해방지역에 대한 전면적 공세의 길을 터놓으려던 미제와 그 주구들의 망상은 여지없이 분쇄되고 말았다.

캄보쟈인민들의 반미구국항쟁도 힘차게 전개되였다.

1970년 5월 5일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위원장으로 하는 캄보쟈민족통일전선이 조직되고 왕국민족련합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캄보쟈인민의 투쟁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캄보쟈 민족통일전선의 지도밑에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은 전국적범위에서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적들을 련속 짓이쳐 1970년말까지 미제침략군과 남부월남괴뢰군 그리고 캄보쟈괴뢰군 15만여명을 소멸하는 눈부신 승리를 거두었다.

이리하여 령토의 70%와 400만인구를 해방한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의 포위속에 들어있는 론놀-시리크 마타크괴뢰도당은 프놈 펜 한구석에 처박혀 가쁜 숨을 쉬지않으면 안되였다.

서방어용통신들까지 론 놀을 《프놈펜시장》이라고 야유하면서 《프놈 펜이 고립되고 론 놀《신정권》이 시들어 죽을것이라는 위구가 날로 커가고있다》고 비평을 올린것은 결코 우연한 사실이 아니였다.

미제승냥이놈들의 야수적인 침략에 맞서 하나의 반미공동전선에 굳게 결속된 인도지나인민들은 항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승리적으로 싸워나아가고있으며 인도지나전역은 문자그대로 원수 미제를 징벌하는 결전장으로, 놈들의 무덤으로 화하고있다.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있는 월남, 라오스, 캄보쟈 인민들의 반미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며 미제침략자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이미 기울어진 제놈의 운명을 구원하지 못할것이다.

## 중근동정세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중동위기는 유태복고주의자들을《행동대》로 내세워 아랍인민들속에서 앙양되고있는 반제민족해방투쟁을 압살하며 이 지역을 자기들의 예속밑에 넣으려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에 의하여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가 오늘까지 해결되지않고있고 중근동정세가 계속 긴장되여있는것도 전적으로 이스라엘침략자들과 그를 조종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파렴치한 침략책동에 기인합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

한 대답》, 단행본, 121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중근동위기의 장본인은 미제국주의자들이다.

침략의 원흉 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근동의 아랍인민들을 반대하는 침략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여왔다.

미제는 세계적인 석유생산지인 (석유매장량 370억톤) 중근동지역을 예속함으로써 경제적리권을 독점하고 지리적으로 아세아, 아프리카, 구라파대륙을 이어주는 전략적요충지인 이 지역을 발판으로 하여 아세아, 아프리카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을 말살하며 나아가서는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고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오래전부터 침략과 전쟁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려 왔다.

미제는 저들의 이러한 흉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 배타적인 이스라엘《국가》를 조작하고 그를 중근동침략의 《돌격대》로 리용하려고 책동하였다

오래전부터 팔레스티나령토(2만 5천평방키로메터)에는 아랍인들과 약간의 유태인들이 살고있었다.

16세기초엽부터 제2차세계대전 전까지 팔레스티나는 토이기제국의 기반하에 있었으며 1920년에는 영제국주의자들의 위임통치령으로 되였다.

강점된 팔레스티나에서 반영투쟁이 세차게 일어나자 이에 당황망조한 영제국주의자들은 배타적인 유태인들의 복고주의를 리용하여 팔레스티나아랍인들의 해방투쟁을 말살하기 위한 정책에 매여달렸다.

제2차 대전이후 영제국주의자들이 전쟁의 후과로 약화된 틈을 타서 미제는 1947년 팔레스티나에 대한 영제국주의자들의 《위임통치》를 종식시키고 제놈들의 수중에 장악하기 위해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미제는 이 지역에서의 아랍족과 유태족간의 분쟁을 교묘하게 리용하여 팔레스티나를 분할케 하고 1948년 5월 14일에는 이스라엘《국가》를 조작해내였다. 미제의 분렬책동으로 말미암아 팔레스티나땅에는 아랍인의 국가가 세워지지 못했을뿐 아니라 무려 150여만에 달하는 팔레스티나 아랍인들이 강제로 쫓기거나 피난민으로 방랑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바로 이것이 미제의 침략책동에 의하여 생겨난 《팔레스티나문제》의 진상이다.

미제는 이스라엘《국가》를 조작한후 그를 무장시켜 아랍국가들을 반대하는 침략에로 적극 내몰았다.

미제의 적극적인 지원과 사촉밑에 유태복고주의자들은 1948년 5월 마침내 아랍국가들을 반대하는 《팔레스티나전쟁》을 도발하였다. 1년 2개월간의 전쟁의 결과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은 6천 700평방키로메터에 달하는 령토를 강점하였다.

1956년 10월에는 영국, 프랑스제국주의자들과 함께 애급을 반대하는 침략을 감행함으로써 가자지역과 아카바만연안을 장기간 강점하였었다.

그후에도 이스라엘침략자들은 아랍국가들을 반대하는 끊임없는 침략과 군사도발책동을 감행하였는바 1958년부터 1964년 기간에 아랍국가들에 대한 침범사건은 무려 1만 9천 717건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스라엘침략자들이 미제의 중근동 침략의 《돌격대》로 되고있으며 중근동에서 침략과 전쟁의 장본인이 다름아닌 미제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미제는 이러한 공개적인 침략책동과 함께 보다 음흉하고 교활한 신식민주의적책동에 매여달리기 시작했다.

특히 1956년 애급에 대한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침략자들의 공개적인 무력간섭이 실패한후 미제는 자신을 아랍인민의 《벗》으로 가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원조》와 《협조》의 간판을 내세우고 그 뒤에서 제국주의적통제를 강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아랍국가들간의 분쟁을 교묘하게 조장시키고 《외교적설득과 압력》의 방법으로 신생아랍국가들을 회유하면서 이 지역에 공고한 발판을 이룩해보려고 책동하였다.

그러나 놈들의 이모든 발악에도 불구하고 중근동지역에서 미제의 신식민주의적정책은 아랍인민들의 강력한 항거에 부딪쳐 심각한 파산의 운명에 직면하게 되였다.

미제의 중근동 침략의 교두보인 이스라엘은 아랍지역에서 더욱 철저히 고립되였다.

진퇴량난의 궁지에 빠진 미제는 무모한 전쟁모험으로써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전진하는 아랍나라들의 견결한 립장을 변경시키고 이 지역에서 뒤흔들리는 저들의 침략정책을 수습해보려는 헛된 시도에 매여달리게 되였다.

1967년 6월 5일 마침내 미제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을 사촉하여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전면적인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미제의 직접적인 조종밑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이 도발한 중근동전쟁은 중근동에서 석유리권을 확장하며 이 지역에 대한 신식민주의적지배를 확립하기 위하여 미제가 오래전부터 꾸며온 침략계획을 실천에 옮긴것이였다.

그러나 미제는 중근동전쟁을 도발하면서 추구한 흉악한 목적을 달성할수 없었다.

전쟁이 있은때로부터 근 4년이 되여오지만 놈들의 타산과는 반대로 진보적아랍나라들은 더욱 공고화되고 아랍의 혁명력량은 치렬한 투쟁속에서 불패의 력량으로 장성강화되였다.

오늘 중근동에서의 정세발전은 미제에게는 날로 불리하게, 아랍인민에게는 유리하게 전변되고있다.

그러나 미제는 력사의 거세찬 흐름을 가로막고 팔레스티나혁명을 압살하며 아랍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침략자들을 사촉하여 새로운 침략전쟁에로 내몰려하고있다.

1969년 9월 미제의 전쟁두목 닉슨도당이 이스라엘침략자들의 두목 메이르를 워싱톤에 불러들여 흉악내풍기는 전쟁모의를 하고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을 《계단식으로 확대》할데 대한 새로운 지령을 주었다.

이때로부터 미제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더욱 무장시키기 위하여 놈들에 대한 군사적지원을 보다 본격적으로 강화하는 길에 들어섰다.

미제는 《중동에서의 힘의 균형》이라는 상투적인 구호를 소란스럽게 웨쳐대면서 유태복고주의자들에 대한 무력지원을 강화하였다.

1970년에 미제는 5억딸라의 《특별군사원조》를 포함하여 8억딸라의 《군사원조》를 이스라엘침략자들에게 쏟아부었다.

미제의 미친듯한 군사지원과 사촉을 받은 이스라엘침략자들은 매일 314만딸라의 엄청난 돈을 침략에 탕진하면서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적인 군사도발을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1967년 6월 전쟁이래 1969년 11월까지 기간에만도 이스라엘침략자들은 애급지역에서는 약 4천여건, 요르단지역에서는 3천여건, 수리아지역에서는 300여건의 군사도발을 감행하였다.

특히 1970년 2월 12일 까히라 교외에 있는 아브 자발 제철소에 대한 맹폭격, 4월 8일 아련의 바흐르 엘바크르소학교에 대한 야수적인 폭격 등은 피에 굶주린 미제와 이스라엘 날강도들의 발악적인 책동의 뚜렷한 실례였다.

미제는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과 전쟁정책을 어느때보다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중근동문제의 이른바《평화적해결》이라는 광대놀음을 벌려놓았다.

1970년 6월 미제의 전쟁광인 미국무장관 로저스란놈이 내놓은 이른바 《새중동평화안》이란것은 전쟁마당에서 달

성하지 못한 침략야망을《평화》의 막뒤에서 달성해보려는 미제의 보다 음흉하고 흉악한 책동의 한고리였다.

미제는 이른바 《새중동평화안》이란것을 내놓으면서 아랍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케하고 중동전쟁에 의해 이스라엘침략자들이 비법적으로 강점한 가자지역, 골란고지, 시나이반도, 예루살렘, 샤름 엘 쉐이크 등 광대한 아랍령토를 영원히 놈들의 땅으로 남겨두려는 악랄한 목적을 추구하였다.

미제의 이러한 책동은 특히 1970년 8월 중근동에서 정화가 실현된후 더욱 강화되였다.

미제는 정화의 막뒤에서 이스라엘침략자들에 대한 군사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아랍령토에 대한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영구강점을 실현케하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이러한 목적밑에 미제와 그 주구 이스라엘침략자들은 아랍나라들의 통일을 내부로부터 파괴하고 리간과 분렬을 조장시켜 그 나라들을 각개격파하려는 교활한 책략에 매여달리는 한편 저들의 중근동침략계획수행에서 커다란 장애로 되고있는 혁명적인 팔레스티나인민들을 무장해제시키고 그들의 해방위업을 말살하려고 미쳐 날뛰였다.

1970년 9월 미제의 적극적인 사촉하에 요르단반동들이 감행한 팔레스티나유격대에 대한 류혈적인 탄압학살만행,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요란스럽게 떠들어대고있는 이른바 《팔레스티나국가》에 대한 광나발은 미제의 이러한 음흉한 침략계획의 련쇄된 한고리들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미제가 중근동에 대한 침략에서 이러한 량면술책에 매여달리게 된것은 이 지역에서 놈들의 처지가 더욱더 어렵게 되였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놈들의 어용출판물들까지도 미제가 지금 중근동에서 외교적으로뿐만아니라 《군사적으로 곤경에 처해있다》고 비명을 올리고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미제는 그어떤 횡포한 침략의 위협으로써도 교활한 《평화》의 간판으로써도 침략자를 반대하고 나라의 독립과 민족적존엄을 수호하기 위해 한사람 같이 떨쳐나선 아랍인민의 투지를 꺾을수 없었으며 저들의 강도적야망을 결코 달성할수 없었다.

미제와 그의 충실한 앞잡이 이스라엘침략자들의 교활하고 음흉한 침략책동도 유태복고주의자들을 쓸어버리고 강점된 아랍땅을 해방하고야 말려는 1억 아랍인들의 굳센 투지를 결코 꺾을수 없었다.

《무장을 잡고 피의 바다를 건너 불길속을 헤치고 나갈》 결심을 굳게 다진 아랍인민들은 《힘으로 빼앗긴것은 힘으로 되찾아야 한다》는 전투적구호밑에 정의의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아련, 수리아, 이라크 등 아랍나라 군대들은 놈들의 침략과 도발이 확대될수록 침략자들에게 강력한 반타격을 강화하였다.

1970년 1월 25일 중근동전쟁이래 가장 큰 공군편대를 무어 수에즈운하 동쪽 278키로메터까지 뚫고들어가 이스라엘침략군의 요새화된 진지들을 불바다로 만든 아련군은 4월 18일 또다시 큰 공군편대를 동원하여 시나이반도에 둥지를 틀고있는 적들의 진지와 포 및 로케트포진지들을 공격하여 놈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함으로써 원수들의 전쟁도발책동도 일격에 쳐물리치고 침략자들을 섬멸해버릴 굳은 결의와 위력을 남김없이 시위하였다.

수리아군도 1970년 3월 27일 침략과 도발을 일삼는 이스라엘침략군진지 21개를 일시에 들이쳐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주었으며 이틀후인 29일에 또다시 적진지 4개를 불의에 공격하여 적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아랍나라 군대들의 전투력이 비상히 강화되고 침략자들을 더는 함부로 날뛸수 없게 되고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정화이후 아랍나라들은 원수와의 마지막 판가리싸움을 준비하기 위하여 국방력을 강화하고 만단의 전투태세를 갖추기 위한 사업을 힘차게 벌리였다.

아랍나라들은 전선에서 적들에 대한 반타격전을 강화함과 함께 후방을 공고히하고 전체 인민들을 원수와의 싸움에 동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도 취해지고있으며 아랍나라호상간의 전투적련대성과 통일이 어느때보다도 강화되였다.

아련정부는 새로 창설된 인민방위군의 훈련과 민간방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련군 현역장교들을 각도에 파견하였으며 인민대중을 민간방위에 동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게될 민간방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정부의 혁명적조치에 따라 아련의 모든 기관 기업소들은 자기의 초소를 경각성있게 보위하고있으며 청년들과 학생들은 군사훈련에 자원적으로 참가하고있다.

아랍나라들의 통일을 강화하고 호상간의 전투적련대성을 굳게함으로써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에 단합된 힘으로 맞서려는 아랍인민들의 지향은 1970년 11월 8일 아련, 수단, 리비아 등이 련방을 형성한데서 명백히 표시되였다.

1970년 12월에 까히라에서 진행된 아련, 수단, 리비아, 수리아 4개국 수뇌자회의에서 4개국은 나라의 모든예비와 정력을 동원하여 아랍령토를 해방하며 제국주의와 유태복고주의를 반대하는 팔레스티나유격대의 투쟁을 계속 지지할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특히 1970년에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팔레스티나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아랍인 의용병들의 《아랍군단》이 새로 창설된것은 아랍인민들간의 굳은 전투적련대성을 훌륭히 보여준 것이였다.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속에서 아랍인민들은 점차 자기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준 침략의 장본인이 미제국주의자들이라는 것을 똑똑히 깨닫게 되였으며 투쟁의 예봉을 점차 미제에 돌리고있다.

1970년 1월 아련 대통령 안워르 앗 사다트가 미제를 아랍인민의 주되는 원수로 선포하였으며 수리아대통령 하페즈 알 아싸드가 아랍나라들이 단결하여 미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있는 유태복고주의자들의 침략에 맞설것을 호소한것 등은 아랍나라들의 이러한 견결한 립장을 잘 말해주고 있다.

아랍나라들의 강력한 공세에 발맞추어 손에 무장을 들고 조국해방의 성전에 떨쳐나선 팔레스티나인민들도 미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침략자들에게 강력한 징벌의 철추를 안기였다.

팔레스티나유격대들의 투쟁은 요르단강골짜기와 나불루스의 산악지대, 가자지대와 골란고지를 비롯한 강점된 아랍령토에서는 물론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소굴인 텔 아비브와 중요항구들에서까지 세차게 전개되고있다.

유격대원들은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의 격화되는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매복습격과 야간기습 등 다양한 전략전술로 적들을 련속공격하여 원수들의 숨통을 조이고있다.

1969년 4월부터 1970년 4월까지의 기간에만도 팔레스티나유격대들은 5천 62차의 각종 군사작전을 벌려 약 1천 700명의 적을 소멸하고 적 비행기 24대를 쏘아떨구었으며 각종 군용차 1천 973대를 파괴하거나 파손하였으며 6개의 로케트기지를 까부셨다.

팔레스티나유격대들이 거둔 이 빛나는 승리는 아랍령토를 영구강점하고 팔레스티나인민들의 해방투쟁을 말살하려는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에게 가해진 또하나의 심대한 타격이였다.

오늘 팔레스티나의 무장투쟁조직들은 이미 달성한 성과들을 공고히하고 조직호상간의 통일과 단결의 뉴대를 강화하면서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를 쓸어버리고 조국의 해방과 민족적독립을 위한 성스러운 싸움을 더욱더 강화하고있다.

# 아세아주

## 중 국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은 아세아대륙의 동쪽에 자리잡고있다. 서북지방은 높은 산악지대이며 남서지방은 산맥을 이루고있다. 동부의 36%는 평야와 언덕 지대이다.

기후는 지방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가지고있다. 서부지대는 대륙성기후이며 동남지방의 해안지대는 습기가 많고 비가 많이 오며 기온의 차는 크지 않다.

【면적】 959만 7,000km²(그중 대만의 면적은 3만 5,759km²)

【인구】 7억 5,000만명

다민족국가로서 한족이 전인구의 93%를 차지하며 그밖에 60여개의 민족이 있다.

여러개의 언어가 있으나 공용어는 한어이다.

【수도】 베이징(주민 663만명)

**정 치** 중국은 약 4천년에 달하는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다. 봉건제도는 근 2천여년간 존속되였다.

19세기중엽에 이르러 자본주의렬강의 침략을 받았다.

1912년에 봉건청조가 전복되고 중화민국이 창건되였다.

위대한 사회주의 10월혁명의 영향밑에 로동계급의 혁명적진출이 앙양되였다. 1919년에는 반제반봉건의 기치를 높이든 5.4운동이 일어났다.

1921년 7월 중국공산당이 창건되였다. 공산당의 령도밑에 중국인민은 제1차, 제2차 국내혁명전쟁을 진행하였으며 1931년 «9.18» 사변이후 일제가 동북지방을 강점하면서부터 항일전쟁을 전개하였다.

1945년 8월 항일전쟁승리후 중국인민은 미제의 졸개인 장개석도당을 반대하여 또다시 국내전쟁을 진행하였다.

장기간에 걸치는 중국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은 승리로 끝났으며 1949년 10월 1일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되였다.

1950년 6월 미제국주의자들은 중국인민의 신성한 령토인 대만을 강점하고 완잡이 장개석도당을 부추겨 중화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도발책동을 감행하고있다.

중국인민은 미제의 강점으로부터 대만을 해방하며 령토완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1954년 9월 2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기 제1차 회의에서 헌법을 채택공포하였다.

농업, 수공업 및 자본주의적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수행하였다.

1964년 10월 16일 중국서부지역에서 첫 핵폭발시험이, 1967년 6월에는 수소탄폭발시험이 진행되였다.

1966년 8월 중국공산당 제8기 11차 전원회의에서 «프로레타리아문화대혁명»에 관한 결정서(«16개조항»)가 발표되였다. 1969년 4월에 중국공산당 제9차 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문화대혁명의 경험을 총화하고 당중앙위원회를 선거하였다.

프로레타리아문화대혁명이래 중국의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는 새로운 앙양이 일어나고있는 대단히 좋은 정세가 조성되였다. 전체 근로자들은 모주석의 혁명로선에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하여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모든 분야에서 투쟁, 비판, 개조사업을 다그치고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국가의 최고주권기관이며 임기는 4년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기간에는 상무위원회가 그 사업을 수행한다. 현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제3기로서 1964년에 선거되였다.

【주석】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거되며 임기는 4년이다.

【국무원】 국가의 최고집행기관이다.

총리 주은래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7월 1일 창건

주석 모택동, 부주석 림표

중국국민당, 중화전국총공회, 중국공산주의청년단, 중국부녀련합회, 중국조선우호협회 1958년 9월 30일에 결성

【주요사건】 1970년 4월 24일 중국에서 인공지구위성(무게173키로그람)을 성과적으로 쏘아올린데 대한 공보를 발표하였다.

5월 4일 중국정부가 캄보쟈에 대한 미제의 무력침략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5월 20일 모택동주석은 «전세계인민들은 단결하여 미제침략자들과 그의 모든 주구들을 타승하자»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21일에는 베이징에서 중국의 각계층근로자들 수십만명의 참가하에 미제를 반대하는 세계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군중대회가 진행되였다.

8월 17일 캄보쟈에 군사원조를 무상으로 줄데 관한 중국정부와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 사이의 1970년도 협정이 베이징에서 조인되였다.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전원회의에 관한 공보는 전원회의에서 전국계획회의와 1970년 인민경제계획에 관한 보고, 전쟁준비를 강화할데 대한 군사위원회 보고를 비준하였다고 전하였다.

또한 전원회의는 제4기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소집할수 있도록 준비사업을 하여 새로운 승리로써 맞이할것을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10월 6일 중국과 민주월남 정부간에 중국이 월남에 경제기술적원조를 줄데 대한 협정과 군사원조를 줄데 대한 의정서가 조인되였다.

10월 12일 중국정부는 미제와 캄보쟈의 롱놀괴뢰도당의 이른바 «공화국» 조작놀음을 강력히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10월 24일에는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스무돐기념 군중대회가 베이징시를 비롯한 상해, 심양 등 전국각지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11월 25일 중국정부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직접적인 부추김밑에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이 기네공화국을 반대하는 무력침공을 감행한것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해에 중국정부는 카나다(10월 13일), 이딸리아(11월 6일)를 비롯한 기타 일련의 나라들과 각각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았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중국은 1949년 10월 6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았다.

1950년 10월 25일 형제적중국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조선인민을 피로써 돕기 위하여 중국인민지원군을 조직하여 조선전선에 파견하였다.

1953년 11월에는 조중경제및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1957년 12월에는 조중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았다.

1961년 7월 11일에는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1970년 11월에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전문을 《인민일보》, 《해방군보》, 《광명일보》, 《베이징일보》가 각각 련재하였다.

6월 25일 조선조국해방전쟁 20주년을 기념하며 미제의 대만강점을 규탄하는 군중대회가 베이징시, 상해시를 비롯한 중국의 각지에서 진행되였다.

10월 17일 우리 나라 정부와 중국정부 사이에 중국이 우리 나라에 경제 및 기술적원조를 줄데 관한 협정과 장기통상협정이 조인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 김일성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총리인 주은래동지가 1970년 4월 5일부터 4월 7일까지 우리 나라를 공식적으로 친선방문하였다.

방문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총리인 주은래동지 사이에 형제적친선의 분위기속에서 회담이 진행되였으며 4월 7일 두 나라 정부간의 공동콤뮤니케가 발표되였다.

1970년에 중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대표단(6월), 인민친선대표단(10월), 정부무역대표단(2월), 원양운수공사해운대표단(11월), 조중국경하천운항협조위원회 제10차정기회의에 참가할 중국측 대표단(12월)이 우리 나라를 각각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6월),군사대표단(7월), 정부경제대표단(9월), 정부대표단(10월), 과학기술협조대표단(11월), 기술대표단(12월), 탁구종합선수단(9월)이 중국을 각각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중국에는 유용광물의 품종이 다양하며 그의 매장량도 많다.

지하자원으로는 쇠돌, 석탄, 원유, 동, 아연, 연, 안티몬, 석, 몰리브덴, 망간, 수은, 월프람 등이 있다.

산림면적은 약 1억 700만정보에 달한다.

1970년에 중국인민은 자력갱생, 간고분투하는 정신을 발휘하여 인민경제 각분야에서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공업생산액은 전해에 비하여 호북성에서는 50%, 섬서성에서는 40%, 길림성은 1966년보다 18.5% 각각 장성하였다. 특히 이해에 석탄공업부문에서 료녕성은 80일, 산동성은 58일간이나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다. 섬서성에서는 400여개, 석탄이 없다던 남부지역에서는 100여개의 탄광이 새로 개발되였다.

광업부문에서는 1970년에 전해보다 전국적으로 48% 더 많은 쇠돌을 캐냈다. 호북성 에젠현에서만도 작은 규모의 광산 16개가 새로 건설되여 전해보다 4배에 달하는 쇠돌을 캐냈다.

기계공업부문에서도 공장, 기업소들이 새로 일떠섰으며 계획을 앞당겨 수행했다.

이해에 전국의 90%에 달하는 현들이 자체의 농기계제작 및 수리공장들을 가지게 되였다. 특히 천진시 근로자들은 6천톤프레스를 자체로 설계하여 생산하였으며 섬서성의 웨이난종합기계공장은 8월까지 생산계획을 완수하였고 락양뜨락또르공장은 계획을 4개월 앞당겨 끝냈다.

또한 중소화학비료공장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생산량은 전국 비료생산량의 40%를 차지하였다.

산동성에서는 이해 첫 9개월간에 전해의 한해동안의 생산량보다 24%의 합성암모니아, 20%의 화학비료를 더 생산하였다. 산서성, 광서성, 복건성 등 여러 성들에서 크고작은 비료공장들이 새로 일떠섰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이해 1월부터 8월사이에 면사, 면직물, 화학섬유, 사탕, 담배, 소금, 종이, 재봉기, 자전거, 손목시계, 세척제, 전구, 수지제품의 생산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훨씬 늘었다. 흑룡강성에서는 이해 6개월간에 3천여개의 크고 작은 공장들과 직장들을 건설하였다.

이해 중국의 어로공들은 10개의 중요 성 및 시들에서 첫 10개월간에 어획량을 전해 같은 기간보다 17%나 더 올렸다. 특히 광동성의 어로공들은 불리한 일기조건에서도 첫 9개월간에 전해같은 기간보다 10%나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중국의 주요 농산물은 벼,콩, 수수, 조, 목화, 밀, 차, 담배, 고구마, 감자 등이다. 서부고원지대에서는 면양과 산양, 중부평야지대에서는 돼지, 소, 말, 양 등 집짐승을 많이 기르고있다. 농촌경리 부문에서 각 성들은 풍작을 이룩하였다. 이해에 알곡총생산액에서 섬서성은 전해에 비하여 2배, 길림성은 1967년보다 6%이상 늘었다.료녕성은 전해보다 30%의 알곡, 25%의 목화를 더 생산하였다. 복건성 복주시 교외의 농업근로자들은 지난해보다 80%나 더 많은 올벼를 생산하였다.

중국의 20여개의 성, 시, 자치구들에서 자력갱생하여 뜨락또르공장, 소형동력기계공장 및 각종 농기계공장들을 일떠세워 더 많은 자동차, 뜨락또르, 각종 농기구 및 부속품들을 농촌에 보내주었다.

【출판보도】 통신 신화통신

신문 인민일보(공산당기관지), 광명일보, 베이징일보, 해방군보

잡지 홍기 (공산당기관잡지)

## 몽 골

### (몽골인민공화국)

아세아대륙의 동부에 있으며 쏘련, 중국과 린접하고있는 내륙국이다. 중서부는 주로 산악지대이며 남쪽은 사막지대이다. 국토의 대부분은 해발 1천~2천m되는 높은 고원지대에 자리잡고있다. 기후는 대륙성기후로서 춥고 메마르며 강수량이 매우 적다.

【면적】 156만 5,000km²

【인구】 119만 1,000명(1970년)

주민중 할하족이 70%,그밖에 몽골어계통의 종족들과 까자흐족 등이 있다.

국어는 몽골어이다.

【수도】 울란 바따르(주민 26만 8,800명)

**정 치** 몽골은 자본주의발전단계를 거치지않고 봉건사회로부터 직접 사회주의사회에로 넘어간 나라이다.

1206년 친기스칸에 의하여 통일적인 국가로 되였다.

위대한 사회주의10월혁명이후 몽골인민들은 몽골인민당(현재 몽골인민혁명당)의 령도밑에 외래압제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일떠서 1921년에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이해 7월에 혁명정부를 수립하였다. 1924년에 11월 8일 제1차 대인민후랄회의에서 몽골력사상 처음으로 민주주의적헌법을 채택하였다. 이해 11월 26일 몽골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25년 몽골인민혁명당 제4차대회에서는 민주주의적혁명단계에서의 당의 기본과업을 규정한 강령을 채택하였다. 1939년에 몽골인민들은 인민혁명당의 령도밑에 할힌골지구에 주타격방향을 두고 몽골인민공화국에 대한 대규모적침략을 시작한 일제침략자들의 파수를 완전히 꺾어버렸다. 그후에도 일제의 계속되는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사회주의전취물을 수호하였다.

1940년 몽골인민혁명당 제10차대회에서는 사회주의기초축성을 위한 주요과업을 규정한 강령을 채택하였으며 이해 6월 제8차 대인민후랄회의는 새로운 헌법을 채택하였다.

1966년 6월에 진행된 인민혁명당 제15차대회에서는 인민경제 및 문화발전

제4차 5개년계획(1966~1970년)에 관한 지시문을 비준하였다.

【대인민후랄】 최고주권기관으로서 임기는 3년이다. 현재의 대인민후랄은 제7기로서 1969년 6월 22일에 선거되였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잠쓰란긴 쌈부

【정부】 수상 욤자긴 제덴발(1966년 7월—), 외무상 롬돈긴 린친, 민족보위상 마르민 드주르

【정당, 사회단체】 인민혁명당 1921년 3월 1일에 창건된 인민당을 1924년 8월에 인민혁명당으로 고쳤다.

제1비서 욤자긴 제덴발

직업동맹, 혁명청년동맹, 근로녀성동맹, 몽골조선친선협회 1960년 8월 12일 창건, 위원장 므. 랍함수렌

【주요사건】 1970년 1월 26일에 진행된 몽골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1970년도 인민경제계획초안과 국가예산초안 기타 문제를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1월에 진행된 대인민후랄 제7기 제2차회의에서는 1970년도 인민경제 및 문화발전계획초안과 1969년도 국가예산 집행 및 1970년도 국가예산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5월 7일 몽골인민공화국 정부는 인도지나에서 침략전쟁을 확대하고있는 미제의 범죄적책동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6월 대인민후랄 제3차회의에서는 상업단체들과 사회급양기업소들의 사업을 개선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몽골은 1948년 10월 15일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1956년 5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1956년 11월에는 경제 및 문화협정을 맺었다. 1969년 6월 17일에 령사협약이 체결되였다.

1970년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울란바따르에서 우리 나라 상품전람회가 진행되였다.

이해 몽골에서는 남녀배구선수단(4월), 직맹대표단(9월), 과학기술대표단(9월), 작곡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10월), 집단체조대표단(11월)이 각각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상품전람회대표단(6월), 조몽친선대표단(9월)이 몽골을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목축업을 중심으로 한 농촌경리이다. 주요 집짐승은 양, 말, 염소, 락타 등이다. 몽골은 집짐승의 한 사람당 분배몫에 있어서 세계 첫자리를 차지한다.

1970년에 축산업에서 집짐승마리수 증가계획을 104.1%로 초과수행하였다. 집짐승마리수는 5.5% 늘었다.

이해에 농민들은 일기조건이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32만 6천여톤의 알곡을 거두어들였다.

1970년에 총파종면적은 1960년보다 66.8%, 알곡수확고는 45.7%가 늘어났으며 감자와 남새생산은 2.1배로 장성하였다.

공업제품총액은 전해에 비하여 9.7% 증가하였다. 공업부문에서는 특히 연료동력공업과 건재공업이 빨리 발전하였다. 1970년에 전해에 비하여 전력생산은 15%, 석탄공업은 21.3%, 건재공업은 38.6% 장성하였다.

경공업 및 식료공업제품생산액은 13.6%나 늘었다.

이해 또한 도시와 농촌에서 200여개의 공업경제, 후생시설 대상들이 건설되였다.

로동생산능률은 이해에 공업분야에서 8.4% 높아졌다.

사회총생산물은 5.9%, 국민소득은 5.8% 각각 늘었다.

몽골에서는 7년제의무교육제가 실시되고있으며 인구의 근 5분의 1에 해당하는 21만 1천명의 학생들이 각급 학교에서 공부하고있다. 이해에 6개의 대학에 7천여명의 대학생이 있었다.

또한 보건분야에서는 이해에 인구 573명당 의사 1명, 그리고 1만명당 병원침대수는 92개 차례졌다. 약 2만명의 의료일군들이 일한다.

【출판보도】 통신 몬짜메(몽골통신)

신문 우넨(몽골인민혁명당과 정부기관지), 허둘메르(직맹기관지), 잘로초딘 우넨(혁명청년동맹기관지)

잡지 나린 아미드랄(인민혁명당기관잡지)

## 월 남

### (월남민주공화국)

인도지나반도의 동쪽에 자리잡고있다. 북부, 서북부 및 중부는 고원지대이며 동북부와 서남부는 평야지대이다. 대부분의 지역이 무더운 열대성기후에 속하며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내린다. 하노이의 년평균기온은 23.6°C이다.

【면적】 약 33만km²(그중 북부월남 15만 8,800km²)

【인구】 3,100만명(그중 북부월남주민은 1,700만명)

기본주민은 경족(월남족)으로서 전체 인구의 87%를 차지한다. 소수민족으로는 태족, 묘족 등 수십개 민족이 있다.

공용어는 월남어이다.

【수도】 하노이(주민 65만명)

**정 치** 1858년부터 프랑스의 침략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1885년이후 완전히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다.

제2차대전시기인 1940년에 일제가 월남을 강점하였다.

1945년 8월 19일 월남인민은 호지명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월남로동당(당시는 인도지나공산당)의 령도밑에 총봉기를 일으켜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을 타도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였다.

1945년 9월 2일 독립을 선포하고 동남아세아에서 첫 인민민주주의국가인 월남민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월남인민들은 1946년 12월부터 또다시 월남을 강점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침략전쟁을 일으킨 프랑스침략자들과 미제무력간섭자들을 반대하여 8년여의 승리적인 항전을 전개하여 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1954년 7월 20일 월남인민의 독립, 자주권, 통일 및 령토완정을 인정하는 제네바협정에 따라 북위 17°선을 경계로 남북이 림시적으로 갈라지게 되였다.

그러나 미제는 월남에 관한 제네바협정을 그 체결직후부터 란폭하게 파괴유린하고 남부월남에 괴뢰정권을 조작하였으며 1964년 8월 5일에는 월남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감행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월남인민의 투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월남은 반미투쟁의 가장 치렬한 전선으로 되고있습니다. 바로 불굴의 월남땅에서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세계반제평화애호력량과 미제국주의침략세력간에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고있습니다. 월남인민은 이 투쟁의 무거운 짐을 걸머지고 자기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수호할뿐아니라 사회주의나라들을 보위하여,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수호하여 영용하게 싸우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83페지)

월남인민은 북부를 수호하고 남부를 해방하며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반미구국항전을 전개하고있다.

1965년 4월 7일 월남민주공화국정부는 월남문제해결에 관한 4개항목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인민회의】 최고주권기관이다. 현

인민회의는 제3기로서 1964년에 선거되였다.

상무위원회 위원장 쯔엉 찡

【주석】 손덕승(1969년 9월 23일—)

【정부】 수상 범문동(1964년 7월—)

외교부장 원유찐, 국방부장 무원갑

【정당, 사회단체】 로동당 전신은 1930년 2월 3일에 창건된 인도지나공산당이다. 1951년 2월 3일 인도지나공산당 제2차 전국대표자회에서 월남로동당으로 고쳤다.

제1비서 려순

민주당, 사회당, 조국전선, 직업총동맹, 로동청년동맹, 청년련맹, 녀성동맹, 월남조선친선협회 1965년 8월 12일 창설, 위원장 하휘갑

【주요사건】 1970년에 미제침략자들은 민주월남의 자주권과 안전을 침해하는 엄중한 범죄행위를 계속하면서 침략책동을 점차 확대하는데로 나아갔다.

미제는 월남인민의 강력한 반미구국투쟁에 의하여 월남침략전쟁에서 점차 궁지에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한 국내외 여론이 높아지자 1968년 10월 민주월남에 대한 폭격을 <중지>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해 첫 10개월동안에만도 미제침략군은 지난해보다 3천 210회나 더많은 <정찰비행>을 하였으며 1969년에 657회의 폭격을 감행하였다면 이해에 10개월동안에만 하여도 1천 21회로 증가하였다.

민주월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책동은 5월초 이래 놈들이 캄보쟈에 대한 대규모적인 무력침공과 동시에 더욱 적극화되기 시작하여 정찰과 폭격, 간첩활동을 강화하였다.

11월 21일과 22일 미제무력 닉슨도당은 수백대의 미제침략군비행기 약 250대를 동원하여 무려 7시간에 걸쳐 하이퐁, 광닌, 하타이 및 호아 빈 주민지역을 포함한 민주월남의 거의 전지역을 2천여회에 걸쳐 야수적인 폭격을 퍼부어 수많은 인명피해와 건물들을 파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였다.

미제는 이렇게 함으로써 극악한 침략적본성을 날날이 드러내놓았으며 월남문제해결에 대한 놈들의 <평화>나발이 완전히 거짓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스스로 폭로하였다.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월남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정부는 12월 10일 전국인민과 군대에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여 미제침략자들을 인도지나반도에서 몰아낼것을 호소하고 전국인민 특히 탄 호아 이남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동원령을 내렸다.

같은날 월남인민군 총사령부도 전체 인민군장병, 민병, 자위대에 당과 정부의 호소를 어김없이 실행할것을 명령하였다.

한편 민주월남인민은 이해에 월남로동당창건(1930년 2월 3일) 마흔돐을 기념하였다.

2월 2일 하노이에서 진행된 경축대회에서 연설한 월남로동당 제1비서 려순은 월남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새로운 책동에 경각성을 높이며 경제력과 국방력을 강화하여 위대한 전선에 대한 위대한 후방으로서의 임무를 다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3월 9일 월남민주공화국정부는 라오스문제의 정치적해결에 관한 3월 6일부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의 성명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4월 24일과 25일 월남민주공화국 인민대표단은 인도지나인민들의 수뇌자회의에 참가하여 <공동선언>에 캄보쟈, 라오스, 남부월남인민대표단과 함께 서명하였다.

9월 1일 월남민주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 기념경축대회에서 연설한 범문동 수상은 인도지나인민들의 수뇌자회의 공동선언에 충실한 월남인민은 라오스 및 캄보쟈인민과 단합하여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우며 나라를 건설하는데서 서로 협조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50년 1월 31일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1957년 11월 20일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하노이를 비롯한 각지에서 집회들이 진행되였다.

6월 25일 하노이에서 여러 사회단체들의 공동주최로 진행된 군중대회에서 연설자들은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새 전쟁 도발책동을 규탄하고 우리 공화국정부의 정당한 립장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7월 3일 월남민주공화국 부수상겸 외교부장 원유찐은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적죄행을 폭로규탄한 6월 22일부 우리 나라 정부비망록을 지지하여 담화를 발표하였다.

8월 1일 월남 외교부대변인은 미제가 범죄적인 제4차 <한일정기각료회의>와 <한미국방각료회의>라는 것을 벌려놓고 조선에서 새전쟁 도발책동을 더욱 격화시키고있는것을 신랄히 규탄한 7월 26일부 우리 나라 외무성 성명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9월 4일 월남외교부는 우리 공화국정부의 8월 29일부 성명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9월 26일 월남외교부 대변인은 미제가 유엔총회 제25차회의에서 또다시 <조선문제>의 비법적토의를 강요하고있는 흉책과 24년동안 미제가 유엔을 침략도구로 리용하여온 죄상을 폭로한 9월 16일부 우리 나라 정부 비망록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10월 2일 월남외교부 대변인은 우리 나라 동서해에서 미영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군이 해군함대들과 비행기들을 동원하여 대규모적인 <군사작전>을 벌리고있는 사실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1월 10일 월남외교부 대변인은 유엔총회 제25차회의에서 <조선문제>에 관한 비법적인 결의를 통과시킨것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1970년에 월남으로부터 4련구비전문예술단(3월), 피앙악 및 가극극장 총장인 월남작곡가(6월), 직맹대표단(6월), 정부대표단(6월), 월조친선협회대표단(8월), 미술가대표단(10월), 정부경제대표단(11월) 이 우리 나라를 각각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로부터는 조월친선협회대표단(6월), 조선중앙통신사대표단(7월)이 월남을 방문하였다.

## 경제, 사회

월남은 석탄, 철, 주석, 망간, 텅그스텐, 금, 연, 린산염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다.

주요농산물은 벼, 강냉이이며 고무, 사탕수수, 바나나, 야자, 커피 등도 생산된다. 산림면적은 국토의 60%를 차지하며 질좋은 원목이 생산된다.

1970년에 북부월남인민들은 미제침략자들의 거듭되는 침략책동을 짓부시면서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힘차게 다그쳐 경제계획을 빛나게 넘쳐수행하였다.

1970년의 공업총생산액계획은 103%로 초과수행되였다. 1969년에 비하여 전력은 13%, 석탄은 120만t을 각각 더 생산하였다. 또한 농촌에 전력, 세멘트, 농기계와 비료가 더 많이 공급되였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계획을 6.5% 넘쳐수행하였다.

지방공업총생산액은 1969년에 비하여 5% 증가하였다.

경공업부문에서는 년간계획을 2% 넘쳐수행하였으며 지난해에 비하여 인민소비품의 품종을 훨씬 늘이였다.

미제의 야수적폭격과 포격, 자연재해 등 온갖 난관을 이겨내고 농업협동조합원들은 좋은 수확을 거두었다.

이해에 올벼와 늦벼생산량은 전해에 비하여 정보당 평균 10%이상씩 높았다.

경지면적이 5만정보나 늘어났으며 벼총생산량은 현저히 높았다.

많은 작업반들이 《다수확작업반》 대렬에 새로 들어섰다.

잡곡과 공예작물생산도 전해에 비하여 장성하였으며 축산업이 더욱 발전하였다. 소와 물소가 많이 늘어났으며 돼지마리수는 이 나라 력사상 최고기록에 달하였는데 1965년에 비하여 32% 더 늘었다.

1969—1970학년도에 학교수는 1만 1천 660여개였으며 교원수는 11만 1천 750명, 학생수는 460만명에 달하였다.

보건분야에서는 농촌지역만 보더라도 1968년에 이미 진료소 수는 6천 40개였는데 이는 근 97% 마을에 진료소가 있는것으로 된다.

【출판보도】 통신 월남통신

신문 인민(로동당기관지), 구국(조국전선기관지), 인민군(인민군기관지)

잡지 학습(로동당리론잡지)

## 남부월남

### (남부월남공화)

【면적】 17만 1,700$km^2$

【인구】 1,400만명

**정 치** 1954년 7월 20일 제네바협정에 의하여 월남은 북위 17°선을 림시경계선으로하여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였다. 이것을 좋은 기회로 남부월남에 기어든 미제는 제네바협정을 파괴유린하였다.

미제는 1956년 6월 3일 남부월남에 괴뢰정권을 조작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남부월남인민의 모든 운동을 반대하여 폭압적인 탄압을 가하였다.

미제는 1961년 남부월남에서 《특수전쟁》을 벌리다실패하자 1965년에 《국부전쟁》으로 넘어갔다.

미제는 50여만의 침략군과 수많은 추종군을 끌어들이고 50여만의 남부월남괴뢰군을 내몰아 남부월남에서 침략전쟁을 감행하였다.

1960년 12월 20일 남부월남민족해방전선이 창건되였다.

민족해방전선은 1961년 2월 15일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남부월남의 각지에서 활동하던 애국적무장력들을 남부월남인민해방무장력으로 통합하여 3군 즉 해방군, 유격대, 민병의 력량을 강화하는 한편 남부월남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에로 애국력량을 조직동원하였다.

인민해방무장력은 미제가 궁지에 빠져 《국부전쟁》을 강화하려고 발악해나선 1968년초부터 총공세와 전면적봉기를 일으켜 전쟁국면에 근본적인 전환점을 조성하였다.

참패를 거듭한 미제는 1969년 1월에 월남에 관한 빠리회의에 동의하지 않을수 없었다.

【공화림시혁명정부】 1969년 6월 6일에 수립되였다.

주석 황던팟, 외무상 웬티빈, 국방상 쩐남쭝

【공화림시혁명정부 자문리사회】 1969년 6월에 설치되였다. 위원장 웬우수

【정당, 사회단체】 남부월남민족해방전선 1960년 12월 20일에 창건되였다. 남부월남의 광범한 애국력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체이다.

상무위원회 위원장 웬우수

인민혁명당 1962년 1월 1일에 창건, 로동계급의 혁명적전위대로서 남부월남에서 처음으로 조직된 맑스-레닌주의당이다. 월남민족민주평화련합동맹, 남부월남민주당, 해방직업동맹, 해방청년동맹, 해방녀성동맹

【주요사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월남인민의 영웅적항쟁에 의하여 미국군대는 패배를 거듭하고있으며 헤여나올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타산과는 반대로 월남전쟁은 침략자들의 무덤으로 되고있다. 월남인민의 구국항전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독립과 자유를 지킬 결의를 가지고있으며 전세계인민들의 지지를 받고있는 인민은 타승할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뚜렷히 보여주고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24페지)

1970년에 남부월남인민해방무장력과 인민들은 민족해방전선의 령도밑에 모든 전선에서 전쟁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미제와 괴뢰도당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이해에 미제국주의자들은 월남침략전쟁에서 당한 참패를 만회하기 위하여 침략전쟁을 인도지나 전역에로 확대하고 남부월남에 대한 《소탕작전》, 《평정촉진》계획을 미친듯이 벌리였다. 남부월남인민해방무장력은 4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만도 남부월남전역에서 미제침략군놈들과 괴뢰군놈들에게 호된 불벼락을 안겨 미제침략군 약 2만명을 포함한 적 5만명을 살상포로하였다.

인민들은 인민해방무장력의 승리적인 공격에 고무되여 들고 일어나 적들의 통치기구를 짓부셨으며 적들의 집단수용소 총수의 절반이상을 파괴하였다.

5월 1일 미제침략자들이 캄보자를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무력침공을 개시한것과 때를 같이하여 남부월남인민해방무장력은 광범한 지역에서 적들에게 9개월만에 처음으로 되는 최대의 공세를 들이댔다. 남부월남인민해방무장력은 5월 12일 4개방향에서 사이공시를 공격하였다.

이 작전에서 미제침략군과 괴뢰군을 대량 소멸하고 놈들의 《사령부》와 군사기지, 병영, 요새들을 파괴함으로써 캄보자에 대한 대규모적무력침공을 감행한 미제침략군과 괴뢰군놈들에게 심대한 배후타격을 가하고 군수물자보급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였다.

이에 앞서 6월에 인민해방무장력은 남부월남에서 두번째로 큰 도시인 유에에 대한 대공격까지 들이대자 바빠맞은 미제와 남부월남괴뢰들은 캄보자침략에 동원되였던 미제침략군과 남부월남괴뢰군 제9사단의 1만 2천명을 다시 끌어내여 남부월남에 배치하는 소동을 벌렸다.

다른 한편 미제는 미국본토와 오끼나와로부터 미제침략군 수천명과 기타 항공모함, 비행기들을 더 끌어들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닉슨도당이 남부월남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수》시킨다고 떠벌인것이 완전히 기만이며 오히려 월남침략전쟁을 더욱더 확대하였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남부월남인민해방무장력은 8월혁명승리일(8월 19일)과 월남민주공화국창건 25주년(9월 2일)을 전투적성과로 맞이하며 남부월남괴뢰들의 이른바《국회상원의원선거》놀음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군사정치적공세로써 적통치기관과 군사기지 및 진지들에 대한 지상공격과 포격을 벌리여 미제침략자들과 티우-키괴뢰도당놈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이해 상반년기간에만도 남부월남 메콩강삼각주지역의 적통치지역에서 연 500만명의 인민들이 정치투쟁에 일떠서서 강제수용소와 《전략촌》 300여개를 까부시고 550여개의 《전략촌》에서 적의 통치를 끝장냈다. 이기간에 인민들은 6개주 소재지와 30개군소재지 그리고 300개의 마을을 포위하고 적의 통치기구를 짓부시고 《평정촉진》계획을 파탄시켰다.

1970년에 남부월남인민해방무장력은 미제침략군과 추종군 11만명을 포함한 42만명의 적을 전투서렬에서 떼어내고 미제침략군의 비행기 5천 900대를 격파

구거나 격상시켰으며 7천 400대의 땅크와 장갑차를 포함한 1만 4천 100대의 적군용차를 파괴하고 680척의 적함선을 불속에 처박거나 불태워버렸다. 그들은 또한 이해 1천 850문의 중무기와 박격포를 까부시고 1천여개의 군수품창고들을 폭파하였으며 각종 무기 1만자루를 빼앗는 거대한 전과를 올렸다.

치욕스러운 괴뢰군살이를 그만 둔 1만 4천여명의 남부월남괴뢰군과 괴뢰 <민경>, <평정대>가 인민의 편으로 넘어왔거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4개의 군구에서 애국적인 괴뢰군병사들은 100차례의 봉기를 일으켰다.

한편 월남에 관한 빠리회의는 20여개월이상 지났으나 어느 문제에서도 미제의 부당한 책동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9월 17일 빠리회의 제84차 회의에서 남부월남공화림시혁명정부 대표는 또다시 <남부월남과 미국 및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의 평화념원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남부월남문제에 관한 10개 항목의 전반적해결책 중 일련의 문제에 대하여 천명한 8개 항목의 제안을 내놓았다. 8개 항목의 제안과 전에 내놓은 10개 항목 제안에서 공통점은 선거방법, 림시련립정부와 정식련립정부의 성격, 그의 대내외정책, 남북 두 지대간 재통일문제 등이다.

8개 항목제안에서 새로운 점은 미제침략군의 철수시간, <외국군대와 선거에 대한 감시>문제, 림시련립정부의 수립단계문제, 련립정부참가대상문제, 포로문제 등이다.

10개 항목에서는 미제침략군과 추종군의 철수에 대해서는 <국제적감시에 관해 합의를 볼것>을 제의하였으나 새 제안에서는 <미국진영의 기타 외국군대의 남부월남으로부터의 전반적철수를 위한 안전보장문제>를 제의하였다.

10개 항목의 제안에서 철수문제에 시간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1971년 6월 30일까지> 철수시킬것을 요구하였다.

닉슨도당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 남부월남인민해방무장력은 <공격하는것을 삼가>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공화림시혁명정부는 림시련립정부가 수립된 다음 전쟁포로교환문제를 토의할것을 제의했었으나 새 제안에서는 1971년 6월 30일까지 미제침략군의 <전반적 철수>에 동의하면 철수에 대한 <안전보장문제>와 함께 <포로된 군사인원들의 석방문제>를 토의할 용의를 표시하였다.

림시련립정부 참가대상문제에서는 <티우, 카오 키, 키엠이 없는 행정부>와의 <남부월남의 정치적해결에 관해 회담에 들어갈 용의가 있다.>고 하였다.

미제와 티우괴뢰도당은 이 제안에 대해서 <새로운것이 없다>느니 뭐니 하면서 접수하지 않고있다.

그러나 세계 광범한 사회계는 새 제안을 접수하지 않는 미제를 준엄히 규탄하고있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6년 5월에 외교대표부급의 남부월남민족해방전선 상설대표부가 우리 나라에 설치되였다.

1969년 6월 12일 우리 나라 정부와 남부월남공화림시혁명정부사이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설정하였다.

1970년 6월 10일 남부월남공화 외무성은 재일조선학생들에 대한 일본사또반동도당의 탄압만행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8월 1일 남부월남공화 외무성은 미제가 일본군국주의자들 및 남조선괴뢰도당과 공모하여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책동을 강화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9월 7일 남부월남공화 외무성은 8월 29일부 우리 나라 정부 성명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9월 29일 남부월남공화 외무성은 우리 나라 정부의 9월 16일부 비망록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10월 3일 남부월남공화림시혁명정부 대변인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 동서해에서 대규모적인 <군사작전연습>을 벌리면서 군사도발행위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12월 17일 남부월남공화 외무성은 유엔총회 제25차회의에서 <조선문제>에 관한 비법적인 <결의>를 통과시킨것을 항의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남부월남공화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남부월남령토의 5분의 4와 인구의 5분의 3을 포괄하고있는 해방지역인민들은 민족해방전선의 령도아래 새 생활을 누리고있다.

해방지역에서는 해방전선의 정강에 따라 토지개혁이 실시되고있다.

남부월남의 350만ha의 경지면적중에서 200만ha가 농민들에게 분배되였다.

농민들은 호상협조반과 공동작업반을 무어 정당수확고를 올리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렸다.

이밖에 축산업도 급속히 발전하고있으며 철공소, 목재가공, 직물, 제방물과 식료품 및 일용품생산도 늘고있다.

미제의 폭격과 놈들의 <습격작전>이 빈번한 어려운 조건에서도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있다. 6천개의 초등, 중등 학교들에 50만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있다.

모든 부락들에 위생초소가 있으며 각주마다에 종합병원, 군마다 의료반이 있다.

중앙과 일부 주들에 준의양성학교, 모든 주들에 간호원양성학교가 있다.

중앙신문과 잡지는 15종, 7종의 지방신문과 10종의 소수민족 신문이 발간된다.

중앙촬영소만 하여도 5개이며 각주에 촬영소가 있으며 5개의 중앙가무단을 비롯하여 각주에 가무단이 있다.

미제강점지역의 경제는 파괴령락되고있다.

농업생산이 심히 떨어지고 얼마안되는 공장마저 생산이 침체되고있다. 인민생활은 나날이 령락되고 주민들의 모든 자유와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퇴폐한 문화와 폭행, 절도 등이 성행하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해방통신(해방지역통신)

신문 기에퐁(민족해방전선기관지), 기에퐁광(인민해방무장력기관지)

## 예 멘

### (예멘아랍공화국)

아라비아반도의 서남쪽끝에 있다. 기후는 열대성기후이며 지역별 차이가 매우 심하다. 수도 사나의 최고기온은 35~45°C이다.

【면적】 19만 5,000$km^2$

【인구】 700만명

주민의 절대다수가 아랍인이며 그밖에 페르샤인, 소말리아인 등도 있다.

국어는 아랍어이다.

【수도】 사나(주민 7만명), 타이즈(주민 4만명, 제2수도)

**정 치** 예멘은 1923년에 토이기의 기반에서 벗어나 독립왕국으로 되였다.

1958년에 아련, 수리아와 함께 아랍국가련방을 형성하였다가 1961년 12월 23일에 떨어져나왔다.

1962년 9월 27일 예멘왕국 국군참모장이였던 살랄이 군주제도를 전복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미영제국주의자들은 예멘왕당파와 사우디 아라비아, 요르단 등을 사촉하여 1962년 10월 8일 예멘공화국에 대한 무력간섭을 감행하였다. 1964년 11월에 교전국간에 정화협정이 체결되였으나 미영제국주의자들은 고용병들과 예멘의 왕당파들을 규합.무장시켜 계속 예멘아랍공화국을 말살하기 위한 악랄한

음모책동과 군사적도발을 감행하였다.

1967년 4월 미제는 제2수도인 타이즈를 폭파할 목적밑에 이 도시에 있는 무기고에 포사격을 하는 악랄한 행위를 감행하였다. 미제의 비렬한 음모책동에 격분한 예멘인민들은 미제의 《원조사절단》을 몽땅 내쫓았다. 어떠한 파괴책동으로써도 예멘인민을 굴복시킬수 없게 되자 미제는 11월에 왕당파반란자들을 사촉하여 예멘에서 내란을 도발케하였으며 반란자들에게 1천여명의 제국주의 고용병놈들을 대주어 수도 사나를 포위공격하도록 하였다. 예멘정부는 전국에 총동원령을 내리고 인민자위대를 새로 조직하고 적들에게 결정적타격을 가하였다.

1970년 3월 23일 사우디 아라비아의 남부도시 지다에서 예멘아랍공화국 정부측과 사우디 아라비아왕국정부, 예멘왕당파세력간에 예멘내란을 종식시키고 《화해》할데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0년 5월 예멘아랍공화국 수상 모흐센 알아이니는 《팔레스티나의 날》에 즈음하여 예멘아랍공화국정부와 인민은 팔레스티나인민의 정의의 무장투쟁을 지지하며 이 투쟁을 강점당한 팔레스티나땅을 해방하는 가장 좋은 길로 여긴다고 말하였다.

【공화국리사회】 최고주권기관이다. 위원장 아브둘 라흐만 알이리야니

【정부】 수상 모흐센 알아이니(외상겸임, 1970년 2월—)

【정당, 사회단체】 인민혁명동맹은 집권당이며 유일당이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3년 3월 9일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설정하였으며 외교대표를 교환할데 대한 협정을 맺었다. 1964년 9월 18일에는 문화협정을 맺었다.

1970년 11월 10일 예멘아랍공화국 사나시고급중학교 학생들이 《김일성수상로작연구소조》를 결성하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경지면적은 약 230만정보이며 한해에 2~3모작한다.

주요농산물은 수수, 보리, 밀, 강냉이, 목화, 커피, 야자, 종려 등이다. 동부지방과 홍해연안에서는 주로 축산업을 한다.

지하자원은 금, 은, 제탄, 망간, 석탄, 철, 류황, 석회석 등이다. 공업으로는 알루미니움공장과 소규모의 제분소, 방직공장, 비료공장, 제철소, 주물공장 등이 있다. 1963년 9월 사나에 처음으로 발전소가 건설되였다. 1963년에 국립은행이 창설되고 민족화폐리알이 발행되였다.

1970년부터 교육발전5개년계획에 착수하였으며 12월 21일에는 사나에서 첫 종합대학이 개교하였다.

주민의 90%이상이 회교도이다.

【출판보도】 통신 예멘통신

신문 예멘소식, 혁명, 공화국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공화국)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의 1만 3천 677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 그중 사람이 살고있는 섬은 6천여개이다. 적도부근지대로서 년평균기온은 25~27°C이며 년평균강우량은 약 2천 400mm이다.

【면적】 190만 4,345km²

【인구】 1억 1,800만명(1970년)

100여개의 종족으로 이루어졌는바 주요종족은 자바족, 순다족, 마두라족이다.

국어는 인도네시아어이다.

【수도】 자까르따(주민 443만 5,510명)

**정 치** 1596년부터 화란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아오던 인도네시아는 1800년부터는 완전한 화란식민지로 되였으며 1942년 3월부터 1945년 8월까지에는 일제의 강점하에 있었다. 1945년 8월 17일 독립을 선포하였다.

1946년부터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지원을 받은 화란식민주의자들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재침책동으로 4년간의 투쟁적인 전쟁이 벌어졌다. 1949년 11월 헤그협정에 의하여 주권이 인도네시아에 넘어갔다.

1950년 인도네시아련방 림시국회는 《단일국가헌법초안》을 채택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으며 1954년 8월에는 《화란—인도네시아련방》에서 탈퇴하였다. 인도네시아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1963년 5월 1일 서부이리안에 대한 화란의 행정권도 인도네시아에 넘어갔다.

1965년 9월 30일 《9월 30일운동》이 일어났다가 10월 1일에 진압되였다. 《9월 30일운동》후 우익반동세력은 미제의 사촉하에 공산당과 진보적사회단체들을 비법화하고 수많은 공산당원들과 진보적인사들을 검거, 투옥, 학살하였다.

1966년 1월 제4차 림시인민협상회의에서는 수카르노에게 종신대통령칭호를 줄데 대한 제2차 림시인민협상회의 결정을 취소하였으며 1968년 3월 5차 림시인민협상회의에서는 수하르또를 대통령으로 결정하고 총선거는 1971년 7월까지 연장하며 대통령, 부대통령은 총선거에 의하여 새로 구성되는 인민협상회의에서 1973년 3월에 선거하기로 결정하였다.

1969년 11월 국회에서 채택된 《총선거법안》에 의하면 인도네시아공산당원이였거나 9월 30일사건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과 그리고 정부가 이미 금지시킨 조직의 성원들에 대해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되였다.

【림시인민협상회의】 최고립법기관이다.

【협조국회】 림시인민협상회의가 결정한 정책을 대통령이 집행함에 있어서 대통령을 보좌한다.

【정부】 대통령 수하르또, 외무상 아담 말리끄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5월 23일 창건, 《9월 30일운동》후 비법화. 민족당, 회교승려협회, 인도네시아조선자까르따친선협회 1958년 9월 결성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1년 6월 17일 총령사관계를 맺었으며 1964년 4월 16일에는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63년 11월 15일 무역협정, 과학기술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경제, 사회** 농업이 경제의 기본을 이루며 국민총생산에서 약 75%를 차지한다. 생고무, 차, 종려, 커피, 코코아, 키니네, 야자, 사탕, 담배, 쌀, 강냉이, 콩, 감자 등이 생산된다. 생고무는 이 나라 재정수입의 기본원천으로 되고있다.

지하자원은 주석, 석유, 쇠돌, 석, 석탄, 보크사이트, 니켈, 망간, 금, 은, 동, 크롬, 아연 등이다. 채굴공업과 농산물가공공업이 위주로 되고있다.

인도네시아에는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의 독점자본이 대대적으로 침투하고 있는바 외국자본투자중에서 미제독점자본의 투자가 첫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인도네시아에 침투한 24개 석유회사중에서 14개가 미제독점자본에 속하고있으며 석유자원의 약 80%이상과 알루미니움, 동, 석, 니켈광과 림산자원에 대한 리권도 놈들에게 장악되여있다.

미제독점자본은 농촌에도 침투하고 있는바 미제의 통제하에 있는 세계은행은 1969년에 700만딸라의 《농업차관》을 인도네시아에 들이밀었다. 또한 미제는 인도네시아의 항공로까지 통제하고있다.

결과 인도네시아경제는 외국의 차관

에 의거해서만 지탱해나갈수 있는 한편에 굴러떨어졌으며 극심한 재정경제위기에 빠졌다. 1969년 현재로 인도네시아가 외국독점자본가들에게서 진 빚은 무려 40여억딸라에 달하고있다.

1970년 1월 5일 《협조국회》에서 발표한 재정예산에 의하면 총 3천 205억루피에 달하는 예산 《수입》가운데서 3천 179억루피가 세금으로 거두어들이기로 되어있다.

그리하여 인도네시아에서는 실업과 식량난에 부딪친 인민들은 생활고에 허덕이고있다. 전체인구의 70%가 식량이 없어 굶주리고있으며 3천만의 어린이들이 영양부족으로 각종 질병에 걸려있다.

【출판보도】 통신 안따라통신, 민족통신

신문 안뻬라 레뷰, 베리따 유다, 쟈까르따 타임스, 메르데까, 와르따 하리안, 와르따 베리따

## 캄 보 쟈

### (캄보쟈왕국)

인도지나반도의 서남부에 자리잡고 있다. 평균기온은 28°C이다. 년간을 통하여 기온의 변화는 비교적 적다.

【면적】 18만 1,035km²

【인구】 655만 7,000명(1970년)

주민의 약 87%는 크메르족이며 그밖에 타이족, 라오족, 가족, 프논족 등 20여개의 종족들이 있으며 50만명의 월남인이 있다.

국용어는 캄보쟈어이다. 프랑스어도 쓴다.

【수도】 프놈 펜(주민 약 60만명)

**정 치** 1863년 8월에 프랑스제국주의의 《보호국》으로 되었고 1940년 9월에는 일제에게 강점당하였다. 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하자 캄보쟈는 또다시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았다. 캄보쟈인민들은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행정에서 1946년 크메르인민해방군을 조직하여 프랑스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리하여 1949년 11월에 《프랑스련합체내에서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1953년 11월 9일에는 완전독립을 선포하였다.

1954년 7월 인도지나문제에 관한 제네바협정에 따라 캄보쟈의 독립, 자주 및 중립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1955년 9월 프랑스련방에서 탈퇴하 채택하였다.

캄보쟈정부는 미제의 압력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나라의 독립과 중립 및 령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1963년 11월에 미제의 경제《원조》를 배격하고 1965년 5월에는 미제와의 외교관계를 끊었다.

1966년 1월 미제의 침략도구인 《아세아기금》 프놈펜사무소를 폐쇄하였다. 이해 12월에 미제의 주구인 박정희괴뢰도당과 관계를 끊고 그놈의 《총령사》를 내쫓았다.

1967년 5월 캄보쟈의 현국경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과는 국가관계를 끊을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1960년 6월—)

【민족련합정부】 수상 펜 누트(1970년 5월 5일—), 외무상 사린 챠크, 국방상 키에우 삼판

【민족통일전선】 미제와 그 주구 론놀—시리크 마타크도당을 반대하는 캄보쟈의 광범한 애국력량을 망라하는 반미구국통일전선체이다.

위원장 노로돔 시하누크, 정치국 위원장 펜 누트

【주요사건】 1970년에 미제국주의자들은 캄보쟈에서 정세를 각방으로 긴장시켜오다가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해외려행을 떠난 틈을 리용하여 론놀우익반동도당을 사촉하여 3월 18일 합법적정부를 반대하는 정변을 일으키고 캄보쟈에서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3월 23일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미제가 조작한 캄보쟈에서의 반동적인 정변을 폭로규탄하고 조성된 위기로부터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력사적인 《5개 항목의 선언》을 발표하고 캄보쟈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였다.

《5개항목의 선언》은 다음과 같다.

1. 전체 캄보쟈인민이 수여한 최고직위인 합법적인 캄보쟈국가원수의 이름으로 왕국의 헌법상 약속과 헌법을 배반한 반동정부와 국회량원을 단호히 해산한다.

2. 반역도당과 그 공모자들 및 주구들이 꾸며내었고 또 앞으로 꾸며내는 지시, 법령, 명령, 회람문, 공보, 결정, 결의, 판결을 인정하지 말며 수행하지 말것.

3. 새로운 민족통일전선정부가 구성될것이다.

4. 민족해방군이 창건될것이다.

5. 국내외에 살고있는 전체 크메르인들은 단합하여 《캄보쟈민족통일전선》이라는 공식명칭을 가지게 될 통일 이 전선의 기본사명은

(1) 론놀-시리크 마타크-송탄의 친제국주의적인 반동도당의 독재제도와 억압으로부터 나라를 해방하는것.

(2) 인도지나에서 침략을 감행하고 있으며 인도지나인민들을 억압하고 크메르와 월남 및 라오스 인민들에게 부정의, 전쟁, 온갖 재난, 빈궁, 불행, 혼란, 위기 및 비극을 가져다주고있는 미제와 투쟁하는것이며 사회주의나라들과 그 인민들, 진보적이고 반제적인 나라들 및 인민들의 백만의 지지밑에 투쟁할것.

(3) 원수들을 타승한 후 나라를 재건하며 나라가 진보의 길로 가능한한 빨리 나아가게 한다. 이 재건과업은 우의와 단결에 기초하여 모든 크메르인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캄보쟈민족통일전선결성 한돐에 즈음하여 시하누크친왕에게 보내신 축전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친왕을 위원장으로 하는 캄보쟈민족통일전선의 결성은 가장 흉악한 원수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충실한 앞잡이 론놀-시리크 마타크-송 노곡 탄 반역도당을 반대하고 나라를 해방하기 위한 성스러운 반미구국항전에로 전체 캄보쟈인민을 불러일으키며 그들의 전투적단합을 이룩함에 있어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습니다.》

캄보쟈민족통일전선이 결성됨으로써 캄보쟈인민은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광범한 애국력량의 단합을 이룩하고 반미구국항전을 힘있게 벌릴수 있게 되였다.

4월 24일과 25일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발기로 인도지나인민들의 수뇌자회의가 소집되여 《공동선언》이 채택되였다.

인도지나 3개국인민들은 하나의 공동전선에 결합되여 인도지나에 대한 미제의 침략에 커다란 타격을 가하였다.

캄보쟈인민무장력의 전과가 날로 확대되자 바빠맞은 미제두목 닉슨놈은 4월 30일 캄보쟈침공을 명령했으며 5월 1일 《비 52》 전략폭격기의 엄호밑에 남부월남에 둥지를 틀고있던 수많은 미제침략군과 남부월남괴뢰군놈들을 캄보쟈령내로 내몰았다.

5월 5일에는 애국적인민들이 단합하여 무력으로 무장한 원수들을 맞받아 용감히 싸우려는 캄보쟈민족통일전선의 정치강령이 발표되고 캄보쟈민족통일전선 령도하의 왕국민족련합정부가 수립되였으며 캄보쟈민족해방군이 창건되였다.

캄보쟈민족해방군은 미제침략군과

대처하여 전쟁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적들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많은 지역을 해방하였다.

캄보쟈민족해방전선령도하의 민족해방군은 8,9월에 이르러 주요공격대상인 프놈 펜주변의 전략적요충지들과 그와 련결된 도로들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하였다.

캄보쟈에서의 참패를 만회해보려고 발악하는 미제는 10월에 《캄보쟈공화국》이라는것을 조작하고 이를 합법화하려고 시도하면서 뒤혼들리는 론놀도당에게 12월 14일 또다시 2억 5,500만딸라의 군사《원조》를 더 주기로 하였으며 괴뢰군을 늘이였다.

11월 7일부터 프놈 펜의 남부지방(2호도로 및 3호도로 연선)에서 미제와 남부월남괴뢰 및 론놀괴뢰도당은 대규모적인 《공세》를 벌렸으나 민족해방군의 공세앞에 좌절되고 말았다.

고립상태에 빠진 미제와 그 주구들의 소굴인 프놈 펜시 마저도 《안식처》가 못되였다.

12월 1일에 수도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는 미국놈대사관이 폭파되여 대부분이 파괴되고 수라장이 되였다.

1970년 한해동안에 캄보쟈민족해방전선령도하의 민족해방군은 조국의 독립과 자주권을 수호하며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성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캄보쟈민족해방군과 인민들은 도처에서 원쑤들을 들이쳐 적 17만명을 소멸하고 각종 비행기 900여대를 포함한 적군용차 5천 200여대를 들부셨다. 이밖에 적들의 탄약창고 및 휘발유창고 130여개를 불태워버렸으며 포 500여문과 기타 여러가지 무기들을 파괴하였다. 3만 2천 500여점의 각종 무기와 약 300대의 군용자동차 및 수천톤의 탄약과 식량을 빼앗었다.

전선에서의 혁혁한 승리와 아울러 캄보쟈인민의 해방지역도 날로 공고화되였다.

이 해 한해동안에 캄보쟈민족해방군과 인민들은 전령토의 70%와 400여만의 인민들을 해방하였다. 지역적으로는 5개주가 완전히 해방되였으며 10개주의 대부분의 농촌과 도시가 해방됨으로써 캄보쟈인민은 실로 공고한 해방지역을 가지게 되였다.

해방지역에서는 주, 군, 리, 촌들에 이르기까지 인민선거에 의하여 조직된 캄보쟈민족통일전선 각급 위원회들이 수립되였으며 통일전선의 강령에 따라 토지개혁을 실시하고 교육기관들이 운영되고있다. 사회단체들도 광범히 조직되여 활동하고 있으며 민족해방군도 급속히 장성강화되였다.

8월 1일부터는 《캄보쟈민족통일전선의 소리》방송국과 캄보쟈통신사(8월 10일)가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캄보쟈인민은 자기 위업의 정당성으로 하여 전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고있다.

우리 나라를 비롯한 근 30개 나라와 조직들이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를 크메르인민의 유일한 합법적정부로 승인하고 싸우는 캄보쟈인민을 견결히 지지하고있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2년 3월 총령사관계를 맺았다. 1963년 11월에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을, 1964년 4월에는 문화 및 과학협조에 관한 협정을, 1964년 12월 20일에는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신 김일성수상과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최용건위원장의 초청으로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이 1970년 6월 15일부터 7월 1일까지 우리 나라를 국가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 방문기간에 김일성수상과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사이에 여러차례 회담이 진행되였으며 6월 30일 우리 나라와 캄보쟈왕국의 공동성명이 발표되였다.

이해에 또한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대표단(9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민의 대부분이 농민이다.

주요농산물은 벼, 강냉이, 고무, 목화, 야자, 커피 등이다. 벼재배면적은 241만 4천ha, 산림면적은 약 7만 8천여km²이며 매해 목재는 30만m³ 생산된다. 수산업은 담수어업이 기본이다.

캄보쟈에는 방직, 제지, 세멘트 등 공업기업소들이 있으며 특히 질좋은 마대가 생산되여 수출까지 한다.

1969년현재 총관개면적은 17만 1천 644ha였다.

【출판보도】 통신 에이. 케이. 아이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의 통신으로서 1970년 8월 10일부터 운영)

방송 《캄보쟈민족통일전선의 소리》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의 방송으로서 1970년 8월 1일부터 운영)

## 수리아

### (수리아아랍공화국)

지중해연안에 자리잡고있다. 대부분이 고원지대이며 내륙지방은 사막이다. 년평균기온은 19°C이다.

【면적】 18만 4,479km²

【인구】 629만 4,000명(1970년 11월)

주민은 대부분이 아랍인과 쿠르드인이다.

국어는 아랍어이다.

【수도】 다마스커스(주민 63만 6,400명)

**정 치** 1516년 토이기에 강점되여 오토만제국에 편입되였다가 1920년에 프랑스제국주의의 《위임통치령》으로 되였다.

수리아인민들은 1925~1927년의 전국적인 폭동을 비롯하여 프랑스강점자들을 내쫓고 민족적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을 굴함없이 진행하여 마침내 1946년 4월 17일 독립을 쟁취하였다.

1958년 2월 21일 아련과 통합하여 아랍련합공화국을 형성하였다. 1961년 9월 수리아는 아랍련합공화국에서 떨어져나와 9월 29일에 수리아아랍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6년 12월 수리아정부는 제국주의자들의 소유였던 《이라크석유회사》의 재산을 몰수하고 이라크로부터 수리아로 통과하는 이 회사의 송유관을 폐쇄하였다. 또한 대상공업기업소들을 무상몰수하여 국유화하였으며 봉건향주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

1967년 6월 5일 미제의 사촉하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아랍나라들에 대한 무력침공을 개시하자 즉시로 반격을 가하였으며 미영제국주의자들과 외교관계를 끊고 미국놈들을 수리아령토로부터 모두 내쫓을것을 명령하였다.

1968년 12월에는 경제를 전시체제로 개편할것을 명령하였다.

1970년 1월 아랍사회부흥당은 성명을 발표하여 아랍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감행하고있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을 규탄하였다. 성명은 아랍인민의 원쑤인 미영제국주의 및 서부독일군국주의자들과 정치, 경제, 문화적 련계를 가지지 말것과 놈들에게 석유를 공급하지 말것을 아랍나라들에 호소하였다.

1월 수리아아랍사회부흥당 중앙위원회는 미제가 아랍인민을 최유기만할 목적밑에 또다시 들고나온 중동문제의 이른바 《평화적해결안》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2월 수리아인민은 미제의 사촉을 받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이 항공대의 지원하에 수십대의 땅크와 포, 지상군을 동원하여 감행한 중동전쟁이래 최대

규모의 전쟁행위에 강력한 보복타격을 들이댐으로써 일격에 짓부셔버렸다.

3월 17일 수리아아. 아단결위원회는 영웅적월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5월 수리아정부는 공공기관들과 민간기관들의 비아랍명칭을 몽땅 없앨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5월 《팔레스티나의 날》에 즈음하여 수리아의 사회단체들이 팔레스티나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11월 이라크학생총동맹과 이라크에서 공부하는 팔레스티나대학생총동맹의 발기로 미영제국주의자들이 유태복고주의자들의 민족배타적인 국가를 세울것을 목적하여 이른바 《벨푸어선언》을 조작한지 53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팔레스티나혁명을 교살하려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흉악한 음모책동을 항의규탄하는 군중집회를 가지였다.

1970년 11월 13일 정변에 의하여 아따씨정권이 전복되고 아싸드 하페즈를 수반으로 하는 새 정부가 구성되였다.

【대통령】 하페즈 알 아싸드(1971년 4월—)

【정부】 수상 아브둘 라호만 클레이파위(1971년 4월—), 외무상 아브둘 할림 하담, 국방상 무따브 슈낙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0년에 창건, 총비서 칼레드 바그다슈. 아랍사회부흥당(바아스당), 수리아근로자로동조합련맹, 혁명청년동맹, 녀성동맹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5년 10월 4일 우리 나라와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66년 7월 24일에는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았으며 이해 8월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0년에 수리아신문들인 《알 사우라》, 《알 바아스》, 《알 띠다》 등을 비롯한 여러 출판물들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실었다. 또한 다마스커스 출판및배포사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문제에 대하여》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1970년 6월 수리아혁명청년동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우리 나라로부터는 조선로동당대표단(4월), 정부경제대표단(3월), 정부무역대표단(8월), 군사대표단(1월), 직맹대표단(9월), 농근맹대표단(4월)이 수리아를 방문했다.

**경제, 사회** 농업이 경제의 기본을 이루고있으며 주민의 약 68%가 농사를 한다. 국민소득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5%이며 농산물은 수출총액에서 85%를 차지한다. 경지면적은 약 600만정보이며 주요농산물은 목화, 밀, 보리, 감자, 콩, 포도, 기장 등이다.

공업에서는 경공업이 위주이며 그중에서도 방직 및 식료가공공업이 발전하였다. 방직공업은 공업총생산액의 절반을 차지한다.

지하자원은 린회석, 원유, 소금, 망간, 크롬, 철, 천연가스 등이다.

수리아인민은 미제와 유태복고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싸우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공업에서는 채취공업 특히 석유공업이 빨리 발전하였다. 1969년에 1968년에 비하여 17.5% 늘어난 약 470만톤의 석유를 생산하였다.

전력공업도 발전하였는데 1968년에 이 나라에서의 전력생산량은 8억 1천 800KWH에 달하였다. 뜨락또르공장, 전기공장, 질소비료공장, 방직공장, 철근공장들도 새로 건설되고있다.

철도운수도 발전하고있다. 이 나라의 큰 항구도시인 타르투스—아카레를 련결하는 새 철길을 놓았으며 라카시를 데이르-에즈-조르시와 련결하게 될 130km에 달하는 새 철도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농업에서도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금 수리아에는 1천 521개의 《농업협동조합》, 17개의 국영농장, 그리고 매개 도에 한개씩의 시범적인 집단생산조합들이 조직되여있다.

교육사업도 발전하고있다. 1967년 10월에 이미 정부는 사립학교들을 국가가 통제하며 국가가 제정한 통일적인 교수요강과 교과서들을 리용하게 하였다. 지금 수리아에서는 6명중 1명이 학교에서 공부하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수리아아랍통신

신문 알 바아스(바아스당기관지), 알 사우라(정부기관지), 알 띠다, 알 오르바

## 이라크

### (이라크공화국)

이라크는 아세아의 서남쪽에 있는 나라이다. 령토의 절반이 사막지대이다. 대륙성기후로서 년평균기온은 17°C, 년평균강수량은 230mm정도이다.

【면적】 44만 4,442km²

【인구】 946만 5,800명(1970년 8월)

주민은 아랍족이 절대다수이며 쿠르드족(약 200만), 이란족, 토이기족 등이 있다.

국어는 아랍어이다.

【수도】 바그다드(212만 4,300명)

**정 치** 아랍제국의 일부분이였던 이라크는 19세기초에 토이기제국에, 1914년 11월에는 영제국주의자들에게 강점되였다.

영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1932년에 독립하였다.

1958년 7월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인 파이살왕조를 전복하고 이라크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59년 3월 이라크정부는 미제의 침략적군사동맹인 《바그다드조약》에서 탈퇴하고 42년간 이라크를 강점하고있던 영침략군을 몰아냈다. 또한 미제와 맺았던 일련의 예속적인협정들을 폐기했다.

1964년 5월 이라크—아련련합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여 량국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통합대통령리사회와 통합정치지도부가 창설되였다.

1967년 5월 미제의 조종하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수리아를 반대하는 무력침공을 개시하여 아랍나라들에 엄중한 위기를 조성하자 이라크정부는 수리아와 군사협정을 맺고 자기의 군대를 아련과 수리아에 파견하였다.

이해 6월 5일 아랍국가들을 반대하여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이 무력침공을 개시하자 이라크도 전쟁을 선포하고 아련 수리아와 같이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웠다. 6월 6일 이라크는 미영제국주의자들과 외교관계를 끊었으며 미영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석유공급을 중지하였다.

1968년 7월 17일 군사정변에 의하여 새로 《혁명리사회》가 구성되고 아흐메드 하싼 알 바크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였다.

1968년 8월 이라크정부는 미국독점체들의 정방울료회사를 국유화하였으며 9월에는 미제가 운영하던 간첩소굴인 하키마종합대학을 정부의 수중에 장악하였다. 그리고 이 대학에서 《목사》란 미명하에 파괴활동을 감행하던 수십명의 미국놈들을 내쫓았다.

1968년 10월 팔레스티나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요르단에 있는 이라크지원군을 증강하기로 결정하였다.

1970년 1월 문맹퇴치법을 채택하고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날을 민족적명절로 선포하기로 하였다.

3월 11일 이라크정부와 쿠르드족대표간에 쿠르드족문제의 조정에 관한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민족적통일이 이루어졌다.

이라크정부는 3월 11일을 《민족통일의 날》로 결정하였다.

4월 이라크정부는 경제발전5개년계획을 발표하였다.

7월 17일 이라크대통령 아흐마드 하싼 알 바크르가 공화국의 림시헌법을 발포하였다. 헌법에는 통일되고 독립된 이라크의 테두리안에서 쿠르드족의 권리가 담보되였다.

3월 이라크 외무성은 성명을 발표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지지와 비호를 받는 남로데시아의 스미스인종주의 악당들의 이른바 《공화국》선포놀음을 규탄하였다.

【혁명리사회】 립법기관이다. 1968년 7월 17일 창설

【정부】 대통령 겸 수상 아흐마드 하싼 알 바크르(1968년 7월—), 외무상 아브둘 카림 아브둘 싸타르 알 쉐클리, 국방상 하마드 쉐하브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4년 4월 2일에 창건. 아랍사회부흥당(집권당), 쿠르드민주당, 로동조합총련맹, 이라크조선친선협회 1969년 7월 6일 결성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59년 7월 우리 나라와 통상및지불협정과 문화협조협정을 맺았다.

1968년 1월 30일에는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라크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친서를 1970년 7월 18일 우리 나라 당및정부대표단 단장이 알 바크르에게 전달하였다.

1970년에 이라크의 알 줌후리아 출판사에서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 《5대륙의 진보적기자들은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들고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자》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으며 《알 줌후리아》, 《바그다드 옵써버》, 《알 무즈타바》 등 이라크의 신문들이 그이의 천재적로작들을 광범히 실었다.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이라크아랍사회부흥당의 주최로 바그다드시군중집회를 진행하고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9월 이라크기자협회창설준비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하여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1970년에 이라크로동조합총련맹대표단(7월), 농민조합총동맹대표단(6월), 녀성총동맹대표단(5월), 이라크신문 《알 줌후리아》책임주필과 《알 사우라》 부주필(6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우리 나라로부터는 당및정부대표단(7월), 군사대표단(12월), 기자대표단(7월), 전람회대표단(9월)이 이라크를 각각 방문했다.

**경제, 사회** 인구의 80%이상이 농목축업을 한다.

경지면적은 약 600만정보이며 주요 농산물은 밀, 보리, 벼, 대추, 목화 등이다. 대추는 세계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며 이 나라 국민소득에서 두번째자리를 차지한다.

지하자원은 석유, 연, 석탄, 동, 망간, 니켈, 대리석 등이다.

이라크에는 100여개의 석유매장지가 있는데 여기에 매장된 석유는 도합 38억톤에 달한다. 매 유정마다 년평균 66만 7천톤의 석유가 채취되고있는데 이것은 세계적으로 두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수자다.

1970년에 이라크에서 현대적인 울카스르항을 건설하였으며 바그다드에 국제비행장을 건설하였다. 또한 바그다드와 바스라항을 련결하는 철도를 부설하였다.

1968년에 밀은 130만톤, 쌀은 40만톤, 세계적특산물로 이름난 대추는 26만 5천톤 생산하였다. 바그다드북부지역에서 40만두놈(1두놈은 910$m^2$)의 땅에 물을 댈수 있는 이스하와 관개공사가 진행되고있다. 1970년 9월에 알 도르관개공사가 시작되여 기봉수로 6km 구간이 완공되였다.

【출판보도】 통신 이라크통신

신문 알 사우라, 알 줌후리아, 알 아암, 바그다드 옵써버, 알 누르

## 남부예멘

###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라비아반도 남단에 동서로 길게 뻗어있다. 홍해로 들어가는 관문을 지켜선 교통의 요충지로서 군사전략상 의의가 크다.

해안지대는 습기가 많고 더우며 내륙지대는 대륙성기후이다. 최고기온은 35°C, 최저기온은 26.6°C이다.

【면적】 29만 80$km^2$

【인구】 150만명

주민의 대부분이 아랍인이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다.

【수도】 아덴(주민 약 10만명)

**정 치** 1839년 영제국주의자들이 아덴항을 강점하고 이를 거점으로 점차 예멘의 남쪽지역을 떼내여 아덴이란 나라를 조작하였다.

1956년 영제국주의자들은 아덴에 《중근동지역영국륙해공군련합사령부》를 설치하고 약 2만명의 침략군대를 끌어들여 이 지역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1962년 4월 남부예멘에 있는 추장국, 회교왕국, 교주국, 소왕국 등의 졸개들을 긁어모아 《남아라비아련방》을 조작하고 1963년 1월에 아덴식민지를 이에 병합하였다.

남부예멘인민들은 영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며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손에 무장을 잡고 줄기차게 투쟁하였다.

1963년 8월 남부예멘민족전선이 조직되였으며 이해 10월 14일 라드판지역에서 첫무장투쟁의 불길이 올랐다.

이 불길은 전국에 퍼져나갔다.

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1967년 8월말 《남아라비아련방》괴뢰정부가 무너졌다.

1967년 11월 30일에 129년간의 영식민주의 통치의 철쇄를 끊어버리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였다.

독립후 남부예멘정부는 독립을 공고히 하며 경제와 군사분야에서 식민지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1967년 12월말에 남부예멘정부는 《군대로부터 봉건주의의 마지막 잔재를 청산》할데 대한 결정을 발표하여 영제국주의자들의 괴뢰고위군사관리들과 왕족출신의 군사장교들을 몰아냈다. 또한 전국의 행정구역을 새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독립이전의 외국독점체들과 관료배들, 도망친추장들, 회교군주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였다.

1968년 3월에는 봉건령주, 반동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땅없는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

1969년 10월 24일 민주예멘정부는 미제국주의자들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미제의 대표부를 폐쇄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민주예멘정부는 싸우는 팔레스티나인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69년 8월 29일 아덴에 팔레스티나를 해방하기 위한 《지원병등록사무소》를 설치하고 1970년 1월 14일에는 민주예멘지원병의 첫그루빠를 팔레스티나유격대에 파견하였다.

1969년 12월 27일 외국인 소유의 일체 은행, 해운회사, 보험회사, 석유생

산 및 무역회사 등을 국유화할데 대한 법령을 발포하였다.

1970년 3월 민주예멘정부는 미제국주의자들과 아랍반동들의 악랄한 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인민들을 무장시키기 위한 대책으로써 대통령리사회 위원장이 직접 지도하는 《인민력량무장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또한 인민무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11월에는 남부예멘인민군의 개편과 새로 구성된 국방성의 기능에 대한 법령을 발포하였다.

대통령리사회 위원장 쌀림 루바이아 알리는 《팔레스티나의 날》(5월 15일)에 즈음하여 아덴에서 진행된 군중집회에서 연설하면서 정치, 경제, 외교의 모든 분야에서 미제를 반대하여 투쟁할것을 아랍나라들에 호소하였다. 그는 아랍나라들은 미제의 상품을 전면적으로 배격해야 한다고 말하고 아랍나라들이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놈들을 적극 지원하는 미제에 투쟁의 예봉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아랍나라들은 미제와 외교관계를 끊어버리고 자기 나라에 있는 미제침략군의 군사기지를 철폐하며 모든 미제석유독점회사들을 몰수하여 국유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11월말 민주예멘은 이 나라의 남부주들을 분리시켜 이른바《남아라비아공화국》을 조작하려던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 아랍반동들의 책동을 분쇄해버렸다.

11월 30일 나라이름을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고쳤다.

【대통령리사회】 위원장 쌀림 루바이아 알리(1969년 6월—)

【정부】 수상 알리 하이삼(1969년 6월—), 외무상 알리 쌀림 알베이드, 국방상 아윳라끼

【정당, 사회단체】 민족전선 1963년에 창건, 총비서 파타흐 이스마일. 로동조합총련맹, 녀성련맹, 남부예멘조선친선위원회 1969년 5월 5일 결성, 위원장 아브둘 라자크 샤프샤헤르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8년 2월 7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69년 5월 5일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6월에는 우리 나라가 민주예멘에 경제적원조를 줄데 대한 협정을 맺었다.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리사회 위원장 쌀림 루바이아 알리에게 보내시는 친서와 선물이 1970년 12월 1일에 전달되었다.

1970년에 민주예멘에서는 아덴항구로동자들의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4월 11일), 예멘학생전국총동맹 아덴시 타와이지부학생들의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5월 11일), 민주예멘 1도 비르 아흐마드지구 청년학생들의 《김일성동지 로작연구소조》(9월 1일)가 결성되었다.

이해에 또한신문 《아르바아타 아샤라 옥뚜브르》, 잡지 《싸우뜰 울말》, 《왈하리스》 등 을 비롯하여 여러 출판물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를 비롯하여 그이의 불후의 로작들을 광범히 실었다.

또한 예멘학생총동맹 아덴시 만수라지부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쉰여덟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천재적로작들에 대한 연구주간을 설정하였으며 민주예멘에 조직된 김일성동지의 로작연구소조성원들을 비롯하여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그이의 천재적로작들에 대한 연구발표모임들을 진행하였다.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예멘조선친선협회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7월 27일 조선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열일곱돐에 즈음하여 내무성 경찰양성소에서 기념집회를 진행하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경축하여 예멘의 문화및지도성과 예멘조선친선협회 주최로 우리 나라 사진전람회가 진행되었다.

1970년 6월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조합총련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아덴부근의 주민들은 부두, 원유정제공장들에서 일하며 바다가의 주민들은 어업, 그외 지역의 주민들은 농목축업을 한다.

독립후 민주예멘인민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침략책동을 짓부시면서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커다란 진보를 이룩하였다.

농업에서는 토지개혁법령이 발포되고 토지개간사업, 수리화사업 등 농업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진 결과 농업생산량이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농경지는 12만정보에 달하며 목화, 밀, 보리, 기장, 남새 등 다양한 작물을 심고있다. 1년에 목화는 5천 500톤, 과실과 남새, 담배도 생산하고있다.

산업분야에서도 외래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지반을 청산하고 외국인소유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을 국유화하였으며 국가소유의 중앙은행과 국영운수회사, 국영항공회사들을 창설하였다.

교육, 문화, 보건분야에서도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독립후 글모르는 사람을 없애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민족교육기관을 새로 창설하고 민족간부양성기지를 마련하는 사업을 힘있게 추진시켜 온 결과 농촌에서만도 100여개의 학교가 새로 건설되였다.

【출판 보도】 신문 14—두러버(정부기관지), 알 타우라, 아르바아타 아샤라옥뚜브르

## 말디브제도

### (말디브제도공화국)

인도양에 있는 2천여개의 산호섬으로 된 나라이다. 그중 사람이 살고있는 섬은 195개뿐이다. 섬들의 평균 높이는 해발 1.2m이하이며 강도 호수도 없다. 열대성기후로서 매우 덥고 습하다.

【면적】 298km²

【인구】 10만 6,000명(1970년)

주민은 아리만족, 인도족, 쎄일론족으로 이루어졌다.

기본언어는 중카레어이고 일반적으로 영어가 쓰인다.

【수도】 말레(주민 1만 2,000명)

**정 치** 1887년에 영국식민지였던 쎄일론의 《속령》으로 되였다. 1948년에 쎄일론이 독립하자 영국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1954년 2월 말디브는 군주제를 선포하였다. 1960년 2월 말디브는 국방 및 외교권을 제외한 《내부자치권》을, 1965년 7월 26일에는 독립을 쟁취하였다.



1968년 3월과 9월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추장통치를 철폐하였으며 11월 11일 새헌법을 발포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영식민주의자들은 1960년 2월 말디브에 협정을 강요하여 30년간(1956년부터) 말디브의 간도기지를 비롯한 기타 군사시설의 사용권을 강탈하고 여기에 해공군을 주둔시키고있으며 말디브인민들에 대한 적대행동을 감행하고있다. 말디브인민들은 영침략군을 몰아내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정부】 대통령 아미드 이브라힘 나시르(1968년 11월 —)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0년 6월 14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 주민의 대부분이 어업과 무역을 한다. 주산물은 물고기, 야자, 공예품 등이다. 땅이 메마르기때문에 기장을 약간 심는 외에 다른 곡식은 거의 심지 않는다. 식량은 수입하며 이 나라에서 생산하는것으로는 자급자족못한다. 대외무역에서 수출품의 95%는 물고기이다.

경제의 기본은 어업이나 주로 자그마한 범선들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다.

말레에 정부가 운영하는 소년학교와 소녀학교 2개와 그외 몇개의 사립학교가 있다. 정부는 교육발전을 위하여 다른 나라들에 류학생을 파견하고있다.

100%가 회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말디브어로 발간되는 일간신문과 방송국이 하나있다.

## 쎄일론

남부아세아의 인도양에 있는 섬나라이다. 아세아와 구라파, 대양주를 련결하는 교통상 중요한 지점에 놓여있다. 년평균기온은 26~30°C이다. 년강우량은 연해평야에서 1천~1천900mm이다.

【면적】 6만 5,610km²

【인구】 1,250만명(1969년말)

주민중 싱할족이 약 68%, 타밀족이 약 23%를 차지한다.

국어는 싱할어와 타밀어이다.

【수도】 콜롬보(주민 51만명)

**정 치** 1517년에 뽀르뚜갈, 1656년에 화란의 침략을 받았으며 1795년부터 영식민주의자들의 식민지로 되였다. 1948년 2월 4일 《영련방》내의자치령으로 독립하였다.

1965년 3월에 집권한 통일국민당정부는 국내적으로는 쌀배급축소에 의한 인민들의 불만을 증대시켰으며 대외적으로는 《쁠럭불가담정책》을 표방하면서 실제에 있어서는 미제를 비롯한 친서방적인 추종정책으로 하여 경제를 파국에로 몰아넣었다.

1970년 5월에 진행된 국회선거에서 민주력량의 통일전선(자유당, 공산당 평등사회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쟁취하였다. 그리하여 5월 31일 통일전선정부가 수립되였다.

통일전선정부는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한 일련의 진보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7월 26일 쎄일론국회는 새 헌법초안을 작성할 헌법제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8월 21일 정부는 고급장교들을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나라들과 그 추종국가들에서 훈련시키는 제도를 폐기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정부는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와 파괴책동을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하였다.

7월 14일 정부는 10월 31일까지 쎄일론의 교육, 법률, 행정, 도서관망, 과학기술 및 지방 《개발》분야에 16년간이나 침투하여 온 미제의 간첩단체의 이른바 《아세아기금》을, 이에 앞서 6월 24일에는 미제 《평화군》을 추방하기로 결정하였다.

쎄일론정부는 대외분야에서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사회주의나라들과 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반제민족해방투쟁을 지지하였다.

통일전선정부는 집권한후 우리 나라, 월남민주공화국, 독일민주주의공화국과 외교관계를 설정하였으며 남부월남공화림시혁명정부를 승인하고 아랍나라들을 침략하고 있는 이스라엘(7월 30일)과는 외교관계를 끊었다.

한편 정부는 남조선과 인도지나에서 미제침략군이 철수할것을 요구하였다.

【총독】 윌리암 고팔라와(1962년 3월—)

【국회】 상하량원제이다.

【정부】 수상 시리마 아르. 디. 반다라나이케(1970년 5월—), 국방 및 외무상, 계획상 겸임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43년 7월 3일 창건. 자유당, 평등사회당, 통일국민당, 련방당, 로조련맹, 자유당청년련맹, 진보녀성협회, 쎄일론인민조선친선협회 1961년 10월에 창설, 위원장 찬드라 구나쎄게라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2년 2월 우리 나라와 무역협정을 맺었다. 1963년 5월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가 콜롬보에 설치되였다.

1964년 1월 25일에는 두 나라간에 령사관계가 맺어졌으며 1970년 7월 15일에는 대사급외교관계가 설정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들을 전달하는 모임이 7월 29일 쎄일론 국회에서 진행되였다. 1970년에 《김일성동지의 혁명적로작연구및출판 쎄일론위원회》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전기 《김일성전》 싱할어판 제1부와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 그이의 천재적로작들을 많이 번역출판하였다.

또한 《썬》, 《데일리 미러》, 《포워드》 등을 비롯한 쎄일론 신문, 잡지들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보고와 페회사 그리고 수많은 불후의 로작들과 그이의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에 대한 자료,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등을 게재하였다.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7월 5일 쎄일론인민조선친선협회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의 주최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를 가지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이 월간에 또한 반제청년전선, 회교청년동맹 등 여러 사회단체들과 쎄일론인민조선친선협회 지부들에서 군중집회들이 진행되였다.

1970년에 쎄일론인민조선친선협회 카란데니야지부(3월 31일), 까랍나고지부(9월 6일), 갈파하지부(11월 21일) 등이 창설되여 쎄일론인민조선친선협회지부들은 35개에 달하였다.

1970년에 쎄일론에서는 독립학생동맹대표단(6월), 사회주의녀성대표단(8월), 국회대표단(8월), 쎄일론신문들의 《자나디나》 및 《자나사티야》 주필(9월), 정부경제대표단(9월)이 각각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 아단결위원회대표단(6월)이 쎄일론을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는 농업이 기본이며 그중에서도 차, 고무, 야자 재배가 위주로 되고있다. 경지면적은 약 160만ha인데 그중 3분의 2가 차, 고무, 야자 재배이다. 이 3대작물은 농업생산액의 75%, 국민소득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있다. 전체 외화의 약 60%를 차수출에서 얻고있다. 차재배농장의 75%는 영제국주의자들이 독점하고있으며 식량은 50%이상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공업생산액은 국민소득의 약 5%를

차지한다.

정부는 1970년 7월 18일 3개의 석유회사를 국유화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11월에는 무역을 국가의 통제밑에 두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싱할족의 대부분은 불교도이며 타밀족은 주로 힌두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프레스 트러스트 오브 쎄일론

신문 아따(공산당기관지), 포워드(공산당주간지), 자나디나(평등사회당기관지), 씬, 신할레, 스월라거, 자나사티야, 란카디파, 타임스 오브 쎄일론, 데일리 미러, 다바싸

## 버 마

### (버마련방)

인도지나반도의 서쪽에 자리잡고 있다. 대부분이 고원지대이며 기후는 열대 및 아열대에 속한다. 평균기온은 20°C, 년평균 강수량은 1천mm이상이다.

【면적】 67만 8,033km²

【인구】 2,760만명(1970년 10월)

주민의 약 64.1%가 버마족이며 기타 샨족, 카친족 등 소수민족들이 있다.

국어는 버마어이나 영어가 많이 쓰인다.

【수도】 랑군(주민 181만 4,000명)

**정 치** 1885년 영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되였다.

1942~1945년까지 일제에게 강점당하였다. 일제가 패망하자 다시 영제국주의자들에게 강점당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1948년 1월 4일 독립하였다.

1956년에 버마는 영제국주의자들과 1947년에 맺었던 《방위협정》을 폐기하였으며 제국주의적판세력체제도로부터 떨어져나왔다.

1962년 2월에 버마군총사령관 네윈이 군사정변을 일으켜 우누정권을 뒤집어엎고 군인들로서 혁명리사회와 내각을 조직하였다.

1962년 4월 30일 혁명리사회는 《사회주의에로 가는 버마의 길》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7월 4일에는 《사회주의로선당》을 조직하였다.

1963년에는 오래동안 파괴활동을 감행하여 온 미제의 침략적인 《포드기금》과 《아세아기금》의 활동을 금지시켰으며 기업국유화법령을 발포하여 영식민주의자들과 공동으로 경영하던 기업소들과 16개의 외국은행을 국유화하였다. 또한 이해 2월에는 림업의 국유화를 선포하였다. 1966년에는 파운드블럭에서 탈퇴하였다.

1968년 12월 버마정부는 60개의 방직기업소와 큰 식료품상점, 공업품상점을 포함한 168개의 상공업기업소를 국유화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969년에도 《민족경제발전법》에 기초하여 일련의 신문사, 인쇄소들과 200여개의 공장기업소들을 국유화하였다.

【혁명리사회】17명의 군인들로 조직되였으며 립법권을 행사한다. 의장 네윈

【정부】 수상 네윈(1962년 3월—), 외무상 마웅린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9년 8월에 창건, 1948년에 비법화. 사회주의로선당(집권당이며 유일당), 사회주의로동부대(유일한 로조단체), 전버마녀성동맹, 버마조선친선협회 1963년 8월 14일 결성, 위원장 우웅 투윈

【우리 나라와의 관계】 우리 나라와 무역협정(1957년 10월 2일), 령사관계(1961년 5월)를 맺었으며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1958년 3월)와 령사관(1961년 6월)이 랑군에 설치되였다.

버마에는 버마련방 《김일성동지 로작학습연구소조》, 《김일성동지혁명활동연구소조》,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 《김일성동지로작번역위원회》, 버마련방 랑군시 《김일성동지로작번역위원회》, 버마조선친선협회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소조》 등이 조직되여 활동하고있다.

1970년 4월 7일 랑군에서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쉰여덟돐을 축하하는 버마사회계군중집회가 진행되였으며 그이께 드리는 편지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1970년에 버마의 《묘용얀아이소》 출판사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주신 대답을 종합본으로 출판하였으며 며쩡출판사와 빼따모출판사에서도 그이의 불후의 천재적로작들인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사회주의적농촌경리의 정확한 운영을 위하여》를 버마어로 출판하였다. 처드출판사에서는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단행본으로 번역출판하였다.

또한 버마의 신문들인 《한사워디》, 《가디언》, 《근로인민보》, 《째뭉》 등과 잡지 《유와디》, 《뮈웨이》, 《띠나넙하》, 《오웨이》 등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들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들을 널리 소개하였다.

버마의 신문, 잡지들은 남조선통일혁명당의 선언과 강령도 광범히 실었다. 잡지 《뻬뚜쩨》 7월호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이 통일될 날은 멀지않았다》라는 표제하에 남조선통일혁명당의 선언과 강령 전문을 실었다.

6월 22일 《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하여 버마조선친선협회는 미제침략자들의 남조선강점을 항의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9월 버마조선친선협회와 버마의 기자, 작가, 화가, 사회활동가들이 유엔총회 제25차회의에서 미제의 강요에 의하여 이른바《조선문제》가 또다시 토의되는것과 관련하여 유엔사무총장 우탄트에게 항의서한을 보냈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주민의 약 80%가 농사하고있다. 세계적인 벼생산국이다. 농업은 국민총생산액의 약 30%를 차지한다. 농경지는 약 861만 2천정보인데 그 대부분이 논이다.

주요농산물은 벼, 땅콩, 황마, 목화, 콩, 사탕수수, 밀, 담배 등이다.

지하자원은 월프람, 석, 연, 아연, 텅그스텐, 석유 등이다. 령토의 60%가 고무, 종려, 티크 등 수백종의 각종 나무들이 무성한 산림지대이다.

공업은 대부분이 농산물과 림산물 가공공업이다.

1969—1970회계년도에 버마에서 공업총생산액은 4% 장성하였으며 농업생산은 1.3%, 국내 상업류통총액은 5% 늘어났다.

1962년부터 1970년까지의 기간에 중등전문 및 고등교육발전을 위한 국가의 투자는 2배, 보건분야에 대한 투자는 2.2배로 늘어났다.

【출판보도】 통신 버마통신

신문 워킹 피플즈 데일리(혁명리사회계), 록따버뚜네씽(정부기관지), 한사워디, 가디언, 째뭉, 유와디, 오웨이

## 인 도

### (인도공화국)

인도는 아세아주의 남쪽 인도양연안에 있다. 기후는 전형적인 열대계절풍

기후의 특징을 가지고있다. 기온은 추울때에 약 15°C이며 더울때에는 26~46°C이다.

【면적】 294만 8,389km²

【인구】 5억 5,537만 5,000명(1970년 10월)

주민의 기본은 인도—게르만어족에 속하는 인도인이며 도시주민이 17.3%, 농촌주민이 82.7%이다. 주민의 46.3%가 힌두스탄족이며 그밖에 텔구족, 말라티족, 타밀족, 벵갈족, 아쌈족 등이 있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민족어인 힌두어와 수백종의 소수민족어도 있다.

【수도】 뉴델리(주민 420만명, 1970년)

**정 치** 1858년부터 1947년까지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다.

인도는 1947년 8월 15일 파키스탄과 분리되여 독립하였다.

인도는 1950년 1월 26일 헌법을 제정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5년에 인도와 파키스탄간에 카슈미르문제를 둘러싸고 무장충돌이 벌어졌다. 이 무장충돌은 1966년 1월에 정화되였다.

1965~1966년에 각지에서 굶주린 인민들의 대중적시위와 폭동이 있었다.

1969년 8월에 인디라 간디정부는 14개의 대은행을 국유화하였으며 공업원료수입을 국유화할데 대한 법령을 발포하였다.

【대통령】 브이. 브이. 기리(1969년 8월 24일—)

【의회】 련방원(상원)과 인민원(하원)의 량원제이다.

【정부】 수상 인디라 간디(1963년 3월—), 원자력상, 내상, 계획상, 공보 및 방송 담당상을 겸임함. 국방상 자그지반 람, 외상 스와란 싱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3년 창립. 국민대회당(집권당), 자유당, 인민당, 전인도민주당, 인민사회당, 전인도직업동맹, 인도전국녀성련맹, 전인도청년련맹, 인도조선문화협회 1956년 12월 25일 결성, 위원장 씨. 브람 피카쉬, 전인도조선친선협회 1969년 12월 15일 결성, 위원장 케이. 디. 말라비아

【주요사건】 1970년 8월부터 광범한 지역에서 농민들이 정부소유토지와 대지주, 이전 봉건령주 및 독점자본가들의 땅을 빼앗아 내기 위한 토지수탈투쟁을 벌리였다.

인디라 간디정부는 토지수탈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인도정부군과 주정부군대, 경찰들을 동원하여 1만 5천여명의 농민들과 농민지도자들을 잡아가두었다. 12월에는 서부벵갈주에서 황마공업부문로동자 25만명이 파업하였다.

인디라 간디정부는 《쁠럭불가담》정책을 계속 실시하고있다.

인도지나문제에 대하여서는 제네바협정에 기초하여 평화적회담의 방법으로써만 해결할수 있다는 립장을 취하고있으며 중근동문제에서는 아랍련합공화국이 내놓은 평화적해결방도에 대하여 긍정을 표시하고있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2년 3월에 우리 나라와 총령사관계를 맺었으며 뉴델리에 우리 나라 총령사관이 설치되였다.

1968년에 우리 나라와 무역협정을 맺었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들이 인도에서 광범히 출판되였다. 《데일리 타르쥐만》출판사에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우르두어와 판잡어로, 라자스탄주인도친선협회에서는 힌두어로 각각 출판하였다.

《타르쥐만》출판사에서는 그이의 로작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또한 《힌두》, 《힌두스탄 스탠다드》, 《스튜덴트 타임스》, 《내슈널 헤랄드》, 《인디안 엑스프레스》 등 여러 신문들이 《김일성전》 1부를 비롯하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로작들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문제에 대하여》,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등을 광범히 실었다.

1970년 12월 28일 뉴델리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회관이 개설되였다.

1970년에 전인도조선친선협회대표단(6월), 인도공산당(맑스주의)대표단(6월), 인도델리종합대학경제학 교수부부(6월), 인도기자대표단(7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했으며 우리 나라로부터는 직맹대표단(1월), 조선아.아단결위원회대표단(6월)이 이 나라를 방문했다.

**경제, 사회** 인구의 80%이상이 농사를 한다.

총생산액에서 농업이 70%를 차지한다. 인구의 15%밖에 안되는 지주와 부농이 약 1억 5천만정보 (경지면적의 85%)를 가지고있다.

경지면적의 4분의 3이 알곡재배면적이다. 관개면적은 총경지의 16%밖에 안된다.

주요농산물은 벼, 밀, 황마, 차, 목화, 보리, 강냉이 등이다.

공업에서는 10개의 대자본가들이 전체공업의 약 70%를 독점하고있다.

국가독점자본은 전체 주식회사자본의 30.4%를 쥐고있다.

공업의 많은 부문이 영미제국주의자들의 독점자본에 예속되여있다.

지하자원으로는 석탄, 쇠돌, 망간, 운모, 보크사이트 등이 있다.

【출판보도】 통신 프레스 트라스트 오브 인디아

신문 뉴에이지(공산당계), 나브바라트(국민당계), 이브닝 뉴, 탄지르람, 힌두스탄 오브 인디아, 피플즈 데모크라시

## 파키스탄

### (파키스탄회교공화국)

파키스탄은 인도를 사이에 두고 동부파키스탄과 서부파키스탄으로 나뉘여졌다. 동부파키스탄은 평원지대이며 비가 많이 온다. 서부파키스탄은 대부분이 산악지대이며 비가 적게 온다.

【면적】 94만 7,695km²

동부파키스탄 14만 1,157km²

서부파키스탄 80만 6,538km²

【인구】 1억 2,500만명(1970년)

인구의 56%가 살고있는 동부파키스탄의 주민은 95%가 벵갈족이다. 서부파키스탄주민은 대부분이 마르찌족, 판잡족이다.

국어는 벵갈어(동부파키스탄에서 많이 쓴다)와 우르두어(서부파키스탄에서 많이 쓴다)이며 1972년까지 영어도 공용어로 쓰게 되여있다.

【수도】 이슬라마바드(서부파키스탄에 있다), 제2수도 다카(동부파키스탄에 있다)

**정 치** 파키스탄은 인도의 일부로 있다가 1858년에 영국의 《직할통치령》으로 되였다.

1947년 8월 인도에서 떨어져나와 《영련방》내의 자치령으로 독립하고 1956년 3월 23일 회교공화국을 선포하였다.

파키스탄은 미제의 침략적군사동맹인 세아토와 쎈토에 가담하였으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성원국이다.

1965년 9월 파키스탄은 쎈토에 요청한 《원조》가 부결되자 쎈토로부터 자

기 인원을 철수하였다. 또한 쎈토와 세아토의 군사연습에 참가하지 않았다. 《각료리사회》, 《군사고문관회의》에는 참가하지 않거나 옵써버로 참가하고있다.

1969년 3월 25일 이전 대통령 아유브 한이 파키스탄에서 조성된 《정치정세》와 관련하여 계엄령을 선포하고 나라의 행정권을 육군사령관 야히야 한에게 넘겨주었다.

1970년 1월 파키스탄정부는 미제와의 《기지협정》에 의하여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정탐을 목적으로 건설한 바다베르통신기지를 철폐하였으며 미제침략군놈들을 몰아냈다.

6월 라호르시와 라왈핀디에서 미제의 사상문화적침투를 반대하여 인민들은 군중집회와 항의시위를 벌렸다.

6월 6일 파키스탄 아.아인민단결기구 카라치위원회는 미제와 유태복고주의를 반대하는 아랍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군중집회를 열고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동부파키스탄평화옹호위원회는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기간을 《윁남, 라오스, 캄보쟈 인민들과의 련대성주간》으로 설정하고 인도지나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각종 행사들을 조직진행하였다.

12월 7일 파키스탄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직접적인 국회총선거가 진행되였다.

【국민의회】 일원제이다

【정부】 대통령 예이. 엠. 야히야 한 (1969년 3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48년 인도공산당에서 떨어져나와 창건, 1954년 7월이래 비법화. 아와미련맹당, 인민당, 회교도련맹당, 민족주의전선, 로조련맹, 민족청년련맹, 전파키스탄녀성협회,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1967년에 결성, 파키스탄조선청년친선협회 위원장 부사히드 후쎄인 싸이드, 파키스탄조선청년학생친선문화협회 1970년 9월 29일 결성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6년 11월 8일 우리 나라와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67년 7월 28일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가 파키스탄에 개설되였다.

1968년 1월 14일 령사관계를 맺었으며 3월 6일에는 우리 나라 총령사관이 파키스탄에 개설되였다.

파키스탄에는 파키스탄조선청년친선협회 《김일성수상로작연구위원회》, 《김일성수상로작번역출판편집부》, 《김일성수상로작편집부》, 동파키스탄조선청년학생친선문화협회《김일성수상로작연구소조》, 파키스탄선박 《스와트》호의 《김일성수상로작 및 혁명활동력사연구소조》 등이 결성되여 활동하고있다.

또한 1970년에만도 파키스탄의 진보출판사에서는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를 종합본(우르두어)으로 출판하였으며 민족출판사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와 《5대륙의 진보적기자들은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들고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자》를 우르두어로 번역하여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파키스탄신문들인 《뉴 타임스》, 《돈》, 《데일리 후리에르》, 《쎈》, 《데일리 뉴스》, 《콤바트》 등을 비롯하여 여러 출판물들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들을 실었다.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발표 세돐에 즈음하여 파키스탄조선청년친선협회《김일성수상로작연구위원회》 위원장 부사히드 후쎄인 싸이드와 이 협회 라호르지부 서기장 모함마드 아슬람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부사히드 후쎄인 싸이드는 자기 담화에서 이 로작은 전세계의 반제투사들에게 있어서 행동의 지침으로 되고있으며 싸우는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광명을 안겨주고있다고 말하였다.

7월 12일 라호르에서 파키스탄조선청년친선협회와 이 협회 《김일성수상로작연구위원회》가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공동집회를 가지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라왈핀디의 파키스탄아.아인민단결기구 라왈핀디위원회에서도 집회를 가지고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며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였다.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2돐을 기념하여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라왈핀디지부와 카라치지부는 경축집회를 열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1970년 6월에 조선아.아단결위원회 대표단이 파키스탄을 친선방문하였다. 9월에는 파키스탄 조선청년친선협회 《김일성수상로작연구위원회》 위원장 부사히드 후쎄인 싸이드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주민의 87%가 농사를 한다. 국가수입의 80%를 농업에서 얻고있다.

주요농산물은 황마, 목화, 벼, 사탕수수, 담배 등이다. 황마생산량은 세계 황마생산량의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 이 나라 수출총액의 50%를 황마가 차지한다.

지하자원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크롬, 철, 우라니움, 보크사이트, 망간, 석고, 티탄 등이다.

공업에서는 방직, 황마가공, 제당, 담배, 제지공업 등이 위주로 되고있다.

파키스탄에서 20개의 독점자본가들이 공업자본의 60%, 은행자본의 80%를 장악하고있다.

학교교육에서는 1969년부터 민족어를 쓰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회교도이다.

【출판보도】 통신 파키스탄통일통신
신문 타미르, 데일리 뉴스, 뉴 타임스, 콤바트, 파스탄, 돈

## 싱가포르

### (싱가포르공화국)

말라이반도의 남쪽끝에 있는 싱가포르섬을 비롯한 몇개의 섬들과 인도양에 있는 로쥐제츠브보섬으로 이루어져있다.

열대성기후로서 년 최고기온은 31°C, 최저기온은 24°C이며 년강우량은 2천500mm이다.

【면적】 585km²

【인구】 204만 9,500명(1970년 7월)

주민구성은 중국인 74.4%, 말라이인 14.5%, 인도, 파키스탄인이 8%이다.

공용어는 중국어, 영어, 말라이어이다.

【수도】 싱가포르(주민 154만 9,000명)

**정 치** 1867년에 영국의 식민지로 된 싱가포르는 제2차세계대전시 일제에게 강점되였다가 일제가 패망하자 다시 영식민주의자들이 침입하였다.

싱가포르는 1959년 6월 영련방내의 《자치국》으로 되였으며 1963년 9월에는 영국식민주의자들이 조작한 《말레이시아련방》의 한개주로 편입되였다가 1965년 8월 9일 련방에서 탈퇴하여 독립을 선포하였다.

싱가포르는 극동에 있는 영국식민주의자들의 최대의 해군기지로서 여기에는 《영국극동륙해공군총사령부》가

있다.

【립법평의회】 일원제이다.

【대통령】 벤쟈민 헨리 셰어즈

【정부】 수상 리관유(1965년 8월—), 외무상 라쟈라트남

【정당, 사회단체】 인민행동당(집권당), 사회주의전선, 로동당, 통일인민당, 전국로동조합의회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7년 5월 13일 무역협정이 체결되였으며 평양과 싱가포르에 무역대표부를 설치할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1969년 11월 28일 총령사관계가 설정되였다.

**경제, 사회** 국제무역중심지의 하나로서 중계무역이 경제의 기본을 이루고있다. 국민소득의 80%이상이 무역과 관련된 경제부문으로부터 얻어지며 국내공업과 농업으로부터는 10%정도의 소득을 얻고있다.

영미독점체들이 경제의 명맥을 쥐고있으며 최근 일본독점체들의 침투가 강화되고있다. 현재 싱가포르에 건설된 일본독점자본의 공업 및 상업기업소들과 은행은 80여개나 되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설치한 30여개의 기구가 있다. 현재 일본은 경제분야에서 영국을 대신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를 통한 대외무역에서 첫자리를 차지한다.

【출판보도】 신문 바리산(사회주의전선기관지), 영보, 이스턴 썬, 스트레이츠 타임스, 성주일보

## 레바논

### (레바논공화국)

지중해의 동부연안에 있으며 수리아, 이스라엘과 접해있다. 기후는 여름에 무덥지않으며 겨울에도 따뜻하다. 그러나 산악지대산봉우리들은 년중 눈에 덮혀있다. 대부분지방에서 10~4월까지는 장마철이다.

【면적】 1만 400km²

【인구】 258만명(1970년)

대부분이 아랍인이며 국어는 아랍어이다.

【수도】 베이루트(주민 60만명)

**정 치** 16세기 토이기에 강점되어 오토만제국의 일부로 있다가 1920년에 프랑스의 《위임통치령》으로 되였으며 1943년 11월 22일에 독립하

1958년 5월 레바논인민들은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며 민족적자주권과 진정한 독립을 위하여 전국적인 인민항전을 시작하였다. 이해 6월에 레바논전지역에 조직된 인민항쟁군이 레바논령토의 4분의 3을 장악하자 미제는 위기에 빠진 샤문정부에 무기를 공급하는 한편 이라크의 파이살왕조를 사촉하여 레바논에 군대를 파견케 하였으며 제놈들의 함대를 지중해연안에 끌어들였다.

1958년 7월 레바논인민들의 투쟁이 고조되자 미제는 《레바논의 독립과 안전을 위한다》는 강도적인 구실밑에 레바논에 수만명에 달하는 제놈들의 침략군을 상륙시켰으나 레바논인민들의 항거에 의하여 이해 10월에 쫓겨났다.

1967년 6월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아랍을 침공하자 6월 6일 미영제국주의자들과 외교관계를 끊었으며 이날 베이루트인민들은 미제대사관에 불을 질렀다.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은 레바논에 대한 침략과 도발책동을 강화하고 있다.

1970년 5월 12일 이스라엘침략자들은 미제의 사촉밑에 땅크, 장갑차 160여대, 각종 비행기 그리고 3천 500여명의 침략군을 들이밀어 나팜탄까지 사용하면서 중동전쟁이래 가장 큰 규모의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침략자들은 레바논군과 팔레스티나유격대의 완강한 투쟁과 아랍나라들의 단합된 진출에 의하여 많은 손실을 보고 무력침공을 개시한지 24시간도 못되여 쫓겨났다.

4월에 레바논학생들이 미제전쟁사환군 시스코놈이 자기 나라에 더러운 발길을 들여놓은데 격분하여 미국놈대사관 지역에서 강력한 반미시위를 벌렸으며 피로 얼룩진 미국놈의 기발을 끌어내려 불태워 버렸다.

【국회】 일원제의 립법기관이다.

【대통령】 술레이만 프란쥐에(1970년 8월—)

【정부】 수상 라쉬드 카라미(1969년 1월—), 외무상 할림 아부 하마드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0년에 창건된 수리아레바논공산당으로부터 분리되여 1958년 12월에 레바논공산당으로 되였다. 1947년에 비법화되였다가 1970년에 합법화됨. 총비서 니꼴라 샤우이. 국회민주전선(집권당), 사회

우리 나라와 무역협정을 맺었으며 1968년 2월 14일에는 베이루트에 우리나라 무역대표부가 개설되였다.

레바논인민들속에서는 《김일성동지의 사상을 연구하는 위원회》, 《김일성동지로작번역 및 출판위원회》,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연구하는 로동자위원회》,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연구하는 학생위원회》,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연구혁명소조》 등이 조직되였다.

1970년에 레바논신문들인 《알 무하리르》, 《알 욤》, 《알 샤아브》 등을 비롯한 여러 신문들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등을 비롯한 수많은 로작들을 실었다.

《다르 알 잇터하드》출판사에서는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을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또한 《알 무하리르》신문은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보고를 14회에 걸쳐 전재하였다.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레바논아.아단결위원회는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규탄하며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경제, 사회** 중계무역이 경제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국민소득에서 무역이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주요농산물은 귤, 포도, 사과, 레몬, 바나나, 양배추, 밀, 보리, 담배 등이다. 경지면적은 27만정보이며 농산물생산에서 과일이 60%, 남새가 20%를 차지한다.

지하자원은 석탄, 쇠돌, 유색금속 등이다.

【출판보도】 신문 알 안와르, 알 무하리르, 알 욤, 알 안바, 알 샤아브, 알 라유, 안 니다

## 쿠웨이트

【면적】 2만 5,500km²

【인구】 73만 3,196명(1970년 5월)

주민의 절대다수는 아랍족인데 그중 절반이상은 팔레스티나인, 에집트인, 레바논인, 이라크인 등이며 원주민은 총인구의 약 45%를 차지한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다.

【수도】 쿠웨이트(주민 21만명)

**정 치** 1899년부터 영식민주의자들의 《보호령》으로 있다가 1961년2월 25일 독립하였다.

1963년 1월 립헌군주제와 의회책임내각제를 규정한 헌법을 채택하고 1월 30일 이 나라 력사상 첫 국민회의 선거를 진행하였다.

1967년 6월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하자 아련에 자기의 군대를 직접 파견하였으며 전국에 전시상태를 선포하고 미영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석유공급을 중지하였다.

쿠웨이트인민은 빼앗긴 자기 조국을 찾기 위하여 싸우고있는 팔레스티나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주장】 사바흐 알 살렘 알 사바흐(1965년 11월—)

【국회】 일원제이다.

【정부】 수상 자베르 엘 아흐메드 엘 자베르(1971년 2월—), 외무상 사바흐 엘 아흐메드 엘 자베르, 국방상 싸드 엘 아브드 알라 엘 사바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7년 9월 17일 우리 나라와 무역협정을 맺었다. 1968년 4월 20일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가 쿠웨이트에 개설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원유채취업이다. 석유매장량은 약 90억t으로 추산되며 년석유생산량은 1억t이다. 국가수입의 90%이상이 석유채취업에서 들어온다. 그러나 석유채취공업은 미영제국주의독점체들에 예속되여있으며 인구의 3분의 1이 외국석유회사에 고용되여 착취당하고 있다. 미영제국주의자들은 이 값싼로동력과 풍부한 석유의 략탈을 통하여 해마다 투하한 자본의 500%의 리윤을 짜내고있다.

쿠웨이트정부는 제국주의자들의 리권과 활동범위를 제한 축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미 《쿠웨이트국립석유회사》를 창설하고 석유채취와 가공, 원유제품의 판매 및 분배권을 장악하였을뿐만아니라 12개의 휘발유보급소를 통제하고있다.

또한 정부는 1970년에 석유생산국들과 함께 원유값과 세금을 더 올림데 대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미제를 괴수로 하는 석유독점체들에 또 하나의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다.

쿠웨이트에서는 또한 풍부한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는 화학공업과 발전소를 건설하고있다. 수산업 및 목축업도 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콩, 남새 등이다. 토지는 거의 족장들과 상인들이 독점하고있다.

교육분야에서도 일련의 성과들이 이룩되여 각급 학교들과 학생수가 늘어나고있다.

【출판보도】 신문 아흐바르 알 쿠웨이트, 알 하다프, 데일리 뉴스

# 네 팔

## (네팔왕국)

히말라야산맥의 남쪽에 자리잡고있으며 중국, 인도와 접해있다. 령토의 절반이상이 해발 900m를 넘는 산악지대이다. 년평균 강수량은 3,000mm이다.

【면적】 14만 700km²

【인구】 1,070만명(1970년)

주민은 쿠르카족, 네와르족, 라나족 등이다.

국어는 네팔어이며 힌두어, 영어도 통용된다.

【수도】 카트만두(주민 22만 390명)

**정 치** 1816년 영제국주의자들의 《속령》으로 되였으며 1923년에 영제국주의자들과 《영구평화 및 우호조약》을 맺고 형식상 독립을 선포하였다.

1951년 2월 트리부반국왕은 네팔대회당과 합세하여 라나일가의 세습적인 군사독재정권을 전복하고 립헌군주국을 선포하였다.

1962년 12월 의회제도를 폐지하고 참사회제도를 실시하는 새 헌법을 채택하였으며 왕의 실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1963년 4월에는 국가리사회를 창설하였다.

【국왕】 마헨드라 비르 비크람 샤흐데바(1955년 3월—)

【전국참사회】 일원제이다.

【국가리사회】 국왕의 최고자문기관이다.

【정부】 수상 마헨드라 비르 비크람 샤흐데바(1970년 4월—), 외무상 게헨드라 바하두르 라지반다리, 국방상 부드하토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49년 9월 15일 창건. 현재 비법화, 1961년 1월 이래 정당들의 활동은 금지되였다. 네팔조선친선협회 1959년 11월 9일 창립, 위원장 프렘 바하두르 칸사카르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5월 11일 무역관계와 총령사급의 령사관계를 설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7월 10일에는 총령사급의 령사관계를 설정할데 대한 협정을 맺었다.

1970년 12월 11일 평양에서 상품교류를 예견한 2개년무역협정을 맺었다.

1970년에는 네팔자그라트사바 《김일성수상로작연구소조》가 조직되여 활발히 운영되고있으며 그 성원일동으로부터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축하하여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네팔조선친선협회 《김일성수상로작편집부》 주필인 마니크랄 쉬레스타로부터는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로 또다시 추대되신데 대하여 *그이께*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네팔조선친선협회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들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를 미노족어로, 네팔《진보》출판사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를 네팔어로 각각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또한 네팔신문들인 《마더랜드》, 《너야 써마지》, 《마뜨리 푸미》, 《파사파트리카》, 《아세아의 목소리》, 《코먼》 《째뜨나》 등이 그이의 천재적인 로작들을 광범히 실었다.

《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하여 네팔조선친선협회 주최로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는 군중집회를 가졌다.

10월 17일 네팔조선친선협회는 미제가 《조선문제》를 유엔총회 제25차 회의에 또다시 상정시키려고 책동하고 있는것을 규탄하여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8월 29일부 성명과 9월 16일부 비망록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군중집회를 가졌다.

1970년에 네팔왕국정부친선대표단(12월), 네팔청년동맹대표단(9월), 네팔기자대표단(11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주민의 약 90%가 농사를 하는 농업국이다. 경지면적은 약 456만정보(55%가 논)인데 남부지방에 집중되여있다.

주요농산물은 벼, 밀, 강냉이, 콩,

감자, 목화, 황마, 담배 등이다.

축산업은 양을 기본으로 하고있다.

공장은 대부분이 인도독점체들이 틀어쥐고있다. 지하자원은 동, 쇠돌, 운모, 대리석, 석탄, 아연, 금, 은, 석유 등이다. 산림자원과 수력자원도 풍부하다.

민족어로 교육하고있다.

주민은 대다수가 힌두교도와 불교도이다.

【출판보도】 신문 파샤파트리카, 마더랜드, 마뜨리 푸미, 코먼, 너야 써마지

## 아프가니스탄

### (아프가니스탄왕국)

남부아세아에 있으며 쏘련, 파키스탄, 이란과 접해있다. 령토의 75%는 산악지대이다.

기후는 대륙성기후이며 년평균강수량은 300~400mm이다.

【면적】 65만 5,000km²

【인구】 1,550만명(1970년)

주민은 대부분이 아프가니스탄인이며 따지크인, 우즈베크인, 뚜르크메니아인 등 20여개 민족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페르샤어(도시에서 주로 통용)와 푸슈트어(농촌에서 주로 통용)이다.

【수도】 카불(주민 약 40만명)

**정 치** 18세기중엽부터 영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았으며 1880년에는 영국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독립을 위한 이 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1919년 5월 27일 독립하였다.

아프가니스탄은 립헌군주국이며 회교가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령역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있다. 국왕이 회교교주로 되여있다.

1970년 1월 카불에서 수백명의 시민들은 악명높은 전쟁광신자의 한놈인 미국부대통령 애그뉴놈이 아프가니스탄에 기어드는것을 반대하여 대규모적 시위를 벌렸다.

아프가니스탄은 1968년 유엔에서 《조선문제》 토의시 사회주의나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들이 제기한 남북조선대표 동시초청안에 찬성하였다.

1970년 5월 아프가니스탄 신문 《카라반 데일리》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아련 《다르 알 타흐리르》출판사총국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주신 대답전문을 머리글을 달고 실었다.

【국왕】 모함메드 자히르 샤흐(1933년—)

【국회】 상하량원제이다.

【정부】 수상 겸 외상 누르 아흐메드 에떼마디(1967년 11월—)

**경제, 사회** 국민의 약 90%가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며 농업생산이 국민소득의 90%를 차지한다. 농업생산물은 주가 밀이며 그밖에 벼, 보리, 강냉이, 과일, 면화, 사탕 등이다.

주요집짐승은 면양, 염소, 소, 노새, 말, 락타 등이다.

공업에서는 옥석제품, 융단 등을 생산하는 전통적인 가내수공업이 위주로 되고있다.

지하자원은 금, 은, 쇠돌, 연, 아연, 석탄, 류황, 대리석, 석유, 천연가스 등이며 수력자원이 풍부하다.

독립후 두 차례의 《5개년계획》을 수행하고 1967년부터 3차《5개년계획》을 수행하고있다.

인구의 95%가 회교도이다.

【출판보도】 통신 바크타르통신

신문 이슬라(정부기관지), 카라반데일리, 모사바트, 아니스, 카불 타임스

## 라 오 스

### (라오스왕국)

인도지나반도의 중앙에 자리잡고 있는 내륙국이다. 령토의 대부분이 높은 산과 넓은 산림지대로 되여있다. 메콩강류역에 넓은 평야가 있다.

년평균기온은 1월에 북부는 15°C, 남부는 23°C이며 7월에는 북부에서 28°C, 남부에서는 30°C이다. 년평균강수량은 2천~3천mm이다.

【면적】 23만 6,800km²

【인구】 약 300만명

주민은 3분의 2가 라오족이며 그밖에 카족, 묘족, 인니족과 중국, 월남인도 있다.

【수도】 비엔티안(주민 11만명)

**정 치** 1893년 프랑스의 《보호국》으로 되였다. 제2차 대전시기에는 일제의 강점하에 있었다.

1945년 10월 12일 라오스인민은 림시항전정부를 수립하고 독립을 선포하였다.

1946년에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이 또다시 라오스에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라오스인민은 수파누봉의 령도밑에 구국항쟁을 전개하였다.

1949년 1월 20일 라오스인민의 진정한 무장력인 인민해방군(1965년까지 파테트 라오전투부대로 불리여 옴)을 창건하여 프랑스식민주의자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주었다.

1954년 7월 20일 라오스의 독립, 주권, 령토완정을 인정하는 제네바협정이 조인됨으로써 이 항쟁은 승리적으로 끝났다.

1956년 1월 6일 라오스애국전선이 창건되였다.

1957년 11월 3파련립정부(애국전선, 중립파, 우파)가 수립되여 라오스의 통일이 실현되였다.

1958년 5월 전국선거에서 애국전선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자 미제는 친미도당을 사촉하여 1959년 애국력량을 반대하는 국내전쟁을 일으켰다.

이리하여 애국전선의 령도밑에 혁명투쟁이 또다시 전국적규모에서 앙양되였다.

1960년 애국전선의 지지와 협조밑에 괴뢰군내의 애국적부대들이 봉기를 일으켰다.

그후 해방지역으로 넘어온 병사들은 진정한 애국적중립파를 이루고 애국전선과 함께 반미구국투쟁을 전개하고있다.

1961년 6월 쮸리히에서와 같은해 힌호프에서, 1962년 6월 자르평원에서 진행된 세파계측 회담에서 림시련립정부의 구성과 일치가결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데 합의하였다.

미제는 1962년 7월 23일의 라오스에 관한 제네바협정을 체계적으로 유린하고 1964년 4월 19일 저들의 주구들로 하여금 3파련립정부를 전복케 하고 1966년부터는 《B52》 전략폭격기를 내몰아 해방지역을 야수적으로 폭격하였다.

라오스애국군대와 인민들은 라오스애국전선의 령도밑에 미제침략자들과 국내반동세력의 계속되는 침략행위를 분쇄하며 나라의 통일과 민족적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여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 있다.

【국왕】 사방 바타나(1959년 11월—)

【정부】 제네바협정에 따라 1962년 6월 23일 3파민족련립정부(애국전선, 중립파, 우파)가 구성되였다. 그후 미제의 사촉하에 우파도당은 군사정변을 일으켜 3파민족련립정부를 전복하고 괴뢰정부를 조작하였다. 수상 수반나 푸마

【정당, 사회단체】 애국전선 파테트 라오전투부대(라오스인민해방군의 전신)내의 진정한 애국자들을 골간으로 한 《라오스자유민족통일전선》에 기초하여 1956년 1월 6일에 창건되였다. 위원장 수파누봉. 중립당, 평화중립민족적화목및 통일옹호위원회, 청년련맹

【주요사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라오스인민들은 라오스애국전선의 령도밑에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인도지나와 동남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에게 련속적인 공격을 들이대여 날에날마다 투쟁성과를 확대하고있다.》(《동방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 관한 레닌의 위대한 사상은 승리하고있다》, 단행본, 8페지)

1970년에 라오스애국전선의 령도밑에 애국군대와 인민들은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고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위한 성스러운 반미구국항전을 힘차게 벌려 커다란 승리를 쟁취하였다.

2월초부터 라오스 애국적무장력과 인민들은 미제침략군과 우파괴뢰군에 대한 가물철(1969년 11월~1970년 5월) 총공세를 취함으로써 전 전선에서 주도권을 틀어쥐고 놈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이리하여 전략적요충지들인 자르평원, 히엥꽝주, 아토페우, 푸르옹교 그리고 사라바비 등을 련속 해방함으로써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더욱더 수세와 피동에 몰아넣었다.

4월하순에 진행된 인도지나인민들의 수뇌자회의 공동선언을 받들고 라오스애국군대와 인민들은 놈들에게 호된 타격을 주고 4, 5월기간에 삼누아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을 완전히 해방하였다.

애국적무장력은 5월에 있은 대공세를 통하여 해방지역을 더욱 확대하고 형제적 월남과 캄보쟈인민들을 지원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미제는 장마철기간(6~10월)에 거듭되는 참패에서 헤여나보려고 《B-52》전략폭격기를 비롯한 각종 비행기들을 동원하여 발악적으로 달려들었다. 그러나 애국군대는 전면적공세를 가하여 이 기간에 7천여명의 적을 쓸어눕히고 각종 무기 4천여자루를 빼앗고 73대의 적비행기를 쏴떨구었다.

12월 21일 라오스인민해방군 최고사령부가 발표한 호소문을 받들고 애국군대는 가물철총공세(1970년 11월~1971년 5월)를 다시 개시하여 미제와 라오스우파괴뢰군의 야수적인 《소탕작전》을 성과적으로 물리치였다.

그리하여 1970년에 라오스애국군대와 인민들은 적들의 침략책동을 지부시고 해방지역을 지키기 위한 영웅적투쟁에서 큰 승리를 쟁취하였다.

타이 추종군 310명과 160명의 남부월남괴뢰군을 포함한 근 3만명을 쓸어버리고 여러가지 무기 8천 500정(1969년에 비해 2배)을 빼앗거나 파괴하였으며 땅크 15대를 포함한 238대의 적군용차를 까부셨다. 함선 27척을 격숙에 처박고 375대의 적비행기를 쏴떨구거나 땅에서 파괴하였다.

한편 이 해에 라오스애국전선은 정치적공세도 강화하여 적들을 수세에 몰아 넣었다.

3월 6일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는 라오스문제의 정치적해결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1. 모든 나라는 라오스에 관한 1962년 제네바협정에 규정된 대로 라오스왕국의 자주권과 독립, 중립과 통일과 령토완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미제는 라오스에 대한 간섭과 침략전쟁의 확대를 그만두어야 한다.

2. 1962년 제네바협정에 따라 라오스왕국은 외국과 그 어떤 군사동맹을 체결하지 않으며 라오스령내에 군대와 군사인원을 끌어들이는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한다.

3.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인 총선거를 실시하며 모든 민족출신의 라오스인민을 대표하는 민족동맹에 기초한 민주주의적정부를 구성하며 평화롭고 통일독립된 중립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번영하는 라오스를 건설한다.

4. 평화회복으로부터 국회구성을 위한 총선거까지의 기간에 관계 당파들은 민족적화목과 평등, 호혜의 정신에서 라오스의 모든 문제를 다루며 림시련립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정치협상회의를 진행한다.

5. 라오스의 통일은 평등과 민족적화목의 원칙에 기초하여 라오스 당파들간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친미세력은 저들이 비법적으로 강점한 지역으로부터 물러가야 하며 그곳들에서 강제로 이주당한 사람들을 고향에 돌려보내야 하며 동시에 그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라오스애국전선의 5개항목제안이 발표되자 3월 12일 우파괴뢰도당은 그를 《환영》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떠들다가 여러가지 부대조건을 붙이면서 회답을 방해하였다.

애국전선의 시종일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협상》을 8월에 일방적으로 파탄시킨 미제와 우파괴뢰도당은 11월초에 다시 회담에 동의하였다. 놈들이 이에 동의한 목적은 애국군대의 가물철공세(1970년 11월~1971년 5월까지)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제놈들의 군사적우세를 회복할 시간적여유를 얻으며 국내외여론을 제놈들에게 유리하게 전변시켜 라오스해방지역에 대한 침략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할 구실을 찾기 위한 것이였다. 그러나 놈들의 추악한 정치적모략책동도 라오스애국적무장력의 가물철공세로 산산이 부서졌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8월 6일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미제가 일본군국주의자들 및 남조선괴뢰도당과 공모하여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새 전쟁도발준비에 광분하고있는 미제를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9월 30일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는 유엔총회 제25차회의에서 유엔을 침략도구로 리용하여 《조선문제》의 비법적토의를 강요하는 미제의 죄상을 폭로한 우리 나라 정부의 9월 16일부 비망록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12월 25일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유엔에서 조선에 관한 비법적인 《결의》를 날조한 미제를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라오스애국전선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경지면적은 국토의 8%이며 인구의 95%가 농사한다.

지하자원으로는 주석, 연, 동, 금, 망간, 무연탄 등이다.

주요농산물은 벼, 강냉이, 땅콩, 담배, 목화, 커피, 아편, 고무 등이다. 벼의 경지면적은 약 75만ha이며 벼수확고는 년산 약 50만t이다.

목재는 해마다 약 6만$m^3$ 생산된다.

라오스애국전선은 전국령토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12개주, 60개군, 600개리와 근 1만개의 마을을 포괄하고 있다.

라오스애국전선은 경제건설 3개년계획(1968~1970년)의 실행에서 생산과 전투를 배합하면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1969년까지 5년간에 1만 9천 889ha의땅을 저수할수 있는 684개의 크고 작은 관개공사들이 진행되였다.

1966년이후 경지면적은 년평균 600~1천ha씩 늘고있다. 1968년부터 2모작이 광범히 도입되여 1969년에 쌀 생산량은 1967~1968년의 5배에 달하는 1천 600여톤을 생산하였다.

전쟁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공업이 급속히 발전되고있다. 농기구, 직물, 도자기, 의약품 공장 등 근 50개의 공업시설들이 있으며 전통적인 수공업이 복구확장되고있다. 해방지역 각곳에 174개의 국영상점, 근 100개의 상업협동조합들이 있다.

각급 학교들에서 민족어교육사업이 진행되고있다.

1970년 현재 2개의 고중과 20개의 초중, 2천여개의 소학교들에 근 4천명의 교원들과 6만 9천명의 학생이 있었다.

3개년계획기간 해방지역의 650개의 부락과 50개 면에서 글모르는 사람이 없어졌다.

보건의료망도 해마다 늘고있다.

해방지역에는 중앙예술단, 교예단, 영사대들이 매개 주들과 많은 군들에서 활동하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파테트 라오통신(라오스애국전선의 대변기관)

신문 라오 하크사트(애국전선기관지), 방송 파테트 라오방송(해방지역방송)

## 일 본

우리 나라와 조선동해를 사이에 두고 동남쪽에 널려있는 섬나라이다. 큰 섬들인 혼슈, 혹까이도, 큐슈, 시고꾸와 기타 수많은 작은 섬들로 구성되여있다.

기후는 우리 나라와 비슷하나 비교적 강우량이 많다.

【면적】 36만 9,662km²

【인구】 1억 352만 2,000명(1970년 3월 31일)

【수도】 도쿄(주민 1,145만 7,000명)

**정 치** 1867~1868년에 신흥부르조아세력이 일으킨 개혁 즉 《명치유신》에 의하여 자본주의발전의 길에 들어섰으며 19세기말~20세기초에 걸쳐 제국주의 단계에 들어섰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는 력사적으로 큰 제국주의세력을 등에 업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데 버릇되여온 아세아인민들의 철천지원쑤입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01페지)

《명치유신》후 일제는 10여차의 략탈전쟁을 감행하여 아세아의 많은 지역들을 략탈하고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가져다주었다.

1894~1895년에 청일전쟁, 1904~1905년에 로일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미영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여 1910년에 조선을 완전히 강점하였다.

1931년에는 중국동북을 침공하여 괴뢰 《만주국》을 조작하였고 1937년에는 중국본토에 대한 전면적인 침략을 감행하였다.

1936~1937년에 파쑈독일 및 이딸리아와 《반공협정》을 맺고 1941년에는 태평양지역에서 전면적인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대동아공영권》의 구호밑에 아세아의 《맹주》가 되려고 날뛰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과 쏘련군대의 참전에 의하여 1945년 8월 15일 일제는 패망하였다.

전후 일본은 미제에 의하여 강점당하였다.

미제는 제반국제협정들을 란폭하게 짓밟고 일본이 처하고있는 전략적위치와 그의 인적, 물적 잠재력을 리용하여 일본을 재군국화하고 사회주의 나라들과 민족해방운동을 반대하는 《돌격대》로 길러내기 위하여 날뛰고있다.

미제의 비호하에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는 미제를 등에 업고 미제의 아세아전략에 편승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여보려고 날뛰면서 조선과 아세아나라들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1965년에 미제의 조종하에 남조선괴뢰도당과 침략적인 《일한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남조선재침을 합법화하고 조선과 나아가서는 다른 아세아나라들에 대한 해외팽창책동을 감행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일본령토를 미제의 침략적군사기지로 내맡기고 인도지나인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 적극 복무하고있다.

【국회】 중의원과 참의원의 량원제이다.

【정부】 수상 사또 에이사꾸(1967년 2월—), 외상 아이찌, 방위청장관 나까소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2년 7월 15일 창건, 의장 노사까 산조. 사회당, 민주사회당, 공명당, 자유민주당(집권당), 로동조합총평의회, 중립로동조합련합회, 민주청년동맹, 신일본부인회, 일조협회(회장 나가노구니스께), 일조무역회, 재일조선인귀국협력회, 일조왕래자유실현련락회의, 재일조선인인권옹호회, 일조학술교류촉진회, 재일조선인민족교육문제간담회, 조선연구소

【주요사건】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해외팽창정책;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는 미제를 등에 업고 또다시 조선과 아세아나라들에 침략의 마수를 공공연히 뻗치고있으며 이른바 〈대동아공영권〉의 옛망상을 실현하여보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습니다. 미제의 〈새로운 아세아정책〉과 일본군국주의의 해외팽창정책의 요구에 따라 지금 일본에서는 침략무력이 대대적으로 증강되고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02페지)

1970년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일본의 군국화를 다그치고 미제와의 침략적공모결탁을 강화하면서 해외팽창책동에 더욱 미쳐날뛰였다.

놈들은 미제의 악명높은 《새 아세아정책》을 구체화한 《미일공동성명》(1969년 11월)을 《1970년도 일본외교의 기본으로 삼겠다》고 떠벌이면서 해외침략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날뛰였다.

사또도당은 이러한 침략정책수행을 위하여 군사비를 전해보다 17.7% 더 늘이고 이른바 《방위설치법, 자위대법 및 방위청급료법》을 개악하고 《자위대》의 인원을 대폭 늘였으며 그 장비를 더욱 증강하였다. 또한 파쑈악법들을 무더기로 꾸며내고 경찰을 5천명이나 늘이여 국내체제의 파쑈화를 다그쳤다.

이와 함께 놈들은 1972년부터 5조 8천억원을 쏟아부어 조선전쟁이나 월남전쟁과 같은 《국부전쟁》을 《독자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힘을 기를것》을 목표로 한 제4차 《방위력정비5개년계획》이란것을 짜놓았으며 제놈들의 장기적인 침략무력증강방향을 밝힌 《방위백서》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이 《백서》에서 놈들은 《자위대》의 핵무장화와 《징병제》의 실시, 비상시 《국민총동원체제》의 확립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을 침략적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이러한 침략야망에 혈안이된 놈들은 6월 30일부터 해상 《자위대》함대를 《세계일주항행》이라는 명목밑에 아세아와 아프리카, 구라파와 라틴아메리카해상을 싸다니게 하였으며 9월 7일부터 15일간 태평양연안에서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을 벌렸다.

《림전태세》를 갖추기 위한 이러한 전쟁연습소동은 년중 발광적으로 감행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와의 공동침략을 강화하기 위하여 6월 22일 미일간의 종속적동맹관계를 규정지은 미일《안보조약》을 아세아인민들을 반대하는 더욱 확대된 침략적군사동맹조약으로 개악연장하였다.

미국무장관 로저스놈을 비롯한 미제호전광들의 일본행각과 사또, 나까소네를 비롯한 일본군국주의 우두머리들의 미국행각 등을 통하여 미일반동들사이에는 침략적결탁을 강화하기 위한 모의들이 련속 벌어졌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와의 공모결탁을 강화하면서 조선침략책동에 본

격적으로 달라붙었다.

놈들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감축》선전소동을 계기로 《일본이 자체로 한국을 방위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고아대면서 《방위청》 정무차관이란놈을 남조선에 파견하여 군사시설들과 괴뢰군부대들을 시찰게 하였으며 제4차 《한일각료회담》에서는 박정희괴뢰도당에게 1억5천 900만딸라의 차관을 던져 주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놈들은 장개석도당과의 결탁을 강화하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방중상하는 비렬한 행위를 미친듯이 감행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 해에 특히 미제의 인도지나침략에 적극 가담하였다.

놈들은 미제침략군의 캄보쟈침공을 적극 비호하면서 5월 16일과 17일 쟈까르따에서 벌린 캄보쟈문제에 관한 《아세아태평양지역회의》의 《발기자》로 나섰으며 이 회의에서 미제의 캄보쟈침공을 《정상화》하는 동시에, 이 침략에 박정희괴뢰도당과 라오스괴뢰도당, 오스트랄리아, 필리핀,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등 미제의 충실한 앞잡이들과 추종자들을 집단적으로 끌어들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사또도당은 미제의 캄보쟈침공이후 론놀도당에게 600만딸라를, 그리고 남부월남괴뢰도당에게 세차례에 걸쳐 147억원을 던져주었다.

또한 놈들은 아세아 태평양지역 주재 일본대사놈들의 회의(9월), 아프리카주재 일본대사놈들의 회의(11월), 중근동 및 북아프리카 주재 일본대사놈들의 회의(12월) 등을 벌리고 이 지역 나라들에 대한 경제적침략을 강화할데 대한 교활한 음모를 꾸몄다. 사상분야에서도 놈들은 군국주의적조류를 류포시키는데 미쳐날뛰였다.

11월 극우익 파쑈분자 미시마라는 놈이 공공연한 우익군사파쑈독재체제의 수립을 선동하면서 배를 가르고 《자살》한 사건은 침략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극도에 이르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광란상을 보여주고있다.

미, 일반동들을 반대하는 일본인민들의 투쟁;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본인민의 투쟁은 미제의 아세아 침략과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있으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위업에 크게 이바지하고있습니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04~105페지)

이 해 일본인민들은 미일반동들의 침략적인 미일 《안보조약》의 계약연장을 반대하고 《미일공동성명》의 침략로선의 집행을 가로막기 위하여 강력히 투쟁하였다.

일본인민들은 사또도당이 이 범죄적 군사동맹조약을 계약연장하려고 무분별하게 날뛰자 5월 23일부터 6월 23일까지를 일미 《안보조약》분쇄전국통일행동월간으로 설정하고 《일미안보조약폐기》, 《일미공동성명로선분쇄》, 《오끼나와의 전면반환》의 구호밑에 투쟁에 떨쳐나섰다.

이 투쟁은 전국적규모의 공동행동으로 급격히 확대강화되여 《일본력사상 최대규모의 통일행동》으로 폭발하였다. 6월 23일 일본본토의 1천 200개소에서 167만명의 인민들은 집회를 가지고 시위투쟁을 진행하면서 미제와 사또도당을 규탄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수십만 로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오끼나와에서도 6만여명 군중들이 궐기하였다.

이 해 일본인민들은 기만적인 《반환》놀음의 연막뒤에서 미제의 오끼나와강점을 영구화하고 나아가서 일본본토마저 아세아침략의 전초기지로, 핵기지로, 독가스창고로 전변시키려는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흉계를 짓부시고 오끼나와를 즉시 무조건·전면적으로 되찾기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하였다.

오끼나와로동계급들은 새해벽두에 두차례의 총파업을 벌린데 이어 1월 8일에 미제침략군기지에 고용된 로동자 5만 3천명이 일제히 48시간 총파업을 벌려 미제침략군의 148개 기지들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5월 30일에는 오끼나와의 한 녀학생에 대한 미제침략군의 야수적폭행만행을 발단으로 또다시 반미투쟁의 격랑이 일어났으며 12월 20일 고자시에서는 한주민을 자동차에 깔아넘기고 달아난 미제침략군의 만행에 격분하여 5천명의 군중들이 오끼나와 최대의 미제침략군기지에 밀고들어가 82대의 군용차를 불사르거나 까부셨으며 보초소와 건물들을 불태우고 헌병 29명을 비롯한 미제침략군 35명을 쓸어눕혔다.

일본본토에서도 사또도당과 독점자본가놈들의 가혹한 착취와 수탈을 반대하는 로동계급들의 투쟁이 고조되였다.

3월 15일 일본전국 227개지점에서의 46만 로동자들의 파업, 4월 23일에는 100여만 로동자들의 파업 등 봄철공동투쟁이 여러차례 벌어졌다.

또한 일본인민들은 6. 25~7. 27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조응하여 집회, 시위 등을 벌리고 조선에서의 미제의 새전쟁도발책동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재침책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조선인민들에게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또한 그들은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박해와 탄압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1970년에 미제의 인도지나침략과 이에 대한 사또도당의 흉악한 가담을 단죄하며 싸우는 인도지나인민들에게 련대성을 보내는 일본인민들의 투쟁이 강력히 전개되였다. 그들은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의 호소에 호응하여 월남인민들에게 원호금을 모아보냈으며 5월 9일과 14일에는 수십만 군중들이, 10월 21일에는 100여만 군중이 《미제는 인도지나에서 피묻은 손을 떼라!》고 웨치면서 시위를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로작출판; 1970년에 일본에서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근 반세기에 걸치는 영광에 찬 투쟁력사가 수록되여있는 《김일성전》이 일본력사서적출판사 《유잔가꾸》와 《미라이샤》에 의하여 출판되였다.

1969년 4월과 9월에 《김일성전》 1, 2부를 출판한 《유잔가꾸》출판사에서는 그 3부를 일본말로, 1969년 9월에 《김일성전》 1부(영문판)를 출판한 《미라이샤》출판사에서는 2, 3부를 영문으로 출판하였다.

또한 그이의 불후의 로작들인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1, 2권을 《미라이샤》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

일본어와 영어로 번역되여 출판된 《김일성전》과 그이의 천재적인 로작들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는 일본인민들속에서 널리 애독되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일본인민들의 존경과 신뢰의 정은 날을 따라 두터워지고있다.

《일본도서관협회》에서는 《김일성전》에 대한 열람자들의 수가 비상히 많아지자 《김일성전》을 《협회선전도서》로 지정하고 그것을 산하 도서관들에서 다 비치하도록 지시하였다.

일본의 사회활동가, 학자, 대학교수, 인테리들, 각계각층들속에서는 《김일성전출판기념회》, 《독자감상회》, 《독자좌담회》가 진행되였으며 11월 2일에는 사회당 위원장, 일조협회회장을 비롯한 각계인사들의 발기로 《김일성저작집》출판기념모임이 진행되였다.

1970년에 일본사회당대표단 (8월), 일본민주청년동맹대표단(5월), 일본 《미라이샤》, 《유잔가꾸》출판사 성원들과 일행(6월), 일본아.아단결위

원회 대표단(7월), 일본사회과학자대표단(8월)이 각각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일본경제는 2차대전후 미제의 비호하에 되살아난 독점재벌들에게 장악되어있다. 전후 일본독점자본은 미제가 일으킨 조선과 월남침략전쟁에 끼여들어 또다시 배를 불리였다. 조선전쟁기간에 공업생산은 제2차세계대전수준으로 회복되였으며 1964년에 1934~1936년수준의 5배에 달하였다.

일본경제의 팽창과정에서 생산과 자본은 중공업과 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고도로 집적되고 집중되였다. 선철, 자동차, 동, 알루미니움 등 중요공업제품생산의 70~90%가 해당부문의 5개 독점체들에 집중되였다. 일본의 전체 회사수의 0.2%도 못되는 대독점기업체들이 전체 회사들의 자본금총액의 70%이상을 차지하고있다. 이를 토대로 하여 거대한 금융자본의 지배체계가 강화되였다.

일본독점자본의 부활은 미제의 침략전쟁주문에 의하여 주로 강철공업, 전력공업, 자동차공업, 전기기계공업, 전자공업 등 군국주의의 물질적기초를 이루는 부문에서 이루어졌다.

미독점자본은 합자, 융자, 주식투자, 경영참가 등의 형식으로 일본경제에 침투함으로써 주요경제명맥을 틀어쥐고있으며 일본기업에 대한 투자는 매해 늘어나고있다. 인도지나침략전쟁을 위한 미제의 《특별군수품》이 일본공업에 계속 《활기》를 불어넣고있는 조건에서도 설비의 불완전조업과 상품의 대량적인 체화, 기업의 파산이 계속 늘어 1969년에 비하여 파산당한 회사수는 14.6% 증가되였다.

경제의 군사화를 위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에 의하여 되살아난 《미쯔비시중공업》, 《이시가와지마 하리지마 중공업》, 《기와사끼항공기》를 비롯한 대군수공업체들을 모체로 하여 1천 300여개이상의 새끼군수기업체들을 만들어놓고 각종 대량살륙무기들과 현대적인 작전장비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는데 날뛰고있다. 일본군수품생산의 40%가 집중되여있는 최대의 군수기업체인 《미쯔비시중공업회사》를 중심으로 조작된 일본 《병기공업회》(88개의 회사가 망라되여있음)는 현대적인 살인무기의 연구와 개발 및 생산에 《기업활동의 중심》을 두고있으며 모든 민용항공회사들은 자기 생산량의 25~30%를 군용엔진 생산에 돌리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원조》를 미끼로하여 이른바 《무상증여》, 《배상지불》, 《정부차관》, 《연불수출》, 《직접투자》, 《합영기업》 등 형식으로 자본수출을 강화하고있다.

해외에 진출한 201개의 일본독점체들의 기업들중 아세아에 진출한 기업은 그의 58.7%에 달하였다. 1968년 4월부터 1969년 3월까지 이 지역에 투하한 자본총액은 3천 677만딸라였다.

일본독점체들은 중근동의 석유자원을 대량적으로 략탈하기 위하여 사우디 아라비아와 쿠웨이트에 2억딸라이상의 자본을 투하하였다. 라틴아메리카에는 50여개의 기업체들이 들어가있는데 1969년말현재 이 지역에 대한 직접적자본투자액은 1965년의 4배에 달하는 5억 1천 300만딸라에 달하였다.

1970년에 소비품값은 전해에 비하여 평균 7.7%, 도꾜에서는 식료품값이 평균 8%, 옷값이 10.6% 올랐다.

1970년 상반년도에 등록된 10대의 청소년들의 범죄건수만도 5만 3천여건에 달하였다.

이해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의 수는 하루 평균 44명이였다.

1970년 1월에 실업자는 66만명 있었다.

【출판보도】 통신 지지통신, 교도통신, 재팬 프레스, 니홍덴빠

신문 아까하다(일본공산당기관지), 아사히신붕, 마이니찌신붕, 요미우리신붕, 니홍게이자이

## 필리핀

### (필리핀공화국)

동남아세아, 태평양의 서부에 자리잡고있으며 7천 109개의 섬으로 이루어져있다. 그중 사람이 사는 섬은 약 740개에 달하며 가장 큰 섬이 루손도이다. 년평균기온은 27°C이며 강우량은 600~1천mm이다.

【면적】 29만 9,404km²

【인구】 3,470만명(1970년)

주민은 대부분이 필리핀인 그리고 필리핀인과 에스빠냐인과의 혼혈인 등이다.

국어는 타갈로그어이나 영어와 에스빠냐어도 통용된다.

【수도】 케손(주민 39만 5,000명) 1948년에 수도로 결정했으나 정부소재지는 아직 마닐라(주민 179만명)이다.

**정 치** 1570년대부터 약 300년간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98년 미국—에스빠냐전쟁에서 에스빠냐가 진 결과 미제의 식민지로 되였다.

1942년 5월 일제가 필리핀을 강점하였으나 2차대전에서 일제가 패망하자 다시 미제의 식민지로 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1946년 7월 4일 이 나라의 독립을 인정한다는 구실밑에 일련의 예속적인 불평등협정을 맺고 필리핀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계속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 나라에 아세아침략을 위한 규모가 큰 각종 군사기지들을 두고있다.

1954년에 필리핀반동정부는 미제의 사촉을 받아 침략적인 세아토에 가담하였으며 1957년부터는 필리핀공산당과 진보적단체들을 비법화하였다.

필리핀반동정부는 미제의 남부월남침략전쟁에 적극 가담하여 1964년 7월 남부월남괴뢰들에게 100만페소의 《원조》를 줄것을 결정하였으며 1966년에는 2천명을 미제의 고용군으로 남부월남에 파병하였다.

1970년에 인민들은 미제의 전쟁정책과 식민지군사기지화를 반대하며 민족적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하여 무장투쟁을 기본으로 치렬한 투쟁을 벌렸다.

애국적무장력은 대담한 습격전과 매복전, 유도섬멸전 등 신축성있는 전술로 적들의 대규모적 《포위토벌작전》을 짓부시고 80여차의 전투에서 미제침략군과 반동정부군 200여명을 소멸했다.

무장투쟁은 이사벨라, 라구나, 케손과 카마리네주들과 네그로스, 파나이섬들에로 확대되고있다. 이미 중부루손섬에는 많은 유격구들이 형성되였으며 80여개 마을에는 인민정권이 수립되였다.

한편 인민들의 대중적진출도 이 섬나라 전국을 휩쓸었다.

2월에 마닐라에서 로동자, 학생을 중심으로 한 10만명의 군중은 《미제를 타도하자!》, 《미국놈은 물러가라!》고 소리높이 웨치면서 강력한 반미반정부투쟁을 벌리는 한편 그들은 미국놈들의 대사관으로 쳐들어가 인화병과 돌멩이벼락을 들씌웠으며 피로 얼룩진 미국놈들의 기발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또한 4월초순 1천명의 대학생들이 미제가 벌려놓은 세아토 《군사고문관회의》를 반대하여 시위를 벌렸으며 4월 18일에는 필리핀인민들이 미제의 전쟁두목 닉슨놈의 이른바 《월남화》책동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렸다.

4월 7일에 전국의 60여만명의 공업 및 농업로동자들은 독점자본의 착취를 반대하며 삶의 권리를 위하여 총파업을 단행함으로써 미제독점자본가놈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필리핀인민들의 반미반정부투쟁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을 반대하는 투쟁과 결부되고있으며 인민들의

반일기세도 점차 높아가고있다.

【국회】 상하량원제이다.

【정부】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1965년 11월—), 외상 로뮬로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0년 11월 7일 창건, 1957년에 비법화, 총비서 헤수스라바. 자유당(집권당), 국민당, 민족주의공민당, 로동조합련합회, 자유로동조합회

**경제, 사회** 인구의 75%가 농업에 종사한다. 주요농산물은 담배, 사탕수수, 코프라, 마닐라삼, 벼, 강냉이 등이다.

지하자원은 쇠돌, 석유, 동, 망간, 크롬, 금 등이다. 그러나 광물채취를 비롯한 주요공업은 주로 미제와 일본독점체들이 쥐고있다.

필리핀에 대한 미제의 투자는 동남아세아에 대한 투자총액의 60%에 달하며 미제의 상품은 필리핀시장에 관세없이 들어가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필리핀보도사

신문 앙 바안(필리핀공산당기관지), 마닐라 타임스, 마닐라 크로니클

## 브루네이

칼리만탄도의 북부에 있다. 적도기후로서 년평균기온은 25~26°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2천 500~3천 500mm이다.

【면적】 5,765km²

【인구】 12만 7,000명(1970년)

주민은 말라이족, 다야크족, 화교 등이며 말라이어를 쓴다.

【행정중심지】 브루네이(주민 약 2만명)

**정 치** 원래 오늘의 북부칼리만탄 전부가 브루네이였다.

1613년에 에스빠냐가, 그후에는 영식민주의자들이 침입하였다.

영식민주의자들은 브루네이에서 1846년에 사라와크를, 1877년에는 사바흐를 떼내여 새지역을 《보호령》으로 만들었다. 1959년 9월부터 형식상 《자치》가 실시되고있다. 최고통치자로서 주장이 있으나 외교, 국방, 국내치안에 대한 권한은 영국고등판무관이 쥐고있다.

1963년 1월 1일 브루네이인민당 위원장 아자하리를 수상으로 하는 북부칼리만탄혁명정부가 수립되였으며 북부칼리만탄민족해방군이 조직되였다. 북부칼리만탄민족해방군은 브루네이에서뿐만아니라 사라와크, 사바흐 등 북부칼리만탄 각처에 해방지역을 설치하고 영제국주의침략자들과 말레이시아련방괴뢰군에게 타격을 가하고있다.

1965년 3월에는 북부칼리만탄의 정당, 사회단체, 모든 민족주의자들을 망라하는 민족통일혁명전선이 결성되였다.

【정당, 사회단체】 브루네이인민당 1956년 8월에 창건, 북부칼리만탄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지도, 위원장 에이. 엠 아자하리. 브루네이련맹, 민족통일혁명전선

**경 제** 경제의 기본은 석유채취업이다. 석유로동자수는 전체 로동자총수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석유생산량은 매년 약 500만t에 달하는데 그중 95%는 수출한다. 천연가스, 산림자원이 많다. 주요농산물은 벼, 야자, 고무 등이다. 고무는 매해 약 1천여t 수출한다. 식량의 3분의 2는 수입한다.

## 말레이시아련방

말레이시아련방에는 말라이반도의 남쪽에 있는 말라이와 칼리만탄과 접해있는 사라와크 및 사바흐가 속한다. 해안지대를 제외하고는 전령토가 산림지대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으며 계절의 변화가 뚜렷치않다. 평균기온은 37~38°C, 년평균강수량은 6천75mm이다.

【면적】 32만 9,067km²(그중 말라이 13만 1,287km², 사라와크 12만 1,668km², 사바흐 7만6,112km²)

【인구】 1,038만 4,000명(1970년)

말라이인, 중국인, 인도인 등이 산다.

말라이어, 중국어, 영어 등이 쓰인다.

【수도】 쿠알라 룸푸르(주민 50만명)

**정 치** 말레이시아련방은 영제국주의자들이 동남아세아에서 무너져가는 제놈들의 식민지통치를 계속 유지하며 이 지역의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신식민주의 도구이다. 1963년 9월 말레이시아련방이 선포될때에는 말라이, 싱가포르, 사바흐, 사라와크 등 네지역이 망라되였었다.

1965년 8월에 싱가포르는 인민들의 강력한 반말레이시아투쟁에 의하여 련방에서 탈퇴하였다.

말레이시아련방은 영련방성원국이며 영제국주의자들과 《공동방위조약》을 맺고있으며 영국,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군대와 약 2천명의 미제 《평화군》놈들을 주둔시키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말레이시아로부터 월남침략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받고있으며 말레이시아에 《밀림전》학교란것을 설치하고 월남침략전쟁에 파견할 미제침략군과 남부월남괴뢰군놈들을 《훈련》시키고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월남침략전쟁에 참가한 미제침략군놈들의 《휴양 및 휴식》장소로도 되고있다.

말레이시아인민들은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그의 앞잡이인 말레이시아반동통치배들을 반대하여 무장투쟁을 비롯한 각종 형태의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특히 말라이지역과 사라와크, 사바흐 등 도처에서 애국적인민들의 무장투쟁이 더욱 강화되고있다.

말라이에서 싸우는 애국적무장력은 1970년 2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만도 반동군 약 250명을 쓸어눕히고 적비행기 3대를 쏴떨구거나 상하게 하였으며 적의 많은 군사시설들을 마사버렸다.

사라와크에서 활동하는 애국적무장력도 주 행정중심지 쿠칭주변과 각지에서 반동군의 순찰대와 군용선을 공격하여 놈들을 녹여냈다. 애국적무장력은 반동군에 대한 군사적공격과 함께 인민들속에서 정치선전사업을 활발히 벌려 광범한 지역에서 혁명적군중조직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국왕】 부안쿠 아브둘 할림 무아잠 사흐 이브니 알 마르훔 술탄 바드리사흐(1970년 9월—)

【련방의회】 량원제의 최고립법기관이다.

【중앙정부】 수상 툰 아브둘 라자크(외상, 국방상 겸함. 1970년 9월—)

【정당, 사회단체】 말라이공산당 1930년 4월에 창건, 1948년에 비법화, 총비서 친펑. 련합당(집권당), 말라이인 민전선당, 사라와크인민련합당, 사바흐련맹당

**경 제** 취업인구의 75%가 농사를 한다. 농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고무재배이다. 고무재배면적은 말라이반도 총경작지의 67%에 달하며 말라이로동자총수의 절반이상이 여기에서 일하고있다. 공업은 주석, 석탄, 쇠돌 등 채굴업이 위주로 되고있다. 이 나라의 경제는 미, 영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외국독점체들이 틀어쥐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1959년 말레이시아련방과 미제의 투자를 담보한다는 《협정》을 체결하고 이 나라에 기여들어 마음대로 략탈해가고있다.

1970년 1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말레이시아련방괴뢰들과 《2중세금을 피하는 협정》을 맺고 《련합기업》의 간판

아래 이 나라에 자본을 투자하여 30여개의 공장들을 건설하였다. 일본독점자본의 투자액은 말레이시아련방의 《신흥공업》에 대한 외국의 투자총액중 30%를 차지한다.

## 타 이

인도지나반도의 중부에 자리잡고 있다.

열대성기후로서 년평균기온은 27°C이다.

【면적】 51만 4,000$km^2$

【인구】 3,360만명(1970년)

대부분이 타이족이며 그외 중국인, 말라이족, 크메르족등 20여개족이 있다.

국어는 타이어이다.

【수도】 방코크(주민 190만명)

**정 치** 1932년 6월 24일 타이는 전제군주국으로부터 립헌군주국으로 되였으며 1939년 5월 20일 나라이름을 타이(전에는 샴)로 고쳤다.

타이반동정부는 1941년 12월 일제와 《군사동맹》을 맺고 일제의 아세아침략에 적극 가담하였으며 1954년 9월에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기구인 세아토에 가담하였다. (방코크에는 세아토본부가 있다)

타이반동들은 1950년 미제가 도발한 조선침략전쟁에 가담하여 제놈들의 군대를 《유엔군》이라는 미명하에 조선전선에 파견하여 조선의 통일을 반대하며 조선인민들을 학살케 하였다.

뿐만아니라 타이반동들은 미제의 월남침략전쟁에도 적극 가담하여 1만 2천명의 타이청년들을 대포밥으로 내몰았다.

그리고 타이공군기지들을 미제침략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월남민주공화국과 라오스해방지역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격을 감행케 하고있다.

미제의 인도지나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캄보쟈, 라오스인민들을 반대하는 로골적인 군사행동을 감행하고있다.

그러나 타이인민들은 타이애국전선의 지도밑에 미제와 타이반동지배층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힘차게 벌리고 있다.

1965년 8월 동북부에서 무장투쟁의 첫 봉화를 든 타이의 애국적무장력은 1970년 1월말까지 전국의 71개주중 36개주에 무장투쟁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이 투쟁을 통하여 타놈도당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다. 그리하여 북부타이의 로이에주, 페르차분주 및 피사누로크주를 비롯한 여러지역들에서는 반동통치를 뒤집어 엎고 인민주권기관들을 세웠다.

타이의 애국적무장력은 미제와 그 주구놈들을 반대하는 투쟁과정에서 더욱 장성강화되였다.

타이반동정부가 극히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타이의 북부와 동북부 일대 2천~3천명, 남부와 말레이시아국경지역에 1천여명의 무장유격대들이 활동하고있다고 한다.

1970년에 와서 애국적무장력의 투쟁은 더욱 확대강화되였다. 이 한해동안에 타이의 애국적무장력은 미제와 타이반동들의 《포위진압작전》을 쳐물리치기 위한 수백차례의 전투에서 1천 100여명의 적을 쓸어눕히고 각종 비행기 50여대를 쏴떨구거나 까부셨으며 적화점 20여개와 수많은 군용차도 까부셨다. 그리고 많은 무기와 기타 군수물자를 로획하였다.

타이북부지역에서 싸우는 애국적무장력은 적들의 여러차례의 《포위진압작전》을 짓부시면서 상반년기간 150차의 전투를 벌리여 타이반동군 약 400명을 소멸하였으며 적비행기 20대를 쏴떨구고 적군용차 15대와 많은 적초소를 박산냈다.

타이남부지역, 특히 타이—말레이시아국경지대에서도 무장투쟁이 치렬하게 전개되였는바 1969년하반기부터 1970년 상반기까지의 기간에 반동정부군과 근 300차의 대소전투를 벌려 적군소좌 두놈을 포함하여 700여명을 살상하고 많은 자동차와 군수물자를 파괴해버렸다.

이와 같이 애국적무장력의 영향이 강화됨에 따라 타이—말레이시아국경지대와 남부타이에서는 1970년 10월에 타이애국적무장부대와 회교도들이 련합하여 《민족해방전선》을 결성하였다. 《민족해방전선》이 결성될수 있은것은 그들간의 당면한 목적인 반동적타이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공통성으로부터 출발된것이다. 《민족해방전선》결성은 미제와 타이반동들에 대한 커다란 타격으로 된다.

남부타이의 애국적무장부대는 송클라주의 사다오지구, 얄라주의 배퉁지구 및 나라티바트의 웽지구 등 넓은 지역에서 유격근거지를 꾸리는것과 미제와 타놈도당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회교도들과 같이 전개하면서 적들에게 거듭 타격을 가하고있다.

또한 이해 미제의 식민지군사기지화정책과 미제침략정책에 적극 추종하는 반동괴뢰도당을 반대하여 시위와 파업, 동맹휴학 등 청년학생들을 포함한 인민들의 반미반정부투쟁도 광범히 전개되였다.

【국왕】 푸미폰 아둘라디트(1950년 5월—)

【제헌의회】 일원제이다.

【정부】 수상 타놈 키티카쵸른, 외상 코만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42년 12월 2일 창건, 1947년에 비법화. 애국전선 1965년 1월 1일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로서 결성된 애국적인 반미반정부조직. 독립운동, 애국로동자련맹, 애국청년조직, 민족해방전선 1970년 10월 19일 타이—말레이시아 국경지방과 남부타이에서 타이애국적무장력의 영향을 받는 회교도세력이 중심이 되여 결성

**경제** 주민의 85%가 농민이며 국민소득의 약 80%는 농업에서 얻는다. 경지면적은 약 620만정보인데 대부분이 논이다.

주요농산물은 벼, 고무, 옥수수, 담배 등이다.

지하자원은 금, 은, 철, 망간, 주석 등이다.

경제명맥은 미제가 틀어쥐고 있으며 예산지출의 절반이상이 군사경찰비로 지출되며 재정수입의 90%이상을 근로자들로부터 빼앗는 세금으로 채우고 있다.

## 부 탄

히말라야산맥의 동남부고원지대에 있는 작은 나라이다.

【면적】 4만 6,600$km^2$

【인구】 67만명

주민은 보티아스족 80%, 네팔족이 20%이다. 언어는 티베트어를 쓴다.

【수도】 푸나카(겨울수도), 팀부(여름수도)

【국왕】 지그므 도르지 왕츄크(1950년 10월—)

1810년부터 영제국주의의 《보호령》으로 있다가 인도의 독립과 함께 영제국주의자들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1949년 8월 조약으로 부탄은 인도로부터 매년보조금을 받는 대가로 국방 및 외교권을 인도에 넘겨주었다.

왕의자문기관으로서 협의위원회와 국가회의가 있다.

이 나라의 주요농산물은 쌀, 인도밀, 보리, 강냉이, 수수 등이다. 동, 석탄, 석고와 운모가 채취되며 고무도 생산된다. 그리고 사향도 생산한다.

산림면적이 국토의 70%를 차지한다.

교통수단으로서는 들소, 당나귀, 말 등이다. 화폐는 인도루피를 사용한다.

## 시 킴

히말라야산맥가운데 있으며 중국의 티베트지방과 인도 사이에 있다.

【면적】 7,109km²

【인구】 16만 2,000명

네팔족, 보티아스족, 라프차족 등이 산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행정중심지】 강토크(주민 6,800명)

【국왕】 쿠마루 팔덴 텐다프 남갈(1963년 12월—)

시킴은 1817년부터 영제국주의의 《보호령》으로 있다가 1950년 12월에 인도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인도가 이 나라의 외교, 국방, 교통부문을 쥐고있다.

국왕이 립법권, 행정권을 가지고있으며 국왕의 자문기구로서 국가리사회가 있다.

정당으로는 국민당, 국민대회당, 국가대회당이 있다.

이 나라의 주산물은 쌀, 인도밀, 수수, 과일, 직물, 목재 등이다. 동, 연, 아연 등이 채굴된다. 털과 가죽도 생산하나 수출한다.

국교는 불교이지만 주민의 60%는 인도교도이다.

## 이 란

(이란왕국)

아세아대륙의 서남쪽에 있다. 령토의 대부분은 초원과 사막지대이다. 대륙성기후이다.

【면적】 164만 5,000km²

【인구】 2,670만명(1970년)

주민은 페르샤인, 아제르바이잔인, 쿠르드인, 아랍인 등이다.

국어는 페르샤어이다.

【수도】 테헤란(주민 230만명)

**정 치** 1906년에 립헌군주제국가로 되였다.

1935년 페르샤라고 부르던 나라 이름을 이란이라고 고쳤다.

1955년 침략적인 센토에 가입하였으며 1959년 3월에는 미제와 《쌍무군사조약》을 맺었다. 미영제국주의자들의 군사, 경제 《고문》들이 내정에 간섭하고있으며 파괴활동을 하고있다.

【국왕】 모하메드 레자 파흘레비(1941년—)

【국회】 상하량원제이다.

【정부】 수상 아미르 아바스 호베이다(1965년 1월—), 외상 자헤디

【정당, 사회단체】 인민당 전신은 1941년 9월에 창건된 이란공산당이다. 총비서 리자 라드 마니쉬. 민족전선, 신이란당(집권당), 인민대회당

**경제, 사회** 주민의 절반이상이 농사를 짓고있다.

토지의 대부분은 국왕과 지주, 추장, 사원이 독차지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목화, 벼, 담배, 과일, 사탕무우 등이다. 식량은 자급자족 못하며 외국으로부터 수입한다.

공업의 기본은 원유채취공업이다. 미, 영,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이 독차지하고있다. 석유생산량은 중근동에서 제3위(년 1억 2천만t)이다.

【출판보도】 신문 마드둠(인민당기관지), 페르예이란, 케이한, 엔테내슈날 테헤란 저널

## 요르단

(하쉐미트요르단왕국)

이스라엘, 수리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와 접하고있는 내륙국이다. 서부는 비옥하나 요르단강 동북지대의 5분의 4는 사막지대이다.

【면적】 9만 6,610km²

【인구】 213만 1,000명(1970년)

주민은 아랍인인데 그중 절반이상이 팔레스티나인이다.

국어는 아랍어이다.

【수도】 암만(주민 약 35만 6,000명)

**정 치** 팔레스티나의 일부로서 제1차 대전전까지 오토만제국의 예속하에 있었고 전후에는 영제국주의의 《위임통치령》으로 되였다가 1946년 5월에 독립하였다.

1967년 6월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아랍을 침공하자 요르단은 즉시로 이스라엘에 선전포고를 하고 보복타격을 가하였다. 이스라엘침략자들은 요르단을 비법적으로 침공하여 서부요르단지역을 강점하였으며 그후 요르단에 대한 군사적공세와 도발을 계속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1970년 4월에 1만 2천명의 요르단 인민들은 전쟁사환군인 미국무차관보 시스코놈의 요르단행각을 반대하여 강력한 반미시위를 벌렸다. 결과 시스코란놈은 요르단 《방문》을 취소하였다.

이 나라에 있는 팔레스티나유격대를 압살하며 팔레스티나인민과 요르단인민을 서로 반목질시케 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간악한 책동으로 왕미앞아 요르단반동들은 중무기까지 동원하여 팔레스티나유격대에 대한 대규모적인 무장공격을 빈번히 감행하는 용납못할 범죄를 저지르고있다.

6월과 9월에 요르단반동들은 미제의 사촉하에 무장충돌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수천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내게 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미제의 앞잡이 이스라엘침략자들은 요르단반동들과 함께 비행기와 중무기를 동원하여 팔레스티나유격대를 공격하였다.

요르단반동들의 이러한 도발책동은 자위를 위하여 일떠선 팔레스티나유격대와 민병들의 단호한 반격을 받았으며 그때마다 팔레스티나인민들을 지지하고있는 아랍나라정부들로부터 신랄한 규탄을 받았다.

【국왕】 후쎄인 1세(1952년—)

【국회】 상하량원제이다.

【정부】 수상 겸 국방상 와스피 텔(1970년 10월—), 외무상 아브둘라 살라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인구의 85%가 농업을 한다. 목축업과 알곡생산이 위주로 되고 있다. 국토의 약 10분의 1이 경작지이고 나머지는 사막이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콩, 도마도, 포도, 무화과, 바나나, 담배 등이다. 주요경제 명맥은 미제독점체들이 쥐고있다. 미제는 이 나라의 3분의 2의 지역에서 원유개발권을 가지고있다.

【출판보도】 신문 아흐바르 알 우스브오, 알 디파아

## 이스라엘

지중해의 동부에 있으며 아랍, 요르단, 수리아와 접해있다.

기후는 겨울에는 습하고 여름에는 건조한 지중해성기후이다.

【면적】 2만 755km²(1949년 아랍국가들의 정전선에 의한것. 1947년 11월 29일 팔레스티나 분할에 관한 유엔결정에 의하면 1만 4,000km²이다).

【인구】 297만 7,000명(1970년 10월)

주민은 유태인이 절대다수이며 기타 아랍인이 있다.

국어는 헤브라이어이다.

【수도】 텔 아비브(주민38만5,000명)

**정 치** 이스라엘은 미영제국주의자들이 유태복고주의자들의 반아랍감정과 침략적야욕을 리용하여 제놈들의 중근동침략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팔레스티나를 분할하여 조작한 나라이다.

팔레스티나는 16세기초부터 제1차 대전까지 토이기제국의 기반하에 있었으며 1920년에는 영제국주의자들의

《위임통치령》으로 되였다. 영식민주의자들은 팔레스티나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말살하고 유태국가를 세우기 위하여 팔레스티나에서 아랍인들을 내쫓고 세계도처에서 유태복고주의자들을 모아들였다(영제국주의자들이 팔레스티나를 강점한 초기에는 유태인이 불과 5만명이 였다). 이자들은 미영제국주의자들의 《군사원조》를 받아 팔레스티나의 아랍인들에 대한 학살만행을 감행하였다. 이것을 교활하게 리용한 미제는 1947년 유엔총회에서 팔레스티나에 대한 영제국주의자들의 《위임통치》를 종식시키고 이 지역을 아랍국가와 유태인국가로 분할하도록 하였으나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란 유태인국가만을 조작해냈다. 미제는 이스라엘을 아랍국가들을 반대하는 침략에로 내몰기 위하여 서독군국주의자들까지 끌어들여 체계적으로 무장시켰다. 이리하여 이스라엘침략자들은 아랍국가들에 대한 미제의 군사전략에서 손때묻은 왈잡이로, 이 지역의 민족해방투쟁의 불길을 끄기 위한 《별동대》로 되고있다.

이스라엘침략자들은 1948년 5월부터 1949년 7월까지 아련, 수리아, 이라크, 레바논, 요르단, 사우디 아라비아를 반대하는 《팔레스티나전쟁》을 일으키고 약 6천 700km²에 달하는 아랍인들의 땅을 빼앗았다.

정전후에도 이스라엘침략자들은 도발책동을 계속 감행하였다.

1956년 10월 29일에는 영국,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의 사촉밑에 아련을 반대하는 무력침공을 도발하였으며 그후에도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무력침공을 계속 감행하였다.

1967년 6월 5일에는 미제의 적극적인 사촉하에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강도적침략전쟁을 또다시 일으키고 아련의 시나이반도와 요르단강서쪽의 요르단지역 및 수리아의 일부 령토를 강점하였다.

이스라엘침략자들은 비법적으로 강점한 아랍땅을 영원히 집어삼키려고 미쳐날뛰면서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강도적인 무장도발책동을 강화하고있다. 또한 침략과 전쟁의 원흉인 미제침략자들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오만해질대로 오만해진 이스라엘침략자들은 《강점한 땅에 유태인들을 이주시키면 그 땅은 영원히 이스라엘의것으로 될것》이라고 공공연히 줴치면서 강점한 아랍땅에서 아랍인들을 내쫓고 도처에 이른바《군사촌》건설을 미친듯이 다그치고있다. 1967년 6월 예루살렘을 강점한이래 약 6만명에 달하는 아랍인들을 내쫓았으며 1968년과 1969년 2년간에만도 무려 9천여명의 팔레스티나주민들을 브라질친미군사독재당국에 노예로 팔아넘겼다. 1969년 현재로 이스라엘침략자들은 약 2천 800명의 아랍인들을 감옥에 가두었다.

그러나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이 지역 인민들의 투쟁은 더욱더 강화되고있다. 1969년 4월부터 1970년 4월까지 기간에만도 팔레스티나유격대들은 5천 62차의 각종 군사작전을 벌려 약 1천 700명의 침략군을 소멸하고 비행기 24대를 쏴떨구었으며 각종 군용차 1,973대와 6개의 로케트기지를 까부셨다. 이 지역 인민들의 장성강화되는 투쟁에 부딪쳐 제놈들의 침략야망이 파산에 직면하자 전쟁마당에서 달성하지 못한 침략적야망을 《평화》의 막뒤에서 달성해보려는 음흉한 목적밑에 1970년 6월 이른바 《새중동평화안》이란것을 들고나왔다. 또한 제놈들의 중근동침략계획에서 가장 큰 장애로 되고있는 혁명적인 팔레스티나인민들을 무장해제시키고 그들의 해방위업을 말살하며 팔레스티나전령토에 대한 제놈들의 강점을 영구히 해보려는 음흉한 목적밑에 이른바 《팔레스티나국가》 조작음모를 꾸미고있다.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의 그 어떤 발악적책동도 정의의 해방위업에 일떠선 이 지역인민들의 투쟁기세를 꺾지 못할것이다.

【의회】 일원제이다.

【대통령】 잘만 샤자르(1963년 4월—)

【정부】 수상 골다 메이르(1969년 3월—), 외무상 에반, 국방상 모쉐 다얀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에 창건. 마파이당(집권당), 마팜당, 자유당, 헤루트당, 공산주의청년동맹, 민주녀성련맹

**경 제** 경제는 외국자본 특히 미제의 독점자본에 장악되여있다. 외국투자액중 미제의 자본은 약 70%를 차지하며 이것은 해운, 은행, 화학, 제당, 석유공업 등을 지배하고있다.

대부분이 사막이고 땅이 메마르다. 주민의 14.4%가 농사를 하며 귤, 밀, 보리, 강냉이, 담배, 사탕무우 등을 심는다.

지하자원은 석고, 석회, 류황 등이다.

이스라엘의 경제는 끊임없이 늘어나는 군사비로 말미암아 더욱더 큰 위기를 겪고있다.

이스라엘전쟁광들은 1970회계년도 예산의 40%에 달하는 5억 1천만 파운드를 군사비로 배당하였다. 이것은 1969년보다 6천 200만파운드가 더 많은 것으로서 이스라엘이 조작된 이래 가장 높이 세워진 군사비이다.

또한 무역수지적자도 현저히 늘어났으며 딸라예비는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스라엘전쟁광들은 막대한 군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이른바 《방위채권》이라는것을 만들어 놓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수입의 절반을 바쳐 이 《채권》을 사도록 강요하고있다.

## 사우디 아라비아

### (사우디 아라비아왕국)

아라비아반도의 중부에 있다. 대부분이 고원과 사막지대이다. 기후는 몹시 건조하며 비가 극히 적게 온다.

【면적】 160만 km²

【인구】 750만명

주민의 대부분은 아랍인이며 기타 유태인, 페르샤인, 인도인 등이 있다.

국어는 아랍어이다.

【수도】 리야드(주민 35만명, 정부소재지), 메카(주민 25만명, 회교성지)

**정 치** 제1차대전전까지 오스만제국의 속령(헤쟈즈, 네지드)으로 있었다. 대전후 이븐 싸우드(네지드왕)는 헤쟈즈를 강점하여 아라비아반도를 통일하고 1932년에 나라이름을 사우디 아라비아왕국으로 고쳤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세습군주제국가로서 국가의 모든 법률은 회교성전에 기초하고있다.

이 왕국은 1962년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사촉하에 예멘왕당파를 지원하여 예멘아랍공화국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하였으며 1966년 10월에는 미제침략자들에게 임의의 시각에 이 나라의 비행장들과 항구들을 마음대로 사용할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그리하여 사우디 아라비아는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미제의 군사기지, 침략기지로 리용되고 있다.

1969년 11월 사우디 아라비아반동들은 미제의 사촉하에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경초소를 공격하였으며 그후 계속 민주예멘과의 국경지역에 무력을 집결시키고 도발책동을 감행하였다.

사우디 아라비아인민들은 미제의 침략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리고 있다.

【국왕】 파이살 이븐 아브델 아지즈 이븐 싸우드

**경 제** 반유목, 반농업국가이다. 경지면적은 국토의 10분의 1밖에 안된다. 주요농산물은 야자, 강냉이, 벼, 보리 등이다.

지하자원은 석유, 쇠돌, 석, 금, 은, 동, 아연, 몰리브덴, 보크사이트 등이다. 석유매장량은 약 82억톤(1964년)이며 석유에서 얻는 수입은 국가예산수입의 80~90%를 차지한다. 그러나 석유채굴권은 미제와 일본, 이탈리아 등의 독점자본가놈들에게 장악되어 매년 수천만톤의 석유를 략탈당하고 있다.

## 바레인제도

(바레인추장국)

페르샤만에 있는 바레인섬을 비롯한 몇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 주변은 산호초로 둘러싸여있으며 산림은 없다. 식물은 재배식물과 사막지대에서 자라는 풀뿐이다.

【면적】 593$km^2$

【인구】 18만 2,200명

주민은 아랍인, 인도인, 파키스탄인, 이란인, 흑인 등이 있다.

【행정중심지】 마나마(주민 6만 2,000명)

바레인은 1892년에 영제국주의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영식민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이 나라 인민들의 투쟁이 앙양되자 영제국주의자들은 1942년에 형식상 추장을 내세워 통령리사회를 조작하였다.

미영제국주의자들은 이 나라에 해군 및 공군 기지를 설치하고 이 지역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고있다.

그러나 바레인제도인민들과 바레인 민족해방전선은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반대하며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싸우고있다.

【추장】 이사 빈 술만 알 칼리파(1961년—)

이 나라의 경제에서 석유가 주되는 생산물이지만 석유채취권은 미제독점체들이 독차지하고있다. 또한 진주가 많이 채취되는데 최근년간 일본군국주의 독점체들이 독점하고있다.

경지면적은 전체 면적의 5%에 불과하며 농산물은 벼, 남새, 목축사료 등이다.

## 카타르

(카타르추장국)

페르샤만 남쪽기슭에 자리잡고있는 반도이다. 반사막지대이며 년평균강수량은 101mm이다.

【면적】 2만 2,000$km^2$

【인구】 8만명(1970년)

【행정중심지】 도하(주민 4만 5,000명)

1916년부터 영제국주의자들이 통치하고있다. 카타르에는 미제의 해군기지가 있다.

카타르인민들은 미영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며 민족적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싸우고있다.

이 나라는 석유자원이 풍부하며 석유채취 및 가공은 미, 영,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이 장악하고있다. 목축업도 하며 진주도 채취한다.

## 오 만

아라비아반도의 동남쪽에 있다. 해안을 제외한 령토의 대부분은 고원이다. 열대성기후이다.

오만은 무사하하트 싸힐 오만(페르샤만쪽에 있다), 마스카트 오만(아라비아해에 있으며 민주예멘과 접해있다), 이마마트 오만(내륙지방)으로 갈라져있다.

### 무사하하트 싸힐 오만광국

【면적】 29만 4,400$km^2$(그중 무사하하트 싸힐 오만광국 8만 2,000$km^2$)

【인구】 65만명(그중 무사하하트 싸힐 오만광국이 10만명)

대부분이 아랍족이며 아랍어를 쓴다.

【행정중심지】 두바이(주민 5만명)

영제국주의자들의 《보호령》이다.

제2차세계대전시기 미영제국주의자들의 공군기지로 리용되였으며 현재는 영제국주의자들의 공군기지로 리용되고있다.

석유가 많이 매장되여있는데 이 지대의 석유채취는 미, 영, 프랑스 등의 제국주의독점체들이 장악하고있다.

### 마스카트 오만추장국

대부분이 아랍인이며 인도인과 흑인도 있다.

아랍어를 쓴다.

【행정중심지】 마스카트(주민 5,500명)

영제국주의자들의 《보호국》이다. 1958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이 이곳에 해군기지, 공군기지를 건설하였다. 1960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은 2천 400명의 침략군을 끌어들였으며 이 지역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고있다.

주민의 90%가 농목축업을 한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목화, 담배, 대추, 야자 등이다. 산악지대에서는 락타를 기른다.

석유가 채취되는데 영국,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이 독점하고있다.

### 이마마트 오만

【행정중심지】 니즈와(주민 4,500명)

교주 갈리브 빈 알리

1913년에 오만의 내륙지방인민들이 반영봉기를 일으켜 오만회교교주국(이마마트 오만)의 독립을 선포하였다.

【오만에서의 민족해방투쟁】 1955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은 오만회교교주국을 저들의 지배하에 넣기 위하여 마스카트 오만괴뢰도당을 사촉하여 오만회교교주국을 공격하는 내란을 일으키게 하고 직접적인 무장간섭을 시작하였다.

1957년 7월 오만인민들은 영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그 괴뢰들을 반대하여 대규모의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영식민주의자들은 저들의 침략군을 끌어들여 이마마트 오만종족들에 대한 야수적인 폭격을 감행하였다. 오만인민들은 민족해방군을 조직하여 내륙산악지대를 근거지로 하고 해안지대도시들과 주요교통로들을 교란시키는 등 무장투쟁을 확대하였다.

1960년초에 민족해방군은 오만령토의 4분의 3에 달하는 지역에서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1963년에는 전국의 유격활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그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민족해방군 최고사령부》를 설치하고 무장력을 5만으로 증강하였다.

1965년 6월 도파르산맥에서 대규모의 무장투쟁이 개시되였으며 《도파르해방전선》이 창건되였다. 1968년 9월에 진행된 《도파르해방전선》 제2차 대회에서는 이 조직의 이름을 《강점된 아랍만해방인민전선》으로 고쳤으며 제국주의를 타승하는 유일한 길은 《조직적인 혁명적폭력》이라고 결정하였다. 또한 대회에서는 영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각이한 립장을 가진 오만의 다른 투쟁조직들과 통일전선을 이끌고 나갈수 있는 《혁명적인 당》을 창건하기로 결정하였다.

《강점된 아랍만해방인민전선해방군》은 영제국주의자들을 내몰면서 나라의 해방지역을 넓혀나가고있다.

1969년 8월 23일 인민전선해방군은 라퀴유트시를 공격하여 적들을 모조리 소멸하고 이 도시를 점령함으로써 전지역을 해방하였다. 무장투쟁이 가장 세차게 타오르고있는 곳은 중부 도파르의 하울린전략도로의 중간지대이다. 이 지대에서 인민전선해방군은 1969년

9월부터 1970년 4월까지 30여차례의 전투를 벌려 400여명의 적을 소멸했다.

1970년 7월 인민전선해방군은 오두트와 아나에 있는 영식민주의자들과 그 괴뢰들의 병영을 들이쳐 2대의 군용차를 파괴하고 40명의 적들을 소멸하였다.

11월중순부터 12월초까지의 기간에는 해방지역에 대한 영식민주의침략군과 고용병들의 공격을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적들에게 많은 손실을 주었다.

12월 5일 도파르동부의 해안일대에서 활동하던 인민전선해방군은 비행기와 땅크의 엄호아래 공격해온 식민주의군대들을 성과적으로 족쳐 장교놈들을 포함한 25명을 살상하고 비행기와 장갑차를 파괴하였다.

오만에서 활동하고있는 민족해방투쟁단체로서는 《강점된아랍만해방인민전선》(서부지역), 《오만민족해방전선》(중부지역), 《바레인민주해방전선》(동북부) 등이 있다.

1970년 5월 《강점된 아랍만해방인민전선》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 토이기

### (토이기공화국)

다다넬해협을 사이에 두고 아세아와 구라파 두 대륙에 걸쳐 있다. 건조한 대륙성기후이며 강수량은 적다. 앙카라의 년평균강수량은 230mm이다.

【면적】 77만 6,980km²

【인구】 3,350만명(1970년)

토이기족이 80%이상이고 기타 쿠르드인, 그루지야인, 아랍인 등이 산다.

토이기어를 쓴다.

【수도】 앙카라(주민 90만 2,200명)

**정 치** 1919년 5월 왕제가 철폐되고 1923년 10월에는 토이기공화국이 선포되였다.

토이기는 1941년 파쑈독일과 《우호호상불가침조약》을 맺었으며 제2차세계대전시기에는 파쑈독일을 적극 도와나섰다. 전후 미영제국주의의 충실한 졸개로서 침략적인 나토(1952년)와 센토(1955년)에 가담하였으며 1959년 3월에 미제와 《쌍무군사협정》을, 1962년에는 서독과 《군사원조협정》을 맺었다. 미제는 토이기에 100여개의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사회주의나라들과 아랍인민들을 반대하는 군사전략기지로 리용하고있다.

토이기는 미제가 도발한 조선침략전쟁에 미제의 앞잡이로서 참가하여 조선인민들을 무참히 학살하였으며 미제에 추종하여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계속 방해하고있다.

토이기인민들은 나토에서의 탈퇴, 미군사기지의 철폐, 미제와 맺은 예속적인 협정의 페기를 요구하여 각종 형태의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1969년 인민들의 반미투쟁에 의하여 미제침략군 전파탐지기지가 철페되였으며 12월에는 이즈미르항에 기어들었던 미제6함대 해적선무리들이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쫓겨났다.

1970년 3월 17일부터 23일까지 토이기혁명청년련맹의 발기로 진행된 《독립주간》에 토이기대학생들은 미제침략군의 철거와 토이기의 진정한 독립을 요구하여 대대적인 반미시위와 군중집회들을 가지는 한편 돌과 화염병으로 미제침략군 군용차와 미국놈회사들을 들부셨다. 4월에는 미국대사관창고와 앙카라에 있는미제침략군의 군수창고들을 들이쳐 불태워버렸다.

【국회】 상하량원제이다.

【대통령】 쉐보데트 수나이

【정부】 정의당, 인민공화당, 민족신임당의 련립정부. 수상 니하트 에림(1971년 3월－), 국방상 페리트 멜렌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11월에 창건, 1923년에 비법화. 로동당, 정의당, 인민공화당, 민족신임당 신토이기당, 공화농민민족당, 사회민주당, 로동련맹평의회

**경제, 사회** 주민의 77%가 농업에 종사하고있다.

경지면적은 약 2천 534만정보이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강냉이, 담배, 과일 등이다. 고원지대에서는 면양, 산양을 위주로한 축산도 한다.

지하자원은 크롬, 석탄, 원유, 쇠돌 등이다. 주요공업은 크롬과 석탄 채굴을 위주로하는 채광업이다.

경제명맥은 미제의 독점자본이 틀어쥐고있으며 민족공업은 마비상태에 있다. 토이기의 14개석유회사중 78%는 미제가 차지하고있다.

【출판보도】 신문 줌 후리에트, 타스비르 자페르

## 끼쁘로스

### (끼쁘로스공화국)

지중해의 동남쪽에 있는 섬나라이며 아세아, 구라파, 아프리카의 3대륙을 련결하는 군사적요충지이다.

【면적】 9,250km²

【인구】 59만 8,000명

희랍계주민 82%, 토이기계주민 18%이다.

공용어는 희랍어와 토이기어이다.

【수도】 니코시아(주민 10만 3,000명)

**정 치** 4세기말에 희랍제국의 령토로되였으며 1571～1808년에는 토이기제국에 강점되였다. 1914년 영제국주의자들이 이 나라를 자기 나라에 병합하였으며 1925년에는 직할식민지로 만들었다.

제2차대전후 끼쁘로스의 희랍계주민들과 토이기계주민들간의 분쟁이 있어 1959년 2월 영국, 희랍, 토이기간의 쮸리히 및 런던회담이 진행되였다. 이 회담들에 기초하여 1960년 7월 6일 끼쁘로스는 영국과 《독립조약》을, 희랍 및 토이기와는 《동맹조약》을, 영국, 희랍, 토이기와는 《담보조약》을 각각 맺었다. 이 조약들에 의하여 영제국주의자들은 2개의 군사기지를 강탈하였으며 희랍과 토이기 침략군은 각각 끼쁘로스에 주둔하게 되였다.

쮸리히협정에 따라 식민주의자들이 1960년에 작성한 헌법에 의하면 의회, 정부, 국가기관들은 희랍계주민 7, 토이기계주민 3의 비률로, 군대는 6대 4의 비률로 구성하며 대통령은 희랍계인, 부대통령은 토이기계인으로 선출하며 대통령과 부대통령은 의회에서 채택된 법령과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1963년 11월 마카리오스대통령은 비법적으로 강요된 불평등조약인 쮸리히 및 런던협정의 수정과 소수민족인 토이기계주민에게 많은 권리를 준 헌법의 페기를 선포하였다. 이를 계기로 미영제국주의자들은 끼쁘로스반동들을 부추겨 1963년 12월 두 민족간의 류혈적인 충돌을 일으키게 하였다. 그리고 《질서유지》라는 미명하에 침략적인 《유엔평화유지군》이란것을 조작하여 이 나라의 내정에 로골적으로 간섭하였다.

【의회】 일원제이다.

【정부】 대통령 마카리오스(1960년 8월 16일－), 외상 키프리아누스

【정당, 사회단체】 근로인민진보당 전신은 1926년에 창건된 공산당이다. 1941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고침, 총비서 파파이오아노우. 애국전선, 민족련맹, 전끼쁘로스로동련맹, 통일민주청년조직, 녀성련맹

**경제, 사회** 주민의 절반이상이 농사를 한다. 주요농산물은 감자, 밀, 목화, 보리, 귀밀 등이다. 지하자원으로는 철, 동, 크롬 등이 많으며 채광업이 경제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장기간의 식민지통치와 국내정세의 불안정으로 하여 인민생활은 도탄속에 빠지고있으며 해마다 수천명이 살길을 찾아 해외로 떠난다.

【출판보도】 신문 하라브기

# 구 라 파 주

## 쏘 련

###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

쏘련의 기후는 북부는 한대(전령토의 16%), 중부는 온대(80%), 남부는 아열대(4%)에 속한다. 최저기온은 씨비리의 동북부(웨르호얀쓰크)에서 령하 약 70°C이고 최고기온은 우즈베크남부(떼르메즈)에서 약 50°C이다. 년평균강수량은 깝까즈산맥일대에서 2천 500mm, 북부지역에서 500~600mm, 중앙아세아지역에서 80mm이다.

【면적】 2,240만 3,000km²

【인구】 2억 4,390만(1971년 1월)

로씨야족(인구의 53%), 우크라이나족(인구의 20%), 벨로씨야족, 우즈베크족, 따따르족 등 100여개의 민족과 소수민족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로어이다.

【수도】 모스크바(주민 706만 1,008명, 1970년 1월 15일)

**정 치** 10월혁명전 로씨야는 군사봉건적농노제적관계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자본주의발전수준이 상대적으로 락후한 제국주의국가였다.

레닌의 령도밑에 로씨야로동계급은 위대한 사회주의10월혁명을 수행함으로써 1917년 11월 7일(음력으로는 10월) 인류력사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형태의 국가인 쏘베트사회주의국가를 형성하였다.

쏘련인민은 1918—1921년에 청소한 쏘베트국가를 압살하려던 14개제국주의 무력간섭자들과 국내반동들의 준동을 승리적으로 물리쳤다.

1922년 12월 30일 제1차전련맹쏘베트대회에서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이 형성되였다.

1924년 12월에 진행된 제14차당대회에서는 나라의 사회주의공업화로선이 제시되였는바 이 로선은 성과적으로 실현되였다.

1926년 12월에 소집된 제15차당대회에서는 농촌경리집단화방침이 제시되였다. 이 방침은 1929—1934년기간에 성과적으로 완수되였다.

1936년 12월 5일에 쏘련헌법이 채택되였다.

쏘련인민은 1941—1945년의 제2차세계대전에서 파쑈독일과 일본제국주의를 격파하고 쏘베트조국을 수호하였다.

쏘련인민은 1970년까지 8차에 걸치는 5개년인민경제계획(1959—1965년간의 7개년계획포함)을 수행함으로써 락후하였던 로씨야를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켰으며 과학기술분야에서 거대한 진보를 이룩하였다.

현재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에는 15개의 가맹공화국, 20개의 자치공화국, 8개의 자치주, 113개의 변강 및 주가 있다. (1969년 1월 현재)

【최고 쏘베트】 최고주권기관으로서 련맹쏘베트와 민족쏘베트로 구성되여 있으며 임기는 각각 4년이다. 현 최고쏘베트는 제8기로서 1970년 7월에 선거되였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엔.웨. 뽀드고르느이

【정부】 수상 아. 엔. 꼬씨긴(1966년 8월—), 외무상 아. 아. 그로미꼬, 국방상 아. 아. 그레치꼬

【정당, 사회단체】 쏘련공산당 1903년 7월 30일에 창건.

총비서 엘. 이. 브레즈네브

직업동맹, 레닌공산청년동맹, 쏘련녀성위원회, 쏘조친선협회 1958년 7월 6일 창립, 위원장 엔. 엔. 따라쏘브

【주요사건】 1970년 7월 2일과 3일 이틀동안에 진행된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농촌경리분야에서의 당의 당면과업을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7월 13일 전원회의에서는 쏘련공산당 제24차대회를 1971년 3월에 소집하기로 결정하였다.

12월 7일 전원회의에서는 1971년도 쏘련인민경제발전국가계획초안과 국가예산안을 토의하였다.

또한 제24차 당대회를 1971년 3월 30일에 소집하기로 결정하였다.

6월 16일 쏘련 전국 각 선거구들에서 쏘련최고쏘베트선거가 진행되였다.

7월 14일과 15일 량일간에 걸쳐 쏘련최고쏘베트 제8기 제1차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를 선거하였으며 쏘련정부와 최고쏘베트 상설위원회들을 구성하였다.

회의에서는 인도지나사태에 관한 성명과 중근동정세에 관한 성명이 채택되였다.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쏘련최고쏘베트 제8기 제2차회의에서는 1971년도 인민경제계획초안과 국가예산안을 비롯하여 기타 일련의 문제를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과 법령을 채택하였다.

4월 21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며 인류의 영재인 웨.이. 레닌탄생 100돐을 경축하는 쏘련 공산당과 최고쏘베트 및 로련최고쏘베트 합동회의가 모스크바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이 기념일에 즈음하여 4월 16일 울리야놉쓰크에서 레닌기념관개관식을 비롯한 각종 행사들이 있었다.

5월 쏘련에서 파쑈독일에 대한 승리 스물다섯돐 기념경축대회가 진행되였다.

5월 4일 쏘련정부는 캄보쟈에 대한 미제의 무력침공과 11월 23일 미제의 직접적부추김밑에 감행된 기네공화국에 대한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의 침략행위를 규탄하여 각각 성명을 발표하였다.

12월 16일 쏘련정부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북부윁남폭격재개와 관련하여 윁남로동당과 정부가 발표한 호소문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8년 10월 12일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1949년 3월 17일 경제및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1955년 2월 5일에는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1960년에는 상업및항해조약, 1961년 7월 6일에는 우호, 협조및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5월 쏘련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에서는 조쏘친선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에게 쏘련적기훈장을 수여하였다.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쏘련의 여러 도시들에서 련대성집회들이 광범히 진행되였다.

6월 25일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사회계대표들의 군중집회에서는 미제침략군의 철거와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8월에 일제로부터 조선해방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모스크바를 비롯하여 여러 도시들에서 각종 행사들이 진행되였다.

9월 15일 우리 나라와 쏘련간의 경제및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이 모스크바에서 조인되였다.

1970년에 쏘련으로부터 8. 15해방스물다섯돐경축행사에 참가할 쏘련당및정부대표단(8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그밖에 국가대외경제련락위원회 부위원장과 그 일행(3월), 군사대표단(4월), 외무부상겸유엔주재 쏘련

상임대표(8월), 군대청년체조선수단(4월), 영화대표단(5월), 조형예술전람회대표단(1월), 로모노쏘브명칭모스크바종합대학교원대표단(6월), 쏘조친선협회대표단, 청년락하산선수단(9월), 과학원 동방학연구소 경제및문학학자대표단(10월), 과학원 경제학자(11월) 대표단들이 각각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로부터는 레닌탄생 100돐기념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당대표단(4월)이 쏘련을 방문하였다. 이밖에 정부대표단(8월), 당력사연구소대표단(2월), 조쏘 정부간 경제및과학기술협의위원회 과학기술협조상설분과위원회제4차회의에 참가할 과학기술협조대표단(11월), 아. 아단결위원회대표단(1월), 사회과학자대표단(1월), 레닌사적지답사단(1월), 녀성대표단(1월), 우표애호가동맹대표단(3월), 사로청대표단(3월), 중앙방송위원회대표단(3월), 평양시 인민위원회대표단(3월), 도서전람회대표단(4월), 직맹대표단(4월), 사로청대표단(5월), 공업기술총련맹대표단(6월), 조쏘친선협회대표단(6월), 활공기선수단(6월), 녀자배구선수단(7월), 국방체육대표단(7월), 함북도친선대표단(11월), 영화대표단(12월)이 쏘련을 각각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쏘련에는 유용광물이 많다. 석탄, 니탄, 원유, 천연가스, 철, 망간 등은 매장량에 있어서 세계 첫자리를 차지한다. 수력자원도 많으며 목재자원은 500억 $m^3$에 달한다.

경작할수 있는 토지면적은 5억 4천 280만ha이며 주요농작물은 밀, 강냉이, 감자, 콩, 해바라기, 사탕부우, 목화, 대마 등이다.

쏘련근로자들은 5개년계획(1965—1970년)을 이해에 성과적으로 끝냈다.

특히 이 기간에 대중소비품생산은 약 14%, 경공업제품생산은 1.47배로 늘었다. 면직물, 편직물, 피복제품, 가죽신 생산과제는 넘쳐 수행되었다. 이 계획기간에 건설된 이와노브에 있는 모방직종합공장에서는 950여만m의 천을 짰다.

1970년에 국민소득은 지난해에 비하여 8.5% 늘었다. 공업제품의 년장성률은 8.3%에 달하였다. 이해 년간계획 이외에 70억루블리어치의 제품이 더 생산되었다.

이해에 쏘련에서는 전력이 7천 400억KWH, 강철이 1억 1천 600만t 생산되였고 석유는 3억 5천 300만t, 가스는 2천억$m^3$ 채취되였으며 석탄은 6억 2천 400만t, 세멘트는 9천 520만t, 자동차는 91만 6천대, 뜨락또르는 45만 9천대, 광물질비료는 5천 540만t, 화학섬유는 62만 3천t 각각 생산되였다.

대중소비품생산은 전해에 비하여서는 8.5% 늘었다.

공업부문에서 로동생산능률은 7% 장성하였다. 약 400개의 공장, 기업소들이 준공되였다. 대외통상액은 전해보다 11% 늘었다.

1970년에 또한 농촌경리분야에서도 성과가 이룩되였다. 농산물총생산액은 전해보다 8.7% 늘어났으며 알곡수매계획은 초과완수되어 7천 300만t에 달했다. 이해에 면화는 690만t, 사탕부우는 7천 830만t, 해바라기는 610만t, 감자는 9천 660만t, 남새는 2천만t 각각 생산하였다.

이해에 로동자, 사무원들의 월평균로임은 4%, 농민들의 수입은 6.8% 올랐다. 도시와 농촌에서 228만세대의 살림집이 건설되였다.

1970년에 보통교육부문 학생은 4천 940만명, 기술학교 및 기타 중등교육부문 학생은 440만명, 고등교육부문 학생은 460만명에 달했다. 이해에 고등 및 중등전문교육을 받은 170만명의 학생들이 인민경제 각 부문에 파견되였다.

과학일군수는 93만명이다.

이해 9월 12일에 쏘련의 과학기술자들이 쏴올린 자동정류소 《루나—16호》가 달에 있는 암석표본을 가지고 24일 지구로 돌아왔다. 이에 앞서 4월 25일에는 《꼬쓰모쓰—336》호로부터 《꼬쓰모쓰—343》호에 이르는 8개의 인공지구위성을 단꺼번에 쏴올렸다. 12월 14일에 자동정류소 《웨네라—7》호는 발사한 이래 약 3억 2천만Km의 거리를 120일간의 비행끝에 금성에 도달 했다.

【출판보도】 통신 따쓰, 아. 뻬. 엔

신문 쁘라우다(쏘련공산당기관지), 이즈베쓰찌야 (최고쏘베트상임위원회 및 내각기관지), 꼼쏘몰쓰까야 쁘라우다(레닌공청기관지), 뜨루드(직맹기관지), 크라쓰나야 즈베즈다(국방성기관지)

잡지 꼼무니스트(쏘련공산당 리론잡지)

# 뽈 스 까

## (뽈스까인민공화국)

구라파 동북쪽에 있다. 쏘련, 체스꼬슬로벤스꼬 및 민주독일과 린접하고 있으며 북쪽은 발띄해에 면하고있다.

국토의 92%는 평지대(평균높이 173m)이다.

기후는 동구라파 대륙성기후와 서구라파 해양성기후의 영향을 받아 변화가 심한 편이나 대체로 온화하다.

년평균기온은 4~9°C이다.

년평균강우량은 500~700mm이다.

【면적】 31만 2,677$km^2$

【인구】 3,270만명(1970년 12월말)

주민은 서슬라브족의 뽈스까인이다.

언어는 서슬라브어에 속하는 뽈스까어이다.

【수도】 와르샤와 (주민 130만명)

**정 치** 뽈스까국가의 기원은 약 1천년전으로 알려져 있다.

9세기부터 뽈스까의 령토는 점차 확장되기 시작하여 14—16세기에는 발띄해로부터 흑해연안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을 차지하고있었다. 18세기 말엽에는 프로씨야, 짜리로씨야, 오지리 등의 강점으로 완전히 분렬되여 약 130년간 이 나라들의 예속하에 있었다.

1918년 11월 7일에 뽈스까는 부르조아민족국가로 독립하였다.

1939년 9월 히틀러독일이 뽈스까를 강점하였다.

쏘련군대와 뽈스까 제1군의 진격으로 나라의 일부가 해방되자 1944년 7월 21일 루블린에서 첫 인민정권의 집행기관으로서 《뽈스까민족해방위원회》가 창설되였다. 이 위원회는 7월 22일에 《7월선언》을 발표하였다(뽈스까인민들은 이 날을 재생의 날로 기념한다).

《뽈스까민족해방위원회》는 1944년 12월 31일에 림시정부로 개편되였으며 1947년 1월 19일에는 총선거에 의하여 공산당과 사회당《좌익》을 중심으로 하는 인민정권이 수립되였다.

뽈스까는 인민정권이 수립되기 전까지 토지개혁(1944년 9월), 산업국유화(1946년 1월)를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들을 실시하였다.

뽈스까는 해방후 인민경제복구 3개년계획(1947—1949년)과 6개년계획(1950—1955년)의 수행결과 경제적으로 락후한 농업국가로부터 사회주의적 공업—농업국가로 전변되였다.

현행헌법은 1952년 7월 22일 립법회의(쎄임)에서 채택되였고 그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쎄임】 최고주권기관이다. 임기는 4년이다. 현재의 쎄임은 제5기로서 1969년 6월 1일에 선거되였다. 쎄임 휴회기간의 최고주권기관은 국가쏘베트이다. 국가쏘베트 위원장은 유제프 찌란께비치(1970년 12월 23일—)

【정부】 수상 뾰뜨르 야로쉐비치(1970년 12월 23일—), 외무상 스떼판 옌드리홉스끼, 민족보위상 보이쩨흐 야루젤스끼

【정당, 사회단체】 뽈스까통일로동당 1948년 12월 15일에 로동당(1942년 1월 5일에 조직)과 사회당이 합당하여 창건.

제1비서 에드와르드 게레크

통일농민당, 민주당, 인민통일전선, 직업동맹중앙평의회, 사회주의청년동맹, 농촌청년동맹, 녀성동맹

【주요사건】 1970년 5월 19일에 소집된 뽈스까통일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사회화된 경리에서 물질적자극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기본문제와 방향》에 대하여 토의하였으며, 1970년 12월 14일에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나라의 경제형편과 1971년도 주요 경제정책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12월 12일 뽈스까정부에서 식료품과 일련의 일용필수품소매가격을 올릴데 대한 결정을 채택한데 뒤이어 12월 14일 북부항구도시 그단스크에서 로동자, 학생들의 파업과 시위가 벌어졌으며 련이어 그디냐, 쏘뽀트, 슈찐 등 여러 도시들에 파급되어 나라에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였다. 이러한 사태는 사회주의 원쑤들의 준동에 의하여 더욱 복잡하여졌다.

12월 17일 뽈스까내각은 포고문을 발표하고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보장할데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었다.

12월 20일 소집된 당중앙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는 《현국내정세의 평가와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토의하고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를 비롯한 정치국 위원들을 교체하였다. 이날 통일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나라에 조성된 현정세의 기저에는 현실적인 난관으로부터 초래되는 원인들이 있으며 경제정책에 대한 경솔한 개념으로부터 초래된 그러한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1970년 12월 23일에 열린 세임회의에서는 국가쏘베트 위원장과 내각수상을 비롯하여 내각성원들에 대한 교체가 있었다.

뽈스까정부는 5월 2일 인도지나인민들의 수뇌자회의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1월 12일 로므니아와 《우호, 협조 및호상원조에 관한 새 조약》을 조인하였으며 12월 7일에는 《뽈스까와 서독간의 호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기초에 관한 조약》이 조인되였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뽈스까는 1948년 10월 16일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았다. 1952년 6월 2일에는 무역협정, 1956년 5월 11일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1957년 4월 17일에는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았다.

1970년 3월 26일에는 1970—1971년도 두 나라간의 문화교류계획서가 조인되였다.

1970년 6월에 뽈스까는 오뜨보쯔크군에 《뽈스까조선친선구락부》를 내왔다.

1970년 7월 15일 뽈스까선박 《스떼판 옥세야》호 선원들은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집회를 열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편지에서 그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또다시 일으킨다면 우리 뽈스까 선원들은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인민들의 정당하고 영예로운 투쟁을 행동으로써 지지할것입니다.》라고 지적하였다.

1970년에 뽈스까로부터 세임대표단(5월), 문화대표단(12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문화대표단(3월), 사로청대표단(11월)이 뽈스까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주요자원은 석탄(역청탄), 갈탄, 니탄, 천연가스, 동, 류황, 돌소금, 아연 등이며 주요농산물은 밀, 쌀보리, 보리, 귀밀, 감자, 사탕무우 등이다.

1970년의 사회공업총생산액은 인민경제계획에서 예견되였던 7.3%에 비하여 대비가격으로 8.3% 늘어났다.

생산수단생산은 1969년에 비하여 약 9%, 소비재생산은 7% 장성하였다.

1970년에 전력은 전해보다 7.4% 늘어나 645억KWH, 석탄은 3.8% 늘어나 1억 4천만t 생산되였다. 강철생산은 104.4%, 세멘트는 103%로 늘어났다.

1970년에 선박 총적재톤수는 51만 8천 500t에 달하였다.

1970년도 농업총생산액은 대비가격으로 환산하여 전년에 비하여 1.9% 높아졌으나 1968년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4대작물(밀, 보리, 쌀보리, 귀밀)은 1970년도에 1천 540만t 생산하였다.

국민소득은 1969년에 비하여 근 6%의 증대를 보았다.

대외통상교류는 12.7%(현가격으로) 늘어났다.

1967—1968학년도부터 초등(8년제) 의무교육제를 실시하였다.

1970년에 초등학교 졸업생은 3.1% 장성하였으며 대학졸업생은 1천 831명 더 많았다.

각종직업학교에는 1970년에 11만 8천 200명이 입학하였다.

1970년도말 의사수는 4만 9천 200명, 병원침대수는 16만 8천 800대였다.

【출판보도】 통신 빠쁘

신문 뜨리부나 류드(뽈스까통일로동당기관지), 그워스 쁘라찌(직맹 기관지), 발까 므워드흐(사회주의청년동맹 기관지), 조우네즈 볼노스찌(인민군 기관지), 지쩨 와르샤비

잡지 노웨드로기(뽈스까통일로동당 리론잡지), 지쩨 빠르띠(뽈스까통일로동당생활잡지)

## 체스꼬슬로벤스꼬

###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체스꼬슬로벤스꼬는 체스꼬와 슬로벤스꼬의 두 지역으로 이루어졌으며 구라파의 중심부에 자리잡고있다.

기후는 대서양의 영향을 받는 대륙성기후이다. 쁘라하의 년평균기온은 10°C이다. 강우량은 450~1천 500mm이다.

【면적】 12만 7, 859km²

【인구】 1, 436만 2,000명(1970년말) 주민의 대부분은 체스꼬인, 슬로벤스꼬인이고 그밖에 독일인, 뽈스까인, 우크라이나인들이 있다.

【수도】 쁘라하(주민 102만 5,000명)

**정 치** 기원 7세기에 첫 왕국이 건립되였다. 11세기전반기에 오늘의 슬로벤스꼬지역이 웽그리아에 병합되고 체스꼬는 1620년에 오지리에 병합되였다.

1918년 10월 28일 체스꼬슬로벤스꼬는 독립하여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의 지지밑에 부르죠아지들이 정권을 장악하고있었다. 1939년 3월 파쑈독일의 침공을 받았다. 히틀러도배들은 체스꼬와 모라비아지역을 강점하고 여기에 《보호통치제도》를 세우는 한편 슬로벤스꼬지역을 체스꼬로부터 떼내여 이른바 《슬로벤스꼬국가》라는것을 만들어냈다. 슬로벤스꼬인민들은 히틀러독일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유격투쟁을 전개하였으며 1944년 8월 29일에는 무장폭동을 일으켰다.

체스꼬와 슬로벤스꼬인민들의 반파쑈민족해방투쟁은 파쑈독일의 패망을 촉진시켰으며 1945년 5월 9일 체스꼬슬로벤스꼬는 히틀러파시즘의 기반에서 해방되였다.

1945년 7월에는 민족전선정부가 수립되였다. 1946년 5월에 제1차민족회의선거를 실시하고 새 련합정부를 수립하였다.

1948년 2월 25일 공산당의 령도밑에 체스꼬슬로벤스꼬로동계급은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전복하고 부르죠아제도의 복귀를 시도하던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반혁명음모를 짓부시고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였다.

2월사변이후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는 산업, 은행, 상업 부문의 국유화를 실시하였으며 토지개혁을 완수하였다.

1960년 7월 11일 민족회의는 새 헌법을 채택하고 나라 이름을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으로 고쳤다.

1968년 1월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민주화》로선이 채택된후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는 당의 령도적역할과 중앙집권적지도를 거부하며 계급투쟁을 부인하는 둡체끄와 그 지지자들의 반혁명행위로 하여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공모한 반혁명세력의 악랄한 준동이 로골화되였다.

8월 21일 쏘련, 벌가리아, 웽그리아, 민주독일, 뽈스까 군대는 무력원조를 포함한 긴급한 원조를 제공해달라는 체스꼬슬로벤스꼬의 당 및 국가활동가들의 요청을 받고 체스꼬슬로벤스꼬령토에 들어가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의 사회주의전취물을 수호하고 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의 안전을 보장하였다.

1969년 4월 17일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국내에 특수한 정세가 조성된것과 관련하여 조직 및 간부문제를 토의하고 제1비서를 교체하였다.

【련방회의】 최고주권기관으로서 그의 임기는 4년이다.

【대통령】 루드위끄 스워보다(1968년 3월—)

【련방정부】 수상 루보미르 슈뜨로우갈(1970년 1월—), 외무상 얀 마르꼬, 민족보위상 마르띤 드주르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5월 14일에 창건, 1948년 6월에 사회민주당과 합당하였다.

제1비서 구스따브 후싸끄

인민당, 사회당, 슬로벤스꼬부흥당, 민족전선, 혁명직맹운동, 사회주의청년동맹, 녀성동맹

【주요사건】 1970년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일부 간부문제, 당경제정책의 주요문제들, 당증교환과 관련하여 당의 활동력을 높이며 당의 통일을 강화하는 문제 등 일련의 문제들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6월 1일에 진행된 체스꼬슬로벤스꼬련방회의 정기회의에서는 5월에 맺은 체스꼬슬로벤스꼬와 쏘련간의 우호, 협조및호상원조조약에 관한 조약을 찬동하는 법안과 기타 일련의 문제들을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과 법령을 채택하였다.

6월 25일과 26일 량일간에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1969년 5월 전원회의 결정실행과 당의 과업에 대한 보고를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1월 17일과 18일 량일간에 진행된 련방회의 인민의원과 민족의원 합동회의에서는 일련의 정부법안들을 심의하였으며 인도지나정세 및 근동정세와 관련한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당증교환이후의 당의 주요과업에 대한 보고, 1971년도 인민경제계획의 기본원칙들에 관한 보고를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인민의원 및 민족의원 합동회의에서는 1971년도 국가발전계획의 목표와 기본과업에 관한 법안과 1971년도 국가예산에 관한 법령, 체스꼬슬로벤스꼬련방에 관한 법령을 비롯한 일련의 법령을 채택하였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8년 10월 21일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았다. 1954년 12월 21일에는 경제및기술협조를 위한 협정, 1956년 6월 23일에는 문화협조협정을 맺았다.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7월 21일 쁘라하에서 체스꼬슬로벤스꼬 및 체스꼬 민족전선 중앙위원회들과 체스꼬슬로벤스꼬 및 체스꼬혁명직맹운동 중앙평의회 주최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가 진행되였다. 집회에서는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 월간에 즈음하여 여러 사회단체들과 기관들에서 군중집회들이 진행되였으며 민족전선 중앙위원회와 반파쑈투사동맹 련방위원회들은 각각 성명을 발표하였다.

10월 25일 반파쑈투사동맹은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한지 스물다섯해가 되는것과 관련하여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7월 8일 두 나라 과학원간의 과학협조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1970년에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는 제1외무부상(4월), 혁명직맹운동중앙평의회대표단(7월), 남녀탁구종합선수단(4월)이 각각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체스꼬슬로벤스꼬기술협조위원회 제14차 회의에 참가할 조선측대표단(8월), 농업대표단(10월), 직맹대표단(5월), 과학기술통보대표단(11월)이 체스꼬슬로벤스꼬를 각각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주요자원은 석탄, 갈탄, 철, 망간, 흑연, 주석, 동, 우라니움 등이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감자, 사탕무우, 강냉이, 호프, 아마 등이다.

인민경제 각 부문에 종사하는 로력자수의 약 40%가 공업부문에서 일한다. 기계제작공업과 금속공업은 이 나라 인민경제 특히 중공업의 중심을 이루고있다.

1970년에 공업총생산액은 7.7% 장성하였다.

특히 주택 및 후생시설건설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석탄은 2천 218만 3천t, 갈탄은 7천 750만t, 전력은 452억kwH, 선철은 750만t 생산하였다. 자동차공업이 발전하고있다.

이해에 또한 공업부문에서 로동생산능률은 7.9%, 건설에서는 6.6% 각각 장성하였다.

농산물총생산액은 1969년에 비하여 1.3% 높아났다.

수출에서는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수출이 전해에 비하여 17% 늘었다.

1970년에 10만 7천세대의 새 살림집이 일떠섰다. 1966년 7월부터 전체 주민들에 대한 무상치료제가 실시되였다.

【출판보도】 통신 체떼까

신문 루데 쁘라보(공산당기관지), 쁘라쩨(혁명직맹운동기관지), 믈라다 프론따(사회주의청년동맹기관지)

잡지 노바 미쓸(공산당 리론잡지)

## 로므니아

###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로므니아는 구라파의 동남부에 있으며 쏘련, 웽그리아, 유고슬라비아, 벌가리아와 접경하고있다. 산지와 구릉지대가 총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기후는 동구라파의 대륙성기후와 중구라파의 해양성기후가 결합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년평균기온은 10°C 이나 45°C로부터 령하 35°C까지의 심한 변화를 일으킨다. 년평균강우량은 635mm이다.

【면적】 23만 7, 500km²

【인구】 2,014만명(1970년 1월)

주민의 대부분은 로므니아인(87.8%)이며 웽그리아인, 독일인, 기타 소수민족이 있다.

공용어는 로므니아어이다.

【수도】 부꾸레슈띠(주민 152만 5,590명)

**정치** 로므니아는 4세기동안 또이기의 지배하에 있었다.

1878년 로씨야—또이기전쟁에서 또이기가 패배한후 로므니아는 또이기기반에서 벗어나 1881년에 왕국을 선포하였다.

1938년에 군주독재가 수립되였으며 1940년에 히틀러독일에 강점당하였다. 1944년 8월 23일 로므니아인민들은 공산당의 령도밑에 무장봉기를 일으켜 반동정권을 뒤엎고 쏘련군대와 함께 파쑈독일강점자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해방하였다. 1944년 10월 25일에는 인민군을 창건하였으며 1945년 3월 6일 첫인민민주주의정부를 수립하였다.

1947년 12월 30일에는 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45년 3월 20일 토지개혁법령을, 1948년 6월 11일에는 산업국유화법령을 발포하고 일련의 민주개혁을 실시하였다.

1962년 3월에는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였다.

1965년 8월 21일 새헌법을 채택하고 사회주의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대민족회의】 최고주권기관이며 임기는 4년, 1969년 3월에 선거되였다. 상임위원회는 국가쏘베트이다.

국가쏘베트 위원장 니꼴라에 챠우쉐쓰꾸(1969년 3월—)

【정부】 수상 이온 게오르게 마우레르(1969년 3월—), 외무상 꼬르넬리우 마네쓰꾸, 무역상 이온 이오니쩨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5월에 창건되였으며 1948년 2월 사회민주당과 합당하여 로동당으로 되였고 1965년 7월 로동당 제4차대회에서는 당 명칭을 다시 공산당으로 개칭하였다.

총비서 니꼴라에 챠우쉐쓰꾸

사회주의통일전선, 직업동맹, 공산주의청년동맹, 전국녀성리사회

【주요사건】 1970년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1970—1980년의 축산업발전에 대한 문제, 1971—1975년간의 물자원의 합리적리용과 관개문제들을 토의하였다.

3월 25일부터 27일에는 대민족회의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사회주의국가 기업소들에서의 로동조직과 규률에 관한 법안과 제품의 질을 보장할데 관한 법안을 비롯하여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7월 8일과 9일에 진행된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당과 정부의 대외정치활동정형과 그리고 농업생산조직에 관한 법안 및 기타 경제문제들, 홍수의 피해를 가시기 위한 문제 등 일련의 문제들을 심의하고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7월에 진행된 대민족회의 제6기 제4차회의에서는 농업부문사업과 생산조직에 관한 법령을 찬동하였다.

12월 16일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1971년도 인민경제발전계획초안과 국가예산초안, 5개년(1971—1975)계획에 관한 당중앙위원회 집행위원회 결정을 찬동하였다.

12월 17일과 18일 대민족회의 제6기 제5차회의는 1971년도 경제계획, 1971년도 국가예산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로므니아정부는 5월 1일 인도지나에 대한 미제의 새로운 침략확대를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11월 19일에는 로므니아가 민주월남에 경제 및 군사원조를 제공할데 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1970년에 로므니아는 쏘련(7월), 불가리아(11월), 뽈스까(11월)와 각각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조인하였다.

1970년에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챠우쉐쓰꾸가 프랑스(6월), 오지리(9월), 유고슬라비아(11월), 마로끄(12월)를 방문하였으며 유엔창립 25주년 행사와 관련하여 미국을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8년 11월 3일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았다.

1953년 10월 23일에는 경제및기술협정, 1956년 5월 12일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았다.

1970년 8월 1일 조선—로므니아 정부간 경제및과학기술협의위원회 창설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10월에는 1971—1975년 장기통상협정과 1971년 통상의정서가 조인되였다.

1970년 5월 로므니아에서 큰 물 피해가 있은것과 관련하여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와 재일본조선인 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는 로므니아피해민들에게 원호물자를 제공하였다.

1970년에 로므니아는 대민족회의및 국가쏘베트대표단(6월), 군사대표단(7월), 무역실무일군대표단(2월), 문화대표단(5월), 공청대표단(9월), 탁구선수단(11월)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최고인민회의대표단(2월), 로므니아전국소비협동조합 제5차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조선소비협동조합및조선협동무역대표단(4월), 농근맹대표단(3월), 정부경제대표단(7월)이 로므니아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주요자원은 원유, 천연가스, 금, 은, 석탄, 소금, 망간, 동, 몰리브덴, 보크사이트, 쇠돌 등이며 원유와 천연가스생산은 구라파에서 제2위이다.

주요농산물은 밀, 강냉이, 감자, 해바라기 등이다.

5개년계획기간에 1천 500개의 공업대상이 건설되여 1970년에 공업총생산액은 국민소득에서 60%를 차지하였으며 그중 기계제작공업은 25%를 차지하였다.

이 기간에 화학공업은 160%, 경공업은 172%, 식료공업은 50% 늘어났다.

또한 30만정보의 토지가 개량되였으며 관개면적은 74만정보로 증대되였다. 5개년계획의 마지막해인 1970년 공업생산액은 12% 장성하였다. 전국적으로 공업에서의 로동생산능률은 8.8% 늘었다. 1969년에 선철은 347만 7천t, 원유는 1천 324만 6천t 생산되였다. 1970년에 농업생산은 큰물의 피해로 계획수준보다 낮았으며 그 이전 해들의 수준보다 낮았다.

1970년에 밀, 보리는 339만 4천t, 강냉이는 639만 5천t, 해바라기는 76만 9천t, 사탕무우는 314만t, 감자는 170만t, 남새는 200만t, 과일과 포도는 200만t에 달하였다. 1970년도에 10만 5천 500정보가 관개되였다.

1971년 1월에 뿔난 집짐승은 521만 5천 400마리 있었는데 그중 소는 262만 3천 600마리였다. 대외무역총액은 전년에 비하여 12.7% 더 많았다.

국민소득은 7%, 근로자들의 실질수입은 8%늘었다. 주민들에게 판매된 상품의 총량은 1969년에 비하여 8.6% 더 많았다.

국가자금과 국가대부로 9만 9천세대의 살림집이 건설되였으며 농촌주민들은 자체자금으로 6만 2천세대의 집을 지었다.

1969—1970학년도에 각급학교수는 1만 6천 428개였고 학생수는 400만명

이였다. 그중 대학생수는 15만 2천명이였다.

1969년에 병원침대수는 16만 1천 977대였으며 의사수는 3만 1천여명에 달하였다.

【출판보도】 통신 아재르 쁘레쓰

신문 쓰끈떼아(공산당기관지), 로므니아, 리베러(국가쏘베트 및 내각기관지), 문까(직맹기관지), 쓰끈떼아 띠네레뜰루이(공청기관지)

잡지 뜨따 데 끌라씨(공산당리론잡지)

## 웽그리아

### (웽그리아인민공화국)

구라파동쪽에 있는 내륙국가이다. 이 나라 령토의 5분의 4이상이 평원과 언덕지대이다. 비교적 따뜻하고 건조한 대륙성기후이다. 년평균기온은 10~11°C, 년평균강우량은 600mm이다.

【면적】 9만 3,030km²

【인구】 1,034만 7,000명(1970년말)

주민의 절대다수가 웽그리아인(마쟈르족)이고 기타 로므니아인, 슬로벤스끼인, 쎄르비아인, 독일인 등이 산다.

언어는 웽그리아어이다.

【수도】 부다뻬슈뜨(주민 201만명)

**정 치** 9세기말에 아세아로부터 이동한 마쟈르족이 1001년에 웽그리아국가를 세웠다.

그후 웽그리아는 몽골과 또이기의 침략을 받고 그 기반밑에 있다가 1867년에는 오지리에 병합되였다.

제1차세계대전에서 오지리—웽그리아제국이 패망한후 웽그리아는 1918년에 부르죠아공화국으로 되였다. 위대한 사회주의 10월혁명의 영향을 받아 웽그리아로동계급은 1919년 3월 21일에 무장봉기를 일으키고 로동계급의 정권인 쏘베트공화국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음모책동으로 쏘베트정권은 전복되고 1919년 8월에 또다시 파쑈군사독재정권이 수립되였다.

웽그리아는 1944년에 히틀러독일에 강점당하였다가 1945년 4월 4일 해방되였다.

1949년 8월 18일 국가회의에서 채택된 헌법에 의하여 웽그리아는 인민공화국으로 되였다.

1956년 10월 전복된 국내착취계급잔여분자들이 미제의 부추김을 받아 반혁명도발사건을 일으켰으나 웽그리아인민들은 이를 진압하고 이해 11월에 로농혁명정부를 수립하였다.

【국가회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임기는 4년이다. 현국가회의는 1967년 3월에 선거되였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로숀찌 빨

【로농혁명정부】 수상 포크 예네(1967년 4월—), 외무상 뻬떼르 야노쉬, 국방상 찌네게 라이요쉬

【정당, 사회단체】 사회로동당 1956년 11월에 창건, 전신은 1948년 6월 공산당(1918년 11월 1일 창건)과 사회민주당이 합당하여 창건된 근로자당이다.

제1비서 까다르 야노쉬

애국인민전선, 직업동맹, 공산주의청년동맹, 녀성전국리사회

【주요사건】 1970년 2월에 진행된 웽그리아사회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국제정세의 절박한 문제들과 청년들 및 녀성들 속에서의 정치사업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으며 제10차당대회를 소집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3월 3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국가회의에서는 정부의 활동에 관한 문제와 기타 일련의 문제를 토의하였다.

4월 3일 히틀러파시스트기반으로부터의 웽그리아의 해방 25돐을 기념하는 경축회의가 부다뻬슈뜨에서 진행되였으며 4일 부다뻬슈뜨의 광장에서 열병식이 있었다.

4월 16일 웽그리아사회로동당 중앙위원회와 내각의 공동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지방쏘베트들의 활동과 당면한 5개년계획기간에 주택건설을 확장할데 대한 문제 등 일련의 문제를 토의하였다.

7월 15일과 16일에 걸쳐 진행된 웽그리아사회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절박한 국제정세문제들과 제4차 5개년계획(1971~1975년)의 기본지표와 제10차 당대회의 준비문제를 토의하였다.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된 국가회의에서는 제4차 5개년계획초안과 1966년 선거법을 수정할데 대한 법안을 채택하였다.

11월 23일부터 28일까지 웽그리아사회로동당 제10차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중앙위원회 보고, 규약개정에 대한 제의 등 의정에 상정된 문제들을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하였으며 105명의 새로운 지도기관성원들이 선거되였다. 당중앙위원회 제1차회의에서는 13명으로 구성된 정치국성원들과 7명으로 된 비서국성원들을 선거하였다.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국가회의에서는 1971년도 국가예산에 관한 법안을 토의하고 해당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웽그리아정부는 동남아세아에서 침략전쟁을 확대하고있는 미제를 규탄하여 5월 5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8년 11월 11일에 웽그리아는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았다. 1956년 6월 20일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았다.

1970년에 웽그리아로부터 교육문화대표단(4월), 애국인민전선 전국리사회및전국평화리사회대표단(5월), 직맹대표단(6월), 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단(6월), 과학자대표단(6월), 부다뻬슈뜨수도 쏘베트집행위원회대표단(7월), 로동자적위대 중앙남성합창단(4월), 제2종합축구선수단(6월)이 각각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웽그리아사회로동당 제10차대회에 참가할 조선로동당대표단(11월)과 그 밖에 녀성대표단(2월), 기자대표단(3월), 농근맹대표단(4월), 농업대표단(8월), 전자공학교원대표단(10월)이 웽그리아를 각각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주요자원은 보크사이트, 석탄, 망간, 철, 천연가스 등이며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강냉이 등이다. 조림면적은 전령토의 15.6%에 달한다.

3차 5개년계획기간(1966—1970년)에 공업생산은 33~35% 장성하였다.

이 기간 기계제작공업은 공업총생산의 약 26%를 차지하였다. 이 분야의 구조도 현저히 개선되여 자동차운수기재, 체신기재, 각종 기구들의 생산이 큰 자리를 차지하였다. 화학제품생산은 60%이상 늘어났으며 특히 화학비료생산은 2배이상 늘었다.

1970년 공업생산은 1969년보다 7% 장성하였다. 그중 기계제작공업과 화학공업이 빨리 발전하였다. 자동차와 기구류 생산이 현저히 늘었다. 석탄은 계획보다 100만t, 원유는 4만t, 천연가스는 3억m³ 더 생산하였다.

농업생산은 3차 5개년계획기간에 16~17% 늘었다.

1970년에는 불리한 기후조건과 큰물로하여 전해의 수준보다 5% 떨어졌다.

1970년에 돼지마리수는 전해보다 160만마리나 더 많은 730만마리에 달하였다.

대외무역은 이해에 3분의 2가 사회주의나라들과 진행되였다.

5개년계획기간에 살림집은 30만세대를 건설하였다.

1970년에 국민소득은 5% 늘어났으며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수입은 6~7%, 농민들의 수입은 7~8% 늘어

났다.

1970년에 의사수는 해방전에 비하여 2배이상 늘어나 약 2만 3천명에 달하였다. 병원침대수는 8만 4천대에 달하였다.

3차 5개년계획기간에 8년제 일반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수는 30%, 중등교육을 받은 학생수는 59%, 고등교육을 받은 학생수는 49% 각각 늘었다. 1970년에 30개의 대학, 45개의 고등기술학교가 있었다.

【출판보도】 통신 브따

신문 네프싸바드 샤크(사회로동당기관지), 네프싸바(직맹기관지), 마쟈르넴재뜨(애국인민전선기관지)

잡지 따르사달미 쎄믈레(사회로동당 정치리론잡지), 빠르뜨엘레뜨(사회로동당생활잡지)

## 벌가리아

### (벌가리아인민공화국)

발칸반도의 동남부에 있으며 로므니아, 토이기, 희랍, 유고슬라비아 등과 련결하고있다.

남부는 아열대성기후이다. 대부분의 지역은 대륙성기후이다.

【면적】 11만 1,030km²

【인구】 852만 4,000명(1970년 12월)

주민의 대부분이 남슬라브계의 벌가리아인이다.

언어는 벌가리아어이다.

【수도】 쏘피아(약 90만명)

**정 치** 벌가리아는 약 5세기동안 토이기봉건왕조의 통치하에 있었다. 로씨야—토이기전쟁(1877—1878년)에서 토이기가 패배한후 벌가리아는 토이기기반에서 해방되였다. 위대한 사회주의10월혁명의 영향과 벌가리아공산당의 지도밑에 국내에서는 혁명운동이 앙양되였다.

그리하여 1919년에 인민농민동맹정부가 수립되여 진보적인 개혁들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군사정변에 의하여 1923년 6월 9일 벌가리아에는 파쑈독재가 수립되였다. 제2차세계대전시기에는 파쑈독일에 강점당하였다. 벌가리아공산당은 강점자들을 반대하는 영웅적항쟁에 전체 애국력량을 조직동원하여 승리에로 이끌었다. 1944년 9월 9일 벌가리아인민들은 벌가리아공산당의 령도밑에 쏘련군대의 승리적인 진격의 유리한 환경속에서 전인민적폭동을 일으켜 파쑈군주제도를 뒤집어엎고 인민정부를 수립하였다.

1945년 11월 인민회의선거가 진행되였으며 1946년 9월 15일 벌가리아인민공화국이 선포되였다.

해방후 벌가리아정부는 1946년 3월 토지개혁법령을, 1947년 12월에는 산업국유화법령을 발포하고 민주개혁들을 실시하였다. 1947—1948년에 2개년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였다.

1966년 11월에 진행된 벌가리아공산당 제9차대회에서는 제5차 5개년계획(1966—1970년)을 제시하였다.

【인민회의】 최고주권기관이며 임기는 4년이다. 현 인민회의는 1966년 2월 27일에 선거되였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게오르기 뜨라이꼬브

【정부】 수상 또도르 쥡꼬브(1966년 3월—), 외무상 이완 바쉐브, 인민보위상 드. 드쥬로브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03년 이후 사회민주로동당으로 불리여오다가 1919년 5월 25일에 공산당으로 고치였다.

제1비서 또도르 쥡꼬브

조국전선, 직업동맹, 인민농민동맹, 지미뜨로브공산주의청년동맹, 민주녀성동맹

【주요사건】 1970년 3월 3일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앞으로 15~20년간에 생산력의 지역적배치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4월 27~28일까지 진행된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농업을 가일층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을 채택하였다.

10월 28일 진행된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벌가리아공산당 제10차대회를 1971년 4월 12일에 소집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벌가리아인민회의는 5월 무역항행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였으며 12월에는 1971년도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국가예산을 토의하고 찬동하였다.

벌가리아정부는 5월 7일 미제의 캄보쟈침략과 월남민주공화국에 대한 폭격재개를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벌가리아는 1948년 11월 29일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1955년 7월 25일 두 나라간에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1956년에는 무역협정을 각각 맺었다.

1970년 4월 벌가리아 아. 아인민들과의 련대성위원회는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자들에 대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탄압만행을 규탄하고 체포된 모든 애국자들을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쏘피아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각계 인민들이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들을 가지고 전문들을 채택하였다.

벌가리아 아. 아인민들과의 련대성위원회는 이 월간에 즈음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12월 29일 우리 나라와 벌가리아사이에 라지오 및 텔레비죤방송분야에서 협조할데 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1970년에 벌가리아로부터 조벌정부간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2차회의 벌가리아측대표단(10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그밖에 경제기술대표단(6월), 조국전선민족리사회대표단(6월), 지미뜨로브공청대표단(7월), 기자대표단(9월), 작곡가대표단(11월), 《마니요르》레스링선수단(7월), 국립인민가무단(6월)이 우리 나라를 각각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통상대표단(10월), 정부문화대표단(3월), 국가보험국대표단(5월), 보건대표단(6월), 농업대표단(10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대표단(12월), 남녀배구선수단(9월), 직맹대표단(9월), 녀성대표단(2월), 농업과학자대표단(9월), 무역상과 그 일행(9월), 영화대표단(12월)이 벌가리아를 각각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주요자원으로는 석탄, 쇠돌, 연, 아연, 동, 망간, 은, 금, 원유, 천연가스 등이 있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강냉이, 해바라기, 사탕무우, 담배, 포도, 과일, 남새 등이다.

산림면적은 약 360만정보인데 령토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1970년 첫 9개월동안에만도 전해 같은기간에 비하여 공업총생산액은 8.8%, 로동생산능률은 7% 늘었다.

이해에 기계제작공업제품 총생산량은 9.3% 늘었다.

5개년계획기간(1966—1970년)에 80개의 기계공장이 더 건설되여 1970년에 300여개의 기계공장들에서 25만명의 로동자들이 일하고있었다.

석유화학공업제품생산액은 1965년에 비하여 3배이상, 기타 화학공업제품은 2.7배로 늘어났다.

1970년현재 전력생산은 192억kWH에 달하였으며 인구 한사람당 2천300kWH 차례졌다.

농촌경리부문에서도 성과가 이룩되였다.

1970년현재 701개의 농업협동조합이 있었으며 150만명의 농업협동조합원과 국영농장로동자들이 일하고있었다. 농업협동조합과 국영농장들에는 1970년초에 9만대(15마력환산)의 뜨락또르와 1만 7천대의 콤바인 및 기타 수많은 농기계들이 있었다. 이해 농업생산물은 1939년보다 3.5배 장성하였다.

1970년에 관개면적은 100만정보에 달하였으며 정보당 밀은 2t 450kg, 해바라기는 1t 875kg 생산되였다.

돼지마리수는 250만마리였으며 닭, 오리고기도 많이 생산하였다.

또한 온실남새는 7만 2천t을 생산했는데 온실들의 면적은 607정보였다.

1970년에 학생총수는 약 170만명이였는데 그중 보통교육부문학교학생수는 29만명, 대학생수는 8만 7천명이였다. 대학들에 새로 입학한 학생은 1만 7천 500명이 였다.

1970—1971학년도부터 중등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추진시키고 있다.

1969년에 해방전 1944년에 비하여 병원침대수는 6배로, 종합진료소 및 진료소 수는 4배로 늘어났다.

【출판보도】 통신 브따

신문 라보뜨니체스꼬 젤로(공산당기관지), 오째체스뜨벤 프론트(인민회의 및 조국전선기관지), 뜨루드(직맹기관지), 나로드나믈라제쥬(공청기관지), 나로드나아르미아(인민군기관지)

잡지 노브 브레메(공산당리론잡지)

## 알바니아

### (알바니아인민공화국)

알바니아는 발칸반도의 서쪽 아드리아해에 면하고있으며 유고슬라비아, 희랍과 린접하고있다.

지중해성기후이다. 늦가을부터 이른봄까지 비가 많이 오며 여름은 무덥다. 여름의 평균기온은 25~26°C이고 1월의 평균기온은 6~8°C이다. 구라파에서 강우량이 제일 많은 나라에 속한다.

【면적】 2만 8,748km²

【인구】 200만명(1968년)

주민의 대부분은 알바니아인이며 그밖에 희랍인, 토이기인, 벌가리아인 등이 산다.

언어는 알바니아어이다.

【수도】 티라나(주민 17만명)

**정치** 알바니아는 15세기부터 5세기동안 토이기의 지배하에 있다가 1912년 11월 28일 독립하였다. 1927년에 알바니아는 이딸리아의 《보호령》으로 되였으며 1939년 4월에는 이딸리아에 완전히 강점당하였다. 1943년 7월 파쑈이딸리아가 2차대전에서 패망하자 1943년 9월 히틀러독일에 다시 강점당하였다. 공산당의 령도밑에 이딸리아 및 독일파시스트강점자들과 국내반역자들을 반대하여 전개한 알바니아인민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1944년 11월 29일 알바니아는 히틀러독일의 기반에서 해방되였으며 1946년 1월 11일 알바니아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46년 4월 14일에 헌법을 채택하였다. 해방후 알바니아는 제반 민주개혁을 실시하고 1949—1950년의 2개년계획을 거쳐 1951년부터는 5개년계획수행에 착수하였다.

1966년 11월에 진행된 알바니아 제5차당대회에서는 제4차 5개년계획(1966—1970년)에 관한 결정이 채택되였다.

1970년 6월 25일과 26일에 진행된 알바니아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의 현단계의 당조직사업을 개선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그것을 찬동하였다.

9월 20일 제7기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알바니아의 전지역에서 진행되였다. 선거자의 100%가 립후보자들에게 찬성투표를 하였다.

11월 20일 인민회의 제7기 제1차회의에서는 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를 새로 선거하고 새 정부를 구성하였으며 기타 일련의 법령들을 승인하였다.

알바니아정부는 4월 26일 인도지나인민들의 수뇌자회의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5월 4일에 정부는 캄보쟈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4월 30일부 성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2월 16일 알바니아정부는 월남에 대한 미제의 새로운 위협공갈행위와 관련하여 월남로동당과 정부가 발표한 12월 10일부 호소문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인민회의】 최고주권기관으로서 임기는 4년이다. 현 인민회의는 제7기로서 1970년 11월에 구성되였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하지 레쉬(1970년 11월에 재선)

【정부】 수상 메호메트 쉐후(1970년 11월에 재선), 외무상 네스띠 나쎄, 인민보위상 베키르 발루크

【정당, 사회단체】 알바니아로동당 1941년 11월 8일 공산당으로 창건되였다가 1948년 11월 제1차 당 대표대회에서 로동당으로 고침. 제1비서 엔베르 호쟈

직업동맹, 로동청년동맹, 녀성동맹, 민주주의전선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9년 5월 17일에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았다. 1955년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1956년 7월 1일에는 기술및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았다.

**경제, 사회** 지하자원으로는 피치, 석유, 크롬광, 동, 석탄, 천연가스, 철, 니켈 등이 있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강냉이, 해바라기, 사탕무우, 담배, 포도, 과일, 남새 등이다.

알바니아근로자들은 제4차 5개년계획(1966—1970년)을 공업생산액적으로 4년 7개월동안에 해냈다. 특히 건설계획은 4년 4개월동안에 완수하였다.

계획기간 티라나뜨락또르부속품공장, 질소비료공장, 베라뜨방직종합공장을 비롯하여 120여개의 중요공업대상들이 건설되였다. 기계제작공업앞에 나선 생산과제도 완수 및 초과완수되였다. 1970년 총생산액은 1938년의 125배에 달하였다. 석유생산량은 1969년에 1938년에 비하여 12배나 더 늘어나 해방전에 생산한 석유총량을 약 8개월 동안에 생산할수 있게되였다.

5개년계획기간에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협동조합에 들어감으로써 농업생산을 추동하였다. 농업협동조합들이 알곡에 대한 수요를 자체 충족시킬수 있게 되였으며 1970년에 1965년보다 약 2배나 더 많은 알곡을 도시근로자들에게 보냈다. 1969년에 남새생산은 1938년에 비해서 3배로, 과일생산은 4.8배로 각각 장성하였다. 계획기간에 또한 약 10만정보의 처녀지가 개간되였으며 관개면적은 경지면적의 50%를 차지하였다. 이해에 뜨락또르대수는 1955년보다 37% 더 늘어났으며 화학비료시비량은 같은기간에 8배로 늘었다. 전국의 2천 546개의 촌중 2천 422개의 촌에 전기가 들어갔다.

1970년에 고등의학교육을 받은 보건일군수는 1938년에 비하여 2배로 늘어났다. 1970년에 학생수는 62만 2천명에 달하였으며 8년제학교는 1천 329개에 달하였다.

【출판보도】 통신 아따아

신문 제리 이 포풀리트(로동당기관지), 바슈키미(민주주의전선 및 내각기관지), 제리 이 리니스(로동청년동맹기관지)

잡지 루가 에 빠르띠쎄 (로동당리론잡지)

# 독 일
##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독일은 구라파의 중앙에 자리잡고있으며 북쪽은 발트해에 면하고있다. 전반적으로 대륙성기후이나 바다를 끼고있어 해양성기후의 영향도 받는다. 년평균기온은 약 7°C, 년평균강우량은 600~700mm이다.

【면적】 10만 8,174km²

【인구】 1,704만 926명(1971년 1월 1일)

주민의 대부분은 게르만족이다.

언어는 독일어이다.

【수도】 베를린(주민 107만 7,000명)

**정 치** 1871년에 독일제국이 수립되였다. 독일은 1914년에 식민지재분할을 위한 제1차세계대전을 일으켰다가 패망하였다. 제1차대전후 독일군국주의자들의 파쑈적탄압이 강화되였으나 로동계급의 혁명적진출은 더욱 강화되였다.

1918년 가을에 이르러 독일에서는 11월폭동이 폭발하였다. 11월초 킬항구에 집결되여있던 독일함대 해병들의 폭동을 비롯하여 함부르크, 라이프찌히 및 기타 많은 도시들에서 대중적폭동이 련이어 일어났으며 11월 9일에는 반동적군주제도가 전복되고 로동자병사대의원쏘베트가 창설되였다.

그러나 당시 로동계급은 혁명적당을 가지지 못한데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지 못하였으며 11월혁명을 사회주의혁명으로까지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11월혁명이 실패한후 독일로동계급은 1918년 12월 30일 자기의 전위대인 공산당을 창건하였다.

1933년에 집권한 히틀러는 파쑈독재를 수립하고 1936—1937년에 일본, 이딸리아와 《반공협정》을 맺고 1939년에 제2차세계대전을 일으켰다. 1941년 6월 쏘련에 대한 불의의 공격을 시작하였으나 쏘련군대의 결정적인 반격에 의하여 1945년 5월 9일 히틀러독일은 패망하였다.

전후 독일은 쏘, 미, 영, 프랑스 등 4개국에 점령되였으며 독일의 최고주권은 4개국 대표로 구성된 대독관리리사회에 속하게 되였다.

1945년 포츠담협정은 독일에서 파쑈분자들과 군국주의자들을 청산하고 독일을 민주화하며 경제적 및 정치적통일을 보장하며 강화조약을 체결할데 대하여 규정하였다. 그러나 미, 영,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은 포츠담협정을 뒤엎고 1949년 9월 서독에서 단독국가를 조작하고 재군국화하였다.

동부독일인민들은 독일사회통일당의 령도밑에 나라의 동부에서 파시즘의 잔재를 숙청하고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독일분렬책동과 서독재군국화를 반대하여 완강히 투쟁하였다.

1949년 5월 30일 동부독일은 첫헌법을 채택하였으며 10월 7일에는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민주독일은 1946—1949년에 토지개혁, 산업국유화를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을 실시하였으며 1949년부터 인민경제의 계획적발전에 착수하였다.

1949년 헌법이 폐지되고 1968년 4월 9일 새 헌법이 채택되였다.

【인민의원】 최고주권기관이다. 1967년 7월 2일에 선거되였다.

국가쏘베트 위원장 발테르 울브리히트

【정부】 수상 윌리 슈토프(1967년 7월—), 외무상 오토 윈체르, 민족보위상 하인쯔 호프만

【정당, 사회단체】 독일사회통일당 1946년 4월 21일 민주독일에서 독일공산당(1918년 12월 30일 창건)과 독일사회민주당이 합당되여 창건되였다.

제1비서 발테르 울브리히트

민주농민당, 기독교민주동맹, 민족민주당, 민주주의독일민족전선, 자유독일직업총동맹, 자유독일청년동맹, 민주녀성동맹

【주요사건】 1970년 4월 16일 진행된 국가쏘베트회의에서는 발전된 사회주의사회체계와 그의 주요고리인 경제체계를 건설할데 대한 문제들과 화학공업의 과학적조직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5월 16일 인민의원회의에서는 자연을 합리적으로 리용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한 일련의 문제들을 토의하고 해당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11월 19일 진행된 국가쏘베트회의에서는 의학발전에서의 과학연구발전문제, 독자적인 정치단위인 서부베를린문제를 포함한 일련의 대외정책적문제들을 토의하였다.

9월 16일 인민의원회의에서는 교육발전,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문제와 민간방위법 및 기타 일련의 문제를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과 법안을 채택하였다.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독일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와르샤와정치협상위원회회의 결과에 관한 문제, 1971년도 경제계획초안 및 당증교환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고 찬동하였다.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인민의원회의에서는 1971년도 경제계획과 국가예산에 관한 문제 등을 토의하고 해당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1970년 1월 19일 국가쏘베트 위원장 발테르 울브리히트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독일과 서부독일 간의 《평등한 관계를 수립할데 관한 조약초안》 및 기타 문제들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여 서부독일당국의 《전독일유일대표권》에 대한 야망, 온갖 형태의 《할슈타인주의》를 포기할것을 요구하였다.

2월 16일 내각수상 윌리 슈토프는 두 독일간의 정상적인 관계수립문제토의와 관련하여 서부독일당국에 서한을 보냈다.

4월 17일 외무성은 서부독일 반동두목 브란트란놈이 이른바《공식방문》이라는 명목으로 자립적인 정치단위인 서부베를린에 기여들려는데 항의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7월 31일 독일민주주의공화국정부는 포츠담협정체결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구라파와 세계의 평화와 인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서독군국주의자들을 준엄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민주독일정부는 5월 2일 캄보쟈에 대한 대규모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한 미제를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9년 11월 7일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았다.

1955년 1월 27일 두 나라간에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1956년 6월 12일에는 경제및문화협정을 맺았다.

1970년 7월 21일 자유독일직업총동맹의 주최로 베를린시민들은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과의 련대성군중집회를 가지고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이 당장 물러갈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 월간에 즈음하여 민주독일의 여러기관, 군부대들에서도 련대성집회들이 진행되였다.

12월 라이프찌히에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의 성과적진행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 사진전람회가 진행되였다.

1970년에 민주독일에서는 인민의원대표단(5월), 외무성국무비서와 그 일행(7월), 녀성대표단(5월), 원양선박회사대표단(10월), 경제실무대표단(11월), 롱구및유술선수단(11월), 녀자배구선수단(3월), 청소년남녀체조선수단(5월)이 우리 나라를 각각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농근맹대표단(4월), 기자동맹대표단(5월)이 민주독일을 각각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주요자원으로는 갈탄, 카리염, 우라니움 등이 있으며 유리와 도자기원료

도 많다.

주요농산물은 밀, 감자, 사탕무우, 유지작물 등이다.

주요공업부문은 화학, 기계, 광학정밀기계, 금속가공, 섬유, 도자기, 유리, 식료품, 팔프 공업이다.

1965년부터 1970년까지 국민소득은 840억마르크로부터 1천 80억 마르크로 늘었다.

5개년계획(1966—1970년)기간에 공업생산은 37%, 그중 전기공학과 전자공학제품 및 기구제작생산액은 58%, 화학공업은 50%, 정밀기계, 광학기계제품은 81%, 농기계제품은 63% 각각 높아졌다.

1970년에 공업제품생산은 1969년에 비하여 6.4%로 늘었다. 이것은 1965년 한해동안의 공업제품생산을 8개월 반동안에 생산한것으로 된다.

1970년에 공업기업소들에는 18만명의 전문가들이 일하고있었다.

1965—1969년까지 기간에 알곡생산량은 정보당 평균 30%, 그중 밀은 36% 늘었다.

1970년에 농업부문에서는 15만여대의 뜨락또르와 각종 수확콤바인이 작업하였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40% 이상이 농산기사, 축산기사, 기계공들이였다.

대외통상류통액은 1966—1970년 기간에 60% 장성하였다.

1970년에 로동자, 사무원들의 수입은 전년에 비하여 3.2% 늘었으며 이들은 6만 5천 800세대의 새 살림집을 받았다.

의료기관수는 1969년에 3천 573개였다.

1970년에 각급학교 학생수는 250만명이였다. 그중 새로 입학한 학생수는 30만명이였으며 대학생은 3만명이였다. 대학수는 55개였다. 일하면서 배우는 기능공강습소와 각급 야간학교에서 70여만의 근로자들이 배우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아데엔

신문 노이에스 도이췰란트(사회통일당기관지), 쏘씨알리스티쉐 데모크라티(국가쏘베트 및 내각기관지), 트리뷰네(자유독일직업총동맹기관지)

잡지 아인하이트(사회통일당리론잡지), 노이에르웨그(사회통일당생활잡지)

## 독 일

### (독일련방공화국)

**【면적】** 24만 8,000km²

**【인구】** 5,800만명(1968년 6월)

주민은 대부분이 게르만족이다. 공용어는 독일어이다.

**【수도】** 본(14만 3,500명)

**정치**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일본과 서부독일에서는 인류에게 그처럼 많은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준 군국주의세력이 빨리 되살아나고있으며 일본군국주의와 서부독일군국주의는 아세아와 구라파에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자라고있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단행본, 69페지)

1949년 9월 미, 영,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이 서부독일에 단독국가를 조작하였다.

미제는 전후 서독을 사회주의나라들과 기타 평화애호국가들을 반대하는 《돌격대》로 만들기 위하여 포츠담협정 등 국제협약들을 비법적으로 파기하고 서독군국주의자들을 급속히 재무장시키는 길에 들어섰다. 미제는 서독침략군의 핵무장화를 위하여 많은 무기와 원자원료를 서독에 넘겨주는 한편 그곳에 근 30개의 침략적군사기지를 설치하고 25만에 달하는 저들의 침략군을 배치하였다. 미제의 공공연한 비호밑에 되살아난 서독군국주의자들은 각종 악법과 파쑈단체들을 조작하고 정치, 군사, 경제의 모든 령역을 틀어쥐였으며 1956년에 조직된 《훈련부대》를 바탕으로 서독《련방군》을 조작하여 그 수를 50만명으로 늘였다. 서독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적극 복무하면서 제놈들의 복수주의적 팽창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부베를린을 비법적으로 장악하고 독일민주주의공화국과 기타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과 파괴활동의 전초기지로 삼고있다. 놈들은 또한 오데르—나이쎄선 등의 변경을 주장하면서 히틀러도당이 강탈한 체스꼬슬로벤스꼬의 서부지역을 저들의 령토라고 떠들어대고있다. 특히 이놈들은 남조선의 박정희괴뢰도당과 공모하여 서독에 살고있는 조선사람들을 살인재판에 넘기였으며 박정희악당이 팔아넘긴 남조선로동자들을 억압착취하고있다.

또한 《원조》를 미끼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일련의 나라들에 침투하는 한편 이스라엘의 유태복고주의자들에게 군사《원조》를 주면서 아랍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말살하려고 날뛰고있다.

**【국회】** 련방참의원(상원)과 련방의회(하원)로 구성되여 있다.

**【정부】** 수상 윌리 브란트(1969년 10월—)

외상 쉘, 국방상 헬무트 슈미트

**【정당, 사회단체】** 독일공산당 1948년 4월창건, 제1비서 막스 라이만, 1956년 8월 비법화, 독일의 공산당 1968년 9월 창건, 위원장 쿠르트 바흐만. 사회민주당(집권당), 기독교민주동맹, 자유민주당(집권당), 전독일당, 국가민주당, 독일평화동맹, 독일로조총련맹, 서독사회주의청년동맹

**【주요사건】** 미제상전의 지시에 따라 서독군국주의자들은 1970년에도 전해보다 7%나 많은 203억마르크를 군사비로 지출함으로써 무력을 강화하고 현대화하는 등 침략과 전쟁 준비에 날뛰였다. 또한 미제의 세균무기전쟁준비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저들도 세균무기를 생산축적하여 그것으로 무력을 장비하는 책동을 감행하였다. 5월에 《국방백서》라는 전쟁준비문건을 발표한데 뒤이어 7월에는 신형군용기생산을 위한 예산을 승인하였으며 프랑스제국주의자들로부터 쾌속정 20척을 사고 3월과 10월에는 미제와 합류하여 동부국경 일대에서 군사연습소동을 벌렸다.

서독군국주의자들은 또한 침략적군사블럭인 나토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화란, 벨지끄, 노르웨이 등 나토성원국들에 무기를 공급하고 2월에는 이딸리아군벌들에 200대의 땅크를 넘겨주기로 결정하였으며 그밖에 미제의 전쟁정책에 충실히 복무하는 타이, 희랍, 남아프리카, 이스라엘 등에 세력을 뻗치기 위하여 많은 무기를 공급하는 동시에 공동으로 무기를 생산하는 협정들을 맺았다.

브란트도당은 저들의 복수주의적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공모결탁하여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 놈들의 책동과 《일치》시키려고 발악하였다.

4월에 미제의 호출을 받은 브란트도당은 미제와 침략적군사기구인 나토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모의하고 미제침략군무력의 서독계속주둔을 담보받았다.

1월과 7월에는 프랑스제국주의자들과 만나 구라파《방위》문제를 토의하고 핵공업문제에서의 《협조》를 약속하였으며 3월에는 영제국주의자들과 서독주둔 영침략군의 증대와 나토의 핵무력을 강화할데 대하여 공모하였다.

한편 서독군국주의자들은 영제국주의자들의 힘을 빌어 프랑스의 세력을 꺾고 서구라파에서 지도적지위를 획득하려는 음흉한 목적밑에 영국의 《구라파공동시장》 가입을 적극 추동하였다.

11월에는 이딸리아반동두목들과 구라

과 《통합》문제를 모의하였다. 또한 브란트도당은 5월 동남아세아일대를 싸다니면서 미제의 강보자침략을 《불가피한것》이라고 지껄이면서 미제의 인도지나침략전쟁을 적극 지지하여나섰다.

1970년에 브란트도당은 중동과 아프리카에 대한 침투를 강화하는 한편 이 지역 신생독립국가들을 우경에로 끌려세우기 위하여 우간다를 비롯한 일련의 아프리카나라들을 싸다니였다. 리비아에 들려서는 마치도 서독이 중동문제에서 아랍인민들의 편에 서있는듯이 지껄이면서 아랍국가들과의 관계회복을 시도하였다. 놈들은 11월에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의 기네침공을 지지하는 한편 기네공화국정부 전복음모에 참가하였으며 이보다 앞서 4월에는 수단을 반대하는 음모를 꾸미고 수단내부에 정치적불안을 조성하는 등 악랄한 행동을 감행하였다. 특히 서독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괴뢰도당과 결탁하여 남조선광부들과 간호원들을 끌어다가 고혈을 짜내고있으며 5월에는 남조선에 기여들어 괴뢰들에게 경제《협력》을 약속하고 그것이 마치도 세계평화에 이바지한다는듯이 떠벌였다.

브란트도당은 2월에 인도, 타이, 싱가포르, 5월에는 남조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을 싸다니면서 동시에 《원조》협정 등을 맺았다. 9월에는 라오스반동들과 경제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미제의 인도지나침략전쟁에 대한 경제적협조를 표시하였다.

전후 1969년까지 서독자본의 해외투자는 176억마르크에 달하였다.

서독근로자들은 서독군국주의의 위험성과 악랄성을 폭로규탄하며 놈들을 반대하여 더욱더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였다. 2월에는 이스라엘 외상에반이란놈의 서독방문을 반대하여 본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항의시위를 벌렸다. 5월에는 미제의 캄보쟈침략을 반대하여 함부르그와 본을 비롯한 각지에서 청년학생들의 시위투쟁이 벌어졌다. 그들은 《닉슨은 파쑈분자》라고 웨치면서 서독군국주의자들의 미제에 대한 협력을 규탄하였다. 뮌흰에서는 격분한 군중들이 《미국회관》의 유리창을 마사버렸다. 3월에는 바바리아지방주민들이 미제와 서독군국주의자들의 군사연습을 반대항의하여 시위를 단행하였다.

1970년 9월 9일부터 16일까지 서독사회주의청년동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친선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나치스잔당은 미제와 결탁하여 경제의 군사화를 다그치고있다. 이자들은 미국군수독점체와 공동으로 살인무기를 생산하고있으며 2월에는 이딸리아독점자본과 합작하여 땅크를 생산하기로 약속하였다. 특히 미제의 서독경제에 대한 침투는 날로 강화되고있는데 서독의 자동차, 석유화학, 전기설비 등 주요공업을 지배하고있다. 서독독점체들은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촉진하고있다. 실례로《만네스만》등 3개회사는 서독야금공업의 80%를 장악하고있다.

1970년에 서독의 경제에서는 침체와 후퇴현상이 격화되였으며 강철공업은 주문이 전년보다 25%나 감소됨으로써 1966년이래의 최악의 쇠퇴를 겪었다. 자동차생산도 현저히 감소되였다. 브란트반동정권의 반인민적정책으로 농업도 계속 위기에 허덕이고있으며 1969—1970년에 농업로동자들의 수는 15만이나 감소되여 도시의 로동력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

중소기업들의 파산은 급격히 증가하고있는데 1970년까지의 6년간에 4만 2천개의 중소기업이 파산되였으며 특히 식료품판매령역에서 사태는 더욱 엄중하였다. 실업자수는 이러한 형편을 반영하여 계속 증가하고있는데 10월에는 전년 10월보다 2.8%나 늘어났다.

1970년에 물가는 축소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7.5%나 올라갔으며 주택난으로하여 80만명의 근로자들이 허물어져가는 오막살이에서 생명을 겨우 유지하고있었다. 썩어빠진 자본주의생활양식이 판을 치고있으며 그 결과 범죄건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내상이란놈도 《1970년은 범죄사건이 기록적으로 많이 늘어난 해였다.》고 실토하였다.

【출판보도】 통신 데빠아

신문 프라이에스 볼크(독일공산당기관지), 디 벨트, 프랑크푸르테르 알게마이네 짜이퉁, 데트 쿠리에르, 프랑크 푸르테르 룬트샤우

## 오지리

(오지리공화국)

구라파대륙의 중앙에 있는 내륙국이다. 남부지방의 기후는 내륙성기후에 가까우며 북부산악지대의 년평균기온은 7~8°C이다.

【면적】 8만 3,849km²

【인구】 744만 3,800명(1971년 5월)

대부분이 독일인이고 그외 슬라브인, 마잘인, 이딸리아인이 있다.

공용어는 독일어이다.

【수도】 윈 (주민 165만 6,100명)

**정 치** 1867년에 형성된 오토만제국이 제1차대전에서 패배하여 무너지고 1918년에 오지리공화국이 선포되였다.

1919년 《윈조약》으로 국경선이 확정되였다. 1939년 3월 히틀러독일에 강점되였다가 1945년에 해방되여 쏘, 미, 영, 프랑스 4개국의 공동관리하에 있었다.

1955년 5월 15일 대오국가조약이 조인되였고 같은해 10월 국회는 오지리의 《영구중립》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오지리반동지배층은 이에 배치되게 1956년에는 오지리경제를 미제에 예속시키는 《우호, 통상 및 항해조약》을 맺았으며 같은해 4월에는 침략적인 나토와 련결된 《구라파리사회》에 가담하였다. 오지리는 동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 미제와 서독을 비롯한 서방제국주의자들의 간첩소굴로 되고있다.

【국회】 련방의회(상원)와 국민의회(하원)의 량원제이다.

【대통령】 프란쯔 요나스(1965년 5월 23일—)

【정부】 수상 부르노 크라이스키(1970년 4월—), 외무상 르돌프 키르쉬라게르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8년 11월에 창건, 위원장 프란쯔 무리. 사회당(집권당), 인민당, 자유당, 국가민주당, 로조련맹, 공산주의청년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0년 11월 오지리는 우리 나라와 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오지리에는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가 설치되였다.

1970년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오지리공산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오지리공산당대표단은 조선로동당대표단과 회담을 진행하고 8월 5일 공동보도를 발표하였다.

공동보도에서 량대표단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세계도처에서 침략책동을 강화하고있는 조건에서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 모든 반제력량이 힘을 합쳐 반제반미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경제, 사회** 지하자원은 갈탄, 철, 마그네사이트, 흑연, 석유 등이며 공업에서는 흑색금속, 기계제작 및 화학공업, 원유채취공업이 위주로 되고있다. 그러나 오지리는 공업발전에 필요한 자연부원을 자기 나라에 가지고있지 못한 조건에서 주로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여 외국시장들에서 실현하는 방법으로 경제를 지탱해나가

고있다.

그런데 최근년간 오지리는 주요한 무역대상국인 이딸리아와 서독을 비롯한 《구라파공동시장》성원국들의 관세장벽으로 상품실현에 커다란 난관을 겪고있다.

농촌경리에서는 축산업이 큰 자리를 차지한다. 주요농산물은 밀, 쌀보리, 감자, 사탕무우 등이다.

생활필수품값은 1970년 5월현재 전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4.2% 올랐다. 고기값을 비롯하여 일부 식료품값은 같은 기간에 10%나 올랐다. 실업자수는 1970년 12월말현재 7만여명이다. 자동차사고로 이해에 7만 2천 200명이 죽거나 부상당하였다.

【출판보도】 통신 에이피에이

신문 폴크스 슈팀메(공산당기관지), 윈 짜이퉁(정부기관지)

## 핀란드

### (핀란드공화국)

북구라파의 스칸디나비아반도의 동쪽에 있다. 호수가 6만여개나 있다. 기후는 대서양과 발픽해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온화한 편이다. 겨울이 길고 눈이 많이 내린다. 가장 추운 2월의 기온은 북부에서 평하 11~18°C이며 남부에서 평하 4~8C°이다. 7~8월에는 낮이 계속된다. 년강우량은 400~600mm이다.

【면적】 33만 7,009km²

【인구】 469만 7,000명(1970년)

핀란드족이 90%, 스웨리예족이 9%이며 그밖에 로씨야인, 독일인들이 산다.

공용어는 핀란드어와 스웨리예어이다.

【수도】 헬싱키 (주민 53만 1,700명)

**정 치** 12세기후반기부터 스웨리예의 점령하에 있었으며 1809년에는 짜리로씨야에 예속되였다.

사회주의 10월혁명의 결과 핀란드는 짜리로씨야의 예속에서 벗어나 1917년 12월 6일 독립하였다. 1939년 11월에 핀란드는 독일파시스트의 사촉을 받아 쏘련을 침공하였다가 패배하고 1940년에 쏘련과 《평화조약》을 맺었다. 1941년 6월 핀란드는 파쑈독일의 편에 서서 쏘련을 재차 침공하였다가 패배하였다.

1947년 2월 쏘련과 《강화조약》을 체결하고 1948년에는 우호, 협조및호상원조조약을 맺았다. 1970년에 다시 이 조약을 25년간 연장하였다.

1970년 3월 국회선거결과 인민민주주의전선(공산당의통일전선조직), 중앙당, 사회민주당의 련립정부가 수립되였다.

핀란드는 어떤 정치, 경제, 군사적 블럭에도 참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모든 나라들과 경제, 문화 관계를 발전시키고있다.

핀란드인민들은 미제의 월남침략전쟁을 규탄하며 미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월남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핀란드는 《북구라파에 핵무기없는 지대창설》을 발기하고 국제적지지를 호소하고있다.

【국회】 일원제이다.

【대통령】 우르호 케코넨(1956년—)

【정부】 수상 아호티 카랴라이넨(1970년 7월—), 외상 베이네 레스키넨, 국방상 크리스티나 케스트린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8년 9월 29일 창건, 위원장 아아르네 사아리넨. 사회민주당, 중앙당, 보수당, 자유당, 스웨리예인인민당, 농민당, 로조중앙련맹, 민주청년동맹, 민주녀성동맹, 핀란드조선협회 1967년 결성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10월 우리 나라와 핀란드정부간의 무역협정이 체결되였다.

1970년 9월 15일 헬싱키에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가 개설되였다.

1970년 11월 3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을 핀란드 신문 《소시알 데모크라티》가 소개하였다.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7월 2일 헬싱키에서 민주청년동맹, 전국학생동맹, 핀란드조선협회의 공동주최로 집회를 열고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키려고 책동하고있는 미제를 규탄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였다.

5월 10일부터 15일까지 조선로동당대표단이 핀란드를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조선로동당대표단은 핀란드공산당대표단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공동보도를 발표하였다.

공동보도에서 두 나라 당대표단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 그리고 세계 모든 반제혁명력량이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7월 19일 조선청년학생대표단이 핀란드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목재가공공업 및 제지공업이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목재가공공업은 공업총생산량의 3분의 1, 국민소득의 70%, 수출의 85% 이상을 차지한다. 기계공업을 비롯한 금속, 조선 공업도 발전하고있다.

농촌경리에서는 축산업이 위주로 되고있으며 식량은 자급자족하지 못한다.

주요수출품은 목재가공제품, 펄프, 선박 등이다.

경지면적의 4분의 3은 사료작물과 목초재배지로 리용되고있다. 주민의 거의 30%가 농업에 의존하고있으나 농산물의 비중은 국민총생산액에서 거우 8.2% (1969년)에 불과하다.

농촌에는 14만대의 뜨락또르와 2만대의 종합수확기가 있다.

산림자원은 농민들의 주요한 부업원천으로 되고있다.

4개의 종합대학과 10개의 대학들이 있으며 여기에서는 3만 2천 600여명의 대학생들이 공부하고있다. 이밖에 83개의 인민대학(1~2년제)에서 6천여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있다.

보건분야에는 4천 500명의 의사가 있으며 병원침대수는 6만여대이다.

【출판보도】 통신 수오멘 티에로로이미스로(에스티티)

신문 칸산 우우티세트(공산당기관지), 소시알 데모크라티 (사회민주당기관지), 수오멘마(중앙당기관지)

## 프랑스

### (프랑스공화국)

프랑스는 구라파주의 서부에 있다. 기후는 대체로 따뜻하다. 동북부는 더위의 차이가 심하며 남부의 지중해연안은 아열대성 기후이다. 평균기온은 여름에 16~17°C이며 겨울에는 2~8°C이다. 강우량은 년평균 500~600mm이다.

【면적】 55만 1,208km²

【인구】 5,100만명(1971년 1월)

주민의 대부분은 켈트족과 프랑크부르군족으로 구성된 프랑스인이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수도】 빠리(주민 850만명)

**정 치** 프랑스는 14세기에 통일된 민족국가로 되였다. 1789년 부르죠아혁명에 의하여 군주제도가 철페되고 1791년에 부르죠아정권이 수립되였다. 1871년 3월 18일 빠리로동계급은 혁명적폭력으로 세계력사에서 처음으로 부패한 자본가계급의 정권을 때려부시고 새로운 로동계급의 정권인 빠리꼼뮨을 선포하였다.

꼼뮨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실시하

였으며 사회경제적인 변혁을 이룩하고 근로인민의 물질문화적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콤뮨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웠으나 자체의 불철저성과 반혁명세력의 발악적인 무장공격으로 말미암아 72일밖에 존재하지 못하였다.

19세기말엽 제국주의단계에 들어선 프랑스는 1881년에 뛰니지를 강점하고 1883년에는 인도지나를 침범하였다. 1918~1920년에는 쏘베트로씨야에 대한 무장간섭에 가담하였다. 1938년에는 독일파시즘을 재생시키기 위한 《뮨헨협정》에 조인함으로써 히틀러의 전쟁도발책동을 추진시켰다.

제2차대전시에 프랑스반동지배층은 히틀러도배에 투항하였다. 1944년 프랑스는 파쑈독일의 강점에서 해방되였다. 2차대전후 반동지배층은 미제의 이른바《마샬안》을 접수하고 침략적군사기구들인 나토와 세아토에 가담하였다. 1950년에는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에 참가하였다. 1954년에는 서독군국주의를 재무장시키기 위한 《빠리협정》에 조인하였다. 1957년에는 서독군국주의자들과 함께 구라파에서 미영제국주의세력을 구축하고 저들의 령도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배타적인 《구라파공동시장》을 조작하였다.

1958년 12월 선거에서 《제5공화국》의 첫대통령으로 된 드골은 대내적으로는 인민들에 대한 수탈과 탄압 정책을 강화하면서 구라파지역에서 미제의 세력을 배제하며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구라파인에 의한 구라파건설》을 대외정책에서의 기본원칙으로 내놓고 이른바《독자적인 로선》을 견지하였다. 1967년 미제의 침략적군사기구인 나토의 군사통합사령부에서 프랑스군대를 철수하였으며 프랑스땅에 있던 나토산하기구들을 철수시켰다. 영국의 《구라파공동시장》가입을 계속 완강하게 거부하여 왔다.

【국회】 국민의회(하원)와 참의원(상원)의 량원제이다.

【대통령】 죠르쥬 퐁피듀(1969년 6월—)

【정부】 수상 샤방 델마(1969년 6월—), 외상 모리스 슈만, 국방상 미쉘 드브레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12월 29일에 창건, 총비서 발데크 로쉐. 1970년 2월 4~8일 프랑스공산당 제19차대회 진행. 제5공화국옹호민주주의자동맹(집권당), 사회당, 통일사회당, 급진사회당(급진파및급진사회주의자공화당), 인민공화당, 민주주의및사회주의좌익력량련맹(1965년 9월 10일 사회당, 급진당, 공화협사회등 3개 당으로 구성), 공산주의청년운동, 녀성동맹, 프랑스조선친선협회

【주요사건】 퐁피듀가 집권한 이후 프랑스반동정부는 인민들에 대한 수탈정책과 탄압책동을 강화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1970년에도 프랑스에서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들의 투쟁이 세차게 일어났다. 1970년 2월 로타링크지방에 있는 야금공장 9만5천명 로동자들의 완강한 투쟁을 비롯하여 8월에는 《쏘시에떼 갈리까》회사산하 공장로동자들이 임금을 올릴데 대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벌린 1주일동안의 파업투쟁, 12월 3일부터 시작된 전국 부두로동자들의 투쟁 등 큰 규모의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특히 프랑스전국의 부두로동자들의 파업투쟁은 모든 항구들을 마비상태에 빠뜨렸다. 농민들도 정부의 수탈정책을 반대하여 투쟁에 일떠섰다. 12월에는 약 5만명의 농민들이 생활처지의 개선을 요구하여 완강한 투쟁을 벌렸다.

이해에 프랑스전국에서 힘차게 전개된 로동운동은 미제의 월남침략전쟁을 반대하는 프랑스 전체 인민들의 강력한 련대성운동과 합류되여 하나의 거세찬 투쟁의 흐름을 이루었다. 5월 10일 빠리교외의 반세느공원에서는 미제의 월남침략전쟁에 항의하는 반전집회가 프랑스 전국에서 온 2만명의 학생, 로동자들의 참가하에 열렸다. 1970년 2월 퐁피듀는 《대외정책에서 자기의 독자적인 립장을 고수해나갈것》이라고 하면서 드골의 정책을 답습할것을 확언하였다. 1970년에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은 중동지역에서 미제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이 지역을 제놈들의 손아귀에 넣기 위하여 지중해연안 아랍나라들에 더욱 접근하였다.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은 중동문제의 정치적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이스라엘침략군이 1967년 중근동전쟁에서 강점한 지역에서 물러나야한다고 하면서 중근동 전쟁이래 금지하고있던 아랍나라들에 대한 무기수출을 일부 다시 시작하였다.

1월 리비아에 100대의 《미라쥬》제트기를 팔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라크에 200톤의 군수물자를 판매하였다.

2월 워싱톤에서 있은 퐁피듀—닉슨회담에서 퐁피듀는 리비아에 대한 《미라쥬》전투기 판매계약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가하려는 닉슨도당의 야망을 꺾어버렸다. 또한 미제의 인도지나침략전쟁에도 지지를 주지않았었다. 이리하여 퐁피듀와 닉슨도당간에는 중근동문제를 비롯한 일련의 침략정책에서 아무런 《의견일치》도 보지못하였다.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은 또한 서구라파에서 지배적지위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라파공동시장》각료리사회에서도 영국의 《구라파공동시장》가입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7월에는 서독군국주의자들과 핵무기생산분야에서 호상 《협조》할데 대하여 공모하였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7년 4월 12일 우리 나라와 무역협정을 맺았다. 1968년 4월 5일 프랑스에 우리 나라 국제무역촉진회 대표부가 설치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40여년간의 투쟁력사를 수록한 전기 《김일성전》 1, 2, 3이 1970년에 《전아프리끄》 출판사에서 출판되였다.

9월 프랑스공산당의 주최로 빠리에서 《천리마조선》이라는 제목밑에 사진전람회가 진행되였다.

10월 프랑스근로자들속에서는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규탄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는 서명수집운동이 있었다.

12월 4~6일에 진행된 공산주의청년운동 전국대회에서 조선문제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결의는 자주적으로 나라를 통일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정당한 립장을 지지하며 조선인민 및 청년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더욱 강화할것을 전세계 진보적청년조직들에 호소하였다.

**경제, 사회** 주요지하자원은 석탄, 쇠돌, 보크사이트, 카리, 석유, 연, 아연 등이다. 공업은 빠리지역, 로렌지역, 동북부지역 등 3개지역에 집중되여있다. 경지면적은 1천 753만 3천정보이다. 전체 인구의 약 28%가 농업에 종사하고있다. 그중 4.2%밖에 안되는 지주, 자본가들이 전체 경지면적의 30%를 가지고있다.

프랑스경제는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따르는 방대한 군사비의 증대로 매우 불균형적으로 발전하고있으며 공업제품생산은 한자리에서 답보하고있거나 지어 줄어들고있어 침체상태에 빠지고있다. 해마다 프랑스의 무기수출액은 기계설비수출액의 20%를 차지하고있으며 군수산업에 종사하는 로동자는 28만명이나 된다.

해마다 무역적자는 늘어나고 수출은 감소되고있다. 무역적자는 1968년에 70억 2천만프랑, 1969년에는 125억프랑으로 54억 8천만프랑이 늘었다. 프랑스의 금 및 외화보유량은 1968년초에 61억딸라였는데 1969년 상반년에는 35억딸라로 감소되였다. 1969년에 소매가격은 총체적으로 6%, 도매가격은 1959년에 비하여 2.3배로 올라갔다.

1969년에 비해서 1970년에 철도운임

은 5%, 화물수송운임은 6%, 각종 우편물발송비는 62~83%, 집세는 10~15%, 각종 식료품값은 58%, 직물류, 의복류 등 대중용 소비품의 소매가격은 평균 4% 올랐다. 실업자는 50만명에 달하고있다.

교육형편은 각급 학교와 교원수의 부족, 교육비지출의 축감 등으로 100여만명의 학령아동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있으며 현재 14~17세의 청소년들의 50%이상이 일반교육 및 기술교육을 받지 못하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에이에프피

신문 유마니떼(공산당 기관지), 아방가르드(공청기관지), 뽀뿔레르(사회당기관지), 꽁바(드골계), 몽드, 피가로(인민공화당기관지), 오로르(급진사회당계), 쥬르날 오피시엘(정부공식기관지)

## 스웨리예

### (스웨리예왕국)

북구라파의 스칸디나비아반도 동쪽에 있다. 산림, 하천, 호수가 많다. 스톡홀름의 1월평균기온은 령하 2.5°C, 7월 평균기온 17°C이다.

【면적】 44만 9,200km²

【인구】 795만명(1968년말)

대부분이 스웨드족이고 기타 핀족, 고드족, 랍족들이 있다.

공용어는 스웨리예어이다.

【수도】 스톡홀름(주민 112만 4,900 만명)

**정 치** 스웨리예는 1906년 노르웨이와의 련합왕국에서 떨어져 독립한 립헌군주제국가이다.

현정부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추종하는것을 거부하고 《중립》을 표방하면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중립국으로서 조선정전중립국감독위원회에 참가하고있다. 국내에서 분렬된 사회주의나라들과 외교관계설정을 요구하며 미제의 인도지나침략전쟁을 규탄하는 사회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나라와의 관계발전에 일정한 관심을 돌리고있으며 1967년 4월에는 1957년에 맺았던 남부웰남괴뢰정권과의 외교관계를 끊고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의 공보부 설치에 동의하였다. 1969년 1월 10일에 민주웰남과 외교관계를 설정하였다. 1968년부터 웰남침략전쟁을 반대하여 도망쳐오는 미제침략군병사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있으며 웰남에서의 미제침략군의 즉시철거와 1970년 캄보쟈에 대한 미제의 새로운 침략을 규탄하고 놈들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미제는 스웨리예와의 정치, 경제적 협조를 도모하고있는 북구라파나라들에서도 《련쇄적반응》을 일으키며 나아가서 자본주의 세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것을 우려하여 이 나라에 정치경제적압력을 가하고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보수당, 인민당을 비롯한 우익정당들이 현 사회민주당정부를 공격해 나서고있다.

그러나 현정부는 미제의 인도지나침략전쟁을 반대할뿐아니라 아랍나라들에 대한 미제의 침략정책에도 추종하기를 거부하고있으며 미제의 경제적압력에 대해서도 경제적대응조치를 취할것이라고하면서 미제의 투자가 스웨리예 전통을 존중할 때만이 허락될수 있다고 맞서고있다.

현정부는 《구라파공동시장》가입문제 협상에서도 엄격히 경제문제만을 취급할것이며 정치에서 《중립을 유지》할것이라고하였다.

【국왕】 구스타브 아돌프 6세(1950년 10월—)

【의회】 상하량원제이다.

【정부】 수상 올로프 팔메(1969년 10월—), 외무상 닐쏜, 국방상 스벤 안데르쏜

【정당, 사회단체】 공산주의자좌익당 1917년 5월에 창건, 위원장 칼 헨리크 헤르만쏜. 사회민주당(집권당), 중앙당, 인민당, 보수당, 로조총연맹, 민주청년동맹, 녀성동맹,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1959년 12월 1일 결성, 위원장 토로스텐 브랜스트룸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59년 12월 1일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으며 1970년 6월 스웨리예에 우리 나라 공보부가 설치되였다.

신문 《익스트 웨쎌》은 반미세계기자대회에서 하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축하연설 《5대륙의 진보적기자들은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들고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자》의 전문을 실었다.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6월 25일 스톡홀름시민들은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의 주최로 반미시위와 군중집회를 진행하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7월 16일에 스웨리예평화옹호위원회는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를 열고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새 전쟁도발책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하였다.

1970년 5월 5일부터 10일까지 조선로동당대표단이 스웨리예를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조선로동당대표단은 스웨리예공산주의자좌익당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5월 10일 공동공보를 발표하였다.

공동공보에서 두 나라 당대표단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이 더욱 격화되고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 그리고 모든 반제혁명력량이 힘을 합쳐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해에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대표단(4월)이 스웨리예를 방문하였다.

스웨리예로부터는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대표단(4월),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조선통보》주필(6월)이 우리 나라를 각각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제지, 목재가공, 야금, 조선 공업과 해운업이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경지면적은 령토의 10분의 1밖에 안된다.

농업에서는 알곡생산보다 축산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쌀보리, 감자, 사탕무우이다.

【출판보도】 통신 스웨리예통신

신문 니 다그(공산당기관지), 익스트 웨쎌, 아프톤 블라데트(사회민주당기관지), 조선통보(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기관지), 스벤스카 다그블라데트

## 유고슬라비아

###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발칸반도의 서부 아드리아해연안에 있으며 이딸리아, 오지리, 로므니아, 웽그리아, 벌가리아, 희랍, 알바니아와 린접하고있다. 아드리아해안지대는 지중해성기후로서 여름에는 비가 적게 내리고 무더우며 겨울에는 비교적강수량이 많고 온화하다. 내륙지방은 대륙성 또는 고산성기후로서 비가 적게 내리고 겨울에는 춥다.

【면적】 25만 5,804km²

【인구】 2,066만명(1970년 12월)

쎄르비아, 크로아찌아, 슬로베니아 등 남슬라브민족들과 10여개의 소수민족들이 있다.

언어는 쎄르비아어, 크로아찌아어가 대표적이며 슬로베니아어, 마케도니아어도 쓴다.

【수도】 베오그라드(주민 99만 2,00 명)

**정 치** 유고슬라비아는 1918년에 독립국가로 되였다가 1941년 4월 6일 히틀러파쑈독일에 강점당하였다.

유고슬라비아공산당은 1941년 7월 파쑈독일강점자들을 반대하는 전인민적항쟁을 전개할것을 결정하고 인민해방군을 조직하였으며 인민들을 반파쑈투쟁에로 불러 일으켰다.

인민해방군은 쏘련군대와 함께 1944년 10월 20일 수도 베오그라드를 해방하고 1945년 5월에는 나라의 전지역에서 파쑈독일강점자들을 완전히 내쫓았다. 1945년 11월 29일 련방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으며 1963년 4월 7일에 채택된 새헌법에 따라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으로 되였다.

유고슬라비아는 대내적으로는 《독자적인 사회주의》를, 대외적으로는 《적극적인 평화공존》과 《쁠럭불가담》을 내세우고있다.

이러한 대내외적정책에 근거하여 유고슬라비아는 쏘련, 중국을 비롯한 일련의 사회주의나라들과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협정을 맺았으며 미제를 비롯한 서방나라들과도 이런 관계를 맺고있다.

1970년 9월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찌또는 제3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 국제문제해결에서 큰 나라들의 전횡을 규탄하고 《쁠럭불가담국가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제3세계》를 형성하며 공동강령을 작성할것을 제창하였다.

또한 1970년 6월 30일 유고슬라비아는 쏘련과의 꼼뮤니께에서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여 싸우는 남부윁남공화림시혁명정부, 윁남, 캄보쟈 정부와 라오스인민들의 정당한 립장에 지지를 표시하고 《앞으로도 영웅적윁남인민과 그리고 자기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전인도지나인민들에게 가능한 모든 지지와 원조를 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한편 찌또는 미제의 우두머리인 닉슨을 초청하고 미제와의 꼼뮤니께 (10월 1일)에서는 《미국—유고슬라비아의 좋은관계는 구라파와 전세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고 하였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에서 유고슬라비아는 1950년 9월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을 공개적으로 비방하면서 미제를 변호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1970년 제25차 유엔총회에서 유고슬라비아대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한 권리를 지지하였으며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의 철수안과 미제의 침략도구인 《언커크》의 해체안에 찬성투표하고 미제의 《결의안》에 반대투표하였다.

1970년 10월에 진행된 공산주의자동맹 제1차 대표자회의에서 찌또가 제기한 《국가상무위원회》를 내올데 대한 결정이 채택되였다.

결정에 의하면 각 공화국들에서 2—3명의 대표를 파견하여 나라의 최고집행기관으로서의 《국가상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들이 륜번제로 대통령직무를 담당하며 이에 부합되게 현행헌법을 개정하기로 되여있다.

【대통령】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 (1945년 11월—), 1970년 10월 최고집행기관으로서 국가상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련방인민의원(국회)】 련방의원, 경제의원, 교육문화의원, 보건사회복리의원, 행정정치의원 등으로 구성되였다.

【련방집행위원회(정부)】 위원장 미류 리비치치, 외무관계국무상 미르꼬 떼빠와츠, 국방관계국무상 니꼴라 류비치치

【정당, 사회단체】 공산주의자동맹 1919년 4월에 창건된 공산당을 1952년 11월 제6차당대회에서 현재 이름으로 고쳤다. 사회주의근로인민동맹, 직업동맹, 인민청년동맹

**경제, 사회** 지하자원으로는 석탄, 갈탄, 석유, 천연가스, 쇠돌, 보크사이트, 몰리브덴, 크롬, 동, 아연, 은, 안티몬, 연, 수은 등이 있다.

유고슬라비아는 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적중앙집권적원칙에 의한 국가적통제가 아니라 《로동자자치제》를 실시하면서 《분권화》하고있다. 그리하여 국영기업소들의 운영권이 기업소의 《근로단체》에 넘어갔으며 매 기업소들자체가 생산활동의 조직으로부터 생산량과 품종, 가격의 제정, 리윤의 분배, 기업의 분리와 통합에 이르기까지의 모든것을 결정하고있다. 따라서 공장,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은 리윤추구가 최고법칙으로 되고있다. 또한 헌법에 의하여 개인기업이 허용되고있는데 1969년말에는 15만개의 작업장이 있었다.

유고슬라비아에서는 인구의 약 50%가 농사를 한다. 주요농산물은 밀, 강냉이, 사탕무우, 감자, 담배, 과일 등이다.

1953년에 제정된 《농촌로력협동조합재산관리 및 그 개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촌로력협동조합》들을 공급과 판매를 위주로 하는 《일반형태》의 협동조합으로 개편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1960년에 제정된 《농지사용법》에 따라 토지의 매매, 소작제, 고용농의 사용까지 허용하였다. 따라서 농촌에서는 심각한 계급분화가 일어나고있다.

무역에서도 국가적통제를 없애고 《무역의 자유화》를 실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초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되고있으며 100여개의 전문학교와 대학을 포함한 각급 학교들에서 약 300만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있다.

종교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으며 쎄르비아정교, 카톨릭교, 회교 등이 장려되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따뉴그

신문 뽈리찌까, 꼼무니스뜨, 보르바

## 희 랍

### (희랍왕국)

발칸반도의 남부와 에게해 및 지중해에 널려있는 100여개의 섬들로 구성되여있다. 령토의 4분의 3은 산지이다. 해안지대와 섬들의 기후는 아열대성기후이다. 년평균강우량은 동부지방에서 400~700mm, 서부에서는 900~1천 200mm이다.

【면적】 13만 2,562$km^2$

【인구】 843만명

희랍인이 절대다수이며 그밖에 토이기인, 유태인 등이 있다.

공용어는 희랍어이다.

【수도】 아테네(주민 185만 3,000명)

**정 치** 1830년에 왕국으로 독립하였다. 1924년에 공화국을 선포하였다가 1935년에 다시 전제제도를 세우고 1936년에 파쑈독재정부를 세웠다.

제2차세계대전초기에 이딸리아에, 1941년에는 히틀러독일에 강점되였다가 쏘련군대에 의하여 1944년 10월 15일에 해방되였다.

해방후 성립된 련합정부는 영제국주의자들의 무장간섭을 받아 민족전선력량을 정부에서 배제하고 파쑈화의 길에 들어섰다. 희랍인민들은 영국간섭자들과 반동정권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전개하여 1947년 12월에 해방지역에 림시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미영제국주의자들과 희랍반동들에 의하여 1949년 8월에 점령당하고 희랍에는 파쑈통치가 지배하게 되였다.

희랍반동지배층은 1952년 2월에 점

략적인 나토에 가담하였으며 1953년에는 미제와 《군사기지협정》을 맺었다.

미제는 희랍땅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끼쁘로스인민들의 투쟁과 특히는 미제와 유태복고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아랍인민들의 투쟁을 탄압하고있다.

인민들의 반미반정부투쟁이 앙양되자 미제는 희랍반동들을 사촉하여 1967년 4월 20일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군사독재정권을 세웠다. 군사독재정권은 국회와 인민들의 일체 시위를 금지하고 수많은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자들을 수용소와 감옥에 감금하고 갖은 악형을 가하고있으며 살인적인 《군사재판》놀음을 감행하고있다.

**희랍공산당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

희랍공산당대표단이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희랍공산당대표단은 조선로동당대표단과 회담을 진행하고 9월 3일 공동보도를 발표하였다.

【국왕】 콘스탄티노스 2세(1964년 3월—)

【정부】 수상이 국방상을 겸한다. 게오르게 파파도풀로스(1968년 6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8년 11월 17일 창건, 위원장 아포스톨로스 그로조스, 중앙동맹, 국민급진당, 인민농민당, 민주주의동맹, 로동총련맹, 전국청년통일련맹

**경제, 사회** 경지면적은 국토의 25%이다. 주요농산물은 목화, 담배, 포도, 올리브 등이다. 식량은 자급자족 못한다.

공업부문에서는 채취공업, 방직공업, 식료공업이 위주로 되고있는데 대부분 미제독점체들이 장악하고있다. 희랍에 침투한 외국자본중 미제독점자본이 40%이상 차지한다.

【출판보도】 통신 아테네통신

## 노르웨이

### (노르웨이왕국)

스칸디나비아반도의 서남쪽에 있다. 국토의 72%가 산지, 하천, 호수(전령토의 약 4%), 섬들이다. 해안지대는 겨울에도 따뜻하며 1월평균기온이 북부에서 령하3°C, 남부에서는 2°C정도이다.

【면적】 32만 3,917km²

【인구】 386만 7000명(1969년말)

주민의 대부분이 노르드족이다.

공용어는 노르웨이어이다.

【수도】 오슬로(주민 48만 5,000명)

**정 치** 노르웨이는 14세기이래 단마르크, 스웨리예의 예속하에 있다가 1905년에 독립하였다.

1940년에 히틀러독일에 강점되였다. 노르웨이로동계급과 인민들은 공산당의 령도밑에 파쑈독일강점자들을 반대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영웅적인 항전을 전개하여 원쑤들에게 심대한 군사정치적패배를 주었다. 노르웨이는 1945년 5월에 해방되였다.

침략적인 나토성원국이며 오슬로에는 《나토북부군사령부》가 있다. 노르웨이는 남조선괴뢰, 남부윁남괴뢰, 서독복수주의자들과 외교관계를 맺고있다.

노르웨이인민들은 미제와 서독군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반대하며 나토로부터의 탈퇴와 나라의 완전중립, 민주주의 및 인민생활의 개선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인민들의 반미투쟁이 앙양되는 환경속에서 노르웨이정부는 남부윁남에 고용병을 파견해달라는 미제의 요구를 거부하였으며 1968년 6월에 진행된 나토《각료리사회》에서는 나토의 지중해무력을 강화할데 대한 미제의 제기를 거부해나섰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8년 10월 10일 노르웨이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0년 노르웨이공산당기관지 《프리헤텐》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발표 여덟돐에 즈음하여 로작전문을 실었다.

4월 28일부터 5월 5일까지 조선로동당대표단이 노르웨이를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조선로동당대표단은 노르웨이공산당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5월 5일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공동보도에서 두 나라 당대표단은 미제국주의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새 전쟁도발 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형편에서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확고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4월에 조선노르웨이친선협회대표단이 또한 노르웨이를 방문하였다.

【국왕】 올라프 5세(1957년—)

【국회】 상하량원제이다.

【정부】 수상 페르 보르텐(1965년 10월—), 외무상 스벤 스트라이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3년 11월 4일에 창건, 위원장 레이다르 테라르센. 사회주의인민당, 로동당, 중앙당, 보수당, 자유당, 기독교인민당, 로조련맹, 공산주의청년동맹, 녀성동맹, 노르웨이조선친선협회 1968년 10월 10일 결성

**경제, 사회** 경제에서 주요한 부문은 해운업과 수산업, 림업이며 펄프제지, 선박, 전기, 화학, 야금, 기계제작 공업 등이 큰 자리를 차지한다.

산림자원 (약 600만정보)이 풍부하며 펄프제지공업제품의 5분의 4를 수출한다.

년물고기생산량은 120~200만t에 달한다.

경지면적은 전국토면적의 3%에 불과하며 농업생산은 국민소득의 6%, 그중 4분의 3은 축산업이다. 식량은 수입에 의존한다. 대외무역이 경제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는데 국내총생산의 40~50%가 대외에 수출되고 있다.

【출판보도】 통신 엔테비

신문 프리헤텐(공산당기관지), 아르바이다 블라데트

## 이슬란드

### (이슬란드공화국)

북대서양의 섬나라이다. 북쪽끝은 북극권에 속하며 여름에는 밤에도 어두워지지 않는 백야가 계속된다. 화산과 온천이 많으며 기후는 난류의 영향으로 습지않다.

【면적】 10만 3,000km²

【인구】 20만 3,395명(1970년 12월)

주민은 노르드족과 켈트족으로 이루어져있다.

공용어는 이슬란드어이며 단마르크어도 쓴다.

【수도】 레이캬비크(주민 8만 1,520명)

**정 치** 이슬란드는 1944년 단마르크에서 떨어져나와 독립하였으며 같은해 6월 17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49년 침략적인 나토에 가담하였으며 1951년 5월 미제와 《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 의하여 미제는 이슬란드를 저들의 군사기지로 전변시키고 침략군을 주둔시키고있다.

이슬란드인민들은 미제와 이에 추종하고있는 이슬란드반동통치배들을 규탄하며 나토로부터의 이슬란드의 탈퇴와 미제군사기지의 철폐를 요구하여 완강하게 투쟁하고있다. 1970년 10월 독립당과 사회민주당의 련립정부가 구성되였다.

【의회】 상하량원제이다.

【대통령】 크리스찬 엘자른 (1968년 7월—)

【정부】 수상 요한 하프스테인, 외상 에밀 욘쏜

【정당, 사회단체】 통일사회당 1938년

에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좌파가 련합하여 조직, 위원장 에이나르 올게이르쏜
독립당(집권당), 진보당, 사회민주당(집권당), 로조련맹, 이슬란드전투적사회주의조직

**경제, 사회** 어업이 경제의 기본을 이루고있다. 어획고의 50%는 대구이다.

어류와 어류가공제품은 외화소득의 95%를 차지한다.

지하자원으로는 이슬란드장석, 갈탄, 류황 등이 있다. 농촌경리의 기본은 면양사육과 젖생산이다. 주요농산물은 감자, 사료작물 등이다.

【출판보도】 신문 알티두 블라디드, 모르긴 블라디드

## 영 국

### (대브리텐및북아일랜드련합왕국)

구라파대륙의 서북방해상에 있는 섬나라이다.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와 기타섬들로 구성되여있다.

기온은 겨울에 4~7°C, 여름에 13~16°C, 년강우량은 북부에서 2천~3천mm이다.

【면적】 24만 4,100km²

【인구】 5,459만 5,000명

주민의 대부분이 잉글로싹손족이고 스코틀랜드에 켈트족이 있다.

언어는 영어이다.

【수도】 런던 (주민 834만 6,000명)

**정 치** 16세기말부터 봉건적전제제도가 붕괴되기 시작하여 17세기에는 영국에서 부르죠아혁명이 수행되였다.

1640—1660년의 영국부르죠아혁명과 18세기후반기의 산업혁명은 영국의 자본주의발전을 촉진시켰다.

17세기부터 영국은 침략의 마수를 뻗치기시작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과 대양주를 강점하였다. 놈들은 제1차대전을 통하여 식민지팽창을 더욱 강화하고 위대한 사회주의10월혁명후에는 쏘베트로씨야를 반대하는 무장간섭을 조직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미국, 프랑스제국주의자들과 함께 반쏘정책을 추구하면서 독, 이, 일 파시스트의 침략책동을 고무하였으며 1938년에는 《뮨헨협정》으로써 히틀러의 전쟁도발책동을 촉진시켰다.

1939년 9월 영제국주의자들은 파쑈독일의 침공의 창끝이 자국에 돌려지자 쏘련에 《동맹》을 요청하면서 히틀러독일에 전쟁을 선포하였다.

2차대전후 영제국주의자들은 미제와 함께 나토, 세아토 등 침략적인 군사동맹을, 그리고 서독군국주의자들을 부활시키기 위한 《빠리협정》을 조작하였다.

1950년에는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에 참가하여 조선인민을 무참하게 학살하였으며 1956년에는 미제와 함께 아랍련합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가 실패하였다.

1967년 6월에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을 사촉하여 아랍인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영제국주의자들은 또한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추종하면서 미제의 인도지나침략전쟁을 적극 지원하고있다.

【국왕】 녀왕 엘리자베스 2세 (1952년—)

【의회】 상하량원제이다.

【정부】 수상 에드워드 히스 (1970년 6월—), 외상 다글러스 홈, 국방상 캐링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7월에 창건, 총비서 존 골랜. 보수당(집권당), 레이버당, 자유당, 로동조합콩그레스, 공산주의청년동맹, 청년협동리사회

【주요사건】 1970년 6월 19일 국회《선거》놀음을 통하여 윌슨을 우두머리로 하는 레이버당반동정부가 물러나고 히스를 우두머리로 하는 보수당반동정부가 새로 집권하였다.

광범한 근로대중의 의사를 배제한 이 정권교체놀음은 5년남짓한 레이버당정부의 집권기간에 악화된 영제국주의의 심각한 대내외적위기를 그대로 반영한것인 동시에 영국독점자본가놈들이 반동적대내외적정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말을 갈아 탄데 불과한 것이다. 새로 집권한 히스 보수당반동정권은 대내적으로는 반인민적정책을 더욱 강화하면서 특히 날로 앙양되는 로동운동을 파쑈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새로운 반동적악법인 《반로조법》을 조작해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대미추종정책을 강화하면서 특히 미제의 아세아침략책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나섰다.

놈들은 미제의 인도지나침략전쟁을 정치외교적으로뿐만아니라 군사적으로 적극 도와나서면서 그대가로 저들의 제국주의적해외팽창야욕을 채워보려고 미쳐날뛰였다.

히스반동정권은 10월 28일 《국방정책보충성명》에서 침략적인 《수에즈이동정책》이란것을 조작하여 1971년 이후에도 수에즈이동지역으로부터 저들의 침략무력을 철수하지 않고 동남아세아와 페르샤만 일대에 계속 영국침

주둔시키려는 침략적야망을 공공연히 드러내놓았다.

이리하여 놈들은 이 지역에 있는 저들의 침략무력을 《제지력》으로 삼아 인도지나침략전쟁에서 심각한 패배의 궁지에 빠져 허덕이는 미제를 직접 군사적으로 보강해주려고 책동하였다.

히스반동도당은 동남아세아일대에 널려있는 저들의 군사기지들과 섬들을 인도지나인민들을 탄압하기 위한 미제공중비적들의 침략기지로 내여맡기고 미제침략군의 비행사들을 직접 데려다가 훈련까지 시켰으며 또한 폭탄, 수류탄, 지뢰, 기뢰, 독가스, 탄약과 기타 각종 군수물자들을 미제침략자들에게 계속 생산공급하였다. 놈들은 또한 저들의 해군 분견대들을 월남에 파견하여 미제해적들의 작전을 직접 지원하게 하였으며 남부월남괴뢰들과 캄보쟈의 론 놀—시리크 마타크반역도당에게 재정적 《원조》를 주었다.

놈들은 미제와 한짝이 되여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인도양에 있는 《영령》 디에고 가르시아섬에 미제와 공동으로 군사기지를 건설할 책동도 적극 추진시켰다.

히스도당은 또한 영련방성원국들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와의 사이에 이른바《영련방 5개국 방위협정》이라는 새로운 《반공》 군사동맹을 조작하여 그것을 세아토에 련결시킴으로써 미제의 허물어지는 아세아침략체계를 보강하려는 책동도 적극 추진시켰다.

히스도당은 또한 아랍인민들을 반대하는 침략책동에로 이스라엘침략자들을 적극 고무추동하였고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에게 살인무기를 넘겨주어 남아프리카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1970년에 영국에서는 반동지배층의 반동적인 대내외정책과 독점자본가놈들의 가혹한 착취를 반대하며 처지개선을 위한 로동자들의 파업투쟁이 앙양되여 반동지배층과 독점자본가놈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11월에 있은 100여개의 탄광을 휩쓴 9만여명탄광로동자들의 파업투쟁, 12월의 전력공업부문로동자들의 전국적인 총파업, 이에 뒤이은 자동차, 인쇄공업부문, 항만로동자들을 비롯한 여러부문 로동자들이 합세한 50만 로동자들의 완강한 파업투쟁 등 1970년에 무려 3천 888건의 파업이 일어났으며 이에 178만 4천명의 로동자들이 참가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독점자본가놈들은 1969년보다 60%나 늘어난 1천 500만이상의 로동일을 잃었다.

1970년에 영국에서는 또한 민주주의및 삶의 권리와 처지개선을 위한 북아일랜드 주민들의 투쟁이 전례없이 앙양되였다. 이에 바빠맞은 히스도당은 반동경찰을 대폭 늘이는 한편 8천명의 침략군까지 북아일랜드에 투입하여 주민들을 총칼로 탄압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히스반동도당을 반대하는 북아일랜드주민의 투쟁기세를 더욱더 세차게 불러일으켰다.

주민들은 거리에 차단물들을 설치해놓고 군경놈들과 용감히 싸웠다.

**경제, 사회** 인구의 5%에 불과한 독점자본가놈들이 이 나라 전체 재부의 75%를 차지하고있으며 그중 인구의 1%밖에 안되는 대독점자본가놈들이 전체 재부의 42%를 장악하고있다.

영국에 대한 미제독점자본의 침투는 최근년간 더 한층 강화되여 영국경제는 사실상 미제에 예속되고있으며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수행에 리용되고있다.

반동지배층의 반인민적경제정책으로 말미암아 1970년에 영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부딪쳤다.

생산은 1970년에도 계속 침체를 겪었다.

기간공업부문의 하나인 석탄공업은 심한 위기를 겪었으며 많은 탄광들이 경영난으로 폐쇄되였다.

1967—1970년까지의 기간에 105개의 주요 탄광들이 페쇄되였다.

이것은 다른 공업부문에도 큰 영향을 미치면서 영국경제의 전반적위기를 더한층 심화시켰다.

략탈적인 반인민적 경제정책과 기업《합리화》 및 집중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생산과 자본의 집적과 집중은 계속 촉진되여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파산도 계속 늘어났다.

1968년에 중소기업의 파산건수는 9천 308건에 달하였는데 1969년에는 1만 2천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반동지배층이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적극 추종하여 1970—1971회계년도 예산에서 31억파운드라는 방대한 자금을 군사비로 탕진한것으로 인하여 재정금융위기는 더 한층 심화되였다.

해외채무액은 1969년말의 40억파운드로부터 1971년 2월말에는 무려 50억파운드로 급격히 늘어났다.

그런데 놈들의 금 및 외화보유량은 반대로 계속 줄어들어 외국에 걸머진 빚의 25%도 물어 줄만한 밑천을 가지지 못하고있다.

파운드의 구매력은 1964년에 비하여 20%이상이나 떨어져서 파운드지위의 불안정성을 더한층 심화시켰다.

이것은 미제의 딸라위기와 함께 자본주의통화체계전반의 위기를 심화시켰다.

1970년에 대중소비품의 값은 전반적으로 10%나 또다시 뛰여올랐다.

1970년에 독점기업체들에서 해고된 로동자수는 1969년보다 40%나 늘어났다.

1971년 2월말 현재 실업자수는 76만 1천여명에 달하였다.

1969년 7월부터 1970년 6월까지의 기간에만도 26만 8천여명에 달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길을 찾아 또다시 해외로 이주해나갔다.

1970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에 엄중한 범죄사건만하더라도 120만건이 일어났다.

【출판보도】 통신 로이터, 프레스 아소시에이슌

신문 모닝스타(공산당기관지), 데일리 텔레그라프 (보수당계), 데일리 미러 (레이버당계), 가디언(자유당계)

## 아일랜드

### (아일랜드공화국)

대서양상에 있는 섬나라이다. 화산과 온천이 많다. 구름이 많고 안개가 많이 끼여 찬비가 내리는것이 특징인데 가을과 겨울에 더 심하다.

【면적】 7만 8,283km²

【인구】 284만 9,000명

주민의 대부분이 아일랜드인이다.

언어는 영어와 아일랜드어를 쓴다.

【수도】 더블린(주민 66만 3,000명)

**정 치** 아일랜드는 1937년에 《영련방》내에서 독립하였다.

1949년 4월에 아일랜드는 《영련방》에서 떨어져나와 아일랜드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의회】 상하량원제이다.

【대통령】 에이몬 데발레라(1966년 6월—)

【정부】 수상 쟌 린치(1970년 5월—), 외무상 힐러리, 국방상 크로닌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70년 3월 15일 창건, 아일랜드로동당과 북부아일랜드공산당이 합당하여 창건, 총비서 마이클 오리오르당. 자유당(집권당), 통일당, 레이버당, 로동련맹

**경제, 사회** 경제의 주도적부문은 농업이며 그밖에 림업과 공업이 있다. 주요농산물은 귀밀, 보리, 감자, 사탕무우 등이다.

물건값은 1968년 11월에 비하여 1969년 11월에는 15.8%, 1970년 8월에는 다시 18.5%로 올랐다. 실업자수는 1971년 현재 6만 9천 500여명 이다.

## 단마르크

### (단마르크왕국)

구라파북부의 유틀랜드반도와 부근의 섬(약 500개)들로 이루어졌다.

해류의 영향으로 여름은 선선하고 겨울은 따뜻하다. 년평균기온은 8°C이다.

【면적】 4만 3,042km²

【인구】 487만 3,090명(1969년 1월—)

주민의 대부분은 덴족, 언어는 단마르크어이다.

【수도】 코펜하겐(주민 138만 2,057명)

**정 치** 단마르크는 1940년 4월 히틀러독일에 강점되였다가 1945년 5월 5일 해방되였다. 단마르크는 침략적인 나토성원국이며 미제와 《그린랜드공동방위조약》을 맺고있다. 1961년 12월에는 서독군국주의자들과 함께 《발트해합동사령부》를 조작하였다.

단마르크인민들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의 전쟁정책과 서독군국주의의 재생 및 재침책동을 저지파탄시키며 국내독점자본을 반대하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국왕】 프레데리크 9세(1947년 4월—)

【의회】 일원제이다.

【정부】 수상 힐마르 바운스가르드, 외무상 포울 하르틀링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9년 11월에 창건, 위원장 크누드 예스페르센. 사회민주당(집권당), 온건자유당, 보수당, 급진당, 로조련맹, 공산주의청년동맹, 민주녀성련맹, 단마르크조선친선협회 1968년 10월 10일 결성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8년 10월 10일 단마르크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0년 4월 7일 단마르크조선친선협회는 조선단마르크친선협회대표단의 방문과 관련하여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를 가지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6월 25일 단마르크수도시민들은 미제의 조선침략전쟁도발 20년이 되는것

과 관련하여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단죄규탄하는 항의시위를 진행하였다.

1970년 6월 2일부터 17일까지 단마르크공산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대표단은 조선로동당대표단과 회담을 진행하고 공동보도를 발표하였다.

공동보도에서 두 나라 당대표단은 미제의 비호밑에 아세아와 구라파에서 위험한 세력으로 되살아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와 서독군국주의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이며 그의 침략적야망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4월 조선단마르크친선협회대표단이 단마르크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농업은 축산업과 가공업을 위주로 하고있다.축산품(빠터, 돼지고기, 닭알)생산이 농업총생산의 90%,수출의 60%를 차지한다. 경지면적의 대부분은 목초재배지이다. 주요농산물은 밀, 감자, 사탕무우 등이다.

공업에서는 축산물과 수산물가공, 선박건조 및 선박설비품생산이 기본으로 되고있다. 지하자원은 적으며 공업원료는 수입한다. 주요수출품은 축산물, 선박, 화학제품, 기계류와 설비품 등이다.

1970년까지 10년간에 공업제품과 농업제품의 값이 67.6% 올랐으며 전반적생계비는 배나 올랐다.

【출판보도】 통신 단마르크통신

신문 란드 오그 폴크(공산당기관지), 베를링슈케티덴데(보수당계)

## 화 란
(화란왕국)

구라파대륙의 북서부에 있다. 령토의 4분의 1은 해면보다 낮다. 해양성기후이며 강우량은 650—700mm이다.

【면적】 3만 2,400km²

【인구】 1,310만명(1970년 12월)

주민의 대부분은 화란인이다.

공용어는 화란어이다.

【수도】 암스테르담(주민 87만 2,400명), 정부소재지는 헤그(주민 60만 2,440명)

**정 치** 화란은 15~16세기에 벨지끄, 프랑스북동지방, 룩셈부르그를 포괄하는 령토를 차지하고있었다. 그후 해외식민지략탈에 광분한 화란은 17—18세기에 인도네시아의 많은 부분과 동남아세아의 일부지역을 략탈하여 식민지로 만들었다. 화란은 1810년에 프랑스에 병합되었다가 1813년에 다시 독립하였다.

1945년 8월 인도네시아가 독립하자 화란은 미, 영 제국주의자들과 함께 인도네시아인민을 반대하는 식민지전쟁을 일으켰다가 실패하였다.

화란은 침략적인 나토성원국이며 기타 제국주의 정치, 경제, 군사 기구에 가담하고있다.

1950년에는 미제의 주구로서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에 고용병을 파견하였으며 유엔에서 《조선문제》토의시 계속 미제에 추종하고있다. 1968년에는 미제의 월남침략전쟁에 복무할 군수공장을 화란땅에 설치하였다.

【국왕】 율리아나 녀왕(1948년 9월—)

【국회】 상하량원제이다.

【정부】 수상 젤레 질슈트라(1966년 11월—), 외무상 요제프 룬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9년 4월에 창건, 위원장 파울 데 그로트. 례이버당, 천주교인민당, 자유민주인민당

**경제, 사회** 공업이 경제에서 주도적부문을 이루고있다.주요공업은 선박건조, 전기기계, 동력기계, 방직, 식료(치즈,빠터)공업 등이다. 가공공업의 대부분은 대외시장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대외무역과 해상운수가 비교적 발전하였다.

미제독점체들의 침투와 미제의 전쟁정책에 추종하는 화란반동정부의 반인민적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은 계속 몰락하고있다.

농촌경리에서는 축산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전체 농경지의 절반이상이 방목지와 사료재배지이다. 주요농산물은 밀, 감자, 사탕무우 등이다. 식량은 수입에 의존한다.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토지소유자들이 전농토의 70%를 차지하고 절대다수의 인민들을 착취하고있다.

1970년에 완전실업자는 3만 5천명에 이르렀다.

【출판보도】 통신 에이엔

신문 드 바아르하이트 (공산당기관지), 헤드 브라이에 폴크(례이버당기관지)

## 벨지끄
(벨지끄왕국)

구라파대륙의 서북부에 있다. 온대해양성기후이다. 평균기온은 1월에 1~3°C, 7월에는 14~19°C이다. 년평균강우량은 500~700mm이다.

【면적】 3만 507km²

【인구】 964만 6,000명 (1969년 7월)

화란계의 프라망인이 약 55%, 프랑스계의 왈롱인이 45%를 차지한다.

공용어는 프랑스와 프라망어이나 독일어도 쓴다.

【수도】 브류쎌(주민 145만 3,500명)

**정 치** 1516년에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1714년에는 오지리의 속령으로 되였다.

1795년에는 프랑스에 병합되였다.

1830년에 벨지끄는 독립을 선포하고 군주국으로 되였다. 벨지끄왕당파들은 1908년에 아프리카의 콩고(킨)를, 1919—1962년까지는 동부아프리카의 루안다—부룬디를 강점하고 가혹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다. 1940년 5월에 히틀러독일에 강점되였다가 1944년 9월에 해방되였다.

벨지끄는 침략적인 나토성원국이며 브류쎌에는 나토군총사령부를 두고있다. 《구라파석탄강철공동체》, 《구라파공동시장》, 《유라톰》 등을 비롯한 각종 제국주의 군사, 경제기구에 가담하였다. 벨지끄는 미제의 주구로서 미제가 도발한 조선침략전쟁에 참가한 우리의 적대국이며 1964년에는 콩고(킨)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직접 무장간섭을 감행하였다.

【국왕】 보도앙 1세(1951년—)

【국회】 상하량원제이다.

【정부】 수상 가스톤 에이스켄스(1968년 6월—), 외무상 삐에르 아르멜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9월에 창건, 기독교사회당(집권당), 사회당(집권당), 협동근로자당, 자유당, 공산주의청년동맹, 로동총련맹

**경제, 사회** 식량은 수입에 의존하고있으며 공업은 석탄, 철, 아연 등의 자원을 토대로 하고있으며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하고있다. 벨지끄에 투자된 외국투자액 중 70~80%는 미제독점자본이 차지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감자 등이다.

1970년에 물건값은 4%나 올랐으며 파통사고로 2만 5천 497명이 죽거나 부상당하였다. 실업자는 18만 2천 560명이 있다.

【출판보도】 통신 비에 엘지 에이

신문 드라포 루쥬(공산당기관지)

## 룩셈부르그

(룩셈부르그대공국)

구라파대륙의 서북부에 있는 내륙국가이다.

【면적】 2,586km²

【인구】 33만 7,000명 (1969년)

주민의 대부분은 룩셈부르그인이며 독일인, 프랑스인이 많이 산다.

언어는 독일어, 프랑스어를 쓴다.

【수도】 룩셈부르그(주민 8만명)

**정치** 16세기부터 1794년까지 에스빠냐, 프랑스, 오지리의 지배하에 있었다. 1842년부터 독일의 예속하에 있다가 1867년에 《영구중립》을 선포하고 대공국으로 되였다. 1948년에 소위《영구중립》을 페기하고 나토(전병력을 나토에 편입), 《서구동맹》, 《구라파공동시장》, 《구라파석탄강철공동체》 등 제국주의 정치, 경제, 군사기구에 가담하였다.

1950년에는 미제의 앞잡이로서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에 가담하였다.

1969년 2월 자유당과 기독교사회당의 련립내각이 구성되였다.

【국왕】 잔(1964년 11월—)

【국회】 일원제이다.

【정부】 수상 피에르 베르네르(1964년 6월—), 외무상 가스통 토른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1월 2일 창건, 총비서 도미니크 우르바니. 기독교사회당, 사회로동당, 자유당, 인민독립운동당

**경제, 사회** 채광업과 야금공업이 경제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강철생산량이 공업생산액의 70%, 수출의 85%를 차지한다.

주요농산물은 밀, 감자, 포도 등이다. 식량은 자급자족을 못한다.

국교는 로마카톨릭교이다.

【출판보도】 신문 드 짜이퉁(공산당기관지), 룩셈부르게트 워르트(천주교계).

## 스위스

(스위스련방공화국)

중앙구라파에 있으며 독일, 프랑스, 오지리, 이딸리아 등과 린접하고 있다. 령토의 38.5%가 알프스산지, 31.5%가 스위스고원, 10%가 유라산지로 되여있다. 기후는 온화하다. 가장 따뜻한 지대는 호수주변인데 제네바의 1월평균기온은 0.6°C, 7월평균기온은 19.3°C이다. 년평균강우량은 800~1천mm이다.

【면적】 4만 1,288km²

【인구】 611만 5,000명(1969년말)

주민의 절반이상이 독일계통이며 기타 프랑스인, 이딸리아인이 많이 산다.

언어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딸리아어를 쓴다.

【수도】 베른(주민 16만 7,000명)

**정치** 스위스는 로마제국의 통치하에 있다가 1648년에 독립하였다. 1798년에 프랑스에 강점되였다가 1803년에 다시 독립하였다.

1815년 윈회의에서 《영구중립국》으로 선포되였다. 스위스는 유엔이나 미제의 정치, 군사 협력들에 직접 참가하지 않고있으나 《구라파자유무역지대》 《구라파경제협력기구》 등 배타적인 경제협력들에 참가하였으며 1956년 6월에는 미제와 《원자협정》를 맺었다. 스위스는 조선정전중립국감독위원회의 성원국으로 있다.

**스위스로동당대표단의 우리 나라방문** 1970년 8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스위스로동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은 방문기간 조선로동당대표단과 회담을 진행하고 8월 20일 공동보도를 발표하였다.

공동보도에서 두 당대표단은 세계도처에서 미제의 침략책동을 분쇄하며 그 충실한 동맹자인 일본군국주의와 서부독일군국주의의 침략적야망을 꺾어버리며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을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국회】 상하량원제이다.

【정부】 정부인 련방회의는 국회량원합동회의에서 선출되는 내각성원 7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과 부대통령은 내각 성원중에서 매년 륜번제로 선출한다. 대통령 루돌프그네기(1970년 12월—)

【정당, 사회단체】 로동당 1921년에 창건된 공산당과 좌익사회주의그루빠들이 합동하여 1944년 10월에 조직, 전국비서 야코브 레호라이떼르. 급진민주당, 기독교사회당, 사회민주당, 로조련맹, 자유청년

**경제, 사회** 지하자원은 적다. 경제에서 시계치차를 비롯한 정밀기계공업이 위주로 되고있다. 시계부분품은 주로 가내수공업으로 생산한다.

전체 농업생산에서 축산업이 70%이상을 차지하며 알곡생산량은 국내수요의 약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강냉이, 감자, 사탕무우 등이다.

관광업이 국가수입에서 큰비중을 차지한다. 주요수출품은 시계, 계기류, 합성수지제품, 직물 등이다.

1970년 1월부터 1971년 1월까지 소매가격은 6.4% 올랐다.

【출판보도】 통신 스위스통신

신문 레뷰 크리엘(로동당기관지), 라브아 우브리에르, 포르베르츠, 노이에르 츄리셔 짜이퉁(급진민주당기관지)

## 이딸리아

(이딸리아공화국)

구라파대륙의 서남쪽 지중해연안에 있다. 지중해에 돌출한 아페닌반도와 사르디니아섬, 시실리섬을 포함한 70개의 섬들로 이루어졌다. 아열대성 기후이다.

【면적】 30만 1,226km²

【인구】 5,459만명(1970년 8월)

주민의 대부분이 이딸리아인이고 독일, 프랑스 등 소수민족들이 산다.

공용어는 이딸리아어이다.

【수도】 로마(주민 312만 9,000명)

**정치** 1870년에 이딸리아의 통일이 이룩되였다. 1922년에 집권한 무쏘리니의 파쑈정권은 1935—1936년에 에티오피아를 강점하였으며 1936년에는 히틀러독일과 함께 에스빠냐에 대한 무장간섭을 감행하였다. 1937년에 침략적인 일, 독《반공》협정에 가담하였다.

1939년 4월에 알바니아를 강점하였으며 1940년 6월에는 쏘련, 영국, 프랑스에 선전포고하고 파쑈독일과 함께 쏘련을 침공하였다. 같은해 12월에 미제에 선전포고하였다. 히틀러도배에 대한 쏘련군대의 섬멸적타격과 이딸리아공산당의 령도밑에 손에 무장을 들고 반파쑈인민항쟁에 참가한 이딸리아인민들의 투쟁으로 1943년 7월 무쏘리니의 독재정권이 멸망하였다. 1946년 6월 이딸리아는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이딸리아반동정부는 1949년에 침략적인 나토에 가담하였으며 미제에게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 전초기지로써 이딸리아령토를 제공해주고있다.

제2차대전후 이딸리아에서는 정치세력호상간의 알륵과 인민들의 반정부투쟁으로 말미암아 30여차례의 정권교체가 있었다. 그러나 소수자본가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이 정권은 력대로 반인민적인 친미반동정책을 실시하였다.

【대통령】 주제뻬 사라가트(1964년 12월—)

【국회】 상하량원제이다.

【정부】 수상 에밀리오 콜롬보(1970년 8월—), 외무상 알도 모로, 국방상 마리오 따나씨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1월에 창건, 총비서 루이지 롱고. 프로레타리아통일사회당, 사회당, 기독교민주당, 공화당, 자유당, 통일사회당, 로동총련맹, 공산주의청년련맹, 청년운동, 녀성동맹, 이딸리아조선문화협회 1968년 1월 18일 창건

【주요사건】 지난해부터 지속되였던 반동통치집단내부의 알륵과 모순, 인민들의 앙양되는 대중적인 반정부진출로 1970년 2월 7일 반동적인 기독교민주당내각이 무너지고 무정부상태가 빚어졌다. 정치적 및 경제적위기는 심각화되고 이에 항거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계속 앙양되였다.

년초부터 앙양된 근로자들의 투쟁은 전국적인 성격을 띤 대규모투쟁으로 전변되였다.

2월에는 1천 500만 근로자들의 총파업이 있었으며 크고 작은 파업투쟁이 전국 각지에서 련일 일어났다.

파업투쟁에 일어선 근로자들은 독점자본의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여 항의집회, 시위를 벌리면서 사회경제적개혁을 요구하였다.

근로자들의 대규모적인 파업투쟁은 청년학생들의 반정부투쟁과 결합되여 반동지배층들에게 더욱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3월 27일 중간좌파련립정부가 구성되였으나 사태를 수습할수 없었으며 정치정세는 일대 혼란속에 빠졌다. 이러한 정세밑에서 7월 6일 련립정부는 또다시 총사직하고 8월 6일 기독교민주당, 사회당, 통일사회당, 공화당의 4개정당의 련립정부가 구성되였다.

이해 이딸리아인민들은 미제의 침략정책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9월말 미제의 두목 닉슨놈이 이 나라에 기여든것을 반대하여 로동자들은 정치파업투쟁, 학생들은 동맹휴학을 벌렸으며 로마를 비롯한 30여개 도시들에서는 수만명의 로동자, 청년학생, 사무원들이 《닉슨놈은 살인자이다!》, 《닉슨놈은 물러가라!》고 웨치면서 강력한 반미시위를 전개하였다. 바빠맞은 반동통치배들은 1만 5천명의 경찰놈들과 장갑차들까지 동원시키고 이놈들이 봉변을 당할 경우 구출할 직승비행기와 의사까지 대기시키는 소동을 벌렸다.

12월말 볼로냐시에서는 2만여명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이 《이딸리아를 미국의 항공기지로 삼는것을 반대한다!》, 《이딸리아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사회주의를 요구한다!》라는 전투적인 구호를 내걸고 반미반정부투쟁을 벌렸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8년 1월 18일 이딸리아조선문화협회가 창설되였다.

1970년 11월에 이딸리아조선문화협회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4월 12일부터 22일까지 이딸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초청으로 조선로동당대표단이 이딸리아를 방문하였다.

체류기간 조선로동당대표단과 이딸리아공산당대표단은 회담을 진행하고 공동보도를 발표하였다.

12월에는 사로청중앙위원회대표단이 이딸리아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지하자원으로는 아연, 연, 망간, 보크사이트, 수은, 대리석, 천연가스 등이 있다. 철, 석탄, 원유 등은 수입에 의존한다.

주요농산물은 밀, 벼, 감자, 포도, 올리브, 강냉이 등이다.

2차대전후 이딸리아경제에는 미제와 서독군국주의자들을 비롯한 외래독점자본이 급속히 침투하였다. 외래독점체들의 무제한한 착취와 이딸리아반동정부의 반인민적경제정책으로 인하여 경제는 계속 파국상태에 빠져들어가고 있다. 공업생산은 계속 떨어지고있는데 1969년 12월에만도 전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그것은 5.9%나 내려갔다.

국제수지면에서도 1970년에는 1조 890억리라에 달하는 적자를 냈다.

생계비는 1959년부터 1970년까지의 기간에 48.1% 올랐다. 그중에서 식료품값은 47.4%, 옷값은 38.8%, 집세는 94.2% 각각 뛰어올랐다.

이해 상반년기간에만도 로동사고로 죽은 로동자수는 1천 960명에 달하였다.

1970년에 완전실업자수는 88만명에 이르렀으며 1969년 7월부터 1970년 7월까지의 기간에 30만명의 농민들이 더는 살수없어 도시에 밀려들었다.

【출판보도】 통신 안사

신문 우니타(공산당기관지), 아반띠(사회당계), 코리에레 데라 쎄라, 메싸젤로 파에제 쥬스

## 바티칸

(바티칸시국가)

이딸리아의 로마시내 바티칸언덕우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도시국가이며 로마천주교의 중심지이다.

【면적】 0.44km²

【인구】 1,000명

【법왕】 파울 6세

법왕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있다.

바티칸은 세계도처에 널려있는 교회들, 천주교 정당 등과 출판물, 방송 등을 통하여 천주교를 전파하고있으며 미제의 침략정책을 적극 옹호하면서 사회주의국가들과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각종 암해, 파괴, 정탐 행위를 감행하고있다.

## 산 마리노

(산 마리노공화국)

동부이딸리아의 아페닌산줄기안에 있다.

【면적】 61km²

【인구】 1만 9,000명 (1969년)

주민의 대부분은 이딸리아인이며 언어는 이딸리아어이다.

【수도】 산 마리노(주민 3,000명)

**정 치** 301년에 성립된 구라파 최초의 공화국이다. 1851년에 오지리와 로마의 무장간섭을 받았으며 1862년에는 이딸리아와 《보호》를 승인한후 실제에 있어서 이딸리아의 보호령으로 되여있었다. 1945—1957년에 공산당과 사회당의 련립정부가 집권하였다. 이딸리아반동들의 책동으로 이 련립정부는 전복되고 1957년 10월에 기독교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의 련립정부가 집권하였다.

1970년 4월 18일 조선로동당대표단이 산 마리노를 방문하였다.

【의회】 일원제이다.

【정부】 국가원수이며 정부수반인 섭정이 있다.

【정당】 공산당 1921년에 성립, 총비서 에르메네질도 가스뻬로니. 기독교민주당, 사회민주당, 공산주의청년동맹

**경 제** 축산업, 포도재배 등을한다. 주산물은 포도, 포도주, 축산물, 밀, 석재 등이다. 관광업이 이 나라 수입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딸리아 화폐를 쓴다.

## 리히텐슈타인

(리히텐슈타인공국)

오지리와 스위스 사이에 있다.

【면적】 157km²

【인구】 2만 1,230명(1969년)

주민은 독일계인이며 언어는 독일어

를 쓴다.

【수도】 바두쯔(주민 4,000명)

【국왕】 프란쯔 요제프 2세

리히텐슈타인은 1719년에 공국으로 되고 1867년에 영구중립을 선포하였다. 제2차세계대전시기에 파쑈독일에 강점되였다가 해방되였다. 이 나라의 외교, 군사, 재정은 스위스가 틀어쥐고있다. 수상은 알프레드 힐베

시민진보당, 조국동맹, 기독교사회당 등 3개 정당이 있다.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목축업이다.

주민의 90%가 천주교도이다.

## 모나코

### (모나코왕국)

프랑스의 동남부에 있다. 년중 날씨가 맑고 따뜻하다. 전령토가 건물로 차있다.

【면적】 1.49km²

【인구】 2만 3,000명(1969년)

모나코인이 약 3천명정도이고 그외는 프랑스와 이딸리아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다.

언어는 프랑스어를 쓴다.

【행정중심지】 몬테 카를로(주민 약 1만명)

【국왕】 레니에 3세(1949년—)

【정부】 수상 차를레스 바렐리오

모나코는 프랑스의 《보호》하에 있는 립헌군주국이다. 몬테 카를로에는 《국제해수욕장주식회사》, 카지노에는 《공설도박장》이 있다. 국가수입의 원천은 관광업과 도박장이다. 립법권은 의회(일원제)에 있다.

## 안도라

### (안도라공화국)

프랑스와 에스빠냐 사이의 피레네산줄기안에 있는 나라이다. 좁은 골짜기와 높은 산으로 되여있다.

【면적】 453km²

【인구】 1만 9,000명

기본언어는 카타로니아어이나 프랑스어와 에스빠냐어도 쓴다.

【행정중심지】 안도라(주민 1,500명)

안도라는 1278년부터 프랑스와 에스빠냐의 공동관리하에 있다. 립법권은 총참사회에 있고 행정권은 총참사가 임명하는 장관에게 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목축업을 하며 포도, 담배를 재배한다. 관광업이 국가수입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 에스빠냐

구라파대륙의 서남단 이베리아반도에 있다. 아열대지중해성기후이다.

【면적】 50만 3,486km² (발레아르, 까나리아군도 포함)

【인구】 3,360만 9,000명(1970년 12월)

주민의 대다수가 에스빠냐인이며 약 100만명의 바스께족이 있다.

언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마드리드(주민 263만 4,600명)

**정 치** 16세기에 방대한 식민지소유국가였던 에스빠냐는 17세기이래 영국, 화란, 프랑스, 미국파의 식민지략탈전쟁에서 일부 식민지들을 빼앗기고 자기의 식민지였던 중남미나라들이 독립함에 따라 쇠퇴하였다.

에스빠냐인민들은 1931년 4월 귀족군주제도를 뒤엎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공화국은 부르죠아정부에 의해 통치되였다. 1936년 2월 인민전선정부가 수립되여 민주개혁을 실시하였으며 소수민족인 바스께족들은 자치주를 선포하였다. 이해 7월 프랑코가 파쑈독일 및 이딸리아 무력간섭자들의 도움을 받아 반혁명내란을 일으켰다. 에스빠냐공산당은 무장부대를 조직하고 광범한 반파쑈민주력량을 집결하여 독일, 이딸리아 등 외국무력간섭자들과 국내 파쑈도당을 반대하는 전국적인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였으나 세계의 모든 제국주의의 공모와 간섭으로 실패하였다. 1939년에 프랑코독재정권이 수립되였다. 프랑코도당은 집권후 첫 2년동안에만도 30만명의 혁명가들과 민주주의자들을 투옥학살하였으며 바스께족의 자치를 폐지하였다. 에스빠냐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1949년까지 9년동안에 유격투쟁의 불길을 일으켜 히틀러파쑈도당과 프랑코독재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프랑코도당은 1953년 9월에 미제와 《방위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에 의하여 미제는 에스빠냐에 4개의 해공군기지를 설치하고 1만 5천명의 침략군을 주둔시키고있다.

【의회】 일원제이다.

【정부】 총통 겸 수상 프란시스코 프랑코(1939년—), 외무상 그레고리오 로뻬스 브라보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4월 창건, 총비서 싼띠아고 까릴요. 국민운동(집권당)

【주요사건】 1970년 8월 에스빠냐반동정권은 미제와 맺었던 《군사조약의》 유효기간(1968년 9월로 만료)을 5년간 더 연장하며 에스빠냐의 두 공군기지와 두개의 해군기지를 계속 미제에게 넘겨줄데 대한 협정을 맺었다. 또한 에스빠냐는 미제로부터 5억딸라의 《원조》를 받는 대가로 미제와 함께 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과 중동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공동방위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하였다.

이해에 프랑코파쑈도당은 경찰들에게 무제한한 권한을 준 1969년 12월 법령을 더 연장하여 인민탄압에 날뛰였다.

11월 28일 프랑코도당은 제놈들의 파쑈적인 정책을 반대하며 민족적자치를 요구하여 투쟁한 44명의 바스께족 반파쑈투사들을 체포투옥하고 군사재판에 회부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에 항의하여 12월 4일 바스께족이 사는 북부 3개주에서 약 8만명의 로동자들이 파업투쟁을 벌렸다. 12월 10일 마드리드에서는 여러 기업소로동자들이 총파업을 일으키고 경찰놈들과 맞서 치렬한 투쟁을 벌렸으며 산세바스띠안주민들은 그곳에 있는 서독영사놈을 랍치하였다. 바빠맞은 프랑코파쑈도당은 북부 3개주에 3개월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전쟁적조치를 취하였다.

1970년 12월 에스빠냐공산당 집행위원회는 조선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려는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것은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를 반대하여 싸우며 미제의 《각을 뜨려》는 모든 인민들의 의무로 되며 에스빠냐인민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미제침략군의 주둔을 반대하여 진행하는 에스빠냐인민자체의 투쟁의 구성부분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경제, 사회** 로동인구의 약 절반이 농사한다. 주요농산물은 밀, 강냉이, 쌀, 올리브, 포도 등이다. 농산물생산액중에서 알곡이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지하자원은 철, 석탄, 동, 수은, 연 등이다. 공업으로는 방직, 식료, 담배, 조선, 자동차, 전기, 세멘트 공업이 있다. 경제명맥은 외국자본에 장악되여있다.

재정난으로 1969년 한해동안에 금예비는 2억 6천 200만딸라나 줄어들었다.

1970년에 실업자는 21만명에 달했다. 100만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있다. 삶길을 찾아 해외로 떠난 사람들은 380만명에 달하

며 그중 30~40%는 청장년들이다.

【출판보도】 통신 에 에프 에

신문 룬도 오브레로(공산당기관지), 아리바(국민운동기관지)

## 뽀르뚜갈

(뽀르뚜갈공화국)

구라파대륙의 서남부 이베리아반도의 서쪽에 있다. 기후는 아열대지중해성기후에 속한다.

【면적】 9만 2,200$km^2$(아조레스, 마데이라군도 포함)

【인구】 956만명(1969년 7월)

절대다수의 주민이 뽀르뚜갈인이다.

언어는 뽀르뚜갈어이다.

【수도】 리스본(주민 82만 9,000명)

**정 치** 1910년에 공화국으로 되였다. 1926년 군사정변에 의하여 파쑈독재정권이 수립되였다. 1931년에 집권한 살라자르독재정권은 야수적인 파쑈테로통치를 실시하면서 1949년에는 나토에 가담하였다. 1951년에는 미제와 《친선및호상원조협정》을 맺고 본토와 식민지들에서의 미제의 군사기지건설을 허용하였다. 뽀르뚜갈반동통치배들은 미제를 비롯한 나토성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원밑에 허물어져가는 제놈들의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앙골라, 기네비싸우(뽀령기네), 모잠비크에 13만명의 침략군을 투입하고 군사비의 절반이상을 탕진하면서 이 나라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식민지전쟁을 감행하고있을뿐 아니라 이 나라들의 린접국인 세네갈, 잠비아, 기네에 대한 도발책동을 감행하는 적대행동을 감행하고 있다.

1970년 6, 7월에는 세네갈에 비행기와 포들을 동원하여 마구 폭격, 격하는 한편 《토벌대》를 침입시켜 많은 물적 및 인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적행동을 감행하였다.

11월 22일에는 미제의 지지밑에 수백명의 고용병들로 구성된 침략군을 기네에 침입시켜 이 나라를 반대하는 공공연한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가 기네인민들의 호된 타격을 받았다.

뽀르뚜갈에서는 파쑈정당인 국민동맹과 어용로조를 제외한 일체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과 로동자들의 파업이 금지되고있다. 뽀르뚜갈인민들은 파쑈통치를 반대하며 아프리카에서의 식민주의전쟁을 반대하여 싸우고있다.

【의회】 량원제(국민의회와 조합의회)로 된 립법기관이다.

【대통령】 아메리꼬 데우스 또마스 (1965년 7월—)

【정부】 수상 마르쎌로 카에타노 (1968년 7월—) 외상 마누엘 뽈뜨리씨오, 국방상 오라씨오 레베로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3월에 창건, 총비서 알바로 쿤할. 국민동맹(집권당), 민족해방애국전선(지도부는 알제리에 있다)

**경제, 사회** 주요농산물은 올리브, 포도, 보리, 밀, 강냉이 등이다. 주석, 망간, 석탄, 동 등 지하자원이 있다.

공업은 보잘것 없으며 미, 영, 서독, 프랑스 등 제국주의자들에게 장악되여있다. 코르크생산 (세계생산량의 약절반을 차지) 이 많으며 수산업이 주요산업의 하나로 되고있다. 1970년 상반년동안에만도 생계비가 3.6% 올랐다.

【출판보도】 통신 에이엔아이

신문 아반떼(공산당기관지), 디아리오 다 만하(국민동맹기관지)

## 말 타

지중해중부에 있으며 구라파, 아세아, 아프리카를 련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5개의 섬으로 되여있으나 사람이 살고있는 섬은 3개이다. 그중 제일 큰것이 말타섬(면적 246$km^2$)이다.

【면적】 316$km^2$

【인구】 32만 4,000명(1969년)

말타인외에 구라파인들이 산다.

언어는 말타어외에 이딸리아어와 영어도 쓴다.

【수도】 발레타(주민 1만 8,348명)

**정 치** 말타는 1798년에 프랑스에 강점되였다가 1800년부터 영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되였다. 말타는 1947년부터 내부자치를 실시하였으며 1964년 9월 21일 영련방내에서 독립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1964년 7월 말타에 《군사조약》을 강요하여 10년간의 군대주둔권과 언제든지 말타를 강점할수 있는 권리를 탈취하였다.

말타에는 나토지중해사령부가 있으며 4천명(1965년현재)의 영침략군이 강점하고있다.

말타인민들은 말타에 대한 미, 영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다.

【립법회의】 최고립법기관이다.

【정부】 수상 지. 올리비에

【정당, 사회단체】 로동당, 국민당(집권당), 말타반제전선, 말타로조

**경 제** 경제는 영국독점자본에 완전히 장악되여있다. 경작지는 1만 4천 500정보이며 주산물은 목화, 밀, 올리브, 포도 등이다.

공업으로는 파심 및 남새 통졸임, 담배, 맥주, 가구 등을 생산하는 수공업공장이 있을 뿐이다.

# 아프리카주

## 알제리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아프리카대륙북부에 있으며 북쪽은 지중해에 면하고있다. 북부지역 해안연선의 평균기온은 가장 낮은때인 1월에 12°C, 가장 높은 때인 7월에 25°C이다. 남부의 사하라사막지대는 건조하고 무덥다. 년강우량은 북부산악지대에서 1천 200mm, 남부사막지대에서는 50mm이하이며 비가 전혀 오지않는 지역도 있다.

【면적】 238만 4,741km²

【인구】 1,294만 3,000명(1970년)

주민은 아랍족(60%), 베르베르족(30%) 기타 등이다. 인구의 약 90%는 북부지중해연안에서 살고있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다.

【수도】 알제(주민 120만명, 교외인구포함)

**정치** 1830년부터 프랑스의 침략을 받아오다가 1844년에 그에 완전히 강점당하였다.

알제리인민들은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통치의 전기간에 걸쳐 압제자들을 반대하는 영웅적항쟁을 전개하였다.

1848년부터 1954년까지 50여차에 걸친 반프랑스봉기가 일어났으며 1871년 봉기에는 20만명의 인민들이 참가하였다.

1954년 8월에는 민족해방전선이 결성되였다. 이해 11월 1일 민족해방전선의 지도하에 전국적인 무장봉기가 일어나 강력한 반식민주의무장투쟁이 시작되였다.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알제리침략전쟁에 약 80만명의 침략군을 투입하고 83억딸라를 탕진하였으나 이 나라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굴복시킬수 없었다.

민족해방전선은 1958년 9월에 알제리공화국 림시정부를 수립하고 1962년 3월 18일에는 프랑스침략자들로 하여금 정화협정에 조인케 하였다. 이리하여 알제리인민들은 7년 4개월에 걸친 무장투쟁에서 승리를 쟁취하였다.

이해 6월 민족해방전선은 토지개혁의 실시, 무역, 금융, 동력, 광산의 국유화 등 민족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한다는것을 규정한 《트리폴리》강령을 채택하였다.

1962년 7월 1일 자결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7월 5일 독립을 선포하였으며 9월 25일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독립후 알제리인민들은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통치기구를 청산하고 혁명정권을 수립하였으며 1964년까지 프랑스침략군을 알제리땅에서 완전히 몰아냈다.

또한 외래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지반을 박탈하며 제국주의의 경제적침투를 배격하기 위하여 1963년 10월 외국인 소유의 모든 토지를 국유화할데 대한 법령을 발포하였으며 1966년 5월에는 미제의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포하였다. 또한 제국주의독점체들의 공장, 기업소, 은행들을 국유화하는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1967년 6월 5일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지지밑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아랍인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하였을때 알제리정부는 자기의 무력을 전선에 출동시켰으며 미제와 외교관계를 끊고 미영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석유수출과 천연가스의 공급을 중지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1970년 1월 정부는 나라의 경제적자립과 정치적독립의 공고화를 기본과업으로 하는 경제발전 4개년계획(1970—1973년)에 관한 법령을 발포하였다.

4월 알제리정부는 토지소유관계의 식민지적 및 봉건적 잔재들을 청산하기 위한 토지혁명헌장초안을 발표하였다. 대외적분야에서도 알제리정부는 반제자주적립장을 견지하였다.

1970년 2월 6일에 진행된 전국인민회의대표 제4차대회에서 채택한 일반정치결의에서는 유태복고주의자들에게 강점당한 자기 조국땅을 되찾을때까지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을 물질, 정신적으로 지지할데 대한 알제리인민의 확고한 결의를 재천명하였다.

1970년에 알제리정부는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를 승인하였다.

알제리정부는 마그레브나라들인 마로꼬(1969년 1월), 뜌니지(1970년 1월)와 20년을 기한으로하는 《우호, 선린및협조에 관한 조약》들을 각각 맺었다.

【혁명리사회】 최고주권기관이다.

【정부】 수상겸국방상 후아리 부메디엔 (1965년 7월—), 외무상 아브델 아지즈 부떼플리까

【정당, 사회단체】 민족해방전선당(유일당이며 집권당) 1954년 8월에 창건, 근로자총동맹, 민족해방전선청년단체, 전국녀성동맹, 농업근로자전국련맹, 알제리조선친선련대성협회 1970년 7월 26일 결성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58년 9월 25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64년 9월 문화협정을, 10월에는 무역및지불협정을 맺었다.

1970년 7월 26일 알제에서 알제리조선친선 련대성협회가 결성되였다.

1970년 10월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발표 두돐에 즈음하여 알제리사회계인사들이 담화를 발표하였다.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알제리 각지에서 민족해방전선당 주최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행사들이 광범히 진행되였다. 쎄티프시군중대회에서는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7월 28일 알제리민족해방전선당은 이 월간이 끝난것과 관련하여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7월 17일 민족해방전선당 알제도위원회의 주최로 조선인민의 반미투쟁과 사회주의건설성과를 소개하는 사진전시회가 진행되였다.

6월 26일 우리 나라와 보건분야에서 협조할데 관한 의정서가 조인되였다.

1970년에 알제리근로자총동맹대표단(6월), 알제리농업근로자전국련맹대표단(7월)이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로부터는 군사대표단(2월), 조선인민대표단(7월), 전람회대표단(8월)이 알제리를 각각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독립후 알제리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선 이 나라 경제의 중요

명맥을 쥐여쥐고 있던 제국주의독점회사들을 국유화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벌렸다.

1970년에 미국, 영국, 화란, 서독, 이딸리아 등 제국주의자들의 석유회사를 국유화함으로써 석유, 가스, 채광, 기계, 화학, 전력, 비료공업, 대외무역 등 경제의 주요명맥은 대부분 국유화되였다. 또한 외국은행과 보험회사들이 국유화되여 재정분야에 대한 국가적통제가 강화되였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정부는 나라의 공업화에 힘을 집중하고 있는데 1969년에는 공업부문에 1967년의 4.2배에 해당하는 자금이 돌려졌다.

특히 중공업에 대한투자액은 1969년까지의 3개년계획기간에 공업부문총투자액의 4분의 3을 차지하였다. 1969년 한해만도 80여개의 공장, 기업소들이 신설확장되였으며 이해 알제리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18만t의 선철이 생산되였으며 전력생산은 그 전해에 비하여 15%나 늘어났다. 1970년에 채취공업에서 기본을 이루고있는 석유는 4천500만t, 천연가스는 37억$m^3$ 생산하였다.

1970년에는 엘 하자르제철종합공장의 제1계단공사가 끝났으며 종합기계공장, 종합린비료공장, 원유가공공장, 메타놀공장 건설이 시작되였다.

농업분야에서도 1970년에만도 2만정보의 농토를 적실수 있는 페르구주언제가 완공되였으며 대규모의 아뚜나평야관개공사가 시작되였다.

식량을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농업생산을 단작체계로부터 알곡생산을 위주로하는 다각경리로 발전시키고있다.

독립후 정부는 식민주의자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러나 아직 1만 6천여명의 대토지소유자들이 전체 개인소유토지의 25%를 가지고있으며 반면에 30만명의 토착농민들이 농경지의 10%를 차지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귀밀, 담배, 일년감, 남새 등이다.

알제리에는 석유, 천연가스, 쇠돌, 동, 아연, 망간 등이 많이 매장되여있다.

채굴공업은 공업총생산액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매해 국가예산의 40%를 교육부문에 돌리고있으며 교육에서의 《아랍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체의 교원력량을 높이고 학교에서 아랍어로 강의하는것을 원칙으로 삼고있다.

1970년에 정부는 전체 학령아동들을 입학시키며 글모르는 성인들을 위한 학습반을 조직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970년에 모스따가슈넴에 첫 공과대학이 창립되였으며 3개의 기술대학이 개교하였다.

【출판보도】 통신 알제리통신 (아 뻬 에스)

신문 엘 무자히드(당및정부기관지), 레볼류시옹 아프리캔(민족해방전선당기관지), 알 사이브

## 기 네

### (기네공화국)

서아프리카의 대서양연안에 있으며 뽀르뚜갈령기네, 세네갈, 말리, 상아해안, 리베리아, 시에라 레온과 접해있다. 년평균 기온은 20~28°C, 년평균강우량은 3천~4천mm이다.

【면적】 27만 5,000$km^2$

【인구】 400만명(1970년)

주민은 풀베족, 만딩그족, 수수족 등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수도】 꼬나크리(주민 35만명)

**정 치** 1848년부터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아오다가 1895년에 그의 식민지로 되였다.

기네인민들은 1958년 10월 2일 독립을 쟁취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독립후 기네정부는 《프랑스공동체》에서 떨어져나왔으며 식민주의자들의 경제적지반을 청산하기 위한 사업을 강력히 추진시켰다.

1960년에는 프랑을 페지하고 민족화폐를 발행하였으며 외래침략자들로부터 조국을 보위하기 위한 민족군대를 창건하였다.

1963년 기네정부는 아프리카독립국가수뇌자회의에서 아프리카나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전아프리카민족해방운동기금》의 설립을 제의하였다.

1963년 8월 남아프리카인종주의도당들과 모든 관계를 끊었으며 1965년 11월 22일에는 프랑스와 외교관계를 끊었다. 1968년말에는 이미 내쫓았던 미제의 《평화군》을 다시 받아들일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기네정부는 1969년 2월과 1970년 9월 프랑스와 미제국주의자들의 반정부음모책동을 적발분쇄하였다.

1970년에 기네인민들과 인민군은 11월 22일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감행된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의 강도적인 무력침공을 단호하게 물리쳤다.

11월 26일에는 기네북부에 기어들었던 제국주의고용병놈들을 몽땅 포위섬멸하였다.

기네인민들의 단호한 징벌타격을 받은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미제의 직접적조종과 지원밑에 또다시 《554—70작전》이라는 새로운 침략계획을 조작하고 기네의 9개 도시들을 침략하며 특히는 보크사이트 매장지인 보케지역을 기네공화국으로부터 떼여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였다.

세쿠 투레대통령은 제국주의자들의 새로운 침략에 대처하여 《대중적으로 궐기하라》고 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군대와 인민들에게 동원령을 내렸다.

또한 1966년 이후 제대된 예비병들에 대한 《징집령》을 선포하고 모든 지역에서 민병들과 군부대들이 전투태세에 들어가게 하였다.

12월 9일 세쿠 투레대통령은 아프리카통일기구 각료리사회 비상회의에서 아프리카를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새로운 무장침략행위에 대처하여 반제통일전선을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전국혁명리사회】 최고기관이다.

【정부】 대통령 아흐메드 세쿠 투레(1958년 10월—), 외무담당국무상 엘하지 싸이뚤라예 디알로

【정당, 사회단체】 기네민주당(집권당이며 유일당), 근로자전국련맹, 아프리카민주혁명청년, 전국녀성위원회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58년 10월 8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61년 6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1968년 4월에는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았다.

1970년 6월 우리 나라를 방문한 외무담당국무성 유엔부장은 조선혁명의 요람지인 만경대를 방문하고 조선사람들뿐만아니라 전세계의 진보적사람들은 여기에서 혁명사상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판문점에서 미제침략군놈들에게로 다가가 주먹질을 하면서 《조선은 조선인민의 것이다.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라!》고소리 높이 웨쳤다.

7월 유엔주재 기네상임대표가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농업이 경제의 기본을 이루며 주민의 90%가 농사를 한다. 벼, 야자, 강냉이, 목화, 바나나, 코코아, 커피, 초, 파인애플, 땅콩 등을 심는다.

식민주의자들의 강요로 조래되였던 단작농업경리(바나나, 종려, 파인애

롬, 커피재배)는 독립후 다각경리로 전환되여 벼, 강냉이 등 알곡이 대대적으로 재배되고있다. 또한 정부는 관개시설을 늘이고 농업기술자를 양성하며 선진영농방법을 광범히 도입하고있다. 식량은 자급자족 못하고있으며 해마다 5～6만t의 쌀을 수입한다.

공업부문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공장, 기업소를 국유화하는 동시에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방직공장을 건설한것을 비롯하여 3천 200kWH의 출력을 가진 미니꼰수력발전소, 자체의 원료로 운영되는 세멘트공장, 합성수지공장, 사탕공장, 제재공장, 육류가공공장, 제염공장, 통조림공장, 담배공장들이 건설되였다.

주요지하자원은 철, 보크사이트, 반토, 금, 금강석, 망간 등이다. 보크사이트, 반토, 금강석은 기네의 주요수출자원으로 되고있다. 보크사이트매장량은 10억t이상에 달하며 특히 보께지역은 세계적인 보크사이트매장지로 되고있다.

기네정부는 1968년 8월 미제와 보께의 보크사이트개발에 관한 협정 및 끼나크리알루미니움제품공장건설에 관한 계약을 맺었다. 또한 이해에 프랑스와 《세계개발은행》이 자금을 투자하고있는 서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에 가입하였다.

1970년 6월에는 꽈라나호—마무사이를 련결하는 도로와 꽈라나호비행장이 건설되였다.

1961년부터 초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되고있으며 학교교육은 국가가 관리하고있다. 독립후 서부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공과대학이 건설되였으며 각급 학교수는 2천개에 달하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호로야(기네민주당기관지)

## 말 리

(말리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서쪽에 있으며 니제르, 모리따니, 알제리, 기네 등과 접하고있는 내륙국이다. 년평균강수량은 북쪽사막지대에서 100mm, 기타 지역에서 700mm내외이다. 년평균기온은 35°C이다.

【면적】 120만 4,021km²

【인구】 474만 5,000명(1970년)

주민은 밤바라족, 프리니족, 마르카족, 송가이족, 말린케족 등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수도】 바마코(주민 15만명)

**정 치** 1895년에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으며 1904년에 프랑스령 서아프리카에 통합되였다.

1959년 4월 세네갈과 통합하여 말리련방을 형성하였다가 1960년 6월 20일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하였다.

1960년 8월 20일 세네갈이 련방에서 탈퇴함으로써 말리련방은 해체되였다. 1960년 9월 22일 말리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말리는 1961년 2월 11일 《프랑스공동체》에서 떨어져나왔으며 이해 9월까지 말리에서 프랑스침략군대와 국가기관내에 있던 식민주의자들을 쫓아내고 프랑스군사기지를 철수시켰다.

1965년 12월 16일에는 영제국주의자들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1968년 11월 19일 중하층장교들이 군사정변을 일으켜 모디보 케이타정권을 전복하고 군사정권을 수립하였으며 헌법을 폐지하고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을 해산시켰다.

1968년 12월 프랑스와 재정 《협정》을 맺었으며 1969년 2월에는 《말리 국가기업소 및 회사사업지도를 위한 프랑스전문가대표부》가 말리에 설치되였다.

1970년 2월 알제리와 국경을 확정하기 위한 《합동위원회》를 창설하였으며 6월 1일 기네와 협조및친선관계를 보존하기 위하여 《말리—기네협정》을 맺았다.

1970년에 미제의 《평화군》이 또다시 말리에 기여들었다.

【민족해방군사위원회】 1968년 11월 정변후 창설. 위원회는 선거로서 정부가 수립될때까지 정치, 행정, 군사권을 집행할것이라고 발표.

【정부】 국가수반,수상 무싸 뜨라오레, 외무 및 협조상 샤르레스 쌈바 씨쏘꼬, 국방, 내무및안전상 키씨마 두카라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0년 10월 31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61년 7월에는 무역및지불에 관한 협정과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았다.

1965년 10월 21일 우편물교환에 관한 협정과 정기통신련락에 관한 협정을 맺았다.

1970년에 말리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은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김일성동지혁명활동력사연구소조》들을 뭇고 현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과 그이의 로작연구모임을 광범히 벌렸으며 로작발표일에 즈음하여서는 사회계인사들이 담화들을 발표하였다.

1970년 5월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성원들이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령도밑에 조직전개된 조선인민의 항일무장투쟁》이라는 제목으로 연구토론회를 가졌으며 10월에는 그이의 력사적로작인 《현정세와 우리당의 과업》에 대한 연구모임을 가지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말리김일성동지혁명활동력사연구소조》성원들은 그이의 불후의 천재적로작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발표 두돐에 즈음하여 10월 14일 로작연구발표모임을 가지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바마코시 청년지도부성원들도 9월 15일 그이의 불후의 로작 《5대륙의 진보적기자들은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들고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자》에 대한 연구발표모임을 가지고 그이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12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인민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말리김일성동지혁명활동력사연구소조》 성원들은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를 가지고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하였으며 말리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에서는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6월에 말리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인구의 95%이상이 농업과 목축업을 한다.

주요농산물은 땅콩, 기장, 조, 벼, 강냉이, 목화, 고구마, 마니오크 등이다.

북부초원지대에서는 목축업이 발전하였으며 집짐승마리수에 있어서 서아프리카에서 첫자리를 차지한다. 소는 400여만마리, 양은 900여만마리 있다.

주요지하자원은 금, 쇠돌, 린산염, 망간, 주석, 연, 보크사이트 등이다.

독립후 벽돌공장, 도자기공장, 사탕공장, 방직공장 등이 건설되였으며 1970년에는 가죽공장건설이 완공되였으며 또한 년 35만t의 목화를 가공처리할수 있는 방적공장건설이 시작되

었다.

정변후 말리정부는 국영기업소들을 해체하고 국영경제를 공사합영 또는 개인경리로 넘겨주었으며 공장, 기업소들을 이전의 재벌들과 기업가들 및 외래독점체들에 다시 넘겨주었다.

일부 농촌지역에 조직되였던 협동경리들을 해체하고 개인경리에 내맡겼으며 농산물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폐지하고 농산물과 상품들을 자유시장에가서 팔게 하였다. 프랑스, 미제, 이딸리아 독점체들은 경제 《원조》를 미끼로 말리의 광물, 석유탐사 및 개발권을 획득하였다.

학생수는 1969년말에 20만 1천500여명이였다. 주민의 98%에 달하는 문맹자들을 없애기 위한 사업이 전군중적 운동으로 전개되였다.

1970년 9월에 새로운 방송국이 창설되였다.

【출판보도】 통신 말리통신(일간불례찐발간)

신문 에쏘르(민족해방군사위원회기관지)

## 우간다

(우간다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동쪽에 있으며 수단, 케니아, 탄자니아, 콩고(킨), 루완다와 접하고있다. 적도기후로서 년평균기온은 21.5°C이며 년강우량은 900~1천500mm이다.

【면적】 24만 3,410km$^2$

【인구】 813만 3,000명(1970년)

주민은 아프리카인으로 이루어지고있다.

공용어는 영어이나 스와힐리어도 쓴다.

【수도】 캄팔라(주민 20만명)

**정 치** 1894년에 부간다왕국(우간다는 4개의 왕국으로 되여있었다)을 강점한 영식민주의자들이 1896년에 우간다의 전령토를 《보호령》으로 만들었다.

우간다인민들은 1962년 3월에 내부자치정부를 세웠으며 이해 10월 9일에는 《영련방》내에서 독립을 선포하였다.

1966년 4월에 채택된 새 헌법에 따라 련방을 이루고있던 우간다는 단일국가로 되였다.

1967년 9월 공화국을 선포하고 부간다, 분요로, 앙콜레, 토로의 세습왕국을 철폐하였다.

1969년 2월 우간다정부는 상공업의 《아프리카인화》를 위하여 외국인들에게 《직업허가증》과 《무역허가증》 발급을 제한하는 《정부백서》를 채택하였다.

3월에 민족회의에서는 《소왕국》들의 토지를 공동소유로 하며 지주들의 토지소유면적을 제한하는 《토지에 관한 법안》을 채택하였다.

10월에는 개인기업소들을 국유화할것을 예견한 《평민헌장》을 발표하였다.

1971년 1월 25일 륙군사령관 이디 아민이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국회와 모든 국가기관들을 해체하였으며 새로 국방리사회를 창설하였다.

【정부】 대통령 이디 아민(수상, 국방상 겸임), 외무상 와누메 키베디

【정당, 사회단체】 인민대회당, 민주당, 카바카예카당, 아프리카련맹, 로동련맹, 인민대회당청년조직, 녀성동맹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3년 3월 2일 우리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0년 제25차 유엔총회에서 우간다대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한 권리를 지지하며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의 철수와 《언커크》의 해체를 요구하는 《결의안》에 찬성투표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주요농산물은 바나나, 기장, 수수, 콩, 땅콩, 마니오크, 강냉이, 벼, 감자 등이다. 총생산액에서 농업은 약 60% 차지하며 대외수출에서 농산물(커피, 목화)은 90%를 차지한다.

집짐승으로는 양, 염소 등을 기른다.

지하자원으로는 동, 텅그스텐, 주석, 금, 은, 린회석, 망간, 코발트 등이 있다.

1970년 10월에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 첫 국립종합대학을 창설하였다.

【출판보도】 신문 피플

## 아 련

(아랍련합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동부에 있으며 본토와 한개의 반도(시나이반도)로 되여있다. 전체 령토의 5.6%에 해당하는 시나이반도는 아세아대륙과 련결되여 있으며 본토는 홍해, 지중해에 면하고있다.

아련은 열대성기후이며 대부분의 지역이 사막인 관계로 나일강(6천500km)은 아련인민의 생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나일강하구 동쪽에는 수에즈운하가 있다. 년평균강우량은 63mm이며 그 대부분은 12월과 1월에 내린다.

기온은 계절과 지방에 따라 다르며 년평균기온은 21.1°C이다.

【면적】 100만 2,000km$^2$(그중 시나이반도는 5만 6,000km$^2$)

【인구】 3,395만 4,000명(1970년 7월)

인구의 96%가 아랍인이고 기타 베르베르족 등이 있다.

【수도】 까히라(주민 488만 5,000명, 1970년)

**정 치** 17세기부터 19세기초까지 오토만제국의 한개주로 예속되여있었다. 18세기말부터 19세기초에 걸쳐 애급을 침략하기 시작한 영국과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1869년 수에즈운하의 개설과 함께 애급을 예속하기 위한 책동을 강화하였다. 1882년 애급에서 진보적인 반영폭동을 구실로 영국침략자들은 까히라를 완전히 강점하고 1899년에는 영국—애급조약을 강요하여 애급의 전령토를 강점하였다. 제1차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영제국주의자들은 토이기가 패전국이라는 구실로 1914년 12월 애급을 《보호국》으로 선포하고 애급에 대한 오토만제국의 종주권을 폐지하였다. 이때로부터 애급은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그러나 애급인민들의 반영투쟁이 앙양되자 영제국주의자들은 1922년 2월 애급을 독립왕국으로 승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1936년 영제국주의자들은 애급왕국에 강요하여 저들의 침략군대를 수에즈운하에 주둔시키는 등 특권을 인정받는 《영국—애급동맹조약》을 체결하였다. 제2차대전후 영침략군의 철수와 진정한 독립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세차게 전개되는 정세하에서 애급의회는 1951년 10월 15일 《영—애급조약》을 폐기하였다. 1952년 7월 애급인민들은 친영 파르크왕조를 전복하고 1953년 6월 18일 애급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56년 6월 애급인민들은 애급령토에서 영침략군을 최종적으로 몰아냄으로써 애급에 대한 70년간에 걸친 영식민주의자들의 군사적강점을 종식시켰다. 1956년 7월 26일 수에즈운하를 국유화할데 대한 법령이 발포되자 이해 10월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 침략자들은 미제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애급을 반대하는 무력침공을 감행하였으나 애급인민들은 이를 물리치고 민족적독립을 수호하였다.

1958년 2월 애급과 수리아가 련합하여 아랍련합공화국을 창설하였다.

1961년 9월 28일 수리아에서의 군사정변으로 수리아가 여기에서 떨어져나

갔다.

1964년에 채택된 림시헌법에서는 아랍련합공화국을 《근로인민력량의 동맹에 기초한 민주주의적사회주의국가》로 규정하였다. 대외적으로 아랍련합공화국은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는것이라고 선포하였다.

1967년 5월 아련정부는 아라비아반도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이 감행하고있는 침략책동을 반대하여 지중해에 둥지를 틀고있던 미제6함대함선들의 아련입항을 거절하고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침략책동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아련은 자기 나라와 중근동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조치로서 아련과 이스라엘국경지대에 있는 《유엔군》을 몰아내고 시나이반도, 국경지역의 진지를 차지하였다. 5월 23일 아련군은 홍해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출구인 아카바만을 봉쇄하였다. 이리하여 아련은 1956년 《수에즈운하사건》이래 시나이반도, 가자지역과 아카바만에 대한 자주권을 회복하였으며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가하였다.

1967년 6월 5일 미제의 사촉하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은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전쟁을 불의에 도발하였다. 아련군대와 인민들은 침략자들을 맞받아 영웅하게 싸웠다.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의 불의의 침공으로 불리한 정황에 놓이게 된 아련은 6월 9일 정화하였다.

아련정부와 아련인민들은 강점된 아랍땅을 해방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침략자들의 도발책동에 강력한 타격을 가하고있으며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고있다.

【민족회의】 일원제이다.

【대통령】 안워르 앗 사다트(1970년 10월 15일—)

【정부】 수상 마흐무드 파우지(1970년 11월 18일—), 외상 마흐무드 리아드, 전쟁상 모함메드 파우지

【정당, 사회단체】 1953년 1월에 발표한 정당금지법에 의하여 일체 야당의 활동은 금지되였다. 아랍사회주의동맹 유일당이며 집권당, 소부르죠아민족주의 정당이다. 위원장 안워르 앗 사다트(1970년 11월 12일), 로동런맹, 사회주의청년조직, 아련조선친선협회 1969년 2월 결성, 위원장 모하메드 라비브 슈까이르

【주요사건】 1970년 9월 28일 아련대통령 가말 아브델 나쎄르가 서거하였다. 10월 1일 아련인민과 우리 나라를 비롯한 80여개나라 대표들의 참가하에 장례식이 거행되였다.

10월 15일 대통령선거를 위한 국민투표에서 사다트가 투표자의 90.4%의 지지를 받음으로써 대통령으로 되였다.

사다트대통령은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나라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1970년 11월 전국국방위원회와 최고민간방위리사회를 결성하였다.

6월 아랍나라들과 이스라엘침략자들간에 90일간의 《정화》가 실시되였으며 그후 1971년 3월 7일까지 《정화》가 연장되였다.

11월 8일 아련, 리비아, 수단의 국가수반들이 회담을 진행하고 3개국 련방을 형성할데 대한 결정을 발표하였다. 결정에서는 련방형성의 목적이 《아랍의 진보적력량을 통일하고 단합》하는데 있다고 지적하였다. 련방에는 3개국 수반들로 되는 《리사회》를 구성하고 그밑에 4개의 합동위원회를 두기로 하였다.

아련, 알제리, 리비아, 이라크는 1월 7일 제국주의독점체들로 부터 아랍의 석유자원을 되찾기 위한 석유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았다.

2월에는 아련, 수리아, 이라크, 수단, 요르단 수뇌자들이 회의를 열고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공동투쟁을 진행할데 대한 대책을 토의하였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57년 12월에 우리 나라와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61년 7월에는 령사관계를, 1963년 8월 24일에는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70년 1월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이 아련을 방문하였다. 대표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 김일성동지께서 나쎄르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친서를 전달하였다.

10월 1일 나쎄르대통령의 장의식에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대표단이 참가하였다.

6월에는 아련에서 진행되는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 행사에 참가하기 위한 조선인민대표단이 아련을 방문하였다. 이월간에 즈음하여 까히라를 비롯한 여러 주요도시들에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군중대회가 진행되였으며 아랍사회주의동맹 중앙위원회는 6월 27일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책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6월에는 아련사회주의청년조직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0월에는 아련정부통상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1971년도 상품류통에 관한 의정서를 조인하였다.

아련정부는 유엔총회 25차회의에서 《조선문제》가 토의되였을때 우리 나라를 지지하는 모든 결의안에 발기국으로 되였다.

**경제, 사회** 아련은 공업의 국유화를 통하여 이미 형성된 나라의 자본에 의거하여 경제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아련인민들은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나라의 방위력강화에 많은 힘을 돌이지 않으면 안되는 조건하에서도 민족경제건설에서 일련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1969—1970년도에 아련의 공업총생산액은 그전회계년도에 비하여 10%가 늘었다. 그중 전력공업은 29.7%, 원유공업은 12.2%, 야금공업은 10.8%, 기계제작공업은 19.6% 장성하였다.

1970년에 아스완수력발전소가 완공됨으로써 전력은 100억kWH를 생산하게 된다(1968년에 65억kWH)

1970년에 석유생산량은 2천 500만톤에 달하였다. 그밖에 방직공업을 비롯한 제지, 세멘트, 담배 공업기업소들과 제철소, 비료공장, 중소화학공장들이 늘어났다.

1952년 9월에 채택된 토지개혁법령에 의하여 최고 200페단(1페단은 0.4정보)까지의 토지소유한도를 1969년 9월에 50페단까지로 제한하였다. 제2차 농지개혁에 의하여 몰수당한 지주의 수는 약 5천명이다.

총인구의 60%이상이 농민이며 경지면적은 260만정보, 파종면적은 460만정보이며 1970년에 아스완댐 공사가 완공되여 약 12만정보의 땅을 관수하며 1모작밖에 못하던 땅을 2—3모작하게 되였다.

농업생산물은 주로 목화, 벼, 강냉이, 파실, 밀 등이다. 이 나라 수출총액의 약 70%를 차지하는 목화의 년생산량은 약 49만t에 달하고있다.

1968년에 밀은 151만t, 강냉이는 230만t, 벼는 250만t 생산하였다.

농업총생산액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몫은 약16%에 달한다. 소는 163만마리, 물소는 164만마리, 양은 194만마리, 산양은 79만마리, 락타는 79만마리에 달한다.

주민의 91%가 이슬람교를 믿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멘통신 (중근동통신)

신문 알 곰후리아(정부기관지), 알 아흐람, 알 메싸, 알 아흐바르, 에잘은

가제트, 쥬르날 에질트, 프로그레 에 질시엘

## 모리따니

### (모리따니회교공화국)

사하라사막의 서부에 자리잡고있으며 에스빠냐령 사하라, 알제리, 말리, 세네갈과 접해있다. 령토의 대부분은 사막과 반사막이다. 년평균기온은 25°C이며 년평균강우량은 200~600mm이다.

【면적】 116만 9,000km²

【인구】 112만명(1970년)

주민은 75%가 아랍인들과 혼혈한 베르베르족이며 나머지는 흑인이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다.

【수도】 누아크쇼트(주민 2만명)

**정 치** 1920년에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으며 1958년 11월 《프랑스공동체》내의 《자치공화국》으로 되였고 1960년 11월 28일에 독립하였다.

1961년 6월 19일 대외정책, 국방, 경제분야에서 프랑스와 불평등한 《협조협정》을 맺었다.

1965년 7월 아프리카말가슈공동기구에서 탈퇴하였다. 이해 9월에는 장개석도당과, 12월에는 남로데시아에서의 소수백인정권조작을 항의규탄하여 영제국주의자들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또한 정부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미제와의 외교관계를 단호히 끊어버렸다.

1968년 10월 민족회의는 제국주의자들, 유태복고주의자들,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과의 그 어떤 부역도 금지하는 법령을 발포하였다.

【민족회의】 일원제이다.

【정부】 대통령 모크타르 올드 다다흐(1961년 8월-), 외무상 모하메드 엘 모크타르 마루프 올드 아브달라히, 민족보위상 함디 올드 무크나쓰

【정당, 사회단체】 인민당(집권당이며 유일당), 근로자동맹, 인민당청년최고리사회, 인민당녀성최고리사회, 모리따니조선친선협회 1968년 4월 11일 결성, 위원장 모하메드 올드 씨디 알리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4년 11월 12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고 남조선괴뢰들과는 주동적으로 외교관계를 끊었다.

1965년 9월에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1967년 10월에 무역협정과 과학기술협정을 각각 맺었다.

1970년 7월 9일 누아크쇼트에서 모리따니청년들이 《김일성수상로작연구소조》를 결성하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모리따니인민당 청년최고리사회 위원인 소조책임자 에뜨만 올드 엘 레이우아트는 《김일성수상로작연구소조》를 조직하게된 목적에 대하여 말하면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들은 《진심로 혁명을 하려고 결심한 사람들에게 밝고 곧은 길을 가르쳐 주는 광휘로운 빛이며 각이한 혁명의 매단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복잡한 문제들에 가장 정확한 대답을 주는 열쇠》로 되기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9월 10일에는 누아크쇼트시 《김일성수상혁명력사연구소조》가 결성되였으며 12월 14일에는 까히라에서 공부하고 있는 모리따니류학생들이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를 결성하고 그이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김일성수상로작연구소조》 성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들인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에 대한 연구모임들을 가지고 그이께 드리는 편지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모리따니 각계 인민들은 조선인민과의 련대성모임을 가지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1970년 2월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이 모리따니를 방문하였으며 8월 모리따니민족회의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축산업(주민의 70% 이상이 종사)이 경제의 기본으로 되고있다. 큰뿔난 집짐승은 1천만마리, 양은 500여만마리, 락타는 100여만마리에 달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수수, 벼, 보리, 콩, 기장, 남새 등이며 대추, 야자, 아라비아고무도 생산한다.

주요지하자원은 쇠돌(철함유량 65%), 동, 크롬, 주석, 바나디움, 니켈, 원유 등이다. 쇠돌생산량은 아프리카대륙에서 두번째자리 (1969년에 900만t 생산)를 차지한다.

모리따니는 1970년 7월에 경제 및 사회발전 제2차 4개년계획에 착수하였다. 계획에서는 광업, 축산업, 어업을 나라의 3대 중요경제부문으로 규정하고 이 부문의 발전에 력량을 집중하고있다.

또한 경제관리간부들의 《모리따니화》를 위하여 새로운 고등학교와 기술학교들을 건설할것을 예견하고있다.

1970년에 소학교와 중학교 학생수는 4만명이였으며 8개의 큰 병원, 18개의 진료소, 60개의 예방치료소, 15개의 산원이있었다.

【출판보도】 신문 피플, 누아크쇼트 엔포르마숀(불레찐)

## 콩고 (브)

### (콩고인민공화국)

중부아프리카에 있다. 가봉, 까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킨)와 접경하고있다. 서남부는 대서양에 면하고있다. 년평균기온은 22~27°C이며 년평균강우량은 1천~1천600mm이다.

【면적】 34만 2,000km²

【인구】 87만명(1970년)

【수도】 브라자빌(주민13만 5,600명)

**정 치** 1875년부터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침입을 받아오다가 1886년에는 그의 식민지로 되였다.

1910년에 프랑스령 적도아프리카에 편입되여 《중앙콩고》라고 불리웠다.

1911년부터 독일의 식민지로 되였다가 1차세계대전후 다시 프랑스식민지로 되였다.

콩고의 민족적영웅 마조카의 지도하에 1934년부터 9년간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투쟁이 벌어졌다.

1958년 11월에 프랑스《공동체》내의 《자치공화국》으로 되면서 《콩고공화국》으로 불리우게 되였다.

1960년 8월 15일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플베르 율루괴뢰정권을 조작하여 콩고에서 실권을 장악하고 식민주의정책을 계속 실시하였다.

1963년 8월 애국적인 인민들은 대중적인 파업과 폭동을 일으켜 율루반동정부를 타도하고 8월혁명의 승리를 쟁취하였다. 이해 12월 국민투표에 의하여 헌법이 채택되고 민족의회가 구성되였다.

8월혁명후 콩고정부는 프랑스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체결하였던 예속적인 군사경제적협정들을 파기하고 외국군사기지와 병영들을 철폐하며 외국독점회사들을 국유화하는 등 반제조치들을 취하였다. 1968년 8월에 마리엔 느구아비가 《혁명과 나라의 최고기

판》으로 전국혁명리사회를 창설하였으며 1963년의 헌법을 페기하였다.

1969년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있은 꽁고로동당창립 대회에서 채택된 꽁고로동당의 규약에는 《당활동의 리론적기초는 맑스-레닌주의》이며 당의 목적은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가 없는 민주주의적이며 사회주의적인 사회를 건설하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대회에서는 꽁고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꽁고로동당과 꽁고인민공화국의 창건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꽁고로동당의 창건과 꽁고인민공화국의 선포는 반제민족해방혁명과업을 완수하고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려는 꽁고인민의 굳은 결의의 표시로서 꽁고인민의 력사에서 하나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되며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커다란 타격으로 됩니다.》**

꽁고인민들은 꽁고로동당의 령도밑에 꽁고인민공화국을 말살하려는 미제의 파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면서 사회주의의 길로 나가기 위한 혁명적이며 반제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꽁고로동당은 1970년 3월 23일 미제의 사촉하에 꽁고반동들이 시도한 반혁명적인 국가정변음모를 성과적으로 짓부시고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였으며 3월 25일에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로골화되는 파괴암해책동에 대처하여 전체 인민을 무장시킬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3월 30일에 열린 꽁고로동당 비상대회는 당을 조직, 정치사상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1970년 3월 26일 국가리사회는 개인기업체들의 소유인 도로, 교량, 도선장 및 비행장 등을 국가가 직접 장악하며 동시에 《아프리카 말가슈항행안전국》 소유의 모든 건물들과 비행장들을 국유화하였다. 9월 25일에는 프랑스독점체들의 경제략탈도구인《니아리광업 및 농업협회》와 그 산하의 공장, 재배원 등을 국유화하였다.

10월 꽁고로동당과 정부는 꿀리지지역에 동지를 캐고있는 외국인 림산사업소 《푸게》의 반동기업주놈들의 가혹한 착취행위와 전횡적만행을 반대하여 파업에 일떠선 로동자들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으며 이 외국인기업소에 고용된 꽁고인 로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대책을 강구하였다.

【국가리사회】(정부) 나라의 최고기관으로서 1970년 1월 5일에 구성, 위원장 마리엔 느구아비(국방 및 안전사업담당), 외무상 옥쌍스 익꽁가

【정당, 사회단체】 꽁고로동당 1969년 12월에 창건, 집권당이며 유일당이다. 위원장 마리엔 느구아비. 로동조합총련맹, 사회주의청년동맹, 녀성혁명동맹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4년 12월 24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의 외교관계를 맺았다.

1965년에는 두 나라간에 과학기술협조협정과 무역및지불협정 그리고 우리 나라가 꽁고(브)에 경제및기술적원조를 줄데 대한 협정을 맺았다.

1966년 12월 16일에 문화협정이, 1967년 3월에는 통신및방송 협정, 9월 21일에는 우편물교환협정을 각각 맺았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꽁고인민에게 보내신 선물인 꽁고인민공화국 베뚜성냥공장 조업식이 1970년 9월 26일에 진행되였다. 조업식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이 공장 로동자들은 《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하여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일으킨 미제침략자들을 준렬히 규탄하는 군중집회를 가지고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이 당장 물러갈것을 요구하여 미제전쟁두목 닉슨에게 항의문을 들이댔다.**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니아리주 돌리지시, 뽀앙뜨 노아르시를 비롯한 꽁고의 여러 도시들과 민족인민군 구분대들에서 조선인민의 반미투쟁을 지지하는 군중집회들을 진행하였다. 집회들에서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로작들을 꽁고의 출판물들은 광범히 실었으며 꽁고인민들속에서는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소조》들을 내오고 그이의 혁명활동과 불후의 로작들을 심오히 연구하고있다.**

**1970년 6월 16일 베뚜성냥공장 로동자들은 《김일성동지로작및혁명활동 력사연구소조》를 결성하였으며 브라자빌의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소조》성원들은 그이의 불후의 로작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5대륙의 진보적기자들은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들고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자》에 대한 연구발표모임을 가졌다.**

1970년에 꽁고사회주의청년동맹대표단(4월), 로동조합총련맹대표단(6월), 음악가동맹 부위원장(6월), 꽁고외무상이 인솔하는 대표단(7월)이 각각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는 농업과 림업을 기본으로 하고있다. 농업에는 로동인구의 약 70%가 종사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마니오크(감자의 일종), 기장, 수수, 땅콩 등이다. 최근년간 벼, 커피, 사탕수수 등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생산이 점차 늘어나고있다.

혁명후 정부는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이 가지고있던 땅을 몰수하여 땅없는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농업협동조합을 무어 집단경리를 발전시키고 있다.

산림면적은 전령토의 58.5%에 달하며 목재는 해마다 50만$m^3$를 수출한다(대외수출의 약 68%)

지하자원으로는 금, 연, 주석, 동, 소금, 원유, 천연가스 등이 있다.

1969년에 쇠돌산지, 유전 등이 발견되였다.

꽁고인민들은 민족공업의 터전을 닦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전개하여 1968년이후 총발전능력 75만kW에 달하는 쿠이루강수력발전소, 야금공장, 사탕공장, 비누공장, 세멘트공장 등을 건설하였다. 1970년에 조형목조선을 만들 조선소건설이 시작되였다.

혁변후 민족교육도 급속히 발전하여 1970년에는 이 나라 인구의 5분의 1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출판보도】 통신 꽁고통신

신문 에뚬바(꽁고로동당기관지), 브라자빌, 꽁고생활

## 가 나

## (가나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서쪽, 상아해안과 또고사이에 있으며 기네만에 면하여있다. 열대성기후로서 년평균기온은 해안과 중부산림지대에서 22~23°C이다. 년평균강우량은 1천~2천mm이다.

【면적】 23만 7,800$km^2$

【인구】 854만 5,561명(1970년)

주민의 대부분이 아산티족, 에웨족이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수도】 아크라(주민 39만명)

**정 치** 1844년에 영식민주의자들의 식민지로 되였다.

1957년 3월 6일 가나는 《영련방》내에서 독립을 선포하고 황금해안이라고 불리우던 나라이름을 가나로 고쳤으며

영국의 《후견령》이던 서부또고가 가나에 편입되였다.

1960년 4월 헌법을 채택하고 7월 1일 공화국을 선포하였으며 느크루마가 초대대통령으로 되였다.

1966년 2월 24일 친미주구인 안크라를 우두머리로 한 일부 군대와 경찰이 군사정변을 일으켜 느크루마정권을 전복하고 군사정권을 세웠다. 안크라는 집권후 헌법을 정지시키고 모든 정당, 사회단체를 해산하고 민주주의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등 군사파쑈독재를 실시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친미추종정책에 매달림으로써 대내외적인 고립을 면할수 없었다. 결과 1969년 4월 2일 반대파들에 의해 정권에서 쫓겨났다.

안크라를 쫓아내고 대통령으로 된 아프리파는 《민정복귀》, 민주주의적정당활동의 허가 등의 구호를 내걸고 정치경제적혼란을 수습해보려하였으나 가나가 직면한 난관을 해결할수 없었으며 인민대중의 불만은 계속 증대되였다. 이리하여 아프리파는 대통령선거도 있기전인 1970년 8월 7일 국회의장 올랜누를 대통령대리로 올려앉히는 한편 자기를 포함한 《대통령위원회》를 해산하고 대통령자리에서 물러났다.

1970년 8월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된 아쿠포—아도는 8월 31일 취임선서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할것》을 약속하였으며 《뿔럭불가담》과 《적극적인 중립에 기초한 대외정책을 추구》하겠다고 하였다.

【국회】 일원제이다.

【대통령】 에드워드 아쿠포—아도 (1970년 8월 31일—)

【정부】 수상 코피 아브레파 부시아 (1969년 9월—), 외부상 빅토르 오우스

【정당, 사회단체】 민족진보당(집권당), 전인민대회당, 전국인민당, 청년전선당, 민족통일당, 전국자유동맹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4년 12월 28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았다.

**경제, 사회** 주민의 3분의 2이상이 농사를 하고있다. 오랜기간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인하여 가나의 농업이 단작농작물재배체계로서 코코아생산에 편중되고있다.

가나인구의 3분의 1이상이 코코아재배 및 생산에 종사하고 있다.

코코아 재배면적은 근 50만정보에 달하며 해마다 40만톤 이상(세계 코코아 총 생산량의 3분1을 차지)생산된다. 코코아수출은 이 나라 총수출액에서 약70%, 여기에서 얻는 세입은 총수입의 30%를 차지한다. 이밖에 바나나, 땅콩, 수수, 강냉이, 커피, 야자, 생고무 등을 생산한다. 해마다 많은 식량을 수입한다.

산림면적은 약 1천 370만정보에 달하며 목재생산도 큰 수입으로 되고있다. 금, 금강석, 망간, 보크사이트 등이 채취된다.

1966년 정변후 국영기업소들은 해체되여 공장주에게 돌아갔거나 자본가들에게 방매되였다. 또한 미제와 제국주의독점체들의 자본이 대대적으로 침투되였다.

주민의 대부분이 회교와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가나타임스(정부기관지), 이브닝 뉴스

## 탄자니아

### (탄자니아련합공화국)

탄자니아는 아프리카대륙의 동부해안에 있는 탄가니카와 그로부터 바다를 사이에 두고 36km 떨어져 있는 작은 섬나라인 잔지바르(펨바섬포함)와 련합하여 이루어졌다. 평균기온은 가장 높을 때에 35°C(잔지바르는 33°C), 가장 낮을 때는 15°C(잔지바르는 22°C)이며 년평균강우량은 1천 200mm이다.

【면적】 94만 1,600km²

【인구】 1,250만 8,000명(1970년)

주민의 대부분은 아프리카인이며 기타 아랍인, 인도인, 파키스탄인, 구라파인이 있다.

공용어는 스와힐리어와 영어이다.

【수도】 다르 에스 살람(주민 27만명)

**정 치** 1961년 12월 9일 《영련방》안에서 독립한 탄가니카와 1963년 12월 10일 《영련방》안에서 독립한 잔지바르가 1964년 4월 26일 련합하여 탄자니아련합공화국을 형성하였다. 련합에 관한 협정에 의하면 잔지바르는 국방, 안전, 경제, 문화분야에서 독자적권한을 행사하며 자기의 립법기관과 행정기관을 가지며 자치권을 가지고있다.

1967년 2월 5일 니에레레대통령은 《사회주의와 자력갱생에 관한 탄가니카아프리카민족동맹의 정책》이라는 《아루샤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의 리념에 따라 정부와 군대내에 있던 영식민주의관리들을 모두 축출하였으며 정부내의 외국인들, 외국국적을 가진 탄자니아인들을 모두 해임시켰다.

또한 정부는 제국주의자들의 전복음모와 파괴책동을 짓부시기 위하여 1966년이래 이 나라에서 정탐활동을 감행하던 미제《평화군》 400여명을 1969년 6월까지 모두 내몰았으며 1970년 3월에는 《안전에 관한 법령》을 발포하고 경각성을 높일것을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또한 정부는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지반을 청산하기 위하여 외국독점체들의 경제적리권을 박탈하였다.

1970년 3월 민족회의는 나라의 수산자원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독점권을 폐지하고 통제권을 국가가 장악하는 법령을 채택하였다.

【민족회의】 일원제이다.

【정부】 대통령 쥴리어스 케이. 니에레레(1964년 4월—), 제1부대통령 쉐이크 아베이드 아마니 카루메(잔지바르대통령), 외무담당국무상 이사엘 엘리나워가

【정당, 사회단체】 탄가니카아프리카민족동맹(탄가니카 집권당), 아프리카쉬라지당(잔지바르집권당), 탄가니카로동자전국동맹, 잔지바르혁명로조련맹, 청년동맹(탄가니카와 잔지바르에 각각 있음), 전국녀성동맹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5년 1월 13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았다. 1965년 6월에는 무역협정, 11월에는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1966년 7월 문화및과학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았다.

1970년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들인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와 그리고 《핀란드공산당중앙기관지 〈칸산우우티세트〉를 위하여 핀란드민주청년동맹대표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민족출판사에서 각각 단행본(스와힐리어로 됨)으로 출판하였다.

또한 그이의 혁명활동과 불후의 로작들을 탄자니아신문들은 광범히 실었으며 다르 에스 살람종합대학에서는 로작연구발표모임들을 가졌다.

3월 23일 다르 에스 살람에서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직지도하신 조선국민회 결성 쉰돐에 즈음하여 기념모임을 진행하였다.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다르 에스 살람에서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청년학생들의 련대성집회가 진행되였으며 탄자니아조선친선협회 주

최로 《미제는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라는 사진전람회가 열렸다.

9월 8일 다르 에스 살람에서 탄자니아조선친선협회주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두돐경축군중집회가 진행되였다.

또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 즈음하여 《사회주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달려온 천리마조선》이라는 사진전람회가 열렸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광업이다.

탄가니카에서 사이잘삼(자본주의세계에서 제1위), 커피, 목화, 잔지바르에서는 정향(세계생산량의 70% 차지)들이 생산된다. 지하자원은 금강석, 동, 주석 등이다.

1967년 2월 《아루샤선언》이 발표된후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정부는 1967년에 큰 제분소, 보험회사, 식료품회사, 중요사이잘삼회사 들을 모두 국유화하였다.

1970년에는 영제국주의독점체의 자동차회사를 국유화하였으며 제국주의석유독점회사들인 《쉘 탄자니아》와 《아쥐프 탄자니아》의 주권의 50%를 국가가 장악하고 그 활동을 제한 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리하여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을 국가가 유일적으로 틀어쥐고 나갈수 있는 물질적조건을 튼튼히 마련하였다. 이러한 밑천을 공고히 하면서 공장, 기업소들을 창설, 개건,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시켜왔는데 1970년까지만도 방직공장, 합성수지공장, 농기구공장 등 30여개가 새로 건설되거나 확장, 개건되였다.

농업분야에서는 식민주의자들의 모든 토지와 사이잘삼재배원들이 국유화되였으며 국유화된 토지와 개간된 땅들에는 국영농장과 협동로동촌들이 창설되였다.

1970년까지 1천 100여개의 협동로동촌들이 생겨났는데 여기에는 50여만의 농민들이 망라되였다.

1970년 6월에 외국인들의 신문사를 국유화하였다.

정부는 1970년을 《교육의 해》로 선포하고 문맹을 없애는 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렸다.

6월 다르 에스 살람에 이 나라의 첫 국립종합대학이 창설되였다.

잔지바르에서는 1970년초에 교육체계를 새로 개편하였다. 1970년에 잔지바르학생수는 4만 8천명이였다.

【출판보도】 신문 스탠다드(정부신문), 느구루모, 내슈널리스트

# 부룬디

(부룬디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중부에 있으며 루안다, 탄자니아, 콩고(킨)와 접하고있다. 적도계절풍기후이다. 년평균기온은 23~25°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1천~1천 500mm이다.

【면적】 2만 7,834km²

【인구】 340만 6,000명(1970년)

주민의 대부분은 바후투족(약75%)이며 와투치족, 피그미족들도 산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수도】 부줌부라(주민 4만 5,000명)

**정치** 독립전까지 《루안다—부룬디》로 불리여왔다. 1890년에 독일의 식민지로, 1922년부터는 벨지끄의 식민지로 되였다.

1946년 12월 유엔의 조작으로 《유엔후견령》으로 되였다.

1957년에 《루안다부룬디민족동맹》이 창립되고 민족적독립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투쟁기세가 높아지자 벨지끄식민주의자들은 무력탄압, 종족간의 리간, 기만적인 《개혁》등으로 이 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유지하려고 책동하였다.

1959년 11월에는 와투치족과 바후부족간에 리간을 조성시켜 대규모의 충돌을 일으키고는 《질서회복》이라는 구실밑에 이 나라 인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하였다. 그러나 독립을 요구하는 이 나라 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1962년 7월 1일 《루안다—부룬디》는 부룬디왕국과 루안다공화국으로 분리되여 각각 독립을 선포하였다.

1966년 7월에 수상으로된 미셸 미촘베로가 이해 11월 28일 세습적인 봉건통치집단을 뒤집어엎고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1969년 10월 미제와 벨지끄식민주의자들의 사촉에 의한 반정부음모를 짓부셔버렸다.

1969년 11월 대통령 미셸 미촘베로는 부룬디혁명 세돐에 즈음하여 한 연설에서 《혁명불가담, 이웃나라들과의 친선관계의 강화, 기타 나라들과 관계의 확대, 제국주의와의 투쟁강화—바로 이것이 우리의 대외정책의 기본로선》이라고 지적하였다.

【민족회의】 임원제이다.

【정부】 대통령 미셸 미촘베로(1966년 7월—), 외무협조및 계획상 아르테뮤 심바나니예

【정당, 사회단체】 민족통일진보당(집권당이며 유일당), 근로자동맹, 르와가소레혁명청년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7년 3월 11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았다. 1969년 3월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이해 12월 17일 평양에서 조선부룬디친선협회가 창설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휘밑에 진행된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승리 서른세돐을 축하하여 기테에 있는 부룬디류학생들이 1970년 6월 4일 모임을 가지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1970년 8월 12일 기테에서 공부하고 있는 부룬디류학생들이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결성모임을 가지고 혁명의 위대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목축업이다.

주요농산물은 수수, 강냉이, 밀, 콩, 고구마, 땅콩, 차, 커피, 목화, 담배, 바나나 등이다.

공화국이 선포된후 부룬디인민들은 식민지통치와 봉건왕조의 부패한 통치가 남겨놓은 악독한 후과를 가시고 민족경제의 토대를 닦기위한 사회적운동을 벌려 도로와 학교, 관개시설들을 수많이 건설하였다. 1970년 6월 부줌부라에 설계로부터 건설에 이르기까지 부룬디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의 힘으로 된 새 다리가 건설되였다. 1970년에 농산물생산량도 늘어났는데 중요 수출품의 하나인 《아라비카》종 커피는 지난시기 평균생산량보다 7천t이 더많은 2만 1천t에 달하였으며 3년동안에 쌀은 4배나 늘어나 독립후 최고수자인 1만 2천t수준에 도달하였다.

탄가니카호에서 물고기를 잡고있는데 어획량은 해마다 약 1만 5천t이다.

민족교육도 급속히 발전하고있다.

1967년 8월 부룬디정부는 모든 공민들이 다 글을 배울수 있게하는 법령을 채택하였다. 1968—1972년 민족경제발전 제1차 5개년계획에 근거하여 1970년에는 국가예산의 23%를 교육부분에 돌리였다.

1970년에 소학교학생수는 20만명이였다.

【출판보도】 신문 유니옹 에 라 렝블류시옹

# 소말리아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동쪽에 있으며 에티오피아, 케니아와 접하고있다. 홍해의 남쪽입구에 있는 전략적요충지이다.

년평균기온은 25~30°C이다. 비가 적게 오며 물이 아주 귀하다.

【면적】 63만 7,593km²

【인구】 270만명(1970년)

주민은 대부분이 소말리아인이며 그외 흑인, 아랍인, 인도인 등이 있다. 고유한 민족어를 가지고있으나 문자가 없다.

공용어는 이딸리아어, 영어, 아랍어이다.

【수도】 모가디쇼(주민 16만명)

**정 치** 1880년대에 이 나라에 기여든 영국, 프랑스, 이딸리아 식민주의자들이 나라를 세개지역으로 분할 강점하였다.

민족적독립을 위한 이 나라 인민들의 투쟁은 제2차 대전후 앙양되여 1959년 2월부터 무장투쟁이 전개되었다.

1960년에 영령소말리아와 이딸리아령소말리아가 각각 독립하였으며 7월 1일에는 갈라졌던 이 두 지역이 통합하여 소말리아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9년 10월 21일 소말리아륙군이 군사정변을 일으켜 친미반동정권을 뒤집어엎고 최고혁명리사회를 구성하였다. 최고혁명리사회는 헌법을 페지하고 국회와 모든 정당들을 해산하였으며 나라 이름을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으로 고쳤다.

최고혁명리사회는 《평화군》의 탈을 쓰고 이 나라 내정에 간섭하던 미제간첩 120명을 몰아내고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리권을 박탈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최고혁명리사회】 나라의 최고기관이다.

【정부】 최고혁명리사회 위원장 겸 수상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 (1969년 10월—), 외무담당 국무비서 오마르 아르떼흐 갈리브

【정당, 사회단체】 1969년 10월 21일 군사정변후 모든 정당, 사회단체는 해산되였다.

【주요사건】 1970년에 소말리아정부는 미제와 국내반동들의 파괴암해책동을 물리치면서 일련의 반제적인 대내외정책을 실시하였다.

4월 소말리아정부는 미제와 국내반동들의 정변음모를 단호히 물리치고 이 음모를 조종한 미제대사관 서기관놈들과 우라니움상사놈들을 몰아냈다.

5월 6일 최고혁명리사회는 침략과 략탈의 도구로 되고있던 모든 외국은행과 주요 외국인회사들을 국유화 하기로 결정하였다.

6월 소말리아해군은 《석유탐사선》이라는 가명으로 이 나라 령해에 기여든 미제무장간첩선을 나포하였다.

8월 27일 소말리아정부는 인구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유목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설적인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11월에는 소말리아령공을 침입한 서독군국주의자들의 비행기를 사로잡았다.

대외적으로 소말리아정부는 사회주의나라들과 친선관계를 발전시키고 민족해방투쟁을 지지하며 미제의 침략책동을 반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4월 11일 민주독일과 남부윁남공화림시혁명정부를 승인하였으며 6월 7일에는 윁남민주공화국과 외교관계를 맺았으며 8월 31일에는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를 승인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소말리아정부의 이와 같은 반제적인 립장에 겁을 먹은 미제와 서독군국주의자들은 소말리아에 대한 침략의 미끼로 제공하던 《원조》를 중단함으로써 압력을 가하려고 시도하였다.

6월 2일 최고혁명리사회 위원장은 미제와 서독군국주의자들의 이와같은 책동을 규탄하였으며 6월 5일에는 소말리아인민들이 반미시위를 벌리고 미제대사관 간판을 파괴해버렸으며 정부로 하여금 미제 및 서독과 외교관계를 끊을것을 요구하였다.

6월 7일 모가디쇼시민들이 미제의 중근동 및 캄보쟈침공을 규탄하여 정변이래 가장 큰 규모의 군중대회와 시위를 진행하였다. 시위자들은 미제대사관에 항의성명을 들이대여 미제의 침략책동을 규탄하였다.

7월 27일 모가디쇼시민들은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에 대한 영제국주의자들의 무기공급을 강력히 규탄하여 영국대사관으로 몰려가 대사놈에게 항의문을 들이대고 남아프리카인종주의도당에 살인무기를 대주기로한 영제국주의자들을 준렬히 규탄하였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2년에 우리 나라와 무역대표부교환에 관한 협정을 맺았으며 1967년 4월 12일에는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았다. 1969년 11월 23일 소말리아에 우리 나라 대사관이 개설되였다.

1970년 10월 19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소말리아 혁명승리 한돐에 즈음하여 최고혁명리사회 위원장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소장에게 보내신 축전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선인민은 소말리아인민이 혁명승리후 …미제를 우두머리로하는 제국주의와 국내반동세력들의 계속되는 파괴암해책동을 용감하게 물리치면서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민족경제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하고있는 성과들을 진심으로 기뻐하고있습니다.》

10월 20일 소말리아혁명승리 한돐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소말리아를 방문하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소말리아 최고혁명리사회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위원장에게 보내시는 친서와 선물을 전달하였다.

10월 26일 그이께서 보내신 선물인 조선예술영화 《피바다》에 대한 감상모임이 최고혁명리사회 위원장 궁전에서 진행되였다.

11월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쇼에 《김일성도서관》이 개관되였다.

도서관에는 《김일성저작선집》을 비롯한 그이의 불후의 로작들을 비치하였다.

소말리아정부는 유엔총회 25차회의에서 《조선문제》가 토의될 때 《미제침략군철수안》과 《언커크해체안》에 찬성하였다.

소말리아정부대표단이 1970년 6월과 8월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목축업이다.

주민의 80%가 유목 또는 반유목생활을 한다. 농민이란 불과 10%밖에 안된다.

주요농산물은 바나나(년생산량 약 10만t)인데 그중 95%는 수출한다. 이밖에 강냉이, 목화, 땅콩, 사탕수수, 밀 등이 난다. 그러나 소말리아에서의 물의 부족은 농업 및 목축업발전과 인민들의 생활에 저애를 주고있다. 정부는 3개년계획(1968—1970년) 기간에 총투자액의 70%이상을 물문제해결에 집중시키고 모가디쇼의 물저장탕크, 쥬바강주변의 관개건설, 저수지건설 등에 착수하였다.

주요지하자원은 우라니움, 석유, 쇠돌, 망간, 동, 주석, 연 등이다.

정변후 소말리아정부는 제국주의자들의 독점자본과 그와 결탁한 국내반동들의 자본을 국유화하고 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1970년 5월에 모든 외국은행과 모가디쇼전력회사, 스니아사탕회사, 석유회사 등을 국유화하였으며 국영보험회사를 창설하였다. 또한 현대적인 영농방법을 도입하며 하부 및 상부 쥬바지방들에서 경지면적을 늘임으로써 농업생산을 확장할 계획을 세웠으며 목축업을 과학기술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 부문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조치

를 취하였다.

소말리아정부는 식민지교육체계를 민족교육체계로 개편하며 소말리아어를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학령아동의 8%가 초등 교육을 받고있는 형편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학교건설을 하며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출판보도】 신문 옥터버 스타(정부기관지), 스텔라 도도브레, 호르 쎄이드(주간지)

## 프랑스령 소말리아

(아파르—이싸해안)

아프리카동북단에 있는 소말리아서쪽에 접해있는 지역이다. 지리적으로 보아 중요한 군사전략적지점의 하나로 되고있다.

【면적】 2만 3,000km²

【인구】 약 40만명

주민의 대부분이 소말리아족과 다나크족이다.

【행정중심지】 지브티(주민 4만 1,000명)

1880년에 원래 소말리아령토였던 이 지역을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이 강점하고 1882년에 저들의 《보호령》으로, 1958년에는 식민지로 만들었다.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1945—1960년 사이에 있은 이 지역인민들의 독립을 위한 무장투쟁을 무력으로 가혹하게 탄압하였으며 이 운동의 지도자들을 체포구금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독립을 위한 이 지역인민들의 투쟁을 무마하기 위하여 이른바《독립을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강요하며 저들의 《법적지위》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해 6월에는 프랑스령소말리아를 《아파르—이싸해안》으로 고쳤으며 《프랑스공동체》내의 《해외령토》로 선포하고 총독통치를 실시하고있다.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여기에 4천여명의 침략군을 주둔시켜놓고 이 지역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무력으로 탄압하고있다.

프랑스령소말리아인민들은 민족적해방과 나라의 완전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조직을 뭇고 무장투쟁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벌리고 있다.

1963년에 로동자,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을 망라한 《프랑스령소말리아해안해방전선》(4개의 지역위원회를 가지고있다) 이 결성되여 이 지역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을 지도하고있다. 이 조직은 《오직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주장하고있다.

프랑스령소말리아의 투쟁조직들은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를 자기 조직과 세계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존경하고 흠모하고있으며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따라배우고있다.

1970년 7월 26일 이라크에 있는 강점된 서부소말리아해방전선 성원들이 《강점된 서부소말리아 해방전선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를 결성하였다.

8월 23일과 24일에는 아덴에서 강점된서부소말리아해방전선 돌격대가 《김일성동지혁명사상 연구소조》를, 소말리아민주청년조직성원들이 《김일성동지 로작연구소조》를 각각 결성하였다.

6월 25일 아덴에 있는 소말리아민주청년조직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에 대한 연구발표모임을 가졌다. 8월 14일에는 바그다드에서 《강점된 서부소말리아해방전선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성원들이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발표세돐에 즈음하여 연구발표모임을 가지고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주민의 대부분은 반유목민이며 해안지대에서는 어업과 채염업도 한다. 밀감, 남새, 과일 들이 생산되며 석고, 운모, 류황, 석유 등이 있다.

프랑스령소말리아는 비교적 토지가 비옥하고 농업 및 축산업발전에 유리하다. 여기에는 에티오피아의 수도를 련결시키는 긴 철도가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항행이 빈번한 지브티자유항이 있다.

미제와 서방제국주의자들은 지브티항과 아디스 아베바를 련결시킨 철도를 통하여 아프리카지역의 침략적군사기지에 소요되는 모든 군사물자들을 수송하고있다.

## 적도기네

(적도기네공화국)

적도기네는 까메룬과 가봉에 린접하고있는 리오무니와 페르난도—뽀섬을 비롯한 기네만에 있는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있다.

령토의 대부분은 평균 600~900m의 고원지대이다. 기후는 무덥고 습기가 많다. 년평균기온은 25°C이상이고 년평균강수량은 2천mm이다.

【면적】 2만 8,051km²

【인구】 약 35만명

주민의 대부분은 파브웨족과 반[illegible]족이며 그밖에 구라파인(8천 600명)이 있다.

【수도】 산타 이사벨(주민 3[illegible] 7,200명)

**정 치** 1777년에 에스빠냐식민[illegible]의자들은 페르난도—뽀섬을 1886년에는 리오무니를 강점하고 총[illegible]정치를 실시하였다.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은 1960년 4[illegible] 1일부터 적도기네를 에스빠냐령토 일부분이라고 선포하고 두개의 해외[illegible]인 페르난도—뽀주와 리오무니주를[illegible]치하여 원주민들을 가혹하게 탄압[illegible]였다.

적도기네인민들은 1959년부터 나[illegible]의 독립을 위하여 강력한 투쟁을 벌[illegible]다.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은 이 나[illegible]인민들의 투쟁을 무마하고 저들의[illegible]민지통치지반을 강화하기 위하[illegible] 1963년 12월에 《국민투표》라는 기만[illegible]을 벌려 저들의 주구들로 《자치정부》를 조작하였다.

적도기네인민들은 《적도기네인민[illegible]상당》의 지도밑에 1965년 5월에 에[illegible]빠냐식민주의자들과 《자치정부》를[illegible]대하는 대중적시위를 벌렸다. 《적도[illegible]네인민사상당》은 1966년 8월 적도기[illegible]의 즉시 독립을 요구하여 성명을 발[illegible]하였다.

1968년 10월 12일 적도기네인민들[illegible] 2세기에 걸친 식민지통치를 뒤집어[illegible]고 민족적독립을 이룩하였다.

1968년 9월 적도기네의 민족해방[illegible]동당, 인민운동동맹, 페르난도—뽀[illegible]섬독립당, 인민사상당의 련합정부[illegible] 구성되였으며 느게마가 초대대통령[illegible]로 당선되였다.

독립후 적도기네에서는 미제와 에[illegible]빠냐식민주의자들의 파괴음모책동[illegible]끊임없이 감행되였다.

1969년 2월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illegible] 적도기네주재 에스빠냐령사관에서 《국기게양》사건을 조작하여 로골적[illegible] 군사적침략을 감행하였으며 계속 경[illegible]적압력을 가하였다. 동시에 반동적[illegible] 정치세력들을 사촉하여 반정부파괴[illegible]동을 강화하였다. 1970년까지 3차례[illegible] 정변음모가 있었다. 적도기네정부[illegible] 1969년 3월 5일 제국주의자들의 [illegible] 정변음모를 좌절시키고 (이날을 적[illegible] 기네에서 식민주의청산의 날로 정하[illegible] 전국적인 명절로 기념하고있다) 독[illegible]과 자주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일련[illegible] 반제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1969년에는 자국령토에 있는 에스[illegible]나침략군과 그 군사기지를 철수케하[illegible]으며 종전의 경찰제도를 폐지하고

족경찰과 전국경비대를 새로 조직하였으며 자체의 군사간부육성을 위한 군사학교를 설치하였다.

1970년 1월에는 미제가 제놈들의 주구를 양성할 목적으로 한 40명의 《장학금생》을 파견해줄데 대한 제기를 거절하였으며 미제의 적도기네대표단 《초청》과 미제침략군함대의 《방문》, 미제침략군 군사기지설치제의들을 모두 거절하였다. 또한 미제의 석유회사(모빌)와 《국제적십자사》의 간판하에 적도기네에 동지를 틀고있던 미국놈들을 내쫓았다.

1970년 7월 7일 프란시스코 마시아스 느게마대통령은 집권초기에 존재하고있던 정당들과 정치적그루빠들의 활동을 금지시키고 유일당창건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들의 정치구성을 고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정부】 대통령 프란시스코 마시아스 느게마(1968년 9월—, 국방상, 외무상 겸임)

【정당, 사회단체】 민족통일당 1970년 7월 7일 창건. 유일당이며 집권당, 총비서 프란시스코 마시아스 느게마. 《마시아스와 함께 전진하는》청년조직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1월 30일 우리 나라와 적도기네는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았다.

1970년 10월 적도기네독립 두돐기념행사에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참가하였다. 11월에는 적도기네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하였다.

1970년 10월 12일 산타 이사벨에서 우리 나라 사진전람회가 있었다.

전람회는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들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륭성발전하는 우리 나라의 면모와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였다.

**경제, 사회** 주민의 대부분이 농사를 한다. 농산물은 코코아(년산 2만 8천t), 커피(9천 400t), 목재 등이다.

코코아생산은 세계생산량의 약 2.7%를 차지한다. 커피는 주로 리오무니에서생산(총생산량의 80%이상)되며 코코아는 페르난도-포섬 (총생산량의 90%)에서 생산된다.

공업으로는 세멘트공장과 제재공장, 제분공장을 비롯한 100여개의 소규모적인 가공공장들이 있다. 독립전의 이 나라 커피의 90%, 코코아의 100%, 목재의 40%는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에게 략탈당하였으며 공업은 모두 에스빠냐인들이 운영하고있었다.

독립후 정부는 경제분야에서의 제국주의압력을 물리치고 식민지후과를 없애며 민족경제를 창설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정부는 적도기네인들에게 경제관리와 운영을 맡기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코코아의 가공회사를 설치하며 국가예산작성과 경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경제발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또한 4개의 국영실험농장을 세웠으며 농민들에게 차관을 줄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외체 화페류통을 통제하기 위하여 화페개혁을 실시하고 공화국은행을 창설하였다.

또한 나라가 섬들로 구성되여있는 조건에서 교통운수를 발전시키는데 큰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자체의 민족간부를 양성하기 위하여 《간부적도기네화》의 구호를 들고 중등학교를 확장하고 재직공무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단기강습소들을 설치하였다. 또한 아련, 기네 등에 류학생들을 파견하고있다.

【출판보도】 신문 에바노(정부기관지)

## 잠비아

### (잠비아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중부에 있으며 탄자니아, 콩고(킨), 앙골라, 보쯔와나, 짐바브웨 등과 접하고있다. 평균기온은 가장 높을때(10월)에 20~25°C이며 가장 낮을때(7월)에 15~20°C이다.

【면적】 75만 2,000km²

【인구】 406만 5,000명(1970년)

주민은 30여개의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70개의 종족으로 이루어지고있다. 대부분이 아프리카인이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수도】 루사카(주민 13만 8,000명)

**정 치** 1891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의 《보호령》으로 되였으며 1953년에는 영식민주의자들이 조작한 《중앙아프리카련방》에 강압편입되였다.

1961년 8월에 있은 영제국주의자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비롯하여 《련방》의 해체와 민족적독립을 요구하는 이 나라 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1963년 12월 《중앙아프리카련방》은 해체되고 1964년 10월 24일 북로데시아로 불리우던 잠비아는 《영련방》내의 공화국으로 독립을 선포하였다.

독립후 잠비아정부는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청산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들에서 식민주의자들을 내몰고 《잠비아화》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1969년 6월에는 독립당시 영제국주의자들이 잠비아에 강요한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백인들의 선거권과 참정권, 공장, 기업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하였다.

【민족회의】 일원제이다.

【정부】 대통령 켄네스 다비드 카운다, 외무상 이. 에취. 케이 무뎀다, 국방상 알렉싼드르 그레이 즐루가

【정당, 사회단체】 민족통일독립당(집권당), 아프리카인민족대회당, 민족진보당, 로조대회

【주요사건】 1970년에 잠비아정부는 미영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파괴책동에 대처하여 잠비아군대내에 있던 영국인 《장교》들을 내쫓았으며 1월 27일 민족회의는 나라의 방위력강화에 예산의 많은 몫을 돌렸으며 인민들에게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것을 호소하였다.

또한 잠비아정부는 《남로데시아》와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의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국경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취하였다.

2월 12일 정부는 반동적인 야당의 활동을 금지시켰다.

잠비아정부는 식민주의자들의 경제적지반을 청산하기 위하여 1월 1일 제국주의독점체인 《영미합영회사》와 《르안회사》를 국유화하였다.

3월부터 미제와 카나다, 남아프리카 등 독점체들의 토지를 몰수하기 시작했으며 또한 식민주의자들의 착취의 대상으로 되여있던 23개농장을 몰수하였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4월 12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았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를 수록한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을 비롯하여 그이의 천재적로작들을 잠비아 출판물들이 널리 소개선전하였다.

정부기관지 《잠비아 메일》은 그이의 불후의 로작들인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사회주의적농촌경리의 정확한 운영을 위하여》, 《핀란드공산당 중앙기관지 〈칸산 우우티세트〉를 위하여 핀란드민주청년동맹대표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등을 실었다.

1970년 4월 잠비아 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채광업이 비교적발전되였다. 채광업은 국민소득의 80%를 차지한다. 특히 동

은 매장량과 채굴량에서 세계 제2위를 차지하며 국민총생산의 40~50%, 수출의 90~95%를 차지한다.

주요농산물은 강냉이, 땅콩, 담배, 조, 마니오크, 콩, 남새 등이다.

1970년에 동광개발에 쓰는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공장, 년산 1천 200만m 능력의 방직공장이 새로 일떠섰다.

【출판보도】 신문 잠비아 메일 (정부기관지), 타임스 오브 잠비아(무소속신문)

## 챠 드

### (챠드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중부에 있으며 니제르, 리비아, 수단, 중앙아프리카, 까메룬과 접하고있다. 전령토의 3분의 1이 사막이다. 년평균기온은 29°C이며 년평균강우량은 100~250mm이다.

【면적】 128만 4,000km²

【인구】 400만명(1970년)

주민의 대부분은 하우사족, 시라족들이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수도】 포르라미(주민 15만명)

**정 치** 19세기중엽부터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받기시작하였다. 1910년 프랑스령적도아프리카에 편입되였다가 1911년에 파쑈독일의 식민지로 되였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파쑈독일이 패망하자 다시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다.

챠드는 1958년에는 《프랑스공동체》내의 《자치공화국》으로 되였다가 1960년 8월 11일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을 선포하였다.

1962년 3월 새 헌법이 채택되고 이해 4월 22일 선거에서 프랑수와 똠발바예가 대통령으로 되였다.

독립후 챠드정부는 정부와 군대내에 있던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을 챠드인들로 교체하였으며 1968년 4월에는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의 영향하에 있는 《중앙아프리카경제및관세동맹》으로부터 탈퇴하고 《중앙아프리카국가동맹》에 가입하였다.

1968년 8—9월에 챠드북부지역에서 반정부폭동이 있었다.

【민족회의】 일원제이다.

【정부】 대통령 프랑수와 똠발바예(수상, 국방상, 내상 겸임), 외무상 자끄 바룸

【정당, 사회단체】 진보당(유일당이며 집권당), 전국근로자동맹, 진보당청년동맹, 전국녀성동맹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5월 8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70년 7월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챠드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주민의 90%가 농사를 한다.

주요농산물은 목화, 쌀, 땅콩 등인데 그중 목화 (1969년에 15만t생산)는 이 나라 수출액의 약 80%를 차지한다.

목축업이 비교적 발전하였다. 한사람에게 차례지는 집짐승마리수는 아프리카에서 제일 많다.

공업으로는 원유가공공장, 화력발전소, 제분소 등이 있다.

챠드정부가 세운 농업, 축산업을 위주로하는 1차5개년계획(1966—1970년)의 총투자액 470억 서아프리카프랑중 325억아프리카프랑은 외국자본이였다. 정부는 이러한 자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1967년 6월에 외국자본에 대한 새로운 특전을 주는 《투자법》을 채택하였다.

원료, 식료품들을 수출하고있는데 목화, 집짐승, 육류의 약 35%는 프랑스에 수출한다.

챠드에는 철도가 없다.

독립직후인 1960년말에 학생수는 5만명이였는데 1968—1969학년도에 20만명으로 늘어났다.

주민의 약 절반이 회교를 믿으며 그외는 원시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인포챠드

## 수 단

### (수단민주주의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동쪽에 있으며 아랍, 리비아, 챠드, 중앙아프리카, 콩고(킨), 우간다, 케니아, 에티오피아와 접하고있다. 령토의 대부분이 사막이며 세계에서 제일 더운 나라의 하나이다. 북부사막지대의 6~8월평균기온은 40°C이상이며 년평균강우량은 25mm이다. 동남부의 최고강우량은 1천mm이다.

【면적】 250만 5,825km²

【인구】 1,450만명(1970년)

500여족의 종족이 있다. 크게는 북부와 중부지역에 아랍인(70%), 남부에 흑인(30%)들이 산다.

110여종의 언어가 있는데 공용어는 아랍어이다.

【수도】 하르톰(주민 17만 3,500명)

**정 치** 1899년 영식민주의자들이 애급에 강요하여 수단에 대한 영국과 애급의 《공동관리》협정을 맺고 수단을 사실상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독립을 위하여 오래동안 투쟁하여온 수단인민들은 1953년 1월에 수단의 자결권을 획득하였으며 1955년 11월에는 영제국주의침략자들을 내몰고 12월에 독립을 쟁취하였다. 1956년 1월 1일에는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독립후 수단에서는 우익정당들간의 정권쟁탈전으로 말미암아 1968년까지 무려 8번에 걸친 정권교체가 있었다.

1969년 5월 25일 수단군내 장교들이 친서방적인 아즈하리—마호쥬브정부를 뒤집어엎고 혁명지도리사회를 조직하였으며 《수단민주주의공화국》을 선포하였다.

혁명지도리사회와 정부는 《수단식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낡은 통치기구들을 폐지하였으며 모든 정당들을 해산하고 새로운 국가기구와 기관들을 창설하였다.

또한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경제적지반을 청산하기 위하여 1970년 8월까지만도 미영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은행과 40개의 독점회사들을 국유화하였으며 35개의 외국보험회사들의 일체 업무활동을 금지시켰다.

수단정부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과 파괴암해책동으로부터 나라를 보위하기 위하여 국가경비대를 새로 조직하고 1969년 5월부터 1970년 3월까지의 기간에만도 미제와 그 주구들의 6차례이상의 정변음모와 무장반란을 제때에 짓부셔버렸다. 특히 1970년 3월 미제의 지원밑에 수천명의 수단반동들이 아바섬에서 일으킨 무장반란을 3일만에 완전히 진압하였다. 정부는 정변음모를 지휘한 미제 《외교관》놈들과 그리고 미제 《평화군》놈들을 모두 내쫓았으며 1970년 4월에는 하르톰에 있는 서부독일의 《괴뢰회관》을 폐쇄하였다.

정부는 제국주의자들이 수단침략의 통로로 리용하고있는 남부수단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1969년 6월 정부는 《자치》를 요구하여 1963년 이래 무장반란을 일으켜온 남부수단에 자치권을 주었으며 남부수단문제를 전문적으로 보는 남부수단담당성을 따로 내왔다.

1970년 2월 니메리수상은 미제를 아랍인민의 《첫째가는 원쑤》라고 락인하고 중근동에 있는 미제의 리권을 반대하는 《인민전쟁》을 전개할것을 아랍나라들에 호소하였다.

수단은 이스라엘침략자들과 대치되

이었는 여러 차례 지연하여 수에즈운하지대에 자기의 병력을 파견하였다. 1970년 11월 8일 이집트, 리비아와 함께 3개국 연방을 형성하였다.

수단 정부는 민주독일, 민주베트남, 북조선, 남부월남공화국임시혁명정부들과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1970년 5월에는 캄보쟈왕국민족단결정부를 정식 승인하였다. 한편 1970년 1월 미국, 일본, 캐나다에 있는 자기 대사관들을 폐쇄하였다.

【혁명지도리사회】 나라의 최고기관이다.

【정부】 수상 자파르 모하메드 니메리(1969년 5월—), 외무상 파루크 아부 이싸, 국방상 할리드 하싼 아바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46년에 창건. 로동자련맹, 청년동맹, 녀성동맹, 수단조선친선협회 1970년 3월 16일 결성. 위원장 아흐메드 술라이만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4월 23일 우리 나라와 령사관계를 맺었으며 6월 21일에는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69년 4월 13일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0년에 하르툼에서 《김일성수상의 로작연구소조》, 《김일성수상의 사상연구소조》들이 결성되었으며 아랍에서 살고있는 수단인들은 《김일성동지혁명활동및로작연구소조》,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소조》(로동자들의 조직), 《김일성동지혁명활동및로작연구소조》(지식인들의 조직)들을 결성하였다.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수단 각지에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집회들이 진행되었다.

9월 수단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22주년을 기념하여 수단조선친선주간을 설정하고 집회, 군중시위, 강연회, 사진전람회, 체육경기, 특집방송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9월 7일 친선주간개막과 관련하여 혁명지도리사회 위원장 니메리는 수단인민들에게 보내는 방송연설을 하였으며 12월 정부기관지 《알 아흐람》는 제1면에 4천만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전 1면에 걸쳐 두 나라간의 친선협조관계발전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특집하였다.

1970년 9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보내시는 친서와 선물을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illegible] 전달하였다.

1970년 1월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2월), 정부친선대표단(8월)이 수단을 친선방문하였다.

1970년 8월 혁명지도리사회 위원장 겸 수상인 자파르 모하메드 니메리동지가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하였다.

그밖에 정부친선대표단(6월), 수단조선친선협회대표단(7월), 청년체육대표단(11월) 등이 각각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주민의 80%가 농업과 목축업을 한다.

주요농산물은 목화와 아라비아고무이며 이외에 참깨, 밀, 수수, 강냉이 등이 생산된다.

지하자원은 금, 은, 철광, 망간, 우라니움, 크롬, 아연, 원유, 운모, 마그네시움 등이다.

1969년 5월 혁명후 정부는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이 가지고있던 무역회사들과 은행들을 국유화함으로써 반혁명세력들의 경제적지반을 심히 약화시켰다.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1970년에 민족권위를 견지하며 식량문제를 해결할것과 지하수를 대대적으로 개발할것 등을 중심과업으로 하는 경제발전5개년계획에 착수하였다.

정부는 상품생산을 확대하고 생필품수입가격을 낮추었으며 반동들의 식량반수행위를 막고 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위하여 식량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농민들에게 채무를 면제시켜주는 등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인구의 70%가 한시적인 [illegible]지대에서 살고있으며 그중에서도 서부사막지대 인민들의 음료수문제가 해결되지않고있는 조건에서 정부는 1970년 2월부터 12년기간 목표로 한 관개운동을 시작하였다.

교육분야에서도 제국주의식민지잔재를 청산하기 위하여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인쇄출판기관, 신문사, 통신사들을 국가가 장악하기로 결정하였다.

북부주민은 회교를 믿으며 남부주민들은 기독교를 믿는다.

【일간신문】 《알 수단》, 하르툼방송

《알 아흐람》(정부기관지), [illegible] 및 《수단 알 자디드》, [illegible]

# 중앙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중부에 있으며 챠드, 수단, 콩고, 자이르 등과 접하였다. 기온은 제일 낮은 달인 12월에 21°C, 제일 높은 달인 6월과 7월에는 약 31°C이다. 년평균강수량은 남부에서 1천500mm, 북부에서는 400mm이다.

【면적】 61만 7,000km²

【인구】 225만 6,000명(1970년)

주민은 우방기족, 반다족, 반자족, 사라족, 뻬르미족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수도】 방기(주민 24만명)

**정 치** 1894년에 프랑스식민주의자들에게 강점당하였다.

1958년 12월 《프랑스공동체》내에서 《자치공화국》을 선포하고 우방기—샤리라고 하던 나라 이름을 중앙아프리카공화국으로 고쳤다.

1960년 8월 13일 중앙아프리카는 독립을 선포하였다.

1965년 12월 31일 육군참모장으로 있던 보카싸가 군사정변을 일으켜 다꼬정부를 전복하고 정권을 잡았다.

보카싸대통령은 헌법을 폐지하고 민족회의를 해산하였다.

1966년에는 독립후 처음으로 5.1절을 기념하고 녀성들에게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주는 법령을 발포하였다.

1970년 1월 1일부터는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수중에 있던 중앙시장을 국가의 관할하에 넘겼으며 강하천운수를 국유화하였다.

중앙아프리카정부는 1970년 4월에 독일민주주의공화국과 7월에 월남자유남방공화국임시혁명정부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0월에는 쁘로뚜갈식민주의자들과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과의 무역관계를 끊기로 결정하였다.

【정부】 대통령 장 베델 보카싸(수상및 국방상 겸임), 외무상 [illegible]

【정당, 사회단체】 흑아프리카사회혁명당(집권당이며 유일당), 로동련맹, 녀성동맹, 민족청년동맹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9월 5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70년 10월 7일에는 무역협정과 [illegible]화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0년 9월 정부친선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주민의 절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한다. 주요농산물은 목화 (1967년에4만 3천t 생산), 차(1969년에 9천566t생산)이며 그외 땅콩, 바나나, 담배, 마니오크 등도 난다.

지하자원으로는 금강석, 금, 쇠돌(철함유량 68%), 동, 연, 아연, 석유, 우라니움 등이 풍부히 매장되여 있다.

목화, 차, 금강석을 수출하는데 특히 금강석수출에서 얻은 외화는 대외무역총액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1970년 상반년기간에 30만 4천 536카라트(1카라트는 0.205그람)의 금강석을 생산하여 26만 3천 412카라트를 수출하였다.

림업도 이 나라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1970년 상반년기간에 2만 1천m³의 통나무를 수출하였다.

독립후 중앙아프리카인민들은 나라의 경제적자립을 위하여 농산물, 목재, 모피 가공공장 등을 건설하였으며 새로운 철도를 부설하였다. 1970년에 정부는 금강석을 략탈해가던 프랑스독점체인 《느자코회사》와 미제독점체인 《다이아몬드 이스트리뷰숀》을 국유화하였으며 금강석산지를 개발하는 외국인회사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정부는 국영기업체 및 국가—민간합영기업체들을 창설하면서 경제의 국영부문을 강화하였다. 이해에 국립운수회사, 국영농산물판매관리국을 새로 창설하였다.

또한 민족문화건설을 위하여 1969년 12월에는 반동사상을 퍼뜨리는 프랑스잡지의 배포와 판매를 금지시키는 법령을 발포하였다.

1970년에 학생수는 독립당시의 2배로 늘어났으며 학령아동의 절반이상이 학교에서 공부하고있다.

【출판보도】 신문 때르 아프리캔(정부기관지), 방기 라쏘, 중앙아프리카월보

## 리비아

(리비아아랍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북부 지중해에 면해있으며 아련, 수단, 챠드, 니제르, 알제리, 뛰니지와 린접하고있다. 령토의 3분의 2가 사막이며 강이 없다.

기후는 낮과 밤의 차이가 심한 건조한 열대사막기후이다.

【면적】 175만 9,540km²

【인구】 187만 5,000명(1969년)

주민의 대부분이 아랍인이며 이딸리아인, 희랍인 등이 있다.

국어는 아랍어이다.

【수도】 트리뽈리(겨울 수도, 주민 37만6,000명), 벵가지(여름수도, 주민 28만명)

**정 치** 19세기초 토이기에 강점되였던 리비아는 1912년 이딸리아의 식민지로 되였다.

제2차세계대전시기와 그후에 영국과 프랑스에 강점되였다가 1951년 12월 24일 련합왕국으로 독립하였다.

미제는 1954년 9월에, 영제국주의자들은 1953년 12월에 각각 리비아에 《원조》를 미끼로 군사기지제공에 관한 협정들을 강요하였다. 이리하여 미제는 리비아에 아프리카 최대의 《윌러스》공군기지를 건설하고 여기에만도 6천명의 침략군을 주둔시켰으며 영제국주의자들도 리비아도처에 대규모적인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아랍국가들을 침략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삼아왔다.

1969년 9월 1일 군부가 군사정변을 일으켜 왕권을 뒤집어엎고 리비아아랍공화국을 선포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독립을 쟁취한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과 맺은 모든 예속적 조약과 협정 및 군사동맹을 파기하며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국내반동세력들이 발붙이고 준동할수 있는 정치, 경제적 지반을 청산하며 혁명력량을 묶어세워 사회의 혁명적개혁을 실현하여야 합니다.》(《5대륙의 진보적기자들은 혁명의 필봉을 높이들고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자》, 단행본, 10페지)

공화국이 선포된후 리비아인민들과 정부는 반제반미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외국군사기지철거를 위하여 강력히 투쟁하였다.

1969년 10월 정부는 미영제국주의자들에게 리비아의 공군기지로부터 침략군과 그 장비를 철수시킬것을 요구하고 만약 이러한 요구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힘으로 우리의 령토를 해방》할것이라고 선언하였다.

12월 14일에는 《윌러스》 공군기지로부터 미제침략군의 즉시적인 철거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리하여 1970년 6월 11일까지 리비아에서 16년간 파괴암해행위를 감행하여오던 미제의 《윌러스》공군기지를 철폐하고 미제침략군을 완전히 몰아냈다.

또한 30년간 리비아에 둥지를 틀고있던 영제국주의침략군도 이해 3월 28일까지 몽땅 쫓아냈다.

리비아정부는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리권도 박탈하였다.

5월 5일 혁명지도리사회는 식민주의자들의 지배하에 있던 무역 및 상업 부문을 《리비아화》할데 대한 법령을 발포하였다. 이밖에 정부는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은행을 비롯한 모든 은행과 외국석유판매회사들을 국유화할데 대한 법령을 발포하였으며 일체 외국실업가들과 상사들의 활동을 금지시켰다.

6월 15일에는 유태복고주의자들과 련계를 맺고있는 50여개의 외국회사들과의 일체 거래를 끊었다.

7월에는 이딸리아식민주의자들의 재산과 부동산을 몰수하고 8월 20일에는 수십년간 리비아인민의 고혈을 짜내던 이딸리아자산가놈들의 마지막무리를 쓸어버렸다.

리비아혁명지도리사회는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침략과 파괴책동으로부터 혁명적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방리사회를 창설(1월)하였으며 9월 18일 《인민항쟁대》를 조직하였다.

리비아정부와 인민들은 6월 미제의 사촉하에 꾸며진 반동적인 정부전복음모를 적발분쇄하였다.

9월 리비아정부는 요르단과 외교관계를 포함한 일체 대외관계를 끊기로 결정하고 트리뽈리에 있는 요르단대사를 추방하였다. 한편 캄보쟈민족통일전선령도하의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를 캄보쟈의 유일한 합법적정부로 승인하였다.

11월 8일 리비아는 아련, 수단과 함께 3개국 련방을 형성하였다.

【혁명지도리사회】 1969년 9월 1일에 수립된 유일한 최고지도기관이다.

【정부】 수상 겸 국방상 모아메르 엘 가다피, 통일및외무상 모함메드 나잠

【정당, 사회단체】 정당은 없고 로동조합총련맹이 있다.

**경제, 사회** 원유공업이 경제의 기본을 이루고있다. 1969년에 원유는 1억 5천만t 생산되였는데 그것은 국민총생산액에서 83%를 차지하였다. 1970년에 원유생산량은 1억 7천만t으로 늘었다.

원유채굴의 90%는 40여개의 외국독점회사들이 독점하고있다.

1965년에 리비아왕국정부는 미국, 영국, 서독, 이딸리아 등 25개의 제국주의독점체 (그중 15개는 미독점체)들에게 50년을 기한으로 리비아령토의 70%에 해당되는 원유산지를 《조차》하였다. 이러한 대가로 얻는 석유세수입은 국가예산의 77%를 이루고있다.

1970년에 정부는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창설하기 위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일부 석유리권을 제한박탈하고 판매가격을 올리는 등의 반제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석유외에 린산염, 철광석, 주석, 망간 등이 채굴되며 식료, 방직, 가죽공장들이 있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향콩, 올리브, 야자, 포도 등이다. 주요 집짐승은 락타, 양, 염소 등이다.

1970년에 정부는 근로자들의 처지개선을 위하여 낮은 로임을 받던 로동자들의 로임을 2배로 높였으며 의료봉사값을 낮추었다.

교육부문에서도 식민주의후과를 가시기 위하여 영어를 폐지하고 아랍어를 쓰게하였다.

【출판보도】 신문 알 타우라(정부기관지), 알뜨라, 알 사우라, 트리폴리 미러, 알 호르리예, 알 발라그, 레블루손

## 튀니지

(튀니지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북쪽에 있다. 북쪽과 동쪽은 지중해에 면해있으며 남쪽과 서쪽은 리비아 및 알제리와 접하고있다.

국토의 약 절반은 사막지대이다. 기후는 건조한 아열대기후이다. 년평균기온은 7월에 25~32°C이며 1월에는 5~12°C이다. 년평균강우량은 북부는 700mm, 남부는 200mm 이하이다.

【면적】 12만 5,200km²

【인구】 470만명(1970년)

주민의 대부분은 아랍족(90%)과 베르베르족이다.

국어는 아랍어이다.

【수도】 튀니스(주민 70만명)

**정 치** 오토만제국의 속령이였던 튀니지는 1837년부터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아오다가 1881년 5월에 프랑스의 《보호령》으로 되였고 1883년 6월에는 그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였다.

1942년 11월—1943년 5월까지 히틀러독일의 강점하에 있었으며 1943—1944년에는 미제침략군에 강점되였다. 2차대전후 튀니지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이 앙양되였으며 1954년에 《민족해방군》이 조직되여 무장투쟁이 전개되였다.

튀니지인민들은 1956년 3월 20일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1957년 7월 25일 봉건군주제도를 폐지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3년 10월 15일 비제르타군사기지에서 프랑스침략군을 철거시킴으로써 이 나라에 둥지를 틀고있던 프랑스침략자들을 완전히 몰아냈다.

1964년 5월 튀니지정부는 식민주의자들이 가지고있던 땅을 국유화하였다.

튀니지에는 미제의 《평화군》, 《기술자》, 《교원》 등이 정치, 경제, 교육기관들에 배치되고 있으며 미제6함대는 튀니스, 비제르타, 스팍스항 사용권을 가지고있다.

튀니지정부는 1966년 10월에 아랍련합공화국과, 1968년 5월에는 수리아와 외교관계를 끊었으며 1968년 9월에는 아랍련맹에서 탈퇴하였다.

1969년 3월 16일 대통령 하비브 부르기바는 아랍국가들이 《어떤희생을 치르더라도 상용전쟁에서 이스라엘파의 대결을 피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해 7월 튀니지 외상은 남조선괴뢰들과 문화협정, 입국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고 통상협정을 가조인하였으며 남조선주재 튀니지 《명예령사관》을 《개관》하였다.

1970년 2월 9일 튀니지의 수도 학생들은 악명높은 전쟁사환군인 미국무장관 로저스란놈의 튀니지 《방문》을 반대하여 강력한 반미시위를 벌렸다. 이에 질겁한 로저스놈과 그 졸개들은 튀니지종합대학을 《방문》하려던 애초의 계획을 취소하지 않을수 없었다.

【대통령】 하비브 부르기바 (1961년 11월—)

【정부】 수상 바히 라드함(1969년 8월—), 외무상 모하메드 마쓰무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프랑스공산당 지부로 조직되였다가 1934년에 독립적인 정당으로 창건, 총비서 모하메드 엔나피. 데스뚜르사회당(집권당), 로동자총련맹, 농민련맹, 대학생련맹, 녀성련맹

**경제, 사회** 주민의 75%가 농업에 종사한다. 주요 농산물은 밀, 보리, 강냉이, 올리브, 귤, 포도 등이다.

공업에서는 채굴공업이 기본이며 중요농산물은 석유, 석탄, 철, 아연, 연, 린산염 등이 있다.

【출판보도】 통신 튀니지아프리카통신

신문 악씨옹(데스뚜르사회당기관지), 프레스

## 마로끄

(마로끄왕국)

아프리카의 서북쪽 지중해와 대서양연안에 면해있다. 북부 지중해연안은 산지이고 대서양연안은 평야지대이다. 동부지방은 덥고 건조하며 남부지방의 여름평균기온은 30~40°C이다. 년평균강우량은 400mm정도이다.

【면적】 44만 5,577km²

【인구】 1,503만명(1970년)

주민은 아랍족과 베르베르족이 절대다수이며 프랑스인과 유태인들도있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다.

【수도】 라바트(주민 26만 2,000명), 탄지르(여름수도)

**정 치** 19세기 40년대부터 프랑스의 침략을 받아오다가 1912년 3월에 프랑스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이해 11월에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이 북부마로끄를 강점하였다.

1924년 12월 18일 프랑스, 에스빠냐, 영국침략자들이 마로끄의 탄지르지역을 소위《국제관리》지역으로 만들었다.

제2차대전후 앙양된 이나라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은 1951년 4월 《마로끄민족전선》이 결성됨에 따라 더욱 강화되였다.

이해 11월에 카사블랑카에서, 1953년 1월에는 전국 각지에서 반프랑스폭동이 련이어 일어났다. 마로끄인민들은 1955년 8월에 대중적무장봉기를 일으켰으며 1956년 3월 2일 독립을 쟁취하였다. 이해 에스빠냐령마로끄도 귀속되였으며 탄지르지역의 《국제관리》도 철폐되여 1960년 4월 마로끄에 통합되였다.

1969년 6월 30일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의 강점하에 있던 이프니가 마로끄에 귀속되였다.

마로끄는 1966년 11월에 미국상업회의소를 설치하는데 동의하였으며 1967년 2월에는 미제와 《군사조약》을 체결하였다.

1970년 11월 마로끄민족전선은 마로끄에 있는 미제의 비밀군사기지를 당장 철폐할것과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국왕】 할라이 하싼 2세(1965년 3월—)

【정부】 수상 아흐메드 라라끼(1969년 10월—), 외무상 유세프-벤 아베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프랑스공산당 지부로 조직되였다가 1943년에 독자적당으로 창건됨(1960년에 비법화). 립헌제도옹호전선, 민주사회당(집권당), 독립당, 인민력량전국동맹, 로동총련맹, 청년련맹

**경제, 사회** 주로 농업 및 목축업을 한다. 경지면적은 약 500만ha이며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강냉이, 벼, 목화, 포도, 귤, 감류 등이다.

목축업은 주로 남부초원지대에서 한다.

주요집짐승으로는 소, 말, 염소, 락타, 양 등인데 그중 양이 제일 많다. (약 1천만마리)

광업도 농목축업 다음가는 주요한 산업의 하나로 되고있다. 주요지하자원으로는 린광석, 무연탄, 쇠돌, 망간, 연, 아연, 석유, 우라니움, 코발트등이다. 그중 쇠돌생산량은 년 1천만t에 달하고있다. 린광석의 약 80%는 크리브가지방에서 생산된다.

마로끄 명산물인 정어리생산량은 자본주의 세계에서 제1위를 차지한다.

정어리는 통졸임외에 어분을 만들어 구라파나라들에 많이 수출된다.

【출판보도】 신문 알 알람, 오피니옹, 팔랴스뗀, 알끼꽈흐, 알 와따니

## 에스빠냐령 사하라

마로끄의 서남쪽에 자리잡고있으며 세기에 엘 하므(8만 3천$km^2$)와 리오 데 오로(19만$km^2$)의 두지역으로 구성되여있다.

【면적】 27만 3,000$km^2$

【인구】 약 7만명

주민의 대부분이 아랍족과 베르베르족이다.

【행정중심지】 빌라시스네로스(주민 약 3,000명)

1916년에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이 마르끄령토였던 사하라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다.

1958년초에 사하라 전지역에서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폭동이 있었으며 1961년 3월에는 남부마로끄와의 접경지대에서 무장투쟁이 있었다.

경제의 기본은 목축업이다. 유목민이 인구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주요집짐승은 락타, 염소, 면양 등이다.

오아시스에서는 보리, 밀, 올리브를 재배한다.

주요지하자원으로는 린회석, 쇠돌, 카리염, 동, 석유 등이 있다.

## 세네갈

(세네갈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서쪽 대서양연안에 있으며 모리따니, 말리, 뽀르뚜갈령기네 및 감비아와 접해있다. 계절은 장마철(12~5월)과 가물철(6~11월)로 나뉜다. 가장 낮은 때인 1월평균기온은 23~24°C, 가장 높을 때인 7월은 26~27°C이다. 년강우량은 남부에서 1천 800mm, 북부에서 250mm이다.

【면적】 19만 7,161$km^2$

【인구】 350만명(1970년)

주민은 월로프족, 쎄레이족, 뚜꾸러르족 등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수도】 다까르(주민 52만 5,000명)

**정 치** 1815년에 프랑스침략자들에게 강점당하여 1946년에 프랑스령서아프리카공동체에 가입되였다. 1959년에 말리와 함께 말리련방을 형성하였다.

1960년 4월 4일 련방성원국으로 독립하였으며 8월 20일에는 련방에서 떨어져나와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2년 12월 17일 수상 마마두 디아가 정변을 일으켜 대통령을 내쫓았으나 프랑스침략군대에 의하여 진압당하고 셍고르가 다시 대통령으로 되였다.

1963년 3월 3일 내각책임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책임제를 규정한 헌법을 채택하였다.

야당의 활동과 국가공무원들이 파업에 참가하는것은 금지되여있다.

세네갈은 유엔총회 제25차회의에서 이른바《조선문제》토의시 미제국주의자들의 《결의안》에 적극 추종함으로써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방해하였다.

【민족회의】 일원제이다.

【대통령】 레오뽈드 쎄다르 셍고르(1968년 2월 재선)

【정부】 수상 아브두 디우프(1970년 2월—), 외무상 아마두 까림 개이에

【정당, 사회단체】 진보련맹당(집권당), 아프리카독립당(1960년 8월 1일 비법화), 청년전국리사회, 진보련맹당, 녀성동맹

**경제, 사회** 인구의 95%가 농사를 한다.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강요에 의하여 200여년간 땅콩만 생산하는 단작경리에 얽매여 있었다. 그밖에 벼, 밀, 기장, 강냉이, 목화, 마니오크 등을 심는다. 공업총생산액은 총수입의 약 20%를 차지한다.

1969년에 학령아동의 50%가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주민의 75%가 회교도이며 5%가 기독교도이다.

【출판보도】 통신 세네갈통신
신문 유니떼(진보련맹당기관지), 다까르—마땡

## 감비아

(감비아공화국)

아프리카대륙 대서양연안의 감비강하류에 있다. 열대성 기후다. 수도의 기온은 가장 높을때(7월)에 27°C, 가장 낮을때(2월)에는 24°C이다.

년평균강우량은 1천~1천 500mm이다.

【면적】 1만 367$km^2$

【인구】 35만명(1970년)

주민은 말린케족, 풀베족, 월로프족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수도】 바더스트(주민 2만 8,000명)

**정 치** 1793년에 영식민주의자들에게 강점되였다가 1831년에는 영국식민지였던 시에라 레온에 병합되였다.

1965년 2월 18일 《영련방》내에서 독립하였으며 1970년 4월 24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의회】 일원제이다.

【정부】 대통령 다우다 크워씨 자와라(1970년 4월—), 외상 에이. 디. 카마라

【정당, 사회단체】 인민진보당(집권당), 통일당, 련합당, 민주대회련맹, 감비아조선친선협회 1968년 결성, 위원장 엠. 비 존스

**경제, 사회** 주민의 90%가 농사를 한다. 이 나라는 평야지대로서 경지면적은 22만 1천ha이며 주요농산물은 땅콩, 조, 수수, 강냉이, 기장 등이다.

식물성기름, 천, 가죽 등을 생산하는 수공업기업소들이 몇개 있다.

학령아동중 약 20%가 학교에 다닌다.

【출판보도】 신문 감비아뉴스(정부기관지)

## 기네비싸우

(뽀르뚜갈령기네)

아프리카대륙의 서쪽 대서양에 면해

있으며 세네갈, 기네와 접해있다. 대륙부분과 비싸고스제도 등 60여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동부대륙지방은 덥고 메마르며 그밖의 지방은 비가 많이 온다.

【면적】 3만 6,135km$^2$

【인구】 56만 8,000명(1970년)

주민은 대부분이 반뚜족이고 약 3천명의 뽀르뚜갈인이 있다.

【행정중심지】 비싸우(주민 22만 7,000명)

**정 치** 1446년부터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아오다가 1879년에 그의 식민지로 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강화된 이 나라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은 1956년 뽀르뚜갈령기네 및 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이 조직된후 급격히 확대되였으며 1961년 8월부터는 무장투쟁으로 발전하였다.

1964년에는 해방지역에서 활동하던 정규군 및 예비부대들과 적강점지역에서 투쟁하던 유격대들이 통합하여 정규적인 혁명적인민무력을 창설하고 분산적인 유격투쟁으로부터 대규모적인 군사행동에로 이행하였다.

이 나라 애국자들은 나라의 전지역에서 침략자들에게 된매를 안기고있는데 1970년 1월~9월까지의 기간에만도 450여차에 걸쳐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의 진지를 공격하였으며 적군 700여명을 죽이고 적함정 15척을 물속에 처박았으며 각종 군용자동차 52대를 까부셨다.

이리하여 전국령토의 3분의 2를 해방하였으며 여기에는 혁명정권이 수립되였다.

【정당, 사회단체】 뽀르뚜갈령기네 및 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 1956년 9월에 창건, 민족해방투쟁을 령도, 총비서 아밀카르 카브랄. 뽀르뚜갈령기네 및 베르데갑제도해방운동, 인민동맹, 해방인민동맹, 아프리카민주련맹, 기네비싸우근로자전국동맹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주요농산물은 땅콩, 벼, 코코아, 종려, 담배, 사탕수수, 목화 등이다.

농산물과 목재가공을 위한 몇개의 공장이 있다.

## 베르데갑제도

(뽀르뚜갈식민지)

아프리카대륙의 서쪽관 대서양에 있는 15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

【면적】 4,033km$^2$

【인구】 20만 1,500명

【행정중심지】 프라이마(주민 약 3,500명)

1495년에 뽀르뚜갈의 식민지로 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뽀르뚜갈령기네 및 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과 베르데갑제도해방전선의 지도하에 민족해방운동이 앙양되고있다.

커피, 피마주, 콩, 사탕수수, 마니오크, 강냉이, 감자, 바나나 등을 재배한다.

## 시에라 레온

(시에라 레온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서쪽 대서양에 면해있으며 기네, 리베리아와 접해있다.

년평균기온은 약 27°C이며 해안지대의 년평균강수량은 최고 5천mm이다.

【면적】 7만 2,326km$^2$

【인구】 247만 5,000명(1970년)

주민은 멘데족을 비롯한 13개종족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수도】 프리타운(주민 12만 8,000명)

**정 치** 1562년부터 이 나라에 침입한 영식민주의자들이 1787년에 영국으로부터 《해방노예》를 이주시켜 프리타운시를 건설하고 1888—1896년간에는 이 나라를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영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이 나라 인민들의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시에라 레온은 1961년 4월 27일 《영련방》성원국으로서 독립하였다.

1968년 4월 17일 륙군의 하사관들과 하급장교들이 군사정변을 일으켜 스티븐스를 수상으로 하는 민간정부를 세웠다.

1969년 10월 시에라 레온정부는 이 나라 경제의 60~70%를 장악하고있는 영식민주의자들의 금강석회사 두목놈을 내쫓았으며 12월에는 제국주의자들의 모든 광업회사들의 리권을 박탈하였다.

1970년 9월과 10월 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한 반정부음모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스티븐스는 《모든 공공 및 정치적집회》와 반동적야당인 《민족민주당》의 활동을 금지시켰으며 전복음모를 배후에서 조종한 시에라 레온주재미국대사관 《정치 아따쉐》놈을 내쫓았다.

【국회】 일원제이다.

【정부】 대통령 시아카 프로빈 스티븐스(1971년 4월 21일—), 외무상 씨릴 파트리크 포레이

【정당, 사회단체】 인민대회당(집권당), 인민당, 전국청년운동, 녀성조직전국련맹, 시에라 레온조선친선협회 1968년 9월 9일 결성. 위원장 몬티 코를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8년 9월 9일 프리타운에서 시에라 레온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와 그이의 천재적로작들을 시에라 레온 출판물들은 광범히 소개선전하였다.

《우니티》지는 1970년에 《김일성전》1부와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를, 《위은》지는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의 전문을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실었다.

6월 30일 프리타운에서는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시에라 레온조선친선협회의 주최로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군중집회를 열고 조선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8월 유엔주재 시에라 레온 상임부대표가, 9월에는 쏘련주재 시에라 레온대사관 3등서기관 왈레스 스티븐스가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주민의 90%가 농사를 한다. 주요농산물은 벼, 땅콩, 코코아, 커피, 생강 등이다.

주요지하자원으로는 쇠돌, 금강석, 보크사이트, 크롬 등이다. 쇠돌생산량은 아프리카에서 제3위이며 금강석은 세계금강석총생산량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출판보도】 신문 우니티, 데일리 메일, 유니스, 위은.

## 리베리아

(리베리아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서쪽 대서양연안에 있다. 적도기후로서 기온이 가장 높을 때(3월)에 27°C이며 낮을 때(8월)에 23°C이다. 년평균강수량은 2천~4천mm이다.

【면적】 11만 1,400km²
【인구】 140만명(1970년)
주민은 대부분이 아프리카인(90%)이며 그외 아메리카흑인과 백인들이 있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수도】 몬로비아(주민 8만명)
**정 치** 1822년 《미국식민지협회》의 소위 해방노예들이 국가를 형성하여 미국남총독의 통치를 받았다.
1847년 7월 26일 리베리아는 독립을 선포하고 공화국으로 되였다. 실권은 인구의 1%밖에 안되는 미국에서 이주해온 소위 해방노예의 후손들이 쥐고 토착주민들을 착취하고있다.
1959년 9월 미제와 예속적인《방위협정》을 맺었다.
【국회】 량원제이다.
【정부】 대통령 윌리암 바카나라트 싸드라취 타브맨(수상겸함)
【정당】 진정독립당(집권당이며 유일당)
**경 제** 주민의 90%이상이 농사를 한다. 주요농산물은 고무, 커피, 종려, 쌀, 바나나, 땅콩, 코코아 등이다. 경제의 기본은 고무생산인데(아프리카에서 제1위) 그 생산의 90%이상을 미제독점체가 장악하고 있다.
상선대가 아주 발전된 나라이다. 고무와 쇠돌을 수출하고 식료품과 식량을 수입한다.

## 상아해안

### (상아해안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서쪽 기네만에 면해있으며 가나와 리베리아 사이에 있다. 적도기후로서 평균기온은 가장 낮을 때인 1월에 23°C, 높을 때인 7월에 25°C이다. 년평균강우량은 남부가 4천mm, 북부는 820mm이다.
【면적】 32만 2,500km²
【인구】 400만명(1970년)
주민은 바울레족, 크루족, 말린케족 등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수도】 아비쟝(주민 25만명)
**정 치** 15세기부터 뽀르뚜갈, 에스빠냐, 화란, 영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았다.
1904년에 프랑스령서아프리카에 편입되였다가 1960년 8월 7일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하였다. 1961년 2월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떨어져나왔다.

그러나 1961년 4월 24일 프랑스와 예속적인 《협조협정》을 맺았다.
1970년 11월 대통령 보아니는 아프리카나라들에서 배격규탄받고있는 남아프리카백인인종주의 정권을《합법화》하기 위하여 아프리카나라들에 남아프리카백인인종주의정권과 《대화를개시할것》을 제창하였다.
【민족회의】 일원제이다.
【정부】 대통령 펠릭스 우프에 보아니(수상겸함, 1970년 11월 재선), 외상 아르센 우쉐르 아쑤안
【정당, 사회단체】 민주당(집권당), 민족해방위원회, 근로자총련맹
**경 제** 주민의 95%가 농사를 한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코코아, 바나나, 종려, 벼, 강냉이, 목화, 마니오크 등이다.
지하자원으로는 금강석, 망간, 석유, 쇠돌 등이 있다.
커피, 코코아, 석유 가공공장들이 있으나 프랑스독점체들이 차지하고 있다.
【출판보도】 신문 프라테르니테 마틴(정부계)

## 상부볼따

### (상부볼따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서쪽에 있으며 말리, 니제르, 다오메, 또고, 가나, 상아해안과 접하고있다. 평균기온은 가장 낮을 때인 12—1월에 24—26°C, 가장 높을 때인 4—5월에 30~35°C이다. 년평균강우량은 약 1천mm이다.
【면적】 27만 4,200km²
【인구】 515만 5,000명(1970년)
주민은 모시족, 보보족, 구룬시족, 로비족 등 여러 종족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수도】 와가두구(주민 15만명)
**정 치** 1909년에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으며 1943년에 프랑스령서아프리카에 강압편입되였다가 1960년 8월 5일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을 선포하였다.
1961년 4월에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떨어져나오면서 프랑스와 예속적인 《협조협정》을 맺었다.
1966년 1월 3일 상부볼따군 총참모장 상구레 라미자나가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은후 헌법을 폐지하고 민족회의와 정당, 사회단체를 해산하였다.

유엔 25차 총회에서 상부볼따대표는 《조선문제》 토의시 미제침략군의 철수안에 대한 표결에서 기권하였으며 《언커크》를 해체할데 대한 결의안에 찬성투표하였다.
1970년 4월에 상부볼따공화국정부친선대표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다.
【민족회의】 일원제이다.
【대통령】 상구레 라미자나(1966년 1월—)
【정부】 수상 제라르 깡고 우에드라오고(1971년 2월—), 외무상 말라끄 조로메
**경제, 사회** 주민의 90%가 농업에 종사한다. 경제의 중요부분은 목축업이다.
주요농산물은 목화, 강냉이, 기장, 벼, 땅콩, 조, 수수 등이다.
지하자원으로는 금, 동, 망간, 우라니움 등이 있다.
4개년경제발전계획(1967—1970년)이 수행된 결과 이 나라는 160여만마리의 면양과 염소를 비롯하여 500여만마리의 집짐승을 가진 아프리카에서 손꼽히는 축산국가로 되고있다.
농업에서도 성과를 거두었는데 1970년에 1960년에 비하여 10배나 되는 3만 2천t의 목화를 생산하였다.
목화씨빼는 공장, 랭동도살장, 기름공장, 비누공장이 새로 건설되였다.

## 또 고

### (또고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서쪽 기네만에 면하고있으며 가나와 다오메 사이에 있다. 계절의 변화가 없고 장마철과 가물철만 있다.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평균기온이 30°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1천 500mm이다.
【면적】 5만 5,600km²
【인구】 117만 2,000명(1970년)
주민은 에웨족, 마나족, 까뜨시족, 까부레족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수도】 로메(주민 10만명)
**정 치** 1884년에 독일의 식민지로 되였다. 1914년 8월 영국은 또고의 서부를, 프랑스는 또고의 동부를 각각 강점하였다. 1946년 12월 영국과 프랑스의 《후견령》으로 되였다.
1957년 3월 영령또고는 가나에 통합되였으며 프랑스령또고는 1960년 4월

27일 독립을 달성하였다. 독립후 또고에서는 두 차례의 군사정변이 있었다.

1967년 1월 13일 군사정변에 의하여 집권한 에야데마는 국회를 해산하고 각정당, 사회단체들을 비법화하고 군사독재를 실시하였다.

1968년 5월 진보적인 로조단체들은 로동조건의 개선, 임금인상 및 로조활동, 정치활동의 자유를 요구하여 총파업을 벌렸다.

1969년에 또고에는 100여명의 미제 《평화군》과 서독 《평화군》이 활동하고 있었다.

【정부】 대통령 에띠엔느 에야데마(1967년 1월—), 외무상 죠아심 훈레데

【정당, 사회단체】 또고인민련합(유일당이며 집권당), 또고조선친선협회 1969년 11월 4일 결성, 위원장 뻴리까르빠 콘손

**경제, 사회** 주민의 90%이상이 농업에 종사한다. 주요농산물은 코코아, 커피, 야자, 종려, 목화, 강냉이, 땅콩 등이다. 커피와 코코아는 이 나라 수출총액의 60%를 차지한다. 북부열대주민들은 목축업을 주로 하는데 집짐승들 중 소가 제일 많다.

공업으로는 솜타는 공장, 기름짜는 공장, 목재공장, 방직, 방적 공장이 있을뿐이다.

지하자원은 린산염, 크롬, 쇠돌, 보크사이트, 망간, 금, 연, 석유 등이다.

1960년에 프랑스독점회사들이 이 나라에서 린산염생산을 시작하였다. 해마다 70여만t 생산되는 린산염의 대부분은 프랑스식민주의자들에게 략탈당하고있다.

1962년 파리메에 또고력사상 첫 수력발전소가 건설되였고 로메에 현대적인 항구가 건설되였다.

천주교도들이 많고 그밖에 회교도들도 있다.

【출판보도】 신문 또고프레스

## 다오메

(다오메공화국)

서아프리카의 기네만에 면해있으며 또고와 나이제리아 사이에 있다. 적도계절풍 기후이며 년평균기온은 1월에 24°C, 7월에 30°C이다. 년평균강수량은 1천~2천mm이다.

【면적】 11만 2,622km²

【인구】 257만6,600명(1969년 8월)

이 나라에는 폰족, 요루바족, 뻴족 등 30여종족이 있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수도】 포또누(주민 12만명, 1969년말)

**정치** 17세기초부터 뽀르뚜갈, 화란, 영국, 프랑스 등 식민주의자들의 노예무역의 중심지로 되고있었다.

1900년에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고 1902년에는 프랑스령 서아프리카에 강압편입되였다.

1958년 12월 《프랑스공동체》내의 자치공화국으로 되였으며 1960년 8월 1일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을 선포하였다가 1961년 2월 11일 이 공동체내에서 떨어져나왔다.

1964년 9월 다오메인민들은 프랑스침략군의 군사기지를 철페하고 프랑스침략군들을 완전히 몰아냈다. 독립이래 다오메에서는 1968년까지 4차례의 군사정변이 있었으며 7차의 정권교체가 있었다. 1969년 12월 10일에 다시 군사정변이 일어나 3명의 군인들로 《군사혁명위원회》가 구성되였다.

《군사혁명위원회》는 1970년 3월에 대통령 및 국회선거를 실시할것을 선포하고 3월 9일에 대통령 및 국회선거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통령립후보자들간의 분쟁으로 3월 28일 선거의 무효가 선포되였다. 5월 1일 《군사혁명위원회》는 해산되고 민간정부가 구성되였다.

【민족회의】 일원제이다.

【정부】 대통령 위베르 마가(수상, 내상, 국방상겸임), 외상 다우다 바다루

【정당, 사회단체】 민주당(집권당), 공화당, 진보련맹, 근로자총동맹, 로조총련맹, 녀성련맹, 다오메조선친선협회 1968년 6월 결성, 위원장 빠도누 장마리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8년 6월 다오메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0년 7월 29일 다오메조선친선협회 청년회원들이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수상의 로작및혁명활동학습연구소조》를 결성하고 그이께 드리는 편지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다오메조선친선협회는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모임을 가졌다.

**경제, 사회** 주요농산물은 종려(총경지면적의 50%이상), 강냉이, 마니오크, 땅콩, 수수, 커피, 목화, 바나나 등이다.

쇠돌, 석유, 크롬 등 지하자원이 있다.

공업으로는 기름공장, 솜타는공장 등 농산물가공공장이 있다.

주요수출품은 종려씨와 종려기름이며 년수출액의 약87%를 차지한다.

이 나라의 경제명맥은 프랑스독점체들이 틀어쥐고있으며 미제독점체들의 경제적침투도 날로 강화되고있다. 미제는 원유개발권을 독점하고 채굴탑들을 건설하였다.

【출판보도】 신문 다오 프레스(정부기관지)

## 나이제리아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서쪽 기네만에 면해있으며 니제르, 다오메, 까메룬, 챠드와 접해있다. 년평균기온은 20~23°C이다.

【면적】 87만 8,000km²

【인구】 5,500만명(1970년 1월)

하사우족(북부), 이보족(동부), 요루바족(서부)등 300여개의 종족이 있으며 150여종의 언어가 있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수도】 라고스(주민 67만 5,000명)

**정치** 1914년부터 영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있다가 1961년 10월 1일 《영련방》내에서 독립하였다. 1963년 10월 1일 련방공화국으로 되였다.

독립후 나이제리아에서는 영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인한 종족적 모순과 분쟁이 계속되여 왔다. 이러한 분쟁은 1967년 5월 군사정변을 계기로 동부주가 련방정부로부터 떨어져나가 《비아프라공화국》을 선포함으로써 국내전쟁으로 발전하였다.

내전은 1970년 1월 12일 련방군의 승리로 종결되였다. 3년간의 내전으로 100만명의 피해자가 났다.

내전후 련방정부는 전쟁피해를 가시고 종족들간의 화해를 이룩하기 위한 대책을 취하는 동시에 전쟁피해를 기회로 기여든 제국주의자들의 내정간섭과 파괴책동에 대하여 단호한 립장을 취하고있다.

1970년 1—2월까지만도 전복음모를 꾸민 라고스주재 영국 《고등판무관》놈, 미국군대좌놈과 비아프라분렬주의자들과 공모하여 파괴책동을 감행하던 영국, 서독, 프랑스, 화란, 아일랜드의 《선교사》, 《의사》, 로마카톨릭교《선교사》, 이스라엘기자들을 추방하

였다.

9월에는 이 나라에 동지를 뿔고있는 외국석유독점회사들에 일부 유전들을 나이제리아에 반환할것을 요구하였다.

10월 1일 야쿠부 고원은 독립기념일 10주년 방송연설에서 《9개항목의 계획》을 발표하고 《군사정권이 사회경제 및 헌법개혁》을 끝낸후 1976년까지는 군사정권을 유지할것이라고 하면서 그기간에 유일한 련방헌법의 작성, 전국적인 정당조직, 군대의 재조직, 재정위원회 설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다.

【최고군정회의】 최고지도기관이다.

【정부】 수반 야쿠부 고원(1966년 8월—)

【정당, 사회단체】 북부인민대회당, 공민민족회의, 민족민주당, 사회주의로동당, 나이제리아산림및띵구이농장원협회, 로조대회, 청년대회, 나이제리아조선인민친선협회 1970년12월결성, 위원장 쭈르티스 죠세프

**경제, 사회** 주민의 80%가 농사를 한다. 주요농산물은 종려, 코코아, 땅콩, 담배, 목화, 고무 등이다. 종려기름생산량은 세계 제1위이다.

공업에서 기본은 원유, 콜롬바이트(자본주의 세계생산량의 약 85% 차지), 주석, 석탄 등의 채취공업과 원유가공공업이다. 이 나라는 세계 10대석유생산국의 하나이다.

경제의 70%는 제국주의독점체들에 예속되여있다.

영국독점체들은 주로 나이제리아지역에, 프랑스와 미제독점체들은 비아프라지역에 투자하고있다.

다년간의 내전으로 혹심하게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기 위하여 1970~1974년 개발계획을 세우고 이 기간에 45억딸라를 지출할것을 예견하고있다.

주민의 약 절반이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데일리 엑스프레스, 데일리 타임스, 뉴 나이제리언, 모닝 포스트, 나이제리언 옵써버

## 니제르
### (니제르공화국)

서아프리카 사하라사막지대에 있는 내륙국가이다.

기후는 무덥고 메마르다. 북부고원지대를 제외하고 계절의 차이가 없다. 년평균기온은 30°C이다.

년평균강수량은 남부에서 250~350mm이며 북부에서 100mm이다.

【면적】 128만 7,000km²

【인구】 364만 3,000명(1970년)

주민은 하우사족, 제르마족, 송가이족, 풀베족 등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수도】 니아메(주민 5만 2,000명)

**정치** 1908년부터 프랑스령서아프리카에 속해있다가 1960년 8월 3일에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하였다.

1961년 2월 11일 《프랑스공동체》에서 떨어져나왔다. 이해 4월 프랑스와 예속적인 《협조협정》을 맺었다.

독립후 이 나라에 침투한 미제는 니아메에 《문화쎈터》를 설치하고 100여명의 《평화군》놈들을 침투시켰다.

니제르는 유엔총회 제25차회의에서 《조선문제》 토의시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과 《언커크》의 존속을 위한 미제의 《결의안》에 찬성투표함으로써 조선의 통일을 반대하는 립장을 취하였다.

【국민회의】 일원제이다.

【정부】 대통령 아마니 디오리(수상겸임), 외무상 마이다호 마무두

【정당, 사회단체】 진보당(집권당), 사와바당(1964년에 비법화), 전국로동자동맹

**경제, 사회** 주민의 94%가 농업과 목축업을 한다. 농사는 주로 니제르강류역에서 많이 한다. 주요농산물은 조, 마니오크, 사탕수수, 목화, 땅콩(수출액의 80%차지), 쌀 등이다.

주요지하자원으로는 석돌, 주석, 동, 우라니움, 석유, 철송, 소금 등이 있다.

주요경제명맥은 프랑스독점체들이 틀어쥐고있다. 최근년간 미제는 《선물》과 자금부하 등 각종 형식으로 이 나라의 건설, 교육 부문 등에 대한 침투를 강화하고있다.

수출은 나이제리아의 령토를 통과하여 실현된다.(3개수출로 중 2개는 나이제리아를 통과)

## 까메룬
### (까메룬련방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서쪽 기네만에 면하고있으며 가봉과 나이제리아 사이에 있다.

년평균기온은 25°C내외이다. 년평균 강우량은 1천 600mm이다.

【면적】 47만 5,400km²

【인구】 580만명(1970년)

주민은 반투족(남부), 세미반투족(서부), 풀베족, 함족 등 130여종족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영어와 프랑스어이다.

【수도】 야운데(주민 11만명)

**정치** 15세기말부터 구라파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아온 까메룬은 1902년 독일의 식민지로 되였다. 1916년에 영국과 프랑스침략자들이 까메룬을 강점하고 1919년 7월에 까메룬을 분할하였다.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은 동부를, 영제국주의자들은 서부지역을 각각 강점하였다.

민족적독립을 위한 이 나라 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1960년 1월 1일 프랑스령 까메룬이, 1961년 2월에 영령까메룬이 각각 독립하였으며 1961년 10월 1일에는 이 두지역이 까메룬련방공화국을 형성하였다.

1967년에 미제의 《평화군》이 기여들었으며 수도에 《유엔보도쎈터》가 설치되고있다. 또한 군대내에는 프랑스군사고문들과 군사인원들이 있다.

【련방민족회의】 일원제이다. 동서까메룬에 각각 립법회의가 있다.

【정부】 대통령이 수상을 겸하며 매련방성원국의 수상을 임명한다.

대통령 엘하지 아호마드 아히죠(1965년 3월 재선), 외무상 래몬 에떼 온데떼

【정당, 사회단체】 인민동맹(비법화), 전국동맹(집권당), 민주청년동맹, 민주녀성동맹

**경제, 사회** 주민의 90%가 농사를 한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코코아, 바나나, 종려, 땅콩, 목화, 벼, 수수, 담배 등이다.

지하자원은 보크사이트, 주석, 석유, 연, 금강석, 망간, 우라니움 등이 있다. 경제명맥은 프랑스, 미영제국주의자들이 틀어쥐고있다.

1965년말에 이 나라에는 750여개의 외국회사가 있었으며 1차 5개년계획(1961—1965년) 실행에서 외국자본의 비중은 42%였다.

아프리카에서 제1위를 차지한다는 알루미니움생산(년산 약 5만t)은 거의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이 장악하고있다.

독립후 동서부를 련결하는 철도와 도로들이 건설되였다.

초등 및 중등학교들이 건설되고 야운데에 첫 고등교육기관인 련방종합대학이 창설되였다.

교육기관들에서 식민주의자들을 몰아내고 까메룬인들로 꾸리는 사업이 추진되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까메룬통신

신문 유니떼(까메룬전국동맹기관

지), 라 드레스뒤 까메룬, 레포르트 까메룬내즈

## 가 봉

(가봉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기네만에 면해있으며 꽁고(브), 까메룬과 린접하고있다. 열대성기후로서 년평균기온은 25~28°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1천500~2천 500mm이다.

【면적】 26만 7,000km²

【인구】 63만명(1970년)

주민은 피그미족, 판족을 비롯하여 50여종족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수도】 리브르빌(주민 3만 1,000명)

**정치** 1862년부터 프랑스의 침략을 받아오다가 1910년에 프랑스령 적도아프리카의 한개 령지로 되였으며 1960년 8월 17일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을 선포하였다.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가봉에 예속적인 《협조협정》을 강요하여 군대주둔권, 군사기지설치권, 프랑스회사의 면세권 등을 탈취하였다.

【국민회의】 일원제이다.

【정부】 대통령 알베르 베르나르 봉고(1967년 11월—, 수상겸임), 외무상 장레미아이유네

【정당】 민주련맹(집권당), 사회민주동맹, 민족통일당

**경제** 경제의 기본은 림업 및 목재가공업, 광업 이다. 경제명맥은 프랑스독점체들이 틀어쥐고있으며 미제의 독점체들도 해마다 투자와 략탈을 강화하고있다. 지하자원으로는 망간, 원유, 금, 금강석, 철, 우라니움(년산 약 10만t) 등이 있다.

목재자원이 많은데 이것은 이 나라 수출액의 4분의 3을 차지하고있다. 목재의 80%는 합판가공에 적합한 장미나무이다.

주요농산물은 코코아, 커피, 나무감자, 사탕수수, 땅콩 등이다.

## 꽁고(킨)

(꽁고민주공화국)

중부아프리카의 서쪽 꽁고강류역에 있다. 평균기온은 꽁고강상류지대에서 20~25°C이다. 년평균강수량은 1천500mm이다.

【면적】 234만 5,409km²

【인구】 2,056만 4,489명(1970년)

200여개의 종족이 있는데 그중 반투족이 약 84%를 차지한다.

【수도】 킨샤사(주민 150만명, 1970년)

**정치** 1908년 11월 벨지끄의 식민지로 된때로부터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50여년간의 완강한 투쟁을 통하여 꽁고인민은 1960년 6월 30일 독립을 이룩하였다.

벨지끄식민주의자들은 지하자원이 풍부한 카탕가주만이라도 계속 차지해보려고 1960년 7월 8일 벨지끄침략군과 괴뢰들을 반대하는 꽁고정부군의 폭동을 구실로 꽁고에 대한 무력간섭을 감행하는 한편 7월 11일에는 저들의 주구 숌베를 사촉하여 카탕가주를 《독립국》으로 선포케 하였다.

이 기회를 리용하여 미제는 《유엔군》을 끌어들여 꽁고(킨)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미제는 1960년 9월 꽁고국군참모장이였던 모부투를 사촉하여 군사정변을 일으켜 합법적인 루뭄바정부를 전복케 하였으며 1961년 1월 18일에는 루뭄바수상과 전우들을 학살케 하였다.

1962년 3월 미제는 루뭄바정부를 계승한 기젱가의 합법적정부를 해산하고 《유엔군》을 리용하여 애국적력량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한편 민족분렬책동과 괴뢰들의 빈번한 《정권》교체를 통하여 저들의 침략전쟁수행에 유리한 지반을 마련하려고 미쳐날뛰였다.

1965년 11월 미제의 조종하에 모부투가 군사정변을 일으켜 집권하였다.

혁명최고리사회 부위원장 물레레를 비롯한 수많은 애국자들을 사형하는 등 인민들과 민족해방력량에 대한 파쑈적인 탄압을 강화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미제에 적극 추종하고있다.

【국회】 일원제이다.

【정부】 대통령 겸 국방상 죠세프 데지레 모부투(1965년 11월—), 외무상 마리오 카르도조

【정당, 사회단체】 꽁고(레)혁명최고리사회 꽁고민족해방리사회 지도기관을 대신하여 1965년 4월에 조직, 위원장 가스톤 수미알로. 인민혁명운동당(집권당)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채광업과 농예작물 생산이다.

꽁고(킨)는 《세계원료창고》로 널리 알려진 나라로서 금강석, 우라니움, 코발트, 동, 금, 주석, 망간 등이 풍부히 매장되여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래전부터 제국주의자들의 략탈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100개의 미제독점체들이 이 나라에 침투하여 우라니움광의 90%, 코발트광의 전부, 망간, 라디움, 탕그스텐 등 군수원료의 절반이상을 통제하고있다.

주민의 3분의 1 이 농사를 하고있으며 주요농산물로는 커피, 밀, 야자, 종려, 목화, 고무, 차, 나무감자 등이다.

로력자의 절반이상이 실업자이다.

【출판】 신문 레봉부시옹(혁명최고리사회기관지), 르. 쁘로그레스

## 카빈다

(뽀르뚜갈식민지)

꽁고와 앙골라의 접경지대인 대서양 연안에 있다.

【면적】 7,770km²

【인구】 4만 6,277명

1886년부터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의 강점하에 있다.

카빈다인민들은 민족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무장투쟁을 비롯한 각종 투쟁을 벌리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은 식민주의자들의 재배원에서 일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코코아, 종려, 땅콩 등이다.

## 루안다

(루안다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동쪽에 있으며 꽁고(킨), 우간다, 탄자니아, 부룬디와 접해있다. 적도계절풍기후이다. 년평균기온은 18~21°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900~1천500mm이다.

【면적】 2만 6,333km²

【인구】 340만 6,000명(1970년)

주민은 바후투족(약 84%), 와투치족, 피그미족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수도】 끼갈리(주민 1만명)

**정치** 1890년에 부룬디와 함께 독일의 식민지로 되였다가 1922년에 벨지끄식민지로 되였다. 1946년부터는 《유엔후견령》으로서 행정상 꽁고(킨)에 예속되여있었다.

민족적독립을 위한 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1962년 7월 1일 루안다는 부룬디왕국과 분리되여 독립하였다.

【국회】 일원제이다.

【정부】 대통령 그레고와르 까이반다(1969년 10월—), 대통령이 수상을 겸한다.

【정당, 사회단체】 파르메루부당(집권당), 아프르소마(사회진보협회), 민족동맹

**경 제** 목축업을 위주로 하면서 커피, 목화, 차, 담배 등을 생산한다.

주식물은 강냉이, 밀, 고구마이다.

서부지방에서 주석, 탄타르광을 채굴한다. 지하자원은 제국주의자들에게 략탈당하고 있다.

## 에티오피아

### (에티오피아왕국)

아프리카대륙의 동북부의 아비시니아고원지대에 있는 화산국이다. 소말리아, 수단과 접경하고있다.

지형에 따라 기후의 차이가 심하나 대체로 열대계절풍기후에 속한다. 년평균강수량은 수도에서 1천300mm이다.

【면적】 118만 4,320km²

【인구】 2,366만 7,400명(1968년말)

주민은 암하라족(약50%)과 가라족이 있다.

공용어는 암하라어와 영어이다.

【수도】 아디스 아베바(주민 63만 7,830명)

**정 치** 1869년부터 이딸리아의 침입을 받아오다가 1935년 10월에 그에 강점되였다. 1940—1941년에 영식민주의자들은 에티오피아에서 이딸리아강점자들을 몰아내고 1942년 1월에 에티오피아에 이른바《주권》을 준다는 협정을 맺었다. 1954년 5월 미제와 90년간의 《군사기지대여협정》을 체결하였다.

에티오피아는 1950년 미제가 도발한 조선침략전쟁에 고용병을 파견하였다.

1966년 9월에는 남조선강점 소위 《유엔군사령부》에서 자기 군사대표단을 철수하였다. 1969년 6월 국회의원선거와 내각개조결과 국회와 내각의 주요한 자리는 왕족일파가 차지하고있으며 모든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고있다.

정부의 주요기관(외교, 재정)과 군대에는 미국놈 《고문》과 《전문가》들이 있다.

1941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이 강점하였던 에리트레아 (고대국가는 아크숨국)는 유엔의 《결정》으로 1952년 9월에 에티오피아의 《련방》으로 병합되였다. 1962년 12월 에리트레아는 에티오피아의 한개주로 되였다. 미제는 이기에 군사기지를 설치하였으며 이스라엘인들을 이주시키고 에리트레아인민들을 강제추방하며 학살만행을 감행하고 있다.

에리트레아인민들은 에리트레아를 에티오피아에 병합시킨데 대한 유엔의 《결정》을 반대하여 오래동안 대중적투쟁을 벌려왔다. 이 투쟁은 1960년대에 들어와 더욱 앙양되였으며 1961년부터는 에리트레아해방전선의 지도하에 무장투쟁이 시작되였다. 해방전선은 자기들의 투쟁목적이 《에리트레아에서 미제침략군을 내쫓으며 에티오피아의 예속에서 전령토를 해방》하는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에리트레아해방전선은 자기들의 기관지 《혁명》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그이의 천재적로작들인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를 실었다.

1970년에 아련과 이라크에서 공부하고있는 에리트레아학생들은 《김일성동지의불후의로작연구소조》, 《김일성동지의로작연구소조》들을 각각 조직하였다.

【국왕】 하일레 셀라씨에 1세(1930년 1월—)

【국회】 량원제이다.

【정부】 수상 테샤피 테자즈 아쿠릴루 웰드, 외상 케테마 이프루

【정당, 사회단체】 황제정권을 지지하는 유일한 합법적정치조직인 민족애국련합회가 있다. 에리트레아해방전선 에리트레아의 민족해방투쟁을 지도, 아련, 알제리, 이라크, 수리아, 수단, 이딸리아 등에 대표부를 두고 있다.

**경제, 사회** 인구의 90%이상이 농업과 목축업을 한다.

경지면적의 90%를 왕족, 봉건지주, 교회 등이 차지하고있다.

주요농작물은 커피, 보리, 밀, 유지작물, 사탕수수, 목화, 담배 등이다. 인구의 4분의 1이 커피재배를 하고있으며 커피는 수출총액의 60%를 차지한다.

공업은 국민소득에서 3%를 차지한다.

주민의 60%가 기독교도이며 그외는 회교도이다.

【출판】 신문 에티오피엔 헤랄드(정부기관지), 아디스 제멘

## 케니아

### (케니아공화국)

동부아프리카에 있으며 우간다, 탄자니아, 에티오피아와 접해있다. 적도가 나라의 복판을 가로질러가고있다. 년평균기온은 20°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750~1,000mm이다.

【면적】 58만 2,600km²

【인구】 1,094만 2,700명(1970년 12월)

키쿠이아족, 루오족을 포함한 42개의 소수민족과 종족이 있다.

공용어는 스와힐리어이다.

【수도】나이로비 (주민 47만 8,000명)

**정 치** 1895년에 영국의 《보호령》으로, 1920년에는 그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케니아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은 1952년 《마우마우》가 령도한 케니아농민들의 대규모적인 무장투쟁이 있은후부터 보다 대중적으로 전개되였으며 1960년 3월 케니아아프리카인민족동맹이 결성된후 투쟁은 더욱 치렬히 전개되였다.

1963년 6월 죠모 케니아타를 초대수상으로하는 자치정부를 수립하였으며 이해 12월 12일 《영련방》내에서 독립을 선포하였다.

1964년 11월 3일 새헌법을 채택하고 12월 12일에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9년 7월 8일 루오족들이 종족적평등을 요구하여 폭동을 일으켰으며 10월에는 반정부시위를 단행하였다.

독립후 정부는 식민주의자들이 가지고있던 750여개의 회사들을 국유화하였으며 토지를 몰수하였다.

【민족회의】 량원제이다.

【정부】 대통령겸 수상 죠모 케니아타(1963년 6월—), 외무담당국무상 므비유 코이난게

【정당】 아프리카인민족동맹(집권당),인민동맹(1969년 10월에 비법화), 사회주의당

**경제, 사회** 주민의 절대다수가 농사를 한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차, 사이잘삼, 밀, 보리, 담배, 목화 등이다. 커피, 사이잘삼, 차, 육류, 가죽등 농산 및 축산물들은 주요한 수출품으로 되고있으며 그것은 수출총액의 90%를 차지한다.

민족공업도 일정한 전진을 이룩하고 있다. 농산물가공제품과 세멘트, 다이야, 비누,유리제품 등 공업제품생산이 점차 늘어나고있다.

1969년에는 그전해에 비하여 6%의 경제장성을 보았다.

케니아정부는 식민주의후과를 가시기 위하여 영어를 페지하고 스와힐리어를 국어로 제정하였다.

주민들은 배물교, 기독교, 회교를 믿는다.

【출판】 신문 이스트아프리칸, 스탠다드, 데일리네이숀, 타이파레오

## 모잠비크

(뽀르뚜갈식민지)

아프리카대륙의 동남부, 인도양에 면하고있으며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남아프리카와 접하고있다. 해안선에는 항만들이 많다. 해안지대의 년평균기온은 25°C, 12월부터 4월까지의 강우량은 1,000~1,500mm이다.

【면적】 78만 3,000km²

【인구】 712만 4,000명(1970년)

주민의 대부분은 반투족이다.

공용어는 뽀르뚜갈어이다.

【행정중심지】 로렌스 마르케스(주민 18만 3,800명)

**정 치** 1700년에 뽀르뚜갈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미제를 비롯한 나토의 지지와 비호밑에 이 나라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야만적인 식민주의전쟁을 감행하고있다.

모잠비크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은 1962년 2월 로렌스 마르케스에서 일어난 첫 무장봉기를 계기로 더욱 앙양되였다.

1962년 5월 모잠비크해방전선이 결성됨으로써 이 나라 인민들은 처음으로 투쟁조직위원회를 가지게 되였으며 이 전선은 1963년 9월 무장투쟁로선을 내놓았다.

1964년 9월 25일 해방전선의 지도밑에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전인민적폭동이 일어났으며 이 투쟁은 무장투쟁에로 발전하였다.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무장투쟁과정을 통하여 애국적무장력은 1만 5천여명의 정규무력과 6만명이상의 《자위대》를 가진 강력한 무력으로 자라났으며 현대적인 최신식 각종 무기들로 장비되였다.

모잠비크의 애국적무장력과 인민들은 해방전선의 지도밑에 1970년현재 전령토의 3분의 1이상을 해방하였으며 이 지역들에서는 인민자치기관들이 설치되였다.

강점지역에서도 해방전선은 인민들을 묶어세워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고있다. 모잠비크인민들과 애국적 무장력은 1969년 9월 25일부터 1970년 9월 25일까지만도 적군 약 2천명을 소멸하고 5대의 전투기와 2대의 직승기, 각종군용차 300여대를 까부셨다.

특히 1970년 5월부터 8월까지에 진행된 적들의 해방지역에 대한 소위 《소탕작전》을 여지없이 파탄시키고 까보델가도주와 테테주, 니아싸주에서만도 적군 387명을 죽이고 여러 대의 최신비행기와 수십대의 군용화물차를 포함한 막대한 군수기재들을 파괴하였다.

애국적무장력의 장성과 그들의 강력한 공세에 당황한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무너지는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부지하기 위하여 1970년초에 3천여명의 뽀르뚜갈침략군을 끌어들인것을 포함하여 남아프리카, 남로데시아의 고용병들을 긁어모아 5만여명의 침략군을 쓸어넣고 해방지역에 대한 《소탕작전》을 벌리고 있다. 뿐만아니라 모잠비크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인 테테주에 100여만명의 백인들을 정착시켰으며 이 지역에서 사는 아프리카인들을 《전략촌》에 강제이주시켰다. 또한 놈들은 해방전선내의 간부들을 죽이고 이것을 《내부작간》으로 날조함으로써 해방전선내부를 분렬와해시키려고 책동하였으나 민족해방투쟁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타번졌다.

【정당, 사회단체】 모잠비크해방전선 (모잠비크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지도), 위원장 사모라 마세루. 아프리카인민족동맹, 민족주의당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기름진땅은 구라파농장주들이 독점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사탕수수, 사이잘삼, 목화, 야자, 강냉이, 차, 벼, 사탕무우, 바나나 등이다.

지하자원으로는 주석, 석탄, 보크사이트, 물솜, 석유, 운모, 망간, 우라니움, 월프람 등이 있으나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략탈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미제독점체들은 12만km²에 달하는 지역에 대한 석유와 기타 광물자원의 탐사 및 개발권을 획득하고 막대한 자원을 략탈하고있다.

해방지역에서는 농업협동조합들과 소비품 공급을 위한 협동조합들이 조직되고있다. 식량을 자급자족하고 각종 생활필수품을 생산하고있다.

여기에는 400여개의 유격대병원과 인민들을 위한 병원이 있으며 수백개의 각급 학교들이 건설되고 수만명의 어린이들이 공부하고있다.

【출판】 모잠비칸 레볼루숀(해방전선잡지)

## 말라위

(말라위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중부에 있으며 탄자니아와 접하고있다. 적도무역풍기후로서 가장 낮을때(7월)의 평균기온은 14~19°C이다.

【면적】 11만 9,300km²

【인구】 428만 5,000명(1970년)

주민의 대부분은 아프리카인이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수도】 좀바(주민 1만 7,690명)

**정 치** 19세기말부터 영국, 뽀르뚜갈, 독일의 침략을 받아왔다. 1891년 5월 영식민주의자들의 《보호령》으로 되였고 1953년 10월에는 영제국주의자들이 조작한 《중앙아프리카련방》에 강압편입되였다.

민족적독립과 《련방》의 해체를 요구하는 말라위인민들의 반영투쟁에 의하여 1963년 2월 자치정부를 수립하고 이해 12월에는 《련방》에서 떨어져나왔다.

1964년 7월 6일 《영련방》내의 자치공화국으로 독립하고 니아살랜드로 불리여오던 나라이름을 말라위로 고쳤다.

1966년 7월 6일 말라위는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말라위정부는 1968년에 니아사호를 포함한 탄자니아령토의 상당한 부분과 잠비아의 동부국경의 광범한 지역을 저들의 령토라고 하면서 그의 《반환》을 요구했으며 무력으로 이 나라들을 위협하려고 책동하고있다.

또한 남아프리카인종주의정권에 대한 세계적인 규탄에도 불구하고 남아프리카와 《외교관계》를 맺고 정치, 경제, 군사적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있다.

【립법회의】 일원제이다.

【정부】 대통령이 수상을 겸한다. 대통령 헤스팅그스 카무주 반다(1966년 5월—)

【정당, 사회단체】 말라위대회당(집권당), 전국로동련맹

**경제, 사회** 영식민주의통치의 후과로 농업은 극히 기형성을 띠고있다. 주로 담배, 차, 커피를 재배하고 쌀과 식료품은 수입한다.

지하자원으로는 물솜, 보크사이트, 동, 석탄, 금, 철광, 망간, 금강석, 석유 등이 있다.

해마다 수천명의 로동자들과 빈농민들이 남아프리카에 팔려간다.

## 짐바브웨

(남로데시아)

아프리카대륙의 남부에 있으며 모잠비크, 잠비아, 보쯔와나,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린접하고있다. 기온은 가장 높을 때인 10~11월에는 36°C이상이며 년평균강우량은 762mm이다.

【면적】 38만 9,400km²

【인구】 464만 7,000명(1970년)

주민을 대부분이 아프리카인이며 백인과 흑인의 혼혈인, 구라파인 등이 있다.

【수도】 솔스베리(주민 약 31만명)

**정 치** 1895년에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으며 1953년에는 영식민주의자들이 조작한 《중앙아프리카련방》에 통합되였다. 이 지역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1963년 12월 《련방》이 해체된후 잠비아와 말라위는 독립하였으나 짐바브웨에서는 영식민지통치가 계속되였다.

민족적독립을 요구하는 짐바브웨인민들의 투쟁이 앙양되자 영제국주의자들은 백인인종주의정권을 조작하여 1965년 11월 남로데시아의 일방적인 《독립》을 선포케 하였다.

백인인종주의정권을 때려부시고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짐바브웨인민들의 투쟁은 1966년 4월부터 무장투쟁으로 전변되였으며 1967년 3월 스미스도당이 흑인애국자 3명을 무참히 학살한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

짐바브웨인민들의 애국적무장력은 2만여명의 강력한 대오로 장성강화되여 전국령토의 5분의1에 해당하는 서부 및 중남부지역에서 유격전선을 형성하고 도처에서 스미스백인인종주의자들과 제국주의고용병들을 족치고있다.

1970년 1월에만도 애국적무장력은 잠베지강에서 적들의 초계정을 격파하였으며 빅토리아폭포와 우안키사이에 있는 적비행장을 공격하여 직승기 2대를 파괴하고 전투기 1대를 까부셨다. 1월 16일밤에는 남아프리카고용병들을 들이쳐 수많은 적들을 요정냈으며 빅토리아폭포공항의 적요충지를 얻거피를이쳤다.

짐바브웨인민들의 무장투쟁이 고조되고있는데 당황망조한 스미스도당은 제놈들의 인종주의정권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미, 영제국주의자들의 지지밑에 1970년 3월 2일 일방적으로 《남로데시아공화국》을 선포하였으며 4월 10일에는 《국회선거》를 벌리고 비법적인 소수백인인종주의 《정부》를 조작하였다.

또한 스미스도당은 애국자들에 대한 《토벌작전》을 강화하며 아프리카주민들을 닥치는대로 체포학살하고있다.

또한 스미스도당은 짐바브웨인민들의 무장투쟁이 잠비아로부터의 《침투》에 의한것처럼 날조하면서 잠비아에 대한 로골적인 침략과 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하고있다.

【정부】 수상 이완 스미스(1964년 4월—)

【정당, 사회단체】 짐바브웨아프리카인민동맹 (짐바브웨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지도하고있다. 잠비아에 본부를 두고있다.), 짐바브웨아프리카민족동맹 (민족해방투쟁단체이다. 본부는 탄자니아에 있다.), 로데시아전선(집권당), 범아프리카사회동맹, 짐바브웨아프리카로조대회

**경제, 사회** 주민의 대부분이 농사를 하고있다. 경지면적의 70%이상을 인구의 5%밖에 안되는 백인인종주의자들이 차지하고 이 나라 농민들을 착취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담배(농업생산액의 50~80%), 강냉이, 목화, 땅콩 등이다.

지하자원으로는 쇠돌, 활석, 크롬, 동, 니켈 등이 있으나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략탈대상으로 되고있다.

아프리카인들은 하루 12~14시간이상 일해도 임금은 백인로동자들의 20분의 1밖에 못받으며 그나마 각종 잡세로 빼앗기고있다.

【출판】 신문 짐바브웨레뷰 (짐바브웨아프리카인민동맹기관지)

## 앙골라

(뽀르뚜갈식민지)

아프리카대륙의 서남부에 있으며 콩고(킨), 잠비아, 서남아프리카와 접해있다. 년평균기온은 17~28°C이다.

【면적】 124만 6,700km²

【인구】 530만명(1970년)

주민의 97%가 반투족이다.

언어는 반투어를 쓴다.

【행정중심지】 루안다(주민 22만 6,000명)

**정 치** 1885년 뽀르뚜갈식민지로 되였다. 1951년에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앙골라를 저들의 《해외주》로 선포하고 파쑈적인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항이 있는 법이다. 피압박인민들이 자신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불가피하다. 제국주의가 폭력으로써 약소민족들을 략탈하고 압박하는 이상 피압박민족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 침략자들에 항거하여 투쟁하는것은 빼앗을수 없는 그들의 권리이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21페지)

민족적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오래동안 투쟁하여 오던 앙골라인민들은 앙골라인민해방운동의 령도하에 1961년 2월 4일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의 경찰본부와 감옥을 습격한 때로부터 무장투쟁을 시작하였다.

간고한 무장투쟁과정을 통하여 앙골라인민무장력은 초기 20자루의 보총을 가진 24명의 대오로부터 1970년에와서는 최신식 각종 포와 자동무기로 무장한 5만명의 대부력으로 자라났다.

그들은 1969년에 새로운 전투행동전선 즉 동북전선과 중부전선을 새로창설함으로써 나라의 모든 지역에로 무장투쟁을 확대하였다.

앙골라인민무장력의 강력한 타격에 의하여 궁지에 빠진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부서져가는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1970년에도 예산총액의 절반 이상을 식민지전쟁에 탕진하면서 이 나라 인민들의 무장투쟁을 막아보려고 미쳐날뛰였다. 놈들은 미제에게 앙골라의 아도데스군사기지를 제공하였고 7만명의 뽀르뚜갈침략군을 침투시켰으며 미제와 남아프리카, 남로데시아 등 친미괴뢰들의 고용병들과 군사무력까지 긁어모아 미제의 지휘하에 앙골라인민을 반대하는 파쑈적인 군사행동을 감행하였다. 적들의 발악적책동에도 불구하고 앙골라인민무장력은 1970년 첫 열달동안에만도 40여명의 제국주의고용병들을 포함하여 1천 700여명의 적군을 요정냈다.

이 기간에 적군용차 77대를 까부시고 선박 7척을 물에 처박았으며 적들의 주요군용도로에 있는 25개의 다리를 마사버렸다.

이리하여 1970년말 현재 앙골라전령토의 3분의 1에 달하는 40여만km²를 해방하였으며 50여만명의 주민들이 식민지통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나머지 지역들도 거의다 앙골라 인민무장력의 통제하에 있다.)

해방지역에서는 혁명정권을 수립하고 진보적인 시책들을 실시하고있다.

1970년 8월 11일 브라자빌에 있는 앙골라인민해방운동투사들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위대한 군사전략

가이신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발표 세돐에 즈음하여 집회를 가지고 그이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그들은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에 즈음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를 가졌다.

【정당, 사회단체】 앙골라인민해방운동 앙골라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을 지도, 꽁고(브), 알제리, 아련, 탄자니아, 잠비아 등에 대표부를 두고 있다. 1956년에 창건, 위원장 아고스띠노 네또. 인민련맹, 통일전선, 앙골라전국근로자동맹

**경제, 사회** 농업과 광업이 경제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150만정보의 기름진 땅은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이 차지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사이잘삼, 종려, 사탕수수, 땅콩, 강냉이, 바나나, 나무감자 등이다.

주요지하자원은 금강석, 석유, 동, 망간, 갈탄, 운모, 연, 아연, 쇠돌, 우라니움, 월프람 등이 있으나 제국주의자들의 략탈대상으로 되고있다. 미제는 금강석, 석유개발권을 획득하고 마음대로 략탈하고있다.

해방지역들에서는 공업 및 농업생산이 발전하고있으며 병원, 상점들과 앙골라인민해방운동이 직접 양성한 교원들에 의해 학교들이 운영되고 교육발전을 위한 새조치들을 취하고있다.

## 남아프리카

###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제일 남쪽의 고원지대에 있는 나라이다. 중부고원지대는 강우량이 많고 기온의 차가 적다. 년평균강우량은 650mm이다.

【면적】 122만 3,400km²

【인구】 1,916만 7,000명(1970년)

주민의 대부분이 반투어계통(흑인)의 종족이며 백인은 약 370만명 (영국인, 화란인, 유태인) 이였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수도】 프레토리아(주민 41만 6,000명)

**정 치** 1652년에 화란의 식민지로 되였다. 1814년에 케이프타운과 케프주를 강점한 영국식민주의자들이 1820년부터 이나라에 백인들을 대대적으로 이주시켜 화란의 세력을 구축하고 자기 세력을 확장하였다. 1910년에 케프주와 다른 수개의 강점지대와 병합하여 《남아련방》을 조작하고 그를 영국의 한개 《자치령》으로 만들었다.

제2차세계대전후 영국식민주의자들은 이 나라 인민들의 앙양된 민족해방투쟁에 부딪쳐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더는 유지할수 없게 되자 1948년에 식민지통치의 변종인 백인인종주의정권을 조작하였다.

백인인종주의정권은 저들의 반동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통행증법》, 《파괴활동금지법》 등 100여종의 민족적압박과 인종차별을 위한 악법들을 조작하고 아프리카사람들에 대하여 류례없는 가장 야만적인 인종주의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보스터도당은 아프리카인들을 변방지대로 추방하는 야수적인 《인종격리정책》을 감행하면서 제놈들의 인종주의정권을 공고히하기 위하여 서구라파에서 백인들을 대대적으로 이주시켜 백인주민수를 늘이고있다.

남아프리카인민들은 백인인종주의정권을 뒤집어엎기 위하여 1961년부터 무장투쟁을 시작하였으며 1968년부터는 북부국경지역에서 무장투쟁을 강화하면서 보스터도당의 인종주의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무장투쟁의 영향하에 1969년에는 적통치구역에서도 인종주의를 반대하며 민주주의와 생존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이 벌어졌다.

이에 질겁한 보스터도당은 뽈지꼬, 서독, 이딸리아 등에 있는 파쑈단체들을 통하여 고용병을 모집하는 한편 군용비행장들을 만들며 인종주의군대를 《무장》시키는 소동을 일으키고있다.

한편 보스터도당은 아프리카의 반동들을 규합하여 반제전선에 대치시키고 아프리카의 통일을 파괴하기 위하여 1970년에는 미제의 지원밑에 말라위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려고 책동하였으며 앙골라, 모잠비크인민들을 반대하여 식민주의전쟁을 벌리고있는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에게 남아프리카백인고용병과 군사《고문》, 비행기 등을 제공하였다.

미제는 1969년에만도 아프리카인민들의 강력한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남아프리카에 약 3천만딸라에 해당하는 무기를 주었으며 1970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은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에 대한 무기공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보스터도당은 서독군국주의자들과도 《원자공동체》라는 군사기구까지 조작하고 살인무기제작에 미쳐날뛰고 있다.

【대통령】 푸채

【정부】 수상 죤 보스터(1966년—), 외상 뮬리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창건. 아프리카민족대회(남아프리카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지도, 꾸바, 알제리, 아련, 잠비아, 탄자니아 등에 대표부를 두고있다.), 국민당(집권당), 통일당, 남아프리카통일전선, 남아프리카로조대회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채광업이다. 인구의 19%밖에 안되는 백인들이 토지면적의 87.5%의 기름진 땅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소득의 73.3%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농산물은 강냉이, 밀, 목화, 담배, 사탕수수 등이다. 자본주의세계에서 금, 백금채굴량은 제1위(총생산량의 50%차지), 금강석은 자본주의세계생산량의 60~70%를 차지하고있으며 우라니움, 마그네시움, 크롬광, 석탄, 철광, 동광 등이 많이 매장되여 있다.

이러한 지하자원과 전략원료들은 미, 영, 서독군국주의자들과 기타 자본주의독점체들에 독점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275개의 회사들을 침투시키고있으며 남아프리카에 투하된 전체 외국자본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보스터도당의 인종주의적인 악법에 의하여 아프리카인들은 공민권도 없는 무권리상태에 있으며 가혹한 착취와 압박을 당하고있으며 암흑의 노예생활을 강요당하고있다.

【출판】 신문 인꿀루레꼬 (공산당기관지), 디 부르게르

## 서남아프리카

아프리카대륙의 서남쪽에 있으며 남아프리카, 앙골라, 잠비아와 접하고있다. 해안지대는 사막성기후이고 내륙지방은 고원성기후이다. 년평균강우량은 250~500mm이다.

【면적】 82만 3,876km²

【인구】 61만명(1970년)

가장 큰 종족은 오밤보족이며 부쉬만족, 곳텐트족, 반투족 등이 살고있다. 통일적인 언어는 없다.

【행정중심지】 윈드후크(주민 4만 3,000명)

**정 치** 15세기부터 뽀르뚜갈, 화란, 영국 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아오다가 19세기에 독일의 식민지로 되였다.

1915년 7월 남아련방에 강점당하였으며 1920년 12월부터는 남아련방의 《위임통치령》으로 되였다.

1949년 4월 남아프리카백인인종주의자들은 서남아프리카를 제놈들의 령토에 병합시켰다. 유엔 《결정》에 의하여 서남아프리카에 대한 남아프리카의 식민지통치는 1966년에 끝나기로 되여있었으나 미영제국주의자들의 비호하에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은 계속 이 나라에서 인종주의정책을 실시하고있으며 가혹한 착취와 략탈을 감행하고있다.

서남아프리카인민들은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의 지도밑에 남아프리카백인인종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를 때려엎고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1966년 5월부터 무장투쟁을 시작하였다.

1968년 11월 서남아프리카애국자들은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의 므꽈챠군사기지를 족쳐 적들에게 커다란 손실을 주었으며 이를 계기로 무장투쟁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정당, 사회단체】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 1958년에 조직, 이 나라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지도. 탄자니아, 잠비아, 아련, 알제리, 꾸바에 대표부를 가지고있다. 위원장 삼 누죠마. 오밤보인민당, 민족동맹, 국민당, 통일당, 서남아프리카당, 서남아프리카로동자련맹

**경 제** 경제의 주요부문은 채광업과 목축업이며 해안지대에서는 어업도 한다.

백인인종주의자들이 농목축업을 할수있는 토지의 87%를 차지하고 아프리카인들을 착취하고있다.

축산업은 소, 면양 기르기를 기본으로 하고있으며 농산물로는 강냉이와 약간한 밀, 기타 공예작물 등이 있다.

금강석(세계생산량의 3%), 바나디움(세계생산량의 10%), 연, 동, 망간, 아연, 우라니움, 텅그스텐, 쇠돌, 금, 은 등이 매우 많이 매장되여있으나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략탈대상으로 되고있다.

경제명맥은 영국(외국자본 총투자액의 80% 차지), 미국, 남아프리카, 서독독점자본가놈들이 장악하고있다.

## 느그와네

(느그와네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령토안의 동북부에 있으며 모잠비크와 접하고있다. 아열대기후에 속하며 년평균강수량은 500~1,400mm이다.

【면적】 1만 7,366km²

【인구】 39만 5,000명(1970년)

주민은 대부분이 아프리카인(약 98%)이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수도】 므바바네(주민 3,000명)

**정 치** 1834년부터 영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아오다가 1909년에 그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1968년 9월 6일 독립을 선포하고 스위질랜드로 불리우던 나라이름을 느그와네로 고쳤다.

【국왕】 사브후자 2세

【의회】 량원제이다.

【정부】 수상 마코쉬니 들라미이

【정당, 사회단체】 인보코드워민족운동당(집권당), 진보당, 민추당, 범아프리카단결대회

**경 제** 토지의 대부분을 백인농장주들이 차지하고이 나라 인민들을 착취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벼, 강냉이, 사탕수수, 땅콩, 감자 등이며 주요집짐승으로는 소, 염소, 양 등이 있다.

주요 지하자원은 돌솜, 쇠돌, 금, 은 등이다. 많은 사람들이 남아프리카의 광산들에서 품팔이를 한다.

## 보쯔와나

(보쯔와나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남쪽에 있다. 짐바브웨, 서남아프리카, 남아프리카와 린접하고있다. 령토의 대부분이 열대초원지대이며 아열대성기후에 속한다.

【면적】 71만 2, 000km²

【인구】 61만 1, 000명 (1970년)

주민의 절대다수가 아프리카인이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수도】 가베르네스(주민 8,000명)

**정 치** 1885년에 이 나라를 강점한 영식민주의자들이 1910년에 이 나라를 《남아련방》에 편입시켜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주로 만들었다.

1965년 3월 1일 《내부자치제》를 쟁취하였으며 1966년 9월 30일에는 독립을 달성하고 베추아날랜드로 불리우던 나라이름을 보쯔와나공화국으로 고쳤다.

【민족회의】 일원제이다.

【정부】 대통령 세레즈 크하마(수상겸임)

【정당, 사회단체】 민주당(집권당), 인민당, 독립당, 로조대회

**경 제** 경제의 기본은 축산업이다. 축산물은 국민소득의 75%를 차지한다.

주요농산물은 강냉이, 수수, 콩 등이다. 식량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지하자원은 돌솜, 망간, 동, 연, 쇠돌, 금 등이 있으나 외래독점자본가들에게 략탈당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웃나라로 품팔이간다.

## 레소토

(레소토왕국)

남아프리카공화국령토내의 동쪽에 있다. 평균기온은 가장 높을 때인 1월에 25~26°C, 가장 낮을때인 7월에 15°C이다. 년평균강수량은 750~1천mm이다.

【면적】 3만 344km²

【인구】 88만 5,555명 (1970년)

주민의 절대다수가 아프리카인이다.

언어는 반투어와 줄루어를 쓴다.

【수도】 마세루(주민 3만 4, 000명)

**정 치** 1868년에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가 1966년 5월 《영련방》내에서 독립을 선포하였으며 10월 4일 바수톨랜드라고 불리우던 나라이름을 레소토왕국으로 고쳤다.

1970년 1월 27일 제1차 국회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결과 야당인 바수톨랜드대회당이 총의석 60석중 32석을 차지함으로써 집권당인 바수톨랜드민족당을 타승하였다.

이렇게 되자 수상인 조나탄은 영미제국주의자들과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의 사촉을 받아 1월 30일 군사정변을 일으켜 《비상사태》와 《계엄령》을 선포하고 헌법을 중지시켰으며 국왕 모쉐슈2세를 연금하고 대회당지도자들을 체포구금하고 선거를 《무효》로 선포하였다.

3월 4일에는 일부 내각각료들을 교체하였다.

【국왕】 모쉐슈 2세

【국회】 일원제이다.

【정부】 수상 레브아 죠나탄(외상, 국방상을 겸함)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70년 1월 27일 선거후 비법화됨. 바수톨랜드대회당, 바수톨랜드민족당(집권당), 마레마톨로우자유당, 레소토로조대회

**경제**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과 목축업을 한다. 주요농산물은 강냉이, 밀, 수수 등이다.

주요지하자원으로는 쇠돌, 동, 석탄, 금강석 등이 있다.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남아프리카를 비롯한 이웃 나라들로 떠난다.

## 말가슈

### (말가슈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동남쪽 인도양에 있으며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큰섬이다. 열대성기후에 속한다.

【면적】 59만 4, 244km²

【인구】 650만명 (1970년)

주민구성이 복잡하며 메른족이 제일 많다.

공용어는 말가슈어와 프랑스어이다.

【수도】 따나나리브(주민 25만 4,000명)

**정 치** 1896년 8월 프랑스식민지로 되였다.

1960년 6월 26일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을 달성하였다. 말가슈는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에 대한 영제국주의자들의 무기공급을 지지하고있으며 1970년 11월에는 남아프리카백인인종주의정권과 첫 《경제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진보적인 아프리카나라들에 도전하여 나섰다.

【의회】 량원제이다.

【정부】 대통령 필리베르 치라나나(수상겸임, 1970년 9월 재선), 외무담당국무상 쟈크 라베마난자라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제1비서 랑드리 왕자 러네 양셰므. 사회민주당(집권당), 독립대회당, 통일당, 인민전선, 로조련합회, 민족청년동맹

**경제, 사회**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과 목축업을 한다.

경지면적은 300만정보이나 비옥한 땅은 프랑스독점자본가들이 차지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벼, 마니오크, 강냉이, 커피, 담배, 사탕수수 등이다.

채광업과 농산물가공공업이 있으나 그것은 국민소득의 약 10%를 차지한다.

지하자원으로는 흑연, 운모, 베릴리움, 크롬광 등이 있다.

학령아동의 약 절반만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

## 까나리아섬

### (에스빠냐식민지)

아프리카대륙의 서북쪽(마로끄의 서남부)에서 115km 떨어진 대서양에 있는 12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

섬에는 화산이 많다. 기후는 비교적 비계절이 구분된다.

【면적】 7,273km²

【인구】 100만명

주민은 대부분이 베르베르족 태생인 까나리아족이고 그외에 에스빠냐인, 인도인, 독일인이 있다.

언어는 에스빠냐어를 쓴다.

【행정중심지】 산따그루스

**정 치** 1516년부터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의 강점하에 있다.

1960년초 《까나리아자치운동》이 조직되면서부터 민족적독립을 요구하는 이 나라인민들의 투쟁이 앙양되였다.

1968년 9월 15일 이섬인민들은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대중적시위를 벌려 식민주의자들에게 타격을 주었다.

【정당, 사회단체】까나리아섬자결 및 독립운동 1960년에 조직된 까나리아자치운동에 기초하여 1964년 10월 22일 결성, 까나리아섬의 독립을 위하여 투쟁. 왕제에 대표부를 두고있다. 총비서 안또니오 꾸빌로. 까나리아자치운동

**경 제** 주민의 대부분이 농사를 한다. 주요 농산물은 밀, 보리, 바나나, 옥파, 감자, 귤 등이다.

원유정제공장, 세멘트공장, 화학공장, 수산물가공공장이 있다.

## 모리셔스

### (모리셔스공화국)

말가슈의 동쪽 인도양에 있는 작은 화산섬이다. 때때로 열대태풍이 있으나 기후는 비교적 좋다. 년평균강수량은 서부해안지대에서 762mm, 산지대에서는 5천mm이상에 달한다.

【면적】 2,100km²

【인구】 78만 7,000명 (1970년)

인도인(68%), 아랍인, 중국인, 백인들이 산다.

공용어는 영어이나 프랑스어도 사용한다.

【수도】 포트루이스(주민 12만명)

**정 치** 1715년 프랑스식민주의자들에게 강점되였으며 1810년부터 근 160년동안 영국식민지로 있었다.

자유와 해방을 위한 모리셔스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1967년 8월에 내부자치제가 실시되였으며 1968년 3월 12일에는 아프리카에서 39번째로 독립하였다.

【정부】 수상 시우사구르 람굴람, 외무, 관광 및 이민상 개탄 두발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위원장 엘. 찬드라문, 레이버당(집권당), 사회민주당, 해방전선, 모리셔스조선친선협회 1968년 9월 9일 결성, 위원장 엘. 찬드라문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8년 9월 9일 모리셔스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으며 1970년 3월 평양에서 조선모리셔스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0년 8월 모리셔스조선친선협회대표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다. 6월 모리셔스조선친선협회는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조응하여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집회를 열고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이 무조건 물러갈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항의문을 모리셔스주재 미국대사놈에게 드리대였다. 유엔총회 제25차회의에서 모리셔스대표는 사회주의나라들과 진보적인 아세아, 아프리카나라들이 내놓은 《언커크》 해체안 표결에서 기권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사탕수수재배이며 감자와 기타 작물재배가 시작되고있다.

사탕생산량은 약 68만t에 달한다. 식량은 수요의 10분의1도 생산못하며 거의 수입에 의존한다.

공업으로는 사탕공장이 있을뿐인데 그것도 외국자본이 틀어쥐고있다.

목재는 해마다 1만 5천m³생산된다.

사탕 및 사탕제품을 수출한다. 사탕수출은 나라의 총수출에서 약 95%를 차지한다.

교통은 해상운수가 기본이다.

로동력을 가진 주민의 15%가 실업자다.

## 쎈트 헬레나도

(영국식민지)

아프리카대륙의 서남부 대서양에 있는 작은 섬이다. 열대에 속하나 산이 많고 기후는 서늘하다.

【면적】 122km²

【인구】 4,760명

【행정중심지】 제임스타운 (주민 1,700명)

1673년 부터 영국식민주의자들이 이 섬을 제놈들의 식민지로 선포하고 총독정치를 실시하였으며 이 섬에 침략적해군기지들을 건설하였다.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과 목축업을 하며 이 섬에 정박하는 선박들의 봉사사업에도 종사한다. 주요농산물은 대마, 아마, 남새, 과일 등이다.

## 산토메도, 프린씨페도

(뽀르뚜갈식민지)

아프리카대륙의 서쪽 기네만에 있다. 강수량이 많고 따뜻하다.

【면적】 964km²(산토메도 824km²)

【인구】 6만 3,700명

주민은 반투족(90%), 메티스족(8%)이다. 총인구의 88%가 산토메도에서 산다.

【행정중심지】 산토메(8,000명)

1485년부터 이 섬에 침입하기 시작한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이 1951년에 제놈들의 《해외주》로 선포하고 총독정치를 실시하고있다. 산토메도는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의 《정치범》의 류형지로 되고있다. 정당으로는 민족적독립을 요구하여 싸우는 산토메도, 프린씨페도해방위원회가 있다.

이 섬은 미제와 뽀르뚜갈, 서독군국주의자들의 략탈대상으로 되고있다. 뽀르뚜갈침략자들이 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코코아, 커피, 코프라 등 수출용작물을 재배하고있다.

## 세이쉘제도

(영국식민지)

서부인도양의 92개 섬으로 이루어지고있다. 년평균기온은 약26°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2천 402mm이다.

【면적】 404km²

【인구】 4만 3,750명

주로 반투족, 구라파인, 인도인 등이 산다.

【행정중심지】 빅토리아 (주민 약 1만명)

1794년에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1903년부터 영국놈총독이 통치하고 있다.

정당으로는 민족적독립을 주장하는 세이쉘제도인민통일당(위원장 레네)이 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어업과 농업을 한다. 주요농산물은 야자, 향료, 겨자 등이며 인도에 수출한다.

## 레유니옹

(프랑스식민지)

말가슈의 동쪽 인도양에 있는 섬이다. 열대성기후이며 년평균기온은 20°C이다.

【면적】 2,511km²

【인구】 37만 5,000명

주민의 대부분은 흑인과 혼혈인이며 그밖에 인도인, 말가슈인들이 있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행정중심지】 쌍 데니스(주민 4만 2,000명)

【정당】 레유니옹공산당 프랑스공산당의 지부로 있다가 1959년 5월부터 독립적인 정당으로 발족, 총비서 뽈 베르제스.

1643년 프랑스식민주의자들에게 강점되여 1793년부터 레유니옹(이전에는 부르봉이라고함)이라고 부르게 되였다.

1810년부터 영국의 식민지로, 1815년에는 다시 프랑스식민지로 되였으며 1946년부터는 프랑스의 《해외주》로 되였다.

주민의 절반이상이 농사를 한다. 주요농산물은 사탕수수, 벼, 감자, 콩, 땅콩 등이다.

프랑스독점자본가들이 제당공장을 운영하고있다.

【출판】 신문 떼무아나쥐 (레유니옹공산당기관지), 레 퓨풀

## 코모르제도

(프랑스식민지)

아프리카대륙과 말가슈섬 사이의 인도양에 있는 6개의 섬으로 구성되여 있다.

기후는 습도가 높으며 년평균기온이 23°C이다.

【면적】 2,171km²

【인구】 18만 1,000명

주민은 안딸라우또라족, 말가슈족, 인도족 등으로 이루어졌다. 아랍어를 널리 쓴다.

【행정중심지】 자우지

1912년에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다.

이 섬은 프랑스의 총독에 의하여 통치되고 있다.

코모르제도인민들은 코모르제도민족해방운동의 지도하에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며 섬의 독립을 요구하여 투쟁을 점차 확대하고있다.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목축업이다. 주로 양을 기르며 야자, 와닐리(향료의 일종), 코코아, 바나나 등을 심는다. 주민의 대부분은 회교를 믿는다.

# 미 주

## 꾸 바

(꾸바공화국)

까리브해와 안틸제도에 있는 1천 600여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이다. 아열대성기후이며 기온은 최고 35°C, 최저 15°C이다. 년평균강수량은 600mm이다.

【면적】 11만 4,500km²

【인구】 855만 3,395명(1970년. 9월) 주민은 백인, 혼혈인, 흑인 등이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아바나(주민 175만명, 1970년)

**정 치** 16세기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되였다.

1898년에 미국—에스빠냐전쟁의 결과 꾸바는 미제침략자들에게 강점되였다.

1902년 5월 20일에 꾸바는 독립하여 공화국을 선포하였으나 1903년에 미제는 관따나모를 강점하고 그곳을 저들의 해군기지로 만들었으며 1906—1909년까지는 꾸바에서 총독정치를 실시하였다. 1912년, 1917년에 또다시 미제의 군사적간섭을 받았으며 1952년 3월 미제의 사촉에 의한 군사정변으로 바띠스따친미독재정권이 조작되였다. 바띠스따정권은 꾸바를 정치, 경제적으로 미제에 완전히 예속시키고 류혈적인 테로통치를 실시하여 왔다.

꾸바인민들은 친미독재정권이 수립된 첫날부터 이를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1953년 7월 26일 피델 까스뜨로를 선두로 한 165명의 청년애국자들은 바띠스따괴뢰정권의 두번째 큰 요새였던 싼띠아고의 《몬까다》병영을 습격하였으며 1956년 12월부터는 유격투쟁을 시작하였다. 무장투쟁은 전국적규모로 발전하여 1958년 8월부터 총공격에로 넘어갔으며 1959년 1월 1일 바띠스따정권을 타도하고 혁명승리를 쟁취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꾸바혁명의 승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꾸바혁명의 승리는 미국의 코앞에서 일어난 사회주의혁명의 첫승리이며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위대한 10월혁명의 계속입니다. 그것은 사회주의진영을 서반구에까지 확대하고 라틴아메리카의 혁명운동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사변입니다. 꾸바공화국은 라틴아메리카에서 혁명의 기지로 되고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329페지)

혁명승리후 꾸바인민은 미제의 반꾸바책동을 단호히 분쇄하고 피로써 쟁취한 사회주의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하였다.

꾸바인민들은 1961년 4월 19일 미제의 직접적인 지휘하에 쁠라야 히론에 기여든 약 2천명의 고용병들을 단 72시간내에 완전히 소멸하였으며 1962년 10월 미제에 의하여 조성된 《까리브해위기》시에도 놈들의 해상봉쇄를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함으로써 꾸바의 자주권과 존엄을 목숨으로 수호하였다.

【대통령】 오스발도 도르띠꼬스 또라도(1959년 7월 17일—)

【혁명정부】 수상 피델 까쓰뜨로 루쓰(1959년 2월 16일—), 외무상 라울 로아 가르씨아, 무력상 라울 까스뜨로 루쓰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53년 7월 26일에 조직된 《7월 26일 운동》이 인민사회당 및 《3월 13일 혁명지도부》를 통합하여 조직, 1965년 10월 공산당으로 고침.

제1비서 피델 까스뜨로 루쓰

근로자총앙, 공산주의청년동맹, 녀성련맹, 혁명수호위원회, 조선인민과의 련대성꾸바조직위원회

【주요사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라틴아메리카의 반동들은 꾸바공화국의 존재자체를 몹시 미워하고 무서워하며 꾸바공화국을 교살하기 위하여 집요하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단행본, 4페지)

꾸바혁명을 교살하려고 끊임없이 침략과 파괴활동을 감행하고있는 미제는 1970년 꾸바에서의 사탕 1천만톤생산을 위한 투쟁을 파탄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놈들은 어용선전수단과 꾸바반혁명분자들을 동원하여 반동선전을 강화함과 함께 무장악당들을 잠입시켜 각종 방법으로 교란과 파괴책동을 강화하려하였으나 이러한 책동은 영웅적꾸바인민들에 의하여 걸음마다 파탄되였다.

꾸바혁명군과 민병들은 4월 17일 꾸바사탕생산중심지의 하나인 오리엔떼주의 바라꼬아해안에 기여든 미제고용병무리들을 일격에 소탕하였다.

4월 19일 피델 까스뜨로수상은 꾸바에 기여든 미제의 고용병악당들을 소탕하는 전투에서 영웅적으로 싸우다 희생된 꾸바혁명군 전투원들의 장례식에서 연설하면서 《미제와 그 고용병놈들이 만약 꾸바땅에 기여든다면 쁠라야 히론에서보다 더 섬멸적인 타격만이 그들을 기다리고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제놈들의 책동이 걸음마다 파탄되게 되자 무장선박을 꾸바령해깊이까지 침입시켜 어로작업을 하고있던 2척의 꾸바어선을 격침시키고 11명의 선원들을 랍치하는 해적행위를 감행하였다.

꾸바혁명정부는 5월 13일 미제의 해적행위를 신랄히 폭로규탄하고 어민 11명과 체포된 반혁명분자들을 바꾸자는 미제의 《제의》를 거부하고 단호한 립장을 취하였다.

아바나를 비롯한 전국각지에서는 미제와 반혁명고용병악당들의 해적행위를 규탄하는 군중집회와 시위들을 대대적으로 벌렸다. 이렇게 되자 미제는 5월 18일 11명의 어민들을 석방하지 않을수 없었다. 꾸바혁명정부는 반혁명분자들을 무자비하게 처단하였다.

8월 꾸바녀맹창립 열돐기념집회에서 피델 까스뜨로수상은 《미제의 반꾸바책동이 로골화되고있는 조건에서 꾸바인민은 모든 단위들에서 전시동원체계를 확립하며 국방건설에 힘을 집중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꾸바혁명정부는 반혁명분자들과의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꾸바 100주년청년돌격대》운동, 《100만아로바작업반》운동, 《쁠라야 히론전투승리 및 레닌탄생 100주년 기념월간》을 전개하는 등 증산경쟁운동을 벌리여 사탕생산에 총력량을 집중하였다.

사탕생산에 떨쳐나선 꾸바인민들을 지원하여 우리 나라 천리마기수지원대성원들을 비롯하여 쏘련, 월남민주공화국, 남부월남공화,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로므니아, 벨가리아, 민주예멘청년들과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 청년들 그리고 미국과 일본, 스칸디나비아 나라들의 진보적청년들이 꾸바의 사

탕수수가을에 동원되였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0년 8월 29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70년 아바나에 있는 정치서적연구소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 드리는 선물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들을 담은 문헌집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를 에스빠냐어로 출판하였다.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군중집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들이 진행되였다. 《꾸바조선친선원종장》과 《베네수엘라》명칭 사탕공장 종업원들은 각각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를 가지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6월 25일 꾸바의 주요 사회단체들이 남조선으로부터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여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10월 25일 조선인민과의 련대성꾸바조직위원회는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도발책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7월 17일 조선과 꾸바 민용항공국간의 민용항공운수분야에서 총대리 및 지상봉사 제공에 관한 협정이 아바나에서 조인되였다.

1970년에 꾸바로부터 전국문화위원회 부위원장(1월), 권투선수단(4월), 외무부상과 그 일행(5월), 정부대표단(6월), 근로자중앙대표단(6월), 인민친선대표단 (7월), 그림전람회대표(8월), 녀성련맹대표단(10월), 기초공업성대표단(11월), 혁명수호위원회대표단(12월)이 우리 나라를 각각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로부터는 영화대표단(4월), 가금업대표단(5월), 민용항공국대표단(6월), 정부대표단(6월), 녀맹대표단(7월), 직맹대표단(7월), 기자대표단(7월), 당및정부대표단(7월), 대외문화련락위원회대표단(9월), 건축가동맹대표단(10월)이 꾸바를 각각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혁명후 꾸바는 경제의 식민지적예속성과 기형성을 극복하고 자립적인 민족경제건설을 위하여 투쟁한 결과 발전된 농업과 공업을 가지게 되였다.

농업분야에서는 사탕생산에 모든 힘을 돌리는 한편 벼, 콩 및 기타작물들의 재배사업도 발전시키고 있다.

1970년에 사탕수수재배면적은 157만 4천 820정보에 달하였고 오리엔떼주를 비롯한 사탕수수 주요산지들에서 큰 자연재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력사상 최고기록인 850만톤의 사탕을 생산하였다. 기본주식의 하나인 벼생산량은 1959년에 비하여 이해에 6배에 이르게 되였다. 논면적은 1964년의 2만이정보로부터 15만정보로 늘어났다.

또한 주요외화원천의 하나인 레몬은 이해에 새로 3천 59정보 늘였고 감귤류재배지는 약 3만정보로서 1958년의 2배에 달하였다.

주요농산물은 사탕수수, 커피, 강냉이, 벼, 담배, 레몬, 콩류 등이다.

축산업에서는 소, 닭, 돼지를 비롯한 집짐승마리수가 혁명전에 비하여 근 2.5배로 늘어났고 1970년에 14억개의 닭알이 생산되였다.

꾸바에는 망간, 크롬, 니켈, 코발트, 동, 원유 등 지하자원이 많다.

공업분야에서는 1970년에 야금공장, 기계공장, 세멘트공장, 화학공장 등 기간공업부문의 기업소들이 새로 신설확장되였다. 이해에 《호쎄 마르띠》제강소는 혁명이전에 비하여 17.5배인 14만톤의 강철을 생산하였다. 세멘트는 220만t 이상에 달하였다.

이해에 구아나보와 무따따 등지에서 새 유전이 발견되였으며 까마구에이주의 사빠따지역에서는 3억t의 매장량을 가진 니탄산지를 발견하였다.

이해에 축산물과 과일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육류, 우유 가공처리공장, 과일가공공장 등 경공업기업소들이 많이 일떠섰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전반적 6년제의무교육제가 실시되고있다.

1970년 학생수는 230만명이였으며 그중 40만명이 장학금을 받았다.

총학생수중 보통교육부문 학생수는 200만명, 대학 및 기술전문학교 학생수는 30만명이였다.

보건분야에서는 490개의 공장, 기업소들에 진료소들이 꾸려졌다.

【출판보도】 통신 쁘렌싸 라띠나(라틴아메리카통신사)

신문 그란마(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후벤뚜드 레벨데(공청기관지)

잡지 베르데 올리보(혁명군 주간잡지), 보에미아(대중주간잡지), 꼰 라 꽈르디아 엔 알또(혁명수호위원회 기관잡지)

## 칠 레

(칠레공화국)

남미대륙의 서남부 태평양에 면하고 있다.

나라가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는 관계로 북부지대는 아열대, 남부산악지대는 일년내내 눈에 덮여있다.

년평균기온은 북부지대에서 19°C, 중부지대 15°C, 남부지대는 6°C이다.

【면적】 74만 1,767km²

【인구】 926만 8,584명 (1970년 9월)

주민은 원주민이 5%에 불과하며 95%는 에스빠냐, 기타 구라파계통의 사람들이다.

언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싼띠아고(주민 188만명)

**정 치** 1541년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10년 9월 18일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1818년에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독립후 칠레는 력대반동통치배들의 친미반동적인 대내외정책으로 인하여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다.

1930년대부터 미제는 《원조》를 미끼로 경제적침투를 강화하여 이 나라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감행하였다.

1938년에 민주세력이 강화되여 공산당, 사회당, 급진당을 망라한 인민전선이 형성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인민전선정부가 수립되여 약간한 사회경제적개혁들을 실시하였다.

1946년에 대통령으로 된 급진당출신 비델라는 1947년에 미제와 결탁하여 정부로부터 공산당을 배제하고 1948년 5월 공산당을 비법화하였었다.

1964년 8월에는 미제의 압력밑에 꾸바와 외교관계를 끊었다. 칠레인민들은 정부의 미제추종정책과 미제독점체들의 착취와 략탈을 반대하여 완강하게 투쟁하여왔다.

【국회】 상하량원제이다.

【정부】 1970년 11월 공산당, 사회당, 급진당, 사회민주당, 인민통일행동운동, 독립인민행동의 인민통일련합정부가 구성되였다.

대통령 겸 수상 쌀바도르 알엔데 고싼스(1970년 11월—), 외무상 끌로도미로 알메이다, 국방상 알레한드로 리오쓰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2년 1월 22일 창건, 총비서 루이스 꼬르발란. 사회당, 급진당, 사회민주당, 기독교민주당, 인민사회당, 민족당, 인민통일행동운동, 독립인민운동, 근로자통일로조중앙, 공산주의청년, 사회주의청년련맹, 녀성동맹, 칠레조선친선문화협회 1962년 8월 13일 창설

【주요사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에게 이제 더는 〈안전한 후방〉도, 〈고요한 뒤동산〉도 존재하지 않게 되였으며 제국주의의 마지

와 숨통은 끊어져가고있습니다.》(《5대륙의 진보적기자들은 혁명의 펜봉을 높이 들고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자》, 단행본, 3페지)

1970년에 칠레인민들은 미제와 그 주구 반동통치배들을 반대하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독립을 수호하기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하였다. 이러한 반미반독재투쟁은 9월과 10월에 있은 칠레공화국 34대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치렬히 전개되였다.

칠레인민들은 미제의 온갖 간섭행위와 국내 우익반동세력의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사회당을 비롯한 6개 정당, 사회단체들의 련합전선인 인민통일련합이 제시한 제국주의자들의 예속을 반대하며 자주적인 대내외정책을 실시할데 대한 투쟁강령을 적극 지지하여 나섰다. 인민들의 적극적인 투쟁으로 인민통일련합이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였으며 그의 립후보인 쌀바도르 알옌데가 미제와 국내반동세력의 지원을 받은 우익정당출신 립후보를 타승하고 11월 3일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인민통일련합정부는 미제의 추종정책에서 벗어나며 미제와 파두세력, 대지주들의 경제적지반을 청산하고 새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11월 12일 칠레정부는 미제의 강압으로 1964년이래 끊어졌던 꾸바와의 외교관계를 회복하고 령사, 통상 및 문화관계를 다시 맺기로 결정함으로써 미제의 반꾸바《봉쇄》책동에 타격을 가하였다.

11월 17일에는 조선의 통일을 반대하며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합법화하기 위한 미제의 침략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에서 탈퇴하기로 하였다.

또한 칠레정부는 동, 초석, 기타 광물자원과 개인은행들을 국유화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대토지소유자들의 토지를 몰수하는 토지개혁을 실시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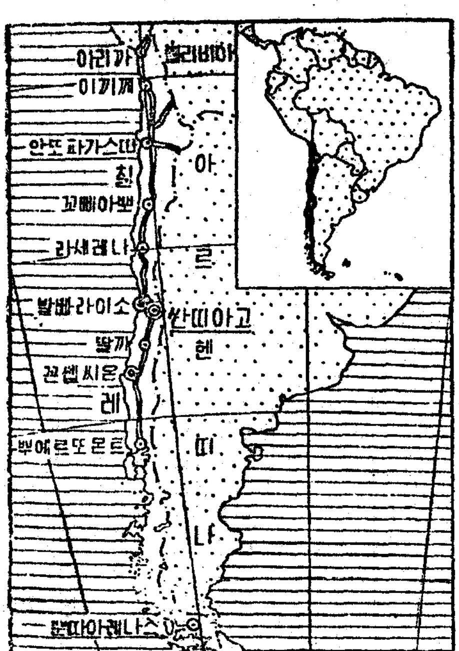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한 칠레의 광범한 계층들은 정부의 진보적인 조치를 적극 지지하였다.

근로자통일로조중앙, 동광로동자련맹, 자연부원수호칠레전국자립위원회, 대학생련맹 등 사회단체들이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조치를 지지하고 그의 관철을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을 결의하였다.

12월 6일 칠레의 17개 청년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국내외의 온갖 착취배들을 반대하여 싸울것을 결의하고 자기의 로동으로써 칠레인민에 대한 충실성을 보여줄것을 청년들에게 호소하였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2년 8월 칠레조선친선문화협회가 창설되였으며 1970년 11월에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가 싼띠아고에 설치되였다.

1970년 11월 9일 우리 나라의 정부친선대표단이 칠레공화국 새 대통령취임식에 참가하여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보내시는 친서와 선물을 쌀바도르 알옌데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이해에 칠레사회당기관지인 《울띠마 오라》지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들인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를 비롯한 일련의 로작들을 실었다.

1970년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칠레공산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하였다. 5월 20일에 조선로동당과 칠레공산당간의 공동보도가 발표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주요부문은 농업과 목축업, 광업이다. 북부는 광산지대, 중부는 농산지대, 남부는 산림지대로 구분된다.

주요지하자원은 동, 초석, 철, 석탄, 원유, 천연가스 등이다. 동은 자본주의 세계생산량의 95%를 차지한다.

경제의 기본명맥인 동채취의 91%, 초석의 75%는 미제독점체들이 장악하고있었다.

미제는 이 나라에서 동을 파낸때로부터 40억딸라의 리윤을 짜냈으며 평균 1딸라를 투자하고 4딸라의 순리윤을 긁어갔다.

새 정부는 미제의 경제적예속에서 벗어나 민족경제를 창설하기 위한 첫 조치로서 《님싸》, 《알리멘또스 뿌리나 데 칠레》 등 미제독점회사의 관리권을 박탈하였다.

또한 일체 외국자동차회사들의 활동을 금지시키기로 하였으며 《로따—슈바케르》 대석탄회사산하 기업소들을 국가적통제에 두기로 했다.

그리고 개인은행들이 국유화되였다. 또한 80정보이상의 토지를 가지고있는 대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하고 일부는 국영농장을 창설하고있다. 1971년 1월까지 몰수한 지주놈들의 농장수는 도합 139개였다.

또한 정부는 실업자들을 없앨 대책을 취하였으며 글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운동을 벌리고있다.

【출판보도】 신문 엘 씨글로(공산당기관지), 울띠마 오라(사회당기관지), 라 나씨온(정부기관지)

## 우루과이

### (우루과이동방공화국)

라틴아메리카의 동남부에 있으며 브라질, 아르헨띠나와 린접하고있다.

년평균기온은 17°C, 년평균강우량은 1천mm이다.

【면적】 18만 6, 900$km^2$

【인구】 278만 3, 000명

주민의 약 90%가 백인이고 기타 인디안—구라파혼혈인, 인디안 등이 있다. 언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몬떼비데오(주민 130만명)

**정 치** 1516년부터 300여년간 에스빠냐, 뽀르뚜갈, 아르헨띠나, 브라질의 식민지로 있다가 1825년 8월 5일에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1830년 7월 18일 첫헌법을 채택하고 《우루과이동방공화국》을 창건하였다.

1952년 미제와 《군사협정》을 비롯한 일련의 예속적인 《협정》을 맺었다.

1958년 국회선거에서 90년간 계속 집권하여오던 꼴로라도당이 패하고 블란꼬당이 승리하였다.

반동적블란꼬당정권은 1964년 9월 꾸바와 외교관계를 끊었다.

1966년 11월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와 대통령 및 국회선거가 진행되였다. 투표결과 15년동안 존재하여온 국가의회의 책임제가 아니라 대통령책

일제가 다시 복귀되였으며 꼴로라도당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여 1967년 7월에 무장유격대(뚜빠마로스)가 조직되였으며 규모가 크고 잘 째인 조직인 이들은 주로 수도 몬떼비데오를 비롯한 큰 도시들을 중심으로 친미괴뢰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다.

【국회】 상하량원제이다.

【정부】 대통령 겸 수상 호르헤 빠체꼬 아레꼬(1967년 12월—), 외무상 호르헤 떼이라노 파시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9월 21일에 창건, 제1비서 로드네이 아리스멘디. 꼴로라도당(집권당), 블란꼬당, 사회당, 《인민정권》운동, 좌익해방전선, 공산주의청년동맹, 근로자전국회의, 녀성동맹, 우루과이조선친선문화협회(1968년에 결성)

【주요사건】 1970년 애국적무장인원들은 대담한 습격작전을 벌려 병영들과 독점기업체들을 들이치고 수많은 무기들과 자금을 얻어냈다.

5월 29일 애국적무장인원들의 한 소조는 수도 몬떼비데오에 있는 반동정부군의 해병대병기고를 들이쳐 적경비병놈들을 무장해제시키고 기관총을 포함한 각종 무기 700정과 많은 군수품을 로획하였다. 이에 앞서 4월에는 한 회사를 습격하여 여러 정의 무기와 30만딸라의 돈을 빼앗아냈다.

한편 애국적무장인원들은 비법적으로 체포구금된 동지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담한 활동들을 벌렸다.

3월 8일 한 소조는 감옥을 습격점령하고 13명의 애국자들을, 4월 29일에는 한 반동경찰서를 습격하여 애국적무장대성원 20명을 석방시켰다.

7월 31일 애국적무장인원들은 미제의 간첩인 미련방수사국 성원의 한놈과 브라질령사놈을 사로잡고 비법적으로 체포된 7명의 투사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하였으나 반동당국이 이에 응하지 않자 놈들을 처단해 버렸다.

이해에 우루과이애국적무장인원들은 반동선전에 날뛰는 미제와 반동당국의 방송국을 수차에 걸쳐 습격파괴하였다.

8월 21일에 한 방송국을 일시 점령하고 친미반동당국을 규탄하는 방송을 하였으며 25일에는 수도의 한 방송국을 폭파하였다.

9월 14일에는 미제의 국제전신전화회사 소속 《프레스 와이어리스》 송신소를, 12월에는 몬떼비데오의 한 텔레비죤방송국을 파괴하였다.

애국적무장인원들은 또한 근로자들과 함께 미제의 인도지나침략전쟁의 확대와 자기 나라에 대한 간섭책동을 반대하여 강력한 투쟁들을 벌렸다.

5월 14일 수도 몬떼비데오의 청년들은 반미시위를 벌린다음 미제의 항공회사를 폭파시켰다.

18일에는 닉슨도당이 파견한 미국부차관보 메이어란놈이 우루과이에 기여든것을 계기로 미국놈이 경영하는 8개의 독점체회사와 은행들에 14개의 폭발물을 던져 놈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주었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3년 5월 17일 우루과이의 수도 몬떼비데오에서 우리 나라와 우루과이 정부간에 무역대표부를 호상 설치할데 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1968년에 우루과이조선친선문화협회가 창설되였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를 1970년에 우루과이조선친선문화협회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또한 이 협회는 그이께서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주신 대답을 묶은 문헌집 《국제정세와 조선혁명에 관한 네가지 대답》을 출판하였다.

또한 우루과이중학교교원전국련맹위원인 엔니께 루비오가 집필한 책 《조선에서의 사회주의경험》이 발행되였다.

이해에 우루과이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단(5월), 우루과이조선친선문화협회대표단(7월)이 각각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 경제, 사회

목축업을 위주로 하는 농업국가이다.

총경지면적의 92%가 목축업에 리용되고있으며 양과 소의 사육을 기본으로 한다.

주민의 40%가 농사를 하며 경작지의 66%가 600명의 지주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강냉이, 벼, 황마 등이다.

지하자원은 금, 은, 동, 연, 망간, 철 등 이다.

주요수출품은 축산물(양털, 고기, 가죽)이며 곡물 및 광물도 수출한다.

1970년에 생계비는 거의 20%나 뛰어올랐다.

【출판보도】 신문 엘 뽀뿔라르(공산당기관지), 엘 게릴레로 오리엔딸(동방혁명무장군기관지), 악씨온(사회당계), 엘 디아(꼴로라도당계)

## 카나다

북미대륙의 북부에 있다. 령토의 절반이상이 북극권내에 속하므로 기후는 같은 위도상에 있는 구라파나라들보다 차다. 그러나 대서양과 태평양남쪽 연안은 강우량이 많으며 기후는 따뜻하다.

【면적】 996만 547km²

【인구】 2,140만 6,000명(1970년 7월)

주민은 영국인(약 47.8%), 프랑스인(약 30.7%), 독일인(4.4%), 인디안, 에스키모인 등이다.

공용어는 영어와 프랑스어이다.

【수도】 오타와(주민 50만명)

### 정치

카나다는 16세기부터 프랑스, 영국의 침략을 받아오다가 1763년에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18세기부터 19세기초에 이르는 기간 영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카나다인민들의 독립운동은 세차게 일어났다. 영식민주의자들은 1867년 7월 카나다에 자치를 부여하는 《북미주법안》을 채택하였다. 그후 카나다는 자치권의 범위를 계속 확대하였으며 1931년에 영국으로부터 완전한 외교적자주권을 획득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미제는 양제국주의의 세력을 구축하고 이 나라에 침투하였다. 카나다는 1949년에 침략적인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담하였으며 1950년에는 미제가 도발한 조선침략전쟁에 미제의 주구로서 침략군을 파견하였다. 1965년 9월에는 미제의 윁남침략정책에 적극 추종하여 남부윁남괴뢰경찰들을 훈련, 무장시켰고 미제가 윁남에서 사용할 무기들을 생산공급하였다.

최근 년간 카나다반동정부는 미제의 인도지나침략전쟁을 반대하며 나토로부터 탈퇴하라는 인민들의 압력과 저들의 리해관계로부터 출발하여 미제와의 모순과 갈등이 점차 커가고 있다.

1968년 4월에 집권한 트루도는 5월 11일 카나다외교가 미제에 《너무 추종하고있다》고 하였으며 1969년 1월 9일에는 카나다의 대외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하였다. 트루도반동정부는 1969년 4월 3일 미제의 침략도구인 나토군에 배속되여있는 구라파주둔 카나다군을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축감》시켜 철수하기로 결정하고 1970년초부터는 미제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나토》에서 저들의 군대를 철수하고있다.

1970년에 들어와 트루도반동정부는 카나다해역에서의 미제의 핵시험과 독가스운반을 반대하여 북방해역에 대한 6마일령해권을 12마일로 확장하였으며 카나다의 우라니움광을 미제독점체들에 파는것을 금지하였다. 또한 윁남침략전쟁과 징집을 반대하여 카나다로

방면해온 미국청년들을 받아들였다.

1970년 10월 13일에는 미제의 중국 《봉쇄》정책을 반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정부로 인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0년에 카나다근로자들은 미제독점자본을 반대하며 생존의 권리와 처지개선을 요구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였다.

3월말 미제독점자본의 가혹한 착취를 반대하여 일어선 칸소만어업로동자들의 파업투쟁은 전국어업부문에 파급되여 5개월이상 단행되였다.

생활처지의 개선을 위하여 2월 14일까지 4개월에 걸쳐 완강하게 투쟁한 태평양연안의 부두로동자들은 끝내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하였다.

이밖에 각 부문의 근로자들은 파업투쟁으로써 미제독점체들에게 커다란 손실을 주었으며 나라의 경제에 일대 혼란을 조성하였다.

1970년에 케벡크주(프랑스계주민의 절대다수가 거주)를 중심으로 케벡크주의 분리를 위한 이곳 주민들의 폭력투쟁이 강력히 벌어졌다.

5월에만도 14건의 폭발사건이 있었으며 10월 5일에는 몬트리올에 주재하고있는 영국상업아따쉐란놈을 랍치하였으며 10월 10일에는 이 주의 로동상을 랍치하고 《케벡크해방전선》성원 정치범석방을 요구하였다.

카나다반동정부는 10월 16일 《전시비상법》을 발포하고 군대와 경찰을 풀어 탄압소동을 벌렸다.

【의회】 상하량원제이다.

【정부】 수상 삘리오트 트루도(1968년 4월—), 외무상 미첼 샤프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2년 2월에 창건, 총비서 윌리암 카슈탄. 자유당(집권당), 진보보수당, 사회신용당, 신민주당, 로동회의

**경제, 사회** 공업에서는 지하자원과 산림자원을 초보적으로 가공수출하기 위한 유색금속공업과 팔프제지공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완제품생산은 미약하다.

주요지하자원은 우라니움광, 석탄, 니켈, 백금, 금, 은, 아연, 동, 원유, 쇠돌, 연, 주석 등이다.

경제의 70%는 미제독점자본과 외국자본이 통제하고있다.

미제는 카나다에서 자동차공업의 96%, 석유공업의 90%, 화학공업의 80%, 기계제작공업의 60%를 거머쥐고있다. 대외무역의 64%는 미제에게 의존하고있다. 이리하여 경제는 미제독점자본의 부속물로 되고있으며 미제는 해마다 막대한 리윤을 짜내고있다.

1970년에 카나다경제에 침투한 외국자본은 7억 6천만딸라였는데 그중 미제독점자본의 몫은 70%를 차지하였다. 이해에 반동정권이 걸머진 해외빚은 490억딸라에 달하였고 국민총생산액은 전해에 비하여 1.5% 줄어들었다.

1970년 첫 9개월동안에 카나다에서는 2천 400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개인기업체들이 도합 1억 8천 500만딸라의 빚을 걸머진채 파산몰락하였다.

1970년 12월말 현재 실업자수는 53만 8천명에 달하였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담배 등인데 밀생산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제2위를 차지한다.

【출판보도】 통신 카나디안 프레스

신문 카나디안 트리뷴(공산당 기관지), 글로브 앤드 메일(진보보수당계) 토론토 데일리 뉴스(자유당계통)

## 미 국

### (아메리카합중국)

미국은 북미대륙의 한복판에 있다. 기후는 북부의 북극권한대로부터 남부의 아열대성기후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심하지만 대체로 온대에 속한다.

【면적】 925만 7,675km²

【인구】 2억 433만 4,340명 (1970년 1월)

주민은 아메리카인디안(75만명), 흑인(3천만명), 영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서 이주해온 사람들과 그 후손들로 이루어져있다.

【수도】 워싱톤 (주민 80만 8,000명)

**정 치**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는 현대의 가장 흉악하고 파렴치한 침략자, 략탈자이며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의 첫째가는 공동의 원쑤입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96페지)

아메리카합중국은 해적의 무리들이 감행한 원주민인 아메리카인디안에 대한 살륙과 식민지략탈전쟁의 피바다속에서 1787년에 생겨났다. 이때로부터 20세기중엽에 이르는 동안에 미제침략자들은 두차례의 세계대전을 제외하고도 110여차례나 침략전쟁을 벌리고 8천 900여회나 극악무도한 살륙전을 감행하여 령토를 10배이상이나 넓히였다.

두차례의 세계대전에서 막대한 리윤을 그러모은 미제는 제국주의의 원흉으로 등장했고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하려고 광분하였다. 2차대전후 미제는 《반공》나발을 불어대면서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고 민족해방운동을 진압하며 서구라파를 예속시키기 위하여 발악하였다. 미제는 1949년에 침략적군사뿔럭인 《나토》를 뭇고 세계도처에 군사기지망을 늘어놓았으며 일본과 서독에 군국주의를 재생시켰다.

미제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며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고 반제력량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이 지역나라들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간섭과 파괴활동 및 전복음모를 집요하게 감행하였다.

미제는 특히 아세아에서 혁명력량의 장성을 가로막고 식민지통치를 부지하기 위하여 침략의 예봉을 아세아에 돌렸다. 1945년에 남조선을 강점하고 1950년에는 조선에서 야수적인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조선침략전쟁에서 미제는 력사상 처음으로 심대한 정치군사적참패를 당하였으며 내리막길에 들어섰다.

미제는 조선전쟁에서 돌이킬수 없는 타격을 받았으나 침략의 야망을 버리지 않고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키려고 책동하면서 1954년에는 세아토, 1955년에는 쎈토 등 침략적군사뿔럭들을 조작하였으며 일본군국주의도당을 비롯한 자기들의 추종국가들과 괴뢰들을 동원하여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을 포위하고 아세아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을 말살하기 위하여 미쳐날뛰였다.

미제침략자들은 1961년에 윁남인민을 반대하는 범죄적인 침략전쟁을 도발하고 라오스에 대한 무장간섭을 감행하였으며 1970년에는 캄보쟈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함으로써 인도지나 전역에 침략전쟁을 확대하였다.

1967년 6월에는 이스라엘복고주의자들을 부추겨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켰으며 이에 적극 가담하였다. 미제는 이 지역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이스라엘괴뢰들을 무장시키면서 아랍나라들에 대한 로골적인 무력간섭을 감행하고 있다.

전세계인민들의 공동의 원쑤이며 특히는 100여년동안이나 우리 나라를 침략하여온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인 미제는 전세계인민들의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나라 남반부를 강점하고 전쟁도발소동을 일으키고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의 령토인 대만을 강점하고 중국인민을 반대하는 침략행위를 계속 감행하고있다.

【국회】 상하량원제이다.

【정부】 대통령 리차드 닉슨(1969년 1월 20일—)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9년 9월 창건, 위원장 헨리 윈스톤, 총비서 거스 홀. 흑인편서당, 청년로동자해방동맹, 민주당, 공화당 (집권당), 에이에프엘—씨아이오합동로조, 전국유색인종지위향상위원회, 윁남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새동원위원회, 미국조선친선공보쎈터.

【주요사건】 침략과 전쟁책동;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국주의는 온 세계를 지배하려는 변함없는 목적밑에 아세아와 중근동,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구라파와 대양주 그리고 큰 나라와 작은 나라 할것없이 세계의 모든 대륙, 모든 지역, 모든 나라들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으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위업에 악랄하게 도전하여 나서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가 내리막길을 걷고있고 그 처지가 어려워짐에 따라 더욱더 필사적으로 침략과 전쟁 정책에 매여달리고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96페지)

1970년에 전쟁광 닉슨도당은 더욱더 미친듯이 침략책동을 벌리는 한편 《평화》와 《협상》에 관한 넉두리로써 침략적야욕을 감싸보려고 헛되이 시도하였다. 그러나 제놈들의 광란적인 침략책동은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의 항거에 부딪쳐 걸음마다 파탄되고 제국주의 열강간의 모순이 격화됨으로써 더욱더 자멸의 길을 걸었을 따름이였다.

악명높은 전쟁상인인 미제의 부대통령 애그뉴란놈은 1970년 1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필리핀, 남부윁남, 대만, 타이, 캄보쟈, 《말레이시아》,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등 10여개 추종국과 괴뢰들을 찾아가 아세아 전반적지역에서 무너져가는 제놈들의 침략지반을 수습하며 침략과 전쟁모험을 가일층 확대강화하기 위한 《새아세아정책》수행에 괴뢰들과 추종국들을 더 적극적으로 내몰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미제는 조선에서 새로운 전쟁을 도발하기 위하여 남조선주둔 미제침략군의 이른바 《감축》놀음의 막뒤에서 남조선에 침략무력을 증강하고 현대화하며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도발책동을 광란적으로 벌림으로써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극도로 격화시켰다.

미제는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령토인 대만을 계속 강점하고 중국인민을 반대하는 침략행위를 끊임없이 강화하였다.

1970년에 호전광 닉슨도당은 300억딸라를 들이밀어 범죄적인 윁남침략전쟁을 계속 강화하고 라오스에 대한 무장간섭을 확대하였을뿐만아니라 5월에는 제놈들의 추종국과 괴뢰들을 동원하여 캄보쟈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함으로써 인도지나전역을 전쟁의 불길속에 휩싸이게 하였다.

미제의 이와 같은 광란적인 침략과 전쟁 정책은 더욱더 파탄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갔다.

이러한 처지에서 헤어나기 위해 미제는 저들의 동맹자인 일본 및 서독군국주의자들과의 공모결탁을 강화하려고 책동하였다.

미제는 10월에 저들의 충실한 졸개 사또놈을 미국에 불러들여 일본을 《아세아인들끼리 싸우게》하려는 이른바 《닉슨주의》실현에 돌격대로 내몰기 위한 책략을 꾸몄다.

미제는 일본반동정부로 하여금 아세아혁명력량을 반대하기 위한 이른바 《방위백서》, 《제4차방위력정비계획》 등을 련발케 하고 일본군국주의무력을 확장케 하였다.

미제는 또한 1970년에 서독군국주의자들의 재무장을 다그치게 하였다.

미제는 또한 1970년에 아랍인민들을 반대하는 흉악한 침략자로서의, 중근동위기의 원흉으로서의 몰골을 다시한번 드러내놓았다.

미제는 9월 이스라엘침략자들에게 8억딸라의 《군사원조》를 더 주기로 약속하면서 아랍인민들을 반대하는 침략책동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부단히 내몰았다.

한편 미제는 《중동문제의 평화적해결》이란 연막뒤에서 팔레스티나인민들의 혁명위업을 말살하기 위하여 요르단반동을 사촉하여 요르단에 있는 팔레스티나유격대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감행케 하였으며 나토침략무력을 이 지역에 끌어들여 요르단에 대한 직접적무력간섭을 지휘하였으나 이러한 음흉한 전략은 아랍인민들의 단호한 반격에 의하여 파탄되였다.

전세계혁명적인민들의 공동의 원수인 미제는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을 사촉하여 11월 22일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전진하는 기네공화국을 전복하기 위한 로골적인 무력침략을 감행케 하였다가 기네인민들의 단호한 반격과 세계인민들의 규탄에 의해 이 도발적침공은 분쇄되고말았다.

1970년에 미제는 제놈들의 동맹국들로부터의 캄보쟈침략전쟁에 대한 《지원》을 얻으며 윁남침략전쟁에 추종국들과 괴뢰들을 더 끌어들이려고 하였으나 동맹자들과 추종자들의 랭대와 항거에 부딪쳤다.

미제의 구라파 《동맹국》들은 말할것도 없고 지어는 추종국가들의 괴뢰지배층내에서까지도 미제의 명령에 외면하는 경향이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났다. 미제가 특히 《안전한 곳》이라고 하던 라틴아메리카에서도 놈들의 지배적지위가 약화되였다. 10월 24일 진행된 칠레대통령 최종선거에서 진보적인민대중의 지지를 받는 살바도르 알옌데가 압도적다수표를 획득함으로써 친미우익반동정권을 세우려던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참패를 당하였다.

미국인민들의 투쟁;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인민들의 반전운동은 미국안에서도 대중적인것으로 되였습니다. 미제국주의는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얻어맞고있으며 안팎으로 곤경에 빠지고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97페지)

미제의 전쟁과 침략책동이 더욱 악랄해짐에 따라 미국인민들의 반전반정부투쟁은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을 망라하면서 전례없이 큰 규모로 미국 전역에서 더욱 조직적으로 벌경 줄기차게 전개되였다. 이 투쟁에는 자기들에게 개죽음을 강요하는 닉슨도당의 침략책동을 반대하는 하층 장교들을 비롯한 현역군인들까지 광범히 참가하였다. 탈주병의 수도 계속 늘어났는바 해병대에서만도 이해에 도망병이 8만명에 이르렀다.

4월 15—20일에 뉴욕, 보스톤, 워싱톤,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전역에서 닉슨도당의 동남아세아전쟁의 계단식확대를 단죄하는 수십만군중의 집회, 시위투쟁이 치렬이 전개되였다.

캄보쟈에 대한 미제의 강도적인 무력침공을 항의규탄하는 미국청년학생들의 투쟁은 특히 5월초부터 미국 전국에서 폭동적인 성격을 띠면서 과감히 전개되여 전쟁광 닉슨도당에게 심대한 정치적타격을 주었다.

청년학생들은 도처에서 징집소, 《예비장교훈련단》을 비롯한 미제의 공공기관을 습격파괴하고 군경놈들과 류혈적인 격전을 전개하였다.

20만대학생들은 미제의 소굴 《백악관》에 몰려가 《닉슨을 쓰레기통에 처넣어라》, 《살인자들은 물러가라》고 웨치면서 강력한 시위를 벌리고 미제간첩소굴인 《평화군》본부를 습격점거하고 거기에 남부윁남민족해방전선의 기발

을 띄웠다.

10월 31일—11월초에 미국 각지에서 수만명 인민들은 대중적인 반전투쟁과 집회들을 가지고 《인도지나전쟁을 즉시 중지하라》, 《윁남으로부터 모든 미군을 끌어내라》고 요구하였다.

닉슨도당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는 광범한 미국인민들의 투쟁이 더욱 조직화되면서 반전단체들은 하층장교들의 조직들과 25개주의 90개 대학을 망라한 전국 《징집반대동맹》을 비롯한 새단체들이 속속 무어지면서 100여개로 늘어났다.

미제독점회사인 《제네랄 엘렉트릭》의 15만 로동자들의 3개월간(1970년 1월까지)에 걸친 완강한 투쟁, 1970년 9월 15일부터 65일간 미국 31개주의 147개 공장을 휩쓴 《제네랄 모터스》회사 35만로동자들의 대규모적인 파업은 위기에 허덕이는 미제 지배층에 정치, 경제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안겨주었다.

이해에 미국에서는 5천 600건의 파업이 일어나 330만 로동자들이 참가하였으며 미제독점자본가놈들은 6천만 로동일을 상실하였다.

1970년에 흑인펜서당의 강력한 진출을 비롯하여 미제의 저주로운 인종주의를 반대하는 흑인들의 투쟁이 앙양되였다.

9월 20일 뉴욕에서는 《아프리카출신 아메리카인들의 날》에 즈음하여 전국에서 모인 20여만 흑인들이 미제의 야만적인 인종차별과 학대를 반대하는 대중적인 투쟁을 벌렸다. 흑인들은 년간을 통해 로스안젤스, 시카고, 뉴아크, 디트로이트 등 전국각지에서 발톱까지 무장한 반동군경들의 파쑈적만행에 단호히 반격을 가하면서 자유와 해방, 빈궁의 청산을 위한 투쟁을 더 한층 전진시켰다.

이리하여 침략과 전쟁의 원흉인 미제에 내부로부터 더욱더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으며 미제의 멸망적몰락을 촉진시켰다.

미국공산당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 1970년 10월 7일부터 10월 23일까지 미국공산당 전국위원회 위원장 헨리 윈스톤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미국공산당대표단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초청에 의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조선로동당대표단과 미국공산당대표단은 10월 16일 평양에서 회담을 진행하였다. 회담에서는 서로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들이 교환되였다.

**경제, 사회**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나라들에서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 더욱 첨예화되고있으며 이 나라들의 경제는 새로운 심각한 위기에 맞다들고있습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일련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생산이 빠른 속도로 떨어들고있으며 로동자들이 많이 해고되여 실업자가 나날이 늘어가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2권, 228페지)

1970년에 인도지나침략전쟁을 비롯한 전쟁과 침략을 위한 근 800억딸라의 지출은 미국경제를 더욱더 파국적인 경제공황에로 내몰았다. 미국경제의 《3대기둥》이라고 하는 강철, 자동차, 건설 부문을 비롯하여 공업은 15개월째 련속 하강선을 그었으며 년간을 통하여 근 1만개에 달하는 기업체들이 경영난에 허덕이면서 파산몰락하였다. 인플레는 《20년래 최악의 사태》에 이르러 미국의 전반적인 재정경제위기를 더욱 첨예화하게 만들었다.

무역면에서도 수출과 수입의 불균형을 더욱 확대시키고 직물, 농산물 등을 둘러싼 구라파공동시장, 일본 등과의 무역전쟁을 더욱 격화시켰다.

이러한 형편은 미제의 국제수지를 더욱 악화시키고 딸라위기를 심화시켰다. 딸라를 방위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금보유고는 1970년 12월에 또다시 대폭 줄어들어 1965년이래 최저수준에 이른 반면에 미제가 걸머진 해외단기채무는 12월말에 490억딸라에 달하였다. 즉 외국의 지불요구가 있으면 즉시 금으로 갚아주지 않으면 안되는 해외단기채무만하더라도 미국의 금보유량의 4.5배에 달하게 되였다. 이리하여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에 의해도 이미 1970년에 미국의 국제수지적자는 98억 1천 900만딸라를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전년에 비하여 근 38% 더 늘어난것이다.

농업도 심각한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1970년에 국민총생산의 실질장성률은 전에 비하여 0.4% 저하됨으로써 사회, 경제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기를 가일층 격화시켰다. 미제가 줄여서 발표한 수자에 의하더라도 1970년에 생계비는 전년도 보다 5.5% 올라갔는데 그중에서 특히 소비품은 8%, 치료비는 7.4%, 각종료금은 15.2% 각각 뛰여 올랐다.

닉슨도당이 집권한 이래 1970년 12월말까지 실업자는 근 200만명이나 늘어나 544만의 완전실업자를 포함하여 약 1천 800만명에 달하였다.

흑인, 농업로동자, 미국원주민 등 1천 500만명은 사회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로 되고있다.

1970년에 각종 범죄건수는 전년도에 비하여 12% 늘어났다. 썩어빠진 생활양식이 판을 치는 미국에서는 마약상습자가 급격히 늘어나고있는데 1970년에 압수된 마약량은 1969년의 2배에 달하였다. 미국에서는 마약중독자가 3천만명을 헤아리고있는데 지어는 미제침략군내부에서도 약 30%가 마약을 피우고있다.

이밖에 교통사고, 로동사고를 비롯하여 각종 사고가 늘어만가고있다. 탄광에서의 로동사고는 1970년에 25%가 늘어났다.

【출판보도】 통신 에이피, 유피아이, 유에스아이에스

신문 워커(공산당기관지), 블랙크 펜서(흑인펜서당 기관지), 가디언, 데일리 월드, 뉴욕타임스, 워싱톤포스트, 헤랄드 트리뷴, 크리스챤 싸이언스 모니터, 월스트리트 저널

## 메히꼬
(메히꼬합중국)

북아메리카의 남단에 있다. 동쪽은 카리브해와 메히꼬만을 끼고 서쪽은 태평양에 면하고있다. 북부는 비가 많이 오나 남부는 적게 온다. 해안선에는 크고 작은 약 70개의 항구가 있다.

【면적】 196만 9,000km²

【인구】 4,837만 7,363명(1970년 1월)

주민의 55%가 에스빠냐—인디안혼혈이며 원주민인 인디안이 29%, 백인 15%, 기타 1%이다.

국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정 치** 메히꼬는 1521년부터 300년간 에스빠냐식민지로 있다가 1821년 9월 16일에 독립을 쟁취하고 1824년에 련방공화국을 세웠다.

1846—1848년에 메히꼬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등 지역을 미제침략자들에게 강탈당하였으며 1861—1867년간에는 영국, 프랑스, 에스빠냐 침략자들의 침략을 받았다. 1914년과 1916—1917년에 미제가 다시 침략하였으나 인민들의 항거로 쫓겨났다.

10월혁명의 영향하에 메히꼬에서도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이 앙양되였다. 특히 농민들의 토지해결을 위한 투쟁으로 1917—1934년까지의 사이에 열아홉번이나 대통령이 바뀌였다.

1934—1940년기간에 집권한 대통령은 인민들의 압력에 의하여 미영제국

주의자들의 석유 및 광업회사, 철도들을 국유화하고 토지개혁도 일부 실시하였다.

메히꼬는 1961년 4월 꾸바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여 불간섭원칙을 견지하였으며 미제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꾸바와 외교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있다.

1970년 메히꼬근로자들은 생존의 권리와 처지개선을 위하여 완강히 투쟁하였다.

5월초순 베라끄루스항의 3천명의 부두로동자들은 생활처지의 개선을 요구하여 무기한파업에 돌입하였으며 8월에는 아까뿔리항 부두로동자들이 임금을 올리며 로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련일 파업을 벌렸다.

【의회】 상하량원제이다.

【정부】 대통령 루이스 에체베리아 알바레스(1970년 12월—), 외무상 에밀리오 라바사, 국방상 에르메네힐도 꾸엔까 디아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9년 9월에 창건, 제1비서 아르놀도 마르띠네스 베르두고. 립헌혁명당(집권당), 국민행동당, 인민사회당, 로동당, 민족주의당, 민족해방운동, 로동총련맹, 혁명로동자농민련맹, 전국농민총련맹, 혁명로동자련맹, 공산주의청년동맹, 전국녀성련맹

###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광업이다. 경지면적은 전령토의 15%에 불과하며 주요농산물은 강냉이, 목화, 밀, 사이잘삼, 커피, 사탕수수, 담배 등이다. 밀의 파종면적은 총경지면적의 75%를 차지한다.

공업의 기본은 채취공업이다. 주요지하자원은 은, 금, 아연, 연, 동, 철, 류황 등이며 커피, 연, 류황, 아연 등을 수출한다. 전력, 화학 등 주요경제부문을 미국독점체들이 지배하고있다. 특히 식료독점체들은 이 나라 식료공업의 90%이상을 장악하고 지어 소매상업부문까지 통제하고있다.

메히꼬경제에 대한 외국투자액중 미제독점체들의 몫이 첫자리를 차지하고있는데 1969년 한해동안에만도 미제독점체들의 리윤액은 69억페소에 달하였다. 불평등한 략탈조건, 관세장벽으로 하여 대외무역적자는 계속 늘어나고있는데 그것은 1960년의 4억 5천만딸라로부터 1969년에는 7억딸라로 늘어났다.

주민의 40%이상이 현대문명에서 뒤떨어진 생활을 하고있으며 60%가 최저생계비도 받지 못한다. 주민의 23.8%가 문맹자이다.

【출판보도】 통신 라띤

신문 엘 뽀뿔라르, 엑쎌시오르, 엘 나씨오날, 디아리오 데 메히꼬, 노베다데스, 쁘렌싸 리브레, 뽈리띠까, 엘 디아, 울띠마스 노띠시아스

## 과떼말라

(과떼말라공화국)

과떼말라는 중미대륙의 서부에 있다. 메히꼬, 온두라스와 접하고있으며 남쪽으로는 태평양에 면해있다. 령토의 3분의 2가 산악지대이고 화산이 많다.

적도계절풍기후로서 년평균기온은 25~30°C, 강수량은 2천~3천mm이다.

【면적】 10만 8,900km²

【인구】 471만 6,000명

주민은 인디안(60%), 혼혈인(35%), 기타 백인과 흑인이다.

언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과떼말라(주민 약 60만명)

### 정 치

1524년부터 에스빠냐식민지로 있다가 1821년 9월 15일에 독립하였다. 1834년에 《중미련방》에 가입하였다가 1839년에 이 련방에서 탈퇴하여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까브레라통치시기(1898년—1920년)에 미제침략자들이 이 나라의 정치, 경제를 장악하였다.

1944년 7월 민주혁명이 승리한후 일련의 진보적인 개혁들이 실시되였다. 1954년 6월 미제의 무장간섭으로 친미독재정권이 수립된후 민주주의적성과는 말살되였다.

1960년 4월 과떼말라친미반동정부는 꾸바와 외교관계를 끊고 자국령토를 미제의 반꾸바책동의 근거지로 내맡겼다.

1962년부터 《과떼말라를 위한 승리냐, 죽음이냐》라는 구호밑에 애국적인민들은 무장유격투쟁을 시작하였다. 1968년에는 무장봉기군과 《11월 30일 혁명운동》이 통합되여 강력한 혁명력량으로 자라나 친미독재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다.

【정부】 대통령 까를로스 아라나 오소리오(1970년 7월—), 외무상 모르

【정당, 사회단체】 로동당 1949년에 창건된 공산당을 1952년에 로동당으로 고침, 총비서 베르나르드 알바리도 몬손. 혁명당(집권당), 민족해방당, 민주제도당, 민족혁신당, 기독교민주당, 국민혁명운동, 혁명민주동맹, 로조련맹, 자치로조련맹

【주요사건】 1970년에 과떼말라무장봉기군은 수도 과떼말라시를 중심으로 하여 대담한 습격작전을 벌려 놈들을 전률케 하였다.

1월 13일 애국적무장인원들은 과떼말라시의 한 거리에서 기관총사격을 퍼부어 이 나라의 첩보국 두목놈이 타고가는 자동차를 파괴하고 그놈을 즉사시켰으며 2월에는 반동선전을 일삼던 극우익신문사인 《쁘렌싸 리브레》에 기관총사격을 들씌워 부사장놈을 죽여버렸다.

3월 11일 밤 과떼말라유격대의 한 소조는 14년동안이나 무고한 애국자들을 탄압학살하고 유격대의 《토벌》에 앞장섰던 이전 경찰두목놈을 죽여버렸다.

3월 9일 밤에는 과떼말라시에 있는 이스라엘령사놈의 집에 폭발물을 던져 파괴하였으며 3월 31일에는 서부독일대사놈이 탄 자동차를 불의에 습격하여 이놈을 사로잡았다.

4월 2일 친미반동통치배들은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애국적인민들을 마구 체포투옥하였으며 미제침략군의 《고문》들까지 끌어들여 애국적무장인원들에 대한 《소탕작전》에 날뛰였으나 애국적인민들의 투쟁을 가로막지 못하였다.

### 경제, 사회

주민의 76%가 농사한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바나나, 목화, 사탕수수, 강냉이, 벼 등이다.

지하자원은 석유, 연, 아연, 은, 안티몬, 크롬 등이다.

주요 경제명맥을 미제독점체들이 틀어쥐고있다. 미제의 《유나이테드 과실회사》는 과떼말라령토의 4분의 1과 모든 항구, 그리고 수출의 4분의 3을 장악하고 막대한 리윤을 짜내고있다. 미제가 과떼말라에서 략탈해가는 리윤은 해마다 1억딸라이상에 달한다.

주민의 80%가 문맹자이며 97%가 기독교를 믿는다. 중미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중의 하나이다.

【출판보도】 신문 베르다드(로동당기관지), 쁘렌싸 리브레, 라 오라

## 살바도르

(살바도르공화국)

중미나라들중 제일 작은 나라로서 태평양에 면해있다. 나라의 대부분이 산악과 고원지대이다. 년평균기온은 22~24°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1천 500~1천 800mm이다.

【면적】 3만 4,258km²

【인구】 302만 8,000명

주민의 대부분이 인디안과 구라파혼혈인이며 기타는 백인, 인디안 등이다.

국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산 살바도르(주민 28만명)

**정 치** 1524년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21년 9월 15일 독립을 선포하였다.

1823—1838년간에 《중미련방》에 가입하였다가 떨어져나와 1839년에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독립후 미제의 침략이 강화되여 내란과 군사정변이 잦았으며 여러 차례의 정권교체가 있었다.

1932년에 반미반독재무장봉기가 일어나 서부지역에 로동자농민정권이 수립되었다. 친미독재자인 마르띠네스는 로동자농민정권을 진압하고 1만명의 인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하였다.

1961년 1월에 미제침략군의 직접적인 지휘하에 군사정변이 일어났으며 반동적인 군사정권은 이해 3월 꾸바와 외교관계를 끊고 1962년 9월에는 《헌법》을 조작하였다. 살바도르친미도당은 1965년에 《중미합동군》에 참가하는 등 미제의 침략정책에 추종하면서 인민들의 반미반독재투쟁을 탄압하고 있다.

【의회】 일원제이다.

【정부】 대통령 피델 싼체스 에르난데스 (1967년 7월—), 외무상 프란시스코 호쎄 게로레로

【정당】 공산당 1930년에 창건, 국민화해당, 혁신행동당, 사회민주당, 기독교민주당, 《4월및5월》혁명당

**경제, 사회** 주민의 75%가 농사를 한다. 몇네명의 대토지소유자들이 경지면적의 3분의 2를 독점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목화, 강냉이, 사탕수수, 벼 등이다.

지하자원은 금, 은, 철, 석탄 등이다. 농민의 40%가 완전실업자이다. 장기질환자가 많으며 평균수명은 30세이다. 주민의 80%는 문맹자이며 생활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떠나고있다.

주민의 대다수가 기독교를 믿는다.

## 온두라스

(온두라스공화국)

중미에 있으며 과떼말라, 니까라과, 살바도르와 린접하고있다. 까리브해안의 평지는 기온이 높고 년평균강수량이 5천mm에 달하나 산악지대는 따뜻하고 강수량이 적다. 령토의 4분의 3이 고원지대이다.

【면적】 11만 2,088km²

【인구】 236만 3,000명

주민의 대부분은 에스빠냐인과 인디안의 혼혈인이다.

국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떼구시갈빠(주민 15만 4,400명)

**정 치** 1520년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21년 9월 15일에 독립하였다.

1825년 메히꼬에 병합되였고 그후 《중미련방》을 거쳐 1839년에 다시 독립을 선포하고 공화국으로 되였다.

1963년 10월 3일 로뻬스 아렐라노가 군사정변을 일으켜 군사위원회를 조작하였으며 이해 10월 13일 미제의 사촉을 받아 꾸바와의 외교관계를 끊었다.

1965년 2월 16일 《제헌회의선거》를 날조하여 친미군사독재정권인 국민당정부를 조작하였다.

【국회】 일원제이다.

【정부】 대통령 오스왈도 로뻬스 아렐라노(1963년 10월—), 외상 까쓰뜨로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7년에 창건, 국민당(집권당), 자유당, 민족개량운동당, 로조련맹

**경제, 사회** 주민의 80%가 농사를 한다. 토지는 전체 인구의 5.2%밖에 안되는 대토지소유자들이 차지하고있으며 75%이상의 농민들은 토지를 못가지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바나나, 커피, 목화 등이며 목재자원도 있다.

지하자원은 금, 은, 연 등이 있으나 개발되지 못하였다.

주요수출품은 바나나, 커피, 은, 목재 등이다.

주민의 대다수가 빈민굴에서 살고있으며 어린이의 절반이상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기독교를 믿는다.

## 영령온두라스

중미에 있으며 메히꼬, 과떼말라와 린접하고있다.

열대기후로서 년평균기온은 24~27°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2천mm이다. 령토의 92%가 산림지대이다.

【면적】 2만 2,957km²

【인구】 10만 6,000명

주민의 50%가 흑인이고 기타는 백인과 혼혈인 등이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행정중심지】 벨리제(주민 4만명)

**정 치** 16세기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62년 5월에 영제국주의식민지로 되였다.

1964년 1월 1일에 국방, 외교, 국내치안등 문제를 제외하고 극히 제한된 《내부자치》를 실시하는 자치정부가 수립되였다.

【정부】 수상 죠지 프라이스(1964년 1월—)

【정당】 인민통일당 1950년에 창건, 민족독립당

**경 제** 경제의 기본은 림산업이다. 목재는 수출액의 50%를 차지한다.

경지면적은 20만ha이며 주요농산물은 바나나, 사탕수수, 야자, 쌀, 콩 등이다.

## 니까라과

(니까라과공화국)

북쪽은 온두라스, 남쪽은 꼬스따 리까와 린접하고있는 중미의 나라이다. 기후의 변화가 심하고 령토의 절반이상이 열대지대이다. 고원지대는 땅이 비옥하고 기후가 따뜻하나 해안의 낮은 지대는 몹시 더우며 화산이 많다.

【면적】 14만 8,000km²

【인구】 117만 8,000명

주민의 70%가 에스빠냐인과 인디안의 혼혈인이며 기타 백인 등이다.

언어는 에스빠냐어를 쓴다.

【수도】 마나과(주민 27만 4,900명)

**정 치** 1524년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21년에 독립하였다. 1823—1838년기간에 《중미련방》성원국으로 있다가 1838년에 련방해산과 동시에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36년에 대통령으로 된 소모사가 20년간 파쑈독재를 실시하다가 살해되자 그의 아들 루이스 소모사가 대통령으로 되였다. 인민들의 반독재투쟁이 앙양되자 소모사는 표면상 물러나고 1963년 2월 폭압속에서 《선거》를 실시하여 자기의 충복놈을 대통령자리에 앉혔다.

1967년 2월 5일 30여년간이나 니까라과를 통치하면서 인민탄압에 미쳐날뛴 아나스따시오 소모사가 협잡《선거》를 통하여 또다시 대통령으로 되였다.

1959년부터 시작된 반미반정부무장투쟁의 불길은 더욱더 높아져 친미도당에게 계속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다.

1970년 1월 26일 애국적무장인원들

의 한 소조는 수도 과떼말라 근처에서 국가경찰대 장교놈들의 집과 독재당국의 악질관리놈들의 집들에 폭발물들을 던져 놈들에게 많은 물질적손실을 주었다.

3월 마따갈빠와 히노떼가주 일대에서는 《토벌》에 날뛰던 반동정부군놈들을 혼되게 들이쳤다.

4월 2일에는 레온주 경찰서 두목놈을 사로잡아 처단하였다.

4월 22일에는 히노떼가주에서 반동정부군놈들의 비행기 한대를 쏘떨구었다.

【국회】 상하량원제이다.

【정부】 대통령 겸 수상 아나스따씨오 소모사(1967년 2월—), 외무상 로렌소게데라

【정당, 사회단체】 사회주의당 전신은 1925년에 창건된 공산당, 1944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고침. 국민자유당(집권당), 보수당, 공화통일당

**경제, 사회** 주민의 80%가 농사를 한다. 전체 토지의 85%를 소모사도당의 25가족이 차지하고 농민들을 착취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바나나, 목화, 사탕수수 등이다.

지하자원으로는 금, 은, 동, 주석, 왕간 등이다.

반동당국은 1970년에 1천 200만꼬르도바에 달하는 막대한 교육비를 줄였다. 결과 1970—1971학년도에만도 25만명의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했다.

【출판보도】 신문 라 쁘렌싸, 라 노띠씨아, 디아리오 노베다데스, 오리엔따씨온 뽀뿔라르

## 꼬스따 리까

### (꼬스따 리까공화국)

니까라과와 빠나마 사이에 있는 중미의 나라이다. 령토의 대부분은 산이며 기후는 축축한 열대성기후이며 년평균강수량은 3천mm이다.

【면적】 5만 1,000km²

【인구】 148만 6,000명

주민의 대부분은 인디안, 에스빠냐인, 백인의 혼혈인이다.

언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산 호세(주민 16만 6,000명)

**정 치** 16세기초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21년 9월 15일 독립하였다. 1824년에 《중미련방》성원국으로 있다가 1938년에 련방에서 떨어져나와 1939년에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이 나라는 20세기초부터 미제독점체들의 침략을 받아왔으며 1930년부터는 실제상 미제의 식민지로 전락되었다.

1970년에 꼬스따 리까인민들은 미제의 경제적략탈과 반동통치배들의 반인민적정책을 반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벌렸다.

4월 25일 수도 산 호세에서 미제독점자본가놈들이 꼬스따 리까의 보크사이트를 략탈하기 위하여 이른바《개발계약》을 반동통치배들에게 강요하고있는데 항의하여 4만 5천명의 로동자들과 학생들이 반미시위를 벌렸다.

장기간 투쟁하여온 시위자들은 미제독점자본가놈들의 회사, 상점, 방송국들을 습격하였으며 최루탄을 마구 쏘며 달려드는 반동군대의 약 20명을 까눕혔다.

【국회】 일원제이다.

【정부】 대통령 겸 수상 호세 피게레스 페레르(1970년—)

【정당, 사회단체】 인민전위당 전신은 1930년에 창건된 공산당이며 1943년에 현재 이름으로 고침, 총비서 마누엘 모라 발베르데 민족해방당(집권당), 민족련맹당, 민족공화당, 기독교민주당, 근로자총련맹, 혁명청년동맹

**경제, 사회** 인구의 절반이 농사를 한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바나나, 사탕수수, 코코아, 담배 등이다.

근로자들의 절반이상이 기아임금을 받고있으며 주민의 대부분이 만성적인 질병에 걸려있다. 5살미만의 어린이들이 전체 사망자수의 40%를 차지한다.

【출판보도】 신문 리베르따드(인민전위당기관지), 라 나씨온, 라 레뿌블리까, 디아리오 데 꼬스따 리까, 쁘렌싸 리브레

## 빠나마

### (빠나마공화국)

빠나마는 중미와 남미주를 련결하는 지대에 있으며 남쪽은 태평양, 북쪽은 까리브해에 면하고있다. 중앙에는 빠나마운하가 있다. 열대성기후이며 까리브해안은 비가 많이 온다.

【면적】 7만 4, 470km²(운하지대제외)

【인구】 128만 9,000명(운하지대제외)

주민은 인디안과 구라파인의 혼혈인(65%), 흑인, 백인, 인디안이다.

언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빠나마(33만 8,000명)

**정 치** 빠나마는 16세기부터 에스빠냐식민지로 있다가 1821년에 콜롬비아에 병합되었다.

20세기초부터 이 나라를 침략하기 시작한 미제는 1903년에 콜롬비아가 운하건설조건을 거부하자 강압적으로 콜롬비아로부터 빠나마를 떼내여 독립케 하고 그해 11월에 예속적인 《미국—빠나마조약》을 강요하여 운하와 그 량안지대를 《영구조차지》로 탈취하였다.

빠나마인민들은 예속적인 조약을 철폐하며 빠나마운하지대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하였다. 1936년에 《미국—빠나마조약》을 수정하여 운하사용료를 올리고 미제가 리용하는 운하지구 이외의 토지를 빼앗았으며 1947년에는 일부 지역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몰아냈다.

미제는 빠나마인민들의 반미투쟁이 앙양되자 1960년 9월에 운하지대에 대한 빠나마의 명목상의 주권을 인정하고 1963년 1월에는 운하지대에서 빠나마와 미제의 기발을 동시에 게양하는데 동의하지 않을수 없었다. 1964년 1월 9일 미제가 량국국기를 동시에 게양할데 대한 협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한것을 계기로 빠나마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반미폭동이 폭발하였다.

인민들의 투쟁에 질겁한 미제는 빠나마정부와 운하문제에 대한 담판을 진행하지 않을수 없었다. 미제는 기만적인 수법으로 《새조약》을 체결하고 운하와 운하지대를 계속 강점하며 새 운하를 건설하는 특권을 얻으려고 책동하였으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빠나마인민들의 투쟁으로 인하여 저들의 음모를 실현하지 못한채 1967년말 일방적으로 담판을 중단하였다.

미제는 고용병들로써 소동을 일으키며 차관의 지불을 중지하고 빠나마내정에 간섭하였으며 1969년 12월에는 친미반동군인들로 하여금 정변을 일으키게 하였다.

빠나마정부는 1969년 10월 내정에 간섭하는 미제대리대사놈을 추방하고 정변음모자들을 처단하였다.

1970년 8월에는 리오 하또군사기지를 계속 장악하려는 미제의 책동을 짓부시고 이 군사기지를 철폐하였다. 9월에 빠나마정부는 미제가 강요한 《새조약》초안을 운하문제에 대한 담판의 기초로 삼는것을 반대한다고 미제에 통고하였다.

12월 17일 빠나마는 새로운 민용항공협정과 관련한 미제와의 담판을 중단하였다. 이 담판에서 빠나마는 민용항공분야에서의 동등한 권리를 주장

하였으며 빠나마상업용비행기들이 미제의 승인이 있어야 빠나마운하를 통과할수 있다는 등 빠나마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규정들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였다. 12월 빠나마정부는 운하지대에 대한 《절대적인 자주권을 가진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정부】 대통령 데메뜨리오 랄라스(1969년 12월—), 외무상 안또니오 떼끄, 국가경비대사령관 오마르 또르리호스

【정당, 사회단체】 인민당 1930년에 창건된 공산당에 기초하여 1943년에 설립, 총비서 루벤 다리오 쏘우스 바띠스따. 전국민족애국련합당, 민족동맹, 사회당, 선봉인민운동, 로동조합총련맹, 공산주의청년

## 경제, 사회

인구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한다. 경작지는 적으며 식량수요의 약 60%를 수입한다.

주요농산물은 바나나, 커피, 쌀, 파인애플, 강냉이, 코코아 등이다.

경제명맥은 미제독점자본의 예속하에 있다.

주요지하자원은 금, 철, 수은, 류황, 석유 등이다.

【출판보도】 신문 에쓰뜨렐라 데 빠나마, 라 오라, 아뜰란띠꼬, 울띠마 오라, 끄리띠까

## 빠나마운하지대

빠나마운하 량쪽 8km의 지대를 말한다(빠나마시와 꼴론시는 제외)

면적은 1,432km²(그중 륙지면적이 962km²), 인구는 4만 8,700명(그중 미국인 3만 5,700명)

총독부소재지는 발보아 하이쯔이다.

1903년에 불평등한 《미국—빠나마조약》에 의하여 이 지역을 강점한 미제는 1904—1914년의 빠나마운하건설기간에 6만여명 인민들의 목숨을 빼앗았으며 수십만명을 불구자로 만들었다. 이것은 운하길이 1m에 평균 1명이 죽은것으로 된다. 미제는 이 운하에서 해마다 1억딸라의 리윤을 짜내고있다.

미제는 운하지대에 총독과 침략군을 파견하여 식민지통치를 실시하고있으며 빠나마인민들의 운하지대에로의 자유로운 출입을 금지하고 운하지대를 《나라안의 나라》로 만들었다. 미제는 전쟁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 지대를 핵전략기지로 꾸려놓고 지금의 운하로부터 약 10마일밖에 수평운하를 새로 건설하려고 책동하고있다. 1970년에는 침략군을 원래의 9천명으로부터 빠나마본국 무장부대의 2배에 달하는 1만 2천명으로 늘였다.

미제는 이 지대를 기지로 빠나마내정에 간섭하고 빠나마와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탄압하고있다. 빠나마인민들은 이 지대에서 미제를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 하이티

(하이티공화국)

까리브해상에 있는 하이티섬의 서쪽 3분의 1을 차지하고있다. 열대성기후이며 년평균강수량이 2천mm 내외이다. 산지가 많은 나라이다.

【면적】 2만 7,800km²

【인구】 448만 5,000명

주민의 90%가 흑인이며 나머지는 혼혈인이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수도】 뽀르또 쁘랭스(주민 25만명)

## 정치

하이티는 1697년을 전후하여 에스빠냐와 프랑스 식민지로 되었다.

18세기말부터 인민들의 독립운동이 앙양되여 1804년에 프랑스침략군을 몰아내고 독립하였으며 1806년에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15년 7월 수도 뽀르또 쁘랭스에서 반정부폭동이 일어나자 미제는 《자국민보호》라는 구실밑에 무장간섭을 감행하여 하이티를 강점하였다. 그후 하이티인민들의 강력한 반미투쟁에 의하여 1934년에 미제침략군은 쫓겨났다.

미제는 하이티에 친미독재정권을 조작하기 위하여 1957년 9월에 친미분자 듀발리에를 사촉하여 군사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개하였다. 듀발리에는 1961년 꾸바와 외교관계를 끊었으며 대통령임기가 끝나게 되자 선거를 반대하고 1964년 6월 24일에는 자신을 종신대통령으로 선포하였다.

1966년에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이 시작되었다. 민주력량의 단결이 강화되고 정치단체들은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인민들을 반미반정부투쟁에로 조직동원하였다.

1970년 4월 반동정부군 해병대군인들이 경비정 4척을 탈취하여 친미독재자 듀발리에가 있는 《대통령》궁전에 함포사격을 가하여 놈들의 간담을 서늘케했다.

하이티인민들은 비법적으로 체포투옥된 정치범들을 석방하기 위한 투쟁을 완강히 벌렸다.

3월 18일 하이티정치범석방을 위한 위원회는 수백명의 애국자들을 검거투옥한 듀발리에친미독재당국의 만행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친미독재정권에 항의하고 애국자들을 지지하여줄것을 세계사회여론에 호소하였다.

【립법회의】 일원제이다.

【정부】 대통령이 수상을 겸하고있다. 대통령 장 끌로드 듀발리에(1971년 4월—), 외무상 라이몬

【정당, 사회단체】 공산주의자통일당 1969년 3월에 인민통일당과 민족해방인민당이 합당하여 창건. 혁명협동통일당(집권당), 사회민주당, 민주련맹당, 혁명해방전선, 전국해방운동, 전국로동총련맹

## 경제, 사회

주민의 90%가 농사를 한다. 경지면적은 전국면적의 3분의 1이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사이잘삼, 바나나, 코코아, 사탕수수, 목화, 담배 등이다.

지하자원은 보크사이트, 아연광, 망간, 석탄, 석유 등이 있으나 그 채굴량은 적다.

주민의 80%가 문맹자이다.

【출판보도】 신문 하이티 저널, 레 나시오날, 부장(공산주의자통일당 월간잡지)

# 도미니까

(도미니까공화국)

까리브해상에 있는 하이티섬의 동쪽 3분의 2를 차지하는 나라이다. 기후는 열대성에 속한다. 년평균강수량은 1천~2천mm이다.

【면적】 4만 8,700km²

【인구】 388만 9,000명

주민은 인디안—구라파혼혈인(68%), 백인, 흑인으로 이루어졌다.

언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싼또 도밍고(주민 67만 7,760명)

## 정치

1492년부터 하이티와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695년부터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었다. 1809년에 원주민들의 봉기로 하이티섬 전체가 독립하였다. 1822년 도미니까는 하이티에 정복되였다가 1844년에 하이티로부터 떨어져나와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16—1924년까지 미제침략군에 강점당하였으며 1930년부터 테로독재가 계속되었다.

1965년 4월 애국적 군인들과 인민들은 반동적인 군사정권을 반대하는 무장봉기를 일으켜 봉기군지도자 프란시스꼬 까아마니오를 림시대통령으로 선거하고 새 정부를 구성하였다.

이에 당황한 미제는 침략군을 동원

하여 도미니까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으며 제놈들의 침략적범죄행위를 가리우기 위하여 브라질, 꼬스따리까, 온두라스, 니까라과 등 제놈들의 졸개들로 《미주통합군》을 조작하여 도미니까인민들을 탄압케하는 한편 새로운 친미독재정권을 조작하였다.

도미니까인민들은 1960년부터 미제와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진행하여 1964년에 와서는 6개의 유격전선을 펴고 계속 투쟁을 확대하였다.

1970년에는 미제와 친미도당의 이른바 《대통령선거》놀음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웠다.

3월 24일 애국적무장인원들의 한 소조는 싼또 도밍고교외에서 미제대사관의 한 《외교관》놈을 사로잡았으며 한편 다른 소조는 미제대사관을 습격하여 공보실을 폭발시켰다.

그들은 미제의 《외교관》놈과의 교환조건으로 감옥에 비법적으로 투옥된 애국자 21명을 석방시켰다.

5월 16일 기만적인 《대통령》선거놀음이 진행되는 날에는 싼또 도밍고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선거장습격, 선거함을 들어내여 불태워버리는 등 각종 투쟁을 전개하였다.

6월 3일과 4일 량일간에 도미니까청년학생들은 미제의 침략도구인 《미주국가기구외상회의》를 이 나라에서 벌려놓으려는 미제와 친미독재당국의 책동을 반대하여 격렬한 시위투쟁을 벌렸다. 도미니까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회의》를 벌리려던 미제의 시도는 실패하였다.

1970년 9월 26일 벌가리아에서 공부하고있는 도미니까류학생들이 벌가리아의 수도 쏘피아에서 《김일성동지혁명력사및로작연구소조》결성모임을 가졌다.

모임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이해에 도미니까공산당 청년부대표단(6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국회】 상하량원제이다.

【정부】 대통령겸 수상 호아낀 발라게르(1966년 7월—), 외무상 마누엘 뻬르난데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45년에 창건, 총비서 나르시쏘 이싸끼레. 《6월 14일혁명운동》, 혁명당, 인민운동당, 개혁당, 공산청년동맹, 로동총련맹, 녀성련맹

**경제, 사회** 인구의 대부분이 농사한다. 주요농산물은 사탕수수(국민소득의 60%를 차지), 커피, 코코아, 바나나, 담배 등이다.

지하자원은 보크사이트, 석탄, 석유, 철, 동 등이다.

근로자들의 65%가 기아임금을 받고있다.

주민의 절반이상이 문맹자이며 학교갈 나이의 근 절반이 공부를 못하고있다.

【출판보도】 신문 엘 뽀뿔라르 (공산당기관지), 리베르따드. 엠. 이. 헤14 (《6월 14일혁명운동》기관지), 디아리오 데라 따르데(인민운동당기관지)

## 자마이카

꾸바의 남쪽 까리브해상에 있는 섬나라이다. 령토의 대부분은 산간지대이다. 낮은 해안지대의 평균기온은 26°C이나 산간지대는 18°C이다.

【면적】 1만 1,400km²

【인구】 184만명

주민의 대부분은 흑인과 혼혈인이며 인디안이며 백인도 있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수도】 킹스톤(주민 12만 3,000명)

**정 치** 1494년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1670년부터는 영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되였다.

1961년 10월 자마이카는 1958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이 자마이카와 서인도섬들로써 조작하였던 《서인도련방》에서 탈퇴하였으며 1962년 8월 6일 영련방내에서 독립을 선포하였다.

1963년 6월 6일 자마이카친미도당은 미제국주의자들과 《방위협정》을 맺고 자기 나라를 미제침략자들의 군사기지로 내맡겼다.

【국회】 상하량원제이다.

【정부】 수상 유 쉬어러(1967년 4월—, 외상, 국방상겸임)

【정당】 레이버당(집권당), 대중국민당, 자유인민운동

**경 제**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주요농산물은 사탕수수, 바나나, 커피, 코코아, 담배 등이다.

지하자원은 보크사이트, 린회석, 연, 아연 등이다.

주민 6명당 1명이 실업자이다.

## 뿌에르또 리꼬

(미국식민지)

까리브해에 있는 섬나라로서 비께스섬, 꿀라브라섬, 모나섬을 포함하고있으며 기후는 따뜻하다.

【면적】 9,500km²

【인구】 271만 3,000명 (1970년 1월)

주민의 대부분은 에스빠냐인과 인디안이다.

언어는 에스빠냐어와 영어를 쓴다.

【행정중심지】 산 후안(주민 64만 8,000명)

**정 치** 1509년에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되였다.

미제와 에스빠냐간의 식민지략탈전쟁의 결과 1898년에 미제의 식민지로 되였다.

1950년에 민족적독립을 위한 인민들의 무장폭동이 일어나자 미제는 이 투쟁을 무마하기 위하여 1952년 헌법에 뿌에르또 리꼬를 이른바 《자유동맹국》으로 규정하였으며 이해 7월 25일에는 《내부자치령》으로 만들었다.

미제는 뿌에르또 리꼬에 13개의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2만 5천명의 침략군을 항시적으로 주둔시키고있다. 군사인원외에도 7만여명의 미국놈들이 기여들어 간첩활동을 하고있다. 미제는 뿌에르또 리꼬에서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혁명운동을 탄압말살하기 위한 특수부대와 간첩들을 훈련시키고있다.

1960년에 이 나라 인민의 혁명적전위대로서의 《뿌에르또 리꼬독립운동》이 조직되여 나라의 해방과 민족적독립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지도하고있다.

1967년 9월부터 뿌에르또 리꼬인민들은 도시유격대인 《해방무장대》를 조직하여 무장유격투쟁을 전개하고있다.

【총독】 루이스 무뇨스 마린(1964년—)

【의회】 상하량원제이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4년에 창건(비법화). 독립운동 진보적인 각계층을 망라하고있으며 민족적독립을 위한 이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형도하고있다. 인민민주당, 신진보당

【주요사건】 1970년에 뿌에르또 리꼬에서는 미제의 인도지나침략전쟁 확대와 청장년들에 대한 강제징집을 반대하는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투쟁이 전례없이 강화되였다.

3월 4일 산 후안에 있는 종합대학 3천여명의 학생들은 대학내에서 《예비역장교훈련》이라는 파쑈적군사훈련을 실시하려는 책동을 반대하여 《예비역훈련소》를 들부셔놓았다. 5월 시위에 떨쳐나선 수도 산 후안 시민들은 《우리 뿌에르또 리꼬사람들은 미제의 략탈전쟁의 대포밥이 되지않겠다!》, 《미국놈은 물러가라!》 등의 반미구호들을 웨치면서 미제침략자들을 규탄하

있다.

한편 애국적인 《해방무장대》의 활동도 적극화되었다. 이들은 파쑈적인 군사훈련과 강제징집을 반대하는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투쟁에 보조를 맞추어 수도 산 후안에서만도 미제의 《예비역훈련소》들을 58차례나 습격파괴함으로써 미제의 강제징집책동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1월 8일 해방무장대성원들은 수도주변에 있는 미제독점자본가놈의 큰 상점에 여러개의 소이탄을 던져 300만딸라에 달하는 손실을 주었다. 6월에도 미제놈의 백화점을 습격파괴함으로써 약 20만딸라의 손실을 주었다.

로동자들은 독점자본의 전횡과 착취를 반대하는 투쟁과 함께 미제의 군사기지화정책을 반대하여 줄기차게 투쟁하였다.

미제의 《제네랄 엘렉트릭》회사산하 공장로동자들은 1969년부터 이해 6월 중순까지 8개월동안이나 미제독점자본가놈들의 착취를 반대하여 파업과 시위투쟁을 벌렸다. 8월에는 전국도처에서 《미제는 물러가라!》라는 구호밑에 수천명의 군중들이 반미시위를 벌렸다. 이 투쟁은 10월초에 이르러 6만명의 군중이 참가한 대규모시위투쟁으로 확대되었다.

수도를 비롯한 각지 인민들은 이 나라의 섬인 쿨라브라를 미제의 침략적군사기지로 만들기 위해 섬주민들을 강제로 내쫓으려는 음흉한 책동을 반대하여 년중 강력히 투쟁하였다.

**경제, 사회** 주요농산물은 사탕수수, 바나나, 커피, 담배, 과실 등이다. 지하자원은 석유, 금, 은, 주석, 연, 동, 대리석 등이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 나라 공업(주로 경공업, 석유공업, 화학공업)의 85%, 상업의 50%와 전체 회사수의 80%를 직접 통제하고있다. 미제독점체들은 농경지의 80%를 틀어쥐고 사탕수수재배면적을 해마다 늘이면서 식량을 위한 기본작물경작지를 감소시키고있다.

주민들은 일자리를 찾아 매년 약 5만명씩 해외로 떠난다. 해외에서 헤매는 뿌에르또 리꼬인들은 100만이상에 달한다.

【출판보도】신문 팜(해방무장대 기관지)

## 트리니다드 토바고

까리브해의 서인도제도의 남안에 있는 섬나라이다. 기온이 높고 습기가 많다. 6—12월은 장마철이다.

【면적】 5,128$km^2$(트리니다드섬은 4,829$km^2$)

【인구】 94만 7,000명

주민은 흑인(약 43%), 인디안(약36%), 혼혈인(약 16%), 백인 등이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수도】 포트 오브 스페인(주민 10만명)

**정 치** 1498년에 발견된후 1797년까지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1802부터 160년동안 영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있었다.

1958년에 쟈마이카 및 기타 섬들과 함께 《서인도련방》에 편입되였다. 이 나라 인민들의 오랜 민족해방투쟁으로 1962년 8월 31일 영련방내에서 독립을 선포하였다.

【국회】 양원제이다.

【정부】 수상 에리끄 윌리암스

【정당, 사회단체】 민주로동당(집권당), 인민민족당

【주요사건】 1970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 흑인들과 애국적군인들은 반동당국의 인종차별정책과 미제의 내정간섭책동에 격분하여 2개월여에 걸쳐 시위, 집회 및 폭동을 일으켰다.

2월 인종차별을 반대하여 나선것으로 하여 박해당하고있는 서인도제도학생들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여 수도 포트 오브 스페인에 있는 약 5천명의 흑인들은 시위를 벌리면서 기마경찰들과 두려움없이 용감히 싸웠다.

3월 6일에는 8천명의 흑인들이 군중집회를 열고 이 나라에 둥지를 틀고있는 저주로운 미제의 령사놈의 집에 소이탄을 던졌다.

4월 21일 두달째 계속된 흑인들의 투쟁에 질겁한 반동정부당국은 나라에 《비상사태》까지 선포하고 흑인운동지도자들을 비법적으로 체포하고 무고한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이러한 반동정부의 인종차별, 인민탄압책동을 반대하며 비법적으로 체포된 흑인지도자들의 석방을 요구하여 수도에 있는 200여명의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폭동군인들은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차구아라마스군사기지와 무기고를 점령하고 인민들의 투쟁에 합세하였다.

이 나라의 주요경제명맥을 틀어쥐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은 《미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항공모함을 포함한 함선 6척과 비행기등 현대적살륙무기를 갖춘 2천명의 침략군과 베네수엘라고용병들까지 이 나라에 끌어들였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무력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폭동군인들은 미제의 무력간섭으로 진압되었으나 윌리암스친미독재정부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경제, 사회** 주요지하자원은 원유와 피치이며 이 나라 수출의 40%를 차지한다. 석유공업의 대부분은 미영제국주의자들이 차지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사탕수수, 코코아, 야자, 귤 등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문맹자이며 기독교를 믿는다.

##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공화국)

남미대륙의 북부에 있다. 콜롬비아, 브라질, 가이아나와 린접하고 있으며 북쪽은 까리브해에 면해있다. 서북부는 산악지대이고 동남부는 넓은 평원지대이다.

기후는 아열대에 속하며 낮은 지대는 무덥고 고원지대는 온화하다. 장마철은 6—11월, 가물철은 12—5월이다.

【면적】 91만 2,000$km^2$

【인구】 1, 238만 5,000명

주민은 혼혈인(66%), 백인(20%), 흑인 (10%), 인디안(2%)이다.

언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까라까스(주민 150만명)

**정 치** 1550년부터 에스빠냐식민지로 있다가 1811년 6월 5일에 독립하였다. 1821년에 콜롬비아에 병합되였다가 1830년에 떨어져나와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48년에 히메네스군사독재정권이 수립된후 베네수엘라의 력대집권자들은 미제독점체들의 리익을 위하여 [illegible]하게 매국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히메네스반동정부(1948년 12월—1958년 1월까지 집권)는 인민들에 대한 파쑈통치를 실시하면서 미제와 각종 군사협정들을 맺었으며 자국의 풍부한 석유자원을 미제에 넘겨주었다.

1958년에 집권한 베땅꾸르는 1961년 11월에 꾸바와 외교관계를 끊고 1962년 5월에는 공산당과 《좌익혁명운동》의 활동을 금지하였으며 10월에는 헌법상 권리의 담보마저 폐지하였다.

베네수엘라인민들은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여 줄기차게 투쟁하였다.

1961년부터는 무장유격투쟁이 시작되였으며 1962년 5월과 6월에는 까르빠노의 병영과 까베요해군기지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1962년 6월에 민족해방전선이 창설되여 그 산하에 민족해방군을 조직하였다. 팔꼰주를 근거지로

시작된 무장투쟁은 1966년에 와서 전국 20개주중 11개주에 확대되였다..

【국회】 상하량원제이다.

【정부】 대통령 라파엘 깔데라(1969년 3월—), 외무상 아리스 띠데스 깔리바니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7년 8월에 창건, 위원장 구스따보 마챠도, 총비서 헤쑤스 파리아. 좌익혁명운동, 민족해방전선(혁명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정당, 사회단체들로 1962년 6월에 조직, 베네수엘라 인민들의 무장투쟁을 지도), 민주행동당(집권당), 민족인민전위당, 전국민주전선

【주요사건】 1970년 베네수엘라인민들의 무장투쟁은 산간 및 농촌지대들에서의 무장소조활동을 위주로 하면서 정치선전사업, 군사요충지의 매복습격 등을 배합하여 미제와 친미반동당국에 커다란 손실을 주었다.

2월 1일 베네수엘라의 애국적무장인원들은 까벨로항구에 있는 미제의 《모빌오일》회사에 속한 송유관에 폭발물을 던져 1만 5천여바렐의 원유를 불게 하였다.

3월 초순에 팔꼰주에서 활동하는 중무장한 유격대는 5개 마을에서 농민들의 참가하에 모임을 열고 친미독재정권을 타도할것을 호소하는 선전사업을 진행하였다. 18일에도 유격대의 한 부대는 마리나스주에서 미제독점자본가놈의 농장을 습격점령하고 기관총을 포함한 여러점의 무기와 기타 군수품을 로획하였다.

유격대의 소부대는 6월 19일 이 나라의 국경도시인 마이까오교외에서 일본놈들의 《회관》을 불이쳤으며 8월 4일에는 팔꼰주의 뿌에블로 누에보지방에 있는 반동정부군의 한 병영을 불의에 들이쳐 많은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입혔다. 또한 미제독점체들에 고용된 로동자들의 투쟁이 더욱 강화되였다.

5월 발렌씨아의 《포드 모터》미제독점회사산하 공장들에 고용되여있는 로동자들은 비법적으로 해고된 동료들을 복직시키며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여 반동경찰놈들과 군대의 류혈적인 탄압을 박차고 55일간이나 싸워 파업에서 승리하였다.

또한 베네수엘라학생, 교원들은 학생들의 권리를 짓밟고 학원에서 숭미교육을 목적한 《대학개편법》을 조작하려는 친미반동당국의 책동을 반대하여 시위, 동맹휴학 등을 단행하였다.

1970년에 이 나라 사회계에서는 외국독점체들의 석유 및 철광산지들을 국유화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미제와의 불평등한 《통상조약》을 재검토하기 위한 깜빠니야를 전개하였다.

결과 국회는 이 나라의 지하자원을 마음대로 략탈하고있는 미제의 석유회사들이 리윤의 60%를 세금으로 지불하게 하는 법령을 채택하지 않을수 없었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석유공업과 광업이다. 지하자원으로는 석유, 쇠돌, 금강석, 금, 석탄, 망간, 니켈, 수은, 류황 등이 있다.

석유와 쇠돌이 풍부하며 석유매장량은 24억 6천톤, 쇠돌매장량은 10억톤이나 되나 미제독점자본이 완전히 통제하고있다.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미제자본의 60%가 이 나라에 집중되여있으며 베네수엘라에 투하된 외국자본의 70%를 미제가 차지하고있다. 미제는 해마다 이 나라에서 1천 700만톤이상을 캐낼수 있는 5만 7천헥타에 달하는 쇠돌매장지를 랄취하여 수많은 쇠돌을 략탈해가고있다. 미제는 이 나라에 투하한 자본의 40%를 해마다 리윤으로 짜내고 있다.

석유부문에서만도 1970년까지의 10년간에 20억딸라이상의 리윤을 짜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경제적침투도 강화되고 있는데 미쯔비시, 미쯔이, 도와 등 일본의 광업회사들이 이 나라의 매다주에 풍부히 매장되여있는 아연, 동, 연, 은 등 전략물자에 대한 종합적탐사를 진행하고있다. 식량은 국내소비의 50%도 충족시키지 못한다.

주요농산물은 코코아, 바나나, 커피, 담배, 목화, 사탕수수 등이다.

1970년에 전해에 비하여 물가지수는 9.3배나 올랐다.

대외적으로 걸머진 빚은 1969년말 현재 거의 30억딸라에 달한다. 1970년에 완전실업자수는 50만명에 이르렀다.

【출판보도】신문 뜨리부나 뽀뿔라르(공산당기관지), 뿌에블로 이 레볼루씨온(민족해방전선기관지), 라 레뿌블리까(정부기관지), 이스끼에르다(좌익혁명운동기관지)

# 가이아나

## (가이아나공화국)

라틴아메리카의 동북부에 있다. 기후는 적도기후로서 년평균기온은 26~28°C, 년평균강수량은 2천mm 내외이다.

【면적】 21만 4,970km²

【인구】 70만명(1969년말)

주민은 인도인(50%), 흑인(약32%), 기타 인디안, 혼혈인 등이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수도】 죠지타운(주민 16만 2,000명)

**정 치** 1814년에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장기간 투쟁하여온 가이아나인민들은 이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1953년에 의회선거를 실시하였다. 선거결과 진보적인 인민진보당이 집권하여 체디 쟈간정부가 수립되였다. 쟈간정부가 일련의 민주주의적개혁을 실시하자 영제국주의자들은 이해 10월에 무력으로 쟈간정부를 전복하였다. 그러나 1957년 8월과 1961년 8월에 있은 두차례의 선거에서 인민진보당이 다시 승리하였다.

그리하여 1961년 8월에 인민진보당이 자치정부를 구성하였다.

미영제국주의자들은 인민진보당정권을 전복하기 위하여 반동세력들을 사촉하여 1962년 2월에 반정부폭동을, 1963년 4월에는 《총파업》을 일으키게 하고 가이아나에 대한 경제봉쇄를 실시하였다. 1964년 2월에는 인도인과 흑인간의 종족충돌을 일으키고 이를 《진압》한다는 미명하에 영침략군을 끌어 들였다. 이해 7월에 립법회의를 해산시키고 12월에는 립법회의선거를 강행하였다.

미영제국주의자들의 간섭책동에도 불구하고 인민진보당은 총의석의 45.8%를 차지하여 반동적인 정당들을 제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제국주의자들은 반동적인 인민민족대회당과 통일력량당의 련립정부를 비법적으로 조작하였다.

1966년 5월 26일 가이아나는 영련방성원국으로서 총독과 영침략군이 그대로 남아있는 조건부로 독립을 선포하였다.

이해 12월 8일 가이아나당국은 《국가안전》법이라는 악법을 채택하고 진보적인 세력들을 탄압하는 길로 나아갔다.

가이아나는 1970년 2월 23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대통령】 아더 층(1970년 3월—)

【민족회의】 최고립법기관으로서 일원제이다.

【정부】 수상 포브스 부른함 (1964년 12월—)

【정당, 사회단체】 인민진보당 1950년에 창건, 지도자 체디 쟈간. 인민민족대회당 (집권당), 통일력량당(집권당), 로동총련맹, 인민진보청년동맹.

**경 제**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주요농산물은 사탕수수, 벼,

야자, 커피, 코코아 등이다.

주요지하자원은 보크사이트, 망간, 금, 금강석 등이다.

주요수출품은 사탕, 보크사이트, 망간, 벼, 목재, 금, 금강석 등이다.

주민의 80%가 문맹자이다.

## 화란령 가이아나

남미대륙의 북쪽에 있으며 브라질, 가이아나 및 프랑스령 가이아나와 접경하고있다.

【면적】 14만 2,822km²

【인구】 33만명

주민은 크레올인, 인디안, 구라파인으로 이루어졌었다.

【행정중심지】 파라마리보(주민 10만 7,000명)

1667년에 화란식민지로 되였다. 제2차대전후 미제는 경제적침투를 강화하였으며 1962년 4월에는 화란과 협정을 맺고 이 나라를 제마음대로 리용할수 있는 권리를 빼앗았다.

령토의 90%를 차지하는 지역에서는 사람이 살지않는다. 주민의 70%가 농사를 한다. 주산물은 보크사이트이다.

## 프랑스령 가이아나

브라질의 북부에 있다.

【면적】 9만 1,000km²

【인구】 3만 4,000명

주민은 인디안, 흑인, 프랑스인 등으로 이루어졌다.

【행정중심지】 카이옌느(주민 2만 8,500명)

1815년에 프랑스식민지로 되였고 1846년에 형식상 프랑스 해외현으로 되였다.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주산물은 사탕수수, 바나나, 코코아, 커피 등이다.

지하자원으로는 보크사이트, 철, 금, 은, 등이 있으나 개발되지 못하였다.

## 브라질
### (브라질합중국)

남미주동북부를 차지하고있으며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이다(세계에서 제4위). 브라질의 북부에 적도가 통하고 있으므로 기후는 대체로 열대에 속한다. 사철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고 다만 가물철과 장마철로 나뉜다.

【면적】 851만 6,037km²

【인구】 8,800만명(1968년초)

주민의 절반이상이 백인이며 그 밖에 흑인, 갈색인 등이 있다.

국어는 뽀르뚜갈어이나 에스빠냐어도 쓴다.

【수도】 브라질리아(주민 18만명)

**정 치** 16세기초에 뽀르뚜갈의 식민지로 되였다가 1580년에 에스빠냐식민지로, 1640년에 다시 뽀르뚜갈식민지로 되였다. 1822년에 독립하여 돔뻬뜨로왕국을 선포하였다.

1889년에 왕국을 뒤엎고 《련방공화국》을 세웠으며 1891년에는 나라이름을 《브라질합중국》으로 고쳤다.

1961년 9월에 집권한 굴라르트대통령이 일련의 반미적인 자주정책을 실시하자 미제는 우익반동세력을 부추겨 1964년 3월 30일 군사정변을 일으켰다. 군사독재정권은 친미반공정책을 실시하면서 굴라르트의 정책을 일체 폐지하였고 1965년 5월에는 꾸바와 외교관계를 끊었다.

【국회】 상하량원제이다.

【정부】 대통령 에밀리오 가라스따주 메디씨(1969년 10월—), 외상 마리오 기브쏜 알베쓰 바르보사, 륙군상 오를란도 게이셀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2년 3월 25일에 창건. 레이버당, 전국민주련맹당, 《사회주의당》, 사회진보당, 사회당, 기독교민주당, 공화당, 로농총련맹, 브라질조선문화협회 1962년 8월 1일에 창설

【주요사건】 1970년에 반미반독재투쟁에 일떠선 브라질의 애국적무장역원들의 투쟁은 더욱 적극성을 띠고 도시와 농촌지역들에서 진행되였다. 그들은 싼 빠울로와 빠라나주 등지에 자체의 근거지를 꾸리고 놈들의 《토벌작전》을 성과적으로 물리치는 한편 대담한 습격작전들을 벌려 친미반동당국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4월말까지만해도 애국적무장연원들이 전개한 습격전투는 52차에 달하였으며 반동통치배들의 은행과 은행자동차를 들이친 회수는 7월까지만 하여도 60여차에 이르렀다.

한편 애국적무장력은 반미반독재투쟁과정에서 체포구금된 동지들을 구출하기 위한 투쟁의 한 형태로써 자기 나라에 통치를 틀고있는 미제와 그 《동맹국외교관》놈들을 《랍치》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3월 11일 애국적무장연원들은 싼 빠울로시 거리에서 일본 《총령사》놈을 사로잡고 일본 《총령사》놈과의 교환조건으로 유격대지도자를 비롯한 5명을 구출해냈다.

6월 11일에는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서부독일대사놈을 사로잡고 그 교환조건으로 부당하게 투옥된 40명의 애국자들을 석방시켰다.

11월 15일 친미군사독재정권의 반인민적국회선거놀음에 격분한 애국적무장연원들은 싼 빠울로시 라지오방송국을 점령하고 친미독재정권의 국회선거를 반대하여 나설것을 호소하는 방송을 하였다.

**경제, 사회** 브라질은 인구의 60%이상이 농목축업을 하고있다. 이 나라 경지면적의 80%이상을 대토지소유자들이 차지하고있다. 또한 미제는 약 600여만정보를 독점하고있다. 1천 200만명의 농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땅을 못가지고 있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코코아, 강냉이, 담배, 목화, 콩 등이다.

주요지하자원은 석탄, 망간, 우라니움, 철, 금, 원유 등이다.

경제명맥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독점체들이 장악하고 있다.

미제는 이 나라에서 발사된 28억t에 달하는 광물매장량중 80%이상을 독점하고있으며 대외무역의 62%, 자동차공업의 거의 100%, 세멘트공업의 90%, 기계제작공업의 59%를 독점하고있다.

미제를 등에 업고 해외팽창의 길에 오른 일본독점자본가놈들은 3개의 큰 전기 및 전자설비생산회사와 1개의 기계제작회사를 가지고있다.

브라질에서 미제 다음가는 이른바 《브라질대외통상동맹자》로 된 서독자본가놈들은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총투자액중 절반이상을 이 나라에 투하하고있다.

1969년에 8차례나 화폐가 평가절하되였는데 이해 2월에 또다시 평가절하되였다.

브라질에서는 약 800만세대의 살림집이 부족하며 리오 데 자네이로시에서만도 시내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20만의 주민들이 빈민굴에서 살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아싸 편레쓰

신문 글라씨, 오뻬라리아, 움미바오라, 에쓰따도 데 싼 빠울로

## 꼴롬비아

(꼴롬비아공화국)

남미대륙의 서북부에 있다. 서부에는 안데스산맥이 뻗어있고 동부는 고원지대이다.

기후는 아열대에 속하나 4계절의 구분이 명확치 않으며 다만 3개월을 주기로 바뀌는 가뭄철과 장마철에 의하여 계절이 구분된다.

【면적】 113만 8,338km²

【인구】 1,918만명

주민은 주로 에스빠냐인과 인디안의 혼혈인(60%), 백인(20%), 흑인 등이다.

국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보고따(주민 200만명, 1969년 10월)

**정 치** 16세기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19년 7월 20일 독립하였다. 같은해 베네수엘라, 에꽈도르를 통합하여 《대꼴롬비아련방》을 형성하였다.

1829—1831년에 베네수엘라, 에꽈도르가 련방에서 떨어져나가자 1886년에 나라 이름을 꼴롬비아공화국으로 바꾸었다. 1903년에 빠나마가 떨어져나갔다.

독립후 꼴롬비아에서는 자유당과 보수당간의 정권쟁탈전이 계속되여왔으며 력대집권자들은 친미독재통치를 실시하여 왔다.

꼴롬비아반동정권은 1950년에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에 고용병을 파견하여 조선인민에 대한 미제의 학살만행에 가담하였다. 1952년에는 미제와 군사협정을 맺었으며 1956년 3월에는 《공산주의 비법화》에 관한 악법을 채택하고 파쑈독재를 강화하였다.

1948년부터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는 인민봉기와 토지를 위한 농민운동이 앙양되였다. 1951년에 유격대가 조직되였으며 1964년 4월부터 유격투쟁은 본격적으로 전개되였다.

【의회】 상하량원제이다. 의석은 자유당과 보수당이 절반씩 나누어 차지한다.

【정부】 보수당과 자유당이 대통령자리는 4년간씩 륜번제로 하며 각료직은 각각 절반씩 차지하기로 되여있다. 대통령 미싸엘 빠스뜨라나 보레로(1970년 8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0년 7월에 창건. 보수당, 자유당 자유혁명운동, 근로자로조련맹, 공산청년동맹, 민주녀성동맹

【주요사건】 1970년에 현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로작들을 담은 문헌집 《김일성원수의 혁명사상》을 보고따에 있는 보치까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

문헌집에는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를 비롯하여 6건에 달하는 그이의 불후의 로작들과 연설문이 수록되였다.

1970년 꼴롬비아인민무장력은 나라의 북쪽과 동쪽 그리고 서남쪽을 포괄하는 넓은 지역들에서 유격전선을 형성하고 미제와 독재정권에 호된 타격을 가하였다. 각지에서 싸우고있는 유격대들은 튼튼한 경제적지반을 마련하고 근거지들 사이에 통신선을 늘이고 긴밀한 련계를 보장하면서 산간지대로부터 점차 도시들에까지 무장투쟁범위를 확대하였다.

5월 꼴롬비아봉기군은 싼딴데르주 싸바나지역에 새로운 유격전선을 형성하고 인민해방군과의 긴밀한 협동으로 맹렬한 활동을 벌렸다.

인민해방군은 1969년 7월부터 1970년 6월까지 근 1년간에 서북지역에서 반동정부군과 치렬한 전투를 벌려 적 200명을 죽이고 수백명을 부상시켰다.

9월중순 안띠오끼아주와 꼬르도바에 유격전선을 형성하고있는 해방군은 미제의 《군사고문단》의 지휘밑에 유격대에 대한 제3차 《포위소멸작전》을 벌린 적들을 불의에 들이쳐 심대한 손실을 입혔다.

꼴롬비아근로자들은 인민무장력의 투쟁에 고무되여 생존의 권리와 처지개선을 요구하여 투쟁하였으며 싸우는 인도지나인민들에게 전투적련대성을 보냈다.

5월 미제국주의자들이 제놈들의 침략군을 캄보쟈에 들여민 이래 이 나라의 모든 지역들에서 미제를 규탄하는 시위가 련일 계속되였으며 사진전람회, 토론회, 영화상영 등 인도지나 인민들과의 련대성행사들을 벌렸다.

이해 꼴롬비아에서 학생들과 교원들은 학원에 대한 미제의 간섭과 침투를 반대하며 친미독재정권의 반동적인 교육정책을 반대하여 년중 견결히 투쟁하였다.

**경제, 사회** 농촌인구의 3%에 불과한 지주들이 농경지의 55%를 차지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바나나, 코코아, 사탕수수, 감냉이 등이며 커피는 이 나라 수출의 77%를 차지한다.

주요지하자원은 원유, 석탄, 금 등이다. 이 나라에는 250개의 미제독점기업체들이 있으며 여기에는 3만 5천명의 이 나라 로동자들이 고용되여 있다.

또한 미제는 원유공업의 85%이상과 유용광물의 거의 전부를 틀어쥐고있다. 미제독점회사인 《유나이테드》과실회사는 이 나라의 바나나, 코코아생산의 거의 전부를 독점하고있다.

꼴롬비아는 재정경제형편의 악화로 통화팽창이 계속되였으며 1970년에 이 나라 돈의 가치는 6%나 떨어졌다.

1969년 11월부터 1970년 11월까지 물가는 6%나 뛰여올랐다.

학교갈 나이에 이른 어린아이들의 4분의 1 이 학교에 못가고있다. 70만 세대에 달하는 도시근로자들이 집이라고 말할수 없는데서 살고있다.

【출판보도】 신문 푸에르사스 아르마다스(유격대신문), 엘 에헤르씨또 뽀뿔라르 데 리베라씨온(인민해방군기관지), 보스 쁘로레따리아 (공산당주간잡지)

## 에꽈도르

(에꽈도르공화국)

남미대륙의 서북부에 있으며 동남부는 뻬루, 북부는 꼴롬비아와 린접하고 있다. 서쪽은 태평양에 면해있다. 적도 가까이에 있기때문에 기후는 무덥다. 년평균기온은 25°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250mm이다.

【면적】 27만 700km²

【인구】 524만 8,000명

주민의 80%는 인디안과 혼혈인이고 기타는 백인과 흑인이다.

언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끼또(주민 37만 5,000명), 정치, 경제 생활의 중심지는 과야낄(주민 60만명)

**정 치** 1532년부터 3세기동안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었다. 1809년 9월 10일 끼또에서 첫애국위원회가 창설되여 독립을 위한 강력한 폭동이 있었다.

1822년 5월 폭동군은 라틴아메리카독립전쟁 지도자의 한 사람이였던 쑤끄레의 지도하에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로부터 끼또시와 에꽈도르 전지역을 해방하였다. 그러나 독립은 달성하지 못하고 1830년까지 《끼또주》라는 명칭하에 대꼴롬비아련방공화국의 한개 주로 병합되여 있었다.

1830년 완전독립을 위한 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끼또주》는 꼴롬비아련방공화국으로부터 분리되여 에꽈도르공화국을 선포하고 이해 5월 31일 첫 헌법을 채택하였다.

공화국선포이후 정변이 빈번하여 1965년까지 헌법을 10회이상이나 개정하고 거의 50여회나 대통령이 바뀌였다.

【국회】 상하량원제이다.

【정부】 대통령 벨라스꼬 이바라(1968년 9월—), 외무상 호쎄 마리아 뽄쎄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전신은 1928년 5월 16일에 창건된 사회당인데 1930년에 공산당으로 고침, 총비서 뻬드로 사아드. 자유당(집권당), 보수당, 사회기독교민주당, 자유급진당, 사회혁명당, 인민혁명운동, 인민민주동맹, 로동총련맹, 공산주의청년동맹

【주요사건】 2월 28일 에꽈도르당국은 이 나라령해를 불법침범하여 물고기를 잡던 미제독점자본가놈의 고기배와 이에 앞서 23일 일본독점자본가놈의 고기배를 붙들어 벌금을 물씌웠다.

3월 28일 에꽈도르의 진보적력량들 특히 전신전화부문 로동자, 사무원들의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이 나라 인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던 미제의 《올 아메리칸 케이블즈 앤드 라디오》독점회사를 국유화하고 자본가놈들을 내쫓았다.

4월 2일 수도 끼또의 인민들과 학생들은 자기 나라에 기여들어와 《미국식생활양식》을 퍼뜨리던 《에꽈도르미국문화회관》과 꾸바혁명과 국제주의전사 체 게바라의 생애와 혁명활동을 모독한 미국놈의 영화상영에 항의하여 영화관에 폭발물을 던져 이 건물들을 마사버렸다.

10월 27일 에꽈도르애국적무장인원들의 한 소조는 수도 끼또에서 반동정부군 공군사령관이란 놈을 사로잡아갔다. 이로인하여 반동당국은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색작전》소동에 날뛰였다.

4월 학원의 폐쇄와 학생운동에 대한 친미반동당국의 야수적탄압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투쟁이 수도 끼또를 비롯하여 전국을 휩쓸었다.

1970년 10월 5일 아바나에 있는 에꽈도르혁명가들로 조직된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성원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발표하신 천재적로작《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에 대한 연구토론회를 가지고 그이께 드리는 편지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7월 11일 꾸바에 가있는 에꽈도르혁명가들이 아바나에서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조응하여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를 가졌다.

**경제, 사회** 주요경제부문은 농업이며 주민의 약 65%가 이에 종사한다.

경작할수 있는 농경지는 전령토의 약 10%인데 1천 348명의 지주들이 170만ha의 토지를 차지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바나나, 코코아, 커피, 쌀, 감자 등이며 식량은 자급자족하지 못한다.

주요지하자원은 동, 금, 원유, 쇠돌, 은, 석탄, 류황, 천연가스 등이다. 그러나 이것은 미제의 략탈대상으로 되고있다.

미제독점체들은 석유탐사권과 개발권을 탈취하고 해마다 막대한 리윤을 짜내고 있는데 《텍사코 갈프》회사는 50만ha의 석유매장지를 강탈하여 1969년 9월까지만해도 2만 1천바렐이상의 석유를 략탈해갔다. 또한 매일 1억 7천 900만립방피트의 천연가스를 빼앗아가고있다.

공업부문에서 일하는 사람중 80%가 수공업에 종사한다.

1970년에 30만명이상의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였으며 부족되는 학교수만도 약 1만 2천개에 달한다.

【출판보도】 신문 엘 뿌에블로(공산당기관지), 엘 메르꾸리오(보수당계), 라 띠에라

## 秘 魯

### (뻬루공화국)

남미대륙의 서쪽, 태평양연안에 남북으로 뻗어있는 나라이다. 에꽈도르, 꼴롬비아, 브라질, 볼리비아, 칠레와 린접하고있다. 해안지방과 아마존강상류의 밀림지대를 내놓고는 대부분이 고원이다. 평지대는 무더우나 산악지대는 춥다.

【면적】 124만 9,000km²

【인구】 1,300만명(1969년)

주민은 인디안(약 46%), 인디안—구라파인의 혼혈인(약 45%), 백인(약 8%)들로 이루어졌다.

국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리마(주민 171만 5,000명)

**정 치** 1531년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21년 7월 28일에 독립을 선포하였다.

1965년 6월이래 좌익혁명운동당의 지도밑에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는 유격투쟁이 있었다.

1968년 10월 3일 뻬루합동군사령관 겸 륙군사령관이였던 후안 벨라스꼬 알바라도가 군사정변을 일으켜 친미독재정권인 페르난도정부를 전복하고 혁명리사회를 구성하였다.

집권후 벨라스꼬정부는 미제의 식민지리권을 박탈하고 뻬루의 민족적리권을 수호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1968년 12월 뻬루정부는 미국놈들이 40년동안 뻬루에서 략탈수단으로 리용해오던 《국제석유회사》의 유전과 정유소를 무력을 동원하여 몰수하고 체납금과 특혜권사용료지불을 요구하였다.

1970년 4월 15일에는 18개월후에 동광의 정련 및 그 판매를 국유화할데 대한 법령을 발포하였으며 8월 19일에는 미제독점체들이 경영하는 4개의 큰 동광채굴회사들에 수백만딸라의 광산개발자금을 지출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광산개발특혜권을 내놓으라는 새로운 법령을 발포하였다. 8월 31일 뻬루정부는 미제의 뻬루국제은행을 국유화하였다.

1969년 6월에는 《토지개혁법령》을 발포하고 외국인들의 토지를 몰수하고있다.

뻬루정부는 200마일 령해권을 선포하고 이 계선을 침범한 미제의 어선들과 려객 및 화물수송선들을 나포하고 벌금을 받아냈다. 한편 뻬루정부는 1968년 12월에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려행금지법령을 철폐하였다.

【혁명리사회】 1968년 10월 군사정변후 조직된 나라의 최고기관이다.

【대통령】 후안 벨라스꼬 알바라도(1968년 10월—)

【정부】 수상 에르네스또 몬따그네, 외상 에드가르도 메르까도 하린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8년에 창건, 총비서 호르헤 델 쁘라도. 인민행동당, 기독교민주당, 인민당, 인민혁명당, 좌익혁명운동당, 민족혁명운동당, 민족해방전선, 로동총련맹, 근로자련맹, 인민녀성동맹, 뻬루조선친선협회 1970년 8월 13일 결성

**경제, 사회** 경제는 대외수출을 위한 광업과 수산업(물고기가루수출은 세계제1위), 농업이 기본이다.

농경지는 전령토의 약10%에 불과하다.

주요농산물은 사탕수수, 목화, 커피, 벼, 밀, 보리, 강냉이, 담배, 포도, 감자 등이다. 식량은 수입에 의존한다.

주요지하자원은 동, 연, 아연, 쇠돌, 석, 은, 석유, 바나듐 등이다.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으로 말미암아 페루의 동파 석유를 비롯한 채굴공업의 대부분은 미제독점체들이 틀어쥐고 있었으며 대외무역의 절반은 미제에 의존하고있었다.

령해어장은 미제의 어선들에 의하여 계속 략탈당하고있었다.

정변후 페루정부는 미제의 경제적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페루석유자원의 80%를 거머쥐고있던 미제의 《인터내슈널》 석유회사와 그 자매회사들을 국유화하였으며 동광을 국유화하고 광석들의 가공 및 수출에 대한 국가적인 통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은행들을 국유화하거나 개인은행에 대한 국가적통제를 실시하며 외국자본의 활동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1969년 6월에 발포된 《토지개혁법령》에 따라 외국인소유의 토지를 계속 몰수하여 《협동농장》들을 늘이고있다.

법령채택후 1970년 6월까지 150만 ha의 토지를 몰수하였다.

【출판보도】신문 우니다드(공산당기관지), 반데라 로하, 라 쁘렌싸, 보스 델 레벨데

## 볼리비아

### (볼리비아공화국)

남미대륙중부에 있는 내륙국으로서 페루, 브라질, 빠라과이, 아르헨띠나, 칠레와 린접하고있다. 령토의 동북부는 평원이며 서부에는 안데스산맥이 있다. 고원지대의 기후는 따뜻하나 낮은 지대는 매우 덥다.

【면적】 110만km²

【인구】 450만명(1970년)

주민은 인디안(약 53%), 인디안—에스빠냐혼혈인(28%), 기타 에스빠냐인 이다.

언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라 빠스(정부소재지, 주민 35만 5,600명, 법적수도는 수끄레)

**정 치** 16세기부터 약 300년간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25년 8월 독립하였다.

독립후 볼리비아에서는 미제의 책동과 지배층내의 정권쟁탈전으로 인하여 1969년까지 185차의 정변이 있었으며 11차의 헌법개정이 있었다.

1964년에 에스뗀소로친미정권은 꾸바와 외교관계를 끊었다.

1970년 10월 4일 미제의 사촉하에 반동적인 정부군사령관 미란다의 지휘밑에 우익반동세력은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알프레도 오반도를 대통령자리에서 내쫓고 《3인군사위원회》를 조작하였다. 그러나 이 반동세력의 책동은 이전륙군사령관 후안 호쎄 또레스를 중심으로 하는 군대내의 다른 반대세력들에 의하여 진압되고 7일 또레스정권이 수립되었다.

볼리비아인민들은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여 오래동안 간고한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1967년에 볼리비아인민들의 반미반정부무장투쟁은 앙양되였으나 라틴아메리카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의 선두에서 용감히 싸워온 탁월한 국제주의전사 체 게바라 소좌를 잃었다.

일시적시련을 겪은 볼리비아유격대는 1968년에 대오를 재편성하고 다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1970년 8월 27일과 28일 애국적무장인원들은 수도 라 빠스에 진입하여 미제독점회사를 비롯하여 미제의 한 외교관놈의 집 그리고 친미군사정권의 국방성건물 등 9개의 대상을 폭발시키는 습격작전을 벌렸다.

유격투쟁과 함께 청년학생들의 반미반독재투쟁도 치렬히 전개되였다.

3월 13일 볼리비아청년들은 미국무차관보 메이어란놈이 기어드는데 항의하여 강력한 반미시위를 벌렸다.

6월 15일 수도 라 빠스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미중앙정보국이 진보적인 볼리비아대학생 지도자부부를 살해한데 격분하여 반미시위투쟁을 벌리고 미국놈의 령사관, 《볼리비아—미국문화회관》등을 습격파괴하였다.

【국회】 상하량원제이다.

【정부】 대통령 후안 호쎄 또레스 곤쌀레스 (1970년 10월—), 외무상 우아쓰까르 따보르그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에 창건되였다가 1950년 1월에 재건되였다. 제1비서 호르떼 꼴레. 민족해방전선당, 민족혁명운동당, 좌익민족혁명당, 기독교사회당, 로동자총앙련맹, 볼리비아조선친선협회 1962년 5월 9일 창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광업이다. 주민의 80%가 농사를 한다.

주요농산물은 강냉이, 밀, 보리, 감자, 사탕수수, 목화, 담배 등이다. 식량은 수입에 의존한다.

주요지하자원은 주석, 텅그스텐, 안티몬, 창연, 원유 등이다. 주석광은 이나라수출액의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 주석생산량은 자본주의세계 제2위를 차지하나 판매에서 미제의 《제재조치》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있다. 텅그스텐과 안티몬 생산에서도 세계굴지의 나라중의 하나이다.

주민의 평균수명은 남자가 45살이고 녀자는 50살이다. 갓난어린이들 1천명중에서 그의 4분의 1은 1년도 못되여 죽는다. 천주교가 국교로 되여있다.

【출판보도】 신문 우니다드(공산당기관지), 리베라씨온, 엘 문도, 라 빠스, 쁘레센시아, 디아리오, 엘 뿌에블로(공산당주간잡지)

## 빠라과이

### (빠라과이공화국)

남미대륙의 중부에 있으며 북쪽은 볼리비아, 동쪽은 브라질, 서남쪽은 아르헨띠나와 린접하고있는 내륙국이다. 서부는 산림 및 초원지대이다. 령토의 3분의 2는 온대지대이며 3분의 1은 열대지대이다. 년평균강우량은 1천~2천mm이다.

【면적】 40만 6,800km²

【인구】 216만 1,000명

주민의 대부분은 에스빠냐인과 인디안의 혼혈인이다.

언어는 빠라니어와 에스빠냐어를 쓴다.

【수도】 아순씨온(주민 약 30만 5,000명)

**정 치** 1535년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11년 5월 14일에 독립을 쟁취하고 1844년에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864~1870년기간에 빠라과이는 린접 나라들인 브라질, 아르헨띠나, 우루과이를 상대로 하는 전쟁들에서 인구의 절반을 잃었다.

1932~1935년에는 볼리비아와 석유매장지쟁탈을 위한 《차꼬전쟁》이 있었다.

1954년 5월 차베스파쑈정권을 추방하고 집권한 스뜨로에스네르정권은 인민들에 대한 경찰테로통치를 강화하면서 미제에 추종하고있다.

1968년에 협잡과 날조를 통하여 스뜨로에스네르가 종신대통령으로 되였다.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여 빠라과이인민들은 1959년부터 무장투쟁을 비롯한 각종 형태의 투쟁을 강화하였다. 친미반동당국의 야수적인 탄압에도 굴하지않고 1970년 12월에는 수도 아순씨온에 있는 한 감옥에서 빠라과이애국자들의 한소조가 지하갱도를 파고 밖으로 나오는데 성공하였다.

【의회】 상하량원제이다.

【정부】 대통령 알프레드 쓰뜨로에스네르(1954년—)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8년에 창건, 총비서 오스깔 끄레떼. 국가공화당(집권당), 민족해방통일전선, 근로자련맹, 녀성련맹.

**경제, 사회** 주민의 75%가 농사를 한다. 농업에서는 축산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주요집짐승은 소, 돼지, 말, 면양 등이다.

주요농산물은 목화, 담배, 사탕수수, 강냉이, 콩, 과일 등이다. 식량은 수입한다.

지하자원은 석유, 철, 동, 석회석, 대리석 등이다.

림업도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목재는 이 나라 수출액의 50%를 차지한다. 주요경제명맥은 미제독점체들이 틀어쥐고 있는데 특히 석유산지의 3분의 2는 미제의 략탈대상으로 되고있다.

인민생활수준은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낮은 나라중의 하나이다.

화폐는 뻬소이다.

【출판보도】신문 아를란떼(공산당기관지), 라 반과르디아, 라 쁘라따

## 아르헨띠나
### (아르헨띠나공화국)

남미주의 제일 남단에 있으며 서부는 칠레와 린접하고 동쪽은 대서양에 면하고있다. 북부는 열적이 심하며 중부는 온화한 초원지대이다. 중부의 여름평균기온은 25°C이다.

【면적】 280만 8,000$km^2$

【인구】 2,289만 1,000명

주민의 대부분이 에스빠냐와 이딸리아 이주민들의 후손들이다.

국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주민 760만 2,000명)

**정 치** 1516년이래 300년간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16년 7월 9일에 독립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미제가 이 나라에 대한 침투를 강화하였다. 그후부터 미제의 조종에 의한 군사정변이 빈번히 일어나 친미주구들의 정권이 여러차례 바뀌였다.

아르헨띠나인민들은 《자유냐 죽음이냐, 우리는 승리할것이다.》라는 구호밑에 제국주의적압박과 반동적독재를 반대하여 무장투쟁을 비롯한 각종 반정부투쟁을 전개하고있다.

【의회】 상하량원제이다.

【정부】 대통령이 수상을 겸임한다.

대통령 로베르또 마리쎌리노 레빈스톤(1970년 6월—), 외무상 루이스 마리아 데 빠블로 빠르도, 국방상 호쎄 라파엘 까쎄레스 모니에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8년에 조직된 국제사회주의당이 1920년에 공산당으로 개칭되었다. 위원장 빅또리오 꼬도빌라. 인민급진공민동맹, 비타협급진공민동맹, 뻬론당, 인민운동당, 진보민주당, 중간당(인민보수당), 기독교민주당, 사회당, 로동총련맹, 공산주의청년동맹

【주요사건】 1970년에 아르헨띠나 애국적무장대원들은 반동정부군과 경찰놈들의 병영, 독점자본가놈의 은행, 지주놈의 농장 및 기타시설들을 들이쳐 지배층놈들을 공포에 떨게하였다. 1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만 해도 그들은 친미반동군 제7보병련대 무기고(1월), 플로리다시경찰서(4월), 꼬르도바주 떼레이라시 경찰서 등을 들이친것을 포함하여 356차에 걸친 습격작전을 진행하여 많은 무기들을 로획하였고 놈들에게 커다란 손실을 주었다. 10월에는 뚜꾸만주에 있는 제5경찰관구본부와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있는 사관학교를 들부셔놓고 무기를 포함한 많은 군수품을 빼앗아냈다.

이해 애국적무장대오도 더욱 장성강화되었다.

10월에 체 게바라전사 서거에 즈음하여 인민항쟁대가 새롭게 활동을 개시하였으며 12월에는 정의와 자유, 자주권을 가진 조국을 위하여 끝까지 싸울것을 맹세한 민족해방군이 조직되였다.

아르헨띠나인민들속에서는 미제의 침략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이 높아지고 있는데 5월 20일 미국무차관보 메이어란놈이 아르헨띠나에 기여든것을 규탄하여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비롯하여 꼬르도바, 산 후안 등 주요도시들에서 강력한 반미시위들이 진행되였다.

또한 처지개선을 위한 로동자들의 파업투쟁도 광범히 전개되였다. 4월 23일 로동총련맹산하 로동자들의 전국적인 총파업이 일어났다. 반동정부는 《비상사태》까지 선포하고 삼엄한 경계망을 폈으나 24일에는 파업자대렬이 250여만에 달하였으며 6월 2일에는 꼬르도바시에 있는 외래독점자본가놈들의 자동차회사에 고용된 로동자들이 일으킨 무기한 총파업이 주내 전체 공업부문을 휩쓸었다. 4월 꼬르도바시 자동차공업부문의 로동자 1만여명은 8개의 자동차공장을 점거하고 50여명의 악질관리놈들을 잡아가두고 반동경찰놈들과 치렬한 싸움을 벌렸다. 한달이상 계속된 파업은 주내의 일체 공업부문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자동차운행을 중단시켰다.

**경제, 사회** 농업과 목축업이 나라의 경제에서 주되는 부문을 이루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밀, 강냉이, 목화, 담배 등이다. 양털생산이 유명하다.

주요지하자원은 원유, 석탄, 천연가스, 철 등이다. 주요경제명맥은 미제독점체들이 장악하고있다.

채취공업, 자동차공업, 금융 등은 완전히 미제의 통제하에 있다.

1970년 상반년에 이 나라에 대한 미제의 총투자액은 14억 5천만딸라에 달하여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미제의 투자액에서 3번째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외래독점체들의 가혹한 략탈정책으로 기업소의 총파산건수는 1970년 한해동안에 약 4천개에 이르러 이 나라 력사상기록을 내였다.

대외빚은 1968년에 26억 4천 300만딸라였다면 1970년에는 32억 900만딸라에 이르렀다.

생계비는 1970년 한해동안에 22%올랐다.

근로자들에게 들씌운 가렴잡세는 1960년의 1억 6천만뻬소로부터 1970년에는 8억뻬소로 늘어났다. 이해 완전실업자는 70여만명에 이르렀으며 250만명의 근로자들이 빈민굴에서 살고있었다.

【출판보도】 통신 뗄 쁘레스

신문 라 오라(공산당기관지), 반과르디아(사회당기관지), 프렌떼 아르헨띠나(인민운동당기관지), 라 나씨온

## 바르바도스

까리브해의 동쪽끝에 있다.

【면적】 431$km^2$

【인구】 24만 5,000명

주민은 흑인이 77%, 기타 백인, 혼혈인 등이다.

【수도】 브리지타운(주민 1만명)

**정 치** 1627년에 영국침략자들이 기어들어 339년간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다.

바르바도스인민들은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며 민족적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였다.

바르바도스립법회의는 1966년에 독립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고 11월

3월에는 영제국주의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총선거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8일에는 독립을 선포하였다.

**경 제** 주산물은 사탕, 람술, 당밀 등이다.

관광업에서 많은 수입을 얻고있으며 어업도 이 나라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 앙길라

까리브해에 있는 뿌에르또 리꼬의 동쪽 240km 해상에 있다.

【면적】 90km²

【인구】 6,000명(1969년)

주민의 대부분은 흑인이다.

언어는 영어이다.

18세기부터 앙길라를 식민지로 만든 영제국주의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후 까리브해지역에서 인민들의 반영투쟁이 높아가자 제놈들의 식민지통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1958년 앙길라를 비롯한 이 지역의 여러섬들로 이른바 《서인도련방》이란것을 만들어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섬 인민들의 투쟁이 앙양되자 영제국주의자들은 1967년 2월에 앙길라와 그 이웃에 있는 두개의 섬(센트키츠와 네비스)을 합쳐 이른바 《련방》을 다시 조작하였다. 이해 5월 영제국주의자들의 략탈과 인종차별 정책에 격분하여 《련방》에서 떨어져 나온 앙길라인민들은 영제국주의자들의 수차에 걸치는 압력과 책동이 있었으나 1969년초에 독립을 선포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앙길라인민들의 독립을 무력으로 탄압하기 위하여 이해 3월에 두차례에 걸쳐 침략군을 상륙시키고 중요지역을 강점하였다.

앙길라인민들은 자기 나라에 대한 신식민주의적통치를 계속하고있는 영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웠다.

1970년 2월 5일 1천여명의 주민들은 앙길라에 통치를 틀고있는 영식민지행정당국에 몰려가 청사를 포위하고 영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들은 시위를 탄압하려고 미쳐날뛰는 반동경찰놈들과 투석전을 전개하였으며 영식민주의자들에게 《제 소굴로 돌아가라, 앙길라에서 손을 떼라》고 웨치면서 반영투쟁을 힘차게 벌렸다.

경제는 영제국주의자들의 300여년간의 략탈로 인하여 보잘것 없으며 전기도, 전화도, 수도시설도 없으며 의사도 없다.

이 섬 주민들은 소금을 수출한다.

## 그린랜드

북빙양과 대서양 사이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섬이다. 대부분의 지역은 북극권내에 있고 80%는 사람이 살수없는 지대이다. 7월의 평균기온은 령하 28°C이다.

【면적】 217만 5,600km²

【인구】 3만 4,312명

주민의 대부분은 그린랜드인이며 에스키모인도 있다.

【행정중심지】 고드다브

1841년부터 단마르크의 식민지로 되였으며 1951년에 미제가 이 곳에 군사침략기지를 설치하였다.

1953년의 헌법개정에 따라 단마르크의 한개 주로 편입되였다.

경제의 기본은 수렵과 어업이다. 알루미니움제조에 쓰는 크리오라이트와 우란광의 매장량이 풍부하다.

## 산 피에르군도, 미껠롱군도

카나다령 뉴 파운드랜드의 남쪽에 있다.

【면적】 산 피에르군도 26km², 미껠롱군도 216km²

【인구】 5,025명

【행정중심지】 산 피에르

1660년부터 프랑스식민지로 되였다. 경제의 기본은 어업이다.

## 마르티니크도

까리브해의 소안띨제도의 가운데 있다.

【면적】 1,090km²

【인구】 30만 3,000명

주민은 흑인과 혼혈인이 대부분이다.

【행정중심지】 뽀르또 쁘랭스(주민 6만 648명)

1635년에 프랑스령으로 되였고 1946년에 형식상 프랑스의 해외현으로 되였다.

정당, 사회단체로는 공산당(1957년에 창건), 진보당, 통일사회당, 녀성동맹, 공산청년동맹이 있다.

주요농산물은 사탕수수, 바나나 등이다.

## 버무다군도

미국의 뉴욕동남방 1천 80키로메터의 대서양상에 있는 360개의 작은 섬들로 구성되여있다. 대부분이 산호초로 이루어진 섬이고 사람이 살수 있는 섬은 20여개이다.

【면적】 53km²

【인구】 4만 7,230명

【행정중심지】 하밀톤(주민 2,800명)

1684년에 영침략자들의 식민지로 되였다. 1940년에 미제는 이 섬에 해공군침략기지를 건설하였다.

주산물은 바나나, 감자 등이며 관광지로서 유명하다.

## 버진군도

뿌에르또 리꼬와 소안띨제도 사이에 있는 46개의 섬으로 되여있다.

【면적】 344km²

【인구】 3만 5,430명

주민의 대부분은 흑인이고 기타 백인, 혼혈인 등이다.

【행정중심지】 샤르트 아말리(주민 1만 5,000명)

본래 단마르크령이였으나 1917년 3월에 미제침략자들이 헐값으로 빼앗았다.

경제의 기본은 사탕수수재배 및 목축업이다.

## 과들루프도

까리브해의 소안띨제도에 있는 과들루프본도와 그랑드떼르섬을 포함한 5개의 섬으로 되여있다.

【면적】 1,777km²

【인구】 30만 6,000명

【행정중심지】 바스떼르(주민 1만 3,078명)

1946년에 형식상 프랑스의 한개 현으로 되였다.

정당으로는 공산당(1958년에 창건), 사회당 등이 있다.

경지의 절반이상은 사탕수수재배인데 그중 약 3분의 2는 프랑스독점자본가놈들이 차지하고있다.

## 화란령 서인도제도

베네수엘라의 북부 까리브해상에 있으며 6개의 섬으로 이루어져있다.

【면적】 989km²

【인구】 19만 9,600명

【행정중심지】 윌렘스타드(주민 4만명)

1634년부터 화란식민지로 되였다.

## 바하마군도

미국 플로리다반도의 동남쪽 대서양에 크고 작은 약 700개(그 중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은 21개)의 섬과 2천개 이상의 암초로 이루어졌다.

【면적】 1만 1,405km²

【인구】 15만명(1968년초)

주민의 86%가 흑인이다.

【행정중심지】 나쏘(주민 5만 7,800명)

1783년부터 영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되였다가 1964년 1월 7일부터 《내부자치》를 실시하고있다. 그러나 영국놈들이 국방, 내부치안, 대외관계 등제권을 쥐고있다.

1968년 4월 10일 국회선거가 있었다. 선거에서 국회내의 38석중 흑인들의 리익을 표방하는 진보자유당이 29석을 차지하였다.

## 포클랜드제도

남미대륙 남쪽끝의 마젤란해협 동쪽 480km 해상에 있으며 약 200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

【면적】 1만 6,400km²

【인구】 2, 132명

주민의 대부분은 이슬란드인이다.

【행정중심지】 포트스탠리

1840년대에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그러나 아르헨띠나는 이 제도를 자기의 령토라고 하면서 말비나제도라고 부르고있다.

경제의 기본은 목축업(양)이며 펭긴새들이 많다.

## 도미니카도

까리브해의 동쪽 서인도제도에있다.

【면적】 789km²

【인구】 6만 3,600명

【행정중심지】 로조(주민 1만 5,000명)

도미니카도는 1783년부터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인민들의 완강한 반영투쟁으로 1967년 3월 1일 자치권을 쟁취하였다.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산물은 바나나, 감, 귤류, 코코아 등이다. 경지면적은 5만ha이다.

## 쎈트루시아도

까리브해의 동쪽 서인도제도에 있다.

【면적】 616km²

【인구】 9만 6,841명

【행정중심지】 카스트리(주민 2만 5,000명)

쎈트루시아도는 1803년부터 영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되였다.

이 섬인민들은 장기간의 반식민지투쟁으로 1967년 3월 1일 내부자치권을 쟁취하였다.

주요농산물은 바나나, 사탕수수, 코코아 등이다.

## 안티구아도

까리브해의 동쪽 서인도제도에 있다.

【면적】 172km²

【인구】 5만 4,405명

【행정중심지】 쎈트죤스

1632년에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1940년에 미제는 영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여 이 섬의 일부지역에 해공군침략기지를 설치하였다.

1967년 2월 27일 안티구아섬은 자매섬들인 쎈트키츠, 네비스, 앙길라와 함께 《자치권》을 쟁취하였다.

주산물은 사탕수수, 목화, 과실, 담배 등이다.

# 대양주 및 량국

## 오스트랄리아

(오스트랄리아련방)

남태평양상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대륙이다. 전령토의 60%가 고원지대이며 서부는 대부분 사막이다. 남회귀선이 대륙중앙을 지나가므로 북부는 열대, 남부는 아열대기후에 속한다. 년평균 강우량은 250~410mm이다.

【면적】 770만 4, 300km²

【인구】 1,263만명(1970년)

주민의 99%가 영국에서 이주해온 구라파인이다. 원주민은 약 5만명이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수도】 캔베라(주민 8만 5,000명)

**정 치** 1770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은 이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고 《이민단》을 이 대륙에 보냈다. 그후 반세기동안 이 나라는 영국의 《죄인》들의 류배지로 되여있었다. 《이주민》들은 이 대륙에서 원주민들을 부참히 학살하였다.

1901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은 이 대륙에 분산되여있던 지역적인 식민지들을 통합하여 오스트랄리아련방을 조작하고 저들의 《자치령》으로 선포하였다.

오스트랄리아는 1950년 미제가 도발한 조선침략전쟁에 직접 미제와 한짝이 되여 조선인민들에 대한 학살만행에 참가하였으며 소위 《언커크》성원국으로서 조선인민의 자주적통일을 방해하고있는 우리의 적대국가이다.

오스트랄리아는 미제의 침략적군사동맹인 《안쥬스》와 《세아토》에 가담하였으며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적극 추종하면서 동남아세아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을 막아보려고 책동하고있다.

오스트랄리아반동당국은 1968년부터 말레이시아에 제놈들의 침략군을 배치하고 영제국주의자들을 대신하여 영련방성원국들에서의 반제반정부무장투쟁을 탄압하는데 적극 동원되고있다.

뿐만아니라 오스트랄리아반동정권은 인도지나침략전쟁에 가담하여 1967년부터는 남부월남에 침략무력을 파견하였으며 1970년 5월에는 미제가 캄보쟈에 대한 대규모적인 침략전쟁을 감행하자 이를 적극 비호하면서 캄보쟈괴뢰도당에게 군사 《원조》를 주겠다고 떠벌였다.

【의회】 상하량원제이다.

【정부】 자유당파 지방당의 련립정부이다. 수상 존 고턴(1968년 1월—), 외무상 윌리암 맥마혼, 국방상 맬콤 프레이저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10월 30일 창건. 자유당(집권당), 지방당(집권당), 레이버당, 로동조합리사회, 유레카청년동맹, 공산주의청년운동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목축업이다.

주요농산물은 밀이며 귀밀, 보리, 사탕수수, 감자 등이다. 축산물로는 양털, 육류, 가죽 등이 있다. 양털생산이 농업생산액에서 중요자리를 차지한다.

지하자원으로서는 석탄, 보크사이트, 철, 연, 주석 등이 있다.

경제는 미영제국주의자들에게 완전히 예속되여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미영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군수공업이 창설되였다. 미영독점회사를 포함한 100여개의 독점회사들이 이 나라의 경제명맥을 장악하고있다.

【출판보도】 신문 뱅가드(공산당기관지)

## 뉴질랜드

오스트랄리아의 동쪽에 있는 남북 2개의 섬과 기타 섬들로 이루어져있다. 해양성기후로서 추위와 더위의 차가 적다.

【면적】 26만 8,700km²

【인구】 267만 7,000명

주민의 대부분이 영국인이고 원주민은 약 19만명 있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수도】 웰링톤(주민 25만 5,700명)

**정 치** 1769년부터 영국침략자들이 침입하여 원주민을 대량학살하고 1804년에는 뉴질랜드를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20세기초에 이르러 뉴질랜드에서 독립투쟁이 앙양되여 1907년 9월 26일에는 영련방내의 자치령으로 독립하였다. 뉴질랜드는 1950년 미제가 도발한 조선침략전쟁에 참가한 미제의 추종국가이다.

뉴질랜드는 1951년에 《안쥬스》동맹, 1954년 9월에는 《세아토》 등 침략적군사동맹에 가담하였으며 1967년부터는 미제의 월남침략전쟁에 침략군을 파견하여 월남인민들에 대한 학살만행에 참가하고있다.

1970년에 뉴질랜드인민들은 미제의 인도지나침략전쟁과 미제에 적극 추종하고있는 반동당국의 반인민적정책을 반대하여 년중 줄기찬 투쟁을 벌렸다.

【국회】 일원제이다.

【정부】 수상 케이트 홀리오크(1966년 11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에 창건. 국민당(집권당), 레이버당, 사회신용당, 자유당, 로동총련맹, 진보청년동맹, 녀성동맹

**경제, 사회** 농목축업이 기본으로 되고있다. 농업생산에서 축산물이 90%이상 차지한다. 특히 양털생산이 많다. 석탄, 철, 금, 은,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다.

공업은 경공업이 위주로 되고있는데 주로 빠터와 치즈를 생산하는 축산물가공공업이다. 그 밖에 펄프공업, 전력공업등이 있다.

경제는 외래독점자본가놈들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다.

【출판보도】 신문 도미니온, 썬데이 타임스

## 서부사모아

서태평양상에 있는 9개섬으로 이루어져있다.

【면적】 2,946km²(그중 우포르도가 1,113km², 사바이도는 1,820km²)

【인구】 11만 9,000명

【수도】 아피아(주민 2만명)

**정 치** 1919년에 뉴질랜드의 《위임통치령》으로서 뉴질랜드의 관할하에 있었다.

1927년에 대중적인 반제민족해방단체인 《마우》가 발족하여 외래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1962년 1월1일 독립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동부사모아는 미제의 강점하에 있으며 사모아인들은 나라의 인공적분렬을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다. 아피아항은 미제의 군사기지로 되여있다.

【국가원수】 말리에또아 타누말릴리 2세

【립법회의】 최고립법기관이다.

【정부】 수상 피아메 파이므이나 마따파 를리누우 2세

**경 제**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토지전체가 화산질이다. 좋은 토지는 영식민주의자들의 코코아농장으로 되고있다.

주산물은 야자, 바나나, 코코아 등이다.

## 미크로네시아

### (남양군도)

필리핀동쪽의 태평양상에 있는 마리아나군도, 카롤린군도, 마샬군도를 포함한 2천 100개의 섬으로 이루어져있다.

【인구】 약 10만명

주민은 프리네시아계 원주민이 다수를 차지하며 그외 필리핀인과 일본인, 미국인들이 산다.

미크로네시아는 제1차세계대전후부터 제2차세계대전까지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위임통치령》으로 있다가 1947년부터 유엔의 《후견령》으로 되였으나 사실상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변되였다.

미제는 오끼나와와 필리핀인민들의 반미투쟁에 부딪쳐 이 지역의 군사기지의 지위가 날로 불안전하여져감에 따라 미크로네시아를 저놈들의 아세아침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내용에 있어서는 식민지, 외형에 있어서는 《독립국가》인·소위《자치령》을 만들려고 책동하나 이 나라인민들의 강한 반항에 부딪치고있다.

## 피 지

남태평양상의 크고 작은 350여개의 섬들로 이루어졌다. 아세아, 구라파로부터 아메리카와 대양주로 오가는 큰 해상 및 항공로의 교차점에 놓여있어 지리적 및 군사전략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기후는 온화하며 매마르다.

【면적】 1만 8,200k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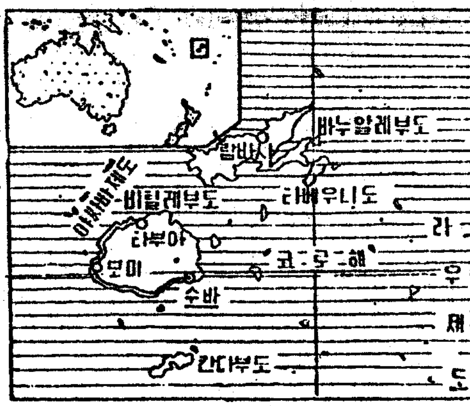
【인구】 52만명(1969년말)

주민은 주로 피지인과 인도인이다.

【수도】 수바

**정 치** 피지는 1874년부터 영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있었다. 민족적독립을 위한 피지인민들의 근 100년간의 오랜 투쟁의 결과 1970년 10월 10일 영련방성원국으로 독립하였다.

【립법리사회】 최고립법기관이다 (1966년 10월에 선거).




【정부】 수상 라트 세르 카미세세 마라

【정당】 련방당, 통일당, 독립당, 민주당

**경제** 주민들은 사탕수수, 야자, 바나나 등을 재배하며 금도 채취한다.

## 남 극

【개황】 1958년 7월 남극관계 12개 나라 대표회의에서 남위 60°이남을 남극권으로 결정하였다.

남극대륙이 군도인가, 단일한 섬인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대륙의 해안선의 길이는 1만 3천km이상이며 면적은 약 1천 400km²이다.

남극대륙은 해발 2천~3천m의 높이를 가진 언덕지대로 되여있으며 도처에 약 4천 500~6천m의 높이를 가진 산들이 솟아있다.

남극의 83%는 얼음과 눈으로 덮여있으며 얼음의 평균두께는 1천 800m, 최고 4천 480m나 된다.

세계의 눈과 얼음 총량의 10분의 9가 남극에 있다. 1958년 1월에 관측된 바에 의하면 남극점은 해면상 275m의 암반우에 두께 2천 450m의 대륙빙이 있고 그 우에 약 30m의 눈과 얼음이 쌓여있는 해발 2천750m지점이다.

【기후】 영구성동결기후로서 평균기온은 령하 30°C이다. 가장 따뜻한 철(11~1월)에는 기온이 령하 5°C, 가장 추운 철(6~7월)에는 령하 60°C까지 내려간다. 1962년에 대륙동부의 쏘련 위쓰또크기지부근에서 기온이 령하 90°C까지 내려갔다는것을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지구상에서 관측된 제일 낮은 기온이다.

1년에 1차의 주야변화가 있는데 9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낮이며 4월부터 8월까지는 밤이다. 남위 50°이남의 전지역을 거의 년중 폭풍이 있으며 아데리해안에서는 풍속이 30m이상되는 날이 년중 300일이나 된다. 그러나 퀸메리해안의 반카화에는 얼지않는 지대(500km²)가 있으며 최고기온 8.3°C, 최저령하 5.5C°되는 지대도 있다.

【자원】 금, 은, 주석, 동, 몰리브덴, 찌따니움, 우란, 망간, 석탄 등이 있다. 조류로는 펭긴, 바다제비, 남극종달새 등이 있으며 300종이상의 식물이 있다. 세계 고래잡이량의 4분의 3이 남극에서 난다. 남극은 과학적탐험과 연구에서 뿐아니라 남반구 대륙들을 련결하는 항행 및 항공운수로 등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북 극

【개황】 북위 66° 30′이북을 북극지방이라고 한다. 면적은 약 2천 500km²인데 그중 약 1천 435km²는 해면이다. 아세아, 구라파, 미주 3대륙의 북쪽일부, 그린랜드의 대부분과 북극해가 북극지방에 속한다.

북극의 대부분은 3m두께의 얼음에 덮여있다. 북빙양의 가장 깊은 곳은 5천 219m이다.

【기후】 기류와 해류의 영향을 받아 남극보다 따뜻하다. 겨울(1—3월)의 평균기온은 극 중심지에서 령하 40°C, 대륙연안은 령하 30°C이다. 여름(7—8월)의 평균기온은 극 중심지에서 0°C, 대륙연안에서는 5°C~9°C이다. 1년중 179일은 밤이 계속된다. 강수량은 년간 200~400mm인데 기온이 낮음으로 습도가 높다. 대기의 상태는 년중 불안정하다. 북극권의 얼음의 두께는 해마다 얇아지고있으며 북극해의 수위는 년간 10mm 높아진다고 한다.

【주민】 약 12만명이 있다. 주요민족의 거주지역과 인구를 보면 동부씨비리와 알라스카로부터 카나다의 양계바지방 및 그린랜드에 걸친 지방에는 에스키모족(약 4만명), 서부씨비리와 노바야제믈랴에는 싸모예드족(약 2만명), 동부씨비리에는 뚜크치족, 알라스카와 카나다 북쪽에는 아메리카인디안족, 구라파의 북방에는 랍프족이 살고있다.

【자원】 석탄, 석유 등이 많으며 철, 동, 금, 은, 백금, 주석 등도 있다. 남쪽바다에는 물고기가 많고 륙지에는 백곰과 여우 등의 짐승이 살고있다.

북극은 아세아, 구라파 및 미주 등 대륙을 련결하는 최단항로이며 군사, 경제상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지대다.

# 국 제 회 의

**중근동위기와 관련한 국제국회의원대회;** 1970년 2월 2일부터 6일까지 아련의 수도 까히라에서 우리 나라 대표단을 비롯한 50여개 나라 대표들의 참가하에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중근동위기와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대회 참가자들은 대회의 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선언은 중동에서 침략책동에 미쳐날뛰고있는 미제와 그 앞잡이 유태복고주의자들을 규탄하고 빼앗긴 자기 땅을 되찾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과 아랍인민들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한다고 지적하였다.

선언은 세계 모든 나라 국회의원들에게 《자기 정부들과 자기 나라 사회여론에 영향을 줌으로써 그들이 중동에서의 평화의 수립을 촉진하며 특히 아랍나라들에 대한 폭격을 즉시 중지시키며 이스라엘군대를 강점된 지역에서 철수시키도록》할것을 호소하였다.

**인도지나인민들의 수뇌자회의;** 1970년 4월 24일과 25일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발기로 라오스와 월남 및 중국 국경지대 한곳에서 진행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를 축하하시여 축전을 보내시였다.

회의는 캄보쟈인민대표단; 라오스인민대표단, 남부월남공화인민대표단 및 월남민주공화국인민대표단들의 참가하에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인도지나의 현사태와 공동의 원쑤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인도지나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고 4월 27일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공동선언에서는 인도지나전역에로 전쟁을 확대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을 일치하게 규탄하고 《매개 나라의 해방과 방위는 그 나라 인민자신의 문제라는 원칙에서 출발하여 각방은 유관측의 념원에 부합되게 호상존중의 원칙에 기초하여 가능한 모든것을 다하여 호상 지지한다는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선언에서는 각방이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최고위급지도자들간, 또는 적절한 대표들간의 회의를 소집하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지적하였다.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라오스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국제회의;** 1970년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아련의 수도 까히라에서 우리 나라 대표단을 비롯한 50개 나라에서 온 대표들과 국제단체들의 참가하에 진행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보내신 전문이 회의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서 랑독되였다.

회의 참가자들은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라오스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결의, 서한, 행동강령 등 일련의 문건을 채택하였다.

결의는 라오스를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정책을 견결히 규탄하고 라오스애국전선의 령도밑에 라오스인민이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여 전개하고있는 영웅적인 정의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라오스인민에 대한 물심량면의 지원을 확대할 것을 세계 모든 나라 정부들과 사회단체들, 국제기구들, 미국인민을 포함한 세계 모든 진보적인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또한 행동강령에서는 1970년 7월 23일부터 30일까지 그리고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를 라오스인민의 투쟁을 지지하기 위한 국제적련대성주간으로 설정한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의 침략을 반대하는 인도지나 근로자 및 인민들과의 련대성을 위한 세계직맹회의;** 1970년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의 베르사이유에서 우리 나라 직맹대표단을 비롯한 60개 나라에서 온 80개단체 대표들의 참가하에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총결의, 세계 근로자들과 직맹들에 보내는 호소문, 월남, 캄보쟈, 라오스의 영웅적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미국인민들에게 보내는 편지 등 일련의 문건들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제3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 1970년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잠비아의 수도 루사카에서 쁠럭불가담을 제창하는 26개나라 수뇌자들을 비롯한 45개나라에서 온 대표단들의 참가밑에 진행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수뇌자회의 앞으로 보내신 축전이 회의 참가자들에게 전달되였다.

회의에서는 지구상에서 식민주의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책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도들, 민족해방운동문제, 인종차별과 인종격리를 반대하는 투쟁문제 등 현시기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 신구식민주의 및 인종주의를 반대하며 자유와 해방, 민족적독립의 공고화를 위한 인민들의 공동위업에 기여하는 절박한 정치, 경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평화, 독립, 발전, 협조 및 국제관계의 민주화에 관한 선언》과 《쁠럭불가담 및 경제 발전에 관한 선언》그리고 동남아세아와 중근동문제, 인종격리와 인종차별문제, 비식민지화문제 등에 관한 10여개의 결의가 채택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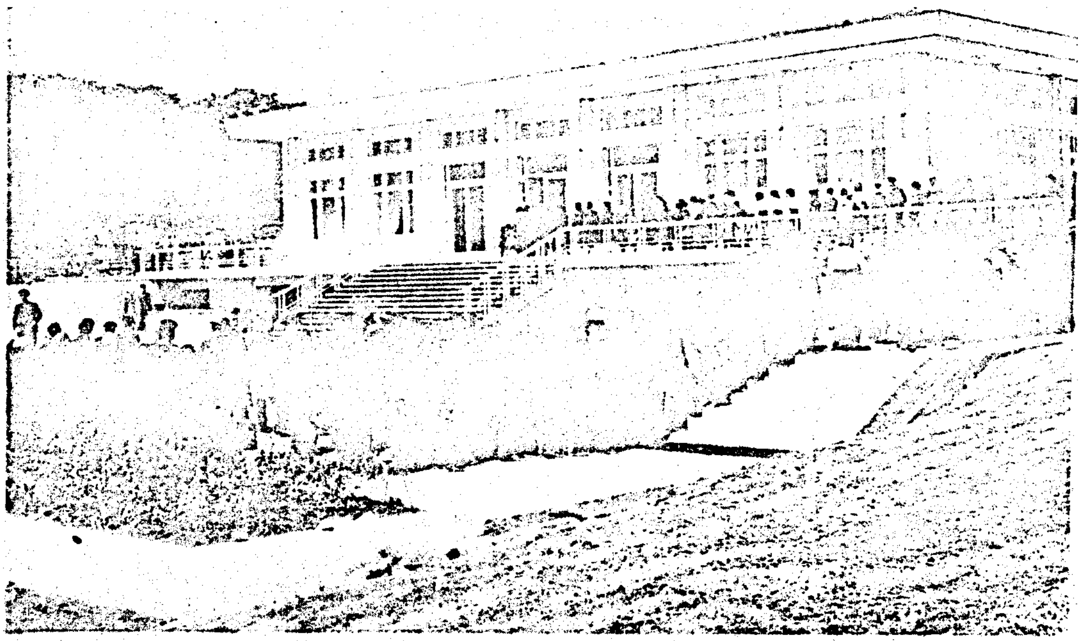
《동남아세아에 관한 결의》에서는 미제침략자들이 인도지나에서 침략전쟁을 더욱 계단식으로 확대하고있는것을 폭로규탄하고 자유와 독립을 위한 인도지나인민들의 계속되는 영웅적투쟁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세계민주청년련맹 제8차대회;** 1970년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웽그리아의 수도 부다페슈뜨에서 우리 나라 사로청대표단을 포함한 세계각국의 청년단체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세계청년들의 반제통일을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진행된 대회에서는 조선에 관한 결의와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할데 관한 결의를 비롯하여 월남, 캄보쟈, 라오스 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원하며 뽀르뚜갈령 아프리카식민지나라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지지하며 꾸바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할데 관한 문건들이 채택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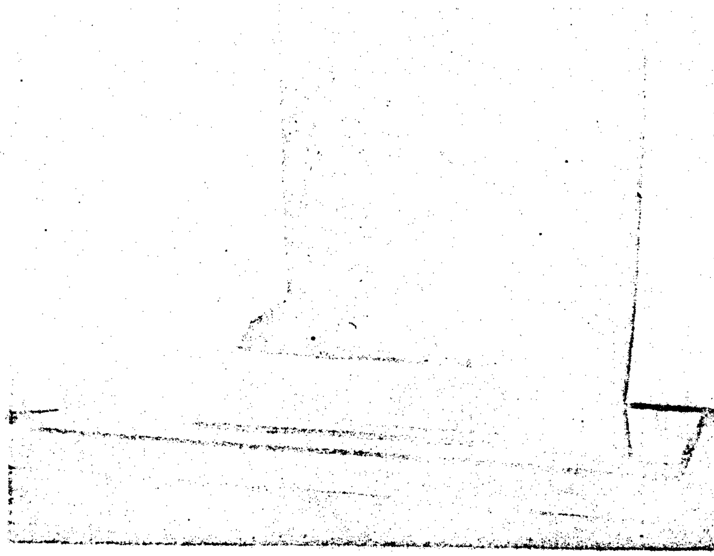
조선에 관한 결의에서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단결된 조선인민과 청년들이 미제를 남조선으로부터 몰아내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서 반드시 최후승리를 달성하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결의에서는 대회참가자들이 해마다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의 기간을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및청년들과의 국제적련대성월간》으로 설정하고 가까운 시기에 조선인민과 청년들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세계청년들의 국제적련대성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지적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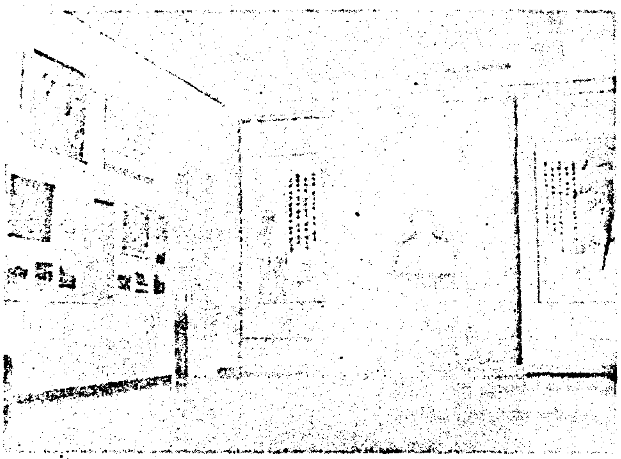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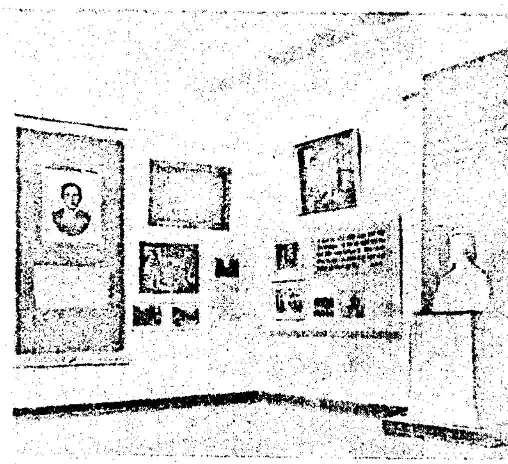
4천만 조선인민의 마음의 고향 만경대에 자리잡은 만경대혁명사적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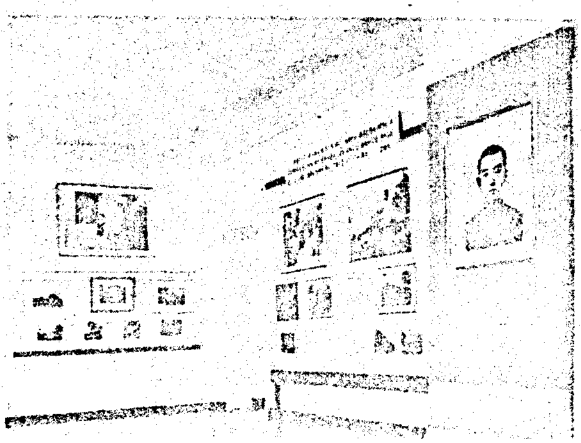
《우리의 혁명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 많습니다. 우리는 자기 세대에 혁명위업을 완수하지 못하면 그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어 그들의 대에 가서라도 완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과 어리신 김일성원수님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아버님이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의 탁월한 지 이신 김형직선생의 혁명투쟁과 관련한 여러 자료들이 진렬되여있는 방 (우의 왼쪽)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어머님 탁월한 녀성혁명활동가이신 강반석녀사의 나는 혁명적생애와 관련한 자료들이 진렬되 는방 (우의 오른쪽)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의 어린 시절과 초기혁명활동시기와 관련한 료들이 모셔져있는 방 (아래)

# 조선녀성해방운동에 대하여

## 조선민주녀성동맹창립 스물다섯돐기념 보고회에서 한 김성애동지의 보고

동지들!

우리는 얼마전에 우리 인민의 향도적력량이며 우리 혁명의 참모부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커다란 감격속에서 열렬히 맞이하였습니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는 우리 당과 인민의 생활에서 커다란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사변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대회에서 지난 기간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와 성과들을 전면적으로 심오히 분석총화하시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강령적과업을 뚜렷이 밝혀주시였습니다.

당대회에서 하신 수령님의 력사적보고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이 나아갈 명확한 길을 명시한 위대한 혁명적문헌이며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을 새로운 승리에로 확신성있게 이끄는 위대한 투쟁의 기치입니다.

지금 온 나라는 당대회에서 하신 수령님의 력사적인 보고에 접하여 크나큰 환희와 끝없는 흥분으로 들끓고있으며 앙양된 분위기에 휩싸여있습니다. 온 당과 전체 인민이 수령님의 력사적보고를 열광적으로 지지환영하고있으며 대회가 내놓은 강령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하려는 새로운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온 나라와 전체 인민이 이처럼 혁명적분위기로 들끓고있는 벅찬 환경속에서, 우리 인민과 모든 녀성들이 휘황한 앞날에 대한 커다란 포부와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당대회에서 수령님께서 주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는 영광스러운 때에 조선민주녀성동맹창립 25주년을 뜻깊게 기념합니다.

우리 녀성들의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나는 녀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당과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혁명과 건설을 위하여 간고분투하여온 그리고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주신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고있는 전체 우리 녀성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나는 또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적 탄압과 테로에도 굴하지 않고 자유와 해방과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영용하게 싸우고있는 남조선의 녀성혁명가들과 모든 애국적녀성들에게 열렬한 지지성원을 보냅니다.

이와 함께 나는 미일반동들을 반대하고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자기들의 민주주의적민족적권리를 위하여 굴함없이 싸우고있는 재일조선녀성들에게 열렬한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조국의 통일독립과 녀성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나라의 륭성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수많은 녀성혁명투사들이 희생되였습니다.

나는 먼저 조선녀성운동의 탁월한 선구자이시며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우리 녀성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신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녀사에게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나는 또한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친 영웅적녀성혁명투사들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청춘을 바친 녀성영웅전사들과 전후 파괴된 인민경제를 복구하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 용감하게 싸우다 희생된 녀성혁명활동가들에게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공화국남반부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영용하게 싸우다 희생된 남조선의 녀성혁명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녀성들의 해방을 위하여 녀성혁명렬사들이 남긴 공적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력사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동지들! 조선민주녀성동맹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발기와 지도에 의하여 1945년 11월 18일에 창립되였습니다. 조선민주녀성동맹이 창립된지는 비록 스물다섯해밖에 되지 않지만 그 력사적뿌리는 매우 깊습니다. 조선민주녀성동맹은 자기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가지고있으며 조선녀성운동은 40여년의 영광스러운 력사를 가지고있습니다.

우리 나라 근로녀성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와 방조밑에 강반석녀사께서 1926년에 부녀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신 때로부터 자기의 참다운 혁명조직을 가지고 조국의 자유독립과 녀성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참가하기 시작하였으며 바로 그때로부터 우리 나라 녀성운동은 맑스-레닌주의기치를 따라 건전한 토대우에서 발전하여왔습니다.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우리 녀성들은 남성들과 같이 지하와 산속에서, 감옥과 교수대에서 굴함없이 용감하게 싸웠으며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해방후 녀성들은 조선민주녀성동맹의 기발아래 굳게 뭉쳐 공화국북반부에서 제반민주개혁을 실시하며 인민정권을 건설하고 나라의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 적극 참가하여 새 조국 건설사업에서 커다란 위훈을 세웠습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녀성들은 손에 총을 들고 전선에 나가 적들과 용감하게 싸웠으며 후방을 믿음직하게 지켜냈습니다. 전후에 녀성들은 파괴된 인민경제를 복구하며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는 투쟁에 적극 참가하여 조선녀성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영웅적기개를 남김없이 시위하였으며 천리마의 대진군운동을 벌려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우리 녀성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기간 조국과 인민 앞에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렸으며 우리 나라 녀성운동은 40여년간의 영광찬란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 녀성들과 조선녀성운동이 걸어온 길은 투쟁과 전진의 빛나는 로정이며 승리와 영광으로 가득찬 자랑스러운 로정입니다.

### 1

동지들!

조선녀성운동은 강반석녀사께서 부

녀회를 조직하신 때로부터 일제의 식민지기반에서 나라가 해방될 때까지의 반일민족해방투쟁시기, 해방후 평화적건설과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시기의 세개의 력사적단계에 걸쳐 발전하여왔습니다. 매 력사적단계에서 녀성운동앞에는 녀성문제해결을 위하여 본질적의의를 가지는 중대한 혁명과업이 제기되였으며 그것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직접적인 지도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되였습니다.

반일민족해방투쟁시기 조선녀성운동앞에는 우리 나라의 모든 녀성들을 식민지적 및 봉건적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며 온갖 인신적예속과 사회적불평등에서 해방하여야 할 력사적과업이 나섰습니다.

지난날 우리 나라 녀성들의 사회적처지는 참으로 비참하였습니다.

여러 세기에 걸치는 봉건통치밑에서 조선녀성들은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당하였으며 온갖 천대와 멸시를 다 받아왔습니다. 봉건통치밑에서 녀성들은 정치적 권리와 자유도 가질수 없었으며 사회정치생활에 전혀 참가할수 없었습니다. 녀성들은 오직 무제한한 착취와 압박의 대상이였으며 봉건통치배들의 향락의 희생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봉건사회에서 녀성들은 《남존녀비》, 《녀필종부》와 같은 봉건유교도덕의 구속밑에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초보적인 권리마저 가지지 못하고 인신적으로도 완전히 무권리한 상태에서 살아왔습니다. 녀성들은 자기 이름도 가지지 못하였고 상품과 같이 돈에 팔려다녔으며 남성들의 구속과 시부모들의 봉건적인 구박밑에서 뒤고방에 갇혀 세상과 동떨어진 상태에서 이른바 시집살이라는 종살이같은 생활을 하여왔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식민지노예화정책으로 말미암아 조선녀성들의 처지는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일제의 파쑈적폭정밑에서 전체 조선인민들과 더불어 조선녀성들은 전대미문의 민족적억압과 착취를 받았으며 노예적굴종을 강요당하였습니다. 조선녀성로동자들은 장시간의 노예로동을 하고도 가장 낮은 기아임금을 받았으며 출가한 녀성들과 임신한 녀성들은 일자리에서 사정없이 쫓겨났습니다.

조선녀성들은 지난날 이와 같이 낡고 썩어빠진 봉건통치와 완고한 봉건유교도덕의 구속과 가혹한 일제의 식민지기반아래서 2중3중의 억압과 착취를 받았으며 피눈물나는 노예생활을 강요당하였습니다. 지난날 조선녀성들의 처지는 사람으로서는 차마 눈뜨고 볼수 없으리만큼 참혹하고 눈물겨웠습니다. 조선녀성들의 생활은 더는 참을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으며 그들은 살아나가기 위하여 투쟁에 나서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1920년대에 이르러 이른바 20세기문명이라고 하는 세계 여러 나라 자본주의의 여파속에서 우리 나라의 일부 녀성들이 사회운동에 진출하였으며 녀성조직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회운동에 나선 녀성들은 거의 다 부르죠아 또는 소부르죠아 출신들로서 행세식녀성운동자들이였으며 녀성조직들은 근로녀성대중속에 뿌리를 박지 못하고 상층에 떠있었습니다. 당시 녀성들앞에 나서는 사회정치적문제, 녀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마땅히 우리 나라 근로녀성들의 기본부대를 이룬 농촌녀성들속에 들어가 녀성조직과 녀성운동을 확대발전시켜야 할것이였으나 그들은 농촌의 근로녀성들에게는 눈도 돌리지 않고 녀성운동을 주로 도시의 일부 부르죠아녀성들에 국한시켰던것입니다. 그때 서울과 일부 도시들에 《동우회》, 《근우회》를 비롯하여 녀성조직들이 나왔으나 그것은 부르죠아녀성들의 조직이였지 우리 나라 근로녀성들의 조직으로는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시기 우리 나라 녀성운동이 부르죠아적 및 소부르죠아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였다는것을 말하여줍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략탈정책이 더욱 강화되고 식민지적공업이 일부 발전되는데 따라 우리 나라 로동계급의 대렬이 점차 늘어났으며 녀성들속에서 로동계급이 형성되였습니다. 로동계급이 장성하여 투쟁무대에 나서면서부터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운동이 발전하였으며 이때로부터 조선녀성운동은 공산주의운동의 영향밑에서 진행되였습니다. 그러나 초기조선공산주의운동은 일제의 가혹한 박해와 파괴책동, 종파분자들의 분렬책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제한성과 부족점을 가지고있었으며 녀성운동에 대하여서는 눈도 돌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시기 조선녀성운동은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요람기에 있던 많은 결함과 부족점을 자체내에 가지지 않을수 없었으며 1920년대 전반기까지는 아직 제 궤도에 들어설수 없었습니다.

조선녀성운동은 오직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을 령도하시게 된 때로부터 비로소 가장 올바른 지도리론과 전략전술에 의하여 지도되기 시작하였으며 자기의 참다운 발전의 길을 걷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녀성문제를 사회혁명의 근본문제의 하나로 인정하시고 녀성문제해결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우리 녀성들을 올바른 해방의 길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벌써 초기혁명활동시기 가는 곳마다에 반일부녀회들을 조직하여 근로녀성들을 묶어세우고 각성시키시였으며 조국의 광복과 녀성해방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하시였습니다. 가혹한 착취와 억압에 시달리던 우리 나라 근로녀성들은 그이의 직접적인 령도를 받으면서부터 비로소 세기적인 잠에서 깨여나 력사무대의 떳떳한 주인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지도와 방조밑에 강반석어머님께서는 1926년부터 부녀회를 조직하시고 조국의 독립과 녀성들의 사회적해방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녀성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을 높여 그들로 하여금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고 봉건적 질곡과 구속에서 자신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진행하시는 한편 부녀회조직을 더욱 강화하며 광범한 근로녀성들속에서 조직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시였습니다.

강반석어머님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많은 녀성들이 부녀회조직에 뭉치였으며 원수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던 녀성들이 각성되여 자유와 해방을 위한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게 되였습니다. 부녀회조직들은 광범한 근로녀성들속에 깊이 뿌리박았으며 넓은 지역에서 빨리 확대발전되였습니다. 부녀회는 녀성들의 정치사상교양단체였을뿐아니라 녀성들속에서 혁명투쟁을 직접 조직하고 지도하는 참다운 혁명조직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와 방조밑에 강반석어머님께서 조직지도하신 부녀회와 그의 빛나는 활동은 우리 나라에서 맑스-레닌주의적녀성해방운동의 시초를 열어놓았으며 녀성운동의 발전을 위한 튼튼한 터전을 닦아놓았습니다.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은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을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켰을뿐만아니라 녀성해방운동에서도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녀성들의 사회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는 낡은 사회제도를 뒤집어엎어야 하며 우리 나라에서는 무엇보다먼저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인정하시고 녀성들을 반일민족해방투쟁에로 적극 동원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대초에 있은 부녀회열성자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녀성들의 진정한 해방, 이것은 빼앗긴 조국을 다시 찾고 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그런 사회를 세울 때에만이 가능하다. 다시말하면 녀성들의 진정한 사회정치적해방을 가져오자면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을 우리 조국에서 몰아내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녀성들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여야만 자기들의 사회적해방을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깊이 확신하고 수령님을 따라 반일민족해방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섰습니다. 조선의 수많은 우수한 딸들이 항일유격대에 참가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조국의 광복과 녀성들의 자유와 권리를 위하여 오랜 기간 피어린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항일유격대에서 녀성들은 용감한 전투원으로, 능숙한 정치공작원으로 자기앞에 맡겨진 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전투에서 언제나 앞장에 서서 원수들에게 불벼락을 안겼을뿐아니라 온갖 간난신고를 이겨내면서 부대의 후방사업을 담당수행하였으며 적들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적통치구역에 들어가 녀성대중을 각성시켜 혁명조직에 묶어세우며 인민들을 반일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간고한 지하투쟁을 벌렸습니다.

일제침략자들의 그 어떠한 파쑈적폭압과 야수적고문도, 감옥과 교수대도, 무서운 굶주림과 혹독한 추위도 승리를 위한 굳센 조선녀성혁명투사들의 백절불굴의 투지를 꺾을수 없었으며 그들의 전진을 가로막을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녀성혁명투사들은 조국의 자유독립과 녀성들의 해방을 위하여 온갖 난관과 애로를 용감하게 뚫고나갔으며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영웅적으로 싸웠습니다. 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하기 위하여 일제 침략군 토벌대놈들을 단신으로 맞받아나가 이리저리 끌고다니며 무리죽음을 준 용감한 녀전사들과 원수들에게 체포되어 눈을 빼앗기고 젖가슴을 도려우면서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외치며 끝까지 혁명적지조를 지켜 싸운 불굴의 녀성투사들, 모진 추위와 굶주림에도 이겨내며 제때에 군복을 만들어 부대의 전투행동을 보장한 강의한 재봉대원들을 비롯하여 항일유격대 녀대원들의 영웅한 투쟁은 우리 나라 녀성들의 귀감으로 되였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수많은 녀성들이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백절불굴의 녀성혁명투사로,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자라났습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녀성들을 직접 유격대에 받아들여 혁명가로, 공산주의자로 키워주시였을뿐아니라 유격근거지에 인민정권을 세우고 제반 민주주의적개혁들을 실시하여 우리 인민들과 녀성들의 세기적념원을 풀어주시였습니다. 유격근거지에서 실시된 여러가지 민주개혁의 결과 우리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남녀평등권이 실현되고 열여섯살이상의 모든 녀성들에게 남성들과 똑같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부여되였으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완전한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가 보장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유격근거지에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녀성운동앞에 나서는 녀성해방의 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 녀성운동발전에서 획기적인 사변이였으며 녀성해방의 본보기로, 모범으로 되였습니다.

유격근거지를 창설하시고 녀성들에게 자유와 권리를 찾아주신 수령님께서는 녀성들을 혁명가로, 사회정치활동가로 키워주시기 위하여 부녀회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무장투쟁과 조선혁명전반을 지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주 부녀회원들의 회의에 친히 참석하시여 부녀회원군들에게 사업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으며 녀성들의 혁명의식과 계급적각성을 높여주시였습니다.

수령님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핌 속에서 부녀회는 유격근거지에서는 물론 반유격근거지와 적통치구역에서까지 급속히 확대되였으며 녀성들의 믿음직한 반일혁명조직으로 강화발전되였습니다. 녀성들은 부녀회의 조직정치생활을 통하여 단련되고 각성되였으며 견결한 녀성혁명가로 자라났습니다.

유격근거지의 녀성들은 부녀회조직에 굳게 뭉쳐 한손에는 총을 들고 다른 한손에는 낫과 호미를 들고 적들의 그칠줄 모르는 공격으로부터 유격근거지를 보위하면서 밭을 갈고 씨를 뿌렸으며 유격대를 원호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소왕청과 십리평, 처창즈와 요영구를 비롯한 수많은 유격근거지들에서 부녀회원들은 열번 넘어지면 열번 다시 일어나고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서 자기들에게 자유와 권리를 주고 보람찬 새 생활을 보장하여준 인민주권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굴함없이 싸웠습니다. 유격근거지 녀성들의 이러한 영웅적투쟁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녀성들이 자기 조직에 뭉쳐 해방투쟁에 나설때 얼마나 위대한 힘을 나타내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새 사회 건설에서 녀성들이 노는 중대한 역할을 실증하여주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성격과 우리 나라 녀성운동발전의 경험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서 남녀 차별없는 인률적평등과 부녀의 사회상대우를 제고하고 녀자의 인격을 존중할것이라고 녀성해방의 과업을 정식화하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 녀성운동발전의 력사적총화이며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녀성문제해결을 위한 강령의 완성이였습니다. 이 강령은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었으며 세기적인 압박과 질곡에서 신음하던 우리 나라의 모든 녀성들에게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었습니다. 녀성문제해결을 위한 수령님의 위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더욱더 많은 녀성들이 혁명의 길에 떨쳐나섰으며 그들은 항일무장대오와 조국광복회에 망라되여 지하와 산속에서 혁명이 승리하는 날까지 견결히 싸웠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의 전행정은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의 시기였으며 동시에 조선녀성들의 사회적해방을 위한 보람찬 투쟁의 로정이였습니다. 15성상에 걸치는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은 우리 나라에서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켰을뿐아니라 녀성운동의 가장 빛나는 전통을 이루어놓았습니다.

동지들!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과 녀성운동의 고귀한 경험들은 해방후 우리 나라 녀성운동발전과 녀성문제해결을 위한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으며 그것은 조선민주녀성동맹에 의하여 훌륭히 계승발전되였습니다.

해방후 위대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 녀성운동에서는 비약적인 전진이 이룩되였으며 획기적인 전변이 일어났습니다.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시여 일본제국주의자들을 격멸하시고 조국에 개선하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의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녀성문제 해결에 선차적관심을 돌리시고 우리 인민의 향도적력량이며 조선혁명의 참모부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신 다음 인차 조선민주녀성동맹을 손수 조직하여주시였습니다.

조선민주녀성동맹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나라 녀성들은 비로소 전국적범위에서 자기의 합법적인 정치조직을 가지게 되였으며 지난날 온갖 천대와 압박 속에서 신음하던 우리 녀성들이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사회정치생활에 떳떳이 참가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이때로부터 우리 나라 녀성운동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우리 녀성들앞에는 희망찬 새 생활의 대로가 펼쳐지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녀성문제를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인정하시고 우리 녀성들을 식민지적 및 봉건적 압박과 예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여주시였으며 우리 모든 녀성들을 보람찬 새 생활의 길로 확고히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와 배려밑에 남녀평등권법령이 발포됨으로써 우리 녀성들은 수천년동안 받아오던 멸시와 학대, 2중3중의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방되고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게 되였습니다. 특히 지난날 정치밖에서 버림받아오던 우리 녀성들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자기의 손으로 각급 인민정권기관대의원들을 선거하고 또 자신들이 직접 인민의 대표자로 선거되여 나라일을 의논하는데 참여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 녀성운동발전에서의 하나의 커다란 사변입니다.

해방된 우리 녀성들앞에는 전체 인민들과 함께 일제의 식민지적잔재와 봉건적잔재를 청산하며 각급 인민정권기관들을 건설하며 사회정치생활에 적극 참가하여 새 조국 건설에 크게 이바지하여야 할 중대한 임무가 나섰습니다. 조선민주녀성동맹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모든 녀성들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로 적극 조직동원하였습니다. 우리 녀성들은 남자들과 어깨겯고 새 조국을 건설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떨쳐나서 토지개혁, 산업국유화를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며 각급 인민정권기관들을 조직하고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창설하는 사업에 적극 참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녀성들은 일제가 파괴하고 간 나라의 경제를 복구하며 부강한 새 조국의 경제적토대를 닦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였습니다.

해방직후 우리 녀성들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정치사상수준과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는것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녀성들을 나라와 사회의 참된 주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들속에서 문맹퇴치사업과 문화계몽사업을 강화하며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통하여 녀성들속에서 일제사상잔재와 낡은 봉건유습을 뿌리빼고 그들의 정치적각성과 혁명의식을 높이도록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녀성동맹은 수령께서 제시하신 이 전투적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로 녀성들을 적극 조직동원함으로써 해방후 몇해 안되는 짧은 기간에 우리 녀성들의 문화수준과 정치사상수준을 빨리 높일수 있게 되였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녀성들의 사회경제적처지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그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되였으며 우리 녀성들은 당의 령도밑에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아가는 단합된 하나의 커다란 혁명력량으로 자라나게 되였습니다.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아 해방후 참된 새 생활의 길에 들어선 우리 녀성들은 위대한 수령의 올바른 령도밑에 새 조국을 건설하는 보람찬 투쟁과정을 통하여 나라와 사회의 주인으로, 인민정권의 주인으로 자라났으며 우리 혁명대오의 떳떳한 일원으로 되였습니다. 해방후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의 성스러운 투쟁속에서 민주녀성동맹은 우리 나라의 광범한 근로녀성들을 자기 조직에 망라한 혁명적인 강력한 투쟁조직으로 발전하게 되였습니다.

동지들!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강요된 3년동안의 조국해방전쟁기간에 조선민주녀성동맹은 《모든것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수령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모든 녀성들을 전쟁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였습니다. 우리 녀성들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자기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가져다준 우리의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지키기 위하여 전선과 후방에서 영웅적으로 투쟁하였습니다.

당과 수령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우리의 수많은 젊은 녀성들은 손에 무장을 틀어잡고 인민군대오에 서서 전선으로 용감하게 달려나아갔습니다. 그들은 고사기관총수와 통신병으로,군의와 간호원으로서 적탄이 우박치는 전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조국의 촌토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바쳐싸웠습니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기간에 우리 녀성들은 전선에 나간 남편과 아들, 오빠들을 대신하여 후방을 튼튼히 지키며 전시생산과 전선원호사업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우리의 로동녀성들은 《전선지원돌격대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운동들을 힘있게 벌려 각종 군수품들을 적극 생산하여 전선에 보냈으며 농촌녀성들은 남자들을 대신하여 적들의 야만적폭격속에서도 농사일을 완전히 맡아가지고 전시식량을 생산보장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녀성들은 《전선원호작업대》, 《수송대》를 비롯한 여러가지 전선원호대를 조직하여가지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선에 탄약과 식량을 날랐으며 적들의 폭격으로 끊어진 길과 다리를 제때에 복구하여 전시수송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녀성들은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한사람같이 일떠서서 무비의 희생성과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조국해방전쟁의 승리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실로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의 녀성들은 나라의 참된 주인으로 된 조선녀성들의 백절불굴의 투지와 영웅적기상을 뚜렷이 시위하였으며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습니다. 조국의 산과 강, 거리와 마을들에는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우리 녀성들의 영웅적투쟁자취가 스며있으며 그것은 조국의 륭성발전과 함께 후대에 길이 전하여질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녀성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여주시면서 조선녀성들이야말로 영웅적녀성들이며 어느 나라에서도 볼수 없는 강의한 전투적인 부대라는 영예로운 높은 칭호를 주시였습니다.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을 통하여 우리 녀성들의 힘은 무궁무진하며 모든 녀성들이 자기의 처지를 자각하고 수령의 올바른 령도밑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때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가를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의 간고한 시련속에서 우리 녀성들은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각성되고 단련되였으며 그들속에서 수

많은 녀성간부들이 자라나게 되였습니다.

우리 녀성들은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영웅적투쟁과정을 통하여 사회의 일익을 담당하는 더욱 위력한 혁명력량으로 되였다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동지들!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영웅적조선녀성들의 혁명적기개를 뚜렷이 시위한 우리 녀성들은 전후에 인민경제를 복구건설하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커다란 업적을 쌓아올렸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녀성들은 3년동안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딸들을 잃었으며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집까지도 다 잃었습니다. 미제침략자들의 야만적폭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것이 다 재더미로 되였으며 전후 우리에게는 말그대로 맨주먹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녀성들은 결코 락심하지 않았으며 난관앞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우리 녀성들은 당이 있고 위대한 수령의 령도가 있고 정권이 있으며 령토가 있고 인민이 있는 이상 재더미속에서라도 다시 일어나 보람찬 새 생활을 창조할수 있다는 수령님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모두다 남성들과 함께 전후복구건설사업에 한결같이 떨쳐나섰습니다. 나라의 가는곳마다에서 우리 녀성들은 모든 근로자들과 함께 벽돌한장 성한것 없는 재더미를 헤치고 집을 짓고 공장을 일떠세웠으며 자기의 재능과 정력을 다 바쳐 부강한 사회주의조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였습니다.

전후 녀맹조직들과 우리 녀성들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조국해방전쟁기간에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부모를 잃은 어린이들을 잘 키우는 문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의 그 어려운 시기에도 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녀성들을 간부로 키우기 위하여 인민경제학원을 내오게 하시는 한편 이미 전쟁시기에 조직하여주신 고아원, 초등학원, 혁명학원들을 튼튼히 꾸리고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잘 키우도록 온갖 배려를 돌려주시였습니다. 녀맹조직들은 녀성들속에서 전쟁고아들을 잘 돌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였으며 고아원, 초등학원, 혁명학원들에서 부모를 잃은 어린이들이 수령의 크나큰 배려속에서 훌륭히 교양육성되도록 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렸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는 전쟁의 엄혹한 시련을 겪었지만 집없이 거리를 헤매는 고아들이 하나도 없게 되였으며 모든 고아들이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훌륭히 교양되고 자라날수 있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겪은 어느 나라의 력사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일이며 우리는 이에 대하여 떳떳이 자랑할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전쟁의 상처가 점차 가시여지고 사회주의혁명이 강화됨에 따라 녀성동맹앞에는 모든 녀성들을 사회주의제도의 전면적확립을 위한 위대한 투쟁에로 적극 조직동원하여야 할 중대한 혁명임무가 나서게 되였습니다. 녀맹조직들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녀성들속에 널리 해석침투시키며 모든 녀성들을 도시와 농촌에서의 협동화운동에로 힘차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 녀성들은 수령께서 내놓으신 력사적인 1955년 4월테제를 높이 받들고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참가하였습니다. 미제침략자들에게 남편과 아들을 잃은 우리의 농촌녀성들은 당의 농업협동화방침을 선참으로 받아물고 농업협동조합들을 조직하는데 앞장섰으며 또한 도시에 있는 녀성들도 생산협동조합들을 조직하는 사업에 적극 달라붙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녀성들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유일적지배를 확립하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제도의 전면적승리를 보장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고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됨으로써 우리 녀성들은 모든 근로자들과 함께 온갖 착취와 빈궁에서 영원히 해방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적근로자로 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와 농촌에서의 사회주의적협동화의 완성과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유일적지배의 확립은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의 녀성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하였으며 우리 나라 녀성운동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녀성동맹은 녀성들을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하는것과 함께 그들을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시키며 사회주의건설에서 그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녀성들을 사회적로동에 참가시키는것은 유휴로력을 합리적으로 쓰기 위해서만 필요한것이 아닙니다. 녀성들을 로동에 참가시키는 목적은 또한 그들을 온갖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평등한 사회적지위를 보장해주자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녀성들을 사회주의건설에 참가시키는것을 단순한 행정실무적조치로 볼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정치사업으로 여겨야 합니다.》

수령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녀성들을 사회주의건설에 참가시키는것은 나라의 긴장된 로력문제를 풀고 인민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뿐아니라 그들을 충실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며 녀성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이 강화됨에 따라 녀성들속에서 위대한 수령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사회에 적극 진출하며 사회주의건설에 참가하기 위한 운동이 널리 벌어졌습니다.

공장과 농촌, 건설장들에서 우리 녀성들은 높은 애국적헌신성과 창조적열의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나라의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여왔습니다. 로동녀성들은 우리 혁명의 령도계급인 로동계급의 대렬에 들어선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증산투쟁의 불길을 높였으며 나라의 공업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농촌녀성들은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서 농업협동화의 성과를 튼튼히 하고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며 수령께서 내놓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관철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지방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우리 녀성들은 매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 녀성들은 당중앙위원회 1958년 6월전원회의에서와 전국지방산업일군대회에서 하신 수령님의 강령적인 교시를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밑에 지방의 원료와 자재, 설비들을 적극 탐구동원하여 온 나라의 가는곳마다에 수많은 지방산업공장들을 일떠세워놓았으며 그것을 훌륭히 관리운영하고있습니다. 그리하여 나라의 경공업기지를 튼튼히 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녀성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나라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하고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서 커다란 위훈을 세웠으며 자신을 더욱 혁명적으로 단련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과정을 통하여 우리 녀성들은 공장과 농촌의 주인으로, 인민경제를 훌륭히 관

리운영하는 사회주의건설자로 자라났습니다. 오늘 우리 녀성들은 공업과 농업의 모든 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하고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다그치기 위하여 힘찬 로력투쟁을 벌리고있습니다.

우리 녀성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뿐아니라 과학과 문화, 교육과 보건을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 적극 참가하여 많은 일들을 해놓았습니다.

특히 우리 녀성들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중요하게 나서는 새 세대들을 교육교양하는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또 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아동교양을 녀성동맹조직들과 녀성들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라고 가르치시면서 《모든 어머니들이 앞날의 공산주의사회의 주인공들을 길러내는 무거운 책임과 영예를 더욱 깊이 느껴야 하겠습니다.》라고 교시하시였습니다.

녀성동맹은 수령님의 이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녀성들속에서 후대들에 대한 가정교양을 잘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탁아소와 유치원 그리고 각급 학교들에서 어린이들을 옳게 교양육성하도록 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렸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녀성들은 가정에서 그리고 탁아소와 유치원, 각급 학교들에서 새세대들에 대한 교육교양에 모든 힘을 다하고있으며 수많은 녀성들이 후대들을 훌륭히 키우는 공산주의교양자로서 인민들로부터 높은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습니다.

당과 수령의 커다란 배려와 보살핌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든 어린이들이 혁명의 계승자로서 앞날의 공산주의건설자로서 훌륭히 자라나고있으며 이것은 우리의 커다란 자랑이며 행복입니다.

녀성들을 충실한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자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그들을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공산주의사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합니다.

지난 기간 녀성동맹은 우리 녀성들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실천투쟁속에서 단련시키는 한편 그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 선차적주의를 돌렸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이 전면적으로 심화되는 시기에 와서 우리는 당의 방침에 따라 녀성들속에서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습니다.

녀맹조직들은 녀성들속에서 개인리기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뽑고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였으며 모든 녀성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녀성들속에서 자신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기 위한 대중적투쟁이 벌어지게 되였으며 모든 녀성들이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확고히 무장되게 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녀성들속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수령의 교시를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가적기풍이 높이 발양되고있으며 당과 혁명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적미풍이 활짝 꽃피여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과 건설의 장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녀성들의 처지는 몰라보게 달라졌으며 녀성문제해결에서는 위대한 전진이 이룩되였습니다. 모든 녀성들이 지난날 오랜 세월을 두고 받아오던 봉건적 및 식민지적 억압과 착취, 멸시와 천대 속에서 벗어나 완전한 사회적해방을 이룩하고 오늘은 떳떳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자라났으며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녀성들의 지위와 역할이 비상히 높아졌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최고인민회의로부터 리, 읍, 동, 로동자구 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인민주권기관들에서 3만 6,900여명의 녀성들이 대의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인민경제 로력구성에서 녀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48%나 되고 많은 녀성들이 당, 정권기관들과 경제기관들에서 훌륭히 일하고있으며 10만명이 넘는 녀성 기사, 기수, 전문가들이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복무하고있습니다. 우리 녀성들가운데는 72명의 공화국영웅, 로력영웅을 비롯하여 수만명의 국가수훈자들이 있으며 많은 녀성들이 과학자, 작가, 예술인, 체육인으로서 인민들의 높은 존경을 받고있습니다.

동지들!

우리 녀성들이 오늘과 같이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서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믿음직하게 떠밀고나아갈수 있게 된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배려의 결과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녀성문제해결을 위한 독창적인 리론을 창시하시고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하여주시였으며 우리 녀성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지도와 배려를 돌려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께서는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시기와 해방후 민주건설시기, 조국해방전쟁시기 그리고 전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시기에 이르는 혁명과 건설의 매 단계마다 우리 나라 녀성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가리켜주시였으며 혁명의 길에 오르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40여년간에 걸쳐 시종일관 녀성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대책들을 세워주시고 녀성들의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다 보살펴주시였습니다.

특히 그이께서는 조선민주녀성동맹을 직접 창건하여주시고 녀성동맹과 우리 녀성들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녀성들에게 일터를 마련하여 주시고 탁아소, 유치원, 아동병동 건설과 산전산후휴가제의 실시를 비롯하여 녀성들이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할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보장하여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녀성들은 수령의 두터운 신임과 크나큰 배려속에서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자기 맡은 초소에서 마음껏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고있으며 믿음직한 녀성혁명가로 자라나고있습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오늘 우리 전체 녀성들은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와 행복을 가져다주시고 녀성운동의 강화발전과 녀성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하여 심려하고계시며 우리 인민을 언제나 승리와 영광에로 이끌고계시는 조선녀성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4천만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님께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고있습니다.

## 2

동지들!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나아갈 새로운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였으며 우리 녀성들에게 또다시 크나큰 배려와 자애로운 사랑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 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는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위대한 전투적강령이며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웅대한 설계도일뿐아니라 녀성해방의 종국적실현을 위한 력사적선언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이 새로운 전투적강령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것은 우리 녀성동맹조직과 전체 조선녀성들 앞에 나서는 가장 성스럽고 영예로운 임무이며 오직 그렇게 하는것만이 수령님의 따뜻한 배려와 어버이사랑에 충성으로 보답하는것으로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우리는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가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앞으로 가까운 몇해동안에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3대기술혁명과업입니다.》라고 교시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3대기술혁명과업은 나라의 경제와 기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며 근로자들의 로동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전투적목표인 동시에 우리 녀성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과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완전히 해방할데 대한 력사적강령입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공화국북반부의 모든 녀성들을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민족적억압과 지주, 자본가들의 계급적착취 그리고 온갖 봉건적 질곡과 예속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주시였으며 그들을 국가와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사회주의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워주시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 녀성들은 모든 면에서 남자들과 꼭같은 권리를 행사하고있으며 수령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세상에 부러운것 없이 행복하게 살고있습니다.

그러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이미 착취에서 해방된 우리 녀성들을 오늘에 와서는 어렵고 힘든 로동과 가정일의 부담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할데 대한 력사적과업을 내세우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과 녀성들의 로동을 헐하게 할뿐아니라 그들의 가정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여러가지 식료품과 일용품, 부엌세간들을 많이 생산하여 공급할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심지어 농촌을 뻐스화하여 근로자들과 녀성들이 교통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며 모든 농촌마을에 수도를 놓아 녀성들이 물동이를 이고다니지 않도록 할데대하여서까지 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습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 근로자들과 녀성들을 언제나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고계시는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서만 베풀어질수 있는 크나큰 사랑과 배려이며 그이께서 마련하시고 령도하시는 우리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실시될수 있는 참다운 인민적시책입니다.

우리의 모든 녀성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에 보답하기 위하여 그이께서 내놓으신 3대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자기의 모든 힘과 재능과 지혜를 다 바쳐야 할것입니다.

기술혁신운동은 무엇보다먼저 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인 근로자들자신이 선진적기술과 높은 기능을 소유하기 위한 투쟁으로부터 시작되여야 합니다. 녀맹조직들은 녀성들속에서 기술학습을 강화하며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빨리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모든 녀성들이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가지며 자기의 기대와 설비에 정통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몇해동안에 100만명이상으로 인테리대군을 늘일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하여 적극 투쟁함으로써 여러가지 형태의 고등교육기관을 통하여 녀성인테리의 대부대를 키워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편으로는 녀성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빨리 높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적과학과 기술을 소유한 녀성기술자들과 녀성간부들을 대대적으로 키워냄으로써 인민경제 각 부문의 생산과 기술발전에서 녀성들이 보다 큰 역할을 담당수행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특히 지방산업공장들을 비롯한 경공업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며 생산을 발전시키는데서 녀성들이 주도적역할을 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생산을 더욱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생활을 빨리 높이기 위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제품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습니다. 녀맹조직들은 녀성근로자들속에서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정치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녀성들이 언제나 나라와 인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는 재능과 정성을 다 내여 일하도록 함으로써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녀성들은 생산과 기술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뿐아니라 기업관리에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로력자구성에서 녀성들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있으며 또 현실적으로 그들이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있는것만큼 녀성들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의 관리운영사업에 널리 참가하여야 합니다. 특히 지방산업공장들을 비롯한 경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종업원이 거의 다 녀성들인것만큼 거기에서 녀성들은 마땅히 기업관리의 주인으로 되여야 합니다.

녀맹조직들은 녀성근로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모두 사회주의적근로자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녀성들이 기업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며 모든 녀성관리일군들이 사회주의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기업관리수준을 빨리 높이도록 그들을 적극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녀성들이 일하고있는 우리 나라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커다란 우월성과 위대한 생활력이 전면적으로 발휘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과 새 전쟁 도발책동은 날로 로골화되고있으며 전쟁의 위험은 더욱더 커가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5차당대회에서 또다시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전쟁준비를 계속 강화할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 녀성들은 수령님의 이 교시를 높이 받들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녀성들이 안일성과 해이성을 반대하고 언제나 경각성을 높이며 긴장된 태세를 견지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하며 특히 전쟁을 두려워하는 부르죠아평화주의적사상조류가 우리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녀성들은 전쟁에 대처할수 있는 정치사상적준비를 철저히 갖춘데 기초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증산, 절약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은 예비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녀성들은 또한 전시에 남자들을 대신하여 일할수 있도록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운전하는 법도 배우고 공장, 기업소의 중요설비들과 생산시설들을 다루는 법도 널리 배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녀성들은 로농적위대와

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군사를 성실히 배우며 투지와 체력을 끊임없이 단련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우리의 모든 녀성들이 일단 유사시에는 원쑤들과 직접 싸우는 용감한 전투원인 동시에 자기 부문과 단위의 크고작은 모든 일을 자신만만하게 떠메고나가는 후방의 믿음직한 주인이 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동지들!

사상혁명을 앞세워 모든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녀성운동과 녀성문제의 기본내용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사상혁명을 앞세워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온 사회의 로동계급화를 실현하는것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입니다.》라고 교시하시였습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그것은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입니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이 혁명화, 로동계급화되여야 온 사회가 혁명화, 로동계급화될수 있으며 나라의 전반적사회주의건설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양육자이고 교양자이며 가정의 주부들인 우리 녀성들이 혁명화되여야만 또한 자녀들을 공산주의자로 키울수 있으며 가정도 성과적으로 혁명화할수 있습니다.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녀성들의 의식령역에서까지 자본주의를 종국적으로 없애고 녀성들을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으로부터 해방하며 력사적으로 내려오는 녀성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지난 기간 녀성동맹은 우리 당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방침을 받들고 모든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차게 벌려왔으며 이 분야에서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초보적인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기간에 얻은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기본조건은 모든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사회생활과 집단적로동에 적극 참가하는것입니다.

녀성들이 직장에 나가지 않고 집에 파묻혀있어서는 사회생활에서 실질적으로 남자와 같은 지위를 차지할수 없으며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수 없습니다. 모든 녀성들이 사회에 널리 진출하여 집단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며 보람찬 로동속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배우며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여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조직생활은 녀성들을 혁명화하는 중요한 방도이며 혁명적교양의 학교입니다. 누구나 다 그러하지만 특히 녀성들은 강한 조직생활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혁명적으로 단련될수 있으며 녀성혁명가로 자라날수 있습니다.

우리는 녀성들속에서 당조직생활과 녀맹조직생활을 비롯한 여러가지 조직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모든 녀성들이 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며 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조직의 위임분공을 성실히 집행하며 조직의 지도와 통제밑에서 혁명적교양을 받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조직생활에서 비판의 방법으로 사상투쟁을 벌리며 사상투쟁을 통하여 교양개조하는 당의 혁명화방침을 관철함으로써 모든 녀성들이 교양개조되고 혁명화되여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녀성들을 혁명화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먼저 녀성들속에서 당정책교양을 강화하며 그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은 주체사상으로 일관된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입니다. 그것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킨 맑스-레닌주의이며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이며 우리 당과 인민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입니다.

우리는 녀성들속에서 당정책교양을 강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당정책의 본질과 그 정당성을 똑똑히 알게 하며 모든 녀성들이 수령의 천재적로작들과 교시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학습하여 그것을 자기의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녀성들이 언제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사고하고 그에 의거하여 사업하며 당의 유일사상과 어긋나는 수정주의, 사대주의, 부르죠아사상, 봉건유교사상을 비롯한 온갖 반동적인 사상독소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어떤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하며 당정책을 끝까지 옹호관철하여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녀성들속에서 공산주의교양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공산주의교양에서 기본은 계급교양입니다.

우리는 녀성들을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제도를 증오하는 사상으로 무장시키며 착취제도를 반대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옹호하며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합니다.

모든 녀성들을 로동계급의 견결한 혁명정신으로, 자기의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는 열렬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으로 무장시켜야 하겠습니다. 특히 녀성들속에서 우리의 주되는 투쟁대상인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을 철저히 인식시켜 모든 녀성들이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꺾어버리며 조국통일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수 있도록 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하겠습니다.

녀성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그들에게 남아있는 개인리기주의사상을 뿌리뽑고 그들을 집단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입니다. 녀성들속에서 리기주의를 반대하고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는 정신을 배양하기 위하여 계속 완강한 투쟁을 벌리도록 할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녀성들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집단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녀성들을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로 하여금 로동을 즐기고 가장 영예로운것으로 여기며 일하지 않고 놀고먹는것을 수치로 생각하며 그것을 착취계급의 사상으로서 증오하고 배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녀성들이 로동에서 자각적인 열성과 헌신성을 발휘하며 집단과 사회를 위하여 공동로동에 더욱 성실히 참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녀성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은 혁명전통교양과 밀접히 결부될 때 그것은 생동한 감화력을 가집니다.

우리는 녀성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깊이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녀성들이 무엇보다도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깊이 학습함으로써 우

리 당과 우리 혁명의 력사적뿌리를 똑똑히 알게 하며 그들을 혁명선렬들의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백절불굴의 투지와 혁명적락관주의로 철저히 교양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투쟁경험과 공산주의적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으로 녀성들을 무장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모든 녀성들이 녀성공산주의자의 귀감인 강반석녀사를 따라배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수령을 낳아키우신 강반석녀사는 혁명가의 충직한 안해였으며 자제분들을 위대한 혁명투사로 키우신 혁명가의 어머니였으며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탁월한 선구자, 열렬한 녀성혁명가이시였습니다. 우리 녀성들은 강반석녀사를 따라배움으로써 일생을 오직 혁명을 위하여 바치며 혁명을 위하여 사는 열렬한 녀성혁명가로, 혁명가의 충직한 안해로, 자녀들의 참다운 공산주의적어머니로 되여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철저히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는것입니다.》라고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 녀성들은 썩어빠진 부르죠아생활양식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하며 동시에 락후하고 비문화적인 생활양식을 철저히 없애야 합니다.

양풍은 수정주의의 안내자입니다. 우리는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양풍을 결정적으로 반대하여야 하며 그것이 우리 내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하여야 하겠습니다.

생활양식에서 복고주의를 반대한다고 하여 결코 양풍을 따라서도 안되며 양풍을 반대한다고 하여 복고주의를 해서도 안됩니다. 우리는 모든 뒤떨어진 낡은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함으로써 모든 녀성들이 정치, 경제, 문화,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생활규범, 사회주의적행동준칙에 따라 활동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는 녀성답게 거리와 마을, 직장과 가정을 검박하고 깨끗하고 문화적으로 알뜰하게 거두면서 생활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녀성동맹사업을 강화하며 각급 녀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동맹내부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녀맹간부대렬을 더욱 튼튼히 꾸리며 녀맹조직들을 생기발랄한 전투적인 산 조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녀맹단체들은 일군들의 지도수준을 높이고 사업작풍을 바로잡아야 하며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구현하여 녀맹안에 혁명적인 사업체계를 세우고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녀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임으로써 모든 동맹원들을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결정과 우리 당 정책관철에로 더욱 힘차게 조직동원하며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 3

동지들!

오늘 공화국북반부녀성들은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수령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으나 남조선녀성들은 아직도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지 못한채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학정밑에서 2중3중의 착취와 압박, 갖은 모욕과 천대와 멸시를 다 받고있습니다.

남조선녀성들은 하루빨리 이 불행한 처지에서 벗어나야 하며 공화국북반부녀성들과 같이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남조선녀성들은 승리와 영광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남조선인민들과 함께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짓부셔버리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입니다.

오늘 남조선의 수많은 녀성혁명가들과 애국적녀성들이 원쑤들의 야수적탄압과 테로에도 굴하지 않고 미제국주의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용감하게 싸우고있으며 원쑤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고있습니다. 지금 남조선의 지하와 산중에서, 항쟁의 거리에서 그리고 감옥과 교수대에서 원쑤들을 맞받아 용감히 싸우고있는 남조선혁명가들의 전투적대오에는 수많은 녀성투사들이 당당하게 서있습니다.

남조선녀성들이 투쟁에서 최후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서는 자기 대오를 더 튼튼히 꾸려야 하며 투쟁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남조선의 녀성혁명가들은 무엇보다 먼저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남조선의 광범한 녀성들속에 널리 해설선전하며 여러가지 형태의 실지투쟁을 통하여 수많은 애국적녀성들을 끊임없이 단련시키며 그들을 혁명가로 키워나가야 할것입니다. 그리하여 공장과 농촌의 로력녀성들과 애국적인테리녀성들속에서 핵심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이에 기초하여 혁명적녀성조직들을 널리 조직하며 그것을 점차 남조선전역에로 확대하여 나가야 할것입니다.

남조선에서 녀성혁명가들의 핵심대렬을 튼튼히 꾸리는것과 함께 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남조선의 각계각층 애국적녀성들의 광범한 통일전선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신앙과 정견, 출신과 직업의 여하를 불문하고 미제국주의자들과 현괴뢰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녀성들을 반미구국통일전선에 묶어세워야 합니다.

남조선의 녀성혁명가들과 애국적녀성들은 자기들의 투쟁을 혁명적당조직들의 지도밑에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그들과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의 광범한 녀성들이 혁명적당의 령도밑에 하나의 투쟁대오로 뭉칠 때 그것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커다란 혁명력량으로 될것이며 남조선인민들의 해방과 조국통일위업에 위대한 기여를 할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을 우리 조국 강토에서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과 녀성들의 공동의 투쟁과업입니다. 공화국북반부녀성들과 남조선녀성들은 조국통일의 위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북반부녀성들은 모든 힘을 다하여 남조선인민들과 녀성들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남조선녀성들이 겪고있는 불행과 고통에 대하여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며 그들을 하루빨리 이 불행한 처지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공화국북반부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투쟁에 더 적극적으로 이바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녀성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당면한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서 모범이 될뿐아니라 혁명정세가 요구할 때에는 남조선인민들과 녀성들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사람같이 동원될수 있도록 언제나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추고있어야 할것입니다.

남북조선의 전체 인민들과 녀성들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는 끝장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은 성취되고야말것이며 남북조선의 전체 4천만 겨레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따뜻한 품에 안겨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마음껏 누릴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입니다.

오늘 일본에 있는 조선녀성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광스러운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부당한 민족적박해와 멸시를 반대하며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전체 60만 재일동포들과 함께 억세게 싸우고있습니다.

우리 녀성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재일조선동포들과 녀성들의 투쟁을 각방으로 고무하며 그들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보낼것입니다.

동지들!

조선인민의 혁명투쟁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세계 인민들의 공동투쟁의 일환이며 조선녀성운동은 국제녀성운동의 구성부분입니다. 조선녀성들은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동시에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녀성들의 공동투쟁에 적극 참가하며 모든 나라들에서의 혁명운동을 백방으로 지지성원하여야 합니다.

오늘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멸망하여가는 자기들의 처지로부터의 출로를 새로운 침략과 전쟁 정책에서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과 파괴책동을 강화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을 가혹하게 탄압하며 세계평화를 교란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는 현대의 가장 야만적이며 파렴치한 침략자이며 세계의 모든 진보적 인민들과 녀성들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입니다. 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세계 모든 녀성들의 선차적인 과업입니다. 오직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견결한 투쟁을 통해서만 세계민주녀성들의 자유와 해방, 광명한 앞날을 바랄수 있습니다.

우리 녀성들은 전체 인민과 함께 조선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전쟁도발책동을 분쇄하며 평화와 사회주의의 동방초소를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을 견결히 반대하며 미제의 비호밑에 조선에 또다시 기여들려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기도를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할것입니다.

오늘 아세아는 반제반미투쟁의 가장 치렬한 전선으로 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서 혁명력량의 장성을 압살하고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부지하기 위하여 계속 이 지역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있습니다.

우리 조선녀성들은 미제의 직접적침략을 당하고있는 월남, 라오스, 캄보쟈, 중국을 비롯하여 아세아의 모든 혁명하는 나라, 싸우는 나라 녀성들과 전투적련대성을 더욱 강화하며 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것입니다.

우리는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 녀성들과 단결하며 미제를 반대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과 녀성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그것을 자신의 해방사업, 혁명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인정하고있습니다.

우리 민주녀성동맹과 전체 조선녀성들은 전세계 진보적녀성들과 함께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주주의적국제녀성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것입니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우리 녀성들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기치,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들고 계속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의 공동위업에 적극 이바지할것입니다.

동지들!

조선민주녀성동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25년동안 승리와 영광의 빛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녀성동맹은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대중적인 녀성혁명조직으로 장성발전되였으며 우리 나라 녀성운동은 매우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 녀성들의 생활은 끝없이 행복하고 보람차며 우리앞에는 더욱 휘황한 미래가 약속되여있습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힘차게 싸워나아가는 조선민주녀성동맹과 우리 녀성들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이 있을것입니다.

모두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가 내세운 웅대한 강령의 성과적 실현을 위하여, 조선녀성운동의 더욱 큰 승리를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을 반대하자

일본제국주의가 패망한 때로부터 스물다섯해가 되는 오늘 일본은 아세아에서 새로운 전쟁온상으로 자라났다. 인류에게 그처럼 많은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던 일본군국주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되살아나 또다시 피묻은 칼을 휘두르려 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일본군국주의는 아세아에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일본군국주의세력은 미제를 등에 업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망상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323페지)**

일본군국주의세력은 《일본대국론》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아세아를 침략하기 위한 미제의 전략에 적극 가담하여 남조선을 비롯한 해외에 침략의 검은 마수를 뻗치기 시작하였으며 식민지세력권을 이룩하기 위한 전쟁준비를 다그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미 60여년전에 꾸며놓았던 《대륙정책》을 되풀이하려 하고있으며 놈들이 아세아침략에 한창 기승을 부리던 때에 떠벌이던 《북진론》과 《남진론》을 다시 실천에 옮겨보려 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와의 흉악한 공모결탁밑에 아세아와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의 재생과 그의 재침략의 위험성은 래일의 문제가 아니라 눈앞의 현실적문제로 나서고있다.

이 엄중한 사태발전은 우리 조선인민들과 사회주의나라 인민들, 신생독립국가인민들,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아세아와 세계의 모든 인민들에게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세력의 침략책동에 경각성을 높이며 그것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 1. 일본군국주의는 력사적으로 큰놈을 등에 업고 침략과 략탈을 감행하였다

미제에 의하여 재생재무장된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의 위험성이 어느때보다도 커지고있는 오늘 력사는 새로운 힘으로 일본군국주의의 죄악과 그것을 부활시키고 침략의 《돌격대》로 삼고있는 미제의 죄악을 고발하고있다. 력사적사실은 오늘의 현실과 함께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귀중히 여기는 모든 인민들에게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에 대하여 소리높이 경종을 울리고있다.

일본이 자본주의발전의 길에 들어선 이래 걸어온 100여년의 력사는 다른 나라에 대한 끊임없는 침략과 략탈의 기록으로 가득차있다. 일본군국주의는 세상에 태여난 첫날부터 일본을 전쟁에서 전쟁에로 이끌어왔다.

이것은 자본주의제도자체의 본질에서 나온것이며 특히는 일본자본주의를 특징지었던 자본주의발전의 후진성, 군사반봉건적제국주의침략성과 강도적략탈성으로부터 나온것이였다.

그러나 일본군국주의가 그처럼 횡포무도하게 한 전쟁에서 다른 전쟁에로 계속 줄달음쳐 나갈수 있었던것은 다만 여기에만 기인하는것은 아니였다. 그것은 또한 미제를 비롯한 서방제국주의렬강들의 지원과 고무가 있었기때문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력사적으로 큰놈을 등에 업고 〈횡재〉하는데 습관되여있습니다. 그들은 지난날 미영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여 그 비호하에 조선을 병탄하고 아세아대륙에 침략의 마수를 뻗쳤으며 파쑈독일 및 이딸리아와 동맹을 맺고 아세아의 〈맹주〉가 되려고 발광하였으나 결국은 패망하고말았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402페지)**

자본주의렬강들은 식민지를 나누어가지고 세력권을 빼앗기 위한 싸움에서 자기와 맞서는 경쟁자를 쉽게 때려눕히기 위하여 언제나 이러저러한 일시적동맹자들을 긁어모은다. 자본주의발전의 길에 뒤늦게 들어섰거나 비교적 약한 자본주의나라들은 자본주의렬강들사이에 불가피하게 있게 되는 대립과 알륵을 리용하며 어느 한 강대국 또는 그의 동맹체에 가담함으로써 자기들자신의 식민지를 확보하며 세력권을 나누어가지는데 한몫 끼여왔다.

일본은 1868년의 이른바 《명치유신》이후 자본주의발전의 길에 들어섰다. 일본에서 부르죠아개혁은 천황제밑에서 일부 봉건령주들과 무사들이 중심세력이 되여 봉건적압박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에 편승하여 우로부터 추진시켰다. 부르죠아개혁은 철저하게 수행되지 못하였으며 일본자본주의는 처음부터 군사반봉건적특성과 함께 가장 강도적이며 야수적인 침략성을 가지였다.

일본이 자본주의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한 때는 벌써 구미자본주의렬강들에 의하여 세계의 식민지분할은 거의 끝나가고있었으며 아세아가 식민지와 세력권확장을 위한 그들의 싸움터로 변하고있을 때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일본이 시장을 나누어가지는데 한몫 끼우며 식민지를 가지려면 오직 군사적략탈의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하였다.

자본주의국가로서 방금 발전의 길에 들어섰을뿐인 일본은 해외팽창의 야망에 불탔으나 아직 경제적 및 군사적 힘이 매우 미약하였다.

여기로부터 교활한 일본군국주의는 아세아의 식민지와 세력권 분할을 위한 싸움에서 구미자본주의렬강들사이에 있는 모순과 대립을 교묘하게 리용하며 큰놈을 등에 업고 《횡재》하는것을 상투적수법으로 삼아왔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일본이 자본주의국가로 등장한 첫시기부터 미영제국주의자들앞에 아부굴종하면서 그를 배경으로 하여 이웃나라들을 침공하고 자기의 침략지반을 넓힐것을 꾀하였다.

한편 미영제국주의자들은 아직 힘이 약한 일본자본주의를 가장 덜 위협한 경쟁자로 보고 일본군국주의의 호전성과 일본이 아세아에 자리잡고있는 지리적유리성을 리용하여 일본을 동방에서 다른 제국주의렬강을 견제하는 방패로, 침략의 길잡이로 내세우려고 타산하였다.

그리하여 일본군국주의는 1870년대에 벌써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아세아나라들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기 시작하였다.

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은 이미 1866년 미제의 해적선 《샤만호》의 조선침입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시작되였다.

《샤만호》 사건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한 미제는 그후에도 여러 차례의

무력침공이 거듭 실패되자 일본을 내세워 침략의 길을 닦기 위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군함과 무기를 대어주고 조선을 침공하도록 부추기였다.

미제의 이러한 지원과 고무 밑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은 1875년에 군함 《운양호》를 조선 강화도에 침입시켜 날강도적해적행위를 감행하였다. 그리고 이 도발사건에 대한 《책임》을 도리여 조선봉건정부에 뒤집어씌우고 그 이듬해에 대함대를 조선에 파견하여 무력적위압밑에 예속적인 《강화도조약》을 강요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조선에 대한 침략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1894년에 저들의 세력권을 넓히기 위하여 청일전쟁을 도발하였다.

그때에 일본은 혼자서 청국과 전쟁을 할만한 힘을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지지밑에서만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할수 있었다. 미영제국주의자들은 일본의 군사적진출에 의하여 만청세력을 약화시키고 짜리로씨야의 아세아진출을 가로막음으로써 저들의 침략기반을 강화하려는 타산밑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을 적극 지원하였다.

청일전쟁의 결과에 일본은 조선을 아세아대륙침략의 거점으로 확보하였으며 대만과 팽호렬도를 빼앗아 남방진출의 교두보로 만들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짜리로씨야와의 전쟁도역시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지원밑에 감행하였다.

아직도 힘이 약하고 뒤떨어졌던 자본주의일본이 그때에 독일 및 프랑스제국주의와 결탁한 제국주의로씨야와 맞대고 전쟁을 할 결심을 하고 감히 덤벼든것은 오직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적극적인 뒤받침이 있었기때문이였다.

미영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 진출하는 짜리로씨야의 세력을 저들의 식민지 및 세력권에 대한 더 큰 위협으로 느끼였다. 미영제국주의자들은 이것을 가로막기 위하여 등뒤에서 일본을 적극 떠밀어 짜리로씨야와 대결시켰다.

1902년에 영국과 일본은 중국에 대한 영국의 《특권》과 조선에 대한 일본의 《특권》을 서로 승인하며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에는 서로 원조하며 필요할 때에는 직접 협동할것을 규정한 《영일동맹》을 맺었다. 미국으로부터는 막대한 차관과 무기와 군사고문과 군사기자재들이 공급되였다. 일본은 전쟁비용 17억원중 그 절반이상을 미영의 차관으로 보장하였다.

미영제국주의자들로부터의 재정적, 군사적, 정치적인 모든 원조와 담보에 고무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드디여 1904년에 짜리로씨야에 대하여 언제나 하는 버릇그대로 불의의 공격으로 전쟁을 개시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짜리로씨야와 강화조약을 맺을 때에도 바로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주선과 압력을 교묘하게 리용하여 남부싸하린과 료동반도를 손안에 넣었다.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미영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서 서로 저들의 세력권을 확정하며 식민지분할협정을 맺었다. 1905년 7월 로일전쟁이 아직 지속되고있을때 일본수상 가쯔라와 미륙군장관 타프트는 일본이 미제의 필리핀강점을 승인하는 대신에 미제는 일본의 조선강점을 승인하는 비밀협정을 맺었다.

때를 같이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영제국주의자들과의 사이에 일본은 영국의 인도강점을 지지하고 영국은 일본의 조선강점을 승인하는 기초우에서 제2차 《영일동맹》을 맺었다.

이에 기초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은 1905년 11월에 자기들의 무력을 동원하여 가장 야만적인 강압적방법으로 조선의 봉건통치배들에게 《을사보호조약》을 강요하고 조선을 실질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그후 1910년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조선을 완전히 병탄하였다.

이처럼 일본군국주의는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아세아식민지분할정책의 하수인으로서 그들의 침략정책의 손아래동맹자로서 끊임없는 침략전쟁을 통하여 짧은 기간에 조선, 대만, 남부싸하린을 포괄하는 식민지제국을 이룩하였다.

제1차세계대전기간중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그의 침략성과 교활성을 더욱 남김없이 나타냈다. 서방제국주의자들이 구라파에서의 전쟁에 몰두하여 아세아에 대하여 손을 쓰지 못하는 기회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영일동맹》에 의한 《의무》를 지킨다고 하면서 그때에 독일제국주의자들이 강점하고있던 중국산동성의 청도와 태평양의 여러 섬들을 빼앗아냈다. 일본은 이 전쟁기간에 미제와 더불어 교전쌍방나라들에 대대적으로 전쟁물자를 팔아먹고 세계시장에서 경쟁자들이 일시 떨어져나간 틈을 타서 폭리를 가로채여 커다란 어부지리를 얻었다.

쏘련에서 사회주의 10월혁명이 승리하자 이를 가장 악의에 차서 반대하며 갓 태여난 쏘베트공화국을 그 요람기에 압살하려고 쏘련원동지방에 대한 제국주의무력간섭의 앞장에 서서 날뛴것도 바로 일본군국주의자들이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군사적으로 씨비리를 강점할것을 망상하였다. 놈들은 또한 사회주의 10월혁명의 영향이 저들의 지배하에 두려는 동방나라들에 미칠것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사회주의 10월혁명의 승리를 증오하며 적대시하는 공통된 립장으로부터 미영제국주의를 비롯한 구미렬강들사이에 쏘련에 대한 무력간섭의 공모가 이룩되자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가장 많은 군대를 동원하여 무력간섭의 《돌격대》로 나섰다.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은 쏘련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무력간섭이 실패되자 서방제국주의자들은 할수 없이 자기 군대를 철수하였다. 그러나 오로지 일본군국주의자들만은 1925년까지도 쏘련령토의 일부에 버티고앉아 마지막까지 발악하다가 쫓겨나고말았다.

《침략과 략탈은 제국주의의 본성이다. 침략적이 아닌 제국주의가 있다면 그것은 벌써 제국주의가 아니다.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김일성)

미영제국주의자들의 비호밑에 침략전쟁으로 자라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적야망은 살이 찌고 배가 부를수록 더욱 커갔다. 침략과 략탈 전쟁을 통한 전리금과 식민지수탈을 중요한 자본축적의 원천으로 하여 빨리 불어난 일본독점자본은 새로운 상품 및 자본수출시장과 원료원천지를 요구하였다.

국가권력을 더욱 꽉 틀어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늘어난 군사적힘에 의거하여 식민지세력권의 확장에로 줄달음쳤다.

중국동북지방에 이미부터 침략의 마수를 깊이 뻗치고있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1931년 9월에 드디여 《만주사변》을 조작하고 상투적인 기습적군사행동에 의하여 전체 중국동북지방을 완전히 강점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뻔뻔스럽게도 《만주, 몽골은 일본의 생명선》이며 《극동에 있어서 공산주의위협에 대처하여 장벽을 만드는것》이라고 떠들면서 판에 박은 침략적구호로써 이 강도적침략행위를 가리우려 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대낮의 날강도 모양으로 이처럼 감히 대대적인 침략전쟁을 일으킨것은 여전히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지지를 기대할수 있었기때문이였다.

사실에 있어서 일본이 중국동북지방을 독차지하는것은 미영제국주의자들이 중국에서 차지하고있는 《권익》을 직접 침해하는것이였다. 이것은 그때에

은 자본주의세계를 휩쓸고있던 장기적인 심각한 경제공황의 결과에 매우 날카로와진 제국주의렬강들사이의 세력권재분할을 위한 대립투쟁을 그대로 반영한것이였다. 미영제국주의자들은 중국동북지방의 넓은 시장을 일본이 독점하는것을 달튼 탐가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영제국주의자들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중국동북지방강점에 대하여 이른바 《불간섭정책》을 내세우면서 도리여 그들의 침략행동을 지지하였다.

그 리유는 명백하다.

미영제국주의자들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중국동북지방에 쏘련을 침략하며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의 날로 앙양되는 혁명운동을 억누르기 위한 거점을 만들것이라는 기대밑에 일본의 침략행동을 지지하였던것이다.

력사적사실은 제국주의의 계급적본질을 얼마나 속속들이 보여주는가!

미영제국주의자들이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중국동북지역에 대한 침공을 지지한것은 사실상 《뮨헨》 정책의 아세아에서의 시작이였다.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유화정책》에 더욱 고무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은 1937년 7월에는 온 중국을 삼킬 목적밑에 중일전쟁을 도발하고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을 개시하였다.

놈들은 이 침략전쟁을 《공동반공》, 《동양평화》, 《동아신질서건설》을 위한 것이며 《8굉1우》 (온 세상이 한집안이라는 뜻)의 《성전》이라고 떠벌이였다. 이것은 《…중국을 정복하자고 하면 먼저 만주, 몽골을 정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세계를 정복하자고 하면 반드시 먼저 중국을 정복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던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강도적야욕을 더욱 남김없이 드러내놓은 것이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북부중국으로부터 상해, 광주를 거쳐 해남도에 이르는 광대한 중국령토를 강점하였다. 뿐만아니라 1938년과 1939년에는 쏘련과 몽골인민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무력침공을 련이어 도발하였으며 그후에도 계속 쏘련을 침공하기 위한 준비를 강화하였다.

군사적강점에 의하여 중국에서 넓은 식민지시장을 독차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점령지대로부터 다른 경쟁자들을 내몰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이르러서도 미영제국주의자들은 계속 《불간섭정책》을 내세우면서 일본의 전쟁수행을 지원하였다. 미제는 1939년말까지만 하여도 해마다 일본의 년간총수입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군수품과 전략물자를 공급하였으며 영제국주의자들은 일본해상수송의 40%를 보장하였다.

그것은 여전히 일본침략군의 군사적침공에 의하여 중국인민들의 혁명운동을 억누르며 더 나아가서는 쏘련과의 전쟁에로 일본을 밀어넣으려는 홍악한 타산에서 그렇게 한것이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극동 《뮨헨》정책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리용할대로 리용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말에 와서 벌써 제국주의렬강들사이의 모순과 갈등은 오직 군사적행동에 의한 식민지와 세력범위의 새로운 재분할을 요구하는 그러한 극도로 날카로운 단계에 이르고 있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아세아의 《맹주》가 되려는 그의 야망을 실현하자면 조선, 중국을 비롯한 아세아인민들의 혁명력량과 쏘련을 반대할뿐만아니라 중국과 동남아세아일대에서 커다란 세력권을 가지고있는 미영제국주의와도 정면으로 대결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러한 정세밑에서 이때까지 등에 업고온 미영제국주의자들대신에 새로운 동맹자와 재빨리 야합하였다.

그들은 구라파에서 새로운 강력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한 나치스독일과 결탁하는 길에 들어섰다.

이미 1936년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파쑈독일과 《방공협정》을 맺었으며 1937년에는 파쑈이딸리아가 여기에 편들었다. 이에 기초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쏘련과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을 반대하며 또한 미, 영도 반대하여 세계를 재분할하기 위한 목적밑에 1940년 파쑈독일 및 이딸리아와 함께 3개국 군사동맹을 맺었다.

그리하여 이 침략의 무리들은 구라파와 아세아에서 야만적살륙전쟁을 더욱 확대하는데로 나아갔다. 1941년 6월 나치스독일은 쏘련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을 개시했으며 같은해 12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태평양전쟁을 도발하였다.

오래동안 준비해온 침략적계획에 따르는 불의의 습격으로 얻은 일시적인 우세를 리용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전쟁초기에 벌써 월남, 라오스, 캄보쟈, 말라이, 버마, 타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많은 나라들을 강점하였으며 인도, 뉴질랜드, 오스트랄리아에까지 침략의 위협을 미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침략에 미쳐날뛰던 이 전행정에 식민지와 강점지역들에서 온갖 최신 기술적방법들과 중세기적야만적폭압을 결합하여 쉬로 일찌기 례가 드문 잔인무도한 테로통치와 무제한한 략탈을 감행하였다. 조선을 비롯하여 중국, 쏘련 원동지방, 월남, 그밖의 아세아 여러 강점지역들에서 인민들을 쏘아죽이고 때려죽이고 불태워죽인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가지가지 살륙만행은 사람들의 머리로 상상할수 있는 한계를 훨씬 벗어나는것이였다.

놈들은 조선에서 수백만명의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고 재물을 략탈하였으며 조선민족을 말살하려고 하였다.

놈들은 중일전쟁행정에서만 1,200만명의 중국인민을 학살하였다. 태평양전쟁기간에 월남에서 200여만, 인도네시아에서 200여만, 필리핀에서 110여만 인민들을 학살하였다. 수많은 일본 청장년들이 침략전쟁의 희생물로 되였다.

놈들이 강점한 아세아나라들에서 빼앗아간 재부는 수천억딸라에 이르렀다.

그러나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이 모든 침략과 략탈, 인민들에 대한 끝없는 야수적학살만행은 놈들이 꿈꾸던 《영광》에로의 길이 아니라 파멸에로의 길로 이끌어갔다.

《제국주의는 강한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사상루각과 같은것이며 그 멸망은 불가피합니다. 히틀러가 그랬고 과거 일본제국주의자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402페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침략전쟁을 확대하며 식민지략탈을 강화하면 할수록 더많은 나라인민들의 날로 더욱 커가는 강력한 항거에 부딪쳤다.

조선인민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조선에 침략의 발길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그놈들을 반대하여 줄기차게 투쟁하였다.

특히 김일성동지께서 15성상에 걸쳐 직접 조직령도하신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과 조선공산주의운동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을 가져온 가장 영광스러운 투쟁이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진행된 조선인민의 항일무장투쟁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체계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았으며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지지와 기대를 받은 맑스-레닌주의적혁명무력인 항일유격대는 마침내 쏘련군대와 함께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조선

인민의 항일무장투쟁은 중국대륙과 쏘련을 침공하려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기도에 배후로부터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위한 식민지 및 예속국가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중국인민은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오랜 기간 항일전쟁을 용감히 벌리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중국에 대한 침략적야망을 꺾어놓았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강점한 동남아세아의 모든 나라들에서 례외없이 놈들을 반대하는 항쟁운동이 치렬하게 벌어졌다.

군사적감옥으로 전변된 일본안에서도 지배층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불만은 커가고 반전운동은 강화되였다.

쏘련군대에 의하여 일제의 동맹자인 파쑈독일이 격멸되고 일제의 100만 관동군도 괴멸되였다.

조선인민, 중국인민, 쏘련인민, 아세아와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세계제패를 꿈꾸던 일본군국주의는 패망하고말았다.

일본군국주의의 발전과 패망의 력사는 실로 많은것을 말하여주고있다.

일본군국주의가 걸어온 범죄적행로가 똑똑히 보여주는바와 같이 놈들이 그처럼 기승을 부리며 침략을 확대하여 아세아의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고 그 우에 군림하려고 날뛸수 있었던것은 오직 서방제국주의 특히 미영제국주의자들의 비호와 고무가 있었기때문이였다.

미영제국주의자들은 일찍부터 아세아에서 일본군국주의를 저들의 침략의 길잡이로 리용하였으며 더우기는 사회주의와 민족적독립을 위한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말살하기 위한 공격의 앞장에 내세우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다 썼다.

제국주의자들사이에는 시장과 세력권쟁탈을 위한 싸움에서 모순이 있으나 독점자본가들은 사회주의와 민족적독립을 위한 국제로동계급과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반대하여서는 련합된 국제적힘으로 공격한다. 바로 미영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목적밑에 다른 나라 인민들을 서슴없이 희생시켜 일본군국주의에 미끼를 던져 주면서 그들을 침략의 길로 내몰았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것을 리용하여 미영제국주의자들을 등에 업고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추구하였다. 그리하여 큰놈을 등에 업고 침략을 감행하는것은 바로 일본군국주의가 생겨난 첫날부터 가지고있는 일관한 특성으로 되였다. 이 특성은 일본군국주의로 하여금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에 고유한 침략성과 반동성, 야수성과 교활성을 짙어지고 더욱 가중케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간악한 수단과 방법도 배신적인 행위도 가리지 않았다.

력사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을 침략의 도구로 삼은 미영제국주의자들의 범죄적수법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그 전통적인 침략성과 교활성에 경각성을 고도로 높일것을 가르치고있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잔꾀에 넘어가 정치적흥정을 일삼으며 타협을 추구하는것은 엄중한 후과를 때태하고있다는것을 가르치고있다.

력사는 또한 일본군국주의자들과 서방제국주의자들이 결탁하여 제아무리 서로 업고 업히면서 강도적침략에 미쳐날뛰여도 결코 인민들을 굴복시킬수는 없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일본군국주의가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을 시작한 때로부터 오랜 기간 아세아의 수많은 공산주의자들과 혁명투사들,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수백수천만 인민들이 일제의 착취와 압박,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는 성스러운 투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으며 목숨을 바쳤다. 인민들은 일본군국주의격멸을 위한 투쟁에서 흘린 선렬들의 이 고귀한 피의 대가를 헛되이 하려는 그 어떠한 책동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인민들의 단결된 힘은 일본군국주의를 패망시켰으며 그와 결탁한 반역자들과 반동들을 쓸어버리였다.

력사의 교훈은 이러하다.

## 2. 일본군국주의는 또다시 아세아에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제2차세계대전에서의 파시즘과 군국주의격멸의 결과에 국제생활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일본의 앞길에는 나라를 비군국화하고 평화애호적인 민주주의국가로 전변시킬 가능성이 열리였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지나온 스물다섯해동안 일본은 비군국화의 길이 아니라 재군국화의 길로 달려나갔다. 민주화의 길이 아니라 파쑈화의 길을 걸었다. 평화의 길이 아니라 전쟁에로의 길로 또다시 나가고있다. 오늘 일본에서 군국주의의 온상인 독점자본은 불어날대로 불어나 다시 지배권을 확립하였다. 거대한 상비군과 경찰폭력기구는 날로 무겁게 인민의 어깨우를 짓누르며 반동공세를 강화하고있다. 군국주의, 복수주의 사상이 전국을 활개치고있다. 벌써 일본독점자본주의는 제국주의적해외침략의 길로 나서고있다.

바로 이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이 빚어낸 산물이다.

제2차세계대전후 제국주의의 우두머리로 등장한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하려고 사회주의력량과 민족해방운동을 반대하는 침략책동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침략의 예봉을 아세아에 돌렸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미 2차대전행정에서부터 파시즘과 군국주의를 철저히 때려부시는것을 원치 않았다. 그들은 제1차세계대전의 결과에 비추어보아서도 전후에 세계 여러나라들에서 인민들의 혁명운동이 새로이 크게 일어날것을 무엇보다도 겁내였다.

세계제패의 야망에 사로잡힌 미제는 전쟁의 포연이 가시기도전부터 아세아에서 사회주의를 반대하며 민족해방운동을 억누르는 《돌격대》로서 일본군국주의를 다시 소생시킬것을 계획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일본은 그의 군사전략적위치, 발전된 공업력, 야만적침략경험과 그 인적자원으로 하여 침략적군사기지로서, 병기창으로서, 대포밥공급원천으로서 모든 가치를 다 갖추고있었다.

한편 패전의 막다른 골목에 다달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이러한 흉책을 알아차리고 옛버릇 그대로 다시 그에 아부굴종하여 무조건 항복후에 받아야 할 징벌을 모면하며 앞으로 다시한번 일어날것을 꾀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전후 일본의 《민주화》에 대하여 떠들었으나 뒤에서는 이미 계획한 범죄적인 음모를 추진시켰다.

그리하여 침략과 략탈에 대한 끝없는 공통된 야욕,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을 실현하는데 언제나 괴뢰들과 추종자들을 앞장에 내세우는 미제의 상투적침략수법, 그리고 큰놈을 등에 업고 한몫 보는데 이골이 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전통적수법이 또다시 맞물어 새로운 주종관계밑에 결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때에 벌써 미일결탁의 내막을 간파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극동에서 이른바 〈태평양동맹〉을 결성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있는데 이것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을 다시 무장시켜 그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쏘련, 중화인민공화국

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의 《돌격대》로 리용하며 또한 태평양연안의 여러 피압박국가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을 억누르는데 리용하기 위한것입니다.》(《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들고 세계혁명을 촉진하자》, 단행본, 16페지)

사태의 발전은 그대로 되고있다.

패망전 일본군국주의의 사회정치적 및 경제적지반은 천황제절대주의와 독점자본주의 및 농촌의 반봉건적지주제도였다.

전후 일본에서 군국주의를 뿌리뽑자면 마땅히 그의 사회경제적지반을 허물어버리고 군국화의 온갖 기구를 파괴해야 하였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놈들은 첫째가는 전범자인 《천황》을 국제재판에서 면제시켜 그대로 자기 자리에 남아있게 하였다. 군국주의의 온상인 독점재벌을 《해체》한다고 하였으나 그것은 다만 경쟁자로서의 일본독점재벌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그것을 미국독점자본에 종속시키도록 개편하는데 지나지 않았다.《농지개혁》이 실시되였으나 농촌의 반동진지는 무너지지 않았다. 군국주의통치기구도 보존되였다. 경찰관료기구를 그대로 남겨두었으며 군대는 해산된다고 하였으나 그 골간들은 위장된 군사조직들에 간직해두었다.

미제는 군국주의재생의 터전을 닦으면서 일본공산당을 비롯한 일본민주력량에 대하여 거듭 탄압을 강화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도발한 조선침략전쟁은 일본에서 독점자본의 부활과 군국주의재생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되였다. 미제는 전쟁을 도발하자 《경찰예비대》, 《해상보안대》의 이름밑에 일본군대를 되살렸으며 수십만의 전범자와 파시스트관리들을 형식적으로 가하였던 형집행과 공직추방에서 면제시켜 다시 활동무대에 올려놓았다.

조선전쟁기간에 미제는 일본에 관한 국제협정들을 완전히 집어던지고 일본반동지배층과 쌘프랜씨스코단독강화조약 및 미일《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의하여 미제는 저들의 일본강점과 그의 군사기지화를 《합법화》하며 그때까지 은페된 형태로 추진시켜온 일본군국주의의 재생과 재무장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며 일본이 침략적군사동맹에 가담할수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일본군국주의는 그가 재생되는 첫시기부터 벌써 미제의 조선침략에 가담하였다. 일본반동지배층은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전쟁을 적극 지지하여 전령토를 공격기지, 보급기지로 제공하고 직접 일본의 군사인원들과 선박들을 조선전선에 동원시켰다. 악명높은 일본의 세균전전문가들이 조선에서의 미제의 세균전에 가담하였다.

일본독점자본은 미제침략군에게 각종 무기와 군수품을 생산공급하며 비행기, 함선들을 수리하여줌으로써 벼락돈벌이를 하였다. 조선전쟁기간에 일본독점체들은 미제의 《특별수요》에 의하여 수십억딸라를 벌었으며 일본의 공업생산을 70%나 높여 제2차대전전수준을 회복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일본에서 독점자본의 부활과 재무장 과정은 본격적으로 추진되였다.

조선전쟁이후에도 미제는 《특별수요》로써 일본독점자본에게 계속 돈벌이를 시켰으며 일본의 재무장을 촉진시키며 일본경제를 더욱 예속시키기 위하여 이른바 《미일경제협력》이란 이름밑에 자본과 기술을 널리 일본에 끌어들였다. 일본독점자본은 이것을 리용하여 경제의 군사화를 다그치며 군수경기를 조성하였다.

일본독점자본은 무엇보다도 로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수탈을 강화하며 국가독점자본주의기능의 뒤받침밑에서 대규모적인 설비투자를 진행하여 생산을 확대하였다. 또한 상품과 자본 수출을 공간으로 하여 다른 나라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강화하였다.

미제의 월남침략전쟁을 계기로 일본독점자본은 또다시 《황금의 소나기》를 맞이하였다. 미제의 월남침략에 직접 편들어 그를 지원해주는 대가로 일본의 《죽음의 장사군》들은 큰 횡재를 하였으며 이로써 경제의 이른바 《고도장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원래 평균 10년도 못되는 사이에 한번씩 벌려놓은 침략전쟁에서 자라고 살쪄던것이 일본독점자본이였다. 전후 일본독점자본은 미제국주의자들이 20년도 못되는동안에 두번이나 벌려놓은 조선과 월남에서의 침략전쟁에 끼여든 대가로 조선인민과 월남인민이 흘린 피로 물든 딸라를 받아먹고 또다시 배를 불리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일본의 《번영》에 대하여 떠들고있다. 그러나 번영을 누린것은 일본인민이 아니라 한줌도 못되는 소수 독점자본가들이다.

일본경제의 팽창과정에서 생산과 자본은 중공업과 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고도로 집적집중되였다. 선철, 자동차, 동, 알루미니움 등 중요공업제품생산의 70~90%가 해당부문의 5개 독점기업체들에 집중되였다. 일본의 전체 회사수의 0.2%도 못되는 약 900개의 대독점기업체들이 전체 회사들의 자본금 총액의 70%이상을 차지하고있다. 최근에는 모든 중요산업부문들을 한두개 또는 두세개의 최대독점기업체들이 완전히 지배할것을 목표로 하여 독점체들간의 합병과 재편성을 더욱 다그치고있다. 생산과 자본의 집적집중을 토대로 하여 거대한 금융자본의 지배체제가 더욱 강화되였다.

이른바 《미일경제협력체제》 밑에서 강행된 일본경제의 《고도장성》정책은 미제의 아세아 침략의 《돌격대》로서의 일본군국주의의 경제적토대를 이룩하기 위한 미제와 일본독점자본의 공동음모의 산물이다. 미제는 이것을 통하여 일본경제를 저들에게 더욱 예속시키며 일본인민을 착취수탈하는것과 함께 일본의 경제력을 저들의 아세아침략에 리용할것을 노리고있다. 바로 전후 일본독점자본의 부활과 팽창에서 새로운 특징으로 되는것은 미제에 대한 그의 종속적관계가 강화된것이다. 석유를 비롯하여 철강, 전력, 자동차, 전기기계, 전자공업 등 일본군국주의의 물질생산적기초인 중공업과 화학공업의 기간부문이 자본, 원료, 기술면에서 미제에 의존하고있으며 무역에서도 일본은 미제에 얽매여있다.

미제에 종속된 일본독점자본의 부활과 그의 지배체제의 확립에 기초하여 군국주의적재무장이 촉진되고 파쑈체제가 강화되고있다.

군국주의의 기본무기는 그의 방대한 상비군이다.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반동지배층은 일본의 침략무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특히 1960년에 미일간에 체결된 신 《안전보장조약》은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재무장에서 또하나의 새로운 단계로 되였다. 이는 1950년대의 미일 《안전보장조약》보다도 한걸음 더 나아가 《공동방위》라는 명목밑에 《미일공동작전체제》를 확립하고 사회주의나라들과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미일군사동맹관계를 강화하며 일본을 미제의 핵전략체제속에 끌어넣어 일본의 핵무장을 실현할것을 목적한것이였다.

이 《조약》체결후 일본의 침략무력은 두차례의 장기군비증강계획을 거쳐 크게 확장되였다. 이를 위하여 지출된 일본의 군사비는 최근 10년동안에 4배로 늘어났으며 그의 년평균장성률은 세계최고에 이르렀다.

미국식으로 장비되고 미군사령부에

종속되여있는 일본군대는 이른바 《자위대》라는 이름 밑에서 약 30만명에 이르는 병력을 가지고있다. 이것을 골간으로 하여 미제가 도발하는 침략전쟁에 아무때나 수백만 군대를 편성하여 동원할수 있게 되여있다.

일본 《자위대》는 미국화된 옛일제침략군대의 재판이다. 이는 미제의 아세아침략을 위한 돌격부대이며 미제와 종속적결탁관계를 맺고있는 일본독점자본의 침략도구이다.

침략무력의 확장과 함께 지금 일본에서는 대외침략책동에 상응한 국내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파쑈화가 급속도로 추진되고있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에 대한 파쑈적탄압과 테로는 군국주의의 통치형태이다.

일본 사또도당은 《치안체제》를 강화한다는 간판밑에 국가폭력기구를 계속 확장하고있다. 경찰은 각종 명목의 《특별경찰》까지 합하여 30만명에 이르고있다. 이는 패망전 일제경찰의 수배에 이르는 방대한 수자이다. 이밖에도 경찰의 《별동대》로서 10여만명을 망라하는 수백개의 우익테로단체들이 일본반동정부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비호육성되고있다. 사태는 인민탄압에 직접 《자위대》 무력까지 출동시키는것이 그들의 당면한 일정에 오르는데 까지 이르렀다. 인민에 대한 탄압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이미 각종 파쑈악법들을 조작한 일본반동정부는 최근에도 극반동적인 대학관리해체법을 국회에서 강압채택하였다.

특히 사또도당은 박정희괴뢰도당과 결탁하여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짓밟으며 탄압을 강화하고있다.

이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의 또하나의 로골적인 표현이다. 력사적경험은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탄압이 강화된 뒤에는 언제나 일본민주력량에 대한 탄압이 뒤따른다는것을 보여준다.

일본반동지배층은 나라의 전면적인 군국화를 위한 책동의 한고리로서 호전적이며 침략적인 군국주의사상을 다시 퍼뜨리며 천황숭배사상과 민족배타주의 및 복수주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고취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출판, 방송, 영화, 텔레비죤 등 여러가지 선전수단과 학교교육을 통하여 이른바 《국방》 사상을 주입하며 지난날 저들이 감행한 피비린내나는 침략전쟁들을 뻔뻔스럽게 《정의의 전쟁》으로 찬미하고있다.

일본은 또다시 아세아에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하였다. 력사적으로 가장 강도적이며 야수적인 잔인성과 교활성을 가지고있는 일본군국주의는 오늘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국제헌병이며 현대식민주의아성이며 세계제국주의의 두목인 미제국주의와 종속적인 동맹관계를 맺고 그의 전략계획에 충실히 복무하고 있음으로 하여 2중의 반동성과 침략성을 띠고있다.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는 미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편승하여 공공연히 제국주의적해외침략의 길에 나서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또정부는 미제의 사촉밑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원조〉, 〈공동개발〉, 〈경제기술적협력〉이라는 허울좋은 간판을 들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경제문화적침투를 강화하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323~324페지)

오늘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며 신생독립국가들을 침략하는데 있어서 로골적인 폭력적방법에 의거하는 동시에 더욱 교활하고 음흉한 신식민주의적방법을 배합하고있다.

반동화된 군부상층과 우익계층들을 매수하여 긁어모아서 괴뢰정권을 조작하고 그것을 식민지정책의 하수인으로 내세우며, 《원조》의 허울좋은 간판밑에 경제적예속화정책을 실시하며, 사상문화침투를 강화하여 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반제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반공》사상과 민족허무주의, 패륜패덕을 부식하며, 나아가 《반공》, 《호상안전》의 구실밑에 침략적군사쁠럭과 쌍무적군사동맹을 조작하여 거기에 참가한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예속시키고 식민지군사기지화하는것 등은 신식민주의의 중요한 수법들이다.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에 가담하여 바로 이와 같은 모든 수법을 본따고있을뿐만아니라 타고난 교활성으로 한수 더 뜨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와의 공모결탁밑에 먼저 남조선에 제국주의적침략의 발걸음을 내디디고있다.

일제가 패망한후 남조선을 직접 강점하고 새로운 식민지통치자로 군림한 미제는 조선인민의 완강한 반항에 부딪쳐 저들의 식민지통치가 거듭 심각한 붕괴의 위기를 겪게 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박정희괴뢰도당을 조종하여 가장 포악한 군사파쑈통치를 실시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남조선에 다시 끌어들이기 시작하였다.

1965년 1월 미제의 이전두목 존슨과 일본군국주의두목 사또가 일본이 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적극 가담하는 대가로 남조선에 재침하여 미제와 함께 지배권을 가지도록 하는 비밀협약을 맺은것은 드러난 사실이다. 이것은 1905년의 타프트-가쯔라비밀협정의 현대판이였다. 이 비밀협약의 결과에 오래동안 끌어오던 남조선괴뢰도당과 일본군국주의자들사이의 《한일회담》이 서둘러 결속되고 범죄적인 《한일협정》이 체결되였다. 《한일협정》은 1905년 타프트—가쯔라비밀협정의 결과에 일본이 조선을 이른바 《보호국》으로 만들것을 강요하였던 굴욕적 《을사보호조약》의 재판으로 되였다.

이렇게 하여 60년전 미일제국주의자들간에 꾸며졌던 흉악한 결탁의 낡은 정치적연극이 또다시 우리의 눈앞에서 되풀이되였다. 지난날과 다른것은 이것이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강화하면서 일본군국주의의 재침략의 수단으로 리용되고있는것이다. 《한일협정》에 의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모든 분야에 걸쳐 남조선을 다시 침략하여나섰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신식민주의적수법으로 남조선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적침투를 감행하고있으며 저들의 손때묻은 주구인 박정희괴뢰도당을 리용하여 남조선을 정치적으로 틀어쥐려 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면서 이들을 박정희괴뢰도당과 군사적으로 결탁시키고있다. 《한일협정》의 체결에 의하여 미제와 일본 사또반동정부와 남조선괴뢰도당사이에는 사실상 3각군사동맹이 형성되고 《미일한공동작전체제》가 이루어지고있다.

남조선은 날로 미일제국주의자들의 2중의 식민지로 굴러떨어지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윁남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전쟁에도 적극 가담하고있다. 사또반동정부는 일본이 미제를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조선전쟁때와 마찬가지로 일본전령토를 미제의 윁남침략을 위한 보급기지, 수리기지, 공격기지로 제공하고있다. 그들은 미제침략군에게 막대한 량의 무기와 군수품을 생산공급하고 파손된 비행기, 함선들을 수리해주고있으며 《선원》, 《전문가》의 이름밑에 직접 수천명의 군사인원들도 보내여 미

제의 전투작전행동에 참가시키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해외침략을 넓히고있으며 더우기 동남아세아에 대한 침략을 날로 강화하고있다.

그들은 오늘 남조선에서 거두고있는것과 같은 《효과》를 래일의 동남아세아에서 기대하고있다.

동남아세아에 대한 침략에 있어서도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아세아침략체제를 보강하면서 경제적침투부터 시작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원조를 미끼로 하여 이른바 《무상증여》, 《배상지불》, 《정부차관》, 《연불수출》, 《직접투자》, 《합영기업》 등 형식으로 자본수출을 강화하고있다.

대외 《원조》의 이름으로 해외에 수출된 일본의 자본총액은 1960년의 5억 8천만딸라로부터 1969년 3월말현재로 54억딸라에 이르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은 거액의 자본수출과 여러가지 식민지리권에 의거하여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경제의 명맥을 자기의 손아귀에 틀어쥐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제국주의독점자본은 이 나라들의 풍요한 자원과 근면한 이 나라 인민들의 로동의 열매를 계속 가혹하게 략탈하여가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경제원조〉를 통하여 뒤떨어진 나라들의 자립적민족경제의 발전을 억제하고있을뿐아니라 이 나라들의 내정에 란폭하게 간섭하며 정치적독립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있습니다.》**(《5대륙의 진보적기자들은 혁명의 필봉을 높이들고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자》, 단행본, 6페지)

비록 제국주의자들이 형식상 《무상》으로 준다고 하는 《원조》라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그것은 가장 교활하게 은페된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예속을 위한 미끼이다.

그들은 《원조》를 통하여 체화된 《잉여》 상품을 내리먹여 남의 나라 시장을 교란하고 독점한다. 그 《원조》 상품을 처분하여 얻은 자금이나 시설재들은 그 나라의 자립경제건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 경제를 저들에게 예속시키도록 하는 방향에서 사용하도록 통제한다. 그들은 《원조》에 대한 대가로 사자본의 직접 투자의 안전보장을 강요하는 등 여러가지 내정간섭을 일삼는다. 제국주의자들의 이른바 《원조》는 결코 자선사업이 아니다. 자본은 오직 최대한의 리윤을 추구하여 행동한다.

일본정부는 지난 2차대전기간 일제침략군이 동남아세아나라들에서 감행한 야수적살륙만행과 강도적략탈에 대한 이른바 《배상지불》까지도 그것을 재침략의 수단으로 리용하고있다. 일본반동지배층은 《배상지불》의 이름밑에 저들의 《잉여》 상품을 턱없이 비싼 값으로 처분하고 그것을 길잡이로 하여 자본수출과 상품수출 지반을 꾸리여 남의 나라 경제를 일본에 의존시킬것을 꾀하고있다.

실례로 타이는 1962년에 일본과의 사이에 맺은 《특별원보상협정》에 의하여 2,670만딸라의 이른바 《원조》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을 계기로 하여 타이에 침투한 일본독점자본은 1968년에 벌써 타이에 대한 외국의 민간자본투자에서 첫자리에 올라섰다. 1969년도 타이의 전체 수입액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률도 36%로서 역시 첫자리를 차지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타이의 반동지배층까지도 우려의 빛을 나타내는데 이르렀다.

일본독점자본은 《증여》니, 《배상》이니, 《정부차관》, 《연불수출》이니 하는 등의 국가자본의 진출에 의하여 이른바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신식민주의적 팽창과 략탈의 지반을 닦은 다음 사자본을 대대적으로 직접 투자하는 단계에로 넘어가고있다. 일본독점자본은 직접투자의 형식으로 동남아세아나라들에서 《합영회사》, 《새끼회사》 등을 설립하고 《개발자금》을 제공하는 등으로써 그 나라의 풍부한 원료자원과 값싼 로동력을 마음대로 착취략탈하고있으며 그 나라의 경제권을 더욱더 틀어쥐고있다.

일본독점자본가들은 한해에 남조선에서는 투하한 자본의 90%, 동남아세아나라들에서는 40~50%에 이르기까지의 최고률의 리윤을 짜내고있다.

일본독점자본의 이른바 《기술원조》도 경제적침투와 략탈의 중요한 수단으로 되고있다.

일본독점자본의 경제적침략은 정치적침략에로 넘어가고있다. 자본투자를 위한 안정된 환경과 조건, 착취와 략탈의 믿음직한 보장을 받는 그런 정치적체제의 확립은 독점자본의 일관한 요구이다.

일본독점자본은 미제와 더불어 저들의 《원조》를 통하여 이 지역의 친미반공괴뢰정권들을 적극 부축하여주고있다. 일시적으로 재정경제적난관을 겪고있는 신생독립국가들을 금융경제적인 유혹으로 낚아서 그들을 우경화하고 반제전선에서 떼내려하고있다.

일본반동지배층은 저들의 경제적침투지반이 굳어짐에 따라 경제적 《원조》에 갈수록 큰 정치적부대조건을 내세우며 《원조》 받는 나라들에 직접 간접으로 여러가지 압력을 가하고 위협하고있다. 그들은 오늘 동남아세아 여러나라들에서 《황색양키》라고 불리울 정도로 오만무례해지고있다.

일본반동지배층은 저들의 이러한 정치경제적침투에 사상문화적침투를 밀접히 배합시키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온갖 선전수단을 발동하여 미제의 침략적정체를 가리워주고 변호하며 제놈들이 그전날의 악독한 침략자, 략탈자로부터 오늘은 마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벗》으로 개변이나 된것처럼 떠들고있다. 사또반동정부는 사상문화침투와 파괴암해공작의 첨병으로서 악명높은 미제의 《평화군》의 일본판인 《일본청년해외협력대》라는것도 만들어서 여러나라들에 내보내고있다. 최근에는 《친선방문》이라는 이름밑에 해군함대까지 동남아세아여러 나라들에 들여보내여 일제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며 앞으로의 군사적침략의 길닦이를 하였다.

일본독점자본가들은 자본수출과 상품판매시장을 확대하며 신식민주의적침략을 강화할 목적으로 동남아세아뿐아니라 중근동, 나아가서는 멀리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에까지 분주히 싸다니고있다.

일본반동정부는 미제의 부추김밑에 이스라엘유태복고주의자들의 군사잠세력강화를 적극 도와주면서도 아랍나라들과 겉으로는 《친선》, 《중립》을 가장하고 이 나라들에 대한 경제적침투의 길을 열어놓으려고 간교하게 책동하고있다.

남아프리카와 남로데시아의 인종주의자들과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히 손을 잡고 그들을 두둔하여주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침략의 길을 넓히려고 수많은 《사절단》, 《조사단》들을 련이어 이 지역에 보내고있다. 그들은 이제 아프리카대륙의 풍부한 자원과 값싼 로동력을 착취략탈하려고 기를 쓰고있다.

일본독점자본은 라틴아메리카의 일련의 나라들에도 적지않은 직접투자를 하여 원료자원들을 략탈하고 인민들을 가혹하게 착취수탈하고있다.

실로 이 모든 사태발전은 미제의 비호밑에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가 이미 어느 정도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하였으며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에서 어느 정도로 멀리 나갔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이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과연 어디까지 나가려 할것인가?

독점자본은 식민지적지배를 요구하며 식민지적지배는 구경 힘에 의한 자

배이다.

지금 일본반동지배층은 해외팽창에서 이미 얻은 일본독점자본의 《권익》을 수호하며 새로운 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강화하여야 하겠다고 로골적으로 떠들어대고있다.

일본군국주의는 더욱더 무모한 모험의 길로 나가려 하고있다.

## 3. 미제의 최후발악적인 아세아전략과 일본군국주의의 흉악한 재침야망

오늘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혁명과 반혁명 력량사이에 치렬한 투쟁이 벌어지고있는 가운데 세계자본주의체계는 무너지고있으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의 마지막숨통이 끊어져가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구상의 온갖 제국주의가 다 그러한것처럼 미제국주의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있으며 더욱더 죽어가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횡포하게 책동하면 할수록 그들의 처지는 더욱더 어렵게 되여가고있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단행본, 71~72페지)

미제국주의는 이르는곳마다에서 혁명적인민들의 강력한 타격을 받고 안으로, 밖으로 커다란 위기를 겪고있으며 더욱더 막다른 골목에 빠져들어가고있다.

미제는 남부윁남에 50만이 넘는 큰 침략무력을 집어넣고 한해에 300억딸라에 이르는 엄청난 군사비를 쓸어넣으면서도 윁남침략전쟁에서 참담한 군사정치적패배를 면치못하고있다.

지난 조선침략전쟁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한 미제는 조선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려는 계획적책동의 한고리로서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대형간첩비행기 《이씨—121》 사건을 일으켰으나 더욱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말았다. 미제의 어용출판물까지도 이것을 보고 《초대강국의 시대》는 끝장났으며 세계를 지배하는 《아메리카의 세기》에 관한 신화는 물거품과 같이 사라졌다고 비명을 질렀다.

미제의 세계제패야망은 깨여져나가고있으며 그의 아세아침략을 위한 기본전략은 전면적으로 파탄되고있다.

미국안에서도 독점자본의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는 근로자들의 투쟁, 범죄적침략전쟁을 반대하는 각계층 인민들의 반전운동, 흑인들의 해방투쟁이 날로 크게 앙양되고있다.

또한 국제수지의 계속되는 악화, 금보유량의 전례없는 감소, 통화팽창의 격화, 생산의 침체와 실업자의 증대 등에서 나타나고있는바와 같이 심각한 경제공황의 위협이 무겁게 미제의 머리우에 드리우고있다. 사회적 혼란과 불안은 갈수록 심해지고있다.

자본주의전반적위기가 심각화되고있는 오늘 미제국주의만이 아니라 전체 자본주의세계가 다가오는 멸망의 공포로하여 떨고있다.

이러한 처지에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잃어버린 진지를 되찾으려고 결사적으로 발악하고있으며 침략과 전쟁에서 칼성판에 오른 저들의 운명을 구원하려고 더욱 악랄하게 날뛰고있다.

미제독점체들은 대통령을 갈아채우고 아세아에서는 무너져가는 식민지통치지반을 부지하기 위한 최후발악적인 책동으로서 이른바 《닉슨주의》라는 《새로운 아세아정책》을 들고 나왔다.

미제의 《새로운 아세아정책》은 이때까지 미제가 아세아에서 도맡아왔던 이른바 《방위》와 《안전》 및 《개발》에 대한 《책임》을 앞으로는 《아세아사람들 자신에게 맡긴다》는 것이며 미제는 그것을 뒤에서 《도와준다》는것이다.

미제는 이것으로써 아세아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침략과 간섭 정책에서 점차 물러서는듯이 가장하여 아세아와 세계인민들의 눈을 속이고 반전운동에 떨쳐나선 미국인민들을 무마하려 하고있다.

그러나 사실은 물러가는것이 아니라 그러한 연막뒤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보다 음흉하고 교활하게 보다 악랄하고 범죄적인 수법으로 침략과 전쟁 정책을 강화하려는것이다.

미제의 침략적이며 호전적인 기본정책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에서 추구하고있는 기본전략에 대하여 이미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아세아를 침략하기 위한 미제국주의자들의 기본전략은 더욱더 많은 미국무력을 이 지역에 집중하고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비롯한 자기들의 추종국가들과 괴뢰들을 동원하여 아세아 사회주의나라들을 봉쇄하고 공격하며 아세아에서의 혁명력량의 급격한 장성을 가로막고 식민지통치를 부지하려는데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319~320페지)

미제국주의자들의 《새로운 아세아정책》은 깨여져나가고있는 저들의 이 아세아전략을 수습하기 위하여 《아세아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는》 악명높은 침략수법을 더 로골적으로, 전면적으로 추진시키려는것이다. 그의 기본은 바로 오래동안 준비하여온 계획그대로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본격적으로 아세아침략의 앞장에 내세우며 특히는 그를 군사적침략의 주되는 타격력으로 삼으려는데 있다. 그리하여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끌간으로 남조선의 박정희괴뢰도당따위들를 긁어모아 《반공》 군사동맹을 조작하여 침략전쟁에 내몲으로써 저들은 될수록 타격을 적게 받고 침략적목적을 이룩하며 아세아에서 계속 식민지지배권을 틀어쥐려는것이다.

이른바 《닉슨주의》의 이러한 흉악한 본질은 얼마전 닉슨이 국회에 보낸 《대외정책서신》에서 일본이 아세아에서 《더 큰 책임을 짊어질 립장》에 있으며 미일간의 《협동》 관계가 《닉슨주의의 성공을 위한 열쇠》로 되며 《각별한 의의》를 가진다고 떠벌인데서도 더욱 낱낱이 드러났다.

미제의 비호밑에 되살아나 이미 해외침략의 길에 적극 나선 일본군국주의세력은 미제의 이 《새로운 아세아정책》을 환성을 올리며 받아물고 이것을 더없이 좋은 기회로 하여 아세아에 대한 제국주의적팽창야욕을 전면적으로 이루어보려고 어리석게 타산하고있다.

팽창할대로 팽창한 일본독점자본주의자체가 오늘 새로운 안정된 시장과 원료원천지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더 나갈수없는 커다란 모순에 부딪치고있다.

독점자본의 가혹한 착취와 수탈로하여 일본근로자들은 더욱 빈궁해지고 그들의 구매력은 떨어지고있다.

국내시장은 생산력의 장성에 비하여 더욱더 좁아지고있다. 독점자본가들은 국내에서 인위적으로 이른바 《유효수요》를 자극하고 설비투자경쟁을 일으켜 시장문제해결을 시도하였으나 그것도 허사로 되고있다. 생산의 장성에 따라 원료문제도 시장문제에 못지 않게 절박하게 나서고있다. 원래 일본공업은 원료문제해결을 크게 해외에 의존하고있다. 최근년간 독점자본의 집중과 합병을 기둥으로 하여 중공업과 화학공업 발

전을 다그침에 따라 원료확보와 생산물실현을 더욱더 해외시장과 대외무역에 의존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일본독점자본이 공업생산력을 높이고 생산을 강화할수록 과잉생산위기는 유령처럼 뒤따라다니고있다. 일본독점자본주의는 자본주의기본모순인 생산의 사회적성격과 생산물에 대한 점유의 사자본주의적형태사이의 모순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초래되는 엄중한 위기의 돌파구를 더욱더 경제의 군사화와 해외팽창의 확대에서 찾고있다. 일본독점자본가들은 경제의 군사화를 다그쳐 안정된 생산과 확실한 지불, 높은 리윤을 보장할것을 노리며 폭리를 쏟아주는 식민지세력권을 확보하려고 발악하고있다.

이것은 그들을 군사적침략에로 내몰지 않을수 없다. 경제적침략에 군사적침략이 뒤따르는것은 원래 제국주의침략에서 뗄수 없는 두 측면이다. 오늘 일본군국주의는 바로 그렇게 하려 하고있다. 일본독점자본주의의 발전의 이 필연적인 침략적요구가 곧 미제의 아세아 침략정책에 적극 가담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려는 망상과 직결되여있다.

이리하여 미제의 아세아침략전략이 무너지고있는 오늘의 력사적위기를 배경으로 일본군국주의를 저들의 침략정책수행에 더욱더 내세우려는 미제의 책동과 고도로 자라난 일본독점자본주의의 해외팽창야망이 한데 얽힌 기초우에서 미일제국주의자들사이의 침략적공모결탁은 새로운 엄중한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미제의 비호밑에 1950년대에 공공연히 재무장의 길에 들어선 일본군국주의는 1960년대의 경제적팽창과 재무장의 촉진단계를 거쳐 1970년대에 드디여 미제를 등에 업고 아세아에 대한 전면적군사침략의 길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 하고있는것이다.

말하자면 살찐 승냥이는 이제 우리밖으로 기여나오고있는 셈이다.

1969년 11월 닉슨도당과 사또도당이 워싱톤에서 가진 회담과 그 결과에 발표된 미일 《공동성명》은 미제의 《새로운 아세아정책》에 의한 미일제국주의자들사이의 새로운 침략적공모결탁의 전모를 남김없이 드러내놓았다.

닉슨—사또도당은 워싱톤회담후 입을 모아 미일간에 《전후시대》는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였으며 전체적으로 태평양지역은 《새 시대에 들어섰다.》고 떠들었다. 닉슨—사또도당이 떠벌인 《태평양 새 시대》란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미제의 《돌격대》로서 공공연히 침략의 앞장에 내세워 위기에 처한 미제의 아세아전략을 수습하는데 복무케 하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에 편승하여 아세아에 대한 자기자신의 재침야망을 전면적으로 이루기 위한 새로운 제국주의적팽창단계에 들어선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미일 《공동성명》은 바로 미일 두 제국주의 강도배들의 아세아에 대한 이러한 강도적공동침략의 야욕을 공공연히 선언한 침략문건이다.

그것은 현대제국주의의 날강도적광포성과 파렴치성을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냈으며 피비린내나는 미일 두 제국주의의 피비린내나는 력사에 새로운 흉악한 범죄적페지를 펼쳐놓았다.

《공동성명》에서 무엇보다먼저 닉슨—사또도당은 이른바 《극동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미제침략군이 이 지역에 계속 주저앉아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일본은 미제와 협력하여 이른바 《아세아의 평화와 번영》에 《적극적으로 공헌》할것이라고 떠벌이였다.

이것은 미제침략자들이 일본을 비롯하여 아세아의 여러 지역을 계속 강점하고 침략과 략탈 정책을 강행하겠다는것이다. 그리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사또가 《공동성명》 발표후에 기자회견에서 더 똑똑히 까밝힌바와 같이 미제의 아세아침략정책수행에서 《주도적역할》을 맡아나서겠다는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이렇게 미제의 일본강점과 아세아의 침략을 보장하여주며 미제의 침략정책수행에서 앞장에 나서는 대가로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지난날의 세력권에 침투하도록 하여줄데 대한 담보를 주었다.

《공동성명》에서 사또는 남조선이 《일본자체의 안전에 불가결한것》이며 대만도 《일본의 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남부웰남도 일본의 《안전》에 관계된다고 하면서 《극동 여러나라의 안전은 일본의 중대한 관심사》라고 떠들어댔다.

이것은 미제의 아세아전략에 가담하여 그 《돌격대》로 나서며 아세아나라들을 침략하려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적야망이 얼마나 로골적이며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는가를 그대로 보여준다. 말하자면 이것은 사또도당이 일본전토를 조선, 중국, 웰남 등 아세아나라들을 반대하는 미제의 완전한 침략전쟁기지로 내여맡기고 미제의 각개격파전술에 따라 이 나라들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가담하겠다는것을 공인한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남조선, 대만, 남부웰남과 극동의 전지역에 대한 식민지적지배를 확립하려는 일본군국주의자들자체의 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낸것이다.

오늘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와 더불어 감히 조선인민, 중국인민, 웰남인민을 적대시하고 그의 령토완정을 오만무례하게 침해하면서 이 나라들의 불가분의 령토들을 제놈들의 이른바 《방위권》 안의 지역들로 선포한것은 그자체가 묵과할수 없는 제국주의날강도적론법이다.

닉슨—사또도당은 《평화》와 《번영》이니, 《방위》와 《안전》이니 하는 따위의 언제나 하는 허튼소리로 저들의 강도적정체를 가리우려 하고있다. 그러나 근대력사의 전기간을 통하여 일본의 두리에 있는 그 어느 한 나라도 미국과 일본을 침략하거나 위협한 일이 없다.

원래 그자체가 침략과 전쟁의 화근인 제국주의에 있어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방위》란 있을수 없으며 또 없다. 이것은 력사적으로 검증된 진리이다. 제국주의자들이 내세우는 《평화》와 《방위》 선언은 전통적으로 침략선언이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전의 침략전쟁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선에 대한 침략전쟁도, 꾸바에 대한 무력침공도, 웰남에 대한 침략전쟁도, 콩고(킨)와 도미니까에 대한 무력간섭도 모두 《평화》요, 《자유진영의 방위》요, 《미국의 안전》이요 하는 구호밑에 감행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미 지적한바와 같이 19세기말엽이래 감행하여온 청일전쟁, 로일전쟁, 조선강점, 쏘련침공, 중국침략, 동남아세아침공의 전행정에서 바로 《동양평화》요, 《거류민보호》요, 《공산주의침략위협》으로부터의 《생명선방위》요, 《공존공영》이요 하고 떠들었다. 그때에도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만주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조선이 없으며 조선이 없으면 일본의 방어는 가망없다》고 하였다.

미일 《공동성명》에서 닉슨—사또도당이 들고나온 이른바 《방위》와 《안전》에 관한 넉두리가 그 선행자들이 떠들어온 이러한 침략적구호와 무엇이 다른가, 아무 차이도 없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와의 이러한 공동침략을 위하여 미일 《공동성명》에서 침략적군사동맹인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올해의 기한만료후에도 계속 《견지》할것을 미제에게 확약하였다. 뿐만아니라 미일반동들은 이때까지 형식상이나마 일본령토안에 국한시키고있던 이 《조약》의 적용범위를 전극동지역에로 확대할것을 공공연히 규정하였다.

이로써 일본을 미제가 《방위》해준다는 이름밑에 1950년대에 조작된 《안전보장조약》은 1960년대에 《공동방위》라는 이름밑에 미제의 침략전쟁에 일본군국주의가 직접 가담하도록 개악되였으며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것은 다시 극동 전지역의 《방위》란 이름밑에 더욱더 로골적인 침략조약으로 개악되게 되였다.

미일제국주의자들은 이 침략조약을 골간으로 아세아 《반공》 군사동맹의 형성을 완성하려 하고있다.

미일 《공동성명》은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 이 지역 인민들의 독립과 령토완정을 엄중히 위협할뿐아니라 일본인민의 주권과 안전을 더욱 횡포하게 침해하고있다.

닉슨—사또도당은 일본인민을 속이고 그들의 반항을 무마하기 위하여 미제가 오끼나와를 일본에 돌려줄 용의를 가지고있는듯이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공동성명》에는 미제가 오끼나와를 일본에 반환할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담보한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오끼나와 시정권의 반환》이라는 기만극을 통하여 겉으로는 넘겨주는듯이 꾸미고 안속으로는 미제가 계속 이 섬을 핵무기를 포함한 침략적군사기지로서 관리통제하려는 음흉한 기도를 보여주고있다. 더 나아가서 《본토와 동등한 조건》에서의 《시정권반환》이라는 구실밑에 일본전토를 오끼나와와 같은 핵기지로 전변시킬것을 노리고있다.

이것은 오끼나와의 무조건, 즉시적인, 전면적 반환과 일본의 독립, 평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전체 일본인민의 념원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며 모독이다.

미일 《공동성명》은 또한 아세아나라들에 대한 신식민주의적경제적예속화정책을 강화할데 대한 야욕도 더욱 로골적으로 나타냈다. 닉슨—사또도당은 미일제국주의가 세계경제에서 무슨 《지도적지위》를 차지하고있다고 하였으며 사또는 일본이 아세아에 대한 경제적 《원조》를 확대할 의향이라고 떠벌였다.

최근 일본국회에서 한 《시정방침》연설에서 사또가 《경제의 국제화》를 실현하겠다고 지껄인것도 바로 그러한 속심을 드러낸것이다.

결국 미일 《공동성명》은 1970년대에 일본군국주의재무장을 보다 완성하며 그를 앞장에 내세워 아세아에서 공동으로 식민지 지배와 략탈을 강화하며 새로운 침략전쟁을 벌려놓을것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떠벌인 미일 두 제국주의의 가장 뻔뻔스러운 강도적선언이다. 이것은 일본인민을 또다시 침략전쟁의 참화속에 이끌어넣으며 아세아와 세계를 새 전쟁의 위협속에 빠뜨리려는 가장 흉악한 범죄적침략문서이다.

바로 이것이 미일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태평양 새 시대》의 기본내용이기도 하다. 사또는 《태평양 새 시대》란 태평양을 사이에 둔 미일 두 나라가 《협력》하여 아세아태평양지역에 《새질서를 창조》하는 시대라고 털어놓았다.

두 강도배가 손을 맞잡고 식민지 략탈과 지배의 《새 질서》를 세우겠다는 이 넋두리보다 더 똑똑히 미일제국주의자들사이의 범죄적결탁의 진짜내막을 밝혀주는것은 없다.

《새 질서를 창조》한다는 말자체가 벌써 지난날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친듯이 아세아를 침략할 때 부르짖던 《대동아 새 질서 건설》이란 구호를 그대로 되뇌인것이다. 얼마전 닉슨이 미국회에 보낸 《대외정책서신》과 사또가 일본국회에서 내놓은 《시정방침》은 다같이 저들의 이 침략계획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이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아세아침략전략과 1970년대 미일간의 종속적인 제국주의적결탁의 새로운 단계를 계기로 하여 갈수록 더욱 오만하게 꺼리낌없이 복수주의적침략야망을 드러내놓고있으며 그를 위한 준비를 다그치고있다.

그들은 대외적으로는 일본이 다시 아세아에서 《지도자》로 되여야 한다는 《아세아맹주론》을 들고나오고있다.

대내적으로는 군비의 대대적확장과 파쑈적탄압체제의 강화에 모든 힘을 돌리고있다.

그들은 1970년대는 《아세아개발의 10년》이라고 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적침략과 함께 그것을 군사정치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태세를 갖추고있다. 일본이 《국력에 상응한 군사력》을 가져야 하며 《해외에서 군사적역할을 수행》할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지금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떠들어대고있는것은 다 이것을 말하여주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1970년대에 그들이 말하는 앞으로 《크게 행동할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기 위하여 이른바 《자주방위구상》을 내놓고있다. 그에 의하면 그들은 핵무기를 자체로 개발보유하며, 징병제와 전반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항공모함과 원자력잠수함을 포함한 《서부태평양제압력량》을 확보하며, 다른 나라를 공격할수 있는 폭격기와 전투폭격기들을 정비할것 등을 목표로 하고 년간 군사비지출을 지금보다 4배나 더 많은 55억딸라 이상으로 할것을 제기하고있다. 이 이른바 《자주방위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계획의 하나라고 하는 4차 《방위력정비계획》 (1972~1976)은 해군과 공군력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일본군대를 더욱더 공개적인 공격무력으로 전변시킬것을 계획하고있다.

또한 《향토방위군》이라는 이름밑에 100만군대를 무장시킬것을 계획하고있으며 700여만에 이르는 징병대상자명단까지도 이미 만들어놓았다. 뿐만아니라 《원자력의 평화적리용》의 간판밑에 핵무기생산에 각방으로 달라붙고있으며 그의 운반수단인 로케트와 초음속전투폭격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이렇게 하여 일본군국주의의 해외팽창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며 아세아에서 《국부전쟁》, 《전면전쟁》을 다같이 수행할수 있는 기동력과 화력과 병력을 갖추려고 서두르고있다.

사또도당은 미제의 비호밑에 침략무력의 해외진출을 주장하면서 미제의 수법대로 《유엔》의 기발을 들고 그것을 실현하려는 악랄한 음모까지 꾸미고있다.

미일 《공동성명》에서도 사또도당은 앞으로 미제의 조선침략전쟁에 가담하는 경우 이렇게 할 음흉한 기도를 그대로 드러내놓았다.

사또도당은 동남아세아나라들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지역협력체제》들을 형성하고 그를 아세아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적군사동맹으로 전환시키는것을 자기의 해외군사 팽창을 실현하는 또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경제《원조》와 《협력》의 간판밑에 저들의 신식민주의정책의 집행도구인 《동남아세아개발각료회의》, 《동남아세아농업개발회의》, 《아세아개발은행》 등 수많은 기구들을 군사적팽창을 위한 도약대로 리용하고있다. 그들은 미제의 적극적인 부추김에 따라 《아세아태평양지역각료리사회》 안에서 주도적지위를 차지하고 이 기구를 아세아 《반공》 군사동맹으로 전환시키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있다.

해외에 대한 제국주의적팽창을 더욱 로골화하면서 바야흐로 사또도당은 국내정책의 모든 부문에 걸쳐 재군국화와 파쑈화의 전면적실현을 기도하고있다.

부르죠아민주주의장식물인 국회가 아직은 남아있다.

그러나 일본반동지배층은 지난해말 총선거에서 사기협잡과 폭력으로 국회

에 더욱 큰 《자민당》 다수파를 조작한것을 코에 걸고 《국회법》을 개악하며 《소선거구제도》를 실시하여 《의회제민주주의》마저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리려 하고있다. 전후 초기에 군국주의의 지반을 청산이나 하는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취하였던 일련의 기만적조치들마저 모두 집어던지고 농촌에서 대토지소유제와 부재지주의 부활을 합법화하는 《농지법개정안》을 만들고있으며 독점재벌들이 마음대로 활개치게 하는 악법들을 조작하려 하고있다. 독점체들과 군부는 더욱더 결합되여 헌법을 개악하고 나라를 무한정의 군비경쟁과 전쟁체제에로 다시 이끌어가려 하고있다. 일본의 인적물적자원을 침략전쟁에 징발하기 위한 수십종의 전시동원법을 검토하고있다. 일본의 독립, 민주주의, 평화를 위한 인민들의 모든 운동에 파쑈적탄압을 강화하고있으며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틀어막기 위한 여러가지 파쑈적악법들을 제정하려고 공공연하게 시도하고있다.

일본에서 벌어지고있는 이러한 사태들은 일본반동지배층이 필요한 때 언제든지 일본을 전시총동원상태로 전환시키며 제국주의군사팽창단계에 알맞는 국내탄압체제를 갖추어나가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책동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일본제국주의나 미제국주의나 또한 지난날의 제국주의나 오늘의 제국주의나 할것없이 모든 제국주의는 다 침략적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473~474페지)

오늘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실로 북쪽은 알라스카 이남으로부터 남조선, 대만, 남부월남을 거쳐 마락카해협에 이르는 계선을 이른바 《방위선》이라고하며 지어는 남태평양의 아라후라해협까지 포함한 아세아 전지역을 《방위》하는데 필요한 군사력을 창설하여야 하겠다고 주장하는데까지 이르고있다.

이와 함께 사또도당은 오끼나와의 기만적 《반환》을 구실로 삼아 쏘련에 대하여 이른바 《북방령토문제》를 걸고드는 깜빠니야를 더욱 대대적으로 일으킴으로써 민족배타주의와 복수주의를 고취하기에 미쳐날뛰고있다.

이 모든것은 결국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이 태평양전쟁기간에 강점하였던 전지역을 그대로 다시 차지하려는 야망에 불타고있으며 그렇게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재현하려는 끝없는 망상에 사로잡혀있다는것을 가장 뚜렷이 보여주는것이다. 일본군국주의 두목 사또는 《아세아의 안정문제에 대하여 주역을 담당수행하는것은 일본》이라고 하면서 《〈아세아는 하나이다.〉라는 명치때의 선배의 말이 지금처럼 통절이 상기되는 때는 없다.》고 떠벌이였다. 일본출판물까지도 지금 일본반동지배층들속에서 해외팽창에 관한 론의에 《제2차세계대전전야를 방불케 할 정도로 열중하고있다.》고 평하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 력량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였고 사회주의를 비롯한 세계 평화애호력량이 강력한 조건에서 제국주의자들은 결코 함부로 날뛸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은 미제와 더불어 일본군국주의자들이 결코 죄행을 다시 저지를수 없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미제국주의는 대외침략정책의 파탄과 국내의 정치, 경제적 위기가 심각화된 현단계에서 일본군국주의를 어떻게 리용하는가에 따라 아세아에서 저들의 운명이 좌우된다는것을 공개적으로 실토하고있다.

한편 대미종속하에서 되살아났으며 현시기 해외침략과 식민지세력권의 강탈없이는 더 나갈수 없는 단계에 이른 일본군국주의는 미제의 이 전략에 최대한 편승하여 아세아의 《맹주》가 되려는 침략적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고 타산하고있다.

미제국주의의 적극적인 부추김과 지지를 받아 과대망상적인 타산을 앞세워 전면적인 군사침략의 길에 나서려고 꾀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분별없는 책동을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그들은 또다시 아세아와 세계 인민들에게 커다란 참화를 끼치게 될것이다.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은 이것을 명심하여야 하며 최대의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 4. 조선인민은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해외팽창에서 남조선에 대한 침략은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세력의 남조선재침략은 미일제국주의간의 새로운 침략적공모결탁의 직접적산물이며 먼저 조선을 침략하고 이를 발판으로 하여 아세아를 침략하려는 일본군국주의의 전통적전략계획의 구체적표현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닉슨주의의 성공을 위한 열쇠》가 미일간의 《협동》관계에 있다고 공개적으로 떠벌였다면 남조선은 그의 첫째가는 시험장으로 되고있다.

오늘 남조선이 미제의 가장 반동적인 식민지군사파쑈통치밑에 놓여있으며 그것이 식민지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파쑈통치와 신식민주의정책의 전형으로 되고있다는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식민지지배체계가 밑뿌리로부터 뒤흔들리고있는 위기의 환경속에서 남조선인민들을 희생시켜 일본반동지배층에게 침략적공모의 미끼를 던져주면서 일본군국주의세력을 직접 군사적침략의 앞장에 내세우려는 흉계를 남김없이 드러내놓았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여 남조선을 《대동아공영권》의 옛망상을 실현하는 도약대로 삼으려 하고있다.

미일 《공동성명》은 뻔뻔스럽게도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미일 두 제국주의 강도배들의 이 악랄한 침략적흉계를 그대로 온 세상에 공포하였다.

이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전초기지로 하고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돌격대》로 삼아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키려는 미제의 전쟁정책에 따라 남조선에 군사적침략을 감행하려는 단계에까지 공공연히 들어서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근 반세기에 걸쳐 우리 조선인민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하고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모든것을 짓밟고 략탈하여간 우리 민족의 철천지원수입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오늘 미제를 등에 업고 자기들의 옛지위를 회복하려고 망상하면서 또다시 남조선에 기여들고있으며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하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390페지)

이미부터 미제의 조종밑에 박정희괴뢰도당과 맺은 《한일협정》에 의하여 남조선에 전면적으로 기여들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벌써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미제의 다음가는 지배적지위를 차지하고있으며 두번째 《주인》으로 등장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먼저 경제적으로 침투하여 미제와 함께 남조선경제를 예속화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을 디딤돌로 삼아 해마다 일본독점자본의 수백개 상사들, 각양각색의 《대표단》, 《사절단》, 《조사단》, 《관광단》의 이름을 띤 수천수만의 침략의 척후병들이 앞을 다투어

남조선에 제집처럼 드나들고있다. 그들은 치외법권적특권행세로 리권을 손에 넣고 침략의 지반을 날로 확대하고있다.

일본상품과 자본은 물밀듯이 남조선에 쓸어들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지난날 일제가 조선에서 감행한 식민지략탈에 대한 《배상지불》이나 되는것처럼 꾸며서 내놓은 이른바 《청구권자금》을 통하여 《경제협력》이란 이름밑에 들이먹이는 《민간상업차관》을 통하여 남조선경제의 군사화를 촉진시키며 그의 중요명맥을 틀어쥐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괴뢰들이 일본자본을 끌어들여 실시하는 투자의 방향과 규모, 그 내용과 기업 등을 통제할뿐아니라 새로 설치되는 남조선기업체의 운영과 관련된 기술, 원료와 자재의 공급 지어는 기업체들의 경영권까지 실질상 틀어쥐고있다.

일본독점자본은 박정희괴뢰도당으로부터 조세, 공업소유권보호문제 등에서 식민지적특권을 보장받게 되자 이제 사자본의 대대적인 직접투자단계에 들어섰다.

자본의 직접투자는 제국주의침략의 기본특징의 하나이며 대상나라의 경제를 철저히 예속시키고 최고률의 착취와 략탈을 보장하는 수단이다.

일본독점체들은 지금 《합영회사》의 설립이라는 이름밑에 서로 앞을 다투어 남조선에 기여들어 기간공업분야에 깊이 뿌리박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또한 《보세가공》의 간판밑에 아무런 세금지불도 없이 설비와 자재를 남조선에 끌어들여 청부가공케 함으로써 자본주의세계에서 가장 눅은 남조선로동력을 무제한 착취하여 폭리를 얻고있다. 지어 그들은 남조선청장년들을 일본에 끌어가서 노예로동을 시켜 저들의 배를 불릴 계획까지 꾸미고있다. 지난날 조선에서 끝없이 착취와 략탈을 감행하던 《미쯔이》, 《미쯔비시》 등 독점재벌의 은행들이 또다시 직접 남조선에 기여들어 침략적인 금융, 투자 활동을 벌리고있다.

남조선은 일본독점자본의 채무노예로 되고있으며 일본의 자본수출지로 잉여상품시장으로 되고있다.

지난날 조선인민을 야만적으로 착취하고 우리 나라의 값진 자연부원을 마음대로 략탈하여간 일본군국주의놈들이 이렇듯 오늘 또다시 남조선에서 우리 인민의 고혈을 짜내고있으며 재부를 긁어가고있다.

남조선에 경제적으로 침투하여 침략의 사회경제적지반을 닦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정치적지배를 강화하려 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침략의 거점으로서 서울 한복판에 아세아의 다른 어느 나라에 가있는 일본대사관보다도 더 큰 건물과 기구를 가진 《대사관》을 꾸리고 저들의 충실한 앞잡이 박정희괴뢰정권을 적극 부축해주며 박정희도당을 통하여 침략과 략탈의 온갖 특권을 다 보장받고있다.

지금에 와서 일본 사또반동정부가 국제무대에서까지도 미제와 함께 남조선에 대한 《보호자》, 《후견인》 처럼 행세하는 일이 갈수록 더욱 잦아지고있다.

사상, 문화적분야에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친선》,《문화교류》라는 허울좋은 간판밑에 온 남조선땅에 썩어빠진 양키문화와 함께 왜색왜풍이 뒤덮이게 하고있다. 그들은 남조선인민들이 저들의 침략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저들의 략탈에 순순히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추악한 사상문화적독소를 뿌리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의 뿌리깊은 반일감정을 해소시키고 일본숭배사상을 고취시키려 하고있다. 그들은 반동적인 출판물과 영화를 남조선에 범람시키고있으며 《천리교》와 같은 국수주의적인 침략종교까지 남조선에 끌어들여 퍼뜨리고있다.

그리하여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적자주의식과 계급의식을 마비시키며 자유와 해방과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와해시키려 하고있다.

군사적으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한일협정》에 의하여 《미일한 3각군사동맹체계》를 갖추어놓은데 기초하여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에 적극 끼여들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미 미제가 조선에서 다시 침략전쟁을 도발할 때 여기에 가담하며 이것을 계기로 전쟁을 아세아대륙에까지 확대하려는 구체적인 전쟁계획까지 이미 다 짜놓고있다. 세상에 널리 폭로된 《세개화살작전》, 《날아가는 룡작전》, 《달리는 황소작전》 계획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전쟁계획들에 예견된 방침들에 근거하여 일본 《자위대》는 재편성을 하며 장비를 강화하고있으며 미제침략군 및 남조선괴뢰군과 공동군사연습들을 거듭하여 벌리고있다. 이들은 조선과 다른 아세아지역들을 작전지역으로 가상한 《상륙전》, 《공수작전》, 《대유격전》 훈련과 《내한훈련》을 다그치고있다.

일본 《자위대》 두목들과 이른바 《재향군인 대표단》 들은 뻔질나게 남조선에 기여들어 군사분계선일대와 남조선괴뢰군부대들을 시찰하고 박정희괴뢰도당과 전쟁밀담을 벌리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뛰여들고있는가 하는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계획적으로 우리 공화국의 령해와 령공을 침범한 1968년 1월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1969년 4월의 대형간첩비행기 《이씨—121》 사건을 계기로 미친듯이 전쟁소동을 벌렸을 때 일본사또반동정부가 이에 배합하여 《자위대》에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림전태세》를 갖추었던 사실에서도 똑똑히 알수 있다.

미일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악의에 찬 중상비방을 늘어놓으며 조선에 대한 군사적침략기도를 더욱더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

최근 일본국회에서 사또도당은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선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그것을 《강건너 불보듯할수 없다.》고 하면서 일본군국주의침략무력을 조선에 출동시킬 의사를 공공연히 표명하였으며 지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선제공격》도 생각해야 한다고 떠벌이였다.

사또도당은 미제가 조선에서 도발하는 침략전쟁에 뛰여들기 위하여 열이 오를대로 오르고있다. 그들은 이른바 《거류민보호》를 위하여 일본군대를 남조선에 보낼수 있다는 소리까지도 서슴없이 하고있다.

바로 이 《거류민보호》란 허울좋은 간판이야말로 조선인민에게는 듣기만 하여도 소름이 끼치는 제국주의의 야만적침략의 가장 뻔뻔스러운 대명사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력사적으로 감행한 모든 침략전쟁에서 내세운 첫째가는 구실이 이른바 《거류민보호》였다는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사또도당이 이 악명높은 침략의 넉두리까지 그대로 되뇌이면서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진출의 흉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고있는것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이번 세기초에 조선에 침입하던 때 하던 그 강도적행세와 본때를 그대로 련상시킨다.

사실상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패망하여 쫓겨간뒤에도 조선을 다시 침략하려는 야망을 한순간도 버린 일이 없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지난날 조선에서 감행한 식민지략탈통치를 실시한것은 《영광스러운 제국주의》로서 조선에 《유익》하였다느니, 《38도선을 압록강밖으로 밀어올리는것이 일본의 임무》라느니, 《일본은 힘이 된셈치고 남조선을 크게 먹어치워야 하겠다》느니 하

는 오만한 침략적망언들을 끊임없이 떠벌인 사실들은 다 이것을 말하여준다. 그들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꾸며냈던 《동조동근》, 《내선일체》란 지난날의 악랄한 침략적구호마저 되살려 《일한운명공동체론》을 새로이 들고나왔다.

얼마전에는 조선이 《일본에서 분렬되여 독립하였다》느니 조선인민이 《같은 일본국민》이 였다느니 하는 조선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적인 악담까지 떠벌이였다. 조선을 기어코 삼켜보려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변함없는 강도적인 침략적본성을 이보다 더 똑똑히 보여주는것은 없다.

남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전면적인 재침략과 이에 따라 날로 강화되고있는 사또반동정부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은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극도에 이른 조선에서의 긴장상태를 더욱 날카롭게 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의 재침략으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에게는 더욱 큰 불행과 재난이 들씌워지고 4천만 조선인민이 한결같이 념원하고있는 조국의 평화적통일의 앞길에는 새로운 또하나의 장애가 조성되고있다.

오늘의 이 엄중한 사태발전은 조선에 대한 침략적목적을 이루어보려는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흉계가 얼마나 위험한 고비에 이르고있는가 하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성된 현실은 전체 조선인민이 피맺힌 원수 일본군국주의의 재침략책동을 날카롭게 주시하며 그것을 짓부시기 위하여 더욱 완강히 투쟁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미제와 함께 일본군국주의는 우리와 직접 맞서고있는 가장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하였다. 민족적량심을 가진 조선사람은 그 누구든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또다시 우리 나라 남녘땅에 기여들어 주인행세를 하며 침략군대까지 끌어들이려는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수 없다.

남북을 막론하고 전체 조선인민들은 미제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과 함께 미제의 전략에 따라 남조선에 전면적으로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는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더러운 발길로 우리의 신성한 조국땅을 감히 짓밟지 못하게 하여야 하며 그놈들이 또다시 피묻은 칼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특히 지금 침략을 직접 당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이 민족적분노의 불길을 더욱 높여 일본군국주의세력의 침략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 단호히 일떠서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인민들은 범죄적인 〈한일협정〉을 폐기하며 일본군국주의세력의 남조선재침략기도를 분쇄하기 위하여 결정적으로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이 투쟁은 동시에 미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의 일환으로 됩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오직 미제국주의침략세력과 그 주구들을 타도하여야만 자유와 해방을 달성할수 있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략기도를 분쇄하여야만 새로운 재난의 위험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390페지)

남조선인민들은 외래침략자들과 국내반동세력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력사를 가지고있다.

지난날 수많은 반일애국투쟁과 혁명투쟁에서 전체 조선인민과 함께 남조선인민들은 열렬한 애국주의정신과 혁명적기개를 시위하였다.

미제의 조종밑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남조선괴뢰도당과 벌려놓았던 이른바 《한일회담》을 반대하여 또한 《한일협정》을 짓부시기 위하여 남조선의 애국적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거룩한 영웅적투쟁을 벌리였다.

3.24투쟁, 6.3투쟁을 비롯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미일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에게 커다란 타격을 준 반제반파쑈애국투쟁이였다.

이처럼 용감하게 싸워온 남조선인민들이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어느때보다 위험한 지경에 이른 오늘 어떻게 사태를 보고만 있을수 있겠는가!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과 함께 그 앞잡이들을 쓸어버려야 한다. 박정희도당은 《제2의 리완용》을 자처하면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 업어들이여 오늘과 같은 엄중한 사태를 빚어내고있다.

일찌기 일본침략군의 장교로서 일본《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한 민족반역자이며 해방후에는 미제의 충실한 특무로 변신한 극악한 매국노인 박정희괴뢰도당은 오늘 미제와 함께 일본군국주의자들까지 상전으로 섬겨 남조선을 미일제국주의의 2중의 식민지로 전락시키면서까지 저들의 더러운 목숨을 이어가려고 갖은 범죄적행위를 다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여 투쟁에 일어섰을 때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정당한 애국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이것은 박정희괴뢰도당이야말로 미일제국주의의 충실한 개이며 천추에 저주받을 매국역적이라는것을 더욱 똑똑히 보여주었다.

남조선인민들은 식민지노예의 운명에서 벗어나며, 자유와 해방을 이룩하기 위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일본군국주의의 재침략을 부서버려야 하며 박정희괴뢰도당을 타도하여야 한다.

일본군국주의세력의 침략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은 생존의 권리를 쟁취하며 민족적독립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남조선인민들은 「《원조》, 《협력》의 간판아래 기여들어 미제와 더불어 남조선의 경제명맥을 틀어쥐려는 일본독점자본의 온갖 간악한 책동을 반대하는 광범한 대중적인 투쟁을 벌려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정치적 간섭과 지배를 단호히 물리치고 박정희도당의 친일매국정책을 끊임없이 폭로단죄하며 민족적독립과 나라의 자주, 자립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양풍과 함께 왜색왜풍을 견결히 배격하며 그것을 퍼뜨리는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도 제때에 타격을 가하여야 한다.

특히 남조선인민들은 당면해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군사침략계획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억세게 투쟁하여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일본침략군대가 절대로 우리 조국땅우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완강한 투쟁태세를 갖추어야 하며 범죄적인 《한일협정》을 부서버리기 위한 대중적투쟁을 벌려야 한다.

오늘 일본군국주의의 남조선재침을 짓부시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이 새로운 재난의 위험에서 벗어나는가 못하는가 하는 사활적인 문제이며 민족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의 아름다운 조국강산이 또다시 전쟁의 불길속에 빠지지 않게 하며, 망국노의 쓰라린 운명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누구나 미제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과 함께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책동을 물리치기 위한 투쟁에 분연히 일떠서야 한다.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인민들이 힘을 합쳐 억세게 싸워나간다면 그들은 반드시 미일제국주의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때려부시고 혁명의 승리를 쟁

취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자기들의 투쟁에서 결코 외롭지 않다.

남조선인민들에게는 공화국북반부의 위력한 혁명기지가 있으며 북반부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다.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언제나 모든 힘을 다하여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할것이며 그들과 함께 조국의 완전한 해방과 통일독립을 위하여 완강히 싸워나갈것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이제 또다시 《힘재》의 기회를 노리면서 미제국주의자들을 등에 업고 남조선에 기여들며 침략야망을 실현하려 책동하고있으나 이것은 터무니없는 망상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 받은 조선인민은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의 그 저주러운 침략의 력사가 되풀이되는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우리 인민은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며 원쑤들의 어떠한 침공도 단호히 물리칠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추고있다.

미일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조선인민의 편에는 전세계의 수억만 혁명적인민이 서있다.

만일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력사의 교훈을 저버리고 부모하게도 우리 나라를 반대하는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킨다면 그들은 바로 그 전쟁의 불길속에서 영영 타죽고말것이다.

## 5.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중요시하며 일치한 행동으로 그의 침략적야망을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미제와의 공모밑에 조선을 침략하며 나아가서 아세아를 침략하려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발악적인 침략책동은 이 지역의 정세를 한층 더 긴장시키고있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커다란 위협을 조성하고있다.

아세아침략에서 미일제국주의자들사이의 군사적결탁을 더욱 강화하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의 《돌격대》로서 《주역》을 맡아나서 새로운 군사적 팽창의 단계로 넘어가려는 위험한 시각이 다가오고있다.

아세아와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앞에는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중요시하며 일치한 행동으로써 그의 침략적야망을 저지파탄시켜야 할 파업이 절박하게 나서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지시에 따라 새 전쟁을 적극 준비하고있으며 일본은 아세아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미제의 공급기지로 또한 공격기지로 복무하고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결코 소홀히 할수 없습니다.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의 일환이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단행본, 70페지)

현대군국주의는 독점자본주의의 산물이다. 독점자본주의는 그의 략탈적, 침략적본성에 의하여 나라의 군국화를 끊임없이 추진시킨다. 경제를 군사화하고 군비를 증강하며 재벌과 군벌이 결탁하여 국가기구를 파쑈화하고 인민들에 대한 탄압과 착취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다른 민족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식민지략탈을 위한 침략전쟁에로 끊임없이 내달린다.

일본군국주의는 미제의 종속적동맹자로서 아세아제패의 야망을 또다시 공공연히 선포하였으며 아세아인민을 반대하는 범죄의 길에 발악적으로 들어서고있다. 자본주의의 전반적위기가 날로 커지고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이 더욱 파산되며 일본독점자본자신의 모순이 첨예화되고 판로와 시장, 원료원천의 부족이 심각화되면 될수록 일본군국주의의 해외팽창책동은 그만큼 더 백열화될것이다.

원래 태여날 때부터 가장 강도적침략성과 가장 야수적인 잔인성과 비길데 없는 량면주의적교활성을 가지고있는것이 일본군국주의의 특성이다. 일본군국주의의 이 본성은 죽을 때까지 변할수 없다.

오늘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는 이 고유한 본성을 그대로 보존하고있는데만 그치지 않고있다.

거기에는 어제날의 패망을 앙갚음하려는 불타는 복수심이 더 첨가되여있다.

《식민지제국》을 다시 이룩하며 기어이 아세아제패의 옛꿈을 실현하려는 광신적침략성이 첨가되여있다.

2차대전시기에는 아직 턱질적으로 덜 준비되였었으나 이제는 그때의 《국력》을 몇배나 릉가하는 《대국》으로 되였다는 과대망상이 첨가되여있다.

더 나아가서 날로 힘있게 앙양되는 인민들의 혁명운동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력의 장성에 대한 더욱 커가는 공포심과 증오심이 첨가되였다.

일찌기 류례없는 잔인한 식민지통치방법과 수다한 침략전쟁에 숙달되였으며 항상 기습과 배신적인 불의공격에 습성화된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의 침략적요구와 그자신의 커가는 침략적야망에 따라 또다시 그 어떤 흉악한 범죄도 서슴없이 감행하는 길에 들어서리라는것은 명백하다.

더우기 오늘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는 사회주의와 민족해방운동을 반대하며 아세아침략의 공동된 리해관계로부터 출발하여 현대의 가장 야만적이고 파렴치한 침략자이며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세계반동의 원흉이며 현대식민주의의 아성이며 민족적 해방과 독립의 교살자이며 세계평화의 파괴자인 미제국주의와 밀접히 결탁하여 종속적동맹관계를 맺고있으며 그의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 나서고있다.

바로 이것은 일본군국주의의 흉악한 침략성과 반동성을 더욱 배가하여주며 그의 위험성을 더 크게 하여준다.

오늘에 와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이 감히 제2차세계대전의 결과를 재검토하며 그것을 뒤집어엎을데 대하여 드러내놓고 떠들게 된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구라파에서 서부독일군국주의자들이 떠들고있는 복수주의적요구와 그대로 일치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일본군국주의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며 아직은 그가 침략전쟁을 벌려놓기에는 멀었다고 생각하여서는 결코 안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며 현실에 눈을 감지말아야 할것이며 일본지배층에 대하여 그 어떤 환상도 가지지 말아야 할것이다. 미일간의 모순이 앞으로 격화되는 경우에 그것을 리용할수 있다는 구실하에 결코 여기에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용해시키거나 이것으로하여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약화시켜서는 안될것이다.

호상간의 일정한 모순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일제는 침략을 위한 근본적문제들에서의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종속적동맹관계에서 결탁되여있다.

미제국주의는 일본을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 걸쳐 지배하고있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일관하게 대미추종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일본 사또정부와 가까이하면서 그 어떤 정치적흥정을 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과 팽창야욕을 멈춰세우거

나 물러세울수는 없다.

일본군군주의의 위험성을 보지 않고 그와 투쟁하지 않으며 사또반동정부와 가까이한다면 사실상 일본지배층의 위선적인 정체를 가리워주고 그의 해외팽창을 고무해주며 아세아에서 미제의 지위를 강화하여주게 된다.

평화와 민족적독립,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리익은 전반적정세평가에서 구라파나 아세아의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며 서부독일군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의 위험성에 대하여 어느 하나만 중시하고 다른 하나를 경시하는 립장을 취하지 말것을 요구한다.

민족리기주의적립장에 서거나 일시적인 눈앞의 리익만 생각하고 전반적인 반제투쟁의 리익을 무시한다면 결국에 가서 그것은 더 비싼 파국적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아세아에서 일본이 또다시 새 전쟁의 발원지로 자라난 이상 그것을 그대로 두고서는 아세아와 세계는 결코 평온할수 없다.

오늘 일본군국주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것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견결히 반대하는가 안하는가, 아세아에서 평화와 안전을 진실로 념원하는가 안하는가,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을 보여주는 근본립장문제로 된다.

아세아의 안전을 보장하고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를 진정으로 지키며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한 인민들의 위업을 성취하려면 미제를 반대하여 싸우는것과 함께 아세아에서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공동으로 견결히 투쟁하는것이 필요하다.

모든 반제혁명력량과 평화애호력량은 광범한 반제반미공동행동과 통일전선을 이룩하고 미제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과 함께 힘을 합쳐 그 동맹자인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사이의 호상결탁의 흉악한 내막과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끊임없이 전면적으로 폭로하며 최대한의 경각성을 높일것이 요구된다.

일본반동지배층이 상투적인 위선적구호밑에 국내에서 파쑈체제를 강화하며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신식민주의적침략책동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하며 감히 불장난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일본이 아세아에 위치하고있는 사정을 리용하여 일본 사또반동정부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의 《벗》으로 가장하고 이 지역 나라들에 침략적지반을 닦으며 반제전선을 와해시키려는 책동을 철저히 짓부셔야 할것이다.

그렇게 하여 이르는곳마다에서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타격을 주고 그들을 국제무대에서 고립시키며 일치한 행동으로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적야망을 꺾어버려야 할것이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사회주의나라들이 큰 역할을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나라들은 평화의 위력한 성새이며 모든 진보적인민들의 승리의 믿음직한 보루이다. 사회주의나라들이 어떤 립장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전반적사태발전은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나라들앞에는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인민들의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력사와 인민 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적인 립장에서 일본군국주의에 대하여야 할 엄숙한 임무가 나서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맑스-레닌주의혁명적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미제의 충실한 종속적동맹자인 일본반동지배층에 대한 원칙적립장을 일관하게 견지하며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책동을 반대하여 날카롭게 투쟁하여야 자기의 국제적임무에 충실할수 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미제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과 함께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며 그를 적극 지지하여야 할것이다.

지난날 일본군국주의의 야만적침략과 식민지통치를 겪었던 모든 아세아나라인민들앞에는 힘을 합쳐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견결히 반대하여야 할 공동의 과업이 나서고있다.

오늘 일본반동지배층은 아세아인민들속에서 의연히 강하게 살아있는 반일감정을 무마하기 위하여 자기들은 마치 지난날의 일본군국주의와는 다르며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을 도우려는 《선의》를 가지고있는듯이 여러모로 선전하고있다. 그러나 양가죽을 뒤집어쓴 승냥이의 본성은 그대로 남아있다. 독점자본의 침략성과 략탈적본성은 미제나 일제나 그리고 지난날이나 오늘이나 다를것이 없다.

아세아, 아프리카의 신생독립국가들은 일본과 경제관계를 맺는 경우에 있어서도 겉으로는 《낮은 자세》에서 알랑거리나 속심은 침략과 략탈의 구멍수를 찾는데 그 어느 제국주의자들보다도 더 간악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정체를 간파하고 그에 대하여 응당한 경계를 하여야 할것이다. 그리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이른바 《원조》를 미끼로 그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방해하거나 내부문제에 간섭하여 정치적영향을 미치려는 어떠한 책동도 단호히 폭로하며 물리쳐야 할것이다.

이렇게 하여야만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신식민주의적침략책동으로부터 나라의 독립과 자주적발전을 믿음직하게 지켜낼수 있다.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며 미일반동들의 공동의 침략음모를 저지파탄시키는데 있어서 일본인민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일본공산당을 선두로 하는 일본인민은 어려운 환경에서 미제와 일본독점자본을 반대하며 나라의 완전한 독립과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일본인민은 미제와 일본독점자본들간의 흉악한 공모밑에 진행되고있는 일본의 재군국화와 핵기지화를 반대하는 투쟁, 미일 《안전보장조약》의 페기와 오끼나와의 즉시 무조건적인 전면적반환을 요구하는 투쟁, 또한 《한일조약》의 페기를 요구하며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조선에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반대하는 투쟁, 미제의 월남침략전쟁과 그에 가담하고있는 일본반동정부를 반대하는 투쟁, 일본군국주의의 새로운 해외침략책동을 반대하는 투쟁 등 여러가지 투쟁을 날로 치렬하게 전개하고있다. 이러한 투쟁은 독점체들의 착취와 수탈을 반대하며 생활상 권리옹호를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인민의 투쟁은 미제의 아세아침략과 일본군국주의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있으며 세계평화의 위업에 기여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325페지)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하여 아세아와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이 일본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그와의 국제주의적련대성을 백방으로 강화하자.

일본군국주의재생을 반대하는 투쟁은 일본인민과 아세아인민들, 나아가서는 온세계 인민들의 공동의 투쟁과업이다.

아세아와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이 일본인민과 굳게 단결하여 견결히 투쟁한다면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범죄적결탁과 위험한 침략책동을 반드시 때려부실수 있다.

력사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군국주의

는 그 자체에 멸망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다.

오늘 미일제국주의자들이 서로 공모결탁하여 침략책동을 더욱 로골화하고 있는것은 결코 그들의 강대성을 보여주는것이 아니다. 반대로 그것은 죽어가는 제국주의의 취약성을 실증하여주는것이다. 바로 군국주의는 독점자본주의의 부패성과 기생성의 집중적표현이다.

미일제국주의자들이 인민의 의사와 시대의 흐름을 거역하여 횡포하게 행동하면 할수록 그들의 처지는 더욱더 어렵게 될뿐이다.

군국화의 진척에 따르는 군비의 발광적확장과 경제의 군사화는 많은 재부와 로동력을 비생산적소비에 탕진하고 재정적파탄을 가져오며 경제적위기를 더욱 심각화하게 된다. 그것은 광범한 근로대중을 빈궁과 무권리 속에 몰아넣고 그들의 불만과 반항을 증대시켜 혁명적위기를 더욱 격화시키게 된다. 군국주의의 발광적해외침략책동은 다른 나라 인민들의 분노와 항거를 불러일으키여 국제적고립화를 더욱 촉진시키게 된다. 구경 군국주의는 독점자본주의의 모순을 불가피적으로 첨예화시키며 자기자신의 발전의 결과에 멸망하고만다.

력사적사실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이 또한 이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제의 조종밑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침략적야망을 로골화하면 할수록 그를 반대하는 일본인민들의 투쟁은 더욱 확대강화되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아세아와 세계 평화애호 인민들속에서 규탄의 목소리가 날로 드높아가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직접 경제적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는 동남아세아의 여러나라들에서도 최근 시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투를 경고하며 반일감정을 새로이 크게 터뜨리고있다.

《일본인들이 산업력과 재력을 통하여 아세아에서 가장 침략적인 국민으로 되였다》, 《새로운 제국주의의 진군을 막으라》, 《아세아의 경제원조에 일본이 덧붙이는 제조건에서 과거의 대동아공영권구상을 발견한다》, 《일본인이 온당한 리익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기때문에 마음을 놓을수 없다》, 《추악한 일본인이 추악한 미국인을 대신하려 한다》는 등 여러가지 분노에 찬 목소리들이 울려퍼지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의 조선은 어제날의 조선이 아니며 오늘의 아세아는 어제날의 아세아가 아닙니다. 만일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력사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조선과 아세아 침략의 길에 뛰여든다면 그들은 자신이 지른 불길속에서 타버리고 말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402~403페지)

오늘 우리 시대는 지구상의 모든 피착취인민들과 피압박민족들이 해방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 위대한 투쟁의 시대이며 제국주의식민지체계가 걷잡을수 없이 무너져가고있는 보람찬 혁명적변혁의 시대이다.

사회주의와 평화애호력량은 승승장구하고있으며 제국주의침략세력은 계속 쇠퇴몰락하고있다. 아세아에서 력량관계는 더욱 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제멋대로 활개치며 다른 나라를 함부로 침략하고 주인행세를 하던 시기는 영원히 지나갔다.

1970년대는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망상하는 침략과 략탈의 《새로운 태평양시대》가 아니라 민족적해방과 사회주의를 위한 피압박인민들의 혁명투쟁이 더욱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장엄한 력사적시대로서 빛을 뿌릴것이다.

사회주의가 승리하고 제국주의가 멸망하는것은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이다.

제1차세계대전과 제2차세계대전의 력사적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오늘의 이 엄연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감히 새로운 침략과 식민지략탈전쟁에로 뛰여든다면 그들은 더는 헤여날수 없는 파멸의 무덤속으로 급속히 빠져들어가게 될것이다.

일본이 나가야 할 길은 침략과 전쟁의 길이 아니라 독립과 민주주의, 평화와 중립의 길이다.

일본은 하루속히 미제의 예속에서 벗어나야하며 진정한 민주주의적평화애호국가로 되여야 한다.

우리 당과 정부는 시종일관 미제에 의한 일본군국주의재생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왔다.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일본의 완전한 독립과 민주주의와 평화를 쟁취하기 위한 일본인민의 투쟁을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다.

조선인민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인민의 공동의 원수 미제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과 함께 그의 동맹자인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 힘차게 벌림으로써 자기에게 맡겨진 민족적 및 국제적 임무를 다할것이다.

# 공화국정부 및 외무성 성명, 비망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

(미제의 직접적인 사촉밑에 유태복고주의자들이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군사적침략행위를 더욱 강화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미제의 직접적인 사촉밑에 유태복고주의자들은 지금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군사적침략행위를 더욱 강화하고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중근동지역에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아랍땅을 부당하게 강점하고 아랍인민들을 반대하는 무장공격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은 지난 1월 13일과 16일, 18일 련이어 까히라교외를 비롯한 아랍령내깊이까지 비행기를 침입시켜 야만적인 폭격을 감행하였으며 1월 22일과 23일에는 무장악당들을 수에즈만 관문에 있는 아랍의 샤드반섬에 침입시켜 파괴와 살륙만행을 감행케 하였다.

이밖에 유태복고주의자들은 비행기와 땅크를 동원하여 남부레바논, 수리아, 요르단 등 아랍나라들에 대한 강도적인 무력침공을 계속하고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미제의 전쟁두목 닉슨은 이스라엘침략자들에게 더 많은 비행기와 살륙무기를 공급해주겠다고 공공연히 떠벌이면서 유태복고주의자들을 범죄적전쟁에로 내몰고있다.

아랍나라들에 대한 미제와 유태복고주의자들의 이 새로운 침략행위는 아랍인민들의 독립과 자주권에 대한 가장 란폭한 침해이며 전체 아랍인민들과 세계 평화애호인민들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아랍나라들에 대한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의 무력침공을 치솟는 격분으로 단호히 규탄하며 침략자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고있는 아랍인민을 비롯한 모든 아랍나라 인민들에게 전적인 지지와 굳은 전투적 련대성을 표시한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과 유태복고주의자들이 침략과 전쟁 책동을 더욱 강화하면서 중근동지역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있는것은 이 지역에서 날로 앙양되는 민족해방투쟁을 탄압말살하고 아랍나라들을 또다시 예속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들은 로골적인 무력침공과 전복파괴활동, 정치군사적위협과 회유기만책동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아랍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하고 분렬시켜 반미반이스라엘전선에서 하나하나 떼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중근동문제의 《평화적해결》이라는 기만적간판뒤에 숨어서 이스라엘침략자들에게 각종 군사장비와 살인무기를 계속 대주며 비행사를 포함한 군사인원까지 제공하면서 그들의 무모한 령토적팽창야망을 적극 부추겨주고있다. 그러나 미제와 유태복고주의자들은 그 어떤 발악적책동으로써도 결코 저들의 음흉한 침략적목적을 이룩할수 없으며 원수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투쟁하려는 아랍인민들의 견결한 투지를 꺾을수 없다.

손에 무기를 들고 영웅하게 싸우고있는 아랍인민들의 반미반이스라엘투쟁은 민족적 독립과 존엄을 수호하고 강점당한 아랍땅을 되찾으며 팔레스티나인민의 해방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이다.

조선인민은 미제와 그 앞잡이 유태복고주의자들의 파렴치한 무력침략을 반대하여 의세게 투쟁하는 아랍인민과 팔레스티나인민을 비롯한 모든 아랍인민들의 편에 튼튼히 서서 그들의 성스러운 투쟁을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견결히 지지성원할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과 유태복고주의자들은 아랍인민들을 반대하는 모든 침략행위를 당장 그만두어야하며 이스라엘침략자들은 부당하게 강점한 아랍땅으로부터 지체없이 물러가야 한다.

만일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아랍인민과 세계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랍나라들에 대한 군사적침략을 확대해보려고 분별없이 날뛴다면 그것은 그들자신의 수치스러운 참패로서 끝장날것이다.

정의의 위업에 일떠선 용감한 아랍인민들은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고야말것이다.

1970년 2월 4일
평 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

(인도지나인민들을 반대하여 감행하고있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살륙만행과 범죄행위를 단호히 규탄하며 1970년 4월 25일부 인도지나인민들의 수뇌자회의의 공동선언을 전적으로 지지하여)

지난 4월 24일과 25일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발기에 의하여 열린 인도지나인민들의 수뇌자회의에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전쟁확대책동으로 말미암아 인도지나반도에

조성된 현사태와 그에 대처할 투쟁대책을 토의하고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공동선언에서는 지난 15년동안 인도지나에서 감행한 미제의 침략과 범죄행위를 단호히 규탄하였으며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성스러운 투쟁에서 인도지나인민들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에 대하여 지적하고 오늘 그들이 벌리고있는 반미구국투쟁의 목적은 독립과 평화 및 중립을 수호하며 인도지나반도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몰아내고 외국군사기지를 철폐하며 자기들의 령토를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에 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공동선언에서는 인도지나 3개국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영웅적으로 싸워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때려부시고 민족적권리를 수호하며 자기 나라를 독립되고 평화로운 지역으로 전변시킴으로써 동남아세아와 세계평화의 위업에 기여할것을 호소하였으며 호상존중의 원칙에 기초하여 서로 지지하고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면서 공동의 원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손에 무장을 튼튼히 잡고 끝까지 견결히 싸워나갈데 대한 그들의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민족적독립과 민주주의와 사회적진보를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전세계 인민들의 투쟁에 지지를 표시하였으며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이것은 인도지나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한것이며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세계 모든 진보적인민들의 념원에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이다.

이번 수뇌자회의는 인도지나인민들의 반미공동투쟁을 새로운 단계에로 강화발전시킴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인도지나인민들을 반대하여 감행하고있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살륙만행과 범죄행위를 단호히 규탄하며 1970년 4월 25일부 인도지나인민들의 수뇌자회의 공동선언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오래전부터 독립, 평화, 통일 및 령토완정을 인정한 인도지나에 관한 1954년 제네바협정과 라오스에 관한 1962년 제네바협정을 란폭하게 짓밟고 윁남인민을 반대하는 강도적침략전쟁을 벌려놓았으며 라오스인민을 반대하는 《특수전쟁》을 도발하였으며 캄보쟈를 반대하는 도발행위와 전복음모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여왔다.

미제는 인도지나인민들의 완강한 항거에 부딪쳐 패배를 거듭하고 침략계획이 파탄되게 되자 《아세아인끼리 싸우게 하는》 교활한 방법으로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손쉽게 이룩해보려고 어리석게 시도하면서 전쟁확대책동에 더욱 미쳐날뛰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전쟁의 《윁남화》라는 간판밑에 윁남침략전쟁을 오래 끌면서 남부윁남에 대한 군사적강점을 영구화하려 하며 라오스에 대한 무장간섭을 강화하고있으며 캄보쟈에서 반동적정변을 조작하고 이 나라를 저들의 범죄적인 침략전쟁마당에 끌어들이고있다.

캄보쟈우익반동들의 정변은 캄보쟈, 윁남 및 라오스인민들사이의 불화와 적대적감정을 조성하여 서로 싸우게 함으로써 전쟁의 불길을 인도지나 전역에 확대하려는 미제의 음흉한 책동의 한 고리이다.

그러나 미제는 그 어떤 발악적책동으로써도 이미 기울어진 운명을 구원할수 없으며 영웅적반미구국항전에 일떠선 인도지나인민들의 투쟁을 결코 가로막을수 없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윁남, 라오스, 캄보쟈 인민들이 벌리고있는 투쟁은 자기 나라의 자유와 민족적독립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며 인도지나와 동남아세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이다.

조선인민은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호소를 받들고 미제의 침략책동을 반대하며 우익반동세력을 쫓아내고 캄보쟈의 중립, 독립, 령토완정을 지키기 위한 크메르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한다.

조선인민은 라오스애국전선의 령도밑에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고있는 라오스인민에게 굳은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한다.

조선인민은 호지명주석의 유언을 받들고 남부를 해방하고 북부를 수호하며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윁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에 굳은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윁남, 라오스, 캄보쟈 인민들을 반대하는 모든 침략행위를 그만두고 인도지나에서 피묻은 침략의 마수를 당장 떼야 한다.

캄보쟈사태는 시하누크친왕의 1970년 3월 23일부 5개 항목선언에 따라 수습되여야 하며, 라오스문제는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의 1970년 3월 6일부 5개항목선언에 따라 해결되여야 하며, 남부윁남문제는 남부윁남민족해방전선과 남부윁남공화림시혁명정부가 제기한 10개항목의 전면적해결책에 따라 해결되여야 한다.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공동의 원쑤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울것이며 언제나 인도지나인민들의 편에 튼튼히 서서 그들의 정의의 위업을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지지성원할것이다.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있는 인도지나 3개국인민들은 단합된 힘으로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쓸어버리고 반드시 종국적승리를 달성하고야말것이다.

1970년 4월 29일

평 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

(미제국주의자들이 캄보쟈에 대한 대규모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함으로써 인도지나전역에 침략전쟁의 불길을 공공연히 확대하는 길에 들어선것을 규탄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캄보쟈에 대한 대규모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함으로써 인도지나전역에 침략전쟁의 불길을 공공연히 확대하는 길에 들어섰다.

닉슨의 명령에 따라 남부윁남에 둥지를 틀고있는 수많은 미제침략군과 남부윁남괴뢰군은 5월 1일 비행기, 땅크, 장갑차, 포의 엄호밑에 캄보쟈령내로 침공하여 들어갔다.

미제침략자들은 캄보쟈의 많은 도시와 마을들에 대한 폭격과 포격을 야수적으로 감행하고있으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무고한 주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있다.

캄보쟈에 대한 미제침략군의 대규모적무력침공은 캄보쟈의 독립과 자주권을 란폭하게 짓밟는 행위일뿐아니라 전체 인도지나인민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다.

미제는 캄보쟈에 대한 무력침공을 개시한것과 때를 같이하여 월남민주공화국의 일부 지역에 대한 폭격을 또다시 감행하여나섰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지금 아세아의 전반적정세를 극도로 첨예화시키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캄보쟈에 대한 미제의 무력침공을 가장 흉악한 날강도적침략행위로서 단호히 규탄하며 자유와 민족적독립을 지키기 위하여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일떠선 캄보쟈인민에게 굳은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한다.

캄보쟈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무장공격은 오래전부터 꾸며온 침략계획에 의한것이다. 미제는 월남과 라오스에 대한 침략전쟁을 확대하는 한편 캄보쟈의 독립, 중립 및 령토완정을 짓밟고 끊임없이 무장도발을 일으켜 캄보쟈인민을 위협하여왔으며 지난 3월에는 끝내 캄보쟈우익반동들을 사촉하여 국가정변을 조작하였다.

오늘 미제침략자들은 저들이 조작한 우익반동정권이 애국적캄보쟈인민의 강력한 항거에 부딪쳐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마침내 캄보쟈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하는데 이르렀다.

닉슨은 이 악랄한 침략행위를 《합리화》해보려고 그것이 《미국인들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것이니 캄보쟈를 그 무슨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것이니 하는 뻔뻔스러운 변명을 늘어놓고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떠한 강도적론법으로써도 침략자로서의 저들의 범죄적정체를 가리울수 없다.

도대체 누가 《미국인들의 안전》을 위협한단 말인가? 바로 미국본토로부터 수만리나 떨어진 남의 나라 령토에 수십만의 미국청년들을 내몰아 야수적인 살륙전쟁을 감행케 하고있는 닉슨도당이야말로 미국인민에 대한 흉악한 살인자이다.

인도지나인민들을 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고있는 장본인도 다름아닌 미제침략자들자신이다.

이번에 미제국주의자들이 캄보쟈에 대한 무력침공을 공공연히 감행하여나선것은 놈들이 더욱 표할하고 음흉한 방법으로 침략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꾸며낸 이른바 《닉슨주의》의 추악한 본질을 남김없이 폭로하여 주며 놈들이 추진시켜온 월남침략전쟁의 이른바 《월남화》 계획이 파탄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지금 속전속결의 방법으로 캄보쟈를 단숨에 강점하고 캄보쟈인민의 해방투쟁을 말살하며 월남침략전쟁을 전체 인도지나지역에 확대하는것으로써 이미 당한 참패에서 헤여나보려고 획책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터무니없는 망상이다.

미제의 격화되는 침략책동은 놈들의 강대성을 보여주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놈들의 취약성을 실증하여주는것이다.

캄보쟈에 대한 미제의 무모한 침략행위는 캄보쟈인민과 전체 인도지나인민들을 더욱 거세찬 반미투쟁에로 불러일으키며 미제국주의자들자신의 멸망을 더욱 촉진시킬것이다.

캄보쟈인민은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호소에 호응하여 캄보쟈민족통일전선의 두리에 굳게 뭉쳐 전국각지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 우파반역도당을 반대하는 무장투쟁과 대중운동을 광범히 벌리고있다.

얼마전에 소집되였던 인도지나인민들의 수뇌자회의에서 표명된바와 같이 월남, 라오스, 캄보쟈 세 나라인민들은 굳게 단결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때려부시고 민족적권리를 수호하며 자기 나라를 독립되고 평화로운 지역으로 전변시킴으로써 동남아세아와 세계평화의 위업에 기여할것을 굳게 결의하고있다.

오늘 인도지나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는 사회주의나라들과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로 하여금 미제의 횡포한 침략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하며 캄보쟈인민과 전체 인도지나인민들의 편에 튼튼히 서서 그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지성원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아세아와 세계 평화에 직접 위험한 후과를 미치게 될 인도지나지역에서의 사태발전을 결코 수수방관할수 없으며 공동의 원쑤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형제적 월남인민, 라오스인민, 캄보쟈인민들의 정의의 반미구국항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모든것을 다할것이라는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캄보쟈에 대한 무력침공을 당장 그만두어야 하며 북부월남에 대한 폭격을 영원히 중지하고 남부월남, 라오스, 캄보쟈의 전역에서 모든 침략군과 살인무기를 걷어가지고 지체없이 물러가야 한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인도지나에서 침략전쟁을 계속 확대하는 길로 나간다면 미국인민을 포함한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의 더욱 준엄한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며 제가 지른 전쟁의 불길속에서 영영 타죽고말것이다.

1970년 5월 4일
평 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

(일본사또정부가 미제와 공모하여 오는 6월 22일 기한만료되는 미일 《안보조약》을 이른바 《자동연장》하려고 책동하고있는 사실을 폭로규탄하여)

지금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 민족해방운동을 반대하기 위한 미일군사동맹체제를 새로이 강화하며 아세아전역에 침략전쟁을 공동으로 확대하기 위한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일본사또정부는 미제와 공모하여 오는 6월 22일 기한만료되는 미일 《안보조약》을 이른바 《자동연장》 한다는것

을 공공연히 떠벌이고있다.

이미 지난해 11월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닉슨—사또 회담에서 꾸며낸 미일 《공동성명》을 통하여 조선인민과 아세아인민들에 대한 강도적인 공동침략을 감행하며 이를 위하여 미일 《안보조약》을 더욱 확대된 침략적 군사동맹조약으로 개악할데 대하여 《합의》를 보았다.

일본사또정부가 일본인민과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일 《공동성명》에 따라 침략적군사동맹조약인 미일 《안보조약》을 다시 연장하는것은 아세아와 세계평화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며 미제와의 공모결탁밑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아세아나라들을 반대하는 군사적침략의 길로 한걸음 더 공공연히 나서려한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조선을 비롯한 아세아의 사회주의나라들과 민족해방운동을 직접 공격할것을 목적한 미일 《안보조약》을 개악하여 연장하는것이 아세아의 전반적정세를 더욱 긴장시키며 새 전쟁위험을 날카롭게 조성하는것으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단호히 규탄한다.

바로 미일 《안보조약》은 처음부터 미제와 일본반동지배층들이 서로 결탁하여 일본군국주의를 재생시키고 아세아 인민들을 반대하는 침략행위를 공동으로 감행할것을 목적으로 꾸며진 침략적인 군사동맹조약이다.

미제와 일본반동지배층사이의 이 침략적공모결탁은 오늘 미제의 아세아침략전략이 무너지고있는 력사적위기를 배경으로하여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있다. 이제 미제국주의는 일본군국주의를 본격적으로 저들의 침략정책수행의 앞장에 내세우려하며 고도로 자라난 일본독점자본주의는 이에 편승하여 제국주의적해외팽창의 야망을 실현하려 하고있다.

이번에 《자동연장》하려는 미일《안보조약》은 1970년대에 미제와 일본군국주의 두 강도배들의 이러한 침략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직접적도구로 된다.

미제는 이른바 《닉슨주의》의 간판밑에 미일 《안보조약》을 기둥으로 하여 일본전토를 오끼나와와 같이 핵기지화하고 아세아의 여러 괴뢰집단들을 묶어세워 《반공》군사동맹을 조작하며 일본군국주의를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 내세움으로써 이 지역에서 저들의 식민지체제를 유지하려 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일《안보조약》을 발판으로 하여 일본의 핵무장에 이르기까지 침략무력을 강화하고 아세아 여러 나라에 대한 경제적침략을 군사적으로 안받침하며 옛식민지를 회복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할것을 망상하고있다.

그리하여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가 일본을 《방위》해준다는 이름밑에 1950년대에 조작한 미일 《안보조약》을 1960년대에 《공동방위》라는 이름밑에 미제의 침략전쟁에 일본군국주의가 직접 가담하도록 개악하였다면 이제와서는 그것을 다시 극동전지역의 《방위》라는 이름밑에 아세아전역을 침략하기 위한 군사동맹조약으로 개악하는 길에 들어섰다.

미제의 더욱더 음흉하고 악랄하여지는 침략정책에 따라 일본사또정부는 날로 뻔뻔스럽게 《아세아의 안전문제에 대하여 주역을 담당수행하는것은 일본》이라고 하며 일본이 다시 아세아에서 《지도자》로 되여야 한다는 《아세아맹주론》을 들고나오고있다.

일본사또정부는 저들의 침략무력을 급속히 확장하고 그의 핵무장화를 적극 추진시키고있으며 나라의 군국화와 파쑈화를 다그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조선과 아세아 다른 나라들을 침공하기 위한 침략전쟁계획까지 이미 다 짜놓고있으며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서두르고있다.

미일 《안보조약》이 노리고있는 첫째가는 침략대상은 조선이며 미제의 비호밑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미 남조선에 전면적으로 재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다.

미제의 조종밑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 박정희괴뢰도당과 범죄적인 《한일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미제와 함께 남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다시 확립할 조건을 보장받았으며 미일 《한》 3각군사동맹을 형성하고 군사적으로 남조선에 침략의 지반을 닦기에 이르렀다.

일본사또정부는 남조선이 일본의 《생명선》이라고 하며 미제가 조선에서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 《그것을 강건너 불보듯 할수 없다》느니 《선제공격》도 생각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남조선에 직접 일본군대를 보낼데 대해서까지 서슴없이 떠벌이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렇게 조선을 먼저 침략하고 이를 발판으로 하여 아세아를 침략하려는 저들의 전통적인 전략계획을 실현하려고 날뛰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뿐아니라 대만도 《일본의 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남부윁남도 일본의 《안전》에 관계된다고 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윁남민주공화국에 대한 침략적야욕을 공공연히 드러내놓고있다.

일본사또정부는 미제의 인도지나침략전쟁을 적극 떠받드는데 있어서도 누구보다 앞장서있으며 미제가 캄보쟈에 대한 강도적무력침공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아세아의 괴뢰들과 추종국가들을 쓸어모아 꾸며낸 이른바 《아세아태평양국가회의》에서도 《주역》을 맡아나섰다.

오늘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이른바 《방위선》이 북쪽은 알라스카이남으로부터 남조선, 대만, 남부윁남을 거쳐 마락카해협에 이르는 지역과 지어는 남태평양의 아라후라해협까지 포함하는 아세아전역에 이른다고 공언하고있다.

이 모든 사실들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미일 《안보조약》 체제에 의한 군사적공모결탁이 아세아에서 얼마나 위험한 단계에 이르고있는가 하는것을 그대로 똑똑히 보여준다.

일본은 이미 아세아에서 침략전쟁의 전초기지로, 거점으로 전변되였다.

일본군국주의가 큰놈을 등에 업고 아세아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책동을 강화하여나설 때 그것이 어떤후과를 빚어냈는가 하는것은 그의 침략력사가 잘 말해주고있다.

오늘 미제의 흉악한 침략정책에 따라 일본이 아세아에서 새로운 전쟁발원지로 되고 미제의 부추김밑에 일본군국주의가 또다시 조선인민과 아세아인민들에게 새로운 류혈적참화를 들씌우려는것은 그 누구도 보고만있을수 없는 사태발전이다.

조성된 정세는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귀중히 여기는 세계의 모든 나라 인민들이 일본군국주의의 재침략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며 특히 아세아의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침략적군사동맹조약인 미일 《안보조약》이 즉시 폐기되여야 하며 일본 전 령토에서 미제침략군이 물러가고 미제의 군사기지가 철폐되여야 하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재무장이 단호히 저지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우리는 미제의 조종밑에 조작된 범죄적인 《한일조약》이 즉시 폐기되여야 하며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 대만, 인도지나를 비롯한 아세아의 모든 지역에서 저들의 침략군대와 살인무기들을 걷어가지고 지체없이 물러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

쟁이며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의 중요한 일환이다.

오늘 일본인민은 미일 《안보조약》을 즉시 폐기할것과 오끼나와를 즉시 무조건 전면적으로 반환할것을 요구하여 날로 더욱 완강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일본인민의 투쟁은 미제의 아세아침략과 일본군국주의세력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있으며 세계평화의 위업에 기여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미일 《안보조약》을 폐기하고 나라의 완전한 독립과 민주주의와 평화를 쟁취하기 위한 일본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그에 굳은 련대성을 보낸다.

오늘 아세아의 혁명적인민들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단결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다름아닌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 자신이 아세아의 혁명적인민들로 하여금 단결을 더욱 강화하게 하여준다.

미제와 일본군국주의는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하며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오늘의 아세아는 어제날의 아세아가 아니다.

오늘의 아세아는 오랜 기간의 혁명투쟁을 통하여 일본제국주의, 프랑스제국주의, 미제국주의를 타승한 빛나는 혁명전통을 가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월남민주공화국을 비롯한 강대한 사회주의력량이 있으며 이 지역의 이르는곳마다에서 계속 세차게 앙양되고있는 혁명적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이 있다.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력사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아세아에서 침략전쟁을 확대하는 무모한 길에 뛰여든다면 그들은 자신이 지른 불길속에서 영영 타죽고야말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반대하는 일본인민을 비롯한 아세아의 모든 반제력량과 굳게 단결하며 전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미제와 그 동맹자 일본군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반대하여 끝까지 견결히 투쟁할것이다.

1970년 6월 19일
평　　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

**(사회주의나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의 신생독립국가들이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군과 기타 모든 외국군대들을 철거시킬데 대한》 문제와 미제의 침략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할데 대한》 문제를 유엔총회 제25차회의에서 토의할것을 제기한것과 관련하여)**

유엔총회 제25차회의를 앞두고 사회주의나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의 신생독립국가들은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군과 기타 모든 외국군대들을 철거시킬데 대한》 문제와 미제의 침략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할데 대한》 문제를 이번 유엔총회에서 토의할것을 제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사회주의나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의 평화애호국가들의 이러한 제기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바로 유엔의 간판을 도용하여 남조선을 강점하고 침략과 전쟁 책동을 미친듯이 감행하며 조선에서 극도로 긴장된 정세를 빚어내고있는 조건에서 유엔은 마땅히 이른바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보고》에 근거한 《조선문제》 토의를 그만두고 지난날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조선문제》에 관한 모든 비법적《결의》들을 폐기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비롯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유엔에서 이러한 문제가 토의될때에는 응당 문제의 직접적당사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가 참가하여야 한다.

이때까지 유엔에서 조선에 관한 문제가 토의될 때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의 평화애호나라들은 일치하게 그 직접적당사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를 참가시킬것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미제의 횡포한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유엔에서 조선에 관한 문제가 취급되기 시작한 이래 스무해가 훨씬 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문제의 직접적당사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의 참가없이 제멋대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년례보고》란 뻔뻔스러운 허위문건에 근거하여 이른바 《조선문제》의 토의를 유엔에 강요하고 저들의 남조선강점과 침략책동을 가리우기 위한 비법적《결의》들을 조작하여왔다.

이 모든것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기본정신에 대한 란폭한 위반으로 된다.

미제는 유엔에서 《조선문제》 토의에 남조선괴뢰도당을 참가시키는것으로써 저들의 이러한 범죄적책동을 정당화하려하고있다.

그러나 남조선의 이른바 《대한민국정부》란 미제의 총칼에 의하여 만들어진 허수아비정권으로서 남조선인민의 그 누구도 대표하지 못하며 미제의 침략과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민족의 유일한 국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며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이 전체 남북조선인민의 참다운 민족적 리익과 의사를 대표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언제나 유엔헌장과 그 목적을 존중하여왔으며 또 존중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만약 유엔이 그의 헌장에 규정된 원칙과 목적에 부합되게 행동하려면 유엔총회에서 조선에 관한 문제가 토의될 때에는 무조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를 참가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것을 다시금 강력히 주장한다.

1970년 8월 29일
평　　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

(미제국주의자들이 요르단반동세력을 사촉하여 요르단에 있는 팔레스티나유격대에 대한 새로운 엄중한 책동을 감행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중근동에서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침략과 전쟁 책동을 날로 악랄하게 감행하여온 미제국주의자들은 요르단에서 새로운 엄중한 사태를 빚어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요르단왕국의 반동세력을 사촉하여 군사정부를 조작하고 그들로하여금 1970년 9월 17일부터 요르단에 있는 팔레스티나유격대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감행케하였다.

요르단반동세력은 벌써 며칠동안이나 수도 암만을 비롯한 여러곳에서 팔레스티나유격대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있으며 수많은 사상자를 내게 하였다.

팔레스티나유격대들은 요르단반동세력의 비렬한 배신적공격에 단호히 항거하여나서고있다.

이번 사태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아랍인민을 반대하며 팔레스티나인민의 혁명위업을 말살하기 위하여 요르단반동세력과 함께 오래전부터 꾸며온 흉악한 침략책동의 직접적산물로서 이는 중근동의 전반적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세계의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는 악랄한 도발행위이다.

요르단에서의 이번 류혈사태가 미제에 의하여 직접 조작되였다는것은 누구에게도 비밀이 아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자신이 류혈사태를 빚어내고는 이른바 《공민보호》니, 다른 린접 아랍나라들의 요르단에 대한 《개입》이니 하는 당치도 않은 상투적침략의 구실을 내들고 자기의 침략무력을 더욱더 대규모적으로 이 지역에 집결시키면서 요르단에 대한 직접적무력간섭을 감행할데 대하여 공공연히 떠벌이고있다.

보도들에 의하면 미제는 이른바 《야전병원》이란 간판밑에 이미 저들의 군사인원을 요르단에 급히 공중수송하기로 하였다 한다. 이와 함께 미제는 저들의 침략도구인 유태복고주의자들로 하여금 요르단의 국경지대에 대대적으로 군대를 집결시키면서 군사적간섭을 감행할데 대하여 떠벌이게 하고있으며 다른 아랍나라들을 더욱더 군사적으로 위협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이 중근동에서 감행하고있는 흉악한 범죄적책동을 팔레스티나인민과 전체 아랍인민의 민족적존엄과 령토완정에 대한 참을수 없는 횡포한 유린이며 전세계 평화애호인민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으로서 단호히 규탄한다.

오늘 팔레스티나유격대들은 요르단반동당국의 비법적인 공격과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위협공갈에 항거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영웅적으로 싸우고있다. 이것은 자기 조국의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정의의 투쟁이다.

여러 아랍나라 정부들과 인민들은 팔레스티나 혁명력량을 말살하려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새로운 도발책동을 전체 아랍인민의 민족적존엄에 대한 침해로서 규탄하며 요르단에서의 류혈사태가 계속 되는것을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라는 견결한 립장을 취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미제의 사촉밑에 요르단반동당국이 감행하고있는 범죄적공격을 반대하여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 팔레스티나유격대와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책동을 반대하는 모든 아랍나라 정부들과 인민들의 정당한 립장을 적극 지지한다.

실로 이번 요르단에서의 사태발전은 미제야말로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현대식민주의의 아성이며 세계인민의 흉악한 원수라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준다.

오늘 중근동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는 사회주의나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세계의 모든 반제력량이 굳게 단합하여 미제와 그의 앞잡이 이스라엘침략자들의 무모한 불장난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오늘 아세아에서 침략전쟁을 확대하려고 미쳐날뛰면서 중근동에서도 새로운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려고 발악하고있는것은 결코 그들의 강대성을 보여주는것이 아니라 그들의 처지가 더욱더 어렵게 되여가고있다는것을 실증하여주는것이다.

자유와 해방과 민족적존엄을 위한 정의의 위업에 일떠선 용감한 팔레스티나인민과 아랍인민들은 미제와 유태복고주의자들의 어떠한 악랄한 침략책동도 때려부시고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고야말것이다.

미제는 요르단과 모든 중근동지역에서 피묻은 간섭의 손을 당장 떼야 한다.

만약 미제국주의자들이 감히 중근동에서 또하나의 군사적모험을 감행하여 나선다면 그들은 제가 지른 침략전쟁의 불길속에서 영영 타죽고야말것이다.

1970년 9월 23일

평 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

(미제의 사촉밑에 캄보쟈의 론 놀괴뢰도당이 조작한 이른바 《공화국》 놀음을 강력히 규탄하고 캄보쟈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캄보쟈민족통일전선 령도하의 왕국민족련합정부의 10월 10일부 공동성명을 지지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캄보쟈인민의 극악한 원쑤인 론 놀-시리크 마타크괴뢰정권을 어떻게 하나 《합법화》하여 보려고 여러가지 음모책동을 감행하여오던끝에 지난 10월 9일에는 캄보쟈를 이른바 《공화국》으로 《선포》하는 연극을 꾸며냈다.

크메르 《공화국》이란 론 놀반역도당의 매국매족적정체와 미제의 침략적정체를 가리우며 무너져가고있는 론 놀괴뢰정권을 조금이라도 부지해보려는 미제의 신식민주의적책동의 산물이다.

10월 10일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정치국과 캄보쟈민족통일전선 령도하의 왕국민족련합정부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론 놀괴뢰도당이 조작한 이른바 《공화국》이 완전히 비법적이며 반인민적이며 반민족적인것이라는것을 신랄히 폭로규탄하고 론 놀도당의 《공화국》을 인정하지 말것을 각국 정부들에 호소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왕국민족련합정부의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정당한 립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미제와 그 앞잡이 론 놀괴뢰도당의 새로운 범죄적책동을 캄보쟈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으로서 견결히 단죄한다.

이미 세상에 그 정체가 완전히 드러난바와 같이 론 놀괴뢰도당은 미제의 직접적사촉밑에 국가정변을 조작하여 캄보쟈를 미제의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캄보쟈인민을 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은 미제의 충실한 앞잡이이며 매국배족적인 파쑈악당들이다.

때문에 그들은 캄보쟈인민은 물론 아세아와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로부터 규탄과 배격을 받고있다.

모든 사실은 론 놀도당이 미제의 총칼의 비호밑에서만 간신히 생명을 부지하고있는 괴뢰통치집단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미제는 지금 유엔까지 리용하여 론 놀반역도당의 《공화국》을 《합법적》인것으로 꾸며보이려고 책동하고있다.

그러나 미제는 그 어떠한 교활한 책동으로써도 론 놀-시리크 마타크괴뢰도당의 반동적정체를 가리울수 없다.

론 놀괴뢰도당은 캄보쟈인민을 대표할수 없으며 따라서 그들이 조작한 《공화국》은 그 누구의 인정도 받을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미제와 론 놀괴뢰도당의 이른바 《공화국》 조작놀음을 강력히 규탄하며 오직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수반으로하는 캄보쟈민족통일전선 령도하의 왕국민족 련합정부만을 캄보쟈인민의 진정한 의사와 리익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적정부로 인정하고있다는것을 다시금 엄숙히 천명한다.

오늘 캄보쟈민족통일전선 령도하의 왕국민족련합정부는 이미 캄보쟈의 광활한 령토와 수많은 인민들을 해방하였다.

캄보쟈민족통일전선 령도하의 왕국민족련합정부는 캄보쟈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임을 받고있으며 세계 수많은 나라들의 동정과 지지를 받고있다.

미제는 그 어떤 발악적인 책동으로써도 캄보쟈인민의 정의의 반미구국투쟁의 승리적전진을 가로막을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미제의 강도적무력침공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고있는 캄보쟈인민의 편에 언제나 튼튼히 서있을것이며 그들의 성스러운 투쟁을 모든 힘을 다하여 계속 적극 지원할것이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령도를 받는 캄보쟈인민과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는 월남인민, 라오스인민들과 단결하여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반미구국항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다.

우리는 영웅적캄보쟈인민이 자기 조국땅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국가수반으로 하는 독립되고 번영하는 반제적인 새 캄보쟈를 건설할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굳게 믿는다.

1970년 10월 11일

평 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

(월남침략전쟁의 불길을 새로이 확대하려는 미제의 흉악한 책동을 단호히 규탄하며 월남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월남민주공화국 정부의 12월 10일부 호소문에서 표명된 립장을 전적으로 지지하여)

지난 12월 10일 월남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월남민주공화국 정부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월남인민과 인도지나인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확대하려는 새로운 군사적모험을 꾸미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전국의 인민과 군대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호소문에서 월남 당과 정부는 월남침략전쟁을 연장하고 확대하려는 미제의 범죄적책동을 준렬히 단죄하고 라오스 및 캄보쟈 인민들과 함께 미제침략자들을 인도지나반도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더욱 완강히 싸워나가려는 월남인민의 확고한 결의를 다시금 천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월남침략전쟁의 불길을 새로이 확대하려는 미제의 흉악한 책동을 아세아와 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을 반대하는 엄중한 도전행위로서 단호히 규탄하며 월남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월남민주공화국 정부의 12월 10일부 호소문에서 표명된 립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월남인민의 영웅적항전에 의하여 패배를 거듭하고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날로 더욱 깊이 빠져들어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월남침략전쟁에 계속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전쟁의 월남화》 정책과 《평정》 계획을 어떻게나 실현해보려고 미쳐날뛰면서 남부월남에서 야만적인 살륙전쟁을 계속하고있으며 라오스와 캄보쟈에 대한 침략행위를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월남민주공화국에 대한 폭격과 포격을 무조건 중지한다고한 이후에도 북부월남에 대한 폭격을 계속하여왔으며 최근에는 저들의 공군에 의한 정찰, 폭격, 기총사격 및 특공대활동을 비롯한 전쟁행위를 더욱 강화하고있다.

미제는 북부월남인민이 남부월남형제들의 항쟁을 지원하는것을 가로막으며 월남민주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그 무슨 《량해》에 대하여 뻔뻔스럽게 지껄이면서 북부월남에 대한 정찰비행에 《위협》을 끼치거나 남부월남에 있는 미제침략군의 안전이 《위협》 당하는 경우에 월남민주공화국을 폭격할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벌이고있다.

이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흉악한 날강도들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며 그들이 줄곧 떠벌이고 있는 《평화》란 전쟁확대책동을 가리우기 위한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여실히 실증하여주고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월남침략전쟁을 새로이 확대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것은 그들의 처지가 더욱더 어렵게 되여가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공동전선에 하나로 굳게 뭉친 월남, 라오스, 캄보쟈 인민들의 영웅적구국항전에 의하여 미제침략자들의 《전쟁의 월남화》 정책은 파탄되고있으며 그들은 인도지나의 모든 전선에서 심대한 군사정치적패배를 당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떠한 위협공갈과 야만적인 전쟁방법으로써도 정의의 싸움에 일떠선 영웅적월남인민의 견결한 투지를 꺾을수 없다.

불굴의 반제투쟁전통을 가진 월남인민은 대중적영웅주의와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면서 용감한 항전을 벌려 미제의 모든 침략계획을 산산이 짓부시고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고있다.

지금 전체 월남인민과 인민군은 월남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월남민주공화국 정부의 전투적호소에 호응하여 미제의 새로운 모험적인 전쟁행위에 대처할 전투준비태세를 더욱 철저히 갖추고있으며 호지명동지의 유언을 집행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고있다.

남부월남 인민과 인민해방무장력은 더욱더 많은 미제침략군과 괴뢰군을 소탕하며 그들의 《평정》 계획을 분쇄하고 《전쟁의 월남화》 계획을 완전히 파탄시키기 위하여 완강히 싸우고있다.

조선인민은 형제적월남인민이 남부를 해방하고 북부를 수호하며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모든 힘을 다하여 그들의 투쟁을 계속 적극적으로 지원할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월남민주공화국에 대한 모든 전쟁행위들을 당장 그만두고 《전쟁의 월남화》 정책을 걷어치우며 남부월남으로부터 자기의 침략군과 추종국가 및 괴뢰들의 군대를 걷어가지고 지체없이 무조건 물러가야 한다.

월남문제는 남부월남공화 림시혁명정부의 10개항목의 전반적해결책과 보충적인 8개항목에 기초하여 해결되여야 한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와 세계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의 강력한 규탄에도 불구하고 월남인민과 인도지나인민들을 반대하는 범죄적인 전쟁행위를 계속 강화한다면 그들은 더욱더 비참한 멸망의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

아세아의 혁명적인민들과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받고있는 월남인민은 라오스 및 캄보쟈 인민과 굳게 손잡고 공동의 원수를 반대하는 정의의 항전을 더욱 힘있게 벌려 월남과 인도지나 전역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눕히고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고야말것이다.

1970년 12월 13일
평 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비망록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적죄행에 대하여)

1950년 6월 25일 미제침략자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범죄적인 침략전쟁을 일으켰던 때로부터 스무해가 지나갔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한 조선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참패를 당하고 부득불 정전협정에 조인하였으나 그후에도 여전히 조선에 대한 침략적야망을 버리지 않고 온갖 발악적책동을 다하고있다.

이로 말미암아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숙망인 조선의 평화적통일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년간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전쟁 책동은 날로 더욱 격화되고있으며 이에 따라 조선에서 정세는 극도로 첨예화되고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다시 터질수 있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이것은 조선뿐만아니라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근원으로 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에서 력사적으로 감행된 미제의 침략행위를 단죄하며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의 범죄적진상을 다시금 온 세상에 폭로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 1

미제국주의는 벌써 100여년전부터 조선인민앞에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흉악한 원쑤로서 나타났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극동지역에 대한 진출을 강화한 미제침략자들은 조선을 병탄하여 상품시장으로 만들며 아세아대륙침략의 발판을 마련하려 하였다.

당시 미제침략자들은 «조선은 군사적관점으로 볼 때 그 령토에 들어서는자는 누구나 청제국의 개방된 문호를 얻게 되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있다.»(«미국력사평론», 1924년, 제30권, 1호, 96페지) 고 떠들면서 침략의 마수를 뻗치였다.

조선에 대한 미제의 첫 무력침략행위는 1866년 무장함선«샤만호»의 침입으로부터 시작되였다.

미제의 이 해적선의 무리는 «통상»의 미명하에 평양주변에까지 불법침입하여 주민들의 재물을 략탈하고 부녀자들을 릉욕하며 조선인민을 닥치는대로 살상하는 온갖 야수적만행을 다 감행하였다.

미제강도배들의 침략적만행에 격분한 조선인민은 놈들을 소멸하여버렸다.

미제침략자들은 «샤만호» 사건을 구실로 1867년에는 군함 «와츄셋트호»를, 1868년에는 군함 «시난도아호»를 조선에 침입시켰다.

1868년 미제침략자들은 또한 무장해적선 «차이나호»를 몰고와서 충청도 덕산군에 있는 남연군묘를 파헤치는 비렬한 강도행위를 저질렀다.

조선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속시켜보려는 야망에 불탄 미제침략자들은 드디여 1871년 5척의 원정함대를 편성하여 가지고 조선에 대한 대규모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조선인민의 반격에 의하여 미제는 그때마다 실패하였다. 그후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 대한 침략에서 일본군국주의자들과 공모하는 길에 들어섰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그때에 아직도 다른 자본주의렬강들에 비하여 힘이 약하고 뒤떨어졌던 일본을 가장 덜 위험한 경쟁자로 보고 그를 내세워 조선을 침략할뿐아니라 조선과 중국에 다른 자본주의렬강들이 세력을 뻗치는것을 견제하려고 꾀하였다.

미제의 적극적인 지원과 고무를 받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1875년 군함 «운양호»를 조선 강화도에 침입시켜 날강도적해적행위를 감행하고 이 도발사건에 대한 «책임»을 도리여 조선봉건정부에 들씌우면서 1876년에 조선에 대함대를 보내여 무력적위협밑에 예속적인 «강화도조약»을 강요하였다.

일제의 뒤를 이어 1882년 미제국주의자들은 군함을 몰고와서 일본에 준것과 같은 특권을 자기들에게도 보장할것을 요구하면서 이른바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체결을 조선봉건정부에 강요하였다.

이 조약은 조선항구의 개방, 미국인들에 대한 조선봉건정부의 보호책임, 미국상인들의 자유로운 략탈활동과 치외법권 등을 규정한 철두철미 침략적인 조약이며 조선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의무만을 강요한 불평등조약이였다.

1894~1895년 청일전쟁시기와 1904~1905년 로일전쟁시기에 미제국주의자들은 반청세력을 약화시키고 짜리로씨야의 아세아진출을 가로막기 위하여 일제의 조선강점을 적극 지지하였다.

그때의 미국대통령 테오도르 루즈벨트는 로일간의 강화조약초안을 받아쥐고 «일본이 강화조건에 조선통치권을 포함시킨것을 나는 진심으로 동의한다.» 고 하였으며 («테오도르 루즈벨트와 그의 시기», 1권, 380~381페지), 강화회의를 앞두고 일제의 «특사»에게 «강화조건을 론의할 때가 온다면 나는 아래의 요구를 일본을 위해 보증한다. …조선은 완전히 일본의 리익권내에 있게 될것이다.»라고 떠벌였다. («일본외교문서», «로일전쟁», 별책, 5권, 71페지)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렇게 조선을 희생으로 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과의 세력권분할을 위한 음흉한 계책을 실현하려하였다.

1905년 7월 일본으로 건너온 미륙군장관 타프트는 일본수상 가쯔라와의 «비밀협정»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미제의 필리핀강점을 승인받는 대가로 일본의 조선강점을 승인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일본군국주의는 1905년 «을사보호조약» 을 조선에 강요하여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아냈으며, 1907년 «정미7조약»을 강요하여 내정권을 빼앗아냈으며, 1910년에 와서는 조선을 완전히 병탄하는데 이르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 «을사보호조약»을 강요하자 미제는 이를 공개적으로 찬동하며 어느 나라보다도먼저 서울에서 자기의 공사관을 철수하였다.

그후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조하며 독립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모독하고 가로막는데 모든 힘을 다하였다.

1919년 3월 조선인민이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며 독립을 요구하는 거족적인 봉기를 일으켰을 때에 미국무성은 «조선문제는 순전한 일본의 내정문제인만큼 우리 필리핀에서 폭동이 일어난 경우와 동일하다. 폭동진압을 위하여 일본정부가 취한 태도에 관하여 여러가지 아름답지 못한 보도가 있으나 이는 극히 의심스럽다. 국무성이 입수한 정보에 의한다면 일본이 특히 가혹하고 잔인한 조치를 취하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라는 공개적인 성명까지 발표하였다.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 1919년 4월 21일)

미제는 일제의 조선강점정책을 적극 지지해주는 대가로 일제로부터 조선에 있는 자기의 경제적리권에 대한 보호를 받았다.

미독점자본가들은 이미 19세기말엽에 획득한 조선광산자원의 채굴권을 비롯한 일련의 리권들을 계속 틀어쥐였을뿐만아니라 일제의 뒤받침밑에 보다 광범한 경제적략탈을 감행하였다.

그들은 1920년대만하여도 평양전분공장을 비롯하여 여러개의 기업소들을 차려놓고 조선의 근로자들을 가혹하게 착취하였다.

미독점자본소유의 운산, 수안, 창성, 직산의 4대광산들은 1909년부터 1920년에 이르는 기간 전조선 금은생산액의 80%를 차지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 대한 침략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종교—문화적침략에 또한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침략의 척후병으로서 종교의 탈을 쓴 수많은 선교사들을 조선에 보내였다.

1910년 조선에 와있은 외국인선교사 총수는 453명이였는데 그 가운데 미국인선교사는 306명이나 되였다.

미국 선교사들과 종교기관들은 이른바 «자선사업»의 간판밑에 앞으로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할 때에 리용할 앞잡이들을 많이 길러내며 조선인민들속에 숭미사상을 부식하고 고취하기 위하여 온갖 교활한 책동을 다하였다.

그러나 그의 강도적본성은 결코 감출수 없었다. «자선»과 «문명»을 떠벌이면서«박애»와 «평등»의 가면을 뒤집어쓴 미국선교사들은 조선인민에 대하여 참을수 없는 민족적멸시를 가하고 인권을 마구 짓밟았다. 한가지 실례만 든다면 1925년 평안남도 순안에 있던 미국선교사 헤스머란놈은 그가 소유하고있는 과수원길가에서 12세의 한 조

선소년이 떨어진 사과 한알을 주었다고 하여 그를 붙잡아 쎄멘트에 들이뜯게 하고는 소년의 이마에 청강수로 《도적》이라는 글자를 새기는 극악무도한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것이 바로 미제침략자들의 본성의 일단이다.

조선인민은 미일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기 시작한 첫날부터 그놈들을 반대하여 줄기차게 투쟁하였다.

특히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은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켰으며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체계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았다.

조선에 대한 일제식민지통치가 끝장날 날은 다가왔으며 조선인민앞에는 민주주의적자주독립국가건설의 휘황한 앞길이 열렸다.

일제의 패망이 가까와옴에 따라 미제국주의자들은 독립에 대한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는 정반대로 국제무대의 막뒤에서 일제를 대신하여 조선을 저들의 식민지적예속밑에 두기 위한 음모책동에만 더욱더 매달렸다.

1943년 3월 워싱톤에서 있은 영국외상 이든과의 비공식회견에서 미국대통령 프랑크린 루즈벨트는 《한개 또는 두개 나라》의 참가하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신탁통치를 실시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코델 헐의 회상기》, 2권, 뉴욕, 1948년, 1,956페지)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루즈벨트는 조선에 대하여 《…신탁을 고려하고있으며 이 문제에서 미국은 자치에로의 필리핀인민의 준비를 위하여 50년간의 기한을 설정한 필리핀의 경험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조선에 대하여서는 20~30년의 과도기를 예견할수 있다.》고 떠벌였다. (《미국의 대외관계 말타와 얄타회담 1945년》, 워싱톤, 1955년, 770페지)

이와 같이 일제가 패망하는 기회에 조선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일관하게 꾀하여온 미제국주의자들은 제2차세계대전후 조선문제를 취급한 국제회의에서도 뻔뻔스럽게 조선에 대하여 10년이상의 신탁통치를 실시할것을 완강히 주장하였던것이다.

이 모든 사실은 미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력사적으로 조선의 식민지화를 노린 조선인민의 피맺힌 철천의 원수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 2

일제 패망후 1945년 9월 미제침략군은 해방된 남조선땅에 상륙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바로 이것을 100년전부터 꿈꾸어온 조선에 대한 식민지적지배를 실현하는 더없이 좋은 기회로 삼았다.

미제침략군은 남조선땅에 피묻은 발을 들여놓자마자 당치도 않게 조선인민의 자주권을 짓밟으며 남조선을 저들의 군사점령지대로 선포하고 군정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북위 38도선을 계선으로 남조선을 가로타고앉아 그때까지 자유롭게 진행되던 남북조선간의 교통, 운수, 통신 및 래왕을 모두 끊어버리고 남북간에 분렬의 장벽을 쌓기 시작하였다.

원래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 진주하게 된것은 련합국들간의 전시협정에 따라 일본군대의 무장을 해제하는데 그 임무가 있었을뿐 남조선에서 군정을 실시할 털끝만치의 리유와 근거도 없는것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국주의자들은 해방후 남조선에서 인민들자신의 창의에 의하여 세워진 인민정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강제로 탄압해산하고 군정을 강요하였으며 공공연히 남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길에 들어섰다.

군정을 선포한후 미제강점자들은 곧 군정법령 제21호로써 《종래의 모든 법령들 또는 구조선정부 (일제의 조선총독부)가 발포하고 법령적효력을 가진 규칙, 명령, 고시 기타 문서로써 1945년 8월 9일 실행중인것은… 군정부의 특수명령으로 폐지할 때까지 전효력을 존속》한다고 선포하였다. 이로써 미제는 조선인민을 그처럼 탄압한 일제때의 식민지통치기구와 파쑈적악법들을 그대로 존속시킬뿐아니라 일제총독을 비롯한 일제관리들을 《조력자》로 까지 리용하면서 조선인민의 모든 민주주의적 및 애국적 력량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해방된 인민의 기세앞에서 숨도 크게 못쉬고있던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규합하여 저들의 식민지통치지반을 꾸리는데 달라붙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식민지예속화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군사파쑈통치를 실시하는 한편 강도적군사점령제도를 리용하여 경제적으로 남조선의 민족경제를 파괴하고 그것을 미독점자본에 예속시키는 악랄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미제는 이 목적을 이룩하기 위한 첫 조치로써 1945년 9월 군정법령 제2호로써 《1945년 8월 9일 이후 북위 38도선 이남에 있어서 일본인에게 소속되었던 공, 사 재산의 리권을 직접 또는 간접이거나 일부 또는 전부이거나 그 형태와 내용 여하를 불문하고 미군정청에서 그 소유권을 접수한다.》고 하여 남조선경제의 85%에 해당하는 기간부문을 송두리채 자기 손아귀에 틀어쥐고 그것을 제멋대로 파괴략탈하였다.

미제가 이른바 《적산》이라 하여 빼앗아가진 남조선경제의 명맥을 이루는 이 재산은 일제가 조선인민의 피땀을 짜내여 이루어놓은것으로서 북반부에서 실시된바와 같이 응당 조선인민에게 돌려져야 할것이였다.

1946년 2월에 미제는 일제의 토지 및 량곡 수탈기구였던 《동양척식회사》를 《신한공사》로 이름을 바꾸어 달고 그에 속했던 남조선경지면적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 전부를 빼앗아가졌다.

남조선경제에 대한 이와 같은 략탈과 예속화 정책으로 남조선경제는 급속히 파괴몰락되였으며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의 길은 완전히 봉쇄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또한 남조선을 강점하자 곧 남조선의 항만, 도로를 개축하며 군용비행장을 신설하는 등 남조선의 군사기지화를 다그쳤으며 특히 38선 근방에 군사력을 집중시켰다.

북반부에 대한 무력침공을 준비하면서 미제국주의자들은 1945년 11월에 벌써 군정법령 제28호로써 이른바 《국방사령부》를 조작하고 뒤이어 《국방경비대》와 《해안경비대》의 이름밑에 남조선괴뢰군을 길러내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모든 사실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철두철미 조선인민에 대한 침략자로서, 략탈자로서 행동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당시 미국기자 마크 게인도 다음과 같이 실토하였다.

《우리는 해방군이 아니였다. 우리는 점령하기 위하여 조선인이 항복조건에 복종하는가를 감시하기 위하여 들려간것이다. 우리는 상륙 첫날부터 조선인의 적으로 등장하였다.》 (마크 게인, 《일본일기》, 뉴욕, 1948년)

남조선을 공공연히 식민지군사기지로 만들기 시작한 미제국주의자들은 군정이 남조선인민들의 강력한 반항에 부딪치게 되자 자기들의 식민지통치의 정체를 가리우려는 음흉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남조선괴뢰단독정권을 조작하는 길에 들어섰다.

이를 위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 통일적인 민주주의적림시정부를 세울데 대한 모스크바3상회의결정을 횡포하게 파괴하고 1947년 당치도 않은 구실을 붙여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에 끌고갔다.

바로 이것은 유엔헌장에 전적으로 위반되는것이다.

유엔은 조선문제와 같은 전후조정문제를 토의의 대상으로 삼을수 없으며 또한 임의의 나라, 임의의 민족의 내정문제에 대한 토의를 할수 없다. 조선문제는 어떠한 외부세력의 간섭도 허용할수 없는 조선인민자신의 내정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인민의 자주권과 유엔헌장을 란폭하게 짓밟고 유엔에서 조선인민의 참다운 대표의 참가도 없이 저들의 거수기를 발동하여 강압적으로 조선에서 이른바 《유엔감시하의 선거》를 할데 대한 《결의안》을 조작해내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 범죄적책동이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반항에 부딪치자 1948년 비법적인 유엔 《소총회》를 억지로 소집하여 저들의 침략군대가 강점하고있는 남조선에서만 단독적으로 《선거》를 실시할데 대한 《결의안》을 꾸며내였다. 이것이 얼마나 비법적이며 황당한것이였는가 하는것은 당시 미제의 이 흉계를 집행할 침략도구로 꾸며졌던 이른바 《유엔조선위원단》이라는것까지도 그에 망라된 8개 나라 대표가운데서 다만 4개나라대표가 이에 찬동한 사실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사실상 외래침략군대가 있는 조건에서 그 어떠한 《자유선거》란 말조차 할수 없는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총칼의 위협밑에 감행하는 이 《선거》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날것인가 하는것은 처음부터 뻔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국토의 량단과 민족의 분렬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념원하는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민족적지향을 짓밟고 총칼에 의한 야만적인 테로와 폭압, 사기와 협잡으로 이른바 《선거》의 연극을 꾸미고 미국에서 오래동안 길러낸 극악한 매국노 리승만도당을 내세워 남조선괴뢰정권을 조작함으로써 공공연히 조선의 분렬을 심화시켜나섰다. 바로 리승만 《정권》이 완전히 미제의 총칼에 의하여 남조선인민들에게 강요된 괴뢰정권이였다는것은 《유엔의 승인》을 받은 《대의제정부》요 뭐요 하던 이 매국정권이 1960년 4월 남조선인민들의 영웅적봉기에 의하여 꺼꾸러진데서도 낱낱이 확증되였다.

미제가 총칼을 휘둘러서 날조한 남조선 《정권》이라는것이 《군정》을 이른바 《대한민국정부》로 간판만 바꾸어단 철두철미 예속적인 매국정권이며 그 어떤 자주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허수아비정권이며 미제의 식민지적정책수행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은 괴뢰정권수립후 미제와 남조선괴뢰정권간에 조작된 여러가지 《조약》들과 《협정》들에 의해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미제국주의자들이 1948년에 조작해낸 《한미재정 및 재산이양에 관한 협정》은 남조선괴뢰정권이 《미군정청의 일체의 현행법률, 법령 및 규칙을 전적으로 계승시행》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또한 《동산, 부동산 유체 또는 무체임을 막론하고 미국정부가 관심을 가진 재한국재산 및 그 첨부물》의 《소유권을 미국정부의 요구에 응하여 양도》할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처럼 미제는 남조선괴뢰정권이 미군정의 연장에 불과하다는것과 남조선경제에 대한 무제한의 지배권을 법적으로 규정하여놓았다.

이뿐아니라 《과도기에 실시될 잠정군사 및 치안에 관한 행정협정》 에서는 《재한미군사령관은 현존하는 일체 경찰, 해안경비대 및 국방경비대 부대들로 구성되는 대한민국 치안부대의 통솔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전반적인 작전적통제를 실시할 권한》 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남조선에 대한 전반적군사적통수권을 틀어쥐였다.

남조선에 이처럼 신식민주의적인 군사파쑈통치기구를 확립한 다음 미제는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 전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기 위한 본격적인 전쟁준비를 다그쳤다.

미제는 1949년 한해동안에만도 1억 9천만딸라에 달하는 각종 무기와 군수물자를 남조선에 끌어들여 괴뢰군을 대대적으로 무장시켰다.

이에 대하여 1950년 5월 《이씨에이한국원조처》 처장은 미하원 세출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실토하였다.

《미국의 무장으로 장비되고 미국인에 의하여 훈련된 10만명의 남조선군대 장병들은 자기의 준비를 끝마쳤으며 임의의 순간에도 전쟁을 시작할수 있다.》

조선에서 전쟁도발준비책동의 한고리로서 미제국주의자들은 자유와 해방과 조국의 통일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을 더욱 강화하였다. 1949년 9월과 10월의 두달사이에만도 남조선에서 132개의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가 강제해산당한것을 비롯하여 1949년 한해동안에만도 미제침략자들은 무려 10만 9천여명의 남조선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였다. 제주도에서는 1948년부터 1950년초까지의 사이에 전체 도민의 4분의 1에 해당한 7만여명의 주민이 학살당하였다.

남조선전역을 피로 물들인 이와 같은 류혈적인 참극에 대하여 1950년 3월 《뉴욕타임스》지까지도 《남조선의 많은 지역에서는 세계에서 그 류례를 볼수 없는 테로가 지배하고있다.》고 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전쟁준비와 함께 38선일대에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군사적도발과 무장침범행위를 날로 더욱 격화시켜나섰다. 미제침략군의 지휘밑에 남조선괴뢰군은 매일과 같이 북반부지역에 침입하여 주민들을 살해하고 랍치하며 농가에 불지르고 재물을 략탈하는 등 악랄한 도발적만행을 계속하며 빈번히 대부대에 의한 군사적침공작전을 감행하였다.

1949년 한해동안에만도 이러한 도발적인 무장침공사건은 무려 1천 836회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미제가 이미 1950년 6월 25일 훨씬 이전부터 사실상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감행하고있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국과 민족 앞에 닥쳐온 이 엄중한 전쟁의 위험을 타개하고 조국을 하루속히 평화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처음부터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일찌기 1948년 4월 남조선우익정당대표들까지 참가한 가운데 평양에서 진행된 남북조선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는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를 대표하여 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동시에 철거시키고 그 어떤 외세의 간섭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전 조선통일정부를 수립할데 대한 방안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미제와 한줌도 못되는 그 앞잡이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끝내 남조선에서 망국적 《단선》을 실시하여 괴뢰정권을 조작하였다.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에서 쏘, 미 두 군대가 동시에 철거하고 조선문제는 조선인민자신에게 맡길것을 거듭 제기하였다. 쏘련정부는 이에 적극 호응하여 곧 쏘련군대를 모두 공화국북반부지역에서 철거시켰다. 그러나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서 물러가지 않고 전쟁도발책동에 계속 매달렸다.

1949년 6월 남북조선의 72개 정당,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자유로운 남북조선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적최고립법기관을 창설하고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시킬것을 제의하였으나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이 제의의 실현도 방해하였다.

1950년 6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 《국회》를 단일한 전조선립법기관으로 통합하는 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방안까지 제기하였다.

그러나 미제와 그 앞잡이 남조선괴뢰도당은 조국통일을 위한 이 정당한 평화적제의에 끝내 전쟁의 도발로써 대답하였다.

## 3

1950년 6월 25일, 38연선에서 오래동안 무장도발행위를 감행하여 오던 미제침략자들은 드디여 리승만괴뢰도당으로 하여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전면적인 무력침공을 감행케 하였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력사에서 가장 포악하고 가장 범죄적인 페지를 펼쳐놓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동족상쟁의 참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강도적인 침략행동을 당장 중지할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러나 전조선을 무력으로 정복하려는 야욕에 사로잡힌 미제국주의자들은 전전선에 걸쳐 무력침공을 확대하여 38선이북지역으로 깊이 진격하여 들어왔다.

이러한 조건에서 더는 참을수 없게 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침략자들을 격퇴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었다.

조선인민군의 전면적반공격에 의하여 리승만괴뢰군대의 침공이 좌절되고 놈들이 총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미제국주의자들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북으로부터의 《침입》이라는 파렴치한 소동을 벌리면서 대대적으로 직접적무력간섭을 개시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조선인민을 반대하여 침략전쟁을 일으킨 저들의 흉악한 범죄적정체를 가리우기 위하여 미리 계획하였던대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소집하고 유엔헌장에 규정된 온갖 해당 조항들과 초보적인 절차마저도 다 짓밟으면서 흑백을 뒤집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이른바 《침략자》로 꾸며내고 저들의 무력간섭을 《합법화》하는 비법적인 《결의》를 부랴부랴 날조해냈다.

이 《결의》가 얼마나 황당무계하고 비법적인가 하는것은 그것이 38선상에서의 전쟁발발에 관한 그 어떤 확인된 자료나 조사사업도 없이 오직 미제의 침략도구인 이른바 《유엔조선위원단》이란것이 날조하여 보낸 한장의 전보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는 참가도 시키지 않고 그나마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결의채택의 절대적인 요건인 5개 상임리사국일치가결원칙까지 횡포하게 위반하면서 강다짐으로 조작된 사실에서도 드러났다. 또한 미제국주의자들은 마치 이 《결의》에 근거하여 조선에 대한 《유엔의 경찰행동》을 벌아나선듯이 떠들었으나 사실은 이 《결의》가 조작되기전부터 벌써 미제침략군이 조선에서 대대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하고있었던데서도 그들이 유엔에서 꾸며낸 뻔뻔스러운 기만극의 정체는 남김없이 드러났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도발한 진상은 1950년 전쟁도발이전부터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무장침공을 계속 감행한 사실과 함께 서울해방시에 조선인민군이 남조선괴뢰정부 비밀문서고에서 입수한 비밀문건들과 그밖의 허다한 사실들에 의하여 낱낱이 드러났다.

바로 1950년 6월 전쟁도발에 앞서 미국방장관 죤슨과 미합동참모본부의장 브래들리는 도꾜에 직접 달려와서 미극동군 총사령관 맥아더와 더불어 조선전쟁도발과 관련한 특별비밀모의를 련일 진행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악명높은 전쟁상인 덜레스가 전쟁도화선에 불을 지르러 1950년 6월 17일 남조선에 직접 날아들었다. 덜레스는 6월 18일 38선일대를 시찰하면서 전호속에서 《북벌》 계획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다음 《미국은 공산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남조선에 물심량면의 원조를 주기 위하여 준비되여있다.… 공산주의자들은 결국 북조선에서의 지배를 상실할것이다.》(서울, 1950년 6월 19일발, 《유피》통신) 라고 전쟁도발에 대한 검은 속심을 로골적으로 털어놓았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도발한 다음 모든 선전수단을 총동원하여 북으로부터 《불의의 기습》을 당한듯이 떠들었지만 사실인즉 미국무성이 조선에서 전쟁을 일으키기전에 벌써 이 무력침공을 유엔의 《결의》에 의하여 감행하는듯이 가장하기 위한 《결의안》까지도 다 준비해놓고있었던것이다.

1951년 6월 5일 미상원세출위원회에서 진행된 국무성예산에 관한 토의행정에서 당시 유엔담당국무차관보였던 죤 히카슨은 상원의원 퍼가슨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조선전쟁이 일어나기전에 벌써 미국무성은 이 《문제》를 유엔에 가지고가서 《어떤것을 이야기할것인가 하는것도 개략적으로 정해놓》았으며 《결의안의 골자만은 작성해두었다.》고 실토하였다. (아이. 에프. 스톤, 《조선전쟁비밀사》, 뉴욕, 1952년)

미국잡지 《라이프》는 《우리는 우리 력사의 전기간을 통해서 이 전쟁이 시작될 때처럼 그러한 정도로 준비되여있은 례를 이때까지의 그 어떤 전쟁에서도 찾아볼수 없다.》고 썼다. (《라이프》, 1950년 8월호)

미제국주의자들은 이처럼 미리부터 용의주도하게 꾸며온 침략계획에 따라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도발하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불가분의 령토인 대만을 강점하고 중국인민을 반대하는 적대적인 도발행위를 공공연히 감행하여나섰으며 아세아의 전반적지역에 전쟁의 불길을 확대하려고 날뛰였다.

침략전쟁의 도발은 자기가 먼저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상대방에 넘겨씌우려는 상투적인 수법에 의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그후 월남침략전쟁을 또한 도발하였으며 꾸바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하였으며 최근에는 캄보쟈에 대한 무력침공도 이런 수법으로 감행하여 나섰다.

미제침략자들은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무력침공을 이른바 《유엔경찰행동》으로 묘사하였지만 얼찌기 보기 드문 대병력을 동원하여 전쟁력사상 가장 야만적이며 가장 잔인한 방법을 다 써서 침략전쟁을 감행하였다.

미제는 조선전쟁에 자기 나라 륙군의 3분의 1, 공군의 5분의 1, 태평양함대의 대부분 그리고 15개 추종국가들과 남조선괴뢰군대까지 포함하여 200여만의 대병력과 막대한 량의 최신전투기자재들을 동원하여 닥치는대로 죽이고 불사르고 파괴하는 초토화작전을 벌리였으며 지어 세균무기까지도 썼다. 그리하여 형편은 《유엔군이 머리를 앓고있는것의 하나는 이미 파괴할것이 없다는것이였다.》(아이. 에프. 스톤, 《조선전쟁비밀사》, 뉴욕, 1952년) 라고 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었다.

전쟁기간에 미제침략자들은 실로 공화국북반부에 있는 8천 700여동의 공장과 생산시설, 60여만호의 주택, 5천여개의 학교와 수천개소의 문화후생시설들을 소각파괴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공화국북반부지역을 일시적으로 강점하였던 시기에 또한 천인공노할 대중적학살만행을 도처에서 감행하였다.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수많은 대중학살만행중 한해도 신천군에서의 사건은 가장 대표적인 례로 된다. 신천군에서는 미제침략군이 강점한 약 45일동안

에 군내 전체 인구의 25%에 달하는 3만 5천 383명의 인민들을 학살하였다. 피에 주린 미제살인귀들은 주민들을 생매장하며 산사람의 가죽을 벗기며 배를 가르며 젖가슴을 도려내며 이마에 못을 박고 눈알을 뽑아내는것과 같은 짐승도 낯을 붉힐 갖은 악독한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미제가 조선에서 감행한 만행은 《오스벤찜》과 《마이다네크》 수용소에서 히틀러도당이 감행한 전률할 만행를 훨씬 릉가하는것이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전쟁에서 인류의 극악한 원쑤로서의 그의 야수적정체를 남김없이 온 세계 앞에 드러내놓았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떠한 발악적인 만행으로써도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에 궐기한 조선인민을 굴복시킬수 없었다.

영웅적조선인민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야만적침공을 때려부시고 조국의 촌토와 혁명의 전취물을 피로써 사수하였으며 자유와 독립과 민족의 영예를 끝까지 고수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조선인민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수억만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받았다.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나라 인민들은 조선인민을 륭심량면으로 지원하여주었다. 특히 중국인민들은 자기의 우수한 아들딸로 조직된 지원군을 보내여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피로써 도와주었다.

미제는 3년동안의 조선전쟁에서 미제침략군 39만 7천여명을 포함한 109만 3천 800여명을 살상포로당하였으며 1만 2천 200여대의 비행기, 560여척의 각종 함선, 3천여대의 땅크를 비롯한 막대한 전투기자재를 소멸손상당하였다.

미제가 3년동안의 조선전쟁기간에 입은 병력과 군수기재의 손실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 4년동안의 태평양전쟁에서 입은 손실의 거의 2.3배에 이르렀다.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은 유엔의 간판을 뒤집어쓰고 전례없이 야만적이고 파괴적인 살륙전쟁을 감행하였으나 구경 제놈들이 전쟁을 도발하였던 바로 그 자리에서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조선전쟁에서의 미제의 참패는 미제국주의침략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가장 심대한 패배였다. 이 참혹한 패배로 하여 미제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는 여지없이 깨여졌으며 이때로부터 미제는 내리막길에 들어섰다.

조선전쟁의 경험은 작은 나라라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손에 무기를 튼튼히 틀어쥐고 끝까지 용감하게 투쟁한다면 그 어떤 간악한 제국주의침략세력도 능히 격파하고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 4

조선에서의 정전은 조선통일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정전협정은 그 서언에 지적되여있는바와 같이 《최후적인 평화적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조선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정전협정을 충실히 집행하면서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고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침략전쟁에서 이루지 못한 야욕을 의연히 버리지 않고 정전협정을 처음부터 흉포하게 위반하면서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한사코 방해하고 남조선강점을 영구화하며 식민지군사기지화정책을 더욱더 강화하는 길로 나아갔다. 벌써 정전협정이 조인된후 반달도 못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것을 규정한 정전협정에 완전히 배치되게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영구강점을 규정한 이른바 《한미호상방위조약》을 남조선괴뢰정부와 맺었다. 뒤이어 1953년 12월 미제국주의자들은 정전협정에 예견된 조선통일문제의 평화적해결에 관한 정치회의소집을 거부하였다. 정치회의소집을 파탄시킨후 미제는 정전협정의 매 조항을 더욱더 집요하게 파괴하여나섰다.

정전후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경외로부터의 군사인원의 증강과 증원되는 작전물자의 반입을 금지하고있는 정전협정 제 13항을 각방으로 위반하고 남조선괴뢰군을 정전당시의 2배로 증강하였다.

1957년 6월 미제국주의자들은 《쌍방사령관들의 호상 합의를 거쳐야》만 정전협정을 수정증보하도록 규정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원되는 작전물자의 반입을 금지하고있는 13항 ㄹ목의 폐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오네스트죤》 로케트 및 280미리원자포, 《나이크 헤리큘레스》 및 《호크》 유도탄 등을 대대적으로 반입하여 로골적으로 남조선을 원자 및 유도탄 기지로 전변시켰다.

이에 대하여 당시 남조선강점 미8군사령관이였던 렘니쩌는 뻔뻔스럽게도 《우리는 수년에 걸쳐 노력한 결과 정전협정 13항 ㄹ목을 폐기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이제 우리는 거기서 신형무기를 가지고있다.》 (워싱톤 1960년 2월 3일발 《유피아이》 통신)고 떠벌이였다.

남조선에서 새 전쟁준비가 적극 진척됨에 따라 미제는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을 금지하고있는 정전협정조항들을 란폭하게 짓밟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적도발행위를 날이 갈수록 더욱더 격화시켜나섰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공화국북반부지역에 군사인원과 무장간첩들을 침투시켜 습격, 살인, 방화, 랍치 행위를 감행하고 하늘로는 비행기들을 침입시켜 정찰행동과 적대행위를 감행하며 바다로는 군함과 무장함선들을 침입시켜 우리 연해지방에 함포사격을 가하고 어선을 습격하며 평화적어민들을 계속 랍치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의 이러한 적대적도발행위는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더욱 격증되였다.

미제의 군사적도발행위와 정전협정위반행위는 군사정전위원회에 정식으로 제기된것만 하여도 1954년에는 300여건이던것이 1961년에 2천 517건으로 늘어났으며 1963년에는 6천 484건, 1965년에는 6천 953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1966년 10월 존슨이 남조선에 와서 새 전쟁도발을 직접 고취하고 돌아간뒤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미제의 군사적도발행위는 극도에 이르렀다.

미제의 각종 군사도발행위와 정전협정위반건수는 1967년에는 8천 438건, 1968년에는 무려 1만 1천 156건에 이르렀다.

미제의 이러한 군사적도발행위가 어느 정도로 격화되였는가 하는것은 존슨이 남조선에 왔다돌아간 직후인 1966년 10월부터 1967년 9월까지의 1년동안에 미제침략군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우리측 지역을 향하여 쏘아댄 총포탄수만 하여도 그놈들이 정전후 13년동안에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쏘아댄 총포탄수의 5배이상에 이른 사실에서도 똑똑히 나타났다.

이 모든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단계로부터 전쟁을 직접 도발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미제는 이처럼 조선에서 일관하게 침략과 전쟁 정책을 추구하면서 조선의 평화통일을 한사코 반대하여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문제의 평화적조정을 위하여 1954년에 소집되였던 제네바회의가 미제의 파괴책동으로 파탄된후에도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온갖 합리적방안을 다 제기하였으며 그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기회있을 때마다 일관하게 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킨 조건하에서 어떠한 외부세력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각계각층 인민의 대표를 망라하는 전조선통일정부를 수립하는 방법으로 조선의 통일을 실현할것을 거듭 제기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중국인민지원군은 이미 오래전에 조선에서 모두 주동적으로 철거하였다.

그러나 미제침략군은 물러가지 않고 남조선에 계속 주저앉아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한사코 가로막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자유로운 남북조선총선거가 당장 실시될수없다면 완전한 통일이 이룩될 때까지의 과도적대책으로서 남북조선련방제를 실시할것도 제기하였다.

또한 남북조선간의 경제문화교류와 인사래왕을 실현하며 최소한의 인도주의적조치로서 남북으로 갈라진채 생사와부조차 모르고있는 부모처자, 친척, 친우들사이에 편지거래라도 할수 있게 할것을 제기하였다.

공화국정부는 남북간의 조성된 긴장상태를 없애고 조국의 평화적통일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을데 대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남북조선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일것도 여러차례 제기하였다.

또한 그에 대한 실천적모범으로서 8만명의 군대를 축소하는 조치까지 취한바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국의 통일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남북협상을 진행할것을 계속 제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제기한 이 모든 평화적통일방안은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방안이다.

그러나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안을 모조리 반대하면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대하여 매번 침략적도발행동으로 대답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조선의 통일문제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받아들일만한 그 어떤 방안을 가지고 우리의 정당한 통일방안들을 반대하는가 하면 결코 그런것도 아니다.

미제의 사촉밑에 남조선괴뢰도당은 이른바 《승공통일》을 떠벌이고있다.

《승공통일》이란 구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여 싸움을 하겠다는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은 자기들의 이러한 범죄적정체를 가리우며 오직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기 위한 방패로서 이른바 《유엔감시하의 선거》에 대해서 또한 떠들고있다.

조선의 통일을 위한 선거를 이른바 《유엔의 감시》 밑에서 하자고 하는것은 벌써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원래 유엔은 그 헌장 제2조 7항에 규정된 원칙에 비추어 조선인민자신의 내정문제인 조선통일문제에 간섭할 근거가 없다.

더우기 유엔은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그 기발을 도용당함으로써 조선전쟁의 교전일방으로 전락된 조건에서 조선통일문제의 해결에 관여할 도의적권위마저도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이른바 《유엔감시하의 선거》 만을 고집하는것은 조선사람끼리 자주적으로 자유로운 총선거를 실시하는것을 무서워하기때문이며 남조선에 강요된 식민지통치제도를 유엔의 이름으로 《합리화》하고 그것을 전조선에 확대하려는 음흉한 목적에서 나온것이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방해책동으로 조국의 통일이 계속 늦어지고 미제의 식민지통치가 지속되는데 더이상 참을수 없게 된 남조선인민들은 1960년 4월 대중적봉기로써 리승만괴뢰정권을 뒤집어엎었으며 그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내놓은 평화통일방안을 지지하며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운동을 광범히 벌리였다. 이리하여 남북간의 교류와 협상의 문을 열려는 기운은 그 어느때보다도 고조되였다.

이에 겁을 먹은 미제국주의자들은 박정희괴뢰군사파쑈도당을 내세워 군사정변을 조작하고 특히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요구하여나섰던 수천수만의 민주인사들과 애국적인민들을 닥치는대로 체포투옥학살하였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심지어 남조선인민들이 평화통일이란 말만 하여도 무조건 《국시위반》이라 하여 《반역죄》로 몰아 처형하고있다.

일찌기 남조선의 《진보당》은 다만 그가 괴뢰대통령선거운동에서 평화통일을 주장하였다는 한가지 리유로 해산당하였으며 그 당의 위원장 조봉암은 사형당하였다.

파쑈적군사정변이후에도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남조선 전 《참의원 의원》이며 《통일사회당》 지도자였던 리훈구와 《사회당》 위원장이였던 최근우가 평화통일을 주장하였다는 리유로 재판도 없이 무참히 학살하였으며 같은 리유로 남조선의 《민족일보》사를 습격폐쇄하고 사장이였던 조용수를 사형에 처하였다.

남조선에서 이러한 탄압행위는 부지기수이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1964년 4월 서울시 룡산구에 사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념원하는 《통일방침설명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서명하였다는 리유로 그들을 체포투옥하고 중형에 처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의 평화통일을 한사코 방해하며 남조선을 식민지군사기지화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여 감행하고있는 악랄한 군사적도발행위를 항상 《북으로부터의 공산주의위협》을 가로막고 남조선을 《보호》하기 위한것으로 묘사함으로써 《정당화》하려 하고있다.

그러나 《북으로부터의 공산주의위협》이란 애당초 있지도 않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남침할 의도가 없으며 무력으로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다는것을 한두번만 천명하지 않았다.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 기초우에서 평화적으로 나라를 통일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립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오늘 조선에서 새 전쟁의 위험은 바로 미제가 자기 나라에서 수만리 떨어진 남조선을 강점하고 침략과 전쟁 도발책동을 부단히 감행하는데 있다.

이 사실은 미제침략자들자신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제출한 수많은 사죄문에 의해서만도 엄연히 실증되고있다.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사건때 미합중국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제출한 사죄문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미합중국정부는 1968년 1월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해에서 조선인민군 해군함정들의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나포된 미국함선 〈푸에블로〉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해에 여

권차례 불법침입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중요한 군사적 및 국가적 기밀을 탐지하는 정탐행위를 하였다는 이 함선의 승무원들의 자백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가 제시한 해당한 증거문건들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미국함선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해에 침입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엄중한 정탐행위를 한데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이에 엄숙히 사죄하며 앞으로 다시는 어떠한 미국함선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해를 침범하지 않도록 할것을 확고히 담보하는 바입니다.》

그밖에도 미제침략자들은 1964년 5월 15일, 1965년 5월 21일, 1969년 12월 3일 등으로 거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이러한 사죄와 담보를 하였다. 만약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강점하지 않았더라면 조선에서 오늘과 같은 긴장상태도 조성되지 않았을것이며 그 어떤 전쟁위험도 없을것이다.

미제가 남북조선간에 서로 무력행사를 하지 않을데 대한 평화협정을 맺는것도 기어코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북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하여 떠드는 자체가 침략자의 본심을 그대로 드러내놓은것이다.

요컨대 《북으로부터의 공산주의침략위협》이라는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 전조선을 침략하며 나아가서 아세아를 침략하려는 자기들의 음흉한 목적을 가리우기 위하여 만들어낸 병풍에 지나지 않는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보호》할 책임이 저들에게 있는듯이 떠벌이고있으나 남조선인민들은 어느때도 미제침략자들에게 그 어떤 《보호》를 요구한 일이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제입으로 떠벌이는 이른바 《원조》와 《보호》의 흉악한 정체는 오늘 남조선이 처하고있는 비참한 현실자체에서도 똑똑히 드러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가장 반동적인 식민지군사파쑈통치에 의하여 남조선은 기아와 빈궁, 테로와 학살이 지배하는 생지옥으로 전변되였다.

오늘 남조선에서 정치적지배권과 경제적명맥을 틀어쥐고 군사적통수권을 휘두르고있는것이 괴뢰정권이 아니라 미제국주의자들이며 바로 그의 현지식민지통치기구인 《주한미대사관》, 《주한미국제개발처》, 《주한미군사령부》 등이 라는것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정전후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미 괴뢰정권조작당시에 꾸며냈던 각종 침략적이며 예속적인 《조약》과 《협정》 등을 종합체계화하고 개악한 여러가지 《조약》과 《협정》들을 더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법》적으로 완전히 남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1961년 2월에 체결된 이른바 《한미경제 및 기술협정》에 의하더라도 남조선괴뢰정부의 모든 활동은 《미국의 관계법령과 규칙에 의거》하여야 하며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의 《계획사업 및 관계기록을 제약없이 관찰하고 재검토》할 권한을 가지였다. 남조선괴뢰도당은 《계획사업에 관한 완전한 정보와… 기타 관련정보를 미합중국정부에 제공》하고 그로부터 통제를 받으며 미제의 군사적침략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모든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최대한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니였다. 심지어 이 《협정》은 남조선에 드나드는 모든 미국인들과 그 가족들에게까지 외교관과 동등한 특권을 부여하며 일체 면세조치를 취할것을 규정하고있다. 이것은 완전히 종주국과 식민지사이의 지배와 예속의 관계를 성문화한것이다.

이리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괴뢰도당의 예산심의를 비롯한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 대한 통제감찰권을 설정하였다. 남조선괴뢰도당은 미제상전의 승인이 없이는 예산수립은 물론 생산활동도 마음대로 할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미국신문 《워싱톤포스트》도 《현정부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지시를 받는 군사정권이다.》라고 하였으며 (워싱톤 1967년 6월 20일발 《로이터》 통신) 어느한 미상원 의원까지도 《남조선… 같은 나라들은 미국의 종속물》이라고 하였다. (뉴욕 1965년 10월 11일발 《에이에프피》 통신) 미제국주의자들이 남부월남침략전쟁터에 보낼 대포밥을 징모하기 위하여 갖은 발악을 다하였으나 그의 《동맹국》들과 추종국들에서는 하나도 얻어내지 못하였거나 기껏해서 백명이나 천명단위로밖에 끌어내지 못한것을 남조선에서는 5만명이상이나 끌어냈다는 사실자체가 오늘 남조선이 처하고있는 식민지노예의 치욕스러운 처지를 그대로 말하여주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제마음대로 감행하고있는 식민지략탈정책에 의하여 남조선경제는 수습할수 없는 파국에 처하여있으며 인민들은 《4천년래의 민생고》에 허덕이고있다. 남조선의 민족공업은 파산몰락되였으며 남조선농촌경리도 혹심하게 파괴되였다. 지난날 우리 나라의 곡창지대로 알려졌던 남조선이 오늘에 와서는 해마다 100만톤이상의 알곡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만성적기근지대로 전변되였다.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민족문화와 조선인민의 고유한 미풍량속은 여지없이 짓밟히고 온갖 패륜과 패덕이 남조선전역을 휩쓸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2중, 3중의 착취와 압박 밑에서 헐벗고 굶주리고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일터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해마다 예산의 70%이상을 군사비지출에 충당하고있으며 그것을 짜내기 위하여 인민들에 대한 조세수탈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서 지배자, 략탈자로서 주인행세를 하고있는 장본인이라는것은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살상, 폭행, 략탈, 방화, 강간 등 가지가지 야수적만행을 제마음대로 감행하고있으며 그렇게 하고서도 아무 처벌조차 받지 않고있는데서도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인민들을 민족적으로 멸시하고 그들에게 감행하고있는 야수적만행의 여러가지 실례들은 보통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것이다.

1970년 3월 5일 경기도 동두천에서 있은바와 같이 미제침략군 두놈이 잠자는 김씨부부를 면도칼로 목을 마구 찔러죽인 사실 (서울 1970년 3월 9일발 남조선 《동양》 통신), 1969년 2월 22일 경상북도 선산군 구미읍 뒤산에서 있은바와 같이 미제침략군 다섯놈이 4명의 조선소년들에게 사냥총을 마구 쏘아 모두 그자리에 쓰러뜨린 사실 (남조선신문 《경향신문》 1969년 2월 24일), 1968년 5월 24일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있은바와 같이 미제침략군 불도젤운전수놈이 3명의 조선어린이들을 불도젤로 갈아 즉사시킨 사실 (남조선신문 《령남일보》 1968년 5월 26일), 1967년 2월 16일 경기도 련천군 관인면 부곡리에서 있은바와 같이 미제침략군이 이곳 주민들을 목표로 18인치 박격포탄을 퍼부어 8명을 즉사케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사실 (서울 1967년 2월 17일발 남조선 《합동》 통신), 1969년 3월 30일 50여명의 미제침략군놈들이 충청남도 서산군 태안면 동문리주민들에게 칼,몽둥이를 가지고 폭행을 가하여 주민 5명을 중태에 빠뜨린 사실 (남조선신문 《대전일보》 1969년 4월 1일), 1968년 12월 17일 경기도 평택군에서 미제침략군 세놈이 조선녀성을 강제로 끌어다가 고열의 난로에 얼굴을 지지여 실신케 한 사실 (1968년 12월

18일 남조선 《한국문화방송》), 1968년 8월 5일 미제침략군 장교놈이 조선청년을 군견으로 물어뜯게하여 중상을 입힌 사실 (남조선 신문 《한국일보》 1968년 9월 3일), 1970년 5월 10일 경기도 인천시 학익동에서 30여명의 미제침략군놈들이 한 녀성을 집단적으로 구타하여 실신시킨후 차례로 륜간한 사실 (인천 1970년 5월 15일발 남조선 《동화》통신), 1968년 2월 28일 미제침략군 한놈이 서울시 룡산구 리태원동에 사는 한 녀성을 겁탈하려다가 거절당하자 그를 잔인하게 죽인다음 시체에 불까지 지르고 도망친 사실 (남조선신문 《조선일보》 1968년 2월 29일) 등 미제침략군이 감행한 야수적만행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남조선출판물들이 극히 축소하여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1967년 2월부터 1969년 2월초까지의 2년동안에만도 남조선에서 감행한 미제침략군의 이러한 치떨리는 만행은 무려 3천 400여건에 이르렀다.(남조선신문 《전남매일신문》 1969년 2월 1일).

착취와 압박이 있는곳에는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반드시 일어나는 법이다.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억세게 싸워왔다. 1946년 10월인민항쟁과 리승만괴뢰정권을 뒤집어엎은 1960년 4월인민봉기를 비롯하여 《한일회담》을 반대하고 매국적인 《한일협정》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 박정희괴뢰도당의 장기집권책동을 반대하는 투쟁 등 련이어 일어난 남조선인민들의 줄기찬 투쟁은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았다.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날로 더욱 확대되고있으며 그것은 무장투쟁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적극적인 반미구국투쟁으로 발전하고있다.

이에 바빠맞은 미제와 그 앞잡이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애국적인민들의 혁명투쟁에 대하여도 《북조선의 침입》으로 묘사하면서 야만적탄압을 미친듯이 강화하고있다. 지난해 남조선에서 있은 《통일혁명당사건》을 비롯하여 《인민혁명당사건》, 《남조선적화공작단사건》, 《임자도 혁명조직사건》 등 여러가지 《사건》들만 하여도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의 애국적투쟁의 중요한 표현이였다. 그러나 박정희괴뢰도당은 통일혁명당 서울시위원회 위원장 김종태를 비롯한 수많은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을 체포투옥하고 중세기적으로 고문학살하였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북조선의 소행이라고한 통일혁명당사건을 비롯한 여러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다 남조선의 대학교수들과 언론계인사들, 군인들과 공무원들이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남조선의 현 위기가 그 누구의 탓도 아닌 바로 미제의 식민지통치 그자체의 산물이라는 이 엄연한 사실을 결코 숨길수 없다.

모든 사실은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의 침략정책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온갖 불행의 화근이며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고있는 기본장애이며 조선에서 긴장상태와 새 전쟁 위험을 조성하는 항시적근원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 5

미제국주의자들은 오늘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불장난을 거의 매일과 같이 감행하고있으며 조선에서의 정세를 계속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바와 같이 1968년과 1969년에 잇달아 감행된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미제간첩비행기 《이씨—121》 사건은 조선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계획적책동의 한 고리였다.

이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푸에블로》호사건과 《이씨—121》사건을 구실삼아 저들의 숱한 침략무력을 더욱 대대적으로 우리 나라 주변에 집결시키면서 미친듯이 전쟁소동을 벌린데서도 잘 나타났다.

우리 나라 령해와 령공에 침입하여 정탐과 적대 행위를 하던 무장간첩선과 간첩비행기를 나포하거나 격추한것은 국제법상 공인된 자주권의 행사이며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조선인민자신의 신성불가침의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국주의자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해서 수많은 무력을 동원하여 71기동함대라는것까지 새로무이 우리 나라 근해에 배치하며 일본 및 태평양지역에서 수백대의 전투폭격기들과 증원병력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위협하였다.

이 발광적인 전쟁소동으로 인하여 극도로 첨예화되였던 우리 나라정세는 오늘도 의연히 풀리지 않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은 남조선전역에 걸쳐 《전시체제》를 확립하고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에 비상동원령을 내리고있으며 군사분계선일대에 침략무력을 계속 증강하면서 《특별대기태세》를 취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전투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월남에서 전투경험을 쌓은 미군들을 휴전선에 동원》하고 《…미8군장병들의 복무기한을 연장》 (남조선신문 《동아일보》 1969년 5월 9일) 하며 남부월남에서 교체된 륙군과 해병대를 《조선과… 극동의 어느 지역에서 비상사태에도 대처할수 있도록》 오끼나와, 하와이, 일본에 배치하였다. (워싱톤 1969년 6월 17일발 《에이피》 통신).

미제와 그의 앞잡이들은 70만에 이르는 남조선괴뢰군을 항시적으로 유지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남조선 청장년들을 대포밥으로 끌어내기 위하여 200여만에 이르는 《향토예비군》을 새로 편성하고 《1970년도는 예비군 전력화의 완성의 해》라고 하면서 그의 완전무장을 서두르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계속 공군무력을 증강하고있는바 최근에는 제95전투폭격기대대, 《에프—4팬톰》기로 구성된 제5공군산하 제334 및 제335전투비행대대를 남조선에 끌어들였으며 (1969년 12월 16일 남조선 《한국문화방송》) 지난 6월 2일에는 또다시 《에프—4팬톰》 기로 편성된 미전략공군사령부소속 2개 전술비행단을 끌어들여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을 증강하였으며 (1970년 6월 2일 남조선 《동화》 통신) 또한 《에프—4팬톰》기 16대와 《유10비》 군용비행기 수십대를 끌어들여 남조선괴뢰군에 넘겨주었다 (미국신문 《스타즈 앤드 스트라이프스》 1969년 11월 29일).

지난 2월에는 《티—33》형 제트기 수십대와 《에프—5비》 제트전투기 15대를 남조선괴뢰군에 넘겨주었으며 (1970년 2월 4일 남조선 《중앙방송》) 지난 5월에는 《씨—54》 대형수송기 수십대를 또다시 남조선괴뢰군에 넘겨주었다. (1970년 5월 15일 남조선 《동양라지오방송》)

미제국주의자들은 군용비행기뿐만아니라 각종 신형포들과 신형군용차량을 비롯한 수많은 살륙무기와 작전장비들을 계속 끌어들여 남조선괴뢰군의 군사장비의 현대화를 다그치고있다.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의 요구에 따라 오늘 남조선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전략도로, 항만, 군사비행장을 비롯한 여러가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들이 신설확장되고있다.

미제의 지시밑에 남조선괴뢰도당은 《고속도로》 건설의 이름으로 전략도로건설을 다그치는 한편 인천항을 《특수항》으로 만들며 부산, 목포, 포항을 비롯한 30개 항구에 대한 확장공사를 추진시키고있다.

미제는 군사분계선가까이에 있는 의정부에 《대형수송기착륙장》 건설을 완공(서울 1969년 9월 11일발 남조선 《동화》 통신) 한데 뒤이어 김포, 울산, 제주, 전주, 려수 등 중요비행장 확장공사와 고산, 모슬포 지역의 새 비행장 건설을 추진시키고있으며 서해 및 남해의 499개 도서들에 직승비행기 착륙장건설을 다그치고있다. (서울 1970년 1월 27일발 남조선 《동화》 통신)

미재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의 모든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자기들의 군사적 목적과 전쟁정책에 복종시키고있다.

미제는 군사적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경제의 《근대화》라는 미명하에 남조선경제의 군사화를 다그치고있다.

미제는 1970회계년도기간에 대외군사 《원조》의 60%에 해당하는 2억 1천만딸라의 군사 《원조》와 특별군사 《원조》를 남조선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워싱톤 1970년 1월 27일발 《유피아이》)

이뿐아니라 남조선괴뢰정부로 하여금 올해에 지난해보다 34%나 더 늘어나고 1961년에 비하여 무려 7.6배나 되는 4천 327억원이상의 방대한 전쟁예산을 세우게 하고 빈궁에 허덕이는 남조선인민들에게 무거운 군사비 부담을 들씌우고있다. (1969년 12월 24일 남조선 《동양라지오방송》)

이리하여 오늘 남조선은 방대한 군사력이 집결되고 모든것이 전쟁정책을 위하여 복무하는 일대 병영으로, 새 전쟁도발을 위한 련병장으로 전변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전쟁사환군들을 남조선에 꼬리를 물고 들여보내여 전연과 군사기지들을 싸다니게 하고 한달이 멀다하게 남조선괴뢰들을 워싱톤에 불러다가 전쟁모의를 거듭하고있는것도 바로 그들이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얼마나 미쳐 날뛰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지난해 8월에는 전쟁두목 닉슨이 직접 박정희괴뢰를 샌프랜시스코에 호출하여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공동보복》을 《재확인》 한다느니 남조선에 군사 《원조》를 증강하겠다느니 하고 떠들었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태평양지구 미륙군사령관과 부사령관, 미공군공수사령관, 미공군방위사령관, 미제 5공군사령관 등 수많은 전쟁사환군들이 남조선에 기여들어 군사분계선일대와 군사기지들을 싸다니면서 새 전쟁도발을 위한 《전투준비상태》를 《검토》 하였다. 얼마전 미제는 남조선괴뢰륙군참모총장이라자를 워싱톤에 불러들여 밀담을 벌려놓고 《전투태세》 완비를 촉구하였다. (서울 1970년 3월 16일발 남조선 《동양》 통신)

상전의 적극적인 부추김을 받은 박정희괴뢰는 《결정적인 행동을 취할 시기가 바야흐로 도래》 하였다 (샌프랜시스코 1969년 8월 22일발 《유피아이》)고 떠벌이면서 《완벽한 전투태세완비》와 《전시비상동원체제 완성》을 요란히 떠들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또한 남조선도처에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공을 가상한 군사연습소동을 잇달아 벌리고있다.

지난해 3월에만 하여도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 새 전쟁 준비상태를 시험할 목적으로 이른바 《포커스 레티너》 작전이라는 이름밑에 미국본토로부터 수많은 침략군부대들과 군수물자들을 남조선에 《공수》하는 극히 도발적인 군사연습소동을 벌리였다. (남조선신문 《동아일보》 1969년 3월 11일)

뒤이어 같은해 5월 미제는 남조선에 있는 저들의 침략군장교들과 일본에 있는 공군장교들을 동원하여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미공군전투비행기의 실지폭격, 기총사격, 방공, 기상정찰 등 다각적인 숙지》 훈련을 진행하였다. (1969년 5월 8일 남조선 《기독교방송》)

올해 3월에는 남조선의 전반적인 해역에서 수십척의 각종 함선들과 항공기들을 동원하여 《실전을 방불케 한》 이른바 《한미련합대잠수함훈련》을 벌리였다. (1970년 3월 4일 남조선 《중앙방송》)

지난 4월 한달동안에도 수만명의 병력과 전투폭격기를 동원하여 《야전군춘계대기동훈련》이라는것을 벌린것을 비롯하여 남조선의 동해안일대에서는 미7함대소속 해병들과 남조선괴뢰군해병들, 그리고 각종 해군함정들과 미제침략군의 항공기들이 출동하여 《한미련합상륙작전》 소동을 피웠으며 또한 《비상대응책》이라는 이름밑에 괴뢰군과 《공무원》 및 민간인들까지 끌어내여 침략전쟁을 가상한 이른바 《을지도상연습》 이라는 전쟁연습소동을 벌려놓았다. (서울·1970년 4월 10일, 28일발 남조선 《합동》 통신, 1970년 4월 21일 남조선 《동양라지오방송》)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이처럼 새 전쟁 준비를 다그치는 한편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군사적도발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올해에 들어와서 1월부터 6월중순까지의 기간에만도 미제가 새 전쟁도발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일대에서 감행한 무장습격 및 총포사격을 비롯한 정전협정위반행위는 무려 5천 100여건에 이르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지난 4월 21일과 22일에도 련거퍼 군사분계선 서부에서 우리측 초소에 대한 무장도발을 감행하였으며 4월 29일에는 군사분계선 중부의 비무장지대안에 수많은 중무기를 비법적으로 끌어들이고 우리측을 향하여 1만여발의 총포탄을 쏘아대는 엄중한 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지난 6월 3일에도 미제침략자들은 군사분계선 서부와 중부에서 비무장지대 우리 인민군초소들을 향하여 수만발의 총포탄을 쏘댔다.

뒤이어 6월 5일 미제침략자들은 무장간첩선 《아이—2》를 서해의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켜 정탐행동을 하며 우리측 고기배들을 랍치해가려고 획책하였을뿐만아니라 우리 인민군 해상경비정에 의하여 이것이 저지당하게 되자 우리측 함정들과 고기배들에 마구 총포탄을 쏘대며 때를 같이하여 미제침략군전투기들이 나타나 우리측에 사격을 가하고 저들의 통제구역으로부터도 맹렬한 포사격을 가하는 극히 엄중한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이와 함께 미제국주의자들은 수많은 무장간첩들을 끊임없이 공화국북반부 지역에 침입시키고있다.

미제의 무장간첩침입사건은 지난해 우리측이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항의한것만도 근 70건에 이른다.

미제침략자들은 지난 3월 12일, 13일과 27일, 4월 11일과 12일, 24일과 25일 그리고 28일에도 우리측 지역에 련이어 무장간첩악당들을 침입시키는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의 계속되는 무모한 각종 군사적도발행위는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더욱더 격화시켜 사태를 전쟁에로 이끌어가기 위한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책동들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무장보호》 까지 붙여가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적정찰비행을 공공연히 계속하고있으며 《비—52》 전략폭격기에 수소탄까지 싣고 우리 나라 주변에 대한 《공중초계》 비행을 하고있다. (도꾜 1969년 10월 23일발 《에이에프피》 통신, 도꾜 1969년 10월 24일발 《유피아이》 통신)

미제국주의자들이 말로는 이러한 비행기들이 공해상공을 비행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또다시 우리 나라 령공을 침범하지 않으리라고 담보할 근거는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의 군용비행기가 우리 나라 령공을 침범하면 조선인민은

변함없이 자기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미제국주의자들은 이것을 구실삼아 《보복》 공격을 대대적으로 벌이대겠다고 하고있는것만큼 오늘 우리 나라는 미제의 한개 비행기침범사건에 의해서도 아무때나 전면전쟁에 휩싸일수 있는 위험한 정세에 놓여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의 새 전쟁 도발책동에 조선인민의 철천의 원쑤인 일본군국주의자들까지 끌어들이고있다.

2차대전후 국제협약들을 란폭하게 짓밟으면서 일본군국주의를 재생재무장시켜온 미제국주의자들은 이제 일본반동지배층에게 침략적공모의 미끼를 던져주면서 일본군대를 직접 조선과 아세아에 대한 군사침략의 앞장에 내세우려는 단계에 이르고있다.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력사적으로 큰놈을 등에 업고 침략과 략탈을 감행하여온 옛버릇 그대로 미제의 전쟁정책에 적극 가담하는 대가로 남조선에 다시 침략하여 이를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는 도약대로 삼으려 하고있다.

이러한 타산으로부터 출발하여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미 1963년에 미제가 조선에서 전쟁을 도발할때 일본 《자위대》를 조선에 파병할것을 예견한 악명높은 《세개화살작전계획》을 꾸며냈으며 뒤이어 그를 구체화한 《날아가는 룡작전계획》, 《달리는 황소작전계획》 등 일련의 전쟁계획들을 짜놓았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조종밑에 1965년에 남조선괴뢰도당과 《한일회담》을 서둘러 결속짓고 범죄적인 《한일협정》을 조작하였다.

《한일협정》의 체결을 계기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재침은 본격화되였으며 미제와 일본 사또정부와 남조선괴뢰도당사이에는 쌍무적인 군사협정들을 통하여 사실상 3각군사동맹이 형성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에 발맞추어 일본 《자위대》를 재편성하고 그 주력을 우리 나라에 가까운 서부일본지역에 배치하며 조선에서의 작전을 가상한 각종 군사훈련을 벌리는 한편 《미일한공동작전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남조선괴뢰도당과의 군사적결탁을 강화하여나섰다.

1965년 10월의 《미일한공군합동연습》을 비롯하여 미제침략군과 일본 《자위대》와 남조선괴뢰군사이에는 공동군사연습들이 련이어 진행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더욱 빈번히 그리고 공공연하게 남조선에 기어들어 공동작전행동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짜고있다. 지난해만 하여도 일본국회 《친선방문단》이니 무슨 《대표단》이니 하는 명목으로 일본군국주의세력의 우두머리들과 《자위대》 륙상막료장, 통합막료회의 의장 등이 꼬리를 물고 남조선에 기어들어 군사분계선일대를 싸다니며 남조선괴뢰군부대들을 《시찰》하였으며 박정희괴뢰도당과 전쟁밀담들을 벌리였다.

오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땅크, 군용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군수기자재와 총탄제조설비들을 남조선괴뢰도당에게 대량적으로 공급하고있으며 남조선의 군사기지, 군용도로, 군항, 철도 등의 건설확장공사를 직접 맡아나서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가 하는것은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대형간첩비행기 《이씨—121》 사건을 계기로 미제침략자들이 미친듯이 전쟁소동을 벌렸을때 사또정부가 이에 배합하여 일본 《자위대》 에 《비상전투경계태세》에 들어갈것을 명령하고 (도꾜 1968년 3월 27일발 일본 《지지》 통신) 《림전태세》를 갖추었던 사실에서도 알수 있다.

지난해 11월 닉슨—사또회담의 결과에 미일 《공동성명》을 발표한 이후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과 군사적침략기도를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른바 《닉슨주의》의 《새 아세아정책》의 기본으로서 일본군국주의세력을 아세아침략의 주되는 타격력으로 앞장에 내세우며 이를 골간으로 박정희도당, 장개석도당따위의 아세아의 괴뢰들을 긁어모아 새로운 아세아 《반공》 군사동맹을 조작하려는 흉계를 남김없이 드러내놓았다. 사또정부는 이를 적극 받아물고 남조선이 《일본자체의 안전에 불가결한것》이며 대만도 《일본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남부윁남도 일본의 《안전》에 관계된다고 하면서 미제와 더불어 감히 조선인민, 중국인민, 윁남인민을 적대시하고 그의 령토완정을 오만무례하게 침해하고있으며 아세아의 전반적지역에서 정세를 극도로 첨예화시키고 있다.

사또정부는 일본국회에서 조선에서 전쟁이 또다시 일어나는 경우 일본은 그것을 《강건너 불보듯할수 없》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선제공격》도 생각해야 한다 (도꾜 1970년 2월 24일발 일본 《지지》 통신)고 떠벌이였다.

그들은 《거류민보호》라는 상투적인 침략구실밑에 일본군대를 남조선에 출동시킬데 대해서까지도 공언하였다. (도꾜 1970년 3월 3일발 《데페아》 통신)

이러한 사실들은 《한일협정》 체결이후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남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침투를 강화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이제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에 끼여들어 조선에 대한 군사적침략을 직접 감행하려는데까지 이르렀다는것을 보여준다.

모든 징조로 보아 조선인민이 고도로 혁명적경각성을 높이지 않고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추지 않는다면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여 임의의 시각에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할수 있다는것은 명백하다.

정세는 매우 긴장하며 조선에서는 미제에 의하여 전쟁이 래일 일어날지 모레 일어날지 모를 위험한 상태에 있다.

오늘 조선에서의 평화는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의 최대의 참을성과 완강한 투쟁 그리고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투쟁에 의해서만 유지되고있다.

※ ※

력사적사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미제국주의자들은 해방의 기쁨에 싸여있던 우리 조선인민에게 분렬의 비극을 가져다주었으며 통일을 갈망하는 우리 민족에게 동족상쟁의 류혈적참화를 들씌웠으며 자주적발전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에게 식민지적예속을 강요하였으며 오늘 또다시 조선인민에게 새 전쟁의 참화를 들씌우려고 발악하고있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이며 침략자이다.

오늘 조선에서 정세가 극도로 첨예화되고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다시 터질수 있는 위험이 조성된것은 전적으로 미제국주의자들이 자기 나라로부터 수만리나 떨어진 조선에 와서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침략과 전쟁 정책을 강화하고있는 결과이다.

조선에서 전쟁의 근원은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그들의 침략정책에 있으며 따라서 조선에서 전면전쟁이 터지는가 안터지는가 하는것도 전적으로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달려있다.

오늘 조선에서 전쟁을 막으려면 무엇보다도 이런 전쟁의 불집을 뽑아내

야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도발책동을 당장 그만두고 저들의 침략군대와 살인무기를 걷어가지고 지체없이 남조선에서 물러가야 한다.

이것이 조선에서 새로운 전면전쟁이 일어나는것을 막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온갖 착취와 압박을 모르는 국가사회제도의 본질에서부터 출발하여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을 반대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자기의 대외정책의 기본으로 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서 물러간 다음 남북조선간에 상대방을 서로 침범하지 않을것을 서약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남북조선의 군대를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이는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 바로 이렇게 하는것은 조선에서 공고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는것은 조선의 평화적통일문제를 해결하는 선결조건으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킨 다음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 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선의 통일을 실현할것을 일관하게 주장하여왔으며 지금도 이렇게 주장한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적인 중앙정부를 세우도록 할것을 여전히 주장하고있으며 완전한 통일에 앞서 필요하다면 현재와 같은 남북의 각이한 사회제도를 그냥 두고서 과도적조치로서 남북조선련방제를 실시할 용의를 가지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남북간의 통상과 경제적협조, 과학, 문화, 예술, 체육 분야의 호상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며 남북간의 편지거래와 인사래왕을 실현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각 정당, 사회단체들과 전체 인민적성격을 가진자들로서 남북협상을 진행할것을 주장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유엔이 그 헌장에 위반되게 미제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조작된 《조선문제》에 관한 모든 비법적 《결의》들을 취소하고 《유엔군》의 간판밑에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며 미제의 침략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당장 해체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 외국군대가 있을 필요가 없으며 유엔이든 무엇이든 외부세력이 이에 간섭할 근거가 없다. 조선인민은 자기의 내정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슬기롭고 문명한 민족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조정하는데 필요하다면 유관국가들의 국제회의를 소집할수도 있다는것을 거듭 천명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이상과 같이 조선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죄행을 폭로하고 나라의 통일문제에 대한 자기의 일관된 원칙적립장을 밝히면서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 국가들과 인민들이 이에 심중한 주의를 돌리며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견결히 규탄하고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이 지체없이 물러갈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더욱 널리 힘차게 벌릴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미제국주의는 전세계 인민들의 가장 흉악한 공동의 원수이며 첫째가는 투쟁대상이다.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평화를 수호할수 없으며 민족적 해방과 독립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승리도 이룩할수 없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철거시키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은 전세계적규모에서 벌어지고있는 반제반미투쟁의 한고리이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위한 정의의 투쟁이다.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나라들과 단결하며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과 단결하며 특히 아세아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아세아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 지역의 모든 혁명적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투쟁할것이다.

아세아의 여러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이 공동전선을 펴고 미제에 집단적으로 달라붙어 타격을 가한다면 능히 그를 때려눕힐수 있으며 반제공동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을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조선에서 공고한 평화를 유지하며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자기의 공명정대한 주장과 립장이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귀중히 여기는 세계의 모든 나라 정부들과 인민들의 전적인 지지와 동정을 받으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1970년 6월 22일
평 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비망록

(유엔총회 제25차회의에서 또다시 《조선문제》의 비법적토의를 강요하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의 흉계와 지난 24년동안 미제가 유엔을 침략도구로 악용하여온 죄상을 폭로하여)

유엔총회 제25차회의를 앞두고 사회주의나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의 민족적독립국가들은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과 기타 모든 외국군대들을 철거시킬데 대한》 문제와 미제의 침략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할데 대한》 문제를 이번 유엔총회에서 토의할것을 제기하였다.

1970년 8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사회주의나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평화애호국가들의 이러한 제기를 전적으로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바로 유엔의 간판을 도용하여 남조선을 강점하고 침략과 새 전쟁 도발책동을 날로 미친듯이 강화하고있는 조건에서 더욱더

많은 나라들이 이때까지 유엔에서 미제에 의하여 강압조작된 《조선문제》에 관한 모든 비법적 《결의》들을 패기하고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할것을 주장하여나서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저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가리우기 위하여 이른바 《유엔군》과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란것을 꾸며낸것은 전적으로 유엔헌장에 위반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유엔군》의 간판을 단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과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비법성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폭로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 1

유엔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목적으로 창건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유엔이 창립된후 일관하게 그 헌장을 짓밟고 유엔을 자기의 침략도구로 리용하여왔다.

미제는 1947년 유엔총회 제2차회의때부터 비법적으로 《조선문제》를 유엔에 상정시키고 저들의 침략행위를 가리우기 위한 수많은 《결의》들을 날조하여냈다. 바로 이것을 방패로 하여 미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고 분렬을 심화시켰으며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침략과 전쟁 책동을 제멋대로 감행하여왔다.

그리하여 미제는 줄곧 유엔의 권위와 위신을 심히 훼손시켜왔다.

무엇보다도 미제국주의자들은 유엔을 조선전쟁의 교전일방으로 전락시켰다. 오늘도 미제국주의자들은 유엔의 기발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새 전쟁 도발책동을 미친듯이 감행하고 있으며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극도로 첨예화시키고 아세아의 전반적평화를 엄중히 위협하고있다. 이러한 사실들이 유엔의 원칙 및 목적과 전적으로 배치된다는것은 더 설명할것도 없다.

원래 유엔은 조선문제에 간섭할것이 아니였다.

유엔헌장 107조는 제2차대전의 결과에 취하여진 전후조정문제들은 유엔에서 토의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것을 규정하고있다. 미제는 이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얼토당토않게 조선문제를 유엔의 토의에 끌고갔다.

또한 유엔헌장 제2조 7항은 《…임의의 국가의 국내관할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간섭할 권한을 유엔에 부여하지 않》는다는것을 엄연히 규정하고있다. 미제는 이 규정을 횡포하게 짓밟고 전적으로 조선인민의 내정에 속하는 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에 상정시켜 토의를 강요하여왔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문제》를 억지로 유엔에 끌고간 그 자체가 유엔헌장을 위반한것일뿐아니라 그가 조작하여낸 모든 《결의》들도 례외없이 유엔의 원칙에 전적으로 어긋나는것이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유엔총회 제2차회의에서 《조선문제》의 토의를 강요하는 첫출발부터 조선인민의 대표는 참가시키지도않고 제멋대로 조선에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을 파견하며 《유엔감시하의 선거》를 실시할데 대한 《결의안》을 강압통과시켰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 범죄적행위가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반대에 부딪치게 되자 부랴부랴 《유엔소총회》란 것을 발동하여 자기들의 침략군대가 강점하고있는 남조선에서만 단독《선거》를 실시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며 조선의 임시적분렬을 고정시키기위한 《결정》을 꾸며냈다. 《유엔소총회》란 존재자체가 유엔헌장에 전적으로 위반되게 미제에 의하여 조작된 비법적기구였으며 애당초 이러한 《결정》을 채택할 아무런권능도 가지고있지 못하였다는것은 이미 력사적으로 완전히 실증된 사실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 비법적인 《유엔소총회》의 《결정》에 빙자하여 1948년 5월 남조선에서 이른바 《유엔감시하의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이것이야말로 또한 선거가 아니라 미제의 총칼에 의한 야수적폭압속에서 《선거》를 가장한 하나의 협잡기만극에 지나지 않았다. 미제는 이 살인적인 기만극을 통하여 리승만괴뢰단독정권을 조작하였으며 이 괴뢰정권을 《유일한 합법적정부》로 《인정》 한다느니 뭐니 하는 유엔의 《결의》를 조작해냈다.

본래 유엔은 그 어떤 《정권》의 합법성여부를 심의하거나 《승인》 하는 기구도 아니거니와 미제가 꾸며낸 이 《결의》의 수치스러운 기만적정체는 유엔의 《승인》을 받은 《유일한 합법적정부》이며 《대의제정부》라고 하던 리승만괴뢰정권이 남조선인민들의 영웅적봉기에 의하여 타도되였을때 더욱 남김없이 온 세상앞에 드러났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이 엄연한 력사적사실을 감출수 없다.

미제가 1950년 6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한후 유엔을 저들의 침략전쟁의 도구로 리용하기 위하여 감행한 악랄한 책동은 유엔헌장과 그의 목적에 대한 더욱 란폭한 위반행위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하자 곧 미리 계획하였던대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소집하고 흑백을 완전히 뒤집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침략자》로 꾸며내고 저들의 무력침공을 《유엔경찰행동》으로 묘사하는 황당무계한 《결의》를 날조해냈다.

그러나 미제가 빚어낸 이 《결의》 야말로 유엔헌장에 규정된 온갖 해당 조항들과 초보적인 절차 규정마저도 철저히 짓밟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의 토의진행과 결의안채택에 필요한 어느 한 요건도 갖추지 않은 완전히 비법적인 것이였다.

그것은 38선상에서의 전쟁발발에 관한 그 어떤 확인된 자료나 조사사업도 없이 오직 미제의 침략도구인 이른바 《유엔조선위원단》이란것이 미제가 지시하는대로 서울에서 날조하여 보낸 한장의 전보를 기초로 하여 제멋대로 조작되였다. 그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의 참가없이 조작되였다. 더우기 그것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의 결의안 채택의 절대적요건인 5개 상임리사국일치가결원칙마저도 다 저버리고 조작되였다. 그리하여 유엔헌장 제5장, 제6장, 제7장의 해당한 중요 조항들을 모두 파괴유린하였다.

미제는 마치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조선에 대한 무장간섭을 개시한것처럼 떠벌이였으나 사실은 그에 앞서 이미 대대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하고있었다는 사실에서도 그들이 꾸며낸 《결의》의 비법성은 그대로 드러났다. (미제가 조선에서 대대적인 무력침략을 개시하고 이 침략행위의 정체를 가리우기 위하여 유엔의 기발을 도용한 범죄적책동의 구체적내막에 대해서는 1970년 6월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비망록을 참고할것)

모든 사실은 오늘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유엔군》이란 가짜이며 그것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사명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미제국주의침략군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똑똑히 실증하고있다.

이른바 《유엔군》이라는것이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허울좋은 간판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은 《유엔군》이 조작된 이래 유엔이 이 군대의 활동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 토의를 하여본적이 없을뿐만아니라 이 군대에 대한 어떠한 통제권도 전혀 가지고있지 않다는

사실에서도 똑똑히 확증되고있다.

《유엔군사령관》의 임명 및 해임이나 《유엔군》 유지비의 지출 같은것도 모두 유엔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오직 미제에 의하여 좌지우지되고있다.

조선전쟁시기 이른바 《유엔군사령관》으로 행세한 맥아더까지도 《나와 유엔과의 관계는 전혀 명목적인것에 불과하였다.…

요컨대 무슨 형식을 취하건 나는 유엔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1951년 미국상원에서 한 맥아더의 증언)고 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였다.

《유엔군》의 간판을 뒤고나선 미제침략자들이 얼마나 유엔의 기발을 유엔의 목적과 완전히 어긋나게 저들의 침략행동을 가리우는 한낱 값싼 통락물로 삼고있는가하는것은 남부윁남침략전쟁터에 남조선괴뢰군을 끌어갈 때에 그들로 하여금 감히 유엔의 기발을 앞세우고 가게 한 사실에서도 남김없이 드러났다.

오늘도 미제국주의자들은 유엔헌장에 배치되게 제멋대로 조작해낸 《조선문제》에 관한 유엔의 《결의》들에 빙자하여 남조선강점을 합법화하려고 필사적으로 책동하고있다. 그러나 조선에서 정전이 실현된지 열일곱해가 지나간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미제침략자들이 유엔의 기발을 휘두르며 남조선에서 물러가지 않고있는 사실자체가 벌써 가소로운 일이며 유엔의 권위와 위신을 더욱 떨어뜨리는 행동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이 실시하고있는 군사파쑈독재정책은 식민지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파쑈통치의 전형으로 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의 모든 지배권을 틀어쥐고 남조선인민들에게 인종차별과 민족적멸시를 가하면서 그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마저 말살하고있으며 조국의 평화적통일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사소한 지향도 가혹하게 탄압하며 남조선인민들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다 들씌우고있다.

력사적사실은 유엔의 기발밑에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조선인민을 반대하여 감행하고있는 침략정책이야말로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가로막고있는 기본장애이며 조선민족이 겪고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조선에서 긴장상태와 새 전쟁 위험을 끊임없이 조성하는 항시적근원이라는것을 힘있게 고발하고있다.

유엔은 그의 헌장의 원칙에 비추어보나 미제의 조선침략에 그의 기발을 도용당하고있는 사실에 비추어보나 마땅히 미제가 이때까지 유엔에 강요한 《조선문제》에 관한 모든 비법적 《결의》들을 페기하고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것이다.

## 2

유엔을 조선에 대한 침략의 도구로 리용하는데 있어서 미제국주의자들이 의거하고있는 주되는 방패의 하나가 다름아닌《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다.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은 그가 조작된이래 미제와 그 앞잡이 남조선괴뢰도당의 범죄적책동을 가리우고 미화분식하기 위하여 허위와 날조, 기만과 협잡 등 갖은 수치스러운 행위를 다하여왔다.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 미제의 충실한 사환군으로서 유엔의 원칙을 위반하고 유엔의 이름을 더럽히면서 얼마나 뻔뻔스러운 사기와 협잡놀음을 일삼아왔는가 하는것은 그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엔에 내놓은 그 수많은 《년례보고》의 기록들을 력사적사실들과 대비해보기만 하여도 그대로 남김없이 드러난다.

례컨대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은 그의 《년례보고》에서 미제가 총칼의 억압밑에 조작한 리승만괴뢰정권을 줄곧 《대단히 모범적》인 《대의제정부》라고 찬양하여왔다. 그러나 이 괴뢰정권이 어떤 비참한 종말을 고하였는가 하는것은 온 세계가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이른바 《대의제정부》라던 리승만괴뢰정권이 남조선인민들의 쌓이고쌓인 분노의 폭발에 의하여 꺼꾸러지고말았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여주는가. 그것은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 《년례보고》에서 떠벌인 모든것이 새빨간 거짓말이였다는것을 그대로 실증하여주는것이다.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은 이처럼 그의 수치스러운 정체가 남김없이 폭로되였으나 뻔뻔스럽게도 물러가지 않고 사기협잡놀음을 계속하였다.

이 협잡군들의 집단은 미제가 리승만괴뢰정권을 날조하던것과 꼭같은 수법으로 장면괴뢰정권을 조작해내자 이 《정권》이야말로 《대단히 만족스러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의하여 수립된 《대의제정부》라고 다시금 떠들었다.

그런데 미제는 이 새로운 괴뢰정권으로써도 날로 높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억누를수 없게 되자 얼마안가서 그를 박정희괴뢰도당의 로골적인 군사파쑈독재정권으로 갈아채웠다.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은 저들이 입을 모아 찬양하여마지않던 그 괴뢰정권을 뒤어치운 군사파쑈정권을 또한 유엔의 목적에 부합되게 《진정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것이라고 찬양하여나섰다. 이것은 딸라에 매수된 이 협잡군들의 파렴치성이 어느 정도에 이르고있는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주는것이다.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은 바로 이와 같은 수법으로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이 총검의 폭압밑에 조작한 모든 부정협잡선거를 《자유로운 공정한 선거》로 묘사하였으며 미제상전이 감행하는 어떤 흉악한 침략책동도 모두 유엔의 목적에 부합되는것으로 꾸며냈다. 그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방어》를 위한것이라고 하며 남조선에서 실시하고있는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보호》와 《원조》라고 한다.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은 심지어 미국정부가 저들이 감행한 군사적도발과 침략책동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앞에 거듭 여러건의 사죄문을 낸데 대해서까지도 모르는척하면서 있지도 않는 《북으로부터의 침략위협》에 대하여서만 떠들어대고있다. 그들은 남조선에서 민족경제가 파탄되고 인민들이 기아와 빈궁 속에서 허덕이는데도 남조선경제가 《성장》하고 《번영》하는것처럼 떠벌이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처럼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찬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보고》에 기초하여 해마다 《조선문제》를 토의할것을 유엔에 강요함으로써 스무해가 넘는 긴 세월을 두고 조선통일문제의 해결을 방해하며 유엔의 권위와 위신을 떨어뜨려왔다.

올해에도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은 이른바 《보고》라는것을 유엔에 제출하였다. 이것은 상례에 따라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저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가리우기 위하여 꾸며낸 가지각색의 허위날조와 중상비방을 그대로 되뇌인 철두철미 기만적인 허위문건이다.

유엔은 유엔자체에 대한 기만과 모독으로 가득찬 이 허위보고에 근거한 이른바 《조선문제》의 토의를 그만두어야한다.

력사적으로 확증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추악한 사명에 더는 가담하기를 원치 않는 파키스탄정부는 이 《위원단》의 모든 사업에 참가하지 않는다는것을 선포하였으며 이미 몇년째 그렇게 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파키스탄정부가 취한 이 조치를 지지한다.

칠레정부도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수치스러운 사업에 더는 참가하지 않겠다는 의향을 이미 한때 표명한바 있었다.

유엔은 그의 헌장에 전적으로 위반되게 미제에 의하여 조작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마땅히 하루빨리 해체하여야 할것이다.

악명을 떨칠대로 떨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은 구경 무너질 운명에 있으며 어떠한 힘도 그의 붕괴과정을 가로막지 못할것이다.

## 3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며 미제의 침략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는것은 조선에서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조선통일문제의 평화적해결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선결조건이다.

사실상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머물러있을 그 어떤 근거와 리유도 없다.

원래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그곳을 식민지군사기지화한것은 전적으로 비법적이다.

미제가 유엔의 이름밑에 서명한 조선정전협정에 의하더라도 정전후 모든 외국군대는 조선에서 완전히 철거하게 되여있다.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중국인민지원군이 이미 오래전에 주동적으로 완전히 철거하였으며 오늘 북반부에는 어떠한 외국군대도 없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물러가지 않고 남조선에 6만여명의 침략군을 계속 두고있을뿐만아니라 더욱더 새로운 침략무력을 증강하며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군사적도발행위를 끊임없이 격화시키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남조선강점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이른바 《북으로부터의 침략위협》에 대하여 떠벌이고 있다.

그러나 《북으로부터의 공산주의위협》 이란 애당초 있지도 않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남진할 의도가 없으며 조선의 통일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할 의사가 없다는데 대하여 한두번만 천명하지 않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시종일관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그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그의 실현을 위하여 온갖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현되지 못한것은 전적으로 미제와 그 앞잡이 남조선괴뢰도당의 필사적인 방해책동때문이다.

오늘 온 세계의 공정한 여론은 한결같이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규탄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정당한 립장과 투쟁을 날로 더욱 적극 지지하여나서고있다.

이것은 지난 6~7월에 걸쳐 진행된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만 하여도 세계의 더욱더 많은 나라 인민들이 일찌기 없던 광범한 규모에서 군중집회와 시위 등 미제의 침략과 새 전쟁 도발책동을 신랄히 폭로규탄하며 조선인민을 지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과 행사들을 벌린 사실이 그대로 말하여주고있다.

온세계 인민들로부터 더욱더 고립되고 궁지에 빠진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범죄적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교활한 모략책동의 한고리로서 최근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이른바 《감축》설을 퍼뜨리며 남조선괴뢰도당으로 하여금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서 물러가지 말아달라고 하는 연극을 꾸미게 하고있다.

이와 함께 박정희괴뢰도당으로 하여금 그 무슨 《평화통일구상》이라는것을 떠벌이게 하고있다.

미제는 이러한 소동을 통하여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한사코 가로막고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침략과 새 전쟁 도발책동에 날뛰고있는 저들의 범죄적정체를 어떻게 하나 가리우고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의 철거를 요구하는 미국인민을 포함한 세계인민의 여론을 무마하며 마치도 박정희괴뢰도당의 요청에 이기지못하여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 계속 머물러 있는듯이 사태를 꾸며 보이려 하고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기만책동은 누구도 속일수 없다.

미제가 이러한 소동을 벌려놓고있는 자체가 벌써 박정희도당이야말로 남조선인민들로부터 철저히 고립되여 미제의 총검의 비호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수 없는 미제의 충실한 앞잡이며 괴뢰이라는것을 스스로 폭로하여준다.

또한 《승공통일》을 《국시》라고 하면서 남조선인민들이 평화통일이란 말만 하여도 마구 체포, 투옥, 학살해오던 극악한 살인도당인 박정희괴뢰도당으로 하여금 갑자기 《평화통일구상》 이니 뭐니하는 소리를 입밖에 내게 한것은 미제와 남조선괴뢰정권이 얼마나 궁지에 빠져있는가 하는것을 그대로 실증하여 주는것이다.

사실상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기만적소동의 막뒤에서 더욱더 많은 저들의 침략무력을 남조선에 집중시키며 남조선괴뢰군장비의 현대화를 다그치며 일본침략군대를 직접 남조선에 끌어 들이려고 꾀하는 등 새 전쟁도발책동을 더욱 미친듯이 추진시키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남조선에 미제침략군과 평화통일이란 말만 하여도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학살하고있는 현남조선괴뢰통치배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조선의 평화적통일이란 생각할수 없다는것은 누구에게나 극히 명백하다.

그러므로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먼저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서 물러가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킨 다음 남북조선간에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을것을 서약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의 병력을 크게 줄이며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적인 중앙정부를 세울것을 언제나 주장하고있다.

조선이 통일된후 우리 나라에 어떤 한 사회제도를 수립하는가 하는것은 응당히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남조선당국이 남조선이 다 공산주의화될가 두려워서 아직은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면 현재와 같은 남북의 각이한 사회제도를 그냥 두고서 과도적조치로서 남북조선련방제를 실시할것을 주장하고있다. 또한 남북간의 통상과 경제적협조, 과학,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서의 호상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며 남북간의 편지거래와 인사래왕을 실현할것을 주장하고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각 정당, 사회단체들과 전체 인민적성격을 가진자들로써 남북협상을 진행할것을 주장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이 평화통일방안은 전체 남북조선인민들과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나라 정부들과 인민들의 절대적인 환영과 지지를 받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만약 유엔이 진정으로 그의 헌장에 규정된 원칙과 목적에 부합되게 행동하려면 이상과 같은 엄연한 사실들에 마땅히 신중한 주의를 돌리고 지난날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조선문제》에 관한 모든 비법적《결의》들을 폐기하여야하며 지체없이 남조선에서 《유엔군》의 간판을 가진 미제침략군을 비롯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유엔한

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것을 다시금 강력히 주장한다. 이와 함께 유엔총회에서 조선에 관한 문제가 토의될 때에는 무조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를 참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는것을 견결히 주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자기의 이 공명정대한 주장과 립장이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귀중히 여기는 세계의 모든 나라 정부들과 인민들의 진지한 지지와 동정을 받으리라는 확신을 거듭 표명한다.

1970년 9월 16일

평 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성명

(미제국주의자들이 라오스에서 전쟁을 계단식으로 강화하면서 월남침략전쟁의 불길을 인도지나반도전역에 확대하려고 더욱 미친듯이 날뛰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요즘 미제국주의자들은 라오스에서 전쟁을 계단식으로 강화하면서 월남침략전쟁의 불길을 인도지나반도전역에 확대하려고 더욱 미친듯이 날뛰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1962년 라오스에 관한 제네바협정을 란폭하게 짓밟고 《비—52》형폭격기로써 자르평원—히엥쾅을 비롯한 라오스해방지역에 대한 야수적인 폭격을 매일과 같이 감행하여 수많은 주민들을 살해하고있다.

미제의 이와 같은 폭격만행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우심해지고있다.

라오스에서 감행하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의 악랄한 범죄행위는 전체 라오스인민은 물론 아세아와 세계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라오스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강도적침략행위와 폭격만행을 준엄히 단죄하며 미제의 범죄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원쑤들과 끝까지 싸워이기려는 라오스인민의 굳은 결의를 표명한 1970년 2월 20일부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의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지금 《라오스에서 지상전투에 종사하는 미군을 가지고있지 않다》느니, 라오스에 대한 《폭격목적이 남부월남에 있는 미군의 진지를 보호하기 위한것》이라느니 하고 뻔뻔스럽게 떠벌이면서 라오스인민을 반대하여 감행하고있는 저들의 침략행위를 가리우며 세계여론을 기만해 보려고 어리석게 시도하고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떠한 교활한 술책으로써도 라오스해방지역에 대하여 끊임없는 폭격만행을 감행하는것과 함께 라오스에 《비밀군사기지》를 두고 수많은 《미군특수부대》를 파견하여 군사작전에 직접 참가시키고있는 엄연한 범죄사실을 결코 가리울수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최근에 와서 라오스에 대한 폭격을 더욱 강화하고있는것은 라오스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말살하며 월남침략전쟁의 《월남화》계획의 실패를 어떻게나 막아보려는데 있다.

미제는 침략전쟁을 확대하면서 아무리 발악하여도 영웅적라오스인민을 굴복시킬수 없으며 저들의 추악한 침략적목적을 이룩할수 없다.

라오스애국전선의 령도밑에 손에 무장을 튼튼히 틀어쥐고 반미구국투쟁을 세차게 벌리고있는 라오스 애국군대와 인민들은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에게 련속적인 공격을 들이대여 심대한 군사정치적패배를 주고있으며 빛나는 승리를 거두고있다.

라오스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은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며 인도지나와 동남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의의 투쟁이다.

조선인민은 지난날과 같이 앞으로도 미제와 그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고 있는 라오스인민의 편에 튼튼히 서서 그들의 정당한 투쟁에 계속 적극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표시할것이다.

라오스의 주인은 라오스인민이며 라오스문제는 그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라오스인민자신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라오스에 관한 1962년 제네바협정을 엄격히 지키고 라오스해방지역에 대한 야수적폭격과 모든 침략행위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전세계 평화애호 인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라오스에서 침략전쟁을 계속 확대하는 부모한 길로 나간다면 그들은 더욱더 헤여날수 없는 멸망의 구렁텅이에 깊이 빠질것이다.

라오스애국전선의 두리에 굳게 뭉친 라오스인민은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때려부시고 평화롭고 독립된 중립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번영하는 라오스를 건설하기 위한 정의의 위업에서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하고야말것이다.

1970년 3월 3일

평 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성명

(미제와 그 주구 반혁명고용병악당들이 꾸바공화국의 령해를 침범하여 정상적인 어로작업을 하던 2척의 꾸바어선을 공격하여 그를 침몰시키고 선원11명을 랍치해가는 날강도적인 해적행위를 감행한것을 규탄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꾸바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책동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날로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다.

최근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 반혁명고용병악당들은 꾸바공화국의 령해를 침범하여 정상적인 어로작업을 하고있던 2척의 꾸바어선들에 무장공격을 가함으로써 그 배들을 침몰시키고 선원 11명을 랍치해가는 날강도적 해적행위를 감행하였다.

이것은 꾸바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의 또하나의 공공연한 침략행위이며 꾸바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이다.

조선인민은 꾸바인민을 반대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거듭되는 침략행위를 치솟는 격분으로 준렬히 단죄한다.

지난 5월 13일 피델 까스뜨로수상은 꾸바어선에 대한 미제와 반혁명고용병악당들의 해적행위를 규탄하여 공보를 발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피델 까스뜨로수상의 이 공보에서 천명된 꾸바공화국 혁명정부와 꾸바인민의 확고한 립장과 정당한 요구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그에 굳은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한다.

꾸바의 령해를 침범하여 어선들에 무장공격을 가하고 선원들을 랍치해간 미제국주의자들의 범죄적행동은 꾸바공화국을 반대하는 그들의 계획적인 책동의 한고리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꾸바혁명이 승리한 첫날부터 그리고 그 위력이 강화될수록 꾸바공화국을 교살하고 꾸바혁명의 전취물을 파괴하기 위한 무장침략과 경제봉쇄, 그밖의 온갖 파괴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일삼아왔다.

얼마전에도 미제국주의자들은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사탕 1천만톤생산을 위한 꾸바인민의 투쟁을 교란파탄시키기 위하여 무장악당들을 꾸바에 침입시켰으며 앞으로도 계속 침략과 파괴책동을 감행할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벌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미제야말로 꾸바인민의 흉악한 원수이며 꾸바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도적침략자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오늘 꾸바인민은 꾸바공산당과 혁명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키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일떠서 용감히 싸우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떠한 책동으로써도 꾸바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것이며 영웅적꾸바인민의 정당한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조선인민은 꾸바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을 자신에 대한 침략으로 여기며 언제나 공동의 원수를 반대하는 형제적꾸바인민의 편에 튼튼히 서서 그들을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이 꾸바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책동을 당장 중지하여야 하며 랍치한 꾸바의 선원들을 무조건 꾸바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랍치한 꾸바선원들을 계속 억류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

만약 미제국주의자들이 꾸바선원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꾸바인민을 반대하는 침략과 파괴 책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그들은 전세계 인민들로부터 강도적침략자로서 더욱 준엄한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며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게 될것이다.

1970년 5월 19일
평 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성명

(일본 사또정부가 재일 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짓밟고 그들에 대한 비법적인 탄압과 박해를 로골화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더욱 강화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최근 일본 사또정부는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짓밟고 그들에 대한 비법적인 탄압과 박해를 로골화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탄압을 일상적으로 감행하고있는 일본당국은 5월 14일 도꾜에 있는 조선대학교 교직원들에게 또하나의 엄중한 도발적폭행을 감행하였다.

이날 도꾜경시청관하 고다이라경찰당국은 이른바 《국제승공련합》의 파쑈깡패무리들을 사촉하여 조선대학교에 달려들어 란동을 부리게 한데 뒤이어 경찰기동대 50여명을 몰고와서 대학교 교직원들에게 경찰곤봉으로 마구 폭행을 가하였으며 이 대학교 교원 남승우를 체포해가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조선대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이 비렬하고도 악랄한 폭행은 60만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전이며 국제법과 기본인권에 대한 란폭한

유린행위이다.

이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여 일본 사또정부가 체계적으로 강화하고있는 적대시정책의 단적인 표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일본 사또정부의 이러한 범죄적책동을 치솟는 격분으로 단호히 규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당한 해외공민들인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보장하는것은 일본정부가 지니고있는 회피할수 없는 법적 및 도의적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재일조선공민들에게 상시적으로 민족적차별을 가하며 폭압기구와 우익파쑈테로분자들을 동원하여 탄압하고 야만적으로 살해하며 일상생활에까지 커다란 위협을 주고있으며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실시를 방해하기 위하여 갖은 책동을 다하고있다.

조선대학교에 대한 도발사건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67년 10월에도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완전무장을 갖춘 수십명의 일본륙상 《자위대》를 동원하여 조선대학교 건물과 직원들을 과녁삼아 군사연습을 하는 횡포한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이밖에 일본에 있는 조선인학교들에 대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상습적으로 습격, 파괴, 방화하며 조선인 교원들과 학생들을 살상, 체포, 구금하는 만행들을 저지른것은 헤아릴수없이많다.

이러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만행은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유린하며 국내에서 군국주의적파쑈화를 촉진시키려는 책동의 한고리이다.

지금 일본사또정부는 또한 치욕스러운 남조선괴뢰군살이를 벗어던지고 삶길을 찾아 공화국북반부로 오기 위하여 일본으로 건너간 전남조선 괴뢰군 병사 정훈상청년을 체포하여 1년이 가까와오도록 감금하고있을뿐만아니라 범죄적인 《재판》을 벌려놓고 그를 죽음만이 기다리고있는 남조선에로 떠넘기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정훈상청년이 저주러운 남조선괴뢰군살이를 박차고 미제의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생지옥으로 된 남조선을 뛰쳐나와 공화국북반부에 와서 행복한 삶을 찾으려는것은 그 누구도 막을수 없는 그의 당당한 권리이다.

일본당국이 《재판》이니 뭐니 하면서 정훈상청년을 다시 박정희살인악당들에게 넘겨주려고하는것은 도저히 묵과할수 없는 비인도적인 범죄행위이다.

일본 사또정부가 공화국의 품에 안기려는 정훈상청년을 오래동안 감방에 쓸어넣고 박해를 가한 끝에 그를 남조선괴뢰들에게 넘겨주려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적대시하며 남조선괴뢰도당과의 정치적결탁을 강화하기 위한데서부터 출발한것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지난해 11월 닉슨—사또회담이 있은 이후 미제의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 앞장에 나서기 위하여 국내에서 파쑈화를 다그치며 남조선괴뢰들과 군사정치적결탁을 강화하고 남조선재침의 길을 확대하기 위하여 날로 더욱 무모하게 날뛰고있다.

조선인민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와 공모결탁하여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탄압책동을 강화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로골화하고있는것을 결코 용허하지 않을것이다.

일본 사또정부는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온갖 박해와 탄압 책동을 당장 걷어치우고 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무조건 전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조선대학교 교직원들에게 폭행을 가한 고다이라경찰당국자들을 엄벌에 처하며 다시는 그러한 도발행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즉시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일본당국은 정훈상청년에 대한 범죄적인 《재판》 놀음을 당장 그만두고 국제법과 인도주의원칙에 따라 그의 희망대로 공화국북반부에로 무조건 귀국시켜야 한다.

만일 일본 사또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거듭되는 경고와 정당한 주장을 무시하고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강화하며 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말살하려는 책동을 계속한다면 그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며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1970년 5월 23일

평 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성명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민족적박해와 야만적인 탄압을 더욱 발악적으로 강화하고있는것을 단호히 규탄하여)

최근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민족적박해와 야만적인 탄압을 더욱 발악적으로 강화하고있다.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짓밟는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얼마전에도 성명을 발표하여 일본당국이 이러한 온갖 범죄적행동들을 당장 중지하고 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것을 강력히 주장한바 있다.

또한 5월 26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도 재일조선학생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폭행이 잇달아 일어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당국이 지금까지 재일조선공민들을 법적으로 보호할데 대한 아무런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뿐아니라 오히려 배후에서 폭력배들을 사촉하여 재일조선학생들에 대한 폭행만행을 계통적으로 조장시키고있는 사실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규탄하였다.

재일조선공민들의 합법적인 권익옹호단체로서 총련이 일본당국의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단호히 항의하고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보장할것을 강력히 요구한것은 전적으로 정당하며 응당한것이다.

그러나 일본당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총련의 거듭되는 정당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재일조선학생들에 대한 범죄적인 폭행만행을 멈추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뿐아니라 도리여 더욱더 격화시키고있다.

지난 5월 29일 도꾜에서는 일본불량학생 약 30명이 도꾜조선제1초중급학교 중급부 3학년 변광룡을 비롯한 조선학생 3명에게 달려들어 마구 뭇매를 가하였으며 그가운데 한명을 중태에 빠뜨린 사건이 또 일어났다.

5월 26일부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성명에 이미 낱낱이 지적된바와 같이 5월 25일에도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사촉밑에 도꾜고꾸시깡고등학교의 일본불량학생 20여명은 도꾜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손리언을 비롯한 7명의 학생들에게 달려들어 집단적인 폭행을 감행하였으며 5월 23일에는 도꾜고꾸시깡고등학교 일본불량학생 8명이 도꾜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김려철학생에게 집단폭행을 가하였다.

5월 22일에는 일본의 불량학생 20여명이 도꾜조선중고급학교 학생 6명에게 마구 달려들어 뭇매질을 가하여 그중 김태일학생에게 심한 중상을 입히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조선학생들에 대한 이와 같은 폭행사건은 4월 초부터 5월말까지의 기간에만도 30건에 이르렀다.

이뿐아니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사촉밑에 일본의 불량학생들과 폭력배들은 조선학생들에게서 교복과 모자, 휘장, 단추 등을 빼앗아 그것으로 조선학생인것처럼 가장하고 선량한 일본학생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악랄한 책동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재일조선학생들에 대한 집단폭행사건을 잇달아 일으키며 재일조선공민들의 생활상 권리를 엄중히 위협하고있는것을 더욱 끓어오르는 민족적분노로써 단호히 규탄한다.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비렬하고도 악랄한 폭행 사건들은 60만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횡포한 도전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더욱 로골적인 적대시정책의 표현이다.

오늘 일본에서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탄압과 박해가 그 어느때보다도 로골화되고있는것은 일본에서 군국주의화와 파쑈화과정이 빨리 촉진되고 있는것과 밀접히 관련되여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나라의 군국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수단과 방편의 하나로서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민족적 멸시와 박해를 강화하고있으며 조선인민과 일본인민들 사이에 리간을 조성함으로써 일본인민들속에 민족배타주의를 고취하고 군국화사조를 북돋는데 이를 리용하려 하고있다.

일본 사또정부가 지난해 11월에 미일 《공동성명》이 발표된후 미제의 아세아침략정책에 적극 가담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더욱 로골화하며 남조선괴뢰도당과의 침략적결탁을 강화하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재일조선공민들을 갈수록 극심하게 박해하며 탄압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조선인민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과의 결탁밑에 재일조선학생들에 대한 폭행과 탄압 책동을 강화하고있는것을 결코 묵과할수 없다.

재일조선공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당한 해외공민이다.

일본 사또정부는 재일조선공민들을 보호하여야 할 법적 및 도의적 책임을 지니고있다.

오늘 일본의 광범한 언론계와 사회계에서도 일본에서 벌어지고있는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폭행과 만행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일본 사또정부가 재일조선학생들에 대한 폭행을 당장 중지시키며 집단폭행을 가한 범죄자들과 배후조정자들을 체포하여 엄벌에 처하며 더는 이러한 도발행위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지체없이 취하여야 한다는것을 다시금 강력히 주장한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악랄한 책동으로써도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족교육실시의 권리를 포함한 그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를 침해할수 없다.

만일 일본 사또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재일조선공민들의 거듭되는 경고와 일본의 광범한 인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파쑈적폭행과 탄압소동을 계속 벌린다면 그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후과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으며 세계여론의 강력한 규탄과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1970년 6월 5일
평 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성명

(캄보쟈의 귀중한 력사적유물들을 파괴략탈하려고 미쳐날뛰고있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죄행을 규탄하여)

지난 6월 23일 캄보쟈민족통일전선령도하의 왕국민족련합정부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인 남부월남, 타이, 론놀—시리크 마타크 괴뢰도당들이 캄보쟈의 력사적유물들을 파괴하려고 미쳐날뛰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그들의 죄행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이 성명에서 표시된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의 정당한 립장과 그의 요구조건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미제와 그 괴뢰도당들은 캄보쟈의 무고한 인민들을 마구 학살하고 캄보쟈의 재부와 문화유산들을 닥치는대로 파괴, 소각, 략탈하고있는 제놈들의 죄행을 가리우며 앞으로 이러한 야수적만행을 더욱 대규모적으로 감행하기 위한 구실을 꾸며낼 목적으로 요즘 캄보쟈민족해방군이 《앙코르사원내에 진지를 구축하고있다》느니 뭐니 하는 엉토당토않는 중상비방을 늘어놓고있다.

그러나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 성명에 지적되여있는바와 같이 캄보쟈민족해방군과 애국적인민들은 크메르인민의 신성한 유산을 보호하라는 캄보쟈국가원수이며 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의 명령에 따라 크메르인민의 세계적인 문화유산들 특히 앙코르사원을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략탈하거나 군사적목적에 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경계하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어떠한 뻔뻔스러운 허위선전으로써도 인류의 문명과 문화의 파괴자로서의 저들의 흉악한 정체를 결코 가리울수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무고한 인민들을 야만적으로 살륙하며 문화적재부를 략탈하고

파괴하며 불살라버리고있는 20세기의 야만이라는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바로 조선전쟁때에도 우리 나라의 유구한 력사적문화유산을 악랄하게 파괴하고 모든사원들을 불살라버린것은 다름아닌 미제국주의자들이다.

조선인민은 캄보쟈에 대한 강도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하여 나섰을뿐아니라 세계의 귀중한 문화적재부로 되고있는 캄보쟈의 이름높은 력사적유물들을 횡포하게 파괴하며 략탈하는 미제와 그 괴뢰도당들의 죄악을 단호히 규탄한다.

캄보쟈의 력사적유물들과 성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미제침략군과 그 괴뢰군들이 즉시 무조건 완전히 캄보쟈 땅에서 물러가야 하며 캄보쟈령토에 대한 모든 폭격과 포격이 당장 중지되여야 한다.

만약 미제국주의자들이 캄보쟈인민을 반대하는 강도적침략전쟁을 강화하면서 캄보쟈의 귀중한 력사적유물들을 계속 파괴하는 만행을 감행한다면 그들은 인류의 흉악한 원쑤로서 캄보쟈인민과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더욱 준엄한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1970년 6월 30일
평 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성명

(이른바 《미군철수》라는 기만적구호밑에 캄보쟈침략전쟁을 더욱 확대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규탄하여 발표한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1970년 6월 30일부 성명을 지지하여)

6월 30일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 친왕은 이른바 《미군철수》라는 기만적 구호밑에 캄보쟈침략전쟁을 더욱 확대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성명에서 미제의 음흉한 침략책동의 범죄적본질을 날카롭게 폭로하면서 미제국주의자들이 캄보쟈와 인도지나로부터 그의 침략군과 괴뢰들의 군대를 즉시 무조건적으로 완전히 철거시킬것과 야만적폭격을 무조건 중지할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만약 미제국주의자들이 이렇게 하지않는다면 캄보쟈와 전체 인도지나 인민들은 원쑤를 완전히 격멸하고 종국적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견결히 싸워나갈것이라는 확고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성명에서 표명된 원칙적립장과 정당한 주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캄보쟈인민의 반미구국투쟁에 굳은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한다는것을 다시금 천명한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한편으로는 캄보쟈인민을 반대하여 강도적침략전쟁을 감행한 저들의 죄행을 가리우며 다른 한편으로는 캄보쟈에 대한 무력침략으로 하여 빠져들어간 궁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미군철수》라는 기만적책동을 벌려놓고 그 막뒤에서 침략전쟁을 더욱 확대하려하고있다.

6월 30일 미제의 전쟁두목 닉슨은 이른바 《캄보쟈사태》에 관한 《성명》에서 캄보쟈로부터의 《미군철수》니 월남과 동남아세아의 《평화》를 위한 《회담》이니 하고 떠들었으나 미제국주의자들이 꾀하고있는 흉악한 책동의 내막을 스스로 드러내놓았다.

닉슨은 이 《성명》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이 캄보쟈에 대한 야만적폭격을 계속하며 캄보쟈의 론 놀괴뢰도당에 대한 《군사원조》를 강화하며 남부월남괴뢰군으로 하여금 캄보쟈령토안에서 침략행동을 계속하게 하며 그밖에 아세아괴뢰들을 캄보쟈침략전쟁에 끌어들일것이라는것을 공공연히 떠벌이였다.

이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캄보쟈와 인도지나에서의 침략전쟁을 도리어 계단식으로 확대하여 전쟁의 불길을 인도지나만이 아니라 동남아세아전역에 확대하려하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오늘 미제가 《미군철수》라는 기만극밑에 벌려놓고있는 전쟁확대책동이야말로 미제의 가장 흉악하고 뻔뻔스러운 침략적정체를 더욱 뚜렷이 폭로하여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캄보쟈인민과 월남, 라오스 등 인도지나인민들을 반대하여 악랄하게 꾸미고있는 미제의 새로운 전쟁확대책동을 단호히 규탄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떤 속임수로써도 결코 세계인민들의 눈을 가리울수 없다.

미제는 미국본토로부터 수만리나 떨어진 인도지나에 침략군을 보내여 이 나라 인민들의 내부문제에 간섭할 그 어떤 근거도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침략군과 그의 괴뢰들의 군대를 캄보쟈에서 지체없이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물러나가야 하며 월남, 라오스 등 인도지나전역에서 피묻은 침략의 마수를 떼여야 한다.

캄보쟈문제는 오직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력사적인 3월 23일 5개 항목선언에 기초하여 캄보쟈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미제의 계속되는 강도적무력침략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고있는 캄보쟈인민의 편에 언제나 확고히 서있을것이며 그들의 정의의 투쟁을 정신적으로뿐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지원할것이다.

미제는 발악하면 할수록 더욱 궁지에 빠지고 인민들은 싸우면 싸울수록 더욱 강대해지고있다.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의 강력한 지지성원을 받고있는 캄보쟈인민과 인도지나인민의 성스러운 반미구국항전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만약 미제국주의자들이 캄보쟈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더 크게 벌려 전쟁의 불길을 인도지나와 동남아세아 전역에로 확대하는 무모한 책동에 계속 매여달린다면 그것은 그들자신을 더욱 급속히 비참한 멸망의 무덤에로 빠져들어가게 할것이다.

1970년 7월 3일
평 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성명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일부감축》 설을 퍼뜨리면서 범죄적인 《제4차한일정기각료회의》와 《한미국방각료회의》라는것을 벌려놓고 조선에서 새 전쟁 도발책동을 더욱 격화시키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요즘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 새 전쟁 도발책동을 날로 더욱 격화시키면서 여기에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끌어들이며 남조선괴뢰도당의 군사력을 더욱 증강하기 위하여 미친듯이 날뛰고 있다.

미제는 이러한 책동의 한 고리로서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서 이른바 《제4차한일정기각료회의》 라는것을 벌려놓게 하였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호노룰루에서는 이른바 《한미국방각료회의》라는것을 벌려놓았다.

《한일정기각료회의》를 계기로 남조선에 기여든 일본외상 아이찌를 비롯한 수많은 일본군국주의의 《각료》배들은 박정희괴뢰도당과 더불어 미제의 전쟁정책에 따라 군사정치적결탁을 더욱 강화할것을 공공연히 다짐한 이른바 《공동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였으며 호노룰루에서 벌린 《한미국방각료회의》에서는 남조선괴뢰군의 군사장비를 더욱 현대화할데 대한 이른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한일정기각료회의》의 《공동성명》에서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은 지난해 11월에 미제와 일본 사또정부가 발표한 《미일공동성명》을 그대로 되뇌이면서 《한국의 안보가 일본의 안보에 긴요》 하다느니 뭐니 하고 뻔뻔스럽게 떠벌이였다. 이것은 남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군사적침략의 야욕을 그대로 드러낸것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참을수 없는 공공연한 도전행위이다.

이와 함께 《공동성명》은 《호상안정》, 《선린협조》, 《차관》, 《투자환경개선》 등 수많은 간판들을 내걸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적 지배를 강화할수 있게 하였으며 오끼나와의 《효률적리용》이니 《지역적협력체계의 강화》니 하면서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이 미제의 침략전쟁수행에서 앞장에 설데 대한 기도를 남김없이 털어내놓았다.

이것은 미제의 조종밑에 오늘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해외침략책동이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있는가 하는것과 함께 박정희괴뢰도당의 극악한 매국배족행위의 정체를 더욱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미제의 지시밑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남조선괴뢰도당과 군사정치적결탁을 강화하며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새로운 침략전쟁도발에 직접 끼여들어 또다시 아세아에 대한 군사적침략의 길에 나서려는것을 단호히 규탄한다.

미제와 일본사또정부는 이미 지난해 11월 《미일공동성명》에서 이른바 《닉슨주의》에 따라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미제의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 내세울데 대하여 공공연히 떠벌이였으며 이 공모결탁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조치의 하나로서 지난 6월에는 기한만료된 미일 《안보조약》의 자동연장을 선포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닉슨주의》에 따라 일본침략군대를 남조선에 직접 끌어들이며 남조선괴뢰군을 더욱 대대적으로 증강하기 위한 저들의 흉계를 가리우려는 기만적술책으로서 최근에는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일부감축》에 관한 소동을 벌리고있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일부감축》 설이 오직 남조선괴뢰군의 장비증강과 일본침략군대의 남조선파견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꾸며낸 한낱 연극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번 《한일정기각료회의》가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간의 군사정치적결탁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호노룰루에서 벌려놓았던 《한미국방각료회의》가 먼저 남조선괴뢰군 장비의 현대화를 완성할 때까지는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 계속 머물러있을것이라고 한데서도 남김없이 드러났다.

모든 사실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세력과 그들의 2중의 앞잡이인 박정희괴뢰도당이 《공동작전체제》를 완성하고 조선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며 아세아인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의 불길을 확대하기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로골적으로 날뛰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아세아의 전반적정세를 더욱 긴장시키고 이 지역과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

오늘 조성된 정세는 사회주의나라들과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이 미제와 일본군국주의 세력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결코 그대로 보고만 있어서는 안되며 그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자기의 주권과 령토완정을 침해하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방해하는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의 흉악한 공모결탁을 결코 용허하지 않을것이며 그들의 어떠한 침략책동도 짓부셔버릴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

이번 《한일정기각료회의》에서 일본사또정부와 남조선괴뢰도당은 또한 60만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야수적인 박해와 탄압을 공동으로 강화하며 그들의 운명을 일본군국주의와 남조선괴뢰도당간의 정치적흥정의 미끼로 삼으려는 악랄한 흉계를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이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의 또하나의 단적표현이다.

조선인민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의 갈수록 격화되는 침략과 전쟁 책동에 끓어오르는 민족적분노를 금할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미제와 그와 결탁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이 당장 중지되여야 하며 미제침략자들은 부질없는 소동을 그만두고 지체없이 남조선에서 그의 모든 침략군과 살인무기들을 걷어가지고 완전히 물러가야 한다고 거듭 강력히 주장한다.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하며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격화되는 침략책동은 그들의 강대성을 보여주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처지

가 더욱 더 어렵게 되여가고있다는 것을 보여줄따름이다.

원쑤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이 격화되면 될수록 인민들은 더욱 큰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굳게 단결하여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보다 강화할것이다.

만약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혁명적인민들의 단합된 힘과 경고를 무시하고 감히 새로운 불장난을 일으킨다면 그들은 자신이 지른 불속에서 영영 타죽고말것이다.

1970년 7월 26일
평 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성명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감축》의 기만적소동의 막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새 전쟁 도발책동을 미친듯이 격화시키고있는것을 준렬히 규탄하여)

요즘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감축》에 관한 기만적소동의 막뒤에서 더욱더 많은 미국무력을 남조선에 집중시키고 각종 군사적도발을 강화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새 전쟁 도발책동을 미친듯이 격화시키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책동의 한 고리로서 며칠전 일본에 뭉지를 틀고있는 저들의 군사기지로부터 3개 대대의 《에프—4팬톰》 전투폭격기 50여대를 남조선에 끌어들이는것과 함께 오끼나와에 있는 미공군 《팬톰》 전투폭격기들의 《작전범위》를 남조선에까지 확대한다는것을 발표하였다. 또한 8월초에는 월남침략전쟁에 참가하여 전투경험을 쌓은 미륙군전략통신사령부내의 통신대원 200여명을 그들이 가지고있는 시설들과 함께 남조선에 끌어들이면서 그들에 대한 《수요가 월남에서보다 남조선에서 더 크다》고 로골적으로 떠벌였다.

이에 앞서 미제국주의자들은 《에프—105》 전투폭격기로 편성된 오끼나와기지의 전술비행대대를 남조선에 끌어들여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작전임무》 수행에 동원하였으며 《에프—4팬톰》 기로 편성된 미공군사령부소속 2개 전술비행단들도 이미 남조선에 끌어들였다.

지난달 호노룰루에서 벌려놓았던 《한미국방각료회의》에서는 남조선괴뢰군의 군사장비를 더욱 현대화하기 위하여 1972년도 미제의 대외군사 《원조》의 40%를 남조선에 할당하며 태평양기지의 미군비행기들을 남조선으로 옮기며 《에스—2》 해군초계비행기 1개 대대를 남조선괴뢰군에 넘겨주기로 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발광적인 전쟁준비와 함께 군사분계선일대에서 거의 매일과 같이 불장난을 일삼고있다.

올해에 들어와서 지난 7월까지의 기간에만도 미제침략군은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여 무려 6천 500여건에 이르는 무장습격과 총포사격을 비롯한 정전협정위반행위를 감행하였다.

8월에 들어와서도 1일과 10일, 11일 그리고 14일 등으로 련이어 전선서부에서 수백발씩 중부기사격을 가하는 악랄한 무장도발을 감행하였으며 끊임없이 간첩과괴암해분자들을 북반부에 침입시키고있다.

미제의 전쟁우두머리들은 꼬리를 물고 남조선에 기여들어 전연과 군사기지들을 싸다니고있는데 며칠전에는 미태평양지구사령관이 6일간이나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의 전방부대를 싸다니며 전쟁모의를 거듭하였다.

이에 련이어 8월 24일에는 전쟁두목 닉슨의 이른바 《특사》라는 이름밑에 악명높은 파쑈적호전광인 미국부대통령 애그뉴가 남조선에 기여든다고 한다. 애그뉴의 이번 남조선행각이 남조선에서 진척되고있는 침략전쟁준비를 현지에서 더욱 다그치고 새 전쟁의 도발을 직접 고취하려는 위험한 전쟁행각이라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이 모든 사실은 미제국주의자들이 한편으로 미군 《감축》에 관한 기만적소동으로 저들의 범죄적정체를 가리우면서 다른 한편으로 조선에서 새 전쟁을 직접 도발하기 위하여 얼마나 발악적으로 날뛰고있는가 하는것을 그대로 온 세상에 낱낱이 드러내보여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새 전쟁을 도발하기 위하여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것을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서 단호히 단죄하며 세계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이 미제의 위험한 불장난을 견결히 규탄하여나설것을 호소한다.

오늘 조성된 사태는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그들의 침략책동이야말로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이며 조선에서 긴장상태와 새 전쟁의 위험을 조성하는 항시적근원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무모한 침략과 새 전쟁 도발책동을 당장중지하여야 하며 남조선에서 저들의 침략군과 모든 살인무기들을 걷어가지고 지체없이 물러가야 한다는것을 다시금 강력히 주장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지난 조선침략전쟁에서와 또한 무장간첩선 《푸에블로》 호사건과 대형간첩비행기 《이씨—121》 사건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패배의 교훈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며 그 어떤 최후발악적인 전쟁도발책동으로써도 저들의 음흉한 침략적목적을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만약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전체 조선인민은 한사람같이 일떠서서 침략자들을 이 땅에서 영원히 소멸해버릴것이다.

1970년 8월 23일

평 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성명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의 지시밑에 남조선괴뢰도당과 결탁하여 벌리고있는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괴뢰《한국국적》강요책동을 폭로규탄하여)

요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지시밑에 남조선괴뢰도당과 공모결탁하여 재일조선공민들에게 치욕스러운 괴뢰《한국국적》을 강요하기 위한 범죄적책동을 더욱 발악적으로 강화하고있다.

지난 8월 18일 일본정부당국은 후꾸오까현 다가와시당국이 재일조선공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여 괴뢰《한국국적》을 조선국적으로 고쳐준것을 《인정할수 없다》고 하면서 그것을 다시 《한국국적》으로 되돌리라고 《지시》하는 횡포한 간섭행위를 감행하였다.

일본정부의 이와 같은 부당한 행동은 60만 재일조선공민들의 신성한 민족적권리에 대한 또하나의 가장 횡포하고 공공연한 침해일뿐만아니라 기본인권과 공인된 국제법의 원칙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는 8월 20일 성명을 발표하여 일본정부당국의 범죄적책동을 견결히 규탄하고 다가와시당국에 대한 부당한 《지시》를 당장 철회하며 괴뢰《한국국적》을 조선국적으로 고친데 대한 재일조선공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조건 인정할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지기 위한 재일조선공민들의 지극히 정당한 요구를 가로막고 그들에게 괴뢰《한국국적》을 강요하기 위하여 일본 사또정부가 감행하고있는 악랄한 책동을 신랄히 단죄하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8월 20일에 발표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재일조선공민들이 자기의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지는것은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그들의 당당한 민족적권리이며 이것은 또한 국적선택의 자유에 관한 국제법의 원칙에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일관한 적대시정책으로부터 출발하여 재일조선공민들에게 괴뢰《한국국적》을 강요하기 위한 책동을 계속 집요하게 하고있다.

특히 미제의 지시밑에 범죄적《한일협정》이 조작된후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재일조선인들이 이른바 《영주권신청》을 하며 괴뢰《한국국적》을 가지지 않는다면 일본에서 생활조건을 보장받지 못할것이라고 위협공갈하며 심지어는 재일조선공민들의 《외국인등록증》의 《국적기재란》에 본인도 모르게 괴뢰《한국》이라고 날조하여 기입하는것과 같은 사기적방법까지도 서슴없이 써왔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이러한 강요에 응하지 않는 재일조선공민들에게는 여러가지 인위적인 차별정책을 실시하고 가혹한 박해를 가하였다.

또한 그들은 조선국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단히 살상폭행을 일삼고 당치도 않는 《죄》명을 들씌워 체포구금하는 등 탄압을 강화하고 총련에 대한 파괴모략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여왔다.

일본 사또정부는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괴뢰 《한국국적》과 《영주권신청》의 강요를 통하여 재일조선공민들을 정치적으로 《선별》하고 박해탄압할뿐아니라 박정희괴뢰도당과의 결탁을 강화함으로써 남조선재침을 더욱 다그칠것을 노리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일본군국주의상전과 짜고들어 직접 수많은 특무들과 폭력배들까지 일본에 들여보내여 테로와 폭압, 위협공갈과 회유기만 등 갖은 방법을 다 써가면서 재일조선공민들에게 괴뢰 《한국국적》과 《영주권신청》을 강요하여왔다.

이것을 통하여 그들은 재일조선공민들이 마치도 남조선괴뢰도당을 《지지》나 하는듯이 사태를 꾸며낼뿐아니라 일단 괴뢰 《한국국적》을 들씌운 다음에는 그중의 청년들을 강제 《징집령장》에 의하여 미제의 대포밥으로 괴뢰군에 끌어갈것을 획책하고있다.

일본 사또정부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저들의 이러한 범죄적책동이 재일조선공민들의 완강한 반대투쟁에 의하여 뜻대로 되지 않게 되자 얼마전에 벌려놓았던 이른바 《제4차한일정기각료회의》에서 괴뢰 《한국국적》과 《영주권신청》의 강요책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지금 이것을 미친듯이 다그치고있다.

재일조선공민들은 일본 사또정부와 박정희괴뢰도당이 미제의 부추김밑에 감행하고있는 이 엄중한 반동적공세에 항거하여 자기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정당한 투쟁에 한결같이 나서고있으며 그의 한 고리로서 이미 괴뢰 《한국국적》을 강요당한 사람들은 그것을 조선국적으로 고치기 위한 투쟁에 단호히 일떠서고있다. 후꾸오까현 다가와시당국이 괴뢰 《한국국적》을 조선국적으로 고쳐달라는 재일조선공민들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한국국적》을 조선국적으로 고쳐준것은 전적으로 정당한것이다.

일본의 수많은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과 저명한 인사들 그리고 광범한 일본인민들도 다가와시당국의 조치를 적극 지지하여나서고있으며 괴뢰《한국국적》을 배격하고 조선국적을 옹호하기 위한 재일조선공민들의 정당한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고있다.

오늘 전체 재일조선공민들은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날로 륭성발전하는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떳떳한 해외공민으로서 끝없는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감을 간직하고있으며 공화국공민으로서의 영예와 권익을 튼튼히 지켜나가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에 따라 재일조선공민들이 조선국적을 선택하는 이상 일본정부는 그것을 존중하고 인정할 의무가 있을뿐이며 그 어떤 다른 《국적》을 강요할 아무 근거도 권한도 없다.

일본정부는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인민앞에 저지른 엄중한 죄과로 보나 국제법과 국제관례로 보나 재일조선공민들을 응당 외국인으로서 보호하며 그들의 제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법적 및 도의적 의무를 지니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오늘의 재일조선공민들이 나라없는 민족으로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아오던 지난날의 조선사람이 아니며 그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힘있고 존엄있는 자주독립국가의 공민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조선인민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의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 복무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계속하며 재일조선공민들의 조국에로의 귀국과 래왕의 자유를 비롯한 제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계속 짓밟는것을 결코 용허하지 않을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일본정부가 재일조선공민들에게 괴뢰《한국국적》과 《영주권신청》을 강요하는 책동을 당장 걷어치우고 괴뢰《한국국적》을 조선국적으로 고칠데 대한 재일조선공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전적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그들에게 공화국공민으로서의 응당한 권리와 대우를 무조건 보장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만약 일본정부가 조일 두 나라 인민들과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미제의 지시밑에 박정희괴뢰도당과 한짝이 되여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짓밟으며 그들에게 괴뢰《한국국적》과 《영주권신청》을 강요하는 범죄적책동을 계속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엄중한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1970년 9월 1일
평 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성명

(유엔총회 제25차회의에서 조선에 관한 문제토의에 당사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를 무조건 초청할데 대한 결의안이 제출된것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23일 유엔에 가있는 사회주의나라들과 많은 아세아, 아프리카나라 대표들은 유엔총회 제25차회의에서 조선에 관한 문제가 토의되는것과 관련하여 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를 무조건 참가시킬데 대한 결의안을 내놓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1970년 8월 29일 성명에서 거듭 천명한바와 같이 유엔에서 조선에 관한 문제가 토의되는 이상 그에 직접적당사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가 응당 참가하여야 한다고 일관하게 주장하여왔다.

이번 사회주의나라들과 많은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 대표들이 유엔에서의 조선에 관한 문제토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를 무조건 참가시킬것을 다시금 제기한것은 유엔헌장의 원칙에 부합되는것으로써 전적으로 정당하다.

유엔에서의 조선에 관한 문제의 토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를 무조건 참가시킬데 대한 제안은 해마다 더욱더 많은 나라들의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서 조선에 관한 문제가 토의되기 시작한 때로부터 2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문제는 미제의 악랄한 방해책동때문에 해결되지 못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른바 《조건부초청》을 운운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의 참가를 한사코 가로막고있다.

이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유엔으로 하여금 조선인민의 참다운 대표의 목소리를 들을수 없게 하고 계속 세계여론을 기만하며 남조선에서 감행하고있는 저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가리워보려는 흉책에서 나온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꾸며내고있는 이른바 《조건부초청》이란 애당초 있을수도 없으며 유엔헌장의 원칙에 전적으로 위반되는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언제나 유엔헌장과 그의 목적을 존중하고있다.

만약 유엔이 진정으로 그의 헌장의 원칙과 목적에 맞게 행동하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를 조선에 관한 문제토의에 무조건 참가시켜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거듭 자기의 립장을 명백히 천명한바와 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의 참가와 동의없이 조선인민의 리익에 배치되게 미제국주의자들이 제멋대로 유엔에서 조작해내는 그 어떠한 《결의》도 결코 인정하지 않을것이며 모두 무효로 선포할것이다.

1970년 10월 25일
평 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성명

(인도지나인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서 군사정치적패배를 당하고 궁지에 빠지게 된 미제국주의자들이 저들의 흉악한 침략정체를 가리우며 세계여론을 속이기 위한 기만적소동을 벌리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인도지나인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확대함으로써 도리여 더욱 커다란 군사정치적패배를 당하고 궁지에 빠지게 된 미제국주의자들은 요즘 저들의 흉악한 침략적정체를 가리우며 세계여론을 속이기 위한 또하나의 편

뻔스러운 기만적소동을 벌리고있다.

지난 10월 7일 미제의 우두머리인 닉슨은 《현위치에서의 정화》니, 남부월남문제의 《정치적해결》이니, 《인도지나평화회의》소집이니, 《전반적철수에 관한 시간표》의 협상이니 하는 이른바 《평화를 위한 새로운 제안》에 대하여 떠벌였다.

이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침략자인 저들자신과 침략을 당하고있는 인도지나인민들사이의 계선을 모호하게 하고 인도지나에서 감행하고있는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며 월남과 인도지나를 계속 강점하고 괴뢰정권의 존재를 합법화함으로써 전체 인도지나를 영원한 식민지로, 침략적군사기지로 만들자는 것이다.

강도적론리로써 엮어진 닉슨의 이른바 《새로운 제안》은 월남, 라오스, 캄보쟈 인민들의 자주권을 계속 란폭하게 짓밟는 악랄한 도전행위이며 인도지나침략전쟁을 강력히 반대하는 미국의 광범한 인민들과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에 대한 로골적인 우롱이다.

월남민주공화국 외교부, 남부월남공화 림시혁명정부,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 및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각각 성명을 발표하여 닉슨의 기만적인 《새 제안》을 단호히 거부하고 인도지나에서 미제침략자들을 완전히 몰아낼때까지 견결히 싸워나갈 확고한 결의를 다시금 천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이 성명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인도지나에서의 류혈전쟁은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의 직접적인 산물이다.

세계인민들은 다름아닌 미제국주의자들자신이 자기 나라로부터 수만리 떨어져있는 인도지나에 기여들어 이지역 인민들을 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피비린 살륙전쟁을 벌려놓고 무고한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고있는 침략자이며 바로 닉슨이야말로 이 침략전쟁을 더욱 확대하여 전체 인도지나땅을 침략전쟁의 불길속에 몰아넣은 범죄의 장본인이라는것을 잘 알고있다.

침략자 미제가 월남과 인도지나에서 침략의 피묻은 손을 떼고 물러가기만 하면 이 지역에서 평화는 어느때나 회복될수 있다.

남부월남공화림시혁명정부는 지난 9월 17일에도 월남인민의 기본적권리를 존중하는 기초우에서 월남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남부월남문제에 관한 10개항목의 전면적해결책을 구체화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닉슨이 가장 곧바른 이 평화의 길은 한사코 반대하면서 그 무슨 《평화》요, 《정화》요 하고 떠벌이는 자체가 벌써 침략자로서의 그의 검은 배심을 그대로 보여주는것이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떤 음흉한 술책으로써도 인도지나인민들에 대한 침략자로서의 정체를 가릴수 없으며 반미구국항전에 일떠선 월남, 라오스, 캄보쟈 인민들의 투쟁을 멈춰세울수 없으며 인도지나침략전쟁을 반대하는 미국인민을 포함한 세계인민들의 날로 커가는 항거를 가라앉힐수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월남, 라오스, 캄보쟈에서 모든 침략행위를 당장 그만두어야하며 저들의 침략무력과 그의 괴뢰 및 추종 국가들의 무력을 모두 걷어가지고 인도지나에서 무조건 지체없이 물러가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월남문제는 월남민주공화국 정부의 4개항목 립장과 그리고 남부월남민족해방전선과 남부월남공화림시혁명정부가 제기한 남부월남문제에 관한 10개항목의 전면적해결책과 그를 구체화한 9월 17일부 제안에 기초하여, 라오스문제는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의 3월 6일부 5개항목의 정치적해결책에 기초하여, 캄보쟈문제는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3월 23일부 5개항목의 선언에 기초하여 해결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월남, 라오스, 캄보쟈 인민들의 정의의 반미구국투쟁을 자신의 투쟁과 같이 여기고있는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공동의 원쑤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인도지나 세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백방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만약 미제국주의자들이 전세계 인민들의 거듭되는 경고와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인도지나에서 물러가지 않고 침략전쟁을 오래 끈다면 그들은 더욱 큰 패배와 비참한 파멸을 면치못할것이다.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강력한 지지와 성원을 받고있으며 인도지나인민들의 수뇌자회의공동선언을 받들고 굳게 단결하여 영웅적으로 싸우고있는 월남, 라오스, 캄보쟈 인민들은 미제침략자들을 마지막 한놈까지 쓸어버리고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하고야말것이다.

1970년 10월 29일
평 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성명

(10월 30일 미제국주의자들이 례년과 같이 유엔총회 제25차회의 정치위원회에서 조선에 관한 문제토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가 참가하는것을 가로막기 위한 이른바 《조건부초청》에 관한 《결의안》을 억지로 통과시킨것을 규탄하여)

지난 10월 30일 미제국주의자들은 례년과 같이 유엔총회 제25차회의 정치위원회에서 조선에 관한 문제토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가 참가하는것을 가로막기 위한 이른바 《조건부초청》에 관한 《결의안》을 억지로 통과시켰다.

이것은 조선인민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모독하며 유엔헌장의 원칙을 란폭하게 위반하는 행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꾸며진 이 비법적인 《결의안》을 단호히 규탄하며 배격한다.

유엔에서 조선에 관한 문제가 토의되는이상 거기에 직접적당사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가 참가하여야 한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는 일이다.

이번 유엔총회 정치위원회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의 많

은 나라들이 미제국주의자들이 내놓은 이른바 《조건부초청》에 관한 《결의안》을 반대하고 조선에 관한 문제토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를 무조건 초청할것을 강력히 주장한것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유엔에서의 문제토의에 당사자를 초청함에 있어서 그 무슨 《조건》을 붙인다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며 유엔헌장에 배치되는 비법적이며 수치스러운 일이다.

더우기 미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는 이른바 《조건부초청》이란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을 영구히 강점하고 식민지군사기지화하며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 전조선을 침략하기 위하여 감행하고있는 새 전쟁 도발책동을 유엔의 《결정》으로 합리화하는것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미리부터 접수하라는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침략자의 검은 속심을 그대로 드러내놓은 강도적요구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이러한 범죄적인 《조건부》를 유엔에 계속 강요하고있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진정한 민족적리익과 의사를 대표하고있는 조선민족의 유일한 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가 유엔에서의 조선에 관한 문제토의에 참가할수 없게 하고 각국 대표들로 하여금 조선인민의 참다운 목소리를 들을수 없게 하여 조선에서 감행하고있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 책동이 폭로되는것을 막아보려는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제국주의자들은 유엔의 기발밑에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며 조선인민을 반대하여 미친듯이 감행하고있는 저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결정》을 이번 유엔총회에 또다시 강요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이미 거듭 성명한바와 같이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인민의 참다운 대표의 참가와 동의없이 조선인민의 리익에 배치되게 그 어떠한 《결정》을 유엔에서 강압채택한다하여도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것이며 전적으로 무효이다.

만약 유엔이 진정으로 그의 헌장의 원칙과 목적에 부합되게 행동하려면 유엔을 조선에 대한 침략정책수행의 도구로 리용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배격하고 《유엔군》의 간판밑에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며 미제의 침략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기 위한 조치를 지체없이 취하여야 한다.

1970년 11월 3일

평　　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성명

(월남민주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폭격만행을 준렬히 규탄하며 미제침략자들의 새로운 범죄행위를 단죄하여 11월 21일 월남민주공화국 외교부가 발표한 성명을 지지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월남민주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행위를 날로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지난 11월 21일 미제공중비적들은 여러편대로 무리를 지어 월남민주공화국 령공에 침입하여 하이 퐁, 광 닌, 하타이 및 호아 빈주의 주민지역들을 마구 폭격하여 수많은 주민들을 살상하였으며 수도 하노이주변에까지 기여들어 로케트포사격을 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같은날 미제침략자들은 광 빈주와 하띤주의 주민지역도 야수적으로 폭격하였다.

월남민주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이 야수적폭격은 월남인민의 주권과 안전을 횡포하게 짓밟는 엄중한 침략행위이며 월남침략전쟁의 중지를 요구하는 아세아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 대한 또하나의 참을수 없는 도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월남민주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폭격만행을 준렬히 규탄하며 미제침략자들의 새로운 범죄행위를 단죄하여 11월 21일 월남민주공화국 외교부가 발표한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번 월남민주공화국에 대하여 감행한 미제의 폭격만행은 그들의 침략적, 야수적본성을 다시금 낱낱이 폭로하여주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월남민주공화국에 대한 폭격을 《무조건중지》 한다고 한 이후에도 폭격을 계속하였으며 《평화》의 간판뒤에 숨어서 월남침략전쟁의 불길을 확대하려고 쉼없이 책동하여왔다.

얼마전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정찰비행기가 월남민주공화국 령공에 기여들어 간첩행위를 하다가 월남인민군의 자위적조치로 격추당하게 되자 이를 구실삼아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느니 월남민주공화국을 《다시 공격》하겠다느니 하고 공공연히 떠벌였다.

이것은 도발을 먼저 감행하고 그것에 빙자하여 침략을 감행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인 날강도적수법을 그대로 보여주는것이다.

모든 사실은 월남민주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폭격만행이 월남과 인도지나에서 범죄적침략전쟁을 더욱 강화하려는 그들의 계획적인 흉악한 책동의 한고리이며 미제의 전쟁두목 닉슨이 떠벌인 인도지나문제에 관한 이른바 《평화제안》도 이러한 범죄적음모를 가리우기 위한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똑똑히 실증하여주고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떤 발악적책동으로써도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이룩할수 없으며 반미구국항전에 한사람같이 일떠선 월남인민과 인도지나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결코 가로막을수 없다.

영웅적월남 인민군과 인민은 이번 미제공중비적들의 침입에 대해서도 즉시적인 징벌타격을 가하여 6대의 미제침략군비행기를 쏘떨구고 여러대를 격상시킨 빛나는 전과를 거두었다.

조선인민은 경각성높은 월남인민이 거둔 이 커다란 전과를 기뻐하며 그를 열렬히 축하한다.

오늘 조선인민과 아세아 및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은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우고있는 월남인민과 전체 인도지나인민의 편에 튼튼히 서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월남민주공화국의 주권과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범죄행

위를 당장 그만두어야 하며 남부웰남과 인도지나의 모든 지역에서 자기의 침략군과 추종국가 및 괴뢰들의 군대를 걷어가지고 지체없이 물러가야 한다.

웰남인민은 자기 나라의 신성한 주권과 안전을 침해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침략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섬멸적인 징벌타격을 가할 확고한 결의를 가다듬고있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웰남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강력한 규탄에도 불구하고 전쟁확대책동에 분별없이 매달린다면 그들은 지금보다 몇배나 더 수치스러운 패배와 비참한 멸망을 면치 못할것이다.

1970년 11월 23일
평 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성명

(미제국주의자들의 직접적인 부추김밑에 기네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과 파괴음모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여 오던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이 1970년 11월 22일 새벽 기네공화국을 반대하는 로골적인 무력침공을 개시한것을 규탄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의 직접적인 부추김밑에 기네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과 파괴음모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여오던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1970년 11월 22일 새벽 기네공화국을 반대하는 로골적인 무력침공을 개시하였다.

이날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구라파 및 아프리카인 고용병들로 구성된 수많은 침략군을 기네공화국의 수도 꼬나크리에 상륙시켜 여러 지역을 공격하여 나섰다.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의 이 파렴치한 침략행동은 기네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참을수 없는 란폭한 침해이며 아프리카와 세계의 평화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다.

기네공화국의 아흐메드 세쿠 뚜레대통령은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의 침략행위를 단호히 규탄하고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기네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여줄것을 전세계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기네인민을 반대하는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의 날강도적인 침략행동을 치솟는 격분으로 준렬히 단죄하며 침략자들이 지체없이 기네에서 피묻은 손을 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이번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의 기네에 대한 직접적인 침략행위는 아프리카신생독립국가들의 자주권을 빼앗고 이 나라들에 다시 신식민주의의 올가미를 들씌우며 자유와 해방을 위한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이 아프리카에 식민지리권을 가지고있는 제국주의, 식민주의 세력과 공모결탁하여 꾸며내고있는 전반적침략책동의 한 고리이다.

만일 미제의 지원과 고무가 없다면 이미 자기 시대를 다산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이 감히 아프리카인민들을 반대하는 류혈적탄압행위를 감행할수 없다는것은 뻔한 일이다.

미제를 우두머리로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아프리카에서 잃어버린 옛처지를 되찾으며 식민지지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은 그 어떠한 도발과 침략 책동으로써도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용감히 나아가는 기네인민과 전체 아프리카인민들의 앞길을 결코 가로막을수 없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자들의 격화되는 침략과 전쟁 책동은 저들의 처지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며 스스로 무덤에로의 길을 다그칠뿐이다.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의 무모한 군사적침략행위는 기네인민의 더욱 견결한 반격에 직면하고있으며 아프리카와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의 새로운 격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조선인민은 미제의 앞잡이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과 그 고용병들을 반대하는 기네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지원할것이며 침략자들을 철저히 때려부시고 최후의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친선적인 기네인민의 편에 튼튼히 서있을것이다.

침략자들은 오늘의 현실을 똑바로 보고 결코 함부로 날뛰지말아야하며 당장 기네에서 물러가야한다.

만일 미제와 그 앞잡이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이 세계인민들의 준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네인민을 반대하는 침략행동을 계속 확대한다면 그들은 혁명적인민들의 보다 큰 항거에 부딪쳐 더욱더 비참한 파멸을 당하고야 말것이다.

1970년 11월 24일
평 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성명

(유엔총회 제25차회의에서 조선민족의 유일한 합법적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의 참가와 동의없이 미제가 제멋대로 조작해낸 비법적 《결의》를 단호히 배격하며 그를 무효로 선언하여)

지난 12월 7일 미제국주의자들은 유엔총회 제25차회의에서 상례에 따라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미제침략군이 《유엔군》의 간판밑에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며 미제의 침략도

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 남조선에 계속 머물러있을데 대한 비법적《결의》를 강압적으로 통과시켰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이미 거듭 천명한바와 같이 조선민족의 유일한 합법적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의 참가와 동의없이 조선인민의 의사와 리익에 전적으로 배치되게 미제가 제멋대로 조작해낸 이 비법적《결의》를 조선인민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침해하고 모독하며 유엔헌장 그 자체를 위반하는것으로서 단호히 배격하며 그를 무효로 선언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인민을 반대하여 감행하고있는 저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의 흉악한 정체를 유엔의 기발로 가리우기 위하여 이미 20여년동안이나 해마다 유엔에서 이른바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보고》에 대한 토의를 강요하고 조선에 관한 비법적《결의》를 조작해내는 광대놀음을 벌리고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떠한 간계와 음흉한 술책으로써도 남조선을 강점하고 그곳을 저들의 식민지로, 군사침략기지로 전변시켰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새 전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는 장본인이 다름아닌 미제침략자들자신이라는 사실을 결코 가리울수 없다.

이번 유엔총회에서도 사회주의나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의 많은 민족적독립국가의 대표들은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정책과 그 앞잡이 남조선괴뢰도당의 수치스러운 정체를 낱낱이 폭로규탄하면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하루빨리 철거시키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할데 대한 결의안을 내놓았다.

또한 그들은 유엔에서 조선에 관한 문제가 토의되는 이상 반드시 그의 당사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를 무조건 참가시켜야 한다는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 정당한 주장들을 거역하고 갖은 위협과 압력으로 거수기를 발동하여 저들의 비법적《결의》를 강압통과시켰으나 더욱더 많은 나라 대표들로부터 미제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규탄하며 더는 유엔이 미제의 침략도구로 악용되여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힘차게 울려퍼지는것을 가로막을수는 없었다.

더욱더 많은 나라 대표들이 미제가 강요하는 유엔에서의 《조선문제》 토의에 더욱더 싫증을 나타냈으며 이때까지 미제의 침략책동에 추종하던 일부 나라들까지도 점차 거기에서 떨어져나오고있다.

이번에 칠레공화국 정부는 이른바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에서 결연 탈퇴하였다.

이것은 미제국주의자들에 대한 또하나의 커다란 타격이다.

이번 유엔총회에서 진행된 조선에 관한 문제토의의 전행정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비롯한 추종국가들과 괴뢰들을 모두 동원하여 갖은 발악을 다하였으나 그럴수록 그들은 날로 더욱 고립될뿐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단죄하고 조선인민의 자주권을 견결히 옹호하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사회주의나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민족적독립국가들과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에게 충심으로 사의를 표한다.

조선은 조선인민의것이며 조선통일문제는 유엔이나 그 어떤 외부세력의 간섭이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서 물러가야 하며 미제에게 매수된 더러운 침략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은 지체없이 해체되여야 한다.

원래 유엔은 그 헌장에 비추어 조선인민의 내정문제에 간섭할 아무러한 근거도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남북조선의 전체 인민들은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온갖 발악적책동을 짓부시고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계속 힘차게 투쟁할것이다.

1970년 12월 11일
평 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성명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남조선에 대한 침략책동을 더욱 강화하면서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란폭하게 짓밟는 범죄행위를 악랄하게 감행하고있으며 더우기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에 대한 탄압과 파괴책동을 강화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요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남조선에 대한 침략책동을 더욱 강화하면서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란폭하게 짓밟는 범죄행위를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더우기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에 대한 탄압과 파괴책동을 강화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재일조선 학생들과 교원들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며 터무니 없는 구실을 붙여 그들을 닥치는대로 체포구금하고 비법적으로 학교를 수색하며 교육사업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등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말살하려고 끊임없이 책동하고있다. 사도도당은 지난 1월 19일 자기의 앞잡이들을 시켜 효고현 아마가사끼에 있는 소노다초급학교에 불을 질러 교실 여섯개를 불태워버리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놈들은 이보다 앞서 1월 8일에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를 불태워버리려 하였다.

지어 일본당국은 지난해 12월에 경찰놈을 시켜 건설중에 있는 도꾜조선학원교직원숙사의 내부를 은밀히 탐지케 하고 학원설계도면을 훔쳐내게 하는 비렬한 행위까지 하였다.

뿐만아니라 지난 12월 12일에는 불량배들을 사촉하여 다찌바나조선초급학교 교원을 칼로 마구 찔러 중상을 입히는 폭행을 감행하였다.

이것은 60만 재일동포들에 대한 가장 횡포하고 공공연한 도전이며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악랄한 적대시정책의 로골적표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일본당국의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치솟는 민족적분노로써 단호히 규탄한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말살하고 그들에게 《동화교육》을 강요하며 총련과 재일조선공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기 위하여 《외국인학교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조작해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 특히 일본군국주의두목 사또가 미국에 가서 전쟁두목 닉슨과 숙덕공론을 하고 돌아온 이후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탄압을 더욱 로골화하면서 그들의 제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엄중하게 유린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이것은 미제를 등에 업고 아세아침략의 야망을 성취해보려고 미쳐날뛰면서 일본의 민주력량을 탄압하고 파쑈화를 촉진시키며 박정희괴뢰도당과 결탁하여 남조선재침을 강화하고 전쟁준비를 더욱 다그치기 위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흉악한 책동의 한고리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분별없는 책동은 조일 두 나라 인민들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같은 격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자기의 해외동포들을 박해하고 탄압하며 그들을 정치적흥정의 미끼로 삼고있는 사또반동도당의 범죄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거듭 경고하지만 일본정부는 지난시기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조선인민앞에 진 죄과로 보나 국제법과 국제관례로 보나 재일조선공민들을 외국인으로서 응당 보호하며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권리를 비롯한 그들의 모든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법적 및 도의적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다.

만일 일본정부가 조일 두 나라 인민들의 견결한 반대와 정의와 인도주의를 사랑하는 세계인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범죄행위를 계속 감행한다면 그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1970년 2월 4일
평 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성명

(미제의 사촉밑에 반동적정변을 일으킨 캄보쟈의 우익반동들이 캄보쟈에 있는 웰남공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미제의 사촉밑에 반동적정변을 일으킨 캄보쟈의 우익반동들은 웰남민주공화국과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날로 더욱 강화하면서 캄보쟈에 있는 웰남공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고 있다.

요즘 캄보쟈의 우익반동들은 캄보쟈의 스바이 리엥주에 거주하는 300여명의 무고한 웰남공민들을 집단적으로 살상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것은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엄중한 범죄행위이며 정의와 인도주의를 사랑하는 전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다.

조선인민은 웰남공민들에 대한 캄보쟈우익반동들의 대중적학살만행을 치솟는 격분으로 단호히 규탄하며 웰남민주공화국 외교부의 4월 12일부 성명과 남부웰남공화 외무성의 4월 13일부 성명에서 천명된 립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캄보쟈우익반동들이 감행하고있는 웰남공민들에 대한 범죄행위는 정의의 구국항전에 일떠선 웰남인민을 배후에서 공격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에서 맺어진 웰남인민과 캄보쟈인민의 친선과 전투적련대성을 파괴하며 그들사이에 불화를 조성함으로써 아세아인끼리 싸우게 하려는 《닉슨주의》를 직접 도와주는것이다.

캄보쟈의 우익반동들은 웰남공민들에 대한 폭행과 살륙만행을 당장 그만두어야하며 그들의 안전과 모든 권리를 보장하여야한다.

만일 캄보쟈우익반동들이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의 강력한 규탄에도 불구하고 캄보쟈에 있는 웰남공민들에 대한 박해와 학살행위를 계속한다면 돌이킬수 없는 엄중한 후과에 부닥치게 될것이다.

1970년 4월 17일
평 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성명

(영제국주의자들이 미제국주의자들과의 공모밑에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에게 살인무기를 공공연히 대주기로 한것을 규탄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반대하는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에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하여)

지난 7월 20일 영제국주의자들은 미제국주의자들과의 공모밑에 남아프리카인종주의도당에게 살인무기들을 공공연히 수출할것이라는것을 서슴없이 발표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이 이번 또다시 남아프리카에 드러내놓고 무기를 대주기로 한것은 자유와 해방과 민족적독립의 공고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전체 아프

리카인민들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며 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 대한 모독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미제와의 공모밑에 영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하고있는 이 범죄적책동을 준엄히 단죄하며 놈들의 흉책을 견결히 반대하는 아프리카나라들과 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번에 영제국주의자들이 남아프리카인종주의도당에게 또다시 수많은 무기들을 공공연히 대주기로 한것은 오늘 아프리카에서 료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있는 반제민족해방투쟁을 탄압말살하고 저들의 식민지적지배를 부지하기 위하여 최후발악을 다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남아프리카인종주의도당에게 무기수출을 재개하는 범죄행위를 감행하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8월에는 많은 함선 및 비행기들을 동원하여 그들과 합동해군연습을 진행할것이라고 떠벌이고 있다.

이 모든것은 죽어가는 영제국주의자들이 아프리카에서 결코 스스로 물러가려 하지 않으며 미제국주의자들과 공모결탁하고 아프리카에 도사리고있는 소수 백인인종주의도당들과 함께 한치의 땅이라도 더 그러쥐기 위하여 그 어떤 악랄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있는다는것을 똑똑히 실증하여준다.

바로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지원밑에 남아프리카와 남로데시아의 백인인종주의도당들과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이미 수많은 무고한 아프리카인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하였으며 남아프리카와 나미비아 및 짐바브웨인민들 그리고 앙골라, 모잠비크, 기네(비싸우) 인민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정의의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반제적인 아프리카나라들의 민족적독립과 안전을 항시적으로 위협하고있다.

미영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아프리카인민들의 민족적 해방과 독립의 교살자이며 이 지역 인민들의 극악한 공동의 원쑤이다.

영제국주의자들의 남아프리카에 대한 이번 무기재수출책동과 관련하여 아프리카나라들은 이를 커다란 격분으로 단호히 규탄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새로운 범죄적책동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힘차게 벌릴데 대하여 한결같이 결의하여나서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반대하여 끝까지 견결히 투쟁하려는 아프리카인민들의 굳은 결의에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하며 앞으로도 아프리카의 완전한 해방과 민족적독립의 공고화를 위한 이 지역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지지할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떤 발악적책동으로써도 저들의 완전한 멸망과 식민지체계의 종국적붕괴를 막을수 없다.

영제국주의자들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오늘의 아프리카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에게 온갖 민족적멸시와 천대를 받던 지난날의 인민이 아니다.

영제국주의자들은 남아프리카에 대한 무기수출을 당장 무조건 그만두어야하며 아프리카에서 피묻은 침략의 마수를 떼야 한다.

만일 영제국주의자들이 아프리카인민들과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의 강력한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기수출에 매달린다면 그들은 헤어날수 없는 구렁텅이에 더욱 깊이 빠지게 될것이다.

미영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 백인인종주의도당들을 반대하며 자유와 해방, 민족적독립의 공고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한 아프리카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1970년 8월 6일
평 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성명

(일본당국이 여름방학동안에 그리운 조국을 방문하려는 재일조선학생들의 절절한 념원을 란폭하게 짓밟는 범죄행위를 감행한것을 규탄하여)

미제의 아세아 침략과 전쟁정책에 적극 가담하면서 남조선괴뢰도당과의 정치, 경제, 군사적 결탁을 날로 강화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재일조선공민들의 조국에로의 자유래왕을 가로막는 또하나의 악랄한 책동을 감행하여나섰다.

지난 7월 23일 도꾜조선제1초중급학교 민족기악합주단과 도꾜조선제7초중급학교 축구선수단은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로부터 여름방학동안에 조국을 방문하여 연주활동과 체육경기에 참가하도록 초청을 받고 각각 조국방문단을 무은 다음 일본정부에 일본재입국을 허가해줄것을 신청하였다.

7월 30일 일본법무성당국은 재일조선학생들이 이 절절한 념원을 짓밟기 그들의 일본재입국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여나섰다.

그리운 조국을 방문하려는 재일조선학생들의 순진한 념원을 무참히 짓밟는 일본정부의 이 비렬한 책동은 60만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또하나의 참을수 없는 도전이며 국제법과 국제관례, 기본인권과 인도주의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다.

이것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추구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또하나의 로골적인 적대시정책의 표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재일조선학생들의 조국에로의 래왕을 가로막으려는 일본당국의 범죄적책동을 치솟는 민족적격분으로 단호히 규탄하며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31일 발표한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재일조선공민자녀들이 여름방학동안에 자기의 영광스러운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다녀가기로한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이것은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그들의 당당한 민족적권리이다.

바로 외국에서 사는 독립국가의 공민이 생활상 필요에 따라 자기 조국을 방문하는것은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이다.

더우기 재일조선공민들은 지난날 일본군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강제로 일본에 끌려간 사람들이며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스물다섯해동안이나 일본에 감금된 상태에 놓여있다. 그들이 조국에로 래왕하려는것은 인도주의적

원칙에 비추어보아서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일본정부는 이것을 무조건 완전히 보장하여야 할 회피할수 없는 책임을 지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유독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해서만 계속 그들의 조국래왕을 방해하고있을뿐만아니라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함부로 침해하며 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권리를 탄압하며 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사업을 파괴하는 등 온갖 범죄적책동을 일삼고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기 위하여 미쳐날뛰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의 지시밑에 지난 7월 박정희괴뢰도당과 《한일정기각료회의》를 벌려놓고 남조선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침투를 더욱 강화하며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을 강화할데 대한 정치적모략을 꾸민 이후 재일조선학생들이 여름방학동안 그리운 자기 조국에 다녀가겠다는 것마저도 한사코 반대하여나서고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이것은 재일조선공민들을 남조선박정희괴뢰도당과의 정치적흥정의 미끼로 삼으려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흉계를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은것이다.

조선인민은 일본사또정부의 이러한 악랄한 책동을 결코 그대로 보고만 있을수 없다.

오늘의 재일조선공민들은 나라없는 민족으로서 일제의 총칼과 채찍 밑에서 민족적 멸시와 천대를 받던 어제날의 조선사람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날로 륭성발전하고있는 영광스러운 사회주의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일본정부가 재일조선공민들과 학생들에 대한 온갖 박해와 탄압을 중지하고 재일조선학생들의 조국래왕을 가로막으려는 부당한 결정을 취소하며 재일조선공민들의 조국에로의 자유래왕과 귀국의 권리를 비롯한 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것을 다시금 강력히 주장한다.

오늘 일본의 광범한 사회계에서도 재일조선학생들의 조국방문에 대한 절절한 념원을 짓밟고있는 일본정부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만일 일본정부가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민족적 박해와 탄압을 계속하며 조국에로의 자유로운 래왕에 대한 그들의 정당한 요구를 계속 가로막는다면 전체 조선인민과 60만 재일조선공민들과 일본인민들을 비롯한 광범한 세계인민들의 더욱 준엄한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1970년 8월 11일
평 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성명

(미제의 추악한 앞잡이 캄보쟈의 론 놀—시리크 마타크도당이 캄보쟈에 있는 월남거류민들에 대한 범죄행위를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미제의 추악한 앞잡이 캄보쟈의 론 놀—시리크 마타크도당은 전세계 인민들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캄보쟈에 있는 월남거류민들에 대한 범죄행위를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월남거류민들에 대하여 온갖 야수적인 살인만행과 탄압을 계속하여온 론 놀괴뢰도당은 얼마전에 또다시 이른바 《정치범》의 딱지를 붙여 체포구금하고있던 월남거류민 700여명을 남부월남괴뢰도당에게 강제로 넘겨주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이것은 미제의 사촉밑에 론 놀괴뢰도당이 남부월남괴뢰도당과 손을 맞잡고 월남거류민들을 더욱더 많이 학살하려는것으로서 공인된 국제법의 규범과 초보적인 인권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며 월남인민과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에 대한 파렴치한 도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월남거류민들에 대한 론 놀괴뢰도당의 비인도적인 흉악한 살인폭압행위를 치솟는 격분으로 준렬히 단죄하며 론 놀괴뢰도당의 범죄행위를 규탄하여 발표한 8월 6일부 남부월남공화 외무성대변인의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미제의 사촉밑에 국가정변을 조작한 후 론 놀괴뢰도당이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적극 떠받드는 책동의 일환으로서 캄보쟈에 있는 월남거류민들에 대한 중세기적인 폭압과 학살만행을 계획적으로 끊임없이 감행하여왔다는 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론 놀괴뢰도당은 남부월남괴뢰도당과 공모결탁하여 이미 수십만에 달하는 무고한 월남거류민들을 아무 근거없이 닥치는대로 검거투옥하고 잔인하게 학살하였으며 그들중 많은 사람들을 미제의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남부월남괴뢰도당에게 강제로 넘겨주었다.

이것은 미제의 충실한 앞잡이이며 그의 침략정책수행의 하수인으로서의 론 놀—시리크 마타크도당의 더러운 정체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제와 론 놀—시리크 마타크도당은 월남거류민들에 대한 강도적살인만행을 그만두고 비법적으로 체포구금한 월남거류민들을 석방하여야 하며 그들을 남부월남괴뢰도당에게 넘겨주는 흉악한 범죄행위를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캄보쟈에 있는 월남거류민들의 생명재산은 보호되고 그들의 모든 생활상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만일 미제와 론 놀괴뢰도당이 월남거류민들에 대한 잔인무도한 범죄행위를 계속 저지른다면 그들은 월남인민과 캄보쟈인민 그리고 전세계 인민들로부터 더욱더 준엄한 규탄과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1970년 8월 15일
평 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성명

(라오스에 대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전쟁확대책동을 준엄히 단죄하여)

최근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 라오스우익반동들은 남부윁남괴뢰군과 타이의 고용병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라오스의 해방지역에 대한 새로운 군사적침략을 강화하면서 라오스에서 침략전쟁을 더욱 확대하는 길에 들어서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 라오스우익반동도당은 8월 9일 사라반주의 라오스해방지역에 남부윁남괴뢰군을 끌어들인데 뒤이어 또다시 타이고용병 4개대대를 포함하여 12개 대대의 침략무력을 쟈르평원의 서남부지역에 들이밀어 8월 16일부터 26일까지의 기간에 새로운 대규모의 침공작전을 감행하였다.

미제는 이 공격과 배합하여 수십대의 공중비적들을 동원하여 히엥쾅주의 파크카, 부옹 캄파 기타 여러 지역들을 야수적으로 폭격하였다.

같은 시기에 미제는 라오스우파괴뢰군 3개 대대를 루앙푸라방 동북부의 파크우지역에 침입시켜 폭격과 포사격의 지원밑에 야만적인 《소탕작전》을 벌리였다.

미제의 이러한 범죄적책동은 라오스인민의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며 라오스에 관한 공인된 국제적협정을 란폭하게 짓밟는 강도적침략행위이며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다.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8월 29일 성명을 발표하여 라오스해방지역에 대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모험적인 침략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그들이 라오스에 대한 침략전쟁의 계단식확대책동과 라오스해방지역에 대한 폭격을 중지하며 라오스문제를 라오스인민자신이 해결할수 있도록 할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 대변인의 성명에서 표명된 원칙적립장과 정당한 주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라오스에 대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와람한 침략전쟁확대책동을 준렬히 단죄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라오스에서 새로운 군사적모험을 감행함으로써 이른바 《닉슨주의》에 따라 《아세아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는》 방법으로 저들의 패배를 만회하며 남부윁남과 캄보쟈에서의 침략전쟁을 강화하는 동시에 라오스를 제놈들의 식민지로, 군사기지로 틀어쥐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떠한 교활한 책동과 발악적인 침략만행으로써도 저들의 흉악한 목적을 결코 이룩할수 없을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발악하면 할수록 그것은 인도지나 3개국 인민들의 전투적단결을 더욱 강화하게 하며 미제자신의 수치스러운 패망을 더욱 촉진시킬뿐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인도지나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조만간 인도지나에서 쫓겨날것이며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견결히 싸우고있으며 세계 모든 혁명적인민들의 강력한 지지와 성원을 받고있는 라오스인민은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할것이다.

조선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라오스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다.

1970년 9월 11일

평 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성명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새로운 침략전쟁준비를 다그치며 도발책동을 더욱 강화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새로운 침략전쟁의 준비와 도발책동을 계속 미친듯이 강화하고있다.

통신보도들에 의하면 미제국주의자들은 1970년 9월 23일부터 미제7함대소속 전투항공모함 《아메리카》호를 많은 구축함 및 호위구축함들과 함께 우리나라 동해에 끌어다놓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상륙작전훈련》을 벌려놓고있다.

이에 앞서 9월 21일부터 3일동안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른바 《유엔군의 일원》이라는 간판밑에 영제국주의자들의 해군 극동함대소속 항공모함을 우리나라 동해에 끌어들이고 남조선괴뢰군의 해군함정, 해병대 및 항공기들을 동원하여 《한, 영해군해병대 련합상륙작전》이라는 전쟁연습을 감행하였으며 9월 22일부터 2일동안에도 역시 우리나라 동해에서 남조선괴뢰군 전투병력과 해군함정들과 비행기들을 동원하여 《적진상륙작전》이라는 《최대규모》의 전쟁연습소동을 벌려놓았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련이은 전쟁준비책동은 결코 고립된 현상들이 아니다.

1970년 8월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성명이 지적한바와 같이 최근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이른바 《감축》이라는 기만적소동의 막뒤에서 남조선괴뢰군의 현대화를 촉진시키며 저들의 침략무력을 남조선에 더욱 집중시키는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각종 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격화시키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9월에 들어와서도 3일에는 조선서해 우리측 령공에 군용비행기를 여러차례 침입시켜 적대행위를 감행케하였으며 9월 7일부터 8일에 걸쳐 전선서부 림진강하류일대에서 수백발의 포탄과 1만여발의 총탄을 퍼붓는 등 엄중한 무장도발행위를 련이어 일으키고있다.

수많은 미제의 전쟁사환군들이 꼬리를 물고 남조선에 드나들고있는 가운데 8월에 미제의 전쟁두목 닉슨의 《특사》라는 간판을 단 악명높은 파쑈호전광인 미국부대통령 애그뉴가 남조선에 기여들어 전쟁도발을 고취하고 돌아갔다.

9월에는 미륙군참모총장이란자가 남조선에 또다시 기여들어 박정희괴뢰도당과 위험한 전쟁모의를 거듭한데 뒤이어 미태평양지구총사령부 《검열단》이란것이 무리를 지어 남조선에 쓸어들어 저들의 전쟁도발계획을 현지에서 검토하고 그의 실현을 다그치였다.

이와 함께 미제는 재생된 일본군국주의침략군대를 남조선에 끌어들이기 위하여 더욱더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실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얼마나 발악적으로 날뛰고있는가 하는것을 너무나도 똑똑히 보여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래년초에는 지난해 3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직접 《위협》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 벌려놓았던 도발적인 《포커스 레티너》 작전보다 더큰 규모의 《한미공수기동훈련》을 감행할것이라는것을 공공연히 떠벌이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전쟁 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나라의 정세는 극도로 긴장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인민을 반대하여 날로 강화하고있는 새 전쟁 도발책동을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서 준렬히 단죄하며 그들의 준동을 예리한 경각성을 가지고 주시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거듭 경고한바와 같이 조선인민은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키려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범죄적책동을 절대로 용허하지 않을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인민을 반대하여 감행하고있는 모든 침략과 새 전쟁 도발책동을 당장 중지하고 저들의 모든 침략군과 살인무기들을 걷어가지고 남조선에서 완전히 물러가야 한다.

조선인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만약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인민과 전세계 평화애호 인민들의 한결같은 규탄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 계속 정세를 격화시키며 끝끝내 전쟁의 길로 나간다면 그들은 더욱 비참한 패망을 당하고야말리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한다.

1970년 9월 26일
평 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성명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새로운 침략과 전쟁도발책동을 더욱 미친듯이 감행하고 있는것을 규탄하여)

최근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새로운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을 더욱 미친듯이 감행하고있다.

미제침략군은 조선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짓밟고 지난 10월 7일과 8일, 10일의 사흘동안에 연 4차에 걸쳐 전선서부 김포반도일대의 여러 지점들에서 우리측을 향하여 무려 10여만발의 중무기사격을 가하는 대규모적인 무장도발을 일으킴으로써 이 지역에 전쟁상태를 방불케하는 험악한 사태를 조성하였다.

이것은 미제침략자들이 최근 우리측을 반대하여 감행한 군사적도발행위중에서 가장 엄중한 사건의 하나이다.

이보다 앞서 9월 23일, 9월 27일에도 미제침략군은 박격포를 비롯한 중무기를 동원하여 전선중부에서 우리측을 향하여 수천발의 총포탄을 쏘댔으며 10월 1일에는 군용비행기를 또다시 전선서부 우리측 지역에 침입시켜 적대적도발행동을 감행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미 수많은 현대적 비행기들과 작전장비들을 비법적으로 남조선에 끌어들여 괴뢰군에 넘겨준데 뒤이어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무력을 계속 증강하기 위한 책동의 한고리로서 일본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제침략군 공군의 3개 대대의 《에프—4팬톰》 전투비행단을 10월말까지 끌어들이기로 하였다.

한편 미제국주의의 전쟁사환군인 미제7함대 사령관이란자는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우두머리들과 박정희괴뢰도당과 새 전쟁 모의를 벌리기 위하여 10월 12일 남조선에 기여들었다.

미제침략자들은 이와 같이 련일 군사적도발과 전쟁책동을 감행하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10월 9일과 12일 이틀사이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안에 연 200여명의 무장악당들을 동원하여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하고있는 우리측 인원들에게 불의에 집단적인 폭행을 가하는 엄중한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그후 미제침략자들은 우리측이 부른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도 응하지 않음으로써 군사정전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파괴하고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련이어 악랄한 도발행위를 감행하고있는 사실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이른바 《감축》이라는 기만적소동의 막뒤에서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들이 얼마나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는가 하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준다.

미제침략자들의 거듭되는 무장도발책동은 조선정전협정에 대한 참을수 없는 란폭한 위반으로서 조선인민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일뿐만아니라 아세아와 세계평화에 대한 새로운 엄중한 위협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무모한 새 전쟁 도발책동을 준렬히 단죄하며 이를 단호히 규탄한다.

이번에 감행한 미제침략자들의 군사적도발행위는 결코 고립된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 전쟁사환군들을 련이어 들여보내여 전

쟁준비상태를 현지에서 지휘감독하고 신형무기들과 작전장비들을 대량적으로 끌어들이면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키려고 감행하고있는 계획적책동의 산물이다.

미제의 거듭되는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에서 긴장상태는 극도로 첨예화되고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의 날로 격화되는 새 전쟁 도발책동은 그들의 강대성을 보여주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처지가 더욱더 어렵게 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의 무모한 도발책동을 항상 예리한 경각성을 가지고 주시하고있으며 미제의 어떠한 침공도 단호히 처부실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추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모든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을 당장 중지하여야 하며 저들의 침략군과 살인무기들을 걷어가지고 남조선에서 지체없이 물러가야 한다.

만약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규탄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 정세를 계속 격화시키며 끝끝내 전쟁의 길로 나간다면 그들은 준엄한 징벌을 면치 못할것이며 자신이 지른 불길속에서 영원히 타죽고야말것이다.

1970년 10월 14일

평 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성명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재일조선공민들의 조국에로의 자유로운 래왕을 가로막기 위하여 계속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지금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재일조선공민들의 조국에로의 자유로운 래왕을 가로막기 위하여 계속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1968년 7월 23일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행사에 참가할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은 조국을 방문하고 일본에 재입국할수 있도록 허가서를 내줄것을 일본당국에 신청하였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국가의 리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느니뭐니 하는 터무니없는 구실을 붙여 이를 거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0주년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은 일본정부가 이 부당한 조치를 취소할것을 요구하여 도꾜 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도꾜지방재판소는 이를 옹당한것으로 인정하고 일본당국이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의 조국래왕을 거부한것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후 도꾜고등재판소도 이와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당국은 저들의 부당한 립장을 합리화하여보려고 집요하게 시도하던끝에 일본최고재판소로 하여금 지난 10월 16일 도꾜지방 및 고등재판소의 원심판결을 파기케 하는 비렬한 행위를 감행하였다.

이것은 재일조선공민들의 신성한 민족적권리에 대한 횡포한 침해이며 조국으로의 자유래왕을 요구하는 60만재일동포들과 그를 적극 지지하는 조선인민과 광범한 일본인민들 및 세계 공정한 여론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다.

재일본조선인 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는 10월 16일 성명을 발표하여 일본당국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하고 재일조선공민들의 조국래왕의 자유를 즉시 전면적으로 인정할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재일조선공민들의 조국에로의 자유래왕을 가로막고있는 일본사또정부의 범죄적행위를 단호히 규탄하며 10월 16일부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해외공민들이 자기 조국으로 자유롭게 래왕하는것은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의하여 보장된 초보적인 인권에 속하는 문제이다.

힘있고 존엄있는 자주독립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당한 해외공민인 재일조선공민들의 자기 조국에로의 래왕은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그들의 신성한 민족적권리이다.

더우기 재일조선공민들로 말하면 그들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의 희생자들로서 일본땅에 강제로 끌려가갖은 천대와 멸시를 당하여온 사람들이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지난날 조선인민앞에 저지른 죄과로 보나 공인된 국제적관례와 인도주의적견지로 보나 재일조선공민들의 조국래왕을 비롯한 제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응당 보장하여야 할 법적 및 도의적의무를 지니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후 25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재일조선공민들의 조국래왕을 가로막고 그들을 감금상태에 몰아넣고있다.

이뿐만아니라 일본당국은 재일조선공민들에게 괴뢰 《한국국적》과 《영주권신청》을 강요하며 그들의 조국에로의 귀국사업을 파탄시키고 총련에 대한 파괴책동을 부단히 일삼고있다.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오만무례한 범죄행위이다.

오늘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을 날로 우심하게 감행하고있는것은 그들이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에 적극 복무하면서 박정희괴뢰도당과 결탁하여 남조선재침을 더욱 다그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강화하려는데서 나온것이다.

그러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그 어떠한 책동으로써도 재일조선공민들의 조국에로의 자유래왕의 길을 가로막을수 없으며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기 위한 그들의 정당한 투쟁을 멈춰세울수 없다.

일본정부는 재일조선공민들의 조국래왕을 방해하는 온갖 범죄적책동을 당장 그만두어야 하며 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무조건 보장하여야 한다.

만약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조일 두 나라 인민들과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강력한 규탄에도 불구하고 조국에로의

자유래왕을 비롯한 재일조선공민들의 제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계속 란폭하게 짓밟는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1970년 10월 24일
평 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성명

(미제국주의자들이 월남민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행위를 새로이 강화하려고 더욱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범죄적행위를 단호히 규탄하여)

요즘 미제국주의자들은 월남민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행위를 새로이 강화하려고 더욱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지난 11월 13일 미제침략군의 정찰비행기가 공공연히 월남민주공화국의 령공에 기여들어 간첩행위를 감행하다가 월남인민군의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격추당하게 되자 미제전쟁미치광인 국방장관 레어드는 뻔뻔스럽게도 앞으로 미제침략군의 《생명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느니뭐니하고 떠들었다.

바로 미제침략군의 정찰비행기가 월남민주공화국의 령공에 침입한것은 월남인민의 신성한 자주권에 대한 참을수 없는 침범행위이며 따라서 이 정찰비행기를 쏴떨군것은 월남인민의 당당한 자위권의 행사로서 침략자에 대한 응당한 징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침략자들이 이것을 구실삼아 월남민주공화국을 《다시 공격》 하겠다고 떠벌이고있는것은 월남인민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며 침략과 전쟁의 확대에 눈이 뒤집힌 미제국주의자들의 강도적본성을 더욱 낱낱이 드러내놓은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월남민주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침략자들의 이 범죄적행위를 단호히 규탄하며 11월 14일 미제의 새로운 전쟁확대책동을 단죄하여 월남민주공화국 외교부대변인이 발표한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이 터무니없는 구실을 붙여 월남민주공화국에 대한 침략행위를 더욱 강화하려 하고있는것은 월남에서 당하고있는 저들의 심대한 군사정치적패배로부터의 출로를 의연 침략전쟁의 확대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그러나 미제는 그 어떤 악랄한 책동으로써도 결코 저들의 침략적야망을 이룩할수 없으며 이미 깊이 빠져들어간 참패의 구렁텅이에서 헤여날수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월남인민을 반대하는 모든 침략행위를 무조건 영원히 그만두어야 하며 자기의 침략군과 추종국가 및 괴뢰들의 군대를 걷어가지고 남부월남에서 당장 물러가야 한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의 강력한 규탄에도 불구하고 월남침략전쟁을 확대하는 무모한 길로 나간다면 그것은 도리여 자신의 비참한 멸망을 더욱 앞당길뿐이다.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영웅적월남인민의 정의의 구국항전을 모든 힘을 다하여 계속 적극 지원할것이다.

세계 모든 혁명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으며 인도지나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싸우고있는 월남인민은 남부를 해방하고 북부를 수호하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하고야말것이다.

1970년 11월 17일
평 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성명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의 부추김밑에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에 대한 파괴모략책동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는것을 규탄하여)

요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부추김밑에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에 대한 파괴모략책동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7월부터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무력인 《자위대》의 한 대원이 조선사람으로 가장하고 총련 홋가이도 이부리히다까 지부에 교활하고 비렬한 수법으로 접근하여 총련 조직의 내부와 그의 활동정형을 은밀히 탐지하는 간첩행위를 한 사실이 최근 세상에 드러났다.

이 간첩행위가 《자위대》 당국의 직접적인 지휘밑에 감행되었다는것은 범죄자 자신이 《상관으로부터 정보수집에 대한 교육을 받고》 총련조직에 대한 계통적인 정탐활동을 하였다고 실토한 사실에 의하여 더 론박할 여지없이 확증되었다.

지금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움직일수 없는 엄연한 물질적증거들에 의하여 간첩행위의 진상이 이미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력 부인해보려고 어리석게 시도하면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도리여 범죄자인 저들의 《자위대》원이 그 누구에 의하여 《폭행》을 당하고 《협박》을 받아 《거짓사실》을 《진술》 하였다고 뻔뻔스럽게 떠벌이면서 부질없는 소동을 벌리고있다. 그들은 《자위대원》인 범죄자를 적극 비호하면서 그를 위해서 《법적수단을 취해야 한다》 느니뭐니하며

3명의 무고한 재일동포들을 경찰에 《고소》하게 하고 그에 대한 《수사》를 펴는 등 파렴치한 책동을 다하고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유린하는 엄중한 범죄행위일뿐만아니라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란폭하게 짓밟고 그의 참다운 합법적조직인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를 파괴하려는 흉악한 모략책동의 한 고리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의 또하나의 로골적인 표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총련에 대한 파괴책동과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을 일삼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범죄행위를 치솟는 격분으로 단호히 규탄한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침략적반동무력인 《자위대》를 시켜 총련에 대한 범죄행위를 감행한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본정부는 벌써 오래전부터 《자위대》원을 총련사무소에 제멋대로 침입시키며 완전무장한 《자위대》원들로 하여금 조선대학교를 과녁삼아 군사연습을 감행케 하는 등 온갖 파쑈적인 전횡을 다하였다.

이것은 《자위대》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탄압과 모략책동의 도구로 공공연히 리용되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는것이다.

이번 총련에 대한 《자위대》원의 정탐행위는 결코 우연적인 현상이 아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지시밑에 남조선괴뢰도당과 결탁하여 총련을 파괴하고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이른바 《간첩사건》을 비롯한 각종 《사건》들을 날조하여 총련일군들과 재일조선공민들을 부당하게 체포투옥하고 터무니없는 구실을 붙여 총련과 그 산하 기관들을 습격하고 기물들과 재물을 파괴략탈하며 조선인학생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갖은 비인도적만행을 다하여왔다.

최근에도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있지도 않는 《간첩사건》이라는것을 또다시 조작하여 2명의 재일조선공민들을 체포구금하고 이 《사건》에 총련이 관련되어있는것처럼 꾸며내려고 책동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요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일본으로부터 탄자니아에 발송된 출판물이 들어있는 어느 한 소포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사건》에도 마치 총련이 관련된듯이 떠들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전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높은 권위를 헐뜯어보려고 우리 나라의 각종 출판물들을 위조하여 배포하고 악의에 찬 허위선전을 감행하는 등 추악하고 비렬한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이러한 터무니없는 《사건》을 빈번히 조작하고있는것은 총련을 파괴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비방중상하려는데 그의 흉악한 목적이 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이 범죄적행위를 가리우기 위하여 갖은 기만적소동을 다 벌려놓고있으나 그것은 헛된 일이다.

일본당국은 그 어떠한 흉책으로써도 저들의 범죄행위를 결코 정당화할수 없다.

일본당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당한 해외공민인 재일조선공민들을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외국인으로서 응당 보호하고 그들의 모든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법적 및 도의적 의무를 지니고있다.

일본인민들과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오늘 총련과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일본당국의 박해와 탄압 책동을 한결같이 규탄하고있다.

일본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과 총련에 대한 온갖 파괴모략책동과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탄압행위를 당장 그만두고 자기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로의 귀국의 권리를 비롯한 재일조선공민들의 제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무조건 보장하여야 한다.

만일 일본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버리지 않고 총련과 재일조선공민들을 반대하는 범죄적행위를 계속 감행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1970년 12월 17일

평 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성명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범죄적책동을 더욱 미친듯이 다그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요즘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범죄적책동을 갈수록 더욱 미친듯이 다그치고있다.

12월 21일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사령부는 태평양 및 아세아 지역에 있는 미제침략군의 이른바 《재배치》의 한고리로서 일본 미자와공군기지에 있는 《에프-4팬텀》 전투폭격기들로 편성된 항공단을 남조선의 군산공군기지로 끌어들이며 또한 일본의 이다즈께공군기지에 있는 《이씨-121》 정찰기로 편성된 항공대를 남조선의 광주공군기지로 끌어들인다는것을 공포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이 무력증강책동은 조선정전협정에 대한 또하나의 가장 란폭한 유린행위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거듭되는 공공연한 도전행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이 흉악한 도발책동을 치솟는 격분으로 단호히 규탄한다.

최근년간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끊임없이 여러가지 현대적인 작전무기들과 군수물자들을 끌어들이며 새 전쟁준비에 피눈이 되어 날뛰어왔다.

미제침략자들이 또다시 남조선에 전투비행대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일뿐만아니라 이미 우리 공화국령공에 침입하여 정탐비행을 하다가 우리 인민군대 용사들의 단호한 징벌타격을 받고 격추된바있는 《이씨-121》 간첩비행기와 같은 형의 간첩비행기를 직접 남조선땅에까지 배치하기로 한것은 그들의 새 전쟁 도발음모가 얼마나 위험한 지

경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더우기 이번에 미제가 저들의 침략무력을 《재배치》하기로 한것은 일본군국주의자들과의 직접적인 결탁밑에 감행되고있는것으로 하여 더큰 위험성을 띠고있다.

미제는 일본 사또정부와 모의한 끝에 일본에 있는 저들의 침략기지들로부터 전투비행대들을 남조선의 전쟁기지에 옮기는것과 함께 그 기지들은 이른바 《공동관리》라는 간판밑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관리하에 넘기기로 하였다. 사실상 이것은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새 전쟁에 일본군국주의의 침략무력을 직접 끌어들이기 위한 《미일한》 공동작전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미 남조선에 침략의 마수를 깊이 뻗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이번 침략무력 《재배치》가 자기들에게는 《1962년 이래의 큰 변화》라고 떠들면서 조선에서의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에 적극 뛰어들 태세를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다.

모든 사실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악명높은 《새 아세아정책》에 따라 《미군감축》 이요뭐요하고 떠들어온것이 구경 새 전쟁 준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연막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똑똑히 실증하여주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의 끊임없는 침략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서 전쟁의 위험은 날을 따라 더욱더 커가고있다.

이것은 아세아와 세계평화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 침략전쟁을 확대함으로써 아세아에서 혁명력량의 급격한 장성을 가로막으며 식민지통치를 부지하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발악하면 할수록 자신의 멸망을 더욱 촉진시킬뿐이다.

조선인민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오늘의 현실을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고 엄격히 경고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무력증강과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새 전쟁도발책동을 당장 그만두어야 하며 남조선에서 모든 살인무기들을 걷어가지고 지체없이 물러가야 한다.

오늘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고 조선에서 평화를 유지하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은 아세아의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과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의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있다.

조선인민은 언제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쟁하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는 않으며 어떠한 제국주의 무력침공자도 다시는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소멸해버릴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있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감히 조선에서 또다시 새 전쟁을 도발하는 군사적모험의 길에 들어선다면 그들은 자신이 지른 전쟁의 불길속에서 영영 비참하게 타죽고야말것이다.

1970년 12월 24일

평 양

# 조선중앙통신사 성명

조선중앙통신사는 위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11일 전남조선비행사들인 유병하와 최석만은 미제의 야만적인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박정희괴뢰도당의 군사파쑈테로통치를 반대하여 비행기를 가지고 공화국북반부로 의거하여왔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지난 12월 25일 비행기에 탔던 승객들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조선의 해당한 민간단체대표들이 판문점에서 만날것을 제의하였다.

이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강점과 그 침략정책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이 갈라지고 자유로운 남북래왕의 길이 가로막힌 비정상적인 현사태하에서 승객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도였다.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우리의 이 동포애적이며 인도주의적인 제의에 대하여 절대적인 지지와 공감을 표시하였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를 승객문제가 조선인민의 내부문제이기때문에 제3자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조선사람들끼리 서로 협의하여 해결하자는것이였다.

그러나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이 문제에 아무런 관계도 없는 군사정전위원회와 제3자를 끌어들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였으며 남북조선의 해당한 민간단체대표들이 판문점에서 만나는것을 가로막아나섰다.

그들은 저들의 이와 같은 범죄적행위를 가리우며 사회여론을 오도하기 위하여 우리측이 승객들을 《인질》로 《억류》하고있다는 악랄한 기만선전과 허위날조를 일삼아왔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은 그 어떤 파렴치한 책동을 다한다하더라도 남북조선사람들의 접촉과 래왕을 한사코 방해하면서 조선인민에게 온갖 민족적불행과 재난을 들씌우고있는 저들의 추악한 범죄적정체를 가리울수 없다.

오늘 전체 조선인민과 정의와 인도주의를 사랑하는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은 남북조선의 민간단체대표들이 서로 만나 승객문제를 협의하는것을 반대하고 조선사람들이 제 나라 제 땅에서도 마음대로 오갈수 없게 하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치솟는 격분을 표시하고있으며 그를 강력히 규탄하고있다.

원래 우리가 남조선의 해당한 민간단체대표들과 만나자고 한것은 승객들을 지체없이 돌려보내자는 입장으로부터 출발하여 그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 구체적문제들을 협의하자는데 있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돌아가는 승객들에게 충분한 편의를 도모해주자는것이였다.

만일 남북조선의 해당한 민간단체대표들이 서로 만나 협의하였더라면 모든 문제가 다 순조롭게 해결되었을것이고 승객들도 아무 불편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수 있게 되었을것이다.

그러나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남북조선의 해당한 민간단체대표들이 만나는것을 끝끝내 방해하고있는 조건에서 부득불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협의하지 못한채 비록 승객들에게 불편이 있으리라고 예견하면서도 그들로 하여금 하루속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승객들을 희망에 따라 돌려보내는 일방적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승객들은 2월 14일 17시에 판문점을 통하여 돌아가게 될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동포애와 인도주의의 표시이다.

승객들은 공화국북반부에 있는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혈육의 정이 넘치는 따뜻한 보살핌속에서 아무런 불편없이 지냈으며 그들은 이에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하였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인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고 조국을 통일하여 남북조선의 모든 형제들이 아무런 방해도 받음이 없이 한강토에서 마음대로 오가고 할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1970년 2월 14일
평 양

# 조선중앙통신사 성명

조선중앙통신사는 4월 3일 저녁 공화국북반부로 들어온 일본항공회사소속 《보잉—727》 려객기사건과 관련하여 위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일본당국은 일본의 좌익계학생들에 의한 일본항공회사소속 《보잉—727》 려객기 《랍치》 사건을 일본령내에서 해결하지 않고 남조선의 김포비행장에서는 4일간이나 억류해두면서 《협상》 극을 벌려오다가 결국 승객들은 다 내려놓고 그대신 일본운수정무차관을 《인질》로 태워 사전예고와 우리의 동의없이 비행기를 공화국북반부령역에 들여보냈다.

한편 일본당국자들은 비행기를 《랍치》해가지고가는 학생들이 공화국북반부령역에 들어가는 경우 그들의 인도를 요구할것이라고 떠들었다.

일본당국자들은 일본령내에서 응당 저들이 할수 있는것을 하지 않고 또 저들자신이 학생들을 공화국북반부로 들여 보내고는 이제 와서 우리의 손을 빌어 이른바 범죄자를 잡아달라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아니고는 감히 할수 없는 파렴치한 망발이다.

우리는 결코 일본경찰의 역할을 대신할수 없다.

일본당국자들의 이와 같은 추악한 행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권위를 훼손시키며 우리 나라를 그 어떤 불순한 정치적모략에 끌어들이려는 교활한 책동이다.

지금 일본에서는 비행기를 랍치하여 가지고온 학생들이 《트로쯔끼분자》이고 《불량배》이며 사회주의나라들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자들이라는 등 여러가지 말들을 하고있으나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또 그들을 초청하거나 환영한다고 할바도 없다.

그러나 일단 일본학생들이 우리 나라 령역에 들어왔고 또한 그들자신이 일본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이상 우리로서는 그들을 돌려보낼수 없다.

우리의 해당기관은 이 학생들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사업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될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며 일본당국이 관여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존중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인도주의적조치에 따라 일본항공회사소속 《보잉—727》 려객기와 비행사들 및 인질로 잡혀왔던 일본운수정무차관은 4월 4일 오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반부령역에서 떠날것이다.

1970년 4월 4일
평 양

# 조선중앙통신사의 보도

(공화국북반부령역에 들어왔던 남반부어민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냄과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사는 공화국북반부령역에 들어왔던 남반부어민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냄과 관련하여 해당기관의 위임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얼마전 남반부어민들이 서해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불순한 날씨로 고생하던중 공화국령해를 지켜선 우리 인민경비대에 의해 구원되여 공화국북반부에 들어왔었다.

그들은 북반부지역에 다달은 첫시각부터 자기 고향으로 떠나는 전기간에 걸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한량없이 깊은 사랑과 육친적인 배려를 받으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였다.

공화국정부와 북반부인민들은 철천의 원쑤 미제와 그 충실한 개 박정희괴뢰도당의 가혹한 파쑈테로통치밑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남녘형제들을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남반부어민들을 뜨거운 혈육의 정으로 환대하여주었다.

그들에게는 생활상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의복, 신발 등 갖가지 필수품들이 푸짐히 차례졌으며 환자들과 허약자들은 제때에 효과적인 치료를 받아 모두 건강한 몸으로 되였다.

남반부어민들은 공화국북반부인민들에게는 물론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에게 있어서 더없이 고귀한 혁명적량식으로, 투쟁의 홰불로 되고있는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조선혁명의 뿌리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

그사이에 이들은 동포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비롯하여 여러곳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과 교육, 문화, 보건 기관들을 참관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북반부인민들이 지난 기간 공업, 농업, 국방 등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얼마나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그이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우리 인민의 전투적위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것을 감명깊게 느꼈다.

우리 나라가 발전된 사회주의공업국가이라는것을 실제로 본 남반부어민들은 그야말로 지상락원으로 변한 북반부의 벅찬 현실과 그리고 미제의 식민지파쑈통치로 인하여 인간생지옥으로 화한 남조선사회의 암담한 참상을 대비하여 보면서 북반부인민들이 누구나다 입을 걱정, 먹을 걱정, 쓰고 살 집 걱정, 병고칠 걱정, 자식 공부시킬 걱정없이 행복한 생활을 누리며 보람차게 일하고있는데 대하여 경탄을 금치 못해하였으며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똑똑히 깨닫게 되였다.

그들은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에게 짓밟히고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가 자립적인 현대적공업과 발전된 농업, 꽃피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와 금성철벽의 전인민적방위체계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여 《주체의 조국》, 《천리마조선》,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서 온 세상에 찬연한 빛을 뿌리게 된것은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의 결과이며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나는 열매이라는것을 깊이 알수 있었다.

이들은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심,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가슴불태웠으며 그이를 위대한 수령으로 모신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게 되였다.

남반부어민들은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이 미제의 격화되는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경제건설을 잘하면서도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계속 커다란 힘을 돌리고 있으며, 남녘형제들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지성원하며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앞당기기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고 있으며, 수령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천리마의 기세, 일당백의 기세로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고있는데서 커다란 고무를 받았다.

그들은 특히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경애하는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그이의 현명한 방침을 높이 받들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영용하게 싸울 때만이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조국통일의 위업을 성취할수 있다는것을 체득하게 되였다. 또한 남조선에서 민족적량심을 가진 민주인사가 정권에 들어앉아 미군철거를 주장하고 정치범들을 석방하며 민주주의적자유를 보장한다면 그들과 평화적조국통일문제를 가지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방침을 잘 알게 되였다.

남반부어민들은 4천만 겨레가 다같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크나큰 한품에 안겨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될 그날을 내다보며 11월 28일 북반부지역을 떠나갔다.

공화국정부는 그들이 자기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아갈수 있도록 배를 수리하여주고 생활필수품들을 마련해주었으며 또한 고향에 돌아간 다음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쌀, 옷감, 물고기 등을 이들에게 공급해주었다.

남반부어민들은 우리 혁명을 언제나 승리와 영광에로 인도하고계시며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에게 반미구국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진로를 밝혀주시며 지칠줄 모르는 투지와 승리의 확고한 신념을 안겨주시고 자기들에게 극진한 배려를 돌려주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깊은 감사를 드리였으며 그이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였다.

공화국정부는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북반부령역에 들어온 남반부어민들을 따뜻이 맞아들였으며 그들의 요구에 따라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키려고 미쳐날뛰고있는 미제는 제놈들의 침략책동에 일본군국주의자들까지 끌어들이는 한편 매국역적박정희괴뢰도당을 부추겨 공화국북반부에 들어왔던 남반부 어민들에게 터무니없는 《죄》를 들씌워 잡아가두고 가혹하게 탄압하는 파쑈적만행을 거리낌없이 감행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날로 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의 휘황찬란한 현실이 남반부인민들에게 널리 알려지는것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하고있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지어 바다에까지 이른바 《어로저지선》이라는것을 쳐놓고 남반부어민들이 마음대로 고기잡이조차 못하게 하고있을뿐더러 공화국북반부가 바라보이는 어장에 얼씬만 하여도 악명높은 《국가보안법》이니, 《반공법》이니 뭐니하고 휘두르면서 그들을 마구 검거투옥하고 살인재판을 벌려놓는 등 천추에 용납못할 죄행을 저지르고있다.

남조선경제를 여지없이 파탄시키고 어민들을 포함한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폭압에 매달리고있는 미제와 그 앞잡이 박정희괴뢰도당의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는 멸망에 직면한자들의 단말마적발악에 지나지 않으며 미제야말로 우리 인민의 악독한 원수이며 가장 포악한 교형리이며 동서고금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흉악한 침략자이라는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개무리들이 현실을 똑바로 보지 않고 무분별하게 날뛰면서 남반부어민들에게 계속 파쑈적폭압을 가한다면 놈들은 전체 남북조선 인민들의 준엄한 심판과 천백배로 되는 복수의 징벌을 면치못할것이다.

1970년 11월 28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안전성 보도

(우리 나라 령해에 불법침입한 일본선박 《미쯔마루》호와 그 선원들을 돌려보냄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안전성은 1970년 9월 8일 북위 39도 51분, 동경 127도 53분의 우리 나라 령해에 깊이 불법침입한 일본선박 《미쯔마루》호와 그 선원들을 억류하고 해당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확인한데 의하면 《미쯔마루》호는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준비의 일환으로서 정탐 및 적대행위를 감행할 목적으로 우리 나라 령해에 의식적으로 침범하였으며 선장 하바노 쇼기찌와 선원1명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정탐기관의 간첩으로서 여러차례에 걸쳐 우리 나라에 나들면서 우리의 국

가적 및 군사적비밀을 탐지하는 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정탐활동을 오래전부터 계통적으로 감행하였다.

이들은 자기들이 감행한 정탐행위를 전적으로 인정하였으며 이들의 범죄는 과학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증되였다.

《미쯔마루》호의 우리 나라에 대한 정탐행위는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새 전쟁준비에 얼마나 미쳐날뛰고있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미제는 매일과 같이 우리 나라 군사분계선과 해안에서 군사적도발행위를 계속 감행하는 한편 무장간첩선과 간첩악당들을 침입시키고있을뿐만아니라 일본군국주의자들까지 내세워 우리 나라에 대한 정탐과 적대 행위를 집요하게 감행하고있다.

조선인민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감행하고있는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견결히 규탄한다.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간첩행위를 감행한 《미쯔마루》호의 선원들은 응당 우리 나라의 해당한 법에 의하여 단호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안전성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정탐기관의 고용간첩으로서 우리 나라에 대한 정탐행위를 계통적으로 감행한 선장 하마노 쇼기찌와 선원 1명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당한 법에 의하여 처벌하기로 하였다.

기관장 사까시다 하쯔이찌를 비롯한 그밖의 선원들도 이들의 범죄행위에 가담하여 정탐활동을 적극 협조하여준 범죄자들로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은 그들자신에게만 있는것이 아니라 이 범죄를 조작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있으며 그들이 다시는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감행하지 않을것을 맹세한 사실과 그 가족들의 처지를 고려하여 관대히 용서하여주고 선박과 함께 돌려보내기로 하였다.

이것은 조, 일량국인민들간의 친선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시종일관 꾸준히 노력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관대한 조치에 의하여 취하여진것이다.

만일 일본 사또반동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와 같은 관대한 조치를 악용하여 또다시 우리 나라를 반대하는 적대행위를 감행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억류되였던 《미쯔마루》호와 돌려보내기로 한 선원들은 수일내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될것이다.

1970년 11월 13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보위성대변인성명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남조선에 불시착륙한 조선인민군 비행사를 강제억류하기 위한 모략책동을 더욱 강화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요즘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에 불시착륙한 조선인민군 비행사를 강제억류하기 위한 모략책동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12월 3일 함산에서 리륙하여 표적비행훈련을 하던 조선인민군 비행기 한대가 항로미실로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불시착륙한지 벌써 열흘이 지났다.

그러나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아직 우리 비행사와 비행기를 돌려보내지 않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이 조선인민군 비행사와 비행기의 송환을 이처럼 끌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여기에는 불순한 정치적모략을 꾸미려는 흉악한 목적이 숨어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우리 비행사가 남조선지역에 불시착륙하자마자 앞뒤를 가리지 않고 조급히 서둘러 마치 그가 《귀순》한것처럼 사실을 허위날조하여 류포시켰다.

다른 한편 미제국주의자들은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와 비서장회의에서 우리 비행사를 비행기와 함께 즉시 돌려보내야 한다는 우리측의 정당한 요구에 순응할대신에 저들의 충실한 주구인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음모를 뒤받

[illegible]

보아야 하겠다는 구실밑에 우리 비행사와 비행기의 조속한 송환문제의 해결을 고의적으로 계속 지연시키고있다.

저들의 범죄적목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비인도적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으며 위협과 공갈, 사기와 협잡을 일삼는것은 미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의 더러운 상투적수법이다.

지금 박정희괴뢰도당은 어떻게 하면 남조선에 불시착륙한 조선인민군 비행사를 《귀순》한것처럼 꾸며 강제억류할것인가에 대하여 쑥덕공론을 거듭하면서 우리 비행사를 굴복시켜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다.

이것은 박정희괴뢰도당이 조선인민군 비행사의 즉시 송환요구를 《거절》하고 그를 남조선에 《영주》시키기로 《유엔군사령부》와 《합의》했다고 떠벌이고있는 사실에서도 여실히 실증되고있다.

그러나 박정희괴뢰도당은 그 어떤 교활하고 악랄한 술책으로써도 저들의 추악한 범죄적목적을 이룩할수 없을것이다.

박정희괴뢰도당이 우리 비행사가 남조선에 불시 착륙한지 열흘이 지난 지

[illegible]

겠다고 떠벌이면서도 이에 대하여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고있는것은 우리 비행사가 굴복하지 않고 사회주의조국의 영예와 혁명적지조를 꿋꿋이 지켜싸우고있다는것을 웅변히 보여주는것이다.

조선인민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불시착륙한 조선인민군 비행사와 비행기를 강제억류하려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비렬한 음모책동을 치솟는 격분으로 단호히 규탄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전례를 무시하고 우리 비행사와 비행기를 끝끝내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그것이 앞으로 저들자신에게 어떠한 후과를 가져다주게 될것인가에 대하여 똑똑히 알아야 한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조선인민군 비행사를 강제적으로 억류하려는 부질없는 책동을 당장 그만두어야 하며 그를 비행기와 함께 지체없이 돌려보내야 한다.

만일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이 조선인민군 비행사를 강제억류하려는 범죄적책동을 계속한다면 그들은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더욱 강력한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1970년 12월 12일

평 양

# 공동성명, 공동콤뮤니케, 공동보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캄보쟈왕국의 공 동 성 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인 김일성수상과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최용건위원장의 초청으로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이 1970년 6월 15일부터 7월 1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방문하였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과 함께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 수상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장인 펜 누트친왕과 그 부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아들 노로돔 유바나토친왕,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고모 노로돔 케트 까니아공주,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왕국민족련합정부 군사장비및군비상인 두옹 삼 올소장과 그 부인, 중화인민공화국주재 캄보쟈왕국 계르 메아스대사와 그밖의 수원들인 친왕부인의 보좌원 꾸룬부인, 국가원수의 개인비서실장 싸르 싸오르트부인, 국가원수의 부관 옹메앙대위,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성원들인 하이 킴 쎄앙, 한 마트, 렌 바싸이가 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는 동안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그 일행은 평양시를 비롯하여 이르는곳마다에서 조선인민의 열렬한 환영과 환대를 받았다.

이것은 국가원수친왕과 캄보쟈인민에 대한 조선인민의 깊은 존경과 두터운 형제적친선의 정을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조선인민과 캄보쟈인민사이의 불패의 전투적단결을 시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머무르는 동안 김일성수상과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사이에 여러차례 회담이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조선측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최용건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김일제1부수상, 박성철부수상겸 외무상 그리고 캄보쟈왕국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응률대사가 참가하였다.

캄보쟈측에서는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 수상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장인 펜 누트친왕,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 군사장비및군비상인 두옹 삼 올소장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재 캄보쟈왕국 앙 김 코안대사가 참가하였다.

형제적친선과 전투적단결의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회담에서는 현국제정세문제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의 강도적무력침략으로 말미암아 캄보쟈와 인도지나전역에 전쟁의 불길이 확대되고있으며 아세아의 전반적지역에서 전쟁의 위험이 커가고있는데 대한 문제, 조선인민과 캄보쟈인민사이의 친선과 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며 미제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그밖의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으며 토의된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았다.

김일성수상과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오늘 국제무대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 신생독립국가 및 진보적민주주의력량을 한편으로 하고 제국주의와 반동세력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두 세력간에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고있는 가운데 전반적정세는 계속 혁명력량에 유리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제국주의가 멸망하는것은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이라고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는 내리막길을 걷고있다. 그러나 미제는 의연히 침략의 야망을 버리지 않고 잃어버린 진지를 되찾으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으며 자기의 강도적본성을 더욱더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다.

미제국주의는 폭력에 의거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 민족적독립국가들을 반대하는 침략행위를 감행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며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평화를 교란하고있다.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은 지금 침략의 예봉을 아세아에 돌리고있다.

김일성수상과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오늘 아세아가 혁명세력들이 휘몰아치는 지대로 세계적범위에서 벌어지고있는 혁명투쟁의 기본무대로 되고있기때문에 미제국주의자들이 더욱더 많은 미국무력을 이 지역에 집중하고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비롯한 괴뢰들과 추종국가들을 동원하여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과 민족적독립국가들을 공격하며 이 지역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을 진압함으로써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부지하려 하고있다고 한결같이 지적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캄보쟈에 대한 무력침략을 감행함으로써 전쟁의 불길을 인도지나전역에 확대하고있을뿐만아니라 조선에서 새 전쟁 도발책동을 날로 격화시키고있으며 대만해협에서 계속 정세를 긴장시키고있으며 아세아의 전반적지역에서 전쟁의 위험을 날카롭게 조성하고있다.

모든 사실은 미제국주의야말로 현대의 가장 야만적이고 파렴치한 침략자이며 세계반동의 원흉이며 민족적해방과 독립의 교살자이며 세계인민들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김일성수상과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으로 말미암아 오늘 아세아에 조성된 정세에 비추어 이 지역의 모든 혁명적 나라들과 인민들이 미제를 반대하는 공동전선을 강화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인정하였다.

김일성수상은 지난 3월 미제가 캄보쟈에서 반동적인 국가정변을 조작하여 론 놀—시리크 마타크반역도당을 정권에 비법적으로 들여앉히고 뒤이어 미

제침략군과 남부월남괴뢰군을 대대적으로 투입하여 캄보쟈에 대한 야만적인 무력침략을 감행하여나섬으로써 캄보쟈인민에게 력사상 있어보지 못한 파괴와 인간적인 고통과 민족적멸시 그리고 재난과 가장 큰 불행을 들씌우고있는데 대하여 다시금 준렬히 단죄하였다.

캄보쟈왕국은 지난 열여섯해동안 캄보쟈인민의 탁월한 령도자이며 저명한 반제투사인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올바른 령도밑에 독립, 평화, 자유를 누려왔다.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파괴암해책동을 단호히 물리치면서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성과적으로 건설하여 캄보쟈를 동남아세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의 하나로 끌어올렸다.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시종일관 반제평화애호적대외정책을 실시하면서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월남인민의 영웅적투쟁과 라오스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비롯하여 자유와 해방과 민족적독립의 공고화를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반식민주의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견결한 반제적이며 애국적인 립장과 그의 과감하고 정당한 정책들은 전체 캄보쟈인민의 두터운 신임과 존경을 받았다.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또한 세계인민들속에서 견결하고 용감한 반제투사로, 자유애호인민들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열렬한 고무자로 널리 알려졌으며 높은 존경을 받아왔다.

미제에 의한 국가정변조작후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캄보쟈인민의 오랜 반제투쟁전통을 계승발전시키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싸워이기려는 캄보쟈인민의 확고한 결의를 반영하여 견결하고도 현명한 여러 조치들을 취하였다.

김일성수상은 캄보쟈가 지난시기 독립과 자유를 누리고 평화애호적이며 중립적인 나라로서 국제적으로 커다란 존경과 신임을 받아온것은 오직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일관한 반제적이며 애국적인 립장과 과감하고도 정당한 정책의 결과였다고 강조하며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짓부시기 위하여 취한 모든 올바른 조치들과 그의 불굴의 반제반미투쟁정신을 높이 평가한다.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기세찬 항쟁의 불길속에서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호소에 따라 캄보쟈민족통일전선이 결성되고 그 령도하의 왕국민족련합정부가 수립되였으며 오늘 애국적캄보쟈인민과 민족해방군이 원수들에게 끊임없이 타격을 주고 이미 광대한 지역을 해방하였으며 계속 새로운 전과를 거두고있다.

김일성수상은 형제적캄보쟈인민이 거두고있는 이 승리와 성과를 조선인민자신의 성과와 같이 기뻐하며 캄보쟈 국가원수이며 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전체 캄보쟈인민에게 가장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김일성수상은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캄보쟈인민의 유일한 합법적정부인 캄보쟈민족통일전선 령도하의 왕국민족련합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애국적캄보쟈인민과 민족해방군이 반드시 온 캄보쟈땅을 완전히 해방하고 민족통일전선의 기치밑에 독립되고 자유롭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번영하는 캄보쟈를 건설할 날이 오고야 말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이 앞으로도 공동의 원수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형제적캄보쟈인민의 정의의 반미구국투쟁이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때까지 정신적으로뿐아니라 물질적으로 필요한 모든것을 다하여 적극 지원할것이라는것을 다시금 엄숙히 선언한다.

김일성수상은 캄보쟈문제가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3월 23일 5개항목선언에 따라 캄보쟈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미제국주의자들이건 일본군국주의자들이건 또는 유엔이건 그 어떤 국제기구이건 캄보쟈인민의 내정문제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성명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일본 사또정부를 주모자로 내세워 아세아의 괴뢰들과 추종국가들을 끌어모아 쟈까르따에서 벌려놓았던 이른바 《아세아태평양국가회의》는 미제의 캄보쟈침략을 《정당화》하고 론놀—시리크 마타크괴뢰정권을 《합법화》하며 캄보쟈에 대한 집단적무력간섭의 길을 터놓기 위하여 꾸며낸 흉계에 지나지 않았다. 이 《회의》의 간판을 내들고 일본을 비롯한 3개나라 대표들이 악랄하게 추진시키고있는 음모책동은 캄보쟈의 자주권에 대한 참을수 없는 침해이다.

김일성수상은 현시기 캄보쟈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그 어떤 새로운 국제회의도 필요없으며 오직 미제국주의자들이 인도지나에 관한 1954년 제네바협정과 라오스에 관한 1962년 제네바협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미제침략군과 그 추종국가 및 괴뢰들의 군대가 인도지나 전역에서 즉시 무조건 완전히 물러가야 한다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정당한 주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김일성수상은 또한 캄보쟈의 여러 지방들과 연해도서들에 대한 남부월남과 타이괴뢰도당의 팽창주의적야망을 견결히 배격하고 미제침략군과 그 앞잡이 타이 고용군들이 계속 캄보쟈를 군사적으로 침략하는 한 캄보쟈인민들은 자기의 독립과 자주권과 령토완정에 대한 횡포한 국제적침해로부터 조국을 해방하는데 방조할것을 형제적인 월남과 라오스 인민이외의 다른 친선적인민들에게도 호소할 권리를 보유하고있다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선언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그것을 캄보쟈인민의 응당한 권리라고 인정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캄보쟈의 현국경선을 인정함으로써 독립과 령토의 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캄보쟈인민의 투쟁을 항상 견결히 지지하였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캄보쟈인민이 이 위대한 친선적형제국가의 견결하고 시종일관한 지지를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함께 캄보쟈민족통일전선과 그에 기초하여 조직된 왕국민족련합정부를 승인한 첫주권국가이라는 사실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및 다른 친선적인 나라들(꾸바공화국, 월남민주공화국, 남부월남공화림시혁명정부,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아랍련합공화국)과 함께 론놀—시리크 마타크반역도당정권과의 외교관계를 단호히 끊어버렸다는것을 강조하고 모든 캄보쟈의 애국자들과 항쟁투사들 그리고 캄보쟈 후대들은 이에 대하여 위대한 조선 인민과 정부와 경애하는 위대한 수령이며 캄보쟈조선간의 친선과 련대성의 옹호자인 김일성원수께 충심으로 존경을 표시하며 영원히 감사를 드릴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또한 3월 18일 국가정변을 일으킨 분자들과 그들의 상전인 미제에 의하여 캄보쟈인민과 조국이 큰 불행에 잠기게 된 첫 시각부터 현명한 김일성원수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하여 그들을 도와주며 민족해방투쟁을 조직할수 있도록 무한한 동정과 효과적인 지지를 주었으며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도 계속 지지와 원조를 주고있는것은 자유와 독립과 자주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월남 및 라오스인민

들과 어깨겯고 싸우고있는 캄보쟈인민의 신성한 투쟁에 대한 귀중한 고무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수상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훌륭히 구현하여 조선인민이 미제의 죄악적폭격만행으로 말미암아 조선전쟁시기 무참히 파괴되였던 평양시와 온 나라의 심대한 상처들을 몇해동안에 완전히 가시고 사회주의건설과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이룩한 경탄할만한 성과들에 대하여 커다란 감탄을 표시하며 오늘도 조선인민이 미제의 날로 격화되는 새 전쟁 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힘있게 병진시키면서 계속 거두고있는 새롭고 거대한 성과들을 열렬히 축하한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남조선에서 감행되고있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가장 반동적인 군사파쑈통치를 강력히 규탄하고 자유와 해방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벌리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반미구국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표시한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완전히 무조건 철거시키고 유엔이나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자기 조국을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통일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정당한 립장과 조선인민의 거족적인 투쟁에 무조건적인 지지를 다시금 표명한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친제국주의적파시스트분자들인 론 놀—시리크 마타크도당이 캄보쟈의 합법적정권을 짓밟고 남조선의 박정희괴뢰도당과 치욕스러운 협조관계를 맺었지만 캄보쟈인민과 그의 민족통일전선과 캄보쟈국가원수와 합법적정부는 오직 김일성원수께서 령도하시는 하나의 조선과 하나의 정부만을 인정한다는것을 다시금 세계에 선언한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조선에서 새 전쟁의 위험이 한시적으로 떠돌며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념원인 나라의 통일이 오늘까지도 실현되지 못하고있는 근본원인이 무엇보다도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그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있다고 준렬히 단죄하며 이 근원을 없애자면 무엇보다도먼저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야 한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주장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한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유엔이 더는 조선문제에 간섭하지 말아야 하며 유엔군의 간판밑에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을 끌어내가며 미제의 침략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당장 해체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김일성수상은 캄보쟈왕국과 전체 캄보쟈인민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조선인민의 유일한 합법적국가로 인정하고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 침략정책을 언제나 신랄히 폭로규탄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백방으로 적극 지지하여주고있으며 유엔과 그밖의 국제무대에서 조선인민의 이 성스럽고 정당한 위업을 열정적으로 그리고 강력히 대변하여 투쟁한데 대하여 캄보쟈인민의 탁월한 령도자이며 조선인민의 친근한 벗인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전체 캄보쟈인민에게 가장 깊은 감사를 드리였다.

김일성수상은 또한 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에서 거둔 조선인민의 빛나는 성과에 대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높은 평가와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위업에 대하여 주고있는 그의 절대적인 지지성원를 조선인민은 매우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그를 언제나 잊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일성수상과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전쟁확대책동으로 말미암아 인도지나에 조성된 사태와 관련하여 그에 대처할 투쟁대책을 토의하고 력사적인 공동선언을 채택한 인도지나인민들의 수뇌자회의가 미제에 공동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주도록 캄보쟈, 윁남, 라오스 등 인도지나 세 나라 인민들의 전투적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고 만족스럽게 지적한다.

김일성수상과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캄보쟈에 대한 무력침공과 때를 같이하여 윁남민주공화국에 대한 폭격을 재개하고 남부윁남에서 살륙적인 침략전쟁을 계속 확대하며 전쟁의 《윁남화》계획의 실현을 다그치고 남부윁남 강점을 영구화하려고 책동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쌍방은 윁남인민이 미제침략자들에게 계속 심대한 군사정치적패배를 주고 그들을 헤어날수 없는 구렁텅이에 몰아넣고있으며 인도지나인민의 해방투쟁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정의의 반미구국항전에서 형제적윁남인민에게 더 큰 성과가 있을것을 열렬히 축원한다.

윁남문제는 윁남민주공화국 정부의 4개항목의 립장과 남부윁남민족해방전선과 남부윁남공화림시혁명정부의 10개항목의 전면적해결책에 기초하여 윁남인민 자신의 손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한다.

김일성수상과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라오스에서 《특수전쟁》을 강화하고 해방지역에 대한 폭격을 야수적으로 감행하며 무력간섭을 강화하고있는 미제의 침략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민족적독립을 위한 형제적라오스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한다.

쌍방은 라오스문제가 라오스에 관한 1962년 제네바협정과 라오스의 현실정에 기초하여 해결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의 1970년 3월 6일 5개항목해결책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다시금 표명한다.

미제를 반대하여 캄보쟈, 윁남, 라오스 인민들이 벌리고있는 투쟁은 자기 나라의 자유와 민족적독립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인 동시에 인도지나와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정의의 투쟁이다.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하여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귀중히 여기는 세계 모든 나라인민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인도지나전역에 침략전쟁의 불길을 확대하면서 인민들의 자유와 독립을 말살하려고 횡포무도하게 날뛰고있는것을 결코 그대로 보고만 있을수 없으며 미제의 위험한 침략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의 강력한 지지밑에 캄보쟈, 윁남, 라오스 인민들은 단합된 힘으로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완전히 때려부시고 반드시 영광스러운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고야 말것이다.

김일성수상과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령토인 대만을 계속 강점하고 그를 기지로 하여 중국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는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미제의 강점으로부터 대만을 해방하고 령토완정을 이룩하기 위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형제적중국인민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쌍방은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아세아에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가 미제의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서 또다시 아세아 여러 나라 인민들을 반대하는 공공연한 침략의 길에 나서고있는데 대하여 신중한 주의를 돌리였다.

미제는 이른바 《닉슨주의》의 간판밑에 조선과 아세아 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의 앞장에 일본군국주의세력을

공공연히 내세우는 단계에 본격적으로 들어서고있으며 일본을 골간으로 하여 남조선, 대만, 남부웰남, 타이와 같은 아세아 괴뢰들과 추종국가들을 《반공》 군사동맹에 묶어세워 《아세아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는》 방법으로 저들이 처한 궁지로부터 벗어나보려고 미쳐날뛰고있다.

력사적으로 큰놈을 등에 업고 《횡재》하는데 버릇이 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교활하고 음흉한 미제의 이 침략책동에 적극 가담하는 대가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할것을 망상하면서 나라의 군국화와 파쑈화를 다그치며 해외침략을 적극 강화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조선과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계획까지 이미 짜놓고 남조선에 물밀듯이 쓸어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에 적극 끼여들고있으며 미제와 더불어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강화하고있으며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복무하고있으며 캄보쟈에 대한 미제의 침략정책을 떠받드는데 있어서도 그에 열심히 복무하고있는 무리의 앞장에 서 나가고있다.

쌍방은 현시기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라고 인정하면서 아세아와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견결히 전개할 굳은 결의를 표명한다.

쌍방은 미일 《안보조약》을 자동적으로 연장하여 아세아에 대한 침략을 공동으로 확대하려는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의 공모결탁을 단호히 규탄하며 반미반독점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미제의 전쟁정책과 일본군국주의재생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있는 일본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김일성수상과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의 강도적이며 파렴치한 침략책동을 단호히 규탄하며 민족적독립과 령토완정을 수호하고 팔레스티나인민의 해방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친선적아랍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쌍방은 꾸바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간섭책동을 준엄히 단죄하고 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키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으며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 있는 영웅적꾸바인민의 불굴의 투쟁에 굳은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한다.

쌍방은 미제국주의자들의 강도적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여 미국인민들속에서 날로 고조되고있는 반전운동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며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미국흑인들의 용감한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

쌍방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자유와 해방,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의 혁명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한다.

김일성수상과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의 격화되는 침략책동은 그들의 강대성을 보여주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처지가 더욱더 어렵게 되어간다는것을 실증하여주는것이라고 일치하게 인정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캄보쟈에 대한 무력침략을 감행함으로써 전세계 인민들속에서와 미국안에서까지 일찌기 없었던 일치한 분노와 반항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도리여 더욱 궁지에 빠져들어갔다.

혁명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견결히 투쟁할 때 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발악적책동도 능히 때려부실수 있다.

아세아인민들은 지난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에서 단결의 힘에 의하여 승리한 빛나는 력사를 가지고 있다.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은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어깨겯고 싸워이겼으며 조선전쟁때도 힘을 합하여 미제의 코대를 꺾어놓았다. 인도지나인민들은 프랑스제국주의와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을 함께 벌려 승리하였으며 오늘 캄보쟈, 웰남, 라오스 등 인도지나전역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은 패배를 거듭하고있다.

캄보쟈, 웰남, 라오스 세 나라 인민들이 벌리고있는 영웅적투쟁의 결과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공동의 원수와 그 충실한 괴뢰정권을 반대하여 진행하고있는 다른 인민들의 투쟁의 결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있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제국주의와 신식민주의가운데서도 가장 흉악하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교활한 미국의 도전에 과감히 맞서나선 웰남, 라오스 그리고 인민적캄보쟈에 지지와 성원, 효과적인 련대성과 물질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주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캄보쟈로부터 라오스, 웰남, 중국, 조선, 그리고 아세아의 그밖의 지역에 이르는 혁명적인민들이 공동전선을 펴고 미제에 집단적으로 달라붙어 타격을 가한다면 능히 그를 때려눕힐수 있을것이다.

김일성수상과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반제반미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 확고한 결의를 표명한다.

쌍방은 캄보쟈국가원수이며 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두번째로 되는 이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방문이 반미공동투쟁에서 조선인민과 캄보쟈인민사이의 불패의 전투적단결과 믿음직한 협조를 가장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며 아세아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반대하는 혁명적인민들의 반미공동전선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기여로 된다고 만족스럽게 지적한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조선에 머무르는동안 각별히 성대한 환영과 열렬하고 형제적인 환대를 베풀어준데 대하여 김일성수상과 그이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에게 가장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한다.

1970년 6월 30일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며 내각 수상인
김 일 성

캄보쟈국가원수이며 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

# 조선로동당대표단과 아랍사회부흥당대표단간의 공 동 콤 뮤 니 케

아랍사회부흥당 민족지도부의 초청에 의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동규국제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이 1970년 4월 4일부터 12일까지 수리아아랍공화국을 공식방문하였다.

조선로동당대표단은 수리아아랍공화국에 머무르는동안 당 및 정부의 간부들과 접촉하였으며 당조직들과 사회단체지도부와 상봉하였다. 또한 대표단은 방문기간 아랍사회부흥당창건 23주년 경축군중집회에 참가하였다.

대표단은 가는곳마다에서 조선인민에 대한 아랍인민의 친선과 단결의 감정을 표시한 열렬한 환영과 환대를 받았다.

대표단은 아랍사회부흥당 총비서이며 수리아아랍공화국 국가수반이며 내각 수상인 누레딘 아따씨박사의 접견을 받았으며 아랍사회부흥당 살라흐 져디드부총비서와 당민족지도부 성원이며 유격행동부장인 유쎄프 자인박사와 상봉하였다.

대표단은 아랍사회부흥당 다마스커스지부 조직지도부와 알렙포와 홈스도지부, 로동자총련맹, 농민총련맹 지도부와 상봉하였으며 일련의 공장들과 팔레스티나유격부대들을 방문하였다.

대표단은 수리아아랍공화국에 머무르는동안 근로대중이 아랍사회부흥당의 령도밑에 공업 및 농업의 발전, 사회주의적 개조, 제국주의와 유태복고주의에 의하여 강점된 령토를 해방하기 위한 군중조직사업과 총동원사업에서 이룩한 커다란 성과들을 돌아보았다.

체류기간 조선로동당대표단과 아랍사회부흥당대표단사이에 회담이 진행되였다.

회담에 참가한 조선로동당대표단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동규국제부장을 단장으로 하고 대표단 단원들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김윤선부부장, 수리아아랍공화국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리성히특명전권대사로 구성되였다.

아랍사회부흥당대표단은 아랍사회부흥당민족지도부 집행위원이며 정치국위원인 모하메드 알할 라우이박사를 단장으로 하고 단원들인 아랍사회부흥당 민족지도부 하킴 알파이즈집행위원, 지역지도부 집행위원인 하비브 하따드박사, 민족지도부 아델 나이파 조직부 부부장, 모하메드 알 준디 당학교 교장, 민족지도부 대외관계부 모하메드 하싼 이브라힘지도원으로 구성되였다.

회담은 조선로동당과 아랍사회부흥당, 조선인민과 아랍인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모든 분야에서 더욱 발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신 김일성내각수상을 수반으로 하고 아랍사회부흥당 총비서이며 수리아아랍공화국 국가수반이며 내각 수상인 누레딘 아따씨박사를 수반으로 하는 당 및 정부대표단사이에 진행된 회담과 그에 뒤이어 1969년 10월 6일에 발표된 공동콤뮤니케에서 표시된 정신에 기초하여 회담은 친선과 호상신뢰의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쌍방은 회담에서 자기들이 달성한 성과들을 소개하였으며 조선로동당과 아랍사회부흥당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계속 발전시킴데 대한 공통된 념원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대표단은 현단계의 국제정세에 대하여 토의하였으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세계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과 관련한 모든 문제들에서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았다. 이것은 공동투쟁을 진행하고있는 조선로동당과 아랍사회부흥당, 조선인민과 아랍인민사이에 맺어진 원칙적이며 전투적인 관계의 깊이를 반영하고있다.

두 대표단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기타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싸우고있는 인민들의 안전과 자유와 부원이 세계제국주의자들의 계속되는 침략을 받고있는데 대하여 류의하면서 모든 형태의 제국주의통치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앞에는 오직 혁명의 한길밖에 없다고 인정하였으며 모든 진정한 혁명은 반드시 민족적독립을 달성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락후성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을 이룩하며 모든 민족적자원을 장악하고 그를 경제 및 사회적 발전과 새 생활건설에 복무시켜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쌍방은 자유와 민주주의, 민족해방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피압박, 피착취 인민들을 반대하여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세력이 감행하고있는 모든 형태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침략을 규탄하였으며 진보적인 력량들의 단결과 세계민족해방운동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 것은 인민들의 승리와 제국주의의 청산을 위한 응당하고 결정적인 요인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아랍사회부흥당대표단은 남북조선인민들이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나라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진행하고있는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아랍사회부흥당은 조선인민이 김일성각하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과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혁명로선을 모든 분야에 훌륭히 구현함으로써 자기 나라를 발전된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와 찬란한 민족문화, 그리고 어떠한 침략도 능히 물리칠수 있는 전인민적방위체계를 가진 위력하고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쌍방은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규탄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를 반대하여 감행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모든 침략과 전쟁 책동을 즉시 중지할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쌍방은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과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존재가 비법적이며 이러한 사태의 지속은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인정하였으며 조선인민으로 하여금 자기의 운명을 자유로이 결정할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이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대표단은 제국주의와 유태복고주의를 반대하며 팔레스티나의 해방과 아랍민족의 존엄과 자주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아랍사회부흥당과 수

리아아랍공화국이 견지하고있는 원칙적이며 혁명적인 립장을 높이 평가하였다.

조선로동당대표단은 수리아아랍지역에서의 3. 8혁명과 사회주의개조의 길에서 달성한 경제, 문화, 국방의 여러 분야에서의 성과들과 그리고 인민민주주의혁명의 완성과 제국주의와 유태복고주의 강점으로부터 아랍땅을 해방하기 위한 전면적인 준비분야에서 달성한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였다.

조선로동당대표단은 각종 형태의 제국주의를 청산하며 사회주의건설과 아랍의 통일을 위한 아랍인민의 용감한 투쟁에 대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지지를 확인하였다.

두 대표단은 나라의 해방과 빼앗긴 조국령토의 귀환을 위한 팔레스티나아랍인민의 성스러운 투쟁이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으며 식민주의적유태복고주의강점을 반대하는 팔레스티나아랍인민의 무장투쟁이 세계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의 중요한 일환으로 되며 모든 물질정신적가능성을 다하여 이 투쟁을 지지성원하는것은 세계혁명력량들의 국제주의적의무로 된다고 인정하였다.

쌍방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세계제국주의의 지원밑에 유태복고주의자들이 강점된 령토에서 아랍주민들을 반대하여 감행하고있는 야만적인 만행들과 아랍련합공화국과 기타 아랍지역들에서 민간목표, 어린이들, 로동자들과 무고한 주민들에 대하여 감행하고있는 범죄행위들을 견결히 규탄하였으며 이 범죄행위들이 인간의 도덕과 규범에 대한 란폭한 도전으로 된다고 인정하였다.

쌍방은 아랍의 진보적인 정부들과 팔레스티나무장항쟁운동 그리고 아랍혁명력량들을 반대하는 침략책동을 강화하고있으며 제국주의기지인 이스라엘에 무기와 군수기재들을 계속 공급하고있으며 미국인군사지원병들을 보내여 유태복고주의강점군에 편입시킴으로써 침략과 직접적인 무장간섭의 길로 나가고있는 미제의 계속적인 음모책동을 견결히 규탄하였다.

쌍방은 이스라엘이 인종주의적이며 침략적인 존재이며 유태복고주의가 세계제국주의의 도구라는데 대하여 합의를 보았으며 특히 제국주의의 기지로서 그리고 제국주의의 경제, 문화, 군사적 침투의 교두보로서 이스라엘이 놀고있는 침략적이며 파괴적인 역할의 위험성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쌍방은 미제와 그의 괴뢰도당들의 침략과 무장간섭을 반대하는 월남인민의 영웅적투쟁과 남부월남공화림시혁명정부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월남문제의 전면적해결에 관한 남부월남민족해방전선의 10개항목성명과 월남민주공화국 정부의 4개항목립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두 대표단은 월남전쟁의 《월남화》 계획을 통하여 남부월남에 대한 강점을 장기화하려는 미제의 책동을 규탄하였다.

또한 쌍방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는 라오스인민과 캄보쟈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쌍방은 미제의 계속되는 침략책동을 반대하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영웅적꾸바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련대성을 표시하였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민족해방운동과 세계의 모든 혁명력량들의 투쟁에 대한 지지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쌍방은 회담에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세계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과 전세계 인민들의 자유에 대한 계속되는 침해에 대처하여 사회주의와 진보적력량 그리고 세계반제력량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쌍방은 모든 형태의 착취와 억압, 인종차별을 규탄하였다.

쌍방은 이번 조선로동당대표단의 수리아아랍공화국 방문이 두 당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며 조선인민과 아랍인민사이에 맺어진 공동투쟁의 뉴대를 강화함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였으며 앞으로 이 관계를 모든 분야에서 계속 발전확대시킬데 대한 확신을 표명하였다.

쌍방은 두 당사이의 접촉과 경험교환, 협조를 계속할데 대하여 합의를 보았다.

쌍방은 두 당과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투적관계를 심화시키는것이 그들사이의 리해를 더욱 깊게 하고 자유와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싸우고있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복무한다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 조선로동당과 일본사회당 사이의 공동콤뮤니케

조선대외문화련락협회의 초청으로 일본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 나리다도모미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일본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인 이시바시마사시국제국장을 부단장으로 하는 일본사회당대표단이 1970년 8월 13일부터 8월 26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친선방문하였다.

일본사회당대표단은 우에 지적한 단장과 부단장,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인 스즈끼리끼로동국장,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인 다까자와도라오교육선전국장, 조선문제대책 특별위원회 안따꾸쯔네히꼬위원장, 다데바야시지사도국제부장들로 구성되였다.

일본사회당대표단이 조선에 머무르는동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신 김일성수상께서 대표단 일행을 만나시고 그들과 친선적인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조선에 머무르는동안 일본사회당대표단은 평양시와 개성지구의 공장, 농장, 교육, 문화 기관들과 판문점을 돌아보았으며 가는곳마다에서 조선인민의 열렬한 환영과 환대를 받았다. 이것은 일본사회당과 일본의 민주력량에 대한 조선인민의 따뜻한 친선의 정의 표시이다.

방문기간 일본사회당대표단은 조선측과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호상 리해를 깊게 하였다.

회담에는 조선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및 상무위원회 위

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박성철제2부수상, 그리고 그밖에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 김주영부위원장, 조선대외문화련락협회 김영남, 김상준부위원장들,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전인철부위원장, 외무성진충국국장, 조선대외문화련락협회 유영걸국장이 참가하였다.

일본사회당측에서는 일본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 나리다도모미위원장,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인 이시바시마사시국제국장,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스즈끼리끼로동국장,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인 다까자와도라오교육선전국장, 조선문제대책특별위원회 안따꾸쯔네히꼬위원장, 다데바야시지사도국제부장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는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재생과 재침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조일 두 나라 인민들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서와 그밖의 공동의 관심사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 결과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일치를 보았다.

일본사회당대표단은 조선인민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수상의 현명한 령도밑에 미제와 직접 맞서고있는 어려운 조건을 이겨내면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력사상 전례없는 짧은 기간에 뒤떨어졌던 자기 나라를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그리고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발전된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일본사회당대표단은 세계 《최강》이라고 떠벌이던 미제침략군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때려부시고 미제국주의를 몰락의 운명에 굴러떨어지게 한것은 바로 김일성수상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이였다는것을 강조하고 오늘도 조선인민이 철저한 반제반미립장을 견지하여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단호히 제어하고있는것은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함에 커다란 기여로 된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미제국주의자들이 계속 남조선을 강점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새 전쟁 준비에 미쳐날뛰고있는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에서 저들의 침략군과 살인무기를 걷어가지고 지체없이 완전히 물러가야 한다고 견결히 주장하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킨 다음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일본사회당대표단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와 공모결탁하여 남조선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 침투를 강화하고있는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면서 일본정부가 《일한조약》을 페기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그만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여야 하며 재일조선공민들의 자기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로의 귀국과 자유로운 래왕, 민족교육의 권리를 비롯한 그들의 제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그리고 평등,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조일량국인민의 친선교류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측은 일본사회당과 일본의 민주력량이 조선인민의 사회주의건설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재일조선공민들의 제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옹호를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주고있는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하였다.

조선측은 미제와 국내독점자본을 반대하며 헌법옹호, 민주, 중립과 인민생활의 향상을 쟁취하기 위한 일본사회당과 일본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그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조선측은 일본사회당이 일미 《안보조약》을 페기하고 미군사기지를 철거시키며 오끼나와의 즉시 무조건 전면반환을 실현하며, 일본의 재군국화와 파쑈화를 반대하고 평화헌법을 수호하며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과 반제평화력량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고있는것이 아세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확립하는데 커다란 기여로 된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조선측은 일본의 모든 민주세력과 손을 잡고 미제국주의 및 일본반동세력과 투쟁하며 일본땅을 침략전쟁의 기지로부터 아세아의 평화와 친선의 기지로 전변시킬데 대한 일본사회당의 굳은 결의를 적극 지지하며 미제와 일본군국주의 재생과 재침책동을 반대하는 일본인민의 성스러운 투쟁에서 새로운 빛나는 성과가 있을것을 열렬히 축원하였다.

일본사회당대표단은 자기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의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였다.

쌍방은 현국제정세가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력량에 유리하게 제국주의와 전쟁 세력에는 불리하게 계속 발전하고있다고 일치하게 평가하였다.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는 걷잡을수 없이 내리막길을 걷고있다. 그러나 미제는 의연히 침략적야망을 버리지 않고있으며 멸망하여가는 저들의 운명을 구원하려고 더욱더 필사적으로 침략과 전쟁 정책에 매여달리고있다.

미제는 특히 아세아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면서 인도지나에서 침략전쟁을 계속 확대하며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아세아의 전반적지역에서 전쟁의 위험을 날카롭게 조성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닉슨주의》 간판밑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을 저들의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 공공연히 내세우면서 그를 골간으로 하여 남조선, 대만, 남부윁남, 타이와 같은 아세아괴뢰들과 추종국가들을 《반공》군사동맹에 묶어세워 《아세아사람끼리 싸우게 하는》 방법으로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실현하여보려고 미쳐날뛰고있다.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하에 또다시 아세아에서 위험한 세력으로 등장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를 등에 업고 파산된 아세아제패의 옛꿈을 실현하려고 망상하고있으며 특히 지난해 11월의 일미 《공동성명》 이후 새로운 해외팽창정책을 날로 더욱 로골화하고있다.

일본정부가 일미공동성명에서와 그리고 그후에도 남조선과 대만을 저들의 《방위권》에 속한다고까지 공공연히 떠벌이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에 적극 끼여들어 남조선에 《유엔협력》의 간판밑에 저들의 《자위대》를 들여보내려고 획책하고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강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과의 국교회복을 방해하며 미제의 《두개중국》조작음모에 적극 발벗고나서고있는것은 오늘 일본반동세력의 재침책동이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있는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쌍방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공모결탁하여 아세아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 민족적독립국가들을 반대하는 침략과 전쟁 책동을 날로 강화하며 아세아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있는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면서 당면한 정세는 각각 자주적으로 투쟁하고있는 아세아의 모든 반제력량이 굳게 단결하여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재생과 재침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것을 요구한다고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쌍방은 인도지나에서 감행하고있는 미제의 범죄적인 침략전쟁을 강력히 규탄하고 윁남, 라오스, 캄보쟈 인민의 영웅적반미구국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쌍방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인도지나에서 침략전쟁을 당장 중지하고 저들

의 침략군과 괴뢰군 및 추종국가군대들을 모조리 걷어가지고 지체없이 물러가야 하며 인도지나문제는 인도지나인민들의 념원에 부합되게 그들 자신의 손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쌍방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령토인 대만을 강점하고 그를 기지로 하여 중국인민을 반대하는 침략과 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미제의 강점으로부터 대만을 해방하기 위한 중국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쌍방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자유와 해방,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쌍방은 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며 평화와 민주주의와 근로대중의 생활상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쌍방은 사회주의나라들과 민족해방운동, 로동운동과 민주주의운동 등 모든 반제혁명력량이 굳게 단결하여 각기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한다면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은 저지파탄될것이며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하였다.

쌍방은 일본사회당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결과를 만족스럽게 여기면서 이 방문이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재생과 재침책동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에서 조선인민과 일본인민들 사이의 전투적단결을 강화하며 각기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전개하고있는 아세아인민들의 반제투쟁을 강화발전시킴에 커다란 기여로 된다고 인정하였다.

1970년 8월 25일

평 양

# 조선로동당대표단과 이딸리아공산당대표단간의 회담에 관한 공 동 보 도

이딸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초청에 의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동규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이 1970년 4월 12일부터 22일까지 이딸리아를 방문하였다.

체류기간 조선로동당대표단은 이딸리아공산당 총비서 루이지 롱고동지와 부총비서 엔리꼬 베를링게르동지의 접견을 받았으며 씨실리와 에밀리아를 방문하고 당일군들과 상봉하였다.

대표단은 이르는곳마다에서 열렬하고 형제적인 환영을 받았다.

조선로동당대표단은 이딸리아공산당대표단과 공식회담을 진행하였다.

회담에는 조선로동당측으로부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 김동규동지와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윤선동지가 참가하였으며 이딸리아공산당측으로부터는 이딸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에마누엘레 마깔루소동지, 당중앙위원회 지도부 성원 까를로 갈루찌동지, 당중앙위원회 위원들인 로마노 레다동지, 안또니오로아시오동지, 미첼레 로씨동지, 당국제부 일군들인 로뭘프 메끼니동지, 안또넬로뜨롬바도리동지들이 참가하였다.

회담은 동지적이며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대표단은 제국주의의 침략정책과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며 평화와 독립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대외정책과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이딸리아공산주의자들과 로동계급의 정당한 투쟁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딸리아공산당대표단은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건설에서 이룩한 거대한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남조선으로부터 미제를 철거시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모든 도발책동을 반대하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딸리아공산당은 이딸리아공화국 정부로 하여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승인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려는 자기의 결의를 다시한번 표명하였다.

회담과정에 두 대표단은 국제정세 및 국제공산주의운동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두 대표단은 인도지나와 중근동, 극동과 라틴아메리카에서 세계평화와 인민들의 독립에 대한 권리를 위협하고 있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의 부당한 침략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하여 일치한 견해를 표시하였다.

조선로동당대표단은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가 또다시 조선을 침략하려고 책동하고있는데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딸리아공산당대표단은 이러한 평가에 동의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반제투쟁을 더욱 강화하며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로동운동,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 세계의 모든 혁명력량이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하여 확고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두 대표단은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쌍방은 매개 당과 매개 인민의 자주성을 철저히 존중하는 기초우에서 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취하여지는 모든 조치들이 전세계 인민들의 평화와 해방을 위한 위업에 대한 긍정적인 기여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두 대표단은 미제를 반대하며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싸우고있는 웰남, 라오스, 캄보쟈 인민들과 이스라엘의 침략을 반대하여 싸우고있는 아랍인민들 그리고 반제투쟁을 진행하고있는 아프리카, 아세아, 라틴아메리카의 혁명운동과 인민들에 대한 전적인 련대성을 재천명하였다.

지난해 12월에 있은 이딸리아공산당대표단의 조선방문에 뒤이어 진행된 조선로동당대표단의 이딸리아방문은 두 당간의 친선과 협조관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두 대표단은 이 관계의 발전이 제국주의와 신구식민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사회주의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에 기여하고있다는데 대하여 일치한 견해를 표시하였다.

1970년 4월 22일

# 조선로동당대표단의 노르웨이 방문과 관련한 공동보도

노르웨이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초청에 의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현무광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이 1970년 4월 28일부터 5월 5일까지 노르웨이를 방문하였다.

조선로동당대표단은 방문기간 노르웨이공산당과 로동계급의 따뜻한 환대와 환영을 받았다.

대표단은 외스트폴드주를 방문하고 그곳 당원들과 상봉하였다.

방문기간 조선로동당대표단은 노르웨이 공산당 위원장 레이다르 테 라르센동지를 단장으로하는 노르웨이공산당대표단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자기 나라 정세와 당 활동에 대하여 통보하고 두 당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할데 대한 문제와 그밖에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회담은 동지적이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쌍방은 지난해 11월에 있은 노르웨이공산당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방문과 김일성동지와 레이다르 테 라르센동지사이에 진행된 담화들이 두 당, 두 나라 로동계급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쌍방은 그후 두 당, 두 나라 로동계급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발전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쌍방은 노르웨이공산당대표단의 조선방문시에 두 당사이에 합의된 공동콤뮤니케가 오늘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하였으며 공동콤뮤니케정신에 기초하여 자기들의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데 대하여 일치하게 합의를 보았다.

두 대표단은 최근 미제국주의자들이 캄보쟈에서 반동적인 정변을 조작하고 침략전쟁의 불길을 인도지나전역에 확대하고있는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미제침략을 반대하고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싸우고있는 윁남, 라오스, 캄보쟈 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하여 전적인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쌍방은 또한 오늘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가 미제의 《새로운 아세아정책》에 따라 조선과 기타 아세아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의 길에 나서고있는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과 함께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두 대표단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새 전쟁 도발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형편에서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하여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확고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쌍방은 조선로동당대표단의 노르웨이방문결과에 만족을 표시하면서 이 방문이 미제를 우두머리로하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평화와 민주주의,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투쟁에서 조선과 노르웨이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로동계급사이의 친선협조관계와 계급적련대성을 더욱 강화발전시킴에 커다란 기여로 된다고 인정한다.

1970년 5월 5일

# 조선로동당대표단의 스웨리예방문과 관련한 공동보도

스웨리예공산주의자좌익당 중앙위원회의 초청에 의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현무광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이 1970년 5월 5일부터 5월 10일까지 스웨리예를 방문하였다.

방문 기간 조선로동당대표단은 스웨리예공산주의자좌익당 위원장 칼 헨리크 헤르만손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스웨리예공산주의자좌익당대표단과 친선적이며 동지적인 분위기속에서 호상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을 가지고 회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대표단은 스웨리예에 머무르는 기간 게블보르그 뢴랜주를 방문하고 그곳 당일군들과 친선적인 상봉을 하였다.

조선로동당대표단은 제국주의의 침략정책과 독점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며 근로자들의 생활상 권리와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스웨리예공산주의자좌익당과 스웨리예 로동계급의 활동을 로해하고 그들이 거둔 성과들을 축하하였으며 스웨리예공산주의자좌익당과 로동계급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스웨리예공산주의자좌익당대표단은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달성한 거대한 성과들을 료해하고 그를 축하하였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극도로 격화시키고있는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으로 나라를 통일하려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쌍방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이 더욱 격화되고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 그리고 모든 반제혁명력량이 힘을 합쳐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또한 두 대표단은 오늘 일본군국주의가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아세아에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되살아났으며 미제의 《새로운 아세아정책》에 따라 조선과 기타 아세아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의 길에 나서고있는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과 함께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쌍방은 조선로동당 대표단의 스웨리예방문에 만족을 표시하였으며 이 방문이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에서 조선과 스웨리예의 공산주의자들과 로동계급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강화함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한다.

1970년 5월 10일

# 조선로동당대표단의 핀란드방문과 관련한 공 동 보 도

핀란드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초청에 의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허무팡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이 1970년 5월 10일부터 15일까지 핀란드를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조선로동당대표단은 핀란드공산당 위원장 아아르네 사아리넨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핀란드공산당대표단과 친선적이며 동지적인 분위기속에서 호상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회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대표단은 핀란드에 머무르는동안 헬싱키와 싼따꾼따, 땀뻬레주들을 방문하고 그곳 당일군들과 친선적인 상봉을 하였다.

조선로동당대표단은 제국주의와 독점자본을 반대하며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핀란드공산당과 로동계급의 활동을 리해하였으며 핀란드공산당과 핀란드로동계급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핀란드공산당대표단은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정확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달성한 거대한 성과들을 리해하고 그를 축하하였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극도로 격화시키고있는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으로 나라를 통일하려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쌍방은 현시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이 더욱 강화되고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 그리고 세계 모든 반제혁명력량이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두 대표단은 또한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가 미제의 《새로운 아세아정책》에 따라 조선과 기타 아세아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의 길에 나서고있는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과 함께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쌍방은 조선로동당대표단의 핀란드방문결과에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였으며 이 방문이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투쟁에서 조선과 핀란드 두 나라 당과 로동계급사이의 친선과 련대성을 강화함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한다.

1970년 5월 15일

# 칠레공산당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방문에 대한 공 동 보 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초청에 의하여 칠레공산당 정치위원회 위원이며 당기관잡지 《쁘린씨 뻬오스》 주필인 오를란도 밀야스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칠레공산당대표단이 1970년 5월 12일부터 5월 20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친선방문하였다.

칠레공산당대표단은 방문기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석상에서는 친선적인 담화가 진행되었다.

대표단은 방문기간 조선혁명의 요람지인 만경대와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평양시와 개성시, 함흥시의 공장들과 교육문화기관들을 돌아보았으며 가는곳마다에서 조선인민의 열렬한 환영과 환대를 받았다.

방문기간 조선로동당대표단과 칠레공산당대표단사이에 회담이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조선로동당측으로부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동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영남동지가 참가하였다.

칠레공산당측으로부터는 칠레공산당 정치위원회 위원이며 당기관잡지 《쁘린씨 뻬오스》 주필인 오를란도 밀야스동지, 칠레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칠레공산당 싼띠아고시 꼬르딜예라지구위원회 제1비서인 엘리아나 아우마다동지, 칠레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대학교미사 위원장인 페르난도 오르띠스동지가 참가하였다.

기 당의 활동에 대하여 서로 통보하고 두 당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그밖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회담은 동지적이며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칠레공산당대표단은 조선인민이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맑스-레닌주의를 조선의 구체적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자기 나라를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와 위력한 전인민적방위체계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발전된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켰으며 오늘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계속 혁명적앙양을 일으키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칠레공산당대표단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절반땅을 강점하고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새 전쟁 도발책동을 강화하고있는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조선사람들끼리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으로 나라를 통일하기 위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조선로동당대표단은 미제와 국내 파쑈세력을 반대하며 근로대중의 생활상권리와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하여 칠레공산당과 칠레로동계급이 벌리고있는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그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조선로동당대표단은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며 자유와 해방과 사회적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는 라틴아메리카인민들에게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으며 이 투쟁이 미제의 침략정책과 식민지통치에 커다란 타격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쌍방은 현시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인도지나와 중근동 그리고 세계도처에서 침략과 전쟁책동을 더욱더 로골화하고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 그리고 세계 모든 반제혁명력량이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쌍방은 오늘 일본군국주의가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아세아에서 또다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되살아났으며 아세아인끼리 싸우게 하려는 미제의 새로운 전략에 따라 조선과 아세아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의 길에 들어서고있는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미제와 함께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쌍방은 윁남에서 미제가 감행하고있는 범죄적인 침략전쟁을 단호히 규탄하고 남부를 해방하고 북부를 수호하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형제적윁남인민의 영웅적반미구국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쌍방은 꾸바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도발책동을 단호히 규탄하고 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있는 형제적꾸바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쌍방은 칠레공산당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결과에 만족을 표시하면서 이 방문이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에서 조선과 칠레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로동계급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와 계급적련대성을 강화함에 커다란 기여로 된다고 인정한다.

1970년 5월 20일
평　양

# 단마르크공산당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방문에 대한 공 동 보 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초청에 의하여 단마르크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이브 노를룬드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단마르크공산당대표단이 1970년 6월 2일부터 6월 17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였다.

단마르크공산당대표단은 방문기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석상에서는 친선적인 담화가 진행되였다.

단마르크공산당대표단은 조선에 머무르는동안 조선혁명의 요람지인 만경대를 비롯하여 평양시와 개성시, 원산시의 공장, 기업소, 교육문화기관들을 돌아보았으며 가는곳마다에서 조선인민의 열렬한 환영과 환대를 받았다.

방문기간 조선로동당대표단과 단마르크공산당대표단 사이에 회담이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조선로동당측으로부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동규동지 그리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 위원장인 김려중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전형경동지가 참가하였다.

단마르크공산당측으로부터는 단마르크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이브 노를룬드동지, 단마르크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유틀란드주당 위원장인 프레디 마쎈동지, 단마르크공산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며 코펜하겐기계로조 위원장인 얀 안데르센동지가 참가하였다.

회담에서는 자기 나라의 정치정세와 자기 당의 활동에 대하여 서로 통보하고 두 당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그밖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회담은 동지적이며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단마르크공산당대표단은 조선인민이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자기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자기 나라를 선진적인 사회주의 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와 위력한 전인민적방위체계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로 전변시켰으며 오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향하여 계속 확신성있게 전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단마르크공산당대표단은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새 전쟁 준비

에 광분하면서 정세를 더욱더 격화시키고있으며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강화하고있는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고 나라를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으로 통일시키려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조선로동당대표단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의 침략정책과 독점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며 근로대중의 민주주의적권리와 생활조건의 개선,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하여 단마르크공산당과 로동계급이 벌리고있는 정당한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쌍방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월남을 비롯한 인도지나와 중근동 그리고 세계도처에서 범죄적인 침략책동을 더욱더 로골화하고있는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서는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 모든 반제혁명력량이 힘을 합쳐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현대 식민주의의 아성인 미제국주의에 공격의 예봉을 집중하며 그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쌍방은 전세계 인민들이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아세아와 구라파에서 또다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되살아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와 서부독일군국주의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이며 그의 침략적야망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쌍방은 단마르크공산당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이 두 당 및 두 나라 로동계급사이의 호상 리해를 깊게 하고 친선과 련대성을 강화하며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을 강화함에 기여하리라고 인정한다.

1970년 6월 17일
평 양

# 오지리공산당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에 대한 공 동 보 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초청에 의하여 오지리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에르빈 샤르프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오지리공산당대표단이 1970년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였다.

오지리공산당대표단은 방문기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석상에서는 친선적인 담화가 진행되었다.

오지리공산당대표단은 조선에 머무는 동안 조선혁명의 요람지인 만경대를 비롯하여 평양시와 개성시의 공업, 농업, 교육문화기관들을 돌아보았으며 가는곳마다에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열렬한 환영과 환대를 받았다.

방문기간 조선로동당대표단과 오지리공산당대표단사이에 회담이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조선로동당측으로부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동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 위원장인 김려중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윤선동지가 참가하였다.

오지리공산당측으로부터는 오지리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에르빈 샤르프동지, 오지리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인 마르틴 방크치히동지, 오지리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요한 슈타이네르동지가 참가하였다.

회담에서는 자기 나라의 정세와 자기 당의 활동에 대하여 서로 통보하고 두 당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그밖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회담은 동지적이며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오지리공산당대표단은 조선인민이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맑스-레닌주의원칙을 자기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자기 나라를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와 위력한 전인민적방위체계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강력한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새 전쟁 준비에 미쳐날뛰면서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고있으며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에 파쑈적탄압을 강화하고있는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오지리공산당대표단은 미제를 남조선에서 무조건 즉시 완전히 철거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세계 모든 인민들이 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하고있는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에 경각성을 높이며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고 조선인민자신이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광범한 운동을 전개하는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대표단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의 침략정책과 독점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며 구라파안전과 나라의 진정한 중립과 독립의 공고화, 근로대중의 민주주의적권리와 생활조건의 개선 및 사회주의를 위한 오지리공산당과 로동계급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으며 오지리공산당이 자기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거둔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두 대표단은 침략의 원흉이며 식민주의 아성인 미제국주의자들이 월남을 비롯한 인도지나와 중근동 그리고 세계도처에서 범죄적인 침략책동을 더욱더 로골화하고있는 조건에서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해서는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 모든 반제력량이 힘을 합쳐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두 대표단은 전세계 인민들이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와 서부독일군국주의가 아세아와 구라파에서 또다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한데 대하여 경각성을 높이며 그의 침략적야망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두 대표단은 오지리공산당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이 두 당 및 두 나라 로동계급사이의 호상리해를 깊게 하고 친선과 련대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인정한다.

1970년 8월 5일
평 양

# 스위스로동당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방문에 대한 공 동 보 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초청에 의하여 스위스로동당대표단이 1970년 8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였다.

스위스로동당대표단은 방문기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석상에서는 친선적인 담화가 진행되였다.

스위스로동당대표단은 조선에 머무르는 동안 조선혁명의 요람지인 만경대 그리고 평양시와 개성시의 공장, 기업소들과 교육문화기관들을 돌아보았으며 가는곳마다에서 조선인민의 열렬한 환영과 환대를 받았다.

방문기간 조선로동당대표단과 스위스로동당대표단 사이에 회담이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조선로동당측으로부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동규동지 그리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최증극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전명경동지가 참가하였다.

스위스로동당측으로부터는 스위스로동당 중앙위원회 전국비서 야꼬브 레흐라이떠르동지 그리고 중앙위원회 위원 페르낭 뷔제동지가 참가하였다.

회담에서는 자기 나라의 정세와 자기 당의 활동에 대하여 서로 통보하고 두 당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회담은 동지적이며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스위스로동당대표단은 조선인민이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맑스-레닌주의원칙을 자기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자기 나라를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와 위력한 전인민적방위체계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선진적인 강력한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새 전쟁 준비에 미쳐날뛰면서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고있으며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강화하고있는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스위스로동당대표단은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에서 무조건 즉시 완전히 물러갈데 대한 조선인민의 요구를 강력히 지지하였다.

그리고 세계 모든 인민들이 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하고있는 침략과 전쟁 도발책동에 경각성을 높이며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고 조선인민자신이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광범한 련대성운동을 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대표단은 독점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여 인민대중을 단합시키며 나라의 진정한 중립과 로동계급의 생활조건의 개선 및 사회주의를 위한 스위스로동당과 로동계급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현대식민주의아성인 미제는 세계도처에서 범죄적인 침략책동을 더욱더 로골화하고있다.

두 대표단은 자유와 민족적독립을 위한 윁남, 라오스, 캄보쟈, 중근동 인민들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한다.

두 대표단은 또한 세계인민들이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와 서부독일군국주의가 아세아와 구라파에서 또다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한데 대하여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두 대표단은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 모든 반제력량이 힘을 합쳐 세계도처에서 미제의 침략책동을 분쇄하며 그의 충실한 동맹자인 일본군국주의와 서부독일군국주의의 침략적야망을 꺾어버리며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공동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두 대표단은 스위스로동당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방문이 두 당 및 두 나라 로동계급 사이의 호상 리해를 깊게 하고 친선과 련대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인정한다.

1970년 8월 20일

평 양

# 희랍공산당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방문에 관한 공 동 보 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초청에 의하여 희랍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니꼬스 까라스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희랍공산당대표단이 1970년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였다.

대표단이 조선에 머무르는동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대표단일행을 만나시고 그들과 친선적인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조선에 머무르는동안 희랍공산당대표단은 4천만 조선인민의 마음의 고향이며 조선혁명의 요람지인 만경대 그리고 평양시와 개성시의 교육문화기관들과 판문점을 돌아보았으며 가는곳마다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방문기간 조선로동당대표단과 희랍공산당대표단 사이에 회담이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조선로동당측에서 조선로동당대표단 단장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 김동규동지 그리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

원회 검열위원회 위원장 김려중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영남동지가 참가하였다.

희랍공산당측에서는 희랍공산당대표단단장인 희랍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니피스 까라스동지와 대표단 단원들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는 자기 나라의 정치정세와 당의 활동에 대하여 서로 통보하고 두 당 사이의 친선과 협조 관계를 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서로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희랍공산당대표단은 조선인민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세계제국주의괴수인 미제와 직접 대치하고있는 어려운 조건을 이겨내면서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자기 나라를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그리고 위력한 전인민적방위체계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자주적인 강력한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희랍공산당대표단은 조선인민이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서 달성한 커다란 성과들은 전적으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모든 부문에 철저히 구현한 결과라고 인정하였으며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원칙을 가장 훌륭히 반영하고있는 지도사상으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의 모든 당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원칙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희랍공산당대표단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새 전쟁 도발책동에 미쳐날뛰면서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있는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침략군과 살인무기를 걷어가지고 남조선에서 즉시 완전히 물러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리고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대표단은 또한 세계 모든 인민들이 조선에 조성된 정세에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하며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운동을 국제적범위에서 더욱 힘있게 벌리는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희랍공산당대표단은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에 대한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인 탄압과 학살만행을 준렬히 규탄하고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전복하며 자유와 해방과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정의의 반미구국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조선로동당대표단은 미제를 반대하고 희랍군사파쑈독재정권을 전복하며 나라의 민주주의적발전과 근본적인 사회적변혁을 이룩하기 위한 희랍공산당과 희랍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조선로동당대표단은 국내의 모든 반독재애국력량을 결속하여 당면한 투쟁과업을 수행하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에 립각하여 희랍인민자체의 힘으로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희랍공산당과 희랍로동계급의 확고한 결의를 높이 평가하고 희랍인민의 정의의 투쟁에서 커다란 승리가 있을것을 축원하였다.

조선로동당대표단은 미제가 조작하고 적극 비호하고있는 군사파쑈독재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희랍공산당과 인민의 투쟁은 세계반제반미투쟁의 일환이라고 지적하고 세계 모든 인민들이 어려운 조건에서 싸우고있는 희랍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조선로동당대표단은 애국자들에 대한 희랍군사파쑈독재정권의 탄압책동을 견결히 규탄하고 감금된 모든 애국자들을 즉시 석방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두 대표단은 세계인민의 공동의 원쑤인 미제국주의자들이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범죄적인 전쟁과 침략 책동에서 찾으려고 계통적으로 발악하면서 세계도처에서 긴장상태를 극도로 격화시키고있으며 평화를 엄중히 파란하고 있는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였다.

두 대표단은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여 싸우는 월남, 라오스, 캄보쟈, 아랍 인민들과 기타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지지와 련대성운동을 강화할데 대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두 대표단은 현시기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 모든 반제력량이 힘을 합쳐 세계에서 광범한 반제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두 대표단은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이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아세아와 구라파에서 또다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한 일본군국주의침략책동과 서부독일복수주의의 위험성에 응당한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그의 침략적야망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는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두 대표단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 완전한 평등, 자주성, 호상존중, 내정불간섭, 동지적협조의 원칙에 기초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두 대표단은 희랍공산당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이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투쟁에서 두 당 및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과 련대성을 강화함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였다.

1970년 9월 3일
평 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공 동 콤 뮤 니 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인 주은래동지가 1970년 4월 5일부터 4월 7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식적으로 친선방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머무르는 동안 주은래총리와 그 일행은 조선인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이것은 형제적중국인민에 대한 조선인민의 뜨거운 친선의 정의 표시이다.

방문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인 주은래동지사이에 [illegible] 분위기속에서 회담이

진행되였다.

회담석상에는 조선측으로부터 최용건동지, 김일동지, 박성철동지, 외무성 제1부상 허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영남동지, 중국주재 조선대사 현준극동지가 참가하였다.

중국측으로부터는 외교부 부부장 희붕비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책임일군 양덕중동지, 외교부 아세아국 부국장 조극강동지, 외교부 의례국 부국장 한서동지, 조선주재 중국대사 리운천동지가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기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중국측은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고 천리마운동을 힘있게 벌려 짧은 기간에 자기 나라를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와 위력한 전인민적방위체계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발전된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킨데 대하여 축하하였다.

중국측은 날로 격화되는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에 대처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켜나가고있으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조선인민에게 앞으로 더욱 큰 성과가 있기를 축원하였다.

조선측은 모택동동지를 령수로 하고 림표동지를 부령수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중국인민이 자본주의를 복귀시키려는 제국주의와 현대수정주의의 음모를 분쇄하고 프로레타리아문화대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모든 힘을 다하여 더 많이 더 빨리 더 좋게 절약하면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자기 나라를 날로 장성하는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킨데 대하여 축하하였다.

조선측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책동을 반대하고 공업과 농업,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며 대만을 해방하기 위한 중국인민의 투쟁에서 앞으로 더욱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하였다.

쌍방은 피로써 맺어진 조중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투적우의와 친선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는것이 공동위업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인정하면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강화하며 여러 분야에 걸쳐 호상협조관계를 일층 발전시켜나가려는 두 나라 인민들의 확고한 결의와 념원을 표시하였다.

쌍방은 현국제정세가 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에 계속 유리하게 발전하고있으며 제국주의와 현대수정주의와 각국 반동들에 불리하다고 인정한다.

쌍방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멸망하여가는 처지로부터의 출로를 침략과 전쟁에서 찾으려고 발악하면서 더욱 교활하고 더욱 음흉하게 책동하고있는데 대하여 응당한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특별히 지적한다.

현시기 미제국주의자들은 로골적인 무장간섭과 파괴전복활동을 강화하면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며 평화를 악랄하게 교란하고있다.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면서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비롯한 추종국가들과 괴뢰들을 동원하여 아세아인끼리 싸우게 하는 방법으로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과 이 지역 인민들을 반대하는 침략행위를 확대하려고 책동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월남인민을 반대하는 범죄적침략전쟁을 《월남화》한다는 구호밑에 더욱 강화하고있으며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면서 새 전쟁 도발책동에 미쳐날뛰고있으며 중국인민을 반대하는 침략과 도발 행위를 계속 감행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미제국주의가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세계 각국인민의 가장 흉악한 공동의 원쑤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제가 《평화》의 간판뒤에 숨어서 저들의 침략적본성을 가려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여도 결코 세계인민들을 기만할수 없다. 미제와는 추호의 타협도 없이 끝까지 견결히 싸워야 한다.

미제의 격화되는 침략과 전쟁책동은 그들의 《강대성》을 보여주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의 취약성을 실증하여주는 것이다.

쌍방은 미제에 공격의 예봉을 돌리며 모든 혁명적인민들이 힘을 합쳐 세계도처에서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력히 벌린다면 미제는 결국 멸망하고야말것이며 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쌍방은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아세아에서 또다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가 미제를 등에 업고 그와 공모결탁하여 파산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망상하면서 아세아인민들을 반대하는 공공연한 침략의 길에 나서고 있는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일본반동들은 미제의 《새로운 아세아정책》에 따라 나라의 파쑈화와 군국화를 더욱 다그치면서 침략적군사력을 급속히 증강하고 군사기지를 대대적으로 늘이며 해외팽창을 위한 전쟁준비를 강화하고있다.

일본은 이미 아세아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의 전초기지로 거점으로 전변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월남침략전쟁에 직접 복무하고있으며 조선에서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에 적극 가담하고있으며 중국인민의 신성한 령토인 대만을 저들의 세력권에 넣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분별없는 책동을 묵과한다면 그들은 또다시 아세아와 세계 인민들에게 커다란 참화를 끼치게 될것이다.

일본군국주의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지말아야 하며 그들에게 아무러한 기대도 걸지말아야 한다.

일본군국주의의 위험성을 보지 않고 사또 정부와 가까이 하는것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해외팽창을 고무하여주며 아세아에서 미제의 지위를 강화하여주는것으로 된다.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은 일치한 행동으로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적야망을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쌍방은 현시기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의 한 고리로 되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으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과 함께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중국측은 미제와 그 앞잡이 박정희괴뢰도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새 전쟁 도발책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으며 남조선의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에 대한 야수적학살만행을 감행하면서 파쑈적폭압을 전례없이 강화하고있는데 대하여 견결히 규탄한다.

중국측은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 침략정책이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이며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항시적근원이라고 인정하면서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사람들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정당한 조국통일방침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조선측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중국인민의 신성한 령토인 대만을 강점하고

저들의 앞잡이들을 부추겨 중화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과 도발 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는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면서 미제의 강점으로부터 대만을 해방하며 령토완정을 이룩하기 위한 중국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국제무대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합법적 지위회복을 반대하고 그 영향력을 가로 막으며 《두개중국》을 조작하려는 미제의 책동은 반드시 수치스러운 파산을 면치 못할것이다.

쌍방은 월남인민의 영웅적반미구국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부월남에 대한 침략전쟁과 월남민주공화국의 자주권과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침략행위를 당장 그만두고 남부월남에서 자기의 침략군과 추종국가와 남조선괴뢰들의 군대를 무조건 완전히 철거시켜야 하며 월남문제는 월남인민자신의 념원에 부합되게 해결되여야 한다.

월남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자기의 정의의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고야말것이다.

쌍방은 라오스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무장간섭을 단호히 규탄하며 라오스애국전선의 령도밑에 라오스인민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벌리고있는 정의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한다.

쌍방은 최근 미제국주의자들이 캄보쟈에서 조작한 반동적정변이 캄보쟈인민의 진정한 리익과 인도지나 3개국의 안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캄보쟈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범죄적파괴책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캄보쟈인민들의 투쟁과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3월 23일부 5개항목의 선언을 지지한다.

쌍방은 미일《안보조약》을 페기하고 미제의 군사기지를 철폐하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재무장을 반대하고 나라의 완전한 독립과 민주주의적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일본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며 그에 련대성을 표시한다.

쌍방은 미제의 직접적인 지원과 사촉밑에 아랍령토를 계속 비법적으로 강점하고있으며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을 확대하고있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의 범죄행위를 견결히 규탄하며 민족적독립과 존엄을 수호하고 강점당한 아랍땅을 되찾으며 팔레스티나인민의 해방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아랍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쌍방은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대륙에서 거세차게 일어나고있는 민족해방운동이 현시대의 가장 위력한 혁명력량의 하나로 된다고 간주하면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자유와 해방과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싸우고있는 이 지역의 모든 인민들에게 굳은 련대성을 표시한다.

쌍방은 독점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며 생존의 권리와 계급적해방을 위하여 혁명투쟁을 하는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들에게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한다.

쌍방은 미일반동들의 침략과 새 전쟁 도발책동이 날로 격화되고있는 오늘의 정세는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이 힘을 합쳐 공동으로 그에 대처할것을 요구하고있으며 이것은 미제의 침략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며 두 나라 인민들의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킴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인정한다.

쌍방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인 주은래동지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이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한 조중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과 협조 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킴에 있어서 새로운 기여로 된다고 만족스럽게 지적한다.

1970년 4월 7일
평 양

# 수단민주주의공화국 혁명지도리사회 위원장 겸 수상 자파르 모하메드 니메리소장각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방문결과에 대한 공 동 보 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며 내각 수상인 김일성각하의 초청에 의하여 수단민주주의공화국 혁명지도리사회 위원장이며 수상인 자파르 모하메드 니메리소장각하가 1970년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방문하였다.

자파르 모하메드 니메리위원장각하와 함께 혁명지도리사회 위원이며 수단군 총사령관 겸 국방상인 할리드 하싼 아빠스소장, 오마르 하그부쌔민족지도상, 무바라크 오스만 시나다주택상, 모아위아 이브라힘외무담당국무상, 아브들라히 엘 하싼외무성 부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수단민주주의공화국 아브델 와하브 자이날 아비딘

자파르 모하메드 니메리위원장각하와 그 일행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머무르는동안 평양시의 경제, 교육, 문화 기관들과 군부대를 돌아보았으며 이르는곳마다에서 조선인민의 열렬한 환영과 환대를 받았다.

이 환영과 환대는 수단민주주의공화국혁명지도리사회 위원장과 수단인민에 대한 조선인민의 높은 존경과 두터운 친선의 정의 표시였다.

방문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 수반이며 내각 수상인 김일성각하와 수단민주주의공화국 혁명지도리사회 위원장이며 수상인 자파르 모하메드 니메리각하 사이에 따뜻하고도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회담이 진행

회담에는 조선측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김일제1부수상, 박성철제2부수상,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오진우대장, 허담외무상, 국가계획위원회 윤기복위원장, 대외경제위원회 김경련위원장, 김수복보통교육상, 김재봉외무부상, 외무성 김병호국장이 참가하였다.

수단측에서는 혁명지도리사회 위원이며 수단군 총사령관 겸 국방상인 할리드 하싼 아빠스소장, 오마르 하그부쌔민족지도상, 무바라크 오스만 시나다주택상, 모아위아 이브라힘외무담당국무상, 아브들라히 엘 하싼 외무성 부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수단민주주의공화국 아브델 와하브 자

모하메드 알리준장, 혁명지도리사회위원장관방국장 무니르 하미드중좌, 혁명지도리사회위원장관방군사사업국장 파루크 아흐메드 오마르중좌, 외무성 알리 아흐메드 싸흘룰대사, 외무성 마흐디 무스타파 엘 하디대사, 외무성 쌀라흐 아흐메드 이브라힘전권공사, 계획성 아브달 하메드 엘 티가니검열관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는 서로 자기 나라의 정세들에 대하여 통보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수단민주주의공화국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으며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수단민주주의공화국 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통하여 날로 강화발전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감을 표시하였으며 이 관계를 두 나라 인민의 리익과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반미공동투쟁의 리익에 맞게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방문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단민주주의공화국에 경제, 문화, 및 기술적 협조를 줄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수단민주주의공화국 정부사이의 협정》이 체결되였다.

쌍방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멸망하여가는 저들의 운명을 구원할 출로를 침략과 전쟁에서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면서 세계도처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며 평화를 교란하고 있는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원쑤들의 범죄적책동이 날로 심해지고있는 오늘의 조건에서 모든 반제혁명력량은 더욱 튼튼히 단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아세아의 동쪽으로부터 중근동과 아프리카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걸쳐 반미공동전선이 굳게 다져지고 이르는곳마다에서 혁명적인민들이 달라붙어 미제에 타격을 가할 때 제국주의의 종국적멸망의 날은 더욱 빨리 도래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쌍방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및 인종주의를 반대하며 자유와 해방과 민족적독립의 공고화를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세계 모든 혁명적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쌍방은 앞으로도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서로 굳게 손을 잡고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 한결같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쌍방은 수단민주주의공화국 혁명지도리사회 위원장이며 수상인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소장각하의 이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방문이 조선과 수단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새로운 획기적계기로 되였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반제반미공동전선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한다.

수단민주주의공화국 혁명지도리사회 위원장이며 수상인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소장각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며 내각 수상인 김일성 각하께서 수단민주주의공화국을 방문하시도록 초청하였다.

이 초청은 감사히 수락되였으며 방문날자는 앞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1970년 8월 18일

평 양

#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외무성 국무비서 페테르 플로린동지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결과에 대한 공 동 보 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의 초청에 의하여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외무성 국무비서 페테르 플로린동지가 1970년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친선방문하였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외무성국무비서와 그와 동행한 책임일군들은 방문기간 평양과 개성에서 공장, 문화기관들을 돌아보았으며 판문점을 참관하였다.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진행된 김딱두동무가 사업하는 공장 종업원집회에서 국무비서는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근로자들의 련대성을 전하였다.

국무비서와 그와 동행한 책임일군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책임일군들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호상 통보하고 의견들을 교환하였다. 회담은 동지적이며 친선적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쌍방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훌륭히 발전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하게 여기면서 미제와 그 동맹자들인 일본군국주의와 서부독일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에서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며 두 나라 외무성 사이의 련계와 협조를 강화할데 대하여 의견일치를 보았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외무성 국무비서인 페테르 플로린동지의 이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은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호상 리해를 심화시키며 두 나라 외무성 사이의 련계와 동지적 협조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였다.

# 꽁고인민공화국 외무상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결과에 대한 공 동 보 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의 초청으로 꽁고인민공화국 옥쌍스 익퐁가외무상과 그가 인솔하는 대표단이 1970년 7월 22일부터 8월 1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식방문하였다.

대표단은 콩고인민공화국 외무상부부와 유엔주재 콩고인민공화국대표 니꼴라 봉죠, 외무성 정치국장 벤자민 봉굴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콩고인민공화국 대사관 참사 프랑수와 비에네로 구성되였다.

대표단이 조선에 머무르는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신 김일성수상께서 욱쌍스 익퐁가외무상부부와 대표단일행을 만나시고 그들과 친선적인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대표단일행은 평양시와 함경남도의 여러 공장, 협동농장, 문화기관들과 판문점을 돌아보았으며 조선인민의 열렬한 환영과 환대를 받았다.

대표단이 조선에 머무르는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허담외무상과 콩고인민공화국 욱쌍스 익퐁가외무상사이에 회담이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조선측에서 리철경외무부상, 외무성 관원, 리장화국장들이 참가하였다.

콩고측에서는 니꼴라 봉죠 유엔주재 콩고인민공화국대표, 벤자민 봉굴루 외무성 정치국장, 프랑수와 비에네 조선 주재 콩고인민공화국 대사관 참사가 참가하였다.

형제적친선의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회담에서 두 나라 외무상들은 각기 자기 나라 정세에 대하여 통보하고 일련의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으며 견해의 완전한 일치를 보았다.

조선측은 형제적콩고인민이 자기의 탁월한 지도자 마리엔 느구아비대통령의 올바른 령도밑에 콩고인민의 력사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되는 콩고로동당의 창건과 콩고인민공화국의 선포후 사회주의를 지향하여나아가면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거듭되는 파괴암해책동을 용감히 물리치고 자립적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는 투쟁에서 이룩한 커다란 성과들을 열렬히 축하하였으며 콩고인민공화국 정부가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면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와 신구식민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그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콩고측은 조선인민이 자기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수상의 올바른 령도밑에 주체사상과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모든 부문에 훌륭히 구현함으로써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거대한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열렬히 축하하였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면서 미제는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새 전쟁 도발책동을 당장 중지하고 남조선에서 무조건 완전히 물러가야 하며 그의 침략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은 해체되여야 하며 유엔은 더는 조선문제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쌍방은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날로 더욱 발전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조선인민과 콩고인민이 앞으로도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와 신구식민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이 공동의 투쟁에서 친선단결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일치한 견해를 표명하였다.

두 나라 외무상들은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민족적해방과 독립의 교살자이며 국제헌병인 미제가 멸망하여가는 저들의 운명으로부터의 출로를 침략과 전쟁에서 찾으려고 더욱 미친듯이 발악하고있는 오늘의 정세하에서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반제반미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쌍방은 앞으로도 계속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견결히 투쟁할데 대한 굳은 결의를 표명하면서 자유와 해방과 민족적독립의 공고화를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전세계 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이번 콩고인민공화국 욱쌍스 익퐁가외무상과 그가 인솔하는 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은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호상 리해를 더욱 깊이 하고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두 나라 외무성사이의 련계를 보다 밀접히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콩고외무상은 이번 방문기간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이 자기들에게 베풀어준 열렬한 환영과 환대에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였다.

1970년 8월 1일
평 양

# 조선직업총동맹과 알제리근로자총동맹의 공 동 콤 뮤 니 케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의 초청에 의하여 알제리근로자총동맹 전국서기 이싸드 아브델 까데르, 농업로동자련맹서기장 벤베지안 다우드무구르뜨, 지방로조 서기장 슬리마니 모하메드 락마르동지들로 구성된 알제리근로자총동맹대표단이 1970년 6월 22일부터 7월 1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고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미제국주의의 침략전쟁도발 20년행사에 참가하였다.

대표단은 조선에 머무르는 기간 《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군중대회와 개성시군중대회에 참가하였으며, 조선혁명의 요람지인 만경대를 방문하였으며 평양시의 공장, 문화기관들과 판문점을 참관하였다.

대표단은 이르는곳마다에서 조선 로동계급과 인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체류기간 알제리근로자총동맹대표단은 전창철위원장을 비롯한 조선직업총동맹 책임일군들과 친선적이며 동지적인 담화를 진행하였다.

조선직업총동맹은 알제리 로동계급과 인민이 민족해방전선의 올바른 령도밑에 영용한 무장투쟁을 벌려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민족적해방을 쟁취하였으며 독립후 제국주의와 반동세력의 파괴책동을 짓부시면서 진보적인 사회제도를 세우고 외래독점체기업소들의 국유화를 비롯한 일련의 민주주의적개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립적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고있는데 대하여 열렬히 축하하였다.

조선직업총동맹은 알제리근로자들과 인민이 4개년계획과 토지개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둘것을 진심으로 축원하고있다.

알제리근로자총동맹은 조선로동계급과 인민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의 주체사상을 훌륭히 구현하여 자기 나라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불패의 방위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강력한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알제리근로자총동맹은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도발책동을 견결히 규탄하면서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대는 당장 물러가야 하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은 즉시 해체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알제리근로자총동맹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을 철거시킨 다음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남북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정당한 조국통일방침을 전적으로 지지하였으며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반혁명파쑈통치를 타도하며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남조선로동계급과 인민들의 투쟁에 전투적인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조선직업총동맹과 알제리근로자총동맹은 아세아에 대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견결히 규탄하였으며 윁남, 라오스, 캄보쟈 인민들의 영웅적반미구국투쟁에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쌍방은 제국주의와 유태복고주의를 반대하고 령토완정과 민족적자주권을 수호하며 팔레스티나를 해방하기 위한 아랍인민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였으며 미제의 끊임없는 침략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쌍방은 제국주의, 식민주의, 신식민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해방과 독립의 공고화를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견결히 지지하였다.

조선직업총동맹과 알제리근로자총동맹은 반제반미공동투쟁에서 두 나라 로동계급과 직맹들사이에 맺어진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킬데 대하여 합의를 보았다.

조선직업총동맹
알제리근로자총동맹
1970년 7월 1일 평양

# 남부예멘인민공화국 로동조합총련맹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방문에 대한 공 동 보 도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의 초청에 의하여 남부예멘인민공화국 로동조합총련맹 위원장 아브둘 까데르 아민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남부예멘로동조합 총련맹대표단이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1970년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였다.

대표단은 조선에 머무르는 기간 반미공동투쟁월간행사에 참가하고 조선혁명의 요람지인 만경대를 방문하였으며 평양시와 함흥 및 개성 지구의 공장, 협동농장, 교육, 문화 기관들을 돌아보았으며 이르는곳마다에서 조선로동계급과 인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방문기간 남부예멘로총대표단과 조선직업총동맹 책임일군들사이에 친선적이며 동지적인 담화가 진행되였다.

조선직업총동맹은 남부예멘인민공화국로동계급과 인민이 민족전선의 올바른 령도밑에 영웅적인 무장투쟁을 벌려 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민족적해방을 쟁취하였으며 획득한 혁명의 가치를 높이들고 사회주의를 지향하여나아가며 제국주의와 국내의 반동세력의 끊임없는 파괴책동을 짓부시면서 전보적인 사회제도를 세우고 외래독점체기업소들의 국유화를 비롯한 일련의 민주주의적개혁을 실시하고있으며 자립적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고있는데 대하여 열렬히 축하하였다.

조선직업총동맹은 미제를 우두머리로하는 제국주의와 그 주구인 우익반동세력들이 남부예멘인민공화국을 교살하며 그의 혁명적제도를 청산하려고 책동하고있는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대통령리사회 위원장 쌀림 루바이아 알리각하의 령도밑에 제국주의와 국내의 반동세력의 침해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지키기 위한 남부예멘 로동계급과 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조선직업총동맹은 남부예멘로동조합총련맹이 남부예멘혁명을 수호하고 민주주의적혁명과업을 수행하며 나라의 경제문화발전에 근로자들을 조직동원함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놀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남부예멘로동조합총련맹은 조선로동계급과 인민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의 주체사상을 훌륭히 구현하여 자기 나라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불패의 방위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강력한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켰으며 오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계속 천리마의 대고조를 일으키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남부예멘로동조합총련맹은 남조선을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침략적군사기지로 전변시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도발행동과 전쟁준비를 강화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과 반적과괴뢰도당을 견결히 규탄하면서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대가 당장 물러가야 하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은 즉시 해체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부예멘로동조합총련맹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을 철거시킨 다음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자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과 반파쑈민주화투쟁에 전투적인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남부예멘로동조합총련맹은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철석같이 단결된 조선 로동계급과 인민이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하리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하였다.

조선직업총동맹과 남부예멘로동조합총련맹은 미제국주의가 전세계 로동계급과 인민들의 가장 흉악한 공동의 원쑤이며 첫째가는 투쟁대상이라는것을 지적하면서 미제를 반대하는데 투쟁의 예봉을 돌리며 혁명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이 단합하여 미제의 각을 뜸으로써 그의 멸망을 촉진시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쌍방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이른바 《닉슨주의》의 간판밑에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본격적으로 침략의 앞

장에 세우며 그를 골간으로 하여 아세아추종국가들과 괴뢰들을 《반공》 군사동맹에 묶어세워 《아세아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려고 미쳐날뛰고있는데 대하여 준렬히 규탄하였다.

쌍방은 인도지나에서 전쟁의 불길을 확대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을 견결히 규탄하였으며 윁남, 라오스, 캄보쟈 인민들의 영웅적반미구국투쟁에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쌍방은 미제와 그 앞잡이 유태복고주의자들의 무력침략을 반대하며 강점된 아랍땅을 도로 찾고 민족적자주권을 지키며 팔레스티나를 해방하기 위한 아랍인민과 팔레스티나혁명무장조직들의 무장투쟁과 강점된 아랍만해방인민전선이 지도하는 아랍만인민들의 반영무장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쌍방은 미제의 끊임없는 침략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꾸바인민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쌍방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해방과 독립의 공고화를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로동계급과 인민들의 혁명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조선직업총동맹과 남부예멘로동조합총련맹은 반제반미공동투쟁에서 두 나라 로동계급과 직맹들 사이에 맺어진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킬데 대하여 합의를 보았다.

1970년 7월 1일

#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과 콩고사회주의청년동맹간의 공 동 콤 뮤 니 케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의 초청에 의하여 콩고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베르나르드 콤보—마쩨오나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콩고사회주의청년동맹대표단이 1970년 4월 7일부터 4월 21일까지의 기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친선방문하였다.

대표단은 조선에 머무르는동안 조선혁명의 요람지이며 4천만 조선인민의 마음의 고향인 만경대와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평양시와 그 주변 그리고 함흥시와 개성시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및 교육문화기관들과 판문점을 참관하였다.

대표단은 콩고사회주의청년동맹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청년학생들의 모임에 참가하였으며 가는곳마다에서 조선 인민과 청년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방문기간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콩고사회주의청년동맹대표단간에 친선적인 담화들이 진행되었으며 두 나라 청년단체간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의견들과 청소년사업경험들이 호상 교환되었다.

콩고사회주의청년동맹대표단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령도밑에 15성상의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여 일제를 타승하고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였으며 가렬한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부셨으며 오늘은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하면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으며 사회주의동방초소를 굳건히 지키고있는 조선인민과 청년들의 철저하고도 견결한 혁명적립장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조선 인민과 청년들이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세계를 경탄시키는 천리마운동의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모든 부문에 철저히 관철하여 자기 나라를 정치에서 자주적이며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부강하고 위력한 사회주의 나라로 전변시킨 빛나는 성과들에 대하여 경탄을 표시하였다.

콩고사회주의청년동맹대표단은 조선 인민과 청년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달성한 이 모든 성과들은 전적으로 40여년간 조국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조선혁명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영도하고계시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루어질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콩고사회주의청년동맹대표단은 미제와 그의 앞잡이 박정희괴뢰도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새 전쟁 도발책동에 미쳐날뛰고있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남조선재침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데 대하여 준렬히 규탄하였다.

콩고사회주의청년동맹대표단은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의 침략정책은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고있는 기본장애이며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고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항시적인 근원이라고 인정하면서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며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자기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조선 인민과 청년들의 정당한 립장을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콩고사회주의청년동맹대표단은 영용한 조선인민과 청년들이 백전백승하는 천재적인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와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하리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하였다.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반제민족해방혁명을 완수하고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려는 콩고 인민과 청년들의 굳은 결의를 표시한 콩고로동당과 콩고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열렬히 축하하였으며 이는 콩고 인민과 청년들의 혁명발전에서 새로운 력사적사변으로 되며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커다란 타격으로 된 승리였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콩고 인민과 청년들이 느구아비대통령의 령도밑에 낡은 국가기구를 파괴하고 새로운 국가기구를 세웠으며 민족군대를 창건하고 그를 강화하고있으며 제국주의자들과 체결한 예속적인 각종 군사적협정들을 폐기하고 외국군사기지를 철폐하였으며 혁명재판소를 세우고 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한 인민의 원수들을 용서없이 처단하면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책동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기 위하여 정력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데 대하여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콩고 인민과 청년들이 《자력에 의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자》는 구호밑에 나라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며 사회의 민주주의적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달성한 성과들을 열렬히 축하하

였다.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콩고 인민과 청년들의 민족적독립의 공고화와 사회주의에로의 지향을 가로막고 콩고혁명을 교살하며 그가 아프리카에 미치는 영향을 말살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미쳐날뛰고있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 반역적모부투괴뢰도당을 비롯한 아프리카반동들과 국내반동들의 교활한 와괴전복음모책동을 단호히 규탄하였다.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최근 미제와 그의 지원을 받는 모부투괴뢰도당이 신생 콩고인민공화국을 반대하여 조작한 정부《전복》음모를 단호히 분쇄하였으며 반혁명분자들을 일망타진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경각성있게 고수한 용감한 콩고 인민과 청년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콩고 인민과 청년들이 느구아비대통령과 콩고로동당의 령도밑에 반제민족해방혁명의 과업을 완수하고 사회주의길로 나아가려는 자기들의 결의를 실현하며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자립적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며 새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달성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쌍방은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세계 인민과 청년들의 가장 흉악한 공동의 원쑤인 미제국주의는 멸망하여가는 저들의 처지로부터의 출로를 침략과 전쟁에서 찾으려고 더욱더 교활하고 음흉하게 책동하고있는데 대하여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쌍방은 사회주의나라들과 신생독립국가들을 반대하며 민족적 독립과 해방을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는 미제를 준렬히 규탄하였다.

쌍방은 현시기 세계의 민주주의적이며 진보적인 청년들은 전세계인민들과 청년들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인 미제국주의에 공격의 예봉을 돌리며 그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는것을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쌍방은 세계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다음과 같은 반미투쟁전략의 정당성을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혁명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이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미국놈들의 팔다리도 뜯어내고 머리를 잘라버려야 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강한것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여러 나라 인민들이 사면에서 공격을 들이대고 모두 달라붙어 각을 뜨면 그들은 맥을 추지 못할것이며 결국에 가서는 멸망하고야 말것입니다.》

쌍방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반미투쟁전략방침을 강령적지침으로 삼고 혁명하는 모든 나라 청년들과 힘을 합쳐 미제의 각을 뜨며 그의 종국적인 멸망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끝까지 싸울 확고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쌍방은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아세아에서 또다시 위험한 전쟁세력으로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가 나라의 파쑈화와 군국화를 더욱 다그치면서 아세아인민들을 반대하는 공공연한 침략의 길에 나서고있는데 대하여 견결히 규탄하였다.

쌍방은 전세계 진보적청년들이 일본군국주의재생에 응당한 경각성을 높이며 일치한 행동으로써 일본군국주의침략적야망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쌍방은 월남에서 감행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을 단호히 규탄하며 월남 인민과 청년들의 영웅적반미구국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쌍방은 미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침략책동을 물리치면서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있는 꾸바 인민과 청년들의 영웅적투쟁에 견결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쌍방은 미제와 그의 적극적인 지원과 사촉을 받고있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민족적 독립과 존엄을 수호하고 강점당한 아랍땅을 되찾으며 팔레스티나 인민의 혁명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아랍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쌍방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고 자유와 민족적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앙골라, 모잠비크, 기네 (비싸우) 등 아프리카의 혁명적 인민들과 청년들에게 전투적련대성을 보내면서 아프리카인들에 대한 야만적인 인종주의정책에 매달리고있는 남아프리카 및 남로데시아인종주의자들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쌍방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싸우고있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청년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과 콩고사회주의청년동맹은 앞으로도 반제반미공동투쟁에서 두 나라 청년들과 청년단체들간의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계속 모든 노력을 다할것을 확인하였다.

조선청년들과 콩고청년들간의 친선 만세!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청년들간의 전투적련대성 만세!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오 기 천

콩고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베 르 나 르 드
콩보—마찌오나

1970년 4월 21일

# 사회단체 편지, 성명

뉴욕에 있는

## 조선민주주의통일전선 위원장에게 보낸 회답편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수상이신 김일성원수께 1970년 3월 1일 뉴욕에 있는 조선민주주의통일전선위원장 고병철로부터 조국의 통일문제와 관련한 편지를 보내여왔다.

김일성수상의 위임에 의하여 6월 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인사들이 이 편지에 회답을 보내였다.

회답편지는 다음과 같다.

미국 뉴욕주 뉴욕시 서부 43가 127

조선민주주의통일전선 위원장
고 병 철 귀 하

조국의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1970년 3월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수상이신 김일성원수께 드린 당신의 편지를 우리는 김일성수상의 위임에 의하여 신중히 연구하고 오늘 이 편지를 당신에게 보내는바입니다.

우리는 먼저 당신이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는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당신에게 충심으로 인사를 전하는바입니다.

당신의 편지에는 일부 우리와 견해를 달리하는 점들도 있지만 많은 점에서 우리의 의견과 부합되는 좋은 견해들이 담겨져있는것을 찾아볼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자기의 편지에서 정돈상태에 빠져있는 조국통일의 념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조선당사자들이 련석회의를 가지고 협상할것을 제기하면서 당장 해결을 기다리는 주요문제들로서 남북으로 갈라진 가족들과 친척들간의 편지거래, 남북간의 통상 및 경제적협조와 예술, 기술, 체육의 교류, 남북간의 불가침협정의 체결과 군대 및 군사비의 대폭축소와 같은 문제들을 [illegible]

우리는 당신이 내놓은 이러한 의견들이 의심할바 없이 통일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신이 이번에 내놓은 문제들이 새로운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이미 오래전부터 거듭 제기하여온 문제들과 많은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 기회에 통일문제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시종일관한 립장과 방침을 당신에게 다시한번 상기시키려고 합니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수상께서는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기본립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조선의 통일이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에 의하여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원칙에 기초하여 평화적으로 이룩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립장입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바와 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조국이 인공적으로 분렬된 첫날부터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왔습니다.

일찌기 1948년 4월에 벌써 남조선의 우익정당들까지 참가하여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조선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는 모든 외국군대를 동시에 철거시키고 전조선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정부를 세우는 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것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과 리승만매국도당은 이것을 한사코 반대하고 총칼의 탄압밑에 남조선에서 망국적인 단독《선거》를 강행하여 남조선괴뢰정권을 조작함으로써 공공연히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1949년 4월에 남북조선의 71개 정[illegible]

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대회는 남북조선총선거를 실시하여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할것을 거듭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이때에도 이 애국적인 발기를 거부하고 이른바 《북벌》준비를 다그치며 38연선에서 무장도발을 날로 강화하여나섰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 전쟁의 위험이 날을 따라 짙어가던 1950년 6월 조국전선중앙위원회에서는 남북조선의 자유로운 총선거로 전조선최고립법기관을 창설할데 대한 평화적조국통일방도를 추진시킬것을 다시금 제의하였으며 뒤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 《국회》를 단일한 전조선립법기관으로 련합하는 방법으로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방안까지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끝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하는것으로써 이에 대답하였습니다.

만일 이 모든 정당한 제안들이 실현되였더라면 조선은 벌써 오래전에 평화적으로 통일되였을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정전이후에도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노력을 한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54년 4월에 열리였던 조선문제의 평화적조정을 위한 제네바회의가 미제와 남조선반동당국의 파괴책동으로 깨여진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평화통일을 위하여 계속 진지하게 기울여온 노력의 몇가지 대표적실례만을 들어도 다음과 같습니다.

1954년 10월 최고인민회의 제8차회의에서는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 《국회》의 합동회의를 평양 또는 서울에서 열데 대한 통일방안을 제기하였습니다.

1955년 8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수상께서는 8.15해방 10돐기념경축대회보고에서 조선에서 [illegible]

철거시킬 조치를 취하며 남북조선당국은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무력행사도 하지 않고 오직 평화적방법으로만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할 의무를 질것을 선포하며 남북조선군대를 최소한도로 줄이며 남북조선당국의 대표자회의를 열것 등을 제시하시였습니다.

1956년 4월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는 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가 철거할것을 주장하는것과 함께 남북간의 정치, 경제, 문화적 련계, 물자교류, 사람들의 래왕, 통신의 교환 등을 가로막고있는 장벽을 없애고 호상 접촉을 촉진시키는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남북통일의 문제까지 토의하며 그 실지 대책을 취할수 있는 상설위원회를 남북조선정권당국, 최고립법기관 또는 정당,사회단체대표들로 구성할것을 제의하였습니다.

1957년 9월 김일성수상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1차회의에서 또다시 우리 조국의 평화적통일방침을 명백히 밝히시면서 우리 나라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남북조선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남북조선군대를 대폭 축소할것과 분렬로 말미암은 인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며 남북으로 갈라진 부모처자, 친척, 친우들의 절실한 념원을 풀어주기 위하여 지체없이 남북간의 통상과 래왕, 통신과 문화 교류를 실현할것을 제기하시였습니다.

1958년 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고있는 모든 국가들이 조선에서 자기의 군대를 즉시 철거시키기 위한 해당한 조치를 빨리 취할것을 요구하며 모든 외국군대가 완전히 철거한후 일정한 기간내에 전조선자유선거를 실시하여 조선을 평화적으로 통일할데 대한 방안을 제기하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이 혁기적방안을 적극 지지하여 중국인민지원군은 조선에서 주동적으로 완전히 철거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제침략군은 그후에도 남조선에서 물러가지 않고 계속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여왔습니다.

1960년 4월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영웅적봉기로써 리승만괴뢰정권을 타도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남조선에서 조국통일의 기운은 전례없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때에 김일성수상께서는 1960년 8. 15해방 열다섯돐기념경축대회보고에서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변함없는 방침을 다시금 전면적으로 천명하시면서 만약 남조선당국이 아직은 자유로운 남북총선거의 실시에 응할수 없다면 완전한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의 과도적대책으로서 남북조선련방제를 실시하거나 정치문제와는 관계없이 경제문화교류와 편지거래, 인사래왕 등을 실현할데 대한 새로운 혁기적방안을 제기하시였습니다.

1960년 11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8차회의는 이 강령적인 방안을 구체화하여 남북조선간의 경제, 문화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며 남조선에서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을 도모할데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기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남조선에서 농업과 어업, 민족공업과 민족문화를 부흥발전시키며 주택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킬 전반적대책과 함께 이에 소요되는 방대한 재정경제적지출을 공화국정부가 부담하겠다는 제의들이 들어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끊임없는 성의있는 노력에 호응하여 남조선에서는 청년학생들이 남북 회담과 교류를 직접 실현하려는 길에 나섰으며 수많은 사회정치활동가들과 광범한 인민대중이 이를 적극 지지하여나섰습니다. 이리하여 남북이 소통하고 통일의 문이 열릴 감격적인 시각은 바야흐로 다가오고있었습니다.

바로 이에 겁을 먹은 미제국주의자들은 1961년 5월 극악한 군사파쑈분자들을 내세워 《군사정변》을 조작하고 평화적통일을 주장하여나섰던 남조선의 모든 정치활동가들을 닥치는대로 체포, 구금학살하였으며 인민들에 대한 일찌기 없던 류혈적폭압을 강화하여나섰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사태가 이와 같이 된 이후에도 오직 민족의 재난을 제거하고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일념으로부터 일련의 구국방안들을 여러차례 제의하였습니다.

1962년 6월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11차회의는 남조선당국이 당장 우리와 통일문제를 가지고 협의할 의사가 없다면 먼저 모든 문제해결의 선결조건인 남조선으로부터의 미제침략군의 철거와 남북조선간의 평화협정체결 및 남북조선군대의 축소와 같은 문제를 협상하기 위하여 판문점이나 평양 또는 서울에서 만날것을 제의하였습니다.

1962년 10월 김일성수상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연설에서 일련의 중간걸음들을 거쳐 완전한 통일에로 이르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거듭 밝히시였습니다.

1963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및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공동련석회의는 끊어진 민족의 뉴대를 회복하기 위한 초보적인 조치로서 편지거래와 인사래왕을 실현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경제, 문화 교류, 남북조선련방제의 실시를 거쳐 완전한 통일에로 이르기 위한 실천적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조선대표들이 만날것을 제기하였습니다.

1964년 3월에 있은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3차회의는 남북조선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를 소집하거나 남북조선 각계대표들간의 접촉과 의견 교환을 통하여 민족적 단합과 협조를 실현할것을 제의하였으며 남조선의 파괴된 경제를 바로잡으며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년 200만석의 쌀, 10만톤의 강재, 10억키로와트시의 전력, 1만톤의 화학섬유와 세멘트, 목재, 기계류 등을 남조선에 줄것과 남조선의 실업자들을 받아들여 그들에게 직업과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줄것을 제의하였습니다.

1965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4차회의에서도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며 조국통일을 촉진할데 대한 구국대책이 제기되였습니다.

이밖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재해를 입은 남조선리재민들에게 막대한 량의 식량과 구호물자를 보내주며 돈이 없어 공부못하는 남조선 고학생들에게 필요한 장학금을 지급하며 거리를 방황하는 남조선의 류랑고아들과 실업자들을 북반부에 받아들여 그들에게 보람찬 생활과 안정된 일자리를 줄것을 제의한것과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해당기관들이 편지거래와 인사래왕,경제문화교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조치들에 대하여 남조선의 해당 당국에 제의한것 등은 실로 헤아릴수 없이 많습니다.

이처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지난 20여년동안 시종일관하게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앞당기는데 합당하고 현실적이라고 인정되는 온갖 방도와 대책을 다 강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이 모든 방안들과 제의들이 하루빨리 민족분렬의 비운을 끝장내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독립을 실현하려는 온 민족의 불타는 지향을 그대로 반영한것이며 오랜 기간 남북이 서로 다른 길을 걷는 과정에 이루어진 나라의 복잡한 객관적현실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여기에는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통하여 단번에 완전한 통일을 이룩하는 방도뿐만아니라 일련의 중간걸음을 거쳐 점차 완전한 통일에로 접근하는 방도도 제기되여있으며 남조선당국이 이

를 받아들일수 없다면 정치문제와는 관계없이 분렬로 말미암은 인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일련의 인도주의적조치라도 취할 구체적인 방안이 제기되어있는것입니다.

때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제안들은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전체 남북조선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전세계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같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의 력대위정자들은 이 모든것을 뒤에놓고 반대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성의있는 노력에 대하여 매번 침략적도발행동으로 대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공명정대한 제안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도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원래 협상과 교류는 어느 일방의 의사만으로는 이룩될수 없는것이며 쌍방의 합의와 공동의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한것입니다. 또한 평화통일을 하자면 그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남조선매국정권은 미제의 지시밑에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반대할뿐만아니라 남북조선련방제도 반대하고 남북간의 평화협정체결과 무력축소도 반대하고 경제문화교류와 인사래왕도 반대하고 남북조선대표들의 접촉과 협상도 반대하고 최소한의 인도주의적조치로써 제기한 남북간의 편지거래까지도 한사코 반대하며 도대체 통일촉진에 도움이 되는 어떠한 제안이든지 모두 반대하였습니다.

지어 남조선반동당국은 남조선인민들이 《평화통일》이란 말만 하여도 《국시위반》이라 하여 마구 잡아가두고 엄벌에 처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서 과연 어떻게 남북간의 접촉과 협상이 이루어지고 평화통일이 실현될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당신의 편지에 제기되여있는 그러한 제안들도 만약 남조선에서 그 누가 들고나왔다고 하면 그는 벌써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거나 령어의 몸이 되였으리라는것은 조금도 의심할바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여기에서도 조선의 통일이 무엇때문에 그처럼 오래도록 실현되지 못하고있으며 조선에서 항시적으로 긴장상태와 전쟁위험이 떠돌게 되였는가 하는것을 충분히 리해할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러한 실정을 정확히 알았더라면 평화통일과 남북교류를 실현할데 대한 문제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권고하기에 앞서 마땅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평화통일방안을 일관하게 거부하고있는 남조선당국에 권고하게 되였을것이라고 믿습니다.

공화국정부는 평화통일방침을 어느 한 때도 포기한 일이 없으며 또 그것을 포기한다고 공포한 일도 없습니다. 조국의 평화적통일은 언제나 변함없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이것을 가로막고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없이 지속시키고있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에 아부굴종하는 남조선반동당국에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남조선에 미제국주의자들과 현매국정권을 그대로 두고서는 조선의 평화적통일이란 사실상 생각할수 없다고 인정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그곳을 자기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며 그를 발판으로 하여 전조선과 아세아를 침략하려는 흉악한 목적을 추구하여왔습니다.

이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그들은 총칼로 남조선에서 괴뢰정권을 조작하고 통일대신에 분렬을 꾀하며 평화대신에 전쟁을 일삼으며 남북간의 민족적단합대신에 끊임없는 반목과 대립을 고취하여 왔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때문에 그들이 눈을 달아매고 공화국정부의 성의있는 모든 평화통일방안을 그처럼 기를 쓰고 반대하겠습니까.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 감행하고있는 자기들의 범죄적책동의 정체를 가리우기 위하여 있지도 않는 《북으로부터의 공산주의침략위협》에 대하여 떠들며 마치도 그것을 막기 위하여 미국군대가 남조선에 머물러있는듯이 떠벌이고있습니다.

그러나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이란 원래 있지도 않으며 또 있을수도 없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남진할 의도가 없으며 무력으로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다는데 대하여 한두번만 천명하지 않았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오늘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이 그처럼 격화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선에서 전쟁의 불길이 터지지 않고 평화가 유지되고있는것은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참을성있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제입으로 떠벌이는 남조선에 대한 이른바 《원조》와 《보호》의 기만적정체는 오늘 남조선이 처하고있는 참담한 현실자체가 똑똑히 말해주고있습니다.

바로 미국식 《원조》와 《보호》에 의하여 남조선은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 군사기지로, 가난과 굶주림, 테로와 학살이 지배하는 생지옥으로 전변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이 엄연한 사실을 감출수 없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또한 이른바 《유엔의 결의》에 빙자하여 자기들의 남조선강점과 조선에 대한 침략정책을 합리화하려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무 근거가 없는것입니다. 유엔헌장 제2조 7항에는 남의 나라, 남의 민족의 내정문제에 유엔이 간섭하여서는 안된다는것을 똑똑히 규정하고있습니다. 유엔은 조선문제에 관여할 어떠한 자격도, 권한도 없습니다. 이것은 조선전쟁때 유엔이 미제에 의하여 그의 기발을 도용당함으로써 교전일방의 지위에 굴러떨어진 조건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유엔이 조선문제에 그릇되게 개입하여 그자신의 권위를 떨어뜨리게 되였다는 견해는 1969년 10월 워싱톤에 있는 조선문제연구소 소장 김룡중씨가 유엔총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표명되였다는것을 우리는 잘 알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유엔에서 조선인민의 참다운 대표의 참가도 없이 제멋대로 꾸며낸 조선에 관한 모든 《결의》는 전적으로 무효입니다. 미제와 남조선반동당국이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대신에 내세우고있는 이른바 《유엔감시하의 선거》란 미제의 총칼의 위협밑에 부정과 협잡으로 조작된 《선거》결과를 유엔의 이름으로 합법화하며 그렇게 하여 남조선인민에게 강요된 식민지제도를 공화국북반부에까지 확장하려는 침략적흉계를 가리우기 위한 병풍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조선의 통일이 늦어지고 분렬이 심화되고있는것이 바로 미제와 남조선 반동당국때문이라는것은 박정희매국정권이 《반공》을 《국시》로 선포하고 공공연히 《승공통일》을 부르짖으며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 계속 머물러있어야 한다고 떠벌이고있는데서도 그대로 드러나고있습니다.

《반공》을 《국시》라 하고 《승공통일》을 하겠다는것이 곧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여 싸움을 하겠다는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 언제까지나 머물러있어야 한다는것이 조선을 영원히 분렬시키겠다는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실은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의 침략정책이야말로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이며 우리 민족이 겪고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조선에서 긴장상태와 새 전쟁의 위험을 조성하는 항시적근원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해방의 기쁨에 싸여있던 우리 조선인민에게 분렬의 비극을 가져다주었으며 통일을 갈망하는 우리 민족에게 동족상쟁의 류혈참화를 들씌웠으며 자주적발전을 지향하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식민지적예속을 강요한 범죄자, 침략자입니다.

오늘도 미제와 남조선반동당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과 전쟁 책동을 강화하며 군사적도발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고있습니다.

바로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대형간첩비행기 《이씨—121》사건은 조선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계획적책동의 한고리였습니다.

이때에 극도에 이른 긴장상태는 지금도 완화되지 않고있으며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반동당국은 남조선에서 애국적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횡포하게 감행하면서 전쟁준비를 더욱 발악적으로 다그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여기에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 세력까지 끌어들이고있으며 그를 《돌격대》로 삼아 조선에서 또다시 침략전쟁을 일으키려 하고있습니다.

지난날 거의 반세기동안이나 조선인민에게 식민지노예의 멍에를 들씌우고 갖은 야만적폭압과 략탈을 일삼았던 철천지원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되살아나 오늘 또다시 우리 조국 남반부에 공공연히 재침의 마수를 뻗치고있는 이 뼈아픈 사실에 대하여 조선사람은 누구나 끓어오르는 민족적분노를 금할수 없을것입니다. 지금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침략정책수행에 앞장섬으로써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망상하면서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에 적극 가담하고있으며 남조선에 일본침략군대를 직접 파견할데 대해서까지 공공연히 떠벌이고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징조들은 만일 우리 인민이 고도로 혁명적경각성을 높이지 않고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추지 않는다면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서 임의의 시각에 새로운 침략전쟁을 감행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이것은 조선뿐아니라 아세아와 세계평화에 대한 엄중한 위협입니다.

물론 우리 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전쟁으로 위협한다고 하여 결코 그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력사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우리 나라에서 또다시 침략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 인민은 언제든지 덤벼드는 원쑤들을 철저히 섬멸하여버릴 전인민적방위태세를 튼튼히 갖추고있습니다.

그러나 조국과 인민 앞에 숭고한 책임을 지니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우리의 아름다운 조국강산이 또다시 전쟁의 불바다속에 잠기는것을 바라지 않고있으며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하루빨리 우리 조선사람들자신의 손으로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부합되는 지극히 애국적인 립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국의 통일이 계속 지연되고 전쟁의 위험이 또다시 눈앞에 다가오고있는 이 긴박한 시각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조선사람이라면 그 누구든지 새로운 민족적재난의 위험을 제거하고 하루속히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여야 할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는 정견과 사상의 차이, 신앙의 유무와 과거의 여하에 관계없이 민족적량심이 있는 모든 조선사람들이 거족적으로 힘을 단합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민족적단합을 실현할 충분한 기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족분렬의 비극이 이 이상 더 지속되는것을 원하지 않으며 동족끼리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를 바라는것은 민족적량심이 있는 모든 조선사람들의 공통적인 심정일것이라고 인정합니다.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한 이러한 근본문제에서 공통된 견해를 가지고있다면 무엇때문에 힘을 단합하지 못하겠습니까.

이번에 당신이 김일성수상께 드린 편지를 통해서도 우리는 온 민족이 견해를 같이하고 단합을 이룩할수 있는 기초가 있다는것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에 비추어보아 우리는 이제 민족적량심이 있는 모든 조선사람들이 거족적으로 힘을 합쳐 우리 조선사람자신의 손으로 새 전쟁 위협과 민족비운의 온갖 근원을 뿌리빼고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인 구국대책을 세워나아가야할 시기가 성숙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민족의 주체적인 힘으로 국난을 타개하고 나라를 통일할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과 현실적인 방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김일성수상께서 제시하신 기본방침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시종일관 주장하고있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구체적방안들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안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수 있습니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남북조선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남북의 병력을 크게 줄일것.**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적인 중앙정부를 세울것.**

**—완전한 통일에 앞서 필요하다면 현재와 같은 남북의 각이한 사회제도를 그냥 두고서 과도적조치로서 남북조선련방제를 실시할것.**

**—남북간의 통상과 경제적 협조, 과학, 문화, 예술, 체육 분야의 호상교류와 협조를 실현할것.**

**—남북간의 편지거래와 인사래왕을 실현할것.**

**—이상의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각 정당, 사회단체들과 전체 인민적성격을 가진자들로서 남북협상을 진행할것.**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이 방안들은 통일을 진정으로 념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아들일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자면 무엇보다도먼저 극도로 첨예화된 긴장상태를 푸는것이 중요합니다. 긴장상태를 푸는 근본적인 방도는 정세를 격화시키는 장본인이며 새 전쟁의 화근인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는데 있습니다.

사실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 더 이상 머물러있을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여론을 속이고 저들의 남조선강점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마치도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이 물러가면 남북조선사이에 다시 전쟁이 터질듯이 묘사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치도 않은 헛소리입니다.

전쟁의 화근인 미제침략군이 물러가면 오직 평화의 전망이 밝아질뿐입니다. 그와 반대로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 계속 머물러있게 되면 전쟁의 위험은 불가피하게 언제까지나 남아있게 됩니다.

조선에서 전쟁의 위험을 없애며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 외국군대가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것이 유엔이든 무엇이든 외부세력이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엔은 마땅히 미제가 강압적으로 꾸며낸 조선문제에 관한 모든 비법적 《결의》들을 취소하고 《유엔군》의 간판밑에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며 악명높은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조선인민의 내정문제에 더는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4천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우리 민족은 자기의 민족문제를 얼마든지 자기의 손으로 해결할 충분한 능력을 가진 슬기롭고 분명한 민족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수상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자주권을 확고히 견지하고있으며 모든 문제를 자기의 주견과 결심에 따라 처리하고있습니다.

오늘 공화국북반부에는 어떠한 외국군대도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이 물러가면 조선에서 평화는 확고히 보장될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미제침략군이 물러간 다음 먼저 남북조선간에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행사를 하지 않을것을 서약하는 평화협정을 맺으며 남북조선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일것을 제기하고있습니다.

군대축소의 조치가 인민들의 군사비부담을 덜어주고 그들의 생활향상에 도움을 주며 특히는 남북간의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는데 대해서는 더 설명할것도 없을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다음으로 통일적중앙정부의 수립을 위한 자유로운 남북조선총선거를 실시하자는것입니다.

이 총선거는 물론 남조선에서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폭압이 중지되고 체포구금된 남조선의 모든 정치범들이 석방되여 남북조선의 정당, 사회단체들과 개별적인사들이 전조선 어느 지역에서나 제한없이 정치활동을 전개할 완전한 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를 보장받으며 전체 인민들이 남북조선 어느 지역에서나 동등하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수 있는 조건밑에서 진행되여야 할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남조선당국이 이와 같은 자유로운 남북총선거의 실시를 당장 받아들일수 없다면 완전한 통일을 실현할 때까지의 과도적대책으로서 남북조선련방제를 실시할 용의를 표명하고있습니다.

이 련방제는 남북조선에 수립된 현존한 각이한 사회제도를 그대로 두고 민족공동의 리익을 위하여 쌍방의 호상협조와 교류를 도모하게 될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하고 점차 완전한 통일에로 이르도록 하려는것입니다.

우리는 남북간의 사회제도의 차이로 하여 통일문제해결에서 비록 일정한 위구를 가지고있는 사람이라하더라도 이러한 과도적조치는 능히 받아들일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화국정부는 남조선당국이 련방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얼마동안 정치문제와는 관계없이 남북간의 경제, 문화교류를 실시하거나 편지거래와 인사래왕과 같은 초보적인 문제부터라도 하나 하나 해결하도록 할것을 제의하고있습니다.

외국사람들과도 경제문화교류를 하는데 하물며 한민족간에 이것을 못할 리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남북조선간의 경제교류는 북의 공업과 남의 농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자립적인 발전을 촉진하게 될것은 물론 파괴된 남조선경제를 소생시키고 도탄에 빠진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길을 열어주게 될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남조선당국이 이것도 정 못하겠다면 하다못해 남북간의 편지거래나 인사래왕이라도 실현시켜 오래동안 헤여져사는 부모처자, 친척친우들간에 서로 안부라도 전하고 면회라도 하게 하여 쌓였던 회포를 풀어주도록 하자는것을 제의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박정희를 제외한 남조선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 또는 개별적인사들과 어느때나 만나 협상하자는것이 공화국정부의 립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에서 이미 지적한바와 같이 공화국정부는 박정희반동당국에 대하여서까지도 그들이 민족적립장으로 돌아설것을 진심으로 희망하면서 나라의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구국방안을 제기한것이 한두번이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일찌기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한 민족의 반역자이며 해방후에는 미제의 충실한 앞잡이로 변신한 박정희역도는 끝끝 공화국정부의 모든 정당한 제의들을 거역하고 그 선행자들도 감히 하지 못하던 온갖 매국매족행위를 다 저질렀습니다. 바로 전쟁을 뜻할뿐인 《승공통일》을 부르짖는 매국노들과 어떻게 평화통일문제를 론의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공화국정부는 박정희가 아니고 누구든지 민족적량심을 가지고있으며 외세를 업어들이지 않고 파쑈를 반대하며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과는 어느때라도 나라의 통일문제를 가지고 협상하려는 립장에 서있습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방향에서 남북의 정당, 사회단체들이 련합하며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의 힘을 단합한다면 능히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킬수 있을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오직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일본군국주의세력의 재침책동을 꺾어버리며 박정희매국정권을 뒤집어엎고 애국적인 민주주의세력들이 정권을 잡아야만 우리 조국의 평화적통일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오늘 민족의 머리우에 드리운 새로운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자주적으로 나라를 통일하는것은 모든 조선사람들앞에 나선 가장 숭고한 과업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수상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갈라져있고 하나의 피줄을 이어받은 우리의 동포형제자매들이 외래침략자들에게 갖은 민족적 모욕과 천대를 다 받고있는 이 불행한 처지를 그대로 두고서는 조선의 어느 공산주의자도 조선의 어느 량심있는 민족주의자도 자기의 임무를 다하였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지금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는 모든 조선사람들이 그가 갈라진 조국의 남쪽에 있건 북쪽에 있건 또는 국내에서 살건 해외에서 살건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이건 관계없이 미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강점을 반대하고 그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민족분렬정책, 새 전쟁 도발책동을 폭로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며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합류하여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이나 당파의 리

익에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라 온 민족의 흥망에 관계되는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한강토안에서 인공적장벽에 가로막혀 새로운 한세대가 자라도록 남북간에 어떠한 접촉과 래왕도 이루지 못한채 지나온 분렬의 비극과 고통을 이 이상 더 지속시킬수 없으며 결코 분렬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줄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의 즉시 철거를 요구하는 광범한 대중적운동을 국내외에서 더욱 강력히 전개하며 모든 애국력량이 굳게 손을 잡고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남조선으로부터의 미제침략군의 철거와 남북간의 교류 및 협상을 주장하는 각 방면의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남조선과 해외에서 보다 광범한 여론을 조성하고 우리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촉진하는데서 응당한 기여를 할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삼천리강토우에 세상에 부러울것 없는 살기 좋고 부강한 나라, 4천만의 락원을 건설할 그날을 위하여 누구나 다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여야 할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당신이 우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는바입니다.

경의를 표하면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 | | |
|---|---|---|
| | 위원장 박사 | 리 극 로 |
| 〃 | 부위원장 목사 | 강 량 욱 |
| 〃 | 부위원장 원사 | 백 남 운 |
| 〃 | 상무위원 작가, 인민상계관인 | 리 기 영 |
| 〃 | 위원 원사, 박사, 교수 | 홍 기 문 |
| 〃 | 위원 원사, 박사, 교수 | 김 석 형 |

1970년 6월 3일

평 양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미제의 지시밑에 감행하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인 동족매매행위를 규탄하여)

지금 남조선에서는 로동자, 농민, 녀성들이 집단적으로 해외에 팔려가는 참을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있다.

통신보도에 의하면 미제의 지시밑에 박정희괴뢰도당은 올해에 《인력수출》과 《이민》의 명목밑에 8천여명의 남조선주민들을 해외에 있는 미제침략군기지와 외국의 독점자본가들과 농장주들에게 팔아먹으려 하고있으며 그 첫걸음으로서 지난 1월 28일 130여명의 녀성들을 서부독일에 팔아넘기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이것은 뼈속까지 매국매족의 악습이 들어차있는자들의 천추에 용서못할 민족반역행위이며 전체 조선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미제의 지시밑에 박정희괴뢰도당이 감행하고있는 범죄적인 동족매매행위를 치솟는 민족적분노로써 단호히 규탄한다.

중세기 노예상인들을 무색게 하는 박정희괴뢰도당의 동족매매행위는 지금까지 놈들이 감행하여온 매국배족행위의 계속이다.

미제의 지시밑에 박정희괴뢰도당은 이미 수만명의 남조선청장년들을 미제의 대포밥으로 남부월남침략전쟁터에 내몰아 개죽음을 시키고있으며 우리 민족의 철천지원쑤인 일본군국주의자들까지 남조선에 끌어들여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팔아먹는 천인공노할 매국배족행위를 일삼고있다.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놈들은 《해외이민위원회》니, 《해외이민법》이니 하는 상설적인 인신매매기구들과 악법들까지 꾸며내여 1962년부터 7년동안에만도 무려 6만 2천여명의 남조선주민들을 남미주와 남부월남, 서부독일 등지에 팔아먹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으며 앞으로 2~3년어간에 또 7만여명을 팔아넘기려고 책동하고있다.

이 얼마나 매국매족에 환장이된자들의 저주로운 만행인가.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반역자들은 남조선의 수백만 실업자들을 북조선에 받아들여 취업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우리의 제의를 거부하고 동족을 구미 각국에 상품과 같이 팔아넘기고있습니다.》라고 지적하시였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바와 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이민》흥계를 꾸미고있던 첫시기부터 그의 주요대상으로 되고있는 남조선의 실업자들과 빈민들을 북반부에 넘겨받아 그들에게 희망과 기능에 따라 직업을 알선하여주며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모든 조건을 보장해줄데 대하여 거듭 제의한바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은 공화국정부의 이 뜨거운 동포애적조치를 매번 거부하였으며 우리의 정당한 제의에 남조선동포형제들을 해외에 팔아먹는것으로써 대답하였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해외동포들에게 공화국국적법을 마련하여주고 그들을 공화국공민으로 따뜻이 보살펴주면서 그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사회주의조국의 품으로 돌아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귀국의 길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은 해외동포들이 살길을 찾아 공화국에로 귀국하는것까지 한사코 방해하면서 한편으로는 남조선의 수많은 동포들을 산설고 물설은 이역만리에 종신노예로 팔아넘기고있다.

이 얼마나 판이한 대조를 이루는 현실인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이러한 대조적인 현실을 《합리화》해보려고 어리석게도 저들의 인신매매행위를 그 무슨 《실업자의 구제》니, 《일확천금을 하는 길》이니 하고 떠벌이고있다.

그러나 놈들의 《실업자의 구제》니, 《일확천금》이니 하는 기만적인 광고가 해외에 팔려간 남조선인민들에게 가져다준것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외국의 독점자본가들과 농장주들의 참을수 없는 민족적 멸시와 압박, 고역과 질병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목숨을 잃는 기막힌 참변뿐이다.

얼마나 많은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들이 이국땅의 캄캄한 지하막장과 군사시설장과 농장에서 원수들에 대한 피맺힌 원한을 품은채 고국을 그리며

억울하게 죽어갔으며, 얼마나 많은 남조선녀성들이 제국주의자들의 롱락물의 대상으로 되여 정개를 유린당하고 쓰러져갔는가!

우리의 귀전에는 오늘도 남미주와 서부독일, 남부윁남과 괌도 등 죽음의 고역장에서 쓰러져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피맺힌 절규와 신음소리가 쟁쟁히 들려오고있다.

도대체 한나라 한강토우에서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다같이 일하고 배우며 행복하게 살고있는 때에 어찌하여 남조선인민들은 사랑하는 고국을 등지고 다시 돌아올수 없는 죽음의 이역땅으로 팔려가야 한단말인가!

그것은 다름아닌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박정희도당의 매국매족책동때문이며 놈들이 벌리고있는 전쟁책동때문이다.

놈들은 오늘 남조선을 화약내 풍기는 군사전초기지로 전변시키고 우리나라에서 또다시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남조선의 모든 인적물적자원을 자기들의 전쟁정책수행에 철저히 복종시키고있다.

미제의 지시밑에 박정희역도가 최근 《이민》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는것은 바로 동족을 파는 대가로 더 많은 외화를 긁어들여 전쟁정책수행에 요구되는 자금을 충당해보려는데 그 흉악한 목적이 있다.

또한 그것은 남조선인민들이 극도의 무권리와 빈궁에 신음하는 원인이 제놈들의 침략과 반인민적매국통치에 있는것이 아니라 마치 남조선에 인구가 너무 많기때문인듯이 사태를 외곡하여 인민대중의 반미반정부적감정과 반미구국투쟁을 막아보려는 발악적책동으로부터 출발하고있는것이다.

박정희역도는 바로 이와 같은 흉악한 정치적목적밑에서 반동적인 《과잉인구론》을 인민들속에 공공연히 류포시키고있으며 《이민유익설》까지 퍼뜨리고있다.

그러나 이것이 황당무계한 궤변이라는것은 해외에 팔려가있는 사람들의 비참한 처지가 그대로 말하여주고있지 않는가!

과연 《이민》이 남조선인민들에게 살길을 가져다준다면 무엇때문에 이미 해외에 팔려가있는 사람들이 생활처지의 개선과 귀환을 요구하여 그처럼 완강히 대중적인 투쟁을 벌리고있겠으며 집단적인 도주를 단행하고있겠는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제아무리 허위기만책동에 매달린다해도 인민대중을 절대로 속일수 없으며 남조선에서 날로 심각화되고있는 식민지파쑈통치의 위기를 수습할수 없다.

전체 조선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이 감행하고있는 범죄적인 인신매매행위를 만천하에 고발하며 통일될 조국강토에서 함께 살아야 할 우리의 동포형제자매들을 이국땅에 팔아먹는것을 절대로 허용할수 없다.

만약 원수들이 범죄적인 《인력수출》책동에 매달려 남조선인민들을 계속 해외에 팔아넘긴다면 그들은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의 더욱 강력한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며 우리 인민앞에서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인 《이민》책동에 속지 말고 그를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원수들의 기만책동에 속히워 타국만리로 팔려가는것은 죽음의 길이다. 오직 일어나 싸우는 길만이 놈들의 《이민》책동을 분쇄하고 민족의 존엄을 고수하는 길이며 자유와 해방을 달성하는 길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단 한사람도 해외에 팔려가지 말고 다같이 들고일어나 침략자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을 타도하며 조국을 자주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야 한다.

이미 해외에 끌려가있는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고 고국에로의 귀환을 요구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투쟁의 지침으로 삼고 일편단심 그이를 무한히 흠모하며 그이의 가르치심에서 힘과 용기를 얻으며 싸우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이 수령의 주위에 굳게 뭉쳐 반미구국투쟁을 더욱 억세게 벌림으로써 반드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자유와 해방을 달성하리라는것을 확신한다..

1970년 2월 2일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미제침략자들의 야수적만행이 더욱 우심해지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고 미제침략자들의 야수적만행에 항거하여 과감히 싸우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에 전투적지지와 동포애적성원을 표시하여)

요즘 남조선에서는 미제침략자들의 야수적만행이 날을 따라 더욱 우심해지고있다.

지난 8월 8일 동두천에 뭉지를 틀고있는 미제침략군부대의 20여명의 헌병놈들은 제놈들의 만행에 항의하는 수십명의 조선인 자동차운전수들에게 이리떼처럼 달려들어 목을 조르고 곤봉을 휘둘러 다리를 꺾어놓는 등 야만적인 집단폭행을 가하였다.

8월 10일에도 미제침략군 제46수송대소속 한 살인귀놈이 서울시 영등포구 왕길에서 자동차를 몰고가다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심심풀이로 들이받아 운전수와 녀학생을 즉사시키고 다른 두명에게 중상을 입히고 도망치는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1일에는 충청남도 대전에 뭉지를 틀고있는 미제침략군부대의 두 야수놈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있던 한영태와 그의 안해를 사냥총으로 쏘아 중태에 빠뜨리는 범죄적만행을 감행하였다.

또한 8월 3일에는 동두천에 도사리고있는 미제침략군부대의 에드워드 때이어라는 악당놈이 젊어무개녀성에게 달려들어 입을 틀어막고 마구 때려 실신시킨후 면도칼로 그의 머리를 박박 밀어제끼는 흉악한 만행을 감행하였다.

남조선에서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는 이 모든 극악한 만행들은 해적의 후예들이며 20세기의 야만들인 미제침

략자들만이 저지를수 있는 천추에 용납못할 범죄행위이다.

지금 전체 조선인민은 미제승냥이들의 이 치떨리는 야수적만행에 끓어오르는 민족적격분을 금치 못하고있으며 놈들을 천백배로 복수할 일념에 불타고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에서 감행하고있는 천인공노할 야수적만행을 치솟는 민족적분노로 단호히 규탄한다.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가장 야만적인 식민지파쑈테로통치를 실시하면서 광란적인 전쟁정책과 파쑈폭압을 일삼는 한편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온갖 야수적만행을 끊임없이 감행하여왔다.

얼마나 많은 우리의 동포형제자매들이 미제침략자들의 살륙만행에 의하여 원한품고 쓰러졌으며 얼마나 많은 우리의 동포형제자매들이 승냥이 같은 미제침략군놈들의 민족적모욕과 횡포속에 참을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겪어왔던가.

사람잡이에 이골이난 미제침략군 야수들은 남조선도처에서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쏘아죽이고 때려죽이고 갈아죽이고 목을 졸라죽였으며 오늘도 살륙만행을 계속하고있다.

이 흉악한 살인귀들은 철없는 어린이들을 쏘아넘기고 너털웃음을 치며 백발의 로인들을 군용차로 깔아뭉개고 히히덕거리며 부녀자들의 머리대를 깎고 하반신에 뺑끼칠을 하여 거리에 내쫓으면서 쾌락을 느끼는, 짐승도 낯을 붉힐 야수적만행을 거리낌없이 감행하고있다.

이것이 바로 남조선인민들의 《벗》으로 자처하는 미제침략자들의 진면모이며, 이것이 바로 남조선인민들의 《보호자》로 가장한 미제침략자들의 정체이다.

실로 오늘 우리 조국 남녘땅에는 미제승냥이들에 의하여 인민들의 원한이 사무쳐있지 않은 도시와 마을이 없으며, 우리 인민의 피로 물들지 않은 산과 들판이 없다. 온 남조선땅은 문자그대로 미제승냥이들에 의하여 무참히 쓰러진 동포형제자매들의 붉은 피로 붉게 물들여져있으며 산천초목도 분노에 치를 떨고있다.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미제침략자들의 야수적만행은 특히 미제와 그 앞잡이 박정희괴뢰도당간에 범죄적 《한미행정협정》이 꾸며지고 최근 《미군감축설》의 막뒤에서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과 때를 같이 하여 더한층 광기를 띠고 감행되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이 극히 축소하여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범죄적인 《한미행정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금년 2월까지의 3년간에 미제침략군이 감행한 만행건수는 무려 7천여건에 달한다.

이것은 하루 평균 거의 7건에 달하는 각종 야수적만행이 감행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에서는 미제침략군의 야수적만행에 의하여 동포형제자매들이 억울하게 피를 흘리고있으며 무참하게 학살당하고있다.

제반 사실은 미제침략자들이야말로 가장 악독한 살인마이며 강도적략탈자이며 흉악한 전쟁광신자이며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에서 감행되고있는 미제침략군의 야수적만행은 조상때부터 침략과 략탈, 살륙과 강도 행위로 길들여진 놈들의 야수적본성으로부터 출발한 고의적인 범죄행위로서 그것은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려는 흉악한 전쟁정책의 직접적인 산물인것이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제의 충실한 개가 되여 놈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적극 추종하면서 놈들의 야수적만행을 적극 감싸주고있을뿐만아니라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영구강점을 애걸복걸하고있다.

이것은 박정희괴뢰도당이 얼마나 추악한 미제의 개이며 얼마나 악독한 매국배족의 무리인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창조한 문명하고 존엄있는 우리 민족이 어찌 해적의 후예들인 미제침략자들의 야수적만행을 그대로 감수할수 있으며 미제의 앞잡이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배족행위를 그대로 보고만 있을수 있겠는가.

바로 그렇기때문에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의 범죄적만행에 치솟는 민족적격분을 터뜨리면서 대중적반미구국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는것이다.

이것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천만번 정당한 애국투쟁이다.

우리는 미제침략자들의 만행에 항거하여 과감하게 싸우고있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열렬한 전투적지지와 뜨거운 동포애적성원을 보낸다.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우리의 동포들을 학살하며 략탈하며 모욕하는 미국군대의 강도행위를 결정적으로 규탄하고 저지시켜야 하며 침략자들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인민들은 도처에서 미제침략자들의 야수적만행을 준렬히 규탄하며 범죄자들을 모조리 끌어내여 무자비하게 처단함으로써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

피를 즐기는 승냥이무리들은 피로써 다스려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원쑤들의 만행에는 보다 큰 반격으로 대답하며 놈들에게 천백배의 복수의 징벌을 안겨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이 오늘의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야 한다.

전체 남조선인민들은 반미구국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100여년의 피맺힌 원쑤 미제침략자들을 남녘땅에서 몰아내고 그의 충실한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을 타도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아가야 할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이 반미구국투쟁에서 최후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께서 가리키시는 승리의 길을 따라 더욱 힘차게 싸워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전체 남조선인민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높이 받들고 반미구국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림으로써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쓸어버리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하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

1970년 8월 17일

평 양

#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와 대회에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총비서로 다시 추대되신데 대하여 형제당들과 세계혁명적벗들로부터 축하문과 축전을 보내왔다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자주적이고 원칙적인 대외정책은 세계의 많은 형제당들과 나라들, 세계의 수많은 혁명조직들과 인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있으며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는 4천만 조선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열렬한 축하와 깊은 관심속에 진행되였으며 당대회에서는 전당의 일치한 의사와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반영하여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총비서로 다시금 추대하였다.

이 경사스러운 소식에 접한 여러 나라 공산당, 로동당들과 신생독립국가의 집권당들, 세계 여러나라의 혁명조직들, 친선단체들, 국제기구 및 각국 사회단체들 그리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활동을 연구하는 여러 단체들, 세계 수많은 혁명적 동지들과 벗들은 무한한 감격과 기쁨에 휩싸여 당대회와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보내여왔다.

세계의 수많은 당 및 국가지도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를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위대한 령도자로, 20세기중엽의 가장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로, 싸우는 인민들의 앞길을 밝혀주는 동방에 솟은 태양으로, 영원히 빛나는 혁명의 새별로 우러러 칭송하고있다.

축하문과 축전을 보내온 수많은 공산당, 로동당들, 혁명조직들, 친선단체들과 사회단체들, 혁명동지들과 진보적인사들은 다음과 같다.

##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축하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월남로동당 중앙위원회,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피델 까스뜨로 루쓰, 몽골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루므니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웽그리아사회로동당 중앙위원회, 독일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 콩고로동당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끌로드 에르네스트 느괄라, 앙골라인민해방운동 위원장 박사 아고스띠노 네또, 뻬루공산당 중앙위원회, 타이공산당 중앙위원회,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인도공산당(맑스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피. 순다라야, 이딸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프랑스공산당 중앙위원회, 영국공산당 총비서 존 골랜, 수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미국흑인팬서당, 독일의공산당 위원장 쿠르트 바흐만, 룩스까뿔일로동당 중앙위원회, 화란공산당 중앙위원회, 알바니아로동당 중앙위원회, 이란인민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대리 이라지 에스깐다리, 일본공산당 중앙위원회, 레바논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니꼴라샤우이, 토이기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야쿠브 데미르, 도미니까공산당 총비서 나르시소 이싸꼰데, 수리아아랍사회부흥당 민족지도부, 아랍사회주의동맹 중앙위원회, 미국공산당 전국위원회 위원장 헨리 윈스톤, 총비서 거스홀, 오지리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프란쯔 무리, 비서 에르빈 샤르프, 레유니옹공산당 중앙위원회, 끼쁘로스근로인민진보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이. 파파이오안누, 스위스로동당을 대표하여 전국비서 장뱅상, 노르웨이공산당 중앙위원회, 기네민주당 총비서이며 기네공화국 대통령인 아흐메드 세쿠 투레, 칠레사회당 총비서 아니세또 로드리게스, 남아프리카민족대회 서기장 알프레드 느조, 남아프리카공산당 중앙위원회, 뽀르뚜갈공산당 중앙위원회, 독일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막스 라이만, 산 마리노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질도 가스뻬로니, 마르띠니끄공산당 중앙위원회, 오스트랄리아공산당 전국위원회, 서부베를린사회통일당 지도위원회, 인도네시아공산당 중앙위원회 대표단 단장 유스프 아지또로프, 가이아나인민진보당 총비서 자네트 자간, 마로끄해방및사회주의당 총비서 알리 야따, 벨지끄공산당 위원장 마르크 드류모, 모리따니인민당 총비서 모크타르 울드 다다흐,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전선조직 총비서 아브둘 파타흐 이스마일, 탄가니카아프리카민족동맹 전국집행서기 하쉼 아이므비타, 일본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나리다 도모미, 짐바브웨아프리카인민동맹 위원장대리 제임스 로버트 치케레마, 모잠비크해방전선 집행위원회, 뽀르뚜갈령기네및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 총비서 아밀카르 카브랄, 까나리아섬자결및독립운동 총비서 안또니오 꾸빌로, 전인도민주당 위원장 피.엠.라간람, 알제리민족해방전선당 책임자 아흐메드 까이드, 이라크공산당 중앙위원회, 말가슈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랑드리 앙자 러네 앙셀므, 단마르크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크누드 에스페르센,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 중앙위원회,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강점된아랍만해방인민전선 총사령부 집행위원회,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중앙위원회 위원장 팔레스티나혁명무력 총사령관 야씨르 아라파트, 팔레스티나해방인민전선 총사령부, 《말리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성원들,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 공부하고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류학생들의 《김일성동지로작및

혁명활동연구소조》성원일동, 예멘학생전국총동맹 아덴시 타와이지부《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성원일동, 베를린에 있는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의 위임에 의하여 윌리암 아니헤 모할탐파, 쎄일론인민조선친선협회 반다리웰라지부 공동서기 콜린 다실바, 버마련방《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 지지위원회》성원일동, 콩고《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소조》성원들,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다마스커스에 있는 팔레스티나해방인민전선《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쏘스까에서 공부하고있는 라틴아메리카류학생 《김일성동지혁명투쟁력사 및 로작연구소조》위원회, 아덴에 있는 소말리아민주청년조직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성원일동, 잠비아종합대학《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성원 일동, 벌가리아에서 공부하고있는 도미니까학생《김일성동지혁명력사 및 로작연구소조》성원일동, 레바논에 있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연구혁명소조》일동,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단결기구 서기장 유세프 엘 세바이, 아련평화민족리사회 서기장 할레드 모헤딘, 쎄일론평화리사회, 버마련방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성원일동, 로므니아에서 공부하는 아프리카류학생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성원일동, 버마련방《김일성동지로작학습연구소조》 책임자 보마뒤, 쏘스까에서 공부하고있는 아프리카류학생《김일성동지혁명활동력사 및 로작연구소조》, 기네에 와있는 부룬디류학생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책임자 ■. 오. 깐줄리 비딸, 강점된 서부소말리아해방전선《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버마조선친선협회《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소조》성원일동, 아바나에서 공부하고있는 앙골라인민해방운동, 모잠비크해방전선, 뽀르뚜갈령기네 및 베르데갑제도 아프리카독립당 학생들의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성원일동,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아덴로동자구《김일성원수님로작연구위원회》 위원장 후쎄인 아브둘 바리,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덴항구로조《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성원일동,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1도 비르 아흐마드지구청년학생들의《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성원일동, 까히라에 있는 아프리카민족해방운동단체들의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연구소조》 책임자 빅또르 엘. 마예키쏘, 쎄일론평화리사회, 잠비아주재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 책임대표 티티은 꼬비이, 쎄일론법파대학《김일성수상님의 로작연구소조》 서기장 피. 나굴레산, 말리《김일성동지혁명활동력사연구소조》성원일동, 알제리에 있는 에티오피아대학생《김일성동지의 로작연구소조》, 에꽈도르 혁명적청년들의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성원일동, 모리따니청년들의 《김일성수상로작연구소조》성원일동, 누아크쇼트시 《김일성수상혁명력사연구소조》성원일동, 레바논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연구 로동자위원회》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연구 학생위원회》, 네팔 자그라트사바《김일성수상로작연구소조》성원일동, 이란법률가협회 서기장 샤피크 아르쉬다트, 버마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우응 루윈, 핀란드조선협회, 민주예멘조선친선위원회 위원장 아브둘 라자크 샤프샤헤르, 레바논조선친선협회 위원장 국회의원 람무호 아브달라, 노르웨이조선친선협회, 모리따니조선친선협회 서기장 바까리 꾸이리바리, 칠레조선친선문화협회와 우리의 친선사업을 지지하는 군중조직들의 이름으로 서기장 페르난도 무뇨쓰 비아나, 네팔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프렘 바하두르 칸사카르, 전인도조선친선협회 서기장 옴 프라카쉬 만트리,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모리셔스조선친선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포트루이스시 참사회의원 엘. 찬드라룬, 일조협회 회장 나가노 구니스께, 리사장 하다나까 마사하루, 뽀르뚜갈민족해방애국전선 지도부로부터 마뉴엘 알 레그레, 페르드난도 싼또스, 꾸바에 있는 브라질민족해방운동, 브라질인민혁명전위대, 브라질 10월 8일혁명운동 성원일동, 버마련방 랑군시 《김일성동지로작번역위원회》성원일동, 콩고《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소조》성원일동, 레바논 《김일성동지로작번역 및 출판위원회》 위원장, 《다르탈리아》출판사 국장 아브둘 하미르 나쎄르, 핀란드평화옹호위원회 미르쟘디레—무미넨, 《김일성동지의 혁명적로작연구 및 출판 쎄일론위원회》, 앙골라인민해방운동투사들의 《김일성동지로작 및 혁명활동력사연구소조》성원일동을 대표하여 자꼬브 까마라타, 팔리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위원장 아브둘 라이에 쏘우, 쎄일론아세아아프리카단결협회 서기장 아지즈, 쎄일론인민혁명청년전선, 쎄일론회교청년동맹, 영국청년행동리사회 부위원장이며 총서기인 로벨트 아르노드, 버마련방 전버마로조 위원장 더킨 러윈, 쏘스까에 있는 아프리카류학생동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꼬피아싸레, 다마스커스주재 바레인자유투사당 대표 아브둘 아지즈 세므란, 일본 《미라이샤》출판사 사장 니시다니 요시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재 꾸바공화국대사 바씰리오 로드리게스 로드리게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재 이라크공화국대사 아브둘 카림 베키, 말리공화국 최고검찰소 소장 알리 우데메, 말리변호사 뎀바 디알로, 네팔히라니야도서관 관리위원회 위원장 비자야랄 스레스타,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쎄일론전국련대성위원회 조직서기 에치. 엠. 피. 모히딘,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팔레스티나련대성위원회 서기장 안워르 아브둘 라흐만, 남조선인민들의 반제투쟁지지 서부독일위원회,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축하하는 예멘학생전국총동맹 민주예멘지부 타와이분지부가 조직한 모임참가자일동, 쎄일론인민조선친선협회 콜리아피티아지부에서 조직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경축 강연회 참가자일동, 쎄일론인민조선친선협회가 조직한 경축강연회 참가자일동, 버마련방 랑군시 《싼차웅》자동차수리소 종업원일동, 버마련방 변호사 우라죠, 버마련방 랑군시 《알로운》자동차수리공장 종업원일동, 수단에 있는 《김일성수상로작연구소조》성원일동, 미국펜실바니아주 필라델피아 템플종합대학 청년로동자해방동맹, 수단 박사 미스랄, 쎄일론인민조선친선협회 엠피티야지부, 일조과학기술 협력위원회, 우리 나라 항구들에 머무르고있은 여러나라 선박대표들로부터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로 다시금 추대되신것을 축하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월남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려순, 몽골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유. 쩨덴발,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구스따브 후싸끄, 로므니아공산당 총비서 니꼴라에 챠우쉐쓰꾸, 독일사회통일당 중앙

위원회 제1비서 발테르 울브리히트, 기네공화국 대통령 아흐메드 세쿠 투레, 수단민주주의공화국 혁명지도리사회 위원장 겸 수상 소장 자파르 모하메드 니메리, 이라크아랍사회부흥당 민족지도부, 남부윁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법률가 원우수, 《말리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성원일동, 버마련방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성원일동, 꽁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꽁고인민공화국 국가수반 대통령 소좌 마리엔 느구아비,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 팔레스티나해방인민전선 총사령부, 바수톨랜드대회당 국제대표 라마꼽 찌냐네, 쏘련에서 공부하고있는 아프리카류학생들의 《김일성동지로작 및 혁명활동력사연구소조》성원일동, 버마조선친선협회《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소조》성원일동, 팔레스티나해방인민전선《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일동,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1도 비르 아흐마드지구 청년학생들의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성원일동, 예멘학생전국총동맹 민주예멘지부 타와이분지부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성원일동, 버마련방《김일성동지로작번역위원회》성원일동, 일조협회 회장 나가노 구니스께, 리사장 하다나까 마사하루, 쏘련에서 공부하고있는 아랍나라 학생들의 《김일성동지로작 및 혁명활동력사연구소조》성원일동,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최고혁명리사회 위원장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소장, 적도기네공화국 대통령 프란시스코 마시아스 느게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장 베델 보카싸장군, 모리따니인민당 총비서 모리따니회교공화국 대통령 모크타르 울드 다다흐, 이라크조선친선협회, 민주예멘조선친선위원회, 웽그리아사회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까다르 야노쉬, 화란공산당 중앙위원회, 알제리민족해방전선당 책임자 아흐메드 까이드, 미국흑인펜서당 공보상 에드리쥐 클리버, 에리트레아해방전선 총비서 오스만 살레흐 사베, 꽁고(브)제인민간의친선협회 위원장 비팔발라, 버마조선친선협회 성원일동을 대표하여 우웅 투윈, 체스꼬슬로벤스꼬에 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류학생들의 《김일성동지로작 및 혁명활동연구소조》성원일동, 까히라에 있는 아프리카민족해방운동단체들의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연구소조》 책임자 빅또르 엘.마에키쏘, 전인도민주당 위원장 푸란 팝 라간팔, 레바논공산당을 대표하여 총비서 니꼴라 샤우이, 강점된아랍만해방인민전선 총사령부 집행위원회, 베를린에 있는 리암 아니헤, 부위원장 모한 탑파, 《말리 김일성동지혁명활동력사연구소조》성원일동, 웰스까에서 공부하고있는 아프리카류학생 《김일성동지혁명활동력사 및 로작연구소조》성원일동, 에꽈도르혁명적청년들의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성원일동, 쎄일론법과대학 《김일성수상의 로작연구소조》, 아바나에서 공부하고있는 뽀르뚜갈령기네 및 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 앙골라인민해방운동, 모잠비크해방전선 학생들로 조직된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일동, 벌가리아에서 공부하고있는 도미니까학생들의 《김일성동지혁명력사 및 로작연구소조》성원일동, 아세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상설서기국 서기장 유세프 엘 세바이, 까나리아섬자결 및 독립운동 총비서 안또니오 꾸빌로, 이라크주재 팔레스티나민족해방운동지부, 버마련방 《김일성동지로작 학습연구소조》성원을 대표하여 소조책임자 보마뒤, 부룬디공화국대통령 겸 부룬디민족통일진보당 총비서 대좌 미쉘 미콤베로, 누아크쇼트시 《김일성수상혁명력사연구소조》성원일동,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덴항구로조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성원일동, 짐바브웨아프리카인민동맹 위원장대리 제이.치케레마, 네팔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프렘 바하두르 칸사카르, 레바논조선친선협회 위원장 국회의원 국회농업위원회 위원장 맘두흐 아브달라,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토르스텐 브랜스트룀, 꽁고《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소》성원일동, 부룬디민족통일진보당 중앙위원회 제1상임서기 안다 안드레이, 아세아아프리카경제협조기구 총서기 아민.에이.아와달라흐, 국제아랍로조련맹 서기장 박사 파우지 엘 사이드, 아랍법률가협회 서기장 샤피크 아르쉬다트, 말리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위원장, 말리평화옹호위원회 위원장 아브둘라이에 쏘우, 버마세계평화위원회서기장 더킨틴, 끼쁘로스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위원장 바쏘스 리싸리데스,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자총련맹 위원장 아브둘 까데르 아민, 도미니까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나르시쏘 이싸 꼰데, 이라크농민조합총동맹, 강점된서부소말리아해방전선《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순아덴로동자구 《김일성원수님로작연구위원회》 성원일동, 네팔조선친선협회 《김일성수상의 로작편집부》 주필 마니크랄 쉬레스타, 전인도조선친선협회 서기장 옴프라카쉬 마트리, 예멘녀성총동맹, 벌가리아꼬브, 부룬디종합대학 《김일성수상로작연구소조》성원일동, 버마련방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지지위원회》성원일동,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팔레스티나련대성위원회》서기장 안워르 아브둘라흐만, 이라크녀성총동맹 집행위원회, 이라크정치과학협회 위원장 따하야씨날 하디시, 아랍기자동맹 총서기장, 레바논출판협회리사회 위원 《김일성동지의 사상을 연구하는 위원회》 위원장 레바논 《알울》 신문사 주인 위피크 타이비, 레바논출판협회 서기장 히살 아부다흐르, 쎄일론청년작가 협회, 쎄일론독립로조련맹 위원장 국회의원 허버트 윅크레마싱헤, 총서기 아난다 다싸나야케,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쎄일론전국련대성위원회》조직서기 모히딘, 쏘련에 있는 라틴아메리카청년학생들의 《김일성동지로작및 혁명활동력사연구소조》성원일동, 로므니아에서 공부하는 아프리카학생동맹 위원장 다니엘 구아포므반데 메조오, 버마조선친선협회 만다레이지부 성원일동,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라왈핀디지부, 이라크학생동맹 위원장 카림 알 훌라, 쎄일론자유당 청년련맹 련합비서 에취.쥐.아라왈라, 예멘로동자총동맹 총서기 아브다 쌀랍 아브다 싸이프, 쎄일론기자협회 서기장 다르마시리 자야꼬디, 《남조선대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쎄일론대학생련대성위원회》 조직서기 엠.에이.쥬스틴·모리셔스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엘.찬드라문,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 군사비서 피터 나넴바, 쏘련에서 공부하고있는 라틴아메리카류학생들의 《김일성동지로작 및 혁명활동력사연구소조》 성원일동, 뿔스까에서 공부하고있는 라틴아메리카류학생《김일성동지혁명투쟁력사 및 로작연구소조》 위원회,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전선조직 총비서 아브둘 파타흐 이스마일, 쎄일론자유당 총비서 국회문제 및 체육상 겸련당 원내 총무 국회의원 케이.비.라트나야케, 레바논주재 팔레스티나해방조직대표 서피크 엘 호우트, 에리트레아해방전선 총사령부 다마스커스주재대표부 책임자 싸리흐 아흐메드 아야이, 쎄일론반제청년전선 위원장 싸라스 쿠마라시리, 모리따니조선친선협회 서기장 바까리 꾸이리바리, 모리따니근로자동맹 서기장 팔 말리크, 에리트레아학생총동맹 집행위원회 위원장 씨튼제 무싸 아브두, 하르툼종합대학 《김일성수상의 로작연구소조》와 수단조선친선협회 하르툼종합대학지부 성

로작연구소조》 성원일동, 수리아아랍공화국 아랍사회부흥당 총비서 아흐마드 엘 카리브,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에 망라된 부룬디류학생일동을 대표하여 소조책임자 빼. 오. 깐좋리 비말, 파키스탄조선청년친선협회《김일성수상로작연구위원회》위원장 무샤히드후쎄인 싸이드, 파키스탄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서기장 미라즈 할리드, 쎄일론인민조선친선협회 갈파하지부창설집회참가자 일동으로부터, 레바논에 있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연구혁명소조》, 도미니까공산당 청년부를 대표하여 세계 민주청년련맹 서기 리까르도 리마르도, 브라자빌에 있는 앙골라인민해방운동 투사일동,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 정치사업부 부장 두마 노크위, 쎄일론인민조선친선협회 바뒬라지부회의 참가자일동, 쎄일론인민조선친선협회 모라뚜와지부,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한 수단민주주의공화국 지지 련대성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 아흐메드 모하메드 쉬브레이, 쎄일론인민조선친선협회 캐디지부, 프랑스 《아프리끄아지아》잡지사 총사장 씨몽 말레이, 쎄일론신문 《신할레》주필 싸라스 쿠레이, 쎄일론사회주의녀성협회, 쎄일론국제불교조직 위원장 피알라티나 텔월로, 쎄일론 강철회사 종업원동맹 총서기 우파세나차야 라트네, 과떼말라혁명투사 프란씨스꼬 마로낀, 베네수엘라혁명가 엘리아스 마누이드 까메로, 버마련방 《알로운》 자동차수리소 종업원일동, 버마주재 조선중앙통신사 명예기자 우레윈, 니까라과 싼디노민족해방전선 사령관 까를로스 폰세까 아바도르, 버마련방 랑군시 《싼차웅》자동차수리공장 종업원일동, 말리공화국 변호사 템바 디알로, 버마련방변호사 우라죠, 오지리 함펠문서실 관장 교수 헤르베르트 수라이너, 일조무역회 전문리사 아이까와 리이찌로와 상무리사 무라가미 사다오, 예멘학생전국총동맹 위원장대리 쌀림 알파히, 프랑스 평화운동전국뷰로성원 화라즈 쉬르멘잔느, 아련로동련맹 대외관계 비서 아워드 아브둘 까디르, 《브라질인민혁명전위대》와 《브라질 10월 8일 혁명운동》, 《브라질민족해방운동》으로부터, 쏘련에서 공부하고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류학생일동, 쎄일론인민조선친선협회 아꾸레싸지부창설집회, 쎄일론독립학생동맹 위원장 쉘톤 구나라트네, 프랑스에서 공부하는 라오스대학생동맹 지도위원회 위원장 수반 나라트 새나봉고, '팔레스티나해방인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앙골라인민해방운동《김일성동지로작 및 혁명활동력사연구소조》 성원일동, 루사카에 있는 앙골라인민해방운동 책임대표 자꼬브 까마라타, 세계과학자련맹 서기장 피. 비카르, 쎄일론인민조선친선협회 부위원장 프레말랄 쿠마라시리, 모리따니인민당 청년최고리사회 위원장 이예후디호 울드 씨디 아호메드

(※이상은 출판물에 발표된것을 종합한 것으로서 그일부에 지나지않는다.)

#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온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전투적련대성

##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6.25—7.27)에 즈음하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조선인민이 거둔 승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전쟁에서 우리 인민의 승리는 제국주의반동세력에 대한 혁명적인민의 승리였으며 제국주의의 침략적무력에 대한 혁명군대의 승리였습니다. 그것은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밑에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유와 독립과 진보를 위하여 일떠선 인민은 어떠한 제국주의침략세력에 의해서도 정복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미제국주의의 취약성과 부패성을 폭로하였으며 세계피압박인민들에게 미제가 결코 불패의 적이 아니며 그와 능히 싸워이길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289페지)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의 한분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과 영웅적인민군대는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에 한사람같이 일떠서 미제날강도들의 수적 및 기술적우세와 그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산산이 깨뜨려버렸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았다.

1970년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의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세계의 광범한 반제력량과 수억만 혁명적인민들은 영웅적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를 또다시 열렬히 축하하면서 미제를 남조선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의로운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는 각종 행사들을 전례없이 광범히 진행하였으며 미제의 침략책동을 단죄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이 월간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당, 정부 지도자들과 혁명적인사들, 국제민주단체들과 여러 나라 사회단체들은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의 한분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께 전문과 편지를 드리여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며 미제국주의침략군대를 남조선으로부터 철거시키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굳은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이 기간에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에서는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월간》을 설정하고 군중집회, 련대성모임, 사진전람회, 강연회, 영화감상회 등 각가지 행사들을 조직하였으며 세계 여러 나라의 수많은 신문, 통신, 방송, 잡지들이 사설, 론설, 론평들을 발표하여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굳은 전투적련대성을 보내였다.

##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보내온 전문과 편지

6.19 쌍또메 및 쁘린씨뻬지도위원회 조아오파랑루쁠 비에가스띠 쎄이따, 안또니오 삐레스 도스 쌍또스

6.21 팔레스티나해방인민전선 중앙위원회 ▶강점된 아랍만해방인민전선 총사령부 정치위원회 ▶남부예멘인민공화국 주재 에리트레아해방전선 대표부

6.22 남부월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남부월남공화림시혁명정부 자문리사회 위원장 벤뛔가 웬우수, 남부월남공화림시혁명정부 주석 건축가 웬뗀퐈

6.23 기네공화국 대통령 아흐메드 세쿠 뚜레 ▶리비아혁명지도리사회 의장 리비아아랍공화국 수상 모아메르 엘 가다피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장 수파누봉친왕 ▶팔레스티나해방인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6.24 로므니아공산당 총비서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 니꼴라에 챠우쉐쓰꾸,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내각 수상 이온 게오르게 마우레르 ▶아랍련합공화국 대통령 가말 아브델 나쎄르 ▶남부예멘인민공화국 대통령리사회 위원장 쌀림 루바이아 알리 ▶프랑스조선친선협회 서기장 엠. 재노 ▶알리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 아브둘라이에 쏘우

6.25 아랍련합공화국 평화민족리사회 총서기 할리드 모헤딘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 중앙위원회 ▶《말리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성원일동 ▶탄자니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인 민족회의 의장 아담 사피 모크와와 ▶모리따니조선친선협회 서기장 바까리 꾸이리바리 ▶전인도조선친선협회 서기장 육프 라카쉬 란트리 ▶전인도조선친선협회 라쟈스탄주지부 서기장 쉐오키산 비아스 ▶까히라주재 아자니아범아프리카대회 대표 빅또르 엠.마에키쏘

6.26 도미니까공산당 중앙위원회▶프랑스에서 공부하고있는 라오스학생동맹을 대표하여 위원장 쏠리 난타봉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카라치지부

6.27 벨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벨가리아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또도르 쥐꼬브 ▶콩고인민공화국 대통령 마리엔 느구아비소좌 ▶국제아랍로조련맹

6.28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장

배템 보카싸장군 ▶강점된 서부소말리아해방전선을 대표하여 수리아아랍공화국주재 대표 이스마일 알리 아브라힘

6.29 수단민주주의공화국 혁명지도리사회 위원장겸 수상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소장 ▶콩고(레) 혁명최고리사회 부위원장 까지미르 므바기라 ▶아세아아프리카경제협조기구 총서기 아민 예이.아와달라호 ▶에리트레아학생총동맹 집행위원회 ▶인도 《남조선청년학생들과의 련대성위원회》 위원장 라빈데르 한다 ▶까히라주재 바수톨랜드대회당 대표 파까네 보피로 칼라 ▶레바논공화국 국회의원 사이다시리사회 위원장 아 아루프씨아드

6.30 소말리아해안해방전선 총서기 아뎀 로브레 아왈레 ▶뽀르뚜갈령 기니 및 베르데갑제도 아프리카독립당 총비서 아밀카르 카브랄

7.1 아랍련합공화국 법률가협회 위원장 아호메드 엘 아와가 ▶예멘녀성총동맹

7.2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 총서기 알프레드 느조

7.3 레바논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위원장 카말 줌 블라트

7.4 말디브제도공화국 대통령 이브라힘 나시르(조선중앙통신)

7.5 아랍법률가동맹 서기장 샤프크 아르쉬다트

7.6 레바논공화국 국회의원 사회진보당 부위원장 파리드 져브란

7.7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최고혁명리사회 위원장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소장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상주 《팔레스티나민족해방운동》 대표단 안와르 아브뎀 라흐만 ▶알제리 빠뜨리스 루뭄바립사아동학원 교직원 및 학생 일동

7.9 미국흑인편서당 중앙위원회(조선중앙통신) ▶에리트레아학생총동맹 바그다드시지부

7.10 버마련방 《김일성동지로작학습연구소조》 조장 보마뒤

7.11 아바나에 있는 에짜도르혁명가 일동 ▶수리아 알레포도 아.아단결위원회

7.14 독일민주주의공화국에서 진행되는 1970년 동해주간에 참가한 노르웨이인 일동 ▶알제리민족해방전선당 띠뜨리도당 통제위원회 위원장 따하르 라잡

7.15 팔레스티나학생총동맹 위원장 아민 헌디

7.17 뽀르뚜갈민족해방애국전선을 대표하여 페르난도 삐떼이라산또쓰 마누엘 쎄르또리오

7.20 도미니까공산당 총비서 나르시쏘 이싸 꼰데(로동신문) ▶레바논공화국 국회의원 쟈아파르 셔라프딘

7.21 《아프리끄아지아》 편집집단을 대표하여 사장 씨몽 말레이 ▶전까뻬로스녀성조직련맹 총리사회 총서기 쏘피아 찌밀리스

7.22 이라크로동조합총련맹 서기장 베단 파델

7.23 세계민주청년련맹 서기장 미쉘쥬에 ▶까나리아섬 자결및독립운동 총비서 안또니오 꾸빌로 ▶말리적십자사 중앙위원회 위원장 아싼느 쎄이

7.24 남부윁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장 남부윁남공화림시혁명정부 자문리사회 위원장 법률가 윈우수, 남부윁남공화림시혁명정부 주석 건축가 황떤팔 ▶《에멘학생전국총동맹 아덴시 타와이지부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성원일동

7.25 수리아아랍공화국 국가수반 내각 수상 박사 누레딘 아따씨 ▶조선인민과의 련대성꾸바조직위원회 ▶아세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 ▶남조선대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쎄일론대학생련대성위원회 ▶말리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 아브돌라이에 쏘우 ▶이라크민족학생동맹 집행위원회 위원장 카리말 마우라 ▶바그다드주재 에리트레아해방전선 대표 마호무드 이스마일 알하지 ▶강점된 서부소말리아해방전선 바그다드지부 서기장 이브라힘 하싼 아흐마드

7.26 《말리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성원 일동 ▶말리공화국 변호사 델바디알로 ▶이라크조선친선협회 ▶레바논출판협회 서기장 히샴 아부다흐르

7.27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 ▶이라크 공화국 대통령 아흐마드 하싼 알 바크르 ▶말리 공화국 국가수반 정부수상 민족해방군사위원회 위원장 부싸 뜨라오레중위 ▶가네공화국 대통령 아흐메드 세쿠 뚜레 ▶예멘아랍공화국 수상 모흐센 알아이니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리알푸르지부 서기장 아씰 제임왈 ▶꾸바에 있는 미국인협회 위원장이며 미국 《가디안》지 아바나상주 기자 라이오넬 마르틴 ▶핀란드조선친선협회를 대표하여 위원장 까우꼬 알또넨 ▶남부예멘인민공화국 아덴항구로조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성원들을 대표하여 위원장 모함메드 아브둘라히 쑬리에만 ▶모리따니근로자동맹 서기장 팔 말리크 ▶모리따니주재 팔레스티나민족해방운동상설대표부 대표 아부 파헤르 ▶전인도민주당 위원장 피.엘.라칸팔 ▶잠비아종합대학 전체 학생들과 학생동맹집행위원회를 대표하여 학생동맹 사회비서 고프레이 하마운드

7.28 쎄일론국제불교조직 ▶예멘아랍공화국 공화리사회 의장 아부둘 라흐만 알이리야니 ▶세계평화리사회 서기장 로메쉬 찬드라

7.30 콩고(레)민족해방리사회를 대표하여 꾸바상주대표 쏠부 에두아르드 마르셀

8.1 히마니야도서관경영위원회 위원장 비.엘.스레스타

8.8 느그와네민족해방대회 대표 에스.제이.즈와네(로동신문)

8.11 아자니아범아프리카대회 대표 빅또르 엘.마예키쓰(민주조선)

8.21 프랑스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로동신문) ▶벨지끄공산당 중앙위원회 ▶파렐루프공산주의자동맹 중앙위원회 ▶레유니옹공산당 중앙위원회 ▶하이티공산주의통일당 중앙위원회 ▶희랍공산당 중앙위원회(국내)

8.31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꾸바공화국 혁명정부 수상 소좌 피델 까스뜨로 루쓰, 꾸바공화국 대통령 박사 오스발도 도르띠고스 또라도

## 집 회

6.10 콩고인민공화국 인퐁드시민 련대성집회,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6.15 콩고인민공화국 베뚜성냥공장 군중집회,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6.17 웽그리아인민군중앙병원, 군중집회

6.22 버마조선친선협회, 집회

6.23 인도 뉴델리 전인도평화리사회, 전인도아세아아프리카단결협회, 전인도조선친선협회, 군중대회,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6.24 피나크리에 와있는 부룬디류학생 집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알바니아 《빨찌산》명칭공장, 종업원집회 ▶콩고제인민간의 친선협회, 군중집회,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몽골직업동맹 중앙평의회, 련대성집회

6.25 꾸바 중앙군중집회 ▶몽골아.아단결위원회, 몽골평화 및 친선단체련맹 집행위원회집회 ▶수단조선친선협회, 련대성집회,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시위,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결의문 채택 ▶일본의 43개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 《6.25조선침략전쟁발발 20주년,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각계 대표자집회》, ▶웽그리아직맹전국평의회, 웽그리아애국인민전선 전국리사회, 부다페슈뜨철도수리공장, 련대성집회 ▶로므니아 부꾸레슈띠 《그리비짜로쉬에》공장, 련대성집회 ▶버마량군, 군중집회, 남조선애국적인민들에게 보내는 편지 채택 ▶쏘련수도 사회계대표들, 군중집회, 결의채택 ▶쏘련 오레호브면방직공장, 련대성집회, 결의채택, 레닌그라드, 울라지보쓰또크, 알마아따, 하바롭쓰크, 나호드까, 기타 도시 련대성집회 ▶수단조선친선협회, 련대성집회,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탄자니아조선친선협회, 다르 에스 살람시군중집회,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브라자빌에 있는 앙골라인민해방운동부사들, 련대성집회,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이라크로동조합총련맹 군중집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6.26 꾸바 아바나 《훌리오 안또니오 메야》아교공장, 종업원집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편지 채택 ▶《말리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소조》성원들, 련대성모임,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 공부하고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류학생들, 련대성집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편지 채택 ▶모리따니 예술인들, 련대성집회,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전일본학생자치회총련합회, 《미국의 조선침략전쟁도발 20주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침략책동 규탄, 남조선과 일본과 전아세아로부터의 미국침략군의 철거요구, 일조학생련대성집회》

6.29 웽그리아공산청년동맹 중앙위원회, 군중집회 ▶이라크 바그다드, 군중대회 ▶로므니아에서 공부하는 아프리카, 아랍, 라틴아메리카 학생들의 집회,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콩고(브)사회주의청년동맹, 련대성집회

6.30 아랍사회주의동맹 기자도 독기지부, 군중집회,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영웅이신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벌가리아 쁠로브디브도 노브크리침, 련대성집회 ▶로므니아공산청년동맹, 대학생동맹, 련대성집회, 조선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련대성전문 채택 ▶쏘련에서 공부하고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류학생들, 집회, 전쟁광신자 닉슨도당에게 보내는 항의문채택 ▶시에라 레온조선친선협회, 군중집회,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꾸바 《마누엘 아베이로》명칭 농기계공장, 련대성집회

7.1 남부예멘인민공화국 로동자총련맹, 군중대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라오스 삼 누아, 군중집회(조선중앙통신) ▶벌가리아 여러 사회단체들, 련대성집회 ▶벌가리아조국전선전국리사회, 벌가리아공산당 쏘피아시위원회, 벌가리아직업동맹 중앙평의회, 벌가리아지미뜨로브공산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벌가리아평화옹호전국위원회, 벌가리아 아.아단결위원회, 벌가리아 녀성위원회, 련대성집회

7.3 체스꼬슬로벤스꼬 노비 비드로브 우유가공공장, 련대성집회

7.4 꾸바혁명수호 까마구예이주위원회, 련대성집회 ▶콩고민족인민군 제2보병대대, 련대성집회,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7.5 쎄일론평화리사회, 쎄일론아세아아프리카단결협회,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쎄일론전국련대성위원회, 남조선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쎄일론 대학생련대성위원회, 쎄일론인민조선친선협회, 련합군중집회,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편지 채택 ▶꾸바 플로리다지구 젖소목장, 플로리다농기계공장, 《까밀로 씨엔푸에고스》명칭군사학교, 련대성집회 및 친선모임 ▶이라크정치과학협회, 정치 및 사회계 인사들의 련대성모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7.6 꾸바근로자중앙 까마구예이주위원회, 군중집회 ▶꾸바 까마구예이주 기관차수리공장, 종업원집회 ▶쎄일론인민조선친선협회 알루뚜가마지부, 군중집회,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수단조선친선협회, 수단로동자련맹, 수단 청년동맹, 수단녀성동맹, 련합모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영웅이신 김일성수상각하께 드리는 편지 채택 ▶콩고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소조》,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연구발표모임,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7.7 뽈스까 와르샤와도 빠벤스끼명칭공장, 련대성집회 ▶예멘사회협회련맹, 군중대회(아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편지 채택 ▶알제리 까빌리도 따쥬시, 련대성모임

7.8 알제리 쎄띠프도, 군중집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수상님께 드리는 편지 채택

7.9 쏘련 모스크바 뾰도르 알렉쎄에브명칭 모방직공장, 련대성집회 ▶수단 게지라주 메단시, 군중집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편지 채택 ▶콩고민족인민군 제2보병대대, 련대성군중집회,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7.10 꾸바근로자중앙, 련대성집회 ▶꾸바 아바나 《천리마》조선소, 련대성집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브라찌슬라바시 안전 및 내무국, 련대성집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신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체스꼬슬로벤스꼬민족전선 뜨르나바군위원회, 련대성집회 ▶뽈스까 와르샤와도 지라르두브시공작기계수리공장, 련대성집회 ▶웽그리아 두나 우이 바로쉬시애국인민전선위원회, 련대성집회 ▶쎄일론인민조선친선협회 카란데니야지부, 련대성집회, 존경하는 내각수상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편지 채택 ▶파키스탄아세아아프리카단결기구

관왈편디위원회, 련대성집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수상이신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편지 채택

7.11 모리따니에 있는 팔레스티나혁명투사들, 련대성집회,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각하께 드리는 편지 채택 ▶버마련방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남조선혁명과 조선의 통일에 관한 연구모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각하께 드리는 편지 채택 ▶수리아아랍지역아랍조선친선협회, 군중집회

7.13 꾸바 아바나주 《꾸바조선친선원종장》, 련대성집회,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꾸바 까마구예이주 《베네수엘라》명칭 사탕공장, 련대성집회,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꾸바인민의 친근한 벗인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파키스탄아세아 아프리카단결기구, 군중집회,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편지 채택 ▶팔레스티나민족해방운동 까히라지부, 련대성집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7.15 몽골혁명청년동맹 울란 바따르시위원회, 련대성집회 ▶알제리 엘 아스남도, 련대성모임, 결의문채택

7.16 쏘련 레닌그라드전기설비공장, 련대성집회 ▶쏘련 연해주지방 우쑤리스크, 련대성집회 ▶벌가리아 쏘피아전자기공장, 련대성집회

7.17 쏘련 레닌그라드 에프.이.제르진쓰끼명칭 방직공장, 련대성군중집회, 결의채택 ▶쏘련 모스크바제2철근콩크리트공장, 련대성집회

7.18 쎄일론인민조선친선협회 라뜨나뿌라지부, 군중집회,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수상각하께 드리는 편지 채택 ▶버마련방 랑군시 《쌈차옹》자동차수리공장, 련대성집회,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7.20 로므니아조선친선농업생산협동조합, 련대성집회 ▶아련조선친선 마할라 쿠부라 미스르방직공장, 련대성친선모임 ▶알제리 안나바시, 련대성집회

7.21 체스꼬슬로벤스꼬 및 체스꼬민족전선 중앙위원회, 체스꼬슬로벤스꼬 및 체스꼬혁명직맹운동 중앙평의회, 련대성집회 ▶웽그리아직업동맹 중앙평의회, 건설산별직업동맹, 련대성집회 ▶벌가리아 슬리벤도 슬리벤시, 군중집회 ▶알제리민족해방전선당 꼰스딴찐시, 군중집회, 결의문채택 ▶알제리전국녀성동맹 꼰스딴찐도위원회, 조선녀성들과의 련대성모임

7.22 콩고인민공화국 니아리주 룰리지시, 군중집회,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7.23 콩고인민공화국 뽀앙뜨노아르시, 군중집회,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편지 채택

7.24 뽈스까 슈체찐부근 주둔부대, 련대성집회 ▶웽그리아애국인민전선전국리사회, 웽조친선협동조합, 련대성집회, 련대성편지 채택 ▶벌가리아 슈멘도 슈멘시, 군중집회 ▶알제리 모스따가넴도, 간부련합모임, 련대성편지 채택

7.25 꾸바 아바나 《발도 디아스 푸엔떼스》명칭 농기계공장, 로동자집회 (로동신문) ▶뽈스까 스위노우이시부근주둔 해군부대, 군인집회 ▶《말리 김일성동지혁명활동력사연구소조》, 집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7.26 웰남조국전선, 웰남조선친선협회, 웰남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웰남세계평화옹호위원회, 집회 ▶몽골조선친선농업협동조합, 련대성집회 ▶버마련방 랑군시 《알로운》자동차수리소, 종업원집회,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위대한 전략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각하께 드리는 편지 채택

7.26 몽골 울란 바따르철공장, 련대성집회 ▶체스꼬슬로벤스꼬 체.까.데. 쏘갈로보기관차공장, 련대성집회, 련대성 서한 채택

7.27 레바논조선친선협회, 군중집회 ▶알제리조선친선 라뜨라우이왈리 엣 투사협동농장, 집회,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수상님께 드리는 편지 채택

7.28 몽골의 얼기, 호브드, 울란곰 등 여러 도소재지, 련대성집회

7.29 쎄일론 하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 전람모임

8.12 인도조선청년친선협회,《김일성원수로작연구소조》, 련합모임,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수상각하께 드리는 편지 채택

8.18 벌가리아 《뽀베다》 기계공장, 3.8방직공장, 레닌전기진공관공장, 지미뜨로브공장, 련대성군중집회, 련대성전문 채택 (로동신문) ▶말리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련대성집회, 련대성성명 채택

## 성명 및 련대성전문

3대륙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 성명 ▶국제기자동맹 서기국, 성명 ▶알제리민족해방전선당, 기자회견 ▶콩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클로드 에르네스트 느달라 성명 ▶수단 외무성, 성명 ▶세계민청뷰로, 공개서한 ▶국제금속 및 기계로동자직맹 서기국, 공개서한 ▶국제운수, 항만및어업로동자직맹, 산하전체 가맹단체들에 서한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성명 ▶국제농업, 산림및재배로동자직맹 서기국, 회람서한 ▶꾸바 아바나항구로동자들, 《천리마작업반》쟁취운동 ▶아세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 기관리론잡지 《뜨리꼰띠넨딸》, 편집국론설 ▶독일공산당 중앙위원회, 성명 ▶세계평화리사회, 련대성전문 ▶국제학생동맹 서기국, 련대성편지 ▶세계직업련맹 서기국, 련대성전문 ▶라틴아메리카근로자 통일로동조합상설대회 서기국, 련대성전문 ▶국제광부직맹, 련대성전문 ▶국제운수로동자직맹, 련대성전문 ▶국제방직피복및모피로동자직맹, 련대성전문 ▶국제상업일군직맹, 련대성전문 ▶국제교원직맹, 련대성전문

# 국내 국제 주요 일지

## 국 내 주 요 일 지

(1970년 1월—12월)

### 1 월

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해 1970년을 맞이하여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 한덕수동지에게 축하장을 보내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해 1970년을 맞이하여 여러 나라 당 및 정부지도자들과 축하장을 교환하심.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채취공업부문일군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광부칭호와 공훈지질탐사원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을 발표 ▶1970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에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와 총련산하단체들에 축전을 보냄.

5일 조선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가 마련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 국제적련대성주간》기념 평양시군중집회 진행.

6일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에서 최근 미제국주의자들이 캄보쟈에 대한 강도적침략행위를 계속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는것을 규탄하여 공동성명을 발표.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주재월남민주공화국대사를 만나심 ▶국제민주녀성련맹뷰로회의에 참가할 조선민주녀성동맹대표단이 떠남 (2월 3일 돌아옴).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차드공화국독립기념일에 즈음하여 차드공화국 대통령 프랑수와 똠발바예에게 축전을 보내심 ▶사로청중앙위원회에서 남포혁명학원에 천리마학원칭호를 주기로 결정.

10일 평양시 대동강특설빙상장에서 평양시빙상선수단과 몽골빙상선수단간의 속도빙상친선경기 11일까지 진행.

11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리엔 느구아비소좌가 콩고인민공화국 국가수반과 국가리사회 위원장으로 취임된데 대하여, 모흐센 알아이니가 예멘아랍공화국 수상으로 임명된데 대하여 그들에게 각각 축전을 보내심.

13일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더욱 웅장하고 살기좋은 현대적도시로 건설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시건설부문열성자회의 진행.

14일 사회과학원에서 웨.이. 레닌탄생 100돐을 기념하여 사회과학자들의 학술토론회를 진행.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시(구역)군, 리(읍, 로동자구, 동)인민회의 대의원선거실시에 대한 정령을 발표 ▶평안남도 강서군내 농업근로자들은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농촌에서 혁명적대고조를 더욱 앙양시켜 농업생산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킬것을 결의하고 전국 각 시, 군, 농근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경쟁을 호소 ▶천리마강선제강소 천리마강철직장 3호로 2중천리마 1작업반원들이 회의를 열고 올해 작업반생산과제를 6월말전으로 끝낼것을 결의하면서 전국의 모든 작업반, 직장들에 사회주의경쟁을 호소.

1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범적인 사로청조직과 청년들을 표창하시는 《민청창립10주년기념 청년의 영예상》 수여식이 있었음. ▶사로청중앙위원회에서 캄보쟈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강도적침략행위와 무고한 주민들에 대한 살인만행을 강력히 항의규탄하여 캄보쟈왕국사회주의청년동맹에 전문을 보냄.

18일 아련을 방문하는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대표단이 떠남.

21일 우리 나라 군사대표단이 수리아아랍공화국 국방성의 초청으로 수리아아랍공화국을 2월 17일까지 친선방문 ▶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대표단이 쏘련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제3차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떠남.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나라 의학사업에 공훈이 있는 쏘련의료일군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훈장을 수여.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인도공화국창건 스무돐에 즈음하여 인도공화국 수상 인디라 간디에게 축전을 보내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0년 새해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민족해방투쟁조직, 국제기구 및 단체들에서 보내온 축전들에 회답을 보내심 ▶안악농기계작업소내 기계화초병들이 전국의 농기계작업소 농근맹원들과 기계화초병들에게 사회주의경쟁을 호소.

25일 만경대닭공장 로동자들이 전국각지 국영가금목장 농근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경쟁을 호소.

26일 철도운수부문열성자회의(27일까지) 진행, 회의에서는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을 채택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대표단은 김일성동지께서 보내신 친서를 가말 아브델 나쎄르 대통령에게 전달하였으며 까히라에서 열린 중근동위기와 관련한 국제국회의원대회에 참가함.

2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리따니회교공화국 및 적도기네공화국 대통령들과 새해축하장을 교환하심.

2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의 운수정책을 받들고 맡겨진 혁명과업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철도운수부문일군들을 표창하심.

30일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대표단이 레바논공화국 대통령 찰스 헬로우를 방문하고 김일성수상께서 보내신 친서를 전달함.

### 2 월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체스코슬로벤스코사회주의공화국 정부 수상으로 임명된 루보미르 슈뜨로우갈에게 축전을 보내심.

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월남로동당창건 마흔돐에 즈음하여 월남로동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레순동지에게, 쎄일론독립 스무두돐에 즈음하여 쎄일론

정부 수상에게 각각 축전을 보내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프랑스공산당 제19차대회를 열렬히 축하하여 축전을 보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농업위원회간부학교에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을 발표 ▶평양대극장에서 윁남로동당창건 마흔돐 평양시기념회 진행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미제의 지시밑에 감행하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인 동족매매행위를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은 농업위원회간부학교창립 스무돐에 즈음하여 이 학교 교직원, 학생들에게 축하문을 보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5월 15일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질탐사절로 제정함에 대한 정령을 발표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물두돐을 맞이하여 《사로청호》 땅크헌납금을 드리기 위한 전국청년학생련합회의진행.

4일 전국수산부문열성자회의 6일까지 진행, 회의에서는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을 채택 그리고 남조선어민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미제의 사촉밑에 이스라엘 유태복고주의자들이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군사적침략행위를 더욱 강화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 대한 침략책동을 강화하면서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말살하기 위한 갖은 탄압과 파괴책동을 강화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대변인성명을 발표 ▶우리 나라 직맹대표단이 국제금속기계로동자직맹행정위원회 제19차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떠남.

5일 《조선인민군창건 20주년기념소년호》함선헌납금을 드리기 위한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 진행.

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수산부문일군들을 표창하심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물두돐을 축하하여 녀맹대표단들이 인민군구분대 초병들을 방문▶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수단민주주의공화국정부의 초청에 의하여 수단민주주의공화국을 방문하고 김일성수상께서 보내신 친서를 수단민주주의공화국혁명지도리사회 위원장 겸 수상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에게 전달.

7일 조선인민군창건 스물두돐기념평양시경축대회 성대히 진행.

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군 리종우동지소속구분대를 찾으시고 조선인민군창건 스물두돐을 맞은 군인들을 축하하심 ▶성, 중앙기관 및 조선인민군 군인들과 평양시내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항일혁명투사들의 묘와 인민군추모탑에 화환을 드림.

9일 직총중앙위원회에서 아랍나라들에 대한 미제와 이스라엘유태복고주의자들의 새로운 군사적침략책동을 반대하는 아랍나라인민들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여 국제아랍로동조합련맹 서기국에 전문을 보냄.

14일 조선중앙통신사는 공화국북반부로 의거한 비행기에 타고왔던 남조선승객들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냄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 ▶공화국북반부로 의거한 비행기를 타고 왔던 남조선승객들이 판문점을 거쳐 고향으로 돌아감 ▶직총중앙위원회에서는 총파업에 일떠선 이딸리아 근로자들에게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하여 이딸리아로동총련맹에 전문을 보냄.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감비아독립 다섯돐에 즈음하여 감비아 수상 다우다 크웨씨 쟈와라에게 축전을 보내심.

1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대표단이 레닌탄생 100돐에 즈음하여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직속 맑스-레닌주의연구소에서 조직하는 과학토론에 참가 (3월 3일 돌아옴) ▶우리 나라 직맹대표단이 수단민주주의공화국 하르툼에서 진행되는 세계직련뷰로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떠남 (3월 10일 돌아옴) ▶우리 나라 녀성대표단이 벌가리아와 웽그리아를 3월 14일까지 방문 ▶우리 나라 기자동맹대표단이 쏘련기자동맹이 조직하는 전쏘련과학토론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떠남 ▶직총중앙위원회에서 감비아독립 다섯돐에 즈음하여 감비아로동조합에 축하편지를 보냄 ▶조선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와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공동명의로 《오끼나와의 전면반환, 일미〈안보조약〉폐기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일본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전투적인 지지성원을 표시하여 일본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와 일본평화옹호위원회에 전문을 보냄.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군창건 스물두돐과 관련하여 보내온 중앙아프리카대통령 장 베델 보카싸와 기네공화국 대통령 아흐메드 세쿠 투레의 축전에 대하여 그들에게 각각 답전을 보내심.

23일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대표단이 모리따니회교공화국 민족의회의 초청으로 모리따니회교공화국을 방문하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보내신 친서를 모리따니회교공화국 모크타르 울드—다다흐대통령에게 전달.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쿠웨이트국가 추장 사바흐 알 살렘 알 사바흐에게 쿠웨이트국가독립 아홉돐에 즈음하여 축전을 보내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전국지방산업일군대회가 27일까지 진행, 대회에서는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을 채택하였고 일용품생산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운 김영득동무가 일하는 공장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대회참가자들의 이름으로 된 축하문을 채택 ▶직총중앙위원회는 나이제리아로동조합 콩그레스 제3차대회를 축하하여 전문을 보냄.

25일 녀맹중앙위원회에서 3.8국제부녀절 예순돐에 즈음하여 전체 녀성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

2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리마계관근위검덕광산과 이 광산에서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한 일군들을 표창하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대표단이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을 3월 24일까지 친선방문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독일민주주의공화국에서 열리는 라이프찌히봄철국제시장에 3월 17일까지 참가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에서 필리핀 로동자, 학생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여 필리핀전국로동조합협회에 전문을 보냄, 또한 아랍나라들에 대한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의 군사적침략행위를 규탄하여 아랍나라들의 여러 로조단체들에 편지를 보냄.

2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의 경제정책을 받들고 인민소비품생산에서 모범을 보인 경공업부문일군들과 당의 경제정책관철에서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한 룡양광산 일군들을 표창하심 ▶우리 나라 정부무역대표단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무역대표단 사이의 회담, 두나라간의 1970년도 상품교류에 관한 의정서가 평양에서 조인(3.2).

28일 3.1인민봉기 쉰한돐평양시기념회진행

## 3 월

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마로끄왕국 국왕 물라이 하싼 2세에게 마로끄국경절에 즈음하여 축전을 보내심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에서 공동의 명의로 미국의 진보적인민들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여 미국에 있

는 월남전쟁종식을 위한 새동원위원회에 전문을 보냄.

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콩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로 되여 귀국하게 되는 우리 나라 주재 콩고인민공화국대사를 만나시고 그를 위하여 만찬회를 베푸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라오스에서 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하려고 날뛰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직총중앙위원회에서 국제아랍로조련맹 서기국에 아랍인민들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행위를 규탄하는 국제적항의의 날에 조응하여 련대성 전문을 보냄.

4일 우리 나라 군사대표단이 20일까지 알제리를 방문.

5일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에서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야수적만행을 규탄하고 아랍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여 아랍의 사회단체들에 전문을 보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간의 1970년도 상품호상납입에 관한 의정서가 모스크바에서 조인.

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3.8국제부녀절 예순돐기념중앙보고회를 진행 ▶3.8국제부녀절 예순돐기념 사진전람회가 열림.

8일 김성애동지의 참석하에 3.8국제부녀절 예순돐에 즈음한 녀성들의 친선모임이 옥류관에서 있었음.

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영예군인학용품공장일군들을 표창하심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충직한 전사들이며 불굴의 공산주의 투사들인 권영벽, 리제순, 리동걸, 지태환동지서거 스물다섯돐 평양시추모회 진행.

1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시 중구역 제74호분구선거장에서 평양시 근로자들과 함께 지방주권기관대의원선거에 참가하심, 전국의 전체 선거자들의 100% 참가, 100%찬성투표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꾸바인민의 사탕수수가을을 협조하는 우리 나라 천리마기수지원대들에게 축하전문을 보내심.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주재 탄자니아련합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를 만나심 ▶ 조선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는 남로데시아의 스미스 인종주의도당이 《공화국》을 선포하는 놀음을 벌린것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 직총중앙위원회에서 라오스애국전선직속 라오스직맹창립위원회에 라오스에 대한 미제의 강도적침략행위와 폭격만행을 규탄하고 라오스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여 전문을 보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적십자회 중앙위원회에서 페루적십자사에 페루인민들이 큰 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것과 관련하여 위문전문을 보냄 ▶ 조선교육문화일군직맹중앙위원회에서 프랑스과학연구일군전국동맹대회를 축하하여 전문을 보냄 ▶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수리아아랍공화국을 방문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우표애호가동맹대표단이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레닌탄생 100돐 쏘련우표수집전람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직맹대표단이 레바논로동자 및 사무원 로동조합전국련맹 제1차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 나라들로 각각 떠남.

1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3.8국제부녀절예순돐기념 전국녀성예술소조 종합공연을 보심.

13일 우리 나라에서 3월 13일부터 19일까지를 《월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지지주간》으로 설정.

1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딸리아공산당 총비서 루이지 롱고의 탄생 70돐에 즈음하여 그에게 축전을 보내심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북아일랜드공산당과 아일랜드로동당 합동대회에 축전을 보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제15차총회가 15일까지 진행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여섯돐기념 전국사회과학토론회 진행.

1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의 경제정책을 높이 받들고 1969년 4.4분기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9개의 공장, 기업소들을 표창하심, 이 공장기업소들에 내각 순회우승기를 수여.

17일 우리 나라와 벌가리아 두 나라 정부사이의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과 1970년도 문화교류계획서를 쏘피아에서 조인.

18일 우리 나라 문화친선대표단은 탄자니아련합공화국을, 조선중앙방송위원회대표단은 쏘련을, 사로청대표단은 레닌탄생 100돐을 기념하여 진행되는 쏘련 울랴놉스크대종합기념비적 건물건설에 참가하기 위하여 각각 이 나라들로 떠남 ▶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과 기관들에서 일조무역회정기총회를 축하하여 전문을 보냄 ▶ 사로청중앙위원회에서 새로 252개 학급들에 2중천리마학급 및 천리마학급칭호를 주기로 결정.

19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군창건 스물두돐에 즈음하여 세계각국에서 보내온 축전들에 대하여 답전을 보내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뛰니지공화국독립 열네돐에 즈음하여 뛰니지공화국 대통령 하비브 부르기바에게 축전을 보내심 ▶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에서 월남인민의 《전국반미투쟁의 날》 스무돐에 즈음하여 월남의 사회단체들에 련대성을 표시하는 전문과 편지를 보냄 ▶ 사회과학원에서 웨. 이. 레닌탄생 100돐을 기념하여 력사학부문학술토론회 진행 ▶ 월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지성원하는 평양시 군중대회 진행.

20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이시며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교육자이시며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였던 김형직선생께서 조직지도하신 조선국민회결성 쉰돐에 즈음하여 독자모임을 가짐.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파키스탄의 날에 즈음하여 파키스탄회교공화국 대통령 애이. 엠. 야히아 한에게 축전을 보내심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보내주신 내연화된 함흥—서호간 통근렬차의 첫 운행을 환영하는 모임이 서함흥역에서 진행.

2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김영득동무가 일하는 공장 종업원들을 표창하심.

24일 전국고속도굴착기운동열성자회의 25일까지 진행.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콩고인민공화국에서 국가정변음모를 짓부신것과 관련하여 콩고인민공화국 대통령 마리엥 느구아비소좌에게 전문을 보내심.

2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운수구분대들과 자동차병들을 표창하심.

2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룩셈부르그공산당 제20차대회에 축전을 보냄.

3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전국가금업일군대회가 평양만수대의사당에서 31일까지 진행.

3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충직한 전사이며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투사인 박달동지서거 열돐 평양시추모회가 있었음.

## 4 월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

를 만나심.

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용건동지가 웽그리아해방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당과 정부 지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세네갈독립열돐에 즈음하여 세네갈공화국 대통령 레오뽈드 쎄다르 쎙고르에게 축전을 보내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리비아혁명지도리사회 의장이며 리비아아랍공화국 수상인 모아메르 엘 가다피에게 리비아아랍공화국 정부와 인민이 영제국주의침략군을 리비아땅에서 완전히 철거시킨것을 축하하여 전문을 보내심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웨. 이. 레닌탄생 100돐을 기념하는 독자모임을 가짐 ▶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에서 웽그리아해방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웽그리아 해당 사회단체들에 축전들과 축하편지를 보냄.

4일 조선로동당대표단이 이딸리아와 수리아를 12일까지 방문 ▶조선중앙통신사는 공화국북반부로 들어온 일본항공회사소속 《보잉—727》려객기와 비행사들, 일본운수정무차관을 돌려보냄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 ▶국내외 기자들이 공화국 북반부로 들어왔던 일본항공회사 소속《보잉—727》려객기 승무원들과 일본운수정무차관과 만남.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총리 주은래동지를 맞이하시고 비행장에서 환영연설을 하시였으며 그를 환영하여 연회를 배푸시고 연설을 하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반부령역에 들어왔던 일본려객기가 떠남.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주은래동지를 답례방문하심 ▶ 김일성수상동지께서는 주은래동지와 회담을 진행하심 ▶매해 6월 7일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산업절로 제정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발표 ▶ 까히라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회관이 개관.

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만수대의사당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주은래동지를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가 성대히 진행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를 위하여 주은래동지가 차린 연회에서 김일성동지께서 연설하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주은래동지를 환영하여 진행하는 음악무용종합공연을 보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가 떠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주은래동지를 바래시며 비행장에서 연설하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공동콤뮤니케 발표.

8일 조선다오메친선협회가 결성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조선민주법률가협회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이 흑인빤서당 위원장인 보비씰을 부당하게 잡아가두고 갖은 중세기적고문을 가하며 학살하려고 획책하고 있는것을 규탄하면서 미국흑인 빤서당에 전문을 보냄 ▶ 웨.이. 레닌탄생 100돐을 기념하여 쏘련에서 열리는 국제도서전람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도서전람회 대표단이 떠남 (4월 28일 돌아옴).

9일 사로청중앙위원회에서 천리마학교들인 창덕학교와 약수중학교, 길주제2중학교에 2중 천리마학교 칭호를 줌.

11일 수리아를 방문한 조선로동당대표단과 아랍사회부흥당대표단간에 회담이 다마스커스에서 진행.

1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서 조선대학교 졸업생들을 표창하심 ▶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쉰여덟돐을 기념하는 전국사회과학토론회가 평양에서 진행.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수단인민이 미제의 사촉을 받은 수단반혁명도당들의 수단민주주의공화국 혁명지도리사회 위원장 겸 수상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에 대한 암살기도와 정부전복음모를 짓부시고 수단혁명을 굳건히 수호한데 대하여 이 나라 혁명지도리사회 위원장 겸 수상에게 전문을 보내심 ▶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쉰여덟돐을 맞이하여 각지에서 강연회 광범히 진행.

1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에스빠냐공산당창건 쉰돐을 축하하여 이 당중앙위원회에 전문을 보냄 ▶조국을 방문한 재일동포들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집회 진행.

15일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쉰여덟돐을 기념하여 1970년도 《만경대 컵》쟁취를 위한 체육경기대회 열림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탄생 쉰여덟돐을 기념하여 각도(직할시), 시, 군(구역)소재지들에서 조선소년단 련합단체대회가 있었음, 대회에서는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맹세문을 채택.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리아독립 스물네돐에 즈음하여 수리아아랍공화국 국가수반이며 내각수상인 누레딘 아따씨에게 축전을 보내심 ▶조선감비아친선협회 결성 ▶ 우리 나라를 방문한 콩고 사회주의청년동맹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청년학생집회 진행 ▶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에서 수리아독립스물네돐을 축하하여 이나라 해당 사회단체들에 전문과 편지를 보냄 ▶ 사로청중앙위원회에서 미국의 월남전쟁종식을 위한 새동원위원회에 월남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여 진행되는 미국인민들의 대시위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이에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하여 전문을 보냄.

17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웨. 이. 레닌탄생 100돐에 즈음하여 쓰신 론문 《동방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 관한 레닌의 위대한 사상은 승리하고있다》를 쏘련공산당기관지 《쁘라우다》지 4월 17일호에 발표 ▶ 매해 10월 9일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속로동자절로 제정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발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미제의 사촉밑에 캄보쟈의 우익반동들이 캄보쟈에 있는 월남공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고 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발표 ▶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에서 수단민주주의공화국을 전복하려던 미제와 국내반동들의 책동을 분쇄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한 수단인민을 축하하여 전문을 보냄.

1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쁠라야 히론전투승리 아홉돐에 즈음하여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꾸바공화국 혁명정부수상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에게 축전을 보내심 ▶ 남조선인민들의 4월인민봉기 열돐 평양시기념회 평양대극장에서 진행.

19일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이신 강반석녀사를 따라 배우기 위한 평양시 녀맹원들의 이야기모임 진행.

20일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4차회의 23일까지 진행 ▶잠비아공화국 정부친선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집회 모란봉극장에서 진행.

2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용건동지가 웨. 이. 레닌탄생 100돐에 즈음하여 쏘련의 당 및 정부지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심 ▶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과 콩고사회주의청년동맹간의 공동콤뮤니케 발표 ▶

웨.이.레닌탄생 100돐 평양시 기념대회를 비롯하여 각지에서 기념회 진행.

22일 이딸리아를 방문한 조선로동당대표단과 이딸리아공산당대표단간의 회담에 관한 공동보도 발표.

23일 조선수산협회 결성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전세계 청년학생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의 날》을 기념하는 평양시청년학생들의 집회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진행.

2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유격대창건 서른여덟돐에 즈음하여 평양시를 비롯한 각지에서 기념강연회 진행 ▶ 사로청중앙위원회와 조선학생위원회에서 도미니까인민과 청년학생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의 날에 즈음하여 이 나라 해당사회단체들에 편지를 보냄.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탄자니아련합공화국창건 여섯돐에 즈음하여 탄자니아련합공화국 대통령 줄리어스 케이. 니에레레에게 축전을 보내심 ▶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한 쏘련군사 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주둔구분대군인집회 평양대극장에서 진행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에서 탄자니아련합공화국창건 여섯돐을 축하하여 이나라 해당 사회단체들에 편지를 보냄.

2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신 김일성수상께서 또고독립열돐에 즈음하여 또고공화국 대통령 에띠엔느 에야데마에게, 시에라 레온독립 아홉돐에 즈음하여 시에라 레온수상 시아카 프로빈 스티븐스에게 각각 축전을 보내심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용건동지가 중국에서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한데 대하여 중국의 당 및 정부 지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심 ▶ 수리아를 방문한 조선로동당대표단과 아랍사회부흥당 대표단간의 공동콤뮤니께 발표.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인도지나인민들의 수뇌자회의를 축하하여 전문을 보내심 ▶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에서 《오끼나와의 날》에 즈음하여 일본인민들의 투쟁에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는 전문과 편지를 일본의 해당 사회단체들에 보냄.

2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쏘련군사대표단 단장인 쏘련원수 엠.웨.자하로브를 만나심 ▶ 인민설계가, 공훈설계가 칭호를 제정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발표.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인도지나인민들을 반대하여 감행하고있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살륙만행과 범죄행위를 단호히 규탄하며 1970년 4월 25일 인도지나인민들의 수뇌자회의 공동선언을 전적으로 지지하여 성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선방문쏘련군사대표단 성원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훈장을 수여 ▶ 조선기자동맹과 웽그리아기자동맹간의 호상협조에 관한 협정을 평양에서 조인.

## 5 월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감비아공화국이 선포되고 다우다 크웨씨 자와라가 대통령으로 사업하게 된데 대하여 그에게 축전을 보내심.

3일 전국탁아소부문일군 열성자회의가 4일까지 평양에서 진행, 회의에서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맹세문을 채택 ▶ 인도지나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지하며 캄보쟈에 대한 미제의 무력침략을 규탄하는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군중대회에서 인도지나인민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

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송전선건설공사에 참가하여 모범을 보인 류치근동무가 일하는 기업소일군들을 표창하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캄보쟈에 대한 대규모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하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캄보쟈민족통일전선의 령도하의 왕국민족련합정부가 조직된것과 관련하여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에게 축전을 보내심.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다오메공화국 대통령으로 위베르 마가가 사업하게된데 대하여 그에게 축전을 보내심.

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용건동지와 함께 독일인민의 해방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당과 정부 지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심.

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용건동지와 함께 파쑈독일에 대한 쏘련인민의 전쟁승리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쏘련의 당과 정부 지도자들에게, 체스꼬슬로벤스꼬해방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체스꼬슬로벤스꼬의 당과 정부 지도자들에게 각각 축전을 보내심.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1970—1971년도 문화교류계획서가 평양에서 조인.

1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대동강역에 철도근위 1급칭호와 표창을 수여하심.

11일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대표단을 환영하는 군중집회 천리마문화회관에서 진행 ▶ 조선로동당대표단과 핀란드공산당 대표단간의 회담진행.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소말리아인민이 반혁명도당들의 정부전복음모책동을 짓부시고 소말리아혁명을 수호한데 대하여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최고혁명리사회 위원장 겸 수상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에게 전문을 보내심 ▶ 조선로동당대표단과 칠레공산당대표단간의 회담 평양에서 진행 ▶ 우리 나라에서 1970년 5월 15일~21일까지를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주간》으로 설정 ▶ 조선방직공업협회 결성.

1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리종국동무가 일하는 기업소건설자들을 표창하심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주간》에 즈음하여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 야쎄르 아라파트에게 축전을 보내심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은 회령종합식료공장의 새로운 직장건설에 참가한 전체 건설자들에게 축하문을 보냄 ▶ 조선로동당대표단의 스웨리예방문과 관련한 공동보도발표.

1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2.8세멘트공장 대형소성로건설에서 모범을 보인 일군들을 표창하심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은 2.8세멘트공장건설공사에 참가한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축하문을 보냄 ▶ 조선로동당대표단의 핀란드방문과 관련한 공동보도발표.

1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민군대안의 모범적인 선전선동일군들을 표창하심.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한 꾸바공화국 외무부상과 그 일행을 만나심 ▶ 팔레

스딴나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평양시군중집회 진행.

1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칠레공산당대표단을 만나심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라오스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국제회의가 열린것과 관련하여 이 회의에 전문을 보내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미제와 그 주구 반혁명고용병악당들이 꾸바공화국의 령해를 침범하여 날강도적인 해적행위를 감행한것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20일 칠레공산당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에 대한 공동보도발표 ▶ 조선광업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대표단이 독일민주주의공화국에서 열리는 국제주탄 및 화학협회 제5차대회에 참가 ▶ 꾸바에 대한 미제의 침략책동을 규탄하는 평양시 군중집회 진행.

2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로므니아에서 큰 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것과 관련하여 로므니아 당과 정부 지도자들에게 위문편지를 보내심.

2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북창화력발전소 건설에서 맡겨진 임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일군들을 표창하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은 .북창화력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공동축하문을 보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일본 사또반동정부가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짓밟고 우리 나라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더욱 강화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발표.

2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재일본조선인 총련합회결성 열다섯돐에 즈음하여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 한덕수동지에게 축하문을 보내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수단의 5월 25일혁명승리 한돐에 즈음하여 수단민주주의공화국 혁명지도리사회 위원장 겸 수상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에게, 요르단독립스물네돐에 즈음하여 하쉐미트 요르단왕국 국왕 후쎄인 1세에게 각각 축전을 보내심 ▶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 열다섯돐 평양시기념대회 진행▶ 우루과이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청년학생집회 진행.

25일 수단민주주의공화국 5월혁명승리 한돐 평양시기념회 진행.

2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쏘련의 일부 지역들에서 자연재해를 입은것과 관련하여 이 나라 당과 정부 지도자들에게 위문편지를 보내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아프가니스탄왕국독립절에 즈음하여 이 나라 국왕 모함메드 자히르 샤흐에게 축전을 보내심.

2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뽈스까인민공화국 쎄임대표단 단장을 만나시고 그를 위하여 만찬을 베푸심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오지리공산당 제21차대회에 축전을 보냄 ▶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인민의원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 조선기자동맹대표단이 독일민주주의공화국에서 열리는 국제기자동맹 상무위원회 및 서기국확대회의에 참가.

2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꾸바공화국 혁명정부 수상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에게 꾸바의 일부 지역들에서 태풍과 폭우에 의한 피해를 입은 인민들에게 동정을 표시하여 전문을 보내심 ▶ 뽈스까인민공화국 쎄임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집회 진행.

3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4분기계획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공장, 기업소들과 전투준비와 전투력강화에 크게 이바지한 조선인민군 구분대 및 군인들을 표창하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쎄일론국회선거에서 자유당과 민주력량의 통일전선이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시리마보 반다라나이케가 수상으로 취임한데 대하여 그에게 축전을 보내심.

3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뜌니지국경절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심 ▶ 6.1국제아동절 스무돐 기념 중앙보고회 평양대극장에서 진행.

## 6 월

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리마강선제강소 6천톤프레스직장건설에서 맡겨진 임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일군들을 표창하심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에서 천리마강선제강소 6천톤프레스직장건설에 참가한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축하문을 보냄 ▶ 우리 나라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에서 웽그리아 일부 지역에서 자연재해를 입은것과 관련하여 웽그리아적십자회에 위문전문을 보냄.

2일 남조선청년학생들의 6.3투쟁 여섯돐 평양시청년학생기념회 진행 ▶ 이라크녀성총동맹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녀성군중집회가 있었음.

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수상이신 김일성원수께 1970년 3월 1일 뉴욕에 있는 조선민주주의통일전선 위원장 고병철로부터 조국의 통일문제와 관련한 편지를 보내온데 대하여 김일성수상의 위임에 의하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인사들이 이 편지에 회답을 보냄.

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의 건설정책관철에서 모범을 보인 천리마근위 화학설비종합기업소를 표창하심,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을 채택 ▶남부웰남공화 공식명절 한돐 평양시기념회가 모란봉극장에서 진행 ▶량강도내 근로자들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승리 서른세돐을 뜻깊게 기념하여 량강도경축대회 성대히 진행, 모임에서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맹세문을 채택.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용건동지가 남부웰남공화 공식명절 한돐에 즈음하여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 자문리사회 위원장 법률가 윈우수와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 주석 건축가 휭떤팝에게 축전을 보내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민족적박해와 야만적인 탄압을 발악적으로 강화하고 있는것을 단호히 규탄하여 성명 ▶ 영웅적조선인민군장병들이 해주 앞바다에 침입하여 엄중한 무장도발을 감행한 미제침략군간첩선을 바다에 처넣음.

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모범적인 소년단원들을 표창하시는 《조선소년단 영예상》수여식이 진행 ▶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에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식민지군사파쑈테로통치로하여 남조선농촌에 혹심한 춘궁과 전반적인 절량참상이 휩쓸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남조선농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대민족회의 및 국가쏘베트대표단 단장을 만나시였으며 그를 위하여 오찬회를 베푸심 ▶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에서 남부웰남공화 공식명절 한돐을 축하하여 해당 사회단체들에 전문을 보냄.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수단민주주의공화국 정부친선대표단을 만나심.

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프랑스평화운동전국뷰로성원을 만나심.

10일 공화국 내각에서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연회를 차림 ▶ 우리의 붉은 농업근로자들은 올해 모내기를 례년보다 앞당겨 전국적으로 끝냄.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주재 캄보쟈민족통일전선 령도하의 캄보쟈왕국 신임특명전권대사를 만나심 ▶수산성산하 일군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어부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발표.

1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서 민족보위성 붉은기군악대 지휘관, 악사들을 표창하심.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정부대표단을 만나심 ▶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집회와 음악무용종합공연이 있었음 ▶조선륙운 및 해운협회 결성.

1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말디브제도공화국사이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는 협정과 공동콤뮤니케 조인 ▶ 우리 나라에 머무르고있는 수리아혁명청년동맹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청년학생집회가 있었음.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는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역두에서 맞이하시고 연설하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와 부인 김성애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한 캄보쟈 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을 환영하여 연회를 배푸시고 김일성수상께서 환영연설을 하심 ▶웽그리아직맹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근로자집회가 모란봉극장에서 있었음 ▶ 또고조선친선협회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근로자집회 천리마문화회관에서 진행.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와 부인 김성애동지께서는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을 답례방문하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와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사이에 회담이 진행됨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단마르크공산당대표단을 만나심 ▶일본군국주의 재생재침책동을 폭로규탄하는 사회과학토론회 평양에서 진행.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와 부인 김성애동지께서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 노로돔 시하누크친왕,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과 함께 만경대혁명학원을 참관하시였으며 평양시유치원어린이들의 춤과 노래공연을 보심.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와 부인 김성애동지께서는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을 위하여 오찬을 배푸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의 참석하에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 평양만수대의사당에서 성대히 진행.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리비아아랍공화국 정부와 인민이 미제국주의침략군을 리비아땅에서 완전히 철거시킨데 대하여 리비아혁명지도리사회 의장이며 리비아아랍공화국 수상인 모아메르 엘 가다피에게 축전을 보내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말디브제도공화국 사이에 대사급 외교관계가 설정된것과 관련하여 말디브제도공화국 대통령 이브라힘 나시르에게 축전을 보내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일본사또반동정부가 미제와 공모하여 미일《안보조약》을 개악하여 연장하려고 책동하고있는 사실을 폭로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와 부인 김성애동지께서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 모니크 시하누크친왕 부인과 함께 원산시에 도착하심.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와 부인 김성애동지께서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과 함께 조선인민군 한도산소속구분대를 방문하시였으며 군인들의 예술소조공연을 보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와 부인 김성애동지와 함께 가신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을 환영하여 강원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연회를 차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신 김일성수상께서 인도네시아공화국 여전 대통령 수카르노가 서거한것과 관련하여 하르티니 수카르노부인에게 조전을 보내심.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와 부인 김성애동지께서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과 함께 조선인민군 공화국영웅 신승오동무소속구분대 초소를 방문하시였으며 리영열동무가 일하는 천리마영예군인 수지일용품공장을 참관하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에서 력사적으로 감행된 미제의 침략행위를 단죄하며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의 범죄적진상을 다시금 온 세상에 폭로하는 비망록을 발표 ▶조선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와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에서는 일본에서 열리는 일미《안보조약》폐기전국통일행동중앙대회에 축하전문을 보냄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에서 《일미 〈안보조약〉폐기를 위한 전국통일행동월간》에 즈음하여 일본의 해당 사회단체들에 전문을 보냄.

2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 《미라이샤》와 《유잔가꾸》 출판사 사장을 만나심.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대표단을 만나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와 부인 김성애동지께서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이 함께 조선인민군 양현욱, 최영희동무소속구분대들을 방문하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간의 보건분야에서 협조할데 관한 의정서가 알제에서 조인.

2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하에 《미제반대투쟁의 날》평양시군중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으며 이어 20여만군중들의 장엄한 시위가 진행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월남민주공화국 정부대표단, 남부월남공화대표단 그리고 라오스애국전선대표단을 만나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에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부인

김성애동지의 참석하에 우리 나라를 방문한 중화인민공화국대표단, 윁남민주공화국 정부대표단을 환영하여 만수대의사당에서 연회를 차림.

2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대표단 단장과 회담을 하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함께 조선예술영화촬영소를 참관하심.

2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하에 미제를 반대하고 대만을 해방하기 위한 중국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평양시군중대회가 평양만수대의사당에서 성대히 진행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와 부인 김성애동지를 위하여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차린 연회에서 김일성수상께서 연설하심 ▶《미제반대투쟁의 날》 개성시와 원산시, 함흥시 군중대회와 시위 진행.

2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대표단, 윁남민주공화국정부대표단, 남부윁남공화대표단, 라오스애국전선대표단이 우리 나라 방문과 관련하여 차린 연회에 초대되심.

2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인도공산당(맑스주의)대표단을 만나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소말리아의 독립열돐에 즈음하여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최고혁명리사회 위원장 겸 수상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에게 축전을 보내심.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부룬디공화국독립 여덟돐에 즈음하여 부룬디공화국 대통령 미쉘 미촘베로에게, 루안다공화국독립 여덟돐에 즈음하여 루안다공화국 대통령 그레고와르 까이방다에게 각각 축전을 보내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신 김일성동지께서와 부인 김성애동지께서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을 위해 만찬을 베푸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와 그리고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캄보쟈왕국간의 공동성명에 각각 서명하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캄보쟈의 귀중한 력사적유물들을 파괴략탈하려고 미쳐날뛰고 있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죄행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 우리 나라 정부와 인도정부사이에 1970년도 및 1971년도 상품류통에 관한 의정서 평양에서 조인.

## 7 월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였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바래시여 평양역두에서 연설하심.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일본공산당 제11차대회앞에 축전을 보냄 ▶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에서 소말리아독립 열돐에 즈음하여 소말리아녀성협회에 전문을 보냄

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도미니까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이당 총비서 나르시쏘 이싸 꼰데가 호아낀 발라게르반동정권에 의하여 체포된데 대하여 위문전문을 보냄.

3일 우리 나라와 꾸바간의 1970—1971년도 문화교류계획서가 아바나에서 조인.

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알제리독립 여덟돐에 즈음하여 알제리전국혁명리사회 의장이며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인 후아리 부메디엔에게 축전을 보내심.

5일 불가리아조국전선민족리사회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집회 모란봉극장에서 진행.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에 머무르고있는 세계직업련맹 서기장 삐에르 장쑤스를, 우리 나라에 와있는 이라크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 아브둘 카림 메키를 각각 만나심.

8일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탄생 일흔여섯돐에 즈음하여 평양시를 비롯한 각지에서 기념강연회들이 광범히 진행됨 ▶이라크공화국을 방문한 우리 나라 당 및 정부대표단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보내신 친서를 이라크공화국 아흐마드 하싼 알 바크르대통령에게 전달 ▶ 우리 나라 과학원과 체스꼬슬로벤스꼬 과학원간의 호상협조에 관한 협정을 쁘라하에서 조인

9일 김규남, 박대인 선생을 비롯한 남조선 애국자들에 대한 미제와 그 주구들의 파쑈적탄압을 규탄하여 평양시 성토대회를 진행 ▶ 우리 나라에서《꾸바인민과의 련대성월간》(7.11—8.10)을 설정.

1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최용건위원장과 함께 몽골인민혁명 마흔아홉돐에 즈음하여 몽골의 당과 정부 지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심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6.1국제아동절 스무돐을 기념하는 예술공연과 집단유희에 참가한 평양시내 유치원어린이들과 교양원들에게 선물을 보내심.

11일 꾸바인민의 무장봉기 열일곱돐에 즈음한《꾸바인민과의 련대성월간》 개막식을 진행, 개막식에서 꾸바공화국혁명정부 수상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에게 보내는 편지 채택 ▶《꾸바인민과의 련대성월간》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이 공동성명을 발표.

12일 웽그리아인민공화국 부다페슈뜨수도쏘베트집행위원회대표단을 환영하여 평양시군중집회 진행.

1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천박물관 일군들을 표창하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이라크공화국 대통령 아흐마드 하싼 알 바크르에게 이라크혁명 열돐에 즈음하여 축전을 보내심 ▶우리 나라에서 윁남에 관한 제네바협정이 체결된 날에 즈음하여 《윁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지지주간》(7.14—7.20)을 설정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아홉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사회단체와 중국사회단체들 사이에 축전이 교환됨 ▶알리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대표단을 환영하여 천리마문화회관에서 군중집회 진행.

14일 우리 나라 녀성대표단이 꾸바(7.14—8.12)를 방문 ▶ 우리 나라 직맹대표단이 빠리에서 열리는 미제침략을 반대하는 인도지나 근로자들 및 인민들과의 련대성을 위한 세계직맹대회에 참가 ▶이라크혁명 열두돐기념회가 천리마문화회관에서 진행.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와 쎄일론사이에 대사급외교관계가 설정된것과 관련하여 쎄일론수상 시리마아르.디.반다라나이케에게 전문을 보내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쎄일론사이의 대사급외교관계설정에 관한 공동보도 콜롬보에서 발표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콜롬비아공산당창건 마흔돐에 즈음하여 콜롬비아공산당에 축전을 보냄 ▶ 우리 나라와 콩고인민공화국간의 1970—1971년도 문화교류계획서를 브라자빌에서 조인 ▶로므니아군사대표단을 환영하

여 대극장에서 평양시군중집회 진행.

1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4월 17일공장 일군들을 표창하심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군사대표단을 만나시였고 오찬을 베푸심 ▶ 독일민주주의공화국외무성국무비서 페테르 플로린동지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방문결과에 대한 공동보도 평양에서 발표.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알렉세이 니꼴라예비치 꼬씨긴이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 내각 수상으로 다시 임명된것과 관련하여 그에게 축전을 보내심 ▶ 일본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대표단을 환영하는 군중집회 천리마문화회관에서 진행 ▶ 녀맹중앙위원회에서 꾸바인민의 7월 26일 무장봉기 열일곱돐에 즈음하여 꾸바녀성들과 친선모임 진행.

20일 월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지성원하여 모란봉극장에서 평양시군중집회진행.

2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최용건위원장과 함께 뽈스까재생 스물여섯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당과 정부 지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심 ▶ 우리 나라 민용항공국과 꾸바민용항공국간에 민용항공운수분야에서 총대리 및 지상봉사제공에 관한 협정을 아바나에서 조인.

2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심화발전시킴에 있어서 모범을 보인 2중천리마작업반들에 천리마영예상을 주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아랍련합공화국 국경절인 7월 23일혁명 열여덟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심.

23일 라오스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지성원하여 천리마문화회관에서 평양시군중집회 진행 ▶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에서 라오스인민들의 정의의 위업에 련대성을 표시하여 이 나라 사회단체들에 전문을 보냄.

24일 꾸바인민의 무장봉기 열일곱돐 평양시기념보고회 평양대극장에서 진행 ▶ 우리 나라 외무상과 꽁고인민공화국 외무상 사이의 회담 평양에서 진행 ▶ 우리 나라 정부경제대표단이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방문차로 평양을 떠남 ▶ 조선의학협회 결성.

2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최용건위원장과 함께 꾸바인민의 무장봉기 열일곱돐에 즈음하여 꾸바의 당 및 정부 지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말디브제도공화국독립 다섯돐에 즈음하여 말디브제도공화국 대통령에게, 리베리아국경절에 즈음하여 리베리아공화국 대통령에게 각각 축전을 보내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대표단이 중화인민공화국방문차로 떠남(8월 4일 돌아옴).

2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천탄광 일군들을 표창하심 ▶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열일곱돐평양시경축대회를 평양대극장에서 진행 ▶ 중국에 머무르고있는 우리 나라 군사대표단이 중국의 군사대표단과 베이징에서 회담 진행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일부감축설》을 퍼뜨리면서 범죄적인 《제4차 한일정기각료회의》와 《한미국방각료회의》라는것을 벌려놓고 조선에서 새 전쟁 도발책동을 더욱 격화시키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27일 공화국내각에서 우리 나라를 방문한 꾸바인민친선대표단을 환영하여 연회를 차림 ▶ 조국해방전쟁승리 열일곱돐에 즈음하여 원산시에서 조선인민군(경비대)렬사들의 추모탑제막식 진행 ▶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에서 꾸바인민의 무장봉기 열일곱돐을 축하하여 이 나라 사회단체들에 전문과 편지를 보냄, 천리마문화회관에서 사진전람회와 영화감상회도 진행.

2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지도자들로부터 보내온 전문에 대하여 답전을 보내심 ▶ 알제리농업근로자전국련맹대표단을 환영하여 모란봉극장에서 평양시농업근로자집회 진행.

2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수상동지와 김성애동지께서 국제민주녀성련맹 헤르따 꾸우씨녜위원장을 만나시였고 오찬을 베푸심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충직한 혁명전사이며 불굴의 공산주의자인 최춘국동지서거 스무돐 평양시추모회 모란봉극장에서 진행.

3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영국공산당창건 쉰돐에 즈음하여 영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축전을 보냄 ▶ 조선로동당대표단이 오지리공산당대표단과의 회담을 평양에서 진행 ▶ 전국천해양식부문일군열성자회의(30~31일)를 평양에서 진행,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 채택 ▶ 꽁고인민공화국 외무상이 인솔하는 대표단을 환영하여 천리마문화회관에서 평양시군중집회 진행.

3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꽁고인민공화국 외무상이 인솔하는 대표단을 만나시고 오찬을 베푸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다오메독립 열돐에 즈음하여 다오메공화국 대통령리사회 위원장이며 국가수반이며 정부수반인 위베르 마가에게 축전을 보내심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해양식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모범을 보인 단체들과 일군들을 표창하심 ▶ 재일본조선청년동맹결성 열다섯돐 평양시청년학생기념집회를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진행.

## 8 월

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범적인 약무일군들을 표창하심 ▶ 조선모리따니친선협회 결성 ▶ 조선로므니아간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 창설에 관한 협정이 부꾸레슈띠에서 조인 ▶ 꽁고인민공화국 외무상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방문결과에 대한 공동공보가 평양에서 발표.

2일 우리 나라를 방문한 국제민주녀성련맹 위원장을 환영하는 평양시녀성군중집회 모란봉극장에서 진행.

4일 이라크로동조합총련맹 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근로자집회 모란봉극장에서 진행.

5일 오지리공산당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방문에 대한 공동보도 평양에서 발표.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영제국주의자들이 미제국주의자들과의 공모밑에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에게 살인무기를 공공연히 대주기로 한것을 규탄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반대하는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에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하는 성명을 발표.

7일 재일조선학생소년들의 조국방문을 방해하는 일본반동정부의 책동을 규탄하는 평양시학생소년련합모임이 열림.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싱가포르독립 다섯돐에 즈음하여 싱가포르공화국 리판유수상에게 축전을 보내심 ▶ 우리 나라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에서 동부파키스탄에서 큰물피해를 입은것과 관련하여 파키스탄적십자사에 위문전문을 보냄 ▶ 미국인민의 반제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집회 모란봉극장에

서 진행.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쏘련 외무부상 겸 유엔주재 쏘련상임대표를 만나심 ▶ 조선림업및목재가공협회 결성.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몽골인민공화국 정부간 1970—1971년도 문화교류계획서 평양에서 조인 ▶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군중집회 모란봉극장에서 진행.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일본반동당국이 여름방학동안에 그리운 조국을 방문하려는 재일조선학생들의 절절한 념원을 란폭하게 짓밟는 범죄행위를 감행한것을 규탄하여 성명발표.

1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꾸바인민의 사탕생산투쟁을 로력적으로 돕는데서 모범을 보이고 돌아온 천리마기수지원대 성원들을 표창하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중앙아프리카공화국독립 열돐에 즈음하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장 베델 보카싸에게 축전을 보내심 ▶ 조선로동당대표단과 스위스로동당대표단 사이의 회담 평양에서 진행 ▶ 우리 나라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에서 네팔에서 큰물이 진것과 관련하여 네팔적십자사에, 이란에서 지진피해를 입은것과 관련하여 이란적십자사에 각각 위문전문을 보냄.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수단민주주의공화국 혁명지도리사회 위원장 겸 수상인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소장을 맞이하시고 비행장에서 연설을 하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꽁고 8월혁명승리 일곱돐에 즈음하여 꽁고인민공화국 대통령 마리엔 느구아비소좌에게, 파키스탄독립절에 즈음하여 파키스탄회교공화국 대통령 에이.엠.야히아 한에게 각각 축전을 보내심.

1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에 머무르고있는 수단민주주의공화국 혁명지도리사회 위원장 겸 수상인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소장을 답례방문하심 ▶ 김일성동지께서는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소장과 함께 인민군구분대들과 붉은기만경대혁명학원을 참관하시였으며 평양시소년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을 보심 ▶ 8.15해방 스물다섯돐 평양시경축대회 만수대의사당에서 성대히 진행, 전국각지에서도 경축회진행.

1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쏘련당및정부대표단을 만나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용건동지가 8.15명절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쏘련의 당 및 정부 지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심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하에 8.15해방 스물다섯돐 경축 내각연회가 만수대의사당에서 있었음 ▶수단민주주의공화국 혁명지도리사회 위원장 겸 수상인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소장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 만수대의사당에서 성대히 진행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의 참석하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소장과 그 일행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훈장과 메달을 수여함 ▶ 김일성수상께서는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소장과 함께 음악무용서사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을 보심 ▶ 8.15해방 스물다섯돐 사리원시경축회 성대히 진행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제와 그 주구들이 캄보쟈에 있는 월남거류민들에 대한 범죄행위를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발표.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를 위하여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위원장이 차린 연회에서 김일성수상께서 연설을 하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의 참석하에 우리 나라가 수단민주주의공화국에 경제, 문화 및기술협조를 줄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수단민주주의공화국정부사이의 협정이 조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가봉공화국 독립 열돐에 즈음하여 가봉공화국 대통령 알베르 베르나르 봉고에게, 인도네시아공화국 독립선포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 수하르또에게 각각 축전을 보내심.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고 떠나는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위원장을 바래심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닭공장건설에서 모범을 보인 일군들을 표창하심. ▶ 꾸바인민친선대표단 성원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훈장을 수여함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는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미제침략자들의 야수적만행이 더욱 우심해지고있는것을 규탄하며 남조선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에 전투적지지와 동포애적성원을 표시하여 성명을 발표.

1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스위스로동당대표단을 만나심 ▶ 남조선녀성들에 대한 미제침략자들의 야수적만행을 규탄하는 평양시녀성집회 진행 ▶ 수단민주주의공화국 혁명지도리사회 위원장 겸 수상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소장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방문결과에 대한 공동보도 평양에서 발표.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주재 몽골인민공화국 대사를 만나심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예군인보양소 일군들에게 표창장과 선물을 보내심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에서 영예군인보양소 보양원들과 영예군인종업원들에게 축하문을 보냄 ▶ 천리마영예군인 보양소창립 스무돐기념모임 현지에서 진행, 모임에서는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을 채택.

2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의 조국해방전쟁승리 열일곱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지도자들로부터 보내온 전문들에 대하여,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공산당 및 투쟁조직들에서 보내온 전문들에 대하여 그들에게 각각 답전을 보내심 ▶ 스위스로동당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에 대한 공동보도 평양에서 발표.

21일 일본사회당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집회 평양대극장에서 진행.

2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일본사회당대표단을 만나시고 대표단을 위하여 오찬을 베푸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술레이만 프란쥐에가 레바논대통령으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그에게 축전을 보내심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용건동지와 함께 로므니아해방 스물여섯돐에 즈음하여 로므니아 당 및 정부 지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심 ▶ 모리따니민족회의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집회 모란봉극장에서 진행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사회주의나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의 신생독립국가들이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군과 기타 모든 외국군대들을 철거시킬데 대한》 문제와 미제의 침략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할데 대한》문제를 유엔총회 제25차회의에서 토의할것을

제기한것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감축》의 기만적소동의 막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새 전쟁 도발책동을 미친듯이 격화시키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 우리 나라 력사가민족위원회가 제13차 국제력사과학대회에서 국제력사과학위원회에 가입 ▶ 세계민주청년련맹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청년학생집회가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진행.

2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수상동지와 김성애동지께서 쎄일론사회주의녀성대표단을 만나심 ▶ 쎄일론사회주의녀성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녀성군중집회 모란봉극장에서 진행 ▶ 모리셔스조선친선협회대표단 환영군중집회 천리마문화회관에서 진행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및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특사를 만나심 ▶ 조선로동당과 일본사회당 사이의 공동꼼뮤니케 평양에서 발표.

27일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쏘련을 방문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

3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과학원 함흥분원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축하문을 보내심 ▶조선로동당대표단과 희랍공산당대표단 사이의 회담 평양에서 진행.

3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리비아혁명한돐에 즈음하여 리비아혁명지도리사회 의장이며 리비아아랍공화국 수상인 모아메르 엘 가다피에게 축전을 보내심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김일성동지께서 희랍공산당대표단을 만나시고 오찬을 베푸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은 결정 70호로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임금을 올릴데 대하여》를 채택.

## 9 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용건동지가 윁남민주공화국 창건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윁남민주공화국 당 및 정부 지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심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국제관계대학창립열돐에 즈음하여 국제관계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축하문을 보냄 ▶윁남민주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 평양시기념회 평양대극장에서 진행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의 지시밑에 남조선괴뢰도당과 결탁하여 벌리고있는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괴뢰《한국국적》강요책동을 폭로규탄하여 성명발표.

2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혁명조직과 국제기구들로부터 보내온 전문들에 답전을 보내심 ▶ 우리 나라와 웽그리아간의 농업분야에서 협조할데 대한 협정이 부다페슈뜨에서 조인.

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쎄일론국회대표단을 만나시였으며 대표단을 위하여 오찬을 베푸심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의 경제정책을 받들고 2.4분기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공장, 기업소들을 표창하심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급양부문에서 모범적으로 일한 욕류관일군들을 표창하심 ▶ 희랍공산당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에 관한 공동보도 발표.

4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친선단체들로부터 보내온 전문들과 편지에 대하여 답전을 보내심.

5일 우리 나라와 체스꼬슬로벤스꼬간의 1970~1971년도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의정서 쁘라하에서 조인.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제3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 축전을 보내심.

7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충직한 혁명전사이며 불굴의 공산주의자인 강건동지 서거 스무돐 평양시추모회 모란봉극장에서 진행.

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용건동지가 벌가리아사회주의혁명 스물여섯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의 당과 정부 지도자들에게 공동명의로 축전을 보내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두돐기념 평양시경축대회 만수대의사당에서 성대히 진행, 각 도소재지와 시, 군 및 인민군구분대들에서도 경축회들을 진행 ▶ 조선운수 및 항만로동자 직업동맹 중앙위원회가 전일본항만로동조합 제25차대회를 축하하여 전문을 보냄.

9일 공화국내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두돐을 기념하는 경축연회 차림 ▶ 모란봉경기장에서 전국중학생체육대회 17일까지 진행, 대회참가자들은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맹세문과 그리고 남반부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라오스에 대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전쟁확대책동을 준렬히 단죄하여 성명발표 ▶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로므니아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청년학생집회 진행

12일 조선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에서 《짐바브웨인민들의 투쟁과의 전투적련대성의 날》에 즈음하여 짐바브웨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에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하는 편지를 보냄 ▶ 조선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에서 우리 나라를 방문한 팔레스티나해방 전선대표단을 위하여 연회를 차림 ▶ 우리 나라를 방문한 서부독일 사회주의로동청년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청년학생집회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진행. ▶ 수단민주주의공화국을 방문한 우리 나라 정부친선대표단 단장이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보내시는 친서를 수단민주주의공화국 혁명지도리사회 위원장 겸 수상인 자파르 모하메드 니메리소장에게 전달 ▶ 조선화학공업협회 결성.

13일 비팔청년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청년학생 집회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진행 ▶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에서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창립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 중앙상임위원회에 축전을 보냄.

14일 몽골직맹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근로자집회 모란봉극장에서 진행.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유엔총회 제25차회의에서 또다시 《조선문제》의 비법적토의를 강요하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의 흉책과 지난 24년동안 미제가 유엔을 침략도구로 악용하여온 죄상을 폭로하여 비망록을 발표.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주재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를 만나심 ▶《김일성수상로작연구위원회》 위원장인 파키스탄조선청년친선협회 위원장을 환영하는 김일성종합대학청년학생집회 진행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연설 《5대륙의 진보적기자들은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들고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자》의 발표 한돐에 즈음하여 평양에서 강연회 진행.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주재 월남민주공화국신임특명전권대사를 만나심.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말리공화국선포 열돐에 즈음하여 말리공화국 국가수반 정부 수상이며 민족해방군사위원회 위원장 무싸 뜨라오레각하에게 축전을 보내심 ▶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는 우리 나라 정부경제대표단이 떠남(10월 20일 돌아옴).

2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우루과이공산당창건 쉰돐에 즈음하여 우루과이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축전을 보냄.

2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붉은기만경대혁명학원에 교육교양사업에 필요한 귀중한 선물을 보내주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수상께서 뻬엘룬정부경제대표단을 만나시였으며 대표단을 위하여 오찬을 베푸심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주재 모리따니회교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를 만나심 ▶ 우리 나라와 뻬엘룬사이의 무역협정과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의정서와 1971년도 상품류통에 관한 의정서 평양에서 조인.

22일 공훈광부칭호를 수여함에 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발표 ▶ 우리 나라 과학원과 뽈스까과학원사이의 1970~1972년도 과학협조에 관한 사업계획서 조인.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요르단반동세력을 사촉하여 요르단에 있는 팔레스티나유격대에 대한 새로운 엄중한 책동을 감행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 우리 나라 대외문화련락위원회대표단이 꾸바혁명수호위원회창립 열돐기념행사에 10월 13일까지 참가 ▶ 우리 나라 녀맹대표단이 웽그리아에서 열리는 국제민주녀성련맹 뷰로회의와 리사회의에(10월 23일까지). 우리 나라 농업과학원대표단이 독일민주주의공화국에서 열리는 사회주의국가 농업 및 산림부문과학사업조정위원회 제9차총회에 각각 참가.

25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주재 잠비아공화국대사를 만나심.

26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수상께서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대표단을 만나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새로운 침략전쟁준비를 다그치며 도발책동을 더욱 강화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발표 ▶ 중화인민공화국창건 스물한돐에 즈음하여 사진전람회와 소연회 및 영화감상회가 있었음.

2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의 건설정책관철에서 모범을 보인 일군들을 표창하심.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쏘련자동정류소 《루나 16호》가 달에 내리여 달의 암석견본을 수집하고 지구에 돌아온것과 관련하여 쏘련의 당과 정부 지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심.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아랍련합공화국 대통령 가말 아브델 나쎄르가 서거한것과 관련하여 아랍련합공화국 대통령대리 안워르 앗사다트에게 조전을 보내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기네공화국독립 열두돐에 즈음하여 기네공화국 대통령 아흐메드 세꾸 뚜레에게, 끼쁘로스독립 열돐에 즈음하여 끼쁘로스공화국 대통령 대주교 마카리오스에게, 까메룬련방공화국 통일의 날 아홉돐에 즈음하여 까메룬련방공화국 대통령 엘하지 아흐마두 아히죠에게, 나이제리아독립 열돐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군사정부수반 야쿠부 고원소장에게 각각 축전을 보내심.

3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용건동지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스물한돐에 즈음하여 중국 당과 정부지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아랍련합공화국 가말 아브델 나쎄르 대통령이 서거한것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에서 10월 1일을 애도의 날로 함.

## 10 월

1일 각 정당, 정권기관, 사회단체 간부들과 근로자들이 아랍련합공화국 가말 아브델 나쎄르대통령의 서거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에 와있는 아랍련합공화국대사관을 방문하고 조의를 표시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에서 아랍련합공화국 가말 아브델 나쎄르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하여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이 나라 해당 사회단체들에 조전을 보냄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에서 팔레스티나인민의 혁명위업에 련대성을 표시하여 팔레스티나의 해당 사회단체들에 전문을 보냄.

2일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평양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들과 지도교원들에게 표창장과 선물을 보내심.

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학생절을 맞이하여 모범적인 학생들에게 표창장과 선물을 보내심 ▶학생절기념 평양시보고회 진행, 모임에서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맹세문을 채택 ▶체스꼬슬로벤스꼬, 벌가리아, 쏘련을 방문하는 우리 나라 농업대표단이 떠남.

4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충직한 혁명전사이며 불굴의 공산주의자인 조정철동지서거 스무돐 평양시추모회 진행.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웽그리아인민공화국 사이의 법률상방조조약과 령사협약 평양에서 체결 ▶조선몽골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7차회의 의정서 평양에서 조인

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최용건위원장과 함께 독일민주주의공화국창건 스물한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당과 정부 지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정부 사이의 무역협정과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평양에서 조인 ▶우리 나라 정부와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정부 사이의 무역협정과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평양에서 조인.

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내각 수상 이온 게오르게 마우레르동지가 뜻하지않은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받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로므니아공산당 총비서이며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위원장인 니꼴라에 챠우쉐스꾸동지에게 위문전문을 보내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간다독립 여덟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두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당 및 정부 지도자들과 혁명조직들의 지도자들, 국제기구와 친선단체들에서 보내온 축전들에 대하여 답전을 보내심.

8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적도기네공화국 대통령 프란시스코 마시아스 느게마에게 이 나라 독립 두돐에 즈음하여 축전을 보내심.

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철도전기화공사에서 맡겨진 혁명임무

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건설자들에게 표창장과 선물을 보내심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리마 락원기계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을 표창하심 ▲ 경애하는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공화국창건 스물두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단체들과 개별적인사들로부터 보내온 축전들과 편지들에 대하여 답전을 보내심 ▶조선로동당창건 스물다섯돐 기념 중앙강연보고회 진행, 전국각지에서도 기념강연보고회 광범히 진행.

1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가 1970년 11월 2일부터 열리는데 대하여 발표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예술영화 《꽃피는 마을》을 창조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작가, 예술인들을 표창하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민군대안의 예술단체들에 선물을 보내주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 내각에서 평천—청진사이의 전기철도 건설자들에게 축하문을 보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부문인민상및학위학직심사위원회에서 예술영화 《꽃피는 마을》에 인민상을 수여 ▶조선로동당대표단과 미국공산당대표단간의 회담이 평양에서 진행.

1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창건력사를 보여주는 당창건기념관 개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라오스독립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장 수파누봉 친왕에게 축전을 보내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미제의 사촉밑에 캄보쟈의 론놀괴뢰도당이 조작한 이른바 《공화국》놀음을 강력히 규탄하고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캄보쟈민족통일전선 령도하의 왕국민족련합정부의 10월 10일부 공동성명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

12일 라오스독립 스물다섯돐 평양시 기념회 진행.

1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조선중앙방송개시 스물다섯돐 기념회를 진행, 그이께서 조선중앙방송개시 스물다섯돐을 기념하는 공연을 보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에서 조선중앙방송개시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조선중앙방송위원회 기자, 편집원, 번역원, 방송원, 방송예술인,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축하문을 보냄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매해 10월 14일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송절로 제정함에 대한 정령 발표 ▶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평양을 떠남.

1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방송선전사업에서 맡겨진 임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일군들과 당의 경제정책관철에서 모범을 보인 제염공업부문일군을 표창하시고 선물을 보내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내각에서 소금증산투쟁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한 제염공업부문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축하문을 보냄 ▶재일동포들에 대한 적들의 《영주권신청》 및 괴뢰《한국국적》강요책동을 폭로규탄하여 평양시군중집회 진행.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안워르 앗 사다트가 아랍련합공화국 대통령으로 당선된데 대하여 그에게 축전을 보내심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기념 《녀맹호》땅크를 영웅적조선인민군구분대에 드리는 평양시녀맹원들의 모임진행.

1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에 머무르고있는 미국공산당대표단을 만나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의 건설정책을 높이 받들고 강용겸동무가 일하는 공장 5.25직장건설에서 모범을 보인 건설자들을 표창하심 ▶ 강용겸동무가 일하는 공장에 새로 일떠선 5.25직장조업식이 성대히 진행.

1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국토건설에서 모범을 보인 창성군인민위원회 일군들을 표창하시였으며 창성군과 삭주군내 근로자들에게 선물을 보내심 ▶ 사로청중앙위원회에서 김일성종합대학에 천리마대학칭호를 주기로 결정.

1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력생산에 크게 이바지한 평양화력발전소 로동자, 기술자들을 표창하시고 선물을 보내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에서 7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전력생산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을 발휘한 평양화력발전소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축하문을 보냄 ▶국제학생동맹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학생집회 진행.

2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의 건설정책을 높이 받들고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건설공사에서 모범적으로 일한 건설자들과 청진시 무궤도전차길건설공사에서 맡겨진 임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건설자들을 각각 표창하시고 선물을 보내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소말리아의 10월 21일혁명승리 한돐에 즈음하여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최고혁명평의회 의장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 소장에게 축전을 보내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에서 청진시무궤도전차길건설과 무궤도전차생산에 참가한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축하문을 보냄 ▶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준공식 진행 ▶평양시에서 금수산려관을 준공.

2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북도 창성군에 모범교육군칭호를 수여하시고 이 군의 모범적인 교육일군들에게 표창장과 선물을 보내심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기념 《녀맹호》땅크를 영웅적조선인민군부대에 드리는 황해남도 녀성군중모임 해주시에서 진행.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에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스무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한 중국인민친선대표단을 환영하여 연회를 차림.

2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북도 벽동군에 모범교육군칭호를 주시고 이군의 모범적인 교육일군들을 표창하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에 머무르고있는 중국인민친선대표단을 만나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에서 천리마황해제철소 5.14종합직장건설에 참가한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축하문을 보냄 ▶천리마황해제철소 5.14종합직장조업식 진행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기념 《농근맹호》비행기와 땅크를 비롯한 중무기들을 영웅적조선인민군부대에 드리는 농근맹원들의 모임 각지에서 진행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나라를 방문한 중국인민친선대표단과 군사정전위원회 중국인민지원군 련락처성원들에게 공화국훈장과 메달을 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재일조선공민들의 조국에로의 자유로운 래왕을 가로막기 위하여 계속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25일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 참가할 각도(직할시)대표들이 혁명의 수도 평양에 도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쌀바도르 알옌데 고쌘스가 칠레공화국 대통령으로 당선된것과 관련하여 그에게 축전을 보내심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스무돐기념 사리원시 군중대회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유엔총회 제25차회의에서 조선에 관한 문제토의에 당사자인 우리 나라 대표를 무조건 초청할데 대한 결의안이 제출된것과 관련하여 유엔에서 조선에 관한 문제가 토의되는 이상

그에 직접적당사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가 응당 참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

2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주재 중국대사가 중국인민친선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과 관련하여 차린 연회에 참석하심.

27일 10월 21일—11월 5일까지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경축 영화상영월간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에서 7개년인민경제계획에 예견된 목재생산계획을 빛나게 수행한 림업부문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축하문을 보냄.

2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모범교육구역칭호를 주시고 이 구역의 모범적인 교육일군들을 표창하심.

2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시 중구역에 모범교육구역칭호를 주시고 이 구역의 모범적인 교육일군들을 표창하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에서 의약품, 의료기구, 생약 생산에서 7개년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수행한 제약 및 의료기구 공업부문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축하문을 보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인도지나인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서 군사정치적패배를 당하고 궁지에 빠지게 된 미제국주의자들이 세계여론을 딴데로 돌리기 위한 기만적소동을 벌리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발표.

3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알제리혁명개시 열여섯돐에 즈음하여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후아리 부메디엔에게 축전을 보내심.

## 11 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에스빠냐공산당 총비서 싼띠아고 까릴요동지, 노르웨이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레이다르 테 라르센동지, 칠레공산당 총비서 루이스 꼬르발란동지들로부터 보내온 축전들에 대하여 각각 답전을 보내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에서 진행된 《미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전세계 기자들의 과업에 대한 국제회의》 한돐에 즈음하여 국제기자동맹 서기국과 여러나라 기자동맹 및 출판일군들로부터 보내온 축전들에 대하여 각각 답전을 보내심.

2일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가 2일부터 13일까지 높은 정치적분위기속에서 진행됨, 대회에서는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고 령도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하심, 대회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을 선거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총비서로 추대함.

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당창건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기네공화국 대통령,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팔레스티나혁명무력 총사령관, 여러 나라 친선협회와 사회단체들로부터 보내온 축전들에 대하여 각각 답전을 보내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유엔총회 제25차회의 정치위원회에서 조선에 관한 문제토의에 우리 나라 대표가 참가하는것을 가로막기 위한 이른바 《조건부초청》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킨것을 규탄하여 성명발표.

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김일성동지의 제의에 의하여 5차당대회에서는 당이 준 과업을 빛나게 수행한 천리마계관근위검덕광산의 당원들과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대회의 이름으로 감사전보문을 보냄.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졸리어스 케이. 니에레레가 탄자니아련합공화국 대통령으로 다시 추대된것과 관련하여 그에게 축전을 보내심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1970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수행한 공장, 기업소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축하전보를 보냄.

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김일성동지의 제의에 의하여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는 당의 군사로선관철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웠으며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며 인민의 생명재산을 굳건히 지키고있는 전체 조선인민군 장병들과 경비대원들, 사회안전원들에게 대회의 이름으로 축전을 보냄 ▶사회주의10월혁명 쉰세돐평양시기념대회 진행.

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대표들과 함께 집단체조 《로동당의 기치따라》를 보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캄보쟈왕국독립 열일곱돐에 즈음하여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통일전선위원장 노로돔 시하누크 친왕에게 축전을 보내심.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대표부 칠레에 개설.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안전성이 우리 나라 령해에 불법침입한 일본선박 《미쯔마루》호와 그 선원들을 돌려보냄과 관련하여 보도를 발표.

1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의 성과를 축하하여 방문하여 온 우리 나라 주재 외교단을 만나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대회대표들과 함께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경축 전국학생소년예술소조 종합공연을 보심.

1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경축 평양시군중대회가 성대히 진행, 이어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경축하는 평양시 30만근로자들의 장엄한 시위가 있었음.

1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안워르 앗 사다트가 아랍사회주의동맹 위원장으로 당선된것과 관련하여 그에게 축전을 보내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에서 창립 스무돐을 맞는 조선인민군 제867군부대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축하문을 보냄.

1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조선민주녀성동맹창립 스물다섯돐기념보고회 평양대극장에서 진행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리원시를 더잘 건설하는 사업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건설자들과 학교들을 표창하시고 선물을 보내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창립스무돐을 맞는 김책정치군관학교 교직원, 학생들에게 축하문을 보냄.

18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에 머무르고있는 탄자니아인민보위군친선대표단과 본국의 소환에 의하여 귀국함에 앞서 작별방문하여온 우리 나라 주재 벌가리아인민공화국대사 니쇼 니꼴로브를 각각 만나심.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에 머무르고있는 적도기네공화국 정부대표단을 만나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파키스탄회교공화국 대통령 에이. 엠. 야히아 한에게 파키스탄의 여러 해안지역과 섬지방들에서 강한 태풍피해를 입은 인민들에게 동

정을 표시하여 전문을 보내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월남민주공화국에 경제 및 군사원조를 무상으로 제공할데 관한 협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월남민주공화국간의 1971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 평양에서 조인 ▶녀맹창립 스물다섯돐기념 전국녀성국방체육대회 진행.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레바논독립 스물일곱돐에 즈음하여 레바논공화국 대통령 술레이만 프란쥐에에게 축전을 보내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867군부대 교직원들을 표창하심 ▶웽그리아사회로동당 제10차대회에 참가할 조선로동당대표단이 떠남.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월남민주공화국 정부대표단을 만나심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경축하여 마련한 《직맹호》 땅크를 비롯한 중무기를 조선인민군부대에 드리는 평양시직맹원들의 모임 진행.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월남민주공화국에 대한 미제폭격만행을 준렬히 규탄하며 미제침략자들의 새로운 범죄행위를 단죄하는 11월 21일 월남민주공화국 외교부가 발표한 성명을 지지하여 성명발표.

2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재령군에 많은 《풍년호》뜨락또르를 보내심, 어버이 수령께서 보내주신 《풍년호》뜨락또르를 전달하는 모임이 현지에서 성대히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싱가포르공화국 대통령 인취 유소브 빈이스 하크가 서거하였다는 슬픈 소식에 접하고 싱가포르공화국 수상 리관유에게 조전을 보내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944군부대 교직원들을 표창하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에서 창립 스무돐을 맞는 조선인민군 제944군부대 전체 교직원, 학생들에게 축하문을 보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직접적인 부추김밑에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이 1970년 11월 22일새벽 기네공화국을 반대하는 로골적인 무력침공을 개시한것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2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시를 더 웅장하고 아름답게 건설하는 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일군들을 표창하시고 선물을 보내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에서 혁명의 수도 평양시 천리마거리와 서성거리 건설에 참가한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축하문을 보냄.

2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의 경제정책관철에서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한 천리마계관근위검덕광산일군들과 공장대학창립 열돐에 즈음하여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공장대학 교직원들을 표창하시고 선물을 보내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부룬디혁명 네돐에 즈음하여 부룬디공화국 대통령 미쉘 미콤베로에게 축전을 보내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특사가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독립 세돐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떠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에서 공장대학창립 열돐을 맞이하여 송림, 평양, 강선, 대안, 기양, 북중, 락원, 구성, 룡남, 청진, 성진, 원산, 남포, 무산, 아오지, 문평, 룡성, 덕천의 공업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축하문을 보냄 ▶전국 공장대학창립 열돐기념중앙보고회진행, 보고회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 채택.

2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로청중앙위원회에 선물을 보내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메흐메트 쉐후가 알바니아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으로 다시 임명된것과 관련하여 그에게, 모리따니회교공화국 독립 열돐에 즈음하여 모리따니공화국 대통령 모크타르 울드 다다흐에게 각각 축전을 보내심 ▶전국영화문학통신원회의 28일까지 진행, 회의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드리는 맹세문을 채택 ▶전국위생방역일군회의 30일까지 진행,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 채택.

2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용건동지와 함께 알바니아해방 스물여섯돐에 즈음하여 알바니아인민공화국 당과 정부 지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독립 세돐에 즈음하여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리사회 위원장 쌀림 루바이아 알리에게 축전을 보내심.

3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조선직업총동맹창립 스물다섯돐기념보고회 진행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생방역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위생방역부문일군들을 표창하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웽그리아사회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로 까다르 야노쉬가 다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그에게 축전을 보내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장 베델 보카싸에게 축전을 보내심 ▶《3.1월간》창간 서른네돐기념 평양시출판보도일군보고회 진행.

## 12 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달에 내린 쏘련의 자행기구 《루노호드—1》호가 달표면의 여러 지역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빛나게 수행한것과 관련하여 쏘련 당 및 정부 지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심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는 남조선을 인간생지옥으로 만들고 남조선로동자들과 인민들을 죽음에로 몰아넣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야수적인 만행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3.4분기계획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공장, 기업소들을 표창하심.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핀란드공화국독립선포 쉰세돐에 즈음하여 핀란드공화국 대통령 우르호 케코넨에게 축전을 보내심.

7일 이딸리아조선문화협회대표단을 환영하는 군중집회가 평양에서 진행.

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에스빠냐공산당 위원장 돌로레스 이바루리의 탄생 일흔다섯돐에 즈음하여 그에게 축전을 보내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상부볼따공화국선포 열두돐에 즈음하여 상부볼따공화국 대통령 상구레 라미자나에게 축전을 보내심.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케니아공화국 대통령 조모 케니아타에게 케니아독립 및 공화국선포일에 즈음하여 축전을 보내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우루과이공산당 제20차대회에 축전을 보냄.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에서는 유엔총회 제25차회의에서 조선민족의 유일한 합법적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의 참가와 동의 없이 미제가 제멋대로 조작해낸 비법적《결의》를 단호히 배격하며 그를

부효로 선언하는 성명발표.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남조선에 불시 착륙한 조선인민군비행사를 강제억류하기 위한 모략책동을 더욱 강화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윁남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윁남민주공화국 정부의 12월 10일부 호소문에서 표명된 립장을 전적으로 지지하여 성명발표.

1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3.1월간상수여위원회에서 출판보도사업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일군들에게 3.1월간상을 수여.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의 부추김밑에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에 대한 파괴모략책동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18일 남부윁남민족해방전선창건 열돐평양시기념회 진행.

1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용건동지가 남부윁남민족해방전선창건 열돐에 즈음하여 남부윁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법률가 원우수에게 축전을 보내심.

2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로동신문》창간 스물다섯돐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로동신문》창간 스물다섯돐을 맞이하는 로동신문사 기자, 편집원들에게 축하문을 보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매해 11월 1일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판절로 제정함에 대한 정령 발표.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포드 사이드 《승리의 날》 열네돐에 즈음하여 아랍련합공화국 대통령 안워르 앗 사다트에게 축전을 보내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건설부문일군들을 표창하심.

2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로동신문사 기자, 편집원들과 인쇄공장 종업원들에게 보내신 표창장과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있었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육도서출판사창립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이 출판사의 모범적인 일군들을 표창하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내각에서 창립 스물다섯돐을 맞는 교육도서출판사 편집일군들에게 축하문을 보냄 ▶교육도서 출판사창립 스물다섯돐기념보고회 진행.

2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이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로 다시 추대되신것과 관련하여 여러 나라 당 및 정부 지도자들로부터 보내온 축전과 축하편지들에 대하여 그들에게 답전을 보내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배길룡동무가 일하는 공장건설공사에서 모범을 보인 일군들을 표창하시고 선물을 보내심 ▶천리마강선제강소 강철전사들 1971년도 인민경제계획을 공화국창립 스물세돐기념일전으로 끝낼것을 결의하고 전국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 사회주의경쟁을 호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남부윁남민족해방전선과 남부윁남공화 림시혁명정부에 구호물자를 보내주기로 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에서 창립 열돐을 맞는 평양외국어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축하문을 보냄.

2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우리 당 제5차대회와 그리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로 추대되신것과 관련하여 여러 나라 당들과 혁명조직들로부터 보내온 축전 또는 축하편지들에 대하여 답전을 보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범죄적책동을 더욱 미친듯이 다그치고 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직총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26일까지 진행 ▶천리마안주탄광의 붉은 탄부들 1971년도 인민경제계획을 공화국창건 스물세돐기념일전으로 끝낼것을 결의하고 전국의 석탄공업부문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사회주의경쟁을 호소.

2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대형선박건조에서 모범을 보인 청진조선소일군들을 표창하시고 선물을 보내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우루과이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로드네이 아리스멘디에게 우루과이공산당 제20차대회에서 그가 제1비서로 재선됨과 관련하여 축전을 보내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고등교육도서출판사창립 열돐에 즈음하여 이 출판사일군을, 순천수의축산대학창립 열다섯돐에 즈음하여 이 대학 교원을 각각 표창하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내각은 창립열돐을 맞는 고등교육도서출판사 편집일군들에게, 해주농업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창립열다섯돐을 맞는 순천수의축산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각각 축하문을 보냄 ▶고등교육도서출판사 창립 열돐기념보고회, 해주농업대학창립 열돐기념보고회, 순천수의축산대학창립 열다섯돐기념보고회가 현지에서 각각 진행됨.

2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의 요새화방침관철에서 용감성과 헌신성을 발휘한 조선인민경비대 구분대들과 군인들 및 종업원들을 표창하시고 선물을 보내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에서 겨울철 물고기잡이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한 수산부문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수산협동조합원들에게 축하문을 보냄 ▶천리마룡성기계공장 기계전사들 직맹열성자회의를 열고 1971년도 인민경제계획을 공화국창건 스물세돐기념일전으로 끝낼것을 결의하고 제1기계공업성산하 공장, 기업소들에 사회주의경쟁을 호소.

2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원산경제대학창립 열돐에 즈음하여 이 대학의 모범적인 교원을 표창하심 ▶원산경제대학창립 열돐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에서 창립 열돐을 맞는 원산경제대학에 축하문을 보냄 ▶천리마대안전기공장의 기계전사들 직맹열성자회의를 열고 1971년도 인민경제계획을 공화국창건 스물세돐기념일전으로 끝낼것을 결의하고 전국전기기계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에 사회주의경쟁을 호소.

2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대극장개관 열돐을 맞이하여 이 극장 일군들을 표창하심.

2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경축하는 집단체조 《로동당의 기치따라》를 창작하고 출연한 학교와 교원, 학생들, 창작성원들을 표창하시고 선물을 보내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의 건설정책집행에서 창의창발성과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한 일군들을 표창하심.

3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육사업의 물질적토대를 꾸리는데서 모범을 보인 공장대학들을 표창하시고 선물을 보내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수단독립 열다섯돐과 1971년 새해를 맞이하여 수단민주주의공화국 혁명지도리사회 위원장 겸 수상 자파르 모하메드 니메리소장에게 축전을 보내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까메룬독립 열한돐과 1971년 새해를 맞이하여 까메룬련방공화국 대통령 엘하지 아흐마드 아히죠에게 축전을 보내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용건동지와 함께 꾸바혁명승리 열두돐과 1971년 새해를 맞이하여 꾸바 당 및 정부 지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심 ▶꾸바혁명승리 열두돐평양시기념회 평양대극장에서 진행.

# 남조선인민투쟁주요일지

(1970년 1월—12월)

## 1 월

5일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미학과 학생들이 미학과를 비롯한 일부학과를 강압적으로 폐지하려는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책동을 규탄하는 성토대회를 가지고 일부학과폐지조치를 즉시 걷어치울것을 강력히 요구.

8일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내 농민들이 박정희괴뢰도당의 어용수탈기구인 괴뢰《농업조합》에 집단적으로 몰려가 농민들에게서 빼앗아간 남새값 20여만원의 피해보상금을 당장 내놓을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투쟁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내 200여명의 농민들이 략탈만행을 일삼고있는 괴뢰《농업조합》의 죄행을 치솟는 분노로써 규탄하면서 시위투쟁을 벌림.

13일 경상남도 고성군일대에 벌려놓은 군용도로공사장에서 고역을 치른 100여명의 로동자들이 석달동안이나 임금을 주지않고있는 괴뢰도당의 파렴치한 행위를 규탄하고 밀린임금을 당장 내놓으라고 요구하여 투쟁.

15일 경상남도 마산시내의 400여명의 리발소 종업원들이 임금의 40%인상을 요구하여 쟁의.

18일 서울시내의 애국적주민들이 시내 성동구 화양동과 문정동의 두곳에서 적들의 통신선을 끊어 이 지역일대의 전화통화를 마비시켜 적들을 혼란에 빠뜨림.

19일 경상북도 금릉군 감문면 곡성지구의 800여명의 농민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이 전쟁준비를 위한 토목공사를 벌려놓고 농민들의 농토를 마구 파헤치는 범죄행위에 격분하여 공사현장에 몰려가 치렬한 항의투쟁을 벌려 공사놀음을 파탄시킴.

20일 경상북도 왜관일대의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된 남조선로동자들이 새 전쟁준비를 다그치면서 로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박해를 일삼는 미제원쑤놈들의 범죄행위를 격분에 넘쳐 규탄하면서 민족적박해행위를 당장 걷어치울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투쟁.

23일 남조선의 문경지역 3개 광업소 광부 600여명이 현재 임금의 50%를 더 올릴것을 요구하여 투쟁,

26일 울산지구의 군용도로 공사장에 끌려가 갖은 고역을 당한 150여명의 로동자들이 괴뢰울산시청에 몰려가 밀린임금 1천 500만원을 당장 지불할것을 요구하여 롱성투쟁.

27일 서울시 영등포구 염창동에 있는 미제독점자본가놈이 경영하는 회사에 고용된 조선인로동자 400여명이 온갖 멸시와 박해를 가하는 비암스라는 미제독점자본가의 사환군놈의 범죄행위를 폭로규탄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6명의 로동자를 당장 되돌아오게 할것등 요구조건을 내걸고 롱성투쟁.

31일 대구의 《내외방적주식회사》로동자들 1천여명이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파업투쟁을 벌리던 끝에 악질기업주놈을 굴복시키고 요구조건을 관철.

## 2 월

3일 쌍룡세멘트 려수공장 부두하역로동자 200여명이 악질기업주놈에게 밀린임금을 당장 지불할것을 요구하여 롱성투쟁.

5일 충무시 《보건소》건설장과 통영광업소에서 고역에 시달려온 로동자 200여명이 밀린임금을 당장 내놓을것을 요구하여 롱성투쟁.

16일 서울시내 애국적주민들이 서울시 종로구 중학동에 있는 남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의 아성인 《일본대사관》정문에 걸려있던 저주로운 간판을 떼여버림.

18일 부산시내 1천여명의 가정부인들이 《부정식료품》을 팔아먹는 악질모리배놈들의 범죄행위에 격분하여 대중적시위투쟁을 벌림 ▶남조선부두로동자 2만 1천 500여명이 까닭없이 로동자들을 해고하려는 기업주놈의 책동을 반대하여 실업보상금지불과 실업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하여 투쟁, 요구조건을 관철.

22일 전라북도의 전주담배공장 로동자 200여명이 박정희괴뢰도당과 악질기업주놈의 가혹한 착취행위를 반대하여 투쟁.

23일 남조선의 12개지역의 2만 2천여명의 부두로동자들이 박정희괴뢰도당의 대량해고책동을 반대하여 싸움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규탄대회와 롱성, 시위투쟁을 벌림.

24일 강원도 춘성군 신동면 의암리와 춘천시 퇴계동, 봉의동 등 22개 마을의 150여명의 농민들이 《한국전력본사》에 집단적으로 몰려가 1969년 장마때 의암댐의 물이 넘쳐흘러 피해를 입은 22만평의 논, 밭과 농가 20여채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여 롱성투쟁을 벌림.

28일 남조선 《석탄공사》산하의 1만 3천여명의 로동자들이 임금의 40%인상을 요구하여 쟁의.

## 3 월

3일 경상북도 대구시내 애국적주민들이 괴뢰경찰경비전화선을 500여메터나 끊어버림, 적들의 통신기능이 마비되여 대혼란에 빠짐 ▶경상북도내 간호원 및 견습생 1천여명은 이른바《의료법위반》이란 구실로 괴뢰경찰에 체포구금된 동료간호원의 무죄석방과 간호행위의 법적보장을 요구하여 파업 ▶남조선전역의 병원 간호원 6천여명이 련대성을 표시하여 동료간호원의 무죄석방과 간호행위의 법적보장을 요구하여 투쟁에 일떠섬.

6일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인 강제철거책동을 반대하여 부산시내의 300여명의 주민들이 괴뢰시청에 몰려가 항의시위투쟁을 벌림.

10일 부산시 동래구 거제동내 400여명의 농민들이 범죄적군사시설물 공사를 벌려놓고 자기들의 농토를 강제로 빼앗으려는 박정희괴뢰도당의 날강도행위를 반대항의하여 롱성투쟁을 벌림.

12일 경상남도 마산시내의 금속회사 로동자들 500여명이 아무 까닭없이 해고한 로동자와 다른곳으로 보낸 7명의 로동자를 당장 되돌아오게 할것과 《로조》결성과 그 활동의 자유를 보장할것을 악질기업주놈에게 요구하여 파업을 단행.

20일 남조선의 화순지구광산로동자 1천여명이 임금의 40% 인상을 요구하여 파업.

24일 경상남도 남해안일대의 2천여명의 어민들이 발광적인 군사훈련을 벌려놓고 어민들의 어로활동을 막는 원쑤놈들의 파쑈적탄압책동을 반대하여 어로활동의 자유를 요구하여 견결히 투쟁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과 법과대학 학생 200여명이 각각 성토대회를 가지고 《6.8부정선거》와 《3선개헌》책동 그리고 일부학과 폐쇄조치등을 반대하여 투쟁하다가 부당하게

퇴학당한 학생들의 복교를 요구하여 투쟁할것을 결의한다음 프랑카드를 들고 시위투쟁을 벌림.

28일 경상남도 진주시내의 500여명의 가난한 상인들이 괴뢰도당의 략탈책동에 항거하여 일제히 가게문을 닫아버리고 이곳 중앙시장에 모여 성토대회를 가지고 자기들에게 터무니없는 돈을 들씌워 강탈하려는 괴뢰도당의 날강도적략탈책동을 신랄히 규탄하면서 이러한 범죄적책동을 당장 걷어치울것을 요구하여 투쟁할 결의를 다짐.

## 4 월

2일 경상북도 포항에 있는 《한일려객 자동차주식회사》뻐스운전수들과 차장들이 석달동안의 밀린임금을 당장 내놓을것을 요구하여 파업 ▶서울대학교의 문리과대학과 법과대학 학생들 600여명이 학원에 대한 박정희악당의 폭압책동을 반대하며 학원의 민주화를 요구하여 일제히 동맹휴학에 들어감.

8일 경상북도 달성군 구지중학교 학생 700여명이 학교《재단리사회》리사놈들의 모리행위와 량심적인 교원들을 파면시킨행위를 반대하여 이미 3월 12일부터 동맹휴학을 단행하고 이날 프랑카드를 들고 거리에 나와 《썩은 재단은 물러가라》고 웨치며 시위투쟁을 벌림, 이들의 시위를 탄압하려고 달려온 괴뢰경찰놈들과 맞서 장시간에 걸쳐 투석전을 벌림.

10일 남조선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에 사는 오아무개청년은 미제와 그 주구들이 이 시내 한복판에 있는 괴뢰원성군청앞 길거리에 벌려놓은 이른바 《승공대회문예작품전시장》에서 강제로 끌려나온 군중들을 향하여 《김일성원수님은 위대한 분이시다》, 《나는 조선로동당이 좋다》라고 소리 높이 웨침.

11일 경기도 화성군 오산읍 오산리 애국적청년들이 미제와 박정희괴뢰악당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격분을 참지 못하여 파쑈폭압에 날뛰는 괴뢰경찰놈에게 집단적인 징벌을 가하고 괴뢰경찰《지서》의 기물들을 모조리 까부심.

15일 서울시 영등포구 구로2동에 사는 2천여명의 주민들이 자기들이 피땀으로 가꾼 땅을 빼앗아 모리배놈들에게 넘겨주려는 강도적략탈행위에 항거하여 《땀흘려 이룩한 땅을 모리배가 좀먹는다》등의 내용으로 된 프랑카드를 들고 가두시위를 벌림.

18일 4.19기념 열돐을 맞아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와 남조선의 각대학교들에서 학생회주최로 기념식과 위령제, 강연회등을 가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도 학교단위로 기념식을 갖고 10년전의 학생선배들이 흘린 피를 헛되이 하지않기 위한 투지를 다짐.

22일 충청남도 대전의 한 애국적주민이 괴뢰대전경찰서 은행동파출소의 무기고에서 적들의 카빈총 1정을 대담하게 탈취함.

24일 경기도 인천시 화수동내 령세상인들이 자기들이 빌려쓰고있는 대지세를 150%나 인상한 악질지주놈의 처사에 격분하여 그놈이 경영하는 회사에 몰려가 대지세인상을 즉시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시위투쟁을 벌림.

27일 경기도내의 한 집단의 주민들이 인천시 간석동에서 박정희괴뢰도당의 《경찰경비전화선》 1천여메터를 몽땅 끊어버림 ▶경상남도 울산시내 농민들이 괴뢰시청에 몰려가 농작물을 못쓰게 만든 괴뢰도당의 죄행을 규탄하면서 30여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불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투쟁.

28일 서울시 중구 동자동 300여명의 주민들이 15년간 가꾸어온 땅을 괴뢰도당이 놈들과 내통하는 모리배놈들에게 팔아먹는데 격분하여 괴뢰동사무소에 몰려가 롱성투쟁을 벌림.

29일 서울시 동대문구 룡두2동 주민 4천 700여명이 괴뢰도당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딴곳으로 강제 이주시키려는 책동을 반대하여 골목마다 바리케트를 쌓고 대못을 박은 몽둥이와 식도, 쇠스랑, 돌을 들고 괴뢰경찰기동대와 강제철거에 내몰린 괴뢰졸개놈들과 맞서 완강히 싸움, 괴뢰경찰놈 800여명이 최루탄을 마구 쏘대며 탄압에 미쳐 날뜀, 주민들은 괴뢰경찰놈들에게 돌벼락을 안겨 32명을 까눕힘.

## 5 월

2일 서울의 경일중고등학교 학생 3천여명이 괴뢰도당의 죄악적인 폐교조치를 반대하여 일제히 수업을 거부하고 《폐교결사반대》라는 글발이 쓰인 머리수건을 두르고 교실마다에 책상과 걸상으로 바리케트를 쌓고 단식롱성투쟁을 벌림.

5일 전라북도 완주군내 200여명의 농민들이 전쟁준비에 미쳐날뛰는 괴뢰도당의 농토파괴책동을 반대하여 놈들의 공사현장에 몰려가 돌벼락을 들씌우며 완강한 투쟁을 벌림.

7일 강원도 강릉에 있는 관동대학 학생들이 미제의 간첩인 라이완이란놈이 《교육자》의 탈을 쓰고 이 대학의 《학장》 및 《재단리사장》 자리에 들어앉아 대학을 추악한 숭미반공사상의 설교장소로 만들며 학생들을 온순한 식민지노예로 만들려고 책동하고 있는것을 반대하며 《학장》놈이 물러갈것을 요구하여 동맹휴학을 단행.

8일 부산지구 철도로동자들이 《로조》내에 기여든 괴뢰앞잡이들이 즉시 물러갈것을 요구하는 프랑카드를 들고 《로조》사무실에 몰려가 버티기투쟁을 벌림 ▶경상북도 대구 연초제조창 녀성로동자 300여명과 남자로동자들이 임금을 올릴것을 요구하여 시위투쟁을 벌림.

13일 경기도 포천군 창수면에서 애국적인민들의 한 집단이 이곳 광산의 화약창고에서 40여개의 폭약과 36개의 뢰관 및 20여메터의 도화선을 빼앗아냄 ▶괴뢰철도청 서울객화차사무소에 고용되여 차량의 정비와 청소작업을 하고있는 500여명의 로동자들이 임금인상과 생활개선을 요구하여 일제히 작업을 거부하고 앉아버티기투쟁을 벌림.

15일 서울시내 오산중고등학교 학생 1천여명이 괴뢰도당의 비호밑에 《교장》자리에 들어앉아 량심적인 교원들을 박해하고 탄압하는 악질 교장놈의 행위를 반대하여 일제히 수업을 거부하고 《교장》놈이 학교에서 당장 물러갈것을 요구하여 앉아버티기 투쟁을 벌림.

16일 남해군 서면, 서호, 대정, 남정리 등 6개부락 300여명의 주민들이 서호리 괴뢰동사무소에 몰려가 수해로 막심한 피해를 입은 제방을 빨리 보수하라고 요구하여 롱성투쟁을 벌림.

19일 동국대학교 학생 800여명이 대학강당에 모여 성토대회를 가지고 대학의 《전리사장》이 강원도 철원군에 농장을 만든다는 구실로 7천여만원의 대학재산을 류용한것 등 10개항목의 학교재단의 부정행위를 폭로규탄하고 리사진의 총사퇴를 요구하여 완강히 투쟁.

20일 파주의 200여명 주민들은 미제침략군 제2사단 소속 미군야수놈들이 까닭없이 주민들을 함부로 구타하는것을 목격하자 사방에서 몰려나와 놈들에게 돌벼락을 안기면서 달아나는 놈들을 추격하여 징벌을 가함.

22일 경상북도 선산군 선산면내 농민 200여명이 박정희괴뢰도당의 농토파괴책동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프랑카드를 들고 괴뢰군청에 집단적으로 몰려가 시위투쟁을 벌림 ▶ 경상남도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식료품회사의 300여명의 로동자들이 임금인상과 《로조》활동의 자유를 보장할것을 요구하여 파업투쟁을 벌림.

27일 남조선 전역의 3만 3천여명의 철도 로동자들이 임금의 80% 인상과 철도종업원의 신분보장을 요구하여 일제히 쟁의에 들어감 ▶충청남도 천안지방의 애국적주민들의 한 집단이 천안시 오룡동 뒤산을 건너간 적들의 통신선 1천여메터를 끊어버림.

29일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에 사는 청년들 약 30명이 괴뢰군살이를 반대하여 병영을 뛰쳐나온 자기들의 동료 김아무개병사를 체포해간 괴뢰군 헌병놈을 집단적으로 때려눕히고 동료를 구출하는 투쟁을 벌림.

30일 경기도 수원시 련무동내 60여명의 주민들이 자기들의 집을 강제로 헐어치우려는 범죄적책동을 반대하여 괴뢰시청에 집단적으로 몰려가 외세항의롱성투쟁을 벌림.

## 6 월

1일 서울시내 광운공과대학 학생 700여명이 학교운동장에서 모임을 가지고 괴뢰도당과 한짝이 되여 학생들에 대한 략탈을 일삼고 있는 학원모리배를 학교에서 내쫓을것 등 다섯개 항목의 요구조건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한 다음 시위를 벌림.

2일 전라남도 라주지구의 애국적주민들이 괴뢰도당의 《경비전화선》을 750메터나 끊어버려 원쑤놈들을 공포와 혼란 속에 몰아넣음.

4일 부산시 구덕골지역의 300여명 가난한 주민들이 집을 강제로 철거하려는 괴뢰악당들의 책동에 항거하여 괴뢰시청에 몰려가 롱성투쟁을 벌림 ▶부산시내 애국적청년들이 시내 큰거리와 시장앞 등 4개소에 자동차를 타고 달리면서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행위와 파쑈폭압책동을 규탄하는 삐라를 수많이 뿌림.

6일 전라북도 정읍군내 애국적청년들의 한 집단이 군수물자를 가득실은 미제의 군용렬차를 토월과 천원사이의 통난천철교우에서 전복파괴함.

17일 경기도 인천시 간석동 일대의 주민들이 괴뢰시청에 몰려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인 강제철거책동을 반대하여 투쟁을 벌림.

18일 남조선의 《대서양어업회사》에 소속된 《제5 파이어니》호의 어업로동자들이 아무러한 로동안전시설도 없는 배에서 장시간의 노예로동을 강요하는 악질기업주놈의 횡포에 항거하여 배안의 시설물과 기물들을 모조리 까부시고 선장놈에게 뭇매를 안김, 이들의 투쟁에 합세하여 이 회사에 고용되여 혹사당해 온 한해사를 비롯한 선원들도 완강히 투쟁을 벌림.

23일 남조선 실업고등전문학교 교원들이 임금 50%인상을 요구하여 투쟁.

## 7 월

4일 남부윁남의 비엔호아와 롱번사이의 군용도로공사장에 끌려가 고역을 당하고도 기아임금마저 제대로 받지못한 90여명의 남조선로동자들이 3개월분의 밀린 임금을 즉시 지불할것을 요구하여 파업.

6일 남조선의 《아주토건회사》의 300여명의 로동자들이 악질기업주놈이 혹독하게 부려먹기만하고 보잘것 없는 임금마저 주지않고있는데 격분하여 밀린임금의 즉시 지불을 요구하여 롱성투쟁을 벌림.

7일 남조선의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이 대전행 군용렬차를 오정역에서 탈선전복시켜 경부선의 수송을 3시간동안 지연시킴, 그들은 또한 원동역과 물금역사이, 덕양역과 미평역사이 등 여러지역에서 차길물을 차단하고 놈들의 군용렬차를 전복시킴.

10일 서울시 성동구 룡납동 주민 400여명이 집을 강제로 헐어버리려고 덤벼든 괴뢰 졸개놈들에게 오물을 끼얹고 몽둥이로 때려 중상을 입힘, 탄압에 미쳐 날뛰는 괴뢰경찰 300여명과 맞서 치렬한 싸움을 벌림 ▶서울시 영등포구 신림동 주민 300여명이 자기들의 집을 강다짐으로 헐어버리려고 달려든 괴뢰졸개놈들을 돌과 몽둥이로 까눕힘.

13일 서울의 《화일산업주식회사》의 400여명의 로동자들이 괴뢰도당의 비호밑에 반년이 넘도록 임금을 주지않고 월만시키는 악질기업주놈의 파렴치한 행위를 규탄하면서 대중적인 시위투쟁을 벌림, 로동자들의 시위투쟁을 탄압하려고 달려드는 괴뢰경찰들과 맞서 치렬한 싸움을 벌림.

18일 경상남도 사천군 사천만일대 주민 300여명이 괴뢰도당이 벌린 토목공사로 300여동의 집과 420여정보의 농토가 물에 침수된데 격분하여 괴뢰도당의 《남강댐사무소》에 몰려가 사무실을 점령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하여 롱성투쟁을 벌림.

20일 서울시 성동구에 있는 《성남교통회사》의 300여명의 종업원들이 회사에 몰려가 자기들의 피땀을 짜내기에만 피눈이 되여 날뛰면서 인권을 함부로 유린하는 악질기업주놈의 행위를 폭로규탄하고 이러한 행위를 당장 걷어치울것과 생활조건을 개선할것 등을 요구하여 일제히 파업.

21일 장마로 수십만평의 논과 집을 침수당한 경상북도 대구시 동구 방촌동 주민 200여명이 괴뢰시청에 몰려가 하수구 설치와 도로포장 등을 요구하여 시위투쟁을 벌림.

24일 남조선의 청주고등학교 학생 1천 300여명이 학원의 자유를 짓밟는 괴뢰도당과 그 졸개놈들의 범죄행위를 폭로하면서 프랑카드를 들고 괴뢰시청에 몰려가 롱성투쟁을 벌림.

27일 남조선강원도 삼척지방에서 사는 한 애국적녀성이 마을사람들앞에서 공화국북반부의 찬란한 현실을 소개선전하면서 《하루빨리 남북통일을 성취하여 다같이 김일성수상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자기의 절절한 념원을 피력하여 군중을 감동케함 ▶서울시 성북구의 애국적주민들의 한 집단이 괴뢰종암파출소를 습격하고 권총을 빼앗아 감 ▶경상남도 창원군 창원읍을 비롯한 4개면내 100여명의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괴뢰면사무소에 몰려가 놈들의 파렴치한 략탈행위를 준렬히 항의 규탄하면서 빼앗아간 보리값을 당장 내놓을것을 요구하여 롱성투쟁을 벌림.

28일 충청남도 대덕군 기성면 원정리 주민 100여명이 악질기업주놈이 벌리는 토목공사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데 격분하여 토목공사를 당장 걷어치울것을 요구하여 롱성투쟁을 벌림.

29일 남조선전역의 부두 및 운수 부문로동자 3만 5천여명이 《생활조건확보협의회》를 뭇고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일제히 실력투쟁을 전개할것을 결의하고 투쟁.

## 8 월

4일 충청남도 대덕군 회덕면 내회리 농민 200여명이 토지 《매수》란 명목으로 농민들의 토지를 강다짐으로 빼앗고도 거기에 세금까지 물여 빼앗으려는 괴뢰도당의 날강도행위를 반대하여 롱성투쟁을 벌림.

5일 쌍룡세멘트공장의 짐을 싣고 부리는 로동자들이 임금 130~220%올릴것을 요구하여 기업주놈을 상대로 파업투쟁을 벌림.

8일 경기도 동두천내의 자동차운전수들이 미제침략군의 한 기관에 몰려가 미제승냥이놈들이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등 용서못할 민족적모욕행위를 감행하고 있는데 격분하여 피를 흘리면서 곤함없이 육박전으로 놈들을 족쳐버림.

9일 배수시설이 갖추어져있지 않아 농사를 망친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

안성, 평항, 동전리내 농민 100여명이 괴뢰군청에 몰려가 배수시설을 갖추라고 요구하여 롱성투쟁을 벌림.

12일 남조선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병내리에 사는 김조대라는 농민이 길을 거닐면서 수령님에 대한 경모의 정에 넘쳐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온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힘차게 부름 ▶서울시 영등포구내 200여명의 주민들이 괴뢰시청에 몰려가 《여러달이 지나도록 먹는 물 한방울도 보내지 않는 원인이 무엇이냐》, 《수도물을 당장 보내라》고 웨치면서 버티기 투쟁을 벌림.

13일 경상남도 창녕군내 굶주림에 시달린 2만여명의 주민들이 괴뢰군청에 몰려가 《쌀을 내라》고 요구하여 투쟁.

14일 충청남도 대전시 홍도동 주민 300여명이 괴뢰도당이 만들어놓은 유류탱크로 화재피해를 입은데 격분하여 괴뢰동사무소에 몰려가 당장 그것을 치워버리라고 시위투쟁을 벌림, 이를 탄압하여 나선 괴뢰경찰놈들과 맞서 치렬한 싸움을 벌림.

22일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식광모방직회사》로동자 150여명이 밀린 임금의 지불을 요구하여 일체 작업을 거부하고 버티기투쟁을 벌림.

23일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내 100여명의 농민들이 괴뢰도당이 전쟁준비를 위한 토목공사를 벌려놓고 자기들의 농토를 빼앗아간 놈들의 악랄한 처사에 항의하여 범죄적토목공사놀음을 당장 걷어치울것을 요구하여 강력히 투쟁.

27일 경기도 부평지구의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된 로동자 300여명이 모임을 열고 민족적멸시와 생활권을 빼앗으려는 원쑤놈들의 악랄한 행위를 치솟는 격분으로 단죄규탄하고 파업투쟁을 벌림 ▶경상북도 례천군 지보면 암천리 50여명의 가난한 주민들이 일을 시키고도 품삯을 주지 않는데 격분하여 《고려개발주식회사사풍천 출장소》에 몰려가 품삯을 내놓으라고 롱성투쟁을 벌림.

29일 서울시 룡산구 이촌동 주민 400여명이 강제로 집을 헐려고 달려든 괴뢰구청졸개놈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림 ▶ 경기도 양주군 와부면내 200여명의 농민들이 괴뢰도당이 벌린 토목공사로 피해입은 농토와 가옥보상금을 요구하여 롱성투쟁을 벌림.

## 9 월

1일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지구의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된 800여명의 로동자들이 성토대회를 열고 조선인 로동자들에게 온갖 민족적멸시와 박해를 일삼으면서 혹독한 착취행위를 감행하고있는 원쑤들의 악랄한 행위를 격분에 넘쳐 단죄규탄하고 이러한 죄행을 당장 걷어치울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투쟁.

2일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내 농민 1만 5천여명이 악양천제방을 보수하지 않아 해마다 물난리로 피해를 보고있다고 하면서 시급히 보수할것을 괴뢰도당에 강력히 요구하여 투쟁 ▶경기도 양주군에 있는 《동한화학주식회사》주변에 사는 주민 150여명이 회사에서 유독가스가 흘러나와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데 항거하여 시위투쟁을 벌림.

3일 서울시 동대문구 창신동 주민 600여명이 집을 강제로 헐어버리려고 덤벼드는 괴뢰졸개들에 몽둥이벼락을 안김 ▶《서울대학교부속병원》의사, 준의 등 100여명의 의료일군들이 임금을 올릴것과 대우개선을 요구하여 파업투쟁을 벌림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배창방기공업주식회사》로동자 500여명이 4개월째 기아임금마저 한푼도 주지않는 기업주놈의 처사를 규탄하고 밀린임금을 즉시 내라고 요구하여 투쟁.

7일 남조선 강원도 삼척군 삼척읍 주민 3천 500여명이 괴뢰동양세멘트주식회사•삼척공장에서 새나오는 먼지와 연기 등으로 입은 인명피해와 농작물, 가축피해보상금을 요구하여 롱성투쟁을 벌림 ▶충청남도 천원군 풍세면에 있는 미주《국민학교》학부형대표 50여명이 가난한 학생들의 배움의 길을 빼앗으려고 조작한 반동적인《중학교무시험제》를 반대하여 괴뢰 도 교육위원회에 몰려가 사무실을 점거하고 《중학교무시험제를 페지하라》고 웨치면서 버티기투쟁을 벌림.

8일 서울시 룡산구 주민 100여명이 마을앞을 지나가던 대학생들이 여섯놈의 미제침략군 사병놈들로부터 까닭없이 뭇매를 맞는것을 보자 이에 격분하여 미군야수놈들에게 몽둥이벼락을 안김.

14일 서울시 영등포구 로량진동에 있는 《삼한 산업사》의 로동자 200여명이 몽둥이를 들고 공사현장사무실로 몰려가 밀린임금을 당장 내놓으라고 웨치면서 유리창과 기물들을 모조리 까부심.

19일 전라남도 령암군내 농민 100여명이 논에 병충해가 번지가는 데도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고있는 데 격분하여 괴뢰도당에 농약을 공급하라고 요구하여 롱성투쟁을 벌림.

21일 충청북도 영동, 황간, 괴산, 음성, 청성 등지의 900여명의 잎담배경작자들이 괴뢰도당이 눅은값으로 잎담배를 빼앗으려는데 항거하여 잎담배강제《매상》을 단호히 거부 ▶강원도 춘성군 동면 상길리 300여명의 주민들이 소양강 뗌으로 입은 피해보상금을 요구하여 시위투쟁, 탄압에 미쳐날뛰는 괴뢰경찰과 맞서 완강히 투쟁.

24일 충청남도 론산군 강경읍에서 사는 김아무개로인이 마을사람들앞에서 《민족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수상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싸워나간다면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할수있다》고 소리높이 웨침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과 전농동 주민 500여명이 괴뢰구청에 몰려가 괴뢰도당의 강제철거책동을 반대하여 롱성투쟁을 벌림.

25일 《중앙국립의료원》에서 혹사당하고있는 간호원 180여명이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요구하여 롱성투쟁을 벌림.

28일 서울시 동대문구 창신동에서 살다가 놈들에 의해 아무런 대책없이 강제철거되여 한지에서 지내는 주민 200여명이 괴뢰시청에 몰려가 월동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하여 롱성투쟁을 벌림.

30일 경상북도 영일군 기계면의 2천여명의 주민들은 괴뢰도당이 전쟁준비를 위한 토목공사를 벌려놓고 농토를 못쓰게 만든데 항의하여 이를 걷어치울것을 박정희괴뢰도당에게 요구하여 투쟁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구파발리 주민 100여명이 이곳 주민들의 집을 강다짐으로 헐어버리려고 달려드는 괴뢰군청졸개놈들에게 몽둥이벼락을 안김.

## 10 월

3일 경상남도 진해시 안곡동 100여명의 농민들은 자기들이 경작하던 농토를 빼앗아 괴뢰군이 군용지로 만들고 담장을 쌓는것을 반대하여 롱성투쟁을 벌림.

7일 경기도 의정부의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된 남조선로동자 200여명이 원쑤놈들의 민족적멸시와 인권유린행위에 항거하여 롱성시위투쟁을 벌림.

9일 서울시 룡산구 한강로2가에 있는 《룡산시장》의 령세상인들 500여명이 박정희괴뢰도당의 가혹한 략탈행위를 반대하여 악질괴뢰관리놈을 몽둥이로 때려눕힘 ▶충청남도 론산 련무읍대의 농민 80여명은 괴뢰도당이 벌려놓은 군용도로공사로 농작물이 막대하게 피해를 입은데 대해 피해보상금을 요구하여 롱성투쟁을 벌림 ▶서울

시 룡산구 룡산시장 령세상인들 500여명이 괴뢰시청에서 《영업행위정상화》란 구실로 시장을 철거하려고 달려든 깡패놈들을 갈구리와 몽둥이로 때려눕히고 롱성투쟁을 벌림.

10일 경상남도 통영군내 도서주민 5만여명이 의사를 배치하라고 괴뢰군청에 요구하여 투쟁.

12일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동 주민 300여명이 강제로 집을 헐어버리려는 책동을 반대하며 정착지로 땅을 줄것을 요구하여 괴뢰서울시청에 몰려가 롱성투쟁을 벌림.

19일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운천리 주민 500여명이 마을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미제침략군야수놈을 처벌하고 피해보상을 하라고 괴뢰도당에 요구하여 투쟁 ▶충청남도 논산군 양촌면 주민 300여명이 괴뢰도당이 벌리고있는 군용도로공사로 논에 물을 댈수없게 만든데 항의하며 공사를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여 롱성투쟁을 벌림.

20일 강원도 춘성군 동면 월곡리 300여세대 주민들이 겨울을 앞두고 군용도로건설을 구실로 강제철거하려는 책동을 반대하여 괴뢰도당에 항의하여 투쟁.

21일 서울시내의 뻐스회사로동자들이 련합하여 임금 50%인상과 로동시간의 단축, 기숙사시설의 완비, 후생시설을 갖출것 등을 요구하여 투쟁.

22일 경상남도 하동군내 2천여세대의 농민들이 섬진강물이 넘쳐 농사를 망치고있다고 규탄하고 시급히 보수하라고 요구하여 투쟁을 벌림.

23일 서울시내에 있는 피복공장 로동자 1만여명이 먼지와 소음속에서 장시간의 노예로동을 강요당하고있는데 반대하며 로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투쟁 ▶경기도 인천부두로동자 1만 6천여명이 악질기업주놈을 상대로 임금을 39% 더 올릴것을 요구하여 파업.

27일 서울시 서대문구 응암지구 주민 100여명이 괴뢰도당이 주민들을 한지에 내쫓고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은데 격분하여 빨리 대책을 세우라고 괴뢰당국에 요구하여 롱성투쟁을 벌림.

31일 서울시내 뻐스운전수 100여명이 괴뢰도당의 악랄한 착취행위를 반대하며 임금인상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일체 운행을 거부하고 차고에서 롱성투쟁을 벌림.

## 11 월

2일 서울시 동대문구 숭인동내 1만 2천여명의 주민들이 괴뢰들의 주택강제철거책동을 반대하여 《추운한데에 주민들을 내쫓으려는 원쑤들의 책동을 짓부셔버리자!》고 웨치면서 롱성투쟁을 벌림 ▶경기도 광주군 남종면내 주민 150여명이 괴뢰도당이 벌린 토목공사로 농작물과 집이 피해를 입은데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하여 괴뢰《한국전력》에 몰려가 시위투쟁을 벌림.

3일 충청남도 대덕군내 450여세대의 농민들이 괴뢰도당이 고속도로 공사를 벌려놓고 농민들의 땅을 빼앗고도 땅값을 주지않는데 격분하여 땅값을 내라고 요구하여 롱성투쟁을 벌림 ▶경상남도 진주시내 《대성라사》등 여러 양복점 로동자 200여명이 임금의 30% 인상을 요구하여 파업 ▶서울시내 5개 종합대학 학생들이 광주학생운동 마흔한돐을 맞이하여 외래침략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할것을 호소하는 《우리의 웨침》이라는 공동선언문을 발표.

6일 서울시 영등포구 사당동내의 3천여명의 주민들이 자기들의 집을 강제로 헐어버리려고 덤벼드는 괴뢰경찰놈들에게 돌벼락을 안김.

10일 경상남도내의 밀양, 거창, 진주 등지에 있는 제사공장 로동자 1천여명이 임금을 올릴것을 요구하여 롱성투쟁을 벌림.

13일 서울시 중구 청계천 5가에 있는 피복공장 2천 700여명의 로동자들이 《임금을 인상하라》, 《로동조건을 개선하라》고 웨치면서 을지로 6가쪽으로 힘찬 시위투쟁, 탄압해 나선 괴뢰경찰놈들과 맞서 치렬한 투쟁을 벌림.

17일 경상북도 월성군 서면 대곡리 농민 100여명이 괴뢰도당이 벌려놓은 공사로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데 격분하여 이곳 면《농지개량조합》사무실에 몰려가 공사를 걷어치울것을 요구하여 롱성시위투쟁을 벌림.

20일 서울대학교, 리화녀자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대학생들이 괴뢰들의 억압착취에 죽음으로써 항거한 피복공장로동자 전태일청년에 대한 추도식을 가진후 《전태일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다!》, 《로동조건을 개선하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교문을 박차고 나가 발악하는 괴뢰경찰놈들과 맞서 치렬히 싸우면서 시위투쟁을 벌림.

22일 서울시내의 각 대학생들이 남조선의 모든 정치인, 종교인, 지식인들이 삶을 위한 로동자들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여 그들의 정의의 투쟁에 적극 합류하여 싸울것을 호소하면서 무기한 단식롱성투쟁을 벌림.

23일 경기도 인천의 부두로동자 1천 600여명이 임금을 39% 더 올릴것을 요구하여 쟁의를 벌림.

26일 서울의 철도로동자 500여명이 신분보장을 요구하여 롱성투쟁을 벌림.

27일 경기도 의정부지구의 미제침략군부대 696탄약중대에 고용된 로동자들이 미제침략군놈들이 민족적박해와 가혹한 착취를 일삼던끝에 리유없이 생활권까지 빼앗으려는데 격분하여 병사를 점거하고 앉아버티기투쟁을 벌림.

28일 현 임금의 41~47%인상을 요구하여 싸우고있는 부산부두로동자들에 호응하여 인천을 비롯한 10개지방 부두로동자들 1만 5천여명이 련대성을 표시하여 대중적투쟁을 벌림.

29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범진련객회사》의 150여명의 녀차장들이 자기들의 몸을 수색하는 악질 기업주놈의 모욕행위에 격분하여 일제히 작업을 거부하고 롱성투쟁을 벌림.

## 12 월

7일 경상북도 대구 경북대학교 학생들이 미제와 그 주구들의 군사훈련강요책동을 폭로규탄하는 성토대회를 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교련강화정책은 대학을 말살시키고 민족의 량심과 슬기를 질식시키려는 처사》, 《학원의 근본리념에 위반되는 교련강화책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선언문을 랑독한 다음 괴뢰들에게 들이댈 항의문을 채택함.

9일 서울대학교의 음악대학 학생 200여명이 일제히 수업을 거부하고 거리에 떨쳐나와 학원을 모리화 한 놈들의 죄행을 폭로규탄하는 구호를 웨치면서 수업조건의 보장을 요구하여 집단적인 시위투쟁을 벌림.

10일 전라남도 라주군 봉강면내 농민들이 괴뢰도당이 《공사》라는것을 벌려놓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농민들에게 들씌우는것을 반대하여 괴뢰《토지개량조합》을 상대로 이를 당장 걷어치울것을 요구하여 프랑카드를 들고 롱성시위투쟁을 벌림.

12일 강원도 춘천지구에 도사리고있는 미제침략군 제4유도탄기지사령부에 얽매인 100여명의 괴뢰군병사들이 침략군놈들의 참을수 없는 민족적 멸시와 학대에 항거하여 집단적으로 들고일어나 강력한 반미시위투쟁을 벌림.

14일 서울시 성동구 거여동사이를 달리는 뻐스의 차장들이 악질기업주놈의 가혹한 착취와 인권유린행위를 반대하며 생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괴뢰경찰국에 몰려가 악질기업주놈의 죄행을 비호조장하는 놈들의 죄상을 폭로규탄하면서 롱성투쟁을 벌림.

18일 서울의 건설로동자 수십명이 괴뢰국회의사당에 몰려가 《법조회》리사장으로 있는 한 괴뢰국회의원놈이 로동자들의 몇푼안되는 임금마저도 잘라먹으려는 괴뢰지배층의 비렬하고 탐욕스러운 정체를 폭로하고 피땀의 대가를 당장 내놓으라고 강력히 요구하면서 시위투쟁을 벌림.

21일 려객선 《남영호》침몰로 남해에서 집단참사를 당한 피해자가족 100여명이 괴뢰도당의 범죄행위를 규탄하고 《빨리 대책을 세우고 시체와 배를 인양하라!》고 웨치면서 려객선을 관리운영하는 놈들의 사무실과 괴뢰경찰파출소에 몰려가 그곳의 유리창과 책상을 까부심.

22일 려객선침몰로 인한 피해자들의 가족 500여명이 또다시 괴뢰도당의 사무실에 집단적으로 몰려가 《피해보상금을 당장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농성투쟁을 벌림.

24일 남조선 전역의 미제침략군기관들에 고용된 4만여명 조선인 로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위한 2개월간에 걸친 완강한 투쟁끝에 끝내 미침략군두목놈을 굴복시키고 일부 요구조건을 관철.

27일 전라남도 광주시 월남동 마을주민 수십명이 괴뢰군살이를 거부한 청년을 잡으려온 4놈의 괴뢰헌병놈들에게 뭇매를 가하여 까눕힘.

28일 서울시내의 건설로동자 100여명이 괴뢰서울시장놈의 사무실을 점거하고 밀린임금을 당장 내놓을것을 요구하여 앉아버티기투쟁을 벌림.

# 재일조선공민주요일지

## (1970년 1월—12월)

### 1 월

1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 새해를 맞이하여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이 삼가 축하전보를 드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김일성원수께서 새해를 맞이하여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에게 축하전보를 보내주심 ▶총련중앙 상임위원회에서 전체 재일동포들에게 새해축하인사를 보냄.

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서 새해 축하전보에서 주신 교시와 그리고 《김일성원수님은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다》, 《총련의 1969년도 사업총화와 1970년도 과업에 대하여》를 가지고 총련 각 현본부들에서 단초학습이 시작됨.

1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서 새해 축하전보에서 주신 교시를 받들고 1970년도 총련의 활일을 더 많이 더 잘하기 위한 열성자들의 모임이 일본 각 지방들에서 진행.

14일 《김일성원수혁명력사연구실도록》을 총련결성 열다섯돐을 기념하는 첫 출판물로서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원색판으로 번각출판함 ▶조선대학교 교직원들과 동포대표들이 도꾜조선학원-교직원숙사건설도면을 훔쳐간 일본반동경찰의 간첩행위를 규탄하여 관계 당국에 엄중히 항의를 들이댐.

18일 《김일성원수님의 새해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올해 총련사업을 더 많이 더 잘하자》라는 제목으로 총련 각 지부와 분회들에서 강연회를 일제히 가짐.

19일 김일성원수님께서 새해 축하전보에서 주신 교시를 받들고 재일동포들이 귀국의 길을 틔우며 공화국공민의 영예와 자주독립국가의 해외공민으로서의 당당한 민족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일본반동정부의 수상관저, 후생성, 적십자사 등에 몰려가 강력한 항의요청투쟁을 벌림.

31일 재일조선인중앙귀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사업을 즉시로 재개할것을 일본적십자사에 강력히 요구함.

### 2 월

1일 내외반동들의 《영주권신청》놀음과 괴뢰 《한국국적》강요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대중정치선전 사업을 총련 각급기관들에서 일제히 벌림.

5일 일본 각지에서 사는 동포들이 일본인민들에게 귀국사업의 즉시 재개를 호소하는 가두선전을 일제히 벌림.

7일 조선인민군창건 스물두돐기념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가 열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 모든 참가자들의 끓어넘치는 충성심을 담아 편지를 드림 ▶미제의 부추김밑에 일본반동당국과 박정희괴뢰도당이 《세균주문》이라는 거짓을 꾸며내여 공화국을 중상, 비방하는 발광적소동을 벌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총련효고현본부와 산하단체 및 동포대표들이 관계당국에 엄중히 항의를 들이댐.

9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께서 서른네번째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총련중앙 상임위원회에서 경애하는 수령께 감사전보를 드림.

10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회의가 열림, 총련조직을 튼튼히 꾸리며 조국통일을 위한 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총련 제9차 전체대회소집에 대하여 토의함,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 열화같은 충성심을 담아 편지를 드림.

14일 김일성원수께서 서른네번째로 보내주신 교육원조비 및 장학금의 배려에 감사를 드리는 재일본조선 교육일군, 과학자, 류학생들의 모임을 조선회관에서 가짐, 경애하는 수령께 다함없는 감사와 불타는 충성심을 담아 편지를 드림.

18일 재일조선공민들을 탄압할 목적밑에 《출입국관리법》을 비롯한 파쑈악법들을 조작하려는 일본 사또반동정부의 범죄적책동을 규탄하여 총련중앙 상임위원회에서 성명을 발표함.

21일 총련 도꾜도본부 집행위원회 제8기 제12차회의 확대회의에서 총련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회의결정 집행대책을 토의함, 각현본부집행위원회와 총련산하 단일단체의 리사회, 중앙위원회들에서도 계속 집행대책을 토의함.

22일 총련결성 열다섯돐을 기념하여 히메지조선초중급학교 새 교사를 준공, 축하모임을 가짐.

24일 《출입국관리법》을 비롯하여 일련의 파쑈적치안립법책동을 반대하는 재일조선공민들의 투쟁에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줄것을 호소하여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이 일본의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에 요청서를 보냄 ▶《일한안전일체론》, 《태평양신시대론》을 떠벌이면서 남조선재침과 새전쟁도발책동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는 사또도당을 비롯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을 규탄하여 총련중앙부의장이 담화를 발표함.

25일 도꾜도내 동포들이 일본 법무성에 몰려가 《출입국관리법》을 조작하려는 사또반동정부의 파쑈책동에 견결히

항의.

28일 3.1인민봉기 쉰한돐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가 도꾜에서 열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께 전체 참가자들의 불같은 충성심을 담아 편지를 드림.

## 3 월

3일 남조선신문 《동아일보》가 조선대학을 비방중상하는 거짓을 꾸며 보도한것과 관련하여 조선대학교 교직원들이 일본 후생성에 몰려가 엄중항의를 들이댐.

5일 도꾜도내 동포들이 일본반동정부의 파쑈적《출입국관리법》조작책동을 폭로분쇄하기 위한 가두선전을 일제히 벌림.

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혁명력사를 배우기 위한 재일본조선청년학생들의 중앙모임을 조선대학교에서 성대히 가짐, 각 지방단위의 모임도 전후하여 계속 열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 전체 참가자들의 다함없는 흠모와 불같은 충성심을 담아 편지를 드림.

15일 재일본조선인나가사끼현상공회가 결성됨, 공화국공민권과 기업권을 굳건히 지키며 조국통일을 위한 사업에 모든 힘을 합쳐나갈 결의를 다짐.

20일 총련 각급기관들에서 수령께 충직한 조국의 참된 아들딸로 키우기 위하여 동포자녀들을 《우리 학교에 새로 더 많이 받아들이기 위한 제5차통일행동》을 벌림.

2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탄생 쉰여덟돐을 열렬히 축하하는 연설회가 도꾜에서 열림.

28일 총련결성 열다섯돐을 기념하여 도꾜조선중고급학교 제2호관을 준공, 축하모임을 가짐.

29일 재일본조선인조국왕래요청위원회 위원장이 일본당국은 재일조선공민들의 조국왕래를 전면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담화를 발표함.

## 4 월

5일 도꾜부내 동포들의 희찬 투쟁에 의해 마이즈루조선초중급학교가 개교함.

6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탄생 쉰여덟돐축하 총련중앙 상임위원회 우승컵쟁탈 재일본조선인축구선수권 제3차대회가 열림.

9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서 서른다섯번째로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것과 관련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께 감사전보문을 드림.

10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수령 김일성원수께서 조선대학교 제12회졸업생 8명에게 보내주신 표창장과 선물전달식을 조선대학교에서 가짐.

1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서 서른다섯번째로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의 배려에 감사를 드리는 재일본조선 교육일군, 과학자, 류학생들의 모임이 열림, 경애하는 수령께 모임 참가자들이 다함없는 감사와 충성심을 담아 편지를 드림.

15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수령 김일성원수탄생 쉰여덟돐축하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가 오사까에서 성대히 열림, 경애하는 수령께 전체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충성심과 새 결의를 담아 편지를 드림 ▶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탄생 쉰여덟돐축하 음악무용서사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연이 오사까에서 열림.

16일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이 오사까에서 내외기자들과 만나 일본반동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당장 버려야 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함.

18일 남조선인민들의 4.19인민봉기 열돐을 기념하여 재일본조선청년학생중앙대회가 도꾜에서 열림, 일본각지들에서도 기념대회를 일제히 가짐.

2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1면에 정중히 모시고 그이께서 레닌탄생 100돐에 즈음하여 친히 쓰신 론문《동방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 관한 레닌의 위대한 사상은 승리하고 있다》를 조선신보가 실음.

22일 월남공민들을 대량학살하고있는 캄보쟈우익반동들의 야수적만행을 규탄하여 총련중앙외무부장이 성명을 발표함.

27일 총련결성 열다섯돐을 기념하여 이바라기조선회관 준공, 축하모임을 가짐.

## 5 월

1일 5.1절기념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가 도꾜에서 열림, 총련 각 현본부들에서도 일제히 대회를 가짐.

2일 총련결성 열다섯돐을 기념하여 도호꾸조선고급중학교 (미야기현 센다이시) 교사와 기숙사 준공, 축하모임을 가짐.

8일 총련결성 열다섯돐을 기념하여 우베조선초중급학교 새교사 준공, 축하모임을 가짐.

10일 총련결성 열다섯돐을 기념하여 히로시마중 고급학교 제2호관 준공, 축하모임을 가짐.

11일 《국철》쇼부선연선일대의 일본고등학교들에 《조선고교생이 습격한다》는 거짓 《통보》를 내돌린 경시청당국의 공화국을 반대하는 모략책동에 총련중앙대표들이 강력한 항의를 들이댐.

13일 도꾜를 비롯한 일본각지에서 조선청년학생들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조선영화특별감상모임》이 열림.

14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상품전람회》가 도꾜에서 열림, 총련 및 산하 단체 책임일군들과 애국적동포상공인들 일본의 각계 인사들, 일본에 와있는 외교관을 비롯한 20개 나라 인사들 1,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관을 축하하는 연회를 차림.

16일 조국을 방문했던 동포들의 보고회를 도꾜에서 가짐,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께 전체 참가자들의 끓어넘치는 충성심을 담아 편지를 드림.

17일 총련결성 열다섯돐기념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컵타기 재일조선인탁구선수권 제5차대회가 열림.

20일 총련결성 열다섯돐을 기념하여 가나가와 조선중고급학교 새 교사 준공, 축하모임을 가짐.

23일 한덕수의장앞으로 총련결성 열다섯돐에 즈음하여 월남조선우호협회로부터 축전을 보내옴. 세계 여러나라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 이름있는 인사들, 혁명적인민들로부터 계속 축전이 옴.

25일 총련결성 열다섯돐기념 재일조선인중앙대회가 도꾜 히비야공회당에서 열림, 총련 각 현본부들에서는 일제히 지방대회를 가짐,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 대회 참가자들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과 열화같은 충성심을 담아 편지를 드림.

27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조선학생들에 대한 련속적인 일본불량배들의 집단폭행, 일본반동정부의 부당한 탄압, 일본반동당국자들의 폭행만행에 대하여 민족적격분으로써 항의규탄하는 성명을 발표, 총련중앙대표들이 일본법무성에 강력히 항의를 들이댐 ▶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이 큰물로 말미암아 해를 입은 인민들에게 동정을 표시하여 로므니아적십자회 중앙위원회에 위문전보와 위문금을 보냄.

29일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이 일부지역에서 자연재해를 입은것과 관련하여 쏘련적십자 및 적반월협회련맹에 위문전보를 보냄.

## 6 월

1일 총련결성 열다섯돐을 기념하여 조선문제연구소 새 사무소를 준공, 축하모임을 가짐.

2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 열다섯돐축하 대음악무용서사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상계관작품 《조국의 해빛아래》 공연이 도꾜체육관에서 3천명집단의 출연으로 막을 올림.

3일 한덕수의장이 총련결성 열다섯돐을 기념하여 대음악무용서사시 《조국의 해빛아래》를 공연하게 된것과 관련하여 내외기자들과 만나 담화를 발표함.

4일 꾸바 일부 지역에 자연재해가 있은것과 관련하여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이 꾸바공화국적십자사 중앙위원회에 위문전보를 보냄.

14일 총련결성 열다섯돐을 축하하는 재일조선사회과학자 학술토론회 조선대학교에서 진행.

15일 총련결성 열다섯돐을 기념하여 도꾜기조선초급중학교 새 교사와 체육관, 기숙사, 후생당을 준공, 축하모임을 가짐.

16일 총련결성 열다섯돐기념 재일조선중앙예술단 교또공연이 막을 올림.

18일 재일조선청년들에 대한 미제와 박정희파쑈악당의 강제징병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재일본조선청년학생중앙대회가 도꾜에서 열림 ▶ 일본 고꾸시깡불량학생들이 도꾜조선중고급학교 학생에게 야만적인 집단폭행을 한데 격분하여 총련중앙에서 일본 경시청당국에 엄중히 항의를 들이댐.

19일 재일조선인인권옹호투쟁위원회 위원장이 내외기자들과 만나 재일조선학생들에 대한 폭행과 모략책동을 감행하고있는 일본반동당국의 범죄적행위를 폭로규탄하는 담화를 발표.

25일 6.25 20주년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의 즉시 철거를 요구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가 열림, 일본각지에서도 일제히 대회를 가짐.

## 7 월

1일 총련 도꾜도본부열성자모임 열림,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와 총련 제9차전체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사업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120일간혁신운동》을 벌린데 대하여 첫 봉화를 탈고 전체참가자들이 일떠섬,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께 열화같은 충성심과 새 결의를 담아 편지를 드림, 각 현본부열성자대회가 각지에서 열림 ▶ 《120일간혁신운동》에 떨쳐나선 총련 아이찌현본부관하 일군들과 동포들이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학습을 집체적으로 조직하여 벌림, 총련 각 현본부일군들과 동포들속에서 계속 널리 조직되여 벌어짐 ▶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이 일본공산당 제11차대회에서 축하인사를 함.

4일 외국어와 대비해서 본 우리 말의 우수성에 대한 연구보고회를 조선대학에서 가짐 ▶ 총련결성 열다섯돐기념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우승기 타기 재일본조선인신용조합 직원체육대회가 열림.

6일 총련중앙 한덕수 의장이 「김규남, 박대인선생을 비롯한 남조선의 애국자들에게 사형과 중형을 들씌우는 극악무도한 살인귀적만행을 저지른 미제와 박정희파쑈악당을 단죄하여 담화를 발표함.

1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충성의 선물인 미야자끼조선회관이 준공됨.

13일 《모두다 김일성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120일간혁신운동〉에 앞장서자!》라는 제목으로 총련 각 분회들에서 대중강연회를 일제히 벌림.

16일 남조선의 통일혁명당 서울시위원회 위원장 고 김종태동지를 추도하는 재일본조선인모임을 엄숙히 가짐.

20일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이 미제와 그 주구들의 죄행을 폭로하는 가두선전을 일본각지에서 일제히 벌림.

23일 사로청중앙위원회로부터 여름방학동안에 조국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행사에 참가하도록 초청을 받은 도꾜조선제1초중급학교와 도꾜제7초중급학교들에서 조국방문단을 뭇고 일본법무성에 재입국허가를 신청함.

24일 미제의 조종밑에 조선에서 침략과 전쟁도발준비를 다그치려는 범죄적《제4차한일각료회의》를 폭로규탄하여 총련중앙부의장이 담화를 발표.

26일 내외반동놈의 방화로 규슈조선중고급학교남자기숙사가 불에 탐, 총련 후꾸오까현본부일군들과 동포학부형들이 범인을 잡아낼것을 일본반동당국에 요구하여 힘찬 투쟁을 벌림.

27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17주년에 즈음하여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규탄하며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의 즉시 철거를 요구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가 도꾜에서 열림, 일본각 현들에서도 대회가 일제히 열림.

28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제16차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 참가할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위임대표단을 구성함 ▶ 조선학교 고급부학생들과 일본 고등학교학생들 사이의 우호친선과 련대성을 강화할것을 목적으로 한 《전도일조고교생교류회》를 도꾜조선중고급학교에서 가짐.

30일 남녀평등권법령발포 스무돐을 기념하는 재일본조선녀성중앙대회가 열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 전체 참가자들의 일편단심 충직할 굳은 결의를 담아 편지를 드림.

31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조국통일을 절절히 념원하는 60만 재일동포들의 심정을 반영하여 8.15조국해방스물다섯돐기념행사를 공동으로 벌릴것을 총련중앙한덕수의장이 민단측에 제의함.

## 8 월

1일 재일본조선청년동맹결성 열다섯돐기념 조청반열성자 제5차대회가 열림, 《120일간혁신운동》에서 선봉대, 돌격대가 될것을 다짐, 4천만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께 무한히 충직한 아들딸로 준비할 굳은 결의를 담아 편지를 드림.

3일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이 제16차 원수폭금지 세계대회에 참가한 여러나라 대표들을 초대하여 연회를 차림.

5일 조국을 방문하기로 한 도꾜조선제1초중급학교와 도꾜조선제7초중급학교학생들의 재입국신청을 거부한 일본법무성에 학부형들이 몰려가 엄중하게 항의를 들이댐.

15일 8.15조국해방 25주년기념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가 도꾜에서 성대히 열림, 일본 각 지방들에서도 일제히 대회를 가짐,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 대회참가자들의 끓어 넘치는 충성의 한마음을 담아 편지를 드림.

17일 일본학교에 다니는 동포자녀들에게 우리 말과 글을 배워주고 민족의식을 심어주며 경애하는 수령께 충직한 아들딸로 키우기 위한 하기학교들에서 과정을 끝마치고 일제히 폐강식을 가짐.

18일 총련중앙학원창립 열다섯돐을 축하하는 모임이 열림.

20일 재일조선공민들의 진정한 요구대로 괴뢰국적을 조선국적으로 고친 후꾸오까현 다가와시당국에 대해 다시 괴뢰국적으로 고치라고 불법지시한 일본법무성당국을 규탄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성명을 발표, 총련중앙 대표들이 일본법무성에 강력하게 항의를 들이댐.

22일 조국을 방문하기로 한 도꾜조

선제1초중급학교와 도꾜조선제7초중급학교 학생들의 일본재입국허가쟁취를 위한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여 국제학생동맹 서기국에서 총련중앙에 전보를 보내옴.

24일 내외반동들의 《영주권신청》을 짓부시며 괴뢰《한국국적》을 조선국적으로 고치는 운동을 힘차게 벌리기 위한 오사까부연설회와 히로시마 연설회가 각각 열림, 일본 각 지방들에서도 계속 연설회를 가짐.

25일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이 일본의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 및 각계 층인사들에게 괴뢰《국적》을 조선국적으로 고치기 위한 재일조선공민들의 정당한 투쟁에 지지성원을 보내줄것을 호소하여 요청서를 보냄.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22주년기념 재일본조선인 도꾜도체육대회 진행.

## 9 월

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서 서른여섯번째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경애하는 수령께 감사전보를 드림.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2주년기념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가 도꾜에서 성대히 열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 전체 참가자들의 열화같은 충성심과 굳은 결의를 담아 편지를 드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두돐축하연을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이 차림, 일본의 각계 저명인사들, 일본에 와있는 35개 나라의 외교대표들이 참석함.

12일 어버이 수령 김일성원수께서 서른 여섯번째로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의 배려에 감사를 드리는 재일본 조선 교육일군, 과학자, 류학생들의 모임이 열림, 경애하는 수령께 모임참가자들의 다함없는 감사와 불타는 충성심을 담은 편지를 드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두돐기념 재일본조선인신용조합직원예술경연대회가 막을 올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두돐을 경축하여 나라조선초중급학교 새 교사를 준공, 축하모임을 가짐.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스물두돐기념 재일본조선인중앙체육대회 진행.

21일 재일조선중앙예술단결성 열다섯돐기념 축하모임과 기념공연을 가짐.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스물두돐을 축하하며 재일조선중앙예술단결성 열다섯돐을 기념하는 재일조선중앙예술단 오사까특별공연을 가짐

26일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사업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재일조선과학자학술보고회를 가짐

2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두돐을기념하여 후꾸시마조선초급학교 새 교사를 준공, 축하모임을 가짐.

29일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이 나쎄르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여 아랍련합공화국 내각에 조전을 보냄.

## 10 월

4일 시모노세끼 조선초급중학교 중급부학생에게 일제경찰관놈들이 폭행을 한데 격분한 100여명의 재일동포들이 시모노세끼경찰서에 달려가 엄중항의를 들이댐.

5일 후꾸이도내 동포들이 60대의 선전차를 동원하여 내외반동들의 《영주권신청》놀음을 짓부시며 괴뢰국적을 조선국적으로 고치기 위한 가두선전을 힘차게 벌림.

7일 《로동신문》 제호까지 도용하여 공화국을 비방중상하며 총련을 파괴하려는 미제와 박정희반역도당들의 범죄적모략책동을 폭로규탄하여 총련중앙 부의장이 내외기자들과 만나 담화를 발표, 총련중앙항의단은 일본경찰청에 강력한 항의를 들이댐.

9일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스물다섯돐기념 총련일군들의 모임이 열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께 전체 참가자들의 열화같은 충성심을 담은 편지를 드림.

10일 《조선신보》 창간 스물다섯돐기념대회를 가짐,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 전체 참가자들의 불타는 충성심을 담아 편지를 드림.

13일 일본요꼬다기지에 있는 공군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려는 미제침략자들의 전쟁도발책동을 견결히 폭로배격하여 총련중앙 외무부장이 담화를 발표함.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0주년 재일본조선인축하단 일본재입국행정소송에 일본최고재판소가 부당한 판결을 한것을 규탄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성명을 발표.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스물두돐기념 재일본조선인중앙예술축전이 도꾜에서 열림.

2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서 서른일곱번째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 감사를 드리는 전보문을 올림.

28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창건 스물두돐기념 재일본조선학생미술전람회가 막을 열음.

29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재일조선공민들에게 괴뢰국적과 《영주권신청》놀음을 더욱 악랄하게 강요하기 위한 《한일실무자회담》이 일본반동정부와 박정희반역도당 사이에 있은것을 폭로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함.

30일 어버이 수령 김일성원수께서 서른일곱번째로 보내주신 교육원조비 및 장학금의 배려에 감사를 드리는 재일본조선교육일군, 과학자, 류학생들의 모임이 열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 전체 참가자들의 다함없는 감사와 충성심을 담아 편지를 드림.

31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일본반동정부와 박정희반역도당이 재일조선공민들에게 괴뢰국적과 《영주권신청》을 강요하기 위해 일본의 보도기관들을 동원하기로 합의한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범죄적책동을 거부할것을 일본의 각 보도기관들에 요망.

## 11 월

2일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축전을 보냄 ▶광주학생운동 마흔한돐기념 재일본조선청년학생중앙대회가 열림.

5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강령적보고에 대한 총련중앙일군들의 학습모임이 한덕수의장의 지도밑에 열림, 총련 각 현본부관하들에서도 학습모임이 계속됨.

6일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이 칠레공화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취임한데 대하여 알옌데대통령에게 60만 재일조선공민의 이름으로 축전을 보냄.

7일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이 일조협회 제15차 정기전국대회에서 축하와 련대성을 표시하여 인사를 함.

12일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이 개최중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품전람회》에 일본에 와있는 20개 나라 외교관들과 그 가족들, 무역대표들과 특파원들을 초대, 연회를 배품.

16일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열렬히 축하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가 열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를 끝까지 옹호보위할 불같은 결의를 다져 그이께 충성의 편지를 드림, 총련산하 각

단일단체들과 각 현본부들에서도 축하대회를 계속 가짐.

17일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이 해일로 말미암아 동부파키스탄주민들이 큰 해를 입은것과 관련하여 파키스탄회교공화국적십자회에 위문전보와 원호금을 보냄.

20일 조선국적을 되찾은 동포들의 중앙대회, 경애하는 수령의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보고를 깊이 학습하고 총련조직을 튼튼히 다지며 조선국적을 도로찾는 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릴것을 다짐.

24일 총련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회의가 열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강령적보고를 높이 받들고 총련의 제반 애국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토의,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 열화같은 충성심과 결의를 담아 편지를 드림 ▶남조선청년학생들이 삶의 권리를 위한 로동자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여 대중적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총련중앙 교육부장이 지지찬동하는 담화를 발표.

28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두돐을 기념하여 가와사끼조선초급학교 새 교사를 준공, 축하모임을 가짐.

30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조선직업총동맹창립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직총중앙위원회에 축전을 보냄.

## 12 월

1일 총련 교또부본부 집행위원회 제8기 제16차회의 확대회의, 총련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회의 결정집행대책을 토의함, 계속하여 각 현본부 집행위원회와 총련산하 각 단일단체중앙위원회, 리사회의들이 열림.

7일 총련분회열성자 제9차대회가 열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보고를 때와 삶으로 만들이 총련의 모든사업에서 계속 보다큰 혁신을 이룩할 결의를 다짐 ▶《북조선간첩사건》을 날조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총련을 비방중상하려는 일본반동당국의 모략행위를 폭로규탄하여 총련중앙 외무부장이 성명을 발표함.

10일 조선국적을 되찾기 위한 재일조선공민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에게 국제기자동맹 서기국, 벌가리아직맹 중앙평의회, 쏘련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로부터 전보를 보내옴.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스물두돐을 기념하여 구라사끼조선초중급학교 새 교사를 준공, 축하모임을 성대히 가짐 ▶재일본조선언론출판인협회에서 국제기자동맹 제7차대회(아바나)에 대표단을 보내며 대표단의 재입국을 인정할것을 일본정부에 요구하는 운동을 힘있게 벌릴것을 결정.

14일 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사업의 재개와 조선국적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지지하여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에게 쏘련적반협회 부회장으로부터 전보.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두돐을 기념하여 마이즈루조선초중급학교 새 교사를 준공, 축하모임을 가짐.

16일 귀국실현 열한돐기념 귀국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가 열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 전체 참가자들의 불같은 충성심을 담아 편지를 드림.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상품전람회》오사까에서 또다시 개관,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이 서일본지방의 동포들과 일본각계인사들, 외국인사들을 초대하여 개관축하연을 차림.

26일 재일본조선언론출판인협회 간사회에서 재일본조선언론출판인대표단이 국제기자대회에 참가하는것을 방해한 일본반동당국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함.

# 국 제 주 요 일 지

## (1970년 1월—12월)

## 1 월

1일 월남민주공화국 주석 손덕승이 남부를 해방하고 북부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며 완전승리를 쟁취할 때까지 싸울것을 인민들에게 호소 ▶팔레스티나유격대들이 팔레스티나인민들의 무장투쟁개시 다섯돐을 기념 ▶잠비아정부가 제국주의자들의 독점회사인《영미합영회사》와 《로안회사》를 국유화.

2일 메히꼬반동당국에 의하여 부당하게 체포되여《레꿈베리》감옥에 갇혀있는 80여명의 애국적인사들이 수감자들을 학살하려는 반동당국의 횡포무도한 책동을 폭로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각종 항의투쟁을 벌림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팔레스티나인민의 무장투쟁개시 다섯돐에 즈음하여 군중집회 진행, 집회참가자들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 이스라엘침략자들의 도발 책동에 무기와 혁명으로 맞설것을 다짐.

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를 미국흑인펜서당기관지《블래크 펜서》 1월 3일호와 10일호에 실음, 공화국정부정강을 아련의 《다르 안 타흐리르》출판사와 세일론인민조선친선협회가 각각 단행본으로 출판 ▶짐바브웨애국자들이 잠베지강에서 남로데시아인종주의자들의 초계정을 습격, 다른 한 부대는 놈들의 비행장을 공격하여 직승비행기 2대를 파괴.

5일 웽그리아사회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까다르 야노쉬가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규탄(조선중앙통신) ▶에스빠냐의·약 2만명의 탄부들과 까지스지방의 농업로동자 1만명이 처지개선을 요구하여 파업, 까지스주의 건설로동자들과 조선소로동자들이 련대성파업 ▶필리핀 애국적무장력이 미제침략군 클라크공군기지부근에서 팜팡주의 포지시경찰 총감이란놈이 탄 장갑차를 습격하여 즉사케 함.

6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5대륙의 진보적기자들은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들고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자》에 대한 3대륙류학생들의 연구토론모임 모스크바에서 진행(로동신문) ▶시에라 레온정부 외국독점체들의 광업회사들을 국유화(조선중앙통신)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시민들이 미제전쟁사환군 미부대통령 애그뉴놈의 침략행각을 반대하여 《애그뉴는 물러가라》는 반미구호판과 붉은기를 들고 시위 ▶중부 및 동부 아프리카나라들의 외상회의 8일까지 루사카에서 진행, 회의에서는 아프리카대륙에서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지배를 종

식시키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것을 결의 ▶꽁고(브)에서 마리엔 느구아비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리사회(정부) 창설, 새 헌법을 발포(조선중앙통신).

7일 《말리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성원들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지지하는 국제적련대성주간》에 즈음하여 가진 모임에서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리비아정부 미제침략군이 강점하고있던 윌러스공군기지를 접수 ▶ 아련, 알제리, 리비아, 이라크의 국영석유회사 대표들이 석유 및 가스자원 개발분야에서 전면적협조를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협조협정을 바그다드에서 조인.

8일 수리아에 있는 에리트레아해방전선, 팔레스티나해방운동(알 파타흐), 팔레스티나해방인민전선, 바레인민족해방전선, 오만해방운동조직 대표들과 다마스커스에서 공부하고있는 3대륙류학생들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지지하는 국제적련대성주간》에 즈음하여 다마스커스에서 모임을 가지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오끼나와의 미제침략군기지들에 고용된 로동자 5만 3천명이 48시간 총파업, 파업으로 미제침략군기지 148개가 완전히 마비 ▶ 미국의 펜실바니아주, 서버지니아, 오하이오주들의 2만여명의 탄광로동자들이 로조 활동가에 대한 닉슨도당의 야수적학살만행에 항거하여 파업 ▶뿌에르또 리꼬 혁명무장대 성원들이 수도주변에 있는 미국독점자본가놈의 큰 상점을 불살라버림.

9일 파키스탄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지지하는 국제적련대성주간》에 즈음하여 라호르에서 모임을 가지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윁남, 꾸바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결의문도 채택 ▶3대륙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주간에 즈음하여 이라크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류학생들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지지하는 국제적련대성주간》에 즈음하여 바그다드에서 모임을 가지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채택 ▶미국의 인디아나주에서 청년들이 미제의 범죄적인 윁남침략전쟁에 항의하여 놈들의 징집소를 습격하여 《징집명장》들을 비롯한 기타 문건들을 불살라버림 ▶브라질의 애국적무장력이 리오데 쟈네이로시에서 반동자본가놈의 한 은행을 습격.

10일 브라질 애국적무장인원들이 친미반동정부군의 한 병영을 들이침.

12일 우리 나라와 알제리간에 《평양—알제사이의 친선적련계설정에 대한 의정서》 조인 ▶전인도 민주당 위원장이 미제가 유엔총회 24차회의 정치위원회회의에서 또다시 《조선문제》에 관한 비법적 《결의》를 강압통과시킨것을 규탄하여 유엔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냄(로동신문) ▶ 영국교원들이 영국력사상 최대의 전국적총파업에 궐기, 파업으로 전국의 345개학교에서 수업이 중단.

13일 오스트랄리아의 캔베라시민들과 학생들 수백명이 전쟁광 애그뉴놈이 도착하자마자 《애그뉴는 제집으로 돌아가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반미시위 ▶세계평화리사회 서기국이 라오스에 대한 미제의 침략책동을 규탄하여 성명 ▶ 수리아의 아랍사회부흥당이 성명을 발표하여 미영제국주의자들, 서독 군국주의자들과 정치, 경제 및 문화적 련계를 가지지말것을 아랍나라들에 호소(조선중앙통신) ▶ 수단에서 반혁명분자들의 정부전복음모를 분쇄.

14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로므니아에서 공부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류학생들이 편지를 드림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회의에서 발표하신 공화국 정부정강에 대한 연구토론모임을 비마조선친선협회 성원들과 모리따니 학생들이 가지고 그이께 드리는 편지를 각각 채택(로동신문) ▶ 모스크바에서 구라파나라 28개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합 진행 ▶캄보쟈외무성이 캄보쟈주민들에 대한 미제침략군과 남부윁남괴뢰군의 학살만행을 규탄하는 각서를 미제의 전쟁두목 닉슨도당에게 보냄.

16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레바논《알 안와르》신문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주신 대답요지를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기관지《그란마》, 알제리신문《마슈 샤보》가 실음 이라크신문《알누르》는 대답전문을 실음(로동신문) ▶쏘련에서 인공지구위성《꼬쓰모쓰—320》호 발사 ▶볼리비아의 1만여명의 로동자, 농민 및 학생들이 수도 라빠스에서 견결한 반미시위.

17일 꾸바에서 공산주의청년동맹 전국위원회의 주최로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창립 스물네돐축하모임진행.

18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낳아 키우신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 강반석녀사의 빛나는 생애와 활동을 소개하는 단행본 《조선의 위대한 수령의 어머님이신 강반석녀사》를 버마의 《아웅란드》출판사에서 출판(로동신문) ▶ 독일의 공산당 위원장 쿠르트 바흐만이 동서독일간에 국제법적원칙에 기초하여 평등한 관계를 수립할것을 주장.

19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반미세계기자대회에서 하신 축하연설 전문을 탄자니아민족출판사, 파키스탄 《진보출판사》에서 각각 단행본으로 출판, 쎄일론신문《아따》, 파키스탄신문《데일리 밀라트》, 수단신문 《수단뉴스》 및 《앗 수단 알 자디드》, 인도주간지《이브닝 뷰》가 전문 실음(로동신문) ▶레닌탄생 100주년기념 과학토론회가 23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진행 ▶오끼나와의 미제침략군기지에 고용된 5만 3천여명의 로동자들이 미제침략군의 야수적만행에 항거하여 120시간 파업, 미제침략군기지들에 일대 혼란조성 ▶ 캄보쟈 외무성은 캄보쟈의 령공과 령토에 대한 미제침략군과 남부윁남괴뢰군의 거듭되는 도발적침범행위를 규탄하는 각서를 미제의 전쟁 두목 닉슨도당에게 보냄 ▶독일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국가쏘베트위원장인 발테르 울브리히트가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서독일간의 《평등한 관계를 수립할데 관한 조약초안》 및 기타 문제들과 관련하여 성명.

20일 이라크에서 반정부음모 적발 분쇄 ▶페루정부가 해운선박회사들에 대한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법령발포 (로동신문)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장 수파누봉은 하노이 주재 일본《아까하다》특파원이 제기한 일련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미제의 라오스침략전쟁에 대한 사또도당의 범죄적협력가담을 강력히 규탄(조선중앙통신) ▶라오스 인민해방군 최고사령부가 전체 라오스애국군대들에게 더 큰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혁명적열의를 발양하자고 호소하는 명령 발표.

21일 캄보쟈왕국정부가 캄보쟈령토에 대한 미제와 남부윁남괴뢰도당의 거듭되는 무력침략행위에 항의하는 서한을 유엔안보리사회 의장에게 보냄 ▶ 영국체신부문일군들 2만 1천여명이 처지개선과 로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파업.

2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공화국정부의 10대정강을 발표하신지 두돐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꽁고(브)[illegible]주에서 군중집회 진행, 그이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로동신문)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를 인도의 데윌리타르쥐반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그이의 천재적로작《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를 인도네시아 국영출판사《끼리아 죠따스》가 단행본으로 출판, 쎄일론신문《샤마샤마자》와 《자나디나》, 인도주간지《보이스 오브 피플》이 로작의 전문을 실음(로동신문) ▶아련군이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샤드만섬에 투하한 항공륙전대에 맹렬한 반격을 가하여 물리침.

23일 수리아아랍사회부흥당 중앙위원회가 성명을 발표하여 중동문제에 관한 미제의 《평화적해결안》은 아랍나라들에 굴종과 투항을 강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로동신문).

24일 라오스애국군대가 파크사비지역에 있는 적강점수용소에 끌려간 라오스의 무고한 주민 2천 200명을 구원.

2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문제에 대하여》를 파키스탄 주간지《잠후루》가 실음 ▶에스빠냐 마드리드의 수백명의 대학생들이 프랑코독재정권의 파쑈적인 인민탄압만행을 규탄하여 항의군중집회를 가짐.

26일 서부독일의 루르에서 약 1만명의 대학생들이 브란트반동도당의 반동적교육정책을 반대하여 동맹휴학 ▶니까라과 애국적무장인원들이 수도근처에서 반동적국가경찰대 장교놈들의 집을 불의에 습격, 다른 소조는 악질 관리놈들이 살고있는 집들을 폭발.

2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레바논《알 안와르》신문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주신 대답전문을 일본공산당 반월간잡지《세계정치자료》와 신문《알 아르함》, 콩고인민공화국신문《브라자빌》, 인도주간지 《이브닝 뷰》가 각각 실음(로동신문) ▶아련군이 시나이반도 주둔 이스라엘침략군 총사령부에 로케트포탄을 퍼부음 ▶아르헨띠나 애국적무장인원들이 꼬르도바시남쪽 씬다지방에서 반동당국의 무기창고와 은행을 습격하여 많은 무기와 자금을 빼앗음 ▶레소토 총선거에서 패배당한 죠나탄도당이 미영제국주의자들과 남아프리카 인종주의자들의 사촉밑에 정변을 일으킴.

28일 알제리에 있는 뽀르뚜갈민족해방애국전선이 전남조선 비행사들의 공화국북반부에로의 의거와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승객문제해결을 위한 우리 나라 정부의 정당한 립장을 전폭적으로 지지 ▶서부베를린시민들이 광범한 민주력량을 반대하기 위한 서부베를린의 신나치스분자들의 음모책동을 반대하여 항의시위.

3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발표하신 위대한 10대정강전문을 탄자니아신문 《누구루모》와 버마잡지 《뮈웨이》가 각각 실음(로동신문).

31일 미제의 가장 큰 철도회사들중의 하나인 《유니온 패시피크 레일 로우드》에 고용된 4만 5천명의 철도로동자들 처지개선을 요구하여 파업.

## 2월

1일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스무돐경축연회에서 하신 연설《조선인민군 창건 스무돐을 맞이하여》의 전문을 버마잡지 《펭링》이 실음 ▶월남에 대한 미제전쟁범죄행위월남조사위원회는 북부월남에 대한 미제의 새로운 폭격 만행을 규탄하여 특별공보 발표.

2일 중근동위기와 관련한 국제국회의원대회가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을 비롯한 아세아, 아프리카, 구라파 및 라틴아메리카의 50여개나라 국회의원들의 참가하에 아련의 수도 까히라에서 열림.

3일 3대륙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은 앙골라인민과의 국제적련대성의 날에 즈음하여 3대륙인민단결기구산하의 모든 조직들과 혁명가들 및 진보적조직들이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일떠선 앙골라인민들에 대한 정치적 및 물질적 지원을 강화할것을 호소(조선중앙통신).

5일 조선인민군창건 스물두돐을 기념하여 콩고인민공화국 쁠주인민들이 군중집회를 가짐, 집회에서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만장일치로 채택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에 찬 전기《김일성전》제3부를 일본도꾜에 있는 《유잔가꾸》출판사에서 일본말로 출판.

6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핀란드공산당 중앙기관지《칸산 우우티세트》를 위하여 핀란드민주청년동맹대표단이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전문을 쎄일론—인민조선친선협회가 단행본으로 출판 ▶꾸바 마딴사스군관학교에서 조선인민군 창건 스물두돐을 기념하는 혁명군군인들의 집회진행 ▶세계민주청년동맹 서기국이 공화국북반부로 의거한 비행기의 승객들의 송환문제를 방해하고있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을 규탄하는 항의전문을 남조선괴뢰당국에 보냄 ▶워싱톤에서 수많은 근로자들과 인디아나주민들이 미제두목놈들의 침략과 전쟁정책, 그리고 반전투사들에 대한 미제두목놈들의 탄압행위를 반대하여 시위 ▶이딸리아에서 1천 500만 근로자들이 생활처지 개선을 요구하는 자기들의 파업투쟁을 탄압하는 반동당국의 처사에 격분하여 집회와 시위를 벌려 독점체들과 반동통치집단에 심대한 타격을 가함 ▶남부예멘인민공화국에 아덴 새소식통신사가 새로 창설됨.

7일 파키스탄의 라호르시에서 파키스탄조선청년 친선문화협회 결성 모임이 진행 ▶수리아, 아련 및 이라크 경제상들의 회의가 수리아 수도 다마스커스에서 진행, 회의에서는 세 나라들 사이의 경제적 조절을 위한 상설위원회를 설치할데 대하여 합의.

8일 일본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가나가와현 유가와라시에서 제13차전국대회를 가지고 《미일공동성명을 분쇄하며 3대륙인민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자》라는 선언을 발표.

9일 일조무역회는 긴급리사회를 열고 《세균주문사건》이란것을 날조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중상비방하는 발광적인 소동을 벌리고있는 일본반동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행위를 항의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10일 세계민주청년련맹총서기가 전남조선비행사들이 공화국북반부로 의거해온것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비행기에 탔던 승객들이 자기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방해하고있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을 강력히 규탄 ▶라오스애국군대는 10일밤 농패트 남부에 동지를 뻗고있던 적들의 6개 중요진지들에 대한 공격을 동시에 들이대여 적 350여명을 소멸, 적진지 20여개를 탈환.

11일 워싱톤시민들이 닉슨도당의 월남침략정책에 항의하여 시위를 벌림.

12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6만명의 학생들과 로동자들이 미제와 정부당국을 반대하는 필리핀 력사상 최대규모의 군중대회와 시위를 벌림.

13일 수십만의 까히라시민들이 아브자발시의 제철소를 폭격한 이스라엘침략자들의 강도적인 폭격만행을 규탄하여 대중적인 시위를 벌림.

14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들을 레바논의《알탈리아》출판사에서 종합본으로 출판, 그이의 로작《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의 전문을 또고신문《또고쁘레스》, 남부예멘신문《싸우뜨 움밤》, 수리아경제잡지《알 이크사드》, 인도잡지《에꼬노미크 레뷰 엔드리포트》가 각각 실음 그이의 론문《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를 아련의 《알아호바르 엘윰》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쩨일론신문《썬》, 레바논신문《알 샤아브》가 각각 전문을 실음.

15일 전인도로동조합 콩그레스 제28차대회에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에 관한 결의》 채택.

1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발표하신 공화국정부정강을 수리아신문 《알 사우라》는 요지를, 버마잡지《뻰링》은 전문을 실음 ▶에스빠냐의 바르셀로나종합대학 8천명의 학생들이 반동적인 교육제도를 뜯어고치며 학원의 민주화를 요구하여 투쟁 ▶ 세계직련서기국이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아련의 아브 자발제철소에 대한 폭격만행을 단호히 규탄 ▶콜롬비아인민해방군 지휘부가 친미반동정권을 타도하기 위하여 무장투쟁을 더욱 강화할것을 유격대와 인민들에게 호소하는 공보발표 ▶탄자니아의 모쉬에서 진행된 아프리카통일기구해방위원회 제16차회의에서 아프리카에서의 민족해방운동에 물질적원조를 주기 위한 문제를 토의 ▶오끼나와의 전면반환과 《일미안보조약》페기를 요구하는 일본인민들의 피또―도페대시위진행.

18일 필리핀 수도에서 로동자, 학생을 중심으로한 10만군중이 이 나라 력사상 가장 큰 미제국주의 식민지정책 반대, 정부규탄 대집회를 가진다음 치렬한 반미반정부시위를 벌림.

1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공화국정부정강을 발표하신지 두돐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탄자니아에 있는 민족해방투쟁단체대표들의 모임이 다르 에스 살람에서 진행, 그이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글을 말리신문 《에쏘르》가 실음 ▶팔레스티나해방조직들은 모든 투쟁단체들을 련결시키는 2개의 통합정치리사회와 군사리사회를 내옴.

2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 경축연회에서 하신 연설 전문을 이라크신문 《알 줌후리아》, 탄자니아신문 《누구루모》, 레바논신문 《알 무하리르》가 각각 실음, 네팔조선친선협회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라오스애국전선중앙위원회는 미제침략자들이 자르평원―히엥꽝의 해방지역을《비52》 폭격기를 내몰아 야수적으로 폭격하고 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오끼나와의 각계각층인민 약 1만 5천명이 나하시에서 군중대회를 가지고 미제침략군기지 로동자들의 제3차 파업투쟁을 전체 오끼나와 인민들의 반미투쟁으로서 지지성원할것을 다짐하는 전투적인 투쟁선언을 채택.

2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 경축대회에서 하신 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의 요지를 미국 흑인 펜서당기관지 《블래크 펜서》가 실음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을 기념하여 콩고인민공화국에 있는 앙골라인민해방운동 투사들이 군중집회를 진행, 집회에서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만장일치로 채택 ▶필리핀 학생들이 마닐라에 있는 미국놈대사관앞에서 강력한 반미시위를 벌림 ▶워싱톤의 수백명 근로자들이 미《법무성》앞에서 항의군중집회를 가짐, 시카고에서의 대반전시위참가자들에 대한 닉슨도당의 야수적인 탄압책동과 살인재판을 규탄하고 반전운동참가자들을 당장 석방할것을 요구 ▶미국 뉴해븐에서 천여명의 근로자들이 미제두목닉슨도당의 인민탄압책동에 항의하는 군중집회를 가짐.

2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 경축연회에서 하신 연설을 버마 《모웅인야이소》출판사가 단행본으로 출판, 수리아신문《알 사우라》, 캄보쟈신문 《냐이점찌엔》이 각각 전문을 실음▶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에 즈음하여 남부예멘인민공화국 아덴시 타와이지구에서 군중대회 진행,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만장일치로 채택 ▶ 소말리아에서 현행헌법을 완전히 페기하고 최고혁명리사회 상임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기로 결정.

24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를 이라크잡지 《알라쉬드》, 쩨일론신문 《다바싸》, 파키스탄《타미르》지가 실음, 남부예멘방송이 특별방송으로 소개 ▶ 파키스탄의 토바데크신그시에서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지부 결성모임이 진행.

25일 일본공산당 기관지 《아까하다》가 《일미공동성명》의 위험한 로선을 실천에 옮기고 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감행하고 있는 사또반동정부를 규탄하면서 사또반동 정부를 반대하는 항의투쟁에 궐기할것을 일본의 광범한 민주력량에 호소.

2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여섯돐에 즈음하여 인도 뉴델리에서 전인도조선친선협회 주최로 경축집회가 성대히 진행.

## 3 월

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를 탄자니아민족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조선중앙통신).

2일 우리 나라에서의 력사적인 토지개혁법령발포 스물네돐을 기념하여 꾸바 아바나주 농업지휘부에서 모임 ▶잠비아정부에서 남로데시아인종주의자들의 이른바《공화국》조작놀음을 규탄하여 성명 ▶ 쿠웨이트 외상 이스라엘침략자들에 대한 미제의 《팬톰》 및 《스카이호크》비행기 제공에 항의하여 닉슨도당에게 항의.

3일 세계직련과 국제아랍로조련맹이 팔레스티나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기 위한 국제위원회를 창설하기로 합의되였다고 발표 ▶ 수단정부 남로데시아인종주의자들의 일방적인 《공화국》선포놀음을 규탄하여 성명 ▶ 이스라엘침략자들 아련의 수에즈시를 마구 폭격하는 만행 감행 ▶ 캄보쟈왕국 외무성이 미제와 남부윁남괴뢰들의 계속되는 국경침범행위를 규탄하여 닉슨도당에게 각서.

5일 끼쁘로스근로인민진보당 제12차대회 진행(8일까지) ▶ 3대륙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 아랍국가들을 반대하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침략책동을 규탄하여 성명.

6일 3대륙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 수리아혁명승리 일곱돐에 즈음하여 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는 수리아인민의 투쟁에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할것을 호소▶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 라오스문제의 정치적해결에 관한 5개항목의 성명발표.

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아련의 《다르앗싸까 파털 져디다》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조선중앙통신) ▶ 꾸바에서 우리 나라 천리마기수 자원대에 대한 《100만아로바작업반》칭호와 기발수여식 진행.

8일 이딸리아에서 40만명의 말리 로동자들과 10만명의 전력부문 로동자들이 전국적총파업 단행 ▶ 우리 나라의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레바논 《알 딸리아》출판사와 쩨일론청년작가협회가 단행본으로 출판.

9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공화국정부정강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를 발표하신지 두돐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알제리에 와있는 여러나라 민족해방운동대표들과 자본주의나라 투쟁조직대표들, 알제리종합대학 교수들과 알제리 사회계인사들이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관한 연구토론회 진행 ▶까히라민족회의에서 이스라

웰침략자들에게 지원을 주고있는 미제를 규탄하여 성명 ▶ 월남민주공화국 정부가 라오스문제의 정치적해결에 관한 라오스애국전선의 3월 6일부 성명을 지지하여 성명.

10일 예멘학생전국총동맹 집행위원회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를 깊이 연구하고 큰 감명을 받은데 대하여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편지를 보내여왔다 ▶ 쏘련내각 국가대외경제련락위원회 부위원장과 그 일행이 우리 나라를 방문 ▶ 3대륙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이 《월남인민의 영웅적투쟁과의 국제적련대성주간》(3월 13~19일)에 즈음하여 전세계 인민들에게 미제와 싸우는 월남인민들에게 정신적 및 물질적 지원을 줄것을 호소 ▶ 세계평화리사회가 라오스에 대한 침략을 강화하고있는 미제를 규탄하여 성명.

11일 브라질에서 애국적무장인원들이 브라질에 있는 일본《총령사》놈을 사로잡음 ▶ 이라크정부와 쿠르드족 지도자들 사이에 쿠르드족에 자치를 보장할데 대한 협정체결, 3월 11일을 《민족적통일의 날》로 정함.

12일 쏘련에서 공부하고있는 아세아나라 류학생들이 《김일성동지로작 및 혁명활동력사연구소조》 결성모임을 가지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 꾸바 아바나주 마이야 베끼지구에서 《천리마》명칭 사탕수수적재소 조업식 진행 ▶ 로므니아정부가 남로데시아인종주의도당의 《공화국》선포 놀음을 규탄하여 성명.

13일 라오스애국적중립파세력동맹위원회에서 라오스 문제의 정치적해결에 관한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의 3월 6일부 성명을 지지하여 성명발표(조선중앙통신) ▶ 수단정부가 가자지역에서 30만명의 팔레스티나인들을 요르단강 서쪽지방에로 추방하려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의 범죄적흉계를 규탄하여 성명.

14일 남부월남공화림시혁명정부가 라오스에 대한 미제의 침략책동을 규탄하여 성명.

15일 북아일랜드공산당과 아일랜드로동당이 합당하여 아일랜드공산당으로됨 ▶ 아. 아단결기구 상설서기국이 라오스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계단식 침략전쟁확대책동을 규탄하며 3월 6일부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 성명을 지지하여 성명.

1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를 인도신문 《마드햐프라대쉬크로 니클》이 실음.

18일 캄보쟈에서 미제의 직접적인 사촉과 배후조종을 받은 우익세력들이 군사정변.

19일 하노이에서 월남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월남 주재 남부월남공화 특별대표부 및 월남조국전선 하노이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월남인민의 《전국반미투쟁의 날》 스무돐기념 경축대회 진행 ▶ 월남인민의 《전국반미투쟁의 날》 스무돐에 즈음하여 남부월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월남민족민주평화력량동맹 중앙위원회 및 남부월남공화림시혁명정부가 남부월남인민과 남부월남인민해방무장력에 반미구국투쟁을 더욱 강화할것을 호소하는 공동호소문을 발표 ▶ 민주독일의 에부푸르트에서 동서독일 회담 진행 ▶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 베이징 도착.

21일 재일본신문 《신합레》, 《스필라거》, 이라크주간지 《알 라쉬드》는 조선국민회결성 쉰세돐에 즈음하여 우리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조선민족운동의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의 위대한 선구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생애와 혁명활동을 소개.

22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를 쿠웨이트신문 《아흐바르 알 쿠웨이트》가 실음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아랍 《다르 알 타흐리르》출판사 총국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주신 대답을 파키스탄신문 《데일리 밀라트》, 인도신문 《스뮤제트 타임스》, 레바논신문 《알윰》이 각각 실음(로동신문) ▶ 민주월남 외교부와 남부월남공화 외무성이 라오스에서 침략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있는 미제의 책동을 규탄하여 성명.

23일 꾸바공산당기관지 《그란마》가 조선국민회결성 쉰세돐에 즈음하여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의 생애와 활동을 소개 ▶ 콩고(브)에서 미제와 그 주구 콩고(킨)모부뚜도당의 반혁명적국가정변음모를 분쇄 ▶ 캄보쟈왕국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베이징에서 미제가 조작한 캄보쟈에서의 반동적정변을 강력히 폭로규탄하고 조성된 위기로부터 나라를 구출하기 위한 5개항목선언을 발표하고 캄보쟈민족통일전선의 결성을 선포.

24일 중앙아프리카에서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느자코》회사를 국유화(조선중앙통신).

25일 민주월남정부에서 캄보쟈인민의 애국적투쟁을 지지하여 성명 ▶ 콩고로동당 전원회의에서 혁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전체인민을 무장시키기로 결정.

26일 재일본인민조선친선협회 라뜨나 뿌라지부에서 조선국민회결성 쉰세돐을 기념하는 모임을 가지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27일 아덴에 있는 에리트레아해방전선 전투원들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에 대한 연구모임을 가지고 그이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28일 미국무성이 아프리카에 대한 미제의 침략정책을 밝힌 이른바 《1970년대의 미국과 아프리카》라는 침략적인 《정책성명》발표 ▶ 리비아에서 30년동안 둥지를 틀고있던 영제국주의침략군이 완전히 쫓겨남.

30일 최근 끼쁘로스근로인민진보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성명을 발표하여 끼쁘로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조.

31일 수단에서 반혁명적국가정변음모를 분쇄한 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지지하여 하르툼인민들이 대중적인 시위진행 ▶ 프랑스공산당이 빠리에 있는 위. 이. 레닌박물관을 습격한 파쑈악당놈들의 만행을 규탄하여 성명.

## 4 월

1일 버마신문 《뻬뚜재》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라는 표제밑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그이의 전기 《김일성전》의 서문을 실음.

2일 캄보쟈왕국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 친왕이 인도지나 문제에 대한 유엔의 간섭을 반대하여 성명 ▶ 에꽈도르 수도 학생들이 미제의 사상문화적침투의 도구인 《에꽈도르민족문화회관》을 습격.

4일 캄보쟈왕국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캄보쟈인민들에게 무장을 잡고 항쟁군에 참가할것을 호소.

5일 국제학생동맹 서기국이 남조선인민들의 4월인민봉기 열돐에 즈음하

이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과 학생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할것을 산하단체들에 호소 ▶ 남부월남학생 6만명이 동맹휴학에 돌입 ▶ 필리핀 대학생들과 로동자 2천명이 강력한 반미반정부 시위.

6일 아련의 수도 까히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문화회관 개관 ▶ 세계직련이 5.1절에 즈음하여 전세계근로자들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호소.

8일 인도네시아신문 《와르따하리안》 《조선이 낳은 20세기의 영웅, 김일성전 제1부》라는 큰 표제밑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김일성전》영문판 제1부를 소개.

11일 아세아, 아프리카 법률가회의 집행위원회 상설서기국이 캄보쟈의 우익 반동무리들을 사촉하여 정변을 일으킨 미제를 규탄하고 캄보쟈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여 성명 ▶세계직련, 국제아랍로조련맹, 전아프리카로조련맹 라틴아메리카 근로자통일로조상설대회 대표들이 뻬라하에서 회의를 열고 6월 5일을 아랍나라인민들과의 련대성의 날로 결정.

12일 캄보쟈왕국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인도지나인민들에게 친선적으로 대하는 모든 정부와 인민들에게 캄보쟈 우익반동정권과 외교적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및 기타 관계를 단절하거나 관계를 가지지 말것을 요구하여 서한.

13일 남부월남공화 외무성과 월남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가 캄보쟈우익도당이 캄보쟈에 거주하고있는 월남공민들에게 류혈적인 학살만행을 감행한것을 규탄하여 각각 성명.

1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기 《김일성전》프랑스어판 제1부를 프랑스의 빠리에 있는 출판사 《전 아프리끄》에서 출판 ▶ 이라크신문 《바그다드 옵써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쉰여덟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천재적로작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 독재문제에 대하여》를 전문 실음, 파키스탄조선청년친선문화협회《김일성수상로작연구위원회》에서 월간 불레찐 《천리마》제1호를 발간.

18일 민주월남정부와 남부월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가 캄보쟈에서 사는 월남공민들에 대한 론놀도당의 학살만행을 규탄하여 성명.

19일 꾸바혁명정부가 꾸바혁명무력이 오리엔때주 해안에 기여든 무장한 미제고용병악당을 소멸하였다고 발표.

20일 독일의 공산당 상무위원회가 이 당 사무소를 습격한 파쑈분자들의 테로행위를 규탄하여 성명.

21일 웨. 이. 레닌탄생 100돐 기념경축회 모스크바에서 진행.

23일 팔리녀자고등사범학교 학생들이 영광스러운 항일유격대창건 서른여덟돐을 경축하는 모임을 가지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 캄보쟈왕국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캄보쟈인민들과 반동군병사들에게 캄보쟈민족통일전선을 적극 지지하며 반역자들에게 총부리를 돌릴것을 호소.

24일 감비아에서 공화국을 선포 ▶ 캄보쟈, 라오스, 남부월남공화, 민주월남 인민대표단이 라오스와 월남 및 중국국경지대에서 인도지나의 현사태와 공동의 원쑤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인도지나 3개국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공동선언발표(27일).

2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 령도하신 조선인민의 항일유격대 창건 서른여덟돐을 기념하여 쎄일론 인민조선친선협회《김일성동지의 혁명적로작 연구 및 출판쎄일론위원회》, 파키스탄민족학생련맹, 전인도조선친선협회 서부벵갈주지부, 남부예멘 안전군 군관 및 병사, 이라크농민조합총동맹, 팔레스티나학생들의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성원들(5월 2일) 이 경축집회를 가지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편지 채택, 월남 외교부대변인이 캄보쟈우익반동들에 대한 미제의 무기공급을 규탄하여 성명.

27일 쏘련에서 인공지구위성 《꼬쓰모쓰—336》호로부터 《꼬쓰모쓰 343》호에 이르는 8개의 인공지구위성들을 한꺼번에 쏴올림.

28일 일본사회당 위원장 나리다도모미, 국민운동국장 이또시게부, 조선문제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따꾸쯔네히꼬들이 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사업을 재개할것을 요구하는 제의서를 일본당국에 냄. ▶ 도미니까 근로자들이 미제의 사상문화침투의 도구인 《도미니까—미국문화회관》에 걸린 미국놈기발을 불태워 버림 ▶ 미제의 오끼나와 강점을 반대하는 《오끼나와의 날》에 즈음하여 일본 전국에서 수십만군중이 집회와 시위로써 1970년도의 첫 대규모적인 반미 반정부 통일행동을 벌림 ▶ 중국 정부에서 인도지나인민들의 수뇌자회의 성과에 지지를 표명하여 성명 ▶이딸리아에서 생활상 권리를 위해 근로자들이 독점자본의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여 전국적 총파업에 궐기.

29일 팔레스티나 민족해방운동 산하 《알 아씨파》유격대가 하루 동안에 10차례의 전투를 진행하여 이스라엘침략자들을 족침.

## 5 월

1일 일본에서 1,700여만 근로자들이 미일반동들의 침략정책과 독점자본의 전횡을 반대하여 집회와 시위 ▶미국의 프린스톤종합대학의 2천 300명의 대학생들이 캄보쟈에 대한 미제의 무력침공에 항의하여 시위 ▶소말리아최고혁명리사회와 소말리아정부가 전체근로자들에게 새사회 건설을 위해 떨쳐나설것을 호소 ▶민주월남정부와 월남조국전선 중앙위원회가 인도지나인민들의 수뇌자회의를 지지하여 선언 발표 ▶캄보쟈에 대한 미제침략을 규탄하여 뽈스까정부, 독일민주주의공화국정부, 로므니아정부, 미국공산당 전국위원회, 프랑스공산당, 이딸리아공산당정치국, 영국공산당 집행위원회가 각각 성명발표.

2일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 민주월남정부, 남부월남공화림시혁명정부(5월3일), 남부월남민족해방전선, 월남민족민주평화력량 동맹이 미제가 캄보쟈를 침공함으로써 침략전쟁을 전인도지나에로 확대하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 미국 각지 청년들이 캄보쟈에 대한 미제의 무력침공에 항의하여 시위.

4일 쏘련, 중국, 알바니아, 웽그리아(5일), 로므니아(5일) 정부가 캄보쟈에 대한 미제의 무력침공을 규탄하여 성명.

5일 에리트레아해방전선이 조국광복회 창건 서른네돐에 즈음하여 기념집회를 가지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 캄보쟈왕국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캄보쟈민족통일전선의 정치강령을 발표하고 캄보쟈민족통일전선 령도하의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의 수립을 선포 ▶미국에서 170개 대학학생들이 캄보쟈에 대한 미제의 군사적침략에 항의하여 동맹휴학, 학생들이 미제침략군 병영과 군용차를 불태워버림.

6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전문을 쎄일론 《자나디나》가 실음 ▶ 몽골과 체스꼬슬로벤스꼬 정부가 캄보쟈에 대한 미제의 무력침공을 규탄하여 성명 ▶쏘련과 체스꼬슬로벤스꼬가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7일 캄보쟈 반동군 6개 대대의 장교들과 병사들이 무기를 가진채 민족해

방군대렬에 편입.

8일 칠레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나라의 정치정세와 당의 과업을 토의함.

9일 미국 워싱톤에서 10만명의 청년학생들이 미제 무력의 소굴인《백악관》으로 몰려가 경찰놈들과 격투를 벌리면서 닉슨도당을 단죄.

10일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가 미제와 외교 관계를 끊음 ▶ 캄보쟈민족통일전선령도하의 왕국민족련합정부는 《망명정부》가 아니라 캄보쟈의 유일한 합법적정부라는것을 재천명하여 성명발표.

11일 3대륙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이 미제국주의자들이 캄보쟈에 대한 강도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함으로써 인도지나전역에로 침략전쟁을 확대하고 있는것을 단호히 규탄하여 성명.

14일 아랍신문 《알 아호람》이 《조선은 20세기의 영웅을 낳았다》라는 표제밑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에찬 전기 《김일성전》제1부를 소개 ▶ 우루과이청년들이 미국놈 항공회사를 습격 파괴 ▶ 핀란드조선친선협회에서 핀란드방문 조선로동당대표단 환영모임을 가지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수상님께 드리는 편지 채택.

15일 소말리아에서 식민주의나라들의 회사와 은행들을 국유화 ▶ 리비아와 모리따니 정부가 팔레스티나, 아프리카, 동남아세아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지지하여 공동성명 발표.

16일 세계민주청년련맹 집행위원회회의 21일까지 진행, 회의에서 《미제를 남조선으로부터 몰아내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과 청년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광범한 련대성 깜빠니야》를 조직할것을 호소하는 조선문제에 관한 결정을 채택.

17일 꾸바의 각지에서 꾸바어선들을 격침하고 어민들을 랍치해간 미제의 해적행위를 규탄하는 군중집회와 시위 진행 ▶ 인도정부가 인도의 방갈로르, 하이다라바드, 라크노우, 프트나 및 트리반트룸에 둥지를 틀고있던 미제의 사상문화침투의 도구인 《문화쎈터》를 폐쇄 ▶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가 라오스에 대한 미제의 폭격과《계단식》 전쟁확대 책동을 규탄하여 성명.

18일 우루과이에서 애국적무장인원들이 수도에 있는 8개의 미제독점회사와 은행들을 습격.

19일 까히라에서 미제침략을 반대하여 싸우는 라오스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국제회의 진행 ▶ 미제에 랍치되였던 꾸바어부들의 귀국을 환영하여 아바나에서 군중집회 ▶ 싱가포르신문 《남양상보》와 《에코노믹 타임스》(5월 19일)가 《조선은 20세기 영웅을 낳았다—김일성전》이란 표제밑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기 《김일성전》을 소개.

20일 잠비아신문 《잠비아메일》이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을 실음 ▶ 중국공산당 모택동주석이 《전세계 인민들은 단결하여 미제침략자들과 그의 모든 주구들을 타승하자!》라고 성명.

21일 중국의 베이징에서 미제를 반대하는 세계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수십만 근로자들의 군중대회 진행.

22일 서부베를린사회통일당 제2차대회 24일까지 진행.

23일 미국 죠지아주 아틀란타에서 1만명의 흑인들과 백인근로자들이 미제의 인도지나침략과 인종차별을 반대하여 시위 ▶ 일본인민들이 침략적인 미일《안보조약》분쇄전국통일행동월간을 설정하고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궐기.

25일 캄보쟈왕국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 친왕이 민주월남을 친선방문 ▶ 수단정부가 4개의 영제국주의 독점회사를 비롯한 많은 외국은행들을 국유화.

26일 수단정부가 미영독점체의 보험회사를 비롯한 35개의 외국보험회사의 활동을 중지시킴 ▶ 쏘련레닌공청제16차대회가 30일까지 진행, 대회에서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이 연설.

28일 리비아인민들이 리비아의 휠러스공군기지에 있던 6천여명의 미제침략군놈들을 완전히 몰아냄 ▶ 오지리공산당 제21차대회 30일까지 진행.

30일 쏘련에서 공부하는 라틴아메리카 류학생들의 《김일성동지로작 및 혁명활동력사연구소조》성원들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 독재문제에 대하여》발표 세돐에 즈음하여 로작 발표모임을 가지고 그이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31일 쎄일론에서 통일전선정부 수립.

## 6 월

1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을 버마잡지《뻬뚜제》 6월호가 게재 ▶ 쏘련에서 두 비행사가 탄 우주비행선《쏘유즈—9》호를 발사 ▶ 세계직련서기국과 세계민청뷰로가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탄압책동을 중지하고 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보장할것을 일본반동당국에 항의.

2일 알제리민족해방전선당과 아랍사회부흥당이 공동콤뮤니케에서 강점당한 아랍땅을 해방하는 유일한 길은 무장투쟁이라고 지적.

6일 카나다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인도지나로부터 미제침략군을 당장 철거시킬것을 요구하는 대중운동을 광범히 벌릴데 대한 결의채택.

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을 네팔신문 《너야써마지》가 련재 ▶ 세계직련 서기국이 미제를 남조선으로부터 철거시키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는 운동을 벌릴데 대하여 전세계 로동자들에게 호소.

10일 남부윁남공화 외무성이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여 성명.

11일 꾸바에서 800만톤 사탕생산고지를 승리적으로 점령.

13일 일본전국에서 수십만의 청년학생들이 침략적인 미일《안보조약》의 폐기를 요구하여 집회와 시위.

14일 수단혁명리사회는 10개의 실업회사들과 주요공장들을 국유화.

16일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을 네팔신문 《마뜨리 푸미》가 련재.

19일 3대륙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은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대중적운동을 벌릴것을 호소.

21일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전문을 레바논신문 《알 부하리르》가 그이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련재 ▶ 일본전국 236개소에서 수십만 인민들이 《일미안보조약》을 폐기하라!》고 절규하면서 집회와 시위.

23일 일미 《안보조약》의 폐기를 요구하여 일본본토의 1천 200개소에서 167만인민들이 《일본력사상 최대규모의 통일행동》으로 집회와 시위, 수십만 로동자들 파업, 오끼나와에서 6만여명이 궐기 ▶ 캄보쟈민족해방군이 프놈펜 20키로메터 지점에로 육박.

24일 바그다드에서 이라크조선친선협회결성대회를 가지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가 조선인민에 대한 미제의 침략적죄행을 단죄하여 성명 ▶ 전아프리카로조련맹, 국제아랍로조련맹이 《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하여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전투적인 련대성

을 표시하여 각각 성명.

25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에 대한 남부예멘인민공화국 주재 소말리아민주청년조직의 연구모임에서 그이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을 비팔신문 《꽈샤파르리카》가 련재 ▶중국 베이징에서 10만군중의 참가밑에 조선조국해방전쟁 20주년을 기념하며, 미제국주의자들의 대만강점을 규탄하는 군중대회 진행, 대회에서 우리 나라 대표단단장이 연설, 26일 상해에서도 진행.

30일 캄보쟈왕국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미군철수》라는 기만적구호밑에 캄보쟈침략전쟁을 더욱 확대하려는 미제의 흉악한 책동을 규탄하여 성명.

## 7 월

1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을 쎄일론신문 《타임스 오브 쎄일론》이 실음 ▶남부월남민족해방무장력 총사령부가 1970년 상반년기간에 미제침략군과 추종군 7만명을 포함한 적군 약 23만명 소멸, 비행기 4,200대 격추파괴, 군용차 1만대를 파괴한 전과를 발표 ▶라오스애국군대가 1970년 상반년기간에 근 1만 2천여명의 적을 소멸, 각종무기 6천 500자루와 무전기 140여대 로획, 군용차 260여대 파괴로획, 비행기 300여 대를 격추 파괴하였다고 보고 ▶캄보쟈민족해방군이 5~6월 두달동안에 미제침략군 1만 2천여명을 포함한 적 2만 5천명 소멸, 군용차 2천여대, 비행기 350대, 함선 15척을 각각 파괴 ▶미국에서 1970년 상반년기간에 147만명이 생활상권리를 위하여 파업에 궐기.

2일 일본에서 《김일성전》발간 한돐을 기념하여 일본의 아이찌대학생들이 특별 강연회를 가지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채택.

3일 일본의 민주주의법률단체들이 재일조선학생들에 대한 일본극우익불량학생들의 집단폭행을 규탄하여 공동으로 성명.

4일 리비아에서 미제독점회사를 비롯한 모든 외국석유판매회사들을 국유화.

9일 모리따니청년들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수상로작연구소조》를 결성하고 그이께 드리는 편지채택 ▶파키스탄신문《돈》이 남조선 통일혁명당의 강령과 선언을 게재.

11일 버마련방《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가 남조선혁명과 조선의 통일에 대한 연구모임을 가지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13일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를 인도신문《아므리타 바자르 파트리카》, 레바논신문《알 무하리르》가 각각 실음 ▶오스트랄리아에서 70년래 최대 규모의 전국적인 총파업.

14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에 대한 남부예멘인민공화국 아덴시 샤이크 오스만지구 학생들의 연구모임에서 그이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1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발표하신 공화국정부정강《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를 이라크신문《알 무즈타마》, 레바논신문 《알 무하리르》가 각각 실음 ▶몽골의 울란바따르에서 6.30—7.15기간에 조선상품전람회 진행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제9차대회 19일까지 진행, 회의에서는 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킬데 관한 결의채택 ▶영국 항만로동자들이 생활상 권리를 위하여 1926년이래 최대규모의 파업.

16일 라오스애국군대가 1964년 5월 17일이래 미제침략군 비행기 1천 500대 격추 ▶쎄일론정부가 제국주의석유회사의 마지막 발판인 외국석유회사 3개를 국유화.

17일 뽀르뚜갈식민지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제1차 국제회의 로마에서 진행.

19일 남부예멘 1도사아브날라초급중학교 교원들과 파키스탄조선청년친선문화협회 《김일성수상로작연구위원회》성원들이 그이께 각각 편지를 드림. ▶버마잡지 《뻬뚜쩨》가 남조선 통일혁명당의 강령과 선언을 실음 ▶프랑스의 베르사이유에서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인도지나근로자들과 인민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계직맹회의 진행.

20일 칠레신문 《울띠마 오라》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을 소개.

22일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에서 《남조선정세와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 대하여》 부분을 수리아신문 《알사우라》가 그이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실음 ▶미국통신 《리버레이숀 뉴스 써비스》가 조선에 대한 미제의 100여년 간의 피묻은 침략력사를 폭로규탄.

23일 미국의 150개 탄광의 탄부들이 생활상 권리를 위하여 파업.

25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를 탄자니아신문 《울화냐카지》가 실음 ▶세계문화대회문헌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령도하에 조직전개된 조선인민의 항일무장투쟁》을 아련신문 《워타니》와 레바논신문 《알 욤》이 실음.

26일 알제리의 수도에서 《알제리조선친선련대성협회》를 결성.

2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를 수리아신문 《알 바아스》가,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을 아련신문 《알 아흐람》이 각각 실음 ▶웽그리아통신 불레찐이 남조선 통일혁명당의 강령과 선언을 실음.

2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를 수리아신문 《알 사우라》가 실음 ▶남부월남인민해방무장력이 미제침략군의 공군기지—츄라이에 대한 공격을 벌리여 미제 비행사와 장교들을 포함하여 500명 살상하고 각종 비행기 150대 파괴.

2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를 쎄일론신문 《사바사》가 실음 ▶혁명의 위대한 수령《김일성수상의 로작 및 혁명활동략력연구소조》를 다오메청년들이 결성모임에서 그이께 드리는 편지 채택.

30일 인도신문《패트리오트》가 남조선 통일혁명당의 강령과 선언을 실음.

## 8 월

1일 월남민주공화국 외교부대변인과 남부월남공화외무성이 미제가 조선에서 새전쟁도발책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것을 규탄하여 각각 성명 ▶《캄보쟈민족통일전선의 소리》방송국이 크메르인민에게 보내는 첫 방송을 시작.

7일 체스꼬슬로벤스꼬주재 아프리카학생동맹 제8차대회에서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새전쟁도발책동을 규탄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는 조선에 관한 결의 채택.

9일 일본로동조합총평의회 제40차정

기대회에서 《조선에서의 미국의 군사도발에 항의하며 재일조선인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는 결의》를 채택 ▶제16차 원수폭금지 세계대회가 일본에서 7월 30~8월 9일사이에 진행.

1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를 쎄일론신문 《신할레》, 《자나싸디》, 《란카디퍄》, 아련신문 《알 아흐바르》, 수리아신문 《알 사우라》, 탄자니아신문 《긴디얀 엑스프레스》, 《웨스턴타임스》, 리비아신문 《알 호르리에》가 각각 실음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 통신 발행시작.

11일 리비아에서 혁명적인 현정권을 전복하려던 30여명의 악당들을 재판하고 응당한 징벌을 가함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가 론놀—시리크 마타크도당에 의하여 조작되였거나 조인된 《법령, 결정, 조약 및 협정》 등을 모두 비법적이며 무효라고 성명.

1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발표 세돐에 즈음하여 《김일성수상로작연구소조》와 인도조선친선협회성원들이 로작연구모임을 가지고 그이께 드리는 편지채택.

1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발표세돐에 즈음하여 《에리트레아 학생들의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에서 연구발표모임을 가짐.

17일 칠레조선문화협회 위원장이며 칠레국회 의원인 까롤로스 모랄레스가 국회에서 칠레가 미제의 조선침략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 ▶중국과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간에 중국이 캄보쟈에 무상으로 군사원조를 줌데 대한 협정 조인 ▶쏘련에서 행성간 자동정류소 《웨네라—7호》를 발사.

18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에 대한 남부예멘인민공화국 1도 비르 아흐마드지구학생들의 연구모임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3대륙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이 《미국흑인들의 투쟁의 날》(8월 18일)》에 즈음하여 미국흑인들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할것을 호소.

19일 부룬디정부가 미제와 서방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영화수입을 금지.

2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인로작 《5대륙의 진보적기자들은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들고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자》를 이라크주간신문 《알 무즈타마》가 실음.

2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핀란드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칸산 우우티세트》를 위하여 핀란드민주청년동맹대표단이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 전문을 스웨리예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및 정부기관지인 《아프론 블라테트》가 실음.

25일 오스트랄리아에서 100만명의 로동자들이 반동정부의 군사비지출의 증대와 착취를 반대하여 전국적으로 총파업.

26일 수단에서 개인소유의 신문사들과 통신사들을 국유화.

2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 《5대륙의 진보적기자들은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들고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자》를 수리아신문 《알 사우라》가 실음.

28일 팔레스티나해방인민전선이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책동을 규탄하여 성명.

29일 탄자니아에서 최초의 국립종합대학이 창설.

3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핀란드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칸산 우우티세트》를 위하여 핀란드민주청년동맹대표단이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 전문을 프랑스잡지 《아프리끄아지아》가 실음.

## 9 월

1일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 공부하는 3대륙학생들의 《김일성동지로작 및 혁명활동연구소조》 성원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의 연구모임을 가지고 그이께 드리는 편지채택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가 우리 나라 정부의 8월 29일부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하여 조선문제를 토의하는 유엔총회에 조선대표를 무조건 초청할것을 요구하여 성명 ▶이라크기자협회창설준비위원회에서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책동을 규탄하여 성명.

4일 윁남민주공화국 외교부에서 8월 29일부 우리 나라 정부 성명을 지지하여 성명.

7일 수단의 지식인들이 《김일성수상의 사상연구소조》결성모임을 가지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각하께 드리는 편지를 보냄 ▶남부윁남공화 외무성이 조선에서의 미제의 새로운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규탄하여 성명.

8일 모리따니조선친선협회에서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스물두돐에 즈음하여 중국 베이징방송이 특별방송을 개시 (10일까지) ▶ 바마코방송이 특별방송 진행.

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수상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두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형제당과 혁명조직지도자들, 각국지도자들, 투쟁조직들과 국제기구들, 친선단체들과 로작연구소조 및 그 성원들이 축전과 편지 드림.

1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 《5대륙의 진보적기자들은 혁명의 필봉을 높이들고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자》를 탄자니아신문 《알 하다프》가 실음.

11일 로므니아의 삐떼슈띠시에 있는 《미하이비떼아꾸》명칭 군관학교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두돐기념 경축집회를 가짐.

12일 프랑스공산당이 빠리에 조선선전관을 꾸리고 《천리마조선》사진전람회를 조직 ▶콩고인민공화국 베뚜성냥공장에서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규탄하는 항의군중집회를 가짐, 닉슨도당에게 보내는 항의문을 채택 ▶쏘련에서 자동정류소 《루나—16호》발사(20일 달에 있는 암석표본을 가지고 지구로 돌아옴)

15일 민주독일 외무성이 우리 나라 정부의 8월 29일부 성명을 지지하여 성명 ▶미제가 사촉한 반동세력에 의하여 요르단에서 군사정변 ▶미국 대자동차독점체인 《제네랄모터스》 회사 로동자 40만명이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파업, 16일이 투쟁을 지지하여 카나다에서 2만 7천명의 로동자들이, 미국에서 50만명의 철도로동자들이 련대성 파업.

1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미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전세계 기자들의 파업에 대한 국제회의》가 평양에서 있은지 한돐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말리기자동맹 총서기 빠빠하이다라가 편지를 드림 ▶버마 조선친선협회가 유엔총회 제25차회의에서 미제의 강요에 의하여 이른바 《조선문제》가 또다시 토의된것과 관련하여 사무총장 우탄트에게 항의서한을 보냄.

17일 미제의 사촉밑에 요르단반동정권이 팔레스티나유격대에 전면적공격을 시작함 ▶남부윁남공화림시혁명정

부가 남부월남문제에 관한 10개항목의 전면적해결책을 구체화한 성명을 발표.

1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 《5대륙의 진보적기자들은 혁명의 필봉을 높이들고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자》를 스웨리예와 이라크의 《알 줌후리아》 출판사, 비마의 모눈출판사, 파키스탄의 진보출판사들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 김일성동지께 《미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전세계 기자들의 과업에 대한 국제회의》가 평양에서 있은지 한돐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국제기자동맹 서기국이 편지를 드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반미세계기자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축하연설 《5대륙의 진보적기자들은 혁명의 필봉을 높이들고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자》의 전문을 콩고인민공화국 신문 《브라자빌》이 실음 ▶ 세계직련 서기국, 국제기자동맹 서기국, 국제민주녀성련맹이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한지 25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미제의 침략책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각각 발표 ▶ 캄보쟈민족해방군이 지난 여섯달동안(3.18—9.18)에 미제침략군과 남부월남괴뢰군 3만 8천명을 포함한 적 약11만명 소멸, 령토의 3분의 2 해방 ▶리비아에서 혁명의 전취물을 보호할 《인민항쟁대》창설.

19일 콩고《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소조》성원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 《5대륙의 진보적기자들은 혁명의 필봉을 높이들고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자》에 대한 연구모임을 가지고 그이께 드리는 편지채택.

20일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 부수상 겸 국방상과 공보및선전상, 내무농촌개혁및협동조합상들이 프놈펜괴뢰정권내의 관리들과 사무원, 병사 및 경찰들에게 캄보쟈민족통일전선의 편으로 넘어와 반미구국투쟁을 벌릴것을 호소 ▶ 미국 뉴욕에서 20여만의 흑인들이 인종차별을 반대하여 대중적시위.

21일 알제리의 수도 알제에서 제7차 알제국제시장이 열림(27일 폐막) ▶미국의 뉴욕시 주민들이 닉슨도당의 침략정책을 규탄하여 《미국과 이스라엘은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을 그만두라!》, 《유태복고주의자들에게 그 어떤 지원도 주지 말라!》라는 프랑카트를 들고 항의시위.

22일 유엔총회 제25차회의에서 여러나라 대표들이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미제의 침략도구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당장 해체하라고 요구.

23일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와 월남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에서 팔레스티나유격대를 공격한 미제와 그 주구들의 범죄행위를 규탄하여 각각 성명, 이와 관련하여 파키스탄아세아아프리카단결기구 라왈핀디위원회에서 미제를 폭로규탄하는 군중집회를 가짐

26일 국제광부직업련맹 서기국과 국제학생동맹 전인도조선친선협회가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서 완전히, 당장 물러갈것을 요구하여 각각 성명 ▶콩고(브)에서 우리 나라의 원조로 건설된 베뚜성냥공장 준공.

27일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쏘일론련대성위원회가 유엔총회제25차회의에서 또다시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토의하는것과 관련하여 전세계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들에 보내는 호소문 발표 ▶전쟁미치광 닉슨이란놈이 구라파행각에 나섬.

28일 아랍련합공화국 대통령 나쎄르 52세를 일기로 서거.

29일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의 침략전쟁확대책동을 폭로규탄하여 성명 발표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 본격적으로 침투하기 위한 또 하나의 범죄적문건인 《한일조세협정》에 관한 《비준서》를 교환 (10. 29부터 효력발생)

30일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5대륙의 진보적기자들은 혁명의 필봉을 높이들고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자》를 아련신문 《알 아흐바르》, 레바논신문 《알 사아브》, 파키스탄신문 《뉴 타임스》, 수리아신문 《알 사우라》, 이라크신문 《알 무즈타마》, 인도신문 《웨스턴 타임스》, 레바논잡지 《알리와》, 수리아신문 《알 바아스》, 인도신문 《라지스탄 클로니클》, 《엠 피클로니클》, 《웨스턴 클로니클》이 각각 실음 ▶《아세아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주간》(9월 30일—10월 6일)개시, 3대륙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이 호소문을 발표.

## 10 월

1일 아련 대통령 가말 아브델 나쎄르의 장의식 까히라에서 진행 ▶가말 아브델 나쎄르대통령 장의식에 참가한 아랍국가 수반들과 정부대표들이 모든 형태의 제국주의에 대처하여 더 힘차게 앞으로 전진할것을 맹세하여 공동성명 ▶로므니아공산당과 일본공산당 대표단간의 공동콤뮤니케 도꾜에서 발표 ▶이라크수도 바그다드에서 국제시장개막.

2일 민주월남 외교부대변인 우리 나라에 대한 도발행동을 감행하고 있는 미제를 규탄하여 성명.

3일 국제운수, 항만 및 어로로동자직맹서기국이 남조선을 침략정책실현을 위한 군사기지로 전변시킨 미제침략자들을 준렬히 단죄하여 성명 (조선중앙통신) ▶세계평화리사회가 《월남, 라오스 및 캄보쟈인민들과의 련대성주간》를 기념할것을 호소 ▶남부월남공화림시혁명정부 대변인이 조선에서의 미제의 군사도발행위를 규탄하여 성명.

4일 볼리비아에서 우익반동들이 군사정변.

6일 중국정부와 민주월남정부간에 중국이 월남에 경제기술적원조를 줄데 대한 협정과 군사원조를 줄데 대한 의정서 조인 ▶볼리비아의 로동자, 학생들이 오루로에 있는 《미공보원》사무소를 들이침.

7일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 공부하고 있는 3대륙학생들의 《김일성동지로작및혁명활동연구소조》성원들이 쁘라하에서 그이의 천재적로작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에 대한 연구토론회를 가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 미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전세계기자들의 과업에 대한 국제회의가 평양에서 있은지 한돐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국제기자동맹 서기국이 성명,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전투적인 련대성을 표시 (조선중앙통신) ▶원수폭금지오끼나와협의회가 오끼나와에 유독성화학물질을 끌어들인 미제를 규탄 ▶미제의 두목 닉슨놈이 정치적모략인 월남문제에 관한 《5개항목제안》이라는것을 늘어놓음 ▶볼리비아에서 반동적군사정권을 전복하고 새정권을 세움.

8일 로므니아와 민주독일간의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가조인 (조선중앙통신).

9일 세계민주청년련맹뷰로와 알제리에 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중근동나라 학생들의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 철거를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청년들과의 련대성위원회》가 미제의 남조선 강점 스물다섯해와 관련하여 전쟁두목 닉슨놈에게 항의전문을 보냄 ▶미국공산당 총비서 거스 홀이 전쟁두목 닉슨놈의 인도지나에 관한 《5개항목 평화제안》의 허위적인 기만술책을 폭로규탄.

10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세계의 여러 나라 형제당, 혁명적투쟁조직들과 단체들, 국제기구들과 단체들,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들과 성원들이 축전과 편지를 드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들을 일본말로 번역

하여 묶은 《김일성저작집》제1권을 조선로동당창건 스무다섯돐에 즈음하여 일본의 《미라이샤》출판사가 출판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정치국 및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가 미제와 그 주구 론놀—시리크 마타크반역도당이 조작한 《공화국》의 정치적기만행위를 폭로규탄하여 공동성명, 중국정부가 이를 지지하여 성명 ▶희랍과 토이기 해안선일대에서 침략적나토의 지상, 공중 및 해상군사연습(디프 엑쓰프레스)개시.

12일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라오스독립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타승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할것을 라오스인민과 그 무장력에 호소.

13일 중국정부와 카나다정부사이에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을데 대하여 합의 ▶레바논에서 사이브 살람의 새정부 구성 ▶와르샤와조약참가국 7개나라 군대들의 대규모적합동군사연습이 진행(18일까지).

14일 민주월남외교부가 인도지나문제에 관한 미제침략자들의 《평화를 위한 새제안》을 폭로규탄하여 성명 ▶우루과이 전국각지 약 50만명의 로동자들이 미독재정권의 반인민적정책을 반대하여 총파업.

15일 아련에서 대통령선거 실시, 안워르 앗 사다트가 선거됨 ▶남부월남공화림시혁명정부가 미제와 론놀—시리크 마타크도당이 캄보쟈에서 벌려놓은 《공화국》조작놀음을 규탄하여 성명 ▶알제리전국혁명리사회 의장 후아리 부메디엔이 알제리전국경제 및 사회리사회회의에서 내외원수들의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농업혁명을 기어코 완수할것을 강조.

16일 뽈스까 국가쏘베트 위원장의 벌가리아방문에 관한 콤뮤니케 발표.

17일 프랑스근로자들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규탄하고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는 서명 수집운동 벌림 ▶일본전국각지에서 수십만의 국가기관 로동자, 사무원들이 일미《안보조약》의 폐기, 미제의 일본강점종식을 강력히 요구하여 총파업 ▶볼리비아의 오루로광산지구 광부들이 《꼬미볼》광업회사산하 기업소들을 습격점거하고 악질독점자본가놈들을 내쫓을것을 요구.

18일 리비아아랍공화국 혁명지도리사회 의장 겸 수상 모아메르 엘 가다피가 나라의 독립을 존중하는 친선적인 나라들과 호상관계를 발전시킬것을 강조.

19일 쯔시마해협일대에서 미제침략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도발적《합동해군훈련》을 벌림.

20일 기네독립절과 관련하여 진행된 모임에서 대통령세쿠 뚜레가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싸울것을 인민들에게 호소 ▶일본반동정부의 《방위청》이 일본군국주의의 흉악한 군사정책을 성문화한 이른바 《방위백서》를 발표 ▶ 쏘련에서 달방향으로 자동정류소 《존드—8》호를 쏘올림, 27일 예정된 지점에 돌아옴 ▶아르헨띠나 애국적무장인원들의 한 소조가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반동경찰놈들의 자동차 3대를 습격.

21일 소말리아 혁명승리한돐에 즈음하여 최고혁명리사회 위원장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가 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 《소말리아가 사회주의길로 나아갈것》이라는것을 선포 ▶일본에서 150만의 각 계층 인민들이 미제의 인도지나침략을 반대하며 일미《안보조약》페기를 위한 공동투쟁을 벌림.

23일 남부예멘에서 땅없는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주는 사업이 시작됨.

24일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스무돐기념 베이징시 군중대회 진행 ▶중앙아프리카정부에서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 및 남아프리카 인종주의자들과의 무역을 끊기로 결정 (로동신문) ▶칠레국회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 최종선거결과 쌀바도르 알옌데고쌘스가 당선됨(11월 3일 취임) ▶미제가 타이에서 도발적인 《세아토군사연습》소동을 벌림.

27일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쎄일론전국련대성위원회에서 미제가 유엔총회 제25차회의에서 또다시 《조선문제》의 비법적토의를 강요하고 있는것을 규탄하여 전세계 진보적 정당사회단체들에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 ▶아련 대통령 안워르 앗 사다트가 국제아랍로조와 아랍교원로조련맹 대표단들 앞에서 연설, 미제의 중근동침략정책을 규탄하고 강점당한 아랍령토해방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결의를 표명 ▶《세계청년들의 반제통일을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세계민주청년련맹 제8차대회 웽그리아의 수도 부다뻬슈뜨에서 열림 ▶리비아혁명지도리사회가 리비아에 있는 일체 제국주의자들의 보험회사들의 활동을 검열통제할데 대한 법령 발포.

28일 세계민주청년련맹 제8차대회 11월 4일까지 진행. 회의에서 조선에 관한 결의 채택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진행, 제10차 당대회를 1971년 4월 12일에 소집하기로 결정 (조선중앙통신) ▶월남에 관한 빠리회의 제90차회의, 남부월남공화림시혁명정부대표단이 미제의 전쟁두목 닉슨놈의 《평화제안》의 기만성을 낱낱이 폭로규탄 ▶베네수엘라에서 전국의 약 10만학생들이 미제의 간섭과 미독재정권이 채택한 《종합대학개편법》을 반대하여 동맹휴학을 단행.

29일 미제군용비행기가 쏘련령공을 침범한것과 관련하여 쏘련정부에서 항의성명 ▶미제의 전쟁두목 닉슨이 《선거》유세중 산호세 시민들의 강력한 반전시위에 된벼락을 맞음 ▶버마련방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지지위원회》가 남조선혁명가들에 대한 미제와 괴뢰들의 탄압만행을 규탄하여 성명.

30일 탄자니아에서 대통령선거진행 쥴리어스. 케이. 니에레레가 재선됨 ▶칠레에서 인민통일련합의 새 내각을 구성.

31일 뻬루정부가 미제의 《쎄르 데 빠스꼬》광업회사로부터 광산개발권을 박탈.

## 11 월

1일 까히라에 있는 팔레스티나 해방투쟁단체들과 사회단체들이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 소집에 즈음하여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팔레스티나련대성위원회를 결성 ▶이딸리아에서 80만근로자들이 처지개선을 위한 단체계약을 요구하여 파업.

2일 민주월남 외무성 대변인과 남부월남공화림시혁명정부 외무성 대변인이 재일조선공민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일본사또도당의 부당한 조치를 규탄하여 성명.

3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요지를 일본공산당기관지《아까하다》가 실음 ▶알제리에서 개인소유의 4개 랭동기제작회사들을 국유화한다고 발표(로동신문) ▶뉴욕에서 수천명의 흑인 로동자들과 학생들이 미제의 두목 닉슨도당의 인종주의적 탄압과 박해에 항의하여 파업과 동맹휴학을 벌림.

4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보고요지를 알제리신문 《엘 무쟈히드》가 실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보고내용을 이라크신문 《알 사우라》가

소개.

4일 세계직련에서 프랑코도당의 폭압통치를 반대하여 싸우는 에스빠냐로동자들에게 실제적인 지지를 줄것을 세계각국 근로자들과 직맹단체들에 호소하여 성명.

5일 3대륙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이 유엔은 조선에 관한 문제토의에 우리 나라 대표를 무조건 참가시켜야 한다고 성명(조선중앙통신) ▶페루인민녀성동맹이 수도 리마에서 새로 창설됨 ▶일본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요꼬스까항에 정박했던 미제침략군 핵잠수함 《토토그》호가 쫓겨남.

6일 탄자니아신문 《스탠다드》가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 개막소식과 조선이 공업농업국가로부터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였다고 보도 ▶중국정부와 이딸리아공화국정부간에 외교관계 수립.

8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보고전문을 중국신문 《인민일보》, 《해방군보》, 《광명일보》, 《베이징일보》가 그이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9일까지 전부 련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보고 요지를 스웨리예신문 《다겐스 뉴헤테르》가 실음.

9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보고내용을 이라크신문 《바그다드옵써버》가 소개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팔레스티나국가》조작음모를 규탄.

10일 리비아의 수도에서 열린 아.아인민단결기구 제9차회의에서 인도지나와 중근동문제, 아프리카의 민족해방운동에 관한 결의와 기타 일련의 결정 채택 ▶토이기학생들이 반미시위를 벌리고 미제의 아세아침략도구인 쎈토의 본부건물을 습격.

11일 남부웰남공화 외부성이 유엔에서 조선대표의 이른바 《조건부초청》에 관한 《결의안》의 강압통과를 규탄하여 성명.

12일 칠레정부가 꾸바와 외교, 령사, 통상 및 문화관계를 다시 설정 ▶로므니아 수도에서 뽈스까와 로므니아 사이에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새 조약조인.

13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보고요지를 버마신문 《보더타웅》이 실음 ▶아르헨띠나 여러부문 로동자들이 생활처지개선을 위하여 36시간 총파업 단행 ▶볼리비아정부가 미제독점자본가놈들로부터 원유채취권을 바람.

14일 일본 《재일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제8차총회》진행, 1년동안의 운동방침을 결정 ▶중국정부와 빠키스탄정부 사이에 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조인.

15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의 요지를 웽그리아신문 《마쟈르히를라쁘》가 실음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전기 《김일성전》프랑스어판 제1부의 내용을 프랑스공산당 중앙기관지 《유마니떼》가 옹근 한면에 걸쳐 소개 ▶칠레에서 동자원을 국유화하기 위한 특별정부로조위원회 창설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 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대회 진행(조선중앙통신) ▶브라질의 애국적무장인원들이 방송국을 습격하고 반정부 선전벌림.

16일 쁘라하에서 진행된 제4차국제방직, 피복, 피혁 및 모피공업로동자 직업련맹대회에서 조선근로자들 및 인민들과의 련대성에 관한 결의 채택(로동신문).

17일 칠레정부가 미제의 침략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에서 탈퇴하기로 결정.

19일 남부웰남공화 외무상의 벌가리아 방문과 관련한 콤뮤니케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 ▶벌가리아 수도 쏘피아에서 벌가리아와 로므니아사이에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새조약 조인.

20일 아련에서 미제가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최고민간방위리사회를 창설 ▶마로끄 민족해방전선이 마로끄에 있는 비밀군사기지를 당장 철페할것을 요구하여 성명 (로동신문).

21일 로므니아 당 및 정부대표단이 벌가리아 방문과 관련한 콤뮤니케에서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지지를 표시.

22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뻬일론신문 《포워드》, 《썬》 (11월 26일), 《데일리 미러》(11월29일)가 각각 실음 ▶중국정부와 쏘련정부사이의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 베이징에서 조인 ▶아프리카통일기구 특별각료리사회회의에서 11월 22일을《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전 아프리카의 투쟁의 날》로 설정.

23일 웽그리아사회로동당 제10차대회 진행, 28일 폐막 ▶쏘련정부와 민주독일외무성이 기네를 반대하여 무력침공을 감행한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을 규탄하여 성명.

24일 라오스아.아단결위원회가 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새로운 전쟁도발 행위들을 규탄하여 성명 ▶민주웰남외교부와 남부웰남공화외무성이 기네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한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을 규탄하여 성명.

25일 기네에 대한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의 무력 침공을 규탄하여 중국정부, 체스꼬슬로벤스꼬 외무성이 각각 성명.

26일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가 기네에 대한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의 침략행위를 규탄하여 성명.

27일 민주독일수도에서 프리드리히 엥겔스탄생 150돐경축회의 진행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정치국과 왕국민족련합정부가 북부웰남에 대한 미제의 야수적폭격과 인도지나에 대한 침략전쟁 확대를 규탄하여 성명.

28일 단마르크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인도지나에서 미제의 침략과 미국내 진보적력량들에 대한 놈들의 테로만행을 규탄하는 결의채택 ▶스웨리예의 스톡홀름에서 인도지나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국제회의 진행, 회의에서는 세계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과 선언 채택, 이 회의에 참가한 미국의 반전단체대표들이 조선에 관한 결의 채택.

30일 칠레에서 1971년에 모든 동광들과 개인은행들을 국유화하기로 결정 ▶남부예멘인민공화국이 나라이름을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고침.

## 12 월

1일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일본공산당 잡지 《세계정치자료》 12월상순호가 실음 ▶기네에서 뽀르뚜갈식민주의고용병들의 패잔병집단을 소탕 ▶캄보쟈의 프놈 펜에 있는 미국놈대사관이 폭발물 벼락을 맞음.

2일 미국신문 《가디언》이 20면에 걸쳐 우리 나라의 눈부신 발전을 소개하는 특간호를 발간 (로동신문) ▶베를린에서 와르샤와조약참가국 정치협상위원회 회의진행 ▶ 남부웰남의 사회단체가 남조선괴뢰군의 야수적인민학살만행을 규탄하여 콤뮤니케발표 ▶수리아에서 아흐메드 하띠브를 국가수반으로, 하페즈 아싸드를 수상으로 하는 새 정부구성(로동신문).

3일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의 요지를 웰남로동당기관지 《인민》과 신문《하노이머

이》가 실음 ▶ 미국의 좌익계출판사 《가디언》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전기 《김일성전》영문판 제1, 2, 3부를 출판 ▶ 우루과이애국적무장인원들이 반동적인 텔레비죤방송국을 습격파괴.

4일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련방회의에서 인도지나정세 및 근동정세와 관련한 결의채택.

5일 남부윁남의 라크 기아주에서 6천여명의 인민들이 반미반정부봉기를 일으켜 9개의 마을에서 적통치기관을 짓부심(17일까지) ▶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이른바《팔레스티나국가》조작음모를 배격.

6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수단신문 《더 수단 스탠다드》(12월 6일), 파키스탄신문들인 《마싸와트》(12월 10일), 《위터에트》(12월 12일)가 각각 실음.

7일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쏘련공산당 제24차대회를 1971년 3월 30일에 소집하기로 결정 ▶ 뽈스까와 서부독일이 《관계정상화의 기초에 관한》 조약체결.

10일 윁남로동당과 정부가 미제국주의자들이 윁남인민과 인도지나인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확대하려는 새로운 군사적모험을 꾸미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전국인민과 군대에 보내는 호소문 발표.

11일 우루과이애국적무장인원들이 미제의 통제하에 있는 《국제개발은행》지부를 습격.

13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수록한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을 버마잡지 《삐뚜꺼》가 실음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를 소개하는 글을 노르웨이공산당기관지 《프리헤텐》이 소개(로동신문) ▶ 중국공산당과 정부가 윁남로동당과 정부의 12월 10일부 호소문을 지지하여 성명.

14일 아련의 《중근동관찰》신문사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자립적민족경제》라는 표제밑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달성한 성과들을 소개하는 책을 단행본으로 출판 ▶ 쏘련 자동정류소 《웨네라—7》호가 약 3억 2천만키로메터의 거리를 120일간의 비행끝에 금성에 도달 ▶ 볼리비아에서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련대성 볼리비아 위원회》를 창설.

15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기 《김일성전》프랑스어판 제3부를 프랑스의 《젠아프리끄》출판사가 출판 ▶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왕국민족련합정부가 윁남로동당과·정부의 12월 10일부 호소문을 지지하여 성명.

16일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기념하여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라이프찌히에서 우리 나라 사진전람회 진행.

17일 남부윁남공화 외무성이 유엔총회 제25차회의에서 《조선문제》에 관한 《결의》를 비법적으로 통과시킨데 항의하여 성명 ▶ 쏘련정부가 윁남로동당과 정부의 12월 10일부 호소문을 지지하여 성명.

18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수상께 흥남항에 왔다가 우리 나라 의사들의 지성어린 치료를 받고 구원된 희랍선박《아기아 쏘피아》기관장 끼게라스 포티오스가 감사편지를 드림.

19일 우루과이공산당 제20차대회진행 ▶ 팡고(브) 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과 국가리사회가 윁남로동당과 정부의 12월 10일 호소문을 지지하여 성명.

20일 뽀르뚜갈령기네및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 까히라대표부가 미제와 그 주구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의 기네공화국에 대한 침략책동을 규탄하여 공보발표.

22일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팔레스티나련대성위원회》가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일련의 결정채택.

23일 남부윁남공화 외무성이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총련을 반대하는 파괴행위와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탄압행위를 감행하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24일 쏘련공산당과 쏘베트국가의 저명한 활동가인 니꼴라이 미하일로비치 슈웨르니크서거 ▶ 나이제리아조선인민친선협회 결성(조선중앙통신).

25일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 대변인이 유엔에서 조선에 관한 비법적인 《결의》를 날조한 미제를 규탄하여 성명 ▶ 리비아에서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은행을 비롯하여 모든 은행들을 국유화할데 대한 정령발표.

28일 인도 뉴델리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회관이 개설.

29일 버마조선친선협회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소조》 성원들이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 대한 연구모임을 가지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 윁남민주공화국 외교부 대변인이 남조선에서의 미제의 무력증강책동을 규탄한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의 성명을 지지하여 성명 ▶ 프랑스공산당 정치국에서 에스빠냐반동당국이 바스끄족애국자들에게 《사형》언도를 내린데 항의하여 성명.


조선중앙년감 (1971년판)

| | | |
|---|---|---|
| 발행소 | 조선중앙통신사 | 평양시 외성구역 오탄동 |
|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 평양시 외성구역 역전동 |
| 인 쇄 | 1971년 9월 9일 | 발행 1971년 10월 10일 |

ㄱ—14165 값 5원 50전